

晉州鄉校誌

晉州鄉校

晉州鄉校誌

晉州鄉校誌

1관 1쇄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 행 진주향교

주소 _52743 진주시 향교로 99-3(옥봉동)

전화 _055·742·3179

발 행 인 전교 심동섭

편집/인쇄 도서출판 사람과나무

등록 _제531-2006-15호(2006년 11월 29일)

주소 _52723 경남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3

전화 _055·752·8290

홈페이지 _<http://www.man-tree.co.kr>

©진주향교

ISBN 978-89-93264-72-2 93910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0375)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 이 책은 진주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孔夫子聖像



樓化風

晉州鄉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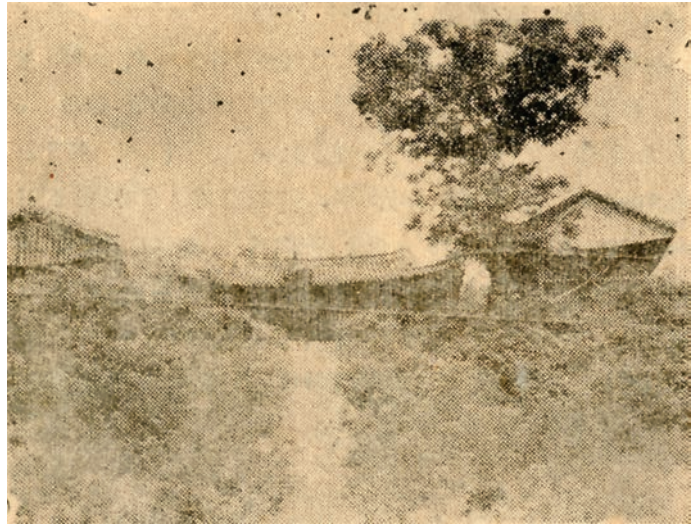


晉州鄉校誌

진주향교의 옛모습



진주향교 옛전경



1950년대의 진주향교
— 진주시 교육위원회 「진주의 고적과 명승」(1955. 10. 15)에서 발췌



측면에서 본 진주향교 옛전경



진주향교 대성전大成殿 (1910~1920년대)



진주향교 대성전 공포 (1910~1920년대)



진주향교 대성전 내부 (1910~1920년대)



진주향교 명륜당明倫堂 (1910~1920년대)



진주향교 명륜당 공포 (1910~1920년대)



진주향교 풍화루 風化樓 (1910~1920년대)



진주향교 대성전 동무의 처마 (1910~1920년대)

오늘날의
진주향교



대성전大成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내삼문內三門 전면前面



내삼문內三門 후면後面



명륜당明倫堂



사교당四教堂



풍화루風化樓 전면前面



풍화루風化樓 후면後面



동재東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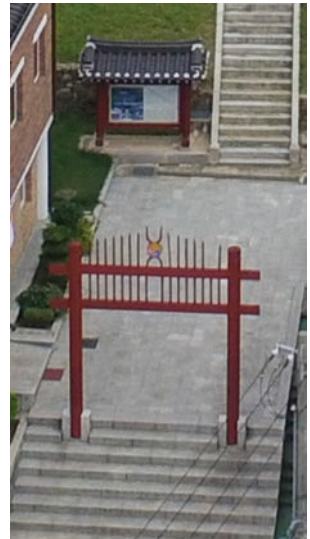
서재西齋



진주향교 晋州郷校 안버판



진주향교 晋州郷校 안버판(풍화루 앞)



홍살문



영남진주교궁이건사적비 嶺南晉州校宮移建事蹟碑 · 대소인원개하마비 大小人員皆下馬碑



진주시충효교육원 晉州市忠孝教育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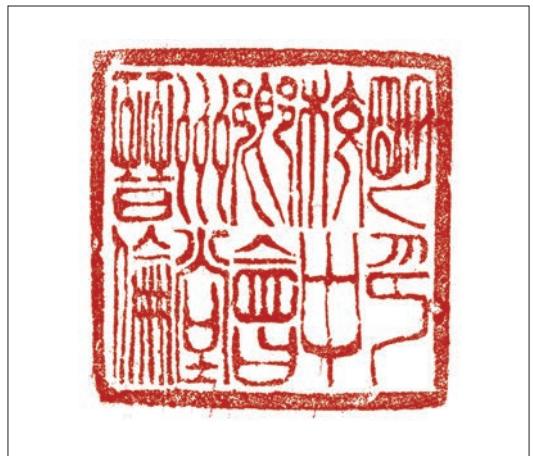
진주향교 인印



향교 철인



진주향교 전교



진주향교 명륜당회중인



진주시충효교육원장인



경남유교대학 직인(구)



경남유교대학 직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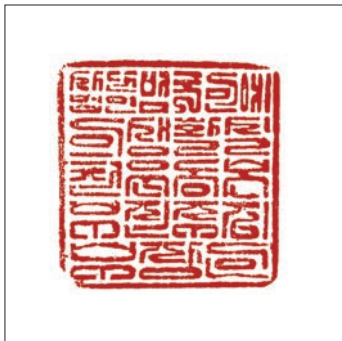
유도회진주지부장



성균관유도회진주지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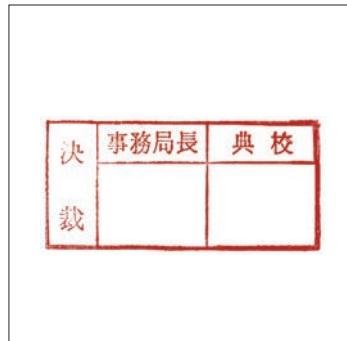
진주목향시추진위원회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진주지부장인



계 진주향교



결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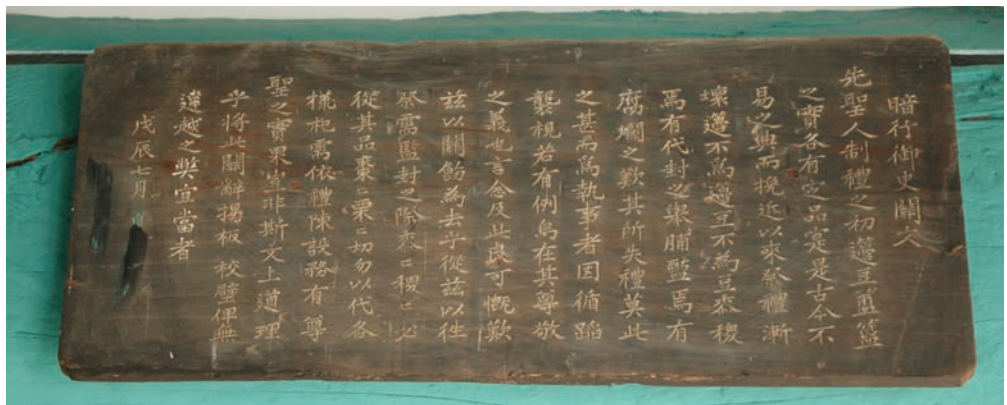
진주향교현판·편액



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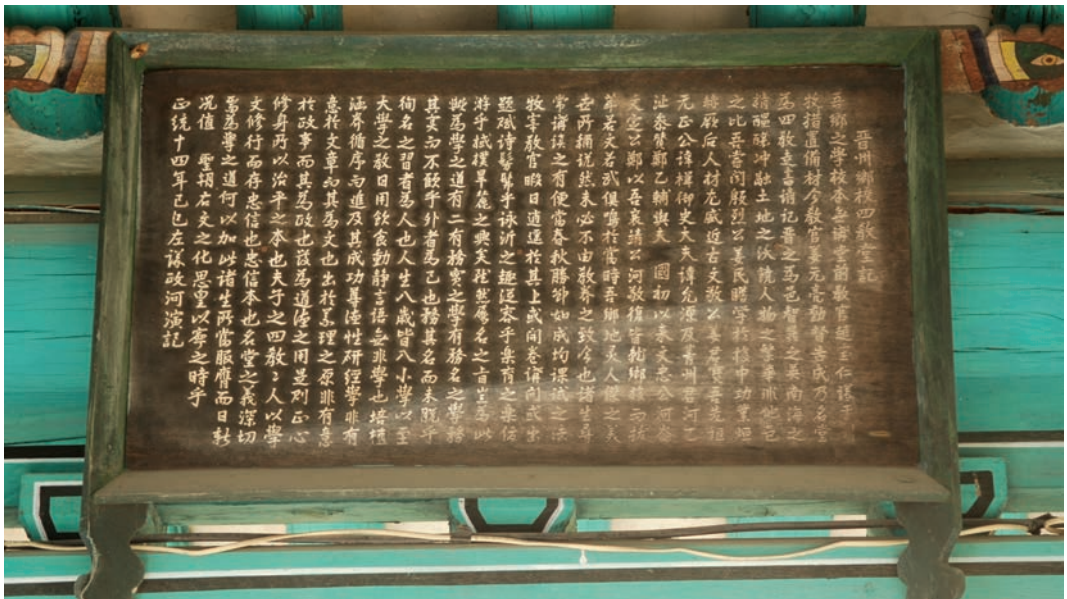
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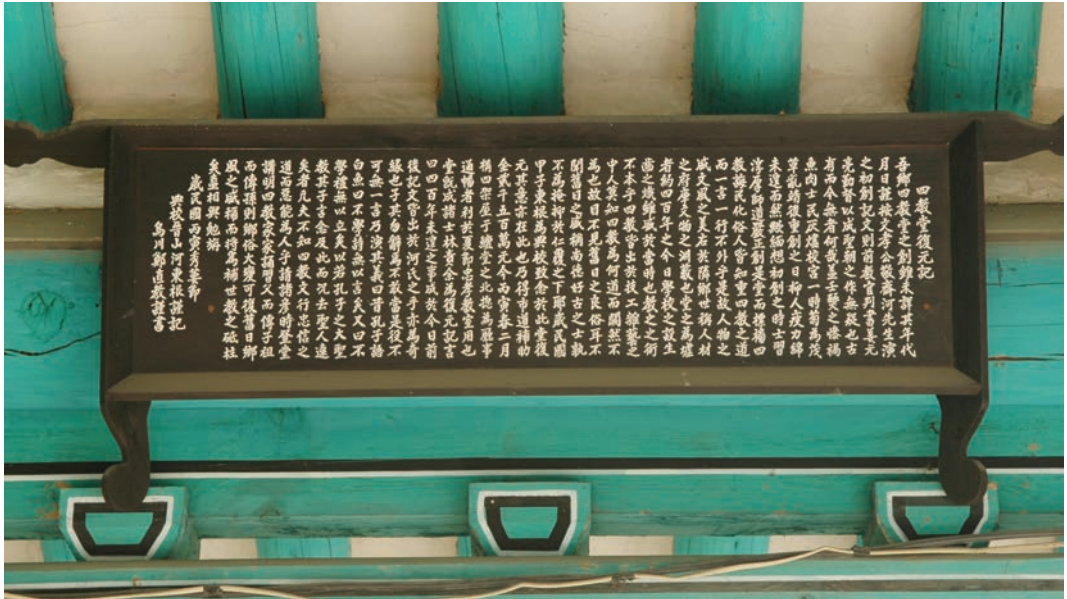
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사교당상량문四教堂上樑文



진주향교사교당기晉州鄉校四教堂記



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유림당기儒林堂記



진주문묘중수기 晉州文廟重修記



진주향교보수기 晉州學校補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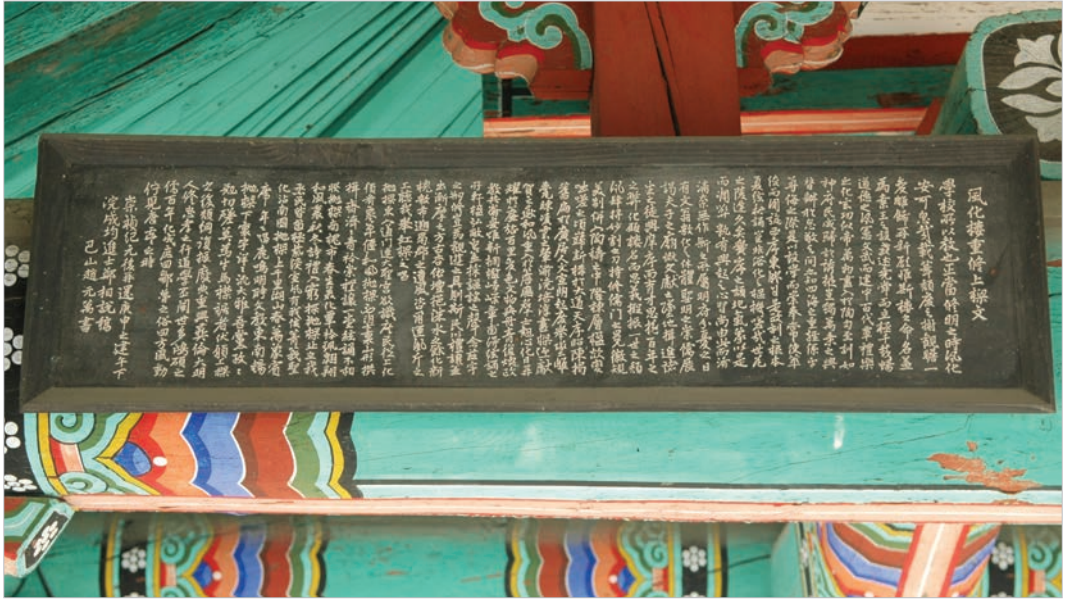
풍화루상량문 風化樓上樑文



풍화루중수기 風化樓重修記



진주향교 풍화루중수상량문 晉州鄉校風化樓重修上樑文



풍화루중수상량문 風化樓重修上樑文



풍화루중수상량문 風化樓重修上樑文



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원역재강석덕시玩易齋姜碩德詩



성균관장 진주향교 표창장



도재단이사장 진주향교 표창장

제50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서

명 칭 진주향교
(晋州郷校)
수 량 9동 (지정면적 : 897.2㎡)

위 문화재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72년 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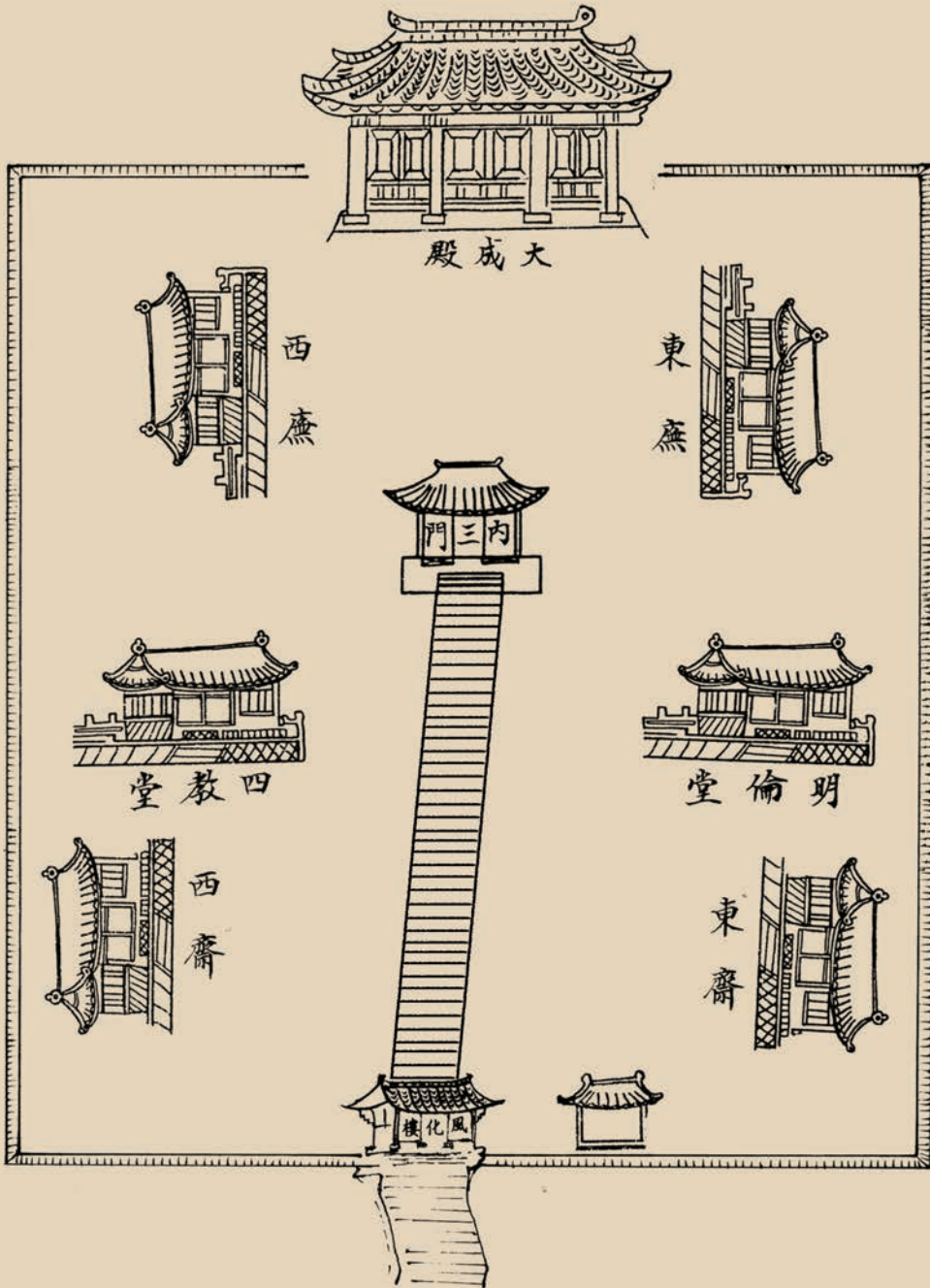


경상남도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서

校宮全圖



교궁전도 校宮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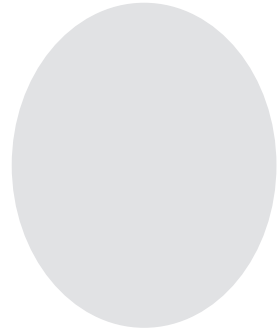
진주향교역대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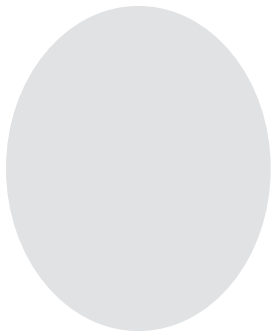
초대
이현우(李鉉佑) 전교



제2대
박창석(朴昌錫) 전교



제3대
정운필(鄭運弼) 전교



제4·5대
강주행(姜珠杏) 전교



제6대
하영기(河永箕) 전교



제7·8·9·10대
하병렬(河炳列) 전교



제11·12대
강윤서(姜允瑞) 전교



제13대
하영한(河永漢) 전교



제14대
하동근(河東根) 전교



제15대
이기해(李圻海) 전교



제16대
성환덕(成煥德) 전교



제17·18·19대
이정대(李正大) 전교



제20대
문상률(文尙律) 전교



제21대
정규섭(鄭奎燮) 전교



제22대
한선우(韓善愚) 전교



제23대
한기인(韓基仁) 전교



제24대
정호영(鄭鎬英) 전교



제25대
심동섭(沈東燮) 전교



진주향교 전교
沈東燮

나라에는 국사(國史)가 있고 시에는 시사(市史)가 있으며, 향교에는 향교지(鄉校誌)가 있고 가정에는 족보(族譜)가 있다. 각각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대(代)를 이어 전해 오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되살려 후세에 길이 전하여 교훈을 남기고자 함이다.

익히 알려진 말로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孔夫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夏) 나라의 예(禮)는 말할 수 있지만 기(杞) 나라의 것은 증명할 수가 없고, 내가 은(殷) 나라의 예(禮)는 말할 수 있지만 송(宋) 나라의 것은 증명할 수 없다. 이는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子曰 夏禮 吾能言之 杞 不足徵也 殷禮 吾能言之 宋 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역사(歷史)와 문화(文化)에 대한 기록전승(記錄傳承)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문화야말로 한 민족(民族)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결정하는 근본 요소일 뿐 아니라 면면(綿綿)히 계승(繼承)되어야 할, 정체성(正體性)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가치(價値)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되는 세월을 여러 번 겪으면서 병화(兵火)로 소실(燒失)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진(移建)하고 복원(復元)하는 과정에서 옛날의 향교 문적(鄉校文籍)을 온전히 보전치 못한 누(累)를 범하였으니 기송(杞宋)의 탄식(歎息)을 면(免)하지 못하고, 겨우 간략(簡略)히 기술(記述)할 수밖에 없으니 개탄(慨嘆)을 금(禁)

할 수 없다. 그러나 향교가 창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흥폐(興廢) 속에서도 오늘의 면모(面貌)를 이만큼이라도 지켜왔다는 것은, 향교 자체가 우리 유림(儒林)들의 정신적 지주(支柱)가 되어 관심(關心)과 애착심(愛着心)이 결정(結晶)된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향교지의 발간은 후세 사람들이 고찰(考察)하여 향교의 유풍(儒風)을 계승(繼承)하고 사문(斯文) 진작(振作)에 도움을 주며, 옛 것을 상고(詳考)할 만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문적(文籍)이 대부분 소실(燒失)된 상태에서 19年前에 발간된 교지(校誌)에 기본적으로 의존(依存)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정확(正確)하다고 단정(斷定)하기 어려운 부분도 더러 없지 않았으나, 선유(先儒)들이 기록하여 이미 인쇄한 자료를 함부로 고치기도 어려워 가감(加減) 없이 거의 그대로 하였다.

다만 해방(解放) 이후의 근현대(近現代) 자료를 상당히 추가하여 후대(後代)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으며, 전국(全國)의 향교지(鄕校誌)마다 대부분千篇일률(千篇一律)적으로 꼭 같은 자료를 복사하여 수록(收錄)하는 것과 같은 일은 지양(止揚)하였다.

지난 향교지 발간(發刊) 이후 19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모(變貌)가 있었고 추록(追錄)할 자료가 많아 교지(校誌) 증보발간(增補發刊)이 절실(切實)히 요구되어 수차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豫算)의 문제로 그 뜻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천만다행(千萬多幸)으로 시운(時運)이 도래(到來)하여 이창희(李昌熙) 진주시장님이 부임(赴任)하여 청소년 인성교육(人性教育)과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중요성(重要性)과 보전(保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교와 진주시충효교육원(晉州市忠孝教育院)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향교역사(鄕校歷史)의 보존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교지발간(校誌發刊)의 예산전액을 지원(支援)해 줌으로써 유림의 숙원(宿願)이 빛을 보게 되었다. 진주 유림을 대표하여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본 향교지(鄕校誌)가 발간 될 수 있기까지 혼신(渾身)의 힘을 쏟아준 편찬위원(編纂委員)들의 노고(勞苦)에 깊이 감사하며 편집과 인쇄를 맡아준 도서출판 사람과나무 박경희(朴暲熙)님께 가슴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성균관장
魚潤慶

선비의 고을로 이름난 晉州鄉校 沈東燮 典校를 비롯한 兪章甫가 鄉校誌 編纂을 마치고 不佞에게 祝刊辭를 請하니 欽慕하는 글을 보냅니다.

예로부터 晉州 溪山의 훌륭한 경치는 嶺南에서 第一이라 稱했습니다. 또한 詩書를 崇尚하는 고을로 이름났고, 農夫와 蠶婦가 그 맡은 일에 힘을 다하며, 子孫들이 孝道에 그 힘을 다하는 地域으로 由緒 깊고 歷史 깊은 忠節의 고을입니다.

數千年 동안 우리 民族은 끊임없는 外勢의 侵掠과 挑戰에도 屈服하거나 同化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民族 力量은 儒敎文化에 根底한 民族正氣와 自負心이 우리 마음속에 內在했기 때문입니다. 歷史와 傳統을 記錄 繼承하고 美風良俗을 保存하여 後世에 남기는 일은 崇高한 使命이며 儒林의 責務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庠序學校를 設置하여 人倫을 가르쳤으니, 어진 선비를 養成하는 方法은 文化政策의 成果로 證明되었습니다. 聖人을 높이고 스승을 尊重하는 禮法과 元氣를 培養하는 儀式은 國家의 準則입니다. 晉州鄉校는 高麗 成宗6年 創設되었으니 千餘年の 歷史를 지닌 오래된 鄉校 중 하나로서, 規模도 크며 人物의 盛大함과 文風의 美로 이름났습니다.

近世期 西洋文物의 潮流에 휘말려 우리의 아름다운 典章은 定着地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綱常倫理의 沮喪과 지나친 個人主義의 氾濫으로 因해 國家와 民族의 正體性과 自矜心이 毀傷되는 現實을 打破하고 우리가 指向해야 할 理想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丙子年에 鄉校誌를 創刊하여 文教刷新을 이루었으며, 二十星霜이 지난 後 校籍을 蒐輯하여 다시 鄉校誌를 發刊하게 되었으니 그 精誠을 致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晉州 鄉校가 儒教發展을 위해 不斷히 努力하여 校宮守護와 教育事業에 邁進함으로써 全國 鄉校 中 首位의 模範 鄉校로 稱頌됨은 결코 誇矜이 아닐 것입니다.

鄉校誌를 編纂하는 事業은 此際에 風紀와 文化의 中心인 儒教의 歷史를 保存하여 後世에 물려주고 이 時代에 걸맞는 價値觀을 確立하는 일인 만큼 그 意義는 重且大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晉州 鄉校 僉章甫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고, 鄉校誌 發刊을 契機로 合心團結하여 雄府에 자리한 晉州 鄉校가 洋洋하게 發展하여 斯文振作의 一翼을 擔當해 주기를 期待하며 삼가 祝賀의 뜻을 드립니다.



진주시장
李昌熙

다시 편찬되는 『진주향교지』 발간을 36만 진주시민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 성종 6년(987)에 창건된 진주향교는 예로부터 영남 강우 유맥의 산실로서 나라의 동량을 수없이 배출한 인재의 요람입니다.

최근에는 향교 본연의 임무는 물론 교육과 향사에 매진하면서 향풍순화와 유교문화 활성화, 층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 전통문화 보존, 청소년 인성교육 등 열린 향교, 공부하는 향교, 선진향교를 목표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가치관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주향교는 전국 234개 향교 중 문체부 지정 시범향교이자 경남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평생학습계좌제 인정기관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의 교육기관으로서도 그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주향교가 있기까지 많은 애를 써 주신 심동섭 전교님을 비롯한 향교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진주향교가 강우 유맥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일류향교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진주향교지』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진주유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향교재단 이사장
韓基仁

유학의 본향인 진주향교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려 성종 6년(987)에 향학당(向學堂)으로 창건한 이래, 전통문화계승의 선두주자이자,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은 유구한 역사의 산물임에 분명합니다.

진주향교 사교당(四教堂)은 문행충신(文行忠信)을 교육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단지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신과 충실과 신의까지 실천하는 전인교육(全人教育)이 바탕이 된 그야말로 완성된 인격체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을 배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부자께서는 하·은·주(夏·殷·周) 3대의 예(禮)를 계승하여 창조적인 이념을 제시한 탁월한 사상가요, 역사가요, 교육자였습니다. 사상적 핵심은 온고지신(溫故知新)에 두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오늘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함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만큼, 유럽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존 전승하는 일 또한 위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향교는 광복(光復) 이전의 기록이 병화(兵禍)로 인해 전해지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慨嘆)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기록들을 책으로 엮어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는 일은 역사 이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구문물(西歐文物)의 범람으로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성현(聖賢)들의 숭고한 유교사상을 일깨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윤리도덕과 충효예절을 숭상(崇尚)하는 촉매제(觸媒劑)가 될 수 있는 『진주향교지』의 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주향교지』 발간에 있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향교지 발간에 열성을 다한 심동섭 전교님과 이학진 회장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신 이창희 진주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찬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든든한 격려 속에 감수를 맡아주신 허권수·이상필 교수님과 정기민·성석기 사무국장, 그리고 편찬소위원회 위원 역시 그 수고로움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진주향교지』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손들에게 계승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다시 한 번 『진주향교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金在庚

존경하는 진주향교 유림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진주향교의 위상을 드높일 『진주향교지』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진주향교지』가 편찬되기까지 애써주신 진주향교지편찬위원회 심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유교문화 위에서 설립·운영된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재육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된 『진주향교지』는 진주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전국에 진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지역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주향교에서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힘써주시고, 윤리교육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진주향교지』 편찬을 축하드립니다.

향교지 발간에 정성을 다해주신 심동섭 전교님을 비롯한 편집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향교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朴大出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진주향교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 『진주향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찬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교지 편찬을 위해 애쓰신 심동섭 전교님과 향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진주향교’는 고려 성종 6년(978년) 창건되어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주와 함께 하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의 민풍(民風)과 예속(禮俗)을 순화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우리 진주향교는 조상숭배, 충효정신과 예절(禮節)을 가르치며 현대인들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번 『진주향교지』 편찬은 ‘진주향교’가 추구해오던 가치를 집대성한 결과로 시민들에게는 살아있는 전통을 잇게 해주는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 『진주향교지』가 향교의 숭고한 가치와 유구한 역사를 오래도록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現시대 맞춤형 향교지’에 걸맞게 만들어진 『진주향교지』가 다른 향교지에 모범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진주향교지』 편찬을 축하드리며, 향교지 편찬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李仁基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장 이인기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향교에서 『진주향교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교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심동섭 진주향교 전교님과 이학진 유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진주향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향교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한층 더 각박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공자의 기본 사상이자 교육철학의 핵심인 인(仁)을 바탕으로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향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유교정신과 전통문화를 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교정신을 실천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도 진주향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발간되는 『진주향교지』 편찬을 축하드리며, 진주향교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진주향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孔夫子聖像
 - 진주향교 전경
 - 진주향교의 옛모습
 - 오늘날의 진주향교
 - 진주향교 인印
 - 진주향교 현판·편액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서
 - 교궁전도
 - 진주향교 역대 전교

-
- 발간사 沈東燮 /진주향교 전교
 - 축 사 魚潤慶 /성균관장
李昌熙 /진주시장
韓基仁 /경남향교재단 이사장
金在庚 /국회의원
朴大出 /국회의원
李仁基 /진주시의회 의장
-

第1篇 晋州郷校

第1章 略史	52
第1節 郷校의 歷史	52
향교(郷校)의 기능과 배치형식	55
건물과 형식	57
향교의 교임과 운영	59
향교의 변화	62
第2節 晋州郷校의 略史	63
오늘날의 향교	69
전통문화계승사업의 선두에 서다	72
第2章 享祀와 教育	76
第1節 享祀	76
1. 석전(釋奠)	76
2. 진주향교 석전	78
3. 삭망분향(朔望焚香)	79
第2節 晋州市忠孝教育院	80
1. 인성교육(人性教育)	81
2. 경서과정(經書科程)	82
3. 전통예절교육(傳統禮節教育)	83
第3節 慶南儒敎大學	84
경남유교대학 설립 취지문	85
경남유교대학교 학무위원회 위원	87
第3章 文獻	89
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89
상읍례서문(相揖禮序文)	91
진주향교이건사적(晋州郷校移建事蹟)	95
대성전개기축문(大成殿開基祝文)	98

진주향교사교당기(晋州鄉校四教堂記)	98
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101
환안시어축문(還安時御祝文)	104
영남진주교궁이건사적비문(嶺南晋州校宮移建事蹟碑文)	104
완역재강석덕시(玩易齋姜碩德詩)	106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107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112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114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116
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119
진주문묘중수기(晋州文廟重修記)	122
진주향교보수기(晋州鄉校補修記)	124
진주향교풍화루중수상량문(晋州鄉校風化樓重修上樑文)	126
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128
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131
향교현황고유문(鄉校現況告由文)	133
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134

第4章 傳統文化繼承事業	138
1. 기로연(耆老宴)	139
2. 신년배례(新年拜禮)	140
3. 관례(冠禮)	140
4. 혼례(婚禮)	154
5. 향음주례(鄉飲酒禮)	168
6. 진주목향시(晋州牧鄉試)	177
7.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全國漢文經典聲讀大會)	179
8. 학생한자골든벨	180
9. 유적답사(遺跡踏查)	181
10.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181

11. 이웃종교 스테이	182
第5章 經任과 現任	184
第1節 歷代 典校	184
1. 역대(歷代) 전교사업(典校事業)	184
2. 역대(歷代) 성균관 임원(成均館 任員)	189
第2節 晋州 鄉校 經任錄	192
第3節 歷代 祭官 經任錄	213
第6章 財産	231
재산	231
도서목록	234
第7章 舊晋州 鄉校 管割 區域	246
구진주향교관할구역(舊晋州 鄉校 管轄 區域)	246
동면	246
남면	248
서면	251
북면	255
第8章 歷代 人物	258
第1節 歷代 人物	258
인물(人勿)	258
유행(儒行)	351
품행(品行)	441
충의(忠義)	472
효행(孝行)	487
효열행(孝烈行)	555
문과(文科)	604

무과(武科)	613
사마(司馬)	628
남행(南行)	646
第2節 新增人物 孝烈 및 有功者 表彰	649
인물(人勿)	649
효열행(孝烈行)	650
신증인물 효열 및 유공자 표창(新增人物 孝烈·有功者表彰)	655
第3節 歷代 晉州任官	704
목사(牧使)	704
판관(判官)	705
병사(兵使)	706
영장겸토포사(營將兼討捕使)	707
우후(虞候)	707
관찰사(觀察使)	708
명신(名臣)	708
진주시장(晉州市丈)	720
진양군수(晉陽郡守)	721

第2篇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晉州支部

第1章 沿革	726
第1節 沿革	726
1. 성균관 유도회	726
2.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진주지부 연혁	730
第2章 經任錄	739
유도회 진주지부 임원명단(儒道會 晉州支部 任員名單)	739

第3篇 成均館

第1章 成均館 沿革	758
성균관 연혁(成均館 沿革)	758
第2章 釋奠概要	762
석전개요(釋奠概要)	762
선성현봉안위차도(先聖賢奉安位次圖)	762
향교석전진설도(鄉校釋奠陳設圖)	763
진설도(陳設圖)	764
문묘석전홀(文廟釋奠笏)	766
第3章 聖賢略史	781
성현약사(聖賢略史)	781
오성위 약사(五聖位 略史)	781
공문10철 약사(孔門十哲 略史)	793
송조6현 약사(宋朝六賢 略史)	797
동국18현 약사(東國十八賢 略史)	800
서무9위(西廡九位)	811
도통원류도(道通源流圖)	824
第4章 儒林要覽	827
유림요람(儒林要覽)	827
유교(儒教)의 유래	827
유교(儒教)의 교리(教理)	829
유교(儒教)의 원위(源委)	830
향교(鄉校)의 유래	832
서원(書院)의 유래	835
유생(儒生)의 의표(儀表)	836

과거제도(科擧制度)	838
공자묘비문(孔子廟碑文)	842
심감(心箴) 및 백록동규(白鹿洞規)	846
第5章 儒家經典	850
유가경전(儒家經典)	850

附錄

晉州鄉校·儒道會晉州支部 任員	855
定款·會則	877
成均館 定款	877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憲章	890
晉州鄉校 定款	898
社團法人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晉州支部定款	905
진주시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910
진주시충효교육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913
경남유교대학 학칙	918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 회칙	923
全國鄉校 住所錄	928
진주의 문화유적	933
晉州鄉校誌編纂委員會	948
편집후기	949

第1篇 晋州郷校



第1章 略史

第1節 郷校의 歷史

- _향교(郷校)의 기능과 배치형식
- _건물과 형식
- _향교의 교임과 운영
- _향교의 변화

第2節 晋州郷校의 略史

- _오늘날의 향교
- _전통문화계승사업의 선두에 서다

第1章 略史

第1節 鄉校의 歷史

향교(鄉校)는 각 고을에서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성균관과 함께 전통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한 곳이 바로 향교이다. 향교는 오늘날의 국립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곳으로 향학(鄉學)으로도 불렀다. 향(鄉)은 일반적으로 수도를 제외한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며, 교(校)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교(鄉校)는 곧 지방의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學校)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등이 초기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관학(官學)의 성격을 지니며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일반관리 양성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鄉學)의 시초이다.

고려시대에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각 지방에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지방학교를 대표하는 관학(官學)인 향교(鄉校)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을 제사 지내고 동시에 각 고을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관립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는 ‘지방학교’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소학(小學), 주학(州學), 향학(鄉學), 상숙(庠塾)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 향교(鄉校)라는 이름은 『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공(襄公) 31년(B.C. 542) 12월 조에 ‘정(鄭)나라 사람들은 향교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정치함을 논했다(鄭人遊于鄉校以論執政)’라는 기록에서 향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향교의 설치는 고려 태조(太祖) 13년(930) 평양에 향교를 설치하여 6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가 된다. 이어 성종(成宗) 6년(987)에는 전국 12목(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해주·황주)에 학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배치하였으며, 주군(州郡)에 학사(學舍)를 세워 지방교육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고려사(高麗史)』 인종(仁宗) 20년 2월 조에 ‘시험에 응시하는 지방 학생들은 계수관 향교의 도회(都會:고려시대 매년 여름 지방 인재를 뽑았던 모임)에서 증명을 주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향교가 보인다.

인종(仁宗) 5년(1127)에는 각 주(州)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진작시킬 것을 명하였으며, 충숙왕(忠肅王) 6년(1314)에는 이곡(李穀)을 모든 주(州)에 파견하여 향교를 부흥케 하였다. 이에 따라 향교가 각 지방에 널리 설치되고 유교교육의 진작과 지방문화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향교는 고려조(高麗朝)에 설립된 이후, 무신집권기와 몽고와 왜의 침입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고려 말기에 지방관과 유생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그 기능을 회복하고 숫자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향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일읍일교(一邑一校)’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건립된 것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誌)」를 보면 당시 전국의 329개 고을에 향교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兩難)을 거치며 국가의 재정이 극히 피폐해졌다. 또한 실정(失政)이 거듭되면서 국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어갔다. 조선조 중기에 이르러서 기능이 약화된 향교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이 각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전국에 걸쳐 900여 개소에 달하였다.

대개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설립된 서원은, 부분적으로 향교의 기능을 보완하고 향촌(鄉村)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격화된 당쟁(黨爭)과 연계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말기인 대원군(大院君) 때에 이르러 마침내 철폐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원군의 강력한 서원 철폐 정책은, 서원이 당쟁의 근거지가 되어왔던 폐단을 없애기는 하였지만, 향교와 더불어 서원이 지방에서 유교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커다란 문화재 손실로 보인다. 서원의 쇠퇴에 뒤이어 근대로 접어들며 향교 역시 커다란 시련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조선 왕조는 외세(外勢)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 국운(國運)에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유교교육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 풍속(風俗)의 교화(教化) 등으로 유교이념에 입각한 이상사회 건설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던 성균관과 향교는 일제(日帝)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무력(武力)으로 한국을 침탈한 일본은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민족성 말살(抹殺)을 위해 성균관을 폐지하고 지방 향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같은 강압정책(強壓政策)에 따라 성균관은 국립대학으로서 면모(面貌)를 잃고 경전을 교육하는 사설 전문학원으로 전락하였다. 향교 역시 문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성균관과 향교의 기능이 박탈됨에 따라 유교 역시 크게 침체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국토의 분단을 가져온 한국전쟁의 혼란과 시련 속에서 유교의 조직과 체계를 만들기 위한 성균관과 각 지방 향교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현재 향교는 혼란기와 격동기를 지나면서 유교와 지역사회 교화의 본부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향사(享祀) 위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등 사회교화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점차 되찾아 가고 있다.

향교(鄉校)의 기능과 배치형식

향교의 가장 큰 기능은 교육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 향교의 설치를 통해 유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 국가가 모든 향교에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인 교관(敎官)을 파견했으며, 교관은 유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선임하고 수령과 함께 파견되도록 법제화했다.

향교는 당초 향촌교화와 과거응시를 위한 인재양성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었기 때문에 향교 교육은 제도적으로 과거제도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향교의 교생들은 자신이 배운 과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이것을 당시에는 고강(考講)이라 했다. 고강의 과목은 교생의 입학연도에 따라 다르다. 입학 첫해에는 『소학』 『대학』 『시전』, 2년째에는 『논어』 『서전』 『가례』, 3년째에는 『맹자』 『주역』 『심경』, 4년째에는 『중용』 『예기』 『근사록』으로 시험을 치렀다.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다.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행사가 향교에서 개최된 것이다. 춘추의 석전례(釋奠禮)와 삭망분향(朔望焚香)이 모든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社稷祭), 성황제(城隍祭), 기우제(祈雨祭)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향교는 조선후기 들어 향약(鄉約)을 주관하여 실시했고, 향사례(鄉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풍속과 기강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다.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며, 효의 행실을 실천하고, 효자나 열녀는 표창해 향촌민을 교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향교의 사회교화 기능은 관찰사가 관할하는 군현을 순방하거나 수령이 부임지에 부임할 때는 반드시 향교를 찾아 예를 갖춘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합격자가 고향에 돌아와 사당에 알리기 앞서 향교에 들러 제향하는 것이 관례였다.

향교의 정치적인 면을 보면,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은 지방민이 생원, 진사시험을 거쳐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고 문과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지방민의 입장에서 중앙정치권에 진입하는 합법적이고 개방된 절차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교의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의 양반의 자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유생의 정원은 행정 구역의 단위에 따라 달리 하였는데,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은 각각 90인, 도호부(都護府)는 70인, 군은 50인, 현은 30인으로 하였다.

향교의 교과 과정은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주가 되었으며 그 밖에 『근사록(近思錄)』, 제사(諸史)등이 추가되었다. 향교의 학관은 교수와 훈도를 각각 1명씩 두었는데 소군에는 훈도만 두었다. 향교의 감독 책임자는 관찰사와 수령이며 이들에 의하여 교육 활동을 평가받았다. 또한 향교의 운영 경비는 국왕이 하사한 학전(學田)과 지방의 유림으로부터 회사 받은 기부금으로 사들인 전지·어장·산림 등의 수세로 충당하였다.

향교는 관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령(守令)의 관할하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향교의 대부분이 관아에서 불과 몇 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이 수령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경치가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향교의 소재지는 당시 도회지(都會地)나 인근에 위치하였다.

향교는 선현을 제사 지내는 향사(享祀)공간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고려 때는 향교의 목적이 교육에 있었고, 향사는 부수적인 공간으로 작용해 향사공간과 교육공간이 한 건물안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성리학이 숭상되면서 유학의 상징인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大成殿)이 별도의 공간으로 독립되어 향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향사공간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다. 대성전은 대성(大成)을 의미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던 건물에서 유래했다. 시대가 지나면서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자(子思子), 맹자(孟子) 등 4성(四聖)과 공자의 수제자인 십철(十哲), 주돈이(周惇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주희(朱熹) 등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했다. 그리고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의 문하인 72현(孔門七十二賢), 한(漢), 당(唐), 송(宋), 원(元)의 22현(二十二賢), 우리나라의 18현(東國十八賢)을 모셨다.

조선시대 향교의 규모는 각 읍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크기에 따라 지어진 형식과 규모에 따라 대설위(大設位), 중설위(中設位), 소설위(小設位)로 구분했는데, 이에 따라 나

열한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숫자도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대설위(大設位)는 대성전에 공자와 4성, 10철, 송조 6현의 위패를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 공문(孔門) 72현, 한·당·송·원 22현,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했으며 전주, 강릉, 상주 등 관찰사가 머무는 큰 읍에만 설치했다.

중설위(中設位)는 대성전에 공자와 4성, 송조 4현을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했으며 부(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등 비교적 큰 읍에 설치했다. 소설위(小設位)는 공자와 4성, 송조 4현을 대성전에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했으며 군(郡)이나 현(縣) 등 작은 읍에 설치했다.

한편 1949년 유도회(儒道會)에서 우리의 문묘에 중국의 10철, 72현, 22현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事大)라 하여 공자와 4성, 송조 2현(정호, 주희)과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에 배향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1961년 공문 10철과 송조 4현을 복위시켰다.

조선 후기 향교는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선현에 대한 제향을 통한 교화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향교가 존속하게 된 것이 바로 석전제(釋奠祭)이다. 석전은 원래 산천이나 묘사(廟祠) 또는 학교에서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던 제사 의식을 말한다.

제물로 소나 양을 쓰고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를 석전이라고 하고, 나물만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경우를 석채(釋菜)라고 한다.

석전의 전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8세기 초 당나라에서 공자와 10철, 72현의 초상화를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국학에서 석전행사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역시 국자감에 공자를 모셔 놓고 석전을 올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 공자와 4성, 10철, 공문 72현, 한·당·송·원 22현, 송조 6현과 동국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봄 가을에 석전을 올렸다.

건물과 형식

향교의 건물구조와 배치제도는 고려시대를 근거로 해서 조선시대에 와서 완성되었다. 향교의 배치는 향사공간과 강학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진

다. 향교의 입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지인 경우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

향교는 전통 유교적 윤리규범을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향교 건물의 건축양식에도 위계(位階)가 있다. 대성전과 동무, 서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서부터 ‘전(殿)’과 ‘무(廡)’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전(殿)은 5성을 모신 대궐을 뜻하며, 무(廡)는 제현과 동국 18현을 모시는 행랑을 의미한다.

대성전(大成殿)은 문묘의 시설 가운데 공자의 위패를 봉안·향사하는 건물이다. 대성전의 칸수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 3칸·5칸 등 기수(奇數)로 하며, 정면에 개방된 틈간을 만들어 의례시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이다. 대성전 주위에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담장을 둘러 엄숙한 참례의 공간을 만들며, 대성전 앞면과 옆면에는 관수대(盥水臺)와 축문을 태울 수 있는 망료대(望燎臺)와 뜰을 밝히는 정료대(庭燎臺)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성전은 대부분 맞배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진주향교나 나주향교처럼 팔작지붕인 경우도 더러 있다. 대성전은 본래 설위(設位) 즉 봉안하는 신위의 수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성균관의 대성전은 5칸이며, 주(州) 부(府)의 대성전은 3칸이다’라고 하여 건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명륜당(明倫堂)은 교육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둔다. 명륜(明倫)이란 명칭은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편」에 ‘상서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고자 함이다(設爲庠序學校以教之, 皆所以明人倫也)’에서 유래하였다. 명륜당은 스승과 학생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쪽편으로 온돌방을 두는 형태를 취한다. 명륜당이 교육장소인 동시에 교관의 거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학생들의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명륜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청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은 물론 평민의 자제도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후기에 들어서면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분으로 구별되었다. 양반의 자제들은 동재를 사용하고, 평민들은 서재를 사용한 것이다.

기타 부속시설로는 향교의 출입문인 외삼문(外三門)과 내삼문(內三門)이 있다. 외삼

문은 향교를 출입하는 정문을 가리킨다. 외삼문은 향교의 사정에 따라 ‘풍속과 교화’, ‘만물을 교화한다’는 뜻을 가진 풍화루(風化樓) 혹은 만화루(萬化樓) 등의 이름을 붙인다.

내삼문은 향사공간과 교육공간을 구분하는 문으로 상대적으로 외삼문보다 작다. 내삼문은 중앙에 정문이 있고 그 좌우에 좁은 문이 있으며, 출입할 때는 동입서출(東入西出)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향교에는 대부분 홍살문과 하마비가 있다. 홍살문은 위에 붉은 칠을 한 창살을 세운 나무 문으로 선현의 위패를 모신 곳을 상징하는 표시물이다. 하마비는 궁궐, 종묘, 문묘, 성현의 탄생지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게 하는 표지석이다.

향교의 교임과 운영

조선초기에는 각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면서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여 교생 교육과 향교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유생의 향교 기피와 교관의 질적 저하로 향교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지방에서 스승이 될만한 인물을 뽑아 교육은 물론 향교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교임(教任)이었다.

교임은 지방유생들이 회의를 통하여 뽑고, 수령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를 갖췄다. 이는 당시 향교 교육을 관에서 명목상만으로 관장하고 실제 운영은 지방 양반들이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임에는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 유사(有司) 등으로 구분되었다. 교임 가운데 장(長)자리인 도유사는 지역별로 전교(典校), 교장(校長), 훈장(訓長), 재수(齋首) 등으로 불렸고, 지방의 수령이 도유사를 겸하기도 했다.

도유사는 향교를 대표하여 교임을 총괄하고 교생 교육을 비롯한 모든 일을 주관했다. 장의는 대개 두 명으로 동재와 서재로 구별하여 호칭하기도 했고,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청금장의(靑衿掌議), 전곡장의(田穀掌議), 과자장의(科資掌議), 학고장의(學庫掌議) 등으로 구별하기도 했다. 장의는 향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유사는 가장 직위가 낮은 교임으로 색장(色掌), 재유사(齋有司), 재임(齋任) 등으로 불

렸다. 맡은 역할에 따라 전유사(典有司), 섬학유사(瞻學有司), 유학유사(儒學有司), 용마유사(龍馬有司), 학유사(學有司), 학고유사(學庫有司), 제기유사(祭器有司), 서책유사(書冊有司), 재중유사(齋中有司), 별사(別司), 연계유사(蓮桂有司), 영고유사(營庫有司) 등으로 구별되었다.

이들 유사는 문묘를 지키고 향사에 필요한 물건을 관리하고 서책을 보관하는 등 향교 운영에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밖에 향교를 옹기거나 중수, 중건 할 때 일시적으로 중수유사(重修有司), 영건유사(營建有司), 성조유사(成造有司), 장물유사(掌物有司), 감동유사(監董有司), 도감(都監) 등을 두었다. 향교 노비로는 대성전을 지키는 전직(殿直), 동채와 서채를 지키는 재직(齋直), 제기고를 지키는 고직(庫直), 산을 지키는 산직(山直) 등이 있었다.

향교의 재정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향교의 교사(敎舍) 등 시설물의 설치·보수·유지를 비롯해서 교수관(敎授官)의 후생비,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활동에 부수되는 제반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준행되는 석전례·향음례 등에 이르는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

1484년(성종 15)에는 「제읍향교급전절목(諸邑鄉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492년에 반포된 『대전속록(大典續錄)』의 호전(戶田)·학전(學田) 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각각 400결·10결·7결·5결씩을 지급하여 수세(收稅)하여 그 재정수요를 수령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건·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에는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면 유전(儒錢)을 각출하거나 그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다. 향교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세목은 춘추 석전(釋奠)의 제수(祭需)와 교임(校任)의 공궤(供饋), 백일장과 과거에 참가하는 유생에 대한 조전(助錢), 교복(校僕) 등의 삭료(朔料)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방관의 보조도 향교재정에 일익을 담당했다. 조선조는 향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령을 통해 지방의 교육을 강화했다. 즉 학교의 흥폐(興廢) 여부를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 기준으로 삼았다. 태종 때에는 흥학(興學)을 지방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수령이 새로 부임할 때는 대성전의 공자를 알현하도록 했으며 교관의 근무 태도와 생도의 교육성과를 관찰하게 했다.

지방관이 향교에 전곡을 보조하는 경우는 향교를 중수하거나 중건할 때이다. 지방유생들은 중수비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뜻을 기리기도 했다. 그리고 향교에서 이미 팔아버린 토지를 매입해 줌으로써 향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향교를 수리하거나 중수할 때 지방 유림들이 돈을 거두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유전(儒錢)이라 했다. 이때 일반 평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유림들보다 적은 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스스로 토지나 거액의 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원납(願納)이라 했다. 원납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전에 이름있는 가문으로 원납을 통하여 하층민과 함께 잡역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선비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원납교생(願納校生)도 있었다. 돈을 내고 향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16세 이상의 교생을 액내생(額內生)이라 했다. 반면 16세 미만은 동몽(童蒙)이라 하여 정원과 상관없이 모집했다.

교촌(校村)과 교보(校保) 역시 향교 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다. 교촌은 향교 부근의 마을을 말하며, 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향교를 지키는 등 일정한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 해 동안 나머지 잡역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교촌은 향교가 설립될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향교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자 이와 비슷한 향교촌이 생겨나기도 했다.

교보는 향교의 보인(保人)을 말한다. 보(保)는 세조 때 군역이 납포제로 바뀌면서 군포를 내지 않는 대신 일정한 역에 종사토록 한 것이다. 향교의 보인이 되면 일단 군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면역을 노리는 사람이 교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인은 향교에 돈이나 현물을 바치고 심부름을 하거나 향교를 지키고 수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향교의 변화

조선 건국 이후 향교는 관학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부흥의 길을 걸었지만 개항 이후 어지러운 정국과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른 향교 유림의 이정척사(以正斥邪) 경향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관학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예조를 폐지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여 근대 학교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사범학교 등의 직제를 설치할 때 성균관과 향교를 제외 시킴으로써 교육적 역할이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향촌 사회내에서의 향교의 역할은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유림들의 지위도 약화되었다.

유림들은 향교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자구책으로 서당을 설립했다. 서당은 비록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진 못했지만 외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을 양성했던 민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개항 이후 유림들은 근대 학교 설립에 반대했지만 1895년 소학교령(小學校令)이 발표되고 1905년 이후에는 사립학교가 증가하자 점차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유림들은 향촌사회에서 학교 설립에 참여하게 되고, 각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향교의 재산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했다. 이러한 시도는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899년에는 정부에서 각 학교에 소속되었던 향교 전답과 토지를 궁내부(宮內府)에 소속시켜 추수를 거두어 가자 학교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08년에는 공·사립학교의 경비를 향교 전답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고, 장의(掌議)와 재임(齎任)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향교는 직접 관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910년 일본의 주권강탈 이후에는 향교의 지위와 역할이 완전히 변질되었다. 1911년 일제는 「경학원규정(經學院規定)」을 발표했다.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박탈하고 선현에 봉사하는 사회 교화 기능만 수행토록 한 것이다. 성균관과 향교를 통제하던 경학원은 총독부의 감독을 받으며 총독의 추천을 받은 친일 유림으로 하여금 향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1915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석전제조차 정부의 보조금

을 받아 거행하게 되고, 향교 건물의 보수도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1920년 유림단체들이 향교 재산의 운영권 반환을 총독부에 요구하는 ‘향교 재산반환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총독부는 1920년 「향교재산관리규칙」을 발표하여 교육비로 전용되던 향교 재산의 수입을 향사 비용에 충당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유림이 움직임을 무마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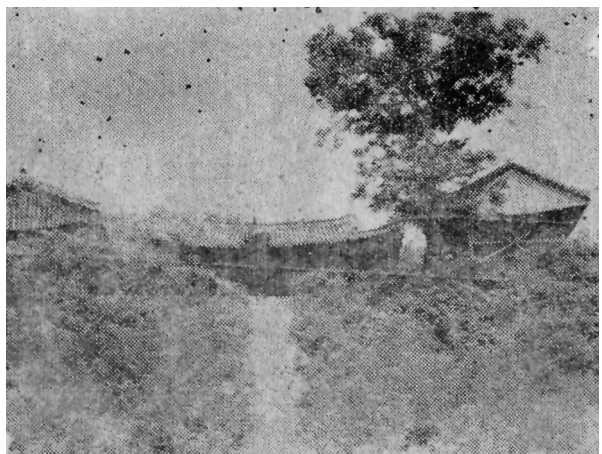
일제말 전세가 기울어진 뒤 향교의 재산관리와 인원 규정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교육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채 해방을 맞이했다. 이후에도 향교는 선현에 대한 향사 기능만 유지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향교는 기존의 향사 기능뿐 아니라 교육기능과 함께 사회교화기능을 함께 갖춘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향사기능으로 석전제 뿐만 아니라 삭망분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능으로는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음주례, 관례, 전통혼례 등 전통문화계승사업을 통해 지방문화 육성의 중심처로 거듭나고 있다.

第2節 晋州郷校의 略史

진주향교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온 지방교육기관이다. 진주향교의 역사와 관련한 문헌과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연원을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진주향교의 역사는 성종 6년(987), 전국 12목에 향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를 배치하고, 주군(州郡)에는 학사(學舍)를 세웠다는 기



1950년대의 진주향교 (진주시 교육위원회 「진주의 고적과 명승」(1955. 10. 15)에 발췌)

록에 근거하고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따르면 성종 6년 정해 봄 정월 교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하교하기를 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두고 목재(牧宰)·지주(知州)·지현(知縣)이 힘써 더 가르치도록 하고, 만약 경의(經義)에 밝거나 효제(孝悌)하거나 의술에 밝아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나라의 고사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록, 서울에 천거하고, 이를 평상적인 법도로 삼을 것이다. (下教, 置十二牧經學醫學博士各一員, 令牧宰知州縣官, 敦加訓誨. 若有明經孝悌賢方足用者, 依漢家故事, 具錄薦貢京師, 以爲常式)’라고 했다.

따라서 진주향교의 역사는 고려 성종(成宗) 6년(987) 조의 기록에 의거해 볼 때 1,029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육기관이자, 당시 향학당(鄉學堂)이라는 이름 아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현종(顯宗) 2년(1011)에는 향교를 중수(重修)하고 서재(西齋)를 중건했으며, 수학원(修學院)·학사(學舍)·서재(書齋)·사교당(四教堂)으로 개칭했다.

조선시대의 진주향교는 조선전기의 적극적인 교학정책(教學政策)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유학이념을 확산하는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 7년(1398)에 문묘(文廟)를 창건하고 향교의 기틀을 갖추었다. 성균관에서 훈도(訓導), 교관(教官), 교수(教授) 등을 파견 배치하였다.

세종(世宗) 31년(1449)에 사교당(四教堂)을 창건했다.

정통(正統) 14년 좌의정 하연(河演)이 지은 「사교당기(四教堂記)」에서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당시 진주향교에는 강당(講堂)이 없었다. 전(前) 교관(教官) 조보인(趙寶仁)이 목사와 의논하여 재목(材木)을 준비하고 분교관(分教官)이었던 강원량(姜元亮)이 감독하여 사교당을 완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진주향교에서 수학한 은열공 강민첨(姜民瞻), 문경공 강군보(姜君寶), 하집(河楫), 하윤원(河允源), 정을보(鄭乙輔), 하륜(河崙), 정이오(鄭以吾), 하경복(河敬復) 등이 나라의 공신이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연(河演)의 「사교당 기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자께서 네 가지로 사람을

가르치셨으니, 글[文]을 배우고 행실[行]을 닦는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진실함[忠]과 신의[信]를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진실함과 신의가 글과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강당을 ‘사교(四教)’로 명명한 의미가 깊고도 절실하다. 학문하는 방법이 어찌 여기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여러 생도들은 마땅히 가슴에 새겨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성스러운 임금께서 문화를 앞세우는 교화를 펼치고 계시니, 훌륭한 선비들이 이에 부응해야 하리라.’

이처럼 진주향교는 조선 조정의 핵심인물들을 키워 낸 최고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자리했다.

진주향교는 명종(明宗) 13년(1558)에는 비봉곡(飛鳳谷)으로 이건(移建)했다.

진주향교의 이건 역사는 문헌이 부족해 정확한 연원을 알기 어렵다. 「진주향교이건사적(晋州郷校移建事蹟)」이라는 기록에도 ‘교궁이 옛날 옥봉리 북록(北麓)에 있으니 즉 비봉산 좌측 중턱이다. 중간에 두 번의 이건이 있었지만 향교에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 그 연조(年條)와 사적을 알기 어렵다.’고 해서 이전의 연원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진주향교 옛전경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가, 선조(宣祖) 36년(1603)에 옛날터 현 하대(現下臺)에 이건 복원(復元)했다.

인조(仁祖) 22년(1644)에 현 위치인 상대(上臺)에 문묘를 증건했으며, 순조(純祖) 11년(1811)에 중수(重修)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주향교이건사적비(晉州鄉校移建事蹟碑)」기록을 보면 ‘순조 11년(辛未) 10월 29일 사시(巳時)에 이안(移安)하고 동월 30일 진시(辰時)에 파옥(破屋)하고, 11월 4일 오시(午時)에 개기(開基)하고 13일 오시(午時)에 열초(列礎)하고, 16일 인시(寅時)에 입주(立柱)하고 12월 2일 신시(申時)에 상량(上樑)하고, 익년(翌年) 임신(壬申) 1월 29일 묘시(卯時)에 환안(還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교궁이 구지(舊址)에 있을 때는 과환(科宦)과 인재(人才)의 성(盛)함이 영남의 1 위였는데, 한번 이기한 이후로 민물(民物)의 광화(光華)가 점점 쇠퇴의 일로를 걸었다’는 기록에서 볼 때 진주향교 이건 이전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영남지역 최고의 향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종(純宗) 1년(1907)에 중수(重修)했다.

유교교육뿐만 아니라 인재의 양성과 풍속의 교화 등을 통해 이상사회 건설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던 향교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07~1911년에 이르러서는 성균관 및 향교의 제도를 변경하여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하여 향교는 그 소속 아래 두었다. 종래의 교임(校任)을 바꾸어 관장이 임용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문묘를 지키게 하고 춘추석전과 삭망분향의 의례를 집행하는 데 그 기능을 한정시켰다.



진주향교 대성전(1910~1920년대)

이에 따라 진주향교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에서 광복(1945)에 이르기까지 항일독립운동기간 중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전향(奠香)의 명맥(命脈)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일제는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민족성 말살을 위해 성균관을 폐지하

고 지방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같은 강압정책으로 성균관은 국립대학의 면모를 상실했고, 향교 역시 문묘에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이 허용되어 유학은 침체기에 빠진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혼란과 시련속에서 전국의 향교는 퇴락(頹落)하고, 향교의 전적(典籍)과 기물(器物) 등이 일실(逸失)되는 시련을 맞이했다. 진주향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진주향교는 성균관과 더불어 유교 조직과 체계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혼란과 격동기를 지나 유교와 지역사회 교화의 본부로 기능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된 것이다.

광복 이후 1961년(辛丑)에 명륜당(明倫堂)과 풍화루(風化樓)를 현 위치로 이 건했고, 1971년(辛亥)에는 문묘(文廟)와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계단, 내삼문, 담장(垣牆), 축대(築臺)를 복구해 향교의 기틀을 다졌다.

진주향교가 지역사회교화를 위한 터전을 다지게 된 것은 1972년(壬子)에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제50호로 지정(指定)되면서 부터이다. 1979년(己未)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중건했고, 1984년(甲子)에는 명륜당(明倫堂)과 풍화루(風化樓)를 중수(重修)했다.

1986년(丙寅)에는 사교당(四教堂)을 복원(復元)했으며, 1988년(戊辰)에는 회의실 겸 관리사를 신축했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축했다.

1992년(壬申)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와 서재를 보수함과 동시에 개수(改修)하여 단청을 했다. 1993년(癸酉)에는 명륜당 대보수와 영남향교사적 및 대소인원개하마비(大小人員皆下馬碑)를 개수했다. 1994년(甲戌)에는 대성전 동재와 서재의 대보수와 단청을 했고, 1995년(乙亥)에는 동재와 서재의 단청과 정원을 재정비했다.

1997년(丁丑)에는 진주향교지 2000질을 발행했고, 1999년(己卯)에는 대우장여관을 구입했다.

진주향교가 지역사회의 중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2003년에 마련되었다. 진주향교는 2003년 유림회관(충효교육원)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듬해 2004년(甲申)에는 유림회관을 창건했다.



진주향교(2016)

2005년(乙酉)에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충효교육원이 개원되었고,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실천운동진주지부도 결성되었다.

충효교육원 개원과 더불어 진주향교는 본연의 기능인 향사는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필두로 어린이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 예절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전반 강좌 개설 등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2005년(乙酉)에는 대성전의 서편 동량(棟梁) 대체 등 대보수가 있었고, 2006년(丙戌)에는 동무(東廡) 번와(飜瓦) 및 대보수(大補修) 사업, 관리사(管理舍) 방수공사가 추진되었다.

2007년(丁亥)에 들어서는 청년유도회(青年儒道會) 결성에 이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명륜당(明倫堂) 앞 정원(庭園) 정지(整地) 공사(工事)를 비롯해, 대성전 앞 석축 개보수공사와 명륜당 단청 사업, 명륜당 전기내선 보수공사 실시, 명륜당 화장실 개수, 명륜당 수도 이전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동서무의 18현 대성전 봉안 및 제상교의 독위패, 준소, 탁자, 조, 두, 유기 등을 신규제작하여 비치 완료했다.

2008년에 문화관광부 시범향교로 지정된 데 이어 2011년에는 경남도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진주향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2010년에는 홍살문을 복원했다.

2011년에는 성균관 지정 우수향교의 반열에 올랐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차 시범향교에 지정되었다.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教育科學技術部) 평생학습계좌제(平生學習計座制) 인정기관(認定機關)에 선정되었다.

2012년(壬辰)에는 대성전 전면 해체 후 번와(翻瓦)사업을 완료했고, 2013년(癸巳)에는 동무 전면 해체 보수사업과 대성전 도장(堵牆)을 했으며, 대성전-명륜당간 중앙계단에 난간을 설치했다.

2014년(甲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남유교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乙未)에는 명륜당 뒤편 석축전면 보수사업을 추진했다.

오늘날의 향교

진주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내삼문, 동재, 서재, 사교당, 풍화루 등 9동의 건물이 전학후묘(前學後廟)로 간좌곤향(艮座坤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문묘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무·서무가 있고, 내삼문이 대성전 중심축에 배치되어 있다. 사교당은 명륜당이 중심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재와 서재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다.



대성전(2016)

대성전은 정면 3칸의 팔작지붕 5량 구조로 전퇴(前退)를 두고 개방하였다. 동무·서무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5량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면 3칸이 쌓여단이 떠



동무



서무

살문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솟을삼문이다.

명륜당은 정면 4칸의 맞배지붕 5량 구조이며, 동재, 서재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3량 구조이다.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누각으로 누마루에 계자난간을 들렀다. 사교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3량 구조로 바닥은 마루를 깔았고 벽면 없이 전부 개방되었다.

교육 영역에 명륜당 외에 사교당(四教堂)이 있어 강학공간이 여타 향교에 비하여 넓다. 대성전의 내삼문(內三門)이 너무 들어와 동·서무(東·西廡)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중수 과정에 많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주향교의 시설 규모는 향사공간인 대성전을 비롯해 동무와 서무, 강학공간인 명륜



명륜당



사교당



동재



서재

당과 사교당, 동재와 서재로 크게 나누어지며, 내삼문과 풍화루를 포함해 모두 9동의 건물이 358㎡의 면적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유생이 학문을 연마하는 명륜당과 사교당, 일상생활을 하는 동재와 서재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며,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는 제례를 거행하는 공간인 것이다.

진주향교는 교육기능과 더불어 석전(釋奠)과 삭망분향(朔望焚香) 등 향사기능 역시 경건하게 거행하고 있다. 매년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석전이란 문묘에 배향된 공자를 비롯한 5성, 신라 2현, 송조 2현, 고려 2현, 조선 14현 등 25위에게 제를 올리는 행사로 스승을 존경하고 성인을 숭모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교 대성전에는 오성(五聖)인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모시고 있고, 신라 2현인 설총과 최치원, 송조 2현인 정호와 주희, 고려 2현인 안향과 정몽주, 조선 14현인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를 모시고 있다.

이처럼 진주향교는 유교의 옛 성현을 받들고 지역 사회에서 인재양성과 미풍양속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다운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풍화루

오랜 역사에 걸맞는 향사와 교육에 기반을 둔 진주향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침체기를 벗어나 중흥을 시작한 것은 1995년 충효교육원 개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충효교육원에서는 크게 인성교육과 경서과정으로 나누어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으로는 유치원·어린이 예절교실을 비롯해 초등예절교실, 중학생 인성교실, 고등학교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 예절교실은 유치원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예절을 강의하고 있으며, 초등예절교실은 예절교육을, 중학생 인성교실은 인성교육을, 고등학교 예절교실은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에 달려 있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교육에 달려 있으며, 교육의 근본은 학교에 달려있다”는 성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향교는 인성교육에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의 진수인 사서(四書) 강의는 물론 통감절요와 고려사절요, 한시 등 선비의 수양과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예절교육으로서는 매월 실시하는 선비반 교육과 성인반 강좌, 다도 예절교실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진주향교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경남의 인재양성 핵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의 선두에 서다

진주향교가 전국 234개 향교 가운데 선진향교로 발돋움하게 된 바탕에는 다양한 전통문화계승사업이 있다.

진주향교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석전을 비롯해 기로연, 향음주례, 성년의 날 관례·계례,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 진주목향시, 경남유교대학 운영, 전통혼례, 한자골든벨, 진주향교신문 발간 등이다.

단일 향교로서 이같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향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에서 진주향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로연은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전·현직 문신관료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 주는 잔치를 말한다. 진주향교는 기로연에서 유림지도자상과 건강장수상, 효자효부상 대상자를 발굴해 수여하고 있다.

향음주례는 지난 2008년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시연행사를 개최한 이후 수시로 열고 있다. 향음주례는 향교에서 행하던 일종의 주도(酒道)예절로 덕망 높은 선비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연회를 베푸는 의례이다. 옛 선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유구한 전통 향음주례를 재현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음주예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는 지난 2011년 경남지역 최초로 개최한 전통문화계승사업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옛 선비들이 사서삼경 등 여러 한문고전을 소리내어 읽던 방식을 재현하여 평가하는 대회로 한문학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국민독서 붐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진주목향시는 영남인재의 보고인 진주향교에서 개최되는 향시이다. 진주목향시 재현사업은 우리 진주가 학문과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내외에 표방하는 행사로 진주의 큰 자부심의 표상이다. 진주에서 고려중기 이후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많은 학자와 문인들이 배출되어 훌륭한 글을 많이 지어 민족문화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겼다는 점과 연계시켜 본다면 진주목향시 재현사업은 진주향교를 대표하는 전통문화계승사업이라 할 만하다.

진주목향시재현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학생한자골든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문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주향교만의 특색을 가진 중요한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학생한자골든벨 행사에는 해마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유교대학 운영은 진주향교가 경남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행충신(文行忠信)을 실천하여 유교발전에 헌신할 인재를 길러 역동적인 유림사회를 연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남유교대학 설립 취지문을 보면 교육과 문화부문에서 경남이 선두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담아 두고 있다. 특히 도의사상을 앙양하고 유교문화시대를 열어 신뢰를 바탕으로 청신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림지도자와 계승세대의 폭넓은 배움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향교는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2009년 5월 18일 전통관례를 시연한 이후 공군교육사령부 등에서 해마다 성년의 날에 관례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통관례(傳統冠禮)는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의 성인의식으로, 서양의 성년식(成年式)과 유사하다. 관례는 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세 이전에 인혼을 하게 되면, 인혼하기 전에 날을 정해 관례를 행하였다. 진주향교는 전통관례를 통해 관례를 치르고 나면, 어엿한 어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어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리는 한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주향교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혼례(傳統婚禮)는 지역사회에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서구문물에 젖어 있는 혼례문화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주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진주의 봄축제인 진주논개제에 전통혼례를 시연함으로써 진주향교가 전통문화계승사업의 선두주자임을 지역사회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경진대회에 '사례(四禮)재현'을 주제로 참가해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진주향교의 사례재현은 오늘날 거의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第2章 享祀와 教育

第1節 享祀

1. 석전(釋奠)
2. 진주향교 석전
3. 삭망분향(朔望焚香)

第2節 晋州市忠孝教育院

1. 인성교육(人性教育)
2. 경서과정(經書科程)
3. 전통예절교육(傳統禮節教育)

第3節 慶南儒教大學

- _경남유교대학 설립 취지문
- _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 위원

第2章 享祀와 教育

第1節 享祀

1. 석전(釋奠)

석전(釋奠)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제사 의례(儀禮)이다. 중국 동한(東漢) 시기에 공부자(孔夫子)는 선사(先師)로 칭해졌으며, 나중에 다시 선성(先聖)으로 높여져서 역대 임금들이 높이 받들어 제(祭)를 올리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문묘에서는 가장 품격 높은 제사 의례로써 석전을 거행하게 되었다.

석전(釋奠)의 유래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 유교 경전에 기록이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본래 석전은 산천(山川), 묘사(廟祠), 때로는 학교에서 올리기도 했으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학교의 의식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산천·묘사에는 이밖에도 여러 제향(祭享)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오직 석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석(釋)은 ‘놓다[舍也]’, ‘두다[置也]’의 뜻이고, 전(奠)은 ‘드린다[停也]’의 뜻으로서, ‘제물을 올릴[薦饌]’ 따름이고 ‘시동을 맞이하는[迎尸]’ 등의 제사 절차는 갖추어 베풀지 않았다.

일설에는 소(牛)·양(羊) 등 고기를 제물로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의식을 석전이라고 하고, 오직 나물(菜) 즉, 빈조류(蘋藻類)만 드릴 뿐 일체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의식을 석

채(釋菜)라 한다. 석채는 또 석채(釋采)라고도 쓰는데 이는 선사에게 채백(采帛)을 올려 폐백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석전을 석채·사전(舍奠)·정제(丁祭)·상정제(上丁祭)라고 부르는데, 정제니 상정제라고 하는 것은 석전을 봄 2월(음력), 가을 8월(음력)의 상정일(上丁日: 첫 丁日)에 모시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상대(上代)에 이미 산천·묘사에서 석전을 올렸으며 『주례(周禮)』 「춘관(春官)」에는 ‘때로는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오면 학교에서 석전을 베풀어 선사에게 아뢰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 보인다. 전자를 정기적(常時)인 석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부정기적(非時)인 석전이다.

『예기』 「문왕세자편(文王世子篇)」을 보면 ‘학교에서는 봄에 시(詩)·서(書)·예(禮)·악(樂)을 가르치는 교관(敎官)이 선사에게 석전을 올렸고 가을과 겨울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사란 앞서 간 전대(前代)의 훌륭한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고, 여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봄에 준한다는 뜻이다.

주대(周代)에는 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시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였다.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자를 점차 선성·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러러 모시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삼아 공자의 고택을 찾아 가서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수(隋)·당(唐)나라 이후로는 대체로 공자를 선성, 안회(顔回)를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명(明)나라에 와서 태학(太學)의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전을 봉행한 것은 태학(太學:국립중앙대학)이 설립된 이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석전을 봉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경우, 태학 설립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오경박사(五經博士) 등의 명칭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아직기(阿直岐)·왕인(王仁)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태학에서 석전의 의식을 봉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648년(진덕여왕 2)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건너가 그곳의 국학(國學)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682년(신문왕 2)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717년(성덕왕 16)에는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10철(+哲: 공자의 제자 중 학덕이 뛰어난 10명) 및 72제자의 화상을 가져 와서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석전 의식이 국학에서 봉행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고려에서는 국학 또는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쳐 불렀고, 문묘에서 석전을 올렸으며 왕이 직접 헌작(獻酌)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398년(태조 7) 숭교방(崇教坊)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국립 최고학부의 기능을 다하게 하였으며, 정전(正殿)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4성(四聖)·10철과 송조6현(宋朝六賢) 등 21위를 봉안하고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우리나라 명현 18위와 중국 유현(儒賢) 94위 등 모두 112위를 봉안하고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석전을 올렸다. 지방에는 고을마다 향교가 있어 중앙의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차례씩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2. 진주향교 석전

진주향교(晉州鄉校)는 매년 음력 2월 상정일(上丁日)과 탄신일(誕辰日)인 양력 9월 28일 문묘에서 유림들이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석전봉행 1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진주향교 유림들은 원로회의를 개최해 집사분정을 논의한다. 초헌관을 비롯한 삼헌관과 동무와 서무 분헌관, 집례, 대축 등 제집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석전준비에 들어간다.

집사분정이 완료되면 망권(望圈)을 작성해 친전(親傳)하고, 나머지 집사들은 공문을 통해 집사선정을 통지한다.

석전을 앞두고 진주향교 대성전 등을 비롯한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제수준비 등 본격적인 석전준비를 한다. 석전 하루 전날에는 진설을 담당한 유림들이 향교에 모여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수를 진설한다. 진주향교는 오성위는 8변 8두, 종향위는 2변 2두를 적용한다.

진설이 끝나면 석전을 봉행할 집사들이 모두 모여 석전에 대비한 습의(習儀)를 개최해 한 치의 차질없이 석전을 준비한다.

진설과 습의가 끝나면 진주향교 전교를 비롯한 헌관이 참가한 가운데 사축(寫祝)을 한

다. 사축이란 종묘나 문묘 제향 때에 초헌관(初獻官)이 술을 따르면 신위(神位) 옆에서 축문을 읽던 축관(祝官)이 대성전에서 석전 때 올릴 축문을 직접 쓰는 것을 말한다. 대축은 예(禮)를 갖추어 정성들여 축문을 쓴다.



유림들이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석전 당일, 성복(盛服)을 한 진주지역 유림들이 진주향교에 도착

해 시도기(時到記)를 작성하고 서로 예(禮)를 갖춘 뒤 명륜당(明倫堂)에서 석전의 시작을 기다린다. 삼헌관을 비롯한 제집사가 석전준비를 마치면 간단한 의례(儀禮)를 거친 뒤, 전사관이 창방(唱榜)을 한 뒤 차례로 대성전에 올라가 제집사가 대성전에 도착하면 석전을 봉행한다.

석전대제는 석전홀기(釋奠笏記)에 따라 봉행된다. 석전봉행 순서는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를 시작으로 초헌관이 첫 번째로 술을 드리는 예인 ‘초헌례(初獻禮)’, 아헌관이 두 번째로 술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과 분헌관이 술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급(及) 분헌례(分獻禮)’, 초헌관이 음복을 하는 ‘음복례(飲福禮)’, 축문을 사르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망예례(望瘞禮)’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주향교는 2016년부터 석전대제에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도입해 선진·일류향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3. 삭망분향(朔望焚香)

진주향교에서는 진주지역 유림들이 모여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분향(朔望焚香)을 올리고 있다.

삭망분향은 매월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유림들이 대성전 공부자 위패 앞에서 향을 사르는 의식을 말한다. 삭망분향은 일반적 의미의 제의례(諸儀禮)에서의 분향인 청



진주지역 유림들이 모여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분향(朔望焚香)을 올리고 있다.

신의식이 아닌 방촌지심(方寸之心)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방촌지심은 공부자의 가르침과 공부자를 마음속에 모신다는 뜻으로 연중 매회 삭망 분향을 통해 유림으로서 언행에 그릇됨이 없었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진주향교는 600여 유림들이 조를 이루어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삭망분향을 올리고 있다.

第2節 晉州市忠孝教育院

진주시충효교육원(晉州市忠孝教育院)은 진주향교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의 핵심 공간이다.

진주향교는 고려시대에 공립지방교육기관으로 출범하여 중등교육을 담당해 오다가 조선조가 개국하여 문묘를 창건함으로써 교육과 향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등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교육은 학교로 이관하고 향사 기능만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던 중 시대가 바뀌면서, 서구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의 전통문화가 차츰 사라지고 인간의 기본 질서인 도덕이 추락하여 청소년들의 기본예절, 인성교육이 쇠퇴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효교육원을 개원하게 된 것이다.

충효교육원의 개원은 진주향교 본연의 목적인 향사와 교육이 옛 제도를 회복하고 현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의 발전토대 구축을 위미했다. 충효교육원은 2004년에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43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건평 167평의 충효교육원을 건립하여 2005년에 개원했다.

진주향교에서는 진주시로부터 충효교육원 업무를 위·수탁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고 학생과 공군·해군장병, 교도소 재소자 등 성인반 교육과, 경서반(四書), 선비반, 경남유교대학 운영 등 연간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에게 인성, 예절, 교양, 경전강좌를 알차게 시행하고 있다.



2005년 개원한 진주시충효교육원

그 결과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범향교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진주향교와 충효교육원은 열린 향교,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향교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전국 제1의 향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1. 인성교육(人性教育)

충효교육원의 인성교육은 유치·어린이 예절교실, 초등예절교실, 중학생 인성교실, 고등학교 예절교실 등이 있다.

유치·어린이 예절교실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주 3회 기초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1,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충효교육원에서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기간



유치원생이 기초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중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

은 수시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초등예절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시로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연간 800여 명의 학생들이 충효교육원에서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생 인성교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원에서 연간 8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루 4시간씩 3일간 총 12시간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과목은 충, 효, 예, 한문, 향토사, 향교역사 등이다.

고등학교 예절교실은 수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수능시험 직후이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다. 참여인원은 3,000명이다.

2. 경서과정(經書科程)

경서과정은 사서(四書)와 통감절요, 고려사절요, 한시 강의 등이 있다.

사서강의는 유학의 진수인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이상필 교수가 전임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까지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에서 강좌를 하고 있다. 경서강의에는 매일 70~80여 명이 넘는 유림들이 참석하고 있어 진주향교의 대표적인 강의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년 2~3회의 현장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진주지역 유림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명심보감』,

소학, 『통감절요』 강의에 이어 『고려사절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사는 한학자인 하진규 장의가 전담하고 있다.

한시는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30명이다.



충효교육원 경서반 중용 수료식

3. 전통예절교육(傳統禮節教育)

전통예절교육으로는 선비반 강좌와 성인반 강좌, 다도예절교실 등이 있다.

선비반 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해 유교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선비반 교육에는 연간 1,200여 명의 유림들이 참석하고 있다.



유림들이 전통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성인 강좌는 진주향교를 방문하는 일

반시민은 물론 군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유교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진주향교의 비약적인 발전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진주향교를 배우기 위한 경향각지의 향교 유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도예절교실은 다도를 통해 예절을 몸에 익히는 교육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윤경숙 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논개제를 비롯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에 진주향교 유림들이 직접 참석해 전통예절의 진수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통예절의 전수에 직접 나서고 있다.

충효교육원(忠孝教育院) 경임록(經任錄)

代數	院長	事務局長	任期
1代	鄭奎燮	姜正鎬 金幸布	2005. 5. 31. ~ 2006. 2. 28.
2代	韓善愚	金幸布	2006. 3. 1. ~ 2009. 2. 28.
3代	韓基仁	沈東燮	2009. 3. 1. ~ 2012. 2. 28.
4代	鄭鎬英	沈東燮	2012. 3. 1. ~ 2015. 2. 28.
5代	沈東燮	鄭基敏	2015. 3. 1. ~ 2018. 2. 28.

第3節 慶南儒教大學



경남유교대학 현판식

경남유교대학(慶南儒教大學)은 경남 유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유능한 유림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유교의 정신과 전통 윤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유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유교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대사회와 조화를 잃지 않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경남유교대학은 경남지역의 유림들이 전국 유명대학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유학의 진수를 맛보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해 선비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유교대학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모집부문은 1, 2학년 각 100명으로 수업연한은 2년 1주 1회(토요일) 2시간을 강의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경상남도 도민과 시민으로 유교에 관심이 있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학과목은 유학부문에서는 유학전반, 경전, 의례, 교양교육, 유교의 역사 등이며, 현장교육으로는 성균관 및 향교 서원 봉심, 유적지 견학 등이다.

이처럼 전국 유명 대학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경남유교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양한 유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유림양성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강의과목으로는 『춘추』의 이해(성균관대 오석원 명예교수), 『근사록(近思錄)』의 이해(성균관대 오석원 명예교수), 전통시대 선인들의 공부법(고려대 심경호 교수), 조선 국왕의 시문과 통치(고려대 심경호 교수), 시화총림(詩話叢林)(경상대 윤호진 교수), 한국

철학 사상사(성균관대 이기동 교수), 우암(尤庵)의 의리적(義理的) 삶과 사상(思想)(충남대 황의동 명예교수), 명재(明齋) 윤증(尹拯)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충남대 황의동 명예교수), 영남학맥(嶺南學脈) 연구(研究)(경상대 이상필 교수), 한문창작(漢文創作)(경상대 허권수 교수), 불교윤리사상(경



경남유교대학 입학식

상대 손병욱 교수), 공자와 『논어』(경희대 전호근 교수), 논어 읽기-차별 없는 배움의 길(경희대 전호근 교수), 남명학과권 여헌문인(旅軒門人)의 존재 양상(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 등이다. 이와 함께 향음주례와 모의석전 같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은 물론 유적지 답사를 겸한 현장학습을 병행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림지도자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경남유교대학은 2014년 설립 이후, 모집부문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관심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처음에는 진사반과 생원반 단위로 모집하다가 지금은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유교대학의 성과는 유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목할만 하지만 최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동창회를 설립해 유교대학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남유교대학 설립 취지문(慶南儒敎大學 設立 趣旨文)

孔子에 의해서 集大成된 儒敎는 사람을 사랑하는 人本主義에 기초한 倫理道德과 仁義禮智를 體系的으로 배우고 익혀서 實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二千五百餘年이 지난 지금에도 東洋思想으로 깊이 뿌리 내려 人間中心의 思想과 倫理觀을 이루어 왔습니다. 高度産業社會에서 道德性이 실추된 現代人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닦은 후에 남을 가르쳐서 便安하게 하라는 修己安人의 德目を 모두가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儒敎의 歷史는 곧 敎育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聖賢이 이르기를 ‘天下를 다스리는 것은 人材에 달려 있고, 人材를 길러 내는 것은 敎育에 달려있으며 敎育의 根本은 學校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百年을 計劃하려면 人材를 養成하라고 하셨으니 後代를 笁려하는 先人의 顯명하신 遺德이므로 본받고 實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는 옛날부터 敎育과 文化의 都市로서 名聲을 떨쳤습니다. ‘朝廷 人材의 半이 嶺南 인재이고, 영남 인재의 반이 晉州 인재’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진주는 慶南의 確실한 中心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주는 道廳도 창원으로 갔으며, 창원과 마산과 金海보다도 落後된 도시로 轉락하고 말았습니다. 經濟나 政治部門은 말 할 것도 없고, 敎育과 文化部門도 그 곳에 비해 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現實을 타개하기 위하여 敎育과 文化部門이라도 經南에서 선두가 되어야 합니다. 道義思想을 養양하고 儒敎文化의 시대를 열어 信賴를 바탕으로 淸新한 活力을 불어 넣을 수 있는 儒林指導者와 繼承世代의 폭넓은 배움의 장이 淸실히 필요하여, 진주향교에서 ‘慶南儒敎大學’을 設立하여 運轉하고자 합니다.

배움의 길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고 文行忠信을 실천하여 儒敎 發展에 獻身할 人材를 길러 力動的인 儒林社會를 여는 儒敎大學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5일

경남유교대학(慶南儒敎大學) 경임록(經任錄)

代數	職責	姓名	貫鄉	任期
初代	學長	姜永奎	晉州人	2014. 3. ~ 2016. 2. 28
	學務局長	鄭基敏	海州人	
2代	學長	沈東燮	靑松人	2016. 3. ~ 2018. 2. 28
	學務局長	成碩基	昌寧人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 위원(學務委員會 委員)

職 責	現 職 位	姓 名	貫 鄉
2015年			
顧 問	慶南鄉校財團 理事長	韓基仁	清州人
	慶南鄉校典校協議會 會長	安一中	順興人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青松人
委 員 長	慶南儒敎大學 學長	姜永奎	晉州人
副 委 員 長	晉州鄉校 事務局長	鄭基敏	海州人
監 事	河東鄉校 典校	金鍾律	金海人
	儒道會晉州支部 監察委員長	高永玉	長興人
委 員	晉州儒道會長	李鶴鎭	陝川人
	慶尙大學校 漢文學科 教授	許捲洙	金海人
	儒道會泗川支部 會長	金龍道	
	丹城鄉校 典校	鄭台根	海州人
	丹城鄉校 典校	文承烈	南平人
	儒道會晉州支部 副會長	朴鍾植	密陽人
	晉州青年儒道會 會長	文炯竣	南平人
	慶尙南道議會 議員	姜民國	晉州人
幹 事	慶南儒敎大學 學務局長	成碩基	昌寧人
2016年			
顧 問	慶南鄉校財團 理事長	韓基仁	清州人
	慶南鄉校典校協議會 會長	尹有德	坡平人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青松人
委 員 長	晉州儒道會長	李鶴鎭	陝川人
副 委 員 長	晉州鄉校 事務局長	鄭基敏	海州人
監 事	儒道會晉州支部 監察委員長	高永玉	長興人
	儒道會晉州支部 副會長	朴鍾植	密陽人
委 員	宜寧鄉校 典校	金洪燮	金海人
	慶尙大學校 漢文學科 教授	許捲洙	金海人
	晉州青年儒道會 會長	文炯竣	南平人
	晉州市 議會 企劃委員長	姜吉善	晉州人
幹 事	慶南儒敎大學 學務局長	成碩基	昌寧人

第3章 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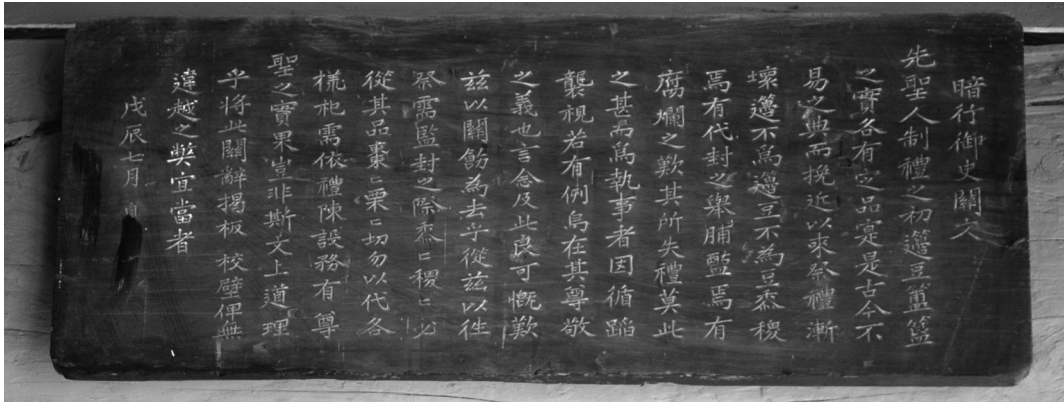
- _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 _상읍례서문(相揖禮序文)
- _진주향교이건사적(晋州郷校移建事蹟)
- _대성전개기축문(大成殿開基祝文)
- _진주향교사교당기(晋州郷校四教堂記)
- _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 _환안시어축문(還安時御祝文)
- _영남진주교궁이건사적비문(嶺南晋州校宮移建事蹟碑文)
- _완역재강석덕시(玩易齋姜碩德詩)
- _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 _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 _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 _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 _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 _진주문묘중수기(晋州文廟重修記)
- _진주향교보수기(晋州郷校補修記)
- _진주향교풍화루중수상량문(晋州郷校風化樓重修上樑文)
- _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 _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 _향교현황고유문(郷校現況告由文)
- _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第3章 文獻

진주향교에는 향교의 연원과 건축물의 변천사, 예의 절차를 알 수 있는 문헌들이 있다. 현재 진주향교에 전해지고 있는 문헌으로는 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상읍례서문(相揖禮序文), 진주향교이건사적(晋州鄉校移建事蹟), 대성전개기축문(大成殿開基祝文), 진주향교사교당기(晋州鄉校四教堂記), 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환안시어축문(還安時御祝文), 완역재강석덕시(玩易齋姜碩德詩),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진주문묘중수기(晋州文廟重修記), 진주향교보수기(晋州鄉校補修記), 진주향교풍화루중수상량문(晋州鄉校風化樓重修上樑文), 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향교현황고유문(鄉校現況告由文), 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등이 있다.

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先聖人制禮之初籩豆簠簋之實各有定品寔是古今不易之典而挽近以來祭禮漸壞籩不爲籩豆不爲豆黍稷焉有代封之舉脯醢焉有腐爛之歎其所失禮莫此之甚而爲執事者因循蹈襲視若有例烏在其尊敬之義也言念及此良可慨歎茲以關飭爲去從茲以往祭需



암행어사관문(暗行御史關文)

監封之祭黍稷稷必從其品棗栗栗切勿以代各樣祀需依禮陳設務有尊聖之實果豈非斯文上道理乎將此關辭揭板校壁無違越之弊宜當者

戊辰 七月 日

● 옛 성인이 예법을 제정할 때 처음에 변두(籩豆)와 보궤(簠簋)에 채우는 물품에 각각 품목이 정하여져 있으니 진실로 이것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법이다. 근년에 와서는 제례(祭禮)가 점점 어그러져 변(籩)은 변 같지 않고 두(豆)는 두 같지 아니하였고 서(黍)와 직(稷)을 대신 봉해 올리는 처사가 있고 포(脯)와 식혜가 썩어 문드러진 탄식이 있으니, 실례(失禮)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으나, 집사들은 그대로 답습하여 넘어가 그런 의례적인 것을 보고 있으니 어찌 존경하는 도리가 있다 하랴? 말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니 가히 슬프고 탄식할 일이므로 이에 관문(關文)을 만들어 보내니 이로부터 제수(祭需) 봉(封)함을 감사(監查)할 때에 기장은 기장대로 피쌀은 피쌀대로 반드시 그 품목대로 하고, 대추는 대추대로 밤은 밤대로 하여 절대로 대용하지 말고 각 모양의 제수를 예법에 따라 진설하고 힘써 성현을 존모(尊慕)하는 진실하고 과감함이 있음이 어찌 사문(斯文)의 최상의 도리가 아니리오? 이 관문의 글을 써서 향교의 벽상에 붙여 두고 보아 예법에 어긋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무진년 칠월 일

상음례서문(相揖禮序文)

丙寅九月十五日相揖禮齊會錄序

維歲之秋九月齋生告余以望日焚香禮盥洗訖具冠服抵下馬橋屏從率步詣風化門外濟濟多士拱手而分東西序立焉齒德在其東以次少西而立於是乎蹶蹶如不容而進循階而上諸生隨其後趨進翼如蹙蹙有序而不紊仍詣殿門外鞠躬趨蹌而進各在其位行焚香四拜禮奉審而退升明倫堂設席定坐次焉謁者請行相揖禮禮畢諸生分行亦行相揖禮甚盛舉也入其門不敢以官秩自居用以鄉黨之禮是亦古道也士趨溫雅儀範純古蔚然有鄒魯之風揖讓進退皆有度焉仍降齋室行私禮于時舍巾服以燕服列序而坐講古道參以時務又定節目兩行而不悖矣顧余不才蔑識猥膺聖明之特簡來莅茲土率諸生坐于明倫堂行古之道誠多顏矣凡民之俊秀不在於地之相去人才之蔚蔚輩出莫今日若誠使有德有學之人導達而教育之則佇見菁莪之化不日而成如余之魯奔者無一能一藝之加以稱塞有何一分教導之效哉惟在於諸生力行之如何若使晉陽一域家家絃誦人人道學一動一靜皆法堯舜則豈有背理之行亦豈有非法之道哉至於閑漫之爭競係是街賈牧豎之惡風習豈君子所可爲哉節目之成滿坐皆舉袖而從亦可見士風之母憚改也噫非言之爲難行之尤難一遵此約束滌去悠浪之舊習潛心文字之間講究眞義理眞是非卽前之污下者轉入於爲學之門自然有覺得羞前之所爲雖日撻而求其爲必不爲之矯救之道莫善此爲學之淺深向道之士其亦有意否垂德不可以導之披瀝肝膈申申曉諭能不以言微而廢之耶所望於今日晉陽者多惟君子其勉之哉勉之哉

東列

牧使	金尙重	江陵人	己酉司馬	壬子登龍
	姜亨運	掌議 晉陽人	柳鳳儀	掌議 文化人
	李再馨	載寧人	郭亨垕	苞山人
	崔命垕	朔寧人	姜鴻運	晉陽人
	李漢馨	載寧人	李猶龍	全州人
	河景清	晉陽人	河德遠	有司 晉陽人

姜興運	晉陽人	姜宗運	晉陽人
李再龍	載寧人	河允中	晉陽人
崔致仁	完山人	金有水	鶴城人
河應兼	晉陽人	河應五	晉陽人
柳景洙	文化人	鄭燦益	烏川人
崔尙仁	有司 朔寧人		

西列

崔柱英	完山人	柳瑞河	完山人
河潤遠	晉陽人	鄭再栢	晉陽人
鄭 堽	首陽人	鄭經臣	首陽人
金龍甲	鶴城人	孫後明	密城人
尹勉中	坡平人	南國觀	宜春人
鄭弼臣	首陽人	鄭世采	晉陽人
趙正國	嘉林人	鄭昌周	晉陽人
梁星弼	龍城人	梁德觀	龍城人
金有文	鶴城人	鄭道洙	烏川人
南國升	宜春人	鄭道貫	烏川人
河德玄	晉陽人	鄭 壘	首陽人

● 병인년(1746) 9월 15일 상읍례제회록(相揖禮齊會錄) 서문

생각건대 이 해 구월에 동서재(東西齋) 유생들이 보름날 분향(焚香)할 것을 나에게 고 하기에 세수를 마치고 관복을 갖추어 하마교(下馬橋)에 당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도보 로 풍화루(風化樓) 문밖에 이르니 점잖은 많은 선비들이 공수(拱手)하고 동서로 갈라 차 례로서 있었다. 나이 많고 덕이 있는 분들이 동편에 있고 차례로 따라 조금 서쪽으로 향 하여 섰으니 이에 조심스럽게 나아가 동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여러 유생들이 그 뒤를 따라 나래같이 줄이어 조심스럽게 차례가 있어 문란하지 아니하였다. 대성전(大成殿)

문밖에 다다라 국궁(鞠躬)하고 종종걸음으로 가서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있어 분향을 사배례(四拜禮)로 거행하고 봉심하고 물리나 명륜당(明倫堂)에 올라 자리를 펴고 차례를 정하고 앉았다. 알자가 상읍례(相揖禮) 행하기를 청하여 예를 마침에 제생들이 행하는 여섯 가지 행사에 상읍례가 심히 성(盛)한 일이다.

그 문에 들어 와서 감히 관작(官爵)으로 자처할 수 없고 향당의 예를 행하였으니 이 또한 예법이다. 선비들의 추창함이 온아하고 거동과 법도가 순수하고 옛 되어 울연(蔚然)함이 추노(鄒魯:공자와 맹자의 나라를 말함)의 풍속이 있어 읍하여 사양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모두 법도가 있었다. 인하여 재실에 내려와 사사(私事)의 예를 행하여 유건과 관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차례로 앉아 고도(古道)를 강론하고 시무를 참조하여 또 절목(節目)의 두 줄을 정하여 어김이 없었다.

돌아와 보건대 나에 부재천식(不才淺識)으로 외람되이 어진 임금의 특별하신 부름에 응하여 이 고을을 맡아 여러 유생들과 명륜당에 앉아서 고도를 행하게 되니 진실로 즐거운 일이다. 무릇 인재가 빼어난 것은 땅이 서울에서 떨어진 것과 관계가 없고, 인재가 울울(蔚蔚)하게 많이 난 것이 오늘과 같을 수 없으니 진실로 덕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하여 교육하니 ‘청야(菁莪)의 교화’(청야의 교화는 시경에 말한 군자의 덕화를 말함)가 불일내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으나 나 같이 둔한 사람은 하나의 능함과 하나의 재주도 없으니 가히 일분의 교화와 지도의 효력을 어찌 충족함이 있으랴? 오직 여러 유생들의 힘써 실천하기 여하에 달려있다. 만약 진양(晉陽)의 일경(一境)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글 읽고 사람들이 도학을 공부하여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모두 요순을 본받는다면, 어찌 윤리에 배반된 행실이 있으며 또 어찌 법이 아닌 도가 있으랴? 저 한만(閑漫)하게 경쟁함은 장사치와 목동초군(牧童樵軍)의 악한 풍속에 매여 있는 것이니 어찌 군자가 할 바이랴? 절목이 완성됨에 만좌의 사람들이 모두 손을 들어 찬성하니 또한 선비의 풍속이 기탄없이 고쳐짐을 가히 보겠도다.

슬프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천함이 더욱 어렵다. 이 약속을 한결같이 따라 오래 그릇된 옛 습관을 씻어버리고 마음을 문자의 가운데 들이며 참다운 의리와 참다운 시비를 강구한다면 앞날의 그릇됨이 고쳐져 배움의 문턱으로 들어와 자연히 깨우침이 있어 앞날의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여 비록 날마다 편달하여 할 일과 아니 할 일을

구하여 바르게 정리하는 도가 학문하는 데 깊고 얕음이 이와 같을 수 없기에 도를 연구하는 선비가 그 또한 뜻을 두지 아니하라? 덕이 없는 사람은 가히 지도할 수 없으니 마음과 가슴 속에 간직하고 당부하여 깨우치고 깨우쳐 능히 내 말이 미약하다 하여 폐기하지 말지어다. 오늘날 진양(晉陽)의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 많으니 오직 군자들은 힘쓰고 힘쓸지어다.

동열(東列)

목사 김상중(金尙重)은 강릉인이요, 기유년에 사마(司馬)에 합격하고 임진년에 과거에 올랐다. 강형운(姜亨運)은 장의(掌議)요, 진양인이다. 유봉의(柳鳳儀)는 장의요, 문화인이다. 이재형(李再馨)은 재령인이요, 곽형후(郭亨晔)는 포산인이요, 최명후(崔命晔)는 삭령인이요, 강홍운(姜鴻運)은 진양인이요, 이한형(李漢馨)은 재령인이요, 이유룡(李猶龍)은 전주인이요, 하경청(河景淸)은 진양인이요, 하덕원(河德遠)은 유사(有司)인데 진양인이요, 강흥운(姜興運)은 진양인이요, 강종운(姜宗運)은 진양인이요, 이재룡(李再龍)은 재령인이요, 하윤중(河允中)은 진양인이요, 최치인(崔致仁)은 완산인이요, 김유수(金有水)는 학성인이요, 하응겸(河應兼)은 진양인이요, 하응오(河應五)는 진양인이요, 유경수(柳景洙)는 문화인이요, 정찬익(鄭燦益)은 오천인이요, 최상인(崔尙仁)은 유사인데 삭녕인이다.

서열(西列)

최주영(崔柱英)은 진양인이요, 유서하(柳瑞河)는 완산인이요, 하윤원(河潤遠)은 진양인이요, 정재백(鄭再栢)은 진양인이요, 정후(鄭晔)는 수양인이요, 정경신(鄭經臣)은 수양인이요, 김용갑(金龍甲)은 학성인이요, 손후명(孫後明)은 밀성인이요, 윤면중(尹勉中)은 파평인이요, 남국관(南國觀)은 의춘인이요, 정필신(鄭弼臣)은 수양인이요, 정세채(鄭世采)는 진양인이요, 조정국(趙正國)은 가림인이요, 정창주(鄭昌周)는 진양인이요, 양성필(梁星弼)은 용성인이요, 양덕관(梁德觀)은 용성인이요, 김유문(金有文)은 학성인이요, 정도수(鄭道洙)는 오천인이요, 남국승(南國升)은 의춘인이요, 정도관(鄭道貫)은 오천인이요, 하덕현(河德玄)은 진양인이요, 정학(鄭學)은 수양인이다.

진주향교이건사적(晋州鄉校移建事蹟)

校宮舊在北峰里北麓卽州誌所謂飛鳳左翼中腰也中間有兩次移建而校中無傳來文獻其年條與事實渾不記矣及今辛未冬移建破屋之後觀大樑與春閣所題則前後事蹟始昭然矣校宮在舊基時科宦之盛人才之美殆甲於嶺南而一自移設之後民物光華漸不如古甚至於蕭條莫甚且聖殿基址隘狹湫濕永久之奉有所未安以是一鄉之議皆有復舊址之願而每以自官禁抑不敢自下擅便前城主金侯鼎國李侯洛秀自從公論助成之意至於枚報營門以營門之不許事不諧矣及今城主洪侯大淵下車遂與士林議報于方伯金公會淵得狀請蒙允還建于舊址而以辛未十月二十九日巳時移安同月三十日辰時破屋十一月初四日午時開基同月十三日午時列礎十六日寅時立柱十二月初二日申時上樑明年壬申正月二十九日卯時還安殿蓋艮坐坤向申戌得午破也列礎之際衆議多端地師之論各執所見而或曰艮坐或曰丑坐或曰寅坐聽聞眩惑莫知其向矣及以舊址前後標迹採探則後面月臺宛然於沙土中而卽艮坐坤向寅三分分金也遂以是立柱矣又有一論以爲莫重聖殿未必用分金苟且之法且外案金鰲山用分金則斜側不正決以單艮爲宜云故任事諸人咸以舊坐向既有信跡在今人不當違越之意靳持而單艮之論亦甚正大竟難爭執以此變舊制而爲單艮然山家之理杳然茫然未知分金有無果是孰爲得而孰爲失也吉凶相應非一二年所可分判則惟是後人之鑑前辨別以爲其改不改如何耳聊識目前事實以備日後參考云耳

● 교궁(校宮)이 옛날 옥봉리(玉峰里) 북록(北麓)에 있었으니 즉 비봉산(飛鳳山) 좌측 중턱이다. 중간에 두 차례 이건(移建)이 있었는데 향교에 전해온 문헌이 없어 그 연조(年條)와 사실을 알 길이 없더니 지금 신미년 겨울에 이건하려고 파옥(破屋)하여 들보에 쓰인 것을 보고 전적을 훤히 알게 되었다. 교궁이 옛터에 있을 때에는 과환(科宦)과 인재의 성함이 영남에 1위였는데 한번 이절한 후로 민물(民物)의 광화(光華)가 점점 쇠퇴의 일로로 가고 있으며 또한 성전(聖殿)의 터가 좁고 습하여 영구히 봉안하기가 미안하다. 그래서 향의(鄉議)가 옛터에 환원하기를 원했으나 관문(官門)으로부터 억제(抑制)로 당했다가 전 성주(城主) 김정국(金鼎國) 이낙수(李洛秀)가 공론을 쫓아 조성의 뜻을 두어 영

문에 보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제 성주 홍일연(洪一淵)이 부임하여 사람과 함께 방백 김회연(金會淵)에게 보고해 성상의 윤험을 받아 옛터에 건립하니 신미년 10월 29일 사시(巳時)에 이안하고 동월 30일 진시에 파옥하고 11월 초4일 오시에 개기(開基)하고 13일 오시에 열초(列礎)하고 16일 인시에 입주(立柱)하고 12월 초2일 신시에 상량(上樑)하고 익년 임신년 정월 29일 묘시에 환안(還安)하니 대개 전(殿)이 간좌곤향(艮坐坤向)인데 열초할 때에 중론이 제기(齊起)하고 지사(地師)의 설이 각각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여 혹은 간좌(艮坐) 혹은 축좌(丑坐) 혹은 인좌(寅坐)로 다툼에 듣기에 현혹되어 방향을 알지 못하겠더니 옛터 앞에 표적(標迹)을 탐색해 본즉 후면에 월대(月臺)가 모래속에 완연하니 간좌곤향이요, 인삼분(寅三分)의 분금(分金)이 들었기에 드디어 이로써 입주(立柱)하고자 하였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막중한 성전을 분금으로써 구차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금오산(金鰲山)이 안산(案山)이니 분금을 넣으면 기울어져 부정하니 결코 단간(單艮)으로 함이 당연하다 함으로 일을 맡은 제원(諸員)이 모두 옛날 좌향(坐向)이 신적(信跡)이니 지금 사람이 억지로 위월(違越)치 못할 것이요 또 단간의 논의가 심히 정대하니 이대로 단간을 하는 것이 좋다 하여 간좌로 했다. 그러나 산리(山理)란 묘연하여 분금의 유무가 과연 누가 득하고 누가 실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길흉의 상응한 것은 1, 2년에 판단치 못할 것인즉 오직 후인이 전대를 거울삼아 개(改)와 불개(不改)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목전의 사실을 기록해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 이건설시 대소임사 제인(移建時大小任司諸人)

도 검 거(都 檢 擧)	정국제(鄭國濟)	관여(觀汝)	을축(乙丑)
	박천건(朴天健)	국정(國禎)	갑술(甲戌)
성조유사(成造有司)	유 후(柳 垆)	재언(載彦)	갑술(甲戌)
	정계채(鄭繼采)	내능(乃能)	신사(辛巳)
장 의(掌 議)	허 표(許 杓)	운원(運元)	무인(戊寅)
	하진익(河鎭翊)	자능(子能)	신묘(辛卯)
유 사(有 司)	허 정(許 櫻)	원직(元直)	을미(乙未)
	유임동(柳林東)	무여(茂汝)	정유(丁酉)

동역(董役)	성사덕(成師德)	경직(景直)	을유(乙酉)
장서(掌書)	정치엽(鄭致曄)	양원(揚遠)	기축(己丑)
장물유사(掌物有司)	강철중(姜喆中)	김양추(金養秋)	정응권(鄭應權)
	노도원(盧道元)		
관감관(官監官)	김석홍(金碩弘)		
색리(色吏)	조재규(趙載珪)	하영욱(河永旭)	
석감(石監)	강성보(姜聖輔)		
중수호방(重修戶房)	이철득(李哲得)		
향교호방(鄉校戶房)	염응준(廉應俊)		
중수재직(重修齋直)	김덕해(金德海)	정광성(鄭光成)	윤대문(尹大文)
향교재직(鄉校齋直)	박우춘(朴遇春)	정철성(鄭喆成)	
대청편수(大廳片手)	신정권(申鼎權)		
출신(出身)	신은권(申殷權)	정상손(丁尙孫)	이윤성(李允成)
	강재삼(姜載三)	정상채(鄭尙采)	천일득(千日得)
야장(冶匠)	남칠득(南七得)		
석수(石手)	김복래(金福來)	임악지(林岳只)	김상채(金尙采)
	정맹득(丁孟得)	김천수(金千守)	조태삼(曹太三)
개장(蓋匠)	김춘화(金春和)	김대성(金大成)	
이장(泥匠)	여담사리(盧淡沙里)		
화원(畵員)	이철재(李哲才)	석사안(釋思安)	이정욱(李正旭)
	박주근(朴柱根)	박춘보(朴春輔)	이동기(李同己)
	강은복(姜銀福)		
관차사(官差使)	김학룡(金鶴龍)		
중수고직노(重修庫直奴)	돈대(頓大)		
차사(差使)	노만득(奴萬得)	노부갑(奴夫甲)	
향교수노(鄉校首奴)	장도리(長道里)		
전직(殿直)	노일봉(奴日奉)		

성 상(成 上) 노 천근(奴 天根)
수 창(隨 唱) 노 끝충(奴 耒冲)

대성전개기축문(大成殿開基祝文)

自有天地便有一理往來消長迄無窮已飛鳳左翼先聖攸廬裸將芬苾閱幾居諸地勢湫下患在蒸濕不寧惟是重以隘狹永久妥奉恐非其所還設舊址輿論有素而我賢侯採報方伯有命自天爰降香祝謹涓辰良虔告拓土有神赫然永垂保佑

진주향교사교당기(晉州鄉校四教堂記)

吾鄉之學校本無講堂前教官趙寶仁議于州牧措置備材今教官姜元亮勤督告成乃名堂爲四教走書請記晉之爲邑智異之英南海之精醞釀冲融土地之沃饒人物之繁華非他邑之比吾嘗聞殷烈公姜民瞻學於校中功業烜赫厥后人材尤盛近古文敬公姜君寶吾先祖元正公諱楫 御史大夫諱允源及菁州君河乙沚參贊鄭乙輔與夫國初以來文忠公河崙文定公鄭以吾襄靖公河敬復皆就鄉校而拔萃若文若武俱鳴於當時吾鄉地靈人傑之美世所稱說然未必不由教養之致今也諸生尋常講讀之有便當春秋勝節如成均課試之法牧宰教官暇日逍遙於其上 或開卷講問或出題賦詩髣髴乎詠沂之趣從容乎樂育之樂優遊乎棫樸早麓之興矣雖然屬名之旨豈爲此歟爲學之道有二有務實之學有務名之學有務其實而不顧乎外者爲己也務其名而未脫乎循名之習者爲人也人生八歲皆入小學以至大學之教日用飲食動靜言語無非學也 培植涵養循序而進及其成功尊德性研經學非有意於文章而其爲文也出於義理之原非有意於政事而共爲政也發爲道德之用是則正心修身所以治平之本也夫子之四教教人以學文修行 而存忠信也忠信本也名堂之義深切焉爲學之道何以加此諸生所當服膺而日新況值聖朝右文之化 思皇以寧之時乎

正統十四年 己巳 左議政 河演 記

●우리 고을 향교에는 본래 강당이 없었다. 전직 교관(敎官) 조보인(趙寶仁)이 진주목사(晉州牧使)와 협의하여 조치한 뒤 재목을 준비하였다. 지금의 교관 강원량(姜元亮)이 감독하여 낙성하였다. 이에 강당 이름을 '사교(四敎)'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기문을 요청하였다.

진주는 지리산의 영기(英氣)와 남해의 정기(精氣)로 빚어져 기운이 뭉쳐져 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함과 인물의 번성함이 다른 고을과는 견줄 수 없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은열공(殷烈公) 강민첨(姜民瞻)이 향교에서 글을 읽어 공훈과 사업이 크게 빛났으며, 그 이후로 인재가 더욱 성대하여 근고(近古)의 문경공(文敬公) 강군보(姜君寶)와 원정공(元正公) 하집(河楫)과 어사대부(御史大夫) 하윤원(河允源)과 청주군(菁州君) 하을지(河乙祉)와 참찬(參贊) 정을보(鄭乙輔) 및 국초 이래 문충공(文忠公) 하륜(河崐)과 문정공(文定公) 정이오(鄭以吾)와 양정공(襄靖公) 하경복(河敬復) 등이 모두 향교에 나아가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 가운데 특히 뛰어나 혹은 문장으로 혹은 무예로 모두 당시에 이름을 크게 올렸다. 우리 고을은 지기(地氣)가 신령하여 걸출한 인물이 배출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컬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교육하고 양성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진주향교사교당기(晋州鄉校四敎堂記)

이제는 여러 생도들이 평소 강독하기에 편리함이 있게 되었고, 봄가을의 좋은 시절을 만나 성균관에서 시제를 부과하여 시험하는 법도와 같이, 목사와 교관이 한가한 날 이 사교당 근처를 소요하다가 때로는 책을 펼쳐 강독하거나 질문하기도 하며, 때로는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할 수 있다.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시를 읊겠다는 증점(曾點)의 아취와 방불하여, 담담하게 인재를 육성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으며, 넉넉하게 인재를 기르고 교화를 일으키는 감흥을 즐기게 되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 강당의 이름을 ‘사교당’이라 붙인 뜻이 어찌 이 때문이겠는가? 학문하는 도리는 두 가지가 있다. 실질에 힘쓰는[務實] 학문과 명예에 힘쓰는[務名] 학문이 그것이다. 그 실질에 힘쓰면서 그 밖의 것에 대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그 명예를 추구하다가 명예를 따르려는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위인지학(爲人之學)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여덟 살이 되면 모두 소학(小學)에 입학시킨 뒤 대학(大學)을 교육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의 마시는 것과 먹는 것,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말하는 것 등이 학문이 아닌 것이 없다. 북돋우어 키우고 젖어 함양하여 순서에 따라 진척이 있으며, 그리하여 그 공을 이름에 미쳐서 덕성을 존중하고 경학을 연구하게 되면, 문장에 뜻을 두지 않더라도 그 문장이 의리의 근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정치에 뜻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정치가 도덕적 작용으로 발현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이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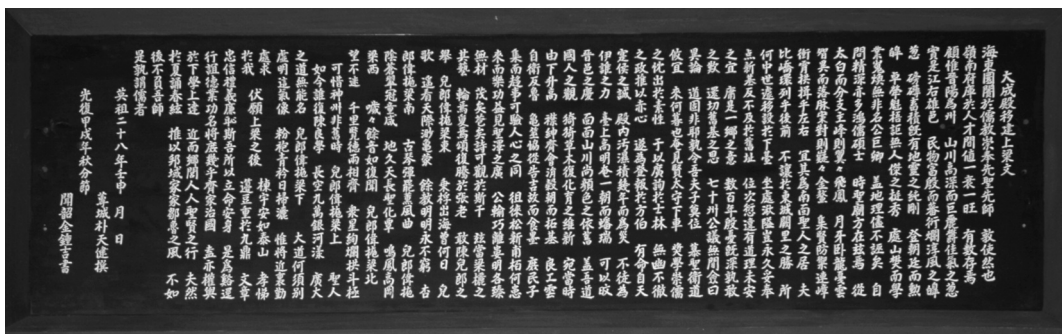
공자께서 네 가지로 사람을 가르치셨으니, 글[文]을 배우고 행실[行]을 닦는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충실함[忠]과 신의[信]를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충실함과 신의가 글과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강당을 ‘사교(四教)’로 명명한 의미가 깊고도 절실하다. 학문하는 방법이 어찌 여기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여러 생도들이 마땅히 가슴에 새겨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성스러운 임금께서 문화를 앞세우는 교화를 펼쳐 빛나고 편안하게 된 때를 만났음에라.

정통14년 기사년(1449), 좌의정 하연(河演)이 짓다.

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海東園闔於儒教崇奉先聖先師嶺南府庫於人才間值一衰一旺孰使然也有數存焉顧惟晉陽爲州實是江右雄邑山川高深而華麗鬱佳氣之蔥蔥民物富殷而蕃行爛淳風之皞皞磅礴蓄積既有地靈之純剛卓犖魁梧詎無人傑之挺秀登朝廷而勳業崑煥無非名公巨卿處山樊而學問精深亦多鴻儒碩士蓋地理儘不誣矣時聖廟方在茲焉自太白而分支主峰則翼翼飛鳳從智異而落脈案對則嶷嶷金鰲月牙卧龍夏雲衝霄拱揖乎左右集賢防禦連嶂比嶠環列乎後前宜其爲南面聖人之居不讓於東城闕里之勝夫何中世遽移設於下臺所點新基反不及於舊址坐處湫隘豈永久安奉之宜位次愆違有道理未安之歎庸是一鄉之意還切舊基之思數百年殷憂旣深孰敢異論七十州公議無間僉曰攸宜道固非耶孰令吾夫子奠位來何暮也奄見賢太守下車慕聖衛道之忱出於素性獎學崇儒之政推以赤心于以廣詢於士林遂爲登報於方伯無幽不徹寔侯之誠有命自天伊誰之力殿內汚濕積幾年而爲災臺上高明奄一朝而蟠瑞不徒爲晉邑之慶可以眩國人之觀面面山川尙顏色之依舊猗猗草木復化育之維新蓋吾道由下升高宛當時自衛反魯襟紳齊會涓穀朝而拓基龜筮協從告吉故而食墨良工雲集而趨事可驗人心之同庶民子來而樂功益見聖澤之廣徂徠松新甫栢何患無材公輸巧離婁明各臻其藝茂矣苞矣詩可觀於斯干輪焉奩焉頌復騰於張老茲當樑欂之舉敢陳兒郎之歌

兒郎偉拋樑東遙看天際渺龜蒙乘桴出海曾何日餘教明明永不窮
 兒郎偉拋樑南杏陰蒼翠冠童咸古琴彈罷薰風曲地久天長聖化覃



대성전이건상량문(大成殿移建上樑文)

兒郎偉拋樑西鳴鳳高岡望不迷嘖嘖餘音如復聞千里覽德兩相齊
 兒郎偉拋樑北衆星絢爛拱斗極可惜神州非舊時如今誰復陳良學
 兒郎偉拋樑上長空九萬銀河漾聖人之道無能名廣大虛明這氣像
 兒郎偉拋樑下粉袍青衿日掃灑大道何須別處求惟將近裏勤於我
 伏願上樑之後棟宇安如泰山籩豆重於九鼎孝悌忠信禮義廉恥斯吾所以立命安身文
 章行誼德業功各將庶幾乎齊家治國是爲谿逕於下學上達盖亦權輿於夏誦春絃近而鄉
 閭人人聖賢之行推以邦域家家鄒魯之風夫然 後不負吾師不如是孰謂儒者

英祖二八年 壬申 月 一 光復甲戌年 秋分節 蓴城 朴天健 撰

●해동은 유교가 생활화 되어 선성(先聖)과 선사(先師)를 받들고, 영남은 인재의 큰 곳
 집, 일쇠(一衰)와 일성(一盛)을 만났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수(數)가 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진양 고을은 실로 강우의 큰 읍이네. 산천이 높고 깊으며 아름다워,
 울창한 아름다운 기운이 무성하고, 민물(民物)은 부유하고 넉넉하여 찬란한 순풍 가득
 찼네. 방박(磅礪)한 기가 쌓여 이미 지령(地靈)의 순강(順剛)함이 있었고, 뛰어난 인재 훌
 륭해 어찌 인걸의 빼어남이 없으랴. 등조(登朝)하여 훈업이 빛나서 명공거경 아님이 없
 고, 은거하여선 학문이 깊어서 홍유석사(鴻儒碩士) 또한 많았네. 대저 지리는 속임 없고,
 때에 성묘(聖廟)는 여기 있네. 태백산 줄기 갈려 주봉은 나는 듯 비봉산(飛鳳山)이요, 지
 리산 떨어진 맥, 안대(案對)는 높이 솟은 금오산(金鰲山)이네. 월아산(月牙山) 와룡산(臥
 龍山)이 구름을 뚫고 하늘 찢러, 좌우에서 읍하는 듯, 집현산(集賢山) 방어산(防禦山)은
 봉우리가 이어져 전후에 늘어섰네. 그 남면(南面)함은 성인의 거소에 마땅하고 그 동성
 (東城)에 못하지 않음은 궤리(闕理)의 승경 같네. 그 어찌 중세에 문득 하대(下臺)에 이
 설(移設)했나. 점(占)한 바 새터는 도리어 옛터만 못했네. 좌지(坐地)가 습하고 좁아서
 어찌 영구히 봉안 마땅하랴. 위차(位次)가 잘못되어 도리에 미안한 탄식 있네. 땃땃한 이
 일향(一鄉)의 뜻은 도리어 옛터 생각 간절해. 수백 년의 성한 근심 깊음에 감히 이론(異
 論)하랴? 70주의 공의가 차이가 없음에 모두 옳다고 하였네. 말함이 진실로 그른가? 누
 가 우리 부자(夫子) 자리 옮겼나? 부임이 그 어찌 늦었나? 문득 어진 태수 부임하였네. 모
 성(慕聖)과 위도(衛道)의 정성은 본래 성품에서 나왔고, 장학과 승유의 정사는 어린 적

심(赤心)에서 미루네. 이에 사림에게 널리 묻고 드디어 방백에게 보고해, 깊숙한 곳 다 통하게 함은 목사의 정성이요, 명수(命數)는 하늘로부터 주니 이 누구의 힘이던가, 전(殿) 안의 오습(汚濕)은 몇 해 동안 쌓여 재난이 되었고, 대(臺) 위의 고명(高明)은 문득 하루 아침에 상서(祥瑞) 감도네. 진주의 경사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습을 고쳤다 하겠네. 보이는 산천은 오히려 안색이 옛과 같건만 아름다운 초목은 다시 교화의 새로움을 회복 하네. 대개 우리 도는 아래로부터 높은 데 오르고, 당한 때는 부자(夫子)가 위에서 노(魯)로 돌아온 때와 같네. 선비들 함께 모여 길일 가려 티를 닦고 거북점 화합하여 길한 까닭 고하여 먹줄 먹여 양공(良工)들 운집하여 일함에 같은 인심 징험하고, 서민들 자식처럼 달려와 공(功)을 즐김에 성인 혜택 넓은 보네. 조래산(俎徠山)의 술, 신보산(新甫山)의 잣에 재목 구함에 무슨 근심, 공수(公輸)의 교(巧), 이루(離婁)의 밝음에 그 예능 발휘되네. 술이 성하고 대가 무성함은 시의「사간편(斯干篇)」에 볼 수 있고, 집에 장대한 동량이니 송사(頌詞)는 장노(張老)에서 다시 이네. 이 양목(樑木) 들어 올려 감히 아랑(兒郎)노래 베풀려네.

어기여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네. 멀리 하늘가를 보니 아득한 구산(龜山)과 몽산(蒙山). 때때 타고 출해(出海)함이 일찍이 어느 날고? 끼친 교(教) 밝고 밝아 길이 무궁하네.

어기여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은행나무 푸른 그늘 관동(冠童)이 다 모였네. 옛 거문고 다 탐에 남풍이 구비치고, 천지가 장구토록 성인 교화 크다네.

어기여차! 들보를 서로 던지네. 우는 봉황, 높은 뿔을 바라봐도 어지럽지 않다네. 봉 울음 남은 소리 듣는 것 같아, 천리에 이르도록 덕과 채색 가지런해.

어기여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네. 못 별이 현란하게 북두성에 예를 드리네. 아깝다 이 나라는 옛 때가 아니니 이제 누가 다시 진량(陳良)을 배우는가?

어기여차! 들보를 위로 던지네. 긴 공중 구만리에 은하수 출렁거려. 성인의 도를 이룰 지을 수 없어, 광대하고 허명(虛明)한 저 기상이네.

어기여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네. 의관한 선비들이 날로 쏘고 물뿌리네. 큰 도를 어찌 별처(別處)에서 구할소냐, 오직 장차 가까운 곳에서 근(勤)하게 하라.

엎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마룻대는 태산같이 편안하고, 향사(享祀)는 구정(九鼎)처럼 무겁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는 우리가 입명안신(立命安身)하는 바요. 문장, 행의,

덕업, 공명은 장차 제가치국을 바라서네. 이 하학상달(下學上達)에는 거리가 머니 또 하송춘현(夏誦春絃)에 되돌아가야하네. 가까이는 향리의 사람마다 성현의 가르침을 행하고, 미루어 나라의 집집마다 추노(鄒魯)의 풍속을 숭상해 하소. 그런 뒤에야 우리는 부자(夫子)를 저버리지 않네. 이같이 아니하면 누가 유자(儒者)라 이르겠나?

영조 28년(1752) 임신 월 일 순성(尊城) 박천건(朴天健) 찬술

환안시어축문(還安時御祝文)

翼翼聖殿既新且吉籩豆有俎永世寧謐

● 날개를 편 듯 성전(聖殿)은 이미 새롭고 길하였으며 변두(籩豆)가 질서가 있으니 영세토록 안녕하옵소서.

영남진주교궁이건사적비문(嶺南晉州校宮移建事蹟碑文)

夏有校殷有序周有庠學校之典蓋舊矣國朝受命尤黜異端扶正學首設太學尊聖師而育英才外而州縣亦如之儒教蔚然羣賢輩出東方道學之傳自殷太師以來前後數千年而於斯爲盛詎不休且美哉晉之校在州治東三里玉峰村之北麓中世以地勢峭峻移奉於鳳谷四教堂之側時則崇禎後十二年丙申而粵三十五年辛未還卜于舊址下臺山川周匝比鳳谷稍有形勢然汙而隘永久妥奉非其宜也章甫率以是憂之思欲復安於上臺今牧伯洪侯下車一鄉齊謁而訴之侯乃採報于方伯金公會淵聞于朝而祇承成命遂卜日移建是辛未十一月而越明年正月功告訖殿凡六間負良對坤皆仍舊貫也噫爲聖師致尊安一州之所大欲而患無賢守長指揮嚮合齋咨茹恨聚首掩抑者已百餘年而侯之來適當是會值辛未再周而事遂成此有數存而不偶然者豈人力所能及也哉於是州人士懽欣鼓舞趨走使令惟侯命是遵侯又覃思踳慮夙宵靡懈凡百機務尙當動合矩範以故公議翕然樂爲其熏沐而不敢辭焉天健與鄭國濟以都檢舉摠庶務許杓河鎮翊許檉柳林東以齋任贊謀劃柳

屋鄭繼采主成造成師德掌董役鄭致曄典記注若其幹旋中外隨事共濟姜曙鄭敏善梁以涉與有力焉而終始供貨財給資用者姜喆中金瀆秋鄭應權盧道元也侯名大淵字子靜唐城人性清簡謹嚴所至有令聲今又大肆力於儒宮而使聖位奠安儒林悅服做來千百載不朽之業其平日所養可知已嗚呼偉矣未知百世之下有聞遺風而興起者否銘曰

節彼高岡有儼兩楹正位南面先聖攸寧昔患湫隘輾然於穆州人胥慶貞而元復伊誰之力猗歟賢侯我命書石銘詔千秋

崇禎紀元後三 壬申 正月 日 蓴城 朴天健 撰

豎碑已經二百四十年 字劃爲磨滅則檀紀四三二六年 癸酉 典校 載寧 李正大 改豎

●하(夏)나라에는 교(校)가 있었고, 은(殷)나라에는 서(序)가 있었으며, 주(周)나라에는 상(庠)이 있었으니, 학교의 제도가 대개 예부터이다. 국조(國朝)가 천명을 받아 더욱 이단을 배척하고, 정학(正學)을 부호(扶護)하여, 제일 먼저 태학(太學)을 베풀어 공자를 높이고 영재를 교육시켰으며, 주현(州縣)도 또한 이같이 하니 유교가 성하여 많은 현자가 배출되었다. 동방도학의 전함은 기자(箕子) 이래로 전후 수천 년으로 이에 성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진주향교가 주의 동쪽 3리 지점인 옥봉동 북쪽 산기슭에 있었으나 중세에 이르러 지세가 험하여 봉곡동 사교당(四教堂) 옆으로 이봉(移奉)하였으니, 그때가 명나라가 망한지 12년 병신년(1656)이고, 35년을 지난 신미년(1691)에 옛터의 하대(下臺)에 돌아오니, 산천이 둘러싸 봉곡에 비하여 형세가 조금 나으나 누추하고 좁아 영구히 받들기에는 마땅치 못하였다. 선비들이 모두 이를 근심하여 다시 상대(上臺)에 옮기고자 생각하였다. 이제 목사 홍공(洪公)이 부임하니, 일향(一鄉)이 같이 뵈고 하소연하였다. 목사가 곧 관찰사 김회연(金會淵)에게 고하고, 조정에 알려 경건히 재가를 받들었다. 드디어 택일하여 이건하니, 이 신미년 십일월이고, 명년(明年) 임신년(1692) 정월에 준공하니, 대성전 육간이 부간향곤(負良向坤)으로 위치함은 다 옛 관례이다. 아아! 성현을 존안함은 한 주를 크게 하고자 하는 바나, 어진 수령이 지휘하고 호응하는 이 없음을 근심하고 한숨지으며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억제한지 이미 100여 년이었는데, 목사 부임이 마침 두 번째 신미년을 만나 일이 드디어 이룩되니 이는 명수(命數)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연한 일이 아니니 어찌 인력으로 미칠 수 있는 바이겠는가? 이제 주의 사람들

이 기뻐하고 춤추며 명령대로 달려가 오직 목사의 명을 따르겠다 하였고, 목사도 또한 크게 은혜를 베풀고 염려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게으름이 없었으니 백 가지 기무(機務)가 마땅하고 거지(擧止)가 법에 맞았으니, 이러므로 공의가 흡연하여 즐겨 그 교화 입기를 감히 사양하지 않았다. 천건(天健)이 정국제(鄭國濟)와 함께 도검(都檢)으로 서무를 총관하고, 허표(許杓)·하진익(河鎭翊)·허정(許檉)·유임동(柳林東)이 재임(齎任)으로 일을 도왔으며, 유구(柳垢)·정계채(鄭繼采)는 성조(成造)를 맡았고, 성사덕(成師德)은 동역(董役)을 관장하였으며, 정치엽(鄭致曄)은 기록을 맡았고, 그 중에 외부에 알선하고 일에 따라 함께 성사시킨 이는 강서(姜曙)·정민선(鄭敏善)·양이섭(梁以涉)이며, 유력한 이로 더불어 시종 화재를 공급하고 용도를 제공한 이는 강철중(姜喆中)·김양추(金瀆秋)·정응권(鄭應權)·노도원(盧道元)이다. 목사의 이름은 홍대연(洪大淵)이요, 자는 자정(子靜)이며 당성인(唐城人)이니, 성품이 청간 근엄(淸簡謹嚴)하여 이르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고, 이제 또한 유궁(儒宮)에 큰 힘을 베풀어 성위(聖位)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유림으로 하여금 열복(悅服)하게 하였으며, 천백 년 불후(不朽)한 업적을 만들었으니 그 평일의 기른 바를 알 수 있다. 아아! 위대하도다. 모르긴 하여도 백세의 후에 유풍을 듣고 흥기할 사람이 없겠는가? 명(銘)하여 이르기를

“우뚝한 저 언덕에 두 기둥 엄숙하네. 정위(正位)가 남면(南面)하니 선성(先聖)이 편하신 곳. 예전의 습하고 좁은 근심, 화해(和諧)한 곳 옮겨왔네. 주의 사람들이 서로 경하함은 성사하여 최선 마무리. 누구의 힘인가? 아아! 어진 목사, 나는 명(命)에 의해 들에 쓰니, 새겨 천추에 알리네.”

송정 기원후 3번째 임신년(1812) 정월 순성(蓴城) 박천건(朴天健)이 짓다.

비를 세운지 240년이 경과되어 자획(字劃)이 마멸됨에

단기 4326년(1993) 계유에 전교 재령(載寧) 이정대(李正大)가 다시 세우다.

완역재강석덕시(玩易齋姜碩德詩)

天年風化洽群情 천 년 된 풍화 못 사람의 뜻에 흡족하고,

鳴鳳高崗孕秀精 높은 봉우리에 우는 봉 좋은 정기 배어 있다.
 新闢鱸堂澄學海 새로 지은 명륜당에 배움의 바다 맑아 있고,
 時行筆陣動詩城 때로 행하여지는 붓글씨에 시성이 움직인다.
 秋深綠竹含風淨 가을이 녹죽에 깊었음에 맑은 바람 머금었고,
 春暖青莪冒雨馨 봄이 따스하니 푸른 쑥이 비를 무릅쓰고 향기롭네.
 盛代卽今多吉士 성한 세상 오늘에 좋은 선비 많으니
 吾鄉諸彦盡窮經 우리 고을 여러 선비 모두 경서를 연구하였네.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州有文廟在玉峰之下廟左有堂曰明倫堂南有樓曰風化樓以是揭者何義也盖聞聖人之化至妙至神無古無今在當世則當世化焉在後世則後世化焉風百世而不衰甄萬古而無替後學莫不歸嚮

名教賴而不晦其世雖遠其化自如大哉化乎此樓之所以取義而揭名也此樓之所以必建於聖廟之側校堂之前者也樓舊樑桷皆頽太守李侯下車之明年州人謀新之以告于侯侯曰諾不可已也遂伐材于山發丁於戶使之極新完山李君邦協主其事役匠董功不日重煥州之君子相與揚言曰斯樓不修且壞而今得賢太守暨李君之勤幹得以新焉豈非幸歟余曰諸君之所幸者何幸歟幸丹碧之侈觀歟幸遊息之有所歟抑吾之所以爲幸者有異於人諸君知之乎夫樓之揭名其義本非偶然則斯樓修否之分卽聖化興廢之候也人之視樓固當以化不以樓也余觀吾晉鄒魯之洙泗也歷數聖朝三百餘年騫牛之德行相踵游夏之文學比肩其所菀然未必非斯樓之所助則其亦猗歟而世道一降俗化隨下才賢之興未免

後讓於前窮經積學之士絕響而無聞肄業講道之風掃地而不見則今日吾州之聖化雖謂之與樓俱頹亦可也豈不慨然也今我賢侯右文爲治莅州之初首謁聖宮繼又獎試多士倡化興學之志不翅尋常則出欣之暇問俗之飭想必興遐想於前美發長歎於今裏矣其所以樂聞州人之請極修斯樓之頹者其意豈但爲棟宇之煥遊翫之勝乎蓋欲使一邦聖人之化既暗而復明將廢而復興也此李君之所以亦體新侯之意益殫幹事之能終始不懈以完其功也苟非然者樓亦何取於新乎噫化之廢前也而樓以之隨頹則樓之修於今也而化不獨隨興乎凡人無智愚賢不肖莫不知孔子之爲聖聖化之宜服而鮮能爲聖人徒者難於自奮耳今吾州之君子雖不可以豪傑自與責之於人人而古家遺風猶有未泯者存焉苟有以興起之則一變至魯誠不難焉今樓修新之舉足爲一州之瞻聳以爲聖人之化不日可恢則其所以興人之心起人之懦者實不淺小其奮勵自強戒飭相勉以踵先輩之武用挽舊化之盛可庶幾焉吾願吾鄉之人不曰樓而曰化不曰修樓而曰修化相與告語相與鼓舞曰化之不興責在吾黨豈可使斯樓獨新於今而聖化不修於今乎欲道德之充於己也則服仁佩義仰夫子之罔訓欲禮讓之修於身也則以約以博思夫子之至誨居於家則曰夫子之道孝悌而已也於是而益愀焉處於鄉則曰夫子之於此亦嘗敬謹也於是加勉焉以至出而事君達而在上則念夫子盡禮之戒而克殫乎爲臣之道焉不幸而有干紀犯分之徒或梗於邦化則仗夫子春秋之義而用扶乎一世之綱焉一言一動無取法乎夫子一行一事無非視則乎夫子則夫子陶甄之化不獨行於當時而家顏戶曾之美可以見於今日矣至此而今日斯樓之修豈不大有造於吾鄉也耶或曰吾子所言不爲無見而抑時有古今俗有汚隆聖化之行不行顧係於時運之如何耳樓亦何與焉余曰噫子過矣夫子曰爾愛其羊我愛其禮斯機也亦告朔之餼羊也今使聖人之化雖爲頹廢不振而樓苟存焉則庶可顧其名而思其義見者或因以興焉聞者或因以起焉如使斯樓不修於今日而終至於茂草則後生末學顧無觀感之地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不知聖人風化之爲何物尙何望於挽回而修明之耶此吾之所以浚有幸於斯樓之修而亦有望於吾鄉之人者也於是諸君子相與環視而瞿然曰微子之言賢侯陶化之至意幾不免昧昧李君之與有功於興化者又幾乎無聞使吾一鄉之士終自外於聖人陶勻之央矣遂作而謝因請余文揭樓以示于後余不敢以文拙辭於是乎書

崇禎紀元後再還庚申之建午下浣 首陽 鄭相虎 記

● 고을에 문묘(文廟)가 있으니 옥봉산 아래에 있었고 문묘의 아래에 당이 있으니 그것이 명륜당이요, 당의 남쪽에 누가 있으니 풍화루이다. 이것으로 이름 지은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들으니 성인의 교화는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신성하여 옛과 지금이 다름이 없고 당세에 있는 즉 당세의 덕화요, 후세에 있는 즉 후세의 덕화다. 풍속은 백세라도 쇠하지 아니하고 표본은 만고에 끊어짐이 없으므로 후학들이 뜻을 두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름과 교화가 힘입어 어둡지 아니하였고, 세대가 비록 멀어도 교화가 한결같으니 크도다 교화여! 이 누각이 그 뜻으로서 이름 하는 바임으로 이 누각이 반드시 성묘(聖廟)의 옆과 교당의 앞에 서는 바이다. 누각의 옛날 들보와 서까래가 모두 퇴락하였으니 태수 이후(李侯)가 부임한 명년에 고을 사람들이 수리하기로 의논하고 태수에게 고하니 태수가 승낙하고 가히 지연합 수 없다하여 산에서 벌목하고, 집집마다 부역을 풀어 극히 새롭게 수리하였으니 완산 이방협(完山 李邦協)이 그 일을 주장하였고 대목을 감독하여 불일내로 중수 하였으니 고을 군자들이 서로 즐거이 말하기를 “이 누각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의 무너지게 되었더니 이제 어진 태수와 이군이 부지런히 감독함을 힘입어 새롭게 수리하였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리오.” 하거늘 내가 말하노니 “제군들이 다행하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여 다행하다 하는가? 돌이켜 생각건대 나의 다행한 바는 여러 사람들 보다 다름이 있으니 제군들은 아는가? 누각의 이름을 지은 뜻이 본래부터 우연함이 아닌 즉 이 누각을 수리하고 아니하는 구분이 곧 성현의 교화가 흥하고 폐하는 징조이다. 사람들이 이 누각을 볼 때 진실로 마땅히 교화로서 보고 누각으로서 보지 말 것이다. 우리 진주는 추노(鄒魯)와 수사(洙泗)고을이다. 성조 300여 년을 역력히 헤아려 볼 때 민자건(閔子騫)과 염우(冉牛)의 덕행이 서로 이어 일어나고 자로(子路)와 자하(子夏)의 문학이 어깨를 견주어 이어졌으니 그 훌륭하게 좋은 것이 반드시 이 누각이 도운 바가 아님이

없은즉 그 또한 장하도다. 세상이 한번 하강하자 풍속도 따라 떨어짐에 재주 있고 어진 이가 일어나는 것도 앞 사람에게 사양함을 면치 못하였고, 경서를 연구하여 학문을 쌓은 선비들의 소리가 끊어져 들림이 없고, 학업을 익히고 도를 강론하는 풍속이 땅에 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고을이 성인의 덕화가 비록 누각과 함께 엮어졌다 하여도 또한 가하니 어찌 슬퍼하지 아니하라. 지금 우리 어진 태수는 학문을 숭상하는 정치를 하여 고을에 부임한 처음에 먼저 문묘를 찾아보고 이어 많은 선비를 권장하여 시험 보게 하여 교화를 창성하고 학문을 일으킨 뜻이 심상치 아니하였다. 쉬는 여가에 풍속을 물어 단속하고 반드시 먼 생각을 일으켜 앞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지금의 쇠해지는 것을 깊이 탄식하였으니 그러한 바로 고을 사람의 청을 즐거이 들어 이 누각이 무너진 것을 빨리 수리하였다. 그 뜻이 어찌 다만 집을 밝게 하고 노는 장소로 만들뿐이리오? 한 나라로 하여금 성인의 교화가 어두운 것을 다시 밝게 하고 엮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군이 우리 태수의 뜻을 본받아 한 일ियो. 더욱 일을 감독하는 데 능력을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여 그 일을 완료하였으니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들 누각이 어찌 새로워졌으랴? 슬프다! 교화가 앞에서 폐하여졌음에 누각이 따라서 엮어지고 누각이 지금 수리되었음에 교화가 따라 일어나지 아니하라? 사람들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어질지 못한 자 모두가 공자가 성인임을 알지 못함이 없으니, 성인의 교화가 마땅히 가슴에 새겨도 능히 성인을 본받게 되는 자 적은 것이 자력으로 분발함이 어려워 그러한 것이다. 지금 우리 고을 군자들이 비록 호걸로 자처하여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고가의 유품이 오히려 남아 있어 진실로 일어남이 있는 즉 한번 변하여 노(魯)나라에 따르기가 어렵지 아니하다. 이제 누각을 새로 중수하여 고을 사람에게 보기가 좋게 되니 성인의 교화가 불일내로 회복된즉 사람이 어진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니 진실로 적지 아니하니 분발하여 스스로 힘써 서로 충고하여 힘쓰게 하여 선배의 발자취를 이어 옛날의 교화가 성함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건대 우리 고을 사람들은 누각이라고 말하지 말고 교화의 장소라 말하고, 누각을 수리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서로 고무하여 말하기를, 교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가히 이 누각으로 하여금 홀로 지금에 새롭게 하고 성인의 교화를 오늘에 같고 닦지 아니하라? 도덕을 몸에 채우고자 할진대 인의를 가슴에 새겨 부자(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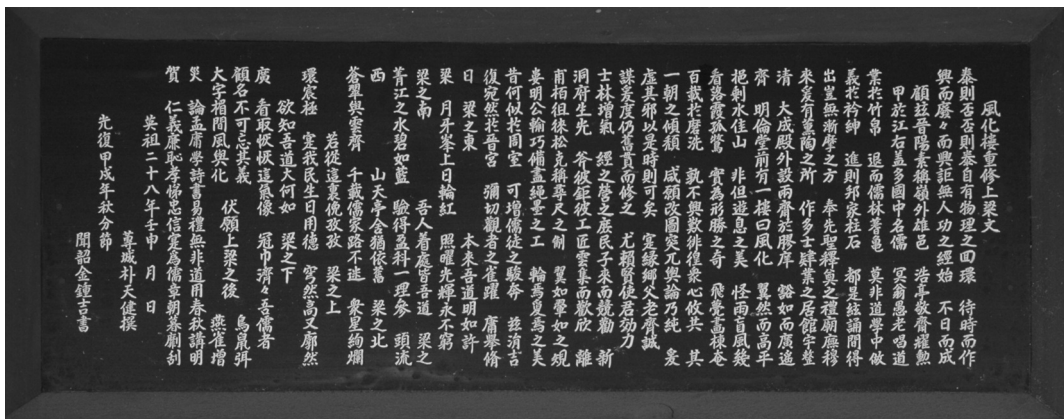
子)의 밝은 교훈을 우리르게 해야 한다. 예의와 사양하는 것을 몸에 닦고자 할진대 예로서 마음을 간략하게 하고 학문으로 뜻을 넓게 하여 부자의 지극한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다. 집에 있을 때는 부자의 도는 효제뿐이라고 하고 더욱 힘써야 한다. 고을에 있을 때는 부자가 이에서 일찍 경건하였다 하고 이에 더 경건히 삼가야 한다.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섬겨서 영달하여 윗자리에 있는 즉 부자가 예를 다하여 경계하는 것을 생각하여 극히 신하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불행히 범망에 걸려 불순한 무리가 되어 혹 나라의 교화에 해가 되면 부자의 춘추대의를 생각하여 일세의 기강을 부지하게 하고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부자에 법하지 아니함이 없고 하나의 행실과 하나의 일이 부자를 보아 모범으로 삼지 아니함이 없은즉 부자가 화성(化成)한 교화가 홀로 당시만 행하지 아니하고 집집마다 안자와 증자의 아름다움이 되어 가히 오늘날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 누각을 수리한 것이 어찌 우리 고을에 교화됨이 있음이 크지 아니하라? 혹자가 말하기를 자네가 한 말은 견문이 없다고 하지 말고 돌이켜 보건대 때가 고금이 있고 풍속이 좋고 나쁠 때가 있어 성인의 덕화가 행하고 행하지 못함은 시운의 여하에 달려있으니 누각이 또한 무엇을 관계하리? 내가 말하기를, 슬프다! 부자가 말하기를 너는 염소를 사랑하나, 나는 예를 사랑한다 하니 이때는 초하루 날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때이다. 이제 성인의 교화가 비록 무너져서 거의 부진한 상태나 누각이 있는 즉 그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여 보는 자 일어나 듣는 자 일어나서 만약 옛집을 오늘날에 수리하지 아니했던들 마침내 목정밭이 될 것인데 후생 말학(末學)들이 보고 느낄 터전이 없어 성인의 풍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은즉 어찌 돌이켜 몸을 닦고 덕을 밝히기를 바라리요? 이것이 내가 이 누각을 수리한 것이 깊이 다행함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고을 사람에게 소망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에 모든 군자들이 서로 돌아보고 혼연하여 말하기를 자네가 어진 태수의 교화를 만들어준 지극한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군으로 더불어 교화를 일으킴에 공이 있음을 까마득히 모를 뻔하였고, 또 우리 고을 선비들로 하여금 들은 말이 없이 마침내 성인의 교화를 외면할 뻔하였다. 드디어 일어나 사례하고 나에게 글을 청하여 누각에 걸어 후인들에게 보이고자 하거늘 내가 감히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마지못해 기문을 썼노라.

승정 기원후 두번째 돌아온 경신년(1740) 5월 하순 수양(首陽) 정상호(鄭相虎) 짓다.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泰則否否則泰自有物理之回環興而廢廢而興詎無人功之經始待時而作不日而成顧茲晉陽素稱嶺外雄邑甲於江右蓋多國中名儒浩亭敬齋耀勳業於竹帛冥翁愚老唱道義於衿紳退而儒林著龜進則邦家柱石莫非道學中做出豈無漸摩之方都是絃誦間得來爰有薰陶之所奉先聖釋奠之禮廟廡穆清作士肄業之居館宇整齊大成殿外設兩齋於膠庠明倫堂前有一樓曰風化豁如而廣遙挹剩水佳山翼然而高平看落霞孤鶩非但遊息之美實爲形勝之奇怪雨盲風幾百載於磨洗飛甍畫棟奄一朝之傾頽孰不興歎徘徊衆心攸共咸願改圖突兀輿論乃純其虛其邪以是時則可矣爰謀爰度仍舊貫而修之寔緣鄉父老齊誠尤賴賢使君效力士林增氣洞府生光經之營之庶民子來而競勸斧彼鋸彼工匠雲集而歡欣新甫栢徂徠松克稱尋尺之制離婁明公輸巧備盡繩墨之工翼如翬如之規昔何似於周室輪焉奐焉之美復宛然於晉宮可增儒徒之駿奔彌切觀者之雀躍 茲涓吉日庸舉脩樑

樑之東月牙峯上日輪紅本來吾道明如許照耀光輝永不窮
 樑之南菁江之水碧如藍吾人着處皆吾道驗得盈科一理參
 樑之西頭流蒼翠與雲齊山天亭舍猶依舊千載儒家路不迷
 樑之北衆星絢爛環宸極若從這裏俛孜孜寔我民生日用德
 樑之上穹然高又廓然廣欲知吾道大何如看取脈脈寇氣像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樑之下冠巾濟濟吾儒者顧名不可忘其義大字楣間風與化

伏願上樑之後鳥鼠弭災燕雀增賀論孟庸學詩書易禮無非道用春秋講明仁義廉恥孝悌忠信寔爲儒章朝暮劇刮

純祖十二年 壬申 月 日 蓴城 朴天健 撰

●성한즉 쇠하고 쇠한즉 성하니, 물리의 순환이 있고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흥하니, 어찌 인공(人功)의 경영 없으랴. 때를 기다려 지으니 며칠 안가 성취되네. 이 진양은 원래 영남에서 큰 읍으로 칭하고 강우(江右)에서 으뜸가네. 대저 나라의 명유 많으니 호정(浩亭)·경재(敬齋)는 훈업이 역사에 빛나고 남명(南冥)·수우(守愚)는 도의를 사림에 제창해, 물러서면 유림의 시귀(蓍龜)요, 나아가면 국가의 주석이네. 도학에서 지어내니 어찌 같고 닦는 방법이 없으며, 현송(絃誦)에서 얻어오니, 이에 교화할 장소 있네. 선성에게 석전의 예를 받드니 정묘와 동·서무 안온하고, 선비들이 학습할 곳 지으니 관사와 옥우(屋宇) 정비했네. 대성전 밖엔 학사(學舍) 2재(二齋)를 세우고, 명륜당 앞엔 풍화루를 갖추네. 사방 트이어 넓고 멀어, 장수가산(長水佳山)을 당기고, 나는 듯 높고 평탄하여 저녁놀에 노는 오리를 보겠네. 노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로 형승이 기이하네. 괴이한 풍우에 몇 백 년 마세(磨洗)되었나 나는 듯한 마룻대와 단청한 기둥이 일조에 무너졌네. 누가 탄식하며 배회하지 않으랴. 중심은 한가지고 모두 개축하여 우뚝하기를 원하니 여론은 동일하네. 늦출 수 있겠는가? 이때가 알맞고 이에 피하고 헤아려 옛 법식 따라 짓네. 진실로 고을 부로(父老)로 인하여 정성이 같고 더욱 어진 원님에 힘입어 힘을 이루네. 사람이 기운을 더하고, 마음엔 빛이 생기네. 이를 경영함에 서민이 자식처럼 달려들어 힘쓰고 저 도끼질 거두질에 목수들 운집하여 기뻐하네. 신보산(新甫山)의 잣나무, 조래산(徂徠山)의 술은 재목거리로 일컫고, 이루(離婁)의 밝은 눈, 공수(公輸)의 기교는 떡줄의 기술을 갖추었네. 새 날듯한 규모는 어찌 옛날의 주실(周室)과 같으며, 그 웅장한 미모는 다시 진궁(晋宮)에 여전하네. 유림들이 달려움이 더해지고 보는 이 기뻐함을 보겠네. 이에 길일 택하여 긴 들보를 드네.

들보를 동으로 던지네. 월아산 위에 둥근 해 붉네. 본래 우리 도의 밝기가 이와 같아, 비추는 광휘 길이 무궁하네.

들보를 남으로 던지네. 남강물 푸르기 쪽빛과 같네. 우리들 도착하는 곳 다 우리도, 구덩이 넘치면 전진하는 이치를 시험하네.

들보를 서로 던지네 두류산 푸른 봉우리 구름에 닿네. 산천재(山天齋) 예와 같아 천년 유가 환한 길.

들보를 북으로 던지네. 못별이 현란하게 북극성 돌렀네. 만약에 그 속에서 부지런히 머리 숙이면, 진실로 우리 민생 날마다 덕을 베푸리.

들보를 위로 던지네. 하늘처럼 높고 허공 같이 넓네. 우리도 얼마나 크을 알고자 하거든 넓고 넓은 저 기상을 취하여 보라.

들보를 아래로 던지네. 의관하고 늘어 선 우리 선비들. 이름 보니 그 뜻을 잊을 수 없네. 처마의 큰 글씨 풍(風)자와 화(化)자.

엎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는 새와 쥐의 재난 없고, 제비와 참새가 더욱 축하하리. 논어, 중용, 대학, 시경과 서경, 역경과 예기, 도(道) 아님이 없으니 춘추(春秋)로 강(講)하고, 인의, 염치, 효제, 충신(忠信)이 실로 선비 법도이니, 조석으로 닦으소서.

순조 12년 임신년(1812) 월 일 순성(尊城) 박천건(朴天健) 짓다.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聖上五年乙丑秋諸生行釋奠儀會議於風化樓曰是樓之挽近重修在崇禎紀元後再還庚申距今六十有五年光鮮者漫漶鞏緻者朽毀殆將有壓焉之憂吾輩盍亟圖之於是并力鳩材楹棟樑桷椽欂若塗墍之役仍舊而新之時諸賢之爲校長者主其事而白君英鎭姜君繼周實董其役日丙寅季春落其成咸曰不可無記乃命鎭伯鎭伯不敢以寡陋辭以夙聞於鄉父老者諗于衆曰諸賢眼樓之額而亦嘗於風化源頭處理會否夫風化有國之關捩而風化之所以行在乎人爾士而遊於學者尤不可不審仰而 聖廟巍巍然在上則思夫子詔萬世立人紀之道稍西而見明倫堂則思天敘有無人所以爲人之義下上而階級截然有限則使明分不可踰下而見東西齋翼如則思肅敬而心齋又下而見樓下三門有制則思士君子出入跬步之由正而不可苟焉相與講明乎夫子儒行篇所謂博學篤行澡身浴德不可迫不

可辱之訓則其於風化之行知所先後矣登斯樓而顧名反諸身而思義以程叔子學制朱夫子白鹿洞規爲學校中日用儀軌行一事出一言必審乎是非義理之辨而敦勵名檢則一鄉之少長賢愚貴賤孰敢凌躐於是樓之前哉苟如是則儒行尊而鄉校尊蓋鄉校尊而風化乃行環百里士趨民俗自然日躋於齊魯之域吾知是樓之不徒設苟或反是翩翩於城市裘馬之場不閑於俎豆揖遜之風一切修身處所當行者則雖坐百尺樓上存乎我者不尊雖日撻而求其風化之待得乎嗚呼吾鄉之登降於斯者皆藹藹然儒服之秀而有聞於先正之風者則必以前所云者持循後之則其亦有輔於風化之萬一云爾

丙寅 四月 日 進士 晋陽 河鎮伯 記

● 우리 임금 5년 을축년 가을에 모든 유생들이 석전을 행하고 풍화루에서 회의를 해서 말하기를 이 루를 중수한 지 승정 기원후 두 번째 경신년(1740)인데 이제 육십오년이 되어 광채가 변하고 완고했던 것이 노후하여 장차 없어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빨리 단속치 않겠는가? 이에 협력해 재목을 모아 기둥과 들보와 서까래와 단청을 옛날과 같이 하였다. 이때에 향교 여러 어른께서 역사를 담당하였는데 백영진(白英鎭)과 강계주(姜繼周)가 감독하였다. 병인년(1806) 삼월에 낙성하니 모두 말하기를 기문이 있어야 한다 하여 진백(鎭伯)에게 부탁하니 진백이 사양치 못하고 일찍이 향중 어른에게서 들은 것을 여러분께 고하여 왈, 여러분들이 풍화루 현액을 보고서 풍화의 근본을 아는가 모르는가? 대개 풍화란 국가에 요긴한 것이요 풍화의 행함은 사람에게 있다. 선비가 학문을 하면서 더욱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성인 공자의 문묘가 위로 높이 있으면 공자의 만세에 가르치신 인도를 생각하고 서쪽으로 명륜당을 보고 천리에 알맞게 사람 되는 도를 생각하고 상하의 계단은 질서를 밝혔으며 동서의 재를 보면 근엄한 마음이 생기고 아래 삼문을 보면 선비 출입의 정로가 있음을 알겠으니 공자의 박학과 독행으로 덕을 쌓아 욕됨이 없게 하라는 교훈을 모두 함께 강명(講明)하면 이 풍화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루에 올라 루의 이름을 돌아보고 돌이켜 의의를 생각하며 정자(程子)의 학제와 주자(朱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로써 향교에 과정을 삼아 일사일언을 의리에 맞게 힘써 행하면 향중의 장소(長少)와 현우(賢愚)와 귀천이 감히 이 루 앞에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뛰어넘겠는가? 이와 같이 하면 유림의 품행이 높아지고 향교도 높아진다. 대개 향교가

높아지면 풍화가 고을에 행하여져 선비들의 지향이나 백성들의 풍속이 자연히 성현의 지역이 될 것이다. 내 알겠노니 이 루가 단순히 지어진 것은 아니니 혹시라도 이것과 어긋나게 하면 지역의 놀이터 되어 향례하고 겸양하는 데는 등한시 하고 선비의 일체 행동하는 법이 허무한데 돌아간다면 비록 높은 누각에 앉아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이 높은 것이 아니요, 풍화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여기에 출입하는 고을 사람은 모두 훌륭한 유림들이어서 선현의 유풍을 답습한 자인즉 반드시 나의 전언을 준수하고 후언을 경계하면 고을과 나라가 존경하여 사모할 것이니 그 또한 풍화에 만일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라 하겠다.

병인년(1806) 사월 일 진사 진양(晉陽) 하진백(河鎭伯) 짓다.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上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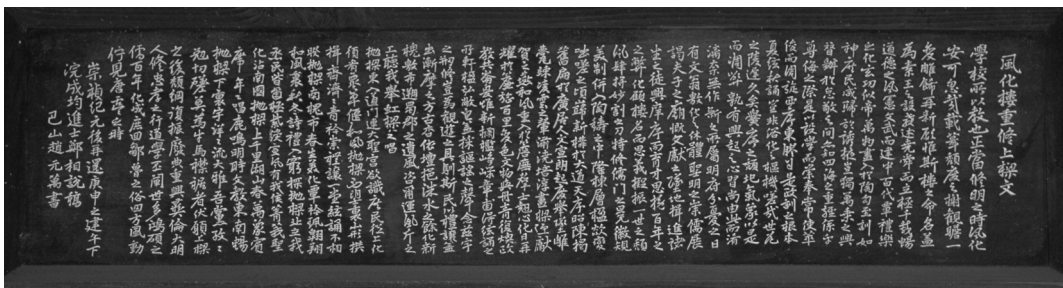
學校所以教也正當修明之時風化安可忽哉載葺頽廢之榭觀瞻一變雕飾再新顧惟斯樓之命名蓋爲素王之設教述堯舜而立極千載暢道德之風憲文武而建中百代覃禮樂之化玄功似帝萬物盡入於陶匄至訓如神庶民咸歸於誘掖豈獨萬乘之興替辦於怠敬之間亦知四海之重輕係乎尊侮之際是以設學而崇奉常使萃俊而周旋西序東膠自是政訓之根本夏絃秋誦豈非俗化之樞機嗟哉世道之陵遲久矣巽序之頽圯氣象以是而凋弊孰有興起之心習尙由此而淆漓奈無作新之所屬明府分憂之日有文翁敷化之休體聖明之崇儒展謁夫子之廟慨文獻之墜地揖進諸生之徒興庠序而育才思百年之弊化顧樓名而思義擬振一世之頽風肆將妙割之刀特修儒門之冕徽規美制併入陶鑄之中隆棟層楹欲變咄嗟之頃巋新構於大道天序昭陳揭舊扁於廣居人文宣朗起廢舉墜雕盆竦凌雲之翬湔澆培淳畫樓迎獻賀之燕和風重入於簷廡群士翹心化日再耀於簷箔百里變色文物與丹青復煥政教共崙奧惟新欄檻崢嶸章甫得絃誦之所軒楹弘敞巨蓋採謳謠之聲念茲宇之創修豈爲觀遊之具馴斯民以禮讓蓋出漸摩之方古杏依壇沾洙水之餘化新槐敷市遡蜀郡之遺風咨爾運風斤之工聽我舉虹樑之唱

拋樑東入道門連大聖宮欲識庶民從上化須看衆草偃化風

拋樑西望裏山形拱揖齊濟濟青衿崇禮讓一堂絃誦不相睽
 拋樑南槐市春生美化覃衿佩翱翔和風裏秋冬詩禮入窮探
 拋樑北立我烝民皆爾極紫綬宣風有我侯菁莪聖化沾南國
 拋樑上千里湖山春萬象賓庸年年唱鹿鳴明時文教東南暢
 拋樑下寰宇洋洋流大雅吾黨孜孜勉切磋莫爲牛馬衿裾者
 伏願上樑之後頽綱復振廢典重興彝倫大明人修忠孝之行道學丕闡世多鴻碩之儒百
 年化成庶回鄒魯之俗四方風動佇見唐虞之時

崇禎紀元後再還庚申之建午下浣 成均 進士 鄭相說 稿

●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다. 수신하고 명덕(明德)할 때를 만났으면 풍속의 교화를 어찌 소홀하게 하랴. 썩어가는 집을 다시 수리하니 보기가 일변되어 좋고 단층이 다시 새로웠다. 이누각의 이름을 생각해 본 즉 공자님의 설교를 하게 한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을 계술(繼述)하여 태극(太極)을 세워 천년이나 도덕의 풍속을 밝게 하였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 중용(中庸)의 도를 세워 백대나 예악의 풍속을 밝게 하였다. 먼 공이 임금 같아서 만물이 모두 교화에 들어오게 하였고, 지극한 훈계가 신과 같아서 여러 백성들이 모두 교육을 받게 되었다. 어찌 만승천자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게으르고 공경한 사이에서 구분될 뿐이겠는가! 또한 사해의 무겁고 가벼운 것이 존귀하고 업신여김에 매여 있음을 알겠다. 이러므로 학교를 세워 높이 받들고 항상 어진 사람을 모아 일을 주선하게 하였다. 서재와 동재가 이로부터 정사를 하는 근본이 되고 여름에 거문고와 가을에 글 읽기가 어찌 풍속을 교화시키는 기틀이 아니라? 슬프다! 선비의 도가 해이하고 오래 전 학



풍화루중수상량문(風化樓重修正樑文)

교의 기강이 무너졌다. 기상이 이로써 약하였으니 뉘라서 이것을 일으킬 마음이 있으며, 풍속이 이로 인하여 혼탁 하였으며 어찌 새로운 장소를 지을 사람이 있으랴? 어진 관장(官長)이 걱정을 분담할 날을 만나 주자(朱子)처럼 아름다운 교화를 펼 수 있었다. 성스러운 임금이 선비 존중하는 뜻을 본받아 정성으로 공자의 문묘를 배알하였네. 문학이 땅에 떨어짐을 슬퍼하며 모든 학생들을 읍하여 맞아들이고 학교를 일으켜 영재를 육성함에 백년의 떨어진 교화를 돌이킬 것을 생각하였고 누각의 이름을 돌아보아 뜻을 생각하여 온 세상의 떨어진 풍속을 떨치게 하였고 잘 드는 칼을 구하여 특히 유문의 높음을 수리하였다. 아름다운 규모와 제도가 한 가지 도주(陶鑄:사람을 교화함)의 가운데 들어왔고 높은 기둥과 층층한 기둥은 급속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이에 변하였다. 새로 지은 집이 큰길가에서 높았으며 천도의 순서가 소상하게 배풀어지고, 옛 이름을 넓은 데에 걸었으니 사람의 문화가 밝게 선포되었네. 없어진 것을 일으키고 떨어진 것을 수리하였으며 빛난 모룻대가 구름을 엿보는 수레와 같이 높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복돋웠으며 빛난 들보에 하례 드리는 제비를 맞이하였다. 따뜻한 바람이 처마에 거둬 들어왔음에 못 선비들이 마음을 바루었고 교화의 날이 두 번 주름 끝에 빛났으며 백리나 빛이 변하였다. 문물이 단청으로 더불어 밝아졌고 정사가 높고 밝은 것을 한가지하여 새로웠다. 난간과 헌함과 기둥이 넓고 높았음에 관원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집의 창건하고 수리한 것을 생각하면 어찌 노는 장소로 하였으며 이 백성을 예법으로 가르쳤으며 거의 점점 연마되는 방법이 나왔다. 옛 행자나무가 단에 의지하였으며 수수(洙水:공자가 사는 강을 말함)의 남은 교화가 당졌고 새로운 해나무(촉나라 삼보에 해나무가 시를 이루어 선비들이 거기에서 책도 팔고 강론도 하던 곳)가 장터를 이루었으며 촉나라 고을 유평을 이루었다. 아! 자귀를 바람같이 운전하는 대목아 나의 들보 올리는 노래를 들어라.

동쪽 들보를 올린다. 도(道)로 들어가는 문이 대성전을 이었다. 여러 백성이 못 사람의 교화를 복종함을 알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못 풀이 화풍에 쓰러짐을 보라.

서쪽 들보를 올린다. 바라보이는 가운데 산 얼굴이 가지런하게 서있다. 저 좋고 좋은 선비들이 예법을 숭상하여 한 집에서 글 읽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였다.

남쪽 들보를 올린다. 해나무 장터에 봄이 오니 아름다운 교화가 배풀어 졌다. 점잖은

선비들이 따듯한 바람 속에 노닐며 가을과 겨울에 시와 예를 연구하여 들어 왔네.

북쪽 들보를 올린다. 우리 여러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았다. 붉은 인끈으로 좋은 정사를 베푸는 우리 관장 있어 덕화(德化) 남쪽나라에 이루었네.

위 들보를 올린다. 천리 강산에 일만가지 볼 모습이다. 손님 맞이한 자리에서 해 마다 해 마다 녹명가(鹿鳴歌:시경 소아에 있는 손을 대접하는 시)를 불렀네. 밝은 시절 문화교육 동남에 화창하였네.

아랫 들보를 올린다. 우주에 양양하게 대아(大雅) 소리 흘러오네. 우리들은 부지런하게 글공부에 힘써 소와 말에 옷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자.

엮드려 비오니 상량한 뒤에 무너진 기강이 다시 떨치고 해이한 법을 다시 일으키자. 인륜이 크게 밝았음에 사람마다 충효의 행실을 닦고 도학이 크게 드러났음에 세상에 큰 선비가 많았다. 백년의 교화가 이루어졌음에 거의 추노(鄒魯:공자와 맹자가 사는 곳)의 풍속이 돌아왔고 사방에 풍속이 움직여짐에 요임금 순임금의 때를 기다린다네.

송정 기원후 돌아온 경신년(1740) 오월 하순 성균 진사 정상열(鄭相說) 지음

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晋州鄉校之明倫堂舊在文廟西南墻下地卑而屋老風雨之所浸撓雀鼠之所穿壞殆不可以一日支也典校鄭公運弼決計廣詢與掌議八人損校屬土田改築之由明倫堂出風化樓東折而北上進入文廟外磴道三十級內磴道六十級中內外磴道有空基平廣如掌而墻圍亦盡於此內芟其草萊整其方位先移風化樓繼移明倫堂及堂之兩齋更衣之所守直之舍無不隨而畢集役始於壬寅月日訖於癸卯月日凡易材若干募工若干用錢財若干至秋合鄉人士飲落焉鄉人士皆大喜相告以爲明倫堂之得不顛仆天也然非有鄭公之誠且力焉何以能發壞塏成輪奐若是易哉是宜有記以留示後人遂命一海撰其文一海念往昔王者以儒教治人也州必有校校必有堂而堂之名又必一之以明倫倫者自然之秩序也明於家家由之齊明於國國有之治此聖人立教之大義而王者循之也是以廣聚秀士於一堂使之講其所以明倫之道盖士之能事無踰乎爲政而爲政之要在明倫而已矣故養士之堂專

以明倫爲名其意可謂遠矣其規可謂密矣然數百年來少齊治之善效多亂亡之酷禍儒教橫負天下之誅豈不怪歟嗚呼詩書禮樂不究其正傳而資具爲虛設堯舜文武不究其大體而標的爲失準且有文廟以臨其上者政欲其收朝暮遇之功而紛紛然徒事俎豆而止余壹不知當時之士絃歌而處明倫堂亦嘗致意於名實之際乎否乎覈之而得其情焉則天下始以公議議儒教矣今儒教廢久矣明倫堂之顛仆固其勢之所難免而鄭公乃能倡先改築鄉人士又能從而協謀吳復之喜或者將兆於是耶則請姑與之相奮勵以俟異日天下公議之定而再有事於絃歌是爲記

歲己酉立秋節 載寧 李一海 記

● 진주향교의 명륜당이 옛날 문묘 서남의 담장 아래 있어 지세가 낮고 집이 넓아 풍우의 침노와 쥐와 새들의 침해로 가히 하루를 유지할 수 없었다. 전교 정운필(鄭運弼)공이 널리 의논하고 계획을 결정하여 장의 여덟 사람과 함께 향교 소유 토지 가운데 일부를 팔아 개축할 일을 시작하였다. 명륜당에서 풍화루로 나가는 동쪽으로 돌아 북으로 올라가 문묘로 들어가는 바깥 비탈길 30계단과 안쪽 비탈로 올라 나가는 길 60계단과 중내외(中內外) 비탈 길옆에 빈터를 손바닥 같이 넓히고 골라 여기에 모두 담장을 쌓고 잡초를 베어 방향을 정리하고 먼저 풍화루를 옮기고 이어 명륜당 및 당 옆의 양재를 옮겨 다시 단청하고 숙직실로 따라 모두 일을 마치게 되었다. 일이 임인년에 시작하여 다음해 계묘



명륜당이건기(明倫堂移建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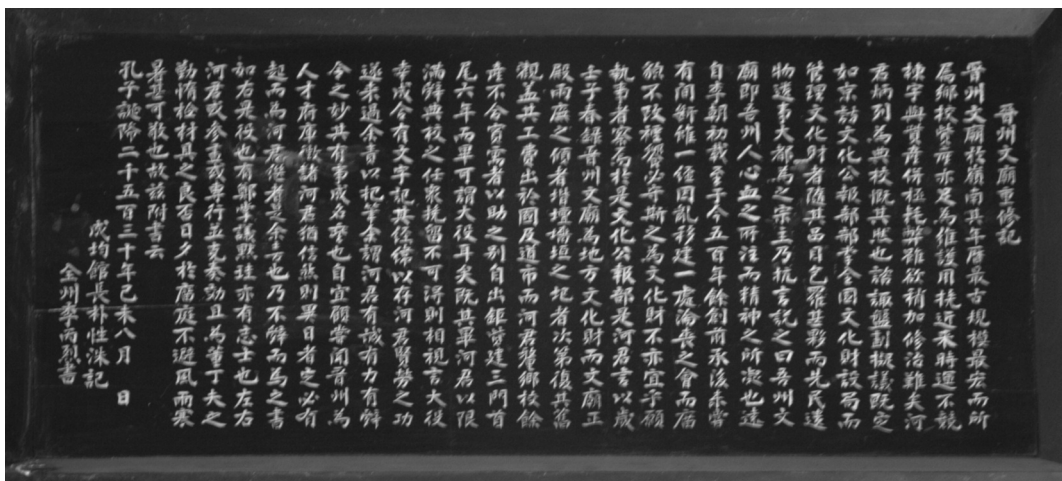
년에 마치니 약간의 재목을 바꾸고 약간의 목수를 모집하고 약간의 재산을 사용하여 가을에 와서 고을 선비들을 한자리에 모아 낙성을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명륜당이 전복이 되지 아니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그러나 정공(鄭公)의 성력이 있지 아니하였던들 어찌 좋은 땅을 발견하여 좋은 건물을 이와 같이 용이하게 이루었으랴! 이것은 마땅히 기문을 만들어 뒷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옳다 하고 일해(一海)에게 명하여 그 글을 지으라 하였다. 일해가 생각건대 옛날 제왕들이 유교로서 사람을 다스림에 고을에 반드시 향교가 있고, 향교에는 반드시 당이 있으니 당의 이름을 또 한결같이 명륜(明倫)으로 한 것은 명륜이 자연의 질서이다. 집이 밝음이 집에 따라서 정제되고 나라가 밝았음에 나라가 따라서 다스려졌으니 이것이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큰 뜻임으로 임금이 따라 행하였다. 이로써 널리 좋은 선비들을 한집에 모아 그 명륜할바 도리를 강론하였으니 선비의 능히 할 일은 정사하는 것뿐이요, 정사하는 요지가 명륜에 있음으로 선비를 가꾸는 집을 오로지 명륜당으로 이름 하였으니 그 뜻이 가히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규모가 가히 주밀(周密)하다. 그러나 수백 년 이래로 제가하고 치국하는 좋은 본은 적고 어지럽고 망하는 참혹한 재앙이 많음으로 유교가 천하의 나무람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괴이하지 아니하라? 슬프다! 시서와 예악의 정전(正傳)을 연구하지 않고 헛되게 설립한 것을 빙자하였고 요순(堯舜)과 문무(文武)의 대체를 연구하지 아니하여 표본이 법도를 잃어버렸다. 또 문묘의 최고 책임자들이 조모(朝暮)의 적은 공을 거두고 자 하여 분분하게 제사 지내는 일에 그치고 말았다. 내가 알지 못할 일은 당시의 선비들이 명륜당에서 글 읽고 거처하여 명실상부 하는 데 뜻을 두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그 뜻을 분석하여 본 즉 천하가 비로소 공론으로서 유교를 의논하였으나 지금 유교가 떨어진 지 오래 되었으니 명륜당이 전복케 된 것이 진실로 형편상 면하기 어려운 바이나 정공이 능히 술선하여 개축하고 고을 사람들이 또 따라 협조하였으니 천운이 회복될 기쁜 소식이 장차 여기에서 비롯될 징조인 즉 청컨대 서로 더불어 힘써 다음날 천하의 공론의 정(定)함을 기다려 두 번 다시 공부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기문(記文)한다.

기유년(1969) 입추절에 재령 이일해(李一海) 짓다.

진주문묘중수기(晉州文廟重修記)

晉州文廟於嶺南其年歷最古規模最宏而所屬鄉校資產亦足爲維護用挽近來時運不競棟宇與資產併極耗弊雖欲稍加修治難矣河君炳列爲典校慨其然也諮諏盤劃擬議既定如京訪文化公報部部掌全國文化財設局而管理文化財者隨其品目包羅甚夥而先民遺物事大都爲之宗主乃抗言說之曰吾州文廟卽吾州人心血之所注而精神之所凝也遠自李朝初載至于今五百年餘創前承後未嘗有間斷維一經困亂移建一處淪喪之會而廟貌不改樞輿必守斯之爲文化財不亦宜乎願執事者察焉於是文化公報部是河君言以歲壬子春錄晉州文廟爲地方文化財而文廟正殿兩廡之傾者堦壇墻垣之圯者次第復其舊觀蓋其工費出於國及道市而河君釐鄉校餘產不合實需者以助之別自出鉅貲建三門首尾六年而畢可謂大役耳矣既其畢河君以限滿辭典校之任衆挽留不可得則相視言大役幸成合有文字記其經緯以存河君賢勞之功遂來過余責以把筆余謂河君有誠有力有辭令之妙其有事成名垂也自宜顧嘗聞晉州爲人才府庫徵諸河君猶信然則異日者定必有起而爲河君繼者是余喜也乃不辭而爲之書如右是役也有鄭掌議默珪亦有志士也左右河君或參畫或專行竝克奏效且爲董丁夫之勤惰檢材具之良否日夕於廟庭不避風雨寒暑甚可敬也故茲附書云

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年 己未 八月 日 成均館長 朴性洙 記



진주문묘중수기(晉州文廟重修記)

● 진주의 문묘는 영남에서 그 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크며 향교에 소속된 재산이 또한 유지하고 수호하는 쓰임에 족하였다. 근래에 와서 시운이 좋지 못하여 집과 재산이 아울러 극히 소모되고 없어서 비록 조금이라도 수리하려고 하여도 어려웠다. 하병열(河炳列) 군이 전교가 되어 이것을 개탄하여서 자문하고 계획하여 의논을 정하였으며 서울 가서 문화공보부 전국 문화재 관리국을 찾아 그 품목을 살펴보니 선민(先民)의 유물과 유사(遺事)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였거늘 이에 항의하여 말하기를, “우리 고을 문묘는 우리 고을 사람이 심혈을 경주한 정신의 소재(所在)이다. 멀리 조선 초부터 지금까지 오백여 년이 되었는데 앞에 창건한 것을 뒷사람이 이어와 일찍이 끊어짐이 없어 오직 한결같이 이어왔으나 난리로 인하여 한 곳에 옮겨 세워 빠짐이 없고 문묘의 전형을 고치지 아니하고 제사 받드는 것을 반드시 지켰으니 이것을 문화재라 함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담당자들은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하니, 이에 문화공보부가 하군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였다. 임자년 봄에 진주문묘를 지방문화재로 등록하고 문묘 정당과 동·서무 두 채가 기울어진 것과 계단과 원장(垣牆)의 퇴락된 것을 차례로 복구하였으니 그 비용이 국고와 도와 시의 금고에서 나왔다. 하군이 향교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그 중에 부족한 돈을 자부담하였고, 또 별도로 큰 재산을 부담하여 삼문을 지으니 육년 동안에 큰일을 마쳤다. 이미 일을 마침에 하군이 만기로 전교직을 사양함으로 모두가 만류하였으나 그 뜻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서로 보고 말하기를 큰일을 이루었으니 문자로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하군의 공로를 깊이 전하여야 옳다고 하고, 나에게 글을 지을 것을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군은 성력도 있고 분명하여 일을 이루었으며 이름을 오래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일찍이 들으니 진주가 인재의 보고라 하더니 하군을 볼 때에 오히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러한 즉 후일에 하군을 이어서 일어날 사람이 있으리라.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바이므로 이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글을 쓰노라. 이 일에 정묵규(鄭默珪) 장의가 있으니 또한 뜻있는 선비다. 하군을 도와서 계획도 하였고 혹 시행도 하여 극히 주효(奏效)하였고 인부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감독하고 재목의 좋고 그른 것을 검사하여 밤낮으로 묘정에서 풍우와 한설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심히 공경할 일이므로 이를 부쳐 쓴다.

공자 탄강 2530년 기미년(1979) 팔월에 성균관장 박성수(朴性洙)는 기문을 쓰다.

진주향교보수기(晉州鄉校補修記)

夫有功績之可記而記以傳之是固史之義而在國在鄉其道本無異也況鄉之有校是爲一鄉首善之地而爲風化之源也其重如何而自世之變而道之敗頹廢莫振無人爲之致力者久矣苟有任其責而能致其力修舉廢墜不失其舊則是爲一鄉文化之所賴而其功績豈少也哉晉州爲嶺南之雄府而其鄉校之設規模盛備又稱最於南服古矣然挽近以來不免於頹廢則鄉人士蓋嘗隨壞隨補維持舊貌而猶有未盡修治者姜君允瑞既主其任慨然以爲己憂顧諸大府及市郡得其依助乃恢張其進入之門路增築風化樓前四十級之階段東西之垣牆新築附屬之廊舍又自捐己貲重修西齋在任四載克殫其勞而工役大備煥然其舊之既新而其闕之畢舉鄉人士莫不嘖嘖稱其賢勞以謂君之功績不可無文字以傳遂以鄉人士之意來屬於余余謂君之勤誠篤志可謂能勝其任而其功績宜可記而傳也苟使世之主校任者皆如君之所爲則安有頹廢不振之患耶夫褒人之善所以勸後人也今晉州之人士欲記君之功績而傳之者非獨爲君謀也欲使後人能繼君之志而益張厥緒也則可以卜晉之文風將不墜於久遠也晉自古稱人才之府今安知不如古所云耶故樂聞而爲之記竊附於野史之義

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四年 癸亥 菊秋節 成均館長 李載瑞 撰



진주향교보수기(晉州鄉校補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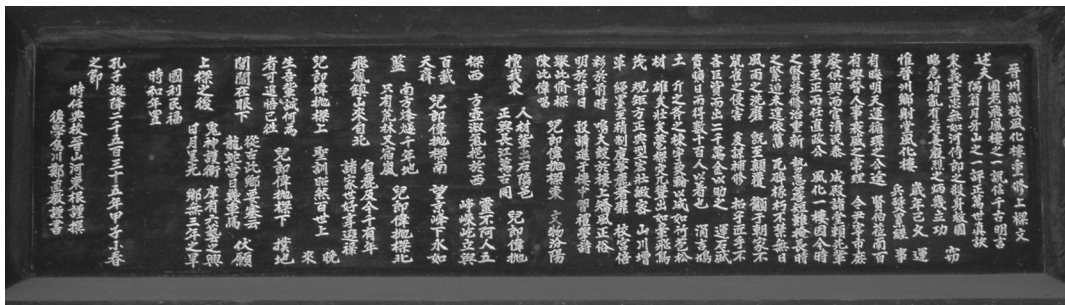
●공적이 있으면 기록하고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진실로 역사의 뜻임으로 나라에 있어서나 고을에 있어 그 뜻은 본래 다름이 없다. 하물며 고을에 향교가 있는 것은 이것이 한 고을의 착한 일을 먼저 하는 곳이며, 풍화의 원천이 되니 그 소중함이 어떠하랴? 세상이 변함으로부터 도가 퇴폐되어 떨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힘을 써보지 아니함이 오래 되었다. 진실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 있어 능히 그 힘을 다하여 퇴락된 것을 닦고 일으켜 옛것을 잃지 아니 하였는즉 이것이 한 고을의 문화가 힘입어 유지하게 되니 그 공적이 어찌 적으랴? 진주는 영남의 큰 고을이요, 그 향교의 설비한 규모가 성하게 갖추어져 있고, 또 영남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칭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퇴폐됨을 면치 못하였은즉 고을 선비들이 일찍부터 무너진 것을 따라 보수하여 옛 모양을 유지하여도 오히려 모자란 일이 있었다. 강윤서(姜允瑞)군이 전교가 되어 이것을 슬퍼하여 몸소 걱정하고 문공부(文公部)와 시와 군에 호소하여 약간의 도움을 얻어 그 진입로를 확장하고 풍화루와 풍화루 앞 40계단을 증축하고 동서 원장(垣牆)을 신축하고, 부속 서재를 자부담하여 중수하고 4년 임기 동안에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사업이 크게 이루어져 옛 모양이 새로이 환연(煥然)하게 되고 일을 마침으로 고을 선비들이 그 공로를 힘써 칭찬하고, 말하기를 군의 공적을 가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여 고을 사람들의 뜻으로 와서 기문을 부탁했다. 내가 말하기를 군의 부지런한 정성과 돈독한 뜻은 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공적은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도다. 진실로 사람들이 모두 군의 한 바와 같이 하였은즉 어찌 퇴폐하여 부진할 걱정이 있으랴? 사람의 착한 일을 표창하는 것은 뒷사람을 권장하는 바이다. 지금 진주고을 사람들이 군의 공적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비단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요, 뒷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뜻을 능히 이어 더욱 그 단서를 확장케 하고자 함인즉 가히 진주의 문화와 풍속이 장차 오래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진주는 예로부터 인재의 보고라고 칭하였으니 지금 어찌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즐거이 듣고 기문을 만들어 야사(野史)의 뜻에 부치고자 한다.

공자 탄강 2534년 계유년(1993) 가을 성군관장 이재서(李載瑞) 지음

진주향교풍화루중수상량문(晉州鄉校風化樓重修上樑文)

述夫 圃老飛鳳樓之一說信千古明言 隅翁月牙山之一評正萬世眞訣 秉義盡忠無如河侍郎之殺身救國 臨危靖亂有若姜殷烈之炳幾立功 窃惟晉州鄉射堂風化樓 歲年已久 兵燹累經 運有晦明天運循環之公途 事有興替人事衰盛之常理 賢伯莅南百廢俱興而官清民泰 令尹宰市庶事至正而任直政公 成殿諸堂賴先輩之賢勞 風化一樓因今時之緊迫 修治重新 未遑依舊 勢急簷短難掩長時風雨之洗磨 瓦碎椽朽不禁無日鼠雀之侵害 既至顛覆 爰謀補修 籲于朝家不吝巨貲而出二千萬金以助之 招乎匠手不費曠日而得數十百人以着也 運石盛土 涓吉鳩材 斤之斧之棟宇奐輪以成 雄矣壯矣葺樑突兀聳出 如竹苞松茂 如翬飛鳥革 規矩方正典型宏壯緻密 繩墨至精制度華麗奢靡 山川增彩於前時 校宮倍明於昔日 鳴大鼓於樓上矯風正俗 設講筵于樓中習禮學詩 舉此修樑 陳此偉唱

兒郎偉拋樑東 文物汾陽擅我東 人材輩出右隣邑 正與長江萬古同
 兒郎偉拋樑西 方壺淑氣挹於西 靈不阿人五百載 崢嶸屹立與天齊
 兒郎偉拋樑南 望京峰下水如藍 南方烽燧千年地 只有荒林又宿嵐
 兒郎偉拋樑北 飛鳳鎮山來自北 自麗及今千有年 諸家世好享遐祿
 兒郎偉拋樑上 聖訓昭然百世上 晚生吾輩誠何爲 來者可追悟已往
 兒郎偉拋樑下 撲地閭閻在眼下 從古此鄉要塞云 龍蛇當日幾車馬
 伏願上樑之後 鬼神護衛 日月呈光 庠有六藝之興 鄉無三年之旱 國利民福 時和年豐



진주향교풍화루중수상량문(晉州鄉校風化樓重修上樑文)

孔夫子 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 甲子 小春之節 時任典校 晉山 河東根 撰

● 기술하노라. 포은(圃隱) 선생께서 비봉루를 두고 하신 말씀 진실로 천고의 명언이요, 우곡(隅谷)선생께서 월아산을 두고 말씀하신 평론은 참으로 만세의 진결(眞訣)이다. 의를 잡아 충성을 다함은 하시랑(河侍郎)의 살신 구국과 같음이 없고, 위험한 데 다다라 난리를 평정함은姜은열(姜殷烈)이 의리에 밝아 공을 세움과 같음이 있으랴. 가만히 생각건대 진주 향사당(鄉射堂)의 풍화루는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난리를 여러 번 치렀다. 운수가 어둡고 밝음이 있음은 천운이 돌아가는 공도(公道)요, 일이 흥하고 폐함이 있음은 인사의 쇠하고 성하는 몇몇한 이치다. 어진 도백이 경남을 맡으니 일백 가지 폐한 일이 함께 일어나고 관청이 맑고 백성이 편하며, 어진 시장이 진주시를 맡으니 모든 일이 지극히 바르고 소임들이 곧고 정사가 공평하였다. 대성전과 모든 당(堂)은 선배들의 노고에 힘입어 수리하여 거듭 새로웠고, 풍화루는 금시의 긴박한 때를 만나 수리하지 못하고 옛 모양 그대로 있었다. 형세가 급하고 처마가 짧으며 오랫동안 바람 비 씻어가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고, 기와가 부서지고 서까래가 썩었으며 어느 날 없이 쥐와 새들이 침노하니 해를 끼침은 금할 수 없다. 이미 전복되게 되었으니 이에 수리할 것을 의논하여 여 국가에 청하였더니 큰 재물을 아끼지 않고 2,500만원의 돈을 내어 도와주었고 목수를 부름에 여러 날 되지 아니하여 수백 명을 모집하여 착수하였다. 자귀질하고 도끼질하였으며 집이 크고 빛나게 이루어졌고, 웅장하고 화려하였으며 대마루와 들보가 우뚝 솟아 높이 났다. 대가 여물고 술이 무성함과 같고 새가 날고 꿩이 난 것 같다. 잣대가 모나고 바르며 모양이 굉장하고 치밀하였고, 먹줄이 지극히 정묘하였으며 제도가 화려하고도 사치하였다. 산천이 앞 때보다 빛을 더하였고 향교 집이 옛날보다 배나 밝아졌다. 큰 북을 다락 위에서 울려 풍속을 바르게 하였고 글 읽을 자리를 다락 속에 설치하여 예와 시경을 익히고 배웠다. 긴 들보를 들고 상량의 노래를 펼친다.

어영차! 동쪽 들보를 올린다. 진양의 문물은 우리 동방에 드리웠다. 인재가 많이 남이 이웃 고을에 으뜸 되어 정히 남강으로 더불어 만고에 한 가지하였다.

어영차! 서쪽 들보를 올린다. 지리산 맑은 기운 서쪽에 들어온다. 산신령은 사람에 아철하지 아니함이 오백년이 되었고, 우뚝 우뚝 높이 솟아 하늘로 더불어 가지런하였다.

어영차! 남쪽 들보를 올린다. 망경산 봉우리 밑에 물은 쪽같이 푸르다. 남쪽에 봉화 붙여 천년된 땅에 다만 우거진 수풀과 자고 가는 안개만 있더라.

어영차! 북쪽 들보를 올린다. 비봉산 주산은 북으로부터 왔다.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천년이 넘었으나 모든 집들이 대대로 잘 지내고 상서롭게 행복하였다.

어영차! 위에 들보를 올린다. 성현의 훈계 말씀 백세상에 소연하였다. 늦게 난 우리들이 진실로 무엇을 하라? 오는 일을 가히 쫓고 지나간 것을 깨닫자.

어영차! 아래로 들보를 올린다. 땅에 가득한 집들이 눈 아래 있도다. 예로부터 이 고을은 요새지로 일컬었다. 임진왜란 당일에 얼마나 많은 수레와 말이 움직였던가?

엎드려 원하노니 상량한 후에 귀신이 도와주고 일월이 빛을 드리워주소. 학교에는 육예가 일어남이 있고 고을에는 삼년이나 가뭄이 없게 하소서.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이 되고 시화(時和)와 연풍(年豐)이 되소서.

공부자 탄강 2535년 갑자년(1984) 음력 10월 시임전교 하동근(河東根) 짓다.

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西序東膠周制有造士之法上棟下宇義卦著易宮之規地經增敵人謀允吓竊念晉陽爲邑嶺右名州巨嶽大江有以致千秋清淑之氣忠臣義士何莫非百世培植之功春絃夏誦尙稱鄒魯之餘風家塾州庠聿追商周之遺教惟此聖廟首善之地卽是章甫體貌所關多士濟濟禮儀軼於泮宮廈屋渠渠規制倣於鹿洞雖雨化之已遠尙風教之有存蓋茲齋舍之改作聿值聖化之初興惟樑木之蟲壤幾軫士林之震懼伊神棲之狝迫久病司祝之周旋而論議每喜於因循則先後相仍以苟且於是乎匠獻圖而殫巧寧興澤門之謳士釋經而敦材不憂道舍之作西廡東齋擬儒生之爰居爰處北墉南牖隨力量而苟合苟完棟樑翼翼允爲四方之觀瞻襟佩嶽駐瑤瑤胥賀九經之咿唔民俊咸人不輟乎春秋禮樂冬夏詩書儒風益振所習者文學遊夏德行顏閔尙斯文之在茲乎舍此堂又何適矣暫停匠氏之斧聊奏兒郎之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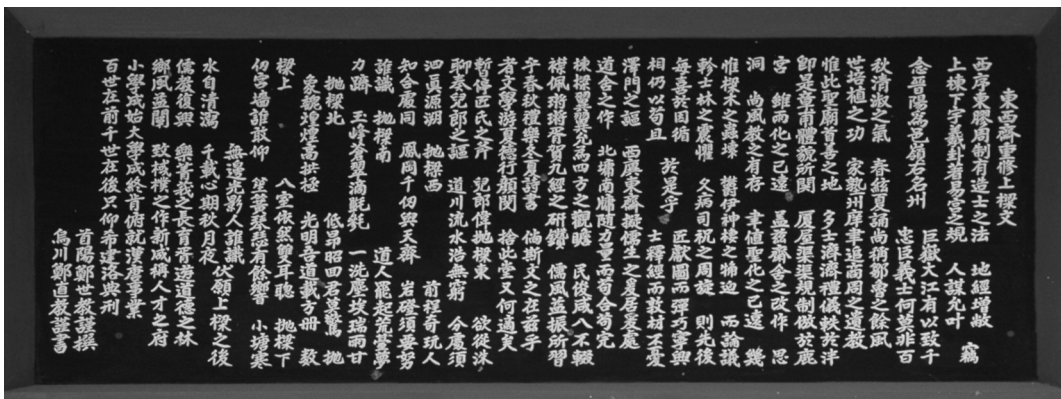
兒郎偉拋樑東道川流水浩無窮欲從洙泗眞源溯分處須知合處同

拋樑西鳳岡千仞與天齊前程奇玩人誰識岩磴須要努力躋

拋樑南玉峯蒼翠滴瀟滲道人罷起荒臺夢一洗塵埃瑞雨甘
 拋樑北象魏煌煌高拱極低昂昭回君莫驚光明吾道載方冊
 拋樑上數仞宮牆誰敢仰入室依然雙耳聰笙篁琴瑟有餘響
 拋樑下小塘寒水自清瀉無邊光影人誰識千載心期秋月夜
 伏願上樑之後儒教復興鄉風益闡樂菁莪之長育胥遊道德之林致榑樸之作新咸稱人
 才之府小學成始大學成終肯俯成漢唐事業百世在前千世在後只仰希建洛典刑

進士 延日 鄭世教 謹撰

● 서서(西序)와 동교(東膠)는 주나라 제도에 선비를 기르는 법이 있고 상동(上棟)과 하우(下宇)는 희괘(羲卦)에 주역의 규칙에 나타난다. 지경(地經)이 통창(通敞)하고 인모(人謀)가 알맞다. 가만히 생각건대 진양은 영남에 이름 있는 도시다. 큰 산과 큰 강이 춘추에 청숙한 기운을 이루고 충신과 의사는 어찌 백세에 배출한 공이 아니겠는가? 춘현(春絃)과 하송(夏誦)은 추노(鄒魯)의 풍속이라 칭하고 가숙(家塾)과 주상(州庠)은 상주(商周)의 가르침을 좇았네. 오직 여기 성묘는 수선(首善)의 지위요 여기에 장포(章甫)는 체모(體貌)의 소관이라. 선비가 성하며 예의는 반궁(泮宮)에 앞지르고 하옥(廈屋)이 장엄하며 규제(規制)는 백록동(白鹿洞)을 모방했네. 비록 우화(雨化)는 멀었으나 풍교(風教)는 아직 있도다. 대개 재사(齋舍)의 개작한 것이 곧 성화의 초흥(初興) 때였다. 양목(樑木)이 충괴(蟲壤)하여 거의 사람의 진구(震懼)가 진우(軫紆)되고 저 신서(神棲)가 추



동서재중수상량문(東西齋重修上樑文)

박(狹迫)함에 오래 사축(司祝)의 주선(周旋)에 병 되었네. 논의하며 매양 인순(因循)에 즐거웠고 곧 선후하여 서로 구차함을 잉(仍)했더라. 이에 장인이 헌도(獻圖)하고 탄교(彈巧)하여 어찌 택문(澤門)의 구(謳)가 있으리오. 사람이 석경(釋經)하고 돈재(敦材)함에 도사(道舍)를 불우(不憂)했네. 서무(西廡)와 동재(東齋)는 유생의 거처를 하게 했고 북옹(北壙)과 남유(南牖)는 려량을 따라 완전케 하였네. 동량이 익익(翼翼)하여 사방의 우르름에 알맞고 금패(襟佩)가 장장하며 서로 구경의 이오(欸語)를 하(賀)하더라. 민준(民俊)이 합입(咸入)하여 봄 가을에 예약과 여름 겨울에 시서를 불철(不輟)하고 유평이 익진하며 문학은 자장(子張) 자하(子夏)며, 덕행은 안자(顏子) 민자간(閔子騫)을 익히는 바다. 사문이 여기에 있으니 이 당말고 어디에 갈고? 잠간 장인의 도끼를 멈추고 어영차 노래를 부른다.

어영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네. 도천(道川)의 유수가 활(浩)하기 무궁하네. 수서(洙泗)의 진원을 쫓고자 하면 모름지기 분처(分處)가 합처(合處)에 동일함을 알 것이다.

어영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네. 천인(千仞)의 봉강(鳳岡)이 하늘에 닿았다. 전정(前程)에 기완(奇玩)을 누리서 알리요. 암등(岩磴)을 노력함으로 오르게 된다.

어영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네. 옥봉의 창취(蒼翠)가 늘어지게 젖었도다. 도인이 황대(荒臺)의 꿈을 깨치니 먼지를 씻어 상서로운 비가 나린 듯 하더라.

어영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네. 상위(象魏)가 황황(煌煌)하여 북극을 맞잡았네. 저양(低昂)하여 소회(昭回)함을 군(君)은 놀라지 말라. 광명한 도가 방책(方冊)에 실렸더라.

어영차! 대들보를 윗쪽으로 던지네. 수인(數仞)의 궁장(宮牆)을 어찌 감히 우르리? 입실하며 의연히 쌍이(雙耳)에 들이는 듯하니 생황과 금슬의 울림이 있더라.

어영차! 대들보를 아랫쪽으로 던지네. 연못의 찬물이 스스로 청사(淸瀉)하네. 무변(無邊)한 광영(光影)을 누리서 알리요? 천재의 심기(心期)가 가을 밤 달과 같네.

엎드려 원컨대, 상량한 후에 유교가 부흥되고 향풍이 익천(益闡)하여 청아(菁莪)의 장육(長育)에 즐거우며 서로 도덕 속에서 놓고 역박(楫楫)의 신작을 이루어 모두 인재의 부고(府庫)라 칭한다. 소학에서 시작하여 대학에 끝내니 즐거이 한당(漢唐)의 사업을 이루고 백세가 앞에 있고 천세가 뒤에 있으니 건락(建洛)의 전형(典刑)을 바랍니다.

진사 연일 정세교(鄭世教) 삼가 짓다.

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吾鄉四教堂之創雖未詳其年代月日謹按文孝公敬齋河先生演之初創記文則前教官判書姜元亮勤督以成聖朝之作無疑也古有而今無者何哉蓋壬癸之慘禍魚肉士民灰燼校宮一時鞠爲茂草亂靖後重創之日抑人疲力綿未遑而然歟緬想初創之時士習淳厚師道嚴正創是堂而標榜四教誨民化俗人皆知重四教之道而一言一行不外乎是故人物之盛文風之美右於隣鄉世稱人材之府庫文物之淵藪也堂之爲墟者約四百年之今日學校之設生齒之熾雖盛於當時也教之之術不本乎四教皆出於技工雜藝之中人莫知四教爲何道而闕然不爲也故目不見舊日之良俗耳不聞舊日之盛稱尙德好古之士孰不爲掩抑於仁覆之下耶歲民國甲子東根爲典校致念於此堂復元其意亦在此也乃得市道補助金二千五百萬元今丙寅春二月構四架屋于鱣堂之北總爲廳事通暢者利於夏節忠孝教室用也堂既成諸士林責余爲復元記言曰四百年未遑之事成於今日前後記文皆出於河氏之手亦爲奇緣也子其勿辭焉不敢當是役不可無一言乃演其義曰昔孔子語伯魚曰不學詩無以言矣又曰不學禮無以立矣以若孔子之大聖教其子言念及此而況去聖人遠矣者凡夫不知四教文行忠信之道而惡能爲人乎請諸彥時登堂講明四教家家誦習父而傳子祖而傳孫則鄉俗大變可復舊日鄉風之盛稱而將爲補世教之砥柱矣蓋相與勉旃

歲民國丙寅 秀萋節 典校 晉山 河東根 謹記

- 우리 고을 사교당의 창건함이 비록 년대와 월일은 자상하지 못하나 문효공(文孝公)



사교당복원기(四教堂復元記)

경재(敬齋) 하연(河演) 선생의 초창기문(初創記文)을 상고하여 본즉 전 교관 판서(判書) 강원량(姜元亮)이 부지런함으로 이루었다 하니 조선시대에 지은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에는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임진왜란이 참혹함으로 백성들이 어육이 되었고 향교가 불타버려 한 때 묵전밭이 되었다. 난리가 안정된 후 중창할 때에 사람들이 피로하고 힘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여 그러한가 하노라. 돌이켜 초창기 시절을 생각해 본즉 선비들의 습관이 순후하고 스승의 도가 엄정하여 이 당을 짓고 사교(四敎)로 이름하여 걸고 백성을 가르쳐 풍속을 좋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모두 사교의 뜻을 소중함에 알아 일언과 일행이 이에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인물의 성함과 문풍의 아름다움이 이웃 고을보다 높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재의 보고와 문물의 연못이라 일컬었다. 당이 빈터가 된 지 약 사백년이 되어 오늘에 학교의 설립과 사람의 불어남이 비록 그 당시보다 우월하나 가르침의 법이 사교에 근본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공(技工)의 잡예(雜藝) 가운데서 나왔으므로 사람들이 사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눈으로 옛날의 어진 풍속을 보지 못하고 귀로 옛날의 좋은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덕을 숭상하고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누라서 하늘 아래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랴? 민국 갑자년(1984)에 동근(東根)이 전교가 되어 이 당을 복원할 것을 생각한 것은 그 뜻이 또한 여기에 있었다. 이에 시와 도 보조금 2,500만원을 얻어 병인년 봄 2월에 네 칸 집을 명륜당 북쪽에 세우고 모두 청(廳)을 만들어 통창(通暢)하게 한 것은 여름에 충효교실에 편리하게 쓰게 한 것이다. 당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원기문을 지으라고 하고, 말하기를 사백년 동안 못한 일이 오늘날에 이루어졌고 전후 기문이 모두 하씨(河氏)의 손에 나오게 된 것이 또한 기이한 인연이다. 자네가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거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한 말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뜻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옛날 공자께서 그 아들 백어(伯魚)에게 말하기를 시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말로 할 수 없다 하시고 또 말하기를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다 하였으니 공자 같은 대성인으로 그 아들을 교육시킬 때 말씀이 이 같거늘 하물며 성인보다 멀리 떨어진 범부들이 사교인 문행충신(文行忠信)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찌 능히 사람이라 할 수 있으랴. 청컨대 여러분들은 때로 이 당에 올라 사교의 뜻을 연구하여 밝혀 집집마다 외우고 익혀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하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전한 즉 고을 풍속이 크게 변하여 가히 옛날 고을 풍

속을 크게 칭찬함을 회복할 것이고, 장차 세상 풍속을 도우는 지주가 될 것이니 어찌 더 붙어 힘쓰지 아니하라.

민국 병인년(1986) 음력 사월에 전교 진산(晉山) 하동근(河東根) 삼가 짓다.

향교현황고유문(鄉校現況告由文)

維歲次孔紀二千五百四十四年癸酉二月癸酉朔初五日丁丑典校李正大敢昭告于大成至聖文宣王伏以嶠南形勝晉先指屈明媚飛鳳毓精崑兀東流藍江四時澄澈數弓東麓鬢堂大設世異今古山河如一無數英材箇中輩出世稱吾鄉淵藪文物圃老不云地靈人傑河有平章姜有殷烈兩賢勳節炳如日月累經兵燹文獻蕩佚沿革未明任錄遺失雖有懸板文不載篇一朝有災誰徵保全以是憂之中心齋鬱協謀收葺繕寫成帙首載元文次付國譯能解國文爲便奉讀次成任錄整齊序列爰付剞劂帙成三百不可不告厥由敢悉伏惟素王洋洋豫悅

● 유세차 공기 2541년 계유 2월 계유삭 초5일 정축에 전교 이정대(李正大)는 대성지 성문선왕에게 감히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영남의 형승은 진주로 먼저 손꼽으니 비봉산이 정기를 모아 높이 솟았고 남강이 동류하여 사시로 맑았는데 근지의 동록(東麓)에 학당이 건설되었습니다. 세태는 고금이 다르고 산천은 여일한데 무수한 영재가 그 가운데 배출되어 세상이 우리 고장을 문물이 많은 곳이라 칭했는데 포은(圃隱)이 말하기를 지령과 인걸이라 하였으니 하씨(河氏)에 평장사(平章事)가 있고 강씨(姜氏)에 은열공(殷列公)이 있으니 양현의 공훈과 절의가 일월과 같이 빛났다. 여러 번 병난을 지나 문헌이 없어지고 연혁이 밝지 못하고 임록(任錄)이 유실되어 비록 현관은 있으나 내용이 밝지 못하였다. 일조에 재앙이 있으면 누가 보전하리오. 이로써 걱정하고 심중이 답답하여 자료를 수집(收葺)하여 책을 이루니 먼저 원문을 기재하고 다음 역문을 붙이여 해독하기 용이하게 하였고 임록과 서차(序次)를 정비하여 인쇄에 붙이어 300권을 인쇄하여 고유하오니 엎드려 생각건대 소왕(素王)께서는 기뻐하실 듯하옵니다.

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惟我晉州鄉校隆棟於鳳山之東麓南江岸玉峯自古昔盛時嶺右之中樞校宮而韓社五百年久爲庠序之典型也無疑矣故修之以明倫敦之以聖學育英德學文行之士爲鄉國而立身揚名者其數不遑枚舉也一自西潮東漸六經四子變爲敝屣三綱五倫化爲筌蹄舉世唱和民主化然將爲同本通婚而傳統族譜滅影亦爲戶主制廢止而父賜之姓恣意改用則是果爲民主化耶吾則謂之禽獸化也此誠志士之所以悵然憂歎者也吾儒之所以勃然激憤者也光復六十一年乙酉春節典校鄭奎燮儒道會支部長韓善愚二人訪余于鳳山書室請會館記曰當此吾道萎靡之日幸賴鄭永錫市長之善政多被弛澤嘗際於出馬先察州士之所企望賞美會館創設之議以是爲公約當選則以十億豫算擇地於校宮之牆外買收敷地百四拾坪經營三層洋屋建坪達於百六拾坪矣閱一年而甲申歲暮工訖扁曰儒林會館蓋其制宏豁其技亦爲縝密其容輪焉奐焉於是鳳山增色藍水益清古城之景觀倍加焉實罕世之盛事也吾子以是惠一說余曰吾亦州士之一也雖曰不文何敢辭諸輒援筆書之曰夫道之將興也天也道之將廢也亦天也吾儒方值天之所廢逢此百訥此亦天之所施也爲士者其如命何哉雖然天喪斯文也則已不然則天之所廢天必興之豈無千秋必返之兆朕耶由此論之吾曹憫然仰天而徒俟天惠則天不聞告訴然須是起臥注心於扶持一線寤寐明倫守道以待時則蒼天憐而愍之將以爲吾道之復興也必矣曷不龜勉哉逮既落州士



유림회관기(儒林會館記)

雲集於斯瞻望屹空之會館拍掌大悅曰吾徒之道場成矣累年之宿願遂矣此政非民之歡聲也哉自今以后州士與市民合心肆力於明倫固守姓與族譜則不識之間淨化窓外之混淆也不可誣焉可不深銘哉會館營建勞心推進者元老成煥德元老文尙律元老成煥喆掌議韓基仁其人也

檀紀 四三三八年 乙酉 春陽節 朔寧 崔寅巒 撰 海州 鄭文丈 書

●우리 진주향교는 비봉산(飛鳳山)의 동쪽기슭, 남강의 북안 옥봉에 높이 솟아 있으니 옛 성시(盛時)부터 영우지방(嶺右地方)의 중심교궁(中心校宮)으로 한사(韓社) 오백년간(五百年間) 오래도록 시범학교였음을 의심(疑心)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 명륜(明倫)의 도를 닦고 성현(聖賢)의 학을 가르쳐 덕학(德學)과 문행(文行)을 갖춘 선비를 양성하였으니, 나라를 위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한번 서양문화가 동으로 옮긴 이래로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는 폐사(弊屨)로 변하고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은 통발이나 토끼그물처럼 버려져 온 세상이 민주화를 구가하나 그러나 장차 동본동성혼(同本同姓婚)을 행하여 전통족보(傳統族譜)가 자취를 감추고 또한 호주제(戶主制)가 폐지되어 아버지가 물려준 성을 맘대로 개용(改用)하면 이가 과연 민주화라 하겠는가? 나는 금수화라 이르겠다. 이 일은 진실로 지사들이 슬프게 우탄(憂歎)하는 까닭이고 우리 유림이 돌연히 격분하는 까닭이다. 광복 육십일년 을유 춘정에 전교(典校) 정규섭(鄭奎燮), 유도회지부장(儒道會支部長) 한선우(韓善愚) 2인이 봉산서실로 나를 찾아와 회관기를 청하며 이르기를 이같이 유도가 쇠(衰)한 금일을 당하여 다행히 정영석(鄭永錫) 시장(市長)의 선정에 힘입어 많은 혜택을 입었으니 그 출마에 즈음하여 먼저 고을 선비의 바라는 바를 살피고 회관설립의 의제를 찬성하여 이로써 공약을 삼고 당선 후엔 십억 예산으로 교궁의 옆에 140평의 부지를 매수하여 삼층 건물을 경영하니 그 건평이 160평에 달한다. 시작한 지 일 년을 지나 갑신년 세말에 홀공(訖工)하고 유림 회관이라 편(扁)하였다.

대저 그 제도가 광활(宏豁)하고 그 기술이 빈틈없으며 그 용모(容貌)가 웅장(雄壯)하고 미려하여 이에 봉산(鳳山)이 그 색을 더하고 람수(藍水)가 더욱 맑으며 고성경관(古城景觀)이 한층 배가 하니 실로 세상에 드문 성사이다. 그대는 이로써 일설(一說)을 마련

하라 함으로 내 말하기를 나 또한 고을 선비의 한 사람이다. 비록 불문(不文)하나 감히 사양(辭讓)하겠는가? 문득 붓 잡아 쓰기를 그도가 흥하는 것도 하늘에 매였고 장차 폐(廢)하는 것도 또한 천에 매였다. 우리 유림이 바야흐로 천이 폐하는 때를 만나 백 가지 화를 겪으니 이 또한 천이 베푸는 바다. 선비 되는 것이 그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천이 사문(斯文)을 버리면 몰라도, 불연하면 천이 폐한 바를 천이 반드시 일으키니 어찌 천추필반(千秋必返)의 징후(徵候)가 없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우리들이 멍하니 하늘만 우리러 단지 천혜(天惠)만 기다리면 하늘이 우리의 하소연을 불문하나, 모름지기 기와(起臥)에도 한 가닥 광명을 정성껏 부지(扶持)하고 자나 깨나 명륜(明倫)하고 수도(守道)하여 때를 기다리면 창천(蒼天)이 런던(憐愍)하여 장차 오도(吾道)를 부흥할 것이니 어찌 힘쓰지 않을소냐? 그 낙성에 미쳐 고을 선비들이 운집하여 공중에 솟은 회관을 바라보고 이르기를, 우리의 도장이 이룩되었다, 누년의 숙원이 풀렸다 하니 이 바로 환호하는 민성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고을 선비와 시민이 합심하여 명륜(明倫)에 힘 베풀고 성과 죽보를 고수하면 모르는 사이에 저 창외(窓外)의 혼란을 정화(淨化)할 수 있을 것이니 속일 수 없다. 어찌 깊이 명심하지 않으리요, 회관건립에 노심하며 추진한 이는 원로(元老) 성환덕(成煥德), 원로(元老) 문상률(文尙律), 원로(元老) 성환철(成煥喆), 장의(掌議) 한기인(韓基仁) 그분이다.

단기 4338년(2005) 봄 삭녕 최인찬(崔寅巘) 짓고 해주 정문장(鄭文丈) 쓰다.

第4章 傳統文化繼承事業

1. 기로연(耆老宴)
2. 신년배례(新年拜禮)
3. 관례(冠禮)
4. 혼례(婚禮)
5. 향음주례(鄉飲酒禮)
6. 진주목향시(晋州牧郷試)
7.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全國漢文經典聲讀大會)
8. 학생한자골든벨
9. 유적답사(遺跡踏查)
10.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11. 이웃종교 스테이

第4章 傳統文化繼承事業

진주향교가 향사와 교육 이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계승사업(傳統文化繼承事業)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밀려 든 서구문화에 밀려났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무조건 낡고 보잘것없는 것이므로 버려야 하고 서구문화는 모두 새롭고 가치있는 것이므로 선별없이 받아들여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과 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진주향교는 이러한 전통문화를 천시하는 인식을 바꾸고 역사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있게 변화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통문화계승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다.

더불어 전통문화가 단순히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중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재창조라는 인식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진주향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진주향교가 추진중인 전통문화계승사업은 기로연(耆老宴), 관례(冠禮), 혼례(婚禮),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全國漢文經典聲讀大會), 진주목향시(晉州牧鄉試), 향음주례(鄉飲酒禮), 신년배례(新年拜禮), 유적답사(遺跡踏查), 사례재현(四禮再現) 등이 있다.

1. 기로연(耆老宴)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전·현직 문신관료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이다. 기로연의 역사를 보면 매년 상사(上巳:음력 3월 상순의 巳日, 혹은 3월 3일)와 중양(重陽:9월 9일)에 보제루(普濟樓)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기로연에는 정2품의 실직(實職)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출신 관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진주향교는 매년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 고취를 위해 기로연을 열고 있다.

이에 대해 종친(宗親)으로 70세에 2품 이상인 자, 정1품관, 경연당상관들을 위해서는 훈련원이나 반송정(盤松亭)에서 기영회(耆英會)라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들 잔치에는 왕이 술과 1등급 풍악을 내렸다. 조선시대의 기로연은 1394년(태조 3) 한양천도 후 태조 자신이 60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늙은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 것이 처음이었다.

태조는 또 잔치비용 마련을 위하여 토지·노비·염분(鹽盆)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 잔치는 예조판서가 주관하여 준비하였고, 왕명을 받은 승지가 특별히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잔치에 참가한 문신들은 먼저 편을 갈라 투호(投壺)놀이를 한 뒤, 진 편에서 술잔을 들어 이긴 편에 주면 이긴 편에서는 읊하고 서서 술을 마시는데, 이 때 풍악을 울려 술을 권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잔치를 열어 크게 풍악을 울리고 잔을 권하여 모두 취한 뒤에 파하였고, 날이 저물어야 서로 부축하고 나왔다. 태조·숙종·영조와 고종과 같이 나이 많은 왕들은 직접 이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진주향교는 매년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 고취를 위해 기로연을 열고 있다. 기로연 행사는 지역의 유림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효자상, 효부상, 유림대상, 건강 장수패 등을 수여하고 있다.

진주향교 기로연은 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되살리고 복돋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신년배례(新年拜禮)



향교 원로와 고문을 모시고 신년배례를 행하고 있다.

진주향교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유도회와 청년유도회를 중심으로 향교 원로와 고문을 모시고 신년배례를 행하고 있다. 신년배례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지역 유림을 이끌어 온 원로와 고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유림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신년배례에서는 청년 유림, 여성 유림이 한데 모여 진주향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진주향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주향교의 원로와 고문들은 신년배례를 하는 자리에서 진주향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도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진주향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신년배례는 예(禮)의 확립을 강조하는 진주향교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3. 관례(冠禮)

관례(冠禮)는 전통사회에서의 남자들의 성인의식이다.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



공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의 관례



진주동명고등학교 학생들 관례 및 수료식을 마치고

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로서, 남자아이가 20세가 넘으면 관례를 행하고, 그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한편,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서 계례(笄禮)를 행하였다.

관례는 『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정착했다. 『가례』의 유입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관례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고려사』에는 광종·예종·의종 때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고려왕실에서도 유교식 관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으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여자들의 계례만 남아 오늘날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있는 정도이다.

진주향교는 해마다 공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통관례를 치르고 있다. 빈객, 창홀, 해설 등 의식(儀式)은 진주향교 장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장관자 등 주요 관례 참여자는 공군 장병들이 참가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관자를 비롯해 참여자들에게 자(字)를 지어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진주향교가 추진하고 있는 관례의 시연자는 다음과 같다.

주인(主人), 장관자(將冠者), 찬(贊), 축관(祝官), 집사(執事), 빈자(賓者), 제부(諸父), 제모(諸母), 형제자매(兄弟姊妹), 향선생(鄉先生), 부지집우(父之執友) 등이다.

① 택일(擇日) : 진주향교는 공군교육사령부와 협의하여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관례를 행할 날짜를 결정한다. 택일에 이어 관례에 참여할 집사들을 선정하고, 준비를 한다.

② 준비 : 관례일이 되면 진설(陳設)을 하며, 아침 일찍 관복(冠服)을 꺼내어 준비를 한다. 그 뒤 주인 이하 차례대로 서서 빈객을 기다린다. 빈객이 찬자(贊者)와 함께 도착하면 주인은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③ 시가례(始加禮) : 처음 행하는 예를 시가례라고 한다. 시가례는 빈객이 관례자에게 읊을 하면서 시작된다. 관례자는 쌍계(雙紵:쌍상투)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四襟衫)에 늑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彩履:무늬 있는 신)를 신고 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옆에 시중을 하는 찬자가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주례가 치포관(縹布冠)을 들고 나와 관례자 앞에서 축사를 읽은 뒤, 치포관과 계(笄)를 꽂고 건(巾)을 씌운다.

이어 찬자가 관례자에게 띠를 둘러주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큰 띠를 두른 다음 그 위에 조(條:실로 된 흰 띠)를 더하고 검은 신[履]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④ 재가례(再加禮) : 관례자가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찬자는 건을 벗기고 빈객이 초립(草笠)을 씌운다. 이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고 나온다.

⑤ 삼가례(三加禮) :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꿇어앉아 있으면, 빈객이 나아가 축사를 하고,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객이 복두(襜頭)를 씌워 준다. 관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을 입으며,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⑥ 초례(醮禮) : 술을 마시는 의례이다.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남향을 하고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두 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객이 답례를 한다. 관례자가 상 앞으로 나아가 잔을 상 위에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들고 물러나 맛을 본 다음, 찬자에게 주고 빈객에게 두 번 절하면 빈객이 답례한다.

⑦ 자관자례(字冠者禮) :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 주는 의례이다. 빈객과 관례자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빈객이 관례자에게 자를 지어주고, 이어 자를 부를 때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면, 빈객은 절을 받되 답례는 하지 않는다.

진주향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례(冠禮) 홀기는 다음과 같다.

진주향교 관례(冠禮) 홀기(笏記)

◎ 主人以下序立

(주인 이하 차례로 서는 예)

- 主人以下 盛服就位

주인 이하는 의복을 잘 차려 입고,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 선다.

- 主人立于阼階下 少東西向 子弟親戚 在其後

주인은 동편 섬돌 아래에 서는데, 조금 동쪽으로 붙어 서쪽을 향한다.

자제와 친척들은 그 뒤에 선다.

- 僮者立於門外 少東西向

빈자(僮者)는 문밖에 서는데, 조금 동쪽으로 붙어 서쪽을 향한다.

- 將冠者 在房中 南面立

관례를 하는 자는 방안에서 남쪽을 향해 선다.

◎ 賓至 主人迎入升堂

(빈이 도착하면 주인이 맞아들여 마루에 오르는 예)

- 賓與贊 俱盛服 至門外 東面立 贊在右少退

빈(賓)과 찬(贊)은 함께 의복을 잘 차려 입고, 문밖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선다. 이 때 찬은 빈의 오른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선다.

- 僮者入告主人

빈자(僮者)가 들어가 주인에게 빈과 찬이 도착하였음을 알린다.

- 主人出門 立於門左<以東爲左> 西向再拜 賓答拜

주인은 문밖으로 나와 문의 왼쪽<동쪽을 왼쪽으로 삼는다>에 선 뒤, 서쪽을 향해

두 번 절한다. 그러면 빈(賓)도 답례로 두 번 절한다.

• 主人揖贊 贊報揖

주인이 찬(贊)에게 읍(揖)을 한다. 찬도 답례로 읍을 한다.

• 主人遂揖而行 賓贊從之 入門分庭而行 揖讓而至階 又三揖相讓

주인이 읍을 하고 앞서 문안으로 들어가면 빈과 찬도 따라간다. 문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뜰에서 서로 갈라져 양쪽으로 나아가는데, 서로 읍하고 양보하여 계단 밑에 이른다. 계단 아래서 또 세 번 읍하고 서로 양보한다.

• 主人由阼階先升 少東西向

결국 주인이 동쪽 섬돌을 밟고 먼저 올라가, 조금 동쪽으로 붙어 서쪽을 향해 선다.

• 賓由西階繼升

빈은 서쪽 계단으로 뒤이어 올라간다.

• 贊盥帨 由西階升 立於房中西向

찬은 세수하고 수건으로 닦고서, 서쪽 섬돌을 통해 올라가, 방 안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 僮者布席於堂東 立於阼階上 少北西向

빈자(僮者)가 마루 동쪽에 자리를 깔고, 내려와 동쪽 섬돌 위에 서는데, 조금 북쪽으로 붙어 서쪽을 향한다.

• 將冠者出房 立於席右 面席南面

관례를 하는 자는 사구삼(四袷衫)을 입고, 늑백(勒帛)을 차고, 채혜(彩鞋)를 신고 방에서 나와 자리 오른쪽에 붙어 남쪽을 향해 선다.

◎ 賓揖將冠者 就席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는 예)

• 賓揖將冠者 將冠者 卽席 西向跪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읍을 하면, 관례를 하는 자는 자리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 贊取網巾櫛具 置于席左 興立于冠者之左

찬이 망건과 빗을 가지고 가서 자리 왼쪽에 두고, 일어나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선다.

- 賓揖將冠者 卽席 西向跪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읍을 하고, 자리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 贊隨其左 西向跪 爲之櫛髮合紒 施網巾

찬은 빈의 왼쪽(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서 있다가 빈을 따라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그리고 관례 하는 자의 머리를 빗어 모아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운다.

- 贊降 賓降 主人降

찬이 마루에서 내려오면, 빈도 내려오고, 주인도 내려온다.

- 賓盥帨畢

빈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主人揖賓 賓答揖 俱升復位

주인이 빈에게 읍을 하면, 빈도 답례로 읍을 한다. 그리고 빈과 주인이 함께 마루에 올라 제자리로 돌아간다.

◎ 始加緇布冠·深衣·大帶·黑履 <始加禮>

(처음으로 관례를 하는 자에게 치포관(緇布冠)·심의를(深衣)·대대(大帶)·흑리(黑履)를 착용시키는 예)

- 執事以冠簪盤并初加祝 進至階下

집사가 갓·비녀와 초가축(初加祝)을 상에 담아 가지고 나아가 계단 밑에 이른다.

- 賓降階一等 受冠簪執之 正容徐行 詣冠者前 東向立

빈이 한 계단 내려와 갓과 비녀를 잡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서, 천천히 걸어 관례를 하는 자 앞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선다.

- 贊取祝 升趨 詣冠者之左<以東爲左> 西向立 雙手展之 向賓

찬은 초가축을 가지고 종종걸음으로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서, 두 손으로 축사를 펼쳐 빈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빈을 향한다.

- 賓讀之

빈이 초가축을 읽는다.

初加祝辭 (첫 번째 관을 씌워 줄 때의 축사)

吉月令日 始加元服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 너에게 관을 씌우노라.

棄爾幼志 順爾成德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순리대로 너의 덕을 완성하여라.

壽考維祺 以介景福 오래 오래 살아, 큰복을 누리거라.

• 贊授祝

찬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축을 준다.

• 冠者受之 視之 卷之 袖之

관례를 하는 자는 그 축을 받아 읽어보고, 말아 소매 속에 넣는다.

• 賓跪 加緇布冠于冠者之首 授簪

빈이 꿇어앉아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에 치포관을 씌우고, 찬에게 비녀를 건네 준다.

• 贊跪受 簪之 興立

찬은 꿇어앉아 비녀를 받아서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에 꽂아주고, 일어나 선다.

• 賓興復位 冠者興

빈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관례를 하는 자도 일어난다.

• 賓揖之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읊을 한다.

• 贊導冠者入房

찬이 관례를 하는 자를 인도하여 방으로 들어간다.

• 服上衣緇帶 出房 立于席右 南面 正容良久

관례를 하는 자는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대대(大帶:검은띠)를 두르고, 흑리(黑履:검은신)를 신고서 방을 나와 자리 오른쪽에서 남쪽을 향해 서서 용모를 단정히 하고 기다린다.

◎ 再加笠子·素袍·革帶 <再加禮>

(두 번째로 갓·소포(素袍)·혁대를 착용시키는 예)

• 賓揖之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읊을 한다.

- 冠者卽席 西向跪

관례를 하는 자는 자리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 執事 以筮子盤并再加祝 進至階下

집사는 갓과 재가축(再加祝)이 담긴 상을 들고 나아가 계단 밑에 이른다.

- 賓降階二等 受筮子執之 升詣冠者前 東向立

빈이 두 계단을 내려가서 갓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 관례를 하는 자의 앞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선다.

- 贊取再加祝 升詣冠者之左 西向立 展之

찬은 재가축을 가지고 올라가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서, 빈이 읽을 수 있도록 축을 펼친다.

- 賓讀之

빈이 재가축을 읽는다.

再加祝辭 (두 번째 관을 씌워 줄 때의 축사)

吉月令辰 乃申爾服 좋은 달 좋은 때에, 거듭 너의 관을 씌우노라.

謹爾威儀 淑慎爾德 너의 위(威儀)를 삼가고, 너의 덕을 착하고 신중히 하거라.

眉壽永年 享受遐福 눈썹이 희게 셀 때까지 오래 살아, 길이 큰복을 누릴지어다.

- 贊授祝

찬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축을 준다.

- 冠者受之 視之 卷之 袖之

관례를 하는 자는 축을 받아 읽어보고, 말아서 소매 속에 넣는다.

- 贊跪 去簪脫冠 置梳笄東

찬이 꿇어앉아 비녀를 뽑고 치포관을 벗겨 빗상자 동쪽에 둔다.

- 賓跪 加筮子于冠者之首

빈이 꿇어앉아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에 갓을 씌워준다.

- 贊結纓 興立

찬이 갓끈을 매어주고 일어난다.

- 賓興復位 / 冠者興立

빈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 관례를 하는 자도 일어난다.

- 賓揖之

빈이 그에게 읊을 한다.

- 贊導冠者入房

찬이 관례를 하는 자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 服素袍革帶 出房 立于席右 南面 正容良久

관례를 하는 자는 심의를 벗고 소포(素袍: 흰도포)를 입으며, 혁대(革帶: 가죽띠)를 두르고서, 방을 나와 자리 오른쪽에서 남쪽을 향해 서서 용모를 단정히 하고 기다린다.

◎ 三加儒巾·青袍·絲帶·靑鞋 <三加禮>

(세 번째로 유건(儒巾)·청포(靑袍)·사대(絲帶)·청혜(靑鞋)를 착용시키는 예)

- 賓揖之

빈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읊을 한다.

- 冠者卽席 西向跪

관례를 하는 자는 자리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 執事以儒巾盤并三加祝 進至階下

집사가 유건과 삼가축(三加祝)을 상에 담아 가지고 나아가 계단 밑에 이른다.

- 賓降階三等 受儒巾執之 升詣冠者前 東向立

빈이 세 계단을 내려가 유건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 관례를 하는 자의 앞에 이르러 동쪽을 향해 선다.

- 贊取三加祝 升詣冠者之左 西向立 展之

찬은 삼가축을 가지고 올라가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서, 빈이 읽을 수 있도록 축을 펼친다.

- 賓讀之

빈이 삼가축을 읽는다.

三加祝辭 (세 번째 관을 씌워 줄 때의 축사)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좋은 해 좋은 달에, 어른의 관을 다 써 보았도다.

兄弟俱在 以成厥德 형제가 모두 곁에 있어, 네 덕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黃耇無疆 受天之慶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 贊授祝

찬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축을 준다.

• 冠者受之 視之 卷之 袖之

관례를 하는 자는 축을 받아 읽어보고, 말아서 소매 속에 넣는다.

• 贊跪 解纓脫笠 置于冠簪東

찬이 꿇어앉아 갓끈을 풀고 갓을 벗겨서 관과 비녀의 동쪽에 둔다.

• 賓跪 加儒巾于冠者之首

빈이 꿇어앉아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에 유건을 씌워준다.

• 贊結纓 興立

찬이 유건의 끈을 매어주고 일어난다.

• 賓興復位 / 冠者興立

빈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 관례를 하는 자도 일어난다.

• 賓揖之

빈이 그에게 읊을 한다.

• 贊導冠者入房

찬이 관례를 하는 자를 인도하여 방안으로 들어간다.

• 釋再加素袍 服青袍·絲帶·靑鞋

관례를 하는 자는 두 번째로 입은 소포(素袍: 흰도포)를 벗고 청포(靑袍: 푸른도포)를 입으며, 사대(絲帶: 실띠)를 두르고, 청혜(靑鞋: 푸른신)를 신는다.

• 執事升撤梳笄 冠簪笠子 入房 置于桌上 降復位

집사는 마루 위로 올라가 빗통·관·비녀·갓을 거두어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고, 마루를 내려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 冠者出房 南向立

관례를 하는 자는 방에서 나와 남쪽을 향해 선다.

◎ 醮禮

(술을 마시는 예)

- 僮者移席于堂中 少西南向

빈자가 자리를 마루 가운데로 옮겨 펴고, 조금 서쪽으로 붙어 남쪽을 향해 선다.

- 贊酌酒房中 出立于冠者之左

찬은 방에서 술을 따라 가지고 나와,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선다.

- 賓揖冠者 立于席右 南向

빈은 관례를 하는 자에게 읍하고 자리 오른쪽에 서서 남쪽을 향한다.

- 贊奉酒授賓

찬은 술을 받들어 빈에게 준다.

- 賓受之 詣醮席 北向立

빈은 그 술잔을 받아 초례 자리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 贊取醮辭 詣冠者之左 南向立 展之

찬이 초사(醮辭)를 가지고 관례를 하는 자의 왼쪽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서서, 빈이 읽을 수 있도록 펼친다.

- 賓讀之

빈이 초사를 읽는다.

醮祝辭 (술을 줄 때의 축사)

旨酒既清 嘉薦令芳 맛있는 술이 맑으며, 좋은 안주가 향기롭도다.

拜受祭之 以定爾祥 절하고 받아 제주(祭酒) 하여, 너의 상서로움을 받을지어다.

承天之休 壽考不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살아 잊지 말지어다.

- 贊授辭

찬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초사를 준다.

- 冠者受之 視之 卷之 袖之 俯伏 興再拜 升席南向 受酒而立

관례를 하는 자는 초사를 받아 읽어보고, 말아서 소매 속에 넣은 뒤, 엎드렸다가 일어

나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자리에 올라 남쪽을 향해 서서 술잔을 받는다.

- 賓復位 東向立 答再拜

빈은 제자리로 돌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답례로 두 번 절한다.

- 贊入房 以脯櫟出立

찬은 방에 들어가 포접시를 들고 나와 선다.

- 冠者進席前跪 / 祭脯 <冠者 左手執盞 右手執脯櫟 置于席前空地上> / 祭酒 <傾少許于地> / 興退 就席末跪 / 啐酒 <少入口> / 興降席 以盞授贊

관례를 하는 자는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 제포(祭脯)한다(관례를 하는 자는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포접시를 잡아 자리 앞의 빈 곳에 둔다). / 제주(祭酒)한다(땅에 조금 기울인다). /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 자리 끝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 술을 마신다(조금 마신다). / 일어나 자리에서 내려와 잔을 찬에게 준다.

- 執事撤脯櫟

집사는 포접시를 치운다.

- 冠者南向再拜

관례를 하는 자는 남쪽을 향해 서서 빈에게 두 번 절한다.

- 賓東向答再拜

빈은 동쪽을 향해 서서 답례로 두 번 절한다.

- 冠者側身西向贊 再拜 <贊受拜> / 贊立賓左 東向少退 答再拜

관례를 하는 자는 몸을 틀어서 서쪽으로 찬을 향해 두 번 절한다. <이때 찬은 절을 받는다.> / 찬은 빈의 왼쪽에서 있다가,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답례로 두 번 절한다.

◎ 賓字冠者 <字冠者禮>

(빈(賓)이 관례를 하는 자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예)

- 賓降階 東向 / 主人降階 西向

빈이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동쪽을 향해 선다. /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서쪽을 향해 선다.

- 冠者降自西階 少東南向

관례를 하는 자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약간 동쪽으로 붙어 남쪽을 향해 선다.

- 贊取字辭 進于賓

찬은 자사(字辭)를 가지고 빈에게 나아간다.

- 賓受而展讀

빈은 자사를 받아 펴서 읽는다.

字辭 (자(字)를 지어 줄 때의 축사)

禮儀既備 예의가 이미 갖추어졌도다.

令月吉日 昭告爾字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의 자를 분명히 알리노라.

爰字孔嘉 髦士攸宜 너의 자가 매우 아름다워, 훌륭한 선비에게 마땅하도다.

宜之于嘏 永受保之 오래도록 그 뜻에 맞게 하여, 길이 그 의미를 보전할지어다.

字曰○○ 너의 자를 ○○라 하노라.

- 讀畢 授贊

빈은 다 읽은 뒤에, 자사를 찬에게 준다.

- 贊受之 與冠者

찬은 자사를 받아 가지고 관례를 하는 자에게 나아가 준다.

- 冠者受之 視之 卷之 袖之

관례를 하는 자는 자사를 받아 읽어보고, 말아서 소매 속에 넣는다.

- 贊取對辭 授冠者

찬이 대사(對辭)를 가지고 관례를 하는 자에게 나아가 준다.

- 冠者受而讀之

관례를 하는 자는 대사를 받아 읽는다.

冠者 對辭 (관자(冠者)가 자사(字辭)에 대답하는 말)

某雖不敏 敢不夙夜祇奉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감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삼가 이 뜻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 讀畢 再拜

관례를 하는 자는 대사를 다 읽은 뒤에, 빈에게 두 번 절한다.

◎ 出就坐

(문을 나가 연회 자리로 나아가는 예)

- 賓揖主人曰 盛禮既成 請退

빈이 주인에게 읍하며 말하기를 “성대한 예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라고 한다.

- 主人揖賓曰 某有薄酒 敢禮從者

주인이 빈에게 읍하며 말하기를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대접할까 합니다.”라고 한다.

- 賓辭曰 某不敢當

빈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

- 主人請曰 姑少留

주인이 말하기를 “잠시만이라도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한다.

- 賓曰 敢不從命

빈이 말하기를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 主人揖賓 送出外

주인이 빈에게 읍하고, 문 밖의 연회 장소로 안내한다.

- 贊從之 <衆賓皆從之>

찬도 따라간다(여러 손님들도 다 따른다).

- 至次 賓主對揖

연회 장소에 이르러 빈과 주인이 서로 읍하고 앉는다.

- 主人乃退 還入 命執事治具 <撤醯席及所陳冠服卓 房中之陳亦并撤之>

주인은 물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집사에게 명하여 관례 도구를 치우게 한다(초례를 거행했던 자리와 진설 했던 갓과 옷과 탁자를 치우고, 방안에 차려 놓은 것도 모두 치운다).

4. 혼례(婚禮)



해마다 전통혼례를 마련해 전통문화계승에 힘쓰고 있다.

진주향교는 해마다 전통혼례를 마련해 전통문화계승에 힘쓰고 있다. 전통혼례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통혼례를 올리고 있으며, 진주의 봄축제인 진주논개제에서는 수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사업의 선두주자임을 지역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진주향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통혼례의 홀기(笏記)는 다음과 같다.

혼례홀기(婚禮笏記)

◎ 行迎壻禮

(사위를 맞이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 主人迎壻門外

신랑이 문밖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으니 주인이 나오셔서 맞이하십시오.

• 壻揖讓以入

신랑은 주인에게 읍하고 들어옵니다.

◎ 行奠雁禮

(기러기를 드리는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主人導壻奠雁廳 入廳

주인은 신랑을 전안청으로 인도하십시오.

• 侍者執雁以從

기력아범은 기러기를 안고 따라갑니다.

- 執雁者 授雁于壻

기력아범은 신랑에게 기러기를 드리십시오.

- 壻受雁 奉之左首

신랑은 기러기를 머리가 왼쪽으로 되게 받으십시오.

- 壻北向跪 置雁于床 首西

신랑은 꿇어앉아 전안상 위에 기러기를 머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올려놓으세요.

- 俯 復 興 少退 再拜

허리를 구부렸다가 일어나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하세요.

- 侍者 受奠雁 授主人

주인댁 시자는 기러기상을 받아 주인에게 드리세요.

- 主人 掠奠雁床 入房

주인은 기러기상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여보내세요.

※기러기는 한번 짝을 하면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기러기와 같이 백년해로 하며 정답게 잘살겠습니다.”라고 맹서를 하며 신부에게 기러기를 폐백으로 하였습니다.

- 壻至席末

신랑은 초례청 동편 자리에 들어서십시오.

◎ 行親迎禮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新婦出 南向立

여집사는 신부를 부축해서 대례청으로 나와 남향해 서십시오.

※예전에는 신부가 부끄러움과 당황함으로 오라버니나 집안 어른들께 업혀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壻揖婦 就席

신랑이 읊하면 신부도 읊을 하고 자리에 나아갑니다.

• 壻東婦西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섭니다.

◎ 行盥洗禮

(손을 씻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성스러운 혼례식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신부는 손을 씻는 흉내만 내고 소맷자락 밖으로 손을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 侍者 置盥于壻婦之前

세숫대야를 신랑 신부 앞에 놓습니다.

• 壻盥于南 婦盥于北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습니다.

• 盥手輓手

신랑신부는 손을 씻은 뒤 수건으로 닦습니다.

• 移本古處

관세대를 본래 자리로 내어가십시오.

◎ 行交拜禮

(절을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예(禮)입니다. 남자는 한 번 절하고 여자는 두 번 절합니다. 절의 횟수가 차이 나는 것은 음양의 이치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녀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婦先再拜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합니다.

• 壻答一拜

신랑은 답례로 한 번 절합니다.

• 婦又先再拜

신부가 다시 먼저 두 번 절합니다.

- 壻又答一拜

신랑은 답례로 다시 한 번 절합니다.

◎ 行罇杯禮

(신랑과 신부가 예주를 마시는 예입니다)

※근배례는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어 마시는 의례로서 합근례 라고도 합니다. 처음 술잔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 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표주박은 그 짝이 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으며 둘이 합쳐짐으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 壻揖婦 就座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자리에 앉습니다.

- 侍者進饌

대반은 신랑 신부 앞에 술상을 앞에 놓습니다.

- 侍者斟酒

대반은 신랑 잔에 술을 따릅니다.

- 壻揖 祭酒舉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술을 세 번 나누어 지웁니다. 그리고 안주를 들어 쟁반 위에 놓습니다.

※세 번 나누어 붓는 이유는 술이라는 음식을 처음 만든 신에게 술을 맛보게 하는 예입니다. 일종의 고신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侍者又斟酒

시자는 다시 술을 따릅니다.

- 壻揖婦舉飲舉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술을 마신 후 안주를 먹습니다.

- 侍者各斟酒

신랑, 신부측 시자는 표주박에 각각 술을 따릅니다.

- 舉盃相互 壻上婦下

신랑 잔은 위로 신부 잔은 아래로 하여 술잔을 서로 교환합니다.

※술잔을 위 아래로 교환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各舉飲 無肴

신랑 신부는 술을 마십니다. 안주는 먹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일생 처음 주고받은 술이기에 영원히 그 맛을 기억하고자 안주를 먹지 않습니다.

- 壻揖婦 立 上向

신랑이 읍하면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 壻揖 婦屈身 答禮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답례하십시오.

※(집례)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티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맹세하고 근배를 들었습니다. 이에 집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 합니다.

- 禮畢 撤饌

예를 마치고 대례상을 거둡니다.

일반적으로 전통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의혼

양가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고 한다. 예서에서 말하는 친영 이전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여기에 납채·연길(涓吉)·송복·납폐 등이 포함된다.

2) 납채

납채(納采)란, 예서에 의하면 양가가 중매인으로 하여금 내왕하게 하여 말을 통하도록 하고 여자 쪽의 허락을 기다린 다음, 처음으로 신랑측 혼주(婚主)가 예서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부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식은 주소·관직·성명을 적고 간단한 문구로 혼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때 신랑집에서는 납채서를 써서 아침 일찍 사당에 고한다. 납채서가 신부집으로 보

내지면 신부집 혼주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안으로 맞아들여 납채서를 받아 북향하여 재배한다.

다음에는 사당에 고하고 답서를 전달한다. 신랑집에서는 답서를 받으면 또다시 사당에 고한다. 예서의 이러한 절차에 해당하는 실제의 관행은 중매인을 통하여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

사주는 사성(四星)·주단(柱單)·단자(單子)라고도 한다.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아 혼인하기로 결심하면, 처음 보내는 서신이 사주이다.

사주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간지(干支)로 적고, 그것을 다섯 번 접어 봉투에 넣는다. 봉투의 전면에는 ‘사주’ 또는 ‘사성’이라 쓰고, 후면에는 ‘근봉(謹封)’이라고 쓴다.

이것을 싸릿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 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홍보(紅褸)에 싸서 신부집에 보낸다. 격식을 갖추는 집에서는 사주 외에 청혼서(請婚書)를 같이 보내는데 주혼자(主婚者)의 명의로 된 서신이다.

앞에서 기술한 납채서식을 청혼서의 내용으로 하는 집도 있고, 한문에 능한 사람은 긴 문장으로 청혼서를 쓰기도 한다. 청혼서를 강서(剛書)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 신부집에서는 상 위에 홍보를 덮고, 혼주가 정중하게 사주를 받아서 놓는다.

사주를 받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려면 사주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주를 받은 뒤에 혼인을 거절하면 이혼이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는 집은 사주를 받는 날 떡을 해서 잔치를 한다.

3) 연길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낸다. 이것을 연길(涓吉)이라고 하는데, 속칭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단자는 전안(奠雁: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것. 이러한 의례를 전안의례라고 하며, 흔히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사용한다)할 연월일시와 납폐할 연월일시를 기입한 단자로서 따로따로 기입하기도 하지만, 전안일시만 쓰고 납폐일시는 동일선행(同日先行)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격식을 따지는 집에서는 전안·납폐일시 외에 신랑·신부가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의 간

지, 그리고 앉아서는 안 될 방위 등을 기입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는 봉투에 넣어 봉투 겉의 전면에 ‘연길(涓吉)’이라고 쓴 다음 중매인 또는 복많은 사람편으로 신랑집에 보낸다. 택일단자에 허혼서(許婚書)를 동봉하기도 한다.

허혼서의 서식은 납채 때의 답례서와 동일하게 하거나 별도의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연길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잔치를 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를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지방도 있다. 이러한 택일을 ‘맞택일’이라 한다.

4) 송복

송복(送服)이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봉치’ 또는 ‘짐보내기’라고도 한다. 예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모든 지방에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방에서 행한다.

전라도 지방의 예를 보면, 날을 정하여 신부옷감·이불·솜·명주·광목·패물·술·떡을 싸서 한짐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 물목기(物目記)에 적어 신부집에 보낸다. 이 날 신부집과 신랑집에서는 친척이 모여 잔치를 한다.

5) 납폐

예서에 의하면 납폐(納幣)란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을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함 두 개에 각각 납폐서와 납폐를 넣어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상 위에 받고, 북향재배한다.

그리고 답서를 신랑집에 보낸다. 납폐서의 서식은 납채와 유사하고, 폐백으로는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채단(綵緞)을 보낸다. 실제의 관행으로는 납폐라 하면 함보내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넣는 것은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혼서지(婚書紙)이다. 혼서지란 위에서 말한 납폐서로서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며 일종의 혼인문서이다.

송복이라는 절차가 없는 지방에서는 많은 예물을 함에 넣기도 한다. 예컨대 비단·이불·감·솜·돈을 넣고, 부귀다남(富貴多男)을 상징하는 곡물이나 목화씨·숯·고추 등을 넣기도

한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여 초행 전날에 보내거나 초행의 전 안의례를 올리기 전에 전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첫아들을 낳은 복많은 사람이 함진애비가 되기도 한다. 함을 받을 때는 마루에 상을 놓고 그 위에 홍보를 덮은 뒤 받기도 하며, 상 위에 시루를 놓고 그 위에 받아 엮기도 한다.

함을 받는 사람은 신부의 어머니나 복많은 여자가 받는다. 함을 받은 뒤 바로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들었네.” 하면서 함에 손을 넣어 손에 잡히는 옷감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부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그리고 함진애비를 후하게 대접하여 보낸다. 오늘날에는 신랑 친구가 함진애비가 되어 혼인 전날 신부집에 전하고 후한 대접과 함값을 받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다.

6) 대례

대례(大禮)란 실제의 관행에서 의혼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즉, 초행과 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동상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례를 좁게 해석하면 전안지례와 교배지례·합근지례 중에서 전안지례를 소례(小禮)라 하고, 교배지례와 합근지례를 대례라 한다. 예서에는 친영이라 하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모든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서의 친영에 포함된 절차는 신랑집의 주혼(主婚)이 사당에 고사를 하고, 다음에는 초례(醮禮:주인이 그 아들을 시켜 술을 맛보게 한 뒤 신부를 맞아 오라고 명하는 의례)를 행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여 기다리면 신부집에서도 신부와 그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초례를 행한다.

그다음에는 신랑이 신부의 주인에게 기러기를 전하고 신부와 함께 집에 돌아온다. 신랑집에 도착한 신랑과 신부는 교배지례 및 합근지례와 유사한 의례를 행하고 신방을 차린다.

이튿날 아침에 신부는 시부모·시조부모의 순서로 폐백을 드리고, 집안 친척들에게 인

시를 올린다. 3일 만에 신부는 주혼의 안내로 사당에 참배한다. 이튿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폐백을 드리고, 신부 아버지의 안내로 사당에 고사를 한다. 실제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대례는 다음과 같다.

7) 초행

초행(醮行)은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집에 가는 것으로서 초행걸음이라고도 한다. 신랑 외의 신랑 일행에는 상객(上客)·후행(後行)이 포함되며, 때로는 소동(小童)이라 하여 어린이 2명이 끼기도 한다.

여기서 상객은 조부가 계시면 조부가 되나 여의치 않으면 아버지나 백부(伯父), 장형(長兄)이 되기도 한다. 후행은 근친(近親) 중 2, 3명이 된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인접(人接) 또는 대반(對盤)이라 하여 안내인을 보내 일행을 정방에 맞이한다.

정방은 지방에 따라서 노점·주점·사초방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온 방향에서 신부집을 지나지 않는 집의 방이어야 한다. 신랑 일행이 정방에 들면 요기상이 나온다.

간단한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때에 맞추어 예를 행할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집에 들어설 때 부정을 퇴치하는 뜻에서 쯔불을 놓아 신랑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한다.

8) 전안지례

전안지례(奠雁之禮)란 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이다.

이 때부터 의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예절과 한문에 능한 노인으로 하여금 홀기(笏記:혼례나 제례의식의 절차를 적은 글)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의례를 진행한다. 전안지례를 위해서 신부집에서는 미리 대문 안 적당한 곳에 명석을 깔고 병풍을 두른 앞에 작은 상을 놓고, 상 위에 홍보를 덮어놓는다.

이 상을 전안상이라 하며, 이것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준비해놓은 곳을 전안청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오면 전안청에 안내된다. 홀기의 부름에 따라 신랑이 전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하인이 나무로 만든 기러기 즉, 목안을 신랑 손에 쥐어준다. 신랑은 이것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읊(揖)을 한 다음 일어서서 4배(四拜)를 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사이에 신부의 어머니가 목안을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안방에 던진다. 이 때 목안이 누우면 첫딸을 낳고, 일어서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전안지례는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뜻을 지닌다.

9) 교배지례

교배지례(交拜之禮)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전안지례가 끝나면 신랑은 대례상 앞으로 안내되어 동쪽에 선다. 신부가 원삼(圓衫)을 입고 손을 가린 한삼(汗衫)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모의 부축을 받아 마주선다.

신랑이 대례상 앞에 나온 뒤 신부가 마주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머리를 엮기 때문이다. 신랑·신부가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뒤 먼저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재배하고 신랑은 답으로 일배한다.

다시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한다. 이렇게 하면 교배지례는 끝난다. 교배지례에는 대례상 또는 교배상(交拜床)이라고 하는 상을 준비한다. 상 위에는 촛대·송죽(松竹)·장닭·쌀·밤·대추·술잔 등을 놓는다.

지방에 따라서는 송죽 대신 꽃을 놓고, 시루에 기름종지를 엮고 불을 피우거나, 용떡이라 하여 가래떡을 돌돌 말아놓기도 하며, 봉황이라 하여 문어포를 오려 봉황을 만들어 엮기도 한다.

10) 합근지례

합근지례(合斟之禮)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교배지례가 끝나면 수모가 상에 있는 표주박 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어 약간 입에 대었다가 다시 받아서 신랑의 대반, 즉 신랑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준다.

신랑에게 주면 받아서 마신다. 답례로 대반이 다른 표주박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입에 대었다가 대반을 통하여 수모에게 건네준다.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입에 대었다가 내려놓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한 후 셋째잔은 서로 교환하여 마신다.

그리고 안주를 들고 합근지례를 마친다. 합근지례도 대례상을 마주보고 행하며, 이때 사용하는 표주박은 두 개를 준비한다. 표주박은 청실과 홍실로 묶는다. 표주박이 없으면 술잔을 사용하기도 한다.

합근지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다. 즉,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11) 신방

합근지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새로 만든 도포 또는 두루마기로 바꿔 입는다. 이것을 ‘관대벗김’ 또는 ‘관대벽금’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신랑과 상객이 큰상을 받는다. 큰상을 받으면 손을 대는 시늉만 하고 물린다. 큰상의 음식은 그대로 광주리에 담아서 신랑집에 보낸다. 신랑집에서는 이 음식을 보고 신부집의 음식솜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상객은 큰상을 물린 다음 사랑방에서 신부집 어른들과 인사를 나눈다. 옛날에는 상객이 신랑의 신방지내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룻밤을 묵고 갔으나, 근년에는 당일 귀가한다. 상객이 떠날 때 신부가 나와 절을 하는 지방도 있고, 서로 보지 않고 귀가하는 지방도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다음날 동상례에 쓸 비용이라 하여 상객이 얼마간의 돈을 내고 오기도 한다. 저녁때가 되면 신방을 꾸민다. 신부집 안방을 신방으로 하거나 더 나은 방이 있으면 그곳을 신방으로 한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온다. 이어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이 상에는 술과 간단한 안주를 놓는다.

주안상의 술을 나눈 다음,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긴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한다. 이 때 ‘신방지킨다’ 또는 ‘신방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어 엿본다.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난다.

촛불을 끌 때는 반드시 신랑이 옷깃으로 바람을 내어 꺼야 한다.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나간다고 전한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이면 신방에 잣죽이나, 대례상에 얹어

놓았던 용떡으로 끓인 떡국을 가져온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절하며,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인사한다.

12) 동상례

점심 때를 전후하여 신부집의 젊은이들이 모여앉아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상례(東床禮)라고 한다.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답이 신통하지 않으면 신랑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 힘센 사람이 일어서서 짊어지거나, 대들보에 매어 발바닥을 방망이나 몽둥이로 친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음식대접을 한다. 양반집에서는 신랑에게 시(詩)를 읊게 하거나 화(話)를 맞추도록 하여 신랑의 학식과 지혜를 떠보기도 한다.

13) 후례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가 남는다. 이러한 의례들을 후례(後禮)라고 할 수 있다.

후례는 신부가 신랑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가 주가 된다. 절차는 다르지만, 예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의례를 친영이라는 절차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의 관행에서 보이는 후례의 절차는 우귀·현구례·근친 등이 있다.

14) 우귀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을 우귀(于歸) 또는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또는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의례라 하여 우례(于禮)라고도 한다. 예서에는 당일에 우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구식혼례에서는 당일우귀(當日于歸)도 있고, 사흘 뒤에 시집에 가는 3일우귀(三日于歸) 혹은 3일대반(三日對盤)도 있다.

이 밖에도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때에 따라서 해를 넘겨서 우귀하는 경우도 있다. 달을 넘겨서 우귀하는 것을 ‘달묵이’라고 하며, 해를 넘겨서 우귀하는 것을 ‘해묵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해묵이’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묵이’의 관습은 오래된 것으로 옛

달로 소급할수록 해묵이가 길었고, 현재도 농촌에 가면 해묵이한 노인을 볼 수 있다.

이이(李珣)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풍속을 볼 수 있다. 외손자가 외가(外家)에 오래 있다가 성숙한 뒤에 우귀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중국보다 외조부모와 외숙에 대한 상복기간(喪服期間)이 긴 것이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고구려조의 기록에 “서옥(婿屋)을 짓고 남자가 와서 동숙(同宿)하기를 원하면 이를 허락하며,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한 뒤에 남가(男家)로 간다.”는 것도 해묵이를 말하는 것이다.

해묵이나 달묵이를 할 경우 신랑이 몇 차례 신부집에 다니러 간다. 이것을 재행 혹은 재행걸음이라 한다. 그러나 3일우귀가 생기면서 재행갈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흘 안에 재행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생긴 것이 인재행(引再行)이다. 이것은 첫날 신부집에서 자고, 다음날 밤을 신부집의 이웃마을에서 자고, 사흘째 다시 신부집에 와서 신부와 함께 우귀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가 우귀할 때에는 신부를 비롯하여 상객·하님·짐꾼이 행렬을 이룬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갈 때는 가마 위에 호피(虎皮)를 얹고, 신부의 방석 밑에는 목화씨와 숯을 깔다.

길이 먼 경우에는 종이쪽지를 몇 개 가져가면서 개울을 건너거나 서낭당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던진다. 이렇게 하면 잡귀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신부가마가 신랑집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나아가 목화씨·소금·콩·팥 등을 뿌려 잡귀를 쫓는다.

또는 대문에 짚불을 피워 넘어오도록 하여 잡귀를 쫓는다. 신부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면 대청 앞에 가마를 세우고 신랑이 가마의 문을 열어 신부를 맞는다. 이어 가마 위에 얹었던 호피를 지붕에 던져올려,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15) 현구례

현구례(見舅禮)란 신부가 시부모와 시가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폐백이라고도 한다. 신부집에서 장만해온 닭찜·안주·밤·대추·과일 등을 상 위에 차려놓고 술을 따라 올리며 절을 한다.

절을 받는 순서는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조부모가 받는

다. 다음에는 세대순으로 백숙부모(伯叔父母)·고모내외(姑母內外)·외숙내외(外叔內外)·이모내외(姨母內外)가 절을 받고, 동향렬(同行列)의 형제자매는 맞절을 한다.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예물을 주거나 대추나 밤을 치마 밑에 넣어주면서 축원을 한다. 양반가에서는 현구례 때 술을 올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 관례이다.

현구례가 끝나면 신부와 신부상객은 신랑집에서 큰상을 받는다. 이것도 대례 때와 같이 손을 대는 시늉만 하고 물리면 신부집으로 보낸다. 이어 상객과 하님 등은 모두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인사를 올린다. 문안인사는 시부모가 그만 하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대개 사흘 만에 시부모가 그치라고 한다.

시집에 온 지 사흘 동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까운 친척의 집에 다니면서 인사를 시킨다. 친척들은 신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사흘이 지나면 부엌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다.

16) 근친

근친(覲親)이란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에 와서는 구식혼례에서도 우귀한 지 1주일 만에 근친을 가지만 옛날에는 신부가 시가에서 첫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한 것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가지고 근친을 갔다.

근친 때는 많은 예물을 가져가며, 친정에서 쉰 다음 돌아올 때도 많은 예물을 가져온다. 근친 때는 신랑이 동행을 하며, 이 때 장모가 사위를 데리고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친척들은 식사대접을 한다.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난 것이 된다.

5. 향음주례(鄉飲酒禮)



진주 유림들이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연하고 있다.

진주향교는 지난 2008년 도내 향교에서는 처음으로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연하고 이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음주(飲酒) 문화가 우리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예절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변해 버린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는 것은 물론, 우

리의 선조들이 육례(六禮)에 포함할 정도로 중요시했던 향음주례를 재현함으로써 우리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음주예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한 것이다.

향음주례는 향촌의 선비·유생들이 학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主賓)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향촌의례(鄉村儀禮)의 하나. 어진 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데 뜻을 둔다.

매년 음력 10월에 개성부(開城府), 각 도·주·부·군·현에서 길일을 택해 그 고을 관아가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을 주빈으로 삼고 그 밖의 유생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酒宴)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했던 행사다.

『주례』의 지관(地官) 향대부조(鄉大夫條)에는 “향학(鄉學)에서 학업을 닦고 난 다음, 제후의 향대부가 향촌에서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해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出鄉)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써 대우하고 일종의 송별 잔치를 베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음주례이다.

향음주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의례』 향음주의조(鄉飲酒義條)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경하고[尊丈] 노인을 봉양하는[養老] 것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으

며, 귀천의 분수도 밝혀지며, 주석(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한다.

후한 영평(永平) 2년(59)에는 여러 국(國)·현(縣)·도(道)에서 향음주례를 학교에서 행하였다. 또한 당(唐) 정관(貞觀) 6년(633)에는 『향음례(鄉飲禮)』 1권을 천하에 반포, 매년 주·현의 관장(官長)에게 명해 어른과 젊은이[長幼]를 거느리고 의례에 따라 행하게 하였다.

명나라 태조 때에는 중서성(中書省)으로 하여금 「향음주례조식(鄉飲酒禮條式)」을 상세히 규정하게 해 유사(有司)가 학관(學官)과 더불어 나이 많은 사대부를 거느리고 학교에서 행하였다.

민간의 이사(里社)에서도 100호 단위로 모여 이장(里長)이 주최했으며, 100호 내에서 최연장자를 정빈(正賓)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 순서로 좌정해 계절마다 마을에서 행하였다. 이는 청대까지 지속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인종 14년(1136)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주(州)의 공사(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제도적으로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세종이 집현전에 상정(詳定)하도록 명해 성종 5년(1474)에야 편찬을 완성했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이에 의하면, 향음주례는 해마다 맹동(孟冬)의 길신(吉辰)을 택해 한성부와 모든 도·주·부·군·현에서 행하였다. 주인(主人:所在地의官司)이 유덕한 연장자 및 효행자를 택해 학당에 주탁(酒卓)을 마련하고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해 참석시켰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 절도 있게 술잔을 헌수(獻酬)해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연이 끝나면 사정(司正)이 나아가 빈(賓)과 주인 및 서민까지 한 자리에 앉은 가운데 독약(讀約)하였다.

즉, “우리 노소(老少)는 서로 권면해 나라에는 충성하고,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잘 어울리고, 서로 교회(教誨)하고 상규(相規)해 잘못이 있거나 게으름 퍼서 삶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서사(誓詞)를 읽었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마을에서 유덕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제목린(孝悌睦隣)을 권장하는 주례(酒禮)를 통한 훈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향음례에서는 ‘효·제·목·린’의 내용을 담은 약조 같은 것을 강석(講釋)해 흡사 향약의 강신례(講信禮) 같았고, 향음례와 향약을 서로 혼칭해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이칭처럼 사용되었다.

다음은 진주향교에서 사용되는 향음주례 흘기(笏記)이다.

향음주례(鄉飲酒禮) 흘기(笏記)

◎ 主人迎賓禮

- 贊引 進主人之左曰 請迎賓
찬인은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 “손님을 맞이하십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 贊引 乃導主人 出門之左 西向立
찬인은 주인을 인도하여 대문의 왼쪽에 나가 서쪽을 향해 서십시오.
- 主人 再拜賓 賓答再拜
주인과 빈은 서로 두 번 절하며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 主人 揖三賓, 三賓報揖
주인과 중빈은 서로 읍을 하며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 主人揖 賓入, 賓 答揖入
주인이 빈에게 읍하고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면 빈은 읍하고 들어가십시오.
- 贊引 導主人 先入到 阼階下 西向立
찬인은 주인을 인도하여 먼저 들어가서 동쪽계단 아래 이르러 서향하여 서십시오.
- 賓贊引 導賓, 衆賓入門到 西階下 東向立
빈의 찬인은 빈과 중빈을 인도하여 서쪽계단 아래 동향하여 서십시오.
- 三讓 (主人曰 請先升, 賓曰 不敢, 主人曰 不敢 固以請, 賓曰 不敢聞命, 主人曰 願勿 固辭, 賓曰 終不敢聞命)

주인은 빈에게 ‘먼저 오르십시오’라고 하면 빈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또 주인은 ‘아닙니다’ 하고 굳이 청하면 빈은 ‘아닙니다 먼저 오르십시오’ 하고 답합니다.

또 한번 주인이 ‘너무 사양마시고 먼저 오르십시오’라고 하면 빈이 ‘아닙니다 제발 먼저 오르십시오’라고 서로 사양하면서 먼저 오르기를 권유한다.

- 主人 先升 賓 後升
주인이 먼저 올라 가십시오. 빈이 뒤따라 올라가십시오.
- 主人 阼階上當楣 北向再拜
주인은 동쪽 마루에서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십시오.
- 賓 西階上當楣 北向答再拜
빈은 서쪽 마루에서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십시오.
- 主人與賓 皆就席
주인과 빈은 서로 마련된 자리에 나아가 마주하십시오.

◎ 主人 獻賓禮

- 贊引引主人 詣尊所 取爵降洗
찬인이 주인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잔을 가지고 동쪽 계단 아래 잔 씻는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 賓贊引, 引賓 降立西階下
빈의 찬인이 빈을 인도하여 서쪽 계단 아래에 내려와 서십시오.
- 主人曰 敢辭
주인이 ‘내려오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 賓對曰 不敢
빈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主人適洗
주인은 잔 씻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 奠爵于 篚下
주인은 잔을 대바구니 안에 놓으십시오.

- 盥手
주인은 손을 씻고 닦으십시오.
- 洗爵
주인은 잔을 들어 옥세자에게 건네주십시오.
- 沃洗者 卒洗
옥세자는 잔을 씻어 주인에게 건네주십시오.
- 主人與賓, 揖讓升
주인은 동쪽계단 아래에서 돌아와 빈을 향해 ‘먼저 오르십시오’라고 읊을 하면 빈은 읊하며 사양하고 주인과 더불어 마루위로 올라갑니다.
- 賓西階上 北向拜
빈은 서쪽 마루 위에서 북향하여 절을 한번 하십시오.
- 主人 坐奠爵 阼階上 北向答拜
주인은 앉아서 잔을 소반 위에 올리고 동쪽마루 위에서 북향하여 답하여 절을 한번 하십시오.
- 賓 西階上 疑立
빈은 서쪽 계단 위에서 주인을 향해 서십시오.
- 主人贊引 引主人 詣尊所
주인 찬인은 주인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십시오.
- 執事者 舉幕
집사자는 술항아리 두경을 열어주십시오.
- 主人實爵 就賓席前 西北向 獻賓
주인은 잔을 채워 빈의 자리에 나아가 잔을 들어 빈에게 올리십시오.
- 賓 西階上拜, 主人 少退
빈이 주인을 향해 절을 한번 하면 주인은 잔을 들고 뒤로 조금 물러서십시오.
- 賓 進受爵 復位
빈은 주인에게 잔을 받아 빈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 主人 阼階上 拜送賓 少退

주인이 동쪽 계단 위에 돌아와 빈을 향하여 한번 절하고 전송하면 빈은 뒤로 조금 물러서십시오.

• 主人 阼階上 疑立

주인은 동쪽 계단 위에서 빈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서십시오.

• 執事者 薦脯醢于賓席前

집사자는 포와 헤를 빈의 자리 앞에 올려주십시오.

• 賓 席坐 掬手 遂祭酒

빈은 자리에 앉아 잔을 놓고 손을 닦은 다음 술을 췌주하십시오.

• 興 席末坐 啐酒

빈은 자리 끝으로 옮겨 앉아 술을 조금 마시어 주십시오.

• 降席坐, 奠爵拜告旨

자리에 돌아와 잔을 놓고 주인을 향해 절하고 앉아 “술맛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 執爵興

빈은 잔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 主人 阼階上 答拜

주인은 동쪽섬돌 위에서 답하여 절 하십시오.

• 賓 西階上 北向坐, 卒爵 興

빈은 서쪽 섬돌위에 와서 북향하고 앉아 술을 모두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 坐奠爵 遂拜, 主人 阼階上 答拜

빈이 잔을 놓고 주인을 향해 절을 하면 주인이 동쪽 마루 위에서 답하여 절을 하십시오.

◎ 賓酌主人禮

• 賓贊引, 進賓之左曰 請酌主人

빈의 찬인이 빈의 왼쪽에 나가 ‘주인에게 잔을 권하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 引賓 取爵降洗

찬인은 빈을 인도하여 잔을 가지고 서쪽 계단 아래 잔 씻는 곳에 내려와 서십시오.

- 主人贊引 引主人 降立阼階下

주인의 찬인이 주인을 인도하여 동쪽계단 아래에 내려와 서십시오.

- 賓曰 敢辭

빈이 '내려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 主人 對曰 不敢

주인이 대답하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합니다.

- 賓 適洗

빈이 잔 씻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 北向奠爵于篚

북향하여 광주리에 잔을 놓으십시오.

- 盥手

손을 씻고 닦으십시오.

- 洗爵

주인은 잔을 들어 옥세자에게 건네주십시오.

- 沃洗者 卒洗

옥세자는 잔을 씻어 빈에게 건네주십시오.

- 賓執爵 至西階下揖 主人清先升

빈은 잔을 들고 서쪽 계단 밑에서 주인에게 읍하여 먼저 오르기를 권하십시오.

- 主人 先升自阼階上 北向拜

주인이 먼저 동쪽 마루 위에 올라가 북향하여 절을 하십시오.

- 賓隨升自西階上 北向答拜

빈이 따라 서쪽마루 위에 올라가 북향하여 절을 하십시오.

- 主人 阼階上 疑立

주인은 동쪽 마루 위에서 빈을 향해 서십시오.

- 賓贊引 引賓 詣尊所

빈의 찬인은 빈을 인도하여 술향아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 執事者 舉罍
집사자는 술항아리 두개를 열어주십시오.
- 賓實爵 就主人席前 東南向 酌主人
빈은 잔을 채워 주인 자리 앞으로 동남으로 향해서 주인에게 술을 따라주십시오.
- 主人 阼階上 北向拜, 賓少退
주인이 빈을 향해 절을 하면 빈은 뒤로 조금 물러서십시오.
- 主人 進受爵復位
주인은 잔을 받아 다시 주인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 賓 西階上 拜送, 主人 少退
빈이 서쪽 마루위에서 절하면 전송하십시오 주인은 뒤로 조금 물러서십시오.
- 賓 西階上 疑立
빈은 서쪽섬돌 위에서 주인을 향해 서십시오.
- 執事者 薦脯醢于主人席前
집사자는 포와 헤를 주인의 자리 앞에 올려주십시오.
- 主人 席坐 悅手 遂祭酒
주인은 자리에 앉아 손을 닦고 술을 췌주하십시오.
- 興 席末坐 啐酒
자리 끝에 옮겨 앉아 술을 조금 마시어 주십시오.
- 主人 阼階上 北向坐 卒爵
주인은 동쪽 섬돌 위로 옮겨 앉아 북향하여 술을 모두 마시어 주십시오.
- 興 授爵 遂拜 賓 西階上 答拜
주인이 잔을 놓고 일어나 빈에게 절하면 빈은 답하여 절하십시오.
- 主人與賓 皆就席
주인과 빈은 제자리에 나아가 남향하여 앉으십시오.

◎ 樂賓禮

- 誦詩者 皆升坐 兩楹間

송시자는 마루에 올라 자리에 차례로 올라와 남향하여 앉으십시오.

참례자 모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誦詩者 歌 鹿鳴三章

송시자는 녹명 일·이·삼장을 노래하십시오.

—송 시—

• 讀訓者 讀訓

독훈자는 훈사를 읽어 주십시오.

• 維我國家 率由舊章 崇尚禮教 今茲舉行鄉飲 非專爲飲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勉

孝於家 忠於國 內睦於閨門 外比於鄉黨 胥訓誥 胥教誨 無或愆墜以忝所生

생각컨대 우리나라가 옛법을 따라 예의를 숭상하니 이제 향음주례를 행하는 것은 오로지 먹고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정에서는 효도하기를 서로 권하고, 밖에서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서로 권하고, 안으로 가정이 화목하기를 권하고, 직장이나 단체생활에 서로 화친과 단합을 권하여 서로 가르치고 깨우쳐서 혹시라도 잘못으로 흘러서 너의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 讀畢 在位者 皆再拜

훈사를 마치면 모든 참례자는 일어나 북향하여 두 번 절하십시오.

• 在位者 皆就席

모든 참례자는 제자리에 남향하여 앉으십시오.

◎ 賓出禮

• 參禮者 皆序立

참례자는 모두 일어서십시오.

• 賓 拜賜 主人 拜辱

빈은 베푸심에 감사하고 주인은 방문한 데 감사의 뜻으로 서로 절한다.

• 賓 西階降 出

빈은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나가시오.

- 贊引 引主人 送賓于門外 再拜
찬인은 주인을 인도하여 문밖에 이르러 빈객 두 번 절하여 전송하십시오.
- 相揖禮
모든 참례자는 서로 읍하며 인사하십시오.
- 禮畢
이것으로 향음주례 행사를 모두 마칩니다.

6. 진주목향시(晋州牧郷試)

진주향교는 2013년 매년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진주목향시(晋州牧郷試)를 재현하고 있다. 선비들의 등용문이었던 진주목향시는 진주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은 물론 진주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진주성 축석루에서 진주목향시를 재현하고 있다.

진주목향시는 녹명에 이어 과거장 준비, 진주목사 행렬, 개회식 및 시제 하차, 향시 재현, 축하공연, 고선, 부대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역대 진주목향시 급제자 명단

- 제1회 진주목향시 급제자
장 원 유학 강원기
제2인급제 유학 홍두표, 유학 임차영

제3인급제 유학 이영숙, 유학 김익제, 유학 정기호
 참 방 유학 강삼수, 유학 강자룡, 유학 허종철, 유학 하행락, 유학 김현진

● 제2회 진주목향시 급제자

장 원 유학 강병주
 제2인급제 유학 홍두표, 유학 허영태
 제3인급제 유학 박철조, 유학 하행락, 유학 정주택
 참 방 유학 박경목, 유학 정기호, 유학 강병하, 유학 강자룡, 유학 허종철

● 제3회 진주목향시 급제자

장 원 유학 우성준
 제2인급제 유학 허종철, 유학 강삼수
 제3인급제 유학 박철홍, 유학 강자룡, 유학 정기호
 참 방 유학 하재상, 유학 강철순, 유학 홍두표, 유학 김신수, 유학 허두천

● 제4회 진주목향시 급제자

장 원 유학 강삼수
 제2인급제 유학 김필도, 유학 박철홍
 제3인급제 유학 광철윤, 유학 정주택, 유학 배문자
 참 방 유학 강철순, 유학 강병하, 유학 하행락, 유학 안종찬, 유학 김수만

진주목향시 재현 취지문(晉州牧鄉試 再現 趣旨文)

일반적으로 향시(鄕試)는 지방에서 실시하던 과거(科擧)의 첫 시험 즉 초시(初試)를 뜻한다. 진주목 향시는 경상도 향시(鄕試)의 한 예(例)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향시는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에서 각각 한 고을씩 선정하여 시험장소로 삼았다.

시소(試所)를 한 곳으로 고정하지 않고 돌려가며 시행했던 이유는 첫째, 감영이 있는

고을에서 향시를 실시할 경우 응시자의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사람은 항상 가깝고 먼 사람은 언제나 멀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험을 감영이 있는 고을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면 그곳의 물가가 다른 고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서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진주목 향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예로부터 장원루(壯元樓)라고 불리는 축석루(矗石樓)는 장원급제자(壯元及第者)들이 건축한 누락(樓閣)으로 많은 백일장(白日場)이 열려 장원(壯元)을 선발하였던 곳이다. 이번 진주목 향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감안해 장원루인 축석루에서 지역 인재들을 모아 치르는 것이다.

향시에선 책문(策問)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연려실기술에 성종때 장령 이승건(李承健)이 황해도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향시에서 책문을 내어 본도의 여러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물으니”라는 기록이 있으니 향시에서 책문을 치르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진주목 향시에 책문을 시험과목으로 한 것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시와의 차별화를 위한 한 방법임을 밝혀둔다.

7.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全國漢文經典聲讀大會)

진주향교가 주관하는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는 국민독서장려 차원의 일환으로 옛 선비들이 천자문과 사서삼경 등 한문을 소리내어 암송 방식을 재현하여 평가하는 행사로 한문학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여 국민독서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해 2016년 제6회 행사에 이르고 있다.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에 참석한 학생이 성독하고 있다.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의 대회 요강을 보면 대회 장소는 진주향교 유림회관과 명륜당, 사교당이며, 300여 명의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다.

참가부문을 보면 일반부(대학생 이상의 일반인)는 사서삼경 등 한문고전을 성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 초급(유치~초등3년)과 중급반(초등 4년~중고등학생)은 사자소학과 동몽선습 등 한문초학 교재를 성독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부 단체는 5~10명 내외와 성독내용에 제한은 없다.

시상내용을 보면 각 부분별 장원(1명), 차상(1명), 차하(2명), 참방(3명) 장려(3명)이며, 장원을 배출한 단체에 지도교사상(3명)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학계의 전문가를 위촉해 엄중심사하고 있으며 입상자 발표와 시상은 당일에 한다.

진주향교가 개최하고 있는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는 전국의 수많은 대회와 달리 엄격한 심사로 공정한 대회로 평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반부 결선의 경우에는 결선 직전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지정한 성독자료를 갖고 평가하고 있어 그 어느 대회보다 수준 높은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8. 학생한자골든벨



진주성에서 학생한자골든벨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학생한자골든벨은 진주목향시의 부대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한자골든벨 행사는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학생한자골든벨 행사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문제출제범위는 초등부(한자급수 6~8급), 중고등부(한

자급수 3~5급)이다. 진행방식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모두 예선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본선과 결선을 치러 우승자를 가린다. 시상내역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모두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 참방 5명이다.

9. 유적답사(遺跡踏査)

유적답사는 선비반, 경서반과 경남유교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적답사를 통해 선현들의 얼과 정신을 배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선비반, 경서반과 경남유교대학 학생들 유적답사

10.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진주향교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경진대회 참가는 전통문화계승사업 가운데 지역사회에 진주향교의 존재를 각인시킨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주향교는 지난 2015년 진주향교 역사상 처음으로 개천예술제 가장행렬경진대회에 '조선시대 사례재현'을 주제로 참가해 대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2016년에는 '조선시대 유림장'을 주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천예술제 가장행렬경진대회 참석해 '조선시대 유림장' 재현

진주향교의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참가 수상은 전통문화계승사업을 선도해온 진주향교의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향후 지역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11. 이웃종교 스테이



진주향교는 지난 2015년 이웃종교스테이 행사를 개최했다.

진주향교는 지난 2015년 이웃종교스테이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이웃과 종교는 겪어봐야 안다’는 주제로 진행된 2015 이웃종교스테이는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프로젝트이다.

진주향교에서 개최된 이웃종교스테이는 ‘충효예로 찾는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차례상 차리기 체험, 전통혼례체험, 남명선생 알기와 덕천서원 참배, 유림독립운동의 본산인 유림독립기념관 방문, 목면문화체험, 한문경전 소리내어 읽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第5章 經任과 現任

第1節 歷代 典校

1. 역대(歷代) 전교사업(典校事業)
2. 역대(歷代) 성균관 임원(成均館 任員)

第2節 晋州郷校 經任錄

第3節 歷代 祭官經任錄

第5章 經任과 現任

第1節 歷代 典校

1. 역대(歷代) 전교사업(典校事業)

● 초대 이현우(李鉉佑) 전교

본관은 재령(載寧)이니 대곡면 마진리 출신이다. 1948년(무자) 6월 21일자로 성균관 장 金昌淑으로부터 진주향교전교의 임명장이 하달되었다. 단 사적에 있어서는 당시 문헌이 실전됨으로 등재하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제2대 박창석(朴昌錫) 전교

본관은 밀양(密陽)이요 호는 매헌(梅軒)이니 반성면 창촌리 출신이다. 당시 교적이 실전되었으므로 사적은 고증할 수가 없으나 향중전언에 의하면 교공수리와 문묘향사에 자력으로 많은 공적이 있었다고 한다.

● 제3대 정운필(鄭運弼)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구계(龜溪)니 지수면 금곡리 구계 출신이다. 재임중 장의 8인과 의논하여 향교의 전토 일부를 매각하여 명륜당 및 풍화루를 개축하고 문묘의 등

도(磴道) 30급(級)과 내등도 60급을 보수하였다.

● 제4·5대 강주행(姜珠杏)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용호(龍湖)니 대곡면 설매리 출신이다. 재임 중 자별(自別)한 성력을 경주하여 교중 서사를 선처하였으며 유림으로부터 칭송이 있었다.

● 제6대 하영기(河永箕)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육화(六華)니 수곡면 출신이다. 문학과 행의로 향중의 추앙을 받았으며 전직에 피선되어 교궁수호와 유교 발전에 진심갈력(盡心竭力)하였다.

● 제7·8·9·10대 하병렬(河炳列)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단사(丹史)니 대곡면 단목리 출신이다. 대성전 대보수와 내삼문을 자비로 신축하였으며 대성전 후면축대와 좌우계단 및 좌우 원장과 명륜당 후면 축대 및 사교당 후면 축대와 대성전 승강로 육십 계단과 명륜당 동서원장을 각각 신축 또는 수리 하였으며 동서무와 동재를 보수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기었다.

● 제11·12대 강윤서(姜允瑞)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혜암(惠菴)이니 명석면 추동 출신이다. 서재를 보수하였으며 풍화루 외등도 40급과 화장실 2칸과 풍화루 양측 원장 등을 신축하였다.

● 제13대 하영한(河永漢)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양정(楊亭)이니 수곡면 사곡리 출신이다. 명륜당 보수 및 변와 와 풍화루 보수 및 단청과 사교당 신축 계획안 작성 등을 하였다.

● 제14대 하동근(河東根)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우당(愚堂)이니 하동군 옥종면 출신이다. 사교당을 복원하고 복원기를 찬하였으며 풍화루를 중수하고 중수상량문을 찬하였다.

● 제15대 이기해(李圻海) 전교

본관은 재령(載寧)이요 호는 용잠(蓉岑)이니 대곡면 마진리 출신이다. 임기중 문묘에 삭망분향을 불폐풍우(不廢風雨) 하였으며 특히 유도정신이 투철하여 교화사업에 항상 역점을 두었다.

● 제16대 성환덕(成煥德) 전교

본관은 창녕(昌寧)이요 호는 금호(琴湖)니 금산면 용심 출신이다. 향교 관리사 신축과 관리인 보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이층 회의실 흑관을 설치하였고 초석 15매를 구입하였다.

● 제17·18·19대 이정대(李正大) 전교

본관은 재령(載寧)이요 호는 백천(栢泉)이니 수곡면 사방 출신이다.

재임 중 대성전 동편 일부 번와와 단청, 동무(東廡)·서무(西廡)의 부분 번와 및 단청을 하였다. 하마비(下馬碑)와 진주교궁이건사적비를 이 건하였고 축대 배수로 등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석전 제기 향로 촛대 제상 제복 등 여러 비품 일절을 구입하여 석전봉행에 정성을 쏟았다.

교화사업으로는 향내 효자 효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타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고 윤리 도덕 강화교육과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심혈을 쏟았다.

처음으로 진주향교지(晉州鄉校誌)를 발간하여 향교의 역사를 정리하였고 이러한 공로로 성균관으로부터 우수향교 표창, 도 재단으로부터 모범향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후에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하였다.

● 제20대 문상률(文尙律) 전교

본관은 강성(江城)이요 호는 희당(嬉堂)이니 하동군 북천면 출신이다.

전교로 취임한 이래 유도발전을 위해 운영경비를 성의껏 협조하였으며 관내 각 읍 면동에 지회를 결성하였는바 회원이 약 사백 명에 이르렀으며, 유교 강좌도 실시하며 매년 하기방학 중 수많은 학생들에게 충효교육을 착실히 수료시켰다. 또 명륜당 전기난방과

서고를 설치한 바 있다.

● 제21대 정규섭(鄭奎燮) 전교

본관은 해주(海州)요 호는 농운(農雲)으로 귀곡동 출신이다.

재임 시 근면하고 돈후한 품성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였고 특히 교공을 정비하고 숙원사업이던 유림회관(충효교육원)을 건립하여 학생 및 일반인에게 상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사문진작과 향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다. 진주고교시절에 진해 헌병대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었으며 후에 국가로부터 애국지사로 선정되었다. 진주시민상을 수상하였고 성균관에서도 그 공을 인정하여 부관장과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성균관장이 표창하였다.

● 제22대 한선우(韓善愚) 전교

본관은 청주(淸州)요 호는 춘담(椿潭)으로 이반성면 평촌리 출신이다.

재임 시 후덕한 인품으로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향교의 각종 문헌자료를 현대식으로 전산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충효교육원장을 겸임하며 학생 및 일반인에게 전통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08년도 시범향교로 선정되었다. 대성전과 동·서무에 모셔져 있던 25위의 선성선현의 위패를 대성전에 합사하고 제상과 유기제기를 모두 교체하여 향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성균관장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 제23대 한기인(韓基仁) 전교

본관은 청주(淸州)요 호는 송산(松山)으로 이반성면 평촌리 출신이다.

2005년 진주시충효교육원 건립 추진위원장과 부원장을 맡아 충효교육원 건립과 진주시충효교육원 설치 운영조례 제정, 충효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였다.

2007년부터 5년간 유도회장, 충효교육원장 겸 전교로 재임하는 동안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과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를 초·중·고등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0년 시범향교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평

생학습계좌제 인정기관으로 운영하였다.

향교시설 확충으로는 동무(東廡)를 전사청으로, 서무(西廡)를 유교역사관(儒教歷史館)으로 설치하고 홍살문 복원, 향교안내관 설치, 배수로 정비, 수세식 화장실 전면설치, 문묘내 수목 전정과 잔디를 조성하여 향교 환경정비에 힘썼다.

● 제24대 정호영(鄭鎬英) 전교

본관은 진양(晉陽)이요 호는 우강(隅崗)으로 사봉면 우곡리 출신이다. 재임 중 사문진 작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갖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대성전과 동무를 전면 보수 번와 하였으며 숙원사업이던 명륜당(明倫堂)-대성전(大成殿) 간 계단 난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여 충효교육원을 알차게 운영하여 연간 10,000여 명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그 공적이 지대하였다.

또한 진주교육대학교 가정(佳亭) 정환기(鄭煥麒) 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까지 1,7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유림대상, 효자 효부표창, 건강 장수상을 수여하여 충효사상을 앙양하고 유림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유림대상(儒林大賞)을 수상하였다.

● 제25대 심동섭(沈東燮) 전교

본관은 청송(靑松)이요 호는 송원(松原)이며 산청(山淸) 단성(丹城) 출신이다. 재임 중 명륜당 뒤 석축을 전면 해체 보수하였다.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진주동명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각종강좌에 상호협력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충효교육원 원장과 경남유교대학 학장을 맡아 교육원을 활성화하여 어린이반 초등반 중등반 성인반 선비반 경서반 유교대학운영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연간 15,000여 명에게 인성 예절 경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석전대제(釋奠大祭)와 전통관례, 전통혼례, 기로연(耆老宴), 향음주례(鄉飲酒禮), 전국한문경전성독대회(全國漢文經典聲讀大會), 진주목향시(晉州牧鄉試) 등을 실시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보전 계승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에 출전하여 향교를 널리 홍보하고 대상

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2016 진주교육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5회 진주논개제 제전위원장을 맡아 충효(忠孝)정신을 되살리고 진주시와 향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1997년 이후 19년 만에 진주향교지(晉州鄉校誌)를 발간하였다. 또 노후화된 서무(西廡)와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서재(西齋)를 전면 보수 번와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시공할 계획이다.

2. 역대(歷代) 성균관 임원(成均館 任員)

역대(歷代) 성균관(成均館) 임원(任員)은 『경남유림보감(慶南儒林寶鑑)』 등재(登載)를 기준으로 했다.

典	儀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典	學	韓敬泰	淸州人	望京洞
		河東根	晉陽人	中安洞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鄭直教	迎日人	玉宗面			文尙律	江城人	桂洞
		姜斗相	晉陽人	上鳳洞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韓敬泰	淸州人	望京洞			成煥圖	昌寧人	上坪洞
		成煥圖	昌寧人	大谷面			朴正園	咸陽人	晉城面
典	學	姜斗相	晉陽人	上鳳洞	典	學	姜炳苞	晉陽人	大谷面
		朴源洪	泰安人	柰洞面			金讚碩	慶州人	一班城面
		金昌壽	義城人	上大洞			朴源洪	泰安人	柰洞面
		李秉道	載寧人	大谷面			李永煥	陝川人	板門洞
典	儀	李壽贊	載寧人	大谷面	典	學	姜丕淳	晉州人	上坪洞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鄭元鎬	晉陽人	下大洞
		鄭漢根	海州人	平居洞			金昌壽	義城人	上大洞
		姜斗相	晉陽人	上鳳洞			姜鎬燾	晉陽人	井村面
		姜大伯	晉州人				河元植	晉陽人	將台洞

鄭限銀 晉陽人 美川面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李龍浩 載寧人 寺奉面
 柳在春 文化人 新安洞
 李鎮台 全州人 一班城面
 姜泰濟 晉州人 大谷面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司 藝 崔相信 和順人 鳴石面
 韓善愚 清州人 二班城面

●2001年(崔昌圭 館長時)

副 館 長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典 儀 鄭憲珪 晉州人 上大洞
 典 學 姜正淳 晉州人 上坪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李秉千 載寧人 上大洞

●2004年(崔根德 館長時)

副 館 長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典 儀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典 學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鄭泰鎬 海州人 鳳谷洞

●2006年(崔根德 館長時)

典 儀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典 學 河泰午 晉陽人 七岩洞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金幸布 金寧人 下大洞

●2007年(崔根德 館長時)

顧 問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典 仁 鄭秉禧 草溪人 上鳳洞
 鄭琇烈 晉陽人 平居洞
 徐相祚 達成人 望京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典 儀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典 學 成龍燮 昌寧人 玉峰洞

●2008年(崔根德 館長時)

典 儀 鄭東勳 晉州人 株藥洞
 鄭 奐 晉陽人 上坪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2009年(崔根德 館長時)

典 儀 姜永奎 晉州人 新安洞

●2011年(崔根德 館長時)

典	仁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典	儀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典	學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柳基賢	文化人	株藥洞
		李 燉	星州人	井村面

●2012年(崔根德 館長時)

典	儀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典	學	文德根	南平人	水谷面
		許鍾鐵	陽川人	下大洞
		李鶴鎮	陝川人	上大洞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2013年(崔根德 館長時)

典	儀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	---	-----	-----	------

●2014年(徐正淇 館長時)

典	儀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典	學	文德根	南平人	水谷面
		許鍾鐵	陽川人	下大洞
		李鶴鎮	陝川人	上大洞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2015年(魚潤慶 館長時)

副館長, 慶南鄉校財團理事長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典	儀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典	學	文德根	南平人	水谷面
		許鍾鐵	陽川人	下大洞
		李鶴鎮	陝川人	上大洞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姜大源	晉陽人	川前洞

●2016年(魚潤慶 館長時)

典	儀	文德根	南平人	水谷面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梁周鎬	南原人	上鳳洞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許鍾鐵	陽川人	下大洞
		李鶴鎮	陝川人	上大洞
		柳基賢	文化人	株藥洞

典 學

朴鍾植 密陽人 論介路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尹永洙 坡平人 上鳳洞
 河永載 晉陽人 水谷面
 文載哲 南平人 株藥洞
 朴周和 咸陽人 晉城面

姜春根 晉陽人 上坪洞
 許斗扞 金海人 新安洞
 洪斗杓 南陽人 平居洞
 姜元基 晉陽人 將台洞
 金鍾華 義城人 智水面
 河天龍 晉州人 琴山面
 金信郁 慶州人 下大洞

第2節 晉州鄉校 經任錄

●1951年傾

掌 議

鄭潤昊(長在)
 魚善遊(梧傍)
 李德魯(乃仁)
 許 倍(邑內)
 林鍾浩(於玉)
 朴正俊(寢水)
 崔錫煥(美谷)
 金鎮準(寢水)
 林玉澤(代塘)
 金順祚(代塘)
 姜德洙(代塘)
 李景常(大岩)
 申匡休(大岩)
 梁德用(穴岩)
 金在元(亭坪)

金再守(邑將臺)
 金祥默(井村加佐)
 鄭錫永(金谷)
 黃相德(新豐)
 鄭敬悅(新豐)
 吳順根(羅佛)
 沈相沃(冷井)
 金元明(大谷)
 金性旭(井村)

●1948年 6月 21日 戊子

初代 典校 李鉉佑 載寧人 大谷面
 掌 議 未詳

●年代未詳

第2代 典校 朴昌錫 密陽人 一班城面

●1961年 辛丑 2月 10日

第3代 典校 鄭運弼 晉州人 智水面
 掌 議 孫永錫 密陽人
 李秉斗 載寧人
 姜珠杏 晉陽人 大谷面
 鄭源根 海州人
 韓敬燮 清州人
 成煥基 昌寧人
 河永箕 晉陽人
 鄭漢永

●1963年 癸卯 8月 27日

第4代 典校 姜珠杏 晉陽人 大谷面
 掌 議 成瓚奎 昌寧人 大坪面
 河鍾洛 晉陽人
 鄭柱永
 李秉鶴 載寧人 智水面
 河海鎮 晉陽人 金谷面
 鄭泰泓 海州人 二班城面
 鄭璋煥
 韓文愚 清州人 二班城面
 鄭昌錫 海州人

●1966年 丙午 8月 27日

第5代 典校 姜珠杏 晉州人 大谷面
 掌 議 河海鎮 晉陽人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許汪九 金海人 智水面
 韓英愚 清州人 二班城面
 孫滄壽 密陽人 水谷面
 鄭默珪 晉陽人 寺奉面
 姜相熙 晉陽人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鄭泰泓 海州人
 姜瑢中 晉州人
 姜泳基 晉州人
 鄭士興
 文判世 南平人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鄭琦永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姜容根 晉州人
 南道日 宜寧人 集賢面
 河永洛 晉陽人
 陳龍文 驪陽人 大坪面
 鄭運亨 晉州人
 監 事 姜甲秀 晉陽人
 河聖根 晉陽人
 鄭鶴倫 晉州人

●1968年 戊申 8月 27日

第6代 典校 河永箕 晉陽人 水谷面
 掌 議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南道日 宜寧人 集賢面
 姜大權 晉州人
 鄭永成 柰洞面
 崔載孝
 姜容根 晉州人 美川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姜泳基 晉州人 文山邑
 鄭士興 金谷面
 文判世 南平人 琴山面
 鄭運亨 晉州人 一班城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李英煥 智水面
 韓英愚 清州人 二班城面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姜允孝 晉陽人 井村面
 李商禱 水谷面
 鄭海永 迎日人 大坪面
 鄭默珪 晉陽人 寺奉面
 監事 鄭鶴倫 晉州人
 河聖根 晉陽人 水谷面
 姜甲秀 晉州人 集賢面

●1970年 庚戌 8月 27日

第7代 典校 河炳列 晉陽人 桂洞
 掌議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崔載孝

鄭爽根 海州人 中安洞
 姜大珀 晉州人
 成煥慶 昌寧人 大谷面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李榮春
 姜容根 晉陽人 美川面
 姜泳基 晉陽人 文山邑
 鄭運亨 晉陽人 一班城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韓英愚 清州人 二班城面
 河永洛 晉陽人 鳴石面
 陳龍文 驪陽人 大坪面
 李再玉 泰安人 智水面
 鄭道用 琴山面
 金炯殷 金寧人 晉城面
 李培鉉 水谷面
 姜璿鎬 晉陽人 井村面
 柳永助 金谷面
 監事 姜甲秀 晉州人
 鄭鶴倫
 河聖根 晉陽人 水谷面

●1972年 壬子 8月 27日

第8代 典校 河炳列 晉陽人 桂洞
 顧問 鄭運弼 晉州人 智水面
 姜珠杏 晉州人 大谷面
 河永箕 晉陽人 水谷面

掌 議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姜容根 晉州人 大谷面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姜大珀 晉州人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鄭翰載 海州人 二班城面
 黃相涉 昌原人 大坪面
 河五鳳 晉陽人 大谷面
 鄭運亨 晉陽人 智水面
 河永洛 晉陽人 鳴石面
 陳龍文 驪陽人 大坪面
 李再玉 泰安人 智水面
 鄭道用
 金炯殷 金寧人 晉城面
 李培鉉 陝川人 水谷面
 姜璿鎬 晉州人
 柳永助 全州人 金谷面
 俞炳汶
 黃斗益
 鄭煥鵬 晉州人 寺奉面
 河禎植 晉陽人 大谷面
 金泰好
 姜甲秀 晉州人
 河聖根 晉陽人

監 事

●1974年 甲寅 8月 27日

第9代 典校 河炳列 晉陽人 桂洞
 掌 議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鄭翰載 海州人 二班城面
 黃相涉 昌原人 大坪面
 河龍雯 晉陽人 鳴石面
 姜甲秀 晉州人
 河永洛 晉陽人
 李再玉 泰安人 智水面
 鄭道用 琴山面
 姜璿鎬 晉州人
 俞炳汶
 黃斗益
 崔仁錫
 金昌業
 南宗元 宜寧人 水谷面
 李錫南
 河三周 晉陽人
 鄭性珪 晉州人 寺奉面
 河台植 晉陽人 金谷面
 尹漢麒 波平人 大谷面
 成憲柱 昌寧人 晉城面

●1977年 丁巳 8月 27日

第10代 典校 河炳列 晉陽人 桂洞
 掌 議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河龍雯 晉陽人 鳴石面
 鄭翰載 海州人 二班城面
 黃相涉 昌原人 大坪面
 成煥泰 昌寧人 水谷面
 河永洛 晉陽人
 姜璿鎬 晉州人
 黃斗益
 河台植 晉陽人
 尹漢麒
 李元碩
 黃壽容
 姜炳道 晉州人 大谷面
 河泳壽 晉陽人 水谷面
 李秉元 載寧人 寺奉面
 鄭福鎔
 金寅采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安輔根 順興人 集賢面
 李瑑鎮 陝川人 智水面
 韓明東 清州人 二班城面

●1978年 戊午 8月 27日

第11代 典校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顧問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河龍雯 晉陽人 鳴石面

掌 議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河台植 晉陽人 金谷面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鄭翰載 海州人 二班城面
 黃相涉 昌原人 大坪面
 成煥泰 昌寧人 水谷面
 河永洛 晉陽人 鳴石面
 陳龍文 驪陽人 大坪面
 黃壽容 昌原人
 姜璿鎬 晉州人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李秉元 載寧人 寺奉面
 金寅采
 李瑑鎮 陝川人 智水面
 金壽玉
 李善浩 載寧人 晉城面
 姜信德 晉州人 大谷面
 金浚權
 姜然秀 晉州人 水谷面
 沈權燮 青松人 二班城面
 姜斗煥 晉州人 金谷面

●1980年 庚申 8月 27日

第12代 典校 姜允瑞 晉州人 七岩洞
 顧問 河丙列 晉陽人 水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河龍雯 晉陽人 鳴石面

掌

議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成煥泰 昌寧人 水谷面
 姜東烈 晉州人
 李秉道 載寧人 平居洞
 河孟源 晉陽人 大谷面
 南仲熙 宜寧人 晉城面
 張秋男 丹陽人 琴山面
 尹貞根 波平人 大谷面
 徐在涉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金寅采
 李善浩 載寧人 晉城面
 河炳源 晉陽人 大谷面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姜信德 晉州人 大谷面
 姜斗煥 晉州人 金谷面
 李瑫鎮 陝川人 智水面
 金三龍 金海人 文山面
 河泳魯 晉陽人 水谷面
 姜壽進 晉州人 晉城面
 林鍾旋 羅州人 美川面
 姜大權 晉州人 晉城面
 朴鍾三
 成煥範 昌寧人 大谷面
 金外漢 寺奉面
 孫榮權 密陽人 一班城面

高在奎 長興人 琴山面

●1982年 壬戌 8月 27日

第13代 典校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顧 問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河聖根 晉陽人 水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河龍雯 晉陽人 鳴石面
 河炳列 晉陽人 水谷面
 掌 議 朴宗樂 密陽人 一班城面
 朴來華
 成煥祚 昌寧人 大谷面
 文壽根 南平人 水谷面
 文昶柱 南平人 琴山面
 河永淳 晉陽人 二班城面
 河龍興 晉陽人 鳴石面
 鄭利圭 晉州人 寺奉面
 鄭榮宣 晉州人 寺奉面
 李鉉軾 載寧人 晉城面
 姜判金 晉州人 柰洞面
 許門道 金海人 美川面
 李德雨
 姜大權 晉州人 晉城面
 柳禹鉉
 李秉淳 載寧人 智水面
 河在鳳 晉陽人
 金東基 金海人

朴源弘 泰安人 柰洞面
 姜斗煥 晉州人 金谷面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姜東烈 晉州人
 河孟源 晉陽人 大谷面
 河炳源 晉陽人 大谷面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張秋男 丹陽人 琴山面
 鄭默珪 晉州人 寺奉面
 尹貞根 波平人 大谷面
 鄭復和 迎日人 大坪面
 金明柱

●1984年 甲子 8月 27日

第14代 典校 河東根 晉陽人 玉宗面
 顧 問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河聖根 晉陽人 水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河龍燮 晉陽人 水谷面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掌 議 姜炳熙 晉陽人 大谷面
 崔圭泰 全州人 上鳳洞
 鄭寶鉉
 鄭載上 晉陽人 晉城面
 柳甲秀 全州人 鳴石面
 安壽八 順興人 上坪洞
 柳在春 文化人 二峴洞

姜判金 晉陽人 柰洞面
 姜鎬燻 晉州人 井村面
 文昶柱 南平人 琴山面
 河炫洙 晉陽人 金谷面
 朴來華 密陽人 文山邑
 朴正園 咸陽人 晉城面
 金讚碩 慶州人 一班城面
 鄭泰璇 海州人 二班城面
 李龍浩 載寧人 寺奉面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河鍾煥 晉陽人 大谷面
 金圭泰 金寧人 美川面
 安承均 順興人 美川面
 河泳錫 晉陽人 桂洞
 金永奎 金海人 大谷面
 朴萬戌 密陽人 大谷面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姜三祚 晉州人
 成在浩 昌寧人 晉城面
 鄭台煥
 姜五龍 晉州人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1986年 丙寅 8月 27日

第15代 典校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顧 問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河東根 晉陽人 大谷面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總務掌議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掌議 張秋男 丹陽人 琴山面
 鄭震植
 成煥圖 昌寧人 大谷面
 韓敬泰 清州人 望京洞
 河炳爽 晉陽人 水谷面
 吳世允 海州人 美川面
 朴萬戌 密陽人 大谷面
 鄭在上 晉陽人 晉城面
 安承均 順興人 美川面
 姜起煥 晉州人 大谷面
 姜大允 晉州人
 河斗根 晉州人 水谷面
 洪淳翰 南陽人 鳴石面
 河大煥 晉陽人 本城洞
 姜判金 晉州人 柰洞面
 河海照 晉陽人 金谷面
 朴來華
 許再權
 南相達 宜寧人 晉城面
 韓琦東 清州人 二班城面
 朴容九 密陽人 二班城面

姜鎬燭 晉州人 井村面
 鄭宣珪 晉陽人 寺奉面
 李德煥 載寧人 智水面
 崔長洙 朔寧人 大谷面
 尹龍貴
 鄭祥德
監事 金永奎 金海人 大谷面
 柳在春 文化人 水谷面

●1988年 戊辰 8月 27日

第16代 典校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元老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姜允瑞 晉州人 鳴石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河東根 晉陽人 水谷面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鄭性珪 晉陽人 寺奉面
總務掌議 金昌壽 義城人 上大洞
掌議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河大煥 晉陽人 本城洞
 姜斗相 晉陽人 上鳳洞
 李秉華 載寧人 二峴洞
 李正大 載寧人 水晶洞
 鄭元鎬 晉陽人 下大洞

鄭震植
 鄭漢根 海州人 板門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朴源弘 泰安人 柰洞面
 南仲熙 宜寧人 晉城面
 金世煥 慶州人 中安洞
 成營桓 昌寧人 琴山面
 姜道植 晉州人 鳴石面
 崔孟林 全州人 七岩洞
 鄭鉉台 晉陽人 寺奉面
 李德煥 載寧人 智水面
 金鍾源
 金泰權 金寧人 集賢面
 河永欽 晉陽人 水谷面
 河海照 晉陽人 金谷面
 姜鎬爨 晉州人 井村面
 成在鎔 昌寧人 大谷面
 成煥瑤 昌寧人 晉城面
 鄭泰明 海州人 二班城面
 魚 增 咸從人 美川面
 姜判金 晉陽人 柰洞面
 許再權 金海人 琴山面
 陳昌鎬 驪陽人 大坪面
 姜東俊 晉州人 鳴石面
 河舜柱 晉陽人
 河斗根 晉陽人 水谷面

梁斗錫 南原人
 河啓鏞 晉陽人 大谷面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姜炳熙 晉陽人 大谷面

監 事

●1990年 庚午 8月 27日

第17代 典校 李正大 載寧人 水晶洞
 元 老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姜允瑞 晉陽人 鳴石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河炳列 晉陽人 大谷面
 河東根 晉陽人 桂洞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鄭性珪 晉陽人 寺奉面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顧 問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成煥圖 昌寧人 上坪洞
 總務首席掌議 河元植 晉陽人 玉峰洞
 掌 議 李秉華 載寧人 二峴洞
 鄭漢根 海州人 板門洞
 朴源弘 泰安人 柰洞面
 柳東淳 全州人 新安洞
 姜亾淳 晉州人 上坪洞
 李永煥 陝川人 板門洞
 成宗根 昌寧人 玉峰洞

文尙律 南平人 中安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金泳林
 趙 忠 咸安人 上鳳洞
 李尙春 載寧人 寺奉面
 俞載換 杞溪人 柰洞面
 姜鎬燾 晉陽人 井村面
 鄭任助
 金鍾源
 崔圭祥
 鄭泰駟 海州人 二班城面
 鄭鉉台 晉州人 寺奉面
 李德煥 載寧人 智水面
 河炳先 晉陽人 大谷面
 河斗成 晉陽人
 金泰權 金寧人 集賢面
 金炯祚
 崔相信 和順人 鳴石面
 成煥潤 昌寧人 水谷面
 黃泳鎭
 監 事 文世柱 南平人 琴山面
 成營桓 昌寧人 琴山面

●1993年 癸酉 8月 27日

第18代 典校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元 老 河永漢 晉陽人 水谷面

李壽贊 載寧人 大谷面
 李丙烈 全州人 晉城面
 李相烈 載寧人 寺奉面
 成煥宗 昌寧人 水谷面
 河東根 晉陽人 桂洞
 成煥圖 昌寧人 上坪洞
 李圻海 載寧人 大谷面
 鄭性珪 晉陽人 寺奉面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韓敬泰 清州人 望京洞
 顧 問 金鍾吉 義城人 七岩洞
 成煥圖 昌寧人 上坪洞
 首席掌議 鄭漢根 海州人 板門洞
 總務掌議 姜亾淳 晉陽人 上坪洞
 掌 議 李鍾鎬 陝川人 二峴洞
 鄭元鎬 晉陽人 上大洞
 李秉華 載寧人 二峴洞
 李永煥 陝川人 板門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權寧云 安東人 鳳谷洞
 金炯東 金寧人 美川面
 鄭潤秀 晉州人 上坪洞
 成宗根 昌寧人 玉峰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李鉉中 載寧人 新安洞
 俞載換 杞溪人 柰洞面

姜鎬 晉州人 井村面
 河淙植 晉陽人 大谷面
 韓基洪 清州人 二班城面
 金判濟 慶州人 寺奉面
 尹瑞絃 波平人 大谷面
 文炳殷 南平人 琴山面
 金承鎬 金海人 集賢面
 鄭漢限 晉陽人 美川面
 崔相信 和順人 鳴石面
 陳周鉉 驪陽人 大坪面
 南道元 宜寧人 水谷面
 李甲煥 載寧人 智水面
 徐斗相 達成人 文山邑
 趙 忠 咸安人 上鳳洞
 鄭泰浩 海州人 鳳谷洞
 李典濬 載寧人 晉城面
 河鍾植 晉陽人 大谷面
 李鎮台 全州人 一班城面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監 事 姜道植 晉州人 水谷面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1996年 丙子 8月

第19代 典校 李正大 載寧人 鳳谷洞
 元 老 河東根 晉陽人 桂洞
 李壽贊 載寧人 大谷面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掌 議

韓敬泰 清州人 望京洞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李秉千 載寧人 上大洞
 李秉華 載寧人 二峴洞
 文明圭 江城人 一班城面
 洪淳香 南陽人 鳴石面
 具周會 綾州人 美川面
 李秉宅 載寧人 晉城面
 尹琪鉉 波平人 七岩洞
 鄭憲珪 晉陽人 上大洞
 韓善愚 清州人 大安洞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姜泰濟 晉州人 大谷面
 李永煥 陝川人 板門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李鍾鎬 陝川人 二峴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成宗根 昌寧人 玉峰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俞載煥 杞溪人 柰洞面
 姜鎬 晉州人 井村面
 韓基洪 清州人 二班城面
 文炳殷 南平人 琴山面
 金承鎬 金海人 集賢面
 許萬俊 金海人 智水面

	成鳳柱	昌寧人	琴山面
	鄭東漢	慶州人	金谷面
	林潤澤	羅州人	美川面
	鄭漢銀	晉陽人	美川面
	陳周鉉	驪陽人	鳴石面
	徐斗相	達成人	文山邑
	鄭邦植	晉陽人	寺奉面
	鄭泰浩	海州人	鳳谷洞
	李秉萬	載寧人	大谷面
	吳壹煥	海州人	晉城面
	河正植	晉陽人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監事	姜亾淳	晉州人	上坪洞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1999年己卯3月2日

第20代典校	文尙律	江城人	中安洞
元老	李正大(成均館副館長)		
		載寧人	桂洞
	李壽贊	載寧人	大谷面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韓敬泰	清州人	望京洞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鄭漢根	海州人	平居洞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總務	成煥錫	昌寧人	上大洞
監事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姜亾淳	晉州人	上坪洞
掌議	鄭限銀	晉陽人	美川面
	李秉千	載寧人	上大洞
	成鳳柱	昌寧人	琴山面
	姜錫周	晉陽人	平居洞
	金承鎬	金海人	集賢面
	李鍾鎬	陝川人	二峴洞
	鄭憲珪	晉陽人	江南洞
	李敬煥	載寧人	寺奉面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韓善愚	清州人	新安洞
	成煥克	昌寧人	七岩洞
	李秉華	載寧人	二峴洞
	崔用壽	慶州人	本城洞
	鄭泰徹	清州人	望京洞
	尹琪鉉	波平人	七岩洞
	洪淳香	南陽人	鳴石面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姜泰濟	晉州人	大谷面
	文尙奎	江城人	平居洞
	黃寅寬	昌原人	一班城面
	徐斗相	達成人	文山邑
	姜鎬燾	晉州人	井村面
	林桂和	羅州人	美川面
	河龍述	晉陽人	鳴石面
	許庚寧	金海人	智水面
	金鎮泰	金寧人	晉城面

孫永祿 密陽人 水谷面
 陳周鉉 驪陽人 大坪面
 成龍燮 昌寧人 玉峰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李秉宅 載寧人 晉城面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李秉讚 載寧人 智水面
 金澣喆 義城人 智水面
 成宗根 昌寧人 玉峰洞
 崔用鎬 全州人 琴山面
 李秉萬 載寧人 大谷面
 俞載換 杞溪人 柰洞面
 李洙烈 咸安人 平居洞
 金貞烈 玉山人 水晶洞
 鄭頌根 海州人 鳳谷洞
 成在權 昌寧人 下大洞

●2003年癸未 3月 2日

第21代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

元 老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成煥德 昌寧人 琴山面
 韓敬泰 清州人 望京洞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李正大 載寧人 平安洞
 文尙律 江城人 中安洞

鄭漢根 海州人 平居洞
 許道寧 金海人 智水面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顧問 姜斗相 晉州人 上鳳洞
 河大煥 晉陽人 本城洞
 鄭憲珪 晉陽人 七岩洞
 李鎮台 全州人 一班城面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總 務 成煥錫 昌寧人 上大洞
 事務局長 姜正鎬 晉陽人 上大洞
 金幸布 金寧人 下大洞
 監 事 姜亾淳 晉州人 上坪洞
 李秉讚 載寧人 智水面
 儀典首席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總務首席 姜正鎬 晉州人 上大洞
 財務首席 姜永奎 晉州人 新安洞
 教化首席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連絡首席 李秉千 載寧人 下大洞
 涉外首席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掌 議 河億植 晉州人 大谷面
 鄭限銀 晉陽人 美川面
 崔寬俊 全州人 一班城面
 鄭元鎬 晉州人 下大洞
 姜錫周 晉州人 平居洞
 田次龍 潭陽人 新安洞
 鄭判世 晉陽人 上大洞
 沈琥燮 青松人 集賢面

崔用壽 慶州人 桂洞
 洪淳香 南陽人 鳴石面
 文尙奎 江城人 平居洞
 河五柱 晉陽人 琴山面
 姜泰濟 晉州人 大谷面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河龍淵 晉陽人 鳴石面
 許庚寧 金海人 智水面
 河一源 晉陽人 大谷面
 鄭在植 晉陽人 寺奉面
 林彩鳳 羅州人 美川面
 河龍述 晉陽人 鳴石面
 鄭琇烈 晉州人 平居洞
 金鎮泰 金寧人 晉城面
 金炯久 金寧人 晉城面
 李元雨 慶州人 琴山面
 姜鎬璫 晉州人 井村面
 金澣喆 義城人 智水面
 崔用鎬 全州人 琴山面
 陳周鉉 驪陽人 大坪面
 成龍燮 昌寧人 玉峰洞
 金原基 義城人 二峴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李秉宅 載寧人 晉城面
 孫瀚榮 密陽人 水谷面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成宗根 昌寧人 玉峰洞

李秉萬 載寧人 大谷面
 李洙烈 咸安人 平居洞
 河大達 晉陽人 上鳳洞
 文相滿 南平人 下大洞
 鄭頌根 海州人 鳳谷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李芳男 全州人 晉城面
 成在權 昌寧人 下大洞
 孫瀚榮 密陽人 水谷面

●2006年 丙戌 3月 2日

第22代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

韓善愚 清州人 新安洞

忠孝教育院 副院長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常任元老 金鍾吉 義城人 智水面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元老 鄭漢根 海州人 平居洞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文尙律 江城人 中安洞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顧問 姜錫周 晉州人 平居洞

河啓東 晉陽人 株藥洞

姜卞淳 晉州人 上坪洞

李鎮台 全州人 一班城面

李秉讚 載寧人 智水面

事務局長 金幸布 金寧人 下大洞

儀典首席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安敏相	順興人	七岩洞
總務首席	金幸布	金寧人	下大洞	吳世允	海州人	將大洞
財務首席	姜永奎	晉州人	新安洞	尹洪根	波平人	大谷面
教化首席	魚浩秀	咸從人	七岩洞	李甲煥	載寧人	智水面
連絡首席	李秉千	載寧人	下大洞	李元雨	慶州人	琴山面
涉外首席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李再漢	慶州人	水谷面
掌 議	姜鎬璫	晉州人	井村面	李鉉纘	載寧人	智水面
	姜泰中	晉州人	株藥洞	李秉萬	載寧人	大谷面
	姜大吉	晉州人	玉峰洞	李洙烈	咸安人	平居洞
	姜月中	晉州人	上大洞	李芳男	全州人	晉城面
	姜寅鎬	晉州人	上大洞	李秉千	載寧人	下大洞
	姜東郁	晉州人	株藥洞	李順子	載寧人	上大洞
	金鎮泰	金寧人	晉城面	李英善	星山人	七岩洞
	金原基	義城人	二峴洞	林彩鳳	羅州人	美川面
	金炯久	金寧人	晉城面	林采和	羅州人	鳴石面
	金澣喆	義城人	智水面	鄭在植	晉州人	寺奉面
	金樹晚	金寧人	平居洞	鄭秉禧	草溪人	上鳳洞
	文尙奎	南平人	平居洞	鄭琇烈	晉州人	平居洞
	朴雨喜	密陽人	鳴石面	鄭大永	晉陽人	大谷面
	朴喆濟	密陽人	上坪洞	鄭鎬英	晉陽人	寺奉面
	孫仁奎	密陽人	一班城面	鄭石峯	晉陽人	下大洞
	成龍燮	昌寧人	玉峰洞	鄭順燮	海州人	新安洞
	成在權	昌寧人	下大洞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孫澣榮	密陽人	水谷面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沈在圭	青松人	二班城面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曹喜元	昌寧人	琴山面
	安浩根	順興人	集賢面	陳周鉉	驪陽人	大坪面

陳鳳鉉 驪陽人 大坪面
 崔用壽 慶州人 桂洞
 河五柱 晉陽人 琴山面
 河龍淵 晉陽人 鳴石面
 河一源 晉陽人 大谷面
 河龍述 晉陽人 鳴石面
 河在明 晉陽人 大谷面
 河大達 晉陽人 上鳳洞
 河龍雨 晉陽人 七岩洞
 河泰午 晉州人 七岩洞
 河行洛 晉陽人 鳴石面
 河淑姬 晉陽人 草田洞
 河翔天 晉陽人 水谷面
 韓德源 清州人 玉峰洞
 洪淳香 南陽人 鳴石面
 洪鍾萬 南陽人 一班城面
 監 事 成煥錫 昌寧人 上大洞
 崔用鎬 全州人 琴山面

●2009年己丑3月2日

第23代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常任元老 鄭奎燮 海州人 二班城面
 (2009)

韓善愚 清州人 新安洞
 (2010)

元老 鄭漢根 海州人 板門洞

李元煥 載寧人 智水面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顧 問 姜錫周 晉州人 平居洞
 李鎭台 全州人 一班城面
 河啓東 晉陽人 株藥洞
 姜丕淳 晉州人 上平洞
 李秉讚 載寧人 智水面
 事務局長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儀典首席掌議 鄭秉禧 草溪人 上鳳洞
 幹 事 李道基 全州人 晉城面
 儀典掌議 姜元泰 晉州人 一班城面
 姜寅鎬 晉州人 上大洞
 金樹晚 金寧人 平居洞
 文映童 南平人 智水面
 李秉洙 載寧人 上大洞
 李奉喜 全州人 草田洞
 陳鳳鉉 驪陽人 大坪面
 河龍述 晉陽人 鳴石面
 河龍雨 晉陽人 七岩洞
 韓德源 清州人 玉峰洞
 總務首席掌議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幹 事 黃慶圭 昌原人 七岩洞
 總務掌議 姜石中 晉州人 水谷面
 姜月中 晉州人 上大洞
 沈在圭 青松人 二班城面
 魚浩秀 咸從人 江南洞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鄭石峯 晉州人 上大洞
 鄭容子 晉陽人 晉城面
 河行洛 晉陽人 鳴石面
 尹永洙 波平人 上鳳洞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財務首席掌議 姜永奎 晉州人 新安洞
 幹事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財務掌議 金鎮泰 金寧人 晉城面
 金炯澤 金寧人 琴山面
 金幸布 金寧人 下大洞
 朴喆濟 密陽人 上平洞
 成龍燮 昌寧人 玉峰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河翔天 晉陽人 水谷面
 河哲民 晉陽人 上平洞
 許再洙 金海人 二班城面
 安敏相 順興人 七岩洞
 教化首席掌議 鄭東勳 晉陽人 株藥洞
 幹事 河陳奎 晉陽人 二班城面
 教化掌議 姜泰中 晉州人 株藥洞
 李美連 慶州人 下大洞
 李順子 載寧人 上大洞
 李英善 星山人 七岩洞
 李鉉纘 載寧人 上鳳洞
 徐相祚 達成人 望京洞
 鄭琇烈 晉州人 平居洞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河大達 晉陽人 鳴石面
 許萬秀 金海人 平居洞
 韓萬俊 清州人 七岩洞
 組織連洛首席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幹事 金炯甫 金寧人 晉城面
 組織掌議 姜大吉 晉州人 玉峰洞
 姜鎬璈 晉陽人 井村面
 金澗喆 義城人 智水面
 孫仁奎 密陽人 一班城面
 李元雨 慶州人 琴山面
 鄭鍾和 晉州人 晉城面
 鄭鎬英 晉州人 寺奉面
 河淑姬 晉陽人 草田洞
 河泰午 晉陽人 七岩洞
 尹庸根 波平人 新安洞
 文雙守 波平人 七岩洞
 涉外首席掌議 姜三秀 晉州人 新安洞
 幹事 李相佶 全州人 將台洞
 涉外掌議 姜東郁 晉州人 株藥洞
 朴雨喜 密陽人 鳴石面
 安浩根 順興人 集賢面
 尹洪根 坡平人 大谷面
 李甲煥 載寧人 智水面
 李秉千 載寧人 下大洞
 李再漢 慶州人 水谷面
 鄭大永 晉陽人 大谷面
 河在明 晉陽人 大谷面

監 事 韓 楔 清州人 水谷面
 成煥錫 昌寧人 上大洞
 崔用鎬 全州人 琴山面

●2012年壬辰3月2日

第24代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

常任元老 鄭鎬英 晉州人 寺奉面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元老 鄭奎燮 海州人 新安洞
 韓善愚 清州人 新安洞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顧問 李秉道 載寧人 平居洞
 鄭秉禧 草溪人 上鳳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河在明 晉陽人 大谷面
 姜泰中 晉州人 株藥洞
 事務局長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監 事 河哲民 晉陽人 上坪洞
 鄭東勳 晉州人 株藥洞
 儀典首席掌議 河陳奎 晉陽人 二班城面
 幹 事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儀典掌議 姜元泰 晉州人 一班城面
 金樹晚 金寧人 平居洞
 文映東 南平人 智水面
 姜秉周 晉州人 上鳳洞
 沈載華 青松人 峰萊洞

柳基賢 文化人 株藥洞
 韓德源 清州人 玉峰洞
 李豐一 全州人 上大洞
 (2年自退)

李秉萬 載寧人 大谷面
 (1年自退)

河龍雨 晉陽人 株藥洞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黃慶圭 昌原人 七岩洞
 李秉洙 載寧人 上大洞
 姜炳夏 晉州人 大谷面
 金炯澤 金寧人 琴山面
 朴雨喜 密陽人 鳴石面
 沈哲輔 青松人 二班城面
 李翊基 全州人 晉城面
 鄭 奐 晉陽人 上大洞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鄭在錫 東萊人 新安洞
 河泰午 晉陽人 七岩洞
 (2年自退)

總務首席掌議
 幹 事
 總務掌議

財務首席掌議
 幹 事
 財務掌議

韓萬俊 清州人 七岩洞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文德根 南平人 水谷面
 尹永洙 坡平人 上鳳洞
 李奉喜 全州人 虎灘洞
 李善奎 陝川人 草田洞
 李鉉瓚 載寧人 晉城面

張根煥 丹陽人 琴山面
 鄭煥定 晉陽人 寺奉面
 崔用鎬 全州人 琴山面
 河相大 晉陽人 下大洞
教化首席掌議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幹事 姜元基 晉州人 將台洞
教化掌議 金宗賢 金海人 草田洞
 高永玉 長興人 株藥洞
 金香任 金寧人 上大洞
 安守中 順興人 上大洞
 李美連 慶州人 下大洞
 李相弼 京山人 上大洞
 李鶴鎮 陝川人 上大洞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朴孟濟 密陽人 平居洞
 郭均燮 玄風人 鳳谷洞
 許斗扞 金海人 新安洞
組織連洛首席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幹事 姜東郁 晉州人 株藥洞
組織掌議 金炯甫 金寧人 晉城面
 朴哲弘 咸陽人 晉城面
 文雙守 南平人 江南洞
 李 燾 星州人 井村面
 李鍾勳 全州人 寺奉面
 李忠洙 全州人 七岩洞
 河翔天 晉陽人 水谷面
 許再洙 金海人 二班城面

鄭容子 晉陽人 晉城面
 (2年 自退)
 李秉千 載寧人 下大洞
 (1年 自退)
涉外首席掌議 姜三秀 晉州人 新安洞
幹事 李相佶 全州人 將台洞
涉外掌議 姜吉善 晉州人 平安洞
 柳熙祚 全州人 下大洞
 安浩根 順興人 集賢面
 尹庸根 坡平人 南江路
 鄭美連 慶州人 平安洞
 李鏞揆 全州人 二峴洞
 鄭鍾和 晉州人 晉城面
 河三煥 晉陽人 水谷面
 韓仁根 清州人 江南洞
 姜春根 晉州人 上坪洞
 許允九 金海人 智水面

●2015年乙未3月2日

第25代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

沈東燮 青松人 新安洞
常任元老 鄭鎬英 晉陽人 寺奉面
元老 鄭奎燮 海州人 新安洞
 韓善愚 清州人 新安洞
 成煥喆 昌寧人 株藥洞
 韓基仁 清州人 二班城面
 吳世允 海州人 將台洞

顧 問 姜永奎 晉州人 新安洞
 李秉道 載寧人 平居洞
 鄭秉禧 草溪人 上鳳洞
 安承均 順興人 上大洞
 河在明 晉陽人 大谷面
 姜泰中 晉州人 株藥洞
 李翊基 全州人 寺奉面
 事務局長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事務局次長 黃慶圭 昌原人 七岩洞
 監 事 河哲民 晉陽人 上坪洞
 鄭東勳 晉州人 株藥洞
 儀典首席掌議 鄭玉永 迎日人 上大洞
 幹 事 文映東 南平人 智水面
 儀典掌議 姜秉周 晉州人 上鳳洞
 金在浩 義城人 智水面
 牟昌奎 咸平人 寺奉面
 朴泰雲 咸陽人 晉城面
 朴亨濟 密陽人 株藥洞
 沈載華 青松人 峰來洞
 李坤政 光山人 草田洞
 李奉喜 全州人 虎灘洞
 張根煥 丹陽人 琴山面
 鄭輔和 迎日人 江南洞
 鄭在錫 東萊人 新安洞
 河永載 晉陽人 水谷面
 許南郁 金海人 智水面
 許盛基 金海人 晉城面

總務首席掌議 鄭基敏 海州人 新安洞
 幹 事 黃慶圭 昌原人 七岩洞
 總務掌議 姜吉善 晉州人 平安洞
 高永玉 長興人 株藥洞
 金樹晚 金寧人 平居洞
 金炯澤 金寧人 琴山面
 禹聖俊 丹陽人 七岩洞
 成在業 昌寧人 水谷面
 梁修永 南原人 水晶洞
 尹敬淑 坡平人 株藥洞
 李炳泰 星州人 株藥洞
 李相弼 京山人 文山邑
 鄭頰根 海州人 鳳谷洞
 鄭泰璠 海州人 柰洞面
 許斗扞 金海人 新安洞
 許允九 金海人 智水面
 財務首席掌議 韓萬俊 清州人 江南洞
 幹 事 朴鍾植 密陽人 將台洞
 財務掌議 姜炳夏 晉州人 大谷面
 金炳煥 金海人 一班城面
 朴清佑 密陽人 寺奉面
 孫東永 恩津人 草田洞
 柳福烈 文化人 水谷面
 尹永洙 坡平人 上鳳洞
 李善奎 陝川人 草田洞
 李容燮 載寧人 平居洞
 河豐吉 晉陽人 大坪面

	韓德源	清州人	玉峰洞
	許再洙	金海人	二班城面
	許鍾鐵	陽川人	下大洞
教化首席掌議	陳永業	驪陽人	二峴洞
幹事	文炯俊	南平人	草田洞
教化掌議	姜元基	晉州人	將台洞
	金東澤	延日人	桂洞
	金益載	金海人	柰洞面
	金香任	金寧人	下大洞
	柳辰熙	全州人	上大洞
	文載哲	南平人	株藥洞
	朴孟濟	密陽人	平居洞
	安守中	順興人	上大洞
	田炳哲	潭陽人	平居洞
	鄭昌教	迎日人	江南洞
	河萬九	晉陽人	上鳳洞
	河陳奎	晉陽人	二班城面
	洪斗杓	南陽人	平居洞
組織連絡首席	成碩基	昌寧人	晉城面
幹事	許仁香	陽川人	平居洞
組織掌議	姜元泰	晉州人	一班城面
	金信郁	慶州人	下大洞
	金宗賢	金海人	草田洞
	柳基賢	文化人	株藥洞
	朴哲弘	咸陽人	晉城面
	成基錫	昌寧人	水谷面
	沈載均	青松人	上坪洞

	尹明淑	坡平人	株藥洞
	李秉洙	載寧人	上大洞
	李春枝	慶州人	水谷面
	鄭煥定	晉陽人	寺奉面
	河炳運	晉陽人	晉城面
	韓仁根	清州人	株藥洞
	申鉉圭	平山人	鳴石面
涉外首席掌議	姜三秀	晉州人	新安洞
幹事	郭均燮	玄風人	鳳谷洞
涉外掌議	姜春根	晉州人	上坪洞
	金鍾華	義城人	下大洞
	金晉泰	金寧人	晉城面
	金炯甫	金寧人	晉城面
	柳熙祚	全州人	下大洞
	朴泰雄	密陽人	鳴石面
	徐光昊	大丘人	上大洞
	孫大權	密陽人	下大洞
	沈哲輔	青松人	二班城面
	李喆煥	驪州人	晉城面
	李忠洙	全州人	七岩洞
	鄭鍾性	晉陽人	江南洞
	河翔天	晉陽人	水谷面
掌議	梁周鎬	南原人	창렬로
	李南辰	全州人	장대로
	鄭瓘和	晉州人	智水面
	鄭今和	迎日人	大坪面
	河天龍	晉州人	琴山面

※庚戌國恥(1910~1945) 抗日獨立運動 期間 및 6.25動亂 등으로 因하여 典籍 一切 逸失(典校 職銜前)로 資料不詳으로 記載 不可.

第3節 歷代 祭官經任錄

●辛丑 1961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陽郡守 朴東善
 亞 獻 官 晉州市長 李炳文 星州人
 終 獻 官 警察署長 張昌海
 執 禮 幼 學 河鍾洛 晉陽人
 大 祝 幼 學 李昉漢

●壬寅 1962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幼 學 姜泰珍 晉州人
 亞 獻 官 幼 學 鄭昌錫 海州人
 終 獻 官 幼 學 姜珠杏 晉州人
 執 禮 幼 學 孫夏錫 密陽人
 大 祝 幼 學 韓英愚 清州人

●癸卯 1963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幼 學 羅鍾浩 羅州人
 亞 獻 官 幼 學 姜信呂
 終 獻 官 幼 學 李鉉台
 執 禮 幼 學 河貞根 晉陽人
 大 祝 幼 學 李秉鶴 載寧人

●甲辰 1964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炳文 星州人
 亞 獻 官 晉陽郡守 朴慶東
 終 獻 官 警察署長 洪斗善 南陽人
 執 禮 幼 學 鄭泰煥
 大 祝 幼 學 河龍雯 晉陽人

●乙巳 1965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炳斗
 亞 獻 官 晉陽郡守 辛宣烈
 終 獻 官 警察署長 洪斗善 南陽人
 執 禮 幼 學 李鉉台
 大 祝 幼 學 韓永滉 清州人

●丙午 1966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金鍾求
 亞 獻 官 幼 學 文洪九 南平人
 終 獻 官 警察署長 李性儀
 執 禮 幼 學 鄭泰鍊
 大 祝 幼 學 姜容根 晉州人

●丁未 1967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金鍾求

亞 獻 官 幼 學 金慶執
 終 獻 官 警察署長 李性儀
 執 禮 幼 學 李璟煥
 大 祝 幼 學 陳龍文 驪陽人

●戊申 1968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金鍾求
 亞 獻 官 幼 學 金垆基
 終 獻 官 警察署長 黃永圭
 執 禮 幼 學 河義鎮 晉陽人
 大 祝 幼 學 李暢浩

●己酉 1969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金鍾求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丁
 終 獻 官 警察署長 權五明 安東人
 執 禮 幼 學 李基煥
 大 祝 幼 學 姜泳基 晉州人
 東 從 享 幼 學 鄭煥永
 西 從 享 郡教育長 李鍾範
 東 廡 學 長 成煥珣 昌寧人
 西 廡 市教育長 李成烈

●庚戌 1970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相熙
 亞 獻 官 學 長 成煥珣 昌寧人
 終 獻 官 警察署長 金南進

執 禮 幼 學 鄭明錫
 大 祝 幼 學 孫永來
 東 從 享 幼 學 姜克中 晉州人
 西 從 享 郡教育長 林鍾湜
 東 廡 學 長 成皓柱 昌寧人
 西 廡 市教育長 高仁錫

●辛亥 1971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尹尙遠
 執 禮 幼 學 崔洛道
 大 祝 幼 學 河聖根 晉陽人
 東 從 享 幼 學 姜珠杏 晉陽人
 西 從 享 幼 學 河炳列 晉陽人
 東 廡 幼 學 姜允瑞 晉陽人
 西 廡 幼 學 陳龍文 驪陽人

●壬子 1972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尹相遠
 亞 獻 官 晉陽郡守 河黃植
 終 獻 官 警察署長 鄭仁相
 執 禮 幼 學 李丙烈 全州人
 大 祝 幼 學 李培鉉
 東 從 享 市教育長 姜鶴龍 晉陽人
 西 從 享 幼 學 河永洛 晉陽人
 東 廡 幼 學 金相洙
 西 廡 幼 學 鄭九錫

●癸丑 1973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善哲	
亞	獻	官	晉陽郡守	黃大永	昌原人
終	獻	官	典 校	河炳列	晉陽人
執		禮	幼 學	李丙烈	全州人
大		祝	幼 學	河聖根	晉陽人
東	從	享	幼 學	鄭鴻根	
西	從	享	幼 學	河炫碩	晉陽人
東		廡	學 長	辛惟煥	
西		廡	幼 學	河 振	晉陽人

●甲寅 1974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楊兌植	
亞	獻	官	晉陽郡守	黃大永	昌原人
終	獻	官	警察署長	鄭仁相	
執		禮	幼 學	鄭九錫	
大		祝	學 長	河丁達	晉陽人
東	從	享	市教育長	邢誠海	晉州人
西	從	享	幼 學	具安書	
東		廡	幼 學	鄭性珪	晉陽人
西		廡	幼 學	河炫碩	晉陽人

●乙卯 1975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成海麒	昌寧人
亞	獻	官	晉陽郡守	黃大永	昌原人
終	獻	官	警察署長	韓德俠	清州人
執		禮	幼 學	韓英愚	清州人

大		祝	幼 學	河東根	晉陽人
東	從	享	慶大學長	邢誠海	晉州人
西	從	享	學 長	金容太	
東		廡	幼 學	河萬永	晉陽人
西		廡	幼 學	柳益秀	晉州人

●丙辰 1976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炳奈	
亞	獻	官	晉陽郡守	李源珉	
終	獻	官	警察署長	裴貞鎬	
執		禮	幼 學	姜洙懾	晉陽人
大		祝	幼 學	河龍雯	晉陽人
東	從	享	幼 學	鄭鴻根	
西	從	享	幼 學	河仲洛	晉陽人
東		廡	幼 學	李相烈	載寧人
西		廡	幼 學	金奇煥	

●丁巳 1977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炳奈	
亞	獻	官	晉陽郡守	李源珉	
終	獻	官	警察署長	鄭時興	
執		禮	幼 學	河龍雯	晉陽人
大		祝	幼 學	李丙烈	全州人
東	從	享	幼 學	尹泰圭	
西	從	享	幼 學	李水東	
東		廡	幼 學	金相朝	商山人
西		廡	幼 學	朴鐘漢	

●戊午 1978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炳奈	
亞	獻	官	警察署長	鄭時興	
終	獻	官	稅務署長	鄭旺先	
執		禮	幼學	河聖根	晉陽人
大		祝	幼學	李秉元	
東	從	享	學長	尹泰圭	
西	從	享	學長	李水東	
東		廡	教育長	朴性煜	
西		廡	幼學	朴鐘漢	

●己未 1979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朴進球	
亞	獻	官	晉陽郡守	李源珉	
終	獻	官	警察署長	鄭時興	
執		禮	幼學	李秉鶴	
大		祝	幼學	河鍾煥	
東	從	享	學長	尹泰圭	
西	從	享	幼學	河炳列	晉陽人
東		廡	學長	柳國年	
西		廡	教育長	朴性煜	

●庚申 1980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朴進球	
亞	獻	官	晉陽郡守	盧奉燮	
終	獻	官	警察署長	金相竣	
執		禮	校長	崔載浩	全州人

大		祝	幼學	金相朝	
東	從	享	學長	金玪坤	
西	從	享	幼學	辛惟煥	
東		廡	幼學	許亨道	
西		廡	幼學	鄭榮宣	

●辛酉 1981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成浩德	昌寧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安康植	順興人
終	獻	官	警察署長	金尙坤	
執		禮	幼學	李丙烈	全州人
大		祝	幼學	成煥德	昌寧人
東	從	享	幼學	韓 胄	清州人
西	從	享	幼學	辛惟煥	
東		廡	幼學	鄭元鎔	迎日人
西		廡	幼學	陳龍文	驪陽人

●壬戌 1982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成浩德	昌寧人
亞	獻	官	幼學	河炳列	晉陽人
終	獻	官	幼學	金相朝	商山人
執		禮	幼學	河聖根	晉陽人
大		祝	幼學	李壽贊	載寧人
東	從	享	幼學	李相烈	載寧人
西	從	享	幼學	河仲洛	晉陽人
東		廡	幼學	辛惟煥	
西		廡	幼學	金玪坤	

●癸亥 1983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尹熙潤	
亞	獻	官	晉陽郡守	鄭元采	
終	獻	官	教育長	權大鉉	安東人
執		禮	幼學	河萬永	晉陽人
大		祝	幼學	鄭奎燮	海州人
東	從	享	幼學	曹仁相	
西	從	享	幼學	具仁會	
東		廡	幼學	黃斗益	昌原人
西		廡	幼學	柳在春	文化人

●甲子 1984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尹熙潤	
亞	獻	官	晉陽郡守	李球燮	
終	獻	官	教育長	權大鉉	安東人
執		禮	幼學	河龍雯	晉陽人
大		祝	幼學	成憲柱	昌寧人
東	從	享	學長	金玎坤	
西	從	享	幼學	李相烈	載寧人
東		廡	幼學	鄭性珪	晉州人
西		廡	幼學	李有相	

●乙丑 1985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安吉鉉	順興人
亞	獻	官	晉陽郡守	金正洛	
終	獻	官	教育長	權大鉉	安東人
執		禮	幼學	李渭煥	

大		祝	幼學	河斗根	晉陽人
東	從	享	學長	鄭海永	晉州人
西	從	享	幼學	鄭命壽	迎日人
東		廡	幼學	朴宗樂	密陽人
西		廡	幼學	南宗元	宜寧人

●丙寅 1986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金正洛	
亞	獻	官	教育長	李炳叔	
終	獻	官	總務局長	安榮祚	
執		禮	幼學	河鍾煥	晉陽人
大		祝	幼學	金鍾吉	義城人
東	從	享	幼學	尹炳湖	
西	從	享	幼學	金炯殷	金寧人
東		廡	幼學	李圻海	載寧人
西		廡	幼學	金永奎	

●丁卯 1987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幼學	河永漢	晉陽人
終	獻	官	副郡守	姜榮祚	晉陽人
執		禮	幼學	李壽贊	載寧人
大		祝	幼學	李在乙	
東	從	享	幼學	南宗元	宜寧人
西	從	享	幼學	姜允瑞	晉陽人
東		廡	幼學	具快書	
西		廡	幼學	成學柱	昌寧人

●戊辰 1988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璟	陵城人
終	獻	官	教育長	鄭貞采	
執		禮	幼學	鄭直教	迎日人
大		祝	幼學	成在浩	昌寧人
東	從	享	幼學	李相烈	載寧人
西	從	享	幼學	鄭性珪	晉州人
東		廡	幼學	孫滄壽	密陽人
西		廡	幼學	成煥宗	昌寧人

●己巳 1989年 2月 1日(春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璟	陵城人
終	獻	官	教育長	鄭貞采	
執		禮	幼學	李壽贊	載寧人
大		祝	幼學	李仁基	鐵城人
東	從	享	校長	鄭性珪	晉州人
西	從	享	學長	安元燮	順興人
東		廡	幼學	河萬柱	晉陽人
西		廡	幼學	李相烈	載寧人

●己巳 1989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璟	陵城人
終	獻	官	教育長	鄭貞采	
執		禮	幼學	李丙烈	全州人

大		祝	幼學	金鍾吉	義城人
東	從	享	學長	盧尹煥	
西	從	享	幼學	安元燮	順興人
東		廡	學長	曹德煥	昌寧人
西		廡	幼學	鄭海永	晉州人

●庚午 1990年 2月 7日(春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璟	陵城人
終	獻	官	教育長	文佑煥	南平人
執		禮	幼學	河斗根	晉陽人
大		祝	幼學	姜炳熙	晉州人
東	從	享	校長	盧尹煥	
西	從	享	學長	安元燮	順興人
東		廡	幼學	韓達愚	清州人
西		廡	幼學	南相德	宜寧人

●庚午 1990年 8月 1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文伯	南平人
亞	獻	官	晉陽郡守	具滋璟	陵城人
終	獻	官	教育長	文佑煥	南平人
執		禮	幼學	金鍾吉	義城人
大		祝	幼學	安秉璨	順興人
東	從	享	校長	盧尹煥	
西	從	享	學長	安元燮	順興人
東		廡	幼學	河鐸洛	晉陽人
西		廡	幼學	具快書	

●辛未 1991年 2月 初3日(春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徐廷焄	
亞	獻	官	學 長	權淳讚	安東人
終	獻	官	教 育 長	文佑煥	南平人
執		禮	幼 學	崔寅嘖	朔寧人
大		祝	幼 學	鄭奎燮	海州人
東	從	享	校 長	成宰奎	昌寧人
西	從	享	學 長	柳甲秀	全州人
東		廡	幼 學	文國柱	南平人
西		廡	幼 學	安承均	順興人

●辛未 1991年 8月 27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徐廷焄	
亞	獻	官	教 育 長	文佑煥	南平人
終	獻	官	學 長	安元燮	順興人
執		禮	幼 學	金永奎	
大		祝	幼 學	柳東淳	全州人
東	從	享	校 長	成煥德	昌寧人
西	從	享	儒道會長	韓敬泰	清州人
東		廡	幼 學	河萬永	晉陽人
西		廡	幼 學	鄭孝根	

●壬申 1992年 2月 初9日(春享)

初	獻	官	晉州市長	徐廷焄	
亞	獻	官	晉陽郡守	鄭永錫	迎日人
終	獻	官	教 育 長	文佑煥	南平人
執		禮	幼 學	金昌韓	義城人

大		祝	幼 學	南相淑	宜寧人
東	從	享	幼 學	李壽燮	載寧人
西	從	享	幼 學	成煥祚	昌寧人
東		廡	幼 學	河永淳	晉陽人
西		廡	幼 學	鄭琦永	

●壬申 1992年 8月 初2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	獻	官	市議會議長	金東基	
終	獻	官	教大學長	成煥祥	昌寧人
執		禮	幼 學	金昌壽	義城人
大		祝	幼 學	李秉道	載寧人
東	從	享	校 長	河萬柱	晉陽人
西	從	享	幼 學	鄭泰璇	
東		廡	幼 學	鄭鍾振	
西		廡	幼 學	河大煥	晉陽人

●癸酉 1993年 2月 初5日(春享)

初	獻	官	郡議會議長	鄭翰載	海州人
亞	獻	官	教 育 長	李寶龍	
終	獻	官	幼 學	李德煥	載寧人
執		禮	幼 學	李仁基	鐵城人
大		祝	幼 學	李永煥	載寧人
東	從	享	校 長	金三龍	
西	從	享	幼 學	許智道	金海人
東		廡	幼 學	李秉元	載寧人
西		廡	幼 學	文炳殷	南平人

●癸酉 1993年 8月 初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珍榮	
亞	獻	官	晉陽郡守	河大昌	晉陽人
終	獻	官	教育長	李寶龍	
執		禮	幼學	柳東淳	全州人
大		祝	幼學	姜信德	晉陽人
東	從	享	校長	李珉海	
西	從	享	幼學	鄭漢根	海州人
東		廡	幼學	魚增	咸從人
西		廡	幼學	鄭秀夫	

●甲戌 1994年 2月 初1日(春享)

初	獻	官	晉陽郡守	河大昌	晉陽人
亞	獻	官	教育長	李寶龍	
終	獻	官	警察署長	朴東柱	
執		禮	幼學	李暢浩	載寧人
大		祝	幼學	文炳或	南平人
東	從	享	校長	河乙成	晉陽人
西	從	享	幼學	河海照	晉陽人
東		廡	幼學	韓達愚	清州人
西		廡	幼學	鄭海錫	海州人

●甲戌 1994年 8월 初3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	獻	官	晉陽郡守	河大昌	晉陽人
終	獻	官	教育長	李寶龍	
執		禮	幼學	河大煥	晉陽人

大		祝	幼學	姜丕淳	晉州人
東	從	享	校長	許秉顯	金海人
西	從	享	幼學	河億植	晉陽人
東		廡	幼學	金讚碩	金寧人
西		廡	幼學	李鉉軾	載寧人

●乙亥 1995年 2月 初7日(春享)

初	獻	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	獻	官	教育長	朴壽用	
終	獻	官	警察署長	林友澤	
執		禮	幼學	鄭漢根	海州人
大		祝	幼學	尹琪鉉	坡平人
東	從	享	幼學	金永奎	
西	從	享	幼學	李壽贊	載寧人
東		廡	幼學	姜應用	晉州人
西		廡	幼學	鄭漢銀	海州人

●乙亥 1995年 8月 初9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	獻	官	警察署長	林友澤	
終	獻	官	教育長	朴壽用	
執		禮	幼學	鄭元鎬	晉陽人
大		祝	幼學	李鍾鎬	陝川人
東	從	享	幼學	李壽贊	載寧人
西	從	享	幼學	鄭台煥	
東		廡	幼學	許道寧	金海人
西		廡	幼學	成煥圖	昌寧人

●丙子 1996年 2月 初三日(春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議會議長	梁允植	南原人
終獻官	教育長	朴壽用	
執禮	幼學	尹瑞鉉	南平人
大祝	幼學	李典濫	載寧人
東從享	幼學	鄭任助	
西從享	幼學	鄭永杓	
東廡	幼學	黃南哲	
西廡	幼學	河鍾植	晉陽人

●丙子 1996年 8月 初5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議會議長	梁允植	南原人
終獻官	教育長	朴壽用	
執禮	幼學	李秉元	
大祝	幼學	南仲熙	宜寧人
東從享	校長	河萬乎	晉陽人
西從享	幼學	金昌世	
東廡	幼學	成鳳柱	昌寧人
西廡	幼學	韓樑	清州人

●丁丑 1997年 2月 初8日(春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議會議長	梁允植	南原人
終獻官	教育長	朴壽用	
執禮	幼學	文炳殷	南平人

大祝	幼學	洪淳香	南陽人
東從享獻官	幼學	河億植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學	文壽根	南平人
東廡獻官	幼學	李龍浩	載寧人
西廡獻官	幼學	柳在春	文化人

●丁丑 1997年 8月 初1日(秋享)

初獻官	副市長	金桂炫	金海人
亞獻官	警察署長	崔鉉太	
終獻官	產大總長	李裕根	
執禮	幼學	鄭奎燮	海州人
大祝	幼學	李秉華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文洪律	南平人
西從享獻官	幼學	許萬俊	晉陽人
東廡獻官	幼學	鄭東漢	
西廡獻官	幼學	尹富鉉	

●戊寅 1998年 2月 初三日(春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警察署長	崔鉉太	
終獻官	教育長	朴三奉	
執禮	幼學	李鍾鎬	陝川人
大祝	幼學	沈琥燮	青松人
東從享獻官	幼學	鄭漢根	海州人
西從享獻官	幼學	姜斗相	晉州人
東廡獻官	幼學	李鉉瑜	
西廡獻官	幼學	韓敬泰	清州人

●戊寅 1998年 8月 初7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教育長	朴三奉	
終獻官	幼學	李壽贊	載寧人
執禮	幼學	姜丕淳	晉州人
大祝	幼學	成煥喆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文洪律	南平人
西從享獻官	幼學	姜秉仁	晉州人
東廡獻官	幼學	鄭憲珪	晉陽人
西廡獻官	幼學	河正植	晉陽人

●己卯 1999年 2月 初9日(春享)

初獻官	幼學	鄭海永	晉陽人
亞獻官	幼學	李秉元	載寧人
終獻官	幼學	河億植	晉陽人
執禮	幼學	許道寧	金海人
大祝	幼學	韓善愚	清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金鍾吉	義城人
西從享獻官	幼學	文尙律	南平人
東廡獻官	幼學	張南權	
西廡獻官	幼學	李鉉丌	

●己卯 1999年 8月 初3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警察署長	崔正一	
終獻官	教育長	金石根	
執禮	幼學	鄭憲珪	晉陽人

大祝	幼學	成宗根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鍾鎬	陝川人
西從享獻官	幼學	尹琪鉉	坡坪人
東廡獻官	幼學	李元煥	載寧人
西廡獻官	幼學	文明圭	南平人

●庚辰 2000年 2月 初5日(春享)

初獻官	幼學	李壽贊	載寧人
亞獻官	幼學	金昌世	義城人
終獻官	幼學	姜斗相	晉州人
執禮	幼學	尹琪鉉	坡坪人
大祝	幼學	李秉萬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成煥瑢	昌寧人
西從享獻官	幼學	尹瑞鉉	坡坪人
東廡獻官	幼學	朴源弘	泰安人
西廡獻官	幼學	鄭判世	晉陽人

●庚辰 2000年 8月 初9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獻官	警察署長	禹承錫	丹陽人
終獻官	教育長	李瑢星	
執禮	幼學	李秉道	載寧人
大祝	幼學	金判濟	慶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尹富鉉	坡坪人
西從享獻官	幼學	成鳳柱	昌寧人
東廡獻官	幼學	姜丕淳	晉州人
西廡獻官	幼學	韓基洪	清州人

●辛巳 2001年 2月 初1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成煥德	昌寧人
亞 獻 官	幼 學	河大煥	晉陽人
終 獻 官	幼 學	尹瑞鉉	坡坪人
執 禮	幼 學	河龍述	晉陽人
大 祝	幼 學	李秉千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 學	鄭限銀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鄭憲珪	晉州人
東廡獻官	幼 學	成煥喆	昌寧人
西廡獻官	幼 學	韓善愚	清州人

●辛巳 2001年 8月 初5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白承斗	水原人
亞 獻 官	警察署長	崔庚虎	
終 獻 官	幼 學	李瑑星	
執 禮	幼 學	韓善愚	清州人
大 祝	典 學	沈東燮	青松人
東從享獻官	幼 學	姜又萬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成煥喆	昌寧人
東廡獻官	幼 學	姜錫周	晉州人
西廡獻官	幼 學	鄭元鎬	晉陽人

●壬午 2002年 2月 初7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李仁基	鐵城人
亞 獻 官	幼 學	韓敬泰	清州人
終 獻 官	幼 學	鄭限銀	晉陽人
執 禮	幼 學	成宗根	昌寧人

大 祝	幼 學	孫源模	密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姜錫周	晉州人
西從享獻官	幼 學	李元煥	載寧人
東廡獻官	幼 學	金炯祚	
西廡獻官	幼 學	韓善愚	清州人

●壬午 2002年 8月 初10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 獻 官	警察署長	金銀河	
終 獻 官	教育長	高永珍	長興人
執 禮	幼 學	韓基洪	清州人
大 祝	幼 學	河在明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李次壽	
西從享獻官	幼 學	文尙奎	南平人
東廡獻官	幼 學	吳世允	海州人
西廡獻官	幼 學	鄭順燮	海州人

●癸未 2003年 2月 初3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金鍾吉	義城人
亞 獻 官	幼 學	朴源弘	泰安人
終 獻 官	幼 學	李鎮台	全州人
執 禮	幼 學	河大達	晉陽人
大 祝	典 學	韓基仁	清州人
東從享獻官	幼 學	朴鍾璇	
西從享獻官	幼 學	具然守	
東廡獻官	幼 學	孫永祿	密陽人
西廡獻官	幼 學	金鎮泰	金寧人

●癸未 2003年 8月 初5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獻官	警察署長	金仁奭	
終獻官	議會議長	金銀河	
執禮	幼學	成煥喆	昌寧人
大祝	幼學	鄭大永	晉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金昌壽	義城人
西從享獻官	幼學	李敬煥	
東廡獻官	幼學	崔用壽	慶州人
西廡獻官	幼學	安承均	順興人

●甲申 2004年 2月 初3日(春享)

初獻官	幼學	姜斗相	晉州人
亞獻官	幼學	韓樑	清州人
終獻官	幼學	成煥喆	昌寧人
執禮	幼學	金原基	義城人
大祝	幼學	姜正鎬	晉州人
東從享獻官	典學	姜亾淳	晉州人
西從享獻官	幼學	河一源	晉陽人
東廡獻官	幼學	鄭在植	晉州人
西廡獻官	幼學	李再漢	慶州人

●甲申 2004年 7月 初10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獻官	議會議長	金鎮富	金寧人
終獻官	教育長	李起園	
執禮	幼學	鄭琇烈	晉陽人

大祝	幼學	尹洪根	坡坪人
東從享獻官	幼學	南相達	宜寧人
西從享獻官	幼學	崔寬俊	
東廡獻官	幼學	成三柱	昌寧人
西廡獻官	幼學	鄭泰徹	

●乙酉 2005年 2月 初5日(春享)

初獻官	幼學	金棟列	商山人
亞獻官	幼學	林瑤道	羅州人
終獻官	幼學	河龍述	晉陽人
執禮	幼學	李典濫	載寧人
大祝	幼學	李洙烈	咸安人
典祀官	幼學	成煥喆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河五柱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學	孫瀚榮	密陽人
東廡獻官	幼學	姜泰濟	晉州人
西廡獻官	幼學	成煥錫	昌寧人

●乙酉 2005年 9月 初10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獻官	議會議長	金鎮富	金寧人
終獻官	教育長	高院錫	長興人
執禮	典學	韓基仁	清州人
大祝	典學	鄭基敏	海州人
典祀官	幼學	韓善愚	清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河龍淵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學	成龍燮	昌寧人

東廡獻官 典 儀 安承均 順興人

西廡獻官 幼 學 崔用鎬 慶州人

●丙戌 2006年 2月 初10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成煥圖 昌寧人

亞 獻 官 幼 學 柳東淳 全州人

終 獻 官 幼 學 姜亾淳 晉州人

執 禮 幼 學 金炯久 金寧人

大 祝 幼 學 金樹晚 金寧人

典 祀 官 幼 學 成煥喆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 學 姜錫周 晉州人

西從享獻官 幼 學 文尙奎 南平人

東廡獻官 幼 學 金判濟 慶州人

西廡獻官 幼 學 鄭秉禧 草溪人

●丙戌 2006年 8月 初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 獻 官 議會議長 李甲戌

終 獻 官 警察署長 姜善柱 晉州人

執 禮 典 儀 沈東燮 青松人

大 祝 典 學 鄭玉永 迎日人

典 祀 官 典 儀 韓基仁 清州人

東從享獻官 幼 學 鄭判世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沈琥燮 青松人

東廡獻官 幼 學 曹喜元 昌寧人

西廡獻官 幼 學 朴喆濟 密陽人

●丁亥 2007年 5月 11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崔寅嘖 朔寧人

亞 獻 官 幼 學 韓基洪 清州人

終 獻 官 典 學 成龍燮 昌寧人

執 禮 幼 學 金鍾善 義城人

大 祝 幼 學 李秉千 載寧人

典 祀 官 幼 學 李鍾鎬 陝川人

東從享獻官 幼 學 崔用壽 慶州人

西從享獻官 幼 學 文尙奎 南平人

東廡獻官 幼 學 沈在圭 青松人

西廡獻官 幼 學 鄭琇烈 晉陽人

●丁亥 2007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 獻 官 議會議長 李甲戌

終 獻 官 警察署長 張忠男

執 禮 幼 學 河行洛 晉陽人

大 祝 教 授 李相弼 京山人

典 祀 官 幼 學 李芳男 全州人

東從享獻官 幼 學 鄭鎬英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金鎮泰 金寧人

東廡獻官 典 儀 魚浩秀 咸從人

西廡獻官 幼 學 金滸喆 義城人

●戊子 2008年 5月 11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姜錫周 晉州人

亞 獻 官 幼 學 河啓東 晉陽人

終獻官	幼學	鄭在植	晉陽人
執禮	幼學	鄭秉禧	草溪人
大祝	幼學	河翊天	晉陽人
典祀官	成均館顧問	鄭奎燮	海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金原基	義城人
西從享獻官	幼學	金炯久	金寧人
東廡獻官	幼學	李芳男	全州人
西廡獻官	幼學	河大達	晉陽人

●戊子 2008年 9月 28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獻官	議會議長	金伯容	
終獻官	高 校 長	崔大錫	全州人
執 禮	幼 學	鄭鎬英	晉陽人
大 祝	幼 學	河龍雨	晉陽人
典 祀 官	幼 學	成煥喆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 學	南相淑	宜寧人
西從享獻官	幼 學	鄭頰根	海州人
東廡獻官	幼 學	李甲煥	載寧人
西廡獻官	典 儀	韓基仁	清州人

●己丑 2009年 5月 11日(春享)

初獻官	成均館顧問	鄭奎燮	海州人
亞獻官	幼 學	成煥錫	昌寧人
終獻官	典 仁	鄭秉禧	草溪人
執 禮	幼 學	姜泰中	晉州人
大 祝	幼 學	河陳奎	晉陽人

典 祀 官	元 老	成煥喆	昌寧人
東從享獻官	典 仁	徐相祚	達成人
西從享獻官	幼 學	李元雨	慶州人
東廡獻官	顧 問	河在明	晉陽人
西廡獻官	幼 學	金幸布	金寧人

●己丑 2009年 9月 28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鄭永錫	迎日人
亞獻官	議會議長	金伯容	
終獻官	警察署長	朴東植	
執 禮	幼 學	許萬秀	金海人
大 祝	幼 學	文映童	南平人
典 祀 官	幼 學	河龍述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李鉉纘	載寧人
西從享獻官	幼 學	姜鎬澈	晉州人
東廡獻官	幼 學	鄭鍾和	晉陽人
西廡獻官	幼 學	尹洪根	坡坪人

●庚寅 2010年 5月 11日(春享)

初獻官	前儒道會長	成煥喆	昌寧人
亞獻官	幼 學	李甲煥	載寧人
終獻官	監 事	崔用鎬	慶州人
執 禮	典 儀	鄭東勳	晉州人
大 祝	幼 學	姜三秀	晉州人
典 祀 官	顧 問	河在明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鄭今永	迎日人
西從享獻官	幼 學	孫仁奎	密陽人

東廡獻官 幼 學 姜泰中 晉州人

西廡獻官 幼 學 金炯澤 金寧人

●庚寅 2010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昌熙 慶州人

亞 獻 官 議會議長 金斗行

終 獻 官 教育長 林醇炫

執 禮 幼 學 李道基 全州人

大 祝 幼 學 李奉喜 全州人

典 祀 官 顧問 姜丕淳 晉州人

分 獻 官 典 學 鄭 奐 晉州人

分 獻 官 典 儀 姜永奎 晉州人

分 獻 官 幼 學 許再洙 金海人

分 獻 官 幼 學 金樹晚 金寧人

●辛卯 2011年 5月 11日(春享)

初 獻 官 前典校 韓善愚 清州人

亞 獻 官 幼 學 鄭炳國 晉陽人

終 獻 官 典 仁 安承均 順興人

執 禮 幼 學 李秉萬 載寧人

大 祝 幼 學 朴鍾植 密陽人

典 祀 官 幼 學 南相淑 宜寧人

分 獻 官 幼 學 金上鏞 慶州人

分 獻 官 幼 學 文德根 南平人

分 獻 官 幼 學 李鶴鎮 陝川人

分 獻 官 幼 學 尹庸根 坡平人

●己丑 2011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議會議長 金斗行

亞 獻 官 警察署長 蔡柱玉

終 獻 官 顧 問 河在明 晉州人

執 禮 幼 學 河陳奎 晉陽人

大 祝 典 學 成碩基 昌寧人

典 祀 官 顧 問 鄭秉禧 草溪人

東從享獻官 幼 學 安浩根 順興人

東從享獻官 幼 學 張根煥 丹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尹永洙 坡平人

西從享獻官 幼 學 河泰午 晉陽人

●壬辰 2012年 5月 11日(春享)

初 獻 官 前典校 韓基仁 清州人

亞 獻 官 幼 學 洪淳香 南陽人

終 獻 官 幼 學 許南優 金海人

執 禮 幼 學 河龍雨 晉陽人

大 祝 典 儀 陳永業 驪陽人

典 祀 官 顧 問 李秉道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 學 李鉉瓚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 學 朴雨喜 密陽人

西從享獻官 監 事 河哲民 晉陽人

西從享獻官 監 事 鄭東勳 晉陽人

●壬辰 2012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昌熙 慶州人

亞 獻 官 議會議長 柳桂鉉 文化人

終獻官 警察署長 姜信洪 晉州人
 執禮 幼學 鄭玉永 迎日人
 大祝 典學 李鶴鎮 陝川人
 典祀官 幼學 河大達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秉萬 載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翊基 全州人
 西從享獻官 幼學 姜元泰 晉陽人
 西從享獻官 教授 高永玉 長興人

●癸巳 2013年 5月 11日(春享)

初獻官 前儒道會長 吳世允 海州人
 亞獻官 幼學 安浩根 順興人
 終獻官 典學 文德根 南平人
 執禮 幼學 尹洪根 坡平人
 大祝 幼學 韓萬俊 清州人
 典祀官 幼學 成龍燮 昌寧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相佶 全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金炯甫 金寧人
 西從享獻官 幼學 沈載華 青松人
 西從享獻官 幼學 河三煥 晉陽人

●癸巳 2013年 9月 28日(秋享)

初獻官 晉州市長 李昌熙 慶州人
 亞獻官 議會議長 柳桂鉉 文化人
 終獻官 警察署長 姜信洪 晉州人
 執禮 典儀 陳永業 驪陽人
 大祝 幼學 姜元基 晉陽人

典祀官 監事 鄭東勳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鍾勳 全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沈基祚 青松人
 西從享獻官 幼學 河豐吉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學 安守中 順興人

●甲午 2014年 5月 11日(春享)

初獻官 顧問 李秉道 載寧人
 亞獻官 顧問 姜泰中 晉陽人
 終獻官 幼學 河大達 晉陽人
 執禮 幼學 金信秀 慶州人
 大祝 幼學 郭均燮 玄風人
 典祀官 幼學 崔用鎬 全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姜炳元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學 鄭禧永 迎日人
 西從享獻官 典儀 陳永業 驪陽人
 西從享獻官 幼學 李秉千 載寧人

●甲午 2014年 9月 28日(秋享)

初獻官 國會議員 朴大出 密陽人
 亞獻官 議會議長 沈賢輔 青松人
 終獻官 教育長 俞炳周
 執禮 典學 李鶴鎮 陝川人
 大祝 幼學 朴孟濟 密陽人
 典祀官 幼學 李道基 全州人
 東從享獻官 幼學 陳鳳鉉 驪陽人
 東從享獻官 幼學 李閏浩 載寧人

西從享獻官 幼 學 孫允錫 密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鄭鍾性 晉陽人

●乙未 2015年 5月 11日(春享)

初 獻 官 前 典 校 鄭鎬英 晉陽人
 亞 獻 官 顧 問 李翊基 全州人
 終 獻 官 監 事 鄭東勳 晉陽人
 執 禮 典 學 許斗扞 金海人
 大 祝 幼 學 韓德源 清州人
 典 祀 官 典 儀 陳永業 驪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金炯澤 金寧人
 東從享獻官 典 學 姜春根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河龍雨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金樹晚 金寧人

●乙未 2015年 陽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幼 學 韓基洪 清州人
 亞 獻 官 典 學 尹永洙 坡平人
 終 獻 官 監 事 河哲民 晉陽人
 執 禮 幼 學 朴孟濟 密陽人
 大 祝 青年會長 文炯堧 南平人
 典 祀 官 幼 學 河行洛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鄭大玉 晉陽人
 東從享獻官 典 學 文載哲 南平人
 西從享獻官 典 學 河永載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李平揆 全州人

●丙申 2016 3月 16日(春享)

初 獻 官 幼 學 林鎔道 羅州人
 亞 獻 官 幼 學 李道基 全州人
 終 獻 官 典 儀 陳永業 驪陽人
 執 禮 典 學 姜元基 晉州人
 大 祝 典 儀 許鍾鐵 陽川人
 典 祀 官 幼 學 尹洪根 波平人
 東從享獻官 幼 學 河萬九 晉陽人
 東從享獻官 幼 學 柳福烈 文化人
 西從享獻官 幼 學 鄭在錫 東萊人
 西從享獻官 幼 學 申鉉圭 平山人

●丙申 2016年 9月 28日(秋享)

初 獻 官 晉州市長 李昌熙 慶州人
 亞 獻 官 議會議長 李仁基 陝川人
 終 獻 官 教 育 長 權萬鈺 安東人
 執 禮 教 授 李相弼 京山人
 大 祝 典 學 洪斗杓 南陽人
 典 祀 官 儒道會長 李鶴鎮 陝川人
 東從享獻官 幼 學 高秉勳 長興人
 東從享獻官 幼 學 姜炳葉 晉陽人
 西從享獻官 幼 學 金正雄 金海人
 西從享獻官 幼 學 許盛基 金海人

第1篇 晋州郷校

第6章 財産

_재산

_도서목록

第6章 財産

재산

향교수지

진주시 향교로 99-3 총면적 4,477㎡			
·대성전	102㎡	·서재	29㎡
·동무	43㎡	·사교당	39㎡
·서무	43㎡	·풍화루	33㎡
·내삼문	16㎡	·화장실	10㎡
·명륜당	79㎡	·관리사	92㎡
·동재	29㎡	계	515㎡

부동산 현황

2016년 6월 말 현재

1.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옥봉동 산5	임야	1,479	9,200
이반성면 가산리 612	하천	213	5,450
장대동 98-1	대지	2,809	1,033,000

지번	지목	면적(m)	공시지가(원)
옥봉동 227	잡종지	93	306,800
옥봉동 232-1	종교용지	4,477	38,600
옥봉동 232-3	잡종지	505	31,700
옥봉동 232-28	대지	3	304,900
옥봉동 232-29	대지	7	449,500
옥봉동 232-35	도로	151	92,600
옥봉동 232-36	종교용지	82	312,300
옥봉동 232-41	잡종지	4	2,800
옥봉동 241-1	전	1,607	10,500
옥봉동 260	임야	284	10,100
옥봉동 282	전	1,825	10,500
옥봉동 406-1	대지	203	48,100
옥봉동 406-2	대지	151	146,000
옥봉동 406-3	임야	1,322	50,300
옥봉동 406-4	임야	2,691	41,700
옥봉동 406-6	대지	307	233,700
옥봉동 419-1	대지	100	144,400
옥봉동 419-2	임야	265	140,400
옥봉동 720	임야	426	9,010
옥봉동 산 1-1	임야	107,286	8,970
옥봉동 산6	임야	1,289	60,600
옥봉동 산11	임야	92,744	3,660
옥봉동 산 16-3	임야	99	3,880
옥봉동 산 16-5	임야	106	3,140
정춘면 화개리 1796-2	구거	629	18,500
이반성면 가산리 1269-1	하천	357	4,410
명석면 오미리 246-1	답	370	2,920

2. 건물

지번	구조	용도	면적(m ²)	공시지가(원)
장대동 98-1	철근콘크리트	여관,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주택	585,6	98,797,569 (개별주택가격 8,300,000원)
옥봉동 232-1	일반목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	357,73	116,619,980

비품

품목	개수	품목	개수
·유복	40	·관세상	1
·유건	40	·식상	소2, 대2
·제기·변	80	·침구	4
·제기·두	80	·배석(비닐)	2
·황철주전자	2	·집사용피화	10
·잔태	33	·태극기	1
·잔	33	·흑관	2
·축태	12	·냉난방기	4
·향로	11	·좌방석	30
·상준	1	·교탁	4
·향합	1	·복사기	1
·준	1	·냉장고	1
·홀관	1	·금고	1
·목인	1	·텔레비전	1
·향교직인 및 전교인	1	·팩스	1
·PC	3	·전화기	2
·프린트기	3	·대형시계	2
·배석	13	·소형시계	4
·작세상	1		

도서목록

일련 번호	도서명	발행처	일련 번호	도서명	발행처
1	계약안	진주향교		전국유림명감	
2	홀기	진주향교		문암민영진선생효행록	대학사
3	상읍예서			동춘당문집 상중하	
4	경임록			국역진양지	진양문화원
5	비품태장			향토문화지	경상남도
6	동유학안 상중하	하검진지		국역하서집	
7	백범추모록	신두범지		음성향교지	
8	옥평사지	조민식지		진안향교지	
9	포효록	강윤서증		간성향교지	
10	중간정산지	정산지편찬회		부평향교지	
11	매촌강덕룡실기	진주임계정		해남향교지	
12	매계시첩	동방도서주식회사		함안향교지	
13	대한중의효열록	관문사		강화향교지	
14	손재집	한국한시협회		연풍향교지	
15	만수사지	만수사		춘천향교지	
16	학산실기전	대흥인쇄사		합천향교지	
17	목계선생일고			영춘향교지	
18	하천시집			경주향교지 속수증보	
19	완천당선생실기			인천향교지	
20	회재유집	회재영당		인천향교중수기	
21	건재선생문집	부성인쇄사		명륜당중건지	의성향교
	호산강계중	태양문화인쇄사		화암서원지	
	현관경임록	진주향교		영산사지	
	송사유고	창조사		경산효행실록	
	내고장의 전통	진주시		해동의사운강이강계 선생략사	
	국역수가유고	월봉사밀양박씨 효의비창건위원회		도서대장	진주향교
	석연연원록	채산재		진주향교유계금전출 납부 정사위시	
	공부자동주성상 건립축하시집	제주향교		무열사지	

일련 번호	도서명	발행처	일련 번호	도서명	발행처
	만은유고			공자실록을 통해본 공자의 생애	
	송은집			도정백서	예문사
	수원향교지			전예요람	청권사
	경수집	전의이씨전서공문증		경양정실기	무안신문사
	전성세방록	전의이씨의령문증		진양하씨상산세고	하재호
	화산서원지			국역필성제군보고과 화존신각세진경	영남인쇄사
	산청향교지			이동우선생청향문묘시사략	
	안동향교지			제주향교백일장시집	
	담운유고	최규환		향교현황	진주향교
	흘와유고	최면식		안의향교지	
	송은집			대흥향교지	
	백암집	모원재		선성지	선성개발간추진위원회
	용강사지			국사문고	충주유림서예학원
	고창삼향지			의석문고	명덕고전연구회
	함양향교지			진양루정지	진양문화원
	표의사			추만실기	서진인쇄출판사
	미산서원지			박경신선생실기	임호서원
	산양삼강전속수지	보성향교		금사문집	
	비안향교지			파산서원지	
	어계선생집	서산서원		근왕반궁일지	인물연구소
	진주목정사 제1권	진주문화원		진주목정사 제이권	진주문화원
	나주향교지			진양군사 상중하	진주문화원
	충의사록	광주전남충의사현창회		족보회상사십년사	회상사
	삼함재집	김건주		전북향교원자대관	
	당진향교지			학산유고집	춘곡정
	칠곡향교지			하봉잡초	서영모
	충주향교지 상하			통천최씨추원록	최용규
	고흥향교지			진양민속지	진주문화원
	신한국의 새생활 1	동원출판사		진주시사 상권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신한국의 새생활 2	동원출판사			
	금남선생표해록	교양사			

일련번호	도서명	발행처	일련번호	도서명	발행처
	이재유고			경암집 1권 13권	김병채
	남원향교지			천령지	함양향교
	대구월촌단양우씨문서	김현영		한병사실기	한만준
	갈천선생문집	은진임씨의령 공파대중회		청주향교지 2권	
	람포향교지			예산향교지	
	진주목정사 제3권	진주문화원		김제, 김구, 만항향교지	
	진주시사 중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진주루정지	진주문화원
	광주광역시유도회속수안	장현식		인제향교지	
	진주금석문총람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성부사문집	
	언양향교지			경도재선생문집	대구향교
	광양향교지			경남문화재백선	경남은행9
	진주시사 하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치용유고	신원정사
	원주향교지			진양하씨선대사적	신원정사
	통영향교지			포은정몽주2권	이병주작
				이계전집	남구복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149	진주예찬	163	우당집
150	태인향교지	164	묵우유고
151	진주향교지	165	남해향교지
152	강릉향교지	166	청금록
153	철원향교지	167	대구향교지
154	문화예술선집	168	황간향교지
155	담양향교지	169	제주유맥 600년사
156	충효당사	170	파주향교지
157	진주지명사	171	청도향교지
158	백촌실기	173	용서고
159	도통사지	174	영덕향교지
160	창평향교지	175	석당실기
161	동래향교지	176	설면기
162	원봉실기	177	신암유고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178	당곡실기	211	제주향교지
179	과천향교지	212	양주향교지
180	진주의 문화유산	213	순천향교지
181	화순향교지	214	수곡서원지
182	효산서원지	215	서산전집
183	농포집	216	창포당지
184	능주향교지	217	구천서원지
185	김세필 생애와 사상	218	한국문화 유적총람
186	공주향교지	222	금운년지
187	울산향교지	223	홍산향교지
188	의성향교지	224	충의와 효열
189	한국한시와 지리산	225	존양재 생애와 행록
190	양산향교지	226	함종세고
191	박건중 예학	227	충현서원
192	경기도 향학총담	228	경주향교지
193	도학과 정충대절	229	경재선생문집
194	지평향교지	231	포은선생 사적안
195	양근향교지	232	진주시 의회사
196	안동장씨 실기	233	상주향교지
197	정절사지	234	옥과향교지
198	당곡실기	235	홍천향교지
199	유림요람(요람)	236	강진향교지
200	당양향교지	237	포천향교지
201	나주오씨 세적	238	유교와 석전
203	동국8학사 유래사적록	239	수원향교지
204	안능 세덕송	240	경주김씨 세적
205	삼척향교지	242	무주집
206	회헌실기	243	양대사마 실기
207	옥천사마안	244	장수향교지
208	서암문집	245	동해향교지
210	면천향교지	246	동북향교지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247	통진향교지	282	일제선생 문집
248	송암실기	283	금석문 대관
249	정산향교지	284	홍해향교지
250	심곡서원지	285	제천향교지
251	자인향교지	286	한산향교지
252	거창향교지	287	진산세고
253	영천향교지	288	녹산 신인범 세고록
254	칠원향교지	290	신령 향교지
255	고성향교지	291	고성향교 습유록
256	화산서원지	292	백초집
258	회강문집	293	무장향교지
259	창절서원지	294	흥덕향교지
260	예안향교지	295	덕행찬양 한시집
261	고령향교지	296	군위향교지
262	백강문고	297	사례요결
263	평창향교지	298	경남의 축제
264	명암집	299	김포향교지
266	춘파팔순시집	300	해미향교지
267	하동향교지	301	고강향교지
268	경남100년 한국100년	302	강필이 전기
269	이상대옥편	303	지와 문집
270	조선환여승람	304	밀양향교지
271	어록총람	305	복제 문집
272	의령군지	306	보성충의 효열록
273	대성경	307	충효회관 낙성시고
275	밀양영남루	308	진양지
276	광주향교지	309	창원향교지
277	여주향교지	310	울진향교지
279	영주향교지	311	용궁향교지
280	영월향교지	312	하양향교지
281	보은향교지	313	곡성향교지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314	목욕조돈	345	춘수당 문집
315	경상북도향교건축(남서부)	346	진국한시백일장
316	경상북도향교건축(북동부)	347	태학지 下
317	경남뉴스 25시	348	한한대사전
318	임고서원	349	유림보감 中
319	효산서원지	350	효도대사전
320	구강서원지	351	유림보감 下
321	예천향교지	352	유석유고
322	전남향교 문화사	353	단성향교지
323	경남의 축제	354	유교대사전 天
324	경남뉴스 25시	355	유교대사전 地
325	국어대사전	356	유교대사전 人
326	한한대사전	357	진주향교지
327	평해향교지	358	구례향교지
328	교화향교지	359	진주향일운동사
329	설악산 영시암	360	안의향교지
330	무안향교지	361	경파문집
331	가례집람	362	진위향교지
332	칠원향교지	363	광양향교지
333	우곡문집	364	여수향교지
334	두류한시집	365	통영향교지
335	진주지명사	366	국어대사전
336	진암집	367	향양향교지
337	직재유고	368	시해음수
338	진양화씨 세보	369	미산산고
339	연기향교지	370	서계문집 (1)
340	진주시 의회사	371	서계문집 (2)
341	경파문집	372	서계문집 (3)
342	소파시 문선고	373	서계문집 (4)
343	향교현황	374	일반성면지
344	천안향교지	375	태학지 上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376	충렬실록	408	근재선생문집
377	하천유집	409	회정유고
378	염호문집	410	경산향교지
379	설주유고	411	공옥대유현록
380	우하유집	412	성균관의 사랑
381	유교와 석전	413	동해향교지
382	전국한시 백일장	414	단양향교지
383	인성교육예절서	415	적성향교지
384	사자소학	416	선산향교지
385	명심보감	417	청송향교지
386	다섯효자이야기	418	고산향교지
387	논어	419	전주향교지
388	논어와 비즈니스의 세계	420	옥천유고
389	유학강의	421	사례편람
390	일곱가지 지혜	422	소원문집
391	임진왜란사	423	경주유교 문화유적
392	문화고을 진주	424	성주향교지
393	향교실무자 교육	425	함안향교지
394	고전속의 생활윤리	426	서산만록
395	한글 논어	427	상정일고
396	금강명경	428	입헌문고
397	경남뉴스	429	산청향교지
398	경남뉴스	430	수곡면지
399	진안향교지	431	장생도라지 치료사례
400	효재유고	432	장생도라지 이야기
401	진안향교지	433	하늘이 준 장생도라지
402	함창향교지	434	죽산향교지
403	효재유고	435	가정의학대전
404	강화향교지	436	가정대백과
406	운경문집	437	가정의례보감
407	양성향교지	438	주역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439	소학	474	독도
440	대학·중용	475	가례집람
441	한문대강	476	문화유적 총람
442	논어	477	유림서예대전록
443	맹자 1	478	유교와 석전
444	맹자 2	479	논어집주
445	명심보감	480	가정보감
446	충경·효경	481	안능세덕송
447	소학신감	482	백강문고
448	한국인의 의식	483	복재문집
450	포은유적대관	484	구강서원지
454	기업인의 길	485	대성경
455	공직자의 길	486	심경강록
456	경남의 비경	487	조은집
457	영광향교지	488	한시집
458	영춘향교지	489	유대지 11
459	영양향교지	490	문헌공 실기
460	거제향교지	491	회덕향교지
461	광포문고	492	풍기향교지
462	낙포집	493	전고휘요
463	강릉향교 700년사	494	진주교육사
464	경남포커스	495	영승향교지
465	전통예절과 효	496	경북향교지
466	충의와 효열	497	매와집
467	진양지	498	송월당집
468	청금록	499	교동향교지
469	안선생 추모집	500	진잠향교 600년사
470	축하지집	501	석천만록
471	충절사지	502	영해향교지
472	안능세덕송	503	근재문집
473	호재집	504	효열록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505	인제향교지	555	영조 어제 해제
506	목재문집	556	연행록
507	간성향교지	557	사례편람
508	한국서원 총람	558	광능지
510	봉추전서	560	창능지
511	제주유교발전사	562	서계유묵
512	강진향교지	563	백두산
513	진산향교지	564	층을 다하고 덕을 쌓다
514	진암유고	566	고려사의 자연학
515	광주향교 고문서 집성	567	해동문헌 총록
516	양계문집	568	장서각
517	사담유고	569	심경
518	임고서원지	570	근사록
519	염호문집	571	한국문화, 아리랑
520	취우정 실기	572	윤리, 세상을 만나다
521	지수면지	573	신학, 종교, 그리고 민족
522	경남포커스	574	한반도 통일
523	지족당충열기	575	조선 왕실의 가례
524	제례첨록	576	조선의 국가 제사
529	영조대왕 자료집	577	인재일록
533	영조 어제 해제	578	조선시대 해유문서
542	전남 한시 백일장집	579	의주첨록
543	한국고문서 정선	580	농암진적
547	조선왕실의 가례	581	영조대왕
548	윤리학, 그 주제와 논점	582	영조 자손 자료집
549	용비어천가와 세종	584	정조 어찰첩
550	서양 윤리학에서 본 유학	585	우장정경세
551	영·정조대 문예	586	운봉향교지
552	한국 윤리 문화사	588	유도
553	영조의 국가정책	590	함안이씨 약사
554	정미 가례시 일기	591	학성이씨 정전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592	영동향교지	623	통영
593	고흥향교지	624	애국지사 김영상
594	진천향교지	625	축문집
595	비안향교지	626	고양시 역사
596	문헌공 실기	627	한주선생 송모지
597	곤양향교지	628	유림서예대전
598	밀양향교지	629	통감절요
599	임실향교 600년사	630	동도회지
600	신옥용 행실록	631	월드뉴스
601	전국의례 홀기집	632	서산만록
602	암곡서원지	633	옥천사마안
603	경남의 재발견	634	보성충의효열록
604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635	동양고전연구
605	경남포커스 뷰	636	철들고 보니 백발이네
606	구졸암 문집	637	사서오경
607	논어정독	638	연계안 사적록
608	한국의 전통제사의식	639	제나라의 번영과 몰락
609	고려사 절요	640	공자평전
610	시경강의	641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
611	논어	642	정충록
612	맹자	643	철학자의 서재
613	시경	644	고양시 씨족 세거사
614	서경	645	푸른솔의 기상처럼
615	주역	646	소수서원지
616	예기	647	화산서원지
617	춘추좌전	648	제주유맥 600년사
618	대학 중용	649	인류의 근원과 뿌리탐구
619	맹자	650	주역전의
620	근사록집해	651	대학 중용 집주
621	순창향교지	652	서경집전
622	실천예절	653	시경집전

일련번호	도서명	일련번호	도서명
654	맹자집주	660	송헌선생 문집
655	경남포커스 뷰(2016)	661	박동찬 유고록
656	상봉동지	662	순흥향교지
657	나주향교지	663	사천향교지
658	청송심씨 가곡당세록	664	석성향교지
659	삼산정 자성록		

第7章 舊晋州郷校管割區域

구진주향교(舊晋州郷校) 관할구역(管轄區域)

_동면

_남면

_서면

_북면

第7章 舊晉州鄉校管割區域

구진주향교(舊晉州鄉校) 관할구역(管轄區域)

동면

- 저동리(豬洞里) : 주의 동쪽 8리에 있다. 초전동(草田洞) 반계동(反溪洞) 지항동(支項洞)의 3속방(屬坊)이 있다.
- 조동리(槽洞里) : 주의 동쪽 20리에 있다. 청곡동(靑谷洞) 옥곡(旭谷) 속사동(東沙洞)의 3속방이 있다.
- 법륜리(法輪里) : 주의 동쪽 23리에 있다. 석을산(石乙山) 동실동(東實洞) 족지동(足之洞) 중대(中台) 소촌역(召村驛)의 5속방이 있다.
- 굴곡리(屈谷里) : 주의 동쪽 25리에 있다. 점촌(店村) 장자동(長者洞) 어지동(於池洞)의 3속방이 있다.
- 수곡리(水谷里) : 주의 동쪽 30리에 있다. 정현(鼎峴) 다정(多情) 울목현(栗木峴) 3속방이 있다.
- 진성리(晉城里) : 주의 동쪽 40리에 있다. 남산촌(南山村) 저연(豬淵) 원당(元塘) 굴천(屈川) 오곡(五穀) 원통(元通) 대사동(大寺洞) 양장(羊場) 논아곡(論阿谷) 덕현(德峴)

천곡(泉谷)(上中下)의 11속방이 있다.

- 이천리(耳川里) : 주의 동쪽 30리에 있다. 세동(細洞) 저동(猪洞) 탑동(塔洞) 고대(高臺) 월영(月影)의 5속방이 있다.
- 반성리(班城里) : 주의 동쪽 50리에 있다. 현내(縣內) 개암(開岩) 선원동(宣院洞) 중방(中枋) 가곡(槓谷) 반월(半月) 채방(菜坊) 니성(泥城)의 8속방이 있다.
- 가수개리(柯樹介里) : 주의 동쪽 60리에 있다. 산점(山店) 계룡점(溪龍店) 둔동동(屯東洞)의 3속방이 있다.
- 양전리(陽田里) : 주의 동쪽 80리에 있다. 동은 함안군(咸安郡) 남은 진해현(鎭海縣) 북은 발현(鉢峴)이다.
- 비라동리(非羅洞里) : 주의 동쪽 60리에 있다. 동은 발현(鉢峴) 남은 고성현(固城縣)의 장치(牆峙) 서는 개천(介川) 북은 반성(班城)이다.
- 부다리(富多里) : 주의 동쪽 65리이고 가막동(可幕洞) 원중(院中) 역촌(驛村)의 3속방이 있다.
- 상사리(上寺里) : 주의 동쪽 45리이고 동은 반성(班城) 남은 진성(晋城) 서는 동산(東山) 북은 용봉(龍鳳)이요 백야(白也) 대평동(大坪洞) 둔동동(屯東洞) 우곡(隅谷) 시성(市城) 지소(紙所)의 6속방이 있다.
- 용봉리(龍鳳里) : 주의 동쪽 50리에 있다. 동은 승어산(勝禦山) 남은 상사(上寺) 서는 염창강(濂滄江)이고 동지(東旨) 구절(九節) 오동촌(梧桐村)의 3속방이 있다.
- 청원리(淸源里) : 주의 동쪽 50리이고 동은 함안(咸安)의 방어산(防禦山) 남은 반성(班城) 서는 상사(上寺) 북은 승어산(勝禦山)이다. 거곡(巨谷) 초문(草門) 모곡(茅谷) 지철(芝哲)의 4속방이 있다.
- 승어산리(勝禦山里) : 주의 동쪽 55리다. 동은 방어산(防禦山) 남은 청원(淸源) 서는 용봉(龍鳳) 북은 염창(濂滄)이며 상승어산(上勝禦山) 하승어산(下勝禦山) 무등촌(無等村) 허곡(虛谷)의 4속방이 있다.
- 가좌촌리(加佐村里) : 주의 동쪽 35리이다. 동은 목계(木溪) 남은 동산(東山) 서는 월아산(月雅山) 북은 대곡(大谷)이며 농사리(農沙里) 원항리(元項里) 판사(板沙) 진동(津洞)의 4속방이 있다.

- 반동산리(班東山里) : 주의 동쪽 35리에 있다. 동은 상사(上寺) 남은 이천(耳川) 서는 월야산(月雅山) 북은 가좌촌(加佐村)이다. 상동산(上東山) 택지동(宅只洞) 마흘(麻屹) 하동산(下東山) 익매동(益梅洞)의 5속방이 있다.
- 대곡리(大谷里) : 주의 동쪽 35리에 있다. 동남은 대강(大江)이요 서는 오곡(吳谷) 북은 의령현(宜寧縣)의 경계다. 대동(大洞) 소동(小洞) 압곡동(鴨谷洞) 마진(麻津) 관내동(官內洞)의 5속방이 있다.
- 오곡리(吳谷里) : 주의 동쪽 30리에 있다. 동은 대곡(大谷) 서남은 대강(大江)이며 북은 설매곡(雪梅谷)이며 웅점(甕店) 중촌(中村) 덕곡(德谷) 달호음(達好音) 가정자(柯亭子) 유곡(柳谷) 덕교촌(德橋村)의 7속방이 있다.
- 대여촌리(代如村里) : 주의 동쪽 25리에 있다. 동은 오곡(吳谷) 남은 금산(琴山) 서북은 대강(大江)이다. 종동(鍾洞) 용심(龍潯) 가방(嘉坊) 대사(大寺) 축동(柵洞) 궁당(矜堂) 남성동(南星洞) 송곡(松谷)의 8속방이 있다.
- 금산리(琴山里) : 남은 조동 서는 유탄(柳灘) 북은 대여촌(代如村)이다. 신촌(新村) 백곡(柏谷) 말우미(末隅未) 개천(介川) 대정(大井) 양산(梁山) 수정(修城) 임와(林窩) 남산(南山)의 9속방이 있다.
- 월야미리(月牙彌里) : 주의 동쪽 20리의 월야산(月雅山) 서쪽에 있으니 옛날에는 사기점(沙器店)이 있었다. (난후에는 금산리에 합했다.)

남면

- 섭천리(涉川里) : 주의 남쪽 5리에 있다. 동은 대야(大野)요 서는 망진(望晉) 남은 진현(晉峴) 말동(末洞) 북은 대강(大江)이다. 지동(池洞)의 속방이 하나이다.
- 정촌리(鼎村里) : 본래는 살례(薩禮)더니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주의 남쪽 17리에 있고 동은 소촌(召村) 남은 지항(枝項) 서는 진수개(陳樹介) 북은 대강(大江)이다.
- 두모곡리(豆毛谷里) : 주의 남쪽 25리에 있다. 동은 굴곡(窟谷) 남은 지항(枝項) 서는 진수개(陳樹介) 북은 대강(大江)이다.

- 진수개리(陳樹介里) : 주의 남쪽 10리에 있다. 동은 정촌(鼎村) 남은 세곡(世谷) 서는 나동(奈洞) 북은 사천(沙遷)이다. 미륵동(彌勒洞) 가좌동(可坐洞) 가양촌(加陽村) 신촌(新村) 비목동(非目洞) 지동(池洞)의 6속방이 있다.
- 지항리(枝項里) : 주의 남쪽 22리에 있다. 동은 송곡(松谷) 남은 사천(泗川) 경계 서는 가차례(加次禮) 북은 진수개(陳樹介)다. 고지항(故枝貢) 고말동(古末洞) 여물리(汝勿里) 우적동(于滴洞) 소곡(所谷) 말법곡(未法谷) 저리현(低里峴) 조전동(鳥田洞)의 9속방이 있다.
- 어아리(於牙里) : 주의 남쪽 25리에 있다. 동은 지항(枝項) 남은 사천현(泗川縣)과의 경계이며 서는 가차례(加次禮) 북은 세곡(世谷)이다. 왕동(王洞) 신동(新洞) 사대동(沙代洞) 상대곡(省台洞) 당동(唐洞) 전화(田化)의 6속방이 있다.
- 세곡리(世谷里) : 주의 남쪽 이십오리에 있다. 동은 지항(枝項) 남은 가차례(加次禮) 서는 축동(柵洞) 북은 진수개(陳樹介)다. 대지동(大雌洞) 장동(長洞) 강주(康州) 송우(松于) 방고미(方古未) 귀미(貴彌) 수통항(水桶項) 영기(營基) 도간동(陶侃洞) 흑운(黑雲)의 10속방이 있다.
- 축동리(柵洞里) : 주의 남쪽 25리에 있다. 동은 가차례(加次禮) 남은 장암(場岩)과의 경계요 서는 부화곡(夫火谷) 북은 축곡(柵谷)이다. 토동(土洞) 대동(大洞) 백곡(栢谷) 여희례(餘喜禮) 사대동(沙大洞) 중사(中寺)의 7속방이다.
- 축곡리(柵谷里) : 주의 남쪽 15리에 있다. 동은 축동(柵洞) 남은 곤양(昆陽)과의 경계이며 서는 산지(山岐) 북은 말동(末洞)이다. 영강동(永康洞) 사읍동(沙邑洞) 산지(山岐) 칠목동(漆木洞) 사읍교(沙邑橋) 구실동(九室洞) 금동(錦洞) 류동(柳洞)의 8속방이 있다.
- 말동리(末洞里) : 주의 남쪽 10리에 있다. 동은 섭천(涉川) 남은 축동(柵洞) 서북은 대강(大江)이다. 독고산(篤古山) 울곡(栗谷)의 2속방이 있다.
- 내평리(內坪里) : 주의 남쪽 20리에 있다. 동은 축곡(柵谷) 남은 곤양(昆陽)과의 경계이며 서북은 장강(長江)이다. 연양현(延陽縣) 립점(笠店) 수개곡(樹介谷) 고산(孤山)의 4속방이 있다.
- 반룡포리(班龍浦里) :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동은 부화곡(夫火谷) 남은 해포(海浦)

서는 내평(內坪) 북은 축곡(楸谷)이다.

- 부화곡리(夫火谷里) :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동남은 해포(海浦) 북은 축동(楸洞) 서는 반룡포(班龍浦)며 탑룡현(塔龍峴) 오례곡(吾禮谷) 창진(倉津) 장암(場岩) 달동(達洞) 지말동(枝末洞) 사기(寺基)의 7속방이 있다.
- 말문리(末文里) : 주의 남쪽 60리에 있다. 동은 고성(固城)의 경계요 남은 삼천진(三千鎭) 서는 해포(海浦) 북은 사천(泗川)의 경계다. 적례(赤禮) 무임포(無任浦) 골동(骨洞) 송포(松浦) 용포(龍浦) 이현(利峴) 수내(藪內) 검암(儉岩) 죽사(竹寺) 역촌(驛村) 모자(茅茨) 낭포(廊浦)의 11속방이 있다.
- 각산리(角山里) : 주의 남쪽 75리에 있다. 동은 삼천진(三千鎭) 서남은 대해(大海) 북은 말문(末文)이다. 대방동(大方洞) 동림(東林) 실안동(實安洞)의 3속방이 있다.
- 창선도리(昌善島里) : 주의 남쪽 90리에 있다. 해도(海島) 가운데 대마산(大坊山)이 있어 서는 울도(栗島) 북은 중창선(中昌善) 동남은 흥선(興善)이다. 주(州)에서 130리의 거리며 남쪽은 남해현(南海縣)이다.
- 송곡리(松谷里) :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동은 우봉(牛峰) 서는 인담(麟淡) 남은 엄정(嚴亭) 북은 화곡(火谷)이다. 정자동(亭子洞) 두지동(豆之洞) 고음동(古音洞) 도계(道界)의 4속방이 있다.
- 인담리(麟淡里) :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동은 금동어리(金冬於里) 서는 지항(枝貢) 남은 성을산(省乙山) 북은 송곡(松谷)이다. 법자랑(法自郎) 공암(孔岩)의 2속방이 있다.
- 금동어리(金冬於里) : 주의 남쪽 30리에 있다. 동은 양산(陽山) 서는 인담(麟淡) 남은 오읍곡(吾邑谷) 북은 송곡(松谷)이다. 엄정(嚴亭) 성재동(成才洞) 가토곡(加土谷) 검암(儉岩) 운수동(雲水洞) 우봉(牛峰)의 6속방이 있다.
- 개천리(介川里) : 주의 남쪽 50리에 있다 동은 고성(固城)과 경계며 남은 명진(溟珍) 서는 양산(陽山) 북은 진성(晉城)이며 거리곡(居里谷) 수곡(水谷) 가정자(柯亭子) 청광(靑光)의 4속방이 있다.
- 명진리(溟珍里) : 주의 남쪽 55리에 있다. 동은 고성(固城)과 경계이며 남은 유전점(柳田店) 서는 영이곡(永耳谷) 북은 양산(陽山)이다. 한명동(漢明洞) 조현(鳥峴) 비노리

(非老里) 축동(柵洞) 가음척(加音尺) 역동(驛洞)의 6속방이 있다.

- 영이곡리(永耳谷里) : 주의 남쪽 40리에 있다. 동은 양산(陽山) 남은 영선현(永善縣)이다. 신흥동(新興洞) 오가곡(吾可谷) 구산동(仇山洞) 자읍곡(自邑谷)의 4속방이 있다.
- 양산리(陽山里) : 주의 남쪽 50리에 있다. 동은 개천(介川) 남은 명진(溟珍) 서는 영이곡(永耳谷) 북은 진성(晋城)이다. 현산(峴山) 양동(羊洞) 장자동(長者洞) 전형(田形) 본당(本堂) 말어동(末於洞)의 6속방이 있다.
- 영선현리(永善縣里) : 주의 남쪽 50리에 있다. 동은 영이곡(永耳谷) 남은 추현(楸峴) 서는 성을산(省乙山) 북은 오읍곡(吾邑谷)이다. 당항(唐項) 삼산(三山) 사병령(沙并嶺) 영창역(永昌驛) 유전동(柳田洞)의 5속방이 있다.
- 오읍곡리(吾邑谷里) : 주의 남쪽 45리이다. 동은 영이곡(永耳谷) 남은 영선현(永善縣) 서는 성을산(省乙山) 북은 금동어(金冬於)다. 신전(新田) 법안곡(法鞍谷)의 2속방이 있다.
- 성을산리(省乙山里) : 주의 남쪽 45리에 있다. 동은 영선현(永善縣) 남은 영창역(永昌驛) 서는 소음현(小音峴) 북은 신대(申大)다. 지동(芝洞) 실동(實洞)의 2속방이 있다.
- 영신대리(永申大里) : 주(州)의 남쪽 40리이다. 동은 오읍곡(吾邑谷) 남은 성을산(省乙山) 서는 인담(麟淡) 북은 금동어(金冬於)다. 석계지촌(石界之村) 동물이(冬勿伊) 동여촌(東呂村)의 3속방이 있다.

서면

- 평거리(平居里) : 주의 서쪽 10리에 있다. 동과 남은 대강(大江)이며 서는 어배곡(於背谷) 북은 성대동(省台洞)이다. 지동(池洞) 역동(驛洞) 령제동(令第洞)의 3속방이 있다.
- 어배곡리(於背谷里) : 주의 서쪽 15리에 있다. 동은 평거(平居) 서와 남은 대강(大江)이며 성대동(省台洞)이다. 상판문(上板門) 하판문(下板門)의 3속방이 있다.
- 서신대리(西申大里) : 주의 서쪽 25리에 있다. 동은 어배곡(於背谷)이요 남과 서는 대천(大川) 북은 대평(大坪)이다. 가을동(加乙洞)의 속방이 있다.

- 침곡리(針谷里) :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 동은 대천(大川) 남은 마동(馬洞) 서는 중전(中全) 북은 대평(大坪)이며 평촌(坪村) 석산(碩山)의 2속방이 있다.
- 가을동리(加乙洞里) : 주의 서쪽 15리에 있다. 동은 어배곡(於背谷) 남은 신대(申大) 서는 침곡(針谷) 북은 오산(烏山)이다. 외가을(外加乙) 내가을(內加乙)의 2속방이 있다.
- 조산리(鳥山里) : 주의 30리에 있다. 동은 성대동(省台洞) 남은 대평(大坪) 서는 소남(召南) 북은 단성현(丹城縣)이다. 묵곡(默谷) 루역(婁亦) 호병곡(呼瓶谷)의 3속방이 있다.
- 대평리(大坪里) :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 동북은 오산(烏山) 남은 침곡(針谷) 서는 이하(籬下)다. 가막동(加莫洞) 당동(堂洞) 두수동(杜水洞) 도평(島坪)의 4속방이 있다.
- 파지리(巴只里) : 주의 서쪽 35리에 있다. 동은 묵곡(默谷) 남은 대평(大坪) 서는 자매곡(子梅谷) 북은 사월(沙月)이다.
- 사월리(沙月里) : 주의 서쪽 45리에 있다. 동은 오산(烏山) 남은 소남(召南) 서는 백곡(柏谷) 북은 단성현(丹城縣)과 경계다.
- 단속리(斷俗里) : 주의 서쪽 60리에 있다. 동북은 단성현(丹城縣) 남은 백곡(栢谷) 서는 백운동(白雲洞)이다.
- 시천리(矢川里) : 주의 서쪽 70리에 있다. 동은 백곡(栢谷) 남은 오대(五臺) 서는 천왕봉(天王峰) 북은 삼장(三壯)이다. 사륜동(絲綸洞) 가을곶(加乙串) 양당(兩堂) 동상원곡(東上院谷) 번천(樊川) 몽대(蒙垓) 평관(坪館) 공전(公田) 대갈(大葛)의 10속방이 있다.
- 삼장리(三壯里) : 주의 서부 90리에 있다. 동서는 산을 등지고 있고 남은 시천(矢川) 북은 산음(山陰)이고 덕산(德山) 대저(臺底) 진교(陳橋) 탑동(塔洞) 홍제동(弘濟洞) 석남(石南) 유평(楡坪)의 7속방이 있다.
- 가귀곡리(嘉貴谷里) : 주의 서부 20리에 있다. 동은 대천(大川) 남은 내평(內坪) 서는 마동(馬洞) 북은 대천(大川)이다. 대동촌(大洞村) 광연촌(筐淵村)의 2속방이 있다.
- 마동리(馬洞里) : 주의 서부 25리에 있다. 동은 가귀곡(嘉貴谷) 남은 곤양현(昆陽縣)의 경계(境界)이며 서는 원당(元堂) 북은 신대(申大)다. 구모곡(救母谷) 우현(友峴) 늘곡

(訥谷) 반회(潘回) 외모곡(外茅谷) 만화동(萬化洞) 당저(堂底) 대우동(大牛洞)의 8속방이 있다.

- 원당리(元堂里) : 주의 서부 35리에 있다. 동은 마동(馬洞) 남은 곤양(昆陽)과 경계며 서는 수곡(水谷) 북은 중전(中全)이다. 옥동(玉洞) 독동(秃洞)의 2속방이 있다.
- 수곡리(水谷里) : 주의 서부 40리에 있다. 동은 원당(元堂) 남북은 방서(方西)와 가서(加西)며 서북은 자매곡(自梅谷)이다. 사방동(沙芳洞) 류곡(柳谷) 대천동(大泉洞) 조계(潮溪) 효자동(孝子洞) 중전(中全) 요미동(饒米洞) 다회탄촌(多會灘村)의 8속방이 있다.
- 이하리(籬下里) : 주의 서부 50리에 있다. 동은 침곡(針谷) 남은 수곡(水谷) 서는 가서(加西) 북은 파지(巴只)다. 어을거곡(於乙巨谷) 방동(方洞) 대각(大覺) 하대우(下大牛) 이곡(狸谷) 서제동(書齋洞) 남종기(藍宗基)의 7속방이 있다.
- 자매곡리(自梅谷里) : 주의 서부 40리에 있다. 동은 파지(巴只) 남은 이하(籬下) 서는 백곡(柏谷) 북은 사월(沙月)이다.
- 백곡리(柏谷里) : 주의 서부 60리에 있다. 동은 이하(籬下) 남은 가서(加西) 서는 모방(茅芳) 북은 사월(沙月)이다. 상대우(上大牛) 외호곡(外虎谷) 내호곡(內虎谷) 시랑촌(侍郎村) 구전말사(龜典末寺) 설창(設倉) 태연(苔淵) 적현(赤峴) 면동(免洞) 회촌(回村) 북곡(北谷) 성조곡(聖祖谷) 전곡(典谷) 금마리(金麻里)의 14속방이 있다.
- 모방곡리(茅芳谷) : 주의 서부 65리에 있다. 동은 백곡(柏谷) 남은 종화(宗化) 서는 서천(西川) 북은 덕천(德川)이다. 서재동(書齋洞) 중태동(重台洞) 일부동(一夫洞) 오매곡(烏梅谷)의 4속방이 있다.
- 가서리(加西里) : 주의 서부 50리에 있다. 동은 이하(籬下) 남은 운곡(雲谷) 서는 종화(宗化) 북은 백곡(柏谷)이다. 내원계(內元溪) 외원계(外元溪) 오동리(梧桐里)의 3속방이 있다.
- 종화리(宗化里) : 주의 서쪽 55리에 있다. 옛날에는 동화리(冬火里)라 했다. 동은 가서(加西) 남은 운곡(雲谷) 서는 정개성(鼎蓋城) 북은 모방곡(茅芳谷)이다. 내종화(內宗化) 외종화(外宗化) 안계(安溪) 소안계(小安溪) 문암촌(文岩村) 빈유가(貧遊街) 웅계(熊溪) 월봉촌(月峰村) 대정동(大亭洞) 안실동(安室洞) 니방동(尼房洞)의 11속방이 있

다.

- 운곡리(雲谷里) : 주의 서부 55리에 있다. 옛날에는 굴촌(屈村)이라 했는데, 동은 수곡(水谷) 남은 동곡(桐谷) 서는 전두(田頭) 북은 종화(宗化)이다. 시탄(矢灘) 개방(介坊) 통현(桶峴) 용산(龍山) 뇌암(雷岩)의 5속방이 있다.
- 오대리(五臺里) : 주의 서부 60리에 있다. 동은 종화(宗化) 남은 전두(田頭) 서는 악양(岳陽) 북은 시천(矢川)이다. 노우(蘆愚) 가리암(加里岩) 삼가(三街) 회인(會仁)의 4속방이 있다.
- 선천리(鎡川里) : 주의 서부 60리에 있다. 동은 곤양(昆陽)이 경계요 남은 하동(河東)이 경계요 서는 청암(靑岩)이요 북은 동곡(桐谷)이다. 우근동(禹勤洞) 향교동(鄕校洞) 저동(楮洞) 화정(花亭) 사창촌(社倉村) 관당동(官堂洞) 객사동(客舍洞) 난포동(蘭浦洞) 덕신촌(德新村) 삼지(三岐)의 10속방이 있다.
- 전두리(田頭里) : 주의 서쪽 60리에 있다. 동은 시탄(矢灘) 남은 하동(河東) 서는 악양(岳陽) 북은 오대(五垓)다.
- 북평리(北坪里) : 주의 서쪽 40리에 있다. 동은 원당(元堂) 남은 곤양(昆陽)과 경계요 서는 동곡(桐谷) 북은 다회탄(多會灘)이다. 추동(楸洞) 토동(吐洞) 지내(池內)의 3속방이 있다.
- 동곡리(桐谷里) : 주의 서부 50리에 있다. 동은 북방(北防) 남은 선천(鎡川) 서는 시탄(矢灘) 북은 벌죽(伐竹)이다. 부소가(扶蘇街) 대도촌(大道村) 외동곡(外桐谷) 도현(陶峴) 시동(柿洞) 창덕동(昌德洞) 단목동(丹牧洞) 삼장동(三壯洞) 정수역(正守驛)의 9속방이 있다.
- 적량리(赤良里) : 주의 서쪽 90리에 있다. 동은 하동(河東)과 경계요 남은 진담(陳番) 서는 지리산(智異山) 북은 선천(鎡川)이다. 원촌(院村) 우리곡(牛里谷) 계동(癸洞) 효령촌(孝領村) 혈계동(血桂洞) 도천동(道川洞) 와진동(臥津洞)의 7속방이 있다.
- 진담리(陳番里) : 주의 서쪽 120리에 있다. 동은 하동(河東)과 경계이며 남은 섬진(蟾津)으로 광양(光陽)과 경계이며 서는 악양(岳陽) 북은 적량(赤良)이다. 두치동(豆恥洞) 비과도(琵琶島) 화심동(花深洞) 만자촌(萬者村) 정촌(井村) 라동(螺洞) 월동도(月動島) 호암촌(虎岩村) 선장촌(船場村) 흑룡촌(黑龍村) 가좌원(可坐院)의 11속방이 있

다.

- 악양리(岳陽里) : 주의 서쪽 125리에 있다. 이현(梨峴) 축촌(丑村) 내점(來店) 대곡(大谷) 성후촌(城後村) 상촌(橡村) 신촌(新村) 창촌(倉村) 반암 당지촌(堂旨村) 삼하(식삼 阿息) 평사역촌(平沙驛村) 장촌동(臟村洞) 가은곡(加隱谷)의 14속방이 있다.
- 화개현리(花開縣里) : 주의 서쪽 160리에 있다. 동은 악양(岳陽) 남은 섬호(蟾湖) 서는 구례(求禮)의 경계요 북은 신흥사(神興寺)이다. 오리촌(烏理村) 가정촌(柯亭村) 신현촌(新縣村) 쌍계촌(雙溪村) 황전촌(黃田村) 배혜촌(倍惠村) 범옥촌(梵玉村) 대비촌(大妃村) 법하촌(法柯村) 화개현구지(花開縣舊址)의 10속방이 있다.

북면

- 동물곡리(冬勿谷里) : 주의 북쪽 5리에 있다. 상동(上洞) 하동(下洞) 사진동(舍晋洞)의 3속방이 있다.
- 비라곡리(非羅谷里) : 주의 북쪽 10리에 있다. 신지동(新池洞)의 1속방이 있다.
- 신당리(新塘里) : 주의 북쪽 15리에 있다. 죽산(竹山) 어풍(御風) 정촌(亭村) 월동(月洞) 주동(酒洞) 장자담(長子潭) 성동(城洞) 차평(車坪)의 7속방이 있다.
- 사죽리(沙竹里) : 주의 북쪽 25리에 있다. 단지동(丹池洞) 월가동(月家洞) 동곡(桐谷) 축원동(柎院洞) 독두지(禿頭地) 말항(末項)의 6속방이 있다.
- 독천리(禿川里) : 주의 북쪽 35리에 있다. 심수동(沈水洞) 몽동동(蒙同洞) 대가사동(大加斯洞) 동향(東向) 죽동포(竹洞浦) 마장동(麻場洞) 둔동동(屯同洞) 개심동(開心洞) 장동(長洞) 세동(細洞) 반지촌(盤地村) 대동(大洞) 원당(元堂)의 13속방이 있다.
- 설매곡(雪梅谷) : 주의 북쪽 40리에 있다. 가야동(加也洞) 중촌(中村) 덕현(德峴) 감암(甘岩) 유곡(幽谷)의 5속방이 있다.
- 월배곡리(月背谷里) : 주의 북쪽 45리에 있다. 소동(小洞) 대동(大洞)이다.
- 잉옥곡리(莛玉谷里) : 주의 북쪽 40리에 있다. 진동(眞洞) 대조동(大鳥洞) 동이방(桐耳坊)의 3속방이 있다.

- 미곡리(迷谷里) : 주의 북쪽 50리에 있다. 맥동(麥洞) 상미곡(上迷谷) 하미곡(下迷谷) 안간역(安澗驛)의 4속방이 있다.
- 모태곡리(毛台谷里) : 주의 북쪽 25리에 있다. 응석동(凝石洞) 대최미(大最美) 철수원동(鐵水院洞) 공암동(孔巖洞) 흑사동(黑寺洞) 마종동(磨造洞)의 6속방이 있다.
- 정곡리(井谷里) : 주의 북쪽 25리에 있다. 달리동(達理洞) 원동(院洞) 배동(裵洞) 봉강동(鳳岡洞) 몽동(夢洞)의 5속방이 있다.
- 성태동리(省台洞里) : 주의 북쪽 20리에 있다. 장흥동(長興洞) 남상동(南上洞) 후노동(後老洞) 관남동(關南洞) 미종동(彌造洞) 신촌(新村) 칠전(漆田) 관지동(管之洞) 금동(金洞) 불동(佛洞) 송산(松山) 수시동(修時洞) 왕지동(王之洞) 토옹점(土甕店) 철점(鐵店) 비곡(非谷) 우실동(尤實洞) 분묘동(墳墓洞) 알아대(閼娥大) 용산동(龍山洞) 토장(土牆)의 21속방이 있다.
- 명석리(鳴石里) : 주의 북쪽 30리에 있다. 굴산점(屈山店) 옹점(甕店) 동전(同田) 흑방(黑方) 송을산(松乙山) 마감동(馬藍洞) 상촌(上村) 율곡(栗谷) 신촌(新村)의 9속방이 있다.

第8章 歷代人物

第1節 歷代人物

_인물(人勿) _유행(儒行) _품행(品行)
_충의(忠義) _효행(孝行) _효열행(孝烈行)
_문과(文科) _무과(武科) _사마(司馬)
_남행(南行)

第2節 新增人物 孝烈 및 有功者 表彰

_인물(人勿) _효열행(孝烈行)
_신증인물 효열 및 유공자 표창장(新增人物 孝烈·有功者表彰)

第3節 歷代晋州任官

_목사(牧使) _관관(判官) _병사(兵使)
_영장검토포사(營將兼討捕使) _우후(虞候)
_관찰사(觀察使) _명신(名臣)
_진주시장(晉州市長) _진양군수(晉陽郡守)

第8章 歷代人物

第1節 歷代人物

인물(人物)

高麗

● 하공진(河拱辰)

河拱辰 成宗朝爲鴨綠江渡句當使穆宗時除中郎將王寢疾與親從將軍庾芳中郎將卓思政常直近殿門尋遷尙書左司郎中及顯宗避契丹南幸拱辰追謁于道奏曰契丹本以討賊爲名今已得康兆若遣使請和彼必班師王筮得吉卦遂遣拱辰及高英起奉表狀往契丹營拱辰行至昌化縣以表狀授郎將張旻別將丁悅先往契丹軍言曰國王固願來覲第懼兵威又因內艱出避江南遣陪臣拱辰等陳告事由拱辰亦惶恐不敢前來請速收兵旻等未至契丹先鋒已至昌化拱辰具陳前意契丹問國王安在答曰今往江南不知所在又問遠近答曰江南太遠不知幾萬里追兵乃還明年拱辰至契丹營乞班師契丹許之遂留拱辰等拱辰既被留內圖還計外示忠勤契丹主甚加寵遇拱辰與英起密謀奏曰本國今已喪亡臣等願領兵點檢而來契丹主許之尋聞國王還國使英起居中京拱辰居燕京皆妻以良女拱辰多市駿馬列置東路以爲歸計人告其謀契丹主鞠之拱辰具以實對且曰臣於本國不敢有

二心罪當死不願生事大朝契丹主義而原之諭令改節效忠拱辰辭益厲不遜遂殺之爭取心肝食之後王下教錄功加其子則忠祿資文宗六年制曰左司郎中河拱辰在統和二十八年契丹兵入侵臨賊忘身掉三寸舌能却大賊可圖形於閣上超授其子則忠五品職尋又錄其功贈尙書工部侍郎

하공진(河拱辰)은 성종조에 압록강구당사(鴨綠江勾當使)가 되었다가 목종조에 중랑장에 제수되었다. 임금의 병이 매우 심하니 친종장군(親從將軍) 유방(庾芳)과 중랑장 탁사정(卓思政)으로 더불어 항상 근전문(近殿門)에서 수직(守職)하다가 이어 상서좌사랑 중에 옮겼다. 현종이 거란(契丹)을 피하여 남쪽으로 행하니 하공진이 따라가서 길에서 배알하고 아뢰기를 “거란이 본래 토적(討賊)으로 명분을 삼았는데 이제 이미 강조(康兆)를 잡아갔으니 만약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면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릴 것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점을 쳐서 길괘를 얻었다. 드디어 하공진 및 고영기(高英起)를 보내어 표장(表狀)을 받들고 거란의 병영으로 가게 하였다. 하공진이 가서 창화현(昌化縣)에 이르러 표장을 낭장 장민(張旻)과 별장 정열(丁悅)에게 주어 먼저 거란군에 가서 말하게 하기를 “국왕이 꼭 와서 빗기를 원하였습니다마는 다만 병위(兵威)를 두려워하고 또 내간(內艱)으로 인하여 강남(江南)으로 피하였으므로 배신(陪臣) 하공진 등을 보내어 사유를 진고(陳告)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공진도 또한 황공하여 감히 앞으로 오지 못하니 청컨대 속히 군사를 거두게 하소서”라 하였다. 장민 등이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 거란의 선봉이 이미 창화현에 이르렀으므로 하공진이 앞에서의 뜻을 갖추어 뵈었다. 거란이 “국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므로 대답하여 이르기를 “지금 강남으로 갔으므로 소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원근을 물으므로 대답하기를 “강남은 매우 멀어서 몇 만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 하니 추병(追兵)이 곧 되돌아갔다. 이듬해 하공진이 계주영(契丹營)에 가서 군사를 되돌리기를 비니, 거란이 허락하고 드디어 하공진 등을 억류시켰다. 하공진이 이미 억류를 당하게 됨에 내심으로 돌아올 계책을 도모하면서 밖으로는 충근(忠勤)하는 태도를 보이니 거란주(契丹主)가 심히 총우(寵遇)를 더하였다. 하공진이 고영기로 더불어 가만히 모의하고 아뢰기를 “본국은 지금 이미 상망(喪亡) 되었으니 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점검하여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거란주가 허락 하였다가 얼마 후에 국왕이 환국한 것을 들어 알고 고영기를 중경(中京)에 살게

하고 하공진을 연경(燕京)에 살게 하여 모두 양가의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이에 하공진은 준마를 많이 사서 동로(東路)에 벌려두고 돌아갈 계책을 삼더니 어떤 사람이 그 계책을 밀고하였다. 거란의 임금인 국문(國文)이 하공진을 갖추어 사실대로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본국에 대하여 감히 두 마음을 가지지 못하겠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살아서 대조(大朝:거란)를 섬기기를 원치 아니합니다.”라 하였다. 거란의 임금이 의롭게 여기어 용서하고 절개를 고치어 충성을 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하공진의 말이 더욱 모질고 불손하니, 드디어 죽이고 다투어 그 심간(心肝)을 취하여 먹었다.

뒤에 국왕이 하교하여 공훈을 책록하고 그 아들 척충(則忠)에게 봉록과 품계를 더하였다. 문종 6년에 제(制:임금의 명령하는 글)하여 이르기를 “좌사랑중 하공진은 통화(統和) 28년(1010)에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적에 임하여 몸을 잊어버리고 세 치의 혀를 휘둘러 능히 대적을 물리쳤으니 그 얼굴을 그려서 각상(閣上)에 걸게 하라.”하고 그 아들 척충에게 서열을 뛰어넘어 5품직을 주었다. 얼마 후에는 또 그 공을 새겨서 상서공부시랑을 추증하였다.(고려사 및 여지승람에 보인다.)

● 강민첨(姜民瞻)

姜民瞻穆宗朝登第顯宗時東女眞寇清河延日長鬐縣民瞻與文演李仁澤曹子奇爲都部署往督州軍兵擊走之拜內史舍人又以大將軍副姜邯贊大破契丹蕭遜寧於興化在義州鎮遜寧引兵直趨京都民瞻追及於慈州今慈山郡來口山又大破之擢鷹揚上將軍柱國轉右散騎常侍賜推誠致理翊戴功臣號明年知中樞事兵部尙書十二年卒上輟朝三日贈太子太傅民瞻起自書生射御非其所長然志氣剛果屢立戰功遂顯達後下教錄功加其子旦祿資文宗卽位制曰太中祥符十一年契丹侵入兵部尙書知中樞院事姜民瞻奮擊大捷於盤嶺之野契丹奔北投戈委甲行路隘塞俘斬萬級追念其功合行褒獎可圖形功臣閣以勸後人見

강민첨(姜民瞻)은 목종조에 등제하였다. 현종조에 동여진이 청하(清河), 연일(延日), 장기현(長鬐縣)에 입구(入寇)하니 강민첨이 문연(文演), 이인택(李仁澤), 조자기(曹子奇)로 더불어 도부서로 삼아 가서 주군의 군사를 독려하고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므로 내사사인을 배명(拜命) 되었다. 또 대장군으로서 강감찬(姜邯贊)을 도와 거란(契丹)

의 소손녕(蕭遜寧)을 흥화진(興化鎭:의주에 있다)에서 크게 꺾었다. 소손녕(蕭遜寧)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경도(京都:서울)로 달려오니 강민첨이 자주(慈州:지금의 자산군)의 내구산(來口山)에 추급(追及)하여 또 크게 꺾었다.

이어 응양상장군주국(鷹揚上將軍柱國)에 발탁되었다가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전임되었다. 또 추성치리익대공신(推誠致理翊戴功臣)의 호를 하사받고 이듬해에 지중추사 병부상서가 되었다가 20년에 졸하니 임금은 3일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태자태부를 추증하였다.

강민첨은 서생으로 일어나서 활쏘기와 말타기는 그의 소장(所長)이 아니었으나 지기가 굳세고 과감하여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 드디어 현달(顯達)하였다. 뒤에 하교하여 공을 기록하고 그 아들 단(坦)에게 봉록과 품계를 더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여 제(制:조칙)하여 이르기를 “태중상부(太中祥符:송의 년호) 11년(1018)에 거란이 침입했을 때에 병부상서 지중추사 강민첨이 분격하여 반령(盤嶺)의 들에서 대첩하니 거란이 분패(奔北)하여 무기고를 던지고 갑옷을 버리어 길이 막혔다.

“만급(萬級)을 사로잡고 베었으니 그 공을 추념하여 포장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얼굴을 그려 공신각에 걸어 후인에게 권장토록 하라.”라 하였다.

● 강창서(姜彰瑞)

姜彰瑞幼屬本州鄉校力學善屬文江南學者無出其右者熙王八年春將赴省試父司戶適坐罪繫獄詣州請免放官不肯諾乃曰爾若登壯元可免緩其獄以待果爲壯元泊錦還牧伯率幕僚州吏出迎于城外仍詣其家大開宴席觴父母以慶之一境榮之累遷直翰林院(見勝覽)

강창서(姜彰瑞)는 어려서 본 고을의 향교에 소속되었더니 힘써 배우고 글을 잘 지어 강남(江南)에 학자로서는 그 보다 나은 이가 없었다. 희종(熙宗) 8년 봄에 성시(省試:과거)에 가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호(司戶)가 마침 죄에 걸리어 옥에 갇혔으므로 주에 가서 방면해 줄 것을 청했으나 관원이 허락하지 않고 이에 말하기를 “네가 만약 장원으로 급제해서 오르면 방면할 수 있다.”라 하고 옥사를 늦추고 기다렸다. 과연 장원이 되어 금의환향함에 이르러서는 고을원이 막료와 주리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가서 맞이

하였다. 그리고 그 집으로 나아가서 연석을 크게 베풀고 부모에게 술잔을 돌리어 경축하니 일경(一境)이 영화롭게 여겼다. 여러 번 옮겨서 한림원에 나아갔다. (승람에 보인다.)

● 강인문(姜引文)

姜引文博士啓庸之子父子皆以儒顯啓庸嘗以書狀通信日本也引文從行及元朝征日本以曾知道里又舉爲書狀官風濤險艱且因兵交累濱於死及還不復仕戒子孫不業儒故子監察御史師瞻孫門下侍中昌貴皆由吏以進曾孫君寶性敏好學復業儒登科位至宰輔諡文敬(見勝覽)

강인문(姜引文) 박사는 강계용(姜啓庸)의 아들이니 부자가 모두 유학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강계용이 일찍이 서장관으로 일본에 통신한 일이 있어서 인문도 따라갔다. 원조(元朝)가 일본을 정벌하기에 미처서는 일찍부터 길을 안다는 것으로써 또 서장관으로 천거되었더니 파도가 험하고 또 군사들의 교전으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음에 빠질 뻔하였다. 본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벼슬하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경계하여 유학을 못하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아들 감찰어사 강사침(姜師瞻)과 손자 문하시중 강창귀(姜昌貴)는 모두 이속(吏屬:하급관리)을 경유하고 나아갔고 증손 강군보(姜君寶)는 성품이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다시 유학을 업으로 삼아 등과한 뒤에 지위가 재상에 이르러서는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 하을지(河乙訖)

河乙訖忠惠朝壯元及第官至鷄林元帥(見勝覽)

하을지(河乙訖)는 충혜왕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한림원수에 이르렀다. (승람에 보인다.)

● 하윤린(河允潏)

河允潏恭愍王時知肅川郡僞王耳帖木兒入寇諸道軍將往來皆道于肅川公待之無闕爲政以仁恕爲本抽斂節而刑罰省吏民德之官至順興府使贈贈領議政(見勝覽肅川名宦)

하윤린(河允潾)은 공민왕조에 지숙천군(知肅川郡)이었던니 위왕(僞王) 이첩목아(耳帖木兒)가 입구(入寇)하자 여러 도의 군사와 장수가 왕래하면서 숙천에 이르니 공이 접대에 궐함이 없었고 정사를 함에 있어서는 인서(仁恕)로서 근본을 삼으며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고 형벌을 덜게 하니 리민들이 덕으로 여겼다. 벼슬이 순흥부사에 이르렀고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승람에 숙천 명환에 보인다.)

●하윤원(河允源)

河允源楫之子忠惠末登第恭愍朝以典理摠郎從諸將克復京城策功爲二等嘗出按慶尙西海楊廣交州四道牧原尙二州所至有聲績辛旽用事允源不諂附辛禍初擢拜大司憲封晋山君書知非誤斷皇天降罰八字於板每赴臺必掛之然後視事居母憂廬墓禍下書徵之曰三年行喪雖古今之通制百日卽吉因時以從宜可移孝以爲忠其抑哀而赴召書未至卒子有宗自宗啓宗(見麗史及勝覽)

하윤원(河允源)은 하집(河楫)의 아들이니 충혜왕 말년에 등제하였더니 공민왕조에 전리총랑이 되어 여러 장수를 따라 경성(京城)을 잘 회복시켜서 공훈을 책록하여 2등이 되었다. 일찍이 벼슬에 나가 경상(慶尙)·서해(西海)·양광(楊廣)·교주(交州) 4도의 안찰사를 지내고 원주(原州)와 상주(尙州)의 목사가 되어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신돈(辛旽)의 용사(用事)에도 윤원은 아첨하거나 붙지 아니하였다. 우왕 초년에 뽑히어 대사헌에 배(拜)하고 진산군(晉山君)으로 봉하였다. “그릇된 것을 알면서 잘못 결단하면 황천(皇天)이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여덟 글자를 나무판에 써서 매양대(臺:사헌부)에 가면 반드시 걸어 놓은 연후에 일을 보았다. 어머니의 상으로 여묘살이를 하니 우왕이 글을 내려 부르기를 “3년의 행상(行喪)이 비록 고금에 두루 통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100일로써 길(吉)에 나아가는 것은 시세를 따라 편리함을 쫓는 일이다. 효를 옮겨 충으로 삼고 그 애통함을 억제하고 부름에 달려오라.”라 하였다. 글이 이르지 못하여 졸하였으며 아들은 유종(有宗)과 자종(自宗) 계종(啓宗)이다. (고려사 및 승람에 보인다.)

●정을보(鄭乙輔)

鄭乙輔贈尙書工部侍郎封菁川君善屬文(見勝覽)

정을보(鄭乙輔)는 상서 공부시랑을 추증하고 청천군(靑川君)으로 봉했으며 글을 잘 지었다.(승람에 보인다.)

● 강시(姜耆)

姜耆年十九中成均館試歷版圖判書門下贊成事賜推忠輔祚功臣號封晉山君諡恭穆(見勝覽)

강시(姜耆)는 나이 19세에 성균관에 합격하였고 판도관서 문하찬성사를 역임하였으며 추충보조공신(推忠輔祚功臣)의 호를 내리고 진산군(晉山君)으로 봉했으며 시호는 공목(恭穆)이다.(승람에 보인다.)

● 정온(鄭溫)

鄭溫政丞碩之子官至資憲大夫前朝末托疾青盲棄官歸家我太祖累聘不起遣中使欲審其眞僞以松葉刺目而瞳子不搖雖家人父子莫知其由一日獨坐左右無人鷄兒來啄場粟公低聲味味夫人欲試之曰有見乎公曰聞聲未見物也(居上寺里隅谷村)

정온(鄭溫)은 정승 정석(鄭碩)의 아들이다. 벼슬이 자헌대부에 이르렀다. 고려말에 청맹과니 라고 청탁하고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태조(太祖:이성계)가 여러 번 초빙하였으나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내시를 보내어 그 진위를 살펴보고자 솔잎으로써 동자를 찔러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비록 가인(家人)이나 부자일지라도 그 연유를 알지 못하더니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좌우에 사람이 없었는데 병아리가 와서 마당에 있는 곡식을 쪼아 먹으며 공이 낮은 소리로 “주주”라고 하므로 부인이 시험해 보고자 말하기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소리만 들었지 물건은 보지 못하였다.”라 하였다.(상사리 우곡촌에서 살았다.)

● 강희백(姜淮伯)

姜淮伯贊成事耆之子辛禍初登第累遷成均館祭酒密直提學副使僉書司書賜推忠協輔功臣號恭讓即位以淮伯趙浚徐均衡李至爲世子師淮伯以年少無學固辭陞判密直司事兼吏曹判書上疏諫造佛造塔及遷都漢陽等事王納之出爲交州江陵道都觀察黜陟使

召還拜政堂文學兼大司憲又因災異言修明政刑以答天心王從之諫官金震陽等承鄭夢周指意劾趙浚鄭道傳等罪淮伯亦率臺官上疏論劾浚等及鄭夢周死震陽等皆杖流淮伯以王壻淮季兄得不坐遂稱疾辭職金子粹等以爲震陽淮伯罪同罰異請削淮伯及柳沂等職流遠地王不得已從之流淮伯於晋州入本朝爲東北面道巡問使卒年四十六有通亭集行于世子宗德友德進德碩德順德(見麗史及勝覽)

강회백(姜淮伯)은 찬성사 강시(姜蓍)의 아들이다. 우왕 초에 등제하여 여러 번 옮겨서 성균제주가 되었다가 밀직제학 부사 첨서사사가 되고 추충협보공신(推忠協輔功臣)의 호를 받았다. 공양왕이 즉위하여 강회백(姜淮伯) 조준(趙浚) 서균형(徐均衡) 이지(李至)로 세자사를 삼으니 강회백은 나이가 적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하여 고사하매 판밀직사사 겸 이조판서에 승진시켰다.

임금에게 상소하여 불상을 만드는 것, 탑 만드는 것 및 한양으로 천도하는 등의 일을 간하니 임금이 받아 들였다. 외직으로 나가 교주(交州)와 강릉(江陵) 도출척관찰사로 나가다가 소환되어 정당문학 겸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또 재이(災異)로 인하여 정형(政刑)을 받게 닦아서 천심에 답할 것을 말하니 임금이 따랐다. 간관 김진양(金震陽) 등이 정몽주(鄭夢周)의 지시를 받아 조준과 정도전(鄭道傳) 등을 탄핵하니 강회백도 또한 대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조준 등을 논핵(論劾)하였다. 정몽주가 죽고 김진양 등이 모두 장유(杖流) 되었으며 강회백은 임금의 사위 강회계(姜淮季)의 형이었기 때문에 연좌되지 아니하였다. 병을 청탁하고 사직하니 김자수(金子粹) 등이 말하기를 “김진양과 강회백은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청컨대 강회백 및 유기(柳沂)의 관직을 깎고 원지로 유배케 하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부득이 하여 이에 따라 강회백을 진주(晉州)에 귀양 보내었다.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동북면도순문사가 되었다가 졸하니 나이 46세였다. 『통정집(通亭集)』이 있어서 세상에 행하는데 아들은 종덕(宗德), 우덕(友德), 진덕(進德), 석덕(碩德), 순덕(順德)이다. (고려사 및 승람에 보인다.)

本朝

● 하륜(河崙)

河崙高麗末登第歷敷中外有經濟之才佐我太宗定社佐命功臣封晉山府院君官至領議政諡文忠公配太宗廟庭有浩亭集(見勝覽)

하륜(河崙)은 고려말에 등제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고 력양(歷敷:역창함)하고 경제제민의 재질이 있었다. 태종을 도와 정사좌명공신(定社佐命功臣)이 되고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으로 봉했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시호를 문충공(文忠公)이라 하였다. 태종묘정에 배향되고 『호정집(浩亭集)』이 있다. (승람에 보인다.)

● 하연(河演)

河演允源之孫登第官至領議政號敬齋終身從事於敬爲世名儒歷事三朝卒配享文宗廟庭諡文孝早年出入圃隱之門忠孝純至恬簡剛明風儀端雅以扶正道興斯文爲己任平居鷄鳴櫛櫛整衣冠拜家廟向闕而坐手不釋卷必以古人自期嘗自警曰貴則近禍富則不仁何如雲壑頤養精神一瓢顏巷樂在其中三徑陶園皓月清風聖賢尙然況乎小儒屋八九間可容殘軀田數十畝足慰飢渴我安我分不趨利欲云其年尊位高自警如此(見勝覽)

하연(河演)은 하윤원(河允源)의 손자요 등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호를 경재(敬齋)라고 하였으니 종신토록 경(敬)에 종사하여 일세의 명유가 되어 삼조(三朝:태종, 세종, 문종)를 역사(歷事)하였다. 출한 뒤에 문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를 문효(文孝)라 하였다. 조년에 포은(圃隱)의 문하에 출입하여 충효가 순지(純至)하고 성품이 염간(恬簡:마음이 고요하고 간결함), 강명(剛明:강직하고 분명함)하며 풍의(風儀)가 단아하였다. 정도를 부식(扶植)하고 사문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으며 평소에 닭이 울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서 가묘에 절하고 대궐을 향하여 앉았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고 반드시 고인으로써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일찍이 스스로 경책(警策)하여 이르기를 “귀하게 되면 화가 가까워지고 부하게 되면 어질지 못하게 되나니 어떻게 하겠는가? 운학(雲壑:구름이 걸려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 정신을 기르고 한 개의 표주박으로 안자가 살던 거리에 살더라도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삼경(三徑:세 갈래의 작은 길, 즉 은자가 사는 곳)이 있는 도원명(陶園明)의 동산에도 밝은 달과 청풍은 그대로 있다. 성현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하물며 소유(小儒)이겠는가? 집은 8~9

칸이면 노쇠한 몸을 용납할 만할 것이요, 받은 수 십 마지기만 있으면 기갈을 위로하기에 족할 것이니 나는 나의 분수를 지킬 것이요 이욕에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라 하였다. 그는 나이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스스로 경책함이 이와 같았다.(승람에 보인다.)

● 하경복(河敬復)

河敬復武舉官至議政府贊成事諡襄靖(見勝覽)

하경복(河敬復)은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 찬성사에 이르렀고 시호를 양정(襄靖)이라 하였다.(승람에 보인다.)

● 하경리(河敬履)

河敬履敬復之弟敬復以武略掌北門二十餘年朝廷議以公授環晉八九邑之宰以養母夫人

하경리(河敬履)는 하경복(河敬復)의 아우다. 하경복이 무략이 있기 때문에 북문을 관장하기를 20여 년이 되니 조정에서 의논하여 공으로써 진주를 둘러있는 8~9고을의 고을 원으로 제수하여 모부인을 봉양케 하였다.

● 하한(河漢)

河漢敬復之子亦以武勇稱官至中樞諡剛莊(見勝覽)

하한(河漢)은 하경복(河敬復)의 아들이니 역시 무용으로써 일컬었고 벼슬이 중추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강장(剛莊)이다.(승람에 보인다.)

● 정이오(鄭以吾)

鄭以吾登第官至都總制諡文定公有郊隱集

정이오(鄭以吾)는 과거에 올라 벼슬이 도총제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정(文定)인데 시에 능하여 문집으로 『교은집(郊隱集)』이 있다.

● 하충(河滌)

河滌敬履之子文科司憲府持平

하충(河滌)은 하경리(河敬履)의 아들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의 지평을 지냈다.

● 정척(鄭陟)

鄭陟以鄉貢登第官至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諡恭戴性勤恪清介自守凡朝廷儀禮多所擬議世祖常語之曰 世宗以清直二字許卿言猶在耳仍賜衣馬(見勝覽)

정척(鄭陟)은 향공(鄉貢:지방과거)를 거쳐 등제하여 벼슬이 중추원사 수문전 대제학에 이르렀고 시호를 공대(恭戴)라 하였다. 성품이 근각(勤恪)하고 청개(淸介)함을 스스로 지켰으며 조정의 의례를 의의(擬議:미루어 생각함)한 바가 많았다. 세조가 항상 말하기를 “세종에서 청직 두 글자로서 경을 허락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다.”라 하고 이어 옷과 말을 하사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 강석덕(姜碩德)

姜碩德淮伯之子官至敦寧府事諡戴愍有玩易齋集(見勝覽)

강석덕(姜碩德)은 강희백(姜淮伯)의 아들이니 벼슬이 돈녕부사에 이르렀고 시호를 대민(戴愍)이라 하였으며 『완역재집(玩易齋集)』이 있다. (승람에 보인다.)

● 강희안(姜希顔)

姜希顔碩德之子登第官至仁順府尹有文名篆隸眞草與畫俱妙(見勝覽)

강희안(姜希顔)은 강석덕(姜碩德)의 아들이니 과거에 올라 벼슬이 인순부윤에 이르렀고 문명이 있고 전(篆)·예(隸)·진(眞)·초(草)와 그림에 모두 절묘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 강희맹(姜希孟)

姜希孟希顔之弟丁卯科壯元以翊戴佐理功臣封晋山君官至議政府左贊成諡文良詩文精深醞藉有私淑齋集十七卷(見勝覽)

강희맹(姜希孟)은 강희안(姜希顔)의 아우다. 정묘년의 과거에 장원하고 익대좌리공

신으로 진산군(晋山君)으로 봉해졌으며 벼슬이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시문에 정심(精深) 온자(醞藉)하였으며 『사숙재집(私淑齋集)』 17권이 있다.(승람에 보인다.)

● 강맹경(姜孟卿)

姜孟卿淮伯之孫也登第所歷皆清要 世祖朝以左翼功臣封晋山府院君官至領議政諡文景(見勝覽)

강맹경(姜孟卿)은 강희백(姜淮伯)의 손자이니 과거에 올라 지낸 바의 벼슬이 모두 청요(清要)한 것이었다. 세조때에 좌익공신으로 진산부원군(晋山府院君)으로 봉했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경(文景)이다.(승람에 보인다.)

● 하숙산(河叔山)

河叔山 世祖朝親試壯元官至樂安郡守后以疾不仕(見勝覽)

하숙산(河叔山)은 세조 때 친시에서 장원에 올랐고 벼슬이 낙안군수에 이르렀더니 그 뒤에 병이 들어 벼슬하지 아니하였다.(승람에 보인다.)

● 강자평(姜子平)

姜子平丁丑文科壯元再爲承旨官至全羅道觀察使弟子順尙翁主爲班城尉子謙官正郎燕山戊午杖流(見勝覽)

강자평(姜子平)은 정축년 문과에 장원하여 두 번이나 승지가 되고 벼슬이 전라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아우 자순(子順)은 옹주에게 장가들어 반성위(班城尉)가 되었으며 자(子) 겸(謙)은 정랑이니 연산 무오년에 장유(杖流)되었다.(승람에 보인다.)

● 정성근(鄭誠謹)

鄭誠謹陟之子爲人忠厚清直登第官至承旨嘗爲成廟心喪三年燕山朝被殺子舟臣登第早沒(見勝覽)

정성근(鄭誠謹)은 정척의 아들이니 사람됨이 충후(忠厚), 청직(淸直)하고 과거에 올라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성종을 위하여 3년의 심상(心喪)을 치렀으며 연산군 때에 죽음을 당하였다. 아들 주신(舟臣)이 과거에 올랐다가 일찍 죽었다.(승람에 보인다.)

● 하숙부(河叔溥)

河叔溥敬復之孫登武科官至參判以清簡稱諡敬節(見勝覽)

하숙부(河叔溥)는 하경복의 손자니 무과에 올라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더니 청간(淸簡)으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다. 시호는 경절(敬節)이다.(승람에 보인다.)

● 강구손(姜龜孫)

姜龜孫希孟之子登第官至右議政諡肅憲(見勝覽)

강구손(姜龜孫)은 강희맹의 아들이니 과거에 올라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숙헌(肅憲)이다.(승람에 보인다.)

● 류순정(柳順汀)

柳順汀有文武才魁丁未科歷擢中外當燕山末與成希顏朴元宗等決策靖國官至領議政諡文定(見勝覽)

류순정(柳順汀)은 문무에 재질이 있어 정미년에 과거에서 장원으로 올랐고 중앙과 지방의 벼슬을 두루 지냈다. 연산군 말년에 성희안(成希顏), 박원종(朴元宗) 등으로 더불어 계책을 결단하고 정국(靖國:중종반정) 하였다.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승람에 보인다.)

● 강혼(姜渾)

姜渾早登第工文章燕山戊午遠方付處後封晉州君官至判中樞諡文簡(見勝覽)

강혼(姜渾)은 일찍 과거에 올랐고 문장에 능하였다. 연산군 무오년에 원방에 부쳐되었다가 뒤에 진주군(晉州君)에 봉하였고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승람에 보인다.)

● 강형(姜誦)

姜誦子平之子登第官至大司諫燕山甲子被殺中廟初贈參判(見勝覽)

강형(姜誦)은 강자평(姜子平)의 아들이니 과거에 올라 벼슬이 사간에 이르렀더니 연산군 때 갑자사화에 죽음을 당하였다. 중종 초에 참관을 추증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 조숙기(曹叔沂)

曹叔沂登第官至觀察使(見勝覽)

조숙기(曹叔沂)는 과거에 올라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승람에 보인다.)

● 정분(鄭莘)

鄭莘文定公以吾之子 永樂丙申別科 文宗朝官至右議政有器局靖亂時方自嶺南回至忠州見徇首行至用安驛前京官馳駟來遇路上喝有傳旨公卽下馬再拜問京官曰受刑路中不祥可就驛館否官曰不然但受傳旨押歸謫所耳公又再拜曰生我耶還上馬與官偕行官曾爲公之郎吏謂公必問朝廷事難於應答而赴樂安郡十餘日朝暮同處一不開問到謫所勞苦謝別而已公在謫常奉先祖神主祭祀一夕睡起謂隨行僧曰汝精具一飯吾祀吾祖既祭盡焚其神主俄而使至賜死(見搜聞瑣錄)

정분(鄭莘)은 문정공(文定公) 정이오(鄭以吾)의 아들이다. 영락(永樂) 병신년(태종 16년 1416)에 별과에 합격하고 문종때에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기국(器局:재능과 도량)이 있더니 계유정난 때에 마침 영남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충주에 이르러 순수(殉首: 목을 베어 조리틀림을 함)의 행렬을 보고 용안역(用安驛) 앞에 이르러 경관(京官)이 역마(驛馬)로 달려오는 것을 노상에서 만나자 전지(傳旨)가 있다고 큰소리로 외치는 말을 들었다. 공은 말에서 내려 재배하고 경관에게 말하기를 “길 북관에서 형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니 역관(驛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 경관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지를 받으시면 적소(謫所)로 압송하여 돌아갈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공은 또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나를 살리는 것이냐?”라 하고 말에 올라 관원으로 더불어 함께 갔다. 관원은 일찍 공의 낭리(郎吏)였으므로 공이 반드시 조정의 일을 물을 것인데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낙안군(樂安郡)에 이르기

까지 10여 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함께 있으면서 공은 한번도 입을 열어서 묻지 아니하였다. 적소에 이르러서야 노고를 치하하고 헤어졌을 뿐이었다.

공은 적소에 있으면서 항상 선조의 신주를 받들어 제사를 모시더니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서 수행한 승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정성 드려서 밥 한 그릇을 마련하여라. 내가 나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끝내고 그 신주를 불태운 다음 조금 있으니 사자(使者)가 이르러 사사하였다. (『소문쇄록(謏聞瑣錄)』에 보인다.)

● 이해(李惠)

李惠官至知甫州事以詩禮名世所著詩載青邱風雅文景公姜孟卿其外孫也(居班東山里宅只洞)

이혜(李惠)는 벼슬이 지보주사에 이르렀다. 시례(詩禮)로써 세상에 이름났고 지은 시는 『청구풍아(靑邱風雅)』에 실려있다. 문경공(文景公) 강맹경(姜孟卿)은 그의 외손이다. (반동산리 택지동에 살았다.)

● 정여창(鄭汝昌)

鄭汝昌字伯勗號一蠹河東人也愛岳陽山水之勝自咸陽移居于岳陽縣西陶灘癸卯中司馬庚戌除參奉不就登文科選補翰林求外除安陰縣監戊午之禍謫鍾城甲子卒丁丑贈右議政乙亥贈諡文獻庚戌配享文廟(詳見文集)

정여창(鄭汝昌)의 자는 백옥(伯勗)이요 호는 일두(一蠹)이니 하동인이다. 악양(岳陽)의 산수 좋은 경치를 사랑하여 함양(咸陽)으로부터 옮겨와서 악양현(岳陽縣)의 서쪽 도탄(陶灘: 지금의 하동군 화개면 덕리)에서 살았다. 계묘년(1483)에 사마에 합격하고 경술년(1490)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했다. 문과에 올라 한림에 선보(選補)되었으나 외직(外職)을 구하여 안음현감(安陰縣監)에 제수되었다. 무오년(1498)의 사화로 종성(鍾城)에 귀양 갔다가 갑자년에 풀하였다. 정축년(1517)에 우의정을 추증하고 을해년(1575)에 시호를 내리어 문헌(文獻)이라 하였으며 경술년(1610)에는 문묘에 배향하였다. (문집에 자세히 나와 있다.)

● 이인형(李仁亨)

李仁亨咸安人成化戊子登文科壯元有詩名嘗落第作詩曰雪裏青松雨後山看時容易
畫時難早知不入時人眼寧買臙脂寫牡丹其後果捷壯元人多稱之官至大司憲以清簡稱
戊午禍及泉壤丙寅靖國追贈漢城判尹(見勝覽金山名宦居加佐村)

이인형(李仁亨)은 함안인이니 성화(成化) 무자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올랐고 시로써 이름이 있었다. 일찍이 낙제하여 시를 지어 이르기를 “눈 속에 푸른 솔과 비 온 뒤의 산 모습은, 볼 때는 쉽지만은 그럴 때는 어렵다네. 일찍이 당시 사람의 눈에 못들 줄 았았더라면, 차라리 연지(臙脂)를 사서 목단을 그럴 것을…” 라고 하더니 그 뒤에 과연 장원에 올라 사람들이 많이 일컬었다.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러 청간(淸簡)으로써 칭송을 받으니 무오년에 화가 무덤에 미쳤다. 병인년에 정국(靖國)이니 한성판윤을 추증하였다.(승람의 금산명환(金山名宦)에 보인다. 가좌촌에 살았다.)

● 조지서(趙之瑞)

趙之瑞字伯符號知足堂林川人成化甲午中生員壯元進士第二文丙科官至侍講院輔
德死於甲子之禍丙寅改玉 贈承政院都承旨(居桐谷里三壯元洞)

조지서(趙之瑞)의 지는 백부(伯符)요 호는知足당(知足堂)이며 임천인이다. 성화(成化) 갑오년(1474)에 생원에서는 장원으로, 진사에서는 제2등으로 문과의 병과에 합격하였다. 벼슬이 시강원 보덕에 이르렀더니 갑자의 화에 죽었으며 병인년(1506)에 개옥(改玉:중종반정)뒤에 승지원도승지를 추증하였다.(동곡리 삼장원동에 살았다.)

● 조윤손(曹潤孫)

曹潤孫昌寧人觀察使叔沂之子以武出身官至正憲大夫兵曹判書詳見碑文(居松谷里)

조윤손(曹潤孫)은 창녕인이니 관찰사 조숙기(曹叔沂)의 아들이다. 무로써 출신하여 벼슬이 정헌대부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자세한 것은 비문에 나타나 있다.(송곡리에 살았다.)

● 정은부(鄭殷富)

鄭殷富司果亨孫之子弘治己酉中武舉勇略冠一時歷仕中外有古名將風朝廷特除公右道水使己巳丁父憂居廬庚午三浦倭亂陷熊川有旨命公公不得已赴戰與曹潤孫馳入敵陣揮劍殲盡潤孫所騎馬爲倭所傷仆地公拉取潤孫并騎以出得免焉曹以此爲有再生之恩約婚姻納殷富之子鄭沆爲其壻欲試其才立麻骨於百步外射之發無不中與古穿楊葉者無異(居代如村)

정은부(鄭殷富)는 사과 정형손(鄭亨孫)의 아들이다. 홍치(弘治) 기유년(1489)에 무과에 합격하고 용략(勇略)이 일시에 으뜸이었다니 내외에 벼슬을 지내어 옛날 명장의 품모가 있었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공을 우도수사로 제수하였다. 기사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여막(廬幕)에 있더니 경오년(1510)의 삼포왜란에 웅천(熊川)이 함락됨에 임금이 전지(傳旨)하여 공에게 명령을 내렸다. 공은 부득이 하여 싸움터로 달려가서 조윤손(趙潤孫)과 함께 적진으로 말을 달려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 모두 섬멸하였다. 이때에 조윤손이 탄 말이 왜적에게 부상을 당하여 땅에 넘어졌으니 공이 조윤손을 끌어 당겨 함께 타고 나와서 죽음을 면하였다. 조윤손은 이로써 재생의 은혜가 있다고 하여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정은부의 아들 정항(鄭沆)을 그의 사위로 삼았다. 그의 재주를 시험코자 마골(麻骨)을 백보 밖에 세워두고 활을 쏘게 하였더니 쏘아서 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옛날에 머드나무 잎을 뚫었다는 솜씨와 다름이 없었다. (대여촌에 살았다.)

● 하운(河潤)

河潤字粹夫成化丁酉中進士癸卯登文科歷翰林持平官至順天郡守(居松谷里)

하운(河潤)의 자는 수부(粹夫)요 성화(成化) 정유년(1477)에 진사에 합격하고 계묘년에 문과에 올라 한림과 지평을 지내고 벼슬이 순천군수에 이르렀다. (송곡리에 살았다.)

● 손창(孫昌)

孫昌字彥謙密陽人成化乙酉中進士戊子登文科初拜翰林官至兵曹正郎(居離下里)

손창(孫昌)의 자는 언겸(彥謙)이요, 밀양인이다. 성화(成化) 을유년(1465)에 진사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문과에 올라 처음에는 한림에 임명되었다가 벼슬이 병조정랑이 이르

렀다.(이하리에 살았다.)

● 이령(李翎)

李翎仁亨之子正德己卯登賢良科官至承文院正字 (居加佐村)

이령(李翎)은 이인형(李仁亨)의 아들이니 정덕(正德) 기묘년(1516)에 현량과에 올라 벼슬이 승문원 정자에 이르렀다.(가좌촌에 살았다.)

● 어득강(魚得江)

魚得江字子游號灌圃咸從人弘治壬子中生員丙辰登文科燕山朝也性癖山水不求仕進見時事不靖托於謎語以自晦卜築於固城混沌山下自號混沌泳潭泗濱灌圃抱囊丈人中宗官至大司諫有詩集行于世退溪跋曰先生生有拔俗之標於詩尤長於律云

어득강(魚得江)의 자는 자유(子游)요 호는 관포(灌圃)며 함중인이다. 홍치(弘治) 임자년(성종 23, 1492)에 생원에 합격하고 병진년(1496) 문과에 올랐는데 연산조였다. 성벽(性癖)이 산수를 좋아하여 임진(仕進)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사가 편치 못함을 보고서는 미어(謎語:말더듬)에 청탁하고 스스로 자취를 숨기고 고성 혼돈산(固城 混沌山) 아래에 집을 짓고 자호를 혼돈(混沌), 영담(泳潭), 사빈(泗濱). 관포(灌圃), 포옹장인(抱囊丈人)이라 하였다. 중종조에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고 시집이 있어 세상에 행하였다. 퇴계(退溪)의 발문에 이르기를 “선생은 나면서부터 발속(拔俗)의 표(標)가 있었고 시에 있었어도 율시(律詩)이 더욱 뛰어났다.”라 하였다.

● 성안중(成安重)

成安重字德興昌寧人成化己丑生員弘治壬子登丙科官至承文院校理魚灌圃撰碑文曰爲人諄正談說隨矩云(居晉城面加佐村)

성안중(成安重)의 자는 덕여(德興)니 성화(成化) 기축년(예종 1, 1469)에 생원이 되고 홍치(弘治) 임자년에 병과에 올라 벼슬이 승문원 교리에 이르렀다. 어관포(魚灌圃)가 찬한 비문에 이르기를 “사람됨이 순정(諄正)하고 담설(談說)에는 법도를 따랐다.” 하였다.(진성면 가좌촌에 살았다.)

● 정사룡(鄭士龍)

鄭士龍字雲卿號湖陰東萊人也己巳登文科官至判中樞典文衡自京城流宜寧後移居本州

정사룡(鄭士龍)의 자는 운경(雲卿)이요 호는 호음(湖陰)이니 동래인이다. 기사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관중추에 이르고 문형(文衡)을 맡았다. 경성(京城)으로부터 의령(宜寧)에 유배왔다가 뒤에 본주(本州)에 옮겨와 살았다.

● 하우치(河禹治)

河禹治字平之登武科官至安州牧使所歷皆有聲績以公有專闢之材將大用宰安州時以病辭歸家食二十年而卒魚灌圃撰墓銘曰何以遺後二子清貧(居沙竹)

하우치(河禹治)의 자는 평지(平之)다. 무과에 올라 벼슬이 안주목사(安州牧使)에 이르렀더니 지나는 곳마다 모두 성적(聲績)이 있었다. 공을 일러 전곤(專闢:성을 지키는 것)의 재목이 있어 장차 크게 쓰일 것이라고 하더니 안주에 있을 때에 병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20년동안이나 휴양하다가 죽었다. 어관포(魚灌圃)가 찬한 묘명에 이르기를 “무엇을 후세에 남겼는가? 청빈한 두 아들이라네”라 하였다. (사죽에 살았다.)

● 성일휴(成日休)

成日休字子慶昌寧人校理安重之第三子也晦跡江湖絕意榮利自號無心翁名草堂曰無心亭臨方塘對明月皆以無心名之手書一絕於壁間曰編茅爲屋竹爲籬鑿破蒼苔作小池世間名利無心久只有清風明月知李龜巖作墓銘曰逍遙一世不求榮利云(居龜洞)

성일휴(成日休)의 자는 자경(子慶)이요 창녕인이니 교리 성안중(成安重)의 셋째 아들이다. 자취를 강호에 숨기고 뜻을 영리에서 끊었으며 자호를 무심옹(無心翁)이라 하고 초당을 이름하여 무심정(無心亭)이라 일렀다. 방당(方塘)에 임하고 명월(明月)을 대하여 모두 무심(無心)으로써 이름 지었다. 손수 한 절구를 벽간(壁間)에 써서 부쳤으니 “띠를 엮어 집을 삼고 대나무로 울을 삼아, 푸른 이끼 속을 파헤쳐서 못을 만들었는데. 세간의 명리에는 무심한 지 오래지만, 다만 청풍과 명월 있어 아는 척 하는구나.”라 하였다.

이구암(李龜巖)이 묘명을 지어 이르기를 “한 세상 소요하면서 영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네.”라 하였다.(귀동에 살았다.)

● 성일장(成日章)

成日章字子華日休之弟才藝超卓文名早著屢貫三場終未成名人皆惜之與姜應奎尹寧姜應奎齊名一時(居加佐村)

성일장(成日章)의 자는 자화(子華)요 성일휴(成日休)의 아우다. 재예가 초탁(超卓:남보다 뛰어남)하고 문명이 일찍 드러났으며 여러 번 삼장(三場:과거의 초시·복시·전시)을 꿰었으되 마침내 성명(成名)을 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강응규(姜應奎), 윤녕(尹寧), 강응태(姜應台)와 일시에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가좌촌에 살았다.)

● 윤녕(尹寧)

尹寧字靜佳號櫟翁坡平人修撰孝聘之第二子中進士與伯兄參奉宣講學于車院先亨早成文名尤長於詞賦與姜應奎唱酬成秩時人多稱之(居新塘里)

윤녕(尹寧)의 자는 정가(靜佳)요 파평인으로 호를 렵옹(櫟翁)이고 하였으니 수찬 윤효빙(尹孝聘)의 둘째 아들이다. 진사에 합격하고 백형인 참봉 윤선(尹宣)으로 더불어 학문을 차원(車院)의 선정(先亭)에서 강하여 일찍 문명을 이루었는데 사부에 더욱 뛰어났다. 강응규(姜應奎)와 더불어 창수(唱酬)하여 한 질(秩)을 만드니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일컬었다.(신당리에 살았다.)

● 강응규(姜應奎)

姜應奎字奎之嘉靖戊午中進士早有文名與州人進士俞伯溫尹寧齊名名重泮宮(居加佐村)

강응규(姜應奎)의 자는 규지(奎之)니 가정(嘉靖) 무오년(명종 13년, 1558)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어 고을 사람 진사 유백온(俞伯溫), 윤녕(尹寧)으로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고 이름이 반궁(泮宮:성균관)에서 무거웠다.(가좌촌에 살았다.)

● 유백온(兪伯溫)

兪伯溫字仲玉靈山人中進士家貧好讀書善屬文居泮宮有聲稱所與交皆當時知名之士南來使相及作宰近郡者或致饋遺一物不自私獻于父家庶母性罵無比而庭無間言有庶弟終男必男皆惡少也進士一日見方伯于蠹石大醉夜還終男等二人從之至沙遷上將欲投之巖下適值候僮之至未遑其計此後待之益厚(居鼎村)

유백온(兪伯溫)의 자는 중옥(仲玉)이요 영산인이다. 진사에 올랐고 집이 가난하였으되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글을 잘하였고 성균관에 있으면 칭찬이 있었다. 그가 함께 사귀어 사람은 모두 당시에 지명(知名)의 선비였으니 남쪽으로 오는 사신이나 가까운 고을원이 된 이들이 혹 음식을 보내거나 물건을 주면 스스로 사사롭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었다. 서모의 성품이 간악하게 견줄 데가 없었으되 가정에 간언(間言)이 없었고 서제(庶弟)에 종남(終男), 필남(必男)이 있더니 모두 악소년(惡少年)이었다. 진사가 어느 날 방백(方伯)을 축석루에서 만나보고 크게 취하여 밤에 돌아오는데 종남(終男) 등 두 사람이 따라오다가 사천(沙遷)의 위에 이르러 장차 물에 던지고자 하더니 바위 아래에서 기다리던 하인이 오는 것을 만나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하고 이 뒤로는 대우가 더욱 두터워졌다.(정촌에 살았다.)

● 정두(鄭斗)

鄭斗字以南嘉靖戊子中生員才氣卓越明於易學天文地理無不該通將來人事亦能前知又解鳥獸之音善屬文晚年所著呵筆賦膾炙人口(居東山里)

정두(鄭斗)의 자는 이남(以南)이니 가정(嘉靖) 무오년(명종 13년, 1558)에 생원시험에 합격하였다. 재기가 탁월하고 역학에 밝았으며 천문과 지리에 해통(該通)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장차 다가올 인사(人事)를 앞질러 알았고 또 새나 짐승의 소리를 알았으며 속문(屬文)을 잘하였다. 만년에 저술한 『가필부(呵筆賦)』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동산리에 살았다.)

● 정익(鄭翊)

鄭翊好學不倦恬靜無求早廢舉業養眞林下李判書俊民每以東谷丈人稱之(居上寺)

里)

정익(鄭翊)은 호학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편안하고 고요하여 구하는 것이 없었다. 일찍부터 거업(舉業)을 폐하고 임하(林下)에서 참된 본성을 기르니 판서(判書) 준민(李俊民)이 매양 동곡장인(東谷丈人)으로 일컬었다.(상사리에 살았다.)

● 이공량(李公亮)

李公亮字寅叔全義人才藝卓越累捷東堂竟北南宮仍未成名晚除慶基殿參奉嗜酒不羈家在王城所在多列樞要而終不肯一向朱門求進每與兄弟五人同聚一堂怡怡如也時人多敬重焉(居代如村佳坊)

이공량(李公亮)의 자는 인숙(寅叔)이요 전의인이다. 재예가 탁월하여 여러 번 초시(初試)에는 합격했으나 마침내 남궁(南宮)에서 실패하고 인하여 성명(成名)하지 못하였다. 늦게야 경기전 참봉으로 제수되었다. 술을 즐겨하여 거리낌이 없었고 집이 왕성(王城)에 있어 아는 사람으로 요직에 있는 이가 많았으며 끝까지 한번도 귀족들을 향하여 구진(求進)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매양 형제 다섯 사람이 함께 한 집에 모여 화목하고 즐거워하니 당시 사람들의 경중(敬重)히 여겼다.(대여촌 가방에 살았다.)

● 이공보(李公輔)

李公輔字直卿全義人以門蔭除玉果縣監居家以禮律身子弟有過則年齒雖長必撻之與鄉人飲酒雖或至醉而端坐不敬議論風發聞者莫不敬服(居佳坊)

이공보(李公輔)의 자는 직경(直卿)이니 전의인이다. 문음으로 옥과현감에 제수되었더니 집에 있을 때는 예로써 몸을 단속하였고 자제들이 허물이 있으면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반드시 매를 때렸다. 향인으로 더불어 술을 마시어 비록 혹 취하기에 이르더라도 단정히 앉아 흐트러지지 아니하였고 의론이 바람처럼 쏟아져 나오니 듣는 사람이 경복하지 아니하지 못하였다.(가방에 살았다.)

● 조식(曹植)

曹植字楨仲號南冥昌寧人居三嘉之兔洞村名其堂曰鷄伏溪上草亭曰雷龍舍以金海

爲妻鄉往來居之名其亭曰山海嘉靖辛酉入頭流山德山洞卜築于兩塘溪上號所居齋曰山天深藏自修者有年中明兩朝再除主簿而不就拜縣監而不起除司紙而以病辭又以尙瑞院判官徵之一出謝命上引入內殿問治亂之道及爲學工夫三顧草廬等事論對剴切明宗稱善歎賞翌日還山其後累徵不起隆慶辛未十二月疾作壬申二月八日終享年七十二乙卯贈領議政諡文貞見文集

조식(曹植)의 자는 건중(健仲)이요 호는 남명(南冥)이며 창녕인이다. 삼가(三嘉)의 토동촌(兔洞村)에 살면서 그의 당(堂) 이름을 계부(鷄伏)라 하였고 시내 위에 초정(草亭)을 짓고 뇌룡사(雷龍舍)라 일렀다. 김해가 처항이기 때문에 왕래하며 살더니 그 정자 이름을 산해(山海)라 하였다.

가정(嘉靖) 신유년(1561)에 두류산(頭流山) 덕산동(德山洞)으로 들어가서 양당(兩塘)의 시내 위에 터를 가려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재의 이름을 산천(山天)이라 하였다. 이름을 깊이 감추고 스스로 닦은 지가 여러 해이더니 중종·명종 양조에서 두 번이나 주부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현감을 제수하였으되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지를 제수하였으되 병으로써 사양하였다. 또 상서원 관관으로써 부르니 한 번 나가서 명령을 사례하였던 바 임금이 전내로 이끌어 들이고 치란의 도와 학문을 하는 일과 삼고초려 등의 일을 물었다. 이에 대한 논대(論對)가 간절하니 명종이 칭선(稱善)하고 탄상(歎賞)하였으나 그 다음날에 산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여러 번 불렀으나 일어나지 아니하다가 가경(嘉慶) 신미년 십이월에 병이 들어 임신년(1572) 2월 8일에 세상을 마치니 향년이 72세였다. 을묘년에 영의정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하였다. 자세한 것은 문집에 나타나 있다.

● 최영경(崔永慶)

崔永慶字孝元號守愚堂以洛中人師事南冥先生來居州之道洞村與弟餘慶居一室友愛篤至明宗朝初授參奉又除司畜又拜持平皆不就己丑逆變冤死王獄是宣祖庚寅歲也公平生孝友天性疾惡如讐非其人則不見是以寡合於世辛丑壬寅一道士子齊會抗章得伸其冤配享德川書院

최영경(崔永慶)의 자는 효원(孝元)이요 호는 수우당(守愚堂)이다. 낙중(洛中:서울)사

람으로서 남명선생을 사사하여 주의 도동촌(道洞村)에 와서 살더니 아우 여경(餘慶)으로 더불어 한 집에 살면서 우애가 돈독하고 지극하였다. 명종때 처음에는 참봉을 제수하고 또 사축을 제수하며 또 지평을 배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리다가 기축의 역변(逆變:정여립의 난)으로 왕옥(王獄:일도(一道))에서 원통하게 죽었는데 선조 경인년(1590)이다. 공은 평생 효도하고 우애가 있었다. 천성적으로 악을 싫어하기를 원수처럼 했다. 알맞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마을에 맞는 사람이 적었다. 임인년(1602) 온 도내외의 선비들이 함께 모여 항장(抗章:합의하는 장소)을 올려 그 원통함을 풀게 되고 덕천서원(德川書院)에 배향하였다.

● 최여경(崔餘慶)

崔餘慶字積元守愚堂之弟也娶州人鄭夢祥之女自漢陽陪守愚堂來居道洞同居一室事之如嚴父未嘗少懈以公薦爲監役轉爲新寧縣監己丑權臣以爲守愚之弟拿致鞫庭構殺之後伸冤追贈參議

최여경(崔餘慶)의 지는 적원(積元)이요 수우당(守愚堂)의 아우다. 이 고을 사람 정몽상(鄭夢祥)의 딸에게 장가들고 한양으로부터 수우당(守愚堂)을 모시고 와서 도동(道洞)에서 살았다. 한집에 같이 살면서 섬기기를 엄부와 같이 하여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공천으로 감역이 되었다가 신녕현감으로 전임되었더니 기축년에 권신(權臣)이 수우당의 아우라고 하여 국정(鞫庭)에 나치(拿致)하고 죄를 만들어 죽였다. 뒤에 신원이 되어 참의를 추증하였다.

● 이제신(李濟臣)

李濟臣字彥遇號陶邱鐵城人生於宜春縣天稟超凡個儻不羈十歲受業於鄉人安宙宙稱之以史庫財業豐饒不以爲己有分給兩妹表從成夢說甚貧乏給婢子俾供井曰十八歲丁外艱喪祭一依家禮二十一遊太學與裴紳金範金禧年呂應龜爲友上書請明倫堂從年齒坐事雖未成而聲名藉甚仁廟賓天服心喪三年時尹元衡李芑等當國用事謂公謗訕朝廷必欲置之死地公見機而退時鄭士龍以一鄉人常厚遇之請於鄭得清河訓導而歸芑問於鄭士龍曰李某今在何處士龍曰李某貧窮無賴人也頃得清河訓導而去芑曰此不足

數也遂寢其害意自此絕意世事放情物外遇水石清幽處輒徜徉終日手彈瓢琴或歌或舞時人不知其意也晚年從南冥先生入德川洞叩馬場居焉侍先生語多有悟透處先生稱之曰彥遇吾老友也常帶射革著棋之具先生責之曰何爲作少年事公卽吟一聯曰看棋口絕論人語射革心存反已思先生亟稱賞之年七十餘以疾終于陶邱陳克敬師友錄曰逍遙一世之上睥睨天地之間眞的論也其平生所著詩句多絕唱常居宜寧毛兒洞吟曰身居閣岬深深谷心對頭流上上峰又遊漢江濟州亭吟曰東西野闊稻香熟上下江深魚老肥時人謂之魚老肥先生梁應鼎爲晉牧時登轟石樓吟曰方丈陶邱老來登轟石樓天晴吟裏月江闊飲邊秋梁公稱賞之曰清疏骨格非應鼎所及遂閣筆

이제신(李濟臣)의 자는 언우(彦遇)요 호는 도구(陶邱)며 철성인이니 의춘현(宜春縣)에서 태어났다. 천품이 뛰어나고 뜻이 커서 얽매이지 아니하였고 열 살에 향인 안주(安州)에게서 수업하니 안주가 사고(史庫)라고 칭찬하였다. 재업(財業)이 풍요(豐饒)하였으되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두 누이에게 나누어 주었고 고종 사춘 성몽설(成夢說)이 매우 궁핍하매 비자(婢子)를 주어 물 길고 방아 찧는 일에 이마지하게 하였다. 18세에 부친상을 만나서는 상제를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였고 21세에 태학(성균관)에 들어가서 배신(裴紳)과 김범(金範)과 김희년(金禧年)과 여응구(呂應龜)로 더불어 벗을 삼았으며 글을 올려 명륜당에서는 연치(年齒)에 따라 앉는 자리를 정할 것을 청했더니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성명을 자자하였다. 인종이 승하함에 심상을 3년 동안 입었더니 당시에 윤원형(尹元衡)과 이기(李芑) 등이 나라 일을 처리하면서 공이 조정을 방산(謗訕)한다고 하여 기어코 사지에 빠트리고자 하므로 공은 기회를 보아 물러났다. 이 때에 정사룡(鄭士龍)이 한 고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두텁게 대접하였다. 정사룡에게 요청하여 청하(淸河) 훈도(訓導)를 얻어 돌아갔다. 이 때 이기가 정사룡에게 묻기를 “이모(李某)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 하니 정사룡이 말하기를 “이모는 빈궁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기에 얼마 전에 청하훈도를 얻어 갔소.”라 하였다. 이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히 헤아릴 것이 못된다.”라 하고 드디어 해꼬지 할 뜻을 그쳤다. 이로부터 세상 일에 생각을 끊고 물외(物外)에 뜻을 놓아 수석(水石)이 맑고 그윽한 곳을 만나면 문득 거닐며 종일토록 손으로 바가지 모양의 거문고를 타고 혹은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당시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만년에는 남명선생을 따라 덕천동 고마장(叩馬場)에

서 살면서 선생을 모셨다. 깨달음에 투철한 곳이 많아 선생이 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언우(彦遇)는 나의 노우(老友)다.”라 하였다. 항상 사혁(射革:활을 쏠 때 쓰는 것)을 띠고 바둑 도구를 가지고 다님으로 선생이 꾸짖기를 “어찌하여 소년과 같은 짓을 하는가?”라 하니 공이 즉시 일연(一聯)의 시를 읊어 이르기를 “기(棋)를 보는 것은 남의 혈뜻는 말을 끊는 것이요, 사혁(射革)이란 마음속으로 자기 반성을 생각함이로다.”라 하였다. 선생과 모든 사람들이 칭상(稱賞)하더니 나이 70여 세에 병들어 도구(陶邱)에서 죽었다.

진극경(陳克敬)의 사우록에 이르기를 “일세를 위에서 소요했고 천지의 사이에서 비예(睥睨:눈을 흘기고 세상을 봄)하였다.”라 하였으니 참으로 적론(的論)이라 하겠다. 그가 평생 지은바 시구는 절창이 많은데 일찍이 의령(宜寧) 모아동(毛兒洞)에 살면서 읊기를 “몸은 자굴산(閣岫山) 깊은 골짜기에 살지마는 마음은 두류산(頭流山) 상상봉(上上峰)을 대한 다네.”라 하였고 또 한강의 제천정(濟川亭)에 놀면서 읊기를, “동쪽 서쪽 들이 넓어 벼 향기 익었는데 위 아래로 강이 깊어 늙은 고기 살쪄구나!”라 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로비(魚老肥)선생”이라 하였다. 양응정(梁應鼎)이 진주목사가 되었을 때에 축석루(矗石樓)에 올라 읊기를, “방장(方丈)과 도구(陶邱)의 늙은이 축석루에 올라왔네. 개인 하늘 밝은 달을 읊조리니 저 강이 널찍하여 가을 기운을 마셨구나!”라 하니 양공(梁公)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청소(淸疏:맑고 탁 트임)한 골격(骨格)은 나 응정(應鼎)이 미칠 바가 못 된다.”라 하고 드디어 붓을 놓았다.

● 이정(李楨)

李楨字剛而號龜巖嘉靖丙申中文科別試壯元官至副提學師事退溪服 中仁兩廟喪三年年五十五遭母夫人喪自初至終不廢朝夕哭不出廬外享龜巖書院

이정(李楨)의 자는 강이(剛而)요 호는 구암(龜巖)이다. 가정(嘉靖) 병신년(1536)에 문과 별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퇴계(退溪)를 스승으로 섬겼고 중종과 인종의 상을 삼년 동안 입었으며 나이 55세에 모부인의 상을 만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저녁으로 곡을 폐하지 아니하였고 여막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구암서원(龜巖書院)에 모셨다.

● 이준민(李俊民)

李俊民字子修參奉公亮之子己酉中文科丙辰重試仕至議政府左參贊氣質軒豁正直立朝毅然有古大臣風(居大如村)

이준민(李俊民)의 자는 자수(子修)니 참봉 이공량(李公亮)의 아들이다. 기유년에는 문과에 합격하고 병진년에는 증시에 합격하여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다. 기질이 명랑하고 시원하고 정직하여 조정에 섬에 의연함이 옛 대신의 기풍이 있었다. (대여촌에 살았다.)

● 강원(姜源)

姜源字季清嘉靖壬子中生員丙辰登文科天性清簡無意營產六典州郡廉謹嚴明其爲清州人謂之三清先生蓋表德與州名俱是清字而爲政以清也(居元堂)

강원(姜源)의 자는 계청(季清)이니 가정(嘉靖) 임자년(명종 7, 155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병진년에 문과에 올랐다. 천성이 청간(清簡)하여 영산(營產)에 뜻을 두지 않았고 여섯 번이나 주군(州郡)을 맡았으며 엄근(廉謹)하고 엄명(嚴明)하였다. 그가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삼청(三清)선생이라고 일렀으니 대개 자와 주(州)의 이름이 모두 청자이며 정사를 하는 것이 맑았기 때문이다. (원당에 살았다.)

● 정관(鄭寬)

鄭寬字伯裕參奉碩贊之子早失所怙奉母至孝嚴教二弟皆得成名屢舉不中嘗爲奉化訓導(居上寺里)

정관(鄭寬)의 자는 백유(伯裕)니 참봉 정석찬(鄭碩贊)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정엄(鄭嚴)·정교(鄭教) 두 아우가 모두 성명을 얻었으며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함께 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봉화훈도(奉化訓導)가 되었다. (상사리에 살았다.)

● 정밀(鄭密)

鄭密字叔成訓導寬之弟嘉靖癸卯中進士戊午文科天性簡拙位官清謹吏畏民懷政績

最著歷典三郡寒無坐氈見忤時輩位不稱德官止宗簿寺僉正號三溪(居上寺里)

정밀(鄭密)의 자는 숙성(叔成)이니 훈도 정관(鄭寬)의 아우다. 가정(嘉靖) 계묘(중종 38, 1543)에 진사가 되고 무오년에 문과에 올랐다. 천성이 간졸(簡拙)하더니 벼슬에 나가서는 맑고 조심스러워서 관원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그리워하였으며 정치 공적이 가장 두드러져서 세 고을을 역임하였다. 추위도 앓을 방석이 없었으나 시배(時輩)에 거슬림을 당하여 지위가 덕에 맞지 않았다. 벼슬은 종부시 첨정에 그쳤고 호를 삼계(三溪)라 하였다.(상사리에 살았다.)

● 유응두(柳應斗)

柳應斗字樞甫嘉靖庚子俱中司馬丙午登文丙科官至郡守(居元堂)

유응두(柳應斗)의 자는 추보(樞甫)니 가정(嘉靖) 경자년(중종 35, 1540)에 생원과 진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병오년에 문과 병과에 올라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원당에 살았다.)

● 한여철(韓汝哲)

韓汝哲字仲明清州人嘉靖癸卯中生員戊申登文甲科選入翰林爲養親求補外治三邑皆有聲績官至司藝(居丁樹介)

한여철(韓汝哲)의 자는 증명(仲明)이니 청주인이다. 가정(嘉靖) 계묘년(중종 38, 1543)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무신년(명종 3, 1548)에 문과 갑과에 올랐다. 뽑혀서 한림에 들어갔다가 양친을 위하여 외치(外治)에 보(補)할 것을 구하여 세 고을에서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벼슬은 사예(司藝)에 이르렀다.(정수개에 살았다.)

● 하위보(河魏寶)

河魏寶字美哉牧使禹治之孫嘉靖戊午中生員天性孝友慈詳愷悌喪葬祭祀一遵家禮律身而無疵累處鄉而盡誠信鄉人敬服(居丹池洞)

하위보(河魏寶)의 자는 미재(美哉)니 목사 하우치(河禹治)의 손자다. 가정(嘉靖) 무오년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천성이 효우하고 자상하고 화락하였고 상장과 제사를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다. 몸을 가짐에 허물됨이 없고 고을에서 처신함에 성신(誠信)을 다하니 고을 사람들이 경복하였다.(단지동에 살았다.)

● 김추(金樞)

金樞字太運鶴城人天性醇厚敦族睦隣外族之孤貧無托者率育一家男娶女嫁資足禮備鄉里善之(居上寺里)

김추(金樞)의 자는 태운(太運)이니 학성인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친족들에게 돈독하고 이웃에게 화목하였다. 외가의 친족들 가운데 가난하고 의탁할 데가 없는 이를 한 집에 거느리어 길러 남자는 장가들이고 여자는 시집보내며 도우기를 족하게 하고 예절을 갖추니 향리에서 착하게 여겼다.(상사리에 살았다.)

● 김대명(金大鳴)

金大鳴字聲遠樞之子嘉靖戊午中生員隆慶庚午文科壯元天資慈詳文華早著歷典四郡皆有治績恬靜守拙無意干進終老田里(居上寺里)

김대명(金大鳴)의 자는 성원(聲遠)이요 김추(金樞)의 아들이다. 가정(嘉靖) 무오년(명종 13, 1558)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융경(隆慶) 경오년(선조 3, 1570)에는 문과에 장원으로 올랐다. 천자(天資)가 자상하고 문장이 일찍부터 드리났으며 4군을 두루 맡았더니 모두 치적이 있었다. 편안하고 고요하며 웅졸한 대로 분수를 지켜 벼슬을 구하는 데 뜻이 없었고 시골에서 일생을 마쳤다.(상사리에 살았다.)

● 신점(申靄)

申靄字君洽高靈人叔舟之曾孫爲人恬靜自守不求名利別構書堂訓誨後進日彈琴詠詩以自娛(居槽洞)

신점(申靄)의 자는 군합(君洽)이요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신숙주(申叔舟)의 증손이다. 사람됨이 느긋하고 고요하고 스스로 지키어 명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로 서당을 지어 후진들을 가르치고 날마다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어 스스로 즐기었다.(조동에 살았다.)

● 강언평(姜彦平)

姜彦平字君保持平詮之子孝友出於天性其兄進士汝平得重病親自湯藥百方調治其病得差及其死也期年之內不離殯側(居晋城里)

강언평(姜彦平)의 자는 군보(君保)요 지평 강전(姜詮)의 아들이다. 효우가 천성에서 나왔으니 그의 형 진사 강여평(姜汝平)이 중병을 얻음에 친히 스스로 약을 달여 백방으로 조치하여 그 병이 낫게 되었고 그가 죽기에 이르러서는 기년(期年)이 되는 동안에는 빈소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진성리에 살았다.)

● 정몽규(鄭夢虬)

鄭夢虬字仲祥長髻人早有文名屢舉不中待人以誠處事以公與姜深申霑議定一州徭役便宜施行鄉人皆服其均役謂之晋陽三老(居北坊)

정몽규(鄭夢虬)의 자는 중상(仲祥)이요 본관은 장기(長髻)이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고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남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정성으로서 하였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평으로서 하였다. 강심(姜深), 신점(申霑)과 더불어 한 고을의 요역(徭役)을 의정(議定)하고 시행을 편의케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 균역(均役)에 감복하였다. 이들을 진양(晋陽)의 삼노(三老)라고 일렀다. (북방에 살았다.)

● 강심(姜深)

姜深字太涵器度雄偉望尊一鄉才藝超凡累舉不中人皆惜之臨溪作草亭以終老題一絕曰紺巖山下雪梅村茅屋臨溪竹作門多病年來人跡少終朝獨坐到黃昏敬差官金行訪其家仍次其韻曰山圍水抱自成村不是人間禍福門坐對竹林清意足一場春睡任昏昏以子德龍 宣武原從勳贈戶曹參議(居雪梅谷)

강심(姜深)의 자는 태함(太涵)이니 넓은 도량이 웅위하여 명망이 온 고을의 존경을 받았다. 재예가 초범했으나 여러 번 과거를 보아 합격하지 못하여 사람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시내 곁에 초당을 짓고 늙도록 지내다가 세상을 마쳤는데 절구 한 수를 써서 이 르기를 “紺암산(紺巖山) 아래 설매(雪梅)의 마을 냇가에 모옥(茅屋)이 있어 대숲이 문 되었네. 여러 해 동안 병이 많고 인적도 적었는데, 아침부터 홀로 앉아 황혼이 이르렀네.”

라 하였다. 경차관 김행(金行)이 그 집을 방문하고 이어 여기에 차운하여 이르기를 “산은 두르고 물은 에워싸서 저절로 마을을 이루었으니 여기는 속된 인간의 화복(禍福)을 담당하는 문은 아니네. 대숲에 앉아 보면 맑은 뜻이 넉넉하니 한바탕 봄날에 단잠이 혼혼(昏昏)하네.”라 하였다. 아들 강덕룡(姜德龍)이 선무원종훈이 있었기 때문에 호조참의를 추증하였다.(설매곡에 살았다.)

● 하진보(河晉寶)

河晉寶字德哉生員魏寶之弟師事南冥先生與守愚堂善天性樂易德量寬厚臨事接物外柔內明嘉靖乙卯登文科由檢閱爲書狀官歷敷臺侍歷典州府皆有聲績官至司諫(居丹池洞)

하진보(河晉寶)의 자는 덕재(德哉)니 생원 하위보(河魏寶)의 아우다. 남명(南冥)선생을 사사하였고 수우당(守愚堂)과 잘 지냈다. 천성이 편안하고 수월하고 덕량(德量)이 관후(寬厚)하여 일에 임하고 사에 접함에 있어 밖으로 부드럽고 안으로 밝았다. 가정(嘉靖) 을묘년(명종 10, 1555)에 문과에 올라 검열을 거쳐 서장관이 되고 대간(臺諫)과 승지를 역임하며 고을을 승지 두루 맡아 다스리니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벼슬은 사간에 이르렀다.(단지동에 살았다.)

● 정안(鄭安)

鄭安字季仁僉正密之弟隆慶庚午進士壯元早有文名無意科宦養眞江湖號龍潭(居上寺里)

정안(鄭安)의 자는 계인(季仁)이니 첨정 정밀(鄭密)의 아우다. 융경(隆慶) 경오년(명종 3, 1570)에 장원으로 진사가 되었으니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으나 과거와 벼슬에 뜻이 없고 강호에서 참기운을 길렀다. 호를 용담(龍潭)이라 하였다.(상사리에 살았다.)

● 이간(李衍)

李衍字和叔郡守殷礪之子觀察孟賢之曾孫也其祖璣爲本州通判外祖李夢麟爲本道兵使時相謂曰吾兩家在京洛簪纓之榮已足子孫一人昏娶此地因作南鄉之人亦可也乃

授室于前教授李熙績女仍居焉爲人重厚寬大被其容接者皆服其長者之風焉(居草門)

이간(李衍)의 자는 화숙(和叔)이요 군수 이은려(李殷礪)의 아들이며 관찰사 이맹현(李孟賢)의 증손이다. 그의 조부 이종(李縱)이 본주(本州)의 통관이 되고 외조부 이몽린(李夢麟)이 본도(本道)의 병사가 되었을 때에 서로 일러 말하기를 “우리 두 집이 서울에 있으면서 높은 벼슬의 영화가 이미 족했으나, 자손의 한사람은 이곳에 혼인시켜서 남쪽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옳을 것이다.”라 하고 이에 전 교수 이희적(李熙績)의 딸에게 장가 들어 살게 했다. 사람됨이 중후 관대하여 그의 얼굴을 대하고 대접을 받는 이는 모두 장자다운 풍모에 감복하였다. (초문에 살았다.)

● 하국보(河國寶)

河國寶字善哉司諫晉寶之弟萬曆癸酉中生員天質淳眞孝友敦睦絕崖異之行無害物之心休休然有古人風(居丹池洞)

하국보(河國寶)의 자는 선재(善哉)니 사간 하진보(河晉寶)의 아우다. 만력(萬曆) 계유년(선조 6, 1573)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천성이 순진하고 효우·돈목하며 특이한 행실을 꿰고 사물을 해칠 마음이 없었으며 느긋하게 고인의 기풍이 있었다. (단지동에 살았다.)

● 하공필(河公弼)

河公弼字希亮天性醇厚敦行孝友早有文名屢舉不中人皆惜之(居新塘里)

하공필(河公弼)의 자는 희량(希亮)이니 천성이 순후하고 행실이 돈독하며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고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신당리에 살았다.)

● 정승개(鄭承凱)

鄭承凱字治中訓導寬之子天性醇厚敦族睦隣屢舉不中(居上寺里)

정승개(鄭承凱)의 자는 치중(治中)이요 훈도 정관(鄭寬)의 아들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친족에게 돈독하며 이웃에게 화목하였다.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였

다. (상사리에 살았다.)

● 남태형(南泰亨)

南泰亨字元吉早有文名明於史學累舉不中時人惜之(居晉城里)

남태형(南泰亨)의 자는 원길(元吉)이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고 사학(史學)에 밝았으며 여러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진성리에 살았다.)

● 하락(河洛)

河洛字道源號喚醒齋師事南冥先生隆慶戊辰進士壯元生員第二薦爲王子師傅癸未上疏伸救朴思菴李栗谷成牛溪蒙優批壬辰之亂與子生員鏡輝率家僮同赴尙州城遇敵死之鏡輝以身翼蔽俱死贈左承旨(居水谷里)

하락(河洛)의 자는 도원(道源)이요 호는 환성재(喚醒齋)니 남명선생을 사사하였다. 융경(隆慶) 무진년(선조 1, 1568)에 진사 시험에서 장원이 되고 생원시험에서 제이등이 되었더니 천거되어 왕자사부가 되었다. 계미(선조 16, 1583)에 상소하여 박사암(朴思菴), 이을곡(李栗谷), 성우계(成牛溪)를 친구(伸救)하였더니 임금으로부터 흠족한 답을 받았다. 임진난을 당해서는 아들 생원 하경휘(河鏡輝)로 더불어 집안의 종을 거느리고 함께 상주성(尙州城)으로 달려가다가 적을 만나 죽었다. 아들 경휘가 몸으로써 덮어 가리우다가 함께 죽었다.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수곡리에 살았다.)

● 하항(河沆)

河沆字浩源號覺齋隆慶丁卯中生員耿介清粹英才秀出弱冠謁南冥先生執弟子之禮先生愛其有才且志於學遂勸讀小學近思錄等書自是專尙爲己之學日事講究踐履篤實言行有規先生甚器重之晉鄉志學之士稍知趨向之方蓋公爲之先導也先生沒爲服心喪己丑之禍裁疏叫闕欲伸守愚堂之寃未果終身恨之再除參奉不就爲德川院長頗爲一時表率中年移居大覺村號覺齋晚復還修舊基堂曰來復齋年五十餘以疾終于來復齋(居水谷里)

하항(河沆)의 자는 호원(浩源)이요 호는 각재(覺齋)니 융경(隆慶) 정묘(명종 22, 1567)에 생원시험에 합격하였다. 뜻을 굳게 지켜 청수하고 영재가 빼어나더니 약관의 나이에 남명선생을 뵈고 제자의 예로 모셨다. 남명선생은 그가 재주가 있고 또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을 사랑하여 소학과 근사록 등의 글을 읽기를 권하였다. 이로부터 오로지 위기(爲己)의 학문을 숭상하고 날마다 강구(講究)하기를 일삼았다. 천리(踐履)를 독실이 하고 언행에 규범이 있으니 선생께서 매우 인재로 여기셨고 진주 고을에서 학문에 뜻을 둔 선비로서 점점 지향할 바를 알게 된 것은 대개 공이 선도했기 때문이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심상(心喪)을 입고 기축의 화에 대하여 소를 만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수우당(守愚堂)의 원통함을 펴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니 이를 종신의 한으로 삼았다. 두 번이나 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덕천원장이 되었으니, 자못 한 시대의 모범이 되었다. 중년에는 대각촌(大覺村)으로 옮겨 살면서 호를 각재라 하였다. 늦게는 다시 돌아와서 옛터를 닦고 그 당을 내복재(來復齋)라 하더니 나이 오십여 세에 병으로 내복재에서 세상을 마쳤다.(수곡리에 살았다.)

● 이염(李琰)

李琰字玉吾鐵城人器度雄偉容貌秀麗早年致力於小學四書尤用工於大學誠意章以不欺謹篤爲日用工夫雖處閨室衣冠必正儼然若對師友時也居父母喪一依文公家禮朝夕之奠親自執饌極其精潔待諸弟極其友愛而弟璿琢皆病癰常吮其膿汁痛若在己與守愚堂爲道義之交剖析義理守愚堂許其深造以公薦爲南部參奉不就年五十一以疾終守愚堂痛惜之曰吾所交遊者多矣務實篤行未嘗見如此人號安溪臨終時守愚堂河覺齋柳潮溪河禮山嘗會問疾安溪曰無以我先逝爲痛數年之後當羨我死己丑禍作守愚及潮溪皆被禍其言果驗矣(居州內竹洞)

이염(李琰)의 자는 옥오(玉吾)요 철성인이다. 그릇이 크고 용모가 수려하였다. 조년에 소학과 사서에 힘쓰더니 더욱 대학의 성의장(誠意章)에 공력을 써서 속이지 않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으로 일용공부(日用工夫)를 삼으니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의관을 만드시 바르게 하여 엄연히 하는 것이 사우를 대하는 때와 같이 하였다. 부모의 상중에 있을 때는 한결같이 문공(文公:주자)의 가례에 의거하여 아침저녁으로 제물을 바

칠 때는 친히 스스로 음식을 가지고 그 정결함을 극진히 하였다. 또 여러 아우들을 대할 때는 그 우애를 극진히 하였으니 아우 선(璿)과 탁(琢)이 모두 등창을 앓을 때에 항상 그 고을을 빨아주고 그 아픔이 내 몸에 있는 것과 같이 하였다. 수우당(守愚堂)과 더불어 도의의 친구로 삼아 의리를 분석하니 수우당도 그 깊은 조예를 허락하였다. 공천(公薦)으로 남부참봉을 삼았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51세가 되던 해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니 수우당이 매우 애석하게 여기며 이르기를 “내가 교유한 사람이 많았으되 무실 독행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호를 안계(安溪)라 하더니 임종할 때에 수우당, 하각재(河覺齋), 류조계(柳潮溪), 하예산(河禮山)이 모여서 병문안을 감에 안계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게. 수년 뒤가 되면 마땅히 나의 죽음을 부러워할 것이다.”라 하였다. 기축의 화가 생겨나서 수우당 및 조계가 모두 화를 입으니 그의 말이 과연 맞았다.(주내의 죽동에 살았다.)

● 손천우(孫天佑)

孫天佑字君弼密陽人天質醇厚行篤孝友師事南冥先生與守愚堂結道義之交號撫松(居離下里)

손천우(孫天佑)의 자는 군필(君弼)이요 밀양인이다. 천질이 순후하고 행실이 돈독하며 효우가 두텁더니 남명선생을 스승으로 섬기고 수우당으로 더불어 도의의 친교를 맺었다. 호는 무송(撫松)이다.(이하리에 살았다.)

● 신공필(愼公弼)

愼公弼字士勳居昌人氣質軒昂清高自守晚事南冥先生先生稱之曰此人天稟清高知識通明雖詩禮名儒殆不可過也(居柏谷里)

신공필(愼公弼)의 자는 사훈(士勳)이요 거창인이다. 기질이 현양하여 청고(淸高)로 스스로를 지켰다. 늘그막에 남명선생을 섬기니 선생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천품이 청고하고 지식이 통명하니 비록 시례(詩禮)의 명유라고 하더라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 하였다.(백곡리에 살았다.)

● 양응룡(梁應龍)

梁應龍字士雲性質清秀不妄交遊出入南冥門下(居雲谷)

양응룡(梁應龍)의 자는 사운(士雲)이니 성질이 청수(淸秀)하여 함부로 교유하지 않고 남명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다.(운곡에 살았다.)

● 김려(金勵)

金勵字勵之性稟狂簡見人爲不善若將浼焉(出入南冥門下)

김려(金勵)의 자는 여지(勵之)니 성품은 뜻은 크나 일에는 영성하고 남의 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마치 장차 더러워질 것같이 여겼다.(남명문하에 출입하였다.)

● 하면(河沔)

河沔字混源生員希瑞之子也力爲科業累舉不中人皆惜之而至其子受一天一鏡輝皆中司馬受一則高登文科所謂吾雖不做兒子三郎可做者也(居水谷里)

하면(河沔)의 자는 혼원(混源)이니 생원 하희서(河希瑞)의 아들이다. 과거공부에 힘을 써서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그의 아들 수일(受一)·천일(天一)·경휘(鏡輝)가 모두 사마시험에 합격하고 수일은 문과에 오르니 이른바 “나는 비록 하지 못했지만 아들 셋이 해낸 사람이다.”라 한 것과 같다.(수곡리에 살았다.)

● 조종도(趙宗道)

趙宗道字伯由漁溪旅之後天品高明自持清白而尤致詳於禮學師事南冥先生聞敬義之旨早中司馬薦授安奇察訪累轉掌隸院司評漢城參軍外補陽智金溝縣監乙亥以後見黨議橫浸朝著爲之不靖輒酣飲戲笑自號曰大笑軒以自晦於世己丑以非罪被累與崔守愚堂永慶同逮繫屢月談笑自若亦不爲動已而得釋壬辰之亂與直長李公魯起義傳檄郡縣適招諭使金公誠一至晋州見之喜曰天贊我也以權宜除宜寧假守秋行朝賞義兵功授掌樂院僉正冬除丹城縣監其後連有安州清風之命而病不赴旋守咸陽郡丁酉賊再動遂率妻子入黃石山城爲死守計城陷與安陰郡守郭公趨冠帶北面死之妻李氏從死 贈吏

曹判書(居召南里)

조종도(趙宗道)의 자는 백유(伯由)요 어계(漁溪) 조려(趙旅)의 후손이다. 천품이 고명하여 스스로 청백을 지켰으며 더욱이 예학에서 자세함을 이루었고 남명선생을 사사하여 경의의 뜻을 들었다.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하여 안기찰방에 천수되었다가 장예원 사평·한성참군으로 옮겼다. 외직으로 양지현감·금구현감으로 보(補)하였다. 을해년 이후로 당의(黨議)가 횡류(橫流)하여 조정이 두드러지게 조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문득 술을 마시고 희소(戲笑)하며 자호를 대소헌(大笑軒)이라 이르고 스스로 자취를 세상에서 숨겼다. 기축년에는 죄 없이 누(累)를 입어 최수우(崔守愚) 영경(永慶)과 함께 체포되어 여러 달 구속되어 있었으나 담소(談笑)가 자약(自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더니 얼마 뒤에 놓여나왔다. 임진의 난에는 직장 이로(李魯)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각 고을에 격문을 전하다가 마침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진주(晉州)에 이르러 그를 보고 기뻐하여 이르기 “하늘이 나를 도왔다.”라 하였다. 임시로 의령가수로 제수되었다가 가을에 피란중의 조정에서 공을 포상하여 장락원첨정을 제수하였고 겨울에는 단성현감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안주와 청풍 고을원으로 임명이 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다가 도로 함양군수가 되었다. 정유년에 적이 재차 발동하니 드디어 처자를 거느리고 황석산성(黃石山城)으로 들어가서 사수할 계획을 삼다가 성이 함락됨에 안음군수 곽공(郭公) 준(駿)으로 더불어 관대를 갖추고 북면(北面)하고 죽으니 아내 이씨도 따라 죽었다. 이조 판서로 증직되었다. (소남리에 살았다.)

● 하응도(河應圖)

河應圖字元龍萬曆癸酉中進士氣宇軒豁不拘小節早摳衣南冥先生知所趨向中年卜居于河東縣之新月村兄弟三人奉母夫人同爨一室以公薦除召村察訪丁酉亂後本州蕩析無形廷議以公勤幹之才除判官後拜綾城禮山二縣皆有政績晚年入德山洞以疾終(居西申大)

하응도(河應圖)의 자는 원룡(元龍)이요 만력(萬曆) 계유년(선조 6, 1573)에 진사가 되었다. 기우(氣宇)가 현활(軒豁)하여 소절(小節)에 구애하지 아니하였고 일찍부터 남명선생의 제자가 되어 지향할 바를 알았다. 중년에는 하동현 신월촌(新月村)에 옮겨와서

살면서 형제 세 사람이 모부인을 받들고 한집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지냈다. 공천(公薦)으로 소촌찰방에 제수되었다. 정유의 난이 있는 뒤에 진주가 폐허가 모양이 없게 되어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공이 부지런히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관관을 제수하였다. 뒤에 능성(綾城)·예산(禮山) 두 고을에 일명하니 모두 정적(政績)이 있었고 만년에는 덕산동(德山洞)에 들어가서 병으로 세상을 마쳤다.(서신대에 살았다.)

●진극경(陳克敬)

陳克敬字景直驪陽人爲人剛直見義必勇好善疾惡出於天性嘗出入南冥門下守愚堂亦深許之亂後重建德川書院仍爲院長(居馬洞)

진극경(陳克敬)의 자는 경직(景直)이요 여양인(驪陽人)이다. 사람됨이 강직하여 의를 보면 반드시 용기를 내었고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찍이 남명의 문하에 출입하니 수우당도 또한 깊이 허락하였다. 난후에 덕천서원을 중건하고 이어 원장이 되었다.(마동에 살았다.)

●이정(李澣)

李澣字汝涵載寧人才藝超凡累舉不中居家孝友處鄉敦睦早樞衣於南冥先生壬辰亂初召募鄉兵遮絕賊路以功除沙斤察訪旋拜丹城縣監岳堅山城將授清州牧昌原府使亂後自咸安移居于西面元堂乃其妻鄉也爲德川院長重建院宇之未畢者(居元堂)

이정(李澣)의 자는 여함(汝涵)이요 재령인이다. 재예가 초범하여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집에 있을 때는 효우하였고 고을에서 거처할 때 돈목하였다. 일찍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 임진난 초기에 향병을 불러 모아 적의 통로를 막아 끊었으므로 그 공으로 사근찰방을 제수했다가 곧 단성현감에 임명되니 산성을 굳게 지켰다. 장차 청주목사와 창원부사로 제수되었다. 난이 끝난 뒤에는 함안으로부터 서면(西面) 원당(元堂)으로 옮겨와서 살았으니 곧 그의 처향이기 때문이다. 이어 덕천원장이 되어 원우의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을 중건하였다.(원당에 살았다.)

●유종지(柳宗智)

柳宗智字仲明天性穎悟容儀端雅言論詳明且有才藝與河覺齋謁南冥先生受小學近思錄等書始知爲學之方從守愚先生遊爲道義之交常講論義理公私之辨再除參奉不就己丑之變寃死王獄年四十四號潮溪(居元堂)

유종지(柳宗智)의 자는 중명(仲明)이다. 천성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아하며 언론이 상명(詳明)하고 또 재예가 있었다. 하각재(河覺齋)로 더불어 남명선생을 뵈고 소학과 근사록 등의 책을 받아 비로소 학문하는 방법을 알았다. 수우당(守愚堂) 선생으로 더불어 따라 놀면서 도의의 벗이 되고 항상 도의와 공사의 구별을 강론하였다. 두 번이나 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더니 기축의 변에 억울하게 의금부에서 죽으니 나이 44세였고 호는 조계(潮溪)다. (원당에 살았다.)

● 하천주(河天澍)

河天澍字解叔初謁南冥先生學近思錄後趨守愚堂門下守愚最重之有器度外和內剛事父母甘旨溫清無敢少怠憤士風污穢每有揚清激濁之志不幸早世士流惜之(居西申大)

하천주(河天澍)의 자는 해숙(解叔)이다. 처음에는 남명선생을 뵈고 근사록을 배우고 뒤에는 수우당 문하로 나아갔다. 수우당은 기도가 있음을 가장 중히 여겼으며 외화 내강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맞난 음식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사림의 풍도가 더러워지는 것을 분히 여기어 매양 맑은 것을 드러내고 탁한 것을 물리치려는 뜻을 가졌다.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서신대에 살았다.)

● 정승윤(鄭承尹)

鄭承尹字任中教導寬之子也隆慶庚午中進士孝友深至親沒之後執喪以禮隆冬盛夏不脫衰經守墓三年足不出外飲粥哀感見者歎服疾惡剛腸老而彌篤守拙丘園不以貧窶易其操號南溪(居東山)

정승윤(鄭承尹)의 자는 임중(任中)이요 교도(教導) 정관(鄭寬)의 아들이며 융경(隆慶) 경오년(선조 3, 1570)에 진사가 되었다. 효우가 깊고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집상(執喪)을 예로써 하고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묘를 삼년 동안 지키되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죽을 마시며 슬피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탄복하였다. 악한 것을 미워하는 굳센 마음이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였고 초야에서 분수를 지켰다. 가난하였지만 그 지조를 바꾸지 아니하였다. 호는 남계(南溪)다.(동산에 살았다.)

● 이호변(李虎變)

李虎變字子武龜巖之孫庚午俱中生員進士氣質淳美天性孝友好學不怠龜巖之患腫也勢甚危重虎變常口吮其膿汁其腫得蘇懷才未售人皆惜之(居康州)

이호변(李虎變)의 지는 자무(子武)요 이구암(李龜巖)의 손자다. 경오년에 생원과 진사에 함께 합격하고 기질이 순박하고 아름답고 천성이 효우스러웠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구암이 종기를 앓아 형세가 매우 위중함에 이호변이 항상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그 종기를 낫게 하였다.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강주에 살았다.)

● 이곤변(李鯤變)

李鯤變字子舉變之弟也兄弟同榜進士友愛篤至善屬文所著賦表多膾炙人口(居康州)

이곤변(李鯤變)의 지는 자거(子舉)니 이호변(李虎變)의 아우다. 형제가 진사에 동방(同榜)으로 합격하였고 우애가 돈독하고 지극하였다. 글을 잘 지었는데 그가 지은 바부(賦)와 표(表)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었다.(강주에 살았다.)

● 신가(申櫓)

申櫓字養中高靈人叔舟之後夜天性朴實事親事極其誠懇待賓待友盡其情款出入守愚堂門下守愚許以篤實(居槽洞)

신가(申櫓)의 지는 양중(養中)이요 고령인으로 신숙주(申叔舟)의 후예다. 천성이 박실(朴實)하고 아버이를 섬기거나 스승을 섬김에 있어 그 성간(誠懇)함을 다하였고 손님

을 접대하거나 친구를 접대함에 있어서도 정관(情款)을 다하였다. 수우당(守愚堂)의 문하에 출입하더니 수우당도 독실함을 인정하였다.(조동에 살았다.)

● 이인민(李仁民)

李仁民字子元公準之子爲人軒豁不拘小節嘗赴舉如京至李三宰俊民家飲酒酒半三宰日子元汝勿下鄉仍留吾家子元不答良久仰天大笑曰兄可謂不知弟者也兄曾以弟爲求仕人耶趙大笑軒宗道爲安奇察訪時子元客大笑軒所時徐益爲安東守聞子元使酒曰我欲觀光邀子元至置酒大飲子元於是直扼其項據其胸而叱之曰徐益汝何不飲酒侵謔殆劇徐走入衙內子元追逐直入徐及衙屬奔避艱免人笑太守之觀光也癸巳於陷城(居大如村)

이인민(李仁民)의 자는 자원(子元)이요 이공준(李公準)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현활(軒豁)하여 소절(小節)에 구애하지 아니하였더니 일찍이 과거를 보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삼재(三宰) 이준민(李俊民)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다가 술이 반쯤 취했을 때에 삼재가 말하기를 “자원이 너는 시골에 내려가지 말고 내 집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라.”라 하였다. 자원이 대답하지 않고 얼마를 있은 뒤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크게 웃고서 말하기를 “형은 아우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은 일찍부터 이 아우가 벼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셨습니까?”라 하였다. 조대소헌(趙大笑軒) 종도(宗道)가 안기찰방이 되었을 때에 자원이 대소헌의 집에 손님으로 갔더니 이때에 서익(徐益)이 안동군수가 되었다가 자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관광을 하고 싶다.”라 하고 자원을 맞이하였다. 자원이 이르니 술을 놓고 크게 마시더니 자원이 여기에서 바로 그의 목을 잡고 그의 가슴을 누르면서 꾸짖어 말하기를 “서익아! 너는 어찌하여 술을 마시지 아니하느냐?”라 하고 침범하여 놀리는 것이 자못 심하였다. 서익이 관청 안으로 달려 들어가니 자원이 쫓아 바로 들어옴으로 서익과 아속(衙屬)들이 달아나 피하여 근근히 면하였다. 사람들이 웃고 “태수(太守)의 관광이다.”라 하였다. 계사년에 성이 함락될 때에 죽었다.(대여촌에 살았다.)

● 하수일(河受一)

河受一字太易沔之子宣廟己丑中司馬辛卯登第歷官典籍刑曹正郎外除靈山縣監尙州提督慶尙都事晚年不事干進不參黨議築水谷精舍專用訓誨諸生爲己任嘗語諸生曰知識之於人爲最大大學致知在誠正之先中庸仁勇居知之後學者工夫豈外於窮理哉又曰我覺齋叔父親炙南冥先生而傳其道嘗曰手中明月傳自唐虞如我不肖確念私淑至死不忘汝輩出於吾門亦可以深致如登之力號松亭有文集行于世(居水谷里)

하수일(河受一)의 자는 태이(太易)이요 하면(河沔)의 아들이다. 선조 기축년(선조 22, 1589)에 사마에 합격하고 신묘년에 과거에 올라 벼슬로 전적, 형조정랑, 이조정랑을 지내고 외직으로 영산현감, 상주제독, 경상도사에 제수 되었다. 만년에는 벼슬에 나오는 것을 일삼지 않고 당의(黨議)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수곡(水谷)에 정사를 짓고 오로지 제생의 교육에만 힘쓰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다. 일찍이 제생에게 말하기를 “지식이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이니 대학에 치지(致知)는 성정(誠正)보다 앞에 있고, 중용에 인용은 앞의 뒤에 있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찌 궁리밖에 있겠는가?”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의 숙부 각재(覺齋)께서 남명선생께 친히 배우고 그 도를 전했는데 일찍이 이르기를 ‘수중에 명월이 당우(唐虞:요순)로부터 전해졌으니 나와 같은 불초는 굳게 사숙(私淑)할 것을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잊지 말라.’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의 문에서 나가더라도 깊이 오르는 것과 같은 힘을 이루게 하라.”라 하였다. 호는 송정(松亭)이니 문집이 있어 세상에 유행한다.(수곡리에 살았다.)

● 정홍조(鄭弘祚)

鄭弘祚字士膺仁平之繼子性質醇厚鄉黨推許己丑之變前晋州判官洪廷瑞曰逆賊嘗往來崔某之言得聞於州別監鄭弘祚因繫王獄供對之辭小無胡亂嶺右士林賴以得免守愚堂在囚時有人作獄中記曰有晉州人鄭弘祚坐公獄案被拿詣京人告于公曰不幸弘祚誣告事且叵測公曰吾與弘祚雖居一鄉未嘗識面未知弘祚作何樣其於有命焉何及弘祚入獄公已卒弘祚從一士人問所以對獄者甚至士人諭曰凡獄辭以正而已天道孔昭鬼神難欺弘祚慨然曰崔公韻士也如某者無異一壤蟲也每以足不及門爲恥今年已老矣設使罔生而免人必唾罵之曰是枉殺崔某者獨置子孫于何地蓋是獄起自金提守許昕聞于晋州判官洪廷瑞有云逆賊嘗往來崔某家庭瑞自言得之於州別監鄭弘祚至是廷瑞先已

在獄數遣人脅之弘祚不答及其供辭曰崔某家在州治五里許與弘祚家實四十里是時逆賊盜名已久設使白日往來則豈有所謂名流者來會而五里之判官不知四十里之弘祚獨知之理乎若謂之潛相往來則某實不知曷嘗言于廷瑞乎及獄辭入承傳色宣旨洪廷瑞連加刑訊委官覆啓弘祚反覆情狀頗露如廷瑞不宜加訊夜既深他承傳出宣廷瑞意訊一次而不得已又杖弘祚一次翌日俱釋

정홍조(鄭弘祚)의 자는 자응(子膺)이요 정인평(鄭仁平)의 계자다. 성질이 순후하여 향당에서 추앙하고 인정받았다. 기축의 변이 있기 전에 진주판관 홍정서(洪廷瑞)가 말하기를 “역적이 최모와 왕래한다는 말을 진주의 별감 정홍조에게서 들었다.”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홍조가 왕옥에 잡혀서 매였더니 문초에 대답하는 말이 조금도 어지럽지 아니하여 영우의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화를 면하였다. 수우당(守愚堂)이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옥중기를 쓴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를 “진주사람 정홍조가 공의 옥안(獄案)에 연좌되어 서울로 잡히어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불행히도 정홍조가 무고한 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라 하며 공이 말씀하기를 “내가 정홍조와 비록 같은 고을에 산다고 하지만 일찍이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정홍조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것도 운명이니 어떻게 하겠는가?”라 하였다. 정홍조가 옥에 들어간 때에 공은 이미 돌아간 때이었다. 정홍조가 어떤 선비에게 옥에서 대답해야 할 바를 묻기를 매우 지극히 했다. 그 선비가 타일러 말하기를 “무릇 옥사란 바른 것으로 써 할 따름이다. 천도는 뚜렷하게 밝은 것이고 귀신도 속이기가 어려운 것이다.”라 하였다. 정홍조가 개연히 일러 말하기를 “최공은 운사(韻士:시인, 풍류를 아는 선비)요, 나와 같은 자는 흙덩이에 파묻힌 벌레와 다름이 없다. 매번 그 문하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왔으나 지금은 나이가 늙었다. 설사 속여서 살아서 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침 뱉고 꾸짖기를 ‘이는 최모를 억울하게 죽게 한자다.’라 할 것이니 홀로 자손을 어떤 지경에 놓이게 하겠는가?”라 하였다. 대개 이 옥사는 김제군수 허흔(許昕)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허흔이 진주판관 홍정서에게서 들으니 말하기를 “역적이 최모의 집에 왕래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홍정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진주별감 정홍조에게서 들었다.”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홍정서는 먼저 이미 옥에 갇혀 있던 수차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였으나 정홍조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공사(供

辭)를 하기에 이르기를 “최모의 집은 고을 관아에서의 오리썸에 있어서 정홍조의 집과는 실로 사십리나 됩니다. 이때에 역적은 이미 이름을 숨긴 지 오래였는데 설사 백일하에 왕래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른바 명류들과 함께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리의 판관이 알지 못한 것을 사십리의 먼 거리에 있는 홍조가 홀로 알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가만히 몰래 왕래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지로 알지 못했는데 어찌 홍정서에게 말을 했겠습니까?”라 하였다. 이 옥사가 들어가자 승전색(承傳色:관명)이 임금님의 뜻을 선포하여 형상이 더러운 홍정서에게 계속하여 형신(刑訊)을 가하더니 위관(委官)이 아뢰기를 정홍조가 반복한 것을 거듭 아뢰었다. “거의 드러난 것 같으니 홍정서에게 신문을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밤도 이미 깊었으므로 다른 승전이 나와서 홍정서에게 한번 신문하여 마치고 부득이하어 또 정홍조에게 한번 매질했다가 다음날에 함께 석방하였다.

● 한계(韓誠)

韓誠字慎伯汝哲之子萬曆庚寅中生員居家孝友處鄉敦睦年未弱冠丁外艱與弟膺居憂教之甚勤曰汝不能成人是吾過常加警飭膺年十五位能論策乃曰吾之教畢矣始與之談笑遊嬉以薦爲參奉之奉事(居丁樹介)

한계(韓誠)의 자는 신백(慎伯)이요 한여철(韓汝哲)의 아들이니 만력(萬曆) 정인년(선조 23, 1590)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집에 있어서는 효우하였고 향당에 처해서는 돈목하였다. 나이 약관이 못되어 부친상을 당했더니 아우 한응(韓膺)으로 더불어 상중에 있으면서도 가르침을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 말하기를 “네가 성인이 되지 못하면 이는 나의 허물이다.”라 하고 항상 경계하고 타일렀다. 응의 나이 15세에 능히 논책(論策)을 지으니 이에 이르기를 “나의 가르침은 끝났다.”라 하고 비로소 함께 담소하고 유희(遊嬉)하였다. 천거되어 참봉이 되고 봉사(奉事)에 이르렀다. (정수개에 살았다.)

● 한응(韓膺)

韓膺字慎仲誠之弟孝友人也同居二十餘年人無間言待朋必信持論必正以故見重於儕輩但不幸早世人皆惜之(居丁樹介)

한옹(韓膺)의 자는 신중(愼仲)이요 한계(韓誡)의 아우이고 효우한 사람이다. 형제가 20여 년을 함께 살아도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친구를 접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의로 하였고 지론은 반드시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겁게 보였더니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정수개에 살았다.)

● 강의문(姜義文)

姜義文字宜叔生員灑之子清氷之操秋天之氣疾惡如惡臭非其義也一芥不取不幸早世人多惜之(居清源里)

강의문(姜義文)의 자는 의숙(宜叔)이요 생원 강호(姜灑)의 아들이다. 맑은 얼음과 같은 지조와 가을 하늘과 같은 기상으로 악한 것을 미워하기를 악취와 같이 하였고 그의 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청원리에 살았다.)

● 이욱(李郁)

李郁字文哉驪陽人萬曆己卯生員性質端重言論的當好善疾惡有才莫展死於癸巳城陷(居班東山)

이욱(李郁)의 자는 문재(文哉)요 여양인이다. 만력(萬曆) 기묘(선조 12, 1579)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성질이 단중(端重)하고 언론이 적당하며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였다. 재주가 있으되 펴어 보지 못하고 계사년(1593)에 성이 함락될 때에 죽었다. (반동산에 살았다.)

● 이호(李壕)

李壕字士固鐵城人參奉琰之子天性好善疾惡孝友之行能繼其家風不幸而天人皆惜之(居州內)

이호(李壕)의 자는 사고(士固)요 철성인이며 참봉 이염(李琰)의 아들이다. 천성이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효우한 행실로 능히 그 가풍을 잇더니 불행하게도

요사함에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주내에 살았다.)

● 하증(河愷)

河愷字子平生員國寶之繼子萬曆辛卯中進士天性醇厚志行勤懇平生處事以忠厚爲主而不露圭角南冥先生平日箚記子集中切要語名曰學記未及成書而歿公爲德川院長更加證訂募匠鋟梓以廣其傳又與一二同志共撰晋州誌未及脫稿而歿士類咸嗟惜之號滄洲(居丹池洞)

하증(河愷)의 자는 자평(子平)이요 생원 하국보(河國寶)의 계자다. 만력(萬曆) 신묘년(선조 24, 1591)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천성이 순후(醇厚)하고 지행(志行)이 부지런하고 간곡하여 평생의 처사를 충후(忠厚)로써 주를 삼고 규각(圭角)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남명선생께서 평일에 제자서나 문집 가운데서 요긴한 말을 기록하여 학기(學記)라고 이름 하여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공이 덕천원장(德川院長)이 되어 증정을 가하고 장인을 모아 목판에 새겨서 널리 전하였다. 또한 두 동지로 더불어 진주지(晋州誌)를 함께 편집하다가 탈고에 미치지 못하고 죽으니 사류들이 모두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호는 창주(滄洲)다.(단지동에 살았다.)

● 하협(河俠)

河俠字子幾生員魏寶之子萬曆乙巳中進士爲人慈詳愷悌孝友出於天性處兄弟怡怡待朋友惇惇人莫不愛之聰明絕倫知識高明且有才華將大有爲而見世道不公早廢舉業養眞江湖恬靜無求不幸早世遠近士類嗟悼不已(居丹池洞)

하협(河俠)의 자는 자기(子幾)요 생원 하위보(河魏寶)의 아들이다. 만력(萬曆) 을사년(선조 38, 1605)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사람됨이 자상하고 화락(和樂)하며 효우가 천성에서 나왔다. 형제 사이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즐거워 하였고 봉우를 접대함에 있어 서로 정의에 힘쓰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음이 없었다. 총명함이 절륜하고 지식이고 명하였으며 또 재화(才華)가 있으니 장차 크게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세도(世道)가 공평치 못함을 보고 일찍부터 거업(舉業)을 폐하였다. 강호에서 양진(養眞)하고 염정(恬靜)하게 지내며 구하지 아니하다가 불행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 선비들이 차

도(嗟悼)히 여기기를 마지아니하였다.(단지동에 살았다.)

● 성여신(成汝信)

成汝信字公實號浮查右尹斗年子生嘉靖丙午萬曆己酉中生進兩試早遊南冥龜巖兩門得聞敬義之旨訣終身佩服於書無所不讀又筆法名於當世嘗讀書于斷俗寺僧休靜刊三家龜鑑以儒家置之末公憤之命僧徒火其板其嚴於關邪如此龍蛇亂後鄉邑蕩燼學校盡廢公爲修鄉約挽回頹俗獎誘後進講明絕學於是儒風復振興鄭桐溪蘊李雪壑大期諸公設鷄黍會爲晚年遊從之樂後與二三同志撰州誌享臨川勿溪兩院有文集

성여신(成汝信)의 자는 공실(公實)이요 호는 부사(浮查)이니 우윤 성두년(成斗年)의 아들이다. 가정(嘉靖) 병오년(명종 1, 1546)에 나서 만력(萬曆) 기유년(광해군 1, 1609)에 생진(생원·진사) 두 시험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남명(南冥)과 구암(龜巖)의 두 문하에서 수학하고 경의의 지결(旨訣)을 얻어 듣고 종신토록 깊이 마음에 새겼다.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필법에 있어서도 당세에 이름이 났다. 일찍이 단속사(斷俗寺)에서 글을 읽더니 승려 휴정(僧休靜·서산대사)이 피어 낸 『삼가귀감(三家龜鑑:유·불·선)』에 유가를 맨 끝에 둔 것을 보고 공이 분(憤)내어 승도(僧徒)를 불러 그 판을 불태우게 하였으니, 그의 벽사(關邪:사교를 막음)에 엄함이 이와 같았다. 용사(龍蛇:임진난)의 난이 있는 뒤에 고을이 다 불 타고 학교가 다 폐해지니 공은 향약을 만들고 닦아서 퇴속을 만회시키고 후진을 장유하여 절학(絕學)을 강하여 밝히니 이에 유풍이 다시 진흥되었다. 또 정동계(鄭桐溪) 온(蘊)과 이설학(李雪壑) 대기(大期) 등 제공으로 더불어 계서회(鷄黍會)를 설립하여 만년에 유종(遊從)의 락을 삼았고 뒤에는 동지들과 주지(州誌)를 찬하였으며 임천서원(臨川書院)과 물계서원(勿溪書院) 두 서원에 배향되었다. 문집이 있다.

● 강덕룡(姜德龍)

姜德龍字汝中號梅村臨溪深之子登武科壬辰赴水使元均幕與倭連戰十二皆大捷招諭使金公誠一啓授咸昌縣令甲午遭艱喪畢李元翼辟爲體府營將與兵使鄭起龍等破賊於星州高靈地後移長鬐縣遷禮賓主簿以母老辭職歸養有孝感魚入之異爲設壽宴河竹軒惺爲之序 宣祖朝錄宣武原從一等勳 肅宗朝以孝 命復戶 哲宗朝 贈兵曹參判

강덕룡(姜德龍)의 자는 여중(汝中)이요 호는 매촌(梅村)이며 임계(臨溪) 강심(姜深)의 아들이다. 무과에 올라 임진난 때에 수사(水使) 원균(元均)의 군막에 달려가서 왜와 연전하여 열두 번을 크게 이기니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이 조정에 아뢰어 함창현령에 제수되었다. 갑오년에 상을 만났다가 상이 끝나니 이원익(李元翼)이 불러서 체부 영장을 삼았다. 병사 정기룡(鄭起龍) 등과 적을 성주와 고령 땅에서 파하고 뒤에 장기현으로 옮겨다가 예빈주부에 옮겨갔더니 어머니가 늙었으므로 사직하고 돌아와서 봉양함에 효성이 감동으로 고기가 들어오는 이변이 있었다. 수연을 베풀 때에 죽헌(竹軒) 하성(河愷)이 서문을 만들었고 선조조에서 선무원종일등훈을 기록하였으며 숙종조에서 효행으로 써 복호(復戶)를 명령하였으며 철종조에서는 병조참관을 추증하였다.

● 조차석(曹次石)

曹次石字一會南冥文貞公子也承襲家庭之訓爲士友所敬愛以蔭屢典郡邑皆有治績 조차석(曹次石)의 자는 일회(一會)니 남명(南冥) 문정공(文貞公)의 아들이다. 가정의 훈계를 승습(承襲)하니 사우에게서 경애하는 바가 되었으며 음직(蔭職)으로 여러 번 군읍을 맡아서 모두 치적이 있었다.

● 정기룡(鄭起龍)

鄭起龍字景雲晉州人以其生昆陽故又稱昆陽人十三喪父廬墓哭泣嘗與兄歸自試所兄以病死遂投筆登武科壬辰從趙莊毅公倣討敵倣爲謫所獲公馳入賊陣奪之以歸後又猝遇巨酋清正公當前立馬射倒數十敵清正不敢動經理楊鎬之攻島山也公爲先鋒李稅之死其餘兵七百皆願屬公 天子卽拜公爲總兵楊鎬麻貴史世用皆贈標牌及詩章大小六十餘戰未嘗挫衄儀觀雄偉目光如炬勇略爲諸將最官至統制使階至輔國 贈諡忠毅公

정기룡(鄭起龍)의 자는 경운(景雲)이요 진주인이니 그가 곤양에서 낳기 때문에 또 곤양인 이라고도 일컬었다. 열세 살에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에서 곡읍하였다. 일찍이 형과 시험장에서 돌아오다가 형이 병으로 죽는 까닭에 드디어 투필(投筆)하고 무과에 올랐다. 임진년에는 조장의공(趙莊毅公) 경(倣)을 따라 적을 치더니 조경이 적에게 잡힌 바

가 됨에 공이 적진으로 달려가서 이를 빼앗아 돌아왔고 뒤에 또 창졸간에 큰 괴수가 등청정(加藤清正)을 만나니 공이 앞을 당하여 말을 세운 채로 수십 명의 적을 쏘아서 꺼꾸러뜨림에 청정 등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경리(經理) 양호(楊鎬:명나라 장수)가 도산(島山)을 공격할 때에 공이 선봉이 되었는데 이세(李稅)가 죽자 나머지 병사 칠백 명이 모두 공에게 속하기를 원하였다. 천자가 즉시 공을 임명하여 총병이 되게 함에 양호(楊鎬) 마귀(麻貴)와 사세용(史世用)이 표패(標牌) 및 시장(詩章)을 주었다. 크고 작은 60여 차례의 싸움에 일찍이 패하지 아니하였다. 의관(儀觀)이 웅위하고 눈빛이 햇불과 같았으며 용맹과 계략이 모든 장수에게서 으뜸이었다. 벼슬은 통제사에 이르렀고 품계는 보국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충의공(忠毅公)이다.

● 하천일(河天一)

河天一字太和號守肯齋松亭河受一仲弟也受學覺齋之門萬曆己卯中生員薦除察訪詩文高妙深於易學有遺集

하천일(河天一)의 자는 태화(太和)요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중제다. 각재(覺齋)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만력(萬曆) 기묘년(선조 12, 1579)에 생원에 합격하여 천거로 찰방에 제수되었다. 시문에 고상하고 절묘하고 역학에 깊었으며 유집이 있다.

● 하경(河憬)

河憬松岡恒之六弟也從諸兄講磨勵志力學名行俱著薦授司宰監參奉不就

하경(河憬)은 송강(松岡) 하항(河恒)의 여섯째 아우니 여러 형을 따라 강하고 갈아 뜻을 가다듬고 힘써 배워서 명망과 덕행이 함께 알려졌다. 천거로 사재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하찬(河瓚)

河瓚字仲珍松亭河受一仲子與河謙齋弘度交道甚密其沒也謙齋撰墓銘極道師門情誼之厚

하찬(河瓚)의 자는 중진(仲珍)이요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중자다. 하겸재(河謙

齋) 홍도(弘度)로 더불어 도의로 사림이 매우 친밀하였으니 그가 죽음에 하검재가 묘명을 찬하여 시문에 정의가 두터웠음을 극히 일렀다.

● 주몽룡(朱夢龍)

朱夢龍字雲中號龍巖熊城人自幼聰明雄勇十二三能坐超十丈又博通群書早登武科而不事榮宦專意養親癸巳爲金山郡守從忘憂郭公討賊累立奇功靈山之戰脫郭公於重圍軍中號爲猛虎與姜德龍鄭起龍齊名時稱嶺右三龍屢官至節制使贈刑曹判書諡武烈公

주몽룡(朱夢龍)의 자는 운중(雲中)이요 호는 용암(龍巖)이며 웅성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용(雄勇)하여 열 두세 살에 능히 앉아서 열 발이나 뛰었고 또 군서(群書)에 널리 통달하였다. 일찍이 무과에 올랐으며 영화스러운 벼슬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이 모시는 데만 뜻을 두었다. 계사년에 금산군수가 되어 망우당(忘憂堂) 곽공(郭公)을 따라 적을 쳐서 여러 번 특이한 공을 세웠다. 영산(靈山)의 전투에서는 곽공을 겹겹의 포위에서 벗어나게 하니 군중에서 맹호(猛虎)라고 이름 지으니 강덕룡(姜德龍)과 정기룡(鄭起龍)으로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여 당시 영남 우도의 세 마리 용이라고 일컬었다. 여러 번 승진하여 벼슬이 절제사에 이르렀고 형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무열공(武烈公)이라 하였다.

● 조차마(曹次磨)

曹次磨字二會號慕亭南冥文貞公子也以蔭行縣監氣宇超凡性孝友從及門諸賢收輯先生遺文與朴无憫堂網議正年譜及師友淵源錄又與謙齋論神道碑事

조차마(曹次磨)의 자는 이회(二會)요 호는 모정(慕亭)이며 남명(南冥) 문정공(文貞公)의 아들이니 음직(蔭職)으로 현감이 되었다. 기상이 초범하고 성품이 효우스러웠다. 문하의 제현과 함께 선생의 유문을 수집하고 박무민당(朴无憫堂) 인(網)으로 더불어 년보 및 사우연원록을 의논하여 바로잡고, 또 하검재(河謙齋)로 더불어 신도비의 일을 의논하였다.

● 정인상(鄭麟祥)

鄭麟祥字仁伯號龜溪晉陽人進士記子訓導壽階嘉善同知天姿溫純自幼好學纔冠就學於南冥之門南冥誠之曰愛身如玉持心如水勿以病自懈也事親孝壬辰并遭外內艱倭兵突至焚燒村落公抱柩號哭敵感其孝斂兵而退亂已杜門求志訓迪後進與諸賢修正德川院錄士林議聯享清溪祠際值毀撤而未果

정인상(鄭麟祥)의 자는 인백(仁伯)이요 호는 구계(龜溪)이며 진양인이니 진사 정기(鄭記)의 아들이다. 훈도로서 수계(壽階)로 가선(嘉善) 동지(同知)였는데 천자가 온순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겨우 약관의 나이로 남명(南冥)의 문하에 취학하니 남명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몸을 사랑하기를 옥과 같이 하고 마음을 가지기를 물과 같이 하며 병 때문에 스스로 게을리 하지 말아라.”라 하였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다가 임진년에 함께 외간(外艱)과 내간(內艱)을 만났더니 왜병이 돌연히 이르러서 촌락을 분소시켰다. 공이 구(柩)를 안고 호곡하니 적도 그의 효성에 감동되어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난이 끝난 뒤에 두문(杜門)하고 뜻을 구하면서 후진을 교육하며 제현으로 더불어 덕천원록(德川院錄)을 수정하였다. 뒤에 사람들이 청계사(淸溪祠)에 연향(聯享)을 의논하던 즈음에 휘철을 만나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하성(河愷)

河愷字子敬號竹軒司諫晉寶之子也早承家學文行爲世推重宣廟癸巳中進士薦授參奉至縣監癸巳從郭忠翼公再祐倡義討賊丁卯舉義勤王至尙州聞媾成而歸初昏朝敦倫與鄭文簡公蘊欲聯名封事而未果及公之卒文簡哭之以詩曰獨抱孤桐三尺強惟君傾耳解峨洋如今絃斷知難續掩却清音更不張盖以此也有文集行于世

하성(河愷)의 자는 자경(子敬)이요 호는 죽헌(竹軒)이니 사간 하진보(河晉寶)의 아들이다. 일찍이 가학을 이어받아 문행으로 세상에서 추중(推重)되었다. 선묘 계묘년(선조 30, 1603)에 진사에 합격되어 천거로 참봉을 제수 받고 현감에 이르렀다. 계사년에 곽충익공(郭忠翼公) 재우(再祐)를 따라 창의로 적을 쳤고 정묘년에는 근왕의 의병을 일으켜 상주에 이르러서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처음 광해군 때 윤상(倫常)을 무너뜨림에 정문간공(鄭文簡公) 온(蘊)으로 더불어 연명으로 봉사(封事)코자 하다가

이루지 못했다. 공이 죽음에 이르니 문간공이 울면서 시를 지어 이르기를 “내 홀로 거문고를 안고 보니 석자가 넘는구나. 오직 그대만이 귀 기우려 내 곡조를 알았을 것을, 지금에 와서 줄 끊기어 이어지기 어려운줄 알지마는, 맑은 거문고 소리를 덮어두고 다시 타지 않으리.”라 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하인상(河仁尙)

河仁尙字任甫松岡恆之子號慕松齋萬曆癸丑中生員早承家學學務實踐居喪盡戚易倡率道內士林上疏請南冥文貞公從祀文廟教授後進一時名勝多出其門享清溪祠有喬梓錄行于世

하인상(河仁尙)의 자는 임보(任甫)요, 송강(松岡) 하항(河恒)의 아들이며 호는 모송재(慕松齋)다. 만력(萬曆) 계축년(광해군 5, 1613)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가학을 이어받아 배우면서 실천을 힘쓰더니 거상(居喪)에 슬픔을 다하였다. 앞장서서 부르짖어 도내의 사람을 이끌고 소를 올려 남명(南冥) 조문정공(曹文貞公)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했으며 후진을 교수하니 일시에 이름이 높았고 많은 사람이 그 문에서 나왔다. 청계사(淸溪祠)에 모셨는데 교재록(喬梓錄)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이례훈(李禮勛)

李禮勛字和伯載寧人護軍琛之孫有學行文章萬曆壬午中司馬嘗曰誠之一字不但爲學之終始士君子日用云爲不外乎是自號誠齋第二子堦字子虛承襲庭訓有文行

이례훈(李禮勛)의 자는 화백(和百)이요 재령인이니 호군 이침(李琛)의 손자이다. 학행과 문장이 있더니 만력(萬曆) 임오년(선조 15, 1582)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이르기를 “성(誠)의 한 글자는 다만 배우는 것만으로 종시(終始)되는 것이 아니니 사군자(士君子)의 일용운위(日用云爲)는 이밖에 벗어나지 아니해야 한다.”라 하였다. 자호를 성재(誠齋)라 하였고 둘째 아들 강(堦)의 자는 자허(子虛)인데 가정의 교훈을 승습(承襲)하여 문행(文行)이 있었다.

● 정대순(鄭大淳)

鄭大淳號玉峰延日人圃隱文忠公夢周之后壬辰傾家財以助崔公琦弼倡義討賊與李茅村河滄洲陳柏谷諸賢重建德川書院于亂後平生以忠義自勉而常致力於斯文事焉

정대순(鄭大淳)의 호는 옥봉(玉峰)이요 연일인이니 포은(圃隱) 문충공(文忠公) 몽주(夢周)의 후예다. 임진란에 가재를 기우려서 최공(崔公) 기필(琦弼)을 도와서 창의하여 적을 토벌하였고 이모촌(李茅村), 하창주(河滄洲), 진백곡(陳柏谷) 제현과 함께 난후에 덕천서원(德川書院)을 중건하였다. 평생 동안 충의로써 스스로 힘썼고 항상 힘을 사문의 일에 바쳤다.

● 최홍서(崔弘緒)

崔弘緒守愚堂之子也痛父遭禍杜門求志無意當世與河謙齋河台溪諸賢爲道義之交蔭仕司憲府監察

최홍서(崔弘緒)는 수우당(守愚堂)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화를 입은 것을 뼈아프게 여겨 문을 닫고 뜻만을 구했으며 당세에 뜻이 없었다. 하겸재(河謙齋), 하태계(河台溪) 제현으로 더불어 도의의 사권을 삼고 음식으로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조겸(趙璣)

趙璣字瑩然號鳳岡知足堂之瑞曾孫與河謙齋于善氣像確健言論灑落以文行稱父病斷指得愈父沒餼粥廬墓嘗赴省試却館吏賂馬之請謙齋挽詩所謂無金與延壽終不愧明君者是也及其晚年逍遙山水無意榮名以壽階通政副司直後以孝贈參判有遺集

조겸(趙璣)의 자는 영연(瑩然)이요 호는 봉강(鳳岡)인데知足당(知足堂) 조지서(趙之瑞)의 증손이다. 하겸재(河謙齋)로 더불어 벗을 삼아 잘 지내었다. 기상이 웅건(雄健)하고 언론(言論)이 분명하였으며 문행(文行)으로써 일컬었다. 아버지가 손가락의 피를 내어 낮게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매 죽을 마시고 여묘에서 모셨다. 일찍이 과거에 나아갈 때에 관리가 말을 뇌물로 청하는 것을 물리쳤으니 하겸재가 만시(挽詩)에서 이른바 “황금이 없으면서 장수를 누렸으니 마침내 명군(明君)에 비겨 부끄럽지 않겠구나!”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산수에 소요하면서 영명(榮名)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수계(壽階)로써 통정(通政) 부사직(副司直)이 되었더니 뒤에 효성으로써 참

관을 내렸다. 유집이 있다.

● 박민(朴敏)

朴敏字行遠號凌虛郡守安邦之子天啓丁卯中進士師事鄭寒岡述丁卯虜亂以嶺右義兵大將參原從勳天啓二年壬戌與成浮查河滄洲共撰州誌享鼎岡書院後贈左承旨有文集子慶光字和甫除北部參奉不就嘗爲德川院長增修院規鑿臺種蓮自號愛蓮堂

박민(朴敏)의 자는 행원(行遠)이요 호는 능허(凌虛)니 군수 박안방(朴安邦)의 아들이다. 천계(天啓) 정묘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정한강(鄭寒岡) 구(述)를 사사하였으며 정묘호란에 영우(嶺右)의 병장으로써 원종훈(原從勳)에 참여하였다. 천계(天啓) 2년 임술년에는 성부사(成浮查)·하창주(河滄洲)로 더불어 주지(州誌)를 찬하였고 정강서원(鼎岡書院)에 모셨더니 뒤에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문집이 있다.

아들 경광(慶光)은 자를 화보(和甫)라 하고 북부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일찍이 덕천원장(德川院長)이 되어 원규(院規)를 증수(增修)하고 대를 과서 연꽃을 심은 뒤에 자호를 애련당(愛蓮堂)이라 하였다.

● 정승훈(鄭承勳)

鄭承勳三溪密之字號梅竹堂萬曆戊子中生員才器奇偉志節超邁從成浮查河滄洲諸賢撰晉陽誌

정승훈(鄭承勳)은 삼계(三溪) 정밀(鄭密)의 아들이요 호는 매죽당(梅竹堂)이니 만력(萬曆) 무자년(선조 21, 1588)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그의 재기(才器)는 기위(奇偉)하고 지절(志節)이 초매(超邁)하더니 성부사(成浮查), 하창주(河滄洲) 제현을 따라 진양지(晉陽誌)를 찬하였다.

● 한몽룡(韓夢龍)

韓夢龍字士見奉事誠之子幼有至誠遭壬亂乞米糧養親登武科累典州郡皆有聲績

한몽룡(韓夢龍)의 자는 사현(士見)이요 봉사 한계(韓誠)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지성(至誠)이 있으니 임진왜란을 만나 쌀과 양식을 빌어서 아버지를 봉양하였고 무과에 올

라 여러 번 주군을 맡았는데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 성용(成鏞)

成鏞字而聞號慕省齋浮查汝信之子天姿仁厚筆法精麗當丁酉亂往參忘憂堂郭公軍贊劃軍機多著勞勩丁內艱哀毀踰禮因以成疾未禫而卒人皆傷悼

성용(成鏞)의 자는 이문(而聞)이요 호는 모성재(慕省齋)니 부사(浮查) 여신(汝信)의 아들이다. 천자가 인후(仁厚)하고 필법이 정려(精麗)하였다. 정유난을 당하여는 망우당(忘憂堂) 곽공(郭公)의 군에 가서 참가하여 군기(軍機)를 찬획(贊劃)하여 공적이 많이 나타났다. 모친상을 당하여 애화가 예를 지나쳐 이로 인하여 병이 생겼으므로 담제(禫祭)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상심하고 애도하였다.

● 한몽일(韓夢逸)

韓夢逸字子眞號鳳岳翰林汝哲之孫 仁廟甲子中進士官佐郎歷典三邑皆有清德碑學問精博受業于鄭寒岡之門寒岡以高弟待之自永春棄官家食當丙亂艱關賊路奔問行在

한몽일(韓夢逸)의 자는 잔진(子眞)이요 호는 봉악(鳳岳)이니 함림(翰林) 한여철(韓汝哲)의 손자다. 인묘 갑자년(인조 2, 1624)에 진사에 합격하고 벼슬은 좌랑에 세 고을의 원을 지냈는데 모두 청덕비(淸德碑)가 있다. 학문이 정박(精博)하였는데 정한강(鄭寒岡)의 문하에서 수업하니 정한강이 고제로써 대접하였다. 영춘(永春) 군수 벼슬을 버리고 가식(家食)하더니 병자호란을 당하여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로(賊路)를 뚫고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서 문안하였다.

● 이홍훈(李弘勛)

李弘勛字伯建載寧人天資溫厚氣宇卓犖謙恭介潔不樂仕進龍蛇之亂率家僮赴郭忠翼公火旺之陣授軍資監奉事

이홍훈(李弘勛)의 자는 백건(伯建)이요 재령인이다. 천자가 온후(溫厚)하고 기상이 매우 뛰어났으며 겸손하고 공손하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

였다. 용사의 난에는 가동을 거느리고 곽충익공(郭忠翼公)의 화왕산성(火旺山城) 진지로 달려갔더니 군자감봉사에 제수되었다.

● 조차정(曹次疇)

曹次疇字開會南冥文貞公之子也其容貌肖似南冥性慈詳敬謹常夙興夜寐以守先訓官至萬戶以高年階嘉善

조차정(曹次疇)의 자는 개회(開會)니 남명(南冥) 문정공(文貞公)의 아들이다. 그 용모가 거의 남명을 닮았고 성품이 자상하고 경근하였으며 항상 숙흥야매(夙興夜寐)에 선훈(先訓)을 지켰다 벼슬이 만호에 이르렀더니 장수하여 품계가 가선에 이르렀다.

● 하선(河璿)

河璿字士潤號松臺喚醒齋洛之孫從從叔父松亭學與河謙齋最善萬曆癸丑中生員薦授寢郎殿中主簿上疏救時政之失殆五千餘言疏入下優批獎之因下疏廟堂有文集行于世

하선(河璿)의 자는 사윤(士潤)이요 호는 송대(松臺)니 환성재(喚醒齋) 하낙(河洛)의 손자다. 종숙부(從叔父) 송정(松亭)을 따라서 배우고 하겸재(河謙齋)로 더불어 가장 친히 지내더니 만력(萬曆) 계축년(광해군 5, 1613)에 생원에 합격하였다. 천거하여 참봉 전중주부(殿中主簿)에 제수되었더니 상소하여 시정의 잘못을 구하니 거의 오천여 자였다. 소가 들어감에 임금의 관대한 비답을 내리어 포장하고 이어 소를 묘당에 내렸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백홍제(白弘悌)

白弘悌水原人性不羈壬辰亂年尙少奉母夫人匿山中猝遇敵爲敵所擒方渡海伺敵熟睡竊其劍盡殺舟中敵急引同舟被擒者七十餘人而還事聞命除軍資監奉事

백홍제(白弘悌)는 수원인이다. 성품이 구애하지 않았다. 임진난에 나이 아직 어려 모부인을 봉양하여 산 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적을 만나 적에게 잡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바다를 건너려고 하더니 적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그 칼을 가만히 훔쳐서 배 가운데

에 있는 적을 모두 다 죽이고 급히 같은 배에 사로잡힌 사람 70여 명을 이끌고 돌아오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군자감 봉사를 제수토록 명령하였다.

● 정훤(鄭暄)

鄭暄字彥昇號學圃延日人圃隱文忠公後幼有美質長益豪邁初居陝川見昏朝敦倫遂以卜于州西大坪之孤山構學圃齋以爲講學藏修之所 朝廷以學行特除活人署別提謝恩卽還累拜至縣監不就作秋鷹詩以見志有文集行于世

정훤(鄭暄)의 자는 언승(彥昇)이요 호는 학포(學圃)며 연일인이니 포은(圃隱) 문충공(文忠公)의 후예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바탕을 가졌더니 자라서는 더욱 호매(豪邁)하였다. 처음에는 합천에서 살더니 광해군이 윤상(倫常)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드디어 진주의 서쪽 대평(大坪)의 고산(孤山)에 옮겨 자리를 잡아 학포재(學圃齋)를 세우고 강학과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다. 조정에서 학행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활인서 별제를 제수하였으나 사은(謝恩)하고 곧 돌아왔으며 여러 번 임명하여 현감(縣監)에 이르렀으나 나가지 않고 추응시(秋鷹詩)를 지어 뜻을 보이였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성횡(成鏞)

成鏞字而廣號在川亭浮查汝信之子初襲家庭學修爲己又善屬文杜門求志平居几案明斐琴書自娛居前後喪哀毀盡制不離苫席不脫經帶人皆難之

성횡(成鏞)의 자는 이광(而廣)이요, 호는 재천정(在川亭)이니 부사(浮查) 여신(汝信)의 아들이다. 일찍이 가정의 학문을 이어받아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을 닦고 또 글을 잘 하더니 문을 닫고 뜻을 구했으며 평소에도 궤안(几案)을 밝고 깨끗하게 하였고 거문고와 책으로 스스로 즐겼다. 전후(前後) 부모의 상(喪)을 애훼(哀毀)로 제례(制禮)를 다하여 점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상복을 벗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여겼다.

● 이중영(李重榮)

李重榮字景輝號杏窩師事鄭桐溪蘊劬精問學砥礪名行以遺逸薦授齋郎至軍資監正自丙子亂後日誦魯連傳陶靖節詩以洩悲憤享清川祠

이중영(李重榮)의 자는 경휘(景輝)요, 호는 행와(杏窩)니 정동계(鄭桐溪) 은(蘊)을 사사하였다. 정신을 다 쏟아서 학문을 묻고 명행(名行)을 갈고 닦았다. 숨은 선비로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어 군자감정에 이르렀다. 병자난이 있는 뒤로부터는 날마다 노연전(魯連傳)과 도정절시(陶靖節詩)를 외워서 비분을 달래었다. 청천사(淸川祠)에 모셨다.

● 이중경(李重慶)

李重慶字善甫嗜學好義常懷憂世之志及明社屋題所居楣曰皇明處士之廬終身不出
이중경(李重慶)의 자는 선보(善甫)니 학문을 즐기고 의를 좋아하며 항상 세상을 근심하는 뜻을 품고 있더니 명나라 사직이 망하자 살고 있는 문 위에 ‘황명처사지려(皇明處士之廬)’라 쓰고는 종신토록 나오지 아니하였다.

● 한몽삼(韓夢參)

韓夢參字子變號釣隱獻納汝哲之孫萬曆癸丑中生員遊鄭寒岡張旅軒之門學問精粹踐履篤實以薦授童蒙教官大君師傅嘗就郵官數月卽賦雪竹詩徑歸丙子媾成後絕意仕宦除拜皆不就漁釣以終 贈執義享臨川院有文集行于世

한몽삼(韓夢參)의 자는 자변(子變)이요, 호는 조은(釣隱)이니 헌납 한여철(韓汝哲)의 손자다. 만력(萬曆) 계축년(광해군 5, 1613)에 생원에 급제하고 정한강(鄭寒岡), 장여헌(張旅軒)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학문이 정수(精粹)하고 실천이 독실하였으므로 천거로써 동몽교관과 대군사부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찰방으로 나아간지 두어 달 만에 즉시 설죽시(雪竹詩)를 노래하고 곧장 돌아왔으며 병자년에 화친이 이루어진 뒤로는 사환(仕宦)에서 뜻을 끊고 제배(除拜)되었어도 나아가지 않고 낚시로써 마쳤다. 집의를 추증하고 임천서원(臨川書院)에 모셨으며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윤승남(尹承慶)

尹承慶字善叔坡平人修撰孝聘之玄孫也中生進兩試丁丑爲軍資監參奉以募穀勞特命贈父官辛卯爲德川院長將釐正先生文集而論議不協公深爲歎傷雅性淡泊不喜紛華潛究學問所與從遊皆當世名流也

윤승남(尹承慶)의 자는 선숙(善叔)이요 과평인이니 수찬 윤희빙(尹孝聘)의 현손이다. 생진 양시에 합격하고 정축년에 군자감참봉이 되어 곡식을 모은 노력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신묘년에는 덕천서원(德川書院) 원장(院長)이 되어 선생의 문집을 논의하더니 논의가 맞지 아니하여 공이 깊이 탄식하였다. 천성이 담박(淡泊)하여 변화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학문에 침착하게 연구하니 더불어 종유한 이가 모두 당세의 명류였다.

● 하홍도(河弘度)

河弘度字重遠號謙齋大司諫潔後天資卓異學問精深當光海時廢舉子業受業于河松亭受一以傳山海之學講明道學獎勉後進丁卯虜變倡起義旅 孝顯兩朝累徵不起 肅宗朝賜之米菽又有旨尊禮甚厚上疏謝之仍陳君道九事及卒士林立祠宗川

하홍도(河弘度)의 자는 중원(重遠)이요, 호는 겸재(謙齋)니 대사간 하결(河潔)의 후손이다. 천자가 탁이(卓異)하고 학문이 정심(精深) 하더니 광해군의 때를 당하여 과거 공부를 버리고 하송정(河松亭) 수일(受一)에게서 학업을 받았으며 남명선생의 학문으로써 도학을 강명(講明)하여 후진들을 권장하여 힘썼다. 정묘호란에 앞장서서 부르짖어 의병을 일으켰으며 효종·현종 양조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숙종조에서는 쌀과 콩을 내려주고 또 교지를 내리니 존경하여 예우함이 매우 두터웠다. 상소하여 사례하고 이어 군도(君道)의 아홉 가지 일을 펴어 올렸다. 돌아가심에 이르러서는 사림들이 종천(宗川)에 사당을 세웠다.

● 성순(成鎔)

成鎔字而振號川齋浮查汝信之子生而穎秀才氣過人文章早著自少有志於學濡染庭訓探蹟經義眞積日久心與理會與河謙齋趙岡河台溪往復論學其辨義利得失論人物邪正有確然不可奪之操後士林議膾享而未果

성순(成鎔)의 자는 이진(而振)이요 호는 천재(川齋)이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영리하고 뛰어나서 재기(才氣)가 남보다 뛰어나고 문장이 일찍부터 두드러졌다.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정훈(庭訓)에 유염(濡染)하였고 경의(經

義)의 탐색(探蹟)하여 참되게 오래토록 쌓아서 마음이 이치와 만났다. 하겸재(河謙齋), 조봉강(趙鳳岡), 하태계(河台溪)로 더불어 왕복하며 학문을 논하였으며 그의 의리, 득실과 인물의 사정(邪正)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연함이 있어 뒤에 사람들이 사당을 모시는 일을 의논하였으되 이루지 못하였다.

● 이중광(李重光)

李重光字景顯號杏亭以行義薦至察訪丙子之亂以水陸軍餉差員督運至鳥嶺聞和議已成痛哭投旆而歸築亭于清源里自題曰死可飢周粟生當掛潁瓢回車及未遠世路多塵囂除昌平縣監不就享清川祠

이중광(李重光)의 자는 경현(景顯)이요, 호는 행정(杏亭)이다. 행의(行義)로써 천거하여 찰방에 이르렀다. 병자의 난에 수륙군향차원(水陸軍餉差員)으로 운반을 독려하여 조령(鳥嶺)에 이르러서 화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듣고 통곡하며 깃발을 던지고 돌아왔다. 정자를 청원리(淸源里)에 쌓고 스스로 써서 이르기 “죽어도 주나라 곡식에서 굶주림이 옳겠고 살아서는 마땅히 영수(潁水) 바가지를 걸어야겠네. 수레를 돌이킴에 멀리 가지 못하리니 세로(世路)에는 시끄러운 것도 많은 것을…”라 하였다. 창평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청천사(淸川祠)에 모셨다.

● 정제생(鄭悌生)

鄭悌生號東湖南溪承尹之子萬曆丙午中進士早承家學踐履篤實趙鳳岡謙挽曰德望聯三代文章冠一鄉

정제생(鄭悌生)의 호는 동호(東湖)니 남계(南溪) 승윤(承尹)의 아들이다. 만력(萬曆) 병오년(선조 39, 1606)에 진사에 합격하고 일찍부터 가학을 이어받아 실천이 독실(篤實)하였으니 조봉강(趙鳳岡) 겸(謙)이 만시(挽詩)에 이르기 “덕망은 삼대에 이어졌고 문장을 일향에 으뜸이었네.”라 하였다.

● 성한영(成澣永)

成澣永字渾然號釀和堂浮查汝信之孫孝子鑄之子也性孝友克承家學與河謙齋河台

溪趙澗松趙鳳岡諸賢講究切磨蔚有重望

성한영(成澣永)의 자는 혼연(渾然)이요 호는 양화당(釀和堂)이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손자요 효자 성박(成鑄)의 아들이다. 성품이 효우스럽고 가학을 잘 이어받았다. 하겸재(河謙齋)·하태계(河台溪)·조간송(趙澗松)·조봉강(趙鳳岡) 제현으로 더불어 강구하고 절마(切磨)하여 울연(蔚然)하게 중망(重望)이 있었다.

● 문홍운(文弘運)

文弘運字汝幹號梅村萬曆壬子中進士丁酉從大人醒狂公倡義作召檄文錄宣武原從功有文集

문홍운(文弘運)의 자는 여간(汝幹)이요, 호는 매촌(梅村)이니 만력(萬曆) 임자년(광해군 4, 1612)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정유년에 부친 성광공(醒狂公)을 따라 창의하여 소격문을 만들었고 선무원종공(宣武原從功)에 기록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 정대영(鄭大榮)

鄭大榮字汝慶號鳳谷忠毅公農圃文孚之長子姿稟英偉字量宏深少有宰輔之器庚戌中司馬風猷才學爲太學所推重及遭先公之禍又抱宗國之痛絕意當世與兄弟叔姪南遷于晉州之鳳谷遵養時晦以終其身後 贈執義

정대영(鄭大榮)의 자는 여경(汝慶)이요, 호는 봉곡(鳳谷)이니 충의공(忠毅公)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장자다. 자품(姿稟)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었으며 젊어서부터 재상의 그릇이 있었다. 경술년에 사마에 합격하였으며 경륜과 재학으로 태학(太學)에서 추중(推重)하는 바 되었다. 부친이 화를 당함에 이르러서는 또 명나라가 망하는 것의 아픔을 안고 당세에서 뜻을 끊고 형제와 숙질로 더불어 남쪽 진주(晉州)의 봉곡(鳳谷)에 숨어서 법도에 따라 봉양하고 때에 맞게 숨어서 그 몸을 마쳤다. 뒷날 집의를 추중하였다.

● 정대용(鄭大隆)

鄭大隆字汝準大榮之弟文章筆法爲世所推性至孝痛先考冤歿衰經南下仍居焉義妓祠前巖面義巖二字卽其筆也後 贈左承旨

정대용(鄭大隆)의 지는 여준(汝準)이요, 대영(大榮)의 아우다. 문장과 필법으로 세상에 추중(推重)을 받았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친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아프게 여기어 상복을 입은 채로 남하하여 그대로 살았다. 의기사(義妓祠) 앞 바위의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는 곧 그의 글씨다. 뒤에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 최탁(崔濯)

崔濯號竹塘全州人天資穎秀文行早成登武科 仁廟丙子監光陽冬有胡寇上疏斥和議癸未世子及大君在瀋陽公以翊贊從因進言曰句踐之報吳實由於嘗膽而非范蠡輩爲之謨安能雪會稽之恥耶大君曰才不借於異代安知數千里東土無一范蠡耶公要畫師孟永光畫會稽山圖以進後 丁卯朝以此命題士嘗以機事使燕而卒後 贈左承旨享仁川院

최탁(崔濯)의 호는 죽당(竹塘)이며 전주인이다. 천자(天資)가 뛰어나고 문행이 일찍 이루어져서 무과에 올랐다. 인묘의 병자년에 광양에 현감이 되었다니 겨울에 호란이 있었으므로 화의(和議)를 배척하는 상소를 하였다. 계미년에 세자(世子:소현세자)와 대군(大君:봉림대군)이 심양(瀋陽:중국 봉천지방)에 있게 됨에 공이 익찬(翊贊)으로 따라가서 인하여 진언(進言)하여 이르기를 “구천(句踐)이 오(吳)나라에 보복한 것은 실로 쓸개를 맞본 것에 연유된 것이니 범려의 무리와 모책(謀策)이 아니었다면 어찌 회계의 치욕을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 하니 대군이 이르기를 “재주를 이대(異代)에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수천리(數千里)의 동토(東土)에 한 사람 범려(范蠡)가 없을 줄 알겠는가?”라 하였다. 공이 화사 맹영광(孟永光)에게 요청하여 회계산(會稽山)의 그림을 그려서 올렸다. 정묘조에 이로써 제목을 삼아 선비를 시험토록 명령하였다. 일찍이 기밀의 일로써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졸하니 뒤에 좌승지를 증여하고 인천서원(仁川書院)에 모셨다.

● 하홍달(河弘達)

河弘達字致遠號樂窩謙齋弘度之弟器局寬洪儀幹魁碩當昏朝廢功令專心性理之學從伯氏講磨道義人擬之河南伯叔文章簡古筆法適勁射御星算醫藥兵家之流無不旁通李白軒景奭秉銓首擬儒職而遽歿

하홍달(河弘達)의 자는 치원(致遠)이요, 호는 락와(樂窩)니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의 아우다. 기국(器局)이 넓고 크고 품모가 우람하였으며 혼조(昏朝)를 당하여는 과거를 버리고 성리의 학에 전심하였다. 백씨를 따라 도의를 강마하니 사람들이 하남(河南)의 백숙(伯叔)에 비겼다. 문장이 간고(簡古)하였고 필법이 힘이 있었다. 활쏘기, 말타기, 천문, 수학, 의약(醫藥), 병가(兵家)의 류(流)에까지 두루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백헌(李白軒) 경석(景奭)이 이조판서가 되어 맨 먼저 관직에 추천하려 했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 정이심(鄭以諶)

鄭以諶字慎和號慕軒殷烈公臣烈之后也性本孝友究心學問遊李公光岳之門與鄭桐溪許眉叟河謙齋諸賢道義相磨享清溪祠

정이심(鄭以諶)의 자는 신화(慎和)요 호는 모현(慕軒)이니 은열공(殷烈公) 정신열(鄭臣烈)의 후예다. 성품이 본래부터 효우스러웠고 마음의 학문을 탐구하였다. 이공(李公) 광약(光岳)의 문하에 놀아 정동계(鄭桐溪) 허미수(許眉叟) 하겸재(河謙齋) 제현으로 더불어 도의를 서로 연마하였다. 청계사(清溪祠)에 모셨다.

● 하직(河濯)

河濯字清伯號草亭台溪潛季弟從成浮查汝信學才行夙著蔚有時望及明亡不復應舉與二兄隱居述懷以寓匪風下泉之思焉

하직(河濯)의 자는 청백(淸伯)이요, 호는 초정(草亭)이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계제다. 성부사(成浮查) 여신(汝信)을 따라 배우더니 재행(才行)이 일찍부터 두드러져서 매우 성한 시대적 명망이 있었으나 명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고 두 형과 더불어 은거하며 회포를 펴어 명나라가 망하는 것을 슬퍼한 생각을 부쳤다.

● 손석운(孫錫胤)

孫錫胤字汝善密陽人崇禎癸酉中進士與河謙齋弘度友善丙子之亂從河台溪潛起義

旅至尙州聞構成而退杜門求志遂無意當世

손석윤(孫錫胤)의 자는 여선(汝善)이요, 밀양인이니 송정(崇禎) 계유년(인조 31, 1633)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하겸재(河謙齋) 홍도(弘度)와 더불어 벗으로서 좋게 지냈다. 병자의 난에 하태계(河台溪) 진(潛)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는데, 상주에 이르러서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듣고 물러나서 두문(杜門)하고서 뜻을 구하고 드디어 당세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 한시중(韓時重)

韓時重字汝任號沙谷鳳岳夢逸之子 仁廟戊子中司馬歷典四郡所之皆有清德踐履篤實沈深有德量士林倚重官至司議

한시중(韓時重)의 자는 여임(汝任)이요, 호는 사곡(沙谷)이니 봉악(鳳岳) 한몽일(韓夢逸)의 아들이다. 인조 무자년(인조 36, 1648)에 사마에 합격하고 네 고을의 원님을 역임하였더니 가는 곳마다 모두 청덕이 있었다. 실천이 독실하고 침착하고 깊은 덕량(德量)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무겁게 여기더니 벼슬이 사의(司議)에 이르렀다.

● 하달영(河達永)

河達永字混源號具邇堂進士挾子儀容端粹言論清介踐履篤實與河謙齋弘度權察訪克經安上舍時進爲道義交及卒謙齋以詩哭之曰追欽山海承先志釐正淵源覺後蒙

하달영(河達永)의 자는 혼원(混源)이요, 호는 구이당(具邇堂)이니 진사 하협(河挾)의 아들이다. 용모가 단정하고 순수하고 언론이 밝고 깨끗하며 실천이 독실하였다. 하겸재(河謙齋) 홍도(弘度), 권찰방(權察訪) 극경(克經), 안상사(安上舍) 시진(時進)으로 더불어 도의교(道義交)가 되었으니 세상을 떠남에 이르러서 겸재(謙齋)가 시로서 울면서 이르기를 “남명을 추모하고 흠향하여 선인의 뜻을 이어받고 연원(淵源)을 바로 잡아 후몽(後蒙)을 깨우쳤네!”라 하였다.

● 한시회(韓時晦)

韓時晦字汝養釣隱夢參之子器局高曠風神秀麗早承庭訓克紹詩禮之業而亦有侷儻

不羈之像生平無營爲苟且之事以子勳 贈左承旨

한시회(韓時晦)의 자는 여양(汝養)이니 조은(鈞隱) 한몽삼(韓夢參)의 아들이다. 기국(器局)이 높고 겸허하고 풍채가 수려하며 일찍이 정훈(庭訓)을 이어받고 시례(詩禮)의 업을 잘 빛내었다. 그리고 또한 뜻이 크고 얽매이지 않아 생平的 구차한 일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의 공훈으로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 하달한(河達漢)

河達漢字通源進士挾子早襲詩禮之訓孝友出天爲鄉黨標準 顯宗庚子中司馬不復應舉築龍岡精舍以爲藏修之所宋尤菴同春日之以仙鶴

하달한(河達漢)의 자는 통원(通源)이니 진사 하협(河挾)의 아들이다. 일찍이 시례(詩禮)의 교훈을 이어받았고 효우가 출천(出天)하여 향당의 표준이 되었다. 현종 경자년(현종 1, 1660)에 사마에 합격하고는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용강정사(龍岡精舍)를 세워 장수(藏修)의 처소로 삼으니 송우암(宋尤菴) 동춘(同春)이 선학(仙鶴)으로써 지목하였다.

● 허동립(許東嶽)

許東嶽字震伯號蓮塘金海人武科官副摠管雄偉剛直智勇兼備世稱關西五虎將丁卯扈駕江都丙子戰於雙嶺皆有偉勳 顯廟賜祭文略曰 皇祖中歲有憂西鄙命選將材用以不次時惟五人一卽卿爾紫綬西南藹然治聲五掌闡兵六佐中軍如何一疾遽爾不起

허동립(許東嶽)의 자는 진백(震伯)이요, 호는 연당(蓮塘)이며 김해인이다. 무과에 올라 벼슬이 부총관이었고 웅위하고 강직하여 지용을 겸비하니 세상에서 관서의 오호장(五虎將)이라 일컬었다. 정묘년에는 어가를 호종(扈從)하여 강도(江都)에 갔고 병자년에는 쌍령(雙嶺)에서 싸워서 모두 위훈(偉勳)이었다. 현묘(顯廟)께서 제문을 내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황조(皇祖)의 중세(中歲)에 근심이 서비(西鄙)에 있어 장재(將材)를 뽑아서 불차(不次)로서 쓰도록 명령하였을 때에 오직 5인이었으니 한 사람은 경(卿)이었다. 높은 관직으로 서남에서 짙은 치성(治聲)이었도다. 다섯 번이나 병사를 맡고 여섯 번 중군(中軍)을 도왔도다. 어찌다가 한번 든 병으로 갑자기 가고 일어나지 못했는고?”라 하

였다.

●이현재(李玄栽)

李玄栽字培元杏亭重光之子號竹村 孝廟甲午中進士從韓鈞隱夢參朴匡西震英倡多士設時月巡講諄諄獎諭一方人士多賴而成就者

이현재(李玄栽)의 자는 배원(培元)이요, 행정(杏亭) 이중광(李重光)의 아들이니 호는 중촌(竹村)이다. 효종 갑오년(효종 3, 1654)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한조은(韓鈞隱) 몽삼(夢參) 박광서(朴匡西) 진영(震英)을 따라 많은 선비에게 앞장서 호소하였다. 때때로 다니면서 강학(講學)을 하며 정성스럽게 권장하여 깨우치니 일방의 인사로서 힘입고 성취한 자가 많았다.

●백서한(白瑞翰)

白瑞翰水原人 仁祖乙酉中武科歷官至兵使副摠管 顯宗賜祭文略曰赳赳之姿投筆挽弧早登虎榜發軔仕塗內隸周衛外佩郡符勤勞茂著餘數十年予用授鉞曰再南邊遊刃有恢吏戢民便失一千城追念愴惻

백서한(白瑞翰)은 수원인이니 인조 을묘년(인조 23, 1645)에 무과에 합격하고 벼슬에 올라 병사, 부총관에 이르렀다. 현종이 제문을 내려 이르기를 힘센 모습으로 투필(投筆)하고 활줄을 당겼도다. 일찍이 무과에 올라 벼슬길에 출발했도다. 안으로 주위(周衛)를 맡고 밖으로는 군부(軍符)를 찾도다. 근로(勤勞)가 성하고 두드러져서 수십년이 넘었도다. 내가 써서 도끼를 주며 이르기를 ‘재차 남변(南邊)을 지키라’ 하였던니 숨씨를 자유롭게 발휘하여 넉넉함이 있고 아전은 말을 잘 듣고 백성은 편해졌도다. 한사람 간성을 잃으니 생각할수록 슬프도다.”라고 하였다.

●하명(河溈)

河溈字次晦滄洲愷之孫 顯宗庚子中生員遂廢舉業專心爲仙鶴同門諸公亦皆推重以南冥文集事爲崔張輩所誣兩賢知其無妄救解甚力事竟歸正有實記行于世

하명(河溈)의 자는 차회(次晦)니 창주(滄洲) 하중(河愷)의 손자다. 현종 경자년(현종

1, 1660)에 생원에 합격하고는 드디어 과거를 버리고 위기(爲己)의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우암(尤菴) 동춘(同春) 양현의문에서 노니 양현께서 애중히 여기어 선학(仙鶴)으로써 지목하셨고 동문 제공도 또한 모두 추중(推重)하였다. 남명문집(南冥文集)의 일 때문에 최(崔) 장(張)의 무리에게 무함되었더니, 양현께서 뜻밖에 화를 당한 것을 알고 구해(救解)에 매우 힘썼으므로 일이 마침내 귀정(歸正)케 되었다. 실기가 있어 세상에 행한다.

● 한익세(韓翼世)

韓翼世字輔卿號知止堂承旨時晦之子己巳中武科歷典十七郡著有清白之名官至水使錄保社原從功臣弟榮世字達卿雅性恬退早登仕籍而不求榮進孝養偏母飭躬自守後贈戶曹參判

한익세(韓翼世)의 자는 보경(輔卿)이요, 호는 지지당(知止堂)이니 승지 한시晦(韓時晦)의 아들이다. 기사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열일곱 고을원을 맡았으니 모두 청백의 이름이 있었고 벼슬이 수사에 이르러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으로 기록 되었다. 아우 영세(榮世)의 자는 달경(達卿)인데 맑은 성품이 편안하고 겸손하더니 일찍이 사적(仕籍)에 올랐으나 영진(榮進)을 구하지 않고 편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며 몸을 신칙하여 스스로 지켰다. 뒤에 호조참판을 추증하였다.

● 곽세건(郭世楨)

郭世楨字公可號無爲子自玄風移寓下臺官至益山郡守弱冠當丙子亂欲仗劍勤王聞和議已決痛哭而還早從眉叟許文正公遊文正以志意高明大加推獎甲寅應旨上疏論己亥禮說

곽세건(郭世楨)의 자는 공가(公可)요, 호는 무위자(無爲子)니 현풍(玄風)으로부터 하대(下臺)에 옮겨와 살았는데 벼슬이 익산군수에 이르렀다. 약관에 병자난을 당하여 칼을 잡고 근왕코자 하더니 화의가 이미 맺어진 것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일찍부터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을 따라 놀더니 문정공도 그의 지의(志意)가 고명(高明)하였기 때문에 크게 추장(推獎)을 가하였다. 갑인년에는 임금의 뜻에 응하여 상소하여 기해의 예설(禮說)을 논하였다.

● 하진용(河震龍)

河震龍字啓圖號雙負軒天性至孝暫不離親側器局軒豁膂力絕倫以參奉別薦登武科除宣傳官有干城之望 孝宗朝從尤庵宋文正公密議北事出宰理山遽遭泣弓由是成疾因山後馱病歸第對子姪略不語北事

하진용(河震龍)의 자는 계도(啓圖)요, 호는 쌍부헌(雙負軒)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잠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기국(器局)이 시원하고 활짝 열렸다. 체력이 절륜하니 참봉으로 특별히 천거하여 무과에 올라 선전관으로 제수되어 간성의 명망이 있었다. 효종조에 우암(尤庵) 송문정공(宋文正公)을 따라 북사(北事)를 밀의(密議)하고 이산(理山) 고을원에 나갔다가 갑자기 임금의 죽음을 만났다. 이로 말미암아 병에 걸려 인산(因山)을 한 뒤에 병을 앓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으나 자질(子姪)에게는 북사(北事)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 양억(梁嶷)

梁嶷字景仰南原人相貌魁偉姿稟卓異人以遠大期之登 孝宗辛卯武科宣傳官李相國浣器重之嘗宰興陽縣有憎挾左遵遊貴要間公知其妖竟致于法世以是躱之然以別篤拜全州鎮營將

양억(梁嶷)의 자는 경양(景仰)이요, 남원인이다. 용모가 크고 자품(姿稟)이 우뚝하고 특이하니 사람들이 원대해질 것으로 기약하였다. 효종 신묘년(효종 2, 1651)에 무과에 올라 선전관에 임명되니 이상국(李相國) 완(浣)이 인재로 여겨 중시하였다. 일찍이 홍양현을 맡았더니 중이 있어 못 된 무리들을 끼고 요직에 있는 귀족들 사이에서 놀았다. 공이 그의 요괴함을 알고 마침내 법으로 처벌했더니 세상에서 이로써 옳게 했다고 하였다. 뒤에 특별히 천거하여 전주진 영장을 임명하였다.

● 유세장(柳世章)

柳世章字晦卿號拱北亭文化人 肅宗丙辰登武科官至縣監初爲訓練哨官時猝有急亂公當先追擊奮不顧身主將稱其忠 仁顯后廢居私邸以宣傳官日裹白米三升于布囊書臣謹封三字以投進及后還宮尋投米人而公終不自言築拱北亭以終燕意進取後 贈

左承旨

유세장(柳世章)의 자는 회경(晦卿)이요, 호는 공북정(拱北亭)이니 문화인이다. 숙종 병진년(숙종 2, 1676)에 무과에 올라 벼슬이 현감에 이르렀다. 처음에 훈련원 초관(哨官)이 되었더니 때마침 갑자기 급난이 있어 공이 선두에서 추격하여 멀쳐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장(主將)이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어 사저(私邸)에 거(居)할 때에 선전관으로써 날마다 백미 석 되를 베주머니에 싸서 “신이 근봉(謹封)합니다.”라는 세 글자를 써서 던져 올렸다. 후(后)가 환궁하여 쌀을 던져준 사람을 찾았으나 공은 끝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공북정(拱北亭)을 세우고 세상을 마쳤는데, 편안히 지내면서 진취에 뜻이 없었으며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 유세창(柳世彰)

柳世彰字晦仲號松谷世章弟也早喪父母及長以父死日制斬衰結廬墓側饋奠哭泣一如初喪有飛雉山獐之異三年喪畢又欲服母爲伯氏所止終身以爲恨爲學主小學行己務實踐嘗謁尤菴而歸築學圃齋日與士友講磨造理教授後進所著有家禮攷證

유세창(柳世彰)의 자는 회중(晦仲)이요, 호는 송곡(松谷)이며 유세장(柳世章)의 아우다. 일찍이 부모를 잃었더니 장성하기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날로써 상복을 만들고 묘결에 움막을 만들어 상식(上食)과 곡읍을 한결 같이 하였다. 초상(初喪)에 꿩이 날아들고 산의 노루가 들어오는 이적(異蹟)이 있었고 삼년상을 끝내고 또 어머니의 복을 입고자 하다가 백씨의 제지 때문에 종신토록 한으로 여겼다. 학문은 소학을 주로 하였고 실천을 힘썼으며 일찍이 우암(尤菴)을 뵈고 돌아와서는 학포재(學圃齋)를 세우고 날마다 사우로 더불어 도리를 강마하고 후진을 교수하였다. 저술한 것으로 『가례고증(家禮攷證)』이 있다.

● 조석규(趙錫圭)

趙錫圭號默齋咸安人大笑軒宗道玄孫性至孝廬墓三年親歿廢舉業專意性理群書文章筆法傳于世後議賸享未果

조석규(趙錫圭)의 호는 묵재(默齋)요 함안인이니 대소현(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여묘에서 삼년을 모셨고 아버지가 돌아간 뒤로는 과거를 버리고 오로지 성리(性理)의 군서(群書)에만 뜻을 두었으며 문장과 필법이 세상에 전한다. 뒷날 향사(享祀)를 의논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하철(河澈)

河澈字伯應號雪窓樂窩弘達子早廢公車專心聖學造詣精深文章德行卓然爲儒林推重旁通陰陽星曆射御醫藥等書筆畫尤健一代金石樓觀題額殆遍遠近藥泉南相九萬以禮儒啓聞明谷崔錫鼎每以國士稱以遺逸累入薦剡以子貴 贈大司憲

하철(河澈)의 자는 백응(伯應)이요, 호는 설창(雪窓)이니 락와(樂窩) 하홍달(河弘達)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성인의 학문에 전심하여 조예가 정심하였다. 문장과 덕행이 탁연(卓然)하여 유림에서 추중(推重)되었고 곁으로 음양, 천문, 역법, 활쏘기, 수레몰기, 의약 등의 서에 통달하였으며 필획이 더욱 웅건하였다. 일대에 금석과 누각의 편액을 써서 거의 원근에 두루 하였다. 재상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예유(禮儒)로써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알렸고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이 매양 국사(國士)로써 일컬어 유일(遺逸)로써 여러 번 천거에 들었다. 아들이 귀하게 된 것 때문에 대사헌(大司憲)을 추증하였다.

● 허성(許晟)

許晟字克明副摠管東嶽之子天稟魁梧志在四方長陵丙戌登武科歷宣傳官累典州郡官至長淵府使所至有治績李相公浣柳大將赫然皆器重之

허성(許晟)의 자는 극면(克明)이니 부총관 동립(東嶽)의 아들이다. 천품이 우뚝하고 뜻이 사방에 있더니 인조 병술년에 무과에 올라 선전관을 지내고 여러 번 고을을 맡았다가 벼슬이 장연부사에 이르렀더니 이르는 곳마다 치적이 있었다. 이상공(李相公) 완(浣)과 유대장(柳大將) 혁연(赫然)도 모두 인재로 여겨 중시하였다.

● 박창윤(朴昌潤)

朴昌潤字德而凌虛敏孫登武科官至水使以忠義保國孝友傳家八字遺戒子孫嘗於殿

庭排諸葛武侯入陳圖 肅廟歎尙曰西班中可恃者惟朴某一

박창윤(朴昌潤)의 자는 덕이(德而)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손자다. 무과에 올라 벼슬이 수사에 이르렀더니 “충의로써 보국하고 효우로 집안에 전하라.”는 여덟 글자를 자 손에게 훈계로 남겼다. 일찍이 대궐 뜰에서 제갈무후(諸葛武侯)의 팔진도를 배웠더니 숙종이 감탄하고 가상히 여겨 이르기를 “서반중에 믿을만한 사람은 오직 박모 한 사람이다.”라 하였다.

● 정유정(鄭有禎)

鄭有禎號鳳岡農圃文孚孫兒時作文忠毅公甚奇愛之行己以孝悌爲本爲學以敬恕爲主兄弟同居日夜講磨河謙齋諸賢皆推許焉 肅廟朝 贈左承旨

정유정(鄭有禎)의 호는 봉강(鳳岡)이니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손자다. 아이 때 글을 지으니 충의공(忠毅公)이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자기를 처신함에 있어서 효제로써 근본을 삼고 위학(爲學)에 경서(敬恕)로써 주로 삼았으며 형제가 함께 살면서 밤낮으로 강학하고 탁마하니 하겸재(河謙齋)와 제현이 모두 추허(推許)하였다. 숙묘조에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 하신행(河慎行)

河慎行字汝敏寧無成應圖孫早有文名累舉不中遂絕意名塗以訓誨後進爲己任爲德川濫溪院長嚴立院規激揚士氣人服其長者風焉

하신행(河慎行)의 자는 여민(汝敏)이니 영무성(寧無成) 하응도(河應道)의 손자다.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고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니 드디어 벼슬길에 뜻을 끊고 후진을 교육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덕천서원(德川書院)과 람계서원(濫溪書院)의 원장(院長)이 되어 원규(院規)를 엄하게 세우고 선비의 기상을 격양시키니, 사람들이 그 장자의 풍도에 감복하였다.

● 조광세(趙光世)

趙光世號梧齋大笑軒宗道后天性純粹專心學問爲世所推以學行屢入薦劾明菴鄭公

枳贊曰學力精深行誼純篤

조광세(趙光世)의 호는 오재(梧齋)니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후예다. 천성이 순수하고 학문에 전심하여 세상에서 추앙되었다. 학행으로써 여러 번 천거되었다. 정공(鄭公) 식(枳)이 기리어 이르기를 “학력이 정심하고 행의가 순독하였다.”라 하였다.

● 한범석(韓範錫)

韓範錫字聖賚參判榮世之子 肅宗乙亥登武科歷五道節度使三道統禦使陞副摠管以海賊偵探事單使赴燕京豐功偉烈俱載 教諭書及 賜祭文戊申參揚武原從勳及卒有星隕之異

한범석(韓範錫)의 지는 성뢰(聖賚)니 참판 한영세(韓榮世)의 아들이다. 숙종 을해년(숙종 21, 1695)에 무과에 올라 다섯 도의 절도사와 세 도의 통어사(統禦使)를 역임하고 부총관에 올랐다. 해적(海賊)을 정탐(偵探)하는 일로 단독으로 사신으로 연경(燕京)에 갔다. ‘풍공(豐功)이 위열(偉烈)하다’라고 한 말이 교유하는 글과 사제문(賜祭文)에 실려 있다. 무신년에는 양무원종훈(揚武原從勳)에 참여하였고 즐하기에 미쳐서는 별이 떨어지는 이변이 있었다.

● 한기석(韓箕錫)

韓箕錫字東賚號柳塢範錫之弟氣宇軒豁磊砢不羈博學善文章尤用力於紫陽書深有得於直字訣倡士友上訴請尤春兩賢從祠文廟有遺集

한기석(韓箕錫)의 지는 동뢰(東賚)요, 호는 유오(柳塢)니 한범석(韓範錫)의 아우다. 기상이 우뚝하고 활짝 열려 하며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다. 널리 배우고 문장을 잘하였다. 더욱 주자의 서법에 힘을 써서 직자결(直字訣)에서 얻은 것이 있었다. 사우에게 부르짖어 상소(上疏)하여 우암과 동춘 양현을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하였다. 유집이 있다.

● 하덕망(河德望)

河德望字瞻卿號養正齋雪牕澈之子文章典雅筆法遒勁敦行孝悌兼通六藝監司閔應洙以遺逸 啓聞御史朴文秀 啓上曰讀書必究義理事親極其誠孝 英宗乙卯知事金在魯

筵奏晉州十一人河某學問行誼爲嶺南翹楚自上有刻別調用之命而公已歿仍 贈持平

하덕망(河德望)의 자는 침경(瞻卿)이요, 호는 양정재(養正齋)니 설창(雪窓) 하철(河澈)의 아들이다. 문장이 바르고 품위가 있고 필법이 힘차고 굳세었다. 돈독하게 효제를 행하고 겸하여 육예에 통하였다. 감사 민응수(閔應洙)가 유일로써 임금에게 아뢰었고,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독서에는 반드시 의리를 구명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는 그 성효를 극하였습니다.”라 하였다. 영조 을묘년(영종 11, 1725)에는 지사 김재로(金在魯)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사인 하모는 학문과 행의가 영남에서 뛰어납니다.”라 하니 임금으로 두터 각각 특별히 등용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공은 이미 돌아간 뒤였다. 이어서 지평을 추증하였다.

● 손명래(孫命來)

孫命來字顯承號昌舍密陽人 肅廟癸酉俱中生進庚寅登文科歷官至典籍有雋才九歲讀書山寺題懸鼓曰虛心藏霹靂白日動雷霆已膾炙一時及長治古文辭蒼勁壯恬力追古作者軌範在官抗直不撓清慎自守不與權貴通遊以此不容於時退守丘樊以文章自娛有文集行于世

손명래(孫命來)의 자는 현승(顯承)이요, 호는 창사(昌舍)니 밀양인이다. 숙묘 계유년(숙종 19, 1693)에 생원. 진사에 모두 합격하였고 경인년에 문과에 올랐다. 벼슬이 전직에 이르렀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 9세에 산사에서 글을 읽더니 달린 북을 제목으로 하여 시를 지어 이르기를 “텅 빈 마음에 벽력(霹靂)을 감추었고 한낮에도 뇌정(雷霆)을 움직이네.”라 하였다. 이미 일시에 회자 되더니 자람에 이르러서는 고문(古文)을 공부함에 문사가 옛스럽고 굳세어 씩씩하고 차분하여 옛 작자의 궤범(軌範)을 힘써 추종하였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굴하지 않고 바르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조심하기를 스스로 지키어 권세 있는 귀족들과 어울려 놀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시대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물러나서 산수 속에서 지내면서 문장으로써 즐겼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하세응(河世應)

河世應字應瑞號知命堂松亭河受一玄孫中肅宗己卯生員才器聰穎見聞廣博爲文章

皆傳經義申青泉有翰嘗曰吾南遊汾晋之間昌舍翁能抽筆抗衡而若其菽粟之文禮先一飯於知命居士也與李息山萬敷李訥菴光庭爲道義交杜門教授隨才成就爲一時推重有文集行于世

하세응(河世應)의 자는 응서(應瑞)요 호는 지명당(知命堂)이며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현손이다. 숙종 기묘년(숙종 25, 1699)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재기(才器)가 뛰어나고 건문이 광박(廣博)하였으며 문장을 지음에 있어서는 모두 경전의 뜻을 전하였다. 신청천(申靑泉) 유한(維翰)이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남쪽으로 진주에서 늘적에 창사옹(昌舍翁)도 능히 붓을 뽑아 겨루었는데, 평범한 실용적인 글은 지명거사에게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식산(李息山) 만부(萬敷)와 이눌암(李訥菴) 광정(光庭)으로 더불어 도의의 교유를 하였고 문을 닫고 교수하여 재주를 따라 성취시키니 일시에 추중(推重)되었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박태무(朴泰茂)

朴泰茂字春卿號西溪凌虛敏之曾孫中 英廟增廣生員文章行誼爲嶺右翹楚 贈司僕正享芝溪祠有文集刊行(道伯李宗誠褒啓有行成德立州里化之句)

박태무(朴泰茂)의 자는 춘경(春卿)이요, 호는 서계(西溪)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증손이다. 영조때 증광시(增廣試)의 생원에 합격하였더니 문장과 행의가 강우(江右)에서 으뜸이었다. 사복정(司僕正)을 추증하고 지계사(芝溪祠)에 모셨으며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도백 이종성의 포계에 “행이 있고 덕을 이루었으며 주리에 교화를 세웠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 이세태(李世泰)

李世泰字大來號淸榭杏亭重光后受業于李葛菴之門得聞致知力行之要屢蒙獎詔與蒼雪權公斗經顧齋李公慢爲道義交

이세태(李世泰)의 자는 대래(大來)요 호는 청사(淸榭)니 향정(杏亭) 이중광(李重光)의 후예다. 이갈암(李葛菴)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치지(致知)와 력행(力行)의 요지를 얻어 듣고 여러 번 권장하고 자랑함을 입었으며 창설(蒼雪) 권두경(權斗經)과 고재(顧齋) 이

공(李公) 만(檀)으로 더불어 도의교를 삼았다.

● 하응운(河應運)

河應運字汝登生員洺之孫孝友篤至文行夙著嚴於陰陽淑慝之辨嘗三捷鄉解而目見辛壬之慘禍遂閉戶靜坐潛究性理之學因自號習靜齋使子載岳必東上疏請尤春兩賢從祀文廟有遺集

하응운(河應運)의 자는 여등(汝登)이니 생원 하명(河洺)의 손자다. 효우에 돈독하고 지극했으며 문행이 일찍부터 두드러졌으며 음과 양, 착한 것과 나쁜 것의 분별에 엄하였다. 일찍이 세 번이나 향시(鄉解)에 응했으나 눈으로 신임(申壬)의 참화를 보고서는 드디어 문을 닫고 고요히 앉아 성리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호를 습정재(習靜齋)라 하였으며 아들 재악(載岳)과 필동(必東)으로 하여금 상소케하여 우암(尤庵) 동춘(同春) 양현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유집이 있다.

● 이세후(李世晷)

李世晷字載叔號清溪杏亭重光后受業于葛菴之門大被獎與 英廟丙午登文科官至兵曹正郎以直忤時宰棄官歸鄉里勵志篤學

이세후(李世晷)의 자는 재숙(載叔)이요, 호는 청계(清溪)니 향정(杏亭) 이중광(李重光)의 후손이다. 학업을 갈암(葛菴)의 문하에서 닦아 크게 장여(獎與)를 입더니 영묘 병오년(영조 2, 1726)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병조정랑에 이르렀다. 직언 때문에 당시의 재상에게 거슬리어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뜻을 가다듬고 학문을 돈독히 하였다.

● 하달중(河達中)

河達中字君舉石溪世熙之孫早失怙恃自悟向方博考經傳惇修家政筆力精勁有法度平生言行白直無僞實德內積令聞外著

하달중(河達中)의 자(字)는 군거(君舉)요, 석계(石溪) 하세희(河世熙)의 손자다. 일찍 부모를 잃었으나 스스로 소견이나 널리 경전(經傳)을 상고하였다. 힘써 집안을 다스렸다. 필력이 정경(精勁)하고 법도가 있었으며 평생에 언행이 결백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었고 진실된 덕을 안으로 쌓아 좋은 소문이 밖으로 드러났다.

● 정식(鄭栻)

鄭栻字敬甫號明庵又稱大明處士進士文益后生有異質少好讀書志操清高深痛神州陸沈永廢舉業當 肅景兩廟之喪克行方喪之節酷愛佳山水足迹遍域中入頭流山之武夷谷建臥龍菴揭諸葛武侯朱子像朝夕瞻拜日與門生講學不倦道臣趙曦以學行節義啓聞特 贈持平誥書不書僞號云

정식(鄭栻)의 자는 경보(敬甫)요, 호는 명암(明庵)인데 또 대명처사(大明處士)라고 일컬었으니 진사 정문익(鄭文益)의 후손이다. 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고 젊어서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지조가 맑고 고상하더니 명나라가 망한 것을 깊이 통분히 여기어 길이 거업(舉業)을 폐하였다. 숙종과 경종의 상을 당하여는 방상(方喪)의 예절을 힘써 행했다. 아름다운 산수를 매우 사랑하여 나라 안을 두루 밟다가 두류산의 무이곡(武夷谷)에 들어가서 와룡암(臥龍菴)을 세우고 제갈무후(諸葛武侯)와 주자(朱子)의 상을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침배(瞻拜)하였으며 날마다 문생으로 더불어 강학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감사 조엄(趙曦)이 학행과 절의로써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알리니 특별히 지평을 내리고 고서(誥書)에 “위호(僞號)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일렀다.

● 이덕윤(李德潤)

李德潤字汝澤號道窩持平衡子天性孝愛氣宇清粹父病嘗糞斫指丁憂餼粥廬墓從事學問謁李葛菴之門得聞旨訣與蒼雪權公有同泛唱酬錄

이덕윤(李德潤)의 자는 여택(汝澤)이요, 호는 도와(道窩)니 지평 이형(李衡)의 아들이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고 기상이 청수(淸粹)하였으며 아버지가 병들매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꿇었으며 상을 당하자 죽을 마시고 여묘에서 살았다. 학문에 종사하면서 이갈암(李葛菴)의 문하에서 지결(旨訣)을 얻어 들었고 창설(蒼雪) 권공(權公)으로 더불어 동범창수록(同泛唱酬錄)이 있다.

● 정상첨(鄭相詹)

鄭相詹字汝良號東湖臨江桓之子風儀峻潔規度謹嚴當辛壬之禍爲金范甲所螫闔門停車乙巳中進士出入泮宮名節自勵與諸士友疏請尤春兩賢躋廡又疏請誅六賊及經戊申築堂東湖不以世事經心焉二子樂臣字平叔號閒齋天姿近道早孤而執喪如禮長而飭行務學既中生員見世道益下婆娑林壑教授後進常和粹平易而於淑慝之別必截然剖析有足以警策頹俗

정상첨(鄭相詹)의 자는 여량(汝良)이요, 호는 동호(東湖)니 임강(臨江) 정환(鄭桓)의 아들이다. 풍모가 깨끗하고 법도가 근엄하였다. 신임(辛壬)의 화를 당하여 김범갑(金范甲)에게 공격을 당해 온 집안이 과거시험 자격을 정지당했다. 을사년에 진사에 올랐다. 반궁(泮宮)에 출입하면서 명분과 예절을 스스로 가다듬고 여러 사우로 더불어 소를 올려 우암(尤菴)과 동춘(東春) 양현(兩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청하였고 또 소를 올려 육적(六賊)을 벨 것을 청하였다. 무신년을 지내고서 당(堂)을 동호(東湖)에 세우고 세사(世事)로써 마음을 쓰지 아니하였다. 둘째 아들 락신(樂臣)의 자는 평숙(平叔)이요, 호는 한재(閒齋)니 천자가 도에 가까웠다. 일찍 부친상을 되었던니 집상(執喪)을 예대로 하였고 자라서는 행실을 닦고 학문에 힘썼다. 이미 생원에 합격하고서는 세도가 더욱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입학(林壑: 숲속의 거렁)에서 과사(婆娑: 배회하는 것)하면서 후진을 교수하였다. 항상 화수(和粹)하고 평이하게 마음을 가졌고 숙특(淑慝: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연(截然)히 분석(剖析)하였으니 무너져가는 풍속을 경책(警策)하기에 족함이 있었다.

● 이덕화(李德華)

李德華字汝重號月菴誠齋禮勛之后就學于李葛菴之門得師門旨設 肅宗己卯登文科入直臺館出宰于郡皆有聲晚築精舍于月牙山下東山扁之曰月菴遂歸老焉

이덕화(李德華)의 자는 여중(汝重)이요, 호는 월암(月菴)이니 성재(誠齋) 이에훈(李禮勛)의 후예다. 이갈암(李葛菴)의 문하에 취학하여 사문의 지결(旨訣)을 얻었다. 숙종 기묘년(숙종 25, 1699)에 문과에 올라 대관에 입직(入直)하였고 나아가서는 군(郡)에 고을 원이 되었던니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만년에는 정사를 월야산(月雅山) 아래 동산(東山)에 세우고 편액(扁額)을 월암(月菴)이라 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 늙었다.

● 하응천(河應天)

河應天字汝則號自訟堂松波沅之孫文詞瞻博筆法遒勁嘗三中鄉解赴南省見書吏要所騎驪遂拂袖而歸專心於性理之書與霽山金公聖鐸耐叟許公鍾爲道義之交州牧尹公魯東舉遺逸報營曰明窓淨几終日所樂朱書而已云

하응천(河應天)의 자는 여칙(汝則)이요 호는 자송당(自訟堂)이니 송파(松波) 하원(河沅)의 손자다. 문사(文詞)가 넉넉하고 넓고 필법이 힘차고 굳세었다. 일찍이 세 번이나 향시(鄉試)에 합격하고 문과에 갔으나 서리가 말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소매를 뿌리치고 돌아와서 성리의 서책에 전심하였다. 제산(霽山) 김공(金公) 성탁(聖鐸)과 내수(耐叟) 허추(許鍾)로 더불어 도의의 교분을 가졌더니 진주 목사 윤공(尹公) 로동(魯東)이 유일로 친거하고 영에 보고하여 이르기를 “창을 밝게 하고 책상을 깨끗이 하여 종일토록 즐기는 바는 주자서(朱子書) 뿐입니다.”라 하였다.

● 정상호(鄭相虎)

鄭相虎字仲善號東野鳳谷大榮曾孫性度剛毅氣宇俊爽才諳穎發爲文章簡古而宏暢尤肆力於洛建之書金範甲之誣疏也勅子弟儕友使之據理嚴斥戊申變守正不撓與從兄萍軒公抗疏請尤春兩賢躋廡

정상호(鄭相虎)의 자는 중선(仲善)이요, 호는 동야(東野)니 봉곡(鳳谷) 정대영(鄭大榮)의 증손이다. 천성이(剛毅)하고 기상이 뛰어나고 시원하였으며 재주와 슬기가 영리하게 나타났다. 문장을 지을 때는 간결하고 예스러우면서도 넓고 탁 트였으며 더욱이 힘을 낙건(洛建)의 서(書)에 기울였고 김범갑(金範甲)의 무소(誣疏)에는 자제(子弟)와 친구들에게 당부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엄하게 배척토록 하였으며 무신(戊申)의 변에는 바른대로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종형 평헌공(萍軒公)으로 더불어 항소(抗疏)로 우춘(尤春) 양현의 제무(躋廡)를 청하였다.

● 강만주(姜晩周)

姜晩周字渭叟號晩樂齋梅村德龍之曾孫性高潔不求人知修正洞約以起頽風晩卜築月拜之道源洞鑿塘種蓮以終老

강만주(姜晩周)의 자는 위수(渭叟)요 호는 만락재(晩樂齋)니 매촌(梅村) 강덕룡(姜德龍)의 증손이다. 성품이 고결하여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동약을 수정하여 무너져가는 풍속을 일키도록 하였다. 느즈막에 월배(月拜)의 도원동(道源洞)에 땅을 자리잡아 집을 짓고 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노년을 보냈다.

● 구반(具槃)

具槃字碩寬號誠齋綾城人參判禮谷文游之仲子謹厚有器量沈深有雅識見朝日絜不樂仕進移卜晉之勝山里遂不復應舉潛居養德晉之有具氏自此始也

구반(具槃)의 자는 석관(碩寬)이요, 호는 성재(誠齋)며 능성인이니 참관 예곡(禮谷) 구문유(具文游)의 중자다. 근우(謹厚)하면서 기량(器量)이 있고 침침하고 깊으면서 고아한 식견이 있었다. 조정이 두드러지게 날로 어지러워져 가는 것을 보고서는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진주(晉州)의 승산리(勝山里)를 골라 옮겼다. 드디어 다시 과거에는 응하지 않고 가만히 살면서 덕을 기르니 진주에 구씨(具氏)가 있게 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 조옹(趙滂)

趙滂字士維號春睡堂梧齋光世孫有文望與成僑窩涉朴尼溪來吾有一時三老之稱

조옹(趙滂)의 자는 사유(士維)요, 호는 춘수당(春睡堂)이며 오재(梧齋) 조광세(趙光世)의 손자니 문학과 명망이 있었다. 성교와(成僑窩) 섭(涉)과 박니계(朴尼溪) 래오(來吾)로 더불어 일시에 삼로(三老)의 칭(稱)이 있었다.

● 강여관(姜汝寬)

姜汝寬字君平號梅溪梅村德龍玄孫以母夫人命與弟汝完受業於內舅趙默齋錫圭同學皆推先之辛巳謁李葛菴葛菴一見異之受家禮辨疑問難刻勵堅固嘗於壁左揭敬義誠慎四字默齋所書也壁右揭鞠躬盡瘁死而後已八字葛菴所書也有遺集刊行

강여관(姜汝寬)의 자는 군평(君平)이요, 호는 매계(梅溪)니 매촌(梅村) 강덕룡(姜德龍)의 현손이다. 모부인의 명령으로 아우 여완(汝完)으로 더불어 학업을 외숙 조목재(趙

默齋) 석규(錫圭)에게서 받더니 동학들이 모두 일등으로 추앙하였다. 신사년에 이갈암(李葛菴)을 뵈니 갈암(葛菴)이 일건에 기이하게 여겼다. 가례를 배웠는데 의심스러운 것을 분변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기를 힘써 굳게 하였다. 일찍이 벽 원편에 “경의성신(敬義誠慎)의 네 글자를 걸어 두었는데 목재가 쓴 것이요, 벽 오른편에는 “국궁진취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몸을 굽히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은 뒤에 그친다)”라는 여덟 글자를 걸어 두었는데 갈암이 쓴 것이다. 유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남국승(南國升)

南國升字士晉號耐窩習讀霽曾孫氣宇洪亮從學易安齋鄭林起文章夙就筆法逼晉金石文字多出其手與金霽山聖鐸李懼窩光漸爲道義之交

남국승(南國升)의 자는 사진(士晉)이요, 호는 내와(耐窩)니 습독(習讀) 남담(南霽)의 증손이다. 기상이 넓고 맑더니 이안재(易安齋) 정임기(鄭林起)를 따라 배워서 문장을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필법이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에 가까웠으니 금석의 문자가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김제산(金霽山) 성탁(聖鐸)과 이구와(李懼窩) 광점(光漸)과 도의의 교우가 되었다.

● 하진백(河鎮伯)

河鎮伯字子樞號菊潭三歲聞字不忘六歲能賦詩丁卯庚戌中進士五次入侍蓋異數也丁茶山若鏞贈詩有曰丹山一曲寄幽居白首窮經問孰如靜坐且尋顏氏樂殘年都付晦翁書澗阿日月惟高枕京洛塵埃不染裾人謂照影柳相國厚祚曰再入薦刻名登選部而莫施其蘊抱豈非世道之一慨也有文集刊行

하진백(河鎮伯)의 자는 자추(子樞)요, 호는 국담(菊潭)이다. 세 살에 글자를 들으면 잊지 아니하였고 여섯 살에 능히 시를 지었다. 정묘 경술년(정조 14, 1790)에 진사에 합격하고 다섯 차례나 입시하였으니 대개 이수(異數)이었다. 정다산(丁茶山) 약용(若鏞)이 시를 지어 준 일이 있었는데 이르기를 “단산(丹山)의 한 구비에 그윽한 곳 살고 있어, 백수(白首)로 경전 연구했으니가 이와 같겠는가? 고요히 앉아 또 찾는 것은 안회(顏回)의 청빈 락도이었고 잔년(殘年)이 된 때에 모듈 붙인 것은 회옹(晦翁)의 글이었네. 끝까지

의 내와 언덕의 일월(日月) 속에 고치(高枕)을 베고 있어 서울의 진애(塵埃)라도 소매 자락에 물들지 않으리.”라 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림자를 비춘 것이다.”라 하였고 유상국(柳相國) 후조(厚祚)가 이르기를 “두 번이나 추천에 들어갔고 이름이 이조(吏曹)에 올랐는데 그의 은축과 포부를 풀지 못했으니 어찌 세도(世道)를 한결같이 개탄할 것이 아니겠느냐?”라 하였다.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이덕관(李德寬)

李德寬字汝吉號素菴誠齋禮勛后風儀峻整器局淵深有南州豪士之稱霽山金公之喪自光陽賃舟東歸逆祭江上厚資以護歸時人比之麥舟故事

이덕관(李德寬)의 자는 여길(汝吉)이요, 호는 소암(素菴)이니 성재(誠齋) 예훈(禮勛)의 후예다. 풍의(風儀)가 우뚝하면서 정돈되었고 기국(器局)이 연심(淵深)하니 남주(南州)에 호사(豪士)의 칭(稱)이 있었다. 제산(霽山) 김공(金公)의 상(喪)에 광양(光陽)으로 부터 배를 세 내어 동쪽으로 거슬러 돌아오면서 강 위에서 제사드리고 자(資)를 두터이 하고 수호하여 돌아가게 하니 당시에 사람들이 보리 배의 고사(故事:송나라 범문정공 중엄의 아들 막부가 배에 실은 오백석의 보리로 상을 도운 고사가 있음)에 견주었다.

● 정도관(鄭道寬)

鄭道寬字由聖號松竹軒學圃暄之玄孫孝友奉先出於至誠尋久失之先墓而執笞自罰合三世之分產而同住一室與屏溪尹文憲公鳳九爲道義之交

정도관(鄭道寬)의 자는 유성(由聖)이요, 호는 송죽헌(松竹軒)이니 학표(學圃) 정훤(鄭暄)의 현손이다. 효우로 조상을 받들이 지성에서 나왔으니 오랫동안 잃었던 선조의 묘를 찾을 때에 회초리를 잡고 스스로 벌하였고 삼세 동안 나누었던 가산을 합하여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병계(屏溪) 윤문헌공(尹文憲公) 봉구(鳳九)로 더불어 도의의 친구로 삼았다.

● 하대관(河大觀)

河大觀字寬夫號愧窩謙齋弘度曾孫聰明好學行誼純備博通今古研究微奧雄辭健筆

鳴於一世嘗修續州誌未及脫藁

하대관(河大觀)의 자는 관부(寬夫)요, 호는 괴와(愧窩)니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의 증손이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행의가 순박하게 갖추어졌고 널리 고금에 통했으며 미오(微奧:미세하고 오묘함)한데까지 연구하였다. 웅사(雄辭)와 건필(健筆)로 일세에 날렸고 일찍부터 속주지(續州誌)를 찬수하다가 탈고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응검(韓應儉)

韓應儉字士謙副摠管範錫之孫也自少以禮律身不妄言笑 正宗庚子登武科宣傳官上異其儀表舉止命使舉顏即陞別承傳參下至有別 賜歷典五郡務以德化

한응검(韓應儉)의 자는 사겸(士謙)이니 부총관 한범석(韓範錫)의 손자다. 어려서부터 예로써 몸을 단속하여 망령되게 말하거나 웃지 아니하였다. 정조 경자년(정조 4, 1780)에 무과로 선전관에 올랐더니 임금이 그 용모와 거지(舉止)를 기이하게 여기고 얼굴을 들도록 명령하여 즉시 별승전(別承傳)에 승진시켰다. 참하이였으나 특별히 내린 것이 있기에 이른 것이다. 다섯 고을을 다스림에 덕화(德化)로써 힘썼다.

●하진낙(河鎭洛)

河鎭洛字卓之號謙窩慕松齋仁尙之后少有美質篤志力學性於孝友事親奉兄人無間言屢魁鄉解竟屈南宮遂從遊鄭立齋宗魯之門同時諸賢皆推重焉有遺集

하진낙(河鎭洛)의 자는 탁지(卓之)요 호는 겸와(謙窩)니 모송재(慕松齋) 하인상(河仁尙)의 후손이다. 젊어서부터 아름다운 바탕을 가졌더니 뜻을 돈독히 하고 힘써 배웠으며 성품이 효우스러워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받들며 사람의 간언(間言)이 없었다. 여러 번 향시(鄉試)에 장원을 하였으니 마침내 회시(會試)에서 실패하였다. 드디어 정입재(鄭立齋) 종로(宗魯)의 문하에 따라 공부하더니 당시의 제현들이 모두 추중(推重)하였다. 유집이 있다.

●성동일(成東一)

成東一字乃純號共衾堂惺惺齋錕之后以武階通政官府使天資穎悟氣局峻整未冠遭

內外艱祭奠以禮事繼母以孝莅官廉直時人比之龔黃嚴於取舍人莫敢干以死 高宗甲子士林有俎豆之議際值撤院而未果

성동일(成東一)의 자는 내순(乃純)이요, 호는 공금당(共衾堂)이며, 성성재(惺惺齋) 성황(成鎬)의 후손인데 무관으로써 관계가 통정이요, 벼슬은 부사였다. 천자(天資)가 영오(穎悟)하고 기국(氣局)이 준정(峻整)하였으며 관례를 하기 전에 부모상을 만났더니 제전(祭奠)에 예로써 하였고 계모를 효로써 섬겼다. 벼슬을 맡아서는 립직(廉直)하게 하였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중국 한나라의 공수(龔遂)와 황패(黃覇) 두 사람에게 견주었다. 취사 선택하는 데에 엄히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것으로써 간여하지 못하였다. 고종 갑자년(고종 1, 1864)에 사림에서 향사(享祀)의 의논이 있었으나 때 마침 서원 철폐를 만나서 이루지 못하였다.

● 하달성(河達聖)

河達聖字清彥號菊軒學識通爽慷慨有大節律身繩家不墜庭訓義理精熟軒豁有局量 하달성(河達聖)의 자는 청언(淸彦)이요, 호는 국헌(菊軒)이다. 학식이 통상(通爽)하고 강개(慷慨)하여 대절(大節)이 있었으며 율신(律身)으로 집안을 다스리어 정훈(庭訓)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고 의리가 정숙하였으며 현활(軒豁)한 국량(局量)이 있었다.

● 조명훈(曹命勳)

曹命勳字聖甫號老愚持平天弼子氣宇寬厚勳止有度好讀書心近等編不釋於手性忠孝執親之喪哀毀踰禮 正廟賓天不食珍味每朔望登屋後小岡北向哭拜時人名其山曰泣弔臺 純祖朝事聞 贈童蒙教官

조명훈(曹命勳)의 자는 성보(聖甫)요, 호는 노우(老愚)니 지평 조천필(曹天弼)의 아들이다. 기상이 관후(寬厚)하고 동지(動止)에 법도가 있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여 심경과 근사록 등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였다. 성품이 충효하여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애훼(哀毀)가 예를 넘었고 정조(正廟)가 승하함에 맞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매 삭망에 집 뒤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울면서 절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 산을 이름 하여 읍조대(泣弔臺)라 불렀다. 순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다.

● 강학준(姜學濬)

姜學濬字聖翊判書元亮后 正廟壬子登文科歷揚內外清儉稱性孝事親必誠遭喪易戚備至後人至今頌慕焉

강학준(姜學濬)의 자는 성익(聖翊)이니 판서 원량(元亮)의 후예다. 정묘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내외에 벼슬을 역임하니 청검(淸儉)으로써 일컬었다. 성품이 효성스러워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 반드시 정성을 다하였고 상을 만나서는 상례와 애도를 겸하여 갖추어 지극하니 후인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리고 사모하고 있다.

● 박지서(朴旨瑞)

朴旨瑞字國禎號訥菴凌虛敏后師事安順菴鼎福鄭立齋宗魯追享鼎岡書院有文集

박지서(朴旨瑞)의 자는 국정(國禎)이요, 호는 눌암(訥菴)이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후손이다. 안순암(安順菴) 정복(鼎福)과 정입재(鄭立齋) 종로(宗魯)에게 사사하였고 정강서원(鼎岡書院)에 추향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 하이태(河以泰)

河以泰字五兼號涵窩剛毅厚重居家持身一以小學內則爲範夜深諸子諸婦孫曾男女以次入定鷄鳴盥櫛又來省視各執其事八十年如一日有六子皆以孝友文學名於世

하이태(河以泰)의 자는 오겸(五兼)이요, 호는 함와(涵窩)다.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후중(厚重)하여 집에 있으면서도 몸가짐을 한결같이 소학(小學) 내칙(內則)으로써 모범을 삼았다. 밤이 깊어서야 여러 아들과 여러 며느리와 손자와 증손자들의 남녀가 차례대로 들어와서 혼정(昏定) 하게 하고 닭이 울면 세수하고 빗질하고서 들어와서 살펴보게 하며 각각 그 일을 하게 하였다. 팔십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고 여섯 아들이 있더니 모두 효우와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김면운(金冕運)

金冕雲字天贊號梧淵輝運之第四弟也文章德望取重一方有遺集刊行

김면운(金冕運)의 자는 천찬(天贊)이요, 호는 오연(梧淵)이니 김휘운(金輝運)의 넷째

아우다. 문장과 덕망이 일한 지역에서 무거웠고 유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조휘진(趙輝晉)

趙輝晉字文然號東窩大笑軒宗道后爲人奇偉倜儻有經濟之才當時卓然爲南道主人性喜延攬蹄轍填街履舄盈門與樊巖蔡相公濟恭善急機大拜條陣時務數千言遂終身不復見有遺集刊行

조휘진(趙輝晉)의 자는 문연(文然)이요, 호는 동와(東窩)니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후예다. 사람됨이 기위(奇偉)하고 척당(倜儻)하여 경제(經濟)의 재능이 있어 당시에 탁연(卓然)하였으므로 남도(南道)의 주인이라 하였다. 성품이 사람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것을 좋아하여 수레바퀴가 거리를 메우고 찾아오는 사람이 문에 찼다. 번암(樊巖) 채상공(蔡相公) 제공(濟恭)으로 더불어 잘 지내더니 그가 영의정이 됨에 이르러서는 시무(時務) 수천언(數千言)을 조목조목 아뢰고는 드디어 종신토록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유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박재호(朴在皐)

朴在皐字龍瑞號白隱密陽人松月堂好元后 純祖壬午登文科歷敷清要典二縣清白爲政朝廷稱公輔器中身斂退甘老林泉以講學爲事

박재호(朴在皐)의 자는 룡서(龍瑞)요, 호는 백은(白隱)이며 밀양인이니 송월당(松月堂) 박호원(朴好元)의 후손이다. 순조 임오년(순조 22, 1822)에 문과에 올라 청요직(清要職)을 역임하고 고을을 맡아 청백으로 정사를 하니 조정에서 공을 정승 감이라고 일컬었다. 중년에 물러나 임천(林泉)에서 즐겁게 늙으면서 강학으로써 일삼았다.

● 하우현(河友賢)

河友賢字康仲號豫菴石溪世熙之玄孫年三十二而卒當時有少顏子之稱許后山愈表其墓略曰天姿粹美迥出等夷而加之以造詣精深行誼純茂孝悌洽於家庭忠信孚於州里其論明德人物性易疑義諸說不由師承獨契經旨云有文集刊行

하우현(河友賢)의 자는 강중이요, 호는 예암(豫菴)이니 석계(石溪) 하세희(河世熙)의

현손(玄孫)이다. 나이 31세에 죽었으나 당시에 젊은 안자라는 칭송이 있었다. 허후산(許后山) 유(愈)가 그 묘에 표하여 이르기를 “천자가 수미(粹美)하여 무리에서 훨씬 뛰어났고 여기에 조예가 정심한 것을 더했으며 행의(行誼)가 순무(純茂)하였다. 효제로 가정에서 흠족했고 충신으로 주리(州里)에서 믿음을 가졌으며 그의 명덕과 인물과 성리학과 주역의 의의(疑義)를 논한 여러 가지 설명은 스승을 연유하여 이어받은 것이 아니면서도 홀로 경지(經旨)에 계합(契合)하였다.”라고 하였다.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조용완(曹龍玩)

曹龍玩字伯玉號德巖教官命勳子以蔭授穆陵參奉屢遷至縣監天品甚高踐履克篤侍親癯割指灌血及喪盡易戚之節同士友重修德川書院及山天齋居官清儉御史以爲治勤勵褒啓有遺稿

조용완(曹龍玩)의 자는 백옥(伯玉)이요, 호는 덕암(德巖)이니 교관 조명훈(曹命勳)의 아들이다. 음직(蔭職)으로 목릉참봉에 제수되어 여러 번 옮겨서 현감에 이르렀다. 천품이 매우 고상하고 실천이 매우 돈독하였으며 아버이를 모시는데 있어 병들었을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렸고 상을 당해서는 상례와 애도를 모두 다했다. 사우들과 함께 덕천서원(德川書院) 및 산천재(山天齋)를 중수했다. 벼슬자리에서 청검했으므로 어사가 다스리기를 부지런히 하고 착실히 했다고 하여 조정에 포상을 아뢰었다. 유고가 있다.

● 이인모(李麟模)

李麟模字仁卿號永慕齋儀表凝重器局淵深雖素不相識者一見知其爲鉅人長者居家重彝倫篤恩義教子孫先行義後文藝德望文學爲一世所推重嘗爲德川院長修整院規

이인모(李麟模)의 자는 인경(仁卿)이요, 호는 영모재(永慕齋)다. 의표(儀表)가 침착하고 무게 있고 기국(器局)이 깊어 비록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견(一見)에 그의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 집에 있을 때는 윤리를 중히 여기고 은의를 돈독히 하여 자손에게 가르치기를 먼저 의를 행하고 문예를 뒤에 하라고 하였다. 덕망과 문학으로 일세에 추중되었고 일찍이 덕천서원장(德川書院長)이 되어 원규를 수정하였다.

● 최상갑(崔祥甲)

崔祥甲字洛見號懼軒山圃益大孫中進士初治舉子業文章出等夷從學鄭立齋柳江臯二門專心向裏好施義捐財賑濟貯經史引接學者論者推經濟之材

최상갑(崔祥甲)의 자는 낙견(洛見)이요, 호는 구헌(懼軒)이니 산포(山圃) 최익대(崔益大)의 손자다. 진사에 합격하였더니 처음으로 과거공부를 하면서부터 문장(文章)이 보통 사람들 보다 뛰어났다. 정입재(鄭立齋), 유강고(柳江臯) 두 문하에서 따라 배우더니 오로지 마음을 속으로만 향하고 의를 베풀기를 좋아하여 재물을 덜어내어 구제하였다. 경사(經史)를 쌓아두고 학자들을 인도하니 논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재목으로 추앙하였다.

● 조희영(趙熙榮)

趙熙榮字乃謙號篁塘梧齋光世玄孫天品篤厚服習典訓晚以大年巍望凡於祠院之有歧議者必鎮定焉以子侍從恩準例賜緋玉

조희영(趙熙榮)의 자는 내겸(乃謙)이요, 호는 황당(篁塘)이니 오재(梧齋) 조광세(趙光世)의 현손이다. 천품이 독후(篤厚)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몸의 익혔다. 늦게는 원로의 높은 덕망으로 모든 사원(祠院)에 갈라진 의논이 있으며 반드시 진정시켰다. 아들이 시종(侍從)이었기 때문에 은전의 준례(準例)를 따라 임금이 높은 벼슬 당상관(堂上官)을 내렸다.

● 한계철(韓啓轍)

韓啓轍字汝敬號柳溪府使應儉子純祖庚午中武科歷典四郡皆有治績官至防禦使雖以武發身學識既優天資凝重器宇深邃其立身行己發言處事無非儒家模範也晚年取山水之勝移卜于三嘉之德村

한계철(韓啓轍)의 자는 여경(汝敬)이요, 호는 유계(柳溪)니 부사 한응검(韓應儉)의 아들이다. 순조 경오년(순조 10, 1810)에 무과에 합격하여 네 고을을 역임하더니 모두 치적이 있었고 벼슬이 방어사에 이르렀다. 비록 무관로써 발신(發身)하였지마는 학식이 넉넉하였고 천자가 응중(凝重)하고 기우(器宇)가 깊었으며 그 입신과 행기(行己)에 있어서

나 발언과 처사에 있어서 유가의 모범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만년에는 산수가 좋은 곳을 취하여 삼가(三嘉)의 덕촌(德村)에 자리를 가려 옮겼다.

● 이명운(李命允)

李命允字致伯號安湖德泉君厚生后天姿明秀識度清遠爲學專致意於庸學二書曰三綱八條統於敬五道三德該於誠一生用之何患不足 憲廟戊戌登謁聖科歷官至校理 哲廟丁巳疏救參判柳致明權載大壬戌罹橫誣謫古今島島人言祭關王廟當早還公顧謂子曰汝不聞范滂之不祭臯陶乎我之禱久矣命書青天白日廓乎昭明八字于儼舍之壁

이명운(李命允)의 자는 치백(致伯)이요, 호는 안호(安湖)니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후예다. 천자가 명랑하고 수려하고 식견과 도량이 맑고 멀었다. 학문을 함에 있어는 오로지 뜻을 중용과 대학의 두 책에만 두어 이르기를 “삼강(三綱)과 팔조(八條)는 경(敬)에서 통합(統合)되는 것이요 오도(五道)와 삼덕(三德)은 성(誠)에 해당되는 것이니 일생 동안을 쓰는 데에 무슨 부족함을 근심하겠는가?”라 하였다. 헌종 무술년(헌종 4, 1838)에 알성과에 합격하고 벼슬을 역임하다가 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철종 정사년(철종 8, 1857)에는 소를 올려 참관 유치명(柳致明)과 권재대(權載大)를 구제하고 임술년에는 뜻밖의 무고에 걸리어 고금도(古金島)에 귀양을 갔다. 설사람들이 말하기를 “관왕묘(關王廟)에 제사를 지내면 마땅히 일찍 돌아갈 것입니다.”라 하니 공이 돌아보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범방(范滂)이 고요(臯陶)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한 것을 듣지 못했느냐? 나는 빈 지가 오래 되었다”라 하고 ‘청천백일에 소명(昭明)함이 확연(確然)하다.’라는 여덟 글자를 세 들어 사는집의 벽에 쓰기를 명령하였다.

● 하진(河潛)

河潛字晋伯號台溪晉陽人台村公孝子 仁祖甲子中進士登文科累歷清顯至司憲府執義選瀛錄丙子之亂募鄉兵赴難至尙州丁父憂未果行其在諫院疏斥金自點專權誤國之罪直聲動朝端人擬鳳鳴朝陽嘗在臺省或窃其鞍從者舉其可疑者請治之公笑曰吾之所失者少而彼之蒙惡名大矣勿問也竊者還其鞍其忠愛感人如此享宗川書院

하진(河潛)의 자는 진백(晋伯)이요, 호는 태계(台溪)며 진양인이니 태촌공(台村公) 하

효(河孝)의 아들이다 인조 갑자년(인조 2, 1624)에 진사에 합격하고 문과에 올라 여러번 맑은 벼슬자리를 거쳐 사헌부 집의에 이르러 홍문관 후보에 뽑히었다. 병자의 난에 향병(鄉兵)을 모아 난에 달려가다가 상주(尙州)에 이르러 부친상을 만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가 사간원에 있을 때에 김자점(金自點)이 권세를 오로지 하여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죄를 소를 올려 배척하니 바른 소리가 조정을 움직여 사람들이 “봉황새가 아침 햇빛에 운다.”는 말에 비꼴다. 일찍이 대간(臺諫)에 있을 때에 어떤 자가 그의 말 안장을 도적질 했더니 종자가 의심되는 자를 들어서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이에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잃은 것은 적지마는 저 사람이 오명을 입는 것은 클 것이니 묻지 말라.”라 하니 숨긴 자가 그 안장을 되돌렸다. 그의 충애(忠愛)로움이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이와 같았으며 종천서원(宗川書院)에 모셨다.

● 이윤걸(李胤杰)

李胤杰字仲振星山人 贈參判芬國子膂力過人氣宇豪健 景宗癸卯登武科爲宣傳官 英宗戊申參奮武原從勳受金帶寶刀歷任羅州營將茂長縣監居官清儉

이윤걸(李胤杰)의 자는 중진(仲振)이요, 성산인이며 증참판 분국(芬國)의 아들이다. 체력이 과인(過人)하고 기상이 호건(豪健)하였다. 경종 계묘년(경종 3, 1723)에 무과에 올라 선전관이 되고 영종 무신년(영종 4, 1728)에는 분무원종훈(奮武原從勳)에 참여하여 금대(金帶)와 보도(寶刀)를 받았다. 나주영장과 무장현감을 역임하였는데 벼슬자리에서는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 이지용(李志容)

李志容字子玉號南臯星山人 參判芬國孫風采峻整文詞瞻博十二以詩律壓倒老宿 正宗己酉登明經科蔡相國濟恭器重之奉 教參七書集註句讀校正之役役訖 上以書冊寵賜登佐郎陞掌令其後校正樊巖集於花山鳳停寺有文集

이지용(李志容)의 자는 자옥(子玉)이요 호는 남고(南臯)며 성산인이니 참판 분국(芬國)의 손자다. 풍채(風采)가 준정(峻整)하고 문사(文詞)가 섬박(瞻博)하였으니 나이 12세에 시율(詩律)로써 노숙(老宿)을 압도하였다. 정조 기유년(정종 13, 1789)에 명경과(明

經科)에 오르니 채상국(蔡相國) 제공(濟恭)이 인재로 중히여졌다.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칠서집주(七書集註)의 구두(句讀)와 교정의 역에 참여시켰다. 이 역사가 끝남에 임금이 서책을 내리어 총애하고 좌랑으로 옮겼다가 장령으로 승진시켰으며 그 뒤에는 경북 안동 봉정사(鳳停寺)에서 번암집(樊巖集)을 교정하였다. 문집이 있다.

● 조희룡(趙熙龍)

趙熙龍字和叔號訥窩咸安人南岡得愚子自幼聰慧受業于李掌令甲龍門甲戌中文科至典籍正言陳時弊數千言不見採納歸鄉園以終老焉有文集

조희룡(趙熙龍)의 자는 화숙(和叔)이요 호는 놀와(訥窩)며 함안인이니 남강(南岡) 득우(得愚)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이장령(李掌令) 갑룡(甲龍)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갑술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전직·정언에 이르렀으며 시폐에 관한 수천자 되는 상소를 올렸으나 채납(採納)되지 못하니 향원(鄉園)으로 돌아와서 늙음을 마쳤다. 문집이 있다.

● 하달홍(河達弘)

河達弘字潤汝號月村晉陽人襄靖公敬復后風度凝遠文詞瞻博行誼純篤與奇蘆沙正鎮盧勿齋光履李南坡偉錫爲道義交其所著有太極圖註解進學說均賦說東海頌變皆膾炙人口有文集

하달홍(河達弘)의 자는 윤여(潤汝)요 호는 월촌(月村)이며 진양인이니 양정공(襄靖公) 경복(敬復)의 후손이다. 풍도(風度)가 침착하고 멀고 문사(文詞)가 섬박(瞻博)하며 행의(行誼)가 순박하고 독실하였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과 물재(勿齋) 노광이(盧光履)와 남과(南坡) 이위석(李偉錫)으로 더불어 도의교를 맺었다. 그가 저술한 태극도해(太極圖註解)와 진학설(進學說)과 균부설(均賦說)과 동해송변(東海頌辨)은 모두 인구에 회자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 이우빈(李佑贊)

李佑贊字禹爾號月浦梅月堂賀生后有聰明異質五歲能識字壬午中司馬丁未以南冥

先生陸廡事奉疏入京事未諧兵使安克贊薦于朝公嘆曰名浮其實君子恥之凡三登薦目竟不赴有文集

이우빈(李佑贊)의 자는 우이(禹爾)요, 호는 월포(月浦)며 매월당(梅月堂) 하생(賀生)의 후손이다. 총명(聰明)하고 특이한 자질이 있어 나이 5세에 능히 글자를 알았다. 임오년에 사마에 합격하고 정미년에 남명선생(南冥先生)을 문묘에 배향하는 일 때문에 소를 받들고 서울에 갔더니 일이 아직 마무리되기도 전에 병사 안극찬(安克贊)이 조정에 천거하였다. 이에 공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뜬 이름은 실로 군자가 부끄러워한다.”라 하였으며 무릇 세 번이나 천거하는 명단에 올랐으나 끝내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문집이 있다.

● 최준일(崔濬一)

崔濬一諱溶字氣然全州人遊柳溪堂疇睦門登明經科大司成李彙濬辟爲直講在諫院因災異求言草時弊七件摠二千餘言將封章柳相國厚祚見之謂無益而觸禍且以有老親止不得進遂上書雲峴官陳行政之闕失不見用卽歸養官至正言司憲府掌令有遺集

최준일(崔濬一)의 휘는 용(溶)이요, 자는 기연(氣然)이며 전주인이다. 유계당(柳溪堂) 주목(疇睦)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명경과에 올랐더니 대사성 이희준(李彙濬)이 불러 직강이 되었다. 간원에 있을 때에 재앙과 이변으로 임금의 건의하라는 요청이 있어 시폐(時弊) 칠건(七件)에 총 이천여자를 초(草)하여 장차 봉하려고 하더니 유상국(柳相國) 후조(厚祚)가 보고 이르기를 “도움이 되지 않고 화에 부딪칠 것이다.”라 하였다. 또 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중지하여 올리지 못하고 드디어 글을 운현궁(雲峴宮)에 올려서 행정의 결실(闕失)을 아뢰었으나 쓰이지 아니하니 즉시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벼슬은 정언과 사헌부 장령에 이르렀고 유집이 있다.

● 이유신(李有臣)

李有臣字禮卿號梅下載寧人登文科至獻納因時弊抗疏忤上意竄絕島宥還與諸友構亭於雲谷爲晚年遊息之所有遺稿

이유신(李有臣)의 자는 예경(禮卿)이요 매하(梅下)며 재령인이다. 문과에 올라 헌납

에 이르렀더니 시폐(時弊)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임금의 뜻에 거슬리어 절도(絶島)에 귀양 갔다. 뒷날 용서받고 돌아와서는 여러 친구와 더불어 정자를 운곡(雲谷)에 세우고 만년에 유식(遊息)하는 곳으로 삼았다. 유고가 있다.

● 하겸락(河兼洛)

河兼洛字禹碩號斗南晉陽人歷典州郡俱有聲名以武略儒行著於一時江界府有晦齋書院院撤而有講堂京司欲毀至公論報不已堂賴以全買田以贍之值歲太飢貸官鈔及城餉米以賑之所活凡六千七百口有文集

하겸락(河兼洛)의 자는 우석(禹碩)이요 호는 두남(斗南)이며 진양인이다. 고을원을 여러번 맡아더니 모두 명성이 있었고 무략(武略)과 유행(儒行)으로 일시에 드러났다. 강계부(江界府)에 회재(晦齋)의 서원이 있더니 서원은 헐리고 강당만 남아 있었는데 경사(京司)가 이를 헐고자 함에 공이 론보(論報)하기를 말지 아니하여 강당이 온전하게 되었고 전토(田土)를 사서 이를 넉넉하게 하였다. 때마침 그 해에 큰 기문을 만났더니 관청의 돈 및 성(城)의 군량미를 빌려서 구휼하니 살게 된 사람이 무릇 6,700명 이었다. 문집이 있다.

● 조성가(趙性家)

趙性家字直教號月臯自幼聰明拔萃弱冠博涉百家書文章簡古不習流俗語師事奇蘆沙文簡公蘆沙作猥筆以贈之盖傳鉢之義也壬寅入耆老社覃恩陞通政階配享高山院

조성가(趙性家)의 자는 직교(直教)요 호는 월고(月臯)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약관의 나이에 널리 백가의 글을 섭렵하였으며 문장은 간략하고 고졸하여 유속(流俗)의 말을 익히지 아니하였다. 기로사(奇蘆沙) 문간공(文簡公)에게 사사함에 노사가 외필(猥筆) 만들어 주니 이는 대개 학맥을 잇는다는 뜻이었다. 임인년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고 은전으로 통정의 품계에 오르게 되었다. 고산서원(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 성채규(成采奎)

成采奎字天舉號悔山昌寧人少有雋才能詩文且於衛道有赤誠凡事有關於冥翁者

必發明甚力焉嘗過琴塘有詩曰落絮虛汀魚聽立莫教作浪敗天機以絕調膾炙于世流入中國有老宿稱嘆曰此人胸中無一点塵埃有舞雩意思云有文集

성채규(成采奎)의 자는 천거(天舉)요 호는 회산(悔山)이며 창녕인이다. 젊어서 뛰어나게 시문에 재능이 있었고 또 위도(衛道:유학을 지키)에 있어 정성이 있었다. 남명선생에게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 반드시 발명(發明)하기에 매우 힘썼다. 일찍이 금당(琴塘)을 지나다가 시를 지어 이르기를 “버들개지가 텅 빈 여울에 떨어지니 고기가 들겠으니, 공연히 물결을 지어 천기(天機)를 꺾하게 말지로다.”라 하니 절조(絶調)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회자되었다. 이것이 중국에 흘러들어 갔더니 어떤 원로가 칭탄(稱嘆)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한점의 진애(塵埃)도 없을 것이고 무우(舞雩)의 의사만 있을 것이다.”라 했다고 한다. 문집이 있다.

● 정면교(鄭冕教)

鄭冕教字國喬號芝窩海州人農圃后受業於洪梅山爲文詞奇崛蒼健與趙月臯成悔山齊名有文集

정면교(鄭冕教)의 자는 국교(國喬)요 호는 지와(芝窩)며 해주인이니 농포(農圃)의 후예다. 학업을 홍매산(洪梅山)에게서 받아 문사(文詞)를 만듬에 기이하고 우뚝하고 창건(蒼健)하여 조월고(趙月臯)와 성회산(成悔山)과 더불어 이름을 가지런히 하였다. 문집이 있다.

● 최숙민(崔淑民)

崔淑民字元則號溪南全州人茅山琦弼后早自志學師事奇蘆沙文簡公得聞主理心法以獎進後生爲己任有文集

최숙민(崔淑民)의 자는 원칙(元則)이요 호는 계남(溪南)이며 전주인이니 모산(茅山)기필(琦弼)의 후예다. 일찍부터 스스로 학문에 뜻을 두어 기로사(奇蘆沙) 문간공(文簡公)에게 사사하여 주리(主理)의 심법(心法)을 얻어 듣고 후생을 장진(獎進)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문집이 있다.

● 최정기(崔正基)

崔正基字肅仲號可川全州人受業於金西山門早自樹立晚成大儒發明性理之學闡揮博約之旨爲一世所推重所著有中庸說心說考證聖學摠要等篇文集八卷行于世

최정기(崔正基)의 자는 숙중(肅仲)이요 호는 가천(可川)이며 전주인이다. 학업을 김서산(金西山)의 문하에서 받았는데 일찍부터 스스로 수립(樹立)하여 늦게 대유(大儒)가 되었다. 성리의 학문을 발명(發明)하고 막문약례(博文約禮)의 취지를 나타내어 일세에 추중(推重)되었다. 저술한 중용설(中庸說)·심설고증(心說考證)·성학총요(聖學摠要) 등이 있고 문집 8권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다.

● 하겸진(河謙鎭)

河謙鎭字叔亨號晦峯晉陽人松亭受一后遊郭俛字門天資超詣氣宇溫粹學問文章名重一世所著有心爲子母說朱語節要東儒學案及東詩話又有遺書行于世

하겸진(河謙鎭)의 자는 숙형(叔亨)이요 호는 회봉(晦峯)이며 진양인이니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후손이다. 곽면우(郭俛宇)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천자(天資)가 뛰어나고 기상이 온수(溫粹)하며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이 일세에 무거웠다. 저술로서 심위자모설(心爲子母說)·주어절요(朱語節要)·동유학안(東儒學案) 및 동시화(東詩話)가 있고 또 회봉유서(晦峯遺書)가 있어 세상에 행한다.

유행(儒行)

● 강지특(姜智特)

姜智特參議佑之子幼有英姿鄉人目之以需世之才及長以文行鳴於鄉雪臆河澈稱之曰英毅卓犖人所敬憚

강지특(姜智特)은 참의 강우(姜佑)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영자(英姿)가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세상에 쓰일 수 있는 재목이라고 여기더니 자람에 이르러서는 문행으로써 고을에 울리었다. 설창(雪臆) 하철(河澈)이 칭찬하여 이르기를 “영의(英毅)하고 뛰어난

것이 사람들의 경탄할 바다.”라 하였다.

● 하경소(河鏡昭)

河鏡昭字公極號東野覺齋沆子孺染家庭言行純潔深於禮學與思湖吳長鶴鷄堂柳德龍友善

하경소(河鏡昭)의 자는 공극(公極)이요, 호는 동야(東野)니 각재(覺齋) 하항(河沆)의 아들이다.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 언행이 순결하고 예학에 깊었다. 사호(思湖) 오장(吳長)과 초료당(鷓鴣堂) 유덕룡(柳德龍)과 벗으로 잘 지냈다.

● 정문익(鄭文益)

鄭文益字子謙號龍岡海州人大司諫慎子乙卯中生員高尚其志不求榮名及仲兄忠毅公遭禍率二姪而南遇謙齋河公於晉州仍居焉

정문익(鄭文益)의 자는 자겸(子謙)이요, 호는 용강(龍岡)이며 해주인이니 대사간 정신(鄭慎)의 아들이다. 을묘년에 생원에 합격하였고 그 뜻을 고상하게 가져 영명(榮名)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중형(仲兄) 충의공(忠毅公)이 화를 당함에 이르러서는 두 조카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겸재(謙齋) 하공(河公)을 진주에서 만나 그대로 살았다.

● 유덕룡(柳德龍)

柳德龍字時見號鷓鴣堂文化人幼受學于南冥之門南冥疾病謂河覺齋曰可善誘之以做吾鄉顏子遂卒業于覺齋門晚移居于三嘉獎誘後進不求聞達享三嘉北巖祠有實記

유덕룡(柳德龍)의 자는 시현(時見)이요, 호는 초료당(鷓鴣堂)이며 문화인이다. 어려서 남명(南冥)의 문하에서 수학하더니 남명(南冥)이 병이 들어 하각재(河覺齋)에게 일러 말하기를 “잘 깨우치면 우리 고을의 안자(顏子)를 만들 만할 것이다.”라 하였다. 드디어 각재의 문하에서 학업을 마치고 만년에는 삼가(三嘉)에 이거(移居)하여 후진을 장유(獎誘)하고 문달(聞達)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삼가(三嘉)의 북암사(北巖祠)에 모셨으며 실기가 있다.

● 강신(姜愼)

姜愼牧使闡后與弟察訪惕具有文行築迺臨亭于江上 填箎唱酬時人莫不稱賞

강신(姜愼)은 목사 강천(姜闡)의 후예니 아우 찰방 강척(姜惕)과 더불어 함께 문행(文行)이 있었다. 형림정(迺臨亭)을 강 위에 세우고 형제가 창수(唱酬)하니 당시의 사람들로 칭상(稱賞)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성황(成鎬)

成鎬字而和號惺惺齋浮查汝信第五子恬靜自守絕意榮途以克復爲平生用功之本與河台溪趙澗松河謙齋諸賢講磨討蹟交契最密遭艱執禮甚嚴

성황(成鎬)의 자는 이화(而和)요, 호는 성성재(惺惺齋)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다섯째 아들이다. 념정(恬靜)함을 스스로 지키고 영달의 길에 뜻을 끊고 극기복례(克己復禮)로써 평생에 용공(用功)의 근본으로 삼았다. 하태계(河台溪), 조간송(趙澗松), 하겸재(河謙齋) 제현으로 더불어 강마하고 탈색하였는데 우정이 가장 밀접하였으며 상을 당해서는 집례를 매우 엄하게 하였다.

● 정위(鄭頤)

鄭頤字子儀號秋潭文忠公夢周后行誼夙就學識瞻富與許眉叟河謙齋河台溪爲道義之交其子櫛亦事謙齋才藝出衆以詞賦名於世中進士

정위(鄭頤)의 자는 자의(子儀)요, 호는 추담(秋潭)이니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후예다. 행의(行誼)가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학식이 넉넉하고 풍부하였으며, 허미수(許眉叟) 하겸재(河謙齋) 하태계(河台溪)와 도의의 사귀를 가졌다. 그의 아들 정려(鄭櫛)도 또한 하겸재(河謙齋)를 스승으로 섬겨 재예가 출중하였으며 사부(詞賦)로써 세상에 이름이 있었고 진사에 합격하였다.

● 하달원(河達遠)

河達遠字伯源竹軒惺之子也孝友篤至風儀端雅學業夙就弟達長中進士文學夙就筆法精妙弱冠題東溪權公神主於衆會之席遠近士林無不稱善

하달원(河達遠)의 자는 백원(伯源)이요, 죽헌(竹軒) 하성(河惺)의 아들이다. 효우가 돈독하고 지극하였으며 풍모가 단아하였고 학업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아우 하달장(河達長)은 진사에 올랐더니 문학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필법이 정묘하였다. 약관에 동계(東溪) 권공(權公)의 신주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썼더니 원근의 사림으로 칭선(稱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정준(鄭濬)

鄭濬字深源石亭弘祚之子天性溫厚行己正直與弟濂遊朴篁巖門得聞爲學之要所著遺文盡失於煨燼皆惜之

정준(鄭濬)의 자는 심원(深源)이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아들이다. 천성이 온후하고 행기(行己)가 정직하였다. 아우 정렴(鄭濂)과 더불어 박황암(朴篁巖)의 문에 나아가 학문을 하는 요점을 얻어 들었다. 저술한 유문(遺文)이 외신(煨燼)으로 모두 잃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허도(許槩)

許槩金海人自幼聰穎異常端正雅飭孝友純至早從守愚堂學守愚愛其操執每器重之及壬辰之燹赴表叔郭忘憂堂軍于火旺山城

허도(許槩)는 김해인이니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보통사람들과 달랐고 단정하고 고상하면서도 점잖았고 효우가 순박하고 지극하였다. 일찍부터 수우당(守愚堂)을 따라 배우니 수우당도 그 지조를 사랑하여 매양 인재로 여겨 중히 여겼다. 임진의 병화에 이르러서는 화왕산성(火旺山城)에 있는 광망우당(郭忘憂堂)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 정동선(鄭東善)

鄭東善字士元號綺翁河東人中進士自湖南移寓針谷與河謙齋河台溪鄭學圃追隨講磨唱酬詩文多見于諸賢集中

정동선(鄭東善)의 자는 사원(士元)이요, 호는 기옹(綺翁)이며 하동인이니 진사에 합격하였다. 호남에서 침곡(針谷)으로 이거하여 하겸재(河謙齋) 하태계(河台溪) 정학포(鄭

學圃)를 따르면서 강마하고 창수(唱酬)하여 시문이 제현의 문집 가운데서 많이 보인다.

● 이성(李城)

李城號友梅堂雲堂琰子性行淳篤不待矯揉繩尺自嚴孝友根天承親意恬靜寡欲無意進就

이성(李城)의 호는 우매당(友梅堂)이니 운당(雲堂) 이염(李琰)의 아들이다. 성행(性行)이 순독(純篤)하여 고쳐서 바로잡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도로 스스로 엄하게 하였다. 효우스러움이 천성에 근본한 것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승순(承順)하고 녘정(恬靜)과 과욕(寡欲)으로 진취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 하홍진(河弘晉)

河弘晉字省吾寧無成應圖子也早襲家庭之訓好學不倦存心聖賢之書當世士友推許以君子人也監司禹伏龍稱孝友篤實

하홍진(河弘晉)의 자는 성오(省吾)요, 영무성(寧無成) 하응도(河應圖)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가정의 훈도를 이어받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을 성현의 글에만 두니 당세의 사우들이 군자다운 사람으로 추허(推許)하였고 감사 우복룡(禹伏龍)은 “효우스럽고 독실한 선비”라고 칭찬하였다.

● 정제생(鄭悌生)

鄭悌生南溪承尹子天才卓異學識宏深早廢舉業見推於儒林其歿河台溪挽詩功存鄉塾提撕日行著門庭孝友時

정제생(鄭悌生)은 남계(南溪) 정승윤(鄭承尹)의 아들이다. 천재가 탁이(卓異)하고 학식이 굉심(宏深)하였다.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하여 유림에서 추앙(推仰)을 받았다. 그가 돌아감에 하태계(河台溪)가 만시(挽詩)에서 이르기를 “공(功)은 향숙(鄉塾)에서 후진을 지도하던 날에 있고, 행(行)은 문정(門庭)에서 효우하던 때에 드러났네.”라 하였다.

● 유이영(柳伊榮)

柳伊榮字道茂文化人官訓導潮溪宗智子己丑之獄潮溪橫被株連瘐死 王獄公與其弟奉事關榮上言伸雪

유이영(柳伊榮)의 자는 도무(道茂)요, 문화인이며 벼슬은 훈도니 조계(潮溪) 유종지(柳宗智)의 아들이다. 기축년의 옥사로 조계(潮溪)가 횡액을 입어 연루되어 왕옥(王獄)에서 죽으니 공은 그 아우 봉사 유관영(柳關榮)으로 더불어 상언(上言)하여 억울함 펴어 씻었다.

● 정계(鄭珩)

鄭珩字任重號他石齋學圃暄之子早傳家學文翰德行爲世推重二親之喪皆廬墓終制有遺稿刊行

정계(鄭珩)의 자는 임중(任重)이요 호는 타석(他石)재니 학포(學圃) 정훤(鄭暄)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가학을 전해 받아서 문翰(文翰)과 덕행으로 세상에서 추중(推重)되었다. 두 아버지의 상에는 모두 여묘로 제(制)를 마쳤다. 유고가 있어 간행되었다.

● 하변(河忭)

河忭字子賀號丹洲松岡恒弟美風儀善文辭 宣祖丁酉再亂被虜入日本脅之以禍福抗節不屈留日本二十一年全節而還成浮查河謙齋趙鳳岡諸賢皆以蘇武之節比焉

하변(河忭)의 자는 자하(子賀)요, 호는 단주(丹洲)니 송강(松岡) 하항(河恒)의 아우다. 아름다운 풍모에 문사(文辭)를 잘하더니 선조의 정유재란 때에 사로잡히어 일본에 들어갔다. 화복(禍福)으로 위협하였으나 항절(抗節)로 굴복하지 않고 일본에 머무른 지 21년 만에 절개를 온전히 하고 돌아왔다. 성부사(成浮查) 하겸재(河謙齋) 조봉강(趙鳳岡) 등 여러 현인들이 모두 소무(蘇武)의 절개로써 비유했다.

● 이인영(李仁英)

李仁英字子春號松岡教導磁后性素清真不屑仕進日聚諸生肄業不惰以爲矜式

이인영(李仁英)의 자는 자춘(子春)이요 호는 송강(松岡)이니 교도 이자(李磁)의 후예다. 성품이 평소에 청진(清真)하고 사진(仕進)을 좋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제생(諸生)을

모아 학업을 베풀어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공식(矜式)이 되었다.

● 하달제(河達濟)

河達濟字會源生員魏寶之孫也中 顯宗庚子生員文章夙著蔚有時望務自韜晦

하달제(河達濟)의 자는 회원(會源)이니 생원 하위보(河魏寶)의 손자다. 현종 경자년(현종 1, 1660)에 생원에 합격하였는데 문장이 일찍부터 드러나서 성하게 시망(時望)을 가졌더니 스스로 이름을 숨겼다.

● 백서우(白瑞羽)

白瑞羽字雲程號海亭水原人才學超凡治家有範律已以度鄉黨稱之

백서우(白瑞羽)의 자는 운정(雲程)이요, 호는 해정(海亭)이니 수원인이다. 재주와 학문이 범인을 뛰어넘고 집안을 다스림에 규범이 있으며 자신을 조심함에 법도로써 하니 향당에서 칭찬하였다.

● 정대형(鄭大亨)

鄭大亨字汝吉號如愚齋生員文益子文章瞻博志操高亢固守庭訓斂跡晦養士友慕其風裁壽嘉善孫櫛沈潛介潔尤喜周窮恤急

정대형(鄭大亨)의 자는 여길(汝吉)이요 호는 여우재(如愚齋)니 생원 정문익(鄭文益)의 아들이다. 문장이 섬박(瞻博)하고 지조가 높고 고상하며 가정의 교훈을 고수하고 자취를 거두고 숨어서 기르니 사우들이 그 풍모를 사모하였다. 수(壽)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손자 정숙(鄭櫛)도 침잠(沈潛)하고 개결(介潔)한 데다가 더욱이 궁한 사람을 살피고 급한 사람을 구휼하기를 좋아하였다.

● 정유설(鄭有楔)

鄭有楔字公瑞海州人忠毅公文孚孫李陶菴絳贊畫像曰容儀灑落文亦如之

정유설(鄭有楔)의 자는 공서(公瑞)요 해주인이니 충의공(忠毅公) 정문부(鄭文孚)의 손자다. 이도암(李陶菴) 재(絳)가 화상을 찬하여 이르기를 “용의(容儀)가 쇠락(灑落)하

고 문장도 이와 같도다.”라고 하였다.

● 이원직(李元直)

李元直號龍岡咸安人梅軒仁亨后耿介清秀才諳超銳弱冠謁河謙齋謙齋甚愛之賜小學近思錄等書師歿爲服心喪

이원직(李元直)의 호는 용강(龍岡)이요, 함안인이니 매헌(梅軒) 이인형(李仁亨)의 후예다. 지조가 청수(淸秀)하고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날카로웠다. 약관에 하겸재(河謙齋)를 뵈니 하겸재가 매우 사랑하여 소학과 근사록 등의 책을 주었다. 스승이 돌아감에 심상(心喪)을 입었다.

● 하경림(河景濂)

河景濂字景周襄靖公敬復之后掌令季溥孫自少及河謙齋門以能詩聞

하경림(河景濂)의 자는 경주(景周)니 양정공(襄靖公) 하경복(河敬復)의 후예이고 장령 하계부(河季溥)의 손자다. 젊을 때부터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가서 공부했는데, 시에 능한 것으로 이름났다.

● 이여한(李如漢)

李如漢字應是才器英邁學問深邃與河謙齋姜寒沙諸賢爲道義之交官別座

이여한(李如漢)의 자는 응시(應是)니 재기(才器)가 영매(英邁)하고 학문이 심수(深邃)하였으며 하겸재(河謙齋) 강한사(姜寒沙) 등 제현과 더불어 도의의 사귀를 가졌다. 벼슬은 별좌였다.

● 한시헌(韓時憲)

韓時憲字汝章號筠谷奉事誠孫資稟粹明學問博洽行己也清接人也和看書不規規於訓誥之末而要不失聖賢宗旨蔚然有儒林之望

한시헌(韓時憲)의 자는 여장(汝章)이요, 호는筠곡(筠谷)이니 봉사 한계(韓誠)의 손자다. 자품(資稟)이 순수하고 명랑하며 학문이 넓고 흡족했으며 몸소 행하는 것은 깨끗하

게 하고 남을 접하는 것은 온화하였다. 글을 볼 때에는 훈고(訓誥)의 말단적인 것에 궁급하지 않고, 성현의 종지(宗旨)를 잃지 않은 것을 요구하니 울연(蔚然)하게 유림의 명망이 있었다.

● 정유기(鄭有祺)

鄭有祺字壽季號懲室窩進士大榮子天性孝友事親愛敬備至及侍疾奉藥十年不懈執喪哀毀踰制兄弟四人同居講學怡然有征邁之樂爲學以不自欺爲眞詮而篤於內修抱貞自靖不見知而不悔也有讀書筭錄藏于家

정유기(鄭有祺)의 자는 수계(壽季)요, 호는 징질와(懲室窩)이니 진사 정대영(鄭大榮)의 아들이다. 천성이 효우스러워 아버이를 섬김에 애경(愛敬)이 갖추어져 지극하였고 병의 간호에 약 시중들기를 10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집상(執喪)에 슬픔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제(制)를 넘겼다. 형제 네 사람이 함께 살면서 강학에 즐거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었고 학문을 하는 데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으로써 진전(眞銓)을 삼았다. 그리고 내수(內修)에 돈독하였고 곧은 마음을 안고 스스로 편안히 지내며 알아주지 않아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독서차록(讀書筭錄)이 있어 집안에 소장하였다.

● 하덕휴(河德休)

河德休字道卿雪廳第三子剛明有才能早業詩禮 肅宗壬午登武科歷典四郡皆有治績雖以武顯不以榮悴爲意投絨還鄉與其兄養正齋聚一堂日逍遙人稱蓮堂兩鶴以高年階至資憲同中樞

하덕휴(河德休)의 자는 도경(道卿)이니 설창(雪廳) 하철(河澈)의 셋째 아들이다. 굳세고 현명하면서 재능이 있어서 일찍부터 시례(詩禮)를 업으로 하더니 숙종 임오년(숙종 28, 1702)에 무과에 올라 네 고을을 두르면서 맡아서 모두 치적이 있었다. 비록 무관으로써 드러났다 하더라도 영화로운 것이나 쇠퇴한 것으로써 뜻을 삼지 않고 벼슬을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 양정재(養正齋)와 한 집에 모이어서 날마다 소요하니 사람들이 연당(蓮堂)에 두 학이라 일컬었다. 고년(高年)으로써 품계가 자헌 동중추에 이르렀다.

● 조경윤(曹慶潤)

曹慶潤字汝吉號桐谷其弟慶泓字士吉號桐山俱受業於河覺齋之門美風儀多才諳篤志勵行亟蒙師門獎誦及死歿闋服而歸河松亭受一贈詩有自從大覺山頽後嶠右文章屬兩君之句壬辰燹松亭約與同志各自備糧召募散亡公實與焉其後贈詩有日去歲秋風召募初江頭日日長相見如今情緒問如何落盡百花黃鳥囀

조경윤(曹慶潤)의 자는 여길(汝吉)이요, 호는 동곡(桐谷)이며 그 아우 조경홍(曹慶泓)의 자는 사길(士吉)이요, 호는 동산(桐山)인데 함께 하각재(河覺齋)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아름다운 풍모에 재주와 지혜가 많았고 독지(篤志)로 행실을 가다듬으니 시문(斯文)의 칭찬을 흠뻑 입다가 스승이 돌아감에 복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송정(河松亭) 수일(受一)이 시(詩)를 주었으니 “대각산(大覺山)이 무너진 뒤로부터 강우(江右)의 문장(文章)은 양군(兩君)에게 부탁했네.”라 하는 구절이 있다. 임진년의 병화에 송정(松亭)이 동지(同志)와 언약하고 각각 스스로 군량미를 준비하여 흩어진 사람을 불러 모을 때에 공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 뒤에 시를 주어 이르기를 “지난해 가을 바람에 처음으로 소모(召募)할 때는 강두(江頭)에 나날이 깊이 서로 보았었네, 지금에 와서 그 정서가 어떻다고 묻겠는가? 온갖 꽃 다 떨어지고 황조만 지저귀네.”라고 하였다.

● 하자징(河自澂)

河自澂字聖會瓚之子早及謙齋之門深蒙期大之厚及其歿也謙齋哭之以辭略曰緬惟逸才兮浩蕩詞源承世節氣兮凌厲高騫片言驚俗兮賈越瓊璠疾邪高談玉露繁兮世如用我可照渾兮

하자징(河自澂)의 자는 성회(聖會)니 하찬(河瓚)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들어가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깊은 기대를 두터이 입었다.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 하겸재(河謙齋)가 사(辭)로서 곡하였는데 이르기를 “우두커니 서서 일재(逸才)를 생각하니 호탕(浩蕩)한 사원(詞源)이었네. 대를 이어받은 절기(節氣)는 우뚝하게 솟았도다. 편언(片言)으로써 속된 사람을 놀라게 함이여 가치가 구슬보다 낫도다. 사악함을 싫어하는 고상한 말은 옥로(玉露)가 번성했도다. 세상에서 만일 나를 썼더라면 혼연(渾然)히 비쳐 주었으리도다.”라 하였다.

● 허서(許曙)

許曙字遂初副摠管東豈長子天姿秀異不喜奢華生長閹鉞之家而以儒雅自持與河謙齋弘度河進士達漢結道義契

허서(許曙)의 자는 수초(遂初)니 부총관 허동립(許東坼)의 장자다. 천자(天姿)가 수이(秀異)하고 사화(奢華)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인의 집에서 성장했으면서도 선비의 교양으로서 스스로 몸을 가지어 하겸재(河謙齋) 홍도(弘度)와 하진사(河進士) 달한(達漢)과 도의 교계(交契)를 맺었다.

● 하자호(河自灝)

河自灝字汝遇瓚之子與弟自渾字原初俱受業於謙齋門謙齋甚加愛重舉朱子書中爲學之要以勉之

하자호(河自灝)의 자는 여우(汝遇)니 하찬(河瓚)의 아들이다. 아우 하자혼(河自渾)의 자는 원초(原初)인데 함께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서 수업하니 하겸재가 심히 애중(愛重)을 가하고 주자의 서책 가운데에서 학문하는 요점을 들어 힘쓰도록 하였다.

● 이태노(李台老)

李台老字邦彥杏亭重光后才氣豪邁少從李葛菴學及歸葛菴贈之以詩曰人要做好官不願作好人何以作好人由義與居仁爲之亦有術行恕而方外戒爾勿太忙日夕存敬畏

이태노(李台老)의 자는 방언(邦彥)이니 이행정(李杏亭) 중광(重光)의 후예로 재기(才氣)가 호매(豪邁)하였다. 젊어서 이갈암(李葛菴)을 따라 배우다가 돌아오기에 미쳐서 이갈암이 시로써 주었는데 이르기를 “사람들이 호관(好官)되기 만을 요망하고 호인(好人)되기를 원하지 않네, 어떻게 호인이 되겠는가? 의(義)에 의지하고 인에 거(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또한 방법이 있나니 서(愆)를 행하면서 방외(方外)로 할지이다. 너에게 경계하니 지나치게 바쁘게 말 것이요 밤낮으로 경외의 생각을 가져야 하네.”라 하였다.

● 하정(河澗)

河澗字爾海生員達濟之子號掛壺亭三中鄉解而不事求售屏居講學後進之來學者甚衆有遺集

하정(河澗)의 자는 이해(爾海)니 생원 하달제(河達濟)의 아들이며 호를 괘호정(掛壺亭)이라 하였다. 세 번이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을 일삼지 않고 숨어 살면서 학문을 강하니 후진들로서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다. 유집이 있다.

● 정노(鄭巖)

鄭巖字子瞻號栗里圃隱文忠公后以河謙齋洞中子弟自少及門壬寅謙齋上謝恩疏奉疏入城遂蒙寢郎之除以爲齋疏而被選於義不安遂呈辭而歸

정노(鄭巖)의 자는 자침(子瞻)이요, 호는 율리(栗里)니 포은(圃隱) 문충공(文忠公)의 후예다. 하겸재(河謙齋) 같은 마음의 자제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그 문하에서 배우더니 임인년에 겸재가 임금에게 사은소(謝恩疏)를 올릴 때에 소를 받들고 입성하여 드디어 참봉에 제수되는 특전을 입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소를 가지고선 피선된 것은 의리로서 편하지 못한 것이다.”라 하고 드디어 도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 안시진(安時進)

安時進廣州人顯宗庚子中生員受業於成浮查之門浮查寢疾公侍座隅請爲學之要浮查著枕上短編十八篇以授之公爲之服膺又嘗往來河謙齋門受益焉

안시진(安時進)은 광주인이다. 현종 경자년에 생원에 합격하였고 성부사(成浮查)의 문하에 수업하였는바 부사가 병으로 누웠을 때 공이 곁에 모시면서 위학의 요점을 청하니 부사가 18편의 문을 지어주니 공이 가슴에 새겼다. 또 하겸재(河謙齋) 문하에도 또 왕래하면서 수익(受益)하였다.

● 강헌(姜憲)

姜憲參議佑后官察訪賦性孝友事親務盡誠敬待人不設畦畛早謝榮途歸老江湖以壽副護軍

강헌(姜憲)은 참의 우(佑)의 후손이며 벼슬은 참방이다. 천성이 효우하여 사친에 성경

(誠敬)을 다하고 대인(待人)에 모난 행동이 없었으며 일찍이 사로(仕路)에 뜻을 주지 않고 시골에 늙었으며 수작(壽爵)으로 부호군이 되었다.

● 양응화(梁應華)

梁應華字伯宗南原人早及河謙齋門執弟子禮惟謹薦授南部參奉居家饒世業結江亭於文巖江上日與朋友論文講禮爲一代南鄉風流勝事

양응화(梁應華)의 자는 백종(伯宗)이요, 남원인이다. 일찍부터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나아가 제자의 예를 가지고 오직 삼가히 하였다. 천거하여 남부참봉에 제수 되었으나 집에 있으면서 세업(世業)을 넉넉히 하고 강정(江亭)을 문암강(文巖江) 위에 짓고 날마다 봉우로 더불어 문학을 논하고 예를 강하여 그 시대 남향(南鄉)의 풍유의 뛰어난 일이었다.

● 유해(柳楷)

柳楷字子正潮溪宗智孫早承家學深究經義官至察訪

유해(柳楷)의 자는 자정(子正)이니 조계(潮溪) 유종지(柳宗智)의 손자다. 일찍이 가학을 이어받아 경의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벼슬이 찰방에 이르렀다.

● 조정세(趙靖世)

趙靖世字平甫號養心堂大笑軒宗道后自童孩時英邁拔萃器局殊凡屹然有大人志及長文藝夙就深得力於性理近思之書當時蔚有儒林之望

조정세(趙靖世)의 자는 평보(平甫)요,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니 대소헌(大笑軒)의 후손이다. 아이인 때부터 영매(英邁)하고 뛰어나고 기국(器局)이 범인과 달라서 홀연히 대인의 뜻을 가지더니 장성하기에 이르러 문예(文藝)가 숙취(夙就)하고 성리와 근사의 서에 깊은 힘을 얻어 당시에 성한 유림의 아망(雅望)이 있었다.

● 정환(鄭桓)

鄭桓字武仲號臨江亭懲室窩有祺之子七歲丁外艱哀痛如成人文識該博志行高潔當

明陵已巳之變歎曰天下豈有無母之國乎及尤翁受禍謂權公字亨曰以護送尤翁喪被錮豈非榮輝耶閔老峯鼎重父子李睡村畚皆以高士待之後 贈司僕正

정환(鄭桓)의 자는 무중(武仲)이요 호는 임강정(臨江亭)이니 징질와(懲窒窩) 정유기(鄭有祺)의 아들이다. 일곱 살에 부친상을 만났더니 애통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였으며 문식(文識)이 해박하고 지향이 고결하였다. 명릉(明陵)기사의 변을 당하여 탄식하여 이르기를 “천하에 어찌 어머니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라 하였고 우옹(尤翁)이 화를 받음에 권공(權公) 우형(宇亨)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옹(尤翁)의 상(喪)을 호송함으로써 금고(禁錮)를 입는다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 부자와 수촌(睡村) 이여(李畚)가 모두 고사(高士)로써 대접하였다. 뒷날 사복정을 증직하였다.

● 정즙(鄭楫)

鄭楫號四無齋鳳岡有禎子中進士學行純篤聲譽藉甚從遊李畏齋端夏之門有遺集

정즙(鄭楫)의 호는 사무재(四無齋)니 봉강(鳳岡) 정유정(鄭有禎)의 아들이다. 진사에 합격하였고 학행이 순독(純篤)하여 성예(聲譽)가 자자하였으며 이외재(李畏齋) 단하(端夏)의 문에 따라 놀았다. 유집이 있다.

● 김덕환(金德恒)

金德恒號版巖善山人姿稟異凡受業河謙齋門學問深邃工夫甚密明於性理之書旁通星曆之學與南相國九萬相論辨己亥禮說

김덕환(金德恒)의 호는 판암(版巖)이니 선산인이다. 자품(姿稟)이 범인과 다르더니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이 심수(深邃)하고 공부가 매우 치밀하였다. 성리의 서에 밝고 한편으로는 성력(星曆)의 학(學)에 통하였으며 남상국(南相國) 구만(九萬)으로 더불어 기해예설(己亥禮說:숙종 때 예설)을 서로 논변하였다.

● 박정신(朴挺新)

朴挺新字季方號漁隱凌虛敏后中進士校正南冥淵源錄當時以人豪文豪稱之

박정신(朴挺新)의 지는 계방(季方)이요, 호는 어은(漁隱)이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후예다. 진사에 합격하고 남연원록(南冥淵源錄)을 교정하니 당시에 인호(人豪)와 문장(文豪)로써 일컬어졌다.

● 김명겸(金命兼)

金命兼字景鎰號三緘齋白巖大鳴曾孫端莊純粹早棄舉子業出入河謙齋之門難疑問答研窮蘊奧權石潭大運一見奇之書贈松亭新月竹溪清風八字

김명겸(金命兼)의 지는 경일(景鎰)이요 호는 삼함재(三緘齋)니 백암(白巖) 김대명(金大鳴)의 증손이다. 단장(端莊)하며 순수하였으며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버리고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난의(難疑)를 문답하였고 연구한 것이 쌓이고 깊었다. 권석담(權石潭) 대운(大運)이 한번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송정신월(松亭新月) 죽계청풍(竹溪清風)’이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주었다.

● 양진세(梁鎭世)

梁鎭世字伯望南原人 顯宗丙午中進士早及河謙齋門爲人沈重謹默聰明強記奉先以誠接人以忠以文行稱于世

양진세(梁鎭世)의 지는 백망(伯望)이요, 남원인이다. 현종 병오년(현종 7, 1666)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일찍부터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들어갔다. 사람됨이 침중(沈重)하고 근묵(謹默)하며 충명하여 잘 기억하였으며 선조를 받들에는 정성으로써 하였고 사람을 접함에는 충성으로써 하였으며 문행(文行)이 세상에서 일컬어졌다.

● 성항(成杭)

成杭字貞用浮查汝信曾孫早廢公車業以實踐爲務文學行誼爲世矜式晚寓鐵城勉進後學門下彬彬多文學士

성항(成杭)의 지는 정용(貞用)이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증손이다. 일찍 과거 공부를 폐하고 실천으로써 힘써서 문학과 행의가 세상에 긍식(矜式)이 되었다. 만년에는 철성(鐵城)에 우거(寓居)하여 후학의 지도에 힘쓰니 문하에 빈빈(彬彬)한 문학의 선

비가 많았다.

● 이중정(李重禎)

李重禎字休甫號梧泉誠齋禮勛孫承習家庭以文學行誼名於世

이중정(李重禎)의 자는 휴보(休甫)요, 호는 오천(梧泉)이니 성재(誠齋) 이에훈(李禮勛)의 손자다. 가정을 승습(承習)하여 문학과 행의로써 세상에 이름났다.

● 조진명(曹晉明)

曹晉明字子昭南冥文貞公孫也蔭察訪濡染家學令聞夙著莅官恩威并施斯文凡事必與議于河謙齋諸賢論神道碑事

조진명(曹晉明)의 자는 자소(子昭)니 문정공(文貞公) 남명(南冥)의 손자다. 음직으로 찰방이 되었던니 가학에 영향을 받아 좋은 평판이 일찍부터 드러났다. 관에 있으면 은위(恩威)를 함께 베풀었고 사문(斯文)의 범사를 만드시 하겸재(河謙齋) 등 여러 어진이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또 일찍이 신도비의 일을 의논하였다.

● 정구(鄭構)

鄭構字旨世號露頂軒海州人農圃文學曾孫樂善好義文章筆法爲世推重

정구(鄭構)의 자는 지세(旨世)요 호는 로정헌(露頂軒)이며 해주인이니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증손이다. 착한 일을 즐겨워하고 이로운 것을 좋아하였으며 문장과 필법으로 세상에 추중(推重)되었다.

● 이집(李集)

李集字義仲載寧人南溪蕃孫早受業家庭之訓受業于河謙齋門謙齋以敬義說贈之

이집(李集)의 자는 의중(義仲)이요, 재령인이니 남계(南溪) 이번(李蕃)의 손자다.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받고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서 수업하니 하겸재(河謙齋)가 경의로써 설명해주었다.

● 조준명(曹浚明)

曹浚明字子深萬戶次礪之子早中司馬生質甚美聰明過人以文行見重於士友時有以淫獄事誣及師門議于河滄洲河謙齋諸賢著文以辨之

조준명(曹浚明)의 자는 자심(子深)이니 만호(萬戶) 조차정(曹次礪)의 아들이다. 일찍이 사마에 합격하였더니 나면서부터 바탕이 매우 아름답고 총명이 남보다 뛰었났고 사우들에게서 무겁게 여겼다. 당시에 음옥(淫獄)의 일로 무함(誣陷)이 사문(師門)에 미쳤더니, 하창주(河滄洲) 하겸재(河謙齋) 제현에게 의논하고 글을 저술하여 이를 밝혔다.

● 하윤관(河潤寬)

河潤寬字澤厚號忍齋自髫鬣淳雅有志行及受讀聰悟出人戒子姪輩勿貨殖曰損志益過甚不可也望之肅如卽之藹乎其溫也後輩之侍座承誨者如飲淳酒

하윤관(河潤寬)의 자는 택후(澤厚)요, 호는 인재(忍齋)다. 여닐곱 살 때부터 순박하고 고아하여 지행(知行)이 있더니 글을 배울 때에 이르러서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자질(子姪)이 되는 무리에게 화식(貨殖)을 하지 말도록 경계하여 이르기를 “뜻을 손상시키고 허물을 더하는 것이니 심히 옳지 못하다.”라 하였다. 바라보면 숙여(肅如)하고 나아가면 다정하였으며 따뜻하였으니 후배로서 자리에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순주(淳酒)를 마시는 것 같았다.

● 남국문(南國文)

南國文字明仲號藍溪奉事極昌孫早襲家學就正金霽山門文學行誼超出時輩金九思堂晉行嘗稱其志行不俗

남국문(南國文)의 자는 명중(明仲)이요, 호는 남계(藍溪)니 봉사 남극창(南極昌)의 손자다. 일찍이 가학을 이어받아 김제산(金霽山)의 문에 취정(就正)하였더니 문학과 행의가 무리에서 뛰어났다. 김구사당(金九思堂) 진행(晉行)은 그의 지행(知行)이 속되지 않다고 칭찬하였다.

● 하윤일(河潤一)

河潤一字澤善號竹村進士達漢之孫資稟溫厚無疾言遽色五歲能辨魯魚長受業於趙默齋錫圭之門及歿以孝友學行有儒狀未蒙褒典鄉黨惜之

하운일(河潤一)의 자는 택선(澤善)이요, 호는 죽촌(竹村)이니 진사 하달한(河達漢)의 손자다. 자품(資稟)이 온후하여 빠른 말이나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는 일이 없었다. 다섯 살에 능히 글자가 비슷한 것을 분별하였고, 자라서는 조묵재(趙默齋) 석규(錫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돌아간 뒤에 이르러서 효우와 학행으로써 유상유림의 호수문이 있었으나 국가의 표창을 입지 못하니 향당(鄉黨)이 애석하게 여겼다.

●하응명(河應命)

河應命字聖休號癡窩天姿穎邁才氣警拔孝友之篤操履之慤克紹家學累中鄉試而斂然自修名窩以癡蓋示其無憚也

하응명(河應命)의 자는 성휴(聖休)요, 호는 치와(癡窩)다. 천자가 영매(穎邁)하고 재기(才氣)가 뛰어났으며 효우의 돈독함과 실천의 정성스러움은 가학을 잘 이어받은 것이었다.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였으되 조용히 자신을 닦고 치(癡)자로 집 이름을 삼았으니 대개 그 걱정이 없는 것을 보인다.

●하대명(河大明)

河大明字晉叔號寒溪雪臆澈孫聰慧過人文章筆法名當世弱冠連捷鄉解程文六體無不用功又明習禮學遠近就質焉

하대명(河大明)의 자는 진숙(晉叔)이요, 호는 한계(寒溪)니 설창(雪臆) 하철(河澈)의 손자다.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보다 지나치고 문장과 필법으로 당세에 이름났다. 약관의 나이에 향시에 연달아 합격하고 과거에 쓰이는 육체(六體)에 용공(用功)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며 또 예학을 밝게 익혀서 원근에서 나아가 물었다.

●하필청(河必淸)

河必淸字千期號台窩進士世應之子也 英廟戊午登文科由成均館典籍出爲景陽丞才質超邁行誼純潔志氣不群以忤於時論位不稱德時論惜之

하필청(河必淸)의 자는 천기(千期)요, 호는 태와(台窩)이니 진사 하세응(河世應)의 아들이다. 영묘 무오년(영조 14, 1738)에 문과에 올라 성균관 전적을 거쳐서 나아가 경양(景陽)이 되었다. 재질(才質)이 뛰어나 행의가 순결하였으며 지기가 무리에서 뛰어났으나 시론에 거슬렸기 때문에 지위가 덕에 맞지 않으니 시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 정상점(鄭相點)

鄭相點字仲與號不憂軒農圃忠毅公后事親至孝遵先訓廢舉業嘯遊林泉以琴書自娛
정상점(鄭相點)의 자는 중여(仲與)요, 호는 불우헌(不憂軒)이니 농포(農圃) 충의공(忠毅公)의 후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선훈(先訓)을 지키면서 과거 공부를 폐지하고 자연 속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느긋하게 지냈고 금서(琴書)로써 스스로 즐겼다.

● 한정석(韓鼎錫)

韓鼎錫字德元號遯溪釣隱夢參後也以文學行誼爲士友推重二子伯愈仲愈俱有儒行
한정석(韓鼎錫)의 자는 덕원(德元)이요, 호는 둔계(遯溪)니 조은(釣隱) 한몽삼(韓夢參)의 후손이다. 문학과 행의로써 사우들에게 추중(推重)되었다. 두 아들 한백유(韓伯愈) 한중유(韓仲愈)도 함께 유행(儒行)이 있었다.

● 정상길(鄭相吉)

鄭相吉字吉甫號東洲進士楫子遊於權遂菴門以孝友學行著名當世
정상길(鄭相吉)의 자는 길보(吉甫)요, 호는 동주(東洲)니 진사 정중(鄭楫)의 아들이다. 권수암(權遂菴)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효우와 학행으로 이름을 당세에 드러냈다.

● 한성(韓成)

韓成字就之號柳隱箕錫之子資稟端重志操清介立朝十餘年足不及勢利門雖從事弓馬而處心律己一以儒業自勵官至節制使

한성(韓成)의 자는 취지(就之)요, 호는 유은(柳隱)이니 한기석(韓箕錫)의 아들이다. 자

품(姿稟)이 단중(端重)하고 지조(志操)가 청개(淸介)하여 조정에 선 지 십여 년 동안에 세리(勢利)의 문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하였다. 비록 궁마(弓馬)에 종사하면서도 마음을 율기(律己)에 두고 한결같이 유업(儒業)으로써 스스로 가다듬었다. 벼슬은 절제사(節制使)에 이르렀다.

● 이한철(李漢哲)

李漢哲字來遠號自訟堂素菴德寬子好學不倦獎進後輩多所成就六捷鄉解竟北南省鄉人有以關節要公者拒而責之曰君非我故人耶

이한철(李漢哲)의 자는 래원(來遠)이요, 호는 자송당(自訟堂)이니 소암(素菴) 이덕관(李德寬)의 아들이다.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후배를 권장하고 진취시켜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 여섯 번이나 향시에 합격했으나 마침내 대과에서 실패하였더니 향인(鄉人)이 뇌물을 주고 청탁한 것을 공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으니 거절하면서 이를 꾸짖어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친구가 아닌가?”라 하였다.

● 허경(許鏞)

許鏞字開叔號獨醒齋副摠管東岵子文辭瞻富筆法精妙九中鄉解而竟屈禮園遂翫然悟曰古人讀書實是爲己今人讀書只是應舉遂以獨醒扁其齋日以心近群書沈潛玩繹造詣精深

허경(許鏞)의 자는 개숙(開叔)이요, 호는 독성재(獨醒齋)니 부총관 허동립(許東岵)의 아들이다. 문사(文辭)가 섬부(瞻富)하고 필법이 정묘하였으며 아홉 번이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마침내 대과에 실패하였다. 드디어 툇 깨닫고 말하기를 “고인의 독서는 실로 위기(爲己)였는데 금인의 독서는 다만 과거에 응하는 것이다.”라 하고 드디어 독성(獨醒)으로써 그의 서재에 편액을 걸고서 날마다 심경과 근사록 등의 군서(群書)로써 침잠(沈潛)하고 완역(玩繹)하여 조예가 정심하였다.

● 하필동(河必東)

河必東字士屹好四顧軒習靜齋應雲之子性剛明果於爲善嘗與諸士友上疏請尤春從

祀文廟蒙優批早從李陶庵學聲望蔚然而不幸早世士友嗟惜

하필동(河必東)의 자는 사흘(士屹)이요, 호는 사고헌(四顧軒)이니 습정재(習靜齋) 응운(應雲)의 아들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명쾌하며 착한 일을 하는 데에 과감하였다. 일찍이 여러 벗과 더불어 상소(上疏)하여 우암과 동춘을 문묘(文廟)에 종사할 것을 요청하여 임금으로부터 좋은 비답(批答)을 받았다. 일찍이 이도암(李陶庵)을 따라 배워서 명성과 영망(英望)이 울연(蔚然)하였으되 불행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니 사우들이 슬퍼하며 애석하게 여겼다.

● 이세근(李世根)

李世根字達厚號葛茅堂杏窩重榮后學於內舅茅溪處士曹錫基不以進就爲念金霽山聖鐸一見壯其爲人結道義交序其堂以贊之

이세근(李世根)의 자는 달후(達厚)요, 호는 갈모당(葛茅堂)이니 행와(杏窩) 이중영(李重榮)의 후손이다. 외숙 모계처사(茅溪處士) 조석기(曹錫基)에게서 배웠더니 벼슬자리에 나아감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김제산(金霽山) 성탁(聖鐸)이 한번 보고 그 사람 됨을 장하게 여기어 도의(道義)의 친교를 맺고 그의 당(堂)에 서문을 지어 기리었다.

● 강흥운(姜興運)

姜興運字文舉號梅隱梅村德龍五世孫賙窮恤貧有古人車服共弊之義鄉黨皆稱善信人

강흥운(姜興運)의 자는 문거(文舉)요, 호는 매은(梅隱)이니 매촌(梅村) 덕용(德龍)의 5세손이다. 궁핍한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며 수레와 의복을 친구와 함께 사용하다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입었다. 고을에서 모두 착하고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 박맹기(朴孟夔)

朴孟夔字華明號石浦文追先秦筆傍蒼史所著禾谷說秋夜圖至今膾炙人口

박맹기(朴孟夔)의 자는 화명(華明)이요, 호는 석포(石浦)다. 문장은 선진(先秦)을 추

구하고 글씨는 창사(蒼史)를 본떴으며 저술한 「화곡설(禾谷說)」과 「추야도(秋夜圖)」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

● 이광호(李光浩)

李光浩字季甫號鶴菴益安大君芳毅之厚也幼有志節常以先訓中忠孝傳家四者策勵焉初其祖某與桐溪鄭文簡公相善自抱川結婚移寓及戊申賊亮以戚屬誘愴之大罵絕之即日陪母夫人南走所過店壁必大書曰某年月日李某避賊亮過此云明菴鄭栻見而義之以女妻之自是遂爲晉州人

이광호(李光浩)의 자는 계보(季甫)요, 호는 학암(鶴菴)이니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의 후예이다. 어려서부터 지절(志節)이 있어 항상 선훈중(先訓中) ‘충효전가(忠孝傳家)’의 네 글자로서 책려(策勵)하였다. 처음에 그의 할아버지 모(某)가 동계(桐溪) 정문간(鄭文簡) 공과 서로 좋아하더니 포천(抱川)에서 결혼하여 살다가 무신년에 역적 정희량(鄭希亮)이 척속(戚屬)이기 때문에 유인하여 두렵게 하자 크게 꾸짖고 절교하고 그 날로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남쪽으로 달려오면서 지나는 곳의 주점의 벽에 크게 써서 이르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이모(李某)는 정희량(鄭希亮)을 피하여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였다. 명암(明菴) 정식(鄭栻)이 보고 의롭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니 이로부터 진주 사람이 되었다.

● 정숙(鄭塾)

鄭塾字會一懲室窩有祈之曾孫早登司馬以文章孝友三被剡薦終不爲進用時論惜之 정숙(鄭塾)의 자는 회일(會一)이니 징질와(懲室窩) 정유기(鄭有祺)의 증손이다. 일찍이 사마(司馬)에 올라 문장과 효우(孝友)로써 세 번이나 천거를 입었으나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니 시론(時論)에서 애석하게 여겼다.

● 하복호(河復浩)

河復浩字吉甫號丹砂凝窩應命子天姿穎悟文章瞻博屢中鄉解亦不以得喪嬰情訓誨後進多所成就有遺集

하복호(河復浩)의 자는 길보(吉甫)요, 호는 단사(丹沙)니 응와(凝窩) 응명(應命)의 아들이다. 자질이 총명하고 문장이 섬박(瞻博)하여 여러 번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나 상(喪)으로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진을 교육하여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 유집(遺集)이 있다.

● 김곡(金鵠)

金鵠號咬菜廬白巖大鳴之后早登司馬文聲大振著書數萬言皆入回祿中人皆惜之

김곡(金鵠)의 호는 교채려(咬菜廬)라 하였으니 백암(白巖) 대명(大鳴)의 후예다. 일찍이 사마(司馬)에 올라 문장의 명성이 크게 떨치고 저서도 수만언(數萬言)이었던니 모두 화재를 당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다.

● 최동일(崔東逸)

崔東逸全州人踐履雅飭精通經學 英廟甲戌除禧陵參奉不就

최동일(崔東逸)은 전주인이니 실천이 공인하고 신중하였고 경학에 정통하였으며 영조 갑술년(영조50, 1774)에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조석기(曹錫基)

曹錫基字德甫號茅溪淨友堂致虞之后嘗受業於李葛菴玄逸之門博學力行不求營利 隱居於防禦山下終老林泉

조석기(曹錫基)의 자는 덕보(德甫)요, 호는 모계(茅溪)니 정우당(淨友堂) 치우(致虞)의 후손이다. 일찍이 이갈암(李葛菴) 현일(玄逸)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박학하고 역행하며 영리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어산(防禦山) 아래에서 은거하여 임천(林泉)에서 삶을 마쳤다.

● 강재후(姜載後)

姜載後誠齋應台之后器宇宏遠才藝卓越有白溪詩軸 肅宗壬午文科禮曹佐郎

강재후(姜載後)는 성재(誠齋) 강응태(姜應台)의 후손이다. 기우(器宇)가 원대하고 재

예(才藝)가 탁월하였으며 백계(白溪) 시축(詩軸)이 있다. 숙종 임오년(1702)에 문과에 올라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지냈다.

● 정도진(鄭道震)

鄭道震字聖彬學圃暄玄孫也天姿溫粹氣宇峻正有古家法度以文學行義著於鄉

정도진(鄭道震)의 자는 성빈(聖彬)이요, 학포(學圃) 정훤(鄭暄)의 현손이다. 자질이 온수(溫粹)하고 기개와 도량이 준정(峻正)하여 고가의 법도가 있었고 문학과 행의(行義)가 고을에 드러났다.

● 정상우(鄭相宇)

鄭相宇字聖賓號野隱河東人進士國僑后賦性沈重立志堅確以學行聞於鄉里

정상우(鄭相宇)의 자는 성빈(聖賓)이요, 호는 야은(野隱)이며, 하동인이니 진사 국교(國僑)의 후예다. 타고난 성품이 침중(沈重)하고 입지가 확고하였으며 학행으로 고을에 알려졌다.

● 정희래(鄭喜來)

鄭喜來字樂朋號雲谷隅谷溫后聰明絕倫工於文辭筆力老蒼累舉鄉解屈於會圍

정희래(鄭喜來)의 자는 요봉(樂朋)이요, 호는 운곡이니 우곡(隅谷) 정온(鄭溫)의 후예다. 총명함이 뛰어나고 문사(文辭)에 정교하고 필력이 노련하였으며 여러 번 향시에는 합격하였으나 회시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 하극호(河極浩)

河極浩字一叔號丹淵慕松齋仁尙之玄孫天姿穎悟文辭夙就見世道日非不求聞達潛心性理之學槐泉柳汝龍弦窩尹東野諸賢皆推重焉

하극호(河極浩)의 자는 일숙(一叔)이요, 호는 단연(丹淵)이니 모송재(慕松齋) 하인상(河仁尙)의 현손이다. 자질이 총명하고 문사(文辭)가 일찍부터 이루어 졌다. 세상 도리가 날로 어긋남을 보고 문달(聞達)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리학에 잠심(潛心)하였으며 괴천

(槐泉) 유문용(柳汶龍), 현와(弦窩) 윤동야(尹東野) 등 제현(諸賢)이 모두 받들었다.

● 김성운(金聖運)

金聖運字大集號珠潭三緘齋命兼子也才器過人通經籍饒文詞飭己制行動遵規範居窮守約夷然自樂焉

김성운(金聖運)의 자는 대집(大集)이요, 호는 주담(珠潭)이니 삼함재(三緘齋) 명겸(命兼)의 아들이다. 재주와 품성이 남보다 뛰어나 경서에 통달하고 문사에 넉넉하였으며 자신을 신칙하고 행동을 제어하였으며 규범을 지키고 궁한 대로 살면서 검약(儉約)을 지키면서 느긋하게 스스로 즐겼다.

● 김문수(金文粹)

金文粹字晦甫義城人東岡文貞公字顒五代孫也自星州來居于州東鴨峴里性嚴有法度風裁俊偉德量宏厚見者敬而愛之嘗創立龍奉面規約案

김문수(金文粹)의 자는 회보(晦甫)요, 의성인이며 동강(東岡) 문정공(文貞公) 우옹(宇顒)의 5대손이니 성주(星州)에서 이주하여 고을의 동쪽 압현리(鴨峴里)에 살았다. 성품이 엄하여 법도가 있었고 품모가가 준위(俊偉)하며 덕성과 도량이 크고 두터워 보는 자가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일찍이 용봉면(龍鳳面)의 ‘규약안(規約案)’을 만들었다.

● 권용현(權龍見)

權龍見字紀爾號月巖生有異質幼時見紙面父母字輒不忍踐越及就傳篤好小學曰爲人之道盡在此書侍親病有魚躍割指之事廬墓致虎感晚來寓陽田里里人多化爲善良陽之改良以此也道臣聞于朝復其戶以大耄受職及沒以孝累 贈至吏曹參判旌閭享檜溪院有實記

권용현(權龍見)의 자는 기이(紀爾)이요, 호는 월암(月巖)이다. 나면서부터 특이한 성질이 있어 어릴 때는 종이에 부모의 이름자를 보면 차마 밟고 넘지 아니했고, 스승께서 나아가서는 『소학(小學)』을 독실하게 좋아하여 이르기까지 “사람 되는 도리는 다 이 책에 있다.”라 하였고, 어버이를 모시고 병들었을 때에 고기가 뛰어 들고 손가락을 벤 일이 있

었고, 여묘(廬墓)할 때 호랑이가 감동하는 일이 있었다. 만년에 양전리(陽田里)에 와서 거처함에 마을사람들이 교화되어 선량하게 된 것이 많았으므로 양(陽)을 량(良)으로 고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관찰사가 조정에 알리어 복호(復戶)를 받았다. 나이가 많아 관직을 받았고, 사후에는 호로써 여러 번 추증되어 이조참판에 이르렀고 정려(旌閭) 되었으며 회계원(檜溪院)에 모셨다. 실기(實記)가 있다.

● 정광익(鄭光益)

鄭光益(後改以封)字述遠學圃暄后性耿介立志堅確遊樊巖蔡相公濟恭之門時值元陵之際物論一變嶷然自守確乎不拔扁其所居之室曰守先堂蓋表其先世所守之論也

정광익(鄭光益) 뒷날 봉(封)으로 고쳤다)의 자는 술원(述遠)이니 학포(學圃) 정훤(鄭暄)의 후손이다. 성품이 곧고 입지가 확고하였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의 문하에 놀더니 때마침 원릉(元陵)의 때를 만나서 물론(物論)이 달라짐에 고상하게 스스로를 지켜 확실히 변하지 않고 그가 거처하는 집에 편액을 ‘수선당(守先堂)’이라 일렀으니 대개 그의 선대에서 지키던 바를 말한 것이다.

● 정찬익(鄭燦益)

鄭燦益字明叔號三慕齋學圃暄之后中司馬儀表端重學行早成受學于尹屏溪屏溪見所撰天命人心圖及草木禽獸不可以仁義禮智名說等編大加稱賞與金溪湖元行宋櫟川明欽爲道義之交與諸士友上疏請尤春兩賢躋廡蒙優批

정찬익(鄭燦益)의 자는 명숙(明叔)이요, 호는 삼모재(三慕齋)니 학포(學圃) 훤(暄)의 후예다. 사마(司馬)에 합격 하였는데 의표(儀表)가 단아하고 중후하며 학행이 조성(早成)되었다. 윤병계(尹屏溪)에게서 수학했더니 윤병계가 ‘천명인심도(天命人心圖)’ 및 초목과 금수는 인의예지로써 이름 짓지 못한다는 설(說) 등의 글을 보고 크게 칭상(稱賞)을 더했다. 김미호(金溪湖) 원행(元行)과 송역천(宋櫟川) 명흠(明欽)으로 더불어 도의의 교분을 삼고 여러 사우로 더불어 상소하여 우춘(尤春) 양현(兩賢)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여 우대하는 비답(批答)을 받았다.

● 김광연(金光鍊)

金光鍊字子精號立巖白巖大鳴后幼而聰悟絕倫四五歲屬文往往有驚人語及長讀書益力沈潛經訓出入金霽山門得聞爲學大方晚築室于國士峰下爲將老計不復以事物經心焉有文集

김광연(金光鍊)의 자는 자정(子精)이요, 호는 입암(立巖)이니 백암(白巖) 김대명(金大鳴)의 후예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뛰어나 4-5세에 능히 글을 지어 왕왕 사람을 놀라게 했고, 성장하여 독서에 더욱 힘쓰고 경훈(經訓)에 침잠(沈潛)하였으며, 김제산(金霽山)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학문하는 이치를 얻어 들었다. 만년에는 집을 국사봉(國士峰) 아래에 지어 장차 노년을 계획했고, 세사와 물질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였다. 문집이 있다.

● 박천동(朴天東)

朴天東字幼青號南浦石浦孟夔子潛心性理學多著圖說及歿左右道儒有立祠之議而未果

박천동(朴天東)의 자는 유청(幼靑)이요, 호는 남포(南浦)니 석포(石浦) 맹기(孟夔)의 아들이다. 성리학에 마음을 두어 도설(圖說)을 많이 저술하였더니 죽음에 이르러서는 좌우도(左右道)의 유림들이 사당을 세울 의논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강세준(姜世儁)

姜世儁字子眞號梅臯至愚堂來運子學問超詣風標雅潔蘊抱經綸卒於林泉人皆惜之有遺集

강세준(姜世儁)의 자는 자진(子眞)이요, 호는 매고(梅臯)니 지우당(至愚堂) 래운(來運)의 아들이다. 학문이 뛰어나고 품모가 아결(雅潔)하였으며 경륜을 쌓고 품었으나 임천(林泉)에서 세상을 마치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유집(遺集)이 있다.

● 곽선(郭璿)

郭璿字景玉無爲子世榿后中司馬有文行與士友上疏請南冥曹文貞公從祀聖廡

곽선(郭璿)의 자는 경옥(景玉)이니 무위자(無爲子) 곽세건(郭世楨)의 후예이다. 사마(司馬)에 합격하고 문행(文行)이 있었으며 사우와 더불어 상소하여 남명(南冥) 조문정공(曹文貞公)을 문묘(文廟)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 강필준(姜必儁)

姜必儁字美伯梅隱興運之子淳厚有至行河謙齋爲異己者所詆誣冒禍罔奮公議必至伸理又於南冥陞庶疏舉時實主其議

강필준(姜必儁)의 자는 미백(美伯)이니 매은(梅隱) 강흥운(姜興運)의 아들이다. 지극히 순후(淳厚)한 행실이 있더니 하겸재(河謙齋)가 자기와 달리 하는 자 때문에 험뜯고 무함됨에 불같은 화난을 무릅쓰고 공론을 불꽃처럼 일으켜 반드시 얼굴함을 처리하기 이르렀고 또 남명(南冥)의 문묘종사를 일으켰을 때 그 논의를 실제로 주관 하였다.

● 성사안(成師顏)

成師顏字景默號琴溪容貌魁偉性情沖和不屑屑於家計劬精詩書年四十廢舉業以訓誨後進爲己任來學者甚衆文學行誼爲世推重歿後鄉人發俎豆之議而未果

성사안(成師顏)의 자는 경묵(景默)이요, 호는 금계(琴溪)다. 용모가 아름답고 성정이 화합하여 가계에 궁핍하지 아니하고 시서에만 힘써 정진하였다. 나이 40에 과거에 뜻을 버리고 후진을 교육함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으니 와서 배우는 자가 심히 많았다. 문학과 행의(行誼)로 세상에 추중(推重)되더니 사후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낼 것을 의논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하정중(河正中)

河正中字君直自渾玄孫鬻鑠不羈好風神能文章喜遊佳山水再入平壤京師之以文詞名者皆爲詩及序以贈行至數百餘篇自是交遊遍一國雖不以面而聞其名者莫不欽慕與樊巖蔡相國交道最密

하정중(河正中)의 자는 군직(君直)이니 자혼(自渾)의 현손이다. 기운이 힘차고 얹매이지 않았으며 좋은 풍채에 문장이 능하였다. 아름다운 산수에 놀기를 좋아하여 두 번이

나 평양(平壤)에 들어갔고 서울에서 문사(文詞)로 이름난 자와 모두 시(詩)와 서(序)를 만들어 주니 수백여 편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온 나라를 두루 교류하니 비록 얼굴로써 하지 아니했더라도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은 흠모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며 번암(樊巖) 채상국(蔡相國)과 도의로 맺어 가장 친밀하였다.

● 하운채(河潤采)

河潤采字澤受號五吾堂掛壺亭澣之子再捷鄉解而竟荆南宮居窮守約著書自娛所著書有自警訓蒙窮格說易理等篇及集遺

하운채(河潤采)의 자는 택수(澤受)요, 호는 오오당(五吾堂)이니 괘호정(掛壺亭) 하정(河澣)의 아들이다. 두 번이나 향시에 합격했으나 끝내 문과에 실패했으며 궁한 대로 살면서 검약을 지키고 저서로 스스로 즐겼다. 저서로는 「자경훈몽(自警訓蒙)」과 「궁격설(窮格說)」 『역리(易理)』 및 유집(遺集)이 있다.

● 최익대(崔益大)

崔益大字謙叟號山圃全州人幼孤受慈教好讀書大肆力於經傳嘗三遊鄉解而屈歸謁李大山講爲己之學趨向甚正立心制行一遵儒門規範晚來佳川上流以終老有遺集

최익대(崔益大)의 자는 겸수(謙叟)요 호는 산포(山圃)니 전주인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경전에 크게 힘을 쏟았다. 일찍이 세 번이나 향시에 응시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와 이대산(李大山)을 뵈고서 위기(爲己)의 학문을 익혔다. 추향(趨向)이 매우 바르고 입심(立心)하여 행실(行實)을 제어하여 한결같이 유문(儒門)의 규범을 따랐으며 만년에는 가천(佳川) 상류에 와서 삶을 마쳤다. 유집(遺集)이 있다.

● 조득우(趙得愚)

趙得愚字立中號南岡大笑軒宗道后常往大山李文敬公之門質疑講論平生痛不識父面不服親喪常服深衣繩帶不加華彩之飾作永慕亭詩曰人間至慟早孤身五十思親舜一人構軒幸得寓懷地永慕微誠日益新有文集行于世

조득우(趙得愚)의 자는 입중(立中)이요, 호는 남강(南岡)이니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후예이다. 항상 대산(大山) 이문경공(李文敬公)의 문하에 가서 질의하고 강론하였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친상(親喪)을 입지 못한 것을 슬프게 여기고 항상 심의(深衣)를 입고 띠를 하였으며 화려한 장식을 더하지 아니하였다. 영모정(永慕亭) 시를 지어 이르기를 “인간으로 지극히 슬픈 일은 일찍 고아 되는 일일지니, 50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 순임금 한 사람 뿐이던가? 다행이도 난간을 엮어 회포 부칠 땅을 얻었으니 길이 사모하는 작은 정성이 날로 더욱 새롭네.”라 하였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 강형은(姜亨殷)

姜亨殷字子胤號忍齋翰林安重后性寬重仁厚踐履篤實事親志物兼至居喪廬墓鄉里有褻闡之舉而力止之

강형은(姜亨殷)의 자는 자운(子胤)이요, 호는 인재(忍齋)니 한림(翰林) 강안중(姜安重)의 후예다. 성품이 너그럽고 진중하여 인후(仁厚)하며 천리(踐履)가 독실하였다. 아버지를 섬김에 마음과 물질이 겸하여 지극하였고 상을 당함에 여묘살이를 하니 고을에서 포창하여 선양하려는 거론이 있었으나 힘써 중지시켰다.

● 하일호(河一浩)

河一浩字履甫號竹窩天姿寬厚氣宇和粹人謂不失赤子心晚年以成就後學爲己任其爲教先之以小學有文集行于世

하일호(河一浩)의 자는 이보(履甫)요, 호는 죽와(竹窩)다. 성품이 너그럽고 기개와 도량이 온화하고 순수하여 사람들이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지 아니했다고 일렀다. 만년에는 후학을 성취시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으며 가르치는 데에는 소학(小學)을 우선하였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서 간행했다.

● 허존(許存)

許存字惺翁號橘園陽川人正字錘子正字忤於時論居謫於本州取從遊之勝風土之美

賜環後使其二子來居金萬庄能文章有志節落拓不見用於世人多惜之

허존(許存)의 자는 성옹(惺翁)이요, 호는 귤원(橘園)이며 양친인이니 정자(正字) 허추(許錘)의 아들이다. 정자가 시론(時論)에 거슬리어 본주(本州)에 귀양살이를 했는데, 어울려 배울 만한 사람들이 훌륭한 것과 풍토(風土)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풀려난 뒤에 그의 두 아들로 하여금 금만장(金萬庄)에 와서 살게 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지조와 절개가 있었는데도 불우하여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많이 애석하게 여겼다.

● 남국봉(南國鵬)

南國鵬字雲舉號敬義齋藍溪國文弟天姿醇慤才器過人弱冠謁金霽山于晞陽謫所執弟子禮惟勤存心爲己之學造詣篤實霽山嘗曰質美而嗜學蓋有異乎世俗之士也

남국봉(南國鵬)의 자는 운거(雲舉)요, 호는 경의재(敬義齋)니 남계(藍溪) 남국문(南國文)의 아우다. 자질이 순박하고 정성스럽고 재기가 남보다 뛰어나 약관의 나이에 김제산(金霽山)을 광양(光陽)의 적소(適所)에서 뵈고 제자의 예를 가졌다. 오직 부지런하고 마음을 위기지학에 두었으며 조예(造詣)가 독실하니 김제산이 일찍이 이르기를 “바탕이 아름답고 학문을 즐기니 세속의 선비와 다른 점이 있다.”라 하였다.

● 허윤(許潤)

許潤字能澤號西臯金海人天性至孝居喪廬墓三年不見人面以文學德行見重於當世嘗曰士生斯世出與處非二道豈可以營利累其心也淨掃一室隱居求志潛心性理之學

허윤(許潤)의 자는 능택(能澤)이요, 호는 서고(西臯)니 김해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상중에 여묘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부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고 문학과 덕행으로써 세상에서 추앙을 받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출처(出處)는 두 길이 아니니 어찌 영리로 그 마음을 더럽히겠는가?” 라고 하고 작은 방을 깨끗이 쓸고 은거하면서 뜻을 구하고 성리의 학문에 마음을 두었다.

● 한상기(韓相琦)

韓相琦字奎伯號樂命齋志操清高文詞精博屢舉不中遂構小齋壁上揭安分知命四字

不復應舉來學者甚衆有遺集

한상기(韓相琦)의 자는 규백(奎伯)이요, 호는 낙명재(樂命齋)다. 지조가 맑고 고상하며 문사(文詞)가 정묘하고 넓더니 여러 번 과거에 응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드디어 작은 서재를 세우고 벽에 ‘안분지명(安分知命)’의 네 글자를 걸어 두고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고 유집(遺集)이 있다.

●하진중(河鎭中)

河鎭中字子深號復窩學問行誼爲世所重內則伯兄菊潭公墳箎唱酬有人不及知之樂外則鄭立齋宗魯崔蠹窩興璧諸賢爲道義交

하진중(河鎭中)의 자는 자심(子深)이요, 호는 복와(復窩)니 학문과 옳은 행동으로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겼다. 안으로는 백형(伯兄) 국담공(菊潭公)과 사이좋은 형제로 창수(唱酬:서로서로 화답함)하여 남이 미처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정입재(鄭立齋) 종노(宗魯)와 최두와(崔蠹窩) 흥벽(興璧) 등 여러 선비와 도의로 교유했다.

●정내의(鄭乃毅)

鄭乃毅字士相號盤谷孝子堡長子孝誠天植字幼善事父母順志無違既長孺染庭訓飭躬劬書文學夙就累捷鄉解及遭艱持制甚嚴日必展墓服闋不復應舉杜門求志造詣益深

정내의(鄭乃毅)의 자는 사상(士相)이요, 호는 반곡(盤谷)이니 효자 보(堡)의 장자이다. 하늘이 낸 효성이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니 뜻에 순응하여 어김이 없었고 이미 자라서는 가정의 교훈에 젖어 몸소 삼가고 글에 힘써 문학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여러 번 향시에 합격했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절차를 지킴이 매우 엄하여 날마다 성묘하고 상복을 입기를 끝내자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고 두문불출하여 뜻만 구하니 조예가 더욱 깊었다.

●하치중(河致中)

河致中字乃潤號舍淵自灑玄孫家貧躬耕讀書事父母極其誠爲文展紙不塗改一字晚寓於方丈山中著書自娛

하치중(河致中)의 자는 내윤(乃潤)이요, 호는 사연(舍淵)이니 자호(自灑)의 현손이다. 집이 가난하여 몸소 밭 갈고 글을 읽었으며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지극히 하였고, 글을 지을 때에는 종이를 펼치면 한 글자도 고치지 아니하였다. 만년에는 방장산(方丈山) 속에 기거하면서 글짓기로 스스로 즐겼다.

● 정지형(鄭志衡)

鄭志衡字玉汝號隱窩石亭弘祚后器局宏深姿性敦厚九歲丁外艱居喪一如成人行己一遵繩墨處世有模範爲慶林宗川兩院院長爲一時所推許

정지형(鄭志衡)의 자는 옥여(玉汝)요, 호는 은와(隱窩)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후손이다. 기량이 넓고 깊고 성품이 둔후하였다. 9세에 부친상을 당하니 상을 치름에 한결같이 어른과 같이 하였고 몸소 행함에 하나같이 법도를 따랐으며 처세에 규범이 있었다. 경림(慶林)과 종천(宗川) 두 서원의 원장이 되어 일시에 추허(推許)하는 바가 되었다.

● 허담(許檀)

許檀字士擎號長巖副摠管東豈后七八歲已能服膺庭訓未冠以詞翰有聲場屋 正廟戊午中進士遂絕意進取留心性理書手寫人心道心圖以寓常目及居父母之憂一遵古制弟妹之寡者必加憐恤宗族咸稱其仁

허담(許檀)의 자는 사경(士擎)이요, 호는 장암(長巖)이니 부총관(副摠管) 허동립(許東豈)의 후손이다. 7~8세에 이미 집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고 약관(弱冠)이 되기 전에 시와 문장으로 과거장에 명성이 있었다. 정조 무오년(1778)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진취(進取)에는 뜻을 끊고 마음을 성리학에 두었으며 손수 「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를 그려서 항상 눈에 보이게 하였으며 부모의 상에는 한결같이 옛법을 지켰다. 그리고 동생과 누이의 궁핍함에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규율함을 더하니 종족(宗族)들이 모두 그어진 것을 칭찬하였다.

● 정국채(鄭國采)

鄭國采字士觀號含忍齋慕濂齋道東之孫師事宋性潭文學德行為士友推重從鏡湖李公宜朝遊參訂其所輯家禮增解及歿道內章甫議入祠而未果

정국채(鄭國采)의 자는 사관(士觀)이요, 호는 함인재(含忍齋)니 모림재(慕濂齋) 도동(道東)의 손자다. 송성담(宋性潭)에게 사사하여 문학과 덕행으로 사우들에게 추중(推重)되었다.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를 따라 놓고 그가 엮은 바의 「가례증해(家禮增解)」를 바로잡았다. 사후에 도내의 유생들이 입사(入祠)를 의논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하익범(河益範)

河益範字敍中號士農窩孝子鎮兌之子性剛毅愷悌早廢舉業師事宋性潭又從鏡湖李公遊篤學力行明於禮學見重於師門有潭上問答大學講義及有集

하익범(河益範)의 자는 서중(敍中)이요, 호는 사농와(士農窩)이니 효자 진태(鎮兌)의 아들이다. 성품이 굳세고 씩씩하고 화락(和樂)하였으며 일찍 과거를 그만두고 송성담(宋性潭)에게 사사하면서 또 경호(鏡湖) 이공(李公)을 따라 놀았다. 돈독하게 배우고 힘써 행했으며 예학에 밝아서 사문(師門)에서 추중(推重)되었고 『담상문답(潭上問答)』과 『대학강의(大學講義)』 및 문집이 있다.

● 정승의(鄭承毅)

鄭承毅字仲烈執義大榮后姿稟英粹發憤爲學與兄弟謁金溪湖溪湖爲詩以稱美之學問甚博踐履篤實自天人性命以至河洛八卦五行皆著說以明之以子侍從恩爲同中樞

정승의(鄭承毅)의 자는 중열(仲烈)이요, 집의(執義) 정대영(鄭大榮)의 후예다. 품성이 영수(英粹)하고 발분하여 학문을 하였다. 형제가 김미호(金溪湖)를 뵈니 미호(溪湖)가 시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학문이 매우 해박하고 실천이 독실하였으며 천인(天人)의 성명(性命)으로부터 하락(河洛) 팔괘(八卦)와 오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설(著說)하여 밝혔다. 아들이 시종(侍從)이었기 때문에 은전(恩典)으로 동중추(同中樞)가 되었다.

● 하병일(河秉一)

河秉一字時瑞號煙艇齋雙負軒震龍后性潭宋文敬公門人才氣卓越潛心學問無意舉業養眞林樊有遺集

하병일(河秉一)의 자는 시서(時瑞)요, 호는 연정재(煙艇齋)이니 쌍부헌(雙負軒) 하진용(河震龍)의 후예다. 성담(性潭) 송문경공(宋文敬公)의 문인이었더니 재기가 탁월하고 학문에 침잠했으나 과거엔 뜻이 없어 초야에서 참된 기운을 길렀다. 유집이 있다.

● 조양우(曹養愚)

曹養愚字仁仲號槐廬春睡堂滷姪早孤力學以有行稱有遺集所編禮孝集成藏于家

조양우(曹養愚)의 자는 인중이요, 호는 괴려(槐廬)니 조옹(曹滷) 춘수당(春睡堂)의 조카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힘써 배워서 유행(儒行)으로 일컬었다. 문집이 있고 그가 엮은 『예효집성(禮孝集成)』은 집에 보관되어 있다.

● 이국병(李國炳)

李國炳字致升愚拙再勳子早事學業累舉不中嘗有詩曰荒山半畝屋賊世一書生取曾子曰三省之義扁其楣曰省軒終日衣冠靜坐有若神明之儼臨

이국병(李國炳)의 자는 치승(致升)이니 우졸(愚拙) 이재훈(李再勳)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과거에 힘써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황산(荒山)에 반무(半畝)의 집에 태평한 세상에 한 사람 서생이 있네.”라 하고 증자(曾子)의 일일삼성(一日三省)의 뜻을 취하여 그 문楣(門楣)에 편액을 ‘성헌(省軒)’이라 일렀다. 종일토록 의관을 하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신명이 엄숙하게 임한 것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

● 허술(許述)

許述字君善副摠管東笠后姿稟魁偉德器凝重受業于鄭立齋之門得聞爲己之學揭太極聖學圖於左右朝夕觀省

허술(許述)의 자는 군선(君善)이니, 부총관(副摠管) 허동립(許東笠)의 후예이다. 성품이 아름답고 덕기(德器)가 응중(凝重)하였다. 정립재(鄭立齋)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위

기(爲己)의 학문을 얻어 들었었으며 ‘태극성학도(太極聖學圖)’를 좌우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살폈다.

● 한식(韓弼)

韓弼字聖彬號龍沙受業于金退漁鎮商之門篤行孝友專務實踐爲同門推重築養正齋潛心力學蓋取蒙養作聖之義也壽資僉中樞有遺集

한식(韓弼)의 자는 성빈(聖彬)이요, 호는 용사(龍沙)니 김퇴어(金退漁) 진상(鎭商)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돈독한 행실에 효우(孝友)스리워졌고 오로지 실천을 힘써서 동문에서 추중(推重)되었다. 양정재(養正齋)를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힘써 배우니 대개 어린이를 길러 성인(聖人)으로 만든 뜻을 취한 것이다. 수자(壽資)로 첨중추(僉中樞)가 되었고 문집이 있다.

● 유당(柳塘)

柳塘字潛可文化人左議政曼殊后天姿聰敏文藝夙就十二歲通四書禮記十八九通性理之學與河豫菴友賢爲道義之交就訂中庸性命圖年三十三易卒時人稱小顏子亡矣大覺宗川院儒相繼有俎豆之議而未果焉

유당(柳塘)의 자는 잠가(潛可)요, 문화인이니 좌의정 만수(曼殊)의 후예다. 자질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문예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12세에 사서와 예기를 통달하였고 18~9세에 성리의 학문을 통달하였다. 하예암(河豫菴) 우현(友賢)과 도의로 사귀었고 「중용성명도(中庸性命圖)」를 정정(訂正) 했고 33세에 세상을 마치니 당시 사람들이 “작은 안자(顏子)가 죽었다.”라고 일컬었다. 대각(大覺)과 종천서원(宗川書院) 선비들이 향사(享祀) 의논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성한주(成翰周)

成翰周字禎老號琴湖共衾堂東一孫也氣宇溫雅自守堅介築精舍于西城山中爲藏修之所來學者甚衆焉

성한주(成翰周)의 자는 정로(禎老)요, 호는 금호(琴湖)니 공금당(共衾堂) 동일(東一)

의 손자다. 성품이 온아하고 스스로 굳세고 깨끗함을 지켰다. 정사를 성 서쪽 산중에 세우고 장수(藏修)의 장소로 삼으니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다.

● 정빈의(鄭鎭毅)

鄭鎭毅字克明號無號翁農圃忠毅公后事親孝奉兄友伯氏間翁在安州任所時猝以風痺症數月苦劇登山致禱百日伯氏病少愈謝官歸家人皆感歎晚成文學爲世所重

정빈의(鄭鎭毅)의 자는 극명(克明)이요, 호는 무호옹(無號翁)이니 농포 충의공(農圃忠毅公)의 후예이다. 부모를 섬김에 효성스럽고 형을 우애로 받들었다. 큰형 한옹(間翁)이 안주(安州)의 임지에 있을 때에 갑자기 중풍 때문에 몇 달 고통이 심했더니 산에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올려 백씨의 병이 조금 나왔다. 벼슬을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으며 늦게야 문학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바가 있었다.

● 이협(李峽)

李峽字允伯號醒菴誠齋禮勛后好讀書不營產業屢捷鄉解竟不得志所著有理說要筭固窮錄

이협(李峽)의 자는 윤백(允伯)이요, 호는 성암(醒菴)이니 성재(誠齋) 이예훈(李禮勛)의 후예다. 독서를 좋아하고 살림을 도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술한 『성설요차(理說要筭) 고궁록(固窮錄)』이 있다.

● 하진민(河鎭敏)

河鎭敏字子亨號遯窩進士達漢后鄭立齋門人以儒行稱于世有遺集晚移居金海(詳見金陵人物誌)

하진민(河鎭敏)의 자는 자형(子亨)이요, 호는 둔와(遯窩)니 진사 하달한(河達漢)의 후예다. 정입재(鄭立齋)의 문인이며 유행(儒行)으로 칭송받았다. 문집이 있고 만년에 김해(金海)로 이주했다. (자세한 것은 『금릉인물지(金陵人物誌)』에 보인다)

● 하진현(河晉賢)

河晉賢字師仲號容窩涵窩以泰之子早治經累舉東堂赴試於京當路者要之以賂辭之以父在子不得專則以書稟於庭涵窩移書誚責曰士之仕也本以事君今汝欲始仕欺君乎聞命即日下來不復應舉遂大肆力於文學儼然爲一方師表有遺集

하진현(河晉賢)의 자는 사중(師仲)이요, 호는 용와(容窩)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경전을 공부하여 여러 번 향시(鄉試)에 응시하여 과거에 응시했는데 담당자가 뇌물을 요구하므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식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즉시 편지로 고하니 함와가 편지로 매우 꾸짖기를 “선비가 벼슬을 하려는 것은 본래 임금을 섬기려는 것이거늘 지금 너는 지금 벼슬을 하고자 하면서 임금을 속이려는 하는 것이냐?” 라고 하였다. 명을 듣는 그날로 돌아와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드디어 크게 학문에만 힘을 기우려 우뚝한 지역의 스승이 되었다. 유집이 있다.

● 이규일(李奎一)

李奎一字汝芳號雲湖天姿超倫專精學問嘗著人道心五皇極說不專務於詞章而有扶世教之意

이규일(李奎一)의 자는 여방(汝芳)이요, 호는 운호(雲湖)다. 자질이 초윤(超倫)하고 학문에만 오로지 정진하였으며 일찍이 『인도심설오황극설(人道心說五皇極說)』을 저술하였고 오직 사장(詞章)에만 힘쓰지 아니하였으니 세상 교화에 뜻을 두었던 것이다.

● 정광의(鄭光毅)

鄭光毅字遠卿號默齋東湖相詹孫中生員以泮薦拜景陵參奉嘗就學於沂川洪文簡公命夏之門勵志刻苦文行德望傑然爲南服之望

정광의(鄭光毅)의 자는 원경(遠卿)이요, 호는 묵재(默齋)니 동호 상침(東湖相詹)의 손자다.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추천으로 경릉참봉(景陵參奉)을 받았다. 일찍이 기천(沂川) 홍문간공(洪文簡公) 명하(命夏)의 문하에 나아가 배우고 뜻을 가다듬는 노력으로 학문과 덕망이 뛰어났으므로 남쪽지방에 명망이 있었다.

● 남찬(南璨)

南璨字光彥號梅谷泰亨后金霽山聖鐸門人也志氣倜儻造詣純實霽山翁有詩云美質宜追琢遺經可繹思願言同令弟趨正莫他之

남찬(南璨)의 자는 광언(光彥)이요, 호는 매곡(梅谷)이요, 남태형(南泰亨)의 후예며 김제산(金霽山) 성탁(聖鐸)의 문인이다. 지기(志氣)가 빼어나고 조예가 순실(純實)하니 제산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아름다운 바탕에 올바르게 연마하니 유경(遺經)을 풀어서 생각할 만 하리로다. 원하노니 영제(令弟)와 같이하여 바른 길을 따라가서 다른 길 가지 말라.”라 하였다.

● 한계노(韓啓魯)

韓啓魯字能一號歲寒亭柳塢箕錫曾孫文章行誼爲世所推所著有敗鼓皮五卷頭流誌二卷嘗著霽月孤雲詩膾炙一時人稱霽孤翁又著首尾吟百餘篇人稱邵康節

한계노(韓啓魯)의 자는 능일(能一)이요, 호는 세한정(歲寒亭)이니 유오(柳塢) 한기석(韓箕錫)의 증손이다. 문장과 바른 행실로 세상에서 추앙하는 바가 되었고, 저술한 것으로는 『패고피(敗鼓皮)』 5권과 『두류지(頭流誌)』 2권이 있다. 일찍이 ‘제월고운(霽月孤雲)’이란 시를 지어 그 당시 회자되니 사람들이 제고옹(霽孤翁)이라 일렀으며 또 ‘수미음(首尾吟)’ 백여 편을 읊으니 사람들이 소강절(邵康節)이라 일컬었다.

● 허주(許轅)

許轅字汝集副摠管東岏后受業於鄭丈巖濫門以文學行誼爲士友推重疏請尤春兩賢從祀文廟

허주(許轅)의 자는 여집(汝集)이니 부총관 동림(東岏)의 후손이다. 정장암(鄭丈巖) 호문(濫門)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학문과 덕행으로 사우들에게 추앙되었고 소를 올려 우암과 동춘 양현(兩賢)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 유지현(柳之賢)

柳之賢字希夫號明湖堂松谷世彰后遊學宋性潭門論辨疑禮多所發明與鄭含忍齋國采河士農窩益範友善有遺集

유지현(柳之賢)의 자는 희부(希夫)요, 호는 명호당(明湖堂)이니 송곡(松谷) 유세창(柳世彰)의 후손이다. 송성담(宋性潭)의 문하에 유학하여 예에 대해 의심되는 점을 논변하여 분명히 밝힌 바가 많았다. 그리고 정함인재(鄭含忍齋) 국채(國采)와 하사농와(河士農窩) 익범(益範)과 벗으로 잘 지냈고 유집이 있다.

● 하정범(河鼎範)

河鼎範字鼎卿號恨是堂生有雋才博通經史性倜儻寧蘊而不售不欲自眩而求知

하정범(河鼎範)의 자는 정경(鼎卿)이요, 호는 한시당(恨是堂)이다. 나면서부터 뛰어난 재주가 있어 경사에 박통하더니 성품은 뜻이 높고 기개가 컸다. 차라리 쌓아 들지언정 남에게 팔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자랑하여 알아주기를 구하고자 아니하였다.

● 조용순(曹龍珣)

曹龍珣字乃玉縣監龍玩弟也姿稟峻正氣宇嚴重讀書躬行以先賢自期尤篤於孝友哲宗甲寅贈持平

조용순(曹龍珣)의 자는 내옥(乃玉)이니, 현감 조용완(曹龍玩)의 아우다. 품성이 준정(峻正)하고 기상이 엄중하며 글 읽고 행동함에 선현으로써 스스로 기약하였고 효우에 더욱 돈독하였다. 철종 갑인년(철종 5, 1854)에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 하경현(河景賢)

河景賢字孺仲號顧齋涵窩以泰之第二子早襲庭訓平居未嘗解衣盤坐遊學鄭立齋之門從事性理之學嘗讀書于愚山偶染疫立齋日再診視至則必斂衣端坐一日于來視公曰今適汗乞無入遂開戶視之汗流遍身而整飭官衣如常時立齋歎曰山海敬義之詮於君益驗有遺集

하경현(河景賢)의 자는 유중(孺仲)이요, 호는 고재(顧齋)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둘째 아들이다. 일찍부터 집안 가르침을 이어받고 평소에도 옷을 끌거나 퍼져 앉지를 아니하였다. 정입재(鄭立齋)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일찍이 우산(愚山)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역병(疫病)에 걸리었다. 입재가 날마다 두 번씩 병을 물었는데,

입재가 이르면 반드시 옷을 여미고 단정히 앉았다. 어느 날에 또 찾아오니 공이 이르기를 “지금 마침 땀을 내고 있으니 빌건대 들어오지 마소서”라 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땀이 흘러 몸이 흠뻑 젖었는데도 의관을 정제한 것이 평소와 같았다. 입재가 감탄하여 이르기를 “남명 선생의 경의(敬義)에 대한 가르침이 그대에게서 더욱 징험된다.”라 하였다. 유집이 있다.

● 정지탁(鄭志倬)

鄭志倬字章彥號虛齋石亭弘祚后志氣卓犖文藝夙就遊於鄭立齋之門交遊蓋是一代名士

정지탁(鄭志倬)의 자는 장언(章彥)이요, 호는 허재(虛齋)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후손이다. 기운이 매우 뛰어나고 문예가 일찍 성취되었다. 정입재(鄭立齋)의 문하에서 공부했는데 교류하는 이가 대개 당대의 명사였다.

● 하진달(河鎭達)

河鎭達字英瑞號櫟軒生員洺之玄孫器局嚴正素性孝友劬經讀禮訓誨後進嘗收輯先世遺文成追慕錄四冊又有遺集

하진달(河鎭達)의 자는 영서(英瑞)요, 호는 역헌(櫟軒)이니 생원 명(洺)의 현손이다. 기량이 엄정하고 품성이 효우스러웠으며 경전에 힘을 쏟고 예서(禮書)를 읽었다. 후진을 가르쳤고 일찍이 선대의 유문(遺文)을 거두어 엮어서 『추모록(追慕錄)』 4권을 편찬했고 문집이 있다.

● 하대현(河大賢)

河大賢字慎汝號士窩涵窩以泰第五子也士窩性嚴峻自幼濡染耳目德器如成人稍長力學攻文辭好讀洛閩書循環熟復如誦己言贅謁柳定齋致明定齋深加獎許

하대현(河大賢)의 자는 신여(慎汝)요, 호는 사와(士窩)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다섯째 아들이다. 사와(士窩)의 성품이 엄준하였으매 어릴 때부터 이목(耳目)에 유염(濡染)되어 덕성이 성인과 같았으며 차차 자람에 힘써 문사(文辭)를 배워서 다듬었고 정

자, 주자의 글 읽기를 좋아하여 열심히 반복하여 자신의 말을 외우는 것과 같이하였다. 유정재(柳定齋) 치명(致明)을 예물을 갖추어 뵈니 유치명이 깊이 장허(獎許:칭찬함)를 더했다.

● 이정모(李廷模)

李廷模字贊卿載寧人龔啞軒國禎子天畀剛明操守牢確早遊柳定齋門學有淵源凝窩李尙書源祚題其軒曰輶齋

이정모(李廷模)의 자는 찬경(贊卿)이요, 재령인이며 농아천(龔啞軒) 이국정(李國禎)의 아들이다. 하늘이 준 성품이 강직하며 지조가 확고하였다. 일찍이 유정재(柳定齋)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니 학문에 연원이 있었고 응와(凝窩) 이상서(李尙書) 원조(源祚)가 집에 편액을 썼으니 ‘주화(輶齋)’라고 일렀다.

● 정산의(鄭山毅)

鄭山毅字聖玉號明逸明菴栳曾孫性度寬夷志節清高喜讀紫陽書早辭場屋隱居自守世稱明翁肖孫以道臣啓蒙調用之命

정산의(鄭山毅)의 자는 성옥(聖玉)이요 호는 명일(明逸)이니 명암(明菴) 정식(鄭栳)의 증손이다. 성품과 도량이 관대하고 평평하고 지절이 청고하였다. 자양서(紫陽書:주자의 서) 읽기를 좋아하고 일찍이 과거를 사양하여 은거하며 스스로 지키니 세상에서는 명옹(明翁)을 닮은 손자라 일컬었다.

● 김휘운(金輝運)

金輝運字穉和號鵝湖文粹孫氣宇豪逸器量淵弘行誼敦厚博學善談論純廟乙丑增廣進士後隱居江湖不樂進取嘗增修龍奉面約案有遺稿刊行

김휘운(金輝運)의 자는 치화(穉和)요, 호는 아호(鵝湖)니 김문수(金文粹)의 손자다. 기상이 호탕하고 기량이 깊고 넓었으며 행동이 돈후하고 박학하여 담론하기를 좋아하였다. 순조 을축년(순조5, 1800)에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가 된 뒤 강호에 은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용봉면(龍奉面)의 약안(約案)을 고쳤

으며 유고(遺稿)가 있어 간행했다.

● 한광렬(韓光烈)

韓光烈字景晦龍沙斌子天姿穎悟克世家學性又至孝居喪廬墓終制

한광렬(韓光烈)의 자는 경晦(景晦)이니 용사(龍沙) 한식(韓斌)의 아들이다. 자질이 총명하고 대대로 가학을 이어 받았으며 성품이 또 지극히 효성스러워 상을 당함에 여묘로 절차를 마치었다.

● 허련(許煉)

許煉字百汝號林窩丈窩禪之子性好讀書絕意紛華監司申公錫祐設講會于本州請爲訓長平生以儉律己爲鄉里矜式有遺稿

허련(許煉)의 자는 백여(百汝)요, 호는 임와(林窩)니 장와(丈窩) 허담(許禪)의 아들이다. 성품이 글 읽기를 좋아하고 번거로운 곳에는 생각을 끊었다. 감사(監司) 신석우(申錫祐)가 강회(講會)를 우리 고을에 설치하고 훈장으로 삼았으며 평생토록 검약으로써 몸소 법도로 삼으니 고을에서 모범으로 삼았다. 유고(遺稿)가 있다.

● 김낙운(金樂運)

金樂運字叔幹號龍湖輝運之弟也有文學行誼所著有人事始終錄二卷

김낙운(金樂運)의 자는 숙간(叔幹)이요, 호는 용호(龍湖)니 휘운(輝運)의 아우다. 문학과 행의가 있었고 저술한 바로는 『인사시종록(人事始終錄)』 2권이 있다.

● 허계범(河啓範)

河啓範字洛卿松坡沅后也稟性寬和聰明強記文藝出人而無求售之意常以晚節自勵因號以晚翠士友之從遊講磨者甚衆而莫不許之以躬行君子嘗修續州誌未及脫稿

허계범(河啓範)의 자는 낙경(洛卿)이니 송과(松坡) 하원(河沅)의 후손이다. 품성이 관화하고 총명하면서 강기하여 문예(文藝)가 남보다 뛰어났으나 벼슬자리를 구할 뜻이 없었다. 만년까지 스스로를 가다듬어 만취(晩翠)를 호로 삼았다. 사우로써 교유하며 강마

(講磨)하는 자들이 심히 많았으며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고 몸소 군자로 행동했다. 일찍이 ‘속주지(續州誌)’를 만들었으나 탈고(脫稿)는 못했다.

● 하답(河翕)

河翕字君膺號浪隱天性溫雅專心講學博採廣搜輯朝野記聞一部藏于家

하답(河翕)의 字는 군옹(君膺)이요, 호는 낭은(浪隱)이다. 천성이 온아하고 강학에만 전심하였으며 널리 캐고 광범위하게 더듬어서 『조야기문(朝野記聞)』 1부를 엮어 집에 보관했다.

● 최중집(崔重集)

崔重集字孔學號古學菴全州人 純廟丙子中生員聰明絕人文章氣概卓冠一時所著書有春秋集義古學集數十卷而未能刊行人皆惜之

최중집(崔重集)의 자는 공학(孔學)이요, 호는 고헌암(古學菴)이며 전주인이다. 순조 병자년(순조16, 1816)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충명이 뛰어났고 문장과 기개가 당대에 탁월했다. 저술한 책으로는 『춘추집의(春秋執義)』와 『고학집(古學集)』 십 수권이 있었으나 간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허박(許鑄)

許鑄字聲仲號菊泉副摠管東嶺之后隱居志學以篤行君子稱焉有文集刊行

허박(許鑄)의 자는 성중이요, 호는 국천(菊泉)이니 부총관 동림(東嶺)의 후손이다. 은거하면서 학문에만 뜻을 두어 독행의 군자로 일컬어졌다.

● 이기일(李基一)

李基一字士英號默忍堂杏窩重榮後少儻有氣概慕古自信斥邪扶正名著一方承旨成大璣撰堂記以贊之

이기일(李基一)의 자는 사영이요, 호는 묵인당(默忍堂)이니 행와(杏窩) 이중영(李重榮)의 후손이다. 젊어서부터 대범하여 기개가 있었고 옛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스스로

믿었으며 사악함을 배척하고 유학을 바로 세움으로 이름이 당대에 드러났는데 승지(承旨) 성대진(成大璫)이 당기(堂記)를 지어 이를 기렸다.

● 정석운(鄭碩贊)

鄭碩贊字致敬號容軒石亭弘祚之后天稟剛毅器度雄偉事親志體備至於鄉黨事一以公正爲務人自敬服焉

정석운(鄭碩贊)의 자는 치경(致敬)이요, 호는 용헌(容軒)이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후손이다. 천품(天稟)이 강직하고 기량이 뛰어났으며 아버지를 섬김에는 마음과 몸을 갖추어 지극하였다. 그리고 고을의 일에는 한결같이 공정한 것으로써 힘쓰니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했다.

● 남경(南璟)

南璟字輝彥師事金霽山趨向早正文雅有望霽山以書勉之曰願益加勉力使遠大之期不至中道而廢則實區區之望也

남경(南璟)의 자는 휘언(輝彥)이니 김제산(金霽山)에게 사사하였다. 추향(趨向)이 일찍부터 바르고 문아(文雅)가 유망하니 김제산이 글로써 힘쓰도록 이끄기를 “원컨대 더욱 면력(勉力)을 더하여 원대한 기약을 하게 할 것이요. 중도에서 폐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곧 구구(區區)한 소망이다.” 라 하였다.

● 구석검(具錫儉)

具錫儉字釋約省齋檝后 正宗己卯中進士性嚴正舉止有度未嘗以利害累其心終日端坐人不敢干以非義事與鄉里子弟定禮俗十數條於冠婚喪葬習讀飲射皆有定例至今習而爲俗云

구석검(具錫儉)의 자는 치약(釋約)이요, 성재(省齋) 구반(具檝)의 후예다. 정종 기묘년(정조19, 1795)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성품이 엄정하고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으며 일찍이 이해(利害)로써 마음에 누가 되지 않게 하였고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감히 의가 아닌 일로써 간여하지 못하였다. 고을 사람들과 예속(禮俗) 10수조를

정하여 관혼상장(冠婚喪葬)에서 습독(習讀)하고 음(飲)과 사(射)에도 모두 규칙을 정했으니 지금까지 익히어 풍속이 되었다고 이른다.

● 신명구(申命耆)

申命耆字國叟號南溪平山人統制使瀏子中生進兩試早從錦水遊趨向得正文章神彩驚動一世而落拓不售挈家隱方丈山中以朋友詩酒爲物外之娛

신명구(申命耆)의 자는 국수(國叟)요, 호는 남계(南溪)며 평산인이니 통제사(統制使) 신유(申瀏)의 아들이다.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하고 일찍부터 금수(錦水)를 따라 놀아서 추향(趨向)이 발랐다. 문장과 풍채가 당대를 놀라게 했으나 불우한 환경으로 벼슬자리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가족을 이끌고 지리산에 숨어서 벗과 시와 술로 세상의 즐거움을 삼았다.

● 최상우(崔祥羽)

崔祥羽字景輝號恥菴教官奎煥子少謁鄭立齋得聞爲學大方廢舉業力讀洛閩諸書究索而體驗之雅恬退而嘗有憂世之志著便宜六策皆甄才爲治之要也有記文及遺集

최상우(崔祥羽)의 자는 경휘(景輝)요, 호는 치암(恥菴)이니 교관(教官) 최규환(崔奎煥)의 아들이다. 젊어서 정입재(鄭立齋)를 뵈고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다. 여기에서 과거를 포기하고 힘써 낙민(洛閩)의 여러 책을 읽고 탐색하고 체험하였다. 고아한 성품으로 고요히 물러나서 일찍이 세상을 근심하는 뜻을 가져 『편의육책(便宜六策)』을 저술하였으니 모두 인재 선발로 나라 다스리는 요책으로 삼았다. 기문(記文)과 문집이 있다.

● 구석채(具錫采)

具錫采字文瞻號秋峰省齋槃后姿稟甚高氣宇峻正善於解紛長於周窮鄉隣服其德義士友稱之以畏友焉

구석채(具錫采)의 자는 문침(文瞻)이요, 호는 추봉(秋峰)이니 성재(省齋) 구반(具槃)의 후예다. 품성이 매우 고상하고 기상이 높고 바르며 다투는 일을 해결하는데 능하였고 궁한 사람을 돌보기에 장점이 있었으니 고을과 이웃이 그의 덕의(德義)에 감복하였고 사

우들이 외우(畏友)라고 일컬었다.

● 허영(許郢)

許郢字楚客號文圃許鄴字楚三橘園存子也兄弟俱有文行傍通醫學當世有蒼扁之稱 허영(許郢)의 자는 초객(楚客)이요, 호는 문포(文圃)요, 허언(許鄴)의 자는 초삼(楚三)이니 굴원(橘園) 허존(許存)의 아들이다. 형제가 모두 문행(文行)이 있고 한편으로 의학에 능통하여 당대에 창편(蒼扁:중국의 명의)이라 칭했다.

● 이헌병(李憲秉)

李憲秉字致文縣監漢翼之孫也稟性峭直才器穎悟自孩提時遊戲不凡弱冠喜讀朱子書嘗愛宅西松月崖松之特立因以松崖爲號

이헌병(李憲秉)의 자는 치문(致文)이니 현감(縣監) 이미익(李漢翼)의 손자다. 품성이 곧고 재기가 총명하여 어린 시절부터 유희놀이를 해도 평범하지 않더니 약관의 나이에 주자서(朱子書) 읽기를 좋아 하였다. 일찍이 집의 서쪽 송월(松月) 언덕에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사랑하더니 인하여 송애(松崖)로 호를 삼았다.

● 하열(河悅)

河悅字習汝號慎默齋寧無成應圖后受學于鄭立齋之門行誼篤實孝友兼至居喪盡禮鄉黨稱善

하열(河悅)의 자는 습여(習汝)요, 호는 신묵재(慎默齋)니 영무성(寧無成) 하응도(河應圖)의 후손이다. 정입재(鄭立齋)의 문하에서 수학하더니 행의(行誼)가 독실하고 효우(孝友)가 지극하였으며 상을 당함에 예를 다하니 고을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 이지(李祉)

李祉字士綏奉事弘助曾孫幼而孝稱長志于學博通墳典反身體行南藥泉九萬繡衣南下聞名而見之大加差異歸則以聞遂有軍資監奉事之除

이지(李祉)의 자는 사수(士綏)요, 봉사(奉事) 이홍훈(李弘勛)의 증손이다. 어려서는 효

성으로 일컫더니 자라서는 학문에 뜻을 두어 고전에 널리 통하였고, 몸을 돌이켜 실천했다.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암행어사로 남쪽으로 내려 왔다가 이름을 듣고 불려서 보고는 크게 차이(差異)함을 더하였고 돌아가서는 조정에 알려져 드디어 군사감봉사(軍資監奉事)를 제수하였다.

● 구석주(具錫疇)

具錫疇字致誠進士錫儉弟早廢舉子業一以存心修己爲務嘗爲德院洞主與諸生修整院規

구석주(具錫疇)의 자는 치성(致誠)이니 진사(進士) 구석검(具錫儉)의 아우다. 일찍부터 과거를 접고 한결같이 마음을 간직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데 힘썼다. 일찍이 덕천서원 원장이 되어 여러 선비와 더불어 원규(院規)를 수정하였다.

● 하우현(河愚顯)

河愚顯字武源號晴溪漢周玄孫弱冠詞筆俱健以立揚顯親爲事累捷鄉解見士友爭趨誨曰是豈士類之趨尚也自後杜門不事舉業專心於性理之學以訓進後生爲己任

하우현(河愚顯)의 자는 무원(武源)이요, 호는 청계(晴溪)니 하한주(河漢周)의 현손이다. 약관의 나이에 문장이 건전했고 입신양명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여 여러 번 향시에 급제하였으나 사우(士友)들이 경쟁하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이르기를 “이 것이 어찌 선비들이 숭상할 일이겠는가?”라 하고 이 뒤로부터는 두문(杜門)하여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에만 전심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았다.

● 박지응(朴旨鷹)

朴旨鷹字雲路凌虛敏六世孫 正宗癸卯增廣進士性仁孝事親承順處宗敦睦文學富瞻不幸早世士友皆惜之

박지응(朴旨鷹)의 자는 운로(雲路)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6세손이다. 정종 계묘년(정종7, 1783)에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가 되었던니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아버지에게는 순종함으로 섬기었고 종친에게는 돈목(敦睦)으로 처신하였으며 학문도 너

넉했지만 불행이도 요절하니 선비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기었다.

● 정봉민(鄭鳳臣)

鄭鳳臣字仲儀號桐塢龍岡文益后姿性純潔儀表端莊待人必致惻悞處事不設畦畛尤篤於孝友鄉鄰爲之矜式

정봉민(鄭鳳臣)의 자는 중의(仲儀)요, 호는 동오(桐塢)니 용강(龍岡) 정문익(鄭文益)의 후손이다. 자질이 순결하고 거동이 단정하였으며 남을 대접할 때는 정성에 이르렀고 일을 처리 하는 데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효우에 돈독하니 고을과 이웃에 모범이 되었다.

● 이요묵(李堯默)

李堯默字克中誠齋禮助后有才藝能學問著心性理氣圖說不幸早世士友皆惜之有篁巖集二卷刊行于世

이요묵(李堯默)의 자는 극중(克中)이니 성재(誠齋) 이예훈(李禮助)의 후예다. 재예(才藝)가 있고 학문에 능하여 『심성이기도설(心性理氣圖說)』을 저술하였으나 불행이도 요절하니 사우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황암집(篁巖集)』 2권이 있어 세상에 간행되었다.

● 이정모(李正模)

李正模字洛休號梧陽省軒國昞之子與弟夢狂子秀模讀書小洞山房交相征邁有詩以伸志時進學之意兄則聰明强夔弟則卓犖有大志

이정모(李正模)의 자는 낙휴(洛休)요, 호는 오양(梧陽)이니 성현(省軒) 이국병(李國昞)의 아들이다. 아우 몽광자(夢狂子) 이수모(李秀模)와 소동산방(小洞山房)에서 글을 읽더니 서로 권장하며 매진함에 시로써 뜻을 펴고 때를 따라 진학(進學)할 뜻을 가지더니 형은 총명하면서 강기(强記)하였고 아우는 탁략(卓犖)하여 큰 뜻이 있었다.

● 이현만(李賢萬)

李賢萬字樂天號松齋正郎世屋后天姿魁梧德宇寬弘處家有大度愛人好施予士友多

推許之不幸早世人多惜之

이현만(李賢萬)의 자는 낙천(樂天)이요, 호는 송재(松齋)니 정랑(正郎) 이세후(李世后)의 후예이다. 자질이 뛰어나고 덕망이 넓고 너그러워 집에 있으면서 큰 도량이 있었고 남을 사랑하여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니 선비들이 많이 받들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요절하니 사람이 많이 애석하게 여겼다.

● 양역(梁嶧)

梁嶧號雲谷南原人大司諫思貴第三子 世廟己酉中司馬行延日鎮兵馬僉節制使溫良恭儉志邁行高中外推重自丹城移居晉州雲谷

양역(梁嶧)의 호는 운곡(雲谷)이요, 남원인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셋째 아들이다. 세종 기유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연일진 병마첨절제사(延日鎮 兵馬僉節制使)를 지냈다. 온량하고 공검(恭儉)하며 뜻이 뛰어나고 행실이 높아서 중외(中外)에서 추중되더니 단성(丹城)에서 진주(晉州) 운곡(雲谷)으로 옮겨 와서 살았다.

● 하공효(河公孝)

河公孝號台村晉陽人大司諫潔后性剛介清高自修壬燹後增修敎宮又與趙鳳岡謙修理德川書院

하공효(河公孝)의 호는 태촌(台村)이요, 진양인이니 대사간(大司諫) 하결(河潔)의 후손이다. 성품이 강개하고 청고(淸高)하여 스스로 수양했다. 임진왜란의 뒤에 향교를 증수(增修)하고 또 조봉강(趙鳳岡) 겸(謙)과 더불어 덕천서원(德川書院)을 수리하였다.

● 하준해(河遵海)

河遵海字伯達晉陽人 宣祖壬子登文科累歷淸顯階至通訓外補金井道察訪莅事嚴明吏民皆畏服時光海敦倫母后見廢公嘆息流涕遂投紱還鄉築室于月峯之下扁曰林月齋日訓迪子侄以經籍自娛

하준해(河遵海)의 자는 백규(伯達)요 진양인이다. 선조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여러번 청현(淸顯)을 역임하면서 품계가 통훈(通訓)에 이르렀다. 외직으로 금정도(金井道) 찰방

(察訪)에 임명되니 일 처리가 엄정공명 했으므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때마침 광해군(光海君)이 인륜을 무너뜨리어 모후(母后)가 유폐됨에 공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을 월봉(月峯) 아래에 세우고 편액을 임월재(林月齋)라 이르고 날마다 자질(子侄)을 교육하고 경적(經籍)을 스스로 즐겼다.

● 정유우(鄭有祐)

鄭有祐字吉叔海州人農圃孫受業於河謙齋之門文學行誼爲士友所推重不幸早歿謙齋致挽嗟惜焉以孫貴 贈左承旨

정유우(鄭有祐)의 자는 길숙(吉叔)이요, 해주인이니 농포(農圃)의 손자다.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아 학문과 행실로 선비들에게 추앙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겸재(謙齋)가 만시(挽詩)를 지어 슬피 탄식했다. 손자가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 손작(孫綽)

孫綽字裕卿號玩梅堂密陽人早年中司馬受學于河覺齋聞山海緒論從成浮查河滄洲鄭桐溪道義相磨

손작(孫綽)의 자는 유경(裕卿)이요, 호는 완매당(玩梅堂)이며 밀양인이다. 일찍이 사마(司馬)에 합격하고 학업을 하각재(河覺齋)에게서 배워 남명(南冥)선생의 서론(書論)을 들었으며 성부사(成浮查), 하창주(河滄洲), 정동계(鄭桐溪)를 따라 도의로 서로 사귀었다.

● 정재(鄭梓)

鄭梓字元初號迂叟海州人農圃文學曾孫文學瞻博累舉不中終老田園辛卯以子貴 贈大司憲

정재(鄭梓)의 자는 원초(元初)요, 호는 우수(迂叟)며 해주인이니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學)의 증손이다. 문학이 섭박(瞻博)하여 여러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전원에서 늙었다. 신묘년에 아들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사헌에 추증되었다.

● 성량(成亮)

成亮字明仲號牙山昌寧人參奉應坤子早受業於成浮查之門獲聞爲己之方以孝悌忠信敬義等說終身佩服庚午中進士行參禮察訪

성량(成亮)의 자는 명중(明仲)이요, 호는 아산(牙山)이며 창녕인이니 참봉(參奉) 성응곤(成應坤)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학업을 성부사(成浮查)의 문하에서 받고 위기(爲己)의 방법을 얻어 들어 효·제·충·신·경·의(孝·悌·忠·信·敬·意) 등의 설을 종신토록佩服(佩服)하였고 경오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예조찰방(參禮察訪)을 지냈다.

● 정장(鄭樟)

鄭樟字巨卿號一樹軒承旨有祐子文章行誼爲世推重晚寓丹城圓山後孫因居焉有文集行于世

정장(鄭樟)의 자는 거경(巨卿)이요, 호는 일수헌(一樹軒)이니 승지(承旨) 유우(鄭有祐)의 아들이다. 문장과 행실로 세상에 추앙되더니 늦게 단성(丹城) 원산(圓山)에 우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그곳에 살았다. 문집이 있어 간행되었다.

● 하해관(河海寬)

河海寬字漢卿台溪潛子聰明絕人孝友特至親喪廬墓三年號泣如一村氓皆感泣年十三以親命就學于眉叟許文正公既冠出入于河謙齋之門獲聞山海旨訣鄉中人欲以公孝友聞於朝公固止乃已有遺集

하해관(河海寬)의 자는 한경(漢卿)이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아들이다. 총명이 뛰어나고 효도와 우애가 특별하여 친상(親喪)에 여묘에서 3년을 지내면서 울음소리가 한결같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읍하였다. 나이 13세에 아버지의 명으로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에게 공부하였고 스물이 되어서는 하겸재(河謙齋)의 문하에 출입하여 남명의 지결(旨訣)을 얻어 들었다. 고을사람들이 공을 효우로써 조정에 알리고자 하니 공이 굳이 중지케 하여 그만두었다. 유집이 있다.

● 성치영(成治永)

成治永字煥然昌寧人川齋鎔子 顯宗壬寅中司馬承襲詩禮學有淵源曾遊泮宮才氣發越儕友皆莫及焉

성치영(成治永)의 자는 환연(煥然)이요, 창녕인인데 천재(川齋) 성순(成鎔)의 아들이다. 현종 임인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시례(詩禮)를 승습(承襲)하여 학문에 연원이 있었다. 일찍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재주가 뛰어나 제우들이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 하옥(河濠)

河濠號默齋晉陽人台溪之后文行夙著 英宗辛丑州牧要公修州誌未及脫稿有遺集

하옥(河濠)의 호는 묵재(默齋)요 진양인이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후손이다. 문행이 일찍부터 드러났더니 영종 신묘년에 목사가 공에게 주지(州誌) 엮을 것을 요청하였고 탈고는 못했다. 유집이 있다.

● 손여흠(孫汝欽)

孫汝欽字淑昇號三黎密陽人性行嚴整平生以興起斯文爲己任宗川院變時爲院任與河菊軒達聖盡力伸雪儒林快之

손여흠(孫汝欽)의 자는 숙승(淑昇)이요, 호는 삼려(三黎)니 밀양인이다. 품행이 엄정하고 평생토록 사문을 흥기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종천서원(宗川書院)에 변이 있었을 때에 원임(院任)이 되어 하국헌(河菊軒) 달성(達聖)과 더불어 힘을 다하여 신원설치(伸冤雪恥)하자 유림이 통쾌하게 여겼다.

● 이갑룡(李甲龍)

李甲龍字于鱗號南溪星山人參判芬國會孫天姿英毅德行俱備 英宗壬午登文科出宰旌義 正宗丁巳以掌令赴召蔡相國濟恭稱嶺南三士德行則李甲龍其人也文集

이갑룡(李甲龍)의 자는 우린(于鱗)이요, 호는 남계(南溪)며 성산인이니 참판(參判) 이분국(李芬國)의 증손이다. 자질이 영의(英毅)하고 덕행을 구비하더니 영조 임오년에 문과에 올라 외직으로 나가 군수가 되었다. 정종 정사년에 장령(掌令)이 되어 부름에 달려 갔더니 채상국(蔡相國) 제공(濟恭)이 “영남에 삼사(三士)”를 칭찬하면서 “덕행은 이갑룡

그 사람이다.”라 하였다. 문집이 있다.

● 하범운(河範運)

河範運字熙汝號竹塢台溪潛后柳江臯尋春門人常以闡明先蹟導率後生爲己任有文集

하범운(河範運)의 자는 희여(熙汝)요 호는 죽오(竹塢)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후손이다. 유강고(柳江臯) 심춘(尋春)의 문인으로써 일찍부터 선인들의 사적을 밝히고 후생을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문집이 있다.

● 허제(許濟)

許濟字海之號江齋陽川人湖隱鄴子承襲庭訓專心文學著理氣說不蹈前人成說以己見推明之有遺集

허제(許濟)의 자는 해지(海之)요 호는 강재(江齋)며 양천인이며 호은(湖隱) 허언(許鄴)의 아들이다. 가훈을 계승하여 문학에 힘쓰고 이기설을 저술하여 앞서 사람의 학설을 답습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로써 추구하여 밝혔다. 유집이 있다.

● 조준효(趙準孝)

趙準孝字聖源號棠窩咸安人大笑軒宗道后姿稟穎悟文詞瞻敏戊子文科至持平

조준효(趙準孝)의 자는 성원(聖源)이요, 호는 당와(棠窩)며 함안인이니 대소헌(大笑軒) 종도(趙宗道)의 후예다. 자질이 뛰어나고 문사(文詞)가 섬민(瞻敏) 하였으며 무자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 최봉대(崔鵬大)

崔鵬大字昌叔號花圃全州人山圃益大弟早喪怙恃兄弟征邁講究義理毫分縷析嘗於宗族立補宗契鄉舍建養士齋

최봉대(崔鵬大)의 자는 창숙(昌叔)이요, 호는 화포(花圃)며 전주인이니 산포(山圃) 최익대(崔益大)의 아우다. 일찍 부모를 잃고 형제가 힘써 매진하여 의리를 강구하여 터럭

만한 것이라도 누석(縷析:가늘게 쪼개어 나누는 것)을 나누었다. 일찍부터 집안에 보종계(補宗契)를 세우고 고향에 양사재(養士齋)를 세웠다.

● 하복원(河福源)

河福源字致介號睡庵雪臆澈后學襲家庭禮以律身敬以敦行筆法又楷正人多取寶

하복원(河福源)의 자는 치개(致介)요 호는 수암(睡庵)이니 설창(雪臆) 하철(河澈)의 후손이다. 학문을 가정에서 이어받아 예로써 몸을 지키고 경으로써 행실을 돈독하게 하였다. 필법 또한 해정(楷正)하여 사람들이 많이 보배롭게 취하였다.

● 정우현(鄭禹鉉)

鄭禹鉉字夏瑞號桐湖又號樵客烏川人圃隱先生后居桐谷有文望凡事繫衛道靡不用力謙齋集之刊行也多所宣力焉

정우현(鄭禹鉉)의 자는 하서(夏瑞)요, 호는 동호(桐湖)며 또 호를 초객(樵客)이라고 하였는데 오천인으로 포은(圃隱)선생의 후손이다. 동곡(桐谷)에 살면서, 문학과 명망이 있었고 모든 일에 있어 도를 지키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겸재집(謙齋集)』의 간행에 힘을 쓴 바가 많았다.

● 박공진(朴公鎭)

朴公鎭字周仲號二樂亭密陽人誠窩能煥孫 憲宗癸卯文科歷軍資監正保寧縣監稟性廉潔恤民奉公之外絕無私營遞任時空橐無資吏等有自納七十緡之事拜司藝不就簞瓢屢空晏如也有遺集

박공진(朴公鎭)의 자는 주중(周仲)이요, 호는 이요정(二樂亭)이며 밀양인이니 성와(誠窩) 박능환(朴能煥)의 손자다. 헌종 계묘년에 문과에 올라 군자감정(軍資監正)과 보령현감(保寧縣監)을 지냈다. 품성이 청렴결백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봉공하는 외에는 절대로 사사로운 경영이 없었으니 직책이 바뀔 때에는 텅텅 빈 전대에 노자가 없었다. 아전들이 자진하여 70궤미를 헌납한 일이 있었다. 사예(司藝)에 임명했으나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소쿠리와 표주박이 여러번 비어도 편안해 하였다. 유집이 있다.

● 최상운(崔祥雲)

崔祥雲字揚甫號守吾堂全州人恥庵祥羽弟遊鄭立齋柳江臯門平生用工最著力於大學於洛建書如誦己言凡先儒之褒闡宗林之重事多有規劃壽副護軍有遺集

최상운(崔祥雲)의 자는 양보(揚甫)요, 호는 수오당(守吾堂)이며 전주인이니 취암(恥庵) 최상우(崔祥羽)의 아우다. 정입재(鄭立齋), 유강고(柳江臯)의 문하에 공부했고 평생 『대학(大學)』에 힘썼으며 ‘낙건서(洛建書)’에 있어서는 외우기를 자신의 말과 같이 하였다. 많은 선유(先儒)의 포천(褒闡)과 종중과 사림의 중요한 일에 많은 기획(規劃)이 있었다. 장수하여 부호군(副護軍)이 되었고 유집이 있다.

● 하범대(河範大)

河範大字浩汝 憲宗丁酉登文科丙科時公尙未有室人益榮之歷成均典籍司憲府監察宗簿寺主簿己酉拜司憲府持平克承家訓不以進就爲榮

하범대(河範大)의 자는 호여(浩汝)니 현종 정유년에 문과 병과(丙科)에 올랐다. 이때에 공은 아직 부인을 두지 못했는데 더욱 영화롭게 성균전적(成均典籍),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역임하고 기유년에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받았다. 가훈을 잘 이어받아 진취(進就)를 영화로 삼지 아니하였다.

● 정근(鄭瑾)

鄭瑾字美甫號竹窩海州人忠毅公文孚后以文學行誼著時望疏請忠毅公不祧典而蒙允

정근(鄭瑾)의 자는 미보(美甫)요 호는 죽와(竹窩)이며 해주인이니 충의공(忠毅公) 정문부(鄭文孚)의 후손이다. 문학과 행실로써 당시 명망이 있었다. 소를 올려 충의공의 부조(不祧:영원히 제사하는 사당)의 은전을 청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 김양기(金養耆)

金養耆字順受號自醒蚤有才志受學家庭門路的然篤於內修不幸早沒人皆嗟惜有遺集

김양기(金養耆)의 자는 순수(順受)요 호는 자성(自醒)이다. 일찍부터 재주가 있어 가정에서 학업을 받으니 적연(的然)하였다. 내수(內修)에 돈독했으나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기었다. 유집이 있다.

● 성현룡(成見龍)

成見龍字景漢號退讓軒昌寧人浮查汝信后中進士以文學行治稱於時有自警詩

성현룡(成見龍)의 자는 경한(景漢)이요 호는 퇴양헌(退讓軒)이며 창녕인이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손이다. 진사에 합격하고 문학과 행동으로 당시에 일컬어졌으며 '자경시(自警詩)'가 있다.

● 최운(崔漣)

崔漣字汝善號止窩全州人進士祥甲子 憲廟庚子中生員受業於柳定齋少聰敏警拔用工於四子六經不得不措倡率里人倣退陶鄉約爲勸善懲惡又善於筆法

최운(崔漣)의 자는 여선(汝善)이요, 호는 지와(止窩)이며 전주인이니 진사 최상갑(崔祥甲)의 아들이다. 현종 경자년에 생원에 합격하였는데 학업을 유정재(柳定齋)에게서 받았다. 젊어서부터 총민하고 뛰어났다. 사자(四子:공·맹·정·주자)와 육경에 힘써서 두지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앞장서 이끌어서 퇴계 이황의 향약을 본떠서 권선징악토록 하였고 또 필법에도 능하였다.

● 최룡(崔瀧)

崔瀧字躍汝號霞叟漣弟柳定齋門人才思敏悟文識夙就少有四方之志屢中鄉解屢屈禮園乃浩然而歸謁柳先生於謫所歸而杜門求志扁其堂曰晚悟

최룡(崔瀧)의 자는 약여(躍如)요, 호는 하수(霞叟)며 최운(崔漣)의 아우다. 유정재(柳定齋)의 문인으로 재주와 사고가 민첩하고 문식(文識)이 숙취(夙就)하였다. 젊어서부터 사방(四方)의 뜻을 가지고 여러번 향시에 급제하고 여러번 대과에 실패했으나 곧 호연히 돌아왔다. 유선생을 적소에서 뵈고 돌아와서는 문을 닫고 뜻을 구하면서 그의 집에 편액을 '만오(晩悟)'라고 일렀다.

● 정세교(鄭世教)

鄭世教字舜文號雙洲海州人農圃文孚后洪梅山直弼門人文學行誼爲世推重有文集
정세교(鄭世教)의 자는 순문(舜文)이요, 호는 쌍주(雙洲)며 해주인이니 농포(農圃) 정
문부(鄭文孚)의 후손이다. 홍매산(洪梅山) 직필(直弼)의 문인으로 문학과 행실로 세상
에서 추중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 조용택(趙鏞宅)

趙鏞宅字應元號竹下咸安人大笑軒后隱居行誼甚有時望有妖賊幾輩托以遊覽潛圖
不軌要公共事公毅然折之即告于臬司已而諸賊皆伏誅 朝廷以公炳幾立功欲官之公
不聽即歸鄉

조용택(趙鏞宅)의 자는 응원(應元)이요, 호는 죽하(竹下)이며 함안인이니 대소헌(大
笑軒)의 후손이다. 은거하면서 행의(行誼)로 매우 우리름이 있더니 몇 사람의 요적(妖
賊)의 무리가 유람을 청탁하고 가만히 반역을 도모하고 공에게 공사(共事)를 요청하였
다. 이에 공은 의연히 거절하고 즉시 병사에게 고하였더니 모든 적이 형벌로 죽었다. 조
정에서는 공이 기미를 밝히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벼슬을 주고자 하였으나 공은 듣지 않
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 하치룡(河致龍)

河致龍字珠瑞號晚松學識瞻博人品魁梧有儒林重望與洛坡柳相國厚祚鄭顧軒來錫
交契甚厚多有書疏往復

하치룡(河致龍)의 자는 주서(珠瑞)요, 호는 만송(晚松)이다. 학식이 넓고 인품이 우뚝
하여 유림에 중망이 있었다. 또 낙과(洛坡) 유상국(柳相國) 후조(厚祚)와 정고헌(鄭顧軒)
내석(來錫)으로 더불어 교계(交契)가 매우 두터워서 많은 서신의 왕복이 있었다.

● 최태진(崔台鎭)

崔台鎭字應天號吾山全州人海亭秀岡后師事柳定齋得聞溪湖旨訣每四仲月設講會
歲以爲規所著有八經彙心性說東賢錄

최태진(崔台鎭)의 자는 응천(應天)이요, 호는 오산(吾山)이며 전주인이니 해정(海亭) 최수강(崔秀岡)의 후손이다. 유정재(柳定齋)에게 사사하여 계호(溪湖)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매년 4계절의 중월(仲月)이면 강회를 설치하여 해마다 규칙으로 삼았다. 그가 저술한 것으로 『팔경휘(八經彙) 심성설(心性說)』과 『동현록(東賢錄)』이 있다.

● 하홍운(河洪運)

河洪運字禹瑞號雙岡晉陽人涵窩以泰孫以博學善詩有重名於時

하홍운(河洪運)의 자는 우서(禹瑞)요, 호는 쌍강(雙岡)이며 진양인이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손자다. 박학으로 시를 잘하여 당시에 이름이 드높았다.

● 최식민(崔植民)

崔植民字舜皞號橘下全州人茅山琦弼后以文學行誼見重於士友有文集

최식민(崔植民)의 자는 순호(舜皞)요, 호는 귤하(橘下)며 전주인이니 모산(茅山) 최기필(崔琦弼)의 후손이다. 문학과 행의로 사우에게 중시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 하재문(河載文)

河載文字羲允號東寮晉陽人知命堂世應后十五當親喪一依禮法既長研究經史謁李寒洲得聞爲學之方又與朴晚醒許南黎趙月皐爲道義交有文集

하재문(河載文)의 자는 희운(羲允)이요, 호는 동寮(東寮)며 진양인이니 지명당(知命堂) 하세응(河世應)의 후손이다. 나이 15세에 친상(親喪)을 당했더니 한결같이 예법에 의지하였고 이미 성장하여서는 경사를 연구하였다. 이한주(李寒洲)를 뵈고 학문하는 방법을 얻어 듣고 또 박만성(朴晚醒), 허남려(許南黎), 조월고(趙月皐)로 더불어 도의로 사귀었으며 문집이 있다.

● 성익(成瀾)

成瀾字翰遠號松南昌寧人中進士遊許性齋門端恭有儀博學有文且以筆法著名

성익(成瀾)의 자는 한원(翰遠)이요, 호는 송남(松南)이며 창녕인이다. 진사에 합격하

고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단정하고 공손하여 의표가 있었고 박학으로 문장이 있었고 필법에도 저명하였다.

● 양식영(梁湜永)

梁湜永字淵老號竹坡南原人性至孝親病沐浴禱天屢獲感佑又才資穎敏自五六歲已能屬文從河月村趙月臯諸公講磨經義

양식영(梁湜永)의 자는 연로(淵老)요 호는 죽파(竹坡)이며 남원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병듦에 목욕하고 하늘에 빌어 여러번 감동시켜 도움을 얻었다. 재주가 영민하여 5, 6세부터 이미 작문에 능하였고 하월촌(河月村), 조월고(趙月臯) 제공을 따라 경의를 강마(講磨)하였다.

● 강구상(姜龜相)

姜龜相字可範號由偕晉陽人軒昂有氣槩時稱長者恨父孝未闡竭盡誠力至蒙旌表

강구상(姜龜相)의 자는 가범(可範)이요, 호는 유해(由偕)니 진양인이다. 사람됨이 현양(軒昂)하고 기개가 있어 당시에 장자(長者)로 일컬었으며 아버지와의 대한 효성을 두드러지게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힘써 성력을 다하니 정표(旌表)를 입기에 이르렀다.

● 하인수(河仁壽)

河仁壽字千之號梨谷月村達弘子稟賦純粹舉止端重孝友篤至學問深邃時儒欲釐正南冥先生學記及神明舍圖公條辨甚祥闡明先生之旨常住山天齋訓誨諸生所著有易說性理說(見前誌孝行篇)

하인수(河仁壽)의 자는 천지(千之)요, 호는 이곡(梨谷)이니 월촌(月村) 하달홍(河達弘)의 아들이다. 품성이 순수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며 효우가 지극히 돈독하고 학문이 깊었다. 당시에 선비들이 남명선생의 『학기(學記)』 및 「신명사도(神明舍圖)」를 바르게 고치려 하니 공이 조변(條辨)을 심히 자세하게 하여 선생의 본뜻을 밝혔다. 항상 산천재(山天齋)에 머물면서 제생(諸生)을 가르쳤고, 저술한 바로는 『역설(易說)』과 『성리설(性理說)』이 있다. (전지(前誌)의 효행편에 보인다.)

● 김구낙(金龜洛)

金龜洛字錫夏義城人 太上乙丑以明經科擢第權知承文院正字自守甚貞不喜干進資級終歲不一至權門人皆稱之

김구낙(金龜洛)의 자는 석하(錫夏)요 의성인이다. 태상(太上)의 을축년에 명경과(明經科)로 과거에 뽑혀 권지승문원정자(權知承文院正字)에 발탁되었으나 스스로 지키기를 매우 끈게 하여 자급(資給)이 진급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종신토록 한 번도 권문(權門)에 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칭찬하였다.

● 이돈필(李敦必)

李敦必字善長號運塢載寧人茅隱午后早業功令戰藝京師三進三屈公曰是無益於得也遂歸而婆娑林壑蔬糲不繼而晏如也

이돈필(李敦必)의 자는 선장(善長)이요, 호는 운오(運塢)며 재령인이니 모은(茅隱) 이오(李午)의 후손이다. 일찍 과거공부로 하여 재주를 서울에서 다투었으나 세 번 나아가서 세 번 실패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이는 얻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 하고 드디어 돌아와서 자연을 배회하면서 나물과 거친 쌀이 떨어져도 편안해 하였다.

● 정기영(鄭祺永)

鄭祺永字兌潤號義齋烏川人圃隱文忠公后天性至孝事親承順無違又以文行見重於士林

정기영(鄭祺永)의 자는 태운(兌潤)이요, 호는 의재(義齋)며 오천인이니 포은 문충공(圃隱 文忠公)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아버이를 섬김에 순종하여 여기는 일이 없었고 또 글과 행실로 사림에서 소중히 여기었다.

● 조용(曹鎔)

曹鎔字仲昭號惺溪昌寧人奇蘆沙門人天資忠厚早事學問誠敬之訓體認而服行之有文集

조용(曹鎔)의 자는 중소(仲昭)요 호는 성계(惺溪)며 창녕인이니 기노사(奇蘆沙)의 문

인이다. 자질이 충후(忠厚)하고 일찍부터 학문을 일삼아서 성경(誠敬)의 교훈을 체득하고 실천하였으며 문집이 있다.

● 성진태(成鎭泰)

成鎭泰字魯瞻號錦園昌寧人琴湖翰周子以明經累捷東堂竟屈南省人皆惜之手書七書藏于家

성진태(成鎭泰)의 자는 노침(魯瞻)이요, 호는 금원(錦園)이며 창녕인이니 금호(琴湖)성한주(成翰周)의 아들이다. 명경과(明經科)로 수차 초(初試)에 합격했으나 끝내 문과에 실패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으며 손수 사서삼경을 써서 집에 소장하였다.

● 강병주(姜柄周)

姜柄周字學叟號玉村晉陽人重隱錫佑孫受業於許性齋門固窮篤學不變操守有文集

강병주(姜柄周)의 자는 학수(學叟)요, 호는 옥촌(玉村)이며 진양인이니 중은(重隱)강석우(姜錫佑)의 손자다. 학업을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서 받아서 진실되게 궁구하고 독실하게 행하여 조행(操行)을 변하지 않고 지켰다. 문집이 있다.

● 정광룡(鄭光龍)

鄭光龍字大見號石桐海州人壬午進士姿稟峻整器宇軒昂風采照人如仙鶴文學夙就晚設講座于龍岩之章德齋遠近來學者甚衆

정광룡(鄭光龍)의 자는 대현(大見)이요, 호는 석동(石桐)이며 해주인이다. 임오년에 진사가 되었는데 품성이 준정하고 재주가 우뚝하며 풍채가 사람에게 신선 의학과 같이 비추고 문학을 일찍 이루었다. 만년에는 강좌(講座)를 용암(龍巖)의 장덕재(章德齋)에 설치하니 원근에서 와서 배우는 자가 매우 많았다.

● 김인락(金麟洛)

金麟洛字錫義號前川義城人幼聰慧長益豪逸不羈與朴晚醒金端碇許后山郭俛宇爲師友於斯文事多興起之功有文集

김인락(金麟洛)의 자는 석희(錫羲)요 호는 전천(前川)이며 의성인이다. 어려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자라서는 더욱 호방하여 작은 일에 구애치 않았다. 박만성(朴晩醒), 김단계(金端碇), 허후산(許后山), 곽면우(郭俛宇)로 더불어 사우(師友)로 삼았고 사문(斯文)의 여러 일을 일으킨 공이 많았으며 문집이 있다.

● 조성주(趙性宙)

趙性宙字季豪號月山咸安人稟質剛明儀采端潔如玉朗而鶴停精於功令得參兩解而竟屈於禮部時論惜之從伯公月臯公出入奇蘆沙之門得聞其眞詮有文集

조성주(趙性宙)의 자는 계호(季豪)요 호는 월산(月山)이며 함안인이다. 품성이 강명(剛明)하고 풍모가 단결(端潔)함이 옥과 같이 맑았고 학이 머문 것처럼 공령(功令)에 정진하였다. 두 번 향시에 참여했으나 끝내 예부(禮部)에서 실패하고 말았으니 시론(時論)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백형 월고(月臯)를 따라서 기노사(奇蘆沙)의 문하에 출입하여 참된 이치를 얻어 들었으며 문집이 있다.

● 하조헌(河祖憲)

河祖憲字仲希號月洲晉陽人襄靖公敬復后受業于族祖月村達弘之門文學行誼見重士林有遺集

하조헌(河祖憲)의 자는 중희(仲希)요 호는 월주(月洲)며 진양인이니 양정공(襄靖公) 하경복(河敬復)의 후손이다. 학업을 족조(族祖)인 월촌(月村) 하달홍(河達弘)의 문하에서 받아 문학과 바른 행동으로 사림에서 중히 여겼다. 유집(遺集)이 있다.

● 하응노(河應魯)

河應魯字學夫號尼谷晉陽人雪牕澈后剛明有異才弱冠從事公車負場屋望俄而旋棄之專心爲己之學尤於事親有赤誠親沒白燕 巢聖室人稱其孝感攸致有文集

하응노(河應魯)의 자는 학부(學夫)요 호는 이곡(尼谷)이며 진양인이니 설창 하철(雪牕 河澈)의 후손이다. 강직하고 총명하면서 기이한 재주가 있어 약관의 나이에 과거 공부에 종사하여 과거에 필요한 글을 잘 짓는다는 얼마 후에 돌아와 위기의 학문에 전심하

였고 더욱이 사친(事親)에 정성을 가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서 흰제비가 빈소에 집을 지으니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컬었다. 문집이 있다.

● 최동태(崔東泰)

崔東泰字景九號日溪全州人進士祥甲孫天資近道才思敏悟從族祖綱齋祥純習聞溪湖之旨就安仙坊山中讀書攻苦十數年楣揭滄洲榜語有天下之慮其自期遠大如此丙寅洋騷作斥洋私議數千言以警一世爲文典雅有則

최동태(崔東泰)의 자는 경구(景九)요 호는 일계(日溪)며 전주인이니 진사 상갑(祥甲)의 손자다. 자질이 도를 가까이하고 재주가 민첩하더니 족조(族祖) 경재(綱齋) 최상순(崔祥純)을 따라 계호(溪湖)의 참뜻을 익혀 듣고 안선방(安仙坊)에 나아가서 산중에서 글을 읽어 십 수 년 동안을 괴로움을 무릅쓰고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문지방에 창주(滄洲)라는 방(榜)을 걸고 말로써 천하를 염려하였으니 그가 스스로 기약의 원대함이 이와 같았다. 병인양요(丙寅洋擾)에 척양(斥洋)하는 여러 글을 지어 세상에 경고하였으며 문장을 만드는 데는 법도에 맞고 우아하여 법칙이 있었다.

● 강성관(姜聖綰)

姜聖綰字汝眞號後山晉陽人中進士以學問行誼見重於時晚年築後山亭爲藏修之所 有遺集

강성관(姜聖綰)의 자는 여진(汝眞)이요 호는 후산(後山)이며 진양인이다. 진사에 합격하고 학문과 행의로 당시에 존경을 받더니 만년에 후산정(後山亭)을 세워 공부하고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유집이 있다.

● 강성희(姜聖禧)

姜聖禧字子眞號竹南進士聖綰弟文行早著文科正言晚節見世道一變勇退邱園專心 講學有心經遺攝

강성희(姜聖禧)의 자는 자진(子眞)이요, 호는 죽남(竹南)이니 진사 강성관(姜聖綰)의 아우다. 문행(文行)이 일찍 드러나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었다가 만년에 세도

(世道)가 일변(一變)하는 것을 보고 구원(邱園)에 용퇴하여 강학에 전심하였다. 『심경유섭(心經遺攝)』이 있다.

● 이직좌(李稷佐)

李稷佐字仁源號晚翠載寧人防山東百孫才藝超倫學問夙就所著有歷代治安議

이직좌(李稷佐)의 자는 인원(仁源)이요, 호는 만취(晚翠)이며 재령인이니 방산(防山) 이동백(李東百)의 손자다.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을 일찍 이루었으며 저술한 것으로는 『역대치안의(歷代治安議)』가 있다.

● 이도묵(李道默)

李道默字治維號南川星山人梅月堂后儀表端正學問深邃於尊賢衛道有至誠語類重刊記言釐正道通祠創建之類多宣力焉有文集

이도묵(李道默)의 자는 치유(治維)요 호는 남천(南川)이며 성산인이니 매월당(梅月堂)의 후손이다. 풍모가 단정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존현(尊賢)과 위도(衛道)에 지극한 정성이 있었다. 또 어류(語類)의 간행과 기언(記言)을 바로잡음과 도통사(道統祠)의 창건에 많은 힘을 썼으며 문집이 있다.

● 이도추(李道樞)

李道樞字敬維號月淵南川道默弟自幼聰明及長文章簡潔詩尤平淡沖遠其風騷諸作膾炙人口有文集

이도추(李道樞)의 자는 경유(敬維)요, 호는 월연(月淵)이니 남천(南川) 이도묵(李道默)의 아우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더니 자람에 이르러서는 문장이 간결한데다가 시는 더욱 담백하고 충원(沖遠)하여 그의 시가와 문장의 모든 작품이 인구에 회자된다. 문집이 있다.

● 조원순(曹垣淳)

曹垣淳字衡七號復庵南冥先生后受學于許性齋李寒洲門獲聞主理之旨嘗註解南冥

先生神明舍圖銘明敬義克復之旨又勘訂先生文集及學記之訛誤者以闡先生之心法積勞未竣而沒有文集

조원순(曹垣淳)의 자는 형칠(衡七)이요 호는 복암(復庵)이니 남명선생(南冥先生)의 후손이다. 학업을 허성재(許性齋)와 이한주(李寒洲)의 문하에서 받아 주리(主理)의 요지를 얻어 들었다. 일찍이 남명선생의 ‘神明舍圖銘’을 주해하여 경의를 극복하는 취지를 밝히고 또 선생의 문집 및 학기에 와전되고 그릇된 것을 감정(勘訂)하여 선생의 심법(心法)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다가 쌓인 피로로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문집이 있다.

● 성경승(成慶升)

成慶升字賀會號柏圃昌寧人性本孝友奉偏母極其誠伯兄早沒撫養孤侄無間己出又以文學有重望於時龜岩先生文集之重刊也公參校正之任有遺集

성경승(成慶升)의 자는 하회(賀會)요 호는 백포(柏圃)며 창녕인이다. 성품이 본래부터 효우스러워 편모를 봉양함에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고 만형이 일찍 세상을 떠남에 외로운 조카를 기르는 데 자식과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 또 문학으로써 당시에 중망을 가졌더니 구암선생(龜岩先生) 문집의 간행할 때 공은 교정의 소임에 참여하였다. 유집이 있다.

● 하계효(河啓孝)

河啓孝字海朝號月湖晉陽人才性超凡自齠髻已知讀書勵行贅謁鄭顧軒來錫專用力於爲己之學又與許后山愈郭俛字鍾錫尹膠字靑夏時月相從講論名理

하계효(河啓孝)의 자는 해조(海朝)요 호는 월호(月湖)며 진양인이다. 재주와 성품이 범상한 이를 뛰어 넘어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독서할 줄 알아서 힘써 행하였고 고헌(顧軒) 정내석(鄭來錫)을 찾아 뵈고 오로지 위기의 학문에 힘을 썼다. 또 허후산(許后山) 유(愈)와 곽면우(郭俛宇) 종석(鍾錫)과 윤교우(尹膠宇) 주하(靑夏)로 더불어 때맞추어 달마다 서로 공유하며 명리를 강론하였다.

● 정봉기(鄭鳳基)

鄭鳳基字應先號守齋延日人玉樵喆基弟蓄德林下篤行孝悌嘗贄謁宋淵齋崔勉菴之門得聞爲學之要儀貌端潔志行無瑕當時諸老宿以清水芙蓉玉山明月八字比類以稱之有文集

정봉기(鄭鳳基)의 자는 응선(應先)이요, 호는 수재(守齋)며 연일인이니 옥초(玉樵) 정철기(鄭喆基)의 아우다. 덕을 임하(林下)에서 쌓고 행실을 효제에서 돈독하게 하더니 일찍 송연재(宋淵齋)와 최면암(崔勉菴)의 문하에 가서 배알하고 학문하는 요지를 얻어 들었다. 풍모가 깨끗했으며 지해(志行)에 티가 없으니 당시에 어른들이 “맑은 물에 부용(芙蓉)이요, 옥산(玉山)에 밝은 달”이라는 여덟 글자로 비유하여 칭찬하였다. 문집이 있다.

● 박규호(朴圭浩)

朴圭浩字瓚汝號沙村密陽人松月堂好元后 憲宗壬午進士才器通敏明於事物遊李寒洲門與許后山郭俛字爲肺肝交氣味以巴里長書囚係達城獄直言不屈絕粒數日自後杜門深坐講究經籍有文集

박규호(朴圭浩)의 자는 찬여(瓚汝)요 호는 사촌(沙村)이며 밀양인이니 송월당(宋月堂) 박호원(朴好元)의 후손이다. 현종 임오년에 진사에 올랐는데 재기가 통민(通敏)하여 사물에 밝았다. 이한주(李寒洲)의 문하에서 배워 허후산(許后山), 곽면우(郭俛宇)로 더불어 친한 친구로 알고 기미년에 파리장서 사건으로 대구 옥에 가두어졌으며 직언으로 굴하지 않고 수일 동안 양식을 끊었다. 이 뒤로부터 문을 닫고 깊이 앉아 경적을 강구하였으며 문집이 있다.

● 조호래(趙鎬來)

趙鎬來字泰兢號霞峯咸安人大笑軒后遊許性齋朴晚醒門聞學問眞訣所著詩文平淡有典則

조호래(趙鎬來)의 자는 태경(泰兢)이요 호는 하봉(霞峯)이며 함안인이니 대소헌(大笑軒)의 후손이다. 허성재(許性齋), 박만성(朴晚醒)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학문의 진결(眞訣)을 얻어듣고 저술한 시문은 담백하면서 법칙이 있었다.

● 하용제(河龍濟)

河龍濟字殷巨號約軒府使兼洛子師事郭俊宇有重望於時又筆法遒勁得之者以爲寶蓄

하용제(河龍濟)의 자는 은거(殷巨)요 호는 약현(約軒)이며 부사(府使) 하겸낙(河兼洛)의 아들이다. 곽면우(郭俊宇)에게 사사하여 그 당시에 중망이 있었고 또 필법이 주경(遒勁)하여 얻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아 쌓아두었다.

● 조영래(趙瓔來)

趙瓔來字泰見號荷洲霞峯鎬來弟少負奇氣習爲古文詞且於農兵商賦陰陽卜筮無不旁通

조영래(趙瓔來)의 자는 태현(泰見)이요, 호는 하주(荷洲)니 하봉(霞峯) 조호래(趙鎬來)의 아우다. 젊어서 기기(奇氣)를 젊어지고 옛 문사(文詞)를 익혔으며, 농(農)·병(兵)·상(商)·부(賦)·음양(陰陽)·복서(卜筮)에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 정면석(鄭冕錫)

鄭冕錫字聖益海州人農圃后 高宗庚寅文科承旨風神秀美文學瞻富鄉黨稱之

정면석(鄭冕錫)의 자는 성익(聖益)이요, 해주인이니 농포(農圃)의 후손이다. 고종 경인년에 문과에 올라 승지가 되었는데 풍신이 빼어나고 문장과 학식이 넉넉하니 고을에서 이를 칭찬하였다.

● 최동건(崔東建)

崔東建字汝寅號松臆全州人恥庵祥羽孫早遊張四未金西山門晚而韜晦不求人知與弟東翼墳箒相和人稱元方季方

최동건(崔東建)의 자은 여인(汝寅)이요, 호는 송창(松臆)이며 전주인이니 치암(恥庵) 최상우(崔祥羽)의 손자다. 일찍부터 장사미(張四未)와 김서산(金西山)의 문하에 놀았더니 늦게는 이름을 숨기고 남이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아우 동익(東翼)과 화목하게 서로 화답하니 사람들이 원방(元方)과 계방(季方)이라 일컬었다.

● 하경걸(河慶杰)

河慶杰字洛道號海山晉陽人竹軒惺后師事性齋許傳沈靜明敏辨析經義深造其妙著容思箴有文集

하경걸(河慶杰)의 자는 낙도(洛道)요 호는 해산(海山)이며 진양인이니 죽헌(竹軒) 하성(河惺)의 후손이다. 성재(性齋) 허전(許傳)에게 사사하였는데 침착 정밀하고 명민하여 경의(經義)를 분별하고 분석하여 깊이 그 오묘함을 이루었다. 『용사잠(容思箴)』을 저술하였고 문집이 있다.

● 최효근(崔孝根)

崔孝根字子極號洙亭朔寧人大司諫卜麟后幼而凝靜未嘗踰逸軌度性又至孝以善事父母稱於人嘗師事郭俛宇多蒙獎許

최효근(崔孝根)의 자는 자극(子極)이요, 호는 수정(洙亭)이며 삭령인이니 대사간 복린(卜麟)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침착하여 일찍이 궤도를 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성품이 또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부모를 잘 섬겼으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일찍부터 곽면우(郭俛宇)에게 사사하여 가르침과 칭찬을 많이 받았다.

● 문국현(文國鉉)

文國鉉字泰用號芳洲南平人師事許文憲口授一言曰功夫不在於難在於誠誠則不息公書諸紳凡其言行事爲一出於誠又出入金端礫之門有遺集

문국현의 자는 태용(泰用)이요, 호는 방주(芳洲)며 남평인이다. 허문헌(許文憲)에게 사사하였더니 한 말씀으로 가르쳐 이르기를 “공부는 어려움에 있지 않고 정성에 있는 것이다. 정성스러우면 쉬지 않게 된다.”라 했기에 공은 여러 벼슬아치에게 글을 주었으니 그의 말과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정성에서 나왔다. 또 김단계(金端礫)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유고가 있다.

● 정은교(鄭闇教)

鄭闇教字致學號竹醒農圃文孚后崔勉庵益鉉門人固窮好學篤行實踐痛恨早孤以庚

戊回甲追服三年又以 高宗昇遐後終身素服有遺稿

정은교(鄭闇敎)의 자는 치학(致學)이요, 호는 죽성(竹醒)이며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후손이다. 최면암(崔勉庵) 익현(益鉉)의 문인이더니 진실되고 궁구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돈독한 행실을 실천하였다. 일찍 고아 된 것을 통한하더니 경술년에 회갑으로 3년을 추복(追服)하였다. 또 고종이 승하한 뒤로는 종신토록 소복을 입었고 유고가 있다.

● 하경호(河兢鎬)

河兢鎬字勉之號篁溪晉陽人究經明禮務實篤倫以小學家禮爲律身準則有遺稿

하경호(河兢鎬)의 자는 면지(勉之)요 호는 황계(篁溪)며 진양인이다. 경전을 궁구하고 예를 밝히며 실천에 힘쓰고 인륜의 도리를 독실하게 하였다. 또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로 율신(律身)하는 준칙(準則)을 삼았으며 유고가 있다.

● 정윤(鄭潤)

鄭潤字亨重號楊湖晉陽人殷烈公后容貌清秀儀表軒昂登文科至承政院注書師事許性齋與韓侍郎耆東友善未幾值甲午換局薙髮令下翩然決歸及至屋社遂屏絕遊從以沒其身有文集

정윤(鄭潤)의 자는 형중(亨重)이요, 호는 양호(楊湖)며 진양인이니 은열공의 후손이다. 용모가 청수하고 풍채가 우뚝했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에 이르렀다. 허성재(許性齋)에게 사사하였고 한시랑(韓侍郎) 기동(耆東)과 좋은 친구로 사귀더니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갑오년의 환국(換局)을 만나 단발령이 내려짐에 급히 돌아오기로 결심하였다. 나라가 망함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외부와 교류를 완전히 끊고 그 몸을 마쳤다. 문집이 있다.

● 이택환(李宅煥)

李宅煥字亨洛號晦山文藝夙就以詞賦鳴於世登文科爲司諫院正言有文集

이택환(李宅煥)의 자는 형낙(亨洛)이요, 호는 회산(晦山)이다. 문예를 일찍부터 이루어서 사부(詞賦)로써 세상에 울리었고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이 되

있으며 문집이 있다.

● 이희석(李熙奭)

李熙奭字聖汝號晚悔早歲業詞賦有能名衿韻飄灑喜遊域內名山水遇會心處輒忘形
嘯詠州牧鄭顯奭大興學政迎公爲校長授學鄉里子弟以厲風化

이희석(李熙奭)의 자는 성여(聖汝)요, 호는 만회(晚悔)다. 일찍부터 사부(詞賦)를 힘써서 이름을 얻었으며 마음이 표쇄(飄灑)하였고 나라 안에 이름난 산수에 놀기를 좋아하여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문득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노래하였다. 목사 정현석(鄭顯奭)이 크게 학문을 일으키고 공을 맞이하여 향교의 장(長)으로 삼아 고을의 자제들을 수학하여 교화에 힘썼다.

● 이호근(李鎬根)

李鎬根字晦周號某堂星山人景梅軒道淵子官義禁府都事博學能文清修實踐瞭然於
義理邪正之分有文集

이호근(李鎬根)의 자는 회주(晦周)요 호는 모당(某堂)이며 성산인이니 경매헌(景梅軒) 이도연(李道淵)의 아들이다. 벼슬이 의금부 도사(義禁府 都事)에 이르렀더니 박학으로 문장에 능하였고 맑게 닦고 실천하여 의리와 사정(邪正)의 직분에 밝았으며 문집이 있다.

● 김종우(金宗宇)

金宗宇字周胥號正齋慶州人性聰明強記博涉群書又能於辭賦人多傳誦晚築書室於
柏谷以居焉

김종우(金宗宇)의 자는 주서(周胥)요, 호는 정재(正齋)며 경주인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강기(強記)하며 많은 책을 섭렵하였다. 또 사부(辭賦)에도 능하여 사람들이 많이 전송(傳誦)하였고 노년에 서실을 백곡(柏谷)에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 최윤모(崔允模)

崔允模字景孝號月僑全州人人品高潔文詞瞻敏早有聲稱不幸夭沒士友嗟惜有文集
최윤모(崔允模)의 자는 경효(景孝)요 호는 월교(月僑)며 전주인이다. 인품이 고결하
고 문사(文詞)가 섬민(瞻敏)하여 일찍부터 명성이 있더니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서 사우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문집이 있다.

● 신진구(申鎭求)

申鎭求字天若號滄南性沈靜簡雅自少不屑於名度專心攻學所著詩賦多膾炙人口
신진구(申鎭求)의 자는 천약(天若)이요 호는 창남(滄南)이다. 성품이 고요하고 맑았
고 간결 고아하였으며 젊어서부터 명성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학문에만 전심하였
다. 저술한 시부(詩賦)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었다.

● 정준교(鄭準教)

鄭準教字時若號晚山海州人跂齋光祐子孝友根天以早孤不得孝養爲平生至恨與弟
庠教日一展墓嘗侍兄病蕩滌之勞一不代人晚而好學扁其堂曰晚山有遺稿

정준교(鄭準教)의 자는 시약(時若)이요 호는 만산(晩山)이며 해주인이니 기재(跂齋)
정광우(鄭光祐)의 아들이다. 효성과 우애가 하늘에 뿌리 하였으되 일찍 고아가 되었으
므로 효도할 수가 없음을 평생토록 지극한 한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아우 상교(庠教)와
날마다 한 번씩 묘를 둘러보았고 일찍이 형이 병들어 모시는데 깨끗이 청소하는 수고로
움을 한 번도 남에게 대신시키지 아니하였다. 늙어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그의 집에 ‘만
산(晩山)’이라는 편액을 걸었으며 유고가 있다.

● 박홍화(朴洪和)

朴洪和字仁據號檉山密陽人松隱翊后資粹才俊學邃行潔不求名利放跡山水吟咏自
娛精於易學著河洛圖說有遺稿

박홍화(朴洪和)의 자는 인거(仁據)요 호는 운산(檉山)이며 밀양인이니 송은(松隱) 박
익(朴翊)의 후손이다. 자질이 순수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학문이 깊고 행실이 깨끗하였
다. 명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산수에 몸을 맡겨 음영으로 스스로 즐겼으며 역학에 정통하

여『하락도설(河洛圖說)』을 저술하였고 유고가 있다.

● 김택영(金宅永)

金宅永字膺圖號歇后義城人野隱弘鎭子早襲庭訓就正於許星齋門文學行誼爲士友倚重有遺集

김택영(金宅永)의 자는 응도(膺圖)요 호는 혈후(歇后)며 의성인이니 야은(野隱) 김홍진(金弘鎭)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가훈을 이어받고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 나아가 자신의 학문을 바로 잡았으며 하였으며 문학과 바른 행동으로 사우들이 의지하고 중히 여겼다. 유집(遺集)이 있다.

● 성률(成溍)

成溍字國彬號損庵昌寧人有精才於詩賦有能名窮而不改其志以闡先事扶儒學盡力焉有遺稿

성률(成溍)의 자는 국빈(國彬)이요, 호는 손암(損庵)이니 창녕인이다. 시부(詩賦)에 정밀한 재주로 이름이 있었으며 궁하여도 그 뜻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선대의 일들을 잘 드러내고 유학을 진흥하는 데에 힘을 다하였다. 유고가 있다.

● 하헌진(河憲鎭)

河憲鎭字孟汝號克齋晉陽人東寮載文子自幼動止有法言語安詳長老咸以遠大期之及長專心學問以克復爲用工之本有文集

하헌진(河憲鎭)의 자는 맹여(孟汝)요 호는 극재(克齋)며 진양인이니 동료(東寮) 하재문(河載文)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행동에 법도가 있고, 언어가 안상(安詳)하니 어른들이 모두 원대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학문에 전심하여 극기복례로써 용공(用工)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문집이 있다.

● 이상돈(李相敦)

李相敦字乃照號勿齋又號南叢載寧人受業於性齋許文憲公操守堅確論議峻整至決

是非辨義理雖衆論旁午而不少撓奪與郭俛字尹膠字曹復庵會青谷寺校正山海集新板之誤

이상돈(李相敦)의 자는 내조(乃照)요 호는 물재(勿齋) 또는 남총(南叢)이며 재령인이다. 학업을 성재(性齋) 허문헌공(許文獻公)에게서 받았는데 지조가 확고하고 논의가 준정(峻整)하여 시비를 결단하고 의리를 판단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중론이 번잡하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 하였다. 곽면우(郭俛字), 윤교우(尹膠字), 조복암(曹復庵)으로 더불어 청곡사(靑谷寺)에 모여서 『남명집(南冥集)』새 판본의 오류를 교정하였다.

● 김극영(金克永)

金克永字舜孚號梅西義城人天性好古眷眷於扶正學斥異教庚戌國變後入晚岩山中固窮讀書訓誨後進有文集

김극영(金克永)의 자는 순부(舜孚)요 호는 매서(梅西)니 의성인이다. 천성이 옛것을 좋아하고 정확을 붙들고 이교를 배척하는 데에 정성을 다했다. 경술국치 이후에 만암산(晚岩山)속에 들어가서 진실되게 연구하고 독서하면서 후진을 가르쳤다. 문집이 있다.

● 구연호(具然鎬)

具然鎬字奉圭號晚悔綾城人聰明邁倫儀度夙茂 高宗朝文科校理嘗謁許性齋崔勉庵郭俛字于京邸請質學問之方出處之義庚戌國變後不復巾櫛杜門自靖有文集

구연호(具然鎬)의 자는 봉규(奉圭)요 호는 만회(晚悔)며 능성인(綾城人)이다. 총명이 무리에서 뛰어나고 거동이 일찍부터 가멸쳤다. 고종 때에 문과에 올라 교리(校理)가 되었다. 일찍 허성재(許性齋) 최면암(崔勉庵) 곽면우(郭俛字)를 서울에서 뵈고 학문하는 방법과 출처의 뜻을 물었다. 경술년에 국변이 있는 뒤로는 다시 두건이나 빗질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걸고서 스스로 마음 편히 지냈다. 문집이 있다.

● 강찬규(姜纘奎)

姜纘奎字文允號晚愚晉陽人少有雋才業舉子文有能聲性又篤孝家甚貧而事父母能

給甘旨其歿也郭俛字以詩哭之曰氣概橫空遠風儀滿座薰

강찬규(姜纘奎)의 자는 문윤(文允)이요, 호는 만우(晩愚)니 진양인이다. 젊어서부터 영특했고 과거를 업으로 하여 문장에 능해 명성이 있었다. 천성이 또 돈독하고 효성스러웠으나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되 부모를 섬김에 능히 맛난 음식을 넉넉하게 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매 곽면우(郭俛宇)가 시를 짓기를 “기개는 먼 창공에 가로 놓였고 풍의(風儀)는 사방에서 향기롭네”라 하였다.

● 최제태(崔濟泰)

崔濟泰字而仰號松窩全州人橘下植民子早遊奇蘆沙門質以爲文訥以當辯有寬廣篤厚之風

최제태(崔濟泰)의 자는 이양(而仰)이요 호는 송와(松窩)며 전주인이니 귤하(橘下) 식민(植民)의 아들이다. 일찍 기노사(奇蘆沙)의 문하에 공부하여 문학하는 방법을 묻고 과묵함으로 분별을 지켰으며 너그럽고 넓고 독실하고 후덕한 풍모가 있었다.

● 하재성(河在聖)

河在聖字元可號省臯雙岡洪運子受業于許性齋門有儒行再從姪謙鎮嘗學于雙岡公或病不能授業則必使公代授之有遺稿

하재성(河在聖)의 자는 원가(元可)요 호는 성고(省臯)니, 쌍강(雙岡) 하홍운(河洪運)의 아들이다. 학업을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서 받아서 유행(儒行)이 있었다. 재종질 겸진(謙鎭)이 일찍 쌍강공(雙岡公)에게서 배우더니, 쌍강공이 뒤에 병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공으로 하여금 수업을 대신하게 하였다. 유고가 있다.

● 양주형(梁柱洞)

梁柱洞字文舉號聽溪南原人竹坡湜永子自幼聰警有譽於儕輩常棲息於茶亭齋手書賢聖圖銘朝夕觀省有文集

양주형(梁柱洞)의 자는 문거(文舉)요, 호는 청계(聽溪)며 남원인이니, 죽파(竹坡) 양식영(梁湜永)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또래에 칭찬이 있더니 항상 다정재(茶亭

齋)에서 서식하면서 손수 성현 도명(圖銘)을 써서 아침저녁으로 보고 살폈다. 문집이 있다.

● 정한균(鄭漢均)

鄭漢均字應遠號雲坡石亭弘祚后天性淳厚孝友篤至父病六載侍湯不少懈勤於學問兼妙書隸當時雲谷有八才士公其一也有遺稿

정한균(鄭漢均)의 자는 응원(應遠)이요 호는 운파(雲坡)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후손이다. 천성이 순후하고 효우가 돈독하고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이 들어 6년 동안 시탕하였으되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학문에 부지런하면서 겸하여 예서(隸書)를 잘 썼다. 당시에 운곡(雲谷)에 8명의 재사가 있었으니 공이 그 중에 한사람이다. 유고가 있다.

● 최명희(崔命熙)

崔命熙字禹教號曉堂可川正基子才思敏悟博聞強記書質金西山聞爲學旨訣晚著聲望凡儒林有事多就公而決所編有鐵城志及文集

최명희(崔命熙)의 자는 우교(禹教)요 호는 효당(曉堂)이니 가천(可川) 최정기(崔正基)의 아들이다. 재주와 사고가 민첩하고 총명하고 박문강기 하더니 글을 김서산(金西山)에 몰아서 학문하는 요체를 들었다. 늦게 이름이 드러나서 모든 유림이 일이 있으면 공에게 나아가서 결정하는 것이 많았고, 엮은 책으로는 『철성지(鐵城志)』 및 문집이 있다.

● 이도면(李道勉)

李道勉字致中號龍湖星山人才器發越風度凝遠早中進士以詞翰著名

이도면(李道勉)의 자는 치중(致中)이요 호는 용호(龍湖)며 성산인이다. 재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풍도가 침착하였으며, 일찍 진사에 합격하여 사한(詞翰)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 정돈균(鄭敦均)

鄭敦均字國章號海史晉陽人虛齋志倬后容貌魁偉氣宇軒昂有長者器度早遊河月村
郭俛字門與族兄雲坡漢均講磨質疑有遺集

정돈균(鄭敦均)의 자는 국장(國章)이요, 호는 해사(海史)며 진양인이니 허재(虛齋) 정
지탁(鄭志倬)의 후손이다. 용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우뚝하여 어른의 기품이 있었다. 일
찍 하월촌(河月村) 곽면우(郭俛字)의 문하에 늘었으며 족형 운파(雲坡) 정한균(鄭漢均)
과 강마질의(講磨質疑) 하였다. 유집이 있다.

● 이수면(李壽冕)

李壽冕字華伯號晦雲載寧人茅隱午后性本孝友又勤於學至老不倦望實俱隆有遺集
이수면(李壽冕)의 자는 화백(華伯)이요, 호는 회운(晦雲)이며 재령인이니 모은(茅隱)
이오(李午)의 후손이다. 성품이 본래 효우하고, 또 학문에 부지런하여 늙음에 이르러 게
을리 하지 아니 하였으며, 명망과 실재가 함께 높았다. 유집이 있다.

● 조찬규(趙縝奎)

趙縝奎字子述號石窩咸安人性恬靜沖澹無競於物惟以承先裕後爲畢生計日與家弟
恒齋縉奎講磨相資至老尤篤

조찬규(趙縝奎)의 자는 자술(子述)이요, 호는 석와(石窩)며 함안인이다. 성질이 조용
하고 담박하여 사물에 다툼이 없고 오직 선인을 이어받아 후인을 넉넉하게 한 것으로 필
생의 계책을 삼았다. 그리고 날마다 아우 항재(恒齋) 조진규(趙縉奎)와 강마(講磨)하여
서로 도왔으니 늙음에 이르러 더욱 돈독하였다.

● 하봉수(河鳳壽)

河鳳壽字采五號柏村晉陽人襄靖公敬復后才氣發越文章瞻博師事郭俛字聞主理之
旨平生多獎進後生有文集

하봉수(河鳳壽)의 자는 채오(采五)요 호는 백촌(柏村)이며 진양인이니 양정공(襄靖
公) 하경복(河敬復)의 후손이다. 재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문장이 넉넉하고 넓었다. 곽면
우(郭俛字)에게 사사하여 주리(主理)의 요지를 들었고, 평생토록 후생을 장진(獎進)함이

많았다. 문집이 있다.

● 한유(韓愉)

韓愉字希甯號愚山清州人文敬公尙敬后博學精義立言著書發揮栗尤之旨與良齋田愚并享白雲精舍有文集

한유(韓愉)의 자는 희영(希甯)이요 호는 우산(愚山)이며 청주인이니, 문경공(文敬公) 한상경(韓尙敬)의 후손이다. 박학으로 의(義)에 정통하여 자기 주장으로 글을 펼쳐 울곡(栗谷)과 우암(尤庵)의 뜻을 발휘하였다. 간재(良齋) 한전우(韓田愚)와 함께 백운정사(白雲精舍)에 모셨고 문집이 있다.

● 최동익(崔東翼)

崔東翼字汝敬號晴溪全州人恥庵祥羽孫受業於金西山門聰明絕倫博聞強記從許后山愈郭俛字鍾錫張農山升澤以明德理氣說往復論辨庚戌社屋杜門自靖作無何先生傳以見志所著有理氣動靜辨叶音韻彙及文集十卷行于世

최동익(崔東翼)의 자는 여경(汝敬)이요, 호는 청계(晴溪)며 전주인이니 치암(恥庵) 최상우(崔祥羽)의 손자다. 학업을 김서산(金西山)의 문하에 받았더니 총명이 절륜하고 박문장기하였다. 허후산(許后山)과 유(愈)와 곽면우(郭俛字) 종석(鍾錫)과 장릉산(張農山) 승택(升澤)를 따라 명덕설(明德說), 이기설(理氣說)로 논변하였다. 경술년(1910) 나라가 망하자 문을 닫고 지조를 지켰다. 『무하선생전(無何先生傳)』을 지어 뜻을 보이었다. 저술로는 『이기동정론(理氣動靜論)』과 『협음운휘(叶音韻彙)』 및 문집 10권을 간행했다.

● 박태형(朴泰亨)

朴泰亨字文行號良庵恥庵忠佐后受業於宋淵齋學問純正行誼俱備母病得水魚有文集

박태형(朴泰亨)의 자는 문행(文行)이요 호는 간암(良庵)이니 치암(恥庵) 박충좌(朴忠佐)의 후손이다. 학업을 송연재(宋淵齋)에게서 받았는데 학문이 순정하고, 행의가 함께 갖추어 졌으며 어머니의 병에 얼음에서 고기를 얻었다. 문집이 있다.

● 이수필(李壽弼)

李壽弼字廷允號素山載寧人才器超越凡讀書十行俱下一覽輒記早孤傷貧未能大成其業人皆惜之有遺稿

이수필(李壽弼)의 자는 정윤(廷允)이요, 호는 소산(素山)이니 재령인이다. 재기가 초월하여 무릇 독서를 하매 십행을 함께 내려 읽었고 한번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일찍 고아가 되고 가난 때문에 그 공부를 대성할 수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유고가 있다.

● 조진규(趙縉奎)

趙縉奎字子雲號恒齋石窩縉奎弟於經史百家涉獵殆遍文思瞻博時望蔚然

조진규(趙縉奎)의 자는 자운(子雲)이요 호는 항재(恒齋)니, 석와(石窩) 조찬규(趙縉奎)의 아우다. 경사와 백가를 섭렵하였고 문사가 섬박(瞻博)하니 당시에 명망이 우뚝했다.

● 하재도(河載圖)

河載圖字義文號士窩尼谷應魯子寬厚有德量儀觀整潔業詩書著儒望與江西諸友築晚修堂於潮溪江上爲晚年遊息之所

하재도(河載圖)의 자는 희문(義文)이요 호는 사와(士窩)니, 이곡(尼谷) 하응노(河應魯)의 아들이다. 관후하고 덕량이 있었으며 외모도 정결하였다. 시서(詩書)를 업으로 하여 유림에 명망이 드러났더니, 강의 서쪽 여러 친구와 더불어 조계(潮溪)의 강가에 만수당(晩修堂)을 세우고 말년에 유식(遊息)하는 처소로 삼았다.

● 최도섭(崔道燮)

崔道燮字勉夫號聽江全州人霞叟瀧子承襲家學早自樹立師事金西山聞溪湖旨訣篤信平生不惑他岐文學行誼爲士林推重有文集

최도섭(崔道燮)의 자는 면부(勉夫)요 호는 청강(聽江)이며 전주인이니 하수(霞叟) 최룡(崔瀧)의 아들이다. 가학을 이어서 일찍부터 스스로 수립하였고 김서산(金西山)에게

사사하여 퇴계(退溪)와 대산(大山)의 요체를 들었다. 돈독하게 믿기를 평생토록 이어가고 다른 갈래에 의혹되지 아니하였으며 문학과 행의로 사람에게 높이 받아들여졌다. 문집이 있다.

● 정제용(鄭濟鎔)

鄭濟鎔字亨櫓號溪齋延日人師事郭俛宇文行早著有文集

정제용(鄭濟鎔)의 자는 형노(亨櫓)요 호는 계재(溪齋)니 연일인이다. 곽면우(郭俛宇)에게서 사사하여 문장과 행실이 일찍 드러났다. 문집이 있다.

● 최경명(崔瓊秉)

崔瓊秉字永好號修堂全州人竹塘濯后性敦厚易直固窮篤行常居先齋以教迪諸生

최경명(崔瓊秉)의 자는 영호(永好)요 호는 수당(修堂)이며 전주인이니, 죽당(竹塘) 최탁(崔濯)의 후손이다. 성품이 돈후하고 간결하며 진실되게 궁구하고 돈독하게 행하였다. 항상 조상의 재실에 살면서 제생(諸生)을 교육하였다.

● 하치호(河致鎬)

河致鎬字聖呂號槐亭晉陽人松軒命世孫少小力學文藝夙就累捷鄉解齋志早沒士林咸惜之有遺稿

하치호(河致鎬)의 자는 성려(聖呂)요 호는 괴정(槐亭)이며 진양인이니, 송헌(松軒) 하명세(河命世)의 손자다. 젊어서부터 힘써 배워서 문예가 일찍 이루어 졌으며 여러 번 향시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유고가 있다.

● 하지호(河智鎬)

河智鎬字兼洙號明窩晉陽人雲水堂潤后艾山鄭載圭門人性至孝文學深邃又淬礪於金重菴崔勉菴門屢蒙獎許有文集

하지호(河智鎬)의 자는 겸수(兼洙)요 호는 명와(明窩)며 진양인이니, 운수당(雲水堂)

하윤(河潤)의 후손이다. 애산(艾山) 정재규(鄭載圭)의 문인이더니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문학도 아주 깊었다. 또 김종암(金重菴), 최면암(崔勉菴)의 문하에서 부지런히 힘써 여러 번 가르침과 칭찬을 받았고 문집이 있다.

● 조용숙(趙鏞肅)

趙鏞肅字士欽號復齋咸安人性度寬厚衿韻灑落文詞清逸人以精金美玉稱之晚築西岡精舍以隱居焉

조용숙(趙鏞肅)의 자는 사흙(士欽)이요 호는 복재(復齋)며 함안인이다. 성격이 너그럽고 온후하고 마음이 쇠락(灑落)하며 문사가 맑고 깨끗하니 사람들이 ‘정금미옥(精金美玉)’으로써 일컬었다. 노년에 서강정사(西岡精舍)를 세워 은거하였다.

● 구연하(具然夏)

具然夏字而楫號隱山綾城人性質溫粹才譔超凡篤志力學早有文名明谷禮谷集之刊也尤爲宣力焉

구연하(具然夏)의 자는 이즙(而楫)이요 호는 은산(隱山)이니 능성인이다. 성질이 온화하며 순하고 재주와 총명이 비범하였고 뜻을 돈독히 하고 힘써 배워서 일찍부터 문명이 있었다. 『명곡집(明谷集)』과 『예곡집(禮谷集)』의 간행에 더욱 힘을 폈었다.

● 조용상(曹庸相)

曹庸相字彝卿號弦齋復庵垣淳子天性勤篤風采端嚴讀書矻矻至忘寢食嘗從崔溪南郭俛字兩門多被薰炙焉有文集

조용상(曹庸相)의 자는 이경(彝卿)이요 호는 현재(弦齋)니, 복암(復庵) 조원순(曹垣淳)의 아들이다. 천성이 공손하고 독실하며, 풍채가 단정하였다.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침식을 잊기에 이르렀으며 일찍 최계남(崔溪南), 곽면우(郭俛宇)의 두 문하에서 가르침을 많이 입었다. 문집이 있다.

● 하계락(河啓洛)

河啓洛字道若號玉峯晉陽人松岡恒后平生好讀書受業于郭俛宇門與河晦峯謙鎮交善共築晚修堂

하계락(河啓洛)의 자는 도약(道若)이요 호는 옥봉(玉峯)이며 진양인이니 송강(松岡) 하항(河恒)의 후손이다. 평생에 독서하기를 좋아하였고 학업을 곽면우(郭俛宇) 문하에서 받았으며,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과 좋은 친구로 사귀어 함께 만수당(晩修堂)을 지었다.

● 허민(許玟)

許玟字仲玆號玉峰金海人副摠管東筮后篤行好學早廢舉業遊許性齋門多蒙獎掖就家東聖賢洞構數架屋以終老焉

허민(許玟)의 자는 중현(仲玆)이요 호는 옥봉(玉峰)이며 김해인이니 부총관(副摠管) 동립(東筮)의 후손이다. 돈독한 행실로 학문을 좋아하더니 일찍부터 과거를 폐지하고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 공부하여 권면과 인도를 많이 입었다. 집의 동쪽 성현동(聖賢洞)으로 나아가서 두어 칸의 집을 짓고 여기에서 늙었다.

● 하재봉(河在鳳)

河在鳳字鳴可號德峯涵窩以泰曾孫才學超邁與晦峯謙鎮以門親而兼道義交講討唱酬有遺集

하재봉(河在鳳)의 자는 명가(鳴可)요 호는 덕봉(德峯)이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증손이다.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더니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과 친척이면서 아울러 도의로 사귀어 강론하고 토론하여 창수(唱酬)하였다. 유집이 있다.

● 박헌수(朴憲脩)

朴憲脩字永叔密陽人沙村圭浩從子儀表粹然無疾言遽色郭俛宇以大人公同庚訓誨有加又受業於金勿川鎮祐門多被獎許有文集

박헌수(朴憲脩)의 자는 영숙(永叔)이요 밀양인이니 사촌(沙村) 박규호(朴圭浩)의 조카다. 풍모가 순수하고 빠른 말이나 갑자기 얼굴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 곽면우(郭俛

字)가 아버지와 동갑이기 때문에 가르침에 더함이 있었다. 또 학업을 김물천(金勿川) 진호(鎭祐)의 문하에서 받아 칭찬을 많이 받았다. 문집이 있다.

● 하우식(河祐植)

河祐植字聖洛號澹山晉陽人丹坡啓龍子受業于宋淵齋門明通強記以邃學高行見稱於時有文集

하우식(河祐植)의 자는 성락(聖洛)이요, 호는 담산(澹山)이며 진양인이니 단과(丹坡) 하계룡(河啓龍)의 아들이다. 학업을 송연재(宋淵齋)의 문하에서 받고 명통강기(明通強記)하여 깊은 학문과 높은 행실로 당시에 칭찬을 받았다. 문집이 있다.

● 하경낙(河經洛)

河經洛字聖權號濟南晉陽人一軒海寬后郭俛宇門人才資不凡甫成童已知爲己之學慥慥不已卒究大業有文集

하경낙(河經洛)의 자는 성권(聖權)이요 호는 제남(濟南)이며 진양인이니 일헌(一軒) 하해관(河海寬)의 후손이다. 곽면우(郭俛宇)의 문인인데 재질이 평범치 아니하여 겨우 15세에 이미 위기의 학문을 알아서 착실하더니, 마침내 큰 업적을 이루었다. 문집이 있다.

● 조현규(趙顯珪)

趙顯珪字孝謹號復齋咸安人大笑軒胄孫稟資高邁學識淹博著禮說闡明先儒之旨嘗遊郭俛宇門屢被獎許與河晦峯謙鎭時月追從講質名理有遺集

조현규(趙顯珪)의 자는 효근(孝謹)이요 호는 복재(復齋)며 함안인이니, 대소헌(大笑軒)의 주손(胄孫)이다. 성품이 고매하고 학식이 해박하고 예설(禮說)을 저술하여 선유(先儒)의 취지를 천명하였다. 일찍이 곽면우(郭俛宇)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여러 번 칭찬을 들었고 하회봉(河晦峯) 하겸진(河謙鎭)과 수시로 추종하면서 명리(名理)를 강론했다. 유집이 있다.

● 하영태(河泳台)

河泳台字汝海號寬寮晉陽人顧齋景賢玄孫天資穎敏文學精邃嘗受業於三從叔晦峯謙鎮又遊於郭俛字門有文集

하영태(河泳台)의 자는 여해(汝海)요 호는 관료(寬寮)며 진양인이니, 고재(顧齋) 하경현(河景賢)의 현손자이다. 자질이 영민하고 문학이 깊었다. 일찍이 학업을 삼중숙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에게서 받고 또 곽면우(郭俛宇)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문집이 있다.

● 이현욱(李鉉郁)

李鉉郁字普卿號東庵載寧人固窮力學晚就正於郭俛宇又從河晦峯謙鎮崔晴溪東翼講磨資益

이현욱(李鉉郁)의 자는 보경(普卿)이요 호는 동암(東庵)이니 재령인이다. 진실 되게 궁구하고, 힘써 배우다가 늦게야 곽면우(郭俛宇)에게서 취정(就正)하고, 또 하회봉(河晦峯)과 최청계(崔晴溪) 동익(東翼)을 좇아 강마(講磨)로 도움이 있었다.

● 김종두(金宗斗)

金宗斗字南七號松坡慶州人早有才名能於詞翰有江西八才士之稱與弟松溪宗夏征邁相益

김종두(金宗斗)의 자는 남칠(南七)이요 호는 송파(宋坡)니 경주인이다. 일찍부터 재명이 있고 사한(詞翰)에 능했으며 남강 서쪽에서 8재사의 칭함이 있었고, 아우 송계(松溪) 김종하(金宗夏)와 힘써 나아가 서로 도움을 얻었다.

● 양주희(梁柱熙)

梁柱熙字子仁號晦谷南原人才藝穎悟十餘歲聲聞已大噪江西有八才士之稱公其一也性又孝友勤儉雖處貧窶而無戚戚之容有文集

양주희(梁柱熙)의 자는 자인(子仁)이요 호는 회곡(晦谷)이니 남원인이다. 재주가 영민하여 10여 세에 명성이 크게 떨치어서 강 서쪽에 8재사가 있다고 일컬었는데 공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성품이 또 효우. 근검하여 비록 가난한 곳에 처하더라도 슬피하는 모습이 없었다. 문집이 있다.

● 하치윤(河致潤)

河致潤字洛範號學臯晉陽人文孝公演后天資溫雅文學夙成不幸早沒士友惜之有遺集

하치윤(河致潤)의 자는 낙범(洛範)이요 호는 학고(學臯)며 진양인이니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다. 자질이 온아하고 문장과 학문을 일찍 이루었으나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우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유집이 있다.

● 성영근(成永根)

成永根字仁可號西溪昌寧人儀表粹然平生無疾言遽色晚愛士林山之幽秀挈家就寓以書籍自娛

성영근(成永根)의 자는 인가(仁可)요 호는 서계(西溪)니 창녕인이다. 거동이 순수하고 평생에 빠른 말이나 갑자기 얼굴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 늦게는 사림산(士林山)의 깊숙한 곳을 사랑하여 가족을 이끌고 가서 살면서 서적으로 스스로 즐겼다.

● 이용(李鎔)

李鎔字子庸號老溪星州人天資簡默不妄言笑自盡其分無求於世晦峯河謙鎮稱十室忠信

이용(李鎔)의 자는 자용(子庸)이요 호는 노계(老溪)니 성주인이다. 자질이 간묵(簡默)하여 망령되이 하거나 웃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그 직분을 다하여 세상에 구걸하지 아니하였다. 회봉(晦峯) 하겸진(河謙鎭)이 한 고을에 충신(忠信)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 하경규(河慶圭)

河慶圭字錫禹號玉泉晉陽人竹村潤一后聰慧絕倫潛心經學操行雅飭不越繩尺有遺稿

하경규(河慶圭)의 자는 석우(錫禹)요 호는 옥천(玉泉)이니 죽촌(竹村) 하운일(河潤一)의 후손이다.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며 경학에 잠심(潛心)하고 지조와 행실이 발라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유고가 있다.

● 강수환(姜璉桓)

姜璉桓字源會號雪嶽晉陽人梅塢鍵孫稟性溫雅沈潛篤學受業于李晚求郭俛宇門所著有周易演義中範家儀等書

강수환(姜璉桓)의 자는 원회(源會)요 호는 설악(雪嶽)이며 진양인이니 매오(梅塢) 강건(姜鍵)의 손자다. 품성이 온아하고 침잠하여 학문을 돈독히 하더니 학업을 이만구(李晚求) 곽면우(郭俛宇)의 문하에서 받았다. 저술한 것으로는 『주역연의(周易演義)』 『중범가의(中範家儀)』 등이 있다.

● 하장환(河章煥)

河章煥字綱然號逸庵晉陽人天性慷慨儀表魁傑自庚戌國變後著白笠以終身

하장환(河章煥)의 자는 경연(綱然)이요 호는 일암(逸庵)이니 진양인이다. 천성이 강개하고 행동이 뛰어나더니 경술년의 국치 후로는 백립(白笠)을 쓰고 몸을 마쳤다.

● 성석근(成石根)

成石根字玉汝號琴臯昌寧人天資英邁制行高潔平生不隨俗俯仰築亭西泉上杜門自靖日與同志諸公唱酬相樂有遺集

성석근(成石根)의 자는 옥여(玉汝)요 호는 금고(琴臯)이니 창녕인이다. 재주가 영매(英邁)하고 행동이 고결하여 평생토록 속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자를 서천(西泉)의 위에 세우고 문을 닫고 스스로 마음 편히 지냈으며 날마다 동지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즐겼다. 유집이 있다.

● 이종호(李鍾浩)

李鍾浩字孟圭號拓齋載寧人早歲志學受業於崔晴溪東翼又從趙西川李芋山曹深齋諸名碩多有資益有文集

이종호(李鍾浩)의 자는 맹규(孟圭)요 호는 척재(拓齋)니 재령인이다. 일찍이 뜻을 학문에 두어 학업을 최청계(崔晴溪) 동익(東翼)에게서 받고, 또 조서천(趙西川), 이우산(李芋山), 조심재(曹深齋) 등 여러 큰 인물들을 따라 도움 얻은 바가 많았다. 문집이 있다.

● 하우(河寓)

河寓字廣叔號潛齋晉陽人監察孟崑後篤志力學朝晡不繼而晏如也與族親晦峯講磨資益

하우(河寓)의 자는 광숙(廣叔)이요 호는 잠재(潛齋)며 진양인이니, 감찰 맹곤(監察 孟崑)의 후손이다. 뜻을 독실하게 하고 힘써 배우더니 아침 저녁끼니를 잊지 못하여도 편안해 하였다. 족친 회봉(晦峯)과 강마(講磨)하여 도움을 주고받았다.

● 이용수(李瑑秀)

李瑑秀字性汝號性菴全州人明憲公世榮後受學于趙一山昞奎門與河晦峯曹深齋道義相磨嘗手植杏樹築石爲壇名曰慕魯有詩見志

이용수(李瑑秀)의 자는 성여(性汝)요 호는 성암(性菴)이며 전주인이니 명헌공(明憲公) 이세영(李世榮)의 후손이다. 학업을 조일산(趙一山) 병규(昞奎)의 문하에서 받고 하회봉(河晦峯) 조심재(曹深齋)와 도의로 서로 탁마하였다. 일찍이 손수 은행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단을 만들어 이름을 '모로(慕魯)'라 이르고 시를 지어 뜻을 보였다.

● 하계휘(河啓輝)

河啓輝字鳳朝號我丹晉陽人恨是堂正範曾孫尹膠字胄夏門人自世變後隱居杜門潛心經籍有文集

하계휘(河啓輝)의 자는 봉조(鳳朝)요 호는 아단(我丹)이며 진양인이니 한시당(恨是堂) 하정범(河正範)의 증손이다. 윤교우(尹膠字) 주하(胄夏)의 문인이더니 세상의 번고가 있는 뒤로부터는 은거하여 두문하고 경서에 마음을 두었다. 문집이 있다.

● 성환부(成煥孚)

成煥孚字仁述號正谷松南瀾孫天性貞固學識瞻富承先裕後皆有法度家貧親老極盡奉養與河晦峯柏村諸賢築晚修堂日夕講磨道義

성환부(成煥孚)의 자는 인술(仁述)이요 호는 정곡(正谷)이고 창녕인이니, 송남(松南) 성익(成瀾)의 손자다. 천성이 굳세고 학식이 넉넉하였으며 선인을 이어받고 후인을 너

넉케 하는 데에 모두 법도가 있었다. 집이 가난하나 아버지가 늙음에 극진히 봉양하였고 하회봉(河晦峯) 하백촌(河柏村) 등 제현과 만수당(晩修堂)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도의를 강마하였다.

● 한석우(韓禹錫)

韓禹錫字君世號元谷清州人嘗出入于郭俛字金勿川李大溪之門聞爲學旨訣又與河晦峯河柏村諸賢共築晩修堂于潮溪爲晩年從遊之所有文集

한석우(韓禹錫)의 자는 군세(君世)요 호는 원곡(元谷)이니 청주인이다. 일찍이 곽면우(郭俛字) 김물천(金勿川) 이대계(李大溪)의 문하에 출입하여 학문하는 요지를 들었다. 또 하회봉(河晦峯) 하백촌(河柏村) 제현과 조계(潮溪)에 만수당(晩修堂)을 세우고 만년에 노니는 장소로 삼았다. 문집이 있다.

● 장재한(張在翰)

張在翰字魯若號汾溪丹陽人判書天志后自幼少時才華超凡舉止凝重文名夙著有遺集

장재한(張在翰)의 자는 노약(魯若)이요 호는 분계(汾溪)며 단양인이니 판서(判書) 장천지(張天志)의 후손이다. 어릴 때부터 재주가 범상치 않고 행동거지가 엄중하여 글로 이름이 일찍이 드러났다. 유집이 있다.

● 조병희(曹秉憲)

曹秉憲字晦仲號晦窩昌寧人南冥先生后受業于郭俛字河晦峯以文學知名有文集

조병희(曹秉憲)의 자는 회중(晦仲)이요 호는 회와(晦窩)며 창녕인이니 남명(南冥)선생의 후손이다. 학업을 곽면우(郭俛字) 하회봉(河晦峯)에게서 받아 문학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문집이 있다.

● 김원(金源)

金源字仲浩號淵谷義城人東岡后自少有才名博通經史尤力於易從許后山李晩求金

勿川多被獎許有遺集

김원(金源)의 자는 중호(仲浩)요 호는 연곡(淵谷)이며 의성인이니 동강(東岡)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경사에 박통하더니 더욱이 주역에 힘썼다. 허후산(許后山) 이만구(李晩求) 김물천(金勿川)을 따랐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유집이 있다.

● 정종학(鄭鐘鬻)

鄭鐘鬻字鶴一號雲齋雲坡漢均子天性端雅學問早成遊郭俛宇李大溪河晦峯之門不幸早沒俛宇晦峯以哀辭哭之有遺集

정종학(鄭鐘鬻)의 자는 학일(鶴一)이요 호는 운재(雲齋)니 운파(雲坡) 정한균(鄭漢均)의 아들이다. 천성이 단정하고 고아하였고 학문이 일찍 이루어졌다. 곽면우(郭俛宇) 이대계(李大溪) 하회봉(河晦峯)의 문하에서 공부했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곽면우와 하회봉은 애사(哀辭)를 지어 곡하였다. 유집이 있다.

● 한우동(韓右東)

韓右東字國明號晦山淸州人受學于朴夷南吉煥李信菴準九之門聞爲學之方更就正于良齋田愚之門有文集

한우동(韓右東)의 자는 국명(國明)이요 호는 회산(晦山)이니 청주인이다. 학업을 박이남(朴夷南) 길환(吉煥)과 이신암(李信菴) 준구(準九)의 문하에서 학문하는 방법을 듣고 다시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취정(就正)하였다. 문집이 있다.

● 한항(韓恒)

韓恒字道章號可庵愚山愉弟小心勤慎踐履篤實從伯公征邁相益爲儕類所推重有遺稿

한항(韓恒)의 자는 도장(道章)이요 호는 가암(可庵)이니 우산(愚山) 한유(韓愉)의 아우다. 소심(小心)으로 근신(勤慎)하고 실천이 독실하였다. 형을 따라 정진하여 서로 도움을 얻어 친구들에게 받들어졌다. 유고가 있다.

● 정덕영(鄭德永)

鄭德永字直夫號韋堂延日人師事郭俛宇河晦峯以文行見稱

정덕영(鄭德永)의 자는 직부(直夫)요 호는 위당(韋堂)이니, 연일인이다. 곽면우(郭俛宇)와 하회봉(河晦峯)을 사사하여 문학과 행실로 칭송을 받았다.

● 이병화(李柄和)

李柄和字卓汝號頤堂某堂鎬根子星山人志氣清明文學夙成望著於士友有遺稿

이병화(李柄和)의 자는 탁여(卓汝)요 호는 이당(頤堂)이며 모당(某堂) 이호근(李鎬根)의 아들이니 성산인이다. 기상이 맑고 밝으며 문장과 학문이 일찍이 이루어져 명망이 사우들에게서 드러났다. 유고가 있다.

● 허만책(許萬策)

許萬策字敬教號晦堂金海人蓮塘東岵后天資穎秀學問精邃事親有至誠庚寅兵亂負親逃避於砲彈之中而終無所傷人稱孝感有油庫

허만책(許萬策)의 자는 경교(敬教)요 호는 회당(晦堂)이며 김해인이다. 연당(蓮塘) 허동립(許東岵)의 후손이다. 자질이 뛰어나고 학문이 정밀하고 깊었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한 정성이 있었으니 경인년 병란에 아버이를 등에 업고 포탄 속에서 도피하여 마침내 상한 데가 없었다.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된 것이라고 일컬었다. 유고가 있다.

● 박원중(朴遠鍾)

朴遠鍾字聲振號直庵才資敏慧文辭夙就遊郭俛宇門篤信不貳

박원중(朴遠鍾)의 자는 성진(聲振)이요 호는 직암(直庵)이다. 채주와 자질이 민첩하고 슬기롭고 문사가 일찍 이루어져 곽면우(郭俛宇)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독실히 민고의 심하지 아니하였다.

● 박응중(朴膺鍾)

朴膺鍾字景宇號易堂密陽人松月堂后才藝絕倫早有文名受學于郭俛宇河晦峯門聞

爲學旨訣年二十七而歿士林痛惜之

박응중(朴膺鍾)의 자는 경우(景宇)요 호는 이당(易堂)이며 밀양인이니, 송월당(松月堂)의 후손이다. 재능과 기예가 절륜하여 일찍부터 문명에 있더니 곽면우(郭旼宇)와 하회봉(河晦峯)의 문하에서 학업을 배워 학문하는 요체를 들었으나, 나이 27세에 죽으니 사림이 아까워하더라.

● 하용환(河龍煥)

河龍煥字子圖號雲石玉峰啓洛子性稟寬裕文學瞻富有時望

하용환(河龍煥)의 자는 자도(子圖)요 호는 운석(雲石)이니 옥봉(玉峰) 하계락(河啓洛)의 아들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문장과 학문이 넉넉하여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품행(品行)

● 민원(閔愿)

閔愿字興仲號石溪驪興人判書審言之后文科直長性剛而行方標高而志宏自忠州陰城移居于晉之玉峯

민원(閔愿)의 자는 흥중(興仲)이요 호는 석계(石溪)며 여흥인이니, 판서(判書) 민심언(閔審言)의 후손이다. 문과에 올라 직장(直長)이 되었다. 성질이 강직하면서 행실이 모가 나며 표적이 높으면서 뜻이 넓었다. 충주(忠州) 음성(陰城)에서 옮겨와 진주 옥봉(玉峯)에 살았다.

● 최원민(崔元敏)

崔元敏號竹溪朔寧人司諫卜麟后宣廟壬辰之亂隨從兄彥亮倡義討賊亂平後癸酉中進士

최원민(崔元敏)의 호는 죽계(竹溪)요 삭녕인이니, 사간(司諫) 최복린(崔卜麟)의 후손이다. 선조 임진란에 종형 언량(彦亮)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고 난이 평정

된 뒤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 문상해(文尙海)

文尙海字聖用號滄海天性誠孝當兩親喪哀毀踰禮戊申亂募鄉士倡義後隱居自靖
大明花詩一絕以寓風泉之感

문상해(文尙海)의 자는 성용(聖用)이요 호는 창해(滄海)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의 상을 당해서 슬픔이 예를 넘었고 무신(戊申)의 난에는 향토의 선비를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난이 끝난 뒤에는 은거하면서 혼자서 지내고 대명화(大明花) 시 1절을 읊어 명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감회를 붙였다.

● 양순인(梁舜仁)

梁舜仁字孝叟南原人大司諫思貴曾孫官至萬戶勇退不仕以琴書自娛時望甚著

양순인(梁舜仁)의 자는 효수(孝叟)요 남원인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증손이다. 벼슬이 만호(萬戶)에 이르렀는데 물러나 벼슬하지 않고 금서(琴書)로서 스스로 즐기니 당시에 명망이 심히 드러났다.

● 하응휘(河應彙)

河應彙字會汝號四時軒平生好古嗜學惇倫重義著家資家訓等篇以戒子姪有文集

하응휘(河應彙)의 자는 회여(會汝)요 호는 사시헌(四時軒)이다. 평생에 옛것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기며 윤상을 힘쓰고 의를 소중히 여겼다. 가자(家資)와 가훈(家訓)을 편찬하여 자손들에게 경계하였다. 문집이 있다.

● 정대후(鄭大奘)

鄭大奘字君徵草溪人以文學行誼見稱年九十一壽階資憲

정대후(鄭大奘)의 자는 군징(君徵)이요 초계인이다. 문학과 행의, 바른 행동으로 칭찬을 받더니 나이 91세에 수계(壽階)로 자헌(資憲)에 올랐다.

● 강진국(姜振國)

姜振國字子由晉陽人成齋應台玄孫遊巖庵姜翼文門聞爲學之要事行見德川淵源錄
강진국(姜振國)의 자는 자유(子由)요 진양인이니, 성재(誠齋) 강응태(姜應台)의 현손이다. 당암(巖庵) 강익문(姜翼文)의 문하에서 노닐며 학문하는 요지를 들었는데 일과 행실은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에 보인다.

● 이극민(李克敏)

李克敏號梅軒泗川人孝友出天學行兼全 仁廟庚辰特召別提謀佐林公慶業幕下有
越海之行事載林慶業傳趙鳳岡璣有詩讚美之

이극민(李克敏)의 호는 매헌(梅軒)이요 사친인이다. 효우가 하늘이 났고 학행을 갖추었다. 인조 경진년에 특별히 별제(別提)로 불러 임경업(林慶業)의 막하에서 그를 도우기를 도모하여 바다를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임경업전(林慶業傳)』에 실려있고 조봉강(趙鳳岡) 겸(璣)이 시를 지어 이를 찬미하였다.

● 하명세(河命世)

河命世字擎玄晉陽人雲水堂潤后性篤孝友志尙清介囂囂然有高逸之風自號松軒
하명세(河命世)의 자는 경현(擎玄)이요 진양인이니, 운수당(雲水堂) 하운(河潤)의 후손이다. 성품이 효우에 돈독하고 뜻이 맑고 숭상하였으며 자득하여 욕심이 없는 고고한 품모가 있었으며 자호를 송헌(松軒)이라 하였다.

● 성사묵(成師默)

成師默字慎言號道溪昌寧人浮查后爲人端雅有學有行鄉里推重
성사묵(成師默)의 자는 신언(慎言)이요 호는 도계(道溪)이며 창녕인이니, 부사(浮查)의 후손이다. 사람됨이 단아하여 학문이 있고 행실도 있어서 고을에서 받들었다.

● 문응벽(文應璧)

文應璧字璧卿南平人醒狂劫五世孫有山水之癖自嘉芳隱居於美川函谷之間囂囂自

樂以終其身壽副護軍

문응벽(文應璧)의 자는 벽경(璧卿)이요 남평인이니, 성광공(醒狂公) 문할(文劬)의 5세 손이다. 산수를 좋아 하는 성벽이 있어 가방(嘉芳)에서 미천(美川) 함곡(函谷) 사이에 은거하여 욕심 없이 스스로 즐기면서 평생을 마쳤다. 수직(壽職)으로 부호군(副護軍)이었다.

● 이정복(李挺復)

李挺復字益瞻號竹軒自幼岐嶷才知穎悟文藝夙就弟竹坡東復亦以文行見稱

이정복(李挺復)의 자는 익침(益瞻)이요 호는 죽헌(竹軒)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더니 재주와 지식이 훌륭하고 총명하여 문예가 일찍 이루어졌다. 아우 죽파(竹坡) 이동복(李東復)도 또한 문행으로 칭송을 받았다.

● 성사증(成師曾)

成師曾字景惟號琴坡昌寧人浮查汝信后性孝友清儉獨修文學從伯氏琴溪公征邁資益人擬之以元方季方

성사증(成師曾)의 자는 경유(景惟)요 호는 금파(琴坡)며 창녕인이니, 부사(浮查) 여신(成汝信)의 후손이다. 성품이 효우 청검하고 문학을 돈독하게 닦았으며 형님 금계공(琴溪公)을 따라 바르게 매진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니 사람들이 원방(元方)과 계방(季方)으로 비교했다.

● 김시혁(金始赫)

金始赫字景瑞義城人東岡后湖園始采弟自芝村后入系事所後甚有孝行又以文學知名常纂輯東岡師友錄

김시혁(金始赫)의 자는 경서(景瑞)요 의성인이며 동강(東岡)의 후손이니, 호원(湖園) 김시채(金始采)의 아우다. 지촌(芝村)의 후예로서 대를 이어 입계(入系)한 뒤로 심히 효행이 있었고 또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일찍이 『동강사우록(東岡師友錄)』을 편찬했다.

● 하시명(河始明)

河始明字稚膺號月松台溪潛后倜儻有大節 正廟乙卯投筆舉武歷求禮縣監三陟鎮
節制使所至以清德有碑

하시명(河始明)의 자는 치응(稚膺)이요 호는 월송(月松)이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후손이다. 대범하여 절조가 있더니 정조 을미년에 붓을 던지고 무과에 올라 구례현감(求禮縣監) 삼척진절제사(三陟陣節制使)를 역임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덕망이 있어 비를 세워 기렸다.

● 김영기(金永耆)

金永耆字永叟號勝庵義城人鵝湖輝運子儀貌魁梧風致欵洽以文學行誼屢被儒林重
薦有遺集

김영기(金永耆)의 자는 영수(永叟)요 호는 승암(勝庵)이며 의성인이니, 아호(鵝湖) 김휘운(金輝運)의 아들이다. 의모(儀貌)가 우뚝하고 풍취가 정성스러웠으며 문학과 행의로써 여러 번 유림의 천거를 입었다. 유집이 있다.

● 하진탁(河鎮卓)

河鎮卓字子仰號慕竹齋竹窩一浩子天性孝友少無子弟過兄弟四人聯床征邁俱有名
實平生痛慕其先人典型置小齋揭額以慕竹

하진탁(河鎮卓)의 자는 자양(子仰)이요 호는 모죽재(慕竹齋)니 죽와(竹窩) 하일호(河一浩)의 아들이다. 천성이 효우하여 젊어서부터 자제에 대한 지나침이 없었고 형제 4인이 평상을 맞대고 정진 매진하여 모두 이름이 있었다. 평생토록 그 선인의 전형을 통절히 사모하여 작은 집을 짓고 편액을 걸어 ‘모죽(慕竹)’이라고 하였다.

● 성필주(成弼周)

成弼周字述汝號探清軒惺惺齋錕后儀表耿介論議剛直樊巖蔡濟恭許其需世之才往
復書藏在後孫家

성필주(成弼周)의 자는 술여(述汝)요 호는 탐청(探清)이니, 성성재(惺惺齋) 성황(成

鏡)의 후손이다. 의표가 굳고 깨끗하고 논의가 강직하니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그를 세상을 구할 재주라고 인정하였다. 왕복한 글은 후손의 집에 갈무리해 두었다.

● 이국헌(李國憲)

李國憲字致魯載寧人道窩德潤曾孫天資警敏才藝絶人 純祖朝司馬榜壯元人咸榮之不幸早夭

이국헌(李國憲)의 자는 치로(致魯)요 재령인이니, 도와(道窩) 이덕윤(李德潤)의 증손이다. 자질이 조심하고 영민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순조 때에 사마 시험의 방목(榜目)에 장원으로 올라서 사람들이 모두 영광으로 여기더니 불행이도 요절하였다.

● 하정범(河廷範)

河廷範字仁卿號石泉竹村潤一玄孫性剛直不以威武屈其志博識懿行爲時推重

하정범(河廷範)의 자는 인경(仁卿)이요 호는 석천(石泉)이니 죽촌(竹村) 하운일(河潤一)의 현손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위무로 그 뜻을 굴복시키지 못하였고 박식과 훌륭한 행실로 당시에 받들어졌다.

● 김시진(金時震)

金時震字麗元江陵人東厓獻后英廟朝武都摠都事戊申亂有戰功錄原從勳除軍器僉正

김시진(金時震)의 자는 여원(麗元)이요 강릉인이니 동애(東厓) 김헌(金獻)의 후손이다. 영조 때에 무과에 올라 도총도사(都摠都事)가 되었더니 무신란(戊申亂)에 전공이 있어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고 군기첨정(軍器僉正)에 제수되었다.

● 김홍진(金弘鎭)

金弘鎭字華現號野隱義城人龍湖樂運孫天資穎悟器局淵弘受業于叔祖梧淵冕運多被獎詔州牧伯爭薦於 朝廷而不報時論惜之

김홍진(金弘鎭)의 자는 화현(華現)이요 호는 야은(野隱)이며 의성인이니, 용호(龍湖)

낙운(樂運)의 손자다. 자질이 총명하고 기국(器局)이 깊고 넓었더니 학업을 숙조인 오연(梧淵) 면운(冕運)에게 받아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 고을 목사와 관찰사가 다투어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으니 당시에 여론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 정식(鄭埴)

鄭埴字直卿號熟寐農圃文學后承襲庭訓博覽經傳惇修家庭日與諸兄諸侄同會一堂講討相資

정식(鄭埴)의 자는 직경(直卿)이요 호는 숙매(熟寐)니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후손이다. 집안 가르침을 계승하여 박람하고 가정을 힘써 닦았다. 날마다 여러 형과 여러 조카들과 한 집에 모여서 강의하고 토론했다.

● 성진민(成鎭民)

成鎭民字而習號琴南昌寧人孝友純篤母憂嚼指弟病禱辰性質寬厚器局恢弘增築琴湖齋爲講學之所

성진민(成鎭民)의 자는 이습(而習)이요 호는 금남(琴南)이니 창녕인이다. 효우함이 순수하고 독실하더니 어머니의 병에 손가락을 깨물고 아우의 병에는 기도하였다. 성질이 관후하고 넓었으며 금호재(琴湖齋)를 증축하여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다.

● 하계현(河啓賢)

河啓賢字能仲號默窩晉陽人涵窩以泰子以文學知名於時又奉先有誠倡宗族建侍郎公別廟于落水庵有遺稿

하계현(河啓賢)의 자는 능중(能仲)이요 호는 묵와(默窩)며 진양인이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아들이다. 문학으로 이름이 당시에 알려졌고 또 선인을 받드는데 정성이 있었으니 집안사람들과 앞장서서 시랑공(侍郎公)의 별묘(別廟)를 낙수암(落水庵)에 세웠다. 유고가 있다.

● 성치원(成致源)

成致源字孝百號養眞堂昌寧人孝悌慈良甚有時望嘗移寓固城學于崔美岩奎煥家甚貧藹鈞以養親甘旨不匱年八十還松谷故庄以終

성치원(成致源)의 자는 효백(孝百)이요 호는 양진당(養眞堂)이니 창녕인이다. 효제하고 자애하고 어질어 심히 당시의 명망이 있더니 일찍 고성(固城)에 이주하여 최미암(崔美岩) 규환(奎煥)에게 배웠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나무하고 고기를 낚았으나 양친에게 맛난 음식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나이 80이 되어 송곡(松谷)의 옛집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마쳤다.

● 하서범(河敍範)

河敍範字乃卿號默窩資稟醇厚受業于伯父菊潭公勵志爲學文藝夙成與李月浦佑贊成進士慶漢諸公講磨道義著心說以示學者

하서범(河敍範)의 자는 내경(乃卿)이요 호는 묵와(默窩)다. 품성이 순후하고 학업을 백부 국담공(菊潭公)에게 받아 뜻을 가다듬고 학문을 하여 문예가 일찍이 이루어졌다. 이월포(李月浦) 우빈(佑贊)과 성진사(成進士) 경한(慶漢) 등 여러 사람과 도의를 강마하고 『심설(心說)』을 저술하여 배우는 사람에게 보였다.

● 정우빈(鄭瑀贊)

鄭瑀贊字周範號澗翠堂晉陽人石亭弘祚后天資重厚風流弘長從遊許性齋河月村諸賢講磨資益築書室于所居西麓爲子姓肄業之所

정우빈(鄭瑀贊)의 자는 주범(周範)이요 호는 간취당(澗翠堂)이며 진양인이니 석정(石亭) 홍조(弘祚)의 후손이다. 자질이 중후하고 풍류가 대단하더니 허성재(許性齋) 하월촌(河月村) 등 제현을 따라 놀아서 강마로 자익(資益)되었다. 서실을 살고 있는 집 서쪽 중턱에 세워 후손들의 학습하는 장소로 도움을 받았다.

● 정환대(鄭煥大)

鄭煥大字聲遠號三非齋延日人圃隱先生后事親以孝御家有法務自韜晦不求人知月村河達弘撰齋銘

정환대(鄭煥大) 자는 성원(聲遠)이요 삼비재(三非齋)며 연일인이니 포은(圃隱) 선생의 후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으로써 하였고 집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게 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어 힘써서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월촌(月村) 하달홍(河達弘)이 재명(齋銘)을 지었다.

● 김두진(金斗鎭)

金斗鎭字汝元義城人勝庵永耆子篤志力學趾美先徽一時名德多推重之晚年移寓宜寧之松山因號松山

김두진(金斗鎭)의 자는 여원(汝元)이요 의성인이니 승암(勝庵) 김영기(金永耆)의 아들이다. 뜻을 돈독히 하여 힘써 배우고 거동이 아름답고 선인을 빛내니 일시에 밝은 덕으로 받드는 이가 많았다. 만년에 의령(宜寧)의 송산(松山)에 이주한 연유로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다.

● 정호석(鄭顥錫)

鄭顥錫字魯應號芝軒海州人農圃胄孫以行誼稱於鄉黨

정호석(鄭顥錫)의 자는 노응(魯應)이요 호는 지현(芝軒)이며 해주인이니, 농포(農圃)의 주손이다. 바른 행실로 고을에게 칭송을 받았다.

● 강여완(姜汝完)

姜汝完字君器梅村德龍玄孫受業於趙默齋讀書通大義且志氣磊落才器過人人以公輔期之不幸早沒

강여완(姜汝完)의 자는 군기(君器)요 매촌(梅村) 강덕룡(姜德龍)의 현손이다. 학업을 조묵재(趙默齋)에게 받고 독서에 대의를 통달하고 또 지기가 커서 작은 일에는 구애되지 않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사람들이 정승 같 것으로 기대하였더니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 성태수(成台秀)

成台秀字希用號錦坡昌寧人浮查汝信后氣宇軒昂行治整嚴儒林有重事多資公以成焉

성태수(成台秀)의 자는 희용(希用)이요 호는 금파(錦坡)며 창녕인이니, 부사(浮查) 여신(汝信)의 후손이다. 기개가 높았고 행동이 엄정하였으며, 유림에 중요한 일이 공에게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 곽종린(郭鍾麟)

郭鍾麟字國瑞號西洲玄風人以文詞行義稱於人與士林修白雲洞儒契作序以弁之

곽종린(郭鍾麟)의 자는 국서(國瑞)요 호는 서주(西洲)니 현풍인이다. 문사(文詞)와 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으며 백운동유계(白雲洞儒契)를 만들고 서문을 지어 첫머리에 실었다.

● 곽종승(郭鍾升)

郭鍾升字英瑞號鳳南姿性溫恭風儀端詳善詞賦有遺稿

곽종승(郭鍾升)의 자는 영서(英瑞)요 호는 봉남(鳳南)이다. 자질이 온화하고 공손하고 품모가 단정하였으며 사부(詞賦)를 잘하였다. 유고가 있다.

● 최효숙(崔孝淑)

崔孝淑字伯溫號三守軒朔寧人大司諫卜麟后 高宗丙午進士風神灑落肌骨冰雪無一点塵埃氣師事洪梅山直弼與鄭芝窩冕教雙洲世教友善

최효숙(崔孝淑)의 자는 백온(伯溫)이요 호는 삼수헌(三守軒)이며 삭녕인이니 대사간 최복린(崔卜麟)의 후손이다. 고종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는데 풍채가 쇠락(灑落)하고 신체가 빙설과 같아서 세속의 기운이 한 점도 없었다. 홍매산(洪梅山) 직필(直弼)에게 사사하였고 정지와(鄭芝窩) 면교(冕教)와 정쌍주(鄭雙洲) 세교(世教)와 친구를 맺어 잘 지냈다.

● 하승락(河承洛)

河承洛字禹範兼洛之弟早業弓馬有能聲嘗爲巨濟府使以治績聞性孝友事兄如事嚴父又睦於宗族俱得歡心

하승락(河承洛)의 자는 우범(禹範)이니 겸낙(兼洛)의 아우다. 일찍부터 궁마(弓馬)를 업으로 하여 명성이 있었다. 일찍 거제부사(巨濟府使)가 되어 치적으로 들리었고 성품이 효우스러워 형을 섬기기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였으며 또 종족에게도 화목하여 모두 환심을 얻었다.

● 하석락(河錫洛)

河錫洛字禹善號宜笑軒思軒兼洛弟武科歷義禁府都事宣傳官連山縣監內禁衛將風采照人志氣清簡大院君稱一家三難

하석락(河錫洛)의 자는 우선(禹善)이요 호는 의소현(宜笑軒)이니 사현(思軒) 겸낙(兼洛)의 아우다. 무과에 올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선전관(宣傳官) 연산현감(連山縣監)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냈다. 풍채가 사람의 모범이었고 기개가 깨끗하니 대원군(大院君)이 한 집안의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칭찬하였다.

● 성경혁(成慶奕)

成慶奕字聖淵昌寧人共衾堂東一胄孫官宣傳儒雅恭儉與物無競人以長者稱之

성경혁(成慶奕)의 자는 성연(聖淵)이요 창녕인이니, 공금당(共衾堂) 성동일(成東一)의 주손이다. 벼슬이 선전관(宣傳官)에 이르렀더니 선비답고 공손하고 검소하여 다른 사물과 다툼이 없으니 사람들이 큰 어른이라고 일컬었다.

● 양혁수(梁奕洙)

梁奕洙字子山南原人大司諫思貴后自幼從事學問業明經登科遷典籍

양혁수(梁奕洙)의 자는 자산(子山)이요 남원인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하더니 명경(明經)을 업으로 하여 과거에 오른 뒤에 전적(典籍)에 올랐다.

● 한두원(韓斗源)

韓斗源字元七號晚悟兵使範錫之孫武科部將儀表清秀行治端雅晚年不事產業好讀周易

한두원(韓斗源)의 자는 원칠(元七)이요 호는 만오(晚悟)니, 병사(兵使) 범석(韓範錫)의 손자다. 무과에 올라 부장(部長)이 되었는데 거동이 맑고 빼어났으며 행동이 단아하였으니 만년에는 산업을 일삼지 않고 『주역』 읽기를 좋아하였다.

● 백남두(白南斗)

白南斗字星七號雲西水原人雄豪有氣概士友推重之

백남두(白南斗)의 자는 성칠(星七)이요 호는 운서(雲西)니 수원인이다. 호방하여 기개가 있으니 사우들이 받들었다.

● 성석주(成奭柱)

成奭柱字擎天昌寧人官南部參奉稟性剛毅氣局寬洪發言制事人皆敬服與一時名碩追隨講磨

성석주(成奭柱)의 자는 경천(擎天)이요 창녕인이다. 벼슬이 남부참봉(南部參奉)에 이르렀더니 성품이 강의하고 기운이 너그러웠다. 말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면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여 복종하였고 당시의 큰 인물로 받들어 따르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 강상오(姜相五)

姜相五字周祐號梅下晉陽人受業于許性齋門聲華早著同門儕輩多推重焉親病斷指注血以延三日之命及喪哀毀備至

강상오(姜相五)의 자는 주호(周祐)요, 호는 매하(梅下)니 진양인이다. 학업을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서 받더니, 명성이 일찍부터 드러나서 학문의 동료들이 많이 받들었다. 아버지가 병들매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쏟아 넣어 3일 동안 목숨을 연장시키고, 상을 당해서는 애절함이 갖추어 지극하였다.

● 강건(姜鍵)

姜鍵字啓玄號梅塢晉陽人梅村得龍后恬靜自守不樂舉業及沒遠近人士咸稱善人逝矣有遺稿

강건(姜鍵)의 자는 계현(啓玄)이요, 호는 매오(梅塢)이며 진양인이니 매촌(梅村) 강득룡(姜得龍)의 후손이다. 느긋하고 고요함을 스스로 지니고 과거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더니 세상을 떠난 뒤에는 원근의 선비들이 모두 “착한 사람이 갔다”라고 일컬었다. 유고가 있다.

● 성칠규(成七奎)

成七奎字國顯昌寧人浮查后資性溫厚儀表秀偉平生喜讀書中庸自號退藏軒與河月村梁竹坡遊多有資益不幸無壽鄉黨惜之

성칠규(成七奎)의 자는 국현(國顯)이요, 창녕인이니 부사(浮查)의 후손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거동이 빼어나게 훌륭하였는데 평생토록 『중용(中庸)』 읽기를 좋아 하였다. 호를 퇴장헌(退藏軒)이라 하고, 하월촌(河月村) 양죽파(梁竹坡)와 놀며 많은 도움이 있었으나 불행이도 오래 살지 못하니 고을에서 애석히 여겼다.

● 이희구(李熙龜)

李熙龜字伯敬號三山省庵文模子載寧人性稟慈仁孝友篤至友愛人喜施里中貧窮賴而舉火者甚衆學行兼備望實俱隆時人欽公有長者風焉

이희구(李熙龜)의 자는 백경(伯敬)이요, 호는 삼산(三山)이니 성암(省庵) 이문모(李文模)의 아들로서 재령인이다. 성품이 인자하고 효우가 독실하고 지극하였다. 또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기뻐하여 동네 가운데 빈궁한 사람들이 끼니를 이은 자가 심히 많았다. 학문과 행실이 겸하여 갖추어졌고, 이름과 실재가 모두 높으니, 당시에 사람들이 공을 공경하여 흠모하여 큰 어른의 풍이 있다고 하였다.

● 하제명(河濟明)

河濟明字雲見號述軒台溪潛后性度廉介操履堅確 高宗丙申以鄉薦主幹蓮桂齋移

建之役

하제명(河濟明)의 자는 운현(雲見)이요, 호는 술헌(述軒)이니, 태계(台溪) 하진(河潛)의 후손이다. 성품이 청렴 고결하고 조행이 건고하고 확실하더니, 고종 병신년에 고을의 추천으로 연계재(蓮桂齋)를 읍기는 일을 주관하였다.

● 정인교(鄭仁教)

鄭仁教字聖五號松岩海州人志守堅確非其禮不行非其義不取絕意榮途晦跡林下以詩書自娛

정인교(鄭仁教)의 자는 성오(聖五)요, 호는 송암(松岩)이니 해주인이다. 뜻으로 지킴이 굳고 확실하여, 그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의가 아니면 취하지 아니하며, 뜻을 벼슬에서 끊고, 자취를 초야에 숨기어 시서(詩書)로 혼자 즐겼다.

● 하극명(河巨明)

河巨明字運一號漏窩養德林泉孝友爲政年踰六旬居喪盡禮少從朴晚醒學又與許后山郭俛宇李紫東金勿川諸公爲道義交

하극명(河巨明)의 자는 운일(運一)이요, 호는 누와(漏窩)다. 덕을 자연에서 기르고 효우로 집을 다스렸으며 나이가 60을 넘겨서 상을 당함에 예를 다하였다. 젊어서 박만성(朴晚醒)을 따라 배웠고, 또 허후산(許后山), 곽면우(郭俛宇), 이자동(李紫東), 김물천(金勿川) 등과 도의로 교류했다.

● 강문오(姜文伍)

姜文伍字成彥號水竹晉陽人容貌端秀才諳穎悟莊默自持不論人長端從竹塢河範運學有文集

강문오(姜文伍)의 자는 성언(成彥)이요, 호는 수죽(水竹)이니 진양인이다.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와 총명함이 뛰어났으며, 엄숙하고 조용함을 스스로 지키어 남의 장단점을 논하지 아니하였다. 죽오(竹塢) 하범운(河範運)을 따라 배웠고 문집이 있다.

● 최제효(崔濟孝)

崔濟孝字淳若號雲岡全州人溪南淑民子天性溫厚服習家庭之學於天人性命之際精思而實踐之六藝之文無不涉其流究其根有遺稿

최제효(崔濟孝)의 자는 순약(淳若)이요, 호는 운강(雲岡)이며 전주인이니 계남(溪南) 최숙민(崔淑民)의 아들이다. 천성이 온후하고 가정의 학문을 익혔다. 천인(天人)과 성명(性命)의 사이에서 정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였으며, 육예(六藝)의 문장을 그 흐름을 섭렵하고 그 근본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고가 있다.

● 조봉순(曹鳳淳)

曹鳳淳字鎬集號晚翠堂昌寧人南冥先生后從事學問業明經科有名於士友

조봉순(曹鳳淳)의 자는 호집(鎬集)이요, 호는 만취당(晚翠堂)이며 창녕인이니 남명(南冥)선생의 후손이다. 학문에 종사하여 명경과(明經科)를 업으로 하더니, 사우들에게 명망이 있었다.

● 정광우(鄭光祐)

鄭光祐字致敬號跂齋海州人孝友廉直不求營利樂善好施丙丁之凶賴而活命者多當時有南州善人之稱

정광우(鄭光祐)의 자는 치경(致敬)이요, 호는 기재(跂齋)니 해주인이다. 효우스럽고 청렴하고 강직하여, 영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즐기고 베풀기를 좋아 하였다. 병자 정축년의 흉년에 이분에게 힘입어 목숨을 산 사람이 많았으니, 당시에 ‘남주(南州)에 선인(善人)’이라는 칭찬이 있었다.

● 강봉호(姜俸鎬)

姜俸鎬字伯元號澹齋晉陽人進士聖綰子稟性清明行治雅整筮仕至參奉師事鄭老柏載圭有文望

강봉호(姜俸鎬)의 자는 백원(伯元)이요, 호는 담재(澹齋)며 진양인이니 진사 성관(聖綰)의 아들이다. 품성이 청명하고 행동이 우아하고 발랐다. 벼슬에 올라 참봉(參奉)에 이

르렀으며, 정노백(鄭老柏) 재규(載圭)에게 사사하여 글로 이름이 있었다.

● 강우온(姜宇蘊)

姜宇蘊字休重號晚蔚龔窩諭子天資溫粹力學自持傾心向義爲人所推屢入薦剡

강우온(姜宇蘊)의 자는 휴중(休重)이요, 호는 만울(晚蔚)이니 농와(龔窩) 강곤(姜諭)의 아들이다. 자질이 온화하고 순수한데 힘써 배우고 스스로 지키며 마음을 기울여 의로 향하니, 사람들에게 추천되어 여러 번 천거에 들었다.

● 하성원(河聖源)

河聖源字義伯號台洲晉陽人軒昂有氣概凡儒林有事竭誠宣力焉

하성원(河聖源)의 자는 희백(義伯)이요, 호는 태주(台洲)니 진양인이다. 우뚝하여 기개가 있었으며, 모든 유림에 일이 있으면 정성을 다하여 힘을 펼쳤다.

● 하재한(河載瀚)

河載瀚字禹範號省窩晉陽人雲水堂潤后容儀端雅稟性峭直好古尙志窮約不怨與艾山鄭載圭松沙奇字萬從遊有遺稿

하재한(河載瀚)의 자는 우범(禹範)이요, 호는 성와(省窩)며 진양인이니 운수당(雲水堂) 하운(河潤)의 후손이다. 용모가 단아하고 품성이 우뚝하였으며, 옛것을 좋아하고 뜻을 숭상하여 곤궁하여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애산(艾山) 정재규(鄭載圭), 송사(松沙) 기우만(奇字萬)과 더불어 놀았으며 유고가 있다.

● 조용승(曹龍承)

曹龍承字致悅號三山狀貌魁偉志氣英邁庚寅至京當路者薦之除義禁府都事俄而遷內務部主事兼世子從乘又未幾遷中部令時國家多艱逆魁盜擅朝柄公與同志數人謀殺之事覺反被執賊怒鞫問毅然不屈嚼舌流血以示不變係獄踰月放逐白翎島

조용승(曹龍承)의 자는 치열(致悅)이요, 호는 삼산(三山)이다. 용모가 뛰어나고 뜻과 기운이 영매(英邁)하더니, 경인년에 서울에 있는 요로에 있는 사람의 천거로 의금부도

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다. 얼마 후 내무부 주사(內務部主事)겸 세자종승(世子從乘)으로 옮겼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 중부령(中部令)으로 옮겼다. 이때는 국가에 어려움이 많고 역도들이 조정의 권력을 훔쳐 멋대로 함으로 공은 동지 두어 사람과 죽이기를 도모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도리어 잡혀 적이 노하여 국문하였으나 의연한 태도로 굴하지 않고,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어 변하지 않는 뜻을 보였다. 옥에 갇혀 달을 넘겨 백령도(白翎島)로 추방 당하였다.

● 박영찬(朴榮纘)

朴榮纘字而述號逸菴泰安人器局疏通能慮事善辨 太上丙寅除繕工郎供職十日而呈遞築亭于先墓下以琴書自娛與世相忘

박영찬(朴榮纘)의 자는 이술(而述)이요, 호는 일암(逸菴)이니 태안인이다. 도량이 소통(疏通)하여 능히 일을 생각하여 잘 판단하였다. 태상왕(太上王) 병인년에 선공랑(繕工郎)에 제수되었더니 관직에 나아간 지 10일 만에 사임장을 올렸다. 정자를 선산 아래에 세우고 금서(琴書)로써 스스로 즐기어 세상으로 더불어 서로 잊었다.

● 정동윤(鄭東允)

鄭東允字紀汝晉陽人退軒天益后官參奉姿稟魁梧器量宏深神采言論隨處傾倒性又仁惠禮度殷勤貴賤賢愚莫不推服

정동윤(鄭東允)의 자는 기여(紀汝)요, 진양인이니 퇴헌(退軒) 천익(天益)의 후손이다. 벼슬이 참봉에 이르렀더니 자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었다. 풍채와 언론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성품이 또 어질고 예법으로 은근히 움직이니, 귀천 현우(賢愚)할 것 없이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 문기우(文起宇)

文起宇字南舉號海史南平人才學超凡治家有法律己以度人以長者稱焉有遺稿

문기우(文起宇)의 자는 남거(南舉)요, 호는 해사(海史)니 남평인이다. 제주와 학식이 뛰어나고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고, 자기를 지킴에 정도가 있으니 사람들이 큰 어

른이라고 일컬었다. 유고가 있다.

● 정택교(鄭宅教)

鄭宅教字舜五號守拙海州人資醇識正操履雅飭官繕工監役

정택교(鄭宅教)의 자는 순오(舜五)요, 호는 수졸(守拙)이니 해주인이다. 바탕이 순박하고 식견이 바르며, 지조와 행실에 실천이 고아하고 부지런하였다. 벼슬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이르렀다.

● 양주한(梁柱漢)

梁柱漢字擎秀南原人有氣節幹局壬申江華西洋之亂扞禦有功陞公州中軍移拜鏡城兵馬虞候兼討捕使到郡皆有聲績

양주한(梁柱漢)의 자는 경수(擎秀)니 남원인이다. 기개에 재간과 능력이 있었다. 임신년에 강화(江華)에서 서양의 난이 있어 방어에 공이 있었으므로 공주중군(公州中軍)에 올랐다가 경성병마우후(鏡城兵馬虞候) 겸(兼) 토포사(討捕使)로 옮겼다. 이르는 고을마다 모두 명성이 있었다.

● 손영원(孫永源)

孫永源字大則號寒坡密陽人博雅多聞平生以峨冠弊褐讀書不輟

손영원(孫永源)의 자는 대칙(大則)이요, 호는 한파(寒坡)니 밀양인이다. 박학하고 건문이 넓었으며, 평생토록 높은 갓과 해진 옷으로 독서하기를 멈추지 아니 하였다.

● 김호영(金鎬永)

金鎬永字命敷義城人少業明經才性過人四捷鄉解竟屈於禮圍固窮守道有遺稿

김호영(金鎬永)의 자는 명부(命敷)요, 의성인이다. 젊어서부터 명경(明經)을 업으로 하였고, 재주가 뛰어나더니 네 번이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마침내 대과에서 실패하였다. 진실 되게 궁구하면서 도를 지켰다. 유고가 있다.

● 정구교(鄭九教)

鄭九教字義老海州人農圃后氣宇軒昂眼采燁然承襲家庭文藝夙就士友稱之

정구교(鄭九教)의 자는 의노(義老)요 해주인이니, 농포(農圃)의 후손이다. 기개가 높고 눈이 빛났다. 가정을 이어받아 문예를 일찍 이루니 사우(士友)들이 이를 칭송하였다.

● 하재구(河載九)

河載九字疇用號慕山晉陽人覺齋沆后天資純粹受業于許性齋門勤志篤學交遊甚廣

하재구(河載九)의 자는 주용(疇用)이요, 호는 모산(慕山)이며 진양인인데 각재(覺齋) 하항(河沆)의 후손이다. 자질이 순수하더니 학업을 허성재(許性齋)의 문하에서 받고 근면하여 독실한 학문으로 교유가 심히 넓었다.

● 조창래(趙昌來)

趙昌來字禹言號稼亭官承訓郎司果稟性魁偉周窮恤貧常若不及於先事有至誠如忠毅公碑閣之重建送客亭之豎碑皆公所自擔而成之也

조창래(趙昌來)의 자는 우언(禹言)이요, 호는 가정(稼亭)이며 벼슬이 승훈랑(承訓郎) 사과(司果)에 이르렀다. 품성이 훌륭하고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되 항상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이 하였다. 조상을 섬기는 일에는 지극한 정성이 있었으니, 충의공(忠毅公)의 비각을 증건하는 일이나, 송객정(送客亭)에 비를 세우는 일은 모두 공이 부담하여 이룬 것이다.

● 하재화(河載華)

河載華字復卿號與人軒晉陽人 高宗甲午進士自國變後隱居專力於尊衛事業德川敬義堂及道江書堂公所倡導而成之也

하재화(河載華)의 자는 복경(復卿)이요, 호는 여인현(與人軒)이니 진양인이다. 고종 갑인년에 진사가 되고, 국변이 있는 뒤로부터는 은거하여 선현을 높이고 도를 수호하는 사업에 전력하였으니 덕천서원(德川書院)의 경의당(敬義堂) 및 도강서당(道江書堂)은 모두 공이 앞장서서 이룬 것이다.

● 하계룡(河啓龍)

河啓龍號丹坡農窩益範后勤學篤行事親至孝有遺稿

하계룡(河啓龍)의 호는 단파(丹坡)니 농와(農窩) 하익범(河益範)의 후손이다. 부지런한 학문과 독실한 행실로 지극히 효성을 다하여 아버이를 섬겼다. 유고가 있다.

● 한중원(韓鍾源)

韓鍾源字聖允號丹湖清州人司藝汝哲后天姿溫和立志堅確不求營利晚寓丹城之松溪與朴鶴山尙台李惠山祥奎爲交

한중원(韓鍾源)의 자는 성윤(聖允)이요, 호는 단호(丹湖)며 청주인이니 사예(司藝) 한여철(韓汝哲)의 후손이다. 풍모가 온화하고 입지가 견학하며, 영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만년에 단성(丹城)의 송계(松溪)에 우거 하였는데, 박학산(朴鶴山) 상태(尙台)와 이혜산(李惠山) 상규(祥奎)와 친교를 삼았다.

● 김한영(金翰永)

金翰永字處中義城人庚午中司馬試豪邁不羈風采所加傾倒四座與韓相國啓源柳相國厚祚吳承宣德永最善

김한영(金翰永)의 자는 처중(處中)이요, 의성인이다. 경오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호탕하여 얽매이지 않고 풍채가 있는 곳이 주위를 경도시켰다. 한상국(韓相國) 계원(啓源)과 유상국(柳相國) 후조(厚祚)와 오승선(吳承宣) 덕영(德永)과 가장 친하였다.

● 정철기(鄭喆基)

鄭喆基字應賢號玉樵延日人圃隱先生后風神出倫氣岸落落人莫不敬畏本州兵營自經壬戌樵亂府庫空虛公納千石米代價本營題延日鄭氏義倉六字於庫門之外又轉報于朝除繕工監假監役

정철기(鄭喆基)의 자는 응현(應賢)이요, 호는 옥초(玉樵)며 연일인이니 포은(圃隱)선생의 후손이다. 풍신이 빼어났고 기상이 높으니 사람들이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고을의 병영이 임술 초란(樵亂)을 겪은 뒤로부터 창고가 비게 되니, 공이 쌀 천석 가치를 바쳤다. 본영(本營)에서 ‘연일정씨의창(延日鄭氏義倉)’이라는 여섯 글자를 창고 문에 달았고, 또 조정에 알리니 선공감(繕工監) 가감역(假監役)을 제수하였다.

● 최정모(崔挺模)

崔挺模字泰孝號月岡全州人懿德實行儒雅風流見重於士友

최정모(崔挺模)의 자는 태효(泰孝)요, 호는 월강(月岡)이니 전주인이다. 아름다운 덕을 실행하고 선비의 우아한 풍류로 사우들에게 중시되었다.

● 강면호(姜冕鎬)

姜冕鎬字周五號晚山天資宏厚孝友篤至講明經旨早以親命赴舉見世道日非斂退丘園嘗自戒云欲知千邪與萬善須辨驕吝與愼獨與弟桐坡燦鎬征邁相資有遺集

강면호(姜冕鎬)의 자는 주오(周五)요, 호는 만산(晩山)이다, 자질이 넓고 후덕하고 효우가 지극히 독실했고 경지(經旨)를 익혀 밝혔다. 일찍 아버지의 명에 의하여 과거를 보았더니, 세도가 날로 글러져가는 것을 보고 초야(草野)로 물러났다. 일찍이 스스로 경계하여 이르기를 “천 가지 사악한 일과 만 가지 착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교만함과 인색한 마음, 혼자 있을 때 조심함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라 하고 아우 동파(桐坡) 강찬호(姜燦鎬)와 매진하면서 서로 도움을 가졌다. 유집이 있다.

● 김창수(金昌壽)

金昌壽字允甫歇后宅永孫資稟溫厚氣宇峻整鄉黨服其德義以古家典型稱之

김창수(金昌壽)의 자는 윤보(允甫)니 혈후(歇后) 김택영(金宅永)의 손자다. 성품이 온후하고 기상이 높으니, 고을에서 그 덕과 의리에 감복하여 고가(古家)의 전형이라고 칭송하였다.

● 이수일(李壽壹)

李壽壹字景賓號後塢載寧人慈詳精敏篤修文學早失怙事兄如嚴父不顧私家之有無

專力奉兄積十有餘年甘旨不絕

이수일(李壽壹)의 자는 경빈(景賓)이요, 호는 후오(後塢)며 재령인이다. 자상하고 민첩하여, 돈독하게 문학을 닦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을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였다. 사가(私家)의 유무를 돌아보지 않고 힘을 오로지하여 형을 받들었으며 십수년 동안 맛난 음식을 끊지 아니하였다.

● 김대림(金大林)

金大林子養克號蘆湖義城人正字龜洛子雅性清裕好致力於儒林事龍江書堂之創建尹白湖集之刊布也特有功焉

김대림(金大林)의 자는 양극(養克)이요, 호는 노호(蘆湖)며 의성인니 정자(正字) 귀락(金龜洛)의 아들이다. 성품이 깨끗하고 넉넉하여 힘을 유림의 일에 힘을 다하기를 좋아 하더니, 용강서당(龍江書堂)의 창건과 『윤백호집(尹白湖集)』의 간행에 특별히 공로가 있었다.

● 박재구(朴在九)

朴在九字春汝號三湖泰安人凌虛敏后風儀峻整言論行行凡儒林有事多所宣力焉

박재구(朴在九)의 자는 춘여(春汝)요, 호는 삼호(三湖)며 태안인이니 능허(凌虛) 박민(朴敏)의 후손이다. 거동이 높고 바르며 언론(言論)이 강직하더니 무릇 유림에 일이 있으면 힘을 쓰는 바가 많았다.

● 한사원(韓士源)

韓士源字正賢號隱軒鳳岳夢逸後天資耿介氣宇卓犖鄉里推重

한사원(韓士源)의 자는 정현(正賢)이요, 호는 은헌(隱軒)이니 봉악(鳳岳) 한몽일(韓夢逸)의 후손이다. 자질이 빛나고 청렴하고 기상이 높고 뛰어났기에 고을에서 받들었다.

● 정호용(鄭浩鎔)

鄭浩鎔字學然號晚樵喆基子器局峻整衿度毅然少時登武科錄壯衛營參軍尋陞時

從院右侍御奉職甚勤甲午倭兵之犯闕也與宣傳尹映宣帶劔直赴闕下幾被鋒鏑而竟探玉體之無愆僚友莫不敬重

정호용(鄭浩鎔)의 자는 학연(學然)이요, 호는 만초(晩樵)니 철기(喆基)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높고 바르며, 도량이 의연하였다. 소시에 무과에 올라 장위영삼군(壯衛營參軍)에 기용되었다가, 얼마 후에 시종원우시어(侍從院右侍御)에 올랐다. 업무 종사에 매우 부지런하더니 갑오년에 왜병이 대궐을 침벌할 때 선전관 윤영선(尹映宣)과 함께 칼을 차고 바로 대궐 아래로 달려가서 거의 칼날과 화살을 받았으나 마침내 옥체에 이탈이 없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동료들이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이수록(李壽祿)

李壽祿字南區號梅史天性剛直風儀端雅操履精詳不失尺寸平生不治產業喜書藝學金秋史正喜書法深得精髓李寒洲震相玩賞公手栽盤梅贈之以詩

이수록(李壽祿)의 자는 남구(南區)요 호는 매사(梅史)다. 천성이 강직하고, 풍채가 단아하며, 실천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한 치도 실수가 없었다. 평생에 산업을 다스리지 않고, 서예를 좋아하여 김추사(金秋史) 정희(正喜)의 서법을 배우더니, 깊이 핵심을 얻었다. 이한주(李寒洲) 진상(震相)이 공이 손수 심은 매화를 완상하고서 시를 써서 보냈다.

● 구연학(具然學)

具然學字道彬號綾岩綾城人武科宣傳官行奉命使入直見時事日非即歸鄉處身以敬平居未嘗偃臥

구연학(具然學)의 자는 도빈(道彬)이며 호는 능암(綾岩)이니 능성인이다. 무과에 올라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봉명사(奉命使)가 되어 입직하더니, 세태가 날로 글러지는 것을 보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신하기를 경(敬)으로써 하였는데, 평소에도 일찍이 미스듬이 눕지 아니하였다.

● 성치민(成致珉)

成致珉字五睨號竹史浮查汝信后性孝友學究實薦幼孤而能盡禮制至老而不失規度

鄉里稱隱德焉

성치민(成致珉)의 자는 오현(五峴)이요 호는 죽사(竹史)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손이다. 성품이 효우스럽고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하였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능히 예절과 절차를 다하였고 늙어서도 법도를 잃지 아니 하니 고을에서 은덕을 칭송하였다.

● 허만순(許萬純)

許萬純字泰顯金海人風采修整言辭滂沛善筆牘後生多慕之年四十筮仕授主事啣又陞爲參書官

허만순(許萬純)의 자는 태현(泰顯)이요 김해인이다. 풍채가 단정하고 언사가 늙름하며 글씨를 잘 썼는데 후생들이 많이 사모하였다. 나이 40이 되어서야 벼슬에 올라 주사함(主事啣)에 제수되고, 또 참서관(參書官)에 올랐다.

● 정상우(鄭象禹)

鄭象禹字福汝號雲坡隅谷溫后天性穎敏才藝出人從金端磾朴晚醒質疑講磨隅谷亭之重修實紀之刊役皆公所宣力也壽嘉善

정상우(鄭象禹)의 자는 복여(福汝)요 호는 운파(雲坡)니 우곡(隅谷) 정온(鄭溫)의 후손이다. 천성이 영민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김단계(金端磾), 박만성(朴晚醒)을 따라 질의와 강마를 하였고, 우곡정(隅谷亭)의 중수와 실기(實紀)의 간행 등은 모두 공이 힘이었다. 장수하여 가선(嘉善)에 올랐다.

● 유진필(柳震必)

柳震必字景善號鴻洲勳臣泗后武科通訓官儀貌秀偉言議磊落有長者風

유진필(柳震必)의 자는 경선(景善)이요 호는 홍주(鴻洲)니 훈신(勳臣) 유사(柳泗)의 후손이다. 무과에 올라 통훈대부(通訓大夫) 의관(議官)이 됐더니, 거동과 용모가 준수하고 언의(言議)가 뇌락(磊落)하여 장자의 풍모가 있었다.

● 정휘균(鄭彙均)

鄭彙均字應洛號琴窩晉陽人慈詳愷悌且有才行出入于金端溪麟變門不幸早沒時人惜之有遺稿

정휘균(鄭彙均)의 자는 응락(應洛)이요 호는 금와(琴窩)며 진양인이다. 자상하고 화락(和樂)한 데다가 또 재주가 있었고, 김단계(金端溪) 인섭(麟變)의 문하에 출입하더니,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불행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 당시에 사람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고 유고가 있다.

● 정인석(鄭麟錫)

鄭麟錫字允亨號農雲中進士有文望鄉黨推重

정인석(鄭麟錫)의 자는 윤희(允亨)이요 호는 농운(農雲)이다. 진사에 합격하고 문장으로 명망이 있어서 고을에서 받들었다.

● 정제화(鄭濟和)

鄭濟和字君弼號老桐烏川人天資剛毅雖急難當前而辭色不變貧窮到骨而處之泰然

정제화(鄭濟和)의 자는 군필(君弼)이요 호는 노동(老桐)이니, 오천인(烏川人)이다. 자질이 강직하여 비록 급하고,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더라도, 말이나 얼굴빛을 변하지 아니하였고, 빈궁이 뼈에 사무쳐도 처하기를 태연히 하였다.

● 한창동(韓昌東)

韓昌東字南振兵使範錫后行誼端重儀表秀整鄉黨稱之以君子

한창동(韓昌東)의 자는 남진(南振)이니 병사(兵使) 한범석(韓範錫)의 후손이다. 행동이 단정하고, 행동이 빼어나게 바르니, 고을에서 군자라고 일컬었다.

● 정준석(鄭駿錫)

鄭駿錫字德卿號松坡天品詳敏溫雅飭身無疵累鄉黨稱之

정준석(鄭駿錫)의 자는 덕경(德卿)이요 호는 송파(松坡)다. 성품이 자상하고 민첩하

며 온화하고 고상한 데다가 몸을 단속하여 흠이 없으니 고을에서 칭송하였다.

● 하홍규(河洪逵)

河洪逵字毅卿號剛軒晉陽人約軒龍濟子以名家胄裔行篤家庭儒望甚著

하홍규(河洪逵)의 자는 의경(毅卿)이요 호는 강헌(剛軒)이며 진양인이니, 약헌(約軒) 용제(河龍濟)의 아들이다. 명가의 후손으로 가정에서 행실이 독실하니 유가의 명망이 매우 드러났다.

● 강성조(姜聖祚)

姜聖祚字武應號雪林儀表端雅行誼純備出入金端碕之門多蒙薰炙晚年築舒嘯臺爲嘯咏之所

강성조(姜聖祚)의 자는 무응(武應)이요 호는 설림(雪林)이다. 거동이 단아하고 행동이 순정하였다. 김단계(金端碕)의 문하에 출입하여 가르침을 많이 입었으며, 만년에는 서소대(舒嘯臺)를 세워 노니는 장소로 삼았다.

● 이수희(李壽熙)

李壽熙字天老載寧人官參奉志氣剛明儀表清秀與河晦峯曹深齋爲姻婭而結道義交晚年築鳴玉亭以終老焉

이수희(李壽熙)의 자는 천노(天老)요 재령인이다. 벼슬이 참봉(參奉)에 이르렀더니 기운이 강직하고 행동이 맑고 수려하였다. 하회봉(河晦峯) 조심재(曹深齋)와 사돈이 되어 도의교(道義交)를 맺었고, 만년에는 명옥정(鳴玉亭)을 세워 평생을 마쳤다.

● 정영훈(鄭英堧)

鄭英堧字希道號農山官承訓郎肇慶廟參奉容貌端潔慕賢述先不惜財力築道南書室爲遊息之所

정영훈(鄭英堧)의 자는 희도(希道)요 호는 농산(農山)이니 벼슬이 승훈랑(承訓郎) 조경묘참봉(肇慶廟參奉)이었다. 용모가 단아하고 어진 이를 사모하고, 선조를 이어가는

데는 재력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도남서실(道南書室)을 세워 유식(遊息)하는 장소로 삼았다.

● 정규석(鄭珪錫)

鄭珪錫字聖七號誠齋海州人貞度公易后沈重寡默不論人長短中年移居于丹溪以經籍自娛撰四書要選時覽要纂各一册藏于家

정규석(鄭珪錫)의 자는 성칠(聖七)이요 호는 성재(誠齋)며 해주인이니, 정탁공(貞度公) 정역(鄭易)의 후손이다. 침중(沈重)하고 과묵하며 남의 장단점을 논하지 아니하였다. 중년에는 단계(丹溪)에 옮겨가서 살면서 서적으로써 스스로 즐겼고 『사서요선(四書要選)』과 『시람요찬(時覽要纂)』 각각 1책씩을 찬술하여 집에 소장하였다.

● 이갑중(李甲鍾)

李甲鍾字聖律號菊坡載寧人爲人雅飭風流溫藉交遊皆一時勝而與崔晴溪東翼曹深齋兢變有講磨之益

이갑중(李甲鍾)의 자는 성률(聖律)이요 호는 국과(菊坡)니 재령인이다. 사람됨이 고아하고 부지런하며 풍류가 온순하고 상냥하였으며, 교류한 사람이 모두 당대의 이름난 사람들이었는데, 최청계(崔晴溪) 동익(東翼)과 조심재(曹深齋) 궁섭(兢變)과 학문을 강마(講磨)하여 도움이 있었다.

● 김창조(金昌祚)

金昌祚字允謙歇后宅永孫賦性剛明志氣高潔門前手植一松枝幹癰腫蒼髯下垂清陰滿地有詩云撫松自顧追松吾吾得吾松松得吾不改歲寒然後節立如庭畔樂支吾因以松吾自號

김창조(金昌祚)의 자는 윤겸(允謙)이니 혈후(歇后) 김택영(金宅永)의 손자다. 성품이 굳고 밝았으며 기개가 고결(高潔)하였다. 문 앞에 손수 심은 한 그루 소나무 가지와 줄기에 종기와 푸른 수염이 아래로 드리워져서 많은 그늘이 땅에 가득하니 시를 지어 이르기 를 “소나무를 만지면서 스스로 돌아보니 솔이 나를 따르는가? 나는 나의 솔을 얻었는데

솔도 나를 얻었구나. 날씨가 차가운 뒤에도 절개를 안 바꾸니, 뜰 가에서 있으면서 나의 즐거움을 지탱하네”라 하여 송오(松梧)를 호로 삼았다.

● 한석동(韓碩東)

韓碩東字漢若號坪隱清州人釣隱夢參后氣骨俊偉性度宏厚早喪父事母甚孝母夫人患中風委臥十年侍湯不懈

한석동(韓碩東)의 자는 한약(漢若)이요 호는 평은(坪隱)이며 청주인이니 조은(釣隱) 한몽삼(韓夢參)의 후손이다. 기골이 뛰어나고 성정이 넓고 후덕하였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섬김에 매우 효성스러웠더니, 어머니가 중풍을 앓아 10년을 누워 있었으나, 시탕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 허진(許稹)

許稹字清汝金海人孝友純至風儀端潔人稱之以有德君子

허진(許稹)의 자는 청여(淸汝)요 김해인이다. 효우가 순박하고 지극하였고, 용모가 단아 고결하니 사람들이 덕이 있는 군자라 일컬었다.

● 이현도(李鉉道)

李鉉道字善一號聲山載寧人永慕齋麟模曾孫性至孝父病禱天代命當喪三年不沐不櫛治家有法閨門肅若朝廷堂世長德以法家稱之

이현도(李鉉道)의 자는 선일(善一)이요 호는 성산(聲山)이며 재령인이니, 영모재(永慕齋) 이인모(李麟模)의 증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니, 아버지가 병들자 하늘에 목숨을 대신해 주기를 빌었고,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목욕하지 않고, 머리를 빗질하지 아니하였다. 집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어서 집안의 엄숙함이 조정과 같으니, 당시의 어른들이 예법을 지키는 집안이라 칭찬하였다.

● 김용호(金容浩)

金容浩字周行號蓮湖幼英爽神彩動人文辭蔚然嘗赴京試有一貴宰要與其子同場屋

則得捷矣公謝之曰豈以讀書人受屈於人而求榮哉自後因廢舉以終老焉

김용호(金容浩)의 자는 주행(周行)이요 호는 연호(蓮湖)다.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맑았고 풍채가 사람을 움직였으며, 문사(文辭)가 아름다웠다. 일찍이 과거에 갔더니 한 재상이 요청하기를 그의 아들과 과장에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이 사례하여 이르기를 “어찌 독서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굽히어 영화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 뒤로 과거를 그만두고 늙음을 마쳤다.

● 신종심(慎宗心)

慎宗心字處庸居昌人司果炳朝子居武夷九曲之下故自號九下父司果倜儻有大志嘗試世不售退遂初服父子祖孫一室讀書公嘗有詩云萬壑千山都積雪一堂三代共吟詩窮居自娛不以屢空動心

신종심(慎宗心)의 자는 처용(處庸)이요 거창인이니, 사과(司果) 신병조(慎炳朝)의 아들이다.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구하(九下)라 하였다. 아버지 사과(司果)는 기개가 있어 큰 뜻이 있었으나, 일찍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므로 물러나서, 원대 뜻대로 살면서 부자와 조손(祖孫)이 한 집안에서 글을 읽게 되었다. 공이 일찍 시를 지어 이르기를 “만학천산(萬壑千山)에 눈이 가득 쌓였는데, 한집에서 삼대가 함께 시를 읊는구나.”라 하였다. 궁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 즐기면 가난한 것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 문호현(文護鉉)

文護鉉字殷用號冠居性勁直有氣概律身繩家不墜庭訓人皆稱之

문호현(文護鉉)의 자는 은용(殷用)이요 호는 관거(冠居)다. 성품이 굳세고 곧아서 기개가 있고, 자신의 법도로 집을 다스리어 집안의 가르침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 이달모(李達模)

李達模字巨心號默窩鐵城人體幹頎偉氣局沈邃篤修文學用力於小學家禮以孝行著

名

이달모(李達模)의 자는 긍심(亘心)이요 호는 묵와(默窩)니 철성인이다. 체구가 헌걸차고, 기운이 깊어 독실하게 문학을 닦되 힘을 『소학(小學)』과 『가례(家禮)』에 쓰니, 효행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 허만해(許萬海)

許萬海字禹榮號於山性仁孝聰明自幼動止異凡事親至孝丁丙艱哀禮備至又周窮恤貧如范文貞公義庄故事

허만해(許萬海)의 자는 우영(禹榮)이요 호는 어산(於山)이다.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행동거지가 범인과 달랐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예를 지극히 갖추었다. 또 궁한 사람을 넉넉히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기를 범문정공(范文貞公)의 의장고사(義庄故事)와 같이 하였다.

● 하영규(河泳奎)

河泳奎字景實號士溪晉陽人松亭受一后性厚重質直早孤讀書治產有古風家範

하영규(河泳奎)의 자는 경실(景實)이요 호는 사계(士溪)며, 진양인이니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후손이다. 성품이 중후하고 곧았으며, 일찍 고아가 되었으며 독서와 치산(治產)에 고품의 법도가 있었다.

● 성의주(成毅柱)

成毅柱字在一號小窩昌寧人性度寬仁儀表端重與河晦峯謙鎮金修齋在植爲道義交

성의주(成毅柱)의 자는 재일(在一)이요 호는 소와(小窩)니, 창녕인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행동이 단정하더니, 하회봉(河晦峯) 겸진(謙鎮)과 김수재(金修齋) 재식(在植)과 도의로 교분을 삼았다.

● 이병곤(李炳坤)

李炳坤字正夫號槐堂星山人鎬根子官肇慶廟參奉自幼受學于月淵道樞詳明敏悟孝

友忠信有時望

이병곤(李炳坤)의 자는 정부(正夫)요 호는 괴당(槐堂)이며 성산인이니 호근(鎬根)의 아들이다. 벼슬이 조경묘참봉(肇慶廟參奉)이더니, 어려서부터 학업을 월연(月淵) 이도추(李道樞)에게서 받았다. 명석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웠고 효우와 충신으로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하장식(河章植)

河章植字文休號某山月湖啓濬子承襲典訓學行兼備人無不稱之以古家有範有遺稿
하장식(河章植)의 자는 문휴(文休)요 호는 모산(某山)이니 월호(月湖) 하계효(河啓濬)의 아들이다. 가정의 법도를 잇고 학행을 검비하니, 사람들이 고가(古家)의 전범(典範)이라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고가 있다.

●한세동(韓世東)

韓世東字國弼號竹庵武源子氣稟豪邁性度溫厚接人以德賙救貧乏 高宗皇帝因山時參國民哭班而與諸義士謀舉三一運動晚築竹庵精舍逍遙自適有遺稿

한세동(韓世東)의 자는 국필(國弼)이요 호는 죽암(竹庵)이니 무연(武源)의 아들이다. 기품이 호탕하고 성정이 온후하여 사람을 덕으로써 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고종황제의 국장에 국민 곡반(哭班)에 참여 하였다가 여러 의사와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도모하였고, 늦게는 죽암정사(竹庵精舍)를 세워 소요하고 자적하였다.

●성일주(成一柱)

成一柱字敬殷號農隱性孝友敦睦遵守先訓不作崖異之行

성일주(成一柱)의 자는 경은(敬殷)이요 호는 농은(農隱)이며 창녕인이다. 성품이 효우하고 돈목하여 선인의 교훈을 따라 지키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영하(李英夏)

李英夏字忠一全州人濡染庭訓早有時望於儒林重事多有宣力焉

이영하(李英夏)의 자는 충일(忠一)이요 전주인이다. 집안의 가르침에 젖어 일찍부터 당시의 명망이 있더니 유림의 중한 일에 있어서는 힘을 편 것이 많았다.

● 강락구(姜洛九)

姜洛九字孟範號石泉天資醇厚志行修飭早襲庭訓專心學問日處川上亭與諸友論文講禮風流觴咏囂囂以自樂

강락구(姜洛九)의 자는 맹범(孟範)이요 호는 석천(石泉)이다. 자질이 순후하고 뜻과 실을 수양하여, 일찍부터 집안 가르침을 이어받아 학문에 전심하였다. 날마다 천상정(川上亭)에 여러 벗으로 더불어 문학을 논하고 예를 강하여 풍류로 시를 읊조리며 당당하게 스스로 즐겼다.

● 김후세(金厚世)

金厚世字仁彥金寧人白村文起后早業弓馬晚而好學歷仕至萬戶

김후세(金厚世)의 자는 인언(仁彥)이요 김녕인이니,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무예를 익히더니 늦게야 학문을 좋아하였고, 벼슬은 만호(萬戶)에 이르렀다.

● 전기주(全基柱)

全基柱字邦彥號菊圃濯溪致遠后師事鄭老柏載圭門屢被獎許

전기주(全基柱)의 자는 방언(邦彥)이요 호는 국포(菊圃)며, 탁계(濯溪) 전치원(全致遠)의 후손이다. 정노백(鄭老柏) 재규(載圭)의 문하에서 사사하여 여러번 칭찬을 받았다.

충의(忠義)

● 최기필(崔琦弼)

崔琦弼全州人登武科以奉事癸巳倡義入晉州城兵使崔公慶會馳啓行在所拜本州判

官城陷殉節 英廟癸亥 贈兵曹參議享彰烈祠

최기필(崔琦弼)은 전주인이다. 무과에 올라 봉사(奉事)가 되었던니, 기사년에 창의하여 진주성에 들어왔다.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가 행재소(行在所)에 장계를 올리니 본주의 판관(判官)을 내렸다. 성이 함락되어 순절하였더니, 영조 계해(영조19, 1743)에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추증되고 창렬사(彰烈祠)에 모셨다.

● 유함(兪哈)

兪哈靈山人進士伯溫子以義兵將入轟石城癸巳陷殉節 贈主簿享彰烈祠

유함(兪哈)은 영산인이니 진사 유백온(兪伯溫)의 아들이다. 의병장으로 축석성(轟石城)에 들어왔다가 기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순절하였다. 뒤에 주부(主簿)로 추증되어 창렬사에 모셨다.

● 장윤현(張胤賢)

張胤賢丹陽人以守門將癸巳城陷殉節 贈戶曹佐朗享彰烈祠

장윤현(張胤賢)은 단양인이니 수문장(守門將)으로 기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순절하였다. 뒤에 병조좌랑(戶曹佐郎)으로 추증되어 창렬사에 모셨다.

● 박승남(朴承男)

朴承男密陽人以判官癸巳城陷殉節 贈兵曹參議享彰烈祠

박승남(朴承男)은 밀양인이다. 판관(判官)으로 기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순절하였다. 뒤에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추증되어 창렬사에 모셨다.

● 하계선(河繼先)

河繼先晉陽人以學生殉節于轟石城 贈戶曹佐郎享彰烈祠

하계선(河繼先)은 진양인이니 학생으로 축석성에서 순절하였다.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최언량(崔彦亮)

崔彦亮朔寧人司果卜麟后以學生殉節于癸巳城陷時 贈戶曹佐郎享彰烈祠

최언량(崔彦亮)은 삭녕인이니 사과(司果) 최복린(崔卜麟)의 후손이다. 학생으로서 계사년에 성이 함락될 때 순절하니 호조좌랑을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윤사복(尹思復)

尹思復坡平人以僉正倡義入轟石城癸巳殉節 贈兵曹參議享彰烈祠

윤사복(尹思復)은 파평인이니 첨정(僉正)으로 창의하여 축석성에 들어 왔다가 계사년에 순절하였다. 호조참의를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손승선(孫承善)

孫承善密陽人以義兵大將入轟石城癸巳城陷殉節 贈主簿享彰烈祠

손승선(孫承善)은 밀양인이니 의병대장으로 축석성에 들어 왔다가 계사년에 주부(主簿)를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정유경(鄭惟敬)

鄭惟敬晉陽人以訓練主簿殉節于轟石城 贈軍資監正享彰烈祠

정유경(鄭惟敬)은 진양인이니 훈련주부(訓練主簿)로서 축석성에서 순절하였다. 군사감정(軍資監正)을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박안도(朴安道)

朴安道字由卿泰安人 宣廟壬辰倡起義旅累立奇功癸巳城陷殉節 贈戶曹佐郎享彰烈祠

박안도(朴安道)의 자는 유경(由卿)이요 태안인이다. 선조 임진년에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공을 세우고 계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순절하였다. 뒤에 호조좌랑을 추증하고 창렬사에 모셨다.

● 하천서(河天瑞)

河天瑞號望楸亭參奉壬辰倡義以勳 贈左承旨龍蛇日記云公倡義守城與姜德龍申楠二公鍊戎奮威軍律頗整城之頽者以完池之淺者以濬功不可勝記云

하천서(河天瑞)의 호는 망추정(望楸亭)이요 참봉(參奉)이니, 임진년에 창의하여 훈공으로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용사일기(龍蛇日記)』에 이르기를 “공은 창의하여 성을 지키더니 강덕룡(姜德龍)·신남(申楠) 두 분과 군사를 단련하고, 위엄을 떨치어 군율이 자못 정돈되었다. 성이 무너진 것은 못이 얕은 것은 깊게 파는 등 그 공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 허국주(許國柱)

許國柱金海人武科虞候壬辰倡義討賊錄勳難已構亭於濂滄江上扁曰觀瀾觴詠以終純祖壬申多士籲閣特蒙忠節卓異之褒 贈兵曹參判

허국주(許國柱)는 김해인(金海人)이니 무과에 올라 우후(虞候)로서 임진년에 창의하여 적을 쳐서 공훈을 기록하였다. 난이 끝난 뒤에 염창강(濂滄江) 위에 정자를 짓고 편액을 관란(觀瀾)이라 이르고서, 술과 시로 평생을 마쳤다. 순조 임신년(순조 12, 1812)에 많은 선비들이 나라에 호소하여 충절이 특별히 포상을 받아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추증하였다.

● 강홍덕(姜弘德)

姜弘德晉陽人翰林乞五世孫癸巳從黃武敏公進殉節錄宣武原從二等勳子孫世襲忠順衛

강홍덕(姜弘德)은 진양인이니 한림(翰林) 강흘(姜伋)의 5세손이다. 계사년에 무민공(武敏公) 황진(黃進)을 따라 순절하여 선무원종(宣武原從) 이등(二等)의 공훈을 기록하였고, 자손이 충순위(忠順衛)를 세습하였다.

● 하경호(河慶灝)

河慶灝初名慶男字士會天瑞子以寢郎登別薦武科爲宣傳官訓練副正體察使尹梧陰

斗壽薦也尹公器重之招置中軍累入奇功體使與西厓柳公成龍書曰河某矢口不言功倍賢於湖海之捷及宮駕幸龍灣上輒問河慶男安在急招作前矛其見眷注如此

하경호(河慶灑)의 초명은 경남(慶男)이요 지는 사회(士會)니 천서(天瑞)의 아들이다. 침랑(寢郎)으로 별천(別薦)의 무과에 올라 선전관(宣傳官)과 훈련부정(訓練副正)이 되었으니, 체찰사(體察使)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천거였다. 윤공이 기량을 중히 여기어 중군(中軍)에 두었더니, 여러 번 특별한 공을 세웠다. 체찰사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에게 글을 주어 이르기를 “하모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지마는 공은 배나 되며, 호남의 바다에서 승첩한 것보다 뛰어났다.”라 하였다. 임금이 용만(龍灣)으로 행차하면서 갑자기 묻기를 “하경남은 어디 있느냐?”라 하여 급히 불러서 선봉으로 삼았으니, 관심을 입음이 이와 같았다.

● 성여충(成汝忠)

成汝忠昌寧人天性忠孝 宣廟西播以參奉不避艱險始終扈 駕蒙原從勳錄

성여충(成汝忠)은 창녕인이니 천성이 충효스러웠다. 선조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니 참봉(參奉)으로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을 호위하여 원종훈록(原從勳錄)을 입었다.

● 하공헌(河公獻)

河公獻字希可號新塘大司諫潔后也天性忠孝事親盡志體之養送終以禮守墓終制兄弟四人同居一室人無間言鄉里以孝友君子稱之當龍蛇之亂痛君父播遷爲文佈告域內率家僮百餘人入圍城中城將陷吟一絕詩曰聖朝恩澤厚覆燾莫非仁義有熊魚辨書生殉此身遂與諸公同殉于臺石城有實記刊行

하공헌(河公獻)의 지는 희가(希可)요 호는 신당(新塘)이니 대사간(大司諫) 결(潔)의 후손이다. 천성이 충효하여 어머니를 섬김에 몸과 마음으로 봉양을 다하였고, 부모의 상에 예로써 하였으며 묘를 지킴에 법도로서 마쳤다. 형제 네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더니, 사람들의 이간하는 말이 없어 마을에서 효우 군자로 일컬었다. 용사(龍蛇:임진 계사)의 난을 당하여 임금의 파천을 통탄하여 글을 지어 성내에 포고케 하고, 하인 100여 명을 거

느리고 포위된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이 장차 함락되려 하자 절구시 한 수를 읊어 이르기 “임금의 은택이 두터운데 덮고 비취춤에 인이 아닌 것이 없었도다. 의로서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이 있어야 할지니, 서생이 여기 이 몸을 바치리라”라 하고 드디어 여러 사람과 함께 축성성에서 순절하였다. ‘실기’를 간행했다.

● 문할(文劼)

文劼字子慎號醒狂南平人己卯中進士壬辰倡義旅於晉州丁酉出陣于河東蟾津戊戌卒于軍中蒙宣武原從勳

문할(文劼)의 자는 자신(子慎)이요 호는 성광(醒狂)이니 남평인이다. 을묘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임진년에 진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정유년에 하동(河東) 섬진(蟾津)에 출진(出陣)하였다가, 무술년에 군중에서 죽으니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을 입었다.

● 이번(李蕃)

李蕃初名純勛字士英號南溪官禁府都事生而異凡兒慷慨有大節及壬辰之亂與弟蕢從弟弘勛從忘憂堂郭公于火旺山城又從忠武李公軍于海多著勞績

이번(李蕃)의 초명은 순훈(純勳)이요 자는 사영(士英)이며, 호는 남계(南溪)요 벼슬은 금부도사(禁府都事)였다. 나면서부터 다른 아이와 달랐고 강개하여 큰 절조가 있더니, 임진란에는 아우 이분(李蕢)과 종제 이홍훈(李弘勳)과 망우당(忘憂堂) 곽공(郭公)을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들어갔고, 또 충무 이공(忠武 李公)을 따라 바다에서 싸워서 공적을 많이 나타내었다.

● 박흥주(朴興宙)

朴興宙咸陽人恥菴忠佐之后也嘗從成浮查汝信遊 萬曆乙酉進士遭壬亂見忠勇將軍金德齡被誣就拘致書于梧里李相國辨其冤舉義至昌原舊內城遇賊殉節弟興宅招魂而葬

박흥주(朴興宙)는 함양인이니 치암(恥菴) 박충좌(朴忠佐)의 후손이다. 일찍이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을 따라 공부했고, 만력 을유년(선조18, 1585)에 진사가 되었다.

임란에 충용장군(忠勇將軍) 김덕령(金德齡)이 무함(誣陷)을 입어 구치되는 것을 보고 글을 오리(梧里) 이상국(李相國)에게 보내어 그 원통함을 변명하였고, 의병을 일으켜 창원(昌原)의 옛 내성에서 적을 만나 순절하니 아우 흥택(興宅)이 혼을 불러 장사지냈다.

● 이희복(李希福)

李希福李英泗川人 宣廟壬辰勤 王有軍功錄宣武原從功三等勳英官訓練院僉正
이희복(李希福)과 이영(李英) 모두 사천인이니 선조 임진년 근왕으로 군공이 있어 선무원종공 3등(宣武原從功 三等)에 기록되고, 이영은 벼슬이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에 이르렀다.

● 정존극(鄭存極)

鄭存極晉陽人 恭戴公陟后壬辰與弟明極倡起白徒以赴國艱其父慶良戒之曰若輩勿以我爲念抗亂樹勳以副汝父之望車院之役明極中丸而死存極官至主簿明極官至佐郎并拜錄二等勳

정존극(鄭存極)은 진양인이니 공대공(恭戴公) 정척(鄭陟)의 후손이다. 임진년에 아우 명극(明極)과 의병을 일으켜 국난에 달려가니 그의 아버지 경량(慶良)이 훈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나를 염려하지 말고 난을 이기어 공을 세워 너 아버지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라.”라 하였다. 차원(車院)의 싸움에서 명극(明極)이 탄환에 맞아 죽고, 존극(存極)은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고, 명극은 벼슬이 좌랑(佐郎)에 이르러 함께 이등훈(二等勳)을 기록하였다.

● 정대보(鄭大譜)

鄭大譜晉陽人有萬夫之勇壬辰從判官金時敏贊劃軍務癸巳城陷死之 贈戶曹參判錄原從勳

정대보(鄭大譜)는 진양인이니 장부 만 명의 용맹을 가졌다. 임진년에 판관(判官) 김시민(金時敏)을 따라 군무를 찬획(贊劃)하다가 계사년에 성이 함락되어 죽으니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추증하고 원종훈(原從勳)을 기록하였다.

● 김개(金介)

金介字執中慶州人倡義從軍謂其孫德連曰不死王事豈人臣之道乎癸巳祖孫同時殉節祖孫俱 贈崇秩錄宣武原從功臣

김개(金介)의 자는 집행(執中)이요 경주인이다. 창의하여 종군함에 그 손자 덕연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라 일에 죽지 못하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느냐?”라 하였다. 계사년에 조손이 동시에 순절하고, 조손이 함께 높은 관직을 추증받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기록되었다.

● 정광윤(鄭光胤)

鄭光胤字錫初晉陽人壬辰與其孫悅起義旅討賊癸巳城陷光胤先死悅思復祖讐奮身突戰亦被丸死光胤 贈判官悅 贈部將錄宣武原從二等勳

정광윤(鄭光胤)의 자는 석초(錫初)요 진양인이다. 임진란에 그의 손자 열(悅)과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다가, 계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광윤이 먼저 죽었다. 열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 몸을 떨치어 돌진하다가 또한 탄환에 맞아 죽으니, 광윤은 판관(判官)을 증직하고, 열은 부장을 추증하여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二等)의 공훈을 기록하였다.

● 정립(鄭嶽)

鄭嶽字汝信孝子慶良孫壬辰之亂倡起義旅累立奇功官至副司直錄宣武原從二等勳

정립(鄭嶽)의 자는 여신(汝信)이요 효자 경량(慶良)의 손자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공을 세우고, 벼슬이 부사직(副司直)에 이르렀으며, 선무원종(宣武原從) 2등의 공훈을 기록하였다.

● 강탁(姜倬)

姜倬晉陽人守軒叔卿之后壬辰之亂以禮賓主簿扈 駕入龍灣載原從勳錄

강탁(姜倬)은 진양인이니 수헌(守軒) 강숙경(姜叔卿)의 후예다. 임진란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로서 임금의 수레를 지키어 용만(龍灣)에 들어갔다. 원종훈록(原從勳錄)에

실렸다.

● 변연수(卞延壽)

卞延壽八溪人壬辰之亂與其子岄倡起義旅從忠武公李舜臣累立軍功丁酉唐浦之役父子同日殉節 高宗癸巳因多士上言延壽 贈兵曹判書岄 贈左承旨并命旌勉菴崔益鉉撰閭記

변연수(卞延壽)는 팔계인이다. 임진왜란에 그 아들 변림(卞岄)과 의병을 일으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여러 번 공을 세웠다. 정유년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부자가 같은 날 순절하였다. 고종 계사년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려 연수는 병조판서를 추증하고 립은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고 함께 정려(旌閭)를 세우라고 명하였다.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이 기문을 지었다.

● 강희수(姜希秀)

姜希秀通亭淮伯后與子起源父子赴亂多有戰功錄宣武原從勳

강희수(姜希秀)는 통정(通亭) 강희백(姜淮伯)의 후손이다. 아들 기원(起源)과 부자가 난에 나갔다가 많이 전공을 세우니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을 기록하였다.

● 이우춘(李遇春)

李遇春巴山人梅軒仁亨曾孫壬辰亂與弟得春成春倡起義旅遇春以進士陞僉正成春以進士陞判官成春子檣陪父赴戰累立奇功拜并錄宣武原從勳

이우춘(李遇春)은 과산인이니 매헌(梅軒) 이인형(李仁亨)의 증손이다. 임진란에 아우 득춘(得春) 성춘(成春)과 의병을 일으켰더니, 우춘은 진사로서 첨정(僉正)에 올랐고, 성춘은 진사로서 판관(判官)에 올랐으며, 성춘의 아들 이장(李檣)은 아버지를 모시고 싸움에 달려가 여러 번 공을 세워 모두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에 기록되었다.

● 정훈(鄭勛)

鄭勛晉陽人判決事惟誠子壬辰亂參宣武原從勳除主簿

정훈(鄭勛)은 진양인이니 판결사(判決事) 정유성(鄭惟誠)의 아들이다. 임진란에 참전하여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에 등재되었고, 주부(主簿)에 제수되었다.

● 안흥중(安興琮)

安興琮順興人一思齋昌廉孫慷慨有大節進士官參奉 宣廟壬辰亂與李進士藝舉義討敵殉於蠹城子奉事憲丁酉亂思報父讐從李忠武公討賊累立軍功殉露梁并錄勳子孫設壇祭之參判盧光斗撰記

안흥중(安興琮)은 순흥인이니 일사재(一思齋) 안창렴(安昌廉)의 손자다. 강개하여 절조가 있었고, 진사에 올라 벼슬이 참봉이더니 선조 임진란에 이진사(李進士) 운(雲)과의 병을 일으켜 적을 치다가 축석성에서 순절하였다. 아들 봉사(奉事) 헌(憲)은 정유란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이충무공(李忠武公)을 따라 적을 쳐서 여러 번 군공을 세우고, 노량(露梁)에서 순절하니 모두 공훈에 기록되었다. 뒤에 자손들이 단(壇)을 만들어 제사지낸다. 참판(參判) 노광두(盧光斗)가 기문을 지었다.

● 박세항(朴世項)

朴世項字元亮密陽人忠孝清儉膂力絕倫守門將龍蛇之亂提尺劍赴蠹陣城陷而死錄宣武原從勳

박세항(朴世項)의 자는 원량(元亮)이요, 밀양인이다. 충효스럽고 청렴 검소하며 체력이 절륜하더니, 수문장(守門將)으로 용사란(龍蛇亂)에 칼을 잡고 축석진(蠹石陣)에 달려 갔다가, 성이 함락됨에 죽었다.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에 기록되었다.

● 김봉승(金鳳承)

金鳳承宣武功臣俊民子癸巳父死之鳳承有復讐之丁酉聚衆數百屢戰于鉢峙敵敗走鳳承亦中鎗幾死焉州人舉忠孝累籲主簿

김봉승(金鳳承)은 선무공신(宣武功臣) 김준민(金俊民)의 아들이다. 계사년에 아버지가 죽으니, 봉승이 원수 갚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유년에 무리 수 백 명을 거느리고 발치(鉢峙)에서 여러 번 싸워서 적을 패주시켰으나, 봉승도 또한 창에 맞아 거의 죽을 뻔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충효함을 들어 여러 번 주부(主簿)에 호소하였다.

● 논개(論介)

論介本營妓也癸巳城陷抱敵將于巖上投江而死後人名其巖曰義巖因帥臣 啓聞命 旌閭享義妓祠

논개(論介)는 진주의 기생이니 계사년에 성이 함락됨에 적장을 바위 위에서 안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후인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이르고, 병사(兵使)로 하여금 조정에 알려서 정려(旌閭)를 명령하고 ‘의기사(義妓祠)’에 제사지냈다.

● 정호신(鄭虎臣)

鄭虎臣字勇仁晉州人武科司勇光海戊午西宮之變不參廷請事載廷請不參錄

정호신(鄭虎臣)의 자는 용인(勇仁)이요 진주인이다. 무과에 올라 사용(司勇)이 되었는데, 광해(光海) 무오년에 서궁(西宮)의 변이 있음에 정청(廷請)에 불참하였다. 이 일이 『정청불참록(廷請不參錄)』에 실려 있다.

● 정계남(鄭癸男)

鄭癸男字君一晉州人司果 仁廟癸亥從諸公參靖社勳甲子适亂又參振武勳 賜恩結

정계남(鄭癸男)의 자는 군일(君一)이요 진주인이며 사과(司果)였다. 인조 계해년에 여러 사람들과 인조반정에 참여하였고, 갑자년에 이괄(李适)의 난에도 참여하여 무훈을 떨쳤으니 임금(恩結)을 내렸다.

● 주인달(朱仁達)

朱仁達武烈公夢龍子武科錄振武原從勳

주인달(朱仁達)은 무열공(武烈公) 주몽룡(朱夢龍)의 아들이니 무과에 올라 진무원종록(振武原從勳)에 기록되었다.

● 정몽작(鄭夢綽)

鄭夢綽字確如晉州人宣傳丙子扈 駕南漢隸守東門盡忠死節

정몽작(鄭夢綽)의 자는 확여(確如)요 진주인이며 벼슬은 선전(宣傳)이었다. 병자년에 어가(御駕)를 남한산성에 호종하고, 동문을 맡아 지키다가 충신의 사절(死節)을 다하였다.

●문재자(文在茲)

文在茲字得汝進士弘運子丙子亂倡義兵監司沈演檄召公以自隨及右兵使敗假公以節收合散亡後朝廷再除宣傳不就

문재자(文在茲)의 자는 득여(得汝)요 진사(進士) 문홍운(文弘運)의 아들이다. 병자호란에 의병을 일으키니, 감사(監司) 심연(沈演)이 격문으로 공을 부르자 스스로 따랐고, 우병사(右兵使)가 패하자 임시 직책을 맡아 충절을 지키어 흩어지는 군사를 수습하였다. 뒤에 조정에서 재차 선전관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대유(河大猷)

河大猷字夢徵自號不憂堂氣宇卓犖善騎射 英廟戊申之亂以宣傳官討賊連捷拜副護軍錄二等勳 賜銀弓玉矢

하대유(河大猷)의 자는 몽징(夢徵)이요 호를 불우당(不憂堂)이라 하였다. 기상이 매우 뛰어나고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더니, 영조 무신란(戊申亂)에 선전관으로 적을 쳐서 여러 번 이겼다. 조정에서 부호군(副護軍)을 제수하고 2등 공훈을 기록하며 은궁(銀弓)과 옥시(玉矢)을 내렸다.

●문응익(文應翼)

文應翼字翼卿南平人戊申亂見兵使畏賊不進公拔劍而前請進兵討賊後繡衣朴文秀啓除禁衛營別軍官不就載揚武錄卷

문응익(文應翼)의 자는 익경(翼卿)이요 남평인이다. 무신란에 병사(兵使)가 적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공이 칼을 빼어들고 앞서기를 청하여 군사를 나아가게 함으로서 적이 토멸되었다. 뒤에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가 포창하기를 임금께

아뢰어 어영군(禁衛營) 별군관(別軍官)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양무록 권(揚武錄券)』에 실려 있다.

● 허당(許鎧)

許鎧字大應金海人天性忠義卓傑多武略 英廟丁巳登武科嘗娶曹聖左妹輿希亮爲友壻見兩人所行多僭遂收其往來文字與之絕及戊申兩賊皆叛 卽率家僮數百至陝川境聞叛賊已授首投策而歸人咸服其雅識

허당(許鎧)의 자는 대응(大應)이요, 김해인이다. 천성이 충의스럽고 뛰어나게 무략(武略)이 많더니, 영조 정사년에 무과에 올랐다. 일찍이 조성좌(曹聖左)의 누이동생을 맞아 서 아내로 삼고 희량(希亮)과 벗을 삼았더니, 이 두 사람의 소행이 참람된 일이 많은 것을 보고, 드디어 왕래하는 문자를 거두고 절교하였다. 무신년에 두 적이 모두 모반하기에 즉시 가노 수백명을 거느리고 합천(陝川) 경계에 이르러 반적(叛賊)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채찍을 던지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아량과 식견에 감복하였다.

● 한필세(韓弼世)

韓弼世字佑卿武科主簿參揚武原從勳 贈兵曹參議

한필세(韓弼世)의 자는 우경(佑卿)이다. 무과에 올라 주부(主簿)였더니 양무원종훈(揚武原從勳)에 참여하고,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하였다.

● 정일진(鄭日晉)

鄭日晉晉陽人英廟戊申錄揚武原從功臣 贈嘉善同知中樞府事

정일진(鄭日晉)은 진양인이다. 영조 무신년에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에 기록되고, 가선(嘉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추증하였다.

● 김필만(金弼晩)

金弼晩金海人英廟戊申之亂與其從弟弼樂從子汝三招集鄉軍渡南江作誓文從營將李碩福及隣近諸守宰分道挾擊竟殉于軍中錄揚武原從勳 高宗庚寅弼晩弼樂汝三俱

有贈職命旌閭復其戶

김필만(金弼晩)은 김해인이다. 영조 무신란에 그의 종제 필락(弼樂)과 조카 여삼(汝三)과 향군(鄉軍)을 불러 모아 남강을 건너 서문(誓文)을 만들고, 영장(營將) 이석복(李碩福)과 인근의 여러 고을원을 따라 길을 나누어 협공하다가 마침내 군중에서 순절하니, 양무원종훈(揚武原從勳)에 기록되었다. 뒤에 고종 경인년에 필만, 필락, 여삼 모두에게 함께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고 호(戶)를 회복시켰다.

● 김중석(金重錫)

金重錫金海人早事弓馬熟諳韜略 英廟戊申仗劍赴右營將李碩福陣竟中丸死錄揚武原從二等勳 贈參判

김중석(金重錫)은 김해인이다. 일찍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를 일삼고, 병법을 익혀 외우더니, 영조 무신년에 칼을 잡고 우영장(右營將) 이석복(李碩福)의 진(陣)에 달려갔다가 마침내 탄환을 맞고 죽으니, 양무원종 2등훈(揚武原從二等勳)에 기록되고 참판(參判)을 증직하였다.

● 김상건(金尙建)

金尙建慶州人介之五世孫也 英廟戊申之亂挺身赴義死於陣中 哲宗丙戌有 贈職

김상건(金尙建)은 경주인이니 개지(介之)의 5세손이다. 영조 무신란에 몸을 던져 정의 위해 달려갔다가 진중에서 죽으니 철종 병술년에 증직이 있었다.

● 김중철(金重哲)

金重哲字士浩金海人節孝克一后孝行純備勇略絕倫 英廟戊申亂從本州營將李碩福昆陽郡守禹夏亨討賊多樹奇功賊平口不言功歸老林泉後因士林呈狀 贈司僕寺正高宗戊寅贈左承旨 命旌閭直閣宋奎煥撰閭記

김중철(金重哲)의 자는 사호(士浩)요 김해인이니 절효(節孝) 극일(克一)의 후손이다. 효행이 순수함을 갖추고 용맹과 지략이 절륜하더니, 영조 무신란에 고을의 영장(營將) 이석복(李碩福)과 곤양군수(昆陽郡守) 우하형(禹夏亨)을 따라 적을 쳐서 공을 많이 세웠

다. 적이 평정되자 그는 입을 닫고 공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 왔더니, 뒷날 사림의 정장(呈狀)으로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증직했다가, 고종 무인년에 우승지(左承旨)를 추증하고, 정려를 명령하였으며 직각(直閣) 송규환(宋奎煥)이 려기(閭記)를 지었다.

● 강희주(姜熙周)

姜熙周字周伯守軒叔卿后勇力過人戊申變倡義從昆陽郡守禹夏亨討賊錄原從勳除折衝

강희주(姜熙周)의 자는 주백(周伯)이니 수현(守軒) 강숙경(姜叔卿)의 후손이다.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더니 무신의 변에 의병을 일으켜서 곤양군수 우하형과 따라 적을 쳤다.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고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제수하였다.

● 김희창(金淮昌)

金淮昌字君舉慶山人 英廟戊申領軍赴居昌戰死參揚武原從勳子聖澄姪德徵俱以功贈官

김희창(金淮昌)의 자는 군거(君舉)요 경산인이다. 영조 무신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거창(居昌)으로 달려가서, 싸우다가 죽으니 양무원종훈(揚武原從勳)으로 기록되고 아들 성징(聖澄)과 조카 덕징(德徵)도 모두 공으로써 벼슬을 받았다.

● 허치(許穉)

許穉字汝孺陽川人贈執義仁祖丙子之亂以地部郎兼元戎從事扈駕南漢中殉節也旌閭其后孫自忠州移來於山淸郡丹城面台沼里華藏山下德川江之上

허치(許穉)의 자는 여유(汝孺)요 양천인이며, 집의공(執義公)으로 추증되었다. 인조 병자년(1636, 병자호란)에 호조(戶曹) 낭관(郎官)으로 원용종사(元戎從事)를 겸하게 되어서, 남한산성에 인조임금을 호위 하던 중 순절하였다. 정려를 내렸다. 그의 후손은 충주(忠州)에서 산청군 단성면 태소리 화장산 아래 덕천강변으로 옮겨왔다.

효행(孝行)

신라(新羅)

● 성각(聖覺)

聖覺自號居士依止一利縣法定寺後歸家養母至孝母老病割股食之及死至誠襄事惠恭王賜租三百石(見勝覽)

성각(聖覺)의 자호를 거사(居士)라 하고 일리현(一利縣)의 법정사(法定寺)에 의지하다가, 뒤에 귀가하여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늙어 병드니 다리의 살을 베어 먹였고, 죽기에 이르러서는 지성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에 혜공왕(惠恭王)이 벼 삼백석을 하사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고려(高麗)

● 정유(鄭愈)

鄭愈鄭慙並知善州事任德之子恭愍朝從父戍河東郡倭兵乘夜猝至衆皆逃走任德病不能騎馬兄弟扶擁而走賊追及之愈騎馬射殺數人賊不敢前有一賊奮劔突進刺任德頰慙以身自蔽之且斬四人任德得免慙竟歿於賊事聞授愈宗簿丞(見勝覽)

정유(鄭愈)와 정손(鄭慙) 두 사람은 모두 지선주사(知善州事) 정임덕(鄭任德)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에 아버지를 따라 하동군을 지키더니, 왜병이 밤을 타서 갑자기 달려올 때 많은 무리들은 모두 도망쳐 달아났으나, 정임덕은 병이 들어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이에 두 형제가 붙들어 끼고 달리는데, 적이 추급해왔다. 정유가 말에서 수명을 쏘아 죽이니 적이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적 중에 한 놈이 칼을 휘두르면서 돌진해서 임덕의 뺨을 찌르니, 정손이 몸으로써 스스로 가리워 막고, 또 네 명의 적을 베었다. 이로써 정임덕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정손은 결국 적에게 죽임을 당하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유에게 종부승(宗簿丞)을 제수하였다. (승람에 보인다.)

● 강안명(姜安命)

姜安命天性至孝父母每與隣老置酒自娛安命與妻盡力供辦未嘗有難色親歿哀毀過禮事死如事生洪武庚午旌閭(見勝覽)

강안명(姜安命)의 천성은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부모가 매양 이웃 노인과 술을 두고 스스로 즐거워하므로 안명은 아내와 함께 힘을 다하여 마련하고, 이바지하여 일찍이 한 번도 난색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니 애휼하기를, 예에 지나쳤고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였다. 홍무(洪武) 경오년(공양왕 2, 1390)에 정려하였다.(승람에 보인다.)

● 하현부(河玄夫)

河玄夫仕爲司直爲九十歲母嘗糞吮腫居父母憂六年(見勝覽)

하현부(河玄夫)는 벼슬이 사직(司直)에 이르렀더니 90세가 된 어머니를 위하여, 똥을 맛보고 종기를 빨았으며,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6년 동안 상을 입었다.(승람에 보인다.)

● 여효제(余孝悌)

余孝悌性至孝嘗竭力事親母死居廬三年一日烏含香案上沙杯而去孝悌歎曰烏雖微物實有反哺之德予之孝心曾烏之不若故致此舍去深自痛傷夢有老父曰勿哀三日必得及期烏復舍置案上聞者皆以爲誠孝所感事聞旌閭(見勝覽)

여효제(余孝悌)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아버이를 섬겼다. 어머니가 돌아가니 여막을 3년 동안 지키더니, 어느날 까마귀가 향로 상 위에 있는 사배(沙杯)를 물고 갔다. 여효제가 탄식하기를 “까마귀는 비록 미물일지라도 실은 반포의 덕이 있나니 나의 효심이 일찍 까마귀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물고 가게 된 것일 것이다.”라 하고 깊이 스스로 애석하였다. 이때 꿈에 노부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슬퍼하지 말라, 3일이 지나면 반드시 얻어질 것이다.”라 하더니 기약한 날이 되기에 이르러 까마귀가 다시 물고 와서 향안 위에 놓고 갔다. 듣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정성에 감동된 것이다.”라 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승람에 보인다.)

조선(朝鮮)

● 모순(牟恂)

牟恂 世宗朝登第官至左司諫嘗吮母腫而愈後母又病嘗糞事聞旌閭(見勝覽)

모순(牟恂)은 세종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사간(左司諫)에 이르렀더니,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서 낫게 하였고, 또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똥을 맛보았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승람에 보인다.)

● 군만(君萬)

君萬優人也其父夜被虎搏君萬呼天待朝挾弓矢入山虎食之盡負岬視君萬哮吼而前吐所食支節君萬一箭之遂拔劔剖其腹盡收遺骸遂焚而葬之(見勝覽)

군만(君萬)은 광대이다. 그 아버지가 밤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더니, 군만이 하늘에 울부짖고 아침에 되기를 기다렸다가, 활과 활촉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니, 범이 먹기를 다하고 양지 바른 곳에 등을 지고 있다가 군만을 보고 으렁거리면서 앞에 먹은 사지를 토하였다. 군만이 화살 하나로 쏘아 죽이고, 칼을 뽑아 그 배를 갈라서 남은 뼈를 다 거두어 태워서 장사지냈다. (승람에 보인다.)

● 득비(得妣)

得妣其父金繼南得癩疾四年不差得妣聞生人骨肉可療自斷其左手第四指餌之其病遂愈成化八年旌閭(見勝覽)

득비(得妣)는 그 아버지 김계남(金繼南)이 간질병에 걸려 4년이 되어도 낫지 않으니, 득비가 산 사람의 뼈와 살을 먹으면 낫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의 왼쪽 손 넷째 손가락을 잘라 먹었다. 이로써 드디어 그 병이 낫으니 성화(成化) 8년(성종3, 1472)에 정려되었다. (승람에 보인다.)

● 김백산(金白山)

金白山年十六父爲虎所攬白山揮鎌擊虎父得免 成宗九年旌閭(見勝覽)

김백산(金白山)은 열여섯 살에 아버지가 범에게 물려가니, 백산이 낮을 휘둘러 범을 쳐서 아버지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성종 9년에 정려되었다.(승람에 보인다.)

● 박인(朴胤)

朴胤字子馥泰安人誠孝出天常以儒行持身當燕山時短喪法嚴公獨廬墓終制及中廟朝事聞有篤守彝倫不畏鈇鉞之褒因命旌閭(見勝覽居末洞)

박인(朴胤)의 자는 자복(子馥)이요 태안인이다. 효성이 출천(出天)하였고 항상 유행(儒行)으로써 몸을 가지더니, 연산(燕山)의 시절을 당하여 단상법(短喪法)을 엄하게 실시하였으나 공은 홀로 여묘에서 예제(禮制)를 마쳤다. 중종조에 이르러 일이 알려졌더니 “윤리를 돈독하게 지키고 중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포장(褒獎)이 있었고 이어 정려를 명령하였다.(승람에 보이며 말동에 살았다.)

● 강응태(姜應台)

姜應台字大臨嘉靖壬辰登別科由翰林歷敷清顯年纔十餘歲父得惡疾斷指和藥以進病愈又服中仁兩廟喪忠孝俱盡事聞旌閭(見勝覽居琴山)

강응태(姜應台)의 자는 대임(大臨)이다. 가정(嘉靖) 임진년에 별과에 올라 한림(翰林)을 거쳐서 청현(淸顯)을 두루 지냈다. 나이 겨우 십 여세에 아버지가 모진 병에 걸렸더니, 손가락을 끊어서 약에 타서 드리어 병이 나았다. 또 중종과 인종의 상을 입으니, 충과 효를 함께 다했으므로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승람에 보이며 금산에 살았다.)

● 정묵(鄭默)

鄭默前朝時以司正守墓于大洞三年一不到家事聞旌閭

정묵(鄭默)은 고려때 사정(司正)을 지냈더니, 묘를 대동(大洞)에서 지키어 삼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아니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신상용(申尙容)

申尙容淳昌士人也自湖南移居于德山爲人愷悌誠孝出天遭父喪餵粥三年晝夜血泣以至喪明事聞旌閭

신상용(申尙容)은 순창(淳昌)의 선비니, 호남에서 옮겨와서 덕산에 살았다. 사람됨이 부드럽고 공손하여 효성이 하늘이 내더니, 부 상에 죽을 3년 동안 마시고, 밤낮으로 피눈물로 울어서 실명(失明)에 이르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이경훈(李敬訓)

李敬訓參奉逸民之子父病風一足不仁常時孝養備至癸巳之亂背負匿山搜山之敵猝至欲害其父以身翼蔽賊並殺之事聞旌閭(居代如村)

이경훈(李敬訓)은 참봉(參奉) 이일민(李逸民)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중풍을 앓아서 한쪽 발이 마비되더니, 언제나 효도로 봉양함이 지극히 갖추었다. 계사의 난에 아버지를 업고 산에 숨었더니, 산을 뒤흔던 적이 갑자기 닥쳐와서 그 아버지를 해치고자 하므로 몸으로써 덮었으나 적이 함께 죽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 되었다.(대여촌에 살았다.)

● 윤사관(尹思寬)

尹思寬部將春蘭之子也其家失火老母在房未出思寬直入烈火中負母而出爲烈焰所射母子俱死事聞旌閭(居代如村)

윤사관(尹思寬)은 부장(部將) 윤춘란(尹春蘭)의 아들이다. 그 집에 실화되어 불이 나서 노모가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였더니, 사관이 불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업고 나오다가 불꽃에 쏘여져서 모자가 함께 죽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대여촌에 살았다.)

● 김태현(金台鉉)

訓導金台鉉家貧奉親必具甘旨年老遭喪哀毀踰禮不食菜果餵粥三年(居清源里以下皆未旌閭)

훈도(訓導) 김태현(金台鉉)은 집이 가난하였으나 어버이를 봉양함에 있어 반드시 맛

난 음식을 갖추었고, 나이 늙어 상을 당했더니 애휼함에 예를 넘어 채소와 과실을 먹지 않고 3년 동안 죽을 마셨다.(청원리에 살았다.이하는 모두 정려되지 못하였다.)

● 성두년(成斗年)

贈右尹成斗年字樞之昌寧人校理安重之孫日休之子性至孝事親之禮必取法於古人定省無闕甘旨有裕愉聲和色務悅其心志及其居喪也哭泣哀毀幾至滅性親執祭物極其精潔有新物則雖菜果之微必先薦而後食前後喪皆就墓側守廬事庶母如事親母愛庶弟如愛同腹庶弟四人以公賤皆服賤役公克贖其身咸得從良鄉里善之(居代如村)

증우윤(贈右尹) 성두년(成斗年)의 자는 추지(樞之)요 창녕인이며, 교리(校理) 성안중(成安重)의 손자요 성일휴(成日休)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이를 섬기는 예는 반드시 법을 고인(古人)에게서 취하였고, 혼정신성(昏定晨省)을 빠뜨리는 일이 없었으며 맛난 음식을 넉넉하게 하였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얼굴빛을 옹화하게 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힘썼다. 그가 상주 노릇함에 이르러서는 곡읍하고 애휼하여 거의 실신에 이르렀고, 친히 제물을 마련하되 정성을 다하였다.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비록 적은 채소나 과일일지라도 먼저 올리고난 뒤에 먹었다. 전후 상에는 모두 묘의 곁으로 나아가서 여막을 지켰고, 서모 섬기기를 친어머니를 섬기듯 하였으며, 서제(庶弟)를 사랑하기를 친 형제와 같이 하였다. 서제 4인이 공천(公賤)으로써 모두 천역에 종사하니, 공이 그 몸을 속(贖)받아 함께 양인이 되게 하니, 고을에서 이를 착하게 여겼다.(대여촌에 살았다.)

● 강열(姜冽)

司直姜冽孝子應台之子也孝友出天不墜家聲奉祭祀以誠養親以禮析箸在三里許而不違定省雖大風大雨祁寒盛暑早來暮還一日無曠鄉人莫不歎服(居晋城里)

사직(司直) 강열(姜冽)은 효자 강응태의 아들이다. 효우가 출천하여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를 받들 때는 정성으로써 하였고, 아버이를 섬길 때는 예로써 하였다. 분가한 곳이 삼리쯤에 있었는데도 혼정신성(昏定晨省)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큰 바람이나 큰 비가 있거나 심한 추위와 더위에도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늦게 돌

아갔다. 이러기를 하루도 비우지 아니하니 고을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진성리에 살았다.)

● 박안방(朴安邦)

贈左承旨朴安邦孝子胤之孫也友於兄弟分財時自取甚薄而其後又分與兄弟之窘乏者人以爲難(居末洞里)

증좌승지(贈左承旨) 박안방(朴安邦)은 효자 박인(朴胤)의 손자다. 형제에게 우애가 매우 두터웠으니, 재산을 나눌 때는 자신은 매우 박한 것을 취하였고, 그 뒤에도 형제 중에 군색하고 모자라는 자에게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말동리에 살았다.)

● 박안실(朴安室)

幼學朴安室孝子胤之孫也常持小學一部律身無瑕丁父母喪餵粥悲哀晝夜常處殯側不脫衰麻朝夕致奠親自滌器執饌終始如一哭泣幾喪明祠堂儀度或不得如禮者爲之賣田助成且凡百處事必遵禮法無一事苟且(居末洞里)

유학(幼學) 박안실(朴安室)은 효자 박인(朴胤)의 손자다. 항상 『소학(小學)』 한 부를 가지고 몸의 법도로 삼아 조금도 하자가 없었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죽을 마시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였으며, 밤낮으로 항상 빈소 곁에 있으면서 상복을 벗지 아니 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제를 지낼 때는 친히 스스로 그릇을 씻고 반찬을 가지고 올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곡하고 우니 거의 실명(失明)이 되었다. 사당의 의도(儀度)에 혹 예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토지를 팔아서 조성하였고, 또 범백(凡百)의 처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예법을 따랐으며, 한 가지 일도 구차스러움이 없었다.(말동리에 살았다.)

● 정인평(鄭仁平)

生員鄭仁平縣監世昌之子也年老遭母喪哀毀餵粥其弟萬戶順平亦餵粥死於喪中(居晋城里)

생원(生員) 정인평(鄭仁平)은 현감(縣監) 정세창(鄭世昌)의 아들이다. 연로하여 모상

을 당하였더니, 애꿎히고 죽을 마셨으며 그 아우 만호(萬戶) 순평(順平)도 죽을 마시다가 상중에 죽었다.(진성리에 살았다.)

● 정혁(鄭赫)

幼學鄭赫進士大瀆之子母病轉劇斷指和藥以進(居上寺里)

유학(幼學) 정혁(鄭赫)은 진사 정대호(鄭大瀆)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병들어 점점 심해지니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올렸다.(상사리에 살았다.)

● 채충남(蔡忠男)

蔡忠男奉母至誠母病沐浴禱天及歿哀毀踰禮廬墓餒粥(居雪梅里)

채충남(蔡忠男)은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하더니 어머니가 병듦에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고, 돌아감에 이르러서는 애꿎함이 예를 넘었으며, 여묘에서 죽을 마셨다.(설매리에 살았다.)

● 모언수(牟彦壽)

牟彦壽孝子司諫恂之后也父母一時俱沒連服六年(居上寺里)

모언수(牟彦壽)는 사간 순(司諫 恂)의 후손이다. 부모가 일시에 함께 돌아감에 6년 동안 계속하여 상을 입었다.(상사리에 살았다.)

● 오인(吳仁)

吳仁其父得背腫幾死仁吮膿汁得差(居水谷里)

오인(吳仁)은 그 아버지가 등창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오인이 고름을 빨아서 낫게 하였다.(수곡리에 살았다.)

● 박호문(朴好問)

主簿朴好問母病斷指以進其病永差(居非羅谷里)

주부(主簿) 박호문(朴好問)은 어머니가 병듦에 손가락을 잘라서 드렸더니 그 병이 길

이 나왔다.(비라곡리에 살았다.)

● 정응진(鄭應軫)

幼學鄭應軫丁母憂餵粥三年奉祭祀以禮又服明廟喪三年(居大坪)

유학(幼學) 정응진(鄭應軫)은 어머니 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죽을 먹고, 제사를 모실 때는 예로써 하였다. 또 명종의 상을 3년 동안 입었다.(대평에 살았다.)

● 김명(金銘)

幼學金銘天性耿介親病斷指以進其病得差(居栢谷里)

유학(幼學) 김명(金銘)은 천성이 깨끗하였고, 아버지가 병중에 손가락을 잘라서 드리니 그 병이 나왔다.(백곡리에 살았다.)

● 이구정(李九鼎)

士人李九鼎丁父憂餵粥三年柴毀滅性(居栢谷里)

선비 이구정(李九鼎)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죽을 마셨고, 슬퍼하여 몸이 너무 쇠약해져 죽었다.(백곡리에 살았다.)

● 진인(陳寅)

陳寅字養初栢谷克敬之子也力學不怠志不在溫飽其母病劇斷指以進及遭喪一遵家禮三年之內家無尺僮逐日負石以築火城己丑禍起守愚堂被拿而去寅徒步至京城常立王獄門前無日不然及守愚見赦不辭南來者將以報喜於其親也孝友於一家誠篤於事賢而不幸早世惜哉(居栢谷里)

진인(陳寅)의 자는 양초(養初)요 백곡(栢谷) 진극경(陳克敬)의 아들이다. 배움을 힘써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뜻을 따듯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 심하게 됴에 손가락을 끊어서 바쳤고, 상을 당해서는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지켰으며, 3년 안에는 집에 한 사람의 종도 두지 않고, 날마다 돌을 짊어져 묘의 돌레를 쌓았다. 기축년의 화가 일어나서 수우당(守愚堂)이 잡히니, 진인은 걸어서 서울

에 이르러 늘 옥문(獄門) 앞에 서서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수우당이 사면되니 말하지 않고, 남쪽으로 온 것은 장차 기쁨을 그 아버지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 온 집안에 효우스러웠고 어진 이를 섬기기를 정성스럽고 돈독하게 하더니, 불행이도 요절하니 애석한 일이었다.(백곡리에 살았다.)

● 하항(河恒)

河恒字子徵生員魏寶之子也力學篤行孝於父母友於兄弟信於朋友而人無間言丁母憂居廬三年柴毀仍成羸疾卜地於松江上觀魚亭北百步許構精舍養花草以爲藏修養病之所名松岡精舍日從事於學問一以古人之道自期矣不幸早世人皆惜之(居丹池洞)

하항(河恒)의 자는 자징(子徵)이요 위보(魏寶)의 아들이다. 힘써 배우고 독실하게 행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스러웠으며, 붕우에 신의 있게 하니 사람들의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 상을 당해서는 여막에서 3년을 지나면서 시훼(柴毀)하여 이어 여위어지는 병을 얻었다. 터를 송강(松江) 관어정(觀魚亭)의 북쪽 백보뜸에 정사를 짓고, 화초를 기르면서 장수(藏修) 양병(養病)하는 장소로 삼아 송강정사(松岡精舍)라 이름하였다. 날마다 학문에 종사하되 한결같이 고인의 도로써 스스로 기약했다.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단지동에 살았다.)

● 성박(成鑄)

成鑄字而善進士汝信之子也萬曆庚戌中進士氣稟清秀孝友天性家貧奉養必盡滋味常以悅親爲事待朋友必以誠信非其義一介不以取諸人及其死遠近聞者咸曰善人逝矣莫不嗟悼嘗受學於李昌原滯昌原歿三年內不事遊宴凌虛朴敏礪銘曰家世剩馥吉士高風宅心仁恕處躬恬夷維其孝悌弗錄之基云(居代如村)

성박(成鑄)의 자는 이선(而善)이요 여신(汝信)의 아들이니 만력 경술년(광해군1, 1610)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품이 청수(淸秀)하고 효우스런 천성을 가졌으며, 집안이 가난한데도 아버지를 봉양함에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모두 드리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다. 또 친구를 대접하는 데는 반드시 정성과 신의로써 하였고, 의로운 것이 아니면 한낱도 남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죽기에 이르니 원근에 듣는 사

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인이 가셨다.”라 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일찍이 창원 부사(昌原府使)를 지낸 이정(李滸)에게서 수학하더니 이창원이 돌아감에 3년 안에는 잔치를 일삼지 아니하였다. 능허(凌虛) 박민(朴敏)이 찬한 묘갈명에 이르기를, “집안이 대대로 넉넉하고, 향기로워 좋은 선비의 고품이 깃들었네 마음을 인서(仁恕)로 정하였고, 몸은 고요하고 크게 처신했네, 그 효제는 복록(福錄)의 기틀이네”라 하였다. (대여촌에 살았다.)

● 강재명(姜在明)

幼學姜在明士人敏孝之子也其父病重斷指以盡其病即瘳不幸早世(居水谷)

유학(幼學) 강재명(姜在明)은 선비 강민효(姜敏孝)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병이 중함에 손가락을 끊어 드리어 그 병이 끝나갔다.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수곡에 살았다.)

● 이택민(李澤民)

李澤民字中全義人公清之子也爲人慷慨有操行嘗曰凡人祭器則不必鑰鐵爲之澠器則必以鑰鐵爲之於心未安遂以陶器爲澠器事母極其誠孝雖避難時流離忽遽之中必盡其禮人以爲難不幸早世人皆惜之(居代如村)

이택민(李澤民)의 자는 중전(中全)이요 전의인이니 공청(公淸)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강개하고 지조와 행실이 있더니, 일찍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들이 제기는 반드시 유철(鑰鐵)로 하지 아니하고, 요강은 반드시 유철로 하니 마음에 미안하다.”라 하고, 드디어 도기로써 요강으로 하였다. 어머니를 섬김에 있어서는 정성과 효성을 극진히 하였고, 비록 피난할 때에 유리(流離)하거나 혼란스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예를 다하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고,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대여촌에 살았다.)

● 정장단(鄭長丹)

保人鄭長丹與其母嘗擣夜砧母爲虎所攬以杵迫逐之遂得全(居省台洞)

보인(保人) 정장단(鄭長丹)은 그 어머니와 일찍이 밤중에 방아를 찧더니 어머니가 범에게 물러가게 됨에 절구 공이를 가지고 급히 쫓아가서 드디어 온전할 수 있었다.(성태동에 살았다.)

● 노개(盧介)

寺奴盧介奉父母以孝倭亂時負其母流乞以養及其喪葬亦竭其力過禫始食肉(居上寺里)

사노(寺奴) 노개(盧介)는 부모를 봉양함에 효도로써 하더니, 왜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업고 유리결식하여 봉양하였고, 그 장례에서도 또한 그 힘을 다하였으며, 삼년상을 다 마친 뒤에야 비로소 고기를 먹었다.(상사리에 살았다.)

● 스님 법장(法藏)

僧法藏俗名一千士人河克忠之子也性至孝在百泉寺交海上漁人得魚輒歸遺其母甘旨未嘗小廢晚居鼎村書齋爲其母入香徒契竭力營葬焉

스님 법장(法藏)은 속명(俗名)이 일천(一千)인데, 선비 하극충(河克忠)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백천사(百泉寺)에 살면서 해변의 어부들과 사귀어 고기를 얻어서는 즉시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일찍이 조금도 거르지 아니하였다. 늦게는 정촌서재(鼎村書齋)에 거처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하여 향도계(香徒契)에 들어 힘을 다하여 장사를 치렀다.

● 김걸(金乞)

內奴金乞當倭寇其母病重背負避走得全其母兩臂不仁早夕必舉匙以食之得珍羞新果輒懷之以歸遺與弟二人同居友愛篤至其孝友人皆服之(居省台洞)

내노(內奴) 김걸(金乞)은 왜구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병이 중하여 등에 업고 피하여 달려서 온전할 수 있었고, 그 어머니의 두 팔이 마비되었더니 조석으로 반드시 숟가락을 들어서 먹였다. 또 진귀한 음식이나 새로운 과실이 있으면, 문득 품에 감추어 가지고 와서 주었고, 아우 두 명과 함께 살더니 우애가 돈독하고 지극하니 그의 효성과 우애

에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성태동에 살았다.)

● 우생(禹生)

私奴禹生年五歲其父死哭泣悲哀如有識之人不食酒肉人或勸之則輒曰吾兄不食我何獨食隣人與飯稱以不潔不食終三年如一日年今九歲其母乃孝子朴胤之孽曾孫也其氣脈有自來矣(居末洞)

사노 우생(禹生)은 나이 다섯 살에 그 아버지가 죽으니 곡읍(哭泣)하고 슬퍼함이 유식한 사람과 같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혹 권하면 곧 말하기를, “우리 형이 먹지 않는데 나만 어찌 혼자 먹겠습니까?”라 하고 이웃 사람이 밥을 주면 불결하다고 하여 먹지 아니하였으며, 3년을 마치도록 하루같이 하여 나이 아홉 살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곧 효자 박인(朴胤)의 서얼 증손이니 그 기맥(氣脈)이 유래함이 있다.(말동에 살았다.)

● 고음동(古音同)

內奴古音同金乞弟母病在側須臾不離曰吾兄已死母病重出佗之間若有不幸恐爲終身恨也死後喪祭罄竭家財極盡其誠(居鳴石里)

궁궐의 노비 고음동(古音同)은 김걸(金乞)의 아우다. 그의 어머니가 병드니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형이 이미 죽고 어머니의 병이 중한데 출타한 사이에 만일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종신토록 한이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사후에는 상례와 제례에 재산을 다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명석리에 살았다.)

● 연상(延祥)

私奴延祥其弟汝祥被抄赴北精兵知其父最愛少子請以身代之以順父志及父死盡心喪葬撫恤其弟如父生時(居禿川里)

사노 연상(延祥)은 그의 아우 여상(汝祥)의 북쪽으로 정병(精兵)으로 뽑혔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고, 몸을 대신할 것을 청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상장(喪葬)에 마음을 다하였고,

그 아우 돌보기를 아버지의 생시와 같이 하였다.(독천리에 살았다.)

● 증음생(曾音生)

寺奴曾音生奉老母生養盡孝死葬盡誠隣里稱之(居沙竹里)

사노(寺奴) 증음생(曾音生)은 노모를 봉양함에 살아서는 효성을 다하였고 죽어서는 장사에 정성을 다하니 이웃과 마을이 칭찬하였다.(사죽리에 살았다.)

● 승남(勝男)

私奴勝男其父弓弩匠也隨父往伏弩處虎攬其父同行數十人皆避走獨挺身突至擊殺其虎父遂得免(居矢川里)

사노 승남(勝男)은 그 아버지가 궁노장(弓弩匠)이었던니 아버지를 따라 쇠뇌로 매복 하러 갔다가 범이 그 아버지를 덮침에 동행한 수 십 인은 모두 피하여 달아났으나 승남은 홀로 몸을 던져 급히 가서 그 범을 쳐서 죽였다. 이로써 아버지가 드디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시천리에 살았다.)

● 김수(金守)

私奴金守撫其弟甚至父母田庄盡與其弟曰吾有妻財可以自活一毫不取(居矢川里)

사노 김수(金守)는 그 아우 보살피기가 매우 지극하였으니 부모의 집과 논밭을 그 아우에게 다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처재(妻財)가 있으니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 하고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시천리에 살았다.)

● 하옥동(河玉洞)

鄉吏河玉洞性本誠孝事父母盡心父母亡後口不近腥羶之味以終身(居州內)

향리인 하옥동(河玉洞)은 성품이 본래 정성스럽고 효성스럽더니, 부모를 섬김에 마음을 다하였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다가 몸을 마쳤다.(주의 안에 살았다.)

● 하경휘(河鏡輝)

河鏡輝字公廓號梅軒喚醒齋洛子也萬曆己丑登司馬性至孝事親無違志當壬辰亂陪喚醒公赴尙州城纔到北門敵兵奄至喚醒齋呼公曰此吾死所也汝可速出以保家屬鏡輝曰大人辦死子獨生何歸號哭以身翼蔽敵刃左右手一時俱落父子同時併命敵曰此孝子也埋于城門之旁立木標之曰孝子尸事聞命旌其閭白軒李公景奭銘其墓曰父死於忠子死於孝惟忠有效永世是孝

하경휘(河鏡輝)의 자는 공곽(公廓)이요 호는 매헌(梅軒)이며, 환성재(喚醒齋) 하락(河洛)의 아들이니 만력(萬曆) 기축년(선조22, 1589)에 사마로 등과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아버지를 섬김에 뜻을 어기지 아니하더니, 임진란을 당하여 환성공(喚醒公)을 모시고 상주성(尙州城)으로 달려갈 때 겨우 북문에 이르렀을 때 적병이 갑자기 닥쳤다. 환성재가 공을 불러 말하기를,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다. 너는 빨리 나가서 가족들을 보호하라.” 하니 경휘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으려 하는데 자식이 홀로 살아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라 하고 호곡(號哭)하면서 몸으로 덮었다. 적의 칼날에 좌우의 손이 일시에 함께 떨어지고 부자가 동시에 목숨을 잃으니 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효자다”라 하고 성문 곁에 묻고 나무를 세워 표지하여 이르기를, “효자의 시체다.”라 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임금이 정려를 명령하였다.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그 묘에 새겨 이르기를, “아버지는 충에 죽고 아들은 효에 죽었으니, 오직 충이요 오직 효일지니 이는 대대로 교훈이로다.”라 하였다.

● 강함(姜涵)

姜涵字仲容天資粹美博通經史性至孝年九歲父戰歿哭踊頓絕執喪如成人甫十二歲母病網魚夜歸有虎避路積年侍湯殫誠竭力母臨絕曰吾死必屋上三呼表汝誠孝及效果然母嗜雉朔望必奠一日求不得方悶泣忽有飛雉入廬執以供奠 景宗三年 命旌閭

강함(姜涵)의 자는 중용(仲容)이니 자질이 순수하고,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였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나이 9세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으니, 울면서 뛰다가 갑자기 기절하였고, 상을 치름을 성인과 같이 하였다. 겨우 12세에 어머니가 병들어 물고기를 잡아서 밤에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길을 피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시탕하

며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았다. 어머니가 절명하기에 다달아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옥상(屋上)에서 세 번을 불러 너의 정성스런 효도를 표하리라.” 하더니 죽음에 이르니 과연 그렇게 하였다. 어머니가 꿩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삭망에는 반드시 올렸는데 어느 날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 바야흐로 걱정하면서 우니 홀연히 나르던 꿩이 여막에 들어오므로 잡아서 바쳤다. 경종 3년(1723)에 임금이 정려를 명령하였다.

● 하세희(河世熙)

河世熙字皞如松亭受一玄孫幼而孝愛十三丁父憂哀慼至而動止中禮州牧以孟宗泣筍爲題以課士公有一句曰人無再孟宗誰復泣冬筍侯臨考見之以爲孝子也遂起拜從河謙齋學刻意劬業尤精於禮學有儒林重望臨溪縛屋扁以石溪精舍讀書其中母久病衣不解帶飲噉視母爲節沐水祝天旣喪謹終事哭泣至頓絕及葬廬于墓側山深多猛虎晨夜哀省虎爲之護服闋不御華脆每值喪餘自遭疾日日啜粥悲哀公歿繡衣李以晚上其行 肅廟庚寅 命旌閭(舊在大覺書院前後孫監役載崑移建于土谷村前)

하세희(河世熙)의 자는 호여(皞如)니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의 현손이다. 어려서 부터 효도하고 우애 있더니 13세에 아버지 상을 당함에 애척(哀慼)함이 지극하였는데 행동거지는 예에 맞았다. 목사가 ‘맹종읍순(孟宗泣筍)’으로 제목을 삼아 선비에게 시험을 보이니 공이 한 구절에 이르기를, “사람으로 재차 맹종이 없는데 누가 다시 겨울철 죽순 찾아 올겠는가?”라 하였다. 목사가 임석하여 살펴보고 효자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일어나서 절하였다. 하겸재(河謙齋)에게 배우더니 단단히 마음먹고 학업에 힘썼으며 더욱이 예학에 정통하여 유림의 우러름이 있었다. 시냇가에 집을 짓고 편액을 석계정사(石溪精舍)라 하고, 그 가운데서 독서하였다. 어머니가 오래도록 병듦에 옷끈을 풀지 않고 마시고 먹는 것을 어머니에 맞추었다. 얼음을 깨고 목욕하여 하늘에 빌었다. 이미 상을 당하여서는 장례를 정성껏 치루었다. 곡읍하다가 돈절(頓絕)에 이르렀고 장사를 지내고서는 묘 곁에 여막을 짓고 모셨으며, 산이 깊어 맹호가 많았으며 새벽과 밤에 슬피하며, 살피는 것을 호랑이도 이를 지켰다. 복(服)을 마치고서도 화려한 옷이나 연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며, 매양 제사를 만나서는 슬피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공이 돌아가신 뒤에 암행어사 이이만(李以晩)이 그의 행적을 나라에 올리니, 숙종 경인년(1760)에 정려를

명령하였다.(정려가 옛날에는 대각서원 앞에 있었는데, 후손인 감독관 재곤(載崑)이 사곡촌 앞으로 옮겼다)

● 강민효(姜敏孝)

姜敏孝天性純孝父病斷指八歲喪母七十追喪餼粥 宣廟及大妃喪皆服三年 孝廟朝命旌閭

강민효(姜敏孝)의 천성은 순박하고 효성스러웠으며 아버지가 병드니 손가락을 끊었으며, 8세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70세에 추상(追喪)하고 죽을 마셨다. 그리고 선조 및 대비의 상에도 모두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효종 때 정려를 명령하였다.

● 한명석(韓命錫)

韓命錫字天賚號柳溪釣隱夢參之曾孫事親孝戊申逆變憂憤題詩曰老臣驚主辱敵愾願殉身以忠孝旌閭

한명석(韓命錫)의 자는 천뢰(天賚)요 호는 유계(柳溪)니 조은(釣隱) 한몽삼(韓夢參)의 증손이다.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더니 무신년 역적의 난에 근심과 울분으로 시를 써서 이르기를, “노신(老臣)이 임금이 욕된 것에 놀랐나니 적개 한 마음에 몸 바치기를 원합니다.”라 하니 충효로써 정려되었다.

● 정도동(鄭道東)

鄭道東字行之號慕濂齋學圃暄之后天性至孝居母喪廬于墓側終三年不進粥飯只以麥屑和水以飲而晨昏哭墓之後必省其父於越川數里之地雖隆冬盛寒未嘗或廢里人爲之成橋名之曰孝子橋又有玄鳥入樓其廬而生雛皆白事聞 命旌閭承旨慎性眞撰閭記

정도동(鄭道東)의 자는 행지(行之)요, 호는 모림재(慕濂齋)이니 학포(學圃) 정훤(鄭暄)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의 상중에 있을 때에 묘 곁에 여막을 짓고 3년을 마치도록 죽과 밥을 들지 않고, 다만 보리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묘에서 곡한 뒤에 반드시 내를 건너 몇리를 가서 아버지를 살폈다. 비록 겨울의 심한 추위일지라도, 일찍이 언제라도 폐하지 아니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다

리를 만들고 이름을 효자교(孝子橋)라 하였고, 또 검은 새가 그 여막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새끼를 낳으니, 모두 하얗게 되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임금(정려)을 명령하고, 승지(承旨) 신성진(愼性眞)이 정려기(旌閭記)를 지었다.

●한백기(韓伯琦)

韓伯琦字子一號安樂窩命錫之子以孝行旌閭

한백기(韓伯琦)의 자는 자일(子一)이요, 호는 안락와(安樂窩)니 명석(命錫)의 아들이다. 효행으로 정려하였다.

●강래운(姜來運)

姜來運字渭舉號至愚堂梅村德龍后年纔五歲而孤單號哀慕已如成人孝養母氏家素窶而竭力殫誠以供甘旨母病革劈指再度輒得回蘇人服其孝感及丁憂廬墓三年 高宗壬辰事聞蒙旌閭獻納金麟燮撰閭記

강래운(姜來運)의 자는 위거(渭舉)이요, 호는 지우당(至愚堂)이니 매촌(梅村) 강덕룡(姜德龍)의 후손이다. 나이 겨우 5세에 아버지를 여의니 애통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였고, 어머니 섬김에 빈한한 가정에서 성력(誠力)을 다하여 맛난 음식을 공양하였으며, 모친 병이 위급함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니 모병이 소생되었다. 후에 정우상을 당하여 여묘 3년을 하였으며, 고종 임진년에 정려를 입으니, 헌납(獻納) 김인섭(金麟燮)이 정려기를 지었다.

●하진태(河鎭台)

河鎭兌字贊彥號杏亭生員洺之玄孫六歲而孤哀痛如成人九歲以母命就學于趙公希孟十九歲泣告于師席而歸孝養老母五十年如一日母病嘗糞斫指設燈祈天燈油兩注火不滅母病回春士林呈官請褒及丁憂哀毀幾滅性又以餘力專心學文所著有西銘集成及遺集 高宗朝 贈童蒙教官旌閭立齋宋文獻公近洙撰閭記

하진태(河鎭台)의 자는 찬언(贊彥)이요, 호는 행정(杏亭)이니 생원 락(洺)의 현손이다.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니 애통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였고, 아홉 살에 어머니의 명령으

로 조희맹(趙希孟)에게 공부하다가 19세에 스승에게 울면서 고하고, 돌아가서 노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여, 50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다. 어머니가 병들자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꿸으며, 등불을 켜고 하늘에 비니 등유(燈油)가 비에 빠져도 타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어머니의 병이 회춘되었다. 사람들이 관에 포창을 청하였고 어머니 상에 이르러서는 애혜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였으며, 또 남은 힘으로 학문에 전심하여 저술한 것으로 『서명집성(西銘集成)』과 유집이 있다. 고종조에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증직하고 정려되었으며, 입재(立齋) 송문헌공(宋文獻公) 근수(近洙)가 려기를 지었다.

● 정육(鄭堉)

鄭堉字厚之號亦囂堂承旨大隆后潛心理學爲世名儒以孝 贈童蒙教官 命旌其閭

정육(鄭堉)의 자는 후지(厚之)요 호는 역효당(亦囂堂)이니, 승지(承旨) 정대룡(鄭大隆)의 후손이다. 이학(理學)에 몰두하여 세상에서 이름있는 선비라 일컬었으며, 효도로써 동몽교관(童蒙教官)으로 증직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정현의(鄭鉉毅)

鄭鉉毅字玉汝號晚省齋僧旨大隆后以誠孝卓異 贈教官 命旌閭

정현의(鄭鉉毅)의 자는 옥여(玉汝)요 호는 만성재(晚省齋)이니 승지 정대룡(鄭大隆)의 후손이다. 효성이 특별하였으므로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정달현(鄭達賢)

鄭達賢字功若號觀瀾承旨大隆后以孝 贈教官命旌閭

정달현(鄭達賢)의 자는 공약(功若)이요, 호는 관란(觀瀾)이며 승지 대룡의 후손이니, 효성으로써 교관(教官)을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하이범(河以範)

河以範松岡恒之后天性至孝髻鬣侍父病血指灌口丁憂一遵禮制如老成人及侍母病藥餌飲膳躬必服勞有雪鳩水魚之感事其兄如嚴父友愛敬篤以壽階通政遇 國恤設壇

拜哭行素三日鄉道聞其行 高宗癸巳蒙旌閭

하이범(河以範)은 송강(松岡) 하항(河恒)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모시더니 병이 들자 손가락의 피를 입에 넣었고, 아버지 상에는 한 걸 같이 예법에 따르기를 장성한 사람과 같이 하였으며, 어머니를 모시기에 이르러서는 약과 음식을 위해 몸소 반드시 수고하였다. 이러한 외에 눈 속에 비둘기와 얼음 속의 잉어가 감탄한 일이 있었고, 그 형을 섬기기를 엄부와 같이 하되 우애와 공경함이 돈독하였다. 수직(壽職)으로 통정(通政)이 되었더니, 나라의 상을 만나서는 사흘 동안 소복으로 행하니, 고을과 도에서 그 실행을 알리어 고종 계사년에 정려를 입었다.

● 최규환(崔奎煥)

崔奎煥字宗汝號美巖業功令喜讀詩易八旬不輟爲巨拇置興學齋於道山月朔講學事父母至孝居喪非疾病不去經帶及葬憂久雨忽白虹起家中延巨壙上獨喪路不雨返虞虹乃如初至家又大雨會而葬者嘖嘖稱孝感 高宗朝 贈童蒙教官旌其閭

최규환(崔奎煥)의 자는 종여(宗汝)요, 호는 미암(美巖)이다. 과거 공부를 일삼아 시경과 역경을 읽기를 좋아 하고, 팔순이 되도록 그만두지 아니하여 제일이 되었으며, 흥학재(興學齋)를 도산(道山)에 두고 매월 초하루에 학문을 강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상을 당함에 질병이 아니고는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상을 당함에 오래도록 비가 오다가 흰 무지개가 집안에서 일어나서 묘의 구덩이까지 뻗치고 홀로 상로(喪路)에만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반우(返虞)에도 무지개가 처음과 같았다가 집에 이르러서 또 큰 비가 왔다. 이리하여 장사에 모인 이들이 효에 감동한 것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고종조에 동몽교관을 추증하고 정려케 하였다.

● 박형순(朴亨淳)

朴亨淳字文叔護軍旨鳳之子與其妻鄭氏一心供養多有委曲順志年至六十常作嬰兒戲以悅親心 高宗朝 贈左掌禮 命旌閭

박형순(朴亨淳)의 자는 문숙(文叔)이니 호군(護軍) 박지봉(朴旨鳳)의 아들이다. 그의 아내 정씨와 일심으로 공양하였는데 암전하게 뜻을 따르는 일이 많았다. 나이 60에 이르

기 까지 항상 어린 아이의 장난을 만들어 아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고종조에 좌장례(左掌禮)를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하재원(河載源)

河載源字德彥號道谷雙負軒震龍后 哲廟辛酉中進士氣稟眞淳天性孝友家貧奉養必盡滋味常以悅親爲事聞旌閭

하재원(河載源)의 자는 덕언(德彥)이요, 호는 도곡(道谷)이며 쌍부헌(雙負軒) 하진룡(河震龍)의 후예다. 철종 신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기품이 진순하고, 천성이 효우하였으며 집이 가난하였어도 봉양에는 반드시 맛난 음식을 만들어 항상 아버이를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다.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정용균(鄭龍均)

鄭龍均字允元號慕齋晉陽人石亭弘祚之后性沈重甫上學自勵誦習殆忘寢食事親孝母夫人患瘡踰年嘗糞祈辰忽有鷺鳥墮鵝取而供之者三遂獲痊年三十四而得疾不起其弟樂均痛兄不年因以成疾幾不救一日夢兄至呼曰終養在汝胡不自惜出一封藥以飲之覺而疾瘳遂爲完人 高宗壬辰事聞 贈司憲府監察 命旌閭獻納金麟燮撰閭記

정용균(鄭龍均)의 자는 윤원(允元)이요 호는 모재(慕齋)며 진양인이니, 석정(石亭) 홍조(弘祚)의 후손이다. 성품이 침중(沈重)하더니 겨우 공부를 시작함에 스스로 힘써 외우고 익혀 거의 침식을 잊었고, 아버이를 효성으로 섬겼다. 모부인이 학질을 앓아 해를 넘기니, 똥을 맛보고 북극성에 빌더니 홀연히 매가 메추리를 떨어뜨리기에 취하여 바치기를 세 번이나 하여 드디어 낫게 되었다. 나이 34세에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니, 그 아우 낙균(樂均)이 형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다가 병을 얻어 거의 고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날 꿈에 형이 불러 이르기를 “부모를 끝까지 봉양할 일이 너에게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아끼지 않느냐?” 하고, 한 봉지의 약을 내어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깨어나니 병이 나아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고종 임진년에 일이 알려져서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추증하고 정려를 명령하였으며 헌납(獻納) 김인섭(金麟燮)이 려기를 지었다.

● 양정악(梁挺岳)

梁挺岳號德巖南原人性至孝跬步不離親側每出入不易方不違期左右便養志體俱至嘗赴試南省其及試所而忽班馬吟詩有曰七十雙親常在眼百千萬事摠無情急到家母夫人果有疾後三日而歿事聞 贈童蒙教官 命旌閭

양정악(梁挺岳)의 호는 덕암(德巖)이요 남원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반 걸음도 아버지의 걸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언제나 출입함에 행선지를 바꾸지 아니하고 기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좌우에서 봉양함에 지체(志體)를 함께 지극히 하였다. 일찍이 과거장에 나아갔는데 거의 과거에 이르러서 갑자기 말을 돌리고 시를 읊어 이르기, “70의 양친이 언제나 눈앞에 계시는데, 온갖 일들이 모두다 뜻이 없네”라 하였다. 급히 집에 이르니 어머니가 과연 병을 얻어 사흘 뒤에 돌아갔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강사석(姜師碩)

姜師碩字尙能號遲遲堂五歲見母冬日呵寒織不輟問曰此欲何爲曰將以衣汝曰爲子而使母勤苦若是乎遂泣而斷緯母由此不復親織 高宗己巳因道臣啓 贈童蒙教官 乙亥命旌閭 俛字郭鍾錫撰記

강사석(姜師碩)의 자는 상능(尙能)이요 호는 지지당(遲遲堂)이다.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겨울날이 매우 추운데도 베 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묻기를, “이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라 하였다.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장차 너의 옷을 만들려고 한다.”라 하니, 이르기를 “자식이 되어 어머니를 고생케 함이 이와 같아서 되겠습니까?”라 하고, 드디어 울면서 씨줄을 끊었으므로 어머니는 이런 연유로 다시는 친히 짜지 못하였다. 고종 기사년에 관찰사의 장계로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을해년에 정려를 명령하였으며,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이 기문을 지었다.

● 정한기(鄭漢基)

鄭漢基字君聖弟碩基字國瞻號稼軒學圃暄后早孤奉母母患風眩十年牀褥轉側須人與公兄弟至誠侍湯禱寒酷暑未嘗離側滌灑之具刀圭之奉糞穢之澣不任妻孥便身之方

適口之味無所不用其極至誠攸格母病良已克享九耄之壽一里稱之曰鄭氏二孝子 高宗癸巳 俱贈童蒙教官 命旌閭參贊郭鍾錫撰閭記稼軒實記行于世

정한기(鄭漢基)의 자는 군성(君聖)이요, 아우 석기(碩基)의 자는 국침(國瞻)이며 호는 가헌(稼軒)인데 학포(學圃) 정현(鄭暄)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아버зі 잃고 어머니를 봉양 하였던니 어머니가 어지름증을 앓아 10년을 침상 요에서 전측(轉側)하면서 남에게 의지 하게 되었다. 공의 형제가 지성으로 시탕하여 매서운 추위와 혹심한 더위에도 걸을 떠나 지 아니하고, 음식봉양의 도구와 약 시중 봉양과 대변의 빨래를 아내나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편신(便身)의 방도와 적구(適口)의 맛을 쓰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 지성을 다하여 다스린 바로서 어머니의 병이 점점 좋아져 90의 수를 누리니,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 하여 이르기를 “정씨의 두 효자다.”라 하였다. 고종 기사년에 함께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참찬(參贊) 곽종석(郭鍾錫)이 정려기를 지었고, 『가헌실기(稼軒實記)』가 세상에 행한다.

● 박효근(朴孝根)

朴孝根密陽人以禮持身事親至孝誠孝所感山靈貽藥母死還甦 高宗乙酉事聞旌閭
박효근(朴孝根)은 밀양인이니 예로써 몸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 왔다. 성효의 감동으로 산신령이 약을 주어 어머니가 죽었다가 환생하였다. 고종 을유년 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윤수현(尹守賢)

尹守賢坡平人賦性純孝自幼能盡事親之道父以髮疽數朔委臥吮而愈雉鳧暨於皆如 所願而供進以天年終執喪過哀風雨不廢省墓 高宗朝事聞 贈童蒙教官旌閭

윤수현(尹守賢)은 파평인이니 성품이 순효하여 어려서부터 능히 사친의 도리를 다하 였다. 아버지가 머리밑 헌데 때문에 여러 달을 누워서 앓더니 입으로 빨아서 나왔다. 평 과 올빼미와 고기를 모두 원하는 대로 받들어 올렸다. 생명이 다하여 세상을 마침에 상 을 치름에 지나치게 슬퍼했으며, 비바람에도 성묘를 폐하지 아니하였다.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동몽교관’ 증직하고 정려되었다.

● 박영회(朴瑛會)

朴瑛會孝根弟二子爲親求藥於路得雪中白花蛇以進親兵得差 高宗乙酉旌閭

박영회(朴瑛會)는 효근(孝根)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이를 위하여 약을 구하다가 길에서 눈 속에 백화사(白花蛇)를 얻어서 올렸더니, 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 고종 을 유년에 정려 되었다.

● 황용갑(黃龍甲)

黃龍甲字雲善通政桂亮之后性至孝家貧行傭親極滋味父疾三年祈天祭山黑夜製藥虎隨往來醫家有惡犬見輒搖尾病革割股暗進及丁憂哀毀踰禮妻新昌表氏公沒斂殯訖遂下從 高宗朝事聞旌閭南黎許愈撰記

황용갑(黃龍甲)의 자는 운선(雲善)이요, 통정(通政) 계량(桂亮)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집이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맛난 음식을 올렸다. 아버지가 병들어 3년 동안 하늘에 빌고 산에 제사 지냈으며, 캄캄한 밤에 약을 지으려감에 호랑이가 따라서 왕래하였고, 의원의 집에 사나운 개가 있었으나 이를 보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병이 위독하니 허벅지를 베어 몰래 드렸고 상을 치름에 애화가 예를 넘었다. 아내 신창표씨(新昌表氏)는 공이 돌아감에 빈소를 거두어 마치고 드디어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 고종 때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남려(南黎) 허유(許愈)가 기문을 지었다.

● 강맹신(姜孟臣)

姜孟臣其親病疽醫云蟾膏最好時值冬月力求以進病即愈事聞旌閭

강맹신(姜孟臣)은 그의 아버지가 종기를 앓았더니 의원의 말이 두꺼비 고약이 가장 좋다고 하였으나, 때마침 겨울이었으나 힘써 구하여 드렸다. 병이 곧 낫고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김창석(金昌錫)

金昌錫金海人天性孝友生有異質父病五朔百藥無效但所願者鹿血設壇禱天山鹿自來取血奉進病即快差 高宗辛卯 命旌閭

김창석(金昌錫)은 김해인이다. 천성이 효우하여 나면서부터 특이한 바탕을 가졌다. 아버지가 병들어 다섯 달 동안 백약이 무효였으나 다만 원하는 것은 사슴피였다.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빌었더니 산사슴이 저절로 왔다. 피를 취하여 올렸더니 병이 즉시 쾌차 되었다. 고종 신묘년에 정려를 명령하였다.

● 김성률(金聲律)

金聲律字振五慶州人天性孝愛而家甚貧躬稼穡供甘旨其母委臥積年百藥無效奄忽氣絕斫指灌血輒復延甦頤養安過者八年 贈童蒙教官 命旌閭

김성률(金聲律)의 자는 진오(振五)요 경주인이다. 천성이 효도하고 우애했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으되 몸소 농사를 지어 맞난 음식을 바쳤다. 그 어머니가 여러 해에 걸쳐 몸져누웠으되 백약이 무효였고, 갑자기 기절하니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여서 다시 소생하였으며, 잘 봉양하여 편히 지나게 된 것이 8년이였다. 조정에서 ‘동몽교관’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김준원(金俊元)

金俊元金海人天性孝敬養生送死必盡其誠丁艱方深夜廬次失火勢無奈何俊元冒炎抱柩呼天痛哭天乃暴雨滅火及葬廬墓三年猛虎來衛 高宗戊寅 贈童蒙教官 命旌閭

김준원(金俊元)은 김해인이다. 천성이 효도하고 경건하여 살아서 봉양과 죽어서 장례 치름에 반드시 그 정성을 다하였다. 초상에 바야흐로 깊은 밤이었더니 여막에서 실화하여 형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김준원은 불꽃을 무릅쓰고 영구를 안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니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서 불을 꺾다. 장례를 지내고서는 여묘에서 3년을 모시더니 맹호가 와서 지켰다. 고종 무인년에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정려를 명령하였다.

● 김수후(金壽后)

金壽后俊元之孫年甫十六侍父疾築壇於家後呼泣禱天閱月不解一日忽有氣如虹自壇亘父臥床而疾乃得瘳事聞旌閭

김수후(金壽后)는 원준(俊元)의 손자다. 나이 겨우 16세에 아버지의 병석을 모시면서 집 뒤에 단을 쌓고 호읍하며, 하늘에 빌어 달을 넘기도록 게을리 하지 아니하더니 어느 날에 홀연히 기운이 있어 무지개와 같은 것이 단으로부터 나타나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상에 뻗었다. 이로 인하여 곧 병이 나았더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옥명휘(玉明輝)

玉明輝宜春人字幼能知事親之道定省甘旨一無所懈侍親患求藥于宜春故里夜忽風雨有虎感之異嘗遇異僧授靈草煎服輒良已妻咸安趙氏以孝奉舅姑竝蒙旌閭河謙鎮撰記

옥명휘(玉明輝)는 의춘인이니 어려서부터 능히 사친의 도리를 알고 정성과 맛난 음식을 한 가지도 게을리 함이 없었다. 아버지 병환에 약을 의춘의 옛 동네에서 구하더니 밤에 갑자기 비바람 속에 호랑이가 감응하는 이변이 있었고, 일찍이 특이한 스님을 만나 영초(靈草)를 주어 다려 먹고서 문득 좋아지기도 했다. 아내 함안조씨도 효성으로 시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함께 정려를 받았다. 하겸진(河謙鎭)이 기문을 썼다.

● 김석공(金錫恭)

金錫恭金海人賦性至孝其父病啞聾錫恭與其妻各盡其誠祭天祈山求以身代便身適口之物恒時不絕有山雉入廚冬菜登盤之感居數載積痼之啞聾復常 高宗朝 贈童蒙教官 命旌閭

김석공(金錫恭)은 김해인이니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 아버지가 병어리 병을 앓더니 김석공은 그 아내와 각각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산에 빌어, 자신으로 대신 하기를 구하였고, 몸에 편하고 입에 맞는 음식을 언제나 끊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산 꿩이 주방으로 들어오고 겨울철에 채소가 소반에 오르는 감응이 있어 여러 해 동안 고질이던 병어리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고종조에 '동몽교관'을 추증하고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김언상(金彦祥)

金彦祥金海人以孝行卓異 命旌閭

김언상(金彦祥)은 김해인이니 효행이 탁이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정려를 명령하였다.

● 황섭(黃攝)

黃攝昌原人性至孝父病冬月叩冰得魚求藥遠地值日暮還家大虎護行事聞旌閭

황섭(黃攝)은 창원인이니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병들어 겨울철에 얼음을 깨어 고기를 얻고 약을 먼 곳에 구하다가 마침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호랑이가 호위하고 왔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진덕승(陳德升)

陳德升字君聖驪陽人性至孝親病裂指灌口甦既絕之命及遭喪廬墓野火焚燒一壑而將近墓所及廬幕返風火自滅 高宗朝 事聞旌閭

진덕승(陳德升)의 자는 군성(君聖)이요 여양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병들때 손가락을 찢어서 입에 넣어 이미 끊어졌던 명이 살아났고,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를 하다가 들에 불이 나서 온 골짜기가 다 타고 장차 묘소와 여막에까지 미치려 하더니 바람이 반대로 불어 불이 저절로 꺼졌다.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김종길(金鍾吉)

金鍾吉金海人年十七丁內艱居喪凡節一如老成父病嘗糞驗差醫云白章蛇油當效時值窮冬祝天呼泣忽有大蛇出於冰崖取油進之果得效 高宗乙酉 事聞旌閭

김종길(金鍾吉)은 김해인이다. 나이 17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더니, 상을 치름에 범절을 한결같이 어른과 같이 하였다. 아버지가 병들때 똥을 맛보아 차도를 징험하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백장사(白章蛇)의 기름이 효험이 있으리라.” 하였다. 때마침 깊은 겨울이었기에 하늘에 빌고 크게 우니 홀연히 큰 뱀이 얼음 비탈에서 나왔다. 이를 취하여 기름을 만들어 드리니 과연 효험이 있었고, 그 일이 고종 을유년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한학동(韓學東)

韓學東釣隱夢參后親兵三年不離左右醫云麕肉可以療病登山禱天生麕自至久病良已 高宗己丑事聞旌閭 贈童蒙教官判書洪祐吉撰閭記

한학동(韓學東)은 조은(釣隱) 한몽삼(韓夢參)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병들자 3년 동안 좌우를 떠나지 아니하더니 의원이 이르기를, “사슴 고기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 하므로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빌었더니 산 사슴이 저절로 와서 오래된 병이 나았다. 고종 기축년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고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는데 판서 홍우길(洪祐吉)이 정려기를 지었다.

● 김윤재(金潤載)

金潤載金海人天性溫順事父母至孝父患痢疾嘗糞驗症築壇拜斗遇神僧得山蓼二根而病效 高宗朝事聞旌閭

김윤재(金潤載)는 김해인이니 천성이 온순하고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아버지가 설사병을 앓음에 똥을 맛보아 증상을 징험하고, 단을 씹아 북두칠성께 절했더니 신령스런 중을 만나 산삼 두 뿌리를 얻어먹고 병이 나았다.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김용석(金鎔錫)

金鎔錫金海人以孝行卓異 高宗朝 命旌閭

김용석(金鎔錫)은 김해인이니 효행이 탁이했으므로 고종조에 임금이 정려를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

● 안광의(安光義)

安光義順興人晦軒裕后性至孝事親志體之養極備及其病革割指灌血延數日之命鄉人士舉其孝 高宗乙巳旌閭

안광의(安光義)는 순흥인이니 회헌(晦軒) 안유(安裕)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섬김에 지체(志體)의 봉양을 극진히 하였고, 병이 위독하였을 때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넣어 수일 동안 목숨을 연장시켰다. 고을에 인사들이 그의 효행을 들었으므로 고종 을사년에 정려를 입었다.

● 안의회(姜義會)

姜義會字贊智通亭淮伯后也性至孝事親養以志體及其病也禱天嘗糞割股和藥 高宗朝事聞 命旌閭(以上蒙旌)

안의회(姜義會)의 자는 찬지(贊智)니 통정(通亭) 강희백(姜淮伯)의 후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섬김에 지체로써 봉양하였고, 병이 들었을 때는 하늘에 빌고 똥을 맛보며 허벅지를 베어 약에 탔다.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를 명령하였다.(이상은 정려를 입은 것이다.)

● 정렴(鄭濂)

鄭濂字巨源石亭弘祚第二子受業於朴篁巖齊仁之門學問早成年二十八丁母憂哀毀踰禮致病不起事聞 贈監察

정렴(鄭濂)의 자는 거원(巨源)이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둘째 아들이다. 학업을 박황암(朴篁巖) 제인(齊仁)의 문하에서 학문을 받아 학문이 일찍 이루어졌다. 나이 28세에 어머니 상을 당해 애화가 예를 넘어서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감찰(監察)을 추증하였다.

● 이형(李蘊)

李蘊字以聞誠齋禮勛后號霽軒親癢嘗糞以驗其甜苦禱天請代及喪廬墓以終制以孝行卓異 英廟壬戌 贈司憲府持平

이형(李蘊)의 자는 이문(以聞)이니 성재(誠齋) 이에훈(李禮勛)의 후손이요, 호는 제헌(霽軒)이다. 아버지가 병들자 똥을 맛보아 그 달고 쓴 맛을 징험하고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청하였으며 상을 당하여서는 여묘에서 제를 마쳤다. 탁이한 효행 때문에 영조 임술년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추증하였다.

● 하응회(河應會)

河應會字應伯號漁隱樵隱孟山玄孫才器英秀志尙清高致力於小學內則之書鷄鳴盥櫛衣冠晨昏定省以不欺愼獨爲平生日用工夫丁艱廬墓三年雙鳥來棲塋側相守不去人稱孝子烏仁祖庚辰授參奉後贈禮曹佐郎

하응회(河應會)의 자는 응백(應伯)이요 호는 어은(漁隱)이니 초은(樵隱) 하맹산(河孟山)의 현손이다. 재주가 매우 뛰어나고 뜻은 맑고 고상한 것을 숭상하였으며, 힘을 『소학(小學)』의 내칙(內則)에 두었다. 닭이 울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며 혼정신성(昏定晨省)하여, 속이지 않고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것으로써 평생의 일용 공부로 삼았다. 상을 만나서는 여묘살이로 3년을 지내더니 한 쌍의 까마귀가 묘 옆에 와서 서식하면서 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효자 까마귀라 일컬었는데, 인조 경진년에 참봉(參奉)을 제수하고 뒤에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증직하였다.

● 조천필(曹天弼)

曹天弼字悅卿號林溪弟良弼字泰卿南冥植后也孝誠純至丁外艱兄弟廬墓餵粥三年母病劇注指血得甦及沒哀慕如前喪 正宗己酉事聞并贈持平

조천필(曹天弼)의 자는 열경(悅卿)이요 호는 임계(林溪)며, 아우 간필(良弼)의 자는 태경(泰卿)이니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후손이다.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하더니, 아버지 상을 당해 여묘에서 3년 동안 죽을 마셨고 어머니의 병이 심하니, 손가락의 피를 대어서 소생할 수 있었으며, 돌아가심에 이르러서는 애모하기를 전상과 같이 하였다. 정종 기유년에 일이 알려져서 함께 지평(持平)을 추증하였다.

● 이규욱(李奎旭)

李奎旭字汝一天性孝承順父母之志滸灑之供溫清之節無不適宜父以大年膺壽典人以爲誠孝所感丁憂禮備而哀至鄉里感歎事聞贈童蒙教官

이규욱(李奎旭)의 자는 여일(汝一)이니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의 뜻을 따랐다. 정성을 드린 음식 이마지와 온정의 범절에 적이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많은 나이로 수전(壽典)을 받게 되니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상을 당

함에 예절을 갖추고 슬픔이 지극하니 고을에서 감탄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동몽 교관’을 추증하였다.

● 조용현(曹龍現)

曹龍現字利玉縣監龍玩弟也性孝友事親承順無違侍癘嘗藥嘗糞丁憂哀毀幾不支嘗曰王鯉孟筍不如曾子之養志不幸早沒鄉黨咸嗟惜 哲宗丁巳 贈持平

조용현(曹龍現)의 자는 이옥(利玉)이니 현감(縣監) 조용완(曹龍玩)의 아우다. 성품이 효우스러워 아버지를 섬김에 순종하여 어김이 없었다. 병을 다스림에 약을 맛보고, 똥을 맛보았으며 상을 당해 애훼로 거의 지탱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이르기를 증자(曾子)의 양지(養志)만 같지 못하다.”라 하더니 불행이도 일찍 세상을 마치니 고을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철종 정사년에 지평(持平)을 추증하였다.

● 조성택(趙性宅)

趙性宅字仁叟號橫溝年逾五十遭本生喪廬于墓側夜有巨虎常來守廬後遭母喪復居廬如前時年六十餘人稱其溪曰孝子渡山曰孝子道事聞 贈教官有遺集

조성택(趙性宅)의 자는 인수(仁叟)요 호는 횡구(橫溝)다. 나이 50세를 넘겨서 본생가의 상을 당하니,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있더니 밤에 큰 호랑이가 와서 항상 여막을 지켰으며, 뒤에 어머니의 상을 만나서도 여막에서 살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때에 나이 60세였고 그가 건너는 시내를 사람들이 효자도(孝子渡)라 일컫고 산을 효자도(孝子道)라 일컫는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교관(教官)을 추증하였고 유집이 있다.

● 이광점(李光漸)

李光漸字進汝號懼窩新菴孝翼公俊民后中進士能文章性至孝承順無違志六歲始學讀人無更少年之句見父髮白而泣九歲避痘往山村大人僉樞公戒之曰前有橋可以下馬既過問諸僕曰已過公曰親命不可違即回馬至橋處下馬後遊京師夢母夫人病即驚復路夜到州境欲訪鄉醫許公鄴至凝石寺前有兩虎梗路不得進退急叩寺門許方在此得劑而歸母病果如夢見即試其劑病遂良已事聞復其戶

이광점(李光漸)의 지는 진여(進汝)요, 호는 구와(懼窩)니 신암(新菴) 효익공(孝翼公) 이준민(李俊民)의 후손이다. 진사에 올라 문장에 능했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님 뜻을 받들며 어김이 없었다. 여섯 살에 처음으로 배우더니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되지 못한다.”는 구절을 읽고서는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울었다. 아홉 살에 마를 피하여 산촌으로 가더니 아버지 첨추공(僉樞公)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앞에 다리가 있으니 말에서 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미 지나고서 여러 종에게 물으니 “이미 지났습니다.”라 하니, 공이 이르기를 “아버이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라 하고 즉시 말을 돌려 다리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말에서 내려서 갔다. 뒤에 서울에 머물렀는데 꿈에 어머니가 병이 난 것을 알고 즉시 놀라 황급하게 길을 돌려서 밤에 고을 경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의원 허언(許鄴)을 찾고자 응석사(凝石寺) 앞에 이르렀더니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어서 길을 막으므로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여 급히 절문을 두드리니, 허공이 마침 여기에 있어서 탕제를 얻어 돌아갔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이 과연 꿈에서 본 것과 같았으므로 즉시 그 약을 시험했더니 병이 드디어 나았다. 일이 알려져 그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복호:충신 효자, 절부가 태어난 집의 호복을 면제하여 주는 일)

● 정억령(鄭億齡)

鄭億齡字壽伯石亭弘祚曾孫也筆翰精妙累舉不中爲悅親占武科母病四載嘗糞驗其差劇雪裏得魚靈山夢蓼有神明之感及大故晝啜粥三年致哀如一日鄉里嘆其行聯狀請方伯蒙復戶

정억령(鄭億齡)의 지는 수백(壽伯)이니 석정(石亭) 정홍조(鄭弘祚)의 증손이다. 글씨와 문장이 정묘하여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더니, 아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과를 골랐다. 어머니의 병이 4년을 계속하니 똥을 맛보아 그 차이를 징험하였고, 눈 속에서 물고기를 얻고 영산에서 산삼을 얻으니, 신명의 감응이 있는 것이다. 상을 당해 삼년 동안 죽을 마셨고 슬픔을 첫날과 같이 하니, 고을에서 그 효행을 감탄하고 연명으로 관찰사에게 청하여 복호(復戶)를 입었다.

● 하준현(河駿縣)

河駿顯字聖謨雙負軒震龍后天性極孝家甚貧早失所恃在伯父家聞父漂迫金化縣往從之晝樵夜讀克盡子職父病癱親自吮之沐浴禱天非時之物殫誠供養士林呈官復戶

하준현(河駿縣)의 자는 성모(聖謨)요 쌍부헌(雙負軒) 하진용(河震龍)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집이 심히 가난하여 일찍부터 의지할 바를 잃고, 백부의 집에서 살았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금화현(金化縣)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낮에는 나무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면서 자식 된 도리를 다하였다. 아버지가 종기를 앓으니 친히 빨아 드리며,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고 때가 아닌 음식물을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니 선비들이 관에 올려 세금 면제를 받게 하였다.

● 하의용(河毅鎔)

河毅鎔雲水堂潤后家貧養親必具甘旨母病垂絕血指以甦母又眼盲得冬蛙炙供視官復明事聞復其戶(以上 贈官復戶)

하의용(河毅鎔)은 운수당(雲水堂) 하윤(河潤)의 후손이다. 집이 가난하였으되 아버지를 봉양함에는 반드시 맛난 음식을 갖추었고, 어머니가 병드니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리워서 소생시켰다. 어머니가 또 눈이 먼니 겨울에 개구리를 구워 드리어 시력이 다시 밝아졌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세금 면제를 해주었다. (이상은 벼슬을 추증하고 복호를 시킨 것이다.)

● 허근(許根)

許根字君茂盆城人年十六侍母病斫指灌血得延三年壽每藏手袖中不令人見及居喪哀毀幾滅性父開諭多方仍使受學于崔公景彥崔公亟稱其孝丁父憂衰絰不脫廬墓三年終制後竟以羸毀不起年才三十餘矣

허근(許根)의 자는 군무(君茂)요 분성인이다. 나이 60세에 어머니의 병을 모시다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대어 넣음으로서 삼년 동안 목숨을 연장시켰고, 언제나 손을 소매 속에 감추어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거상에 이르러서는 애화로 거의 졸도에 이르게 되었던니 아버지가 많은 방법으로 타일렀다. 최경언(崔景彥)에게 수학토록 하니 최공은 그의 효성을 자주 칭찬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해 상복을 벗지 않고, 여묘로 3년을 보내고

상을 마친 뒤에는 마침내 여위고 상하여 일어나지 못하니 나이 겨우 30여 세였다.

● 강득胤(姜得胤)

姜得胤字彥述梅村德龍之子孝友慈睦清儉勤厚嘗著家訓三篇丁外艱哀毀踰禮奉偏慈娛悅親心無所不至老而彌篤母年八十一歲設壽宴數群畢至河台溪潛爲序記之七耄丁艱廬墓啜粥

강득胤(姜得胤)의 자는 언술(彥述)이니, 매촌(梅村) 강덕용(姜德龍)의 아들이다. 효우하고 자목(慈睦)하며 청렴 검소하고 후덕하더니, 일찍이 가훈 3편을 저술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애화가 예를 넘었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며, 늙을수록 더욱 돈독하여 어머니의 나이 81세에 수연(壽宴)을 베푸니, 많은 군중이 모였고 태계(台溪) 하진(河潛)이 서(序)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였다. 70세에 모상을 당하니 여묘에서 죽을 마셨다.

● 하원(河沅)

河沅字大中號松坡竹軒惺孫早喪父奉母至孝甘旨藥餌之奉中裙廁踰之役躬執以不使人代及居喪泣血啜粥時公已老白首矣鄉里感其孝將舉實聞官公聞知力止之

하원(河沅)의 자는 대중이요, 호는 송파(松坡)이니 죽헌(竹軒) 하성(河惺)의 손자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봉양하더니 지극한 효성으로 맛난 음식과 약이(藥餌)의 봉공(奉供)이 알맞았고 대소변 수발을 역할을 정성으로 몸소 행하고 남에게 대신케 하지 아니하였다. 상을 당하여 피눈물로 죽을 마시니 이때 공은 이미 늙어서 백수였다. 고을에서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사실을 관에 알리려고 하니 공이 듣고서 힘써 중지시켰다.

● 하홍(河泓)

河泓字中海滄洲愷之孫性剛明正直篤於孝友侍病二十年一心不解嘗糞血指祝天求代竟得回春及丁憂衰經不脫啜粥柴毀遂不能起

하홍(河泓)의 자는 중해(中海)니 창주(滄洲) 하징(河愷)의 손자다. 성품이 굳세고 밝고 정직하며, 효우에 돈독하였다. 어머니의 병을 모시기를 이십년이나 계속하였으나 일

심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똥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드리고,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구하더니 마침내 회춘할 수 있었다.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죽을 마시다가 상을 너무 슬퍼하여 여위고 상하여 드디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 하현(河灑)

河灑字汝海進士挾孫四五歲能知讀書拜跪如成人性行純孝早孤事母夫人志體備至疾革嘗糞灌指及沒廬墓至今山下人名其谷曰河孝子侍墓谷

하현(河灑)의 자는 여해(汝海)니 진사 하협(河挾)의 손자다. 4, 5세 때에 능히 독서를 알았고, 절하고 꿇어앉는 것이 성인과 같았으며 성품과 행실이 순박하고 효성스러웠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섬기더니 지체(志體)를 지극히 갖추었고, 병이 위독하니 똥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먹었으며, 돌아가심에 이르러서는 여묘 살이를 하였다. 지금에도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하효자(河孝子) 시묘곡(侍墓谷)이라 일컫는다.

● 강무준(姜式儁)

姜式儁字美仲號素隱梅隱興運之子親齋嘗糞血指及父喪廬墓三年嘗得新稻欲薦之患乏肉忽有烏含八箇鷄卵以置傍又有白衲獻雉上墓之路凍雪自解絕壑古無水泉而自居廬水泉湧出公歸泉自涸友于兄弟和氣翕然篤志好學有遺集刊行

강무준(姜式儁)의 자는 미중(美仲)이요 호는 소은(素隱)이니 매은(梅隱) 강흥운(姜興運)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병에 똥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드렸으며, 부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일찍이 헹쌀을 얻어서 올리고자 하나 고기가 떨어진 것을 근심하였더니, 홀연히 까마귀가 여덟 개의 계란을 물고 와서 곁에 두고 간 일이 있었고, 또 스님이 묘로 올라가는 길에 꿩을 바쳤고 또 얼었던 눈이 저절로 녹고 깎아지른 듯한 구렁에 옛날에는 물이 나는 샘이 없었는데, 여막에서 산 때로부터 샘물이 솟아오르다가, 공이 돌아간 뒤로는 샘이 저절로 말랐다. 형제에게 우애스럽고 화기가 화합하였으며, 뜻을 돈독히 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유집이 간행되었다.

● 성창석(成昌錫)

成昌錫字文若浮查汝信之后劬心經學以繼其家聲性本孝友事親志體之養俱極其誠一出言一舉足不敢忘父母也及丁憂執喪踰禮

성창석(成昌錫)의 자는 문약(文若)이요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손이니, 경학에 마음을 쏟아서 그가문의 명성을 이었다. 성품이 본래부터 효우스러워 아버이 섬김에 있어 지체(志體)의 봉양에 함께 그 정성을 다하였으니 한 마디의 말이나 한 번의 발 디딤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아니하였다. 상을 당하여 절차가 예를 넘었다.

● 하해수(河海壽)

河海壽字成卿大諫潔后受學於謙齋河弘度門學行純熟事父母有飛鳩入室之感母病思生梨不得以故終不食梨

하해수(河海壽)의 자는 성경(成卿)이요 대사간(大司諫) 하결(河潔)의 후예니,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학문과 행실이 순박하고 익숙하였으며, 부모를 섬김에 비둘기가 방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감응이 있었다. 어머니가 병들어서 배(梨)를 생각하였으나 얻지 못했더니 이 때문에 종신토록 배를 먹지 아니하였다.

● 하한주(河漢周)

河漢周字而浩雲水堂潤后性至孝不私妻子惟父母是養父母欲擇地而析著焉泣請而止之兄弟同居不離親側親沒居喪踰禮鄉鄰以孝友君子稱之

하한주(河漢周)의 자는 이호(而浩)요 운수당(雲水堂) 하운(河潤)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처자에게 기울지 않고, 오직 부모만 봉양하였다. 부모가 다른 곳을 가려고 하니 젓가락을 쪼개고 울면서 청하여 이를 그치게 하였고, 형제가 함께 살면서 아버이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이가 돌아가신 뒤 거상에 예를 넘치게 하니 고을과 이웃에게 효과 우애를 갖춘 군자라고 칭찬하였다.

● 하운천(河潤天)

河潤天字九章號蓮亭姿稟清雅氣宇宏厚自孩提已有識量爲學以實踐爲貴侍親齋五

朔百方無效轉至危劇稽首北辰求以身代爲文禱山得五莖靈蔘供以見效後以天年終居廬三年御家衆以嚴訓子姪以義方著蒙幼習見一部

하운천(河潤天)의 자는 구장(九章)이요 호는 연정(蓮亭)이다. 성품이 청아하고 기개가 넓고 후덕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이미 식견과 도량이 있었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 실천을 귀한 것으로 삼았다. 아버지의 병 시중을 들 때 다섯 달 동안이나 백방으로 힘을 써도 효력이 없고, 점점 위태롭고 심함에 이르자 머리를 조아리고 북두칠성에 몸을 대신할 것을 바랐으며, 글을 지어 산에 빌어 다섯 줄기의 산삼을 얻어 올리고 효력을 본 뒤 부모님이 세상을 마쳤다. 부모가 돌아가시니 여막에서 3년을 보냈으며, 가정을 제어하는 데는 엄하게 하였고 후손들을 훈계하는 데는 의로써 하였다. 이에 『몽유습견(蒙幼習見)』 1부를 저술하였다.

● 이한정(李漢楨)

李漢楨字邦用號蒼菴才藝過人孝友根天年十四五連丁內外艱日號哭廬于墓側終制不懈鄉里慕之

이한정(李漢楨)의 자는 방용(邦用)이요 호는 창암(蒼菴)이니, 재능과 기예가 남보다 뛰어났고 효우가 천성에 뿌리를 박았다. 나이 14, 5세에 연이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을 당하니 날마다 울부짖고,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제를 마칠 때까지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고을에서 사모하였다.

● 정상함(鄭相咸)

鄭相咸字林卿號源齋進士文益后也生有至誠事親先意承順便身之物莫不畢具及母病血指回甦以天年終鄉里咸稱其孝

정상함(鄭相咸)의 자는 임경(林卿)이요 호는 원재(源齋)니 진사 문익(文益)의 후손이다. 나면서부터 지성이 있고 아버이를 섬김에 먼저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것에 뜻을 두어 몸에 편한 물건은 모두 갖추지 않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가 병이 드니 손가락의 피로써 희생시키어 천명을 마치니, 고을에서 모두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 정보(鄭堡)

鄭堡字華伯徵室窩有祺曾孫天賦介直志行高潔與二弟珪睦事親忠養無方讀書講論相爲師友及居喪廬墓終制

정보(鄭堡)의 자는 화백(華伯)이니 징질와(徵室窩) 정유기(鄭有祺)의 증손이니, 천부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뜻과 행실이 고결하였다. 두 아우 규(珪)와 목(睦)과 아버지를 섬김에 충성된 봉양으로 모난 데가 없었고, 독서하고 강론하여 서로 사우가 되었으며 거상에는 여묘로 절차를 마쳤다.

● 이재형(李再馨)

李再馨字芳叔號凝齋爲學一以性理爲主教授後進望重儒林性至孝前後喪廬于墓側泣血三年

이재형(李再馨)의 자는 방숙(芳叔)이요 호는 응재(凝齋)다. 학문을 함에 한결같이 성리로써 주를 삼았고 후진을 교수하니 명망이 유럽에서 무거웠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전후의 상에 묘 곁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

● 박능환(朴能煥)

朴能煥字乃成號誠窩密陽人松月堂好元后事親至孝餘力學問懿範高致著於鄉里

박능환(朴能煥)의 자는 내성(乃成)이요 호는 성와(誠窩)며 밀양인이니 송월당(松月堂) 박호원(朴好元)의 후손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고, 남은 힘으로 학문을 닦으니 훌륭한 모범과 높은 정취가 고을에 드러났다.

● 이국정(李國楨)

李國楨字致載寧人號聾啞居家一以養親志爲事其父嘗被誣囚係獄中公竭誠奔走京邑血書訟冤竟得伸理士友之知其事者皆服其心力而感其誠孝

이국정(李國楨)의 자는 치재(致載)요 재령인이며, 호는 농아(聾啞)라 하였다. 집에 있을 때는 한결같이 부모의 뜻을 봉양하는 것으로써 일삼았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모함을 입어 옥중에 갇혔더니, 공이 정성을 다하여 서울에서 분주하고 혈서로서 원통함을 호

소하여 마침내 이치대로 퍼지니, 사우로 그 일이 아는 사람은 모두 그 심력에 감복하였고 그 효성에 감탄하였다.

● 성치상(成致祥)

成致祥字和伯號竹窩浮查汝信后稟性溫雅誠孝篤至家不富贍而志體之養無不周之其父以先墓事被誣遠配千里公裹足赴京血書鳴冤十指無全自上燭其冤感其孝決其訟解其配鄉黨至今稱其孝

성치상(成致祥)의 자는 화백(和伯)이요 호는 죽와(竹窩)니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손이다. 품성이 온아하고 효성이 돈독하고 지극하였으며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면 서도 지체(志體)의 봉양은 두루 이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선조의 묘사 때문에 무고함을 입어 멀리 천리 밖으로 유배되었더니, 공이 발을 싸매고 서울로 달려가서 혈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열 손가락이 온전한 것이 없었다. 임금께서 그의 원통함을 알고 그 효성에 감동하여 그 송사를 결단 짓고, 그 귀양살이를 풀어 주니 고을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 하학호(河學浩)

河學浩字大甫號蠟山處士性至孝以母夫人烈行旌褒事裹足京鄉首尾凡八年至誠格天竟至蒙旌蔡相國濟恭曰是母是子宋判書載經曰誠孝足以感天縉紳士友一辭稱賀曰公之誠孝竟至格天使母烈蒙褒宜其爲是母之孝子也

하학호(河學浩)의 자는 대보(大甫)요 호는 조산처사(蠟山處士)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어머니의 열행(烈行)을 정포(旌褒)하는 일 때문에 발을 싸매고 서울을 왕래하였는데 전후 모두 8년 동안 계속하였다. 지성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정려를 입었는데 채상국(蔡相國) 제공(濟恭)이 이르기를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라 하였고, 송판서(宋判書) 재경(載經)이 이르기를, “효성이 죽히 하늘을 감동시켰다.”라 하였으며, 사대부 사우들은 한결같이 칭찬하고 하례하여 이르기를 “공의 효성이 마침내 하늘에 이르니 그 어머니의 열(烈)이 포(褒)를 입었으니 이 어머니의 효자 때문이다.”라 하였다.

● 하응현(河膺賢)

河膺賢字師彥涵窩以泰之子讀書習於喪禮天性孝自孩提無違於親一日承父命出外還夜深門閉恐親驚寢不敢呼且念反不面不宜徑安於私室遂俯伏門外露地達曙事繼母亦多有至行

하응현(河膺賢)의 자는 사언(師彥)이니 함와(涵窩) 하이태(河以泰)의 아들이다. 글을 읽는 것을 상례(喪禮)에서 익혔으니, 천성이 효성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루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밤이 깊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었다. 아버지가 잠에서 놀래어 깰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부르지 못하고, 또 돌아와서 얼굴을 대하지 않는 것도 염려스러운 데다가 사실(私室)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도 마땅치 못하므로 드디어 문밖 노지에서 부복하여 새벽에 이르렀다. 이 밖에 계모를 섬김에도 또한 지극한 행실이 많이 있었다.

● 정동빈(鄭東贇)

鄭東贇字致震號愚巒隱窩志衡子也天賦凝重德行純厚年甫勺象藻思英發而屢赴未中親癘殫誠刀圭嘗糞血指有致驚之感及丁憂送終必慎哀毀踰禮

정동빈(鄭東贇)의 자는 치진(致震)이요 호는 우만(愚巒)이니, 은와(隱窩) 정지형(鄭志衡)의 아들이다. 천성이 침착하고 덕행이 순후하였으며 나이 겨우 10세에 시문을 짓는 재능이 일찍 나타나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드니 처방에 정성을 다하였고, 똥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먹었으며, 자라가 이르러 오는 감동이 있었다. 상을 당함에 장례를 삼가이 하고 애회가 예를 넘었다.

● 조창우(曹昌祐)

曹昌祐南冥植后賦性至孝侍親癘致冰蠶雪薇之感丁憂廬墓終制

조창우(曹昌祐)는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의 병을 모심에 얼음 속에 자라와 눈 속에 고사리가 솟아나는 감응이 있었고, 상을 당함에 여묘로 절차를 마쳤다.

● 정경량(鄭慶良)

鄭慶良字吉哉號南湖恭戴公陟后也生而穎悟色夷氣清博究經傳旁通百家終日對案沈潛奧旨性至孝母有疾至難醫之境不脫冠帶設壇祈天至八日得甦其父善於書畫嘗於郭定菴越之家見壁上山水圖曰此吾先君手澤移時撫摩不覺感淚定菴改容曰君眞所謂天生孝子也官平市奉事壽階正憲

정경량(鄭慶良)의 자는 길재(吉哉)요 호는 남호(南湖)니 공대공(恭戴公) 정척(鄭陟)의 후손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얼굴이 곱고 기상이 맑으며, 경전을 널리 궁구하고 백가에 두루 통달하였다. 종일토록 책상을 대하고 깊은 뜻에 침잠하였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머니가 병이 있어 낫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 관대를 벗지 않고, 단을 모아 하늘에 빌어 8일 만에 회생하였다. 그 아버지가 서화에 능하더니 일찍이 곽정암(郭定菴) 월(越)의 집에 벽 위의 산수도를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선고의 작품이다.”라 하고 떠날 때 어루만지다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정암이 얼굴을 고치고 이르기를, “자네는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낸 효자다.”라 하였다. 벼슬은 평시봉사(平市奉事)였고 수계(壽階)로 정헌대부(正憲大夫)를 받았다.

● 허성(許城)

許城字成玉號烏村金海人天性至孝侍母病八年足跡不出戶庭之外左右扶護滸隨之節澣濯之任不委妻孥及遭喪哭泣哀甚弔者悅之

허성(許城)의 자는 성옥(成玉)이요 호는 오촌(烏村)이니 김해인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어머니의 병을 모신 지 8년 동안 집 뜰 밖 좌우에서 붙들어 지키며, 정성을 들인 음식을 바치는 범절과 빨래의 소임을 처노(妻孥)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곡읍이 슬프고 심하니 조문하는 이가 감탄하였다.

● 하인수(河仁壽)

河仁壽字千之號梨谷月村達弘子孺染家庭文行夙就筆法精妙一順親志無毫髮違忤七歲遭母喪哀號不已血淚添襟居常暫不離親側坐立有常處堂室有足膝之痕先公晚歲有心恙凡所教命多出情外一皆承順所居牆屋無有虧缺命改即改至於經旨文義惟父教

是遵人或難之則曰父教也何敢改諸如是數年先公心恙竟至勿藥遠近章甫莫不以至孝推之及其沒也老柏軒鄭載圭以詩哭之曰孝養無違曾氏志詩名又在宗文家

하인수(河仁壽)의 자는 천지(千之)요 호는 이곡(梨谷)이니 월촌(月村) 하달홍(河達弘)의 아들이다. 가정교육에 젖어 글과 행실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필법이 정묘하였으며,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여 조금의 반대도 없었다. 7세에 모친상을 당했더니 애호를 그치지 아니하니 피눈물이 옷깃을 적시었다. 항상 잠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고, 앉거나 서는 데도 항상 뒀이 있었으며, 집에 거처할 때는 발과 무릎의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만년에 마음의 병이 있어서 모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뜻밖에서 많이 나왔으나 한결같이 모두 받들었고, 살고 있는 집이 훼손된 곳이 없었는데도 고칠 것을 명령하면 즉시 고쳤으며, 경전의 요체나 문의(文義)에 이르기 까지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랐고 사람이 혹 이를 힐난하면 이르기를,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떻게 감히 고치는가?”라 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수년 동안 지내더니 아버지의 병이 마침내 약이 필요 없게 됨에 이르렀다. 이에 원근의 선비들이 지극한 효성으로 추거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그가 죽음에 노백헌(老伯軒) 정재규(鄭載圭)는 시로써 극하여 이르기를, “효도와 봉양에 없는 것은 중자(曾子)의 뜻이었고, 시명(詩名)은 또 종문(宗文)의 집에 있었구나,”라 하였다.

● 하달규(河達圭)

河達圭字汝三襄靖公敬復后天性至孝自幼得一美味必獻親受孝經歎曰人子之職果如是乎親老乃廢書業樵以燠突日斲杵于望夷山中以資廚供年十四父病脹劇醫云有鱧魚可治公至誠必致之親病良已隣里咸稱孝子平生衣服飲食之佳者不近口體蓋亦思慕而然也

하달규(河達圭)의 자는 여삼(汝三)이니 양정공(襄靖公) 하경복(河敬復)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께 드리었다. 직접 효경을 배우고는 감탄하여 이르기를, “자식의 도리로서 과연 이와 같이 하겠는가?”라 하고, 아버지가 늙으니 이에 글 읽기를 폐하고 나무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구들을 따듯하게 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날마다 방망이를 망이산중(望夷山中)에서

각아서 먹을거리를 대었다. 나이 14세에 아버지가 병들어 배가 불러오는 증세가 매우 심하더니 의원이 이르기를, “오직 가물치라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 하므로 공이 지극한 정성으로 구하여 아버지의 병이 좋아졌다.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칭찬하였고, 평생토록 의복과 음식의 좋은 것을 입에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니 대개 부모님을 사모하여 그러한 것이었다.

● 정규노(鄭奎魯)

鄭奎魯字聖若隅谷溫之后也家貧好學事親極其誠孝年甫十七母病血指暫得回甦而纔過五日父又病遽丁兩憂雙殯于深山晨昏守側虎來爲護適值大雨夜運雙柩移于平地舊殯處山崩人以爲孝感

정규노(鄭奎魯)의 자는 성약(聖若)이니 우곡(隅谷) 정온(鄭溫)의 후손이니, 집이 가난하였으되 학문을 좋아하였고, 아버지를 섬김에 그 효성을 다하였다. 나이 겨우 17세에 어머니가 병드니 손가락의 피로 잠시 회생되었다가 겨우 5일이 지나고서 아버지가 또 병들어 갑자기 부모상을 만났다. 깊은 산에 부모 시신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지키니 호랑이가 와서 지켰으며, 마침 큰 비가 와서 물 때문에 두구의 널을 운반하여 평지로 옮기니 시신을 모셨던 산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효성의 감응이라 일렀다.

● 이희길(李熙吉)

李熙吉字庸善號四可誠齋禮勛后天性孝友事二親無違志母夫人患病數朔禱天祈命嘗糞斫指靡所不至既沒傾家財營葬地風寒雨雪不廢省掃每當忌日期事漁池人不獲一而獨優人謂孝感所致比之王之鯉孟之筍晚醒朴致馥表其墓曰其純誠篤行可以感神天云云

이희길(李熙吉)의 자는 용선(庸善)이요 호는 사가(四可)니 성재(誠齋) 이예훈(李禮勛)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우하여 두 아버지를 섬김에 뜻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어머니가 이질을 앓아 두어 달 동안이나 낫지 않으므로 하늘에 빌고 목숨을 빌었으며,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이미 돌아가신 뒤에는 가산을 기울여 장지를 마련하고 바람이 차고 비나 눈이 와도 살피고 쓸기를 폐하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나

기일 앞날을 기하여 못에 고기를 낚기를 일삼더니 다른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아도 홀로 넉넉하였다. 사람들은 효성에 감동된 소치라 이르고, 왕상(王祥)의 잉어와 맹종(孟宗)의 죽순에 견주었다.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은 그 묘표에서 이르기를, “그 순수한 정성과 독실한 행동이 신과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 하재남(河在南)

河在南字敬可沈深有幹蠱才始從父兄學見婁甚無以爲養遂營理家產以充其匱乏兄嬰貞疾沈綿數歲迎醫調治靡不用極及兄歿自云目昏不能辨燭而少不見悲戚之色再喪耦而一不出愁苦語蓋爲其親在也侍親瘳逾年一便尿一起臥無不先意承順父雙岡公臨沒忽令人扶起攬筆書曰孝哉敬可乎又將書下句氣乏而逝筆猶在手

하재남(河在南)의 자는 경가(敬可)니 침착하고 깊이가 있고 집안일을 처리하는 재주를 가졌다. 처음에 부형을 따라 배우다가 가난이 심하여 봉양할 수가 없음을 보고, 드디어 가산을 잘 다스려서 그 가난한 것을 충당시켰다. 형이 고질 병에 걸리어 여러 해를 끌었는데 의원을 맞아서 조리하여 치료함이 극도로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형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이르기를, “눈이 어두워 촛불도 분별하지 못하겠다.”라 하고 조금도 슬픈 빛을 보이지 아니했으며, 재차 배필을 잃었어도 한 번도 근심스럽거나 괴로운 말을 내지 아니 하였으니, 대개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병을 모시고 해를 넘기더니 한 번의 대·소변이나 한 번의 일어남과 누움도 순종하여 뜻을 먼저 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 쌍강공(雙岡公)이 임종에 다다라서 갑자기 사람에게 붙들어 일으키게 하고 붓을 쥐고 글을 써서 이르기를, “효성스러웠구나! 경가여”라 하고 또 아래 구절을 쓰려고 하다가 기운이 모자라서 가셨는데 붓은 아직도 손에 있었다.

● 강수호(姜洙鎬)

姜洙鎬字成五掌令聖喜子士人泳鎬弟也掌令公以癱患積年臥床洙鎬與其兄晝宵侍側一飲一尿無不先意承順能使病父安之匪類知戒遭艱哀毀終制

강수호(姜洙鎬)의 자는 성오(成五)니 장령(掌令) 강성희(姜聖喜)의 아들이요, 선비 영호(泳鎬)의 아우다. 장령공(掌令公)이 중풍을 앓아서 오래토록 병상에 누웠더니 수호는

그 형과 함께 밤낮으로 곁에서 모셨다. 한모금의 물과 한 번의 소변도 받들겠다는 뜻을 먼저 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병든 아버지로 하여금 편안케 하였다. 못된 자들도 경계할 줄 알았다. 는 데는 온갖 것을 알아서 하였으며, 상을 당해서는 애훼로 절차를 마쳤다.

● 하경주(河墩周)

河墩周字儀元元正公楫后也誠孝根天事親克養志體侍湯不離側裂指注血延壽九朔及丁憂侍墓三年

하경주(河墩周)의 자는 의원(儀元)이니 원정공(元正公) 하집(河楫)의 후손이다. 정성스러운 효도가 하늘에 뿌리 박혀 아버지를 섬김에 지체(志體)로 잘 봉양하고, 시탕(侍湯)에 곁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넣어 목숨을 아홉 달이나 연장시켰다. 상을 당함에 시묘를 3년 동안 계속하였다.

● 허장(許漳)

許漳金海人性孝愛父病祈天願代嘗糞斷指得延其壽及喪晨昏哭墓

허장(許漳)은 김해인이다. 천성이 효애하여 아버지 병에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원하였으며,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목숨을 연장시켰으며, 상을 당하여 새벽과 저녁으로 묘에 곡하였다.

● 최형(崔滢)

崔滢字汝俊司諫卜麟后侍母病三年醫藥著蔡罔不盡誠得生蛇於冬月奏奇效遭喪哀毀踰制以壽階通政

최형(崔滢)의 자는 여준(汝俊)이니 사간(司諫) 복린(卜麟)의 후손이다. 어머니 병 3년에 의약과 점술로 구호를 정성껏 하였으며 겨울에 뱀을 구해 효력을 보았으며, 상을 당하여 예에 지나쳤고, 수작(壽爵)으로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 강달욱(姜達旭)

姜達旭字友若號默村守軒叔卿后誠孝愛侍親齋嘗糞禱天及丁憂衰經不脫廬墓終制

其弟達之亦友愛篤至著聞鄉里

강달욱(姜達旭)의 자는 우약(友若)이요 호는 묵촌(默村)이니 수헌(守軒) 강숙경(姜叔卿)의 후손이다. 성품이 효우스러웠고 아버지의 병을 모심에 똥을 맛보고 하늘에 빌었으며, 상을 당함에 상복을 벗지 않고 여묘에서 절차를 마쳤다. 그 아우 달지(達之) 또한 우애가 돈독하고 지극하여 고을에서 드러나게 알려졌다.

●강결(姜玦)

姜玦事母之孝母年九十二積歲呻病一日思雉炙玦沐浴祈天忽有飛雉入廚嘗奉母避疫山中有虎護門

강결(姜玦)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섬기더니, 어머니가 나이 92세에 오래토록 병을 앓았는데, 어느 날 구운 꿩고기를 생각하므로 결이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다. 이때 갑자기 꿩이 날아와서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중에 역병을 피하여 갔더니 호랑이가 문을 지키는 일이 있었다.

●강원상(姜元尙)

姜元尙殷烈公民瞻后性篤孝甫四歲出外得棗梨必懷獻父母六歲丁外艱拚號擗踊如成人服闋母金氏欲下從抱元尙泣曰熟視我他日九原能識母顏元尙輒呱呱欲絕曰既失父又無母兒將焉往母不忍死與弟有安元漢極誠事母丁憂廬墓三年又以幼不服父喪追服三年於墓側

강원상(姜元尙)은 은열공(殷烈公) 강민침(姜民瞻)의 후손이니 성품이 돈독하고 효성스러웠다. 겨우 4세에 밖에 나가서 대추나 배를 얻으면, 반드시 부모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6세에 아버지 상에 손뼉을 치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굴리는 것이 어른과 같았다. 복을 마치고 어머니 김씨가 따라 죽으려고 하여 원상을 안고 울면서 이르기를, “나를 익히 보아라, 다른 날 저승에서 어미의 얼굴을 알 수 있겠느냐?”라 하니 원상이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며, 기절하려고 하면서 이르기를, “이미 아버지를 잃었는데 또 어머니마저 없으면 아이는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라 하였다. 이 때문에 어머니가 차마 죽지 못했더니 아우 유안(有安)과 원한(元漢)으로 더불어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겼다. 상을 당하여 여묘에서 3년을 보내고, 또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는 3년 동안 묘 곁에서 뒤늦게 상복을 입었다.

● 서상보(徐商輔)

徐商輔字德老達成人父病裂指注血因以回生隣里皆稱其孝

서상보(徐商輔)의 자는 덕로(德老)니 달성인이다. 아버지가 병드니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쏟아 넣어 회생케 하니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 강형무(姜亨武)

姜亨武字贊翼性至孝躬自傭賃滋味必供親有疾不食葬其父于距家稍間地日必往省不以風雨寒暑廢焉遇迅雷烈風急雨赴墓所脫衰衣覆墳上泣告勿震驚聞者咸稱孝子

강형무(姜亨武)의 자는 찬익(贊翼)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몸소 품팔이를 하여 맛난 음식을 만드시 어버이께 바쳤고, 병이 나면 밥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 아버지를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장사 지내고 날마다 가서 살피고 비바람이 치고 차고 더운 것 때문에 껴하지 않았다. 또 심한 우레나 열풍과 급우를 만나면 묘소에 달려가서 상복을 벗어서 무덤을 덮고, 울면서 우레에 놀라지 말라고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효자라 일컬었다.

● 하철언(河喆彦)

河喆彦事親至孝父病齊沐禱天丁憂哀慕終制鄉鄰稱其孝

하철언(河喆彦)은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아버지가 병드니 재계하고 목욕하여 하늘에 빌었고 상에는 애훼로 절차를 마치니 고을과 이웃이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 김용호(金容鎬)

金容鎬字敬叔金海人天性至孝祖病革斷指注血而甦其父病亦如之平生不違親志鄉鄰服其孝

김용호(金容鎬)의 자는 경숙(敬叔)이요 김해인이니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할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니 손가락을 끊어 피를 쏟아 넣어 회생시켰고, 그 아버지의 병에도 또 그와 같이 했으며, 평생토록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고을에서 그 효성에 감복하였다.

●안경숙(安敬叔)

安敬叔家貧不學而能盡子職及母病氣絕斫指灌口半日回甦既沒哭擗頓絕隣里皆稱其孝(以上有文軸)

안경숙(安敬叔)은 집이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으되 능히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고 그 어머니가 병들어 기절하니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입에 넣어 반일 동안 회생시켰으며 이미 돌아간 뒤에는 곡하며 몸부림 치다가 갑자기 기절하니 이웃과 마을이 모두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이상은 문축(文軸)이 있다.)

●허소유(許少兪)

孝子許少兪旌閭其后孫自三嘉移來(勝山)

효자 허소유(許少兪)는 정려를 받았는데 그 후손이 삼가(三嘉)에서 승산(勝山)에 옮겨왔다.

●이윤현(李胤玄)

李胤玄字時老號永慕堂梅月堂賀生曾孫十八歲奉父公避痘於山村忽一日盜賊突入欲害父公胤玄以身翼蔽僅得免然全身被創因而成疾謁醫求藥至八年而竟以天年終肅廟丙戌旌閭性齋許傳撰記

이윤현(李胤玄)의 자는 시로(時老)요 호는 영모당(永慕堂)이니 매월당(梅月堂) 이하생(李賀生)의 증손이다. 18세에 아버지를 모시고 산촌에서 천연두를 피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에 도적이 돌입하여 아버지를 해치려 함에 윤현이 몸으로 날개처럼 덮어서 겨우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신에 상처를 입고 이어 병을 얻었으므로 의원을 찾아 약을 구하여 8년을 견디다 마침내 명을 마쳤다. 숙종 병술에 정려되었고 성재(性齋) 허전(許傳)이 기문을 지었다.

● 김용택(金龍澤)

金龍澤月城人樹隱冲漢后家貧親老躬耕以養十三歲父病思食生雉猝難求得公泫然流涕彷徨野外有鷺逐雉忽入袴下公獻又思生魚時冰未釋編苟石梁斯須之頃得數十魚供進見者皆稱孝感所致至屬纊斫指灌血以延數日之命者十三歲至十八歲連遭父母及承重喪前後儀節無不中禮晨昏展墓風雨不廢洞人感之賞以屏風一座五世孫基燦籲于王庭蒙旌立於中山里失於丙寅火災後丙午更立碑於下村(居德山今山清)

김용택(金龍澤)은 월성인이니 수은(樹隱) 김충한(金冲漢)의 후예다.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었으므로 몸소 농사를 지어 봉양하였다. 13세 때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살아 있는 꿩을 먹기를 생각하였다. 갑자기 구하여 얻기가 어려우므로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황하니 야외에서 매가 꿩을 쫓아서 갑자기 바지가랭이 아래로 들어오므로 잡아 바쳤다. 또 날고기를 생각하였으나 당시는 얼음이 아직 풀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대밭을 엮어서 돌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얼마 후에 수십 마리의 고기를 얻어서 드리게 되니, 보는 이가 모두 효성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컬었다. 죽음에 이르러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넣어 수일 동안 목숨을 연장시켰다. 13세에서 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부모 및 승중상(承重喪)을 당했더니 전후로 의절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또 새벽과 저녁으로 묘를 살피되 비바람으로 폐하지 아니하니 동네 사람들이 감탄하여 병풍 일좌(一座)를 상 주었다. 5세손 김기찬(金基燦)이 조정에 호소하여 정려를 중산리(中山里)에 세웠더니 병인년에 화재로 잃은 뒤 병오년에 다시 비를 하촌(下村)에 세웠다. (덕산에 살았으니 지금의 산청이다.)

● 김춘룡(金春龍)

金春龍字春輔號愛南金海人父嘗患眼質三年而盲醫云難治春龍晝夜號哭盡誠救藥眼漸明快母喪三年侍墓汲水之路稍遠每患窘踰一日夜天雨霹靂擊墓傍爲穴泉水自涌人稱孝感所致 純廟武科水軍節制使至南海縣令 憲廟甲午贈同中樞

김춘룡(金春龍)의 지는 춘보(春輔)요 호는 애남(愛南)이니 김해인이다. 아버지가 일찍이 안질을 앓아 3년 만에 장님이 되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낫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춘룡이 밤낮으로 호곡하고 정성을 다하여 약을 구하니 눈이 점점 명쾌해졌다. 모친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侍墓)함에 물을 갖는 길이 좀 멀어서 엮어짐을 근심하더니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벼락이 쳐서 묘 곁에 구멍을 만들고,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니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된 소치라고 일컬었다. 순조 때에 무과에 올라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가 되고, 남해현령(南海縣令)에 이르렀으며 헌종 갑오년에는 동중추(同中樞)를 추증하였다.

● 최봉(崔峯)

崔峯初諱振溟號松谷慶州人自寶城移居于晉州天性至孝事親能盡志體之養親沒廬墓三年自後杜門不出潛心讀書以孝悌忠信四字書于門楣以爲出入看省之資

최봉(崔峯)은 처음 휘(諱)는 진명(振溟)이요 호는 송곡(松谷)이니 경주인이다. 보성(寶城)에서 진주로 옮겨와서 살았는데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섬김에 능히 지체의 봉양을 다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3년 동안 여묘를 하고 나서는 이 이후로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고 독서에만 잠심하였다. 그리고 효·제·충·신의 네 글자를 문지방에 써 붙이고 출입하면서 보고 반성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 서상의(徐相義)

徐相義字克仲號大輶峯相郁字和仲號小輶峯伯與仲也俱有至性遭慈患孔飢製藥遠方而還猝遇潦漲人不能渡仲號泣仰天浪靜利涉歸家進藥而蘇人擬之牟截江故事鄉里裁狀呼籲例資童蒙教官

서상의(徐相義)의 자는 극중(克仲)이요 호는 대교봉(大輶峯)이다. 상욱(相郁)의 자는 화중(和仲)이요 호는 소교(小輶)인데, 맏이와 둘째가 모두 지극한 성품을 가졌다. 어머니의 병환을 만나서 매우 급한 마음으로 먼 곳에서 약을 지어 돌아오다가 갑자기 큰 비로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으므로 둘째가 하늘을 우러러 목 놓아 우니 물결이 고요해져서 잘 건너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드리어 소생하니, 사람들이 모씨(牟氏)의 절강(截江:강물이 끊어짐) 고사에 비꼈다. 고을에서 글을 올려 호소하여 법식대로 '동몽교관'을 받았다.

● 하범로(河範魯)

河範魯字學仲尼谷應魯弟天性至孝與伯公殫誠事父母及丁憂白燕巢聖室人以宋圭菴麟壽之孝行并稱焉

하범로(河範魯)의 자는 학중(學仲)이요 이곡(尼谷) 하응노(河應魯)의 아우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나 만형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겼다. 상을 당함에 흰 제비가 상막에 집을 지으니 사람들이 송규암(宋圭菴) 인수(麟壽)의 효행과 함께 일컬었다.

● 하상진(河相晉)

河相晉字再源號月隱襄靖公敬復后父病累年設壇祈天一日夜夢有老人來言曰汝往茂朱訪某人求藥忽覺而如其言往茂朱則果有某人其人亦知自己姓名怪而問之則答云嘗有夢中老人言之故知君爲孝子因與之藥歸而煎進病即差(居青岩今河東)

하상진(河相晉)의 자는 재원(再源)이요 호는 월은(月隱)이니 양정공(襄靖公) 하경복(河敬復)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여러 해가 되어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빌었더니, 어느 날 밤 꿈에 어떤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무주(茂朱)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약을 구하라.”라 하므로 문득 깨어서 그의 말과 같이 무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도 자기의 성명을 알고 있었다. 괴이하게 여기어 물으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꿈속에서 노인이 말하기 때문에 자네가 효자인 것을 알았노라”라 하고, 이어 약을 지어 줌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다려서 드리니 병이 즉시 나았다. (청암에 살았으니 지금은 하동이다.)

● 최징(崔澄)

崔澄字士庸號壽岩全州人四歲鞠於繼母趙氏性嚴諸子有過不少假借起敬起孝務悅親心晚年析箸隔峻嶺而居趙氏嗜水魚日躬釣持獻於十里之外趙氏曰汝釣不勞而直不重歟蓋悶其衰也(居清岡今山清)

최징(崔澄)의 자는 사용(士庸)이요 호는 수암(壽岩)이니 전주인이다. 나이 네 살 때에 계모 조씨(趙氏)에게서 길러졌더니 조씨는 성질이 엄하여 여러 자식들이 잘못이 있으면 조금도 가차가 없었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심을 일으켜 아버지의 마

음을 기쁘게 하기에 힘썼다. 만년에 살림을 나누어 준령을 사이에 두고 살더니 조씨가 물고기를 즐겼으므로 날마다 낚아서 십리의 밖에 가서 드리었다. 조씨가 말하기를, “낚는 데는 수고가 안 되겠지마는 대 꾸러미가 무겁지 않느냐?” 라 하였으니, 대개 그의 쇠약한 것을 민망히 여긴 것이다.(청강에 살았으니 지금은 산청이다.)

● 최호(崔浩)

崔浩字士欽號月塢壽岩澄弟也平生以邵堯夫安貧知幾之句爲持身之符母夫人猝遇病公乘輿徑還問其故曰夢兆異常故也自是不得經宿於外躬濯屣裙請代之則曰事親固子職也暫不離側左右扶持以終天年(居青岡今固城)

최호(崔浩)의 자는 사흙(士欽)이요 호는 월오(月塢)니 수암(壽岩) 최징(崔澄)의 아우다. 평생에 소요부(邵堯夫:중국 송나라 때 학자)의 ‘안분지기(安貧知幾)’의 구절로서 몸을 가지는 부적으로 삼았다. 모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렸더니 공이 비를 무릅쓰고 지름길로 돌아왔으므로 그 연고를 물으니 이르기를, “꿈에 징조가 이상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이로부터 밖에서 자지 않았다. 몸소 치마와 속옷을 씻었다. 이를 대신하기를 청하면, “아버이를 섬기는 것은 진실로 자식된 도리다.”라 하고, 잠시도 걸을 떠나지 않고 좌우에서 부지하여 명을 마쳤다.(청강에 살았으니 지금 고성이다.)

● 성동윤(成東潤)

成東潤字君翰昌寧人慕省齋鏞后事親至孝居喪盡禮終身孺慕世稱成孝子壽僉樞(居龍澗)

성동윤(成東潤)의 자는 군한(君翰)이요 창녕인이니 모성재(慕省齋) 성용(成鏞)의 후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한 효도였고, 상을 치름에 예를 다했으며 종신토록 어머니를 사모하니 세상에서 성효자라고 일컬었다. 수직(壽職)으로 침추(僉樞)를 받았다.(용심에 살았다.)

● 정양석(鄭亮錫)

鄭亮錫字漢明號素軒海州人東塢佑教子天性至孝母憂哀毀踰度日必展墓泣血腐衿

隣里感其孝呈狀州牧而不報人皆惜之(居佳谷)

정양석(鄭亮錫)의 자는 한명(漢明)이요 호는 소헌(素軒)이니 해주인이며 동오(東塢) 정우교(鄭佑教)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니 모상에 애화가 도를 넘었고 날마다 반드시 묘를 살펴 피눈물을 흘리어 옷깃이 썩었다. 이웃에서 그 효성에 감동하여 글을 목사에게 올렸으나 조정에 보고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가곡에 살았다.)

● 조석옥(曹碩玉)

曹碩玉一名碩祐字國見號晚桂南冥先生九世孫自幼有至性事父母竭盡誠敬雖屢空而甘旨不匱母夫人嬰奇疾彌留累月日夜悲泣暫不離側及至危劇斫指灌血竟得回甦至享八耄(居德山今山淸)

조석옥(曹碩玉)은 일명 석우(碩祐)요 자는 국현(國見)이며 호는 만계(晚桂)니 남명선생의 9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이 있어 부모를 섬김에 정성과 공경을 다했다. 비록 매우 가난할지라도 맛난 음식을 어기지 아니 하였고, 어머니가 이상한 병에 걸리어 여러 달을 몸져 누웠더니 밤낮으로 슬피 울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위태로움이 심하기에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넣어 마침내 희생하게 되어 나이 80에 이르렀다. (덕산에 살았으니 지금의 산청이다.)

● 정상함(鄭相咸)

鄭相咸字仁卿號源齋海州人自幼時不好奢華常周旋於父母之側暑則扇枕寒則溫被出外得魚果則必懷而歸以獻親夜讀書薪不絕甘旨母病革血指灌口回甦鄉里多感化刺史屢薦而因 朝家有事未蒙旌表人咸惜之

정상함(鄭相咸)의 자는 인경(仁卿)이요 호는 원재(源齋)이니 해주인이다. 어려서부터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모 곁에서 맴돌았다. 더우면 베개머리에서 부채질하고 추우면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밖에 나가서 고기나 과일을 얻으며 반드시 품에 넣어가지고 돌아와서 어버이께 드리었다. 밤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나무 하며 맛있는 음식을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이 심하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입에 넣어서 회생시켰다. 고을에서 많은 감화가 있었으므로 고을원이 여러 번 천거하였으나 조정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표(旌表)를 입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최덕승(崔德升)

崔德升字允若號默岩全州人自幼入養于寡母李氏無違志李氏自中身後落傷不能運肘公必朝夕執匙於側母年及耄大小便必須人廁踰洗滌躬自執役不以委人及遭相送終無憾又迎生父於家終身奉養(居青岡今固城)

최덕승(崔德升)의 자는 윤약(允若)이요 호는 묵암(默岩)이니 전주인이다.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이씨(李氏)에게 입양되었더니 뜻을 어긴 일이 없었고, 이씨가 중년이 된 뒤 낙상을 하여 팔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공이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손가락을 잡혀주었다. 어머니의 나이 80에 이르기까지 대소변을 꼭 다른 사람을 기다려서 하게 되었는데 변기의 세척을 몸소 맡아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장례를 치르는 데 한이 되는 일이 없게 하였고, 또 친아버지를 집에 맞이하여 그 몸애 다하도록 봉양하였다. (칭강에 살았으니 지금 고성이다.)

● 정표(鄭杓)

鄭杓字孝克號陽川注書潤子母夫人年六十五偶羅猝倒之症求藥禱天靡所不至湯餌之節必親檢九年如一日一朝母夫人忽起坐曰吾今瘳矣由汝誠力而然歟舉家驚喜不數日而奄逝公哀毀終制李晦山宅煥隔隣而居知公事甚詳故每對人言鄭公之誠可謂根天云(居陽川今河東)

정표(鄭杓)의 자는 효극(孝克)이요 호는 양천(陽川)이니 주서(注書) 정윤(鄭潤)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나이 65세에 우연히 졸도하는 증상에 걸렸더니 약을 구하고 하늘에 빌어 이르지 않는 마가 없었고, 음식의 범절은 반드시 친히 살폈다. 이렇게 9년 동안을 하루와 같이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이르기를 “내가 지금 나았다. 너의 정성에 의지하여 그렇게 되었다.”라 하였다. 온 집안이 놀래고 기뻐하더니 수일이 되지 못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공은 애훼로 상을 마쳤더니 이회산(李晦

山) 택환(宅煥)이 이웃에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서 공의 일을 매우 자세히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양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정공의 정성은 하늘에 뿌리를 박은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라 하였다.(양천에 살았으니 지금 하동이다.)

● 성탁(成倬)

成倬字處潤浮查汝信后天資質直隣里有奸軌敗倫者必正色以責之以正其非人多敬服事親至孝奉養志體承順無違父病侍湯暫不懈弛至屬續斫指灌血五日回甦居喪一遵家禮哀毀踰節及求葬地親負地師不嫌險峻行十餘里得穴安厝(居龍潯)

성탁(成倬)의 자는 처윤(處潤)이요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예다. 자질이 올곧아 이웃 마을에 규칙을 어기고, 윤상을 깨뜨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색하고 꾸짖어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니 사람들이 많이 복종하였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워 지체로 봉양하고 뜻을 받들어 어기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병드니 시탕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임종에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짚어서 피를 쏟아 넣어서 5일 동안 회생케 하였다. 상에는 한결같이 가례를 지키고 애화가 절도를 넘었으며, 장지를 구하기에 이르러서는 친히 지관을 등에 업고 험준한 곳을 싫어하지 않고, 10여리를 행하여 혈(穴)을 얻어 안장하였다.(용심에 살았다.)

● 한무원(韓武源)

韓武源字文則號靜叟性度仁淳孝友純至家貧樵山漁水甘旨無闕父以脚病委臥日夜焦思盡誠調治醫云黃蛇加療疾武源百方求之作膾先嘗後進八年如一日病遂完治鄉里稱孝子甲午東亂匪徒橫行閭里相警戒曰此孝子家慎勿犯(居丁樹)

한무원(韓武源)의 자는 문칙(文則)이요 호는 정수(靜叟)다. 성품이 인순하고 효우가 순수하고 지극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하고 고기를 낚아 맛난 음식을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가 다리에 병을 얻어 몸져눕자 밤낮으로 걱정하며 정성을 다하여 조리를 하였다. 의원이 이르기를, “황사(黃蛇)가 있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 하므로 무원이 백방으로 이를 구하여 회(膾)를 만들어 먼저 맛본 뒤에 드렸다. 8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더니 병이 드디어 완치되니 마을에서 효자라고 일컬었다. 갑오년의 동학란에 비도(匪

徒)들이 횡행함에 마을에서 서로 경계하여 이르기를, “여기는 효자의 집이니 조심하여 범하지 말라”라 하였다.(정수에 살았다.)

● 이병순(李炳珣)

李炳珣字君見號東亭星山人天性至孝父公老昏卽席遺矢席無乾時空日夜時側澡拭惟勤室無臭惡之氣進飯公手執匙箸如哺嬰兒餞餘必嚙及遭憂泣血蔬食以終三年丙寅洋騷公慷慨赴義未至京師賊平乃還所著檄文忠義凜然(居水谷)

이병순(李炳珣)의 자는 군현(君見)이요 호는 동정(東亭)이니 성산인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아버지가 늙어서 자리에서 바로 대소변을 하여 자리가 마를 틈이 없었다. 공이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씻고 닦는 것을 부지런히 하여 집에 악취의 기운이 없게 하였고, 밥을 드릴 때는 공이 손수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과 같이 하였으며, 턱찌꺼기의 남은 것은 반드시 천천히 삼키었다. 상을 당하기에 이르러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거친 밥으로 3년을 마쳤다. 병인양요에 공이 강개하여 부의(赴義)하였더니 서울에 이르지 못하여 적이 평정 되었으므로 곧 돌아왔다. 이때에 저술한 격문은 충의가 넘름하였다.(수곡에 살았다.)

● 최규순(崔圭順)

崔圭順字洛七號良川全州人性至孝年十四移天于仲庭極順親旨無毫髮違忤嘗以門事逮係州獄聞父病危泚哀乞獄直曰使我晝而獄夜而家得奉侍藥則汝無官責我得伸情獄直感其誠遂許之自是距家十里之地乘夕而來問醫調藥鷄鳴而去入囚如初如是者十八日事平得釋父亦回甦以天年終(居一班城良庄)

최규순(崔圭順)의 자는 낙칠(洛七)이요 호는 양천(良川)이니 전주인이다. 성품이 효성스럽더니 나이 14세에 중부(仲父)에게 양자 갔는데 아버지의 뜻을 순응하여 터럭만치도 어기거나 그릇 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문중에 일 때문에 옥에 체포되었더니 아버지가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옥리에게 애걸하여 이르기를, “나로 하여금 낮에는 옥에 있게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약을 받들어 모시게 한다면 너에게는 관의 질책이 없고 나는 정성을 펴게 될 것이다.”라 하니, 옥리도 그의 성의에 감동하여 드디어 허

락하였다. 이로부터 집에까지 거리가 10리였는데 밤을 타서 와서 의원에게 약을 조제하였고, 닭이 울면 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처음과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18일 동안 계속하다가 일이 평정되어 풀리게 되고 아버지도 또한 소생하여 명을 마쳤다. (일반성 양전에 살았다.)

● 김중우(金鍾佑)

金鍾佑金海人早喪父孝奉偏慈其母積病十四年侍湯不懈夢神人指示求藥得效丁憂哀毀幾滅性(居竹谷)

김중우(金鍾佑)는 김해인이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편모를 봉양하더니 그 어머니가 병이 겹쳐 40년 동안을 앓았다. 시탕(侍湯)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꿈에 신인(神人)의 지시가 있어 약을 구하여 효험을 보았고, 상을 당함에는 애획로 거의 졸도 지경이 되었다. (죽곡에 살았다.)

● 성진규(成鎭奎)

成鎭奎字聖天號琴岩琴坡師曾孫昌寧人天性至孝事親克盡其誠居喪廬墓泣血終制又與群弟友愛彌篤遠近稱嘆不已(居琴洞)

성진규(成鎭奎)의 자는 성천(聖天)이요 호는 금암(琴岩)이며 금과(琴坡) 성사증(成師曾)의 손자이니 창녕인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이를 섬김에 그 정성을 다 하였고, 상에 여묘에서 읍혈하면서 절차를 마쳤다. 또 여러 아우들과 벗들로 더불어 애정이 더욱 돈독하니 원근에 사람들이 칭찬했다. (금동에 살았다.)

● 최규환(崔圭桓)

崔圭桓字肅卿號屏岩全州人力學攻苦性又至孝生數晬失慈母事繼母李氏誠無不至身病累年常以貽憂爲慮不露痛楚之色以故母常不知其病臨化有詩以不得終養爲恨平生行己端方不違繩尺用工專在於四子(居青岡今固城)

최규환(崔圭桓)의 자는 숙경(肅卿)이요 호는 병암(屏岩)이니 전주인이다. 힘써 배우고 괴로움을 이겼으며 성품이 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태어나서 수 돌이 되어 어머니를

없고 그대로 이씨를 섬기더니 정성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몸이 병이 든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나 항상 근심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여 아프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가 그의 병을 알지 못했더니 임종에 시를 남겨 봉양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삼았다. 평생에 행동이 단정하고 방정하여 법도를 어기지 아니하였고 용공(用工)은 오로지 공자·맹자·정자·주자에만 있었다. (청강에 살았으니 지금 고성이다.)

● 정계교(鄭桂教)

鄭桂教字殷喆海州人進士光龍子事親暫不離側進士公嘗野行見雇人拔稗歸語公曰雇人拔禾公告曰稗也爲之植庭中待發穗以告之務在怡悅親志至夜舉日用行事悉告之待親睡而後退號退庵(居龍岩)

정계교(鄭桂教)의 자는 은철(殷喆)이요 해주인이니 진사 광룡(光龍)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진사공이 일찍이 들로 가다가 머슴이 피를 뽑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공에게 말하기를, “일꾼이 벼를 뽑고 있었다.”라 하므로 공이 고하기를 “피입니다.”라 하고 이를 위하여 뜰 가운데에 피를 심고 이삭이 피어나기를 기다려서 고하였다. 힘쓴 것은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있었으며, 밤에는 하루의 모든 일을 모조리 고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려서 뒤에 물러났다. 퇴암(退岩)이라고 호를 지었다. (용암에 살았다.)

● 최강진(崔岡鎭)

崔岡鎭慶州人 純祖朝進士天性至孝親疾危劇與其弟岡翰斫指注血得甦六日及丁憂哀毀踰禮啜粥三年鄉道累有呈狀

최강진(崔岡鎭)은 경주인이다. 순조 때에 진사였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그 아우 강한(岡翰)과 손가락을 갈라서 피를 쏟아 넣어 6일 동안 희생하게 되었다. 그 후에 상을 당해서는 애화가 예를 넘었고, 죽만 먹기를 삼년 동안 계속하였으니 고을에서 여러 번 글을 올린 일이 있었다.

● 강일제(姜一齊)

姜一齊字俊汝晉陽人誠齋應台后年甫髻鬣父有疾斫指灌口疾得愈鄉里驚嘆以謂根天之孝及遭憂泣血終制晚年挈家入集賢山下樞洞扁其楣曰暝齋示其永晦不出之意也(居樞洞)

강일제(姜一齊)의 자는 준여(俊汝)요 진양인이니 성재(誠齋) 강응태(姜應台)의 후손이다. 나이 겨우 7, 8세가 되어 아버지가 병드니 손가락을 찌어 입에 피를 흘려 넣으니 병이 낫게 되었다. 고을에서 경탄하여 '하늘의 효자'라고 일렀고, 상을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을 마쳤다. 만년에는 가족을 이끌고 집현산(集賢山) 아래 추동(樞洞)으로 들어가서 그의 문미(門楣)에 편액을 명재(暝齋)라고 하였으니, 그가 영구히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아니할 뜻을 보인 것이다.(추동에 살았다.)

● 김중길(金鍾吉)

金鍾吉金海人父病醫云白章蛇油當效時值窮冬祈天號泣忽有大蛇出於冰岸取油進之得效嗣孫鳳烈就得蛇處立碑以紀績碑銘曰公有卓孝儒章聯作廟堂褒彰命旌贈爵閭在竹谷彰孝其閣慈山省墓夜虎守傍皇考病淋驗差糞嘗吮淋通便雪蛇服良蛇所孔邇曰此申泮不肖維則伐石斯速瞻仰遺躅宛然不泯是用刻銘永示無盡(見前誌)

김중길(金鍾吉)은 김해인이다. 아버지가 병들었더니 의원이 이르기를, “백장사(白章蛇)의 기름이 있으면 마땅히 효험을 볼 것이다.”라 하였다. 때마침 깊은 겨울이었으므로 하늘에 빌면서 호읍하니 홀연히 큰 뱀이 얼음 언 언덕에서 나왔다. 기름을 내어 드리니 효험을 얻었더니 사손(嗣孫) 봉열(鳳烈)이 뱀을 얻은 곳에 비를 세우고 공적을 기록하였다. 그 비명에 이르기를 “공에게 탁월한 효성이 있어 유장(儒章)을 연이어 만들었네. 조정에서 포창하여 정려(旌閭)를 명령하고 벼슬을 추증하였네. 정려는 죽곡(竹谷)에 있어 효를 그 집에 빛냈도다. 자산에서 성묘하니 밤마다 뱀이 곁에 지켰도다. 아버지께서 임병(淋病)을 앓으시니 차도를 징험하기 위하여 똥을 맛보았네. 임처(淋處)를 변을 통하게 하였으니 눈 속에서 뱀 먹어 병 나았도다. 뱀 얻은 곳 아주 가난함이니 이곳 신복(申泮)이로다. 불초(不肖) 이어 본받아 들을 꺾어 여기에서 얼른 세웠도다. 남기신 발자취가 우러러보니 완연(宛然)하여 없어지지 않으리로다. 여기 명을 새겨 것은 길이 무진한 것을 보인 것이로다.”라 하였다.(앞의 읍지에 보인다.)

● 안원극(安元極)

安元極字賢若號三友堂順興人孝子光義子也天性至孝父病瘡八年與弟亨極利極晝宵侍側互相吮之夜則禱天愈久靡懈乃得全瘳其後臨沒之時元極往十里外製藥而歸中路聞父已絕顛倒入門斫指注血以得回甦鄉道累次呈狀 高宗乙巳蒙復戶(居德山今山淸)

안원극(安元極)의 자는 현약(賢若)이요 호는 삼우당(三友堂)이니 순흥인이며, 효자 광의(光義)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아버지가 종기를 앓은 지 8년이 되었다. 이에 아우 형극(亨極) 이극(利極)과 밤낮으로 곁에 모시고 서로 서로 빨았으며, 밤이면 하늘에 빌어 더욱 오래도록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이에 온전히 나을 수가 있었다. 그 후에 임종 때에 원극이 10리 밖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이미 절명하였다는 말을 듣고, 넘어지면서 문에 들어 와서 손가락을 찍어 피를 쏟아 넣어서 소생되었다. 고을에서 누차 장계를 올렸더니, 고종 을사년에 세금 면제를 입었다. (덕산에 살았으니 지금 산청이다.)

● 양주현(梁柱賢)

梁柱賢字聖希號茶隱南原人大司諫思貴後年十七喪父家甚貧竭力農桑晝夜不懈化細爲贏奉偏母誠盡每當市日躬往買肉以供之平生以早孤未養爲恨每當忌辰哀慟殊甚如不欲生先世墓儀之未備者辦之祭田之不贍者具之小宗之無後者繼之齋室之傾圮者葺之凡於繼述靡不用力晚與李晦山宅煥崔修堂瓊秉諸公修花溪十逸契徵逐嘯咏以終老焉(居茶井今河東)

양주현(梁柱賢)의 자는 성희(聖希)요 호는 다은(茶隱)이며 남원인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후예다. 나이 17세에 아버지를 잃고 집이 매우 가난하니 농상(農桑)에 힘을 다하고, 밤낮으로 게을리 아니하여 가난을 변화시켜 넉넉하게 만들었다. 편모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했으니 매번 장날을 만나면 몸소 가서 고기를 사서 이바지하였다. 평생에 일찍 고아가 되어 봉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매양 제사에서 애통함이 유달리 심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선대의 묘소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면 이를 갖추었고, 제전(祭田)이 넉넉지 못하면 이를 족하게 하였으며, 소종(小

宗)에 후사 없는 이가 있으면 이를 잇게 하였고, 재실이 기울어지거나 흠더미가 된 것이 있으면 이를 덮어주어 모든 조상의 사업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만년에는 이회산(李晦山) 택환(宅煥)과 최수당(崔修堂) 경병(瓊秉) 등과 ‘화계십일계(花溪十逸契)’를 만들어 서로 어울려 시를 읊조리면서 평생을 마쳤다. (다정에 살았으니 지금 하동이다.)

● 이지송(李志松)

李志松字整仲號茅庵彙仁子性至孝母病斷指及喪三年不御酒肉忌日血淚經夜至八耄不衰修洞規勵民俗築書室教子侄損田土補宗嗣接賓客廣交遊妻子饘粥不繼而晏如也(居介亭)

이지송(李志松)의 자는 정중(整仲)이요 호는 모암(茅庵)이니 휘인(彙仁)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니 어머니가 병중에 손가락을 끊었고,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 하였으며, 기일에는 피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80에 이르러도 쇠하지 아니하고 마을의 규약을 만들어 민속을 가다듬고, 서실을 세워 자식과 조카를 가르치고, 전토를 덜어 종사를 보충하여 주고, 빈객을 대접하여 교유를 넓히었다. 처자가 죽을 먹는 것이 끊어져도 편안해했다. (개정에 살았다.)

● 강태수(姜台秀)

姜台秀字極明號愚齋通亭淮伯后父病斷指嘗糞母患中風不能運手足朝夕必執匙於側及遭故哀毀踰制三年內每日省墓雖暴風大雪不廢人感其誠至有治省墓之路(居元堂)

강태수(姜台秀)의 자는 극명(極明)이요 호는 우재(愚齋)이니 통정(通亭) 강회백(姜淮伯)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병중에 손가락을 끊고 똥을 맛보았으며, 어머니가 중풍을 앓아서 수족을 쓸 수가 없음을 조석으로 반드시 곁에서 손가락을 잡았다. 상고를 당하기에 이르러서는 애획로 예를 넘었고, 3년 안에는 매일 성묘하여 비록 폭풍이나 큰 눈이 올지라도 그만두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정성에 감동하여 성묘하는 길을 닦기에 이르렀다. (원당에 살았다.)

● 이현선(李鉉宣)

李鉉宣字燦華號農窩載寧人孝子衡后早喪父侍偏母克誠克孝口體之養晨昏之誠極盡其道年踰耳順而遭喪哀痛隕迫幾絕而殊每日省墓不以寒暑而廢三年行素竟得羸悴之疾鄉里比擬於古之二連云(居麻津)

이현선(李鉉宣)의 자는 찬화(燦華)요 호는 농와(農窩)이니 재령인이며, 효자 이형(李衡)의 후손이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편모를 모시더니 지극한 정성과 효도로 구체(口體)의 봉양을 다하였다.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정성은 그 도리를 극진이 하였고 나이 60이 넘어서 상을 당했는데 애통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더구나 매일 성묘하여 추위나 더위 때문에 그만두지 아니하였고, 3년 동안 소박한 식사를 행하여 마침내 매우 여위어져 병을 얻으니, 고을에서 옛날 이연(二連)에 견주었다고 한다.(마진에 살았다.)

● 한태동(韓泰東)

韓泰東字景長清州人志行醇潔孝友天性家貧奉養必盡滋味愉聲和色務悅親心有新味則雖菜果之微先嘗而後進及遭故哀毀幾滅性祭物必致精潔終三年如禮人皆謂之善居喪云(居丁樹)

한태동(韓泰東)의 자는 경장(景長)이니 청주인이다. 행실이 순결하고 효우가 천성이었다. 집이 가난하였으므로 반드시 맛난 음식을 준비하여, 기쁜 소리와 환한 얼굴빛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힘썼다.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비록 채소와 과일 등 미세한 것일지라도 먼저 맛보고난 뒤에 드렸고, 상을 당하자 애획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제물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였고 3년상을 마치는데 예와 같이하니 사람들이 모두 상(喪)을 잘 치루었다고 말했다.(정수에 살았다.)

● 이창규(李昌圭)

李昌圭字舜遠文烈公兆年後事父母志體備至家甚貧而猶日往市求珍鮮以供及父公背瘡濃潰數朔吮之而愈人皆稱頌晚年築八松亭以棲息焉(居潮溪)

이창규(李昌圭)의 자는 순원(舜遠)이니 문열공(文烈公) 이조년(李兆年)의 후예이다. 부모를 섬김에 지체를 갖추어 지극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는데도 오히려 날마다 장

에 가서 진귀하고 신선한 것을 구하여 이바지하였다. 아버지가 등창이 나서 고름이 많이 났는데 수개월 동안 빨아서 낫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만년에는 팔송정(八松亭)을 세워 서식(棲息)하였다.(조계에 살았다.)

● 정귀영(鄭貴永)

鄭貴永延日人圃隱先生后性至孝年十四母患內瘡竭誠侍湯瘡乃得效後患疽八年吮而愈之家貧行傭極盡滋味里中人賞以褒之(居寒溪今河東)

정귀영(鄭貴永)은 연일인이니 포은선생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나이 열네 살에 어머니가 내종(內瘡)을 앓음에 정성을 다하여 시탕하여 내종이 곧 나았다. 뒤에 등창을 앓았더니 8년 동안 빨아서 낫았다. 집이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였는데,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하여 드리니, 동네 사람들이 상으로 포창하였다.(한계에 살았으니 지금의 하동이다.)

● 정연석(鄭淵錫)

鄭淵錫字子淵海州人自幼事父母承順無違父病斷指一日回甦當喪哀毀踰制鄉里稱之(居佳谷)

정연석(鄭淵錫)의 자는 자연(子淵)이요 해주인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김에 순종하여 어기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병중에 손가락을 끊어서 하루 만에 회생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애훼로 예를 넘으니, 고을에서 이를 칭찬하였다.(가곡에 살았다.)

● 양한조(梁漢祚)

梁漢祚字允淑號南坡南原人性至孝母病色憂嘗糞禱天丁憂哀毀幾絕喪葬凡百一遵禮制日上墓省謁雖風寒暑雨不廢至老亦然鄉人稱爲梁孝子云(居鳳鉢今固城)

양한조(梁漢祚)의 자는 윤숙(允淑)이요 호는 남파(南坡)이니 남원인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니 어머니의 병색이 근심되어 똥을 맛보고 하늘에 빌었다. 상을 당해서는 애훼로 명이 거의 끊어질 뻔하였고, 장사의 범백(凡百)을 한결같이 예제를 따랐다. 날마다 묘에 가서 살피고 배알하였으니, 비록 풍한에 덮고 비오더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늡음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니 향인들이 양효자라고 칭찬하였다고 이른다. (봉발에 살았으니 지금의 고성이다.)

● 채경진(蔡景珍)

蔡景珍字邦汝仁川人貞義公貴河后性至孝自幼事父母盡志體之養年十三其父以脚腫誤鍼成癰積年沈苦百方侍湯無不用極晝宵吮膿竟得完合母病築壇禱山百日竟得完快前後喪哀毀踰禮

채경진(蔡景珍)의 자는 방여(邦汝)요 인천인이니 정의공(貞義公) 채귀하(蔡貴河)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김에 뜻과 몸을 아울러 봉양을 다하였다. 나이 열세 살에 그 아버지가 다리에 종기로 침을 잘못 맞아 종기가 되어 수 년토록 고생하더니, 백방으로 시탕하여 끝까지 쓰지 않은 것이 없었고 밤낮으로 농을 빨아내어 마침내 완전하게 합해지게 되었다. 또 어머니가 병듦에 단을 쌓고 산에서 백일 동안을 빌었더니 마침내 완쾌하게 되었다. 전후의 상에는 애획가 예를 넘었다.

● 양주두(梁柱斗)

梁柱斗字子昂號雲汀南原人大司諫思貴后五歲失恃哭泣甚哀聽者動容常以早失怙恃至痛在心每當忌日悲愴殊甚克致如在之誠且御家有法謹於禮度所與遊皆一時名流(居加德今河東)

양주두(梁柱斗)의 자는 자양(子昂)이요 호는 운정(雲汀)이며 남원인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후손이다. 5세에 아버지를 잃었더니 우는 소리가 심히 슬퍼서 듣는 사람이 감동하였다. 항상 일찍이 부모를 잃은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어 매양 기일이면 비참함이 특별히 심하여, 살아 계실때 하던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하였다. 또 집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어 예도(禮道)를 삼가하였고, 함께 노는 이들이 모두 한때의 명유들이었다. (가덕에 살았으니 지금 하동이다.)

● 강석무(姜錫武)

姜錫武字乃敬號一笑軒晉陽人誠齋應台后官司憲府監察事親極其誠孝定省無闕及

親沒哀毀踰禮以終三年國變後杜門自廢不勝痛憤人有慰之者公曰吾輩雖愚賤忍見祖國陷於外夷何以爲生晶山李鉉德撰傳(居樞洞)

강석무(姜錫武)의 자는 내경(乃敬)이요 호는 일소헌(一笑軒)이며 진양인이니 성재(誠齋) 응태(應台)의 후손이다. 벼슬이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더니, 아버이를 섬김에 그 효성을 지극히 하여, 정성이 빠지는 일이 없었다. 아버이가 돌아가시기에 이르러서는 애화가 예를 넘어 3년을 마쳤다. 나라의 변고가 있는 뒤로는 문을 닫고 스스로 폐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위로하는 일이 있으면, 공이 이르기를 “우리들이 비록 어리석고 미천하다 하더라도 차마 나라가 오랑캐에게 빠진 것을 보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 하였다. 정산(晶山) 이현덕(李鉉德)이 전을 지었다.(추동에 살았다.)

● 임주래(林柱來)

林柱來字德世號梅軒羅州人父病篤斫指注血竟得回甦子就日性亦至孝一遵父道孫敬武父疾數年與其妻黃氏祈山白日夢有神人指示靈藥父病完瘳鄉人士舉狀請褒而未報後孫立三年孝碑於於玉里前

임주래(林柱來)의 자는 덕세(德世)요 호는 매헌(梅軒)이니 나주인이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함에 손가락을 찍어 피를 쏟아 넣어서 마침내 회생하게 하였다. 아들 취일(就日)의 성품도 또한 효성스러워 한결같이 부도(父道)를 따라 지켰으며, 손자 경무(敬武)도 아버지가 병들어 수년 동안 고생하더니, 그의 아내 황씨와 산에서 백일을 빌어 꿈에 신인이 나타나 지시하여 아버지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 고을 선비들이 장계를 올려 포상을 청했으나 알리지 못했고, 후손이 삼효비(三孝碑)를 옥리(玉里)에 세웠다.

● 임병태(林炳泰)

林炳泰字元淑號祈山羅州人家貧早孤奉偏母極其誠孝晨昏定省婉愉承旨少無違忤及丁憂哀毀踰制蔬食三年鄉里舉狀而未得旌褒人皆惜之後孫立碑村前義城金梶撰碑文(居於玉里)

임병태(林炳泰)의 자는 원숙(元淑)이요 호는 기산(祈山)이니 나주인이다. 집이 가난

한데 일찍 고(孤)가 되어 편모를 봉양하더니, 그 효성이 지극히 하였다. 혼정신성(昏定晨省)하여 뜻을 받들어 조금도 어기거나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상을 당함에 이르러서는 애휼함이 예를 넘었고, 3년 동안 거친 밥을 먹으니 고을에서 글을 올렸으나 정포(旌褒)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애석하게 여기더니 후손들이 마을 앞에 비를 세웠다. 의성(義城) 김황(金樞)이 비문을 지었다.(어옥리에 살았다.)

● 강선향(姜璿杭)

姜璿杭字周呂雪林聖祚子自幼孝於親友于兄弟人無間言父沈疾與弟珠杏累月侍湯夜不交睫及遭故哀毀踰禮天性雅潔植小梅於庭前吟冰姿玉骨雪中笑最愛其心似故人之句號梅湖(居雪梅)

강선향(姜璿杭)의 자는 주려(周呂)니 설림(雪林) 강성조(姜聖祚)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으니, 사람들의 흠잡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병이 걸림에 아우 주행(珠杏)과 몇 달 동안 시탕하여 밤에도 눈을 붙이지 아니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애휼이 예를 넘었다. 천성이 아결하니 적은 매화나무를 뜰 앞에 심어두고, “얼음과 같은 자세와 옥과 같은 마음으로 눈 속에서 웃고 있어, 그 마음 고인과 같기에 한없이 사랑하네!”라는 시구를 읊었다. 호를 매호(梅湖)라 하였다.(설매에 살았다.)

● 구영서(具英書)

具英書字平彥左贊成成老后幼知事親出外得異味未嘗先口歸而獻親家甚貧而甘旨不匱其妻海州吳氏克體夫意事姑甚謹姑委席三年一日願食生雉肉夫婦祈天呼泣忽有飛雉入廚中取而供進疾遂得效年已踰耄日一省墓不廢沒后立雙孝碑於佳亭里提學李炳觀撰碑銘(居佳亭里)

구영서(具英書)의 자는 평언(平彥)이니 좌찬성(左贊成) 구성로(具成老)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이 섬길 줄을 알았으니 밖에 나가서 이상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입으로 맛보지 않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드렸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맛난 음식을 끊어지게 아니하였고, 그의 아내 해주 오씨도 지아버의 뜻을 잘 체득하여 시어머니를 섬기기를 매우 삼가하였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운 지가 3년이 되었더니, 어느 날 산 꿩고기를

먹기를 원하므로 부부가 하늘에 빌고 호읍하니, 홀연히 꿩이 부엌으로 날아들어 왔다. 잡아서 바치니 병이 드디어 호험을 보았고 나이 이미 80을 넘겼는데도 날마다 한 번씩 성묘하여 추위와 더위에도 폐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을 떠난 뒤에 쌍효비(雙孝碑)를 가정리(佳亭里)에 세웠으니 제학(提學) 이병관(李炳觀)이 비명을 지었다. (가정리에 살았다.)

● 양익환(梁益煥)

梁益煥字道見南原人大司諫思貴后 高宗癸巳中武科天性至孝事親極盡其道及丁憂哀毀踰禮三年之內不離廬側頭不櫛經不解日一省墓雖祁寒盛暑不廢隣里感化至有治省墓之路(居良邱今河東)

양익환(梁益煥)의 자는 도현(道見)이요 남원인(南原人)이니 대사간(大司諫) 양사귀(梁思貴)의 후손이다. 고종 계사년에 무과에 합격하였더니, 천성이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섬김에 그 도리를 지극히 다하였다. 상을 당함에 이르러서는 애훼가 예를 넘었고, 3년 동안 여막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아니했고, 삼복에 띠를 풀지 아니했으며, 날마다 한 번씩 성묘하여 비록 매우 추운 때나 매우 더운 때라 하더라도 폐하지 아니하니 마을에서 감화하여 성묘하는 길을 닦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양구에 살았으니 지금 하동이다.)

● 정연준(鄭然準)

鄭然準字源卿號一齋圃隱先生后天資沈重學識淹博事親有至誠能盡志體之養父公患麻痺七年委在床褥公暫不離側便溺之具躬自洗滌不委他人及遭故哀毀幾至滅性守制如禮家甚貧饘粥不給妻子恒有飢色而隨遇而安泊然無所動心(居桐谷)

정연준(鄭然準)의 자는 원경(源卿)이요 호는 일재(一齋)니 포은선생의 후손이다. 자질이 침중하고 학식이 엄박(淹泊)하며, 아버지가 섬김에 정성이 있어 능히 지체의 봉양을 다하였다. 아버지가 신경이 마비되는 병을 앓아 7년이나 누워있었는데 공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대소변 도구를 몸소 세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상을 당하여 애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절차를 지킴에 예답게 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죽이 넉넉지 못하여 처자가 항상 굶주린 빛이 있었으며, 능히 경우에 따라 안주하고 담박한 모습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바가 없었다.(동곡에 살았다.)

● 성환구(成煥龜)

成煥龜字瑞一號後琴昌寧人琴臯石根子稟資剛直才器超凡讀書過眼成誦事親至孝父公性甚嚴少有過則輒幽之室中亂加鞭扑至於流血而愈益恭遜無一言分疏母有眼疾暫不離側躬執厠牖之役丁憂斫指灌口守制終三年每對先公遺蹟嗚咽流涕族黨稱其孝或有感而化之者(居琴洞)

성환구(成煥龜)의 자는 서일(瑞一)이요 호는 후금(後琴)이며 창녕인이니 금고(琴臯) 성석근(成石根)의 아들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재기가 탁월하고, 독서할 때 눈을 거치면 외우게 되었다. 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부친의 성질이 매우 엄하여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문득 방안에 가두어 놓고 어지럽게 매질을 가하여 피를 흘리기에 이르렀으며, 더욱더 공손하고 한마디 말의 소홀함도 없었다. 어머니가 눈병이 있으니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몸소 변소에 모시는 역을 맡았다. 상에는 손가락을 끊어 입에 피를 넣었고, 수제(守制)로 삼년을 마쳤으며 매양 선공의 유적을 대하면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니 주위에서 그의 효성을 칭찬하고 혹은 감동하여 교화된 자도 있었다.(금동에 살았다.)

● 임병옥(林炳玉)

林炳玉字四圭羅州人監務卓后父病三載迎醫攻藥無所不至便尿之具躬自洗滌少無臭穢之氣百日祈山夢有一老人來言曰堂山左便某處有某藥草汝取而救汝父病覺而往訪之果如其言取而煎進病遂良已以終天年(居於玉里)

임병옥(林炳玉)의 자는 사규(四圭)요 나주인이니 감무(監務) 임탁(林卓)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3년 동안 의원을 맞이하여 약을 다스려서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고, 대소변 도구를 몸소 세척하여 조금도 냄새나고 더러움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백일 동안 산에 빌었더니 한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당산(堂山) 왼편 모처에 모약초가 있으니 네가 취하여 너의 아버지 병을 구하라.”라 하였다. 잠을 깨어 가서 찾으니 과연 그 말과 같

으므로 가지고 와서 다려드리자, 병이 드디어 좋아져서 명을 마쳤다.(어옥리에 살았다.)

● 박수례(朴秀禮)

朴秀禮密陽人源宅子天性至孝父疾危劇謁醫攻藥藥終無靈醫云若服狗肝百餘可效家甚貧難得求日夜號泣一日夜虎有擲狗供進父病漸甦以終天年(居長安里)

박수례(朴秀禮)는 밀양인이니 원택(源宅)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의원을 불러 약으로 다스렸으나 약이 마침내 영험이 없었다. 의원이 이르기를, “만일 개의 간 백여 개를 먹으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얻어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밤낮으로 울부짖었더니, 어느 날 밤에 호랑이가 개를 물어다 주었다. 이를 받치니 아버지의 병이 점점 회생되어 천수를 마쳤다.(장안리에 있었다.)

효열행(孝烈行)

고려(高麗)

● 崔氏 靈巖士人仁佑女也 適州戶長鄭滿洪武己未滿因事如京敵간入里閭崔年方少有姿色露刃以脅崔抱樹而拒奮罵而死後十年己巳都觀察使張夏以聞乃命旌門蠲習吏役(詳見勝覽)

최씨(崔氏)는 영암(靈巖) 선비 최인우(崔仁佑)의 딸로 주(州)의 호장(戶長) 정만(鄭滿)에게 시집갔다. 홍무(洪武) 기미년(우왕5, 1379)에 정만이 일을 보러 서울에 갔더니, 적이 마을에 들어왔다. 최씨는 바야흐로 나이는 젊고 자색이 있더니 적이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므로 최씨는 나무를 안고 거절하며 화내어 꾸짖다가 죽었다. 그 뒤 10년이 되는 기사년에 도찰사(都察使) 장하(張夏)가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아들 장습(張習)에게 이역(吏役)을 면하게 했다.(승람에 자세하게 보인다.)

조선(朝鮮)

●鄭氏 承旨趙之瑞妻圃隱先生夢周之曾孫也燕山乙丑之瑞遇害沒財潛宅鄭氏結廬其側設遺衣奠祭以終三年今 上二年旌閭(見勝覽)

정씨(鄭氏)는 승지(承旨) 조지서(趙之瑞)의 아내니 포은선생의 증손이다. 연산군 을 축년에 조지서가 해를 만나 죽고 재물과 집을 몰수당하고 못을 파니, 정씨는 그 곁에 여막을 짓고 남편의 옷을 걸어 놓고 제사를 올리면서 3년을 마쳤다. 중종 2년에 정려되었 다.(승람에 보인다.)

●節婦安氏 宣武郎南廷召妻也旌門在晉城里(居元堂村)

절부 안씨(節婦 安氏)는 선무랑(宣武郎) 남정소(南廷召)의 아내니 정문(旌門)은 진성 리(晉城里)에 있다.(원당촌에 살았다.)

●孝婦金氏 佔畢齋宗直之女生員李翹之妻也旌門在加佐村

효부(孝婦) 김씨(金氏)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딸이요 생원 이핵(李翹)의 아내다. 정문은 진성면 가좌촌(加佐村)에 있다.

●節婦姜氏 孝子應台之孫司直冽之女生員河國寶之妻也平居婦道極備 宣祖癸巳之亂抗節而死今嘗朝事聞旌閭(居丹池洞)

절부 강씨(節婦 姜氏)는 효자 강응태(姜應台)의 손녀요, 사직(司直) 강열(姜冽)의 딸이 며 생원 하국보(河國寶)의 아내다. 평소부터 아내의 도리를 지극히 갖추었는데, 선조 계사년의 난에 저항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 지금 임금님 때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단지동에 살았다.)

●節婦河氏 鄭希立妻也丁酉之亂墜崖而死事聞旌閭(居加貴谷里)

절부(節婦) 하씨(河氏)는 정희립(鄭希立)의 아내다. 정유년의 난에 벼랑에 떨어져 죽 으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 되었다.(가귀곡리에 살았다.)

● 節婦鄭氏 鄭希聖之妻生員鄭卞韶女癸巳之亂全節以死事聞旌閭(居州內)

절부(節婦) 정씨(鄭氏)는 정희성(鄭希聖)의 아내요, 생원 정변소(鄭卞韶)의 딸이다. 계사년의 난에 절개를 온전히 하여 죽으니 일이 알려져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다. (주내에 살았다.)

● 節婦李氏 幼學鄭薰妻也薰爲敵所殺又欲汚李氏投石奮罵而死 宣祖朝事聞旌閭(居雪梅谷)

절부(節婦) 이씨(李氏)는 선비 정훈(鄭薰)의 아내다. 정훈이 적에게 죽음을 당했고, 또 그 몸을 더럽히고자 하므로 돌을 던지고 꾸짖다가 죽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 (설매곡에 살았다.)

● 處子姜氏 幼學淳之女也萬曆癸巳抗節被殺 宣祖朝事聞旌閭(居琴山里)

처자(處子) 강씨(姜氏)는 선비 강순(姜淳)의 딸이다. 만력(萬曆) 계사년의 난에 저한하여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 (금산리에 살았다.)

● 節婦李氏 僉知鄭繼元妻也萬曆丁酉抗節被殺 宣祖朝事聞旌閭其避亂時語其夫曰遇敵我必死蓋死節之志素定(居鼎村)

절부 이씨(節婦 李氏)는 첨지(僉知) 정계원(鄭繼元)의 아내다. 만력 정유년의 난에 항절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그가 피란했을 때에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적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 하였으니 사절의 뜻을 평소에 정했던 것이다. (정촌에 살았다.)

● 處子韓氏 士人膺之女也有貞操平居嘗曰女子不幸遭變死而已壬辰竟死於節 宣祖朝事聞旌閭(居丁樹里)

처자(處子) 한씨(韓氏)는 선비 한응(韓膺)의 딸이다. 정조가 있어 평소에 말하기를, “여자로서 불행히 변을 만난다면 죽을 따름이다.”라 하더니 임진년에 마침내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 (정수리에 살았다.)

● **節婦李氏** 守門將鄭天啓妻也萬曆壬辰爲敵所害其女在傍自投于池時年十六敵拯之置尸傍而去 宣祖朝事聞旌閭(居松谷里)

절부(節婦) 이씨(李氏)는 수문장 정천계(鄭天啓)의 아내다. 만력 임진년에 적에게 해를 당했더니 그의 딸이 곁에 있다가 스스로 못에 빠져 죽었다. 그때 나이 16세였더니, 적이 건져서 시신의 곁에 두고 갔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송곡리에 살았다.)

● **節婦柳氏** 鄭大淳妻也萬曆丁酉抗節而死 宣祖朝事聞旌閭(居桐谷)

절부(節婦) 유씨(柳氏)는 정대순(鄭大淳)의 아내다. 만력 정유년에 항절하다가 죽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동곡에 살았다.)

● **節婦鄭氏** 金大鎔妻也萬曆丁酉全節而死 宣祖朝事聞旌閭(居栢谷)

절부(節婦) 정씨(鄭氏)는 김대용(金大鎔)의 아내다. 만력 정유년에 정절을 온전히 하고 죽으니,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백곡에 살았다.)

● **金召史** 許眞妻也其父爲敵所害召史與父同死 宣祖朝事聞旌閭(居永善里)

김소사(金召史)는 허진(許眞)의 아내다. 그의 아버지가 적에게 해를 당하니 김소사도 아버지와 같이 죽었다. 선조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 되었다. (영선리에 살았다.)

● **節婦崔氏** 承仕郎鄭承業之妻 宣廟癸巳常自佩刀若不幸則以死自誓竟爲死節今上朝事聞旌閭(居上沙里)

절부(節婦) 최씨(崔氏)는 승사랑(承仕郎) 정승업(鄭承業)의 아내다. 선조 기사년에 항상 스스로 칼을 차고 있으면서 만약 불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더니, 마침내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다. 지금 임금의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상사리에 살았다.)

● **節婦金氏** 姜世珍妻也萬曆癸巳抗節而死事聞旌閭(居清源里)

절부 김씨(節婦 金氏)는 강세진(姜世珍)의 아내다. 만력 기사년에 자항하여 절개를 지

켜 죽으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 되었다.(청원리에 살았다.)

●烈婦鄭氏 幼學姜儉妻也 宣祖壬辰抗節被害今 上朝事聞旌閭(居加佐村)
 열부(烈婦) 정씨(鄭氏)는 선비 강검(姜儉)의 아내다. 선조 임진년에 저항하며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니,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진성면 가좌촌에 살았다.)

●節婦崔氏 幼學尹汝訓妻也 宣祖癸巳抗節而死今 上朝事聞旌閭(居加佐村)
 절부 최씨(節婦 崔氏)는 선비 윤여훈(尹汝訓)의 아내다. 선조 계사년에 저항하며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니,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진성면 가좌촌에 살았다.)

●節婦姜氏 僉使金震妻也 宣祖癸巳全節而死今 上朝事聞旌閭(居加佐村)
 절부(節婦) 강씨(姜氏)는 첨사(僉使) 김진(金震)의 아내다. 선조 계사년에 정절을 온전히 하다가 죽으니,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진성면 가좌촌에 살았다.)

●節婦黃氏 義禁府都事李蕃妻也 宣祖癸巳全節而死今 上朝事聞旌閭(居雲谷里)
 절부(節婦) 황씨(黃氏)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이蕃(李蕃)의 아내다. 선조 계사년에 정절을 온전히 하다가 죽으니, 지금 임금님의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운곡리에 살았다.)

●節婦河氏 姜洵妻也癸巳死節事聞旌閭
 절부(節婦) 하씨(河氏)는 강순(姜洵)의 아내다. 계사년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卞召史 保人蔡鶴妻也 宣祖丁酉全節而死今 上朝事聞旌閭(居永善里)
 변소사(卞召史)는 보인(保人) 채학(蔡鶴)의 아내다. 선조 정유년에 정절을 온전히 하다가 죽으니, 지금 임금님의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영선리에 살았다.)

● **節婦成氏** 孝子李敬訓妻也 宣祖癸巳遇敵投水而死今 上朝事聞旌閭(居大如村)
절부(節婦) 성씨(成氏)는 효자 이경훈(李敬訓)의 아내다. 선조 계사년에 적을 만나 물
에 몸을 던져 죽으니, 조정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대여촌에 살았다.)

● **良女蓋梅** 正兵金應鳳妻也癸巳抗節而死事聞旌閭
양녀(良女) 잔매(蓋梅)는 정병(正兵) 김응봉(金應鳳)의 아내다. 계사년에 항절하다가
죽으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金召史** 水軍張億守妻也壬辰死節事聞旌閭
김소사(金召史)는 수군(水軍) 장억수(張億守)의 아내다. 임진년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處子柳氏** 部將洪之女也癸巳死節事聞旌閭(居元堂)
처자 유씨(柳氏)는 부장(部將) 유홍(柳洪)의 딸이다. 계사년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
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원당에 살았다.)

● **孝烈婦姜氏** 幼學鄭三省妻也 宣祖壬辰母女全節而死(居永耳谷○自此以下皆未
旌閭)

효열부 강씨(姜氏)는 선비 정삼성(鄭三省)의 아내다. 선조 임진년에 모녀가 함께 절개
를 지키다가 죽었다. (영이곡에 살았다. 이로부터 이하는 모두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 **孝烈婦全義李氏** 縣監公輔之孫也 贈承旨得賁之女奉事李惟誠之妻也 孝順之誠
出於天賦幼時事父母令聞已著及嫁極盡婦道閭範肅穆孝敬之行自中古禮舅姑每稱其
賢遭夫喪決意俱逝手自斷髮伏殯十六日粒米不下咽已至殞命之境一家長老及昆季警
責扶護幸而得甦朝夕奠饌必身自具薦不以疾恙而小替日夜常守几筵須臾不脫衰麻既
闕三年之後加喪三年(居草門)

효열부 전의 이씨(全義 李氏)는 현감 이공보(李公輔)의 손녀요, 증 승지(承旨) 이득비

(李得賁)의 딸이며, 봉사(奉事) 이유성(李惟誠)의 아내다.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정성이 천성에서 나왔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김에 좋은 소문이 이미 드리났고, 시집을 가서는 아내의 도리를 극진히 지켜 규범이 엄숙하고 씩씩하며, 효성스럽고 공손한 행실이 저절로 고례(古禮)에 맞으니, 시부모가 매양 그 현숙함을 칭찬하였다. 남편을 여의고 함께 갈 뜻을 결정하고, 손수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빈소에서 16일 동안 엎드려서 한 날의 쌀알도 목으로 넘기지 아니하여 거의 운명의 지경에 이르렀다. 온 집안의 어른 및 형제들이 타이르고 꾸짖으며, 도와서 보호하여 다행히 소생하게 되었다. 이에 아침저녁으로 전찬(奠饌)을 받드시 몸소 갖추어 올리고,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잠시도 상복을 벗지 아니하며, 이미 3년을 지낸 뒤에도 3년의 상을 더하였다.(초문에 살았다.)

●處子姜氏 夢禎之女也 宣祖癸巳隨其父母避禍于山中父母兄弟俱沒于凶鋒姜氏突入火中自焚而死時年十七也(居沙竹)

처자 강씨(姜氏)는 강몽정(姜夢禎)의 딸이다. 선조 계사년에 그 부모를 따라 산 속에서 화를 피하다가 부모와 형제가 함께 적의 칼날에 죽으니, 강씨는 불속으로 뛰어 들어 스스로 불에 타서 죽었다. 당시의 나이는 17세였다.(사죽에 살았다.)

●孝婦河氏 得鯤之女也少時父病斷指見效(居雲谷)

효부 하씨(河氏)는 하득곤(河得鯤)의 딸이다. 소시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더니 손가락을 잘라 효험을 보았다.(운곡에 살았다.)

●成召史 縣監鄭希騫之妾希騫從仕于京城寄書以絕之門族憐其年少勸以從人誓死靡佗以終其身(居代如村)

성소사(成召史)는 현감 정희건(鄭希騫)의 첩이다. 희건이 벼슬을 따라 서울로 가자 글을 보내어 인연을 끊었다. 문중의 친족들이 그의 나이 젊음을 가련하게 여기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기를 권했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달리하지 아니하다가 그 몸을 마쳤다.(대여촌에 살았다.)

● **寺婢鳳鶴** 黃壽長妻也年二十喪其夫不脫喪服哀痛柴毀父憐其年少欲奪其志以死自誓竟不適(居清源里)

사비(寺婢) 봉학(鳳鶴)은 황수장(黃壽長)의 아내더니 나이 20살에 그 남편을 잃었는데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애통을 시훼(柴毀)되었다. 아버지가 그의 나이 젊음을 불쌍히 여겨 그 뜻을 바꾸고자 했으나,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달리하지 아니하다가 그 몸을 마쳤다.(청원리에 살았다.)

● **崔召史** 水軍貴石女也年二十餘未嫁 宣祖丁酉避禍于牛山敵來欲逼放聲大罵全節而死(居茅房里)

최소사(崔召史)는 수군 최귀석(崔貴石)의 딸이다. 나이 20여 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더니, 선조 정유년에 우산(牛山)에서 화를 피하다가 적이 와서 핍박하려고 하자 소리를 질러 크게 꾸짖고 절개를 온전히 하고서 죽었다.(모방리에 살았다.)

● **鄭氏** 幼學尹鐸妻也鐸病重幾死伐指取血以救之其病瘳偕老一室(居琴山里)

정씨(鄭氏)는 선비 윤탁(尹鐸)의 아내다. 탁의 병이 위중하여 거의 죽게 되니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어 구원하니 병이 나아 한 집에서 해로했다.(금산리에 살았다.)

● **黃氏** 鄭應發妻也 宣祖丁酉應發遇敵相扼戰鬥力盡幾死黃氏出叢薄間抱石突進撞破敵頭得免焉(居琴山里)

황씨(黃氏)는 정응발(鄭應發)의 아내다. 선조 정유년에 응발이 적을 만나서 서로 붙들고 구르면서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거의 죽게 되었더니, 황씨가 풀숲에서 나와서 돌을 안고 돌진하여 적의 머리를 때려 부수었으므로 면할 수 있었다.(금산리에 살았다.)

● **河召史** 庶孽李惟諧妻也姿色絕人 宣祖癸巳避禍于集賢山中亂兵脅迫負九歲女兒投水而死其妹年十九亦與之同死(居宗化里)

하소사(河召史)는 서얼 이유해(李惟諧)의 아내인데 자색이 빼어났다. 선조 계사년에 집현산(集賢山) 속에서 화를 피하더니, 적병들이 협박하므로 아홉 살 된 딸아이를 안고

물에 빠져 죽음에 그 누이동생도 열아홉 살의 나이로 함께 죽었다.(중화리에 살았다.)

●鄭召史 金善鳴妻也癸巳爲亂兵所縛載牛背上至絕險處傾身向倒縛絕而墜死(居永申大)

정소사(鄭召史)는 김선명(金善鳴)의 아내다. 기사년에 난리 속에 군사에게 결박이 되어 소의 등에 실려서 가다가 매우 험한 곳에 이르러 몸을 기우리니 거꾸로 향하여 결박된 것이 끊어져 떨어져 죽었다.(영신대에 살았다.)

●姜召史 保人金軸妻也夫病重氣絕伐指取血救之得不死偕老(居自梅村)

강소사(姜召史)는 보인(保人) 김축(金軸)의 아내다. 남편이 병이 위중하여 기절하였더니, 손가락을 끊어 피를 받아 구하여 죽지 않고 해로하게 되었다.(자매실에 살았다.)

●鄭氏 進士姜汝平之妻也進士歿後啜粥三年素服終身(居平居里)

정씨(鄭氏)는 진사 강여평(姜汝平)의 아내다. 진사가 죽은 후에 삼년 동안 죽을 마시고, 종신토록 소복을 입었다.(평거리에 살았다.)

●私婢莫之 鋤田於山谷間有僧欲污之以死拒之至於引鎌加頸而怯之罵而不從竟爲所殺(居柏谷里)

사노(私婢) 막지(莫之)는 산골짜기 사이에서 밭을 매더니 어떤 중이 더럽히고자 하므로 항거하였다. 낫을 이끌어 목에 걸고 겁을 주었으나, 꾸짖고 따르지 않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백곡리에 살았다.)

●節婦張氏 幼學許義男妻也 宣祖丁酉全節而死(居北坊)

절부 장씨(節婦 張氏)는 선비 허의남(許義男)의 아내다. 선조 정유년에 절개를 온전히 하고 죽었다.(북방에 살았다.)

●私婢春環 私奴介同妻也其夫死後人欲奪志貞操愈堅年今六十餘(居沙竹)

사비(私婢) 춘환(春環)은 사노(私奴) 개동(介同)의 아내다 그 남편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뜻을 뺏고자 하였으나 정조를 더욱 굳게 하여 나이 지금 60세이다.(사죽에 살았다.)

● 私婢道德 主簿姜大益妾也十五事姜癸巳姜死於城陷躬拾骸瘞之貞節益篤年今七十(居柏谷里)

사비(私婢) 도덕(道德)은 주부(主簿) 강대익(姜大益)의 첩이다. 나이 15세에 강주부를 섬기더니, 계사년에 성이 함락될 때에 강주부가 죽음에 몸소 유해를 거두어 묻고 정절을 더욱 독실히 하였다. 나이 지금 70세이다.(백곡리에 살았다.)

● 私婢厚春 鄭繼元妾也事母至誠亂離奔竄中其母病重極力保護及死愈久愈慕得美味則輒思流涕與其兄避亂其兄得癘疾背負夜行三十里竟得全生其天性之善如此(居鼎村)

사비(私婢) 후춘(厚春)은 정계원(鄭繼元)의 첩이다. 어머니를 섬김에 정성이 지극하였고, 난리로 도망하여 몸을 숨겨야 할 처지인데도 그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니 있는 힘을 다하여 보호하였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는 더욱 오래도록 더욱 사모하여,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문득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형과 함께 피란하다가 형이 전염병에 걸리자 등에 업고 밤길 30리를 가서 마침내 살리니, 천성의 착한 것이 이와 같았다.(정촌에 살았다.)

● 孝婦姜氏 部將秋菊女也父病斷指得效(居琴山里)

효부 강씨(姜氏)는 부장(部將) 강추국(姜秋菊)의 딸이다. 아버지가 병듦에 손가락을 끊어서 효험을 얻었다.(금산리에 살았다.)

● 孝婦姜氏 士人河淪妻也早喪夫悲泣平生髮不膏家貧傭貸祭祀必豐事姑必誠及姑歿斂襲衣服皆極豐厚無非自製者也(居新塘里)

효부 강씨(姜氏)는 선비 하륜(河淪)의 아내다. 일찍 남편을 여의더니 슬피 울고 평생 토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였으며 제사에는 음식을 반드시 풍성하게 하였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다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

남에 염습과 의복을 모두 지극히 풍성하고 두텁게 하였는데,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신당리에 살았다.)

● 諸召史 召村驛吏姜龍妻也早哭夫喪葬盡禮服闋改製喪服朝夕奠加三年不食肉語及夫悲啼嗚咽年今七十餘(居召村里)

제소사(諸召史)는 소촌역(召村驛)의 아전 강룡(姜龍)의 아내다. 일찍 남편의 상을 당했더니 장사에 예를 다하고, 복을 마치자 옷을 모두 고쳐서 상복으로 만들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올리고 3년 동안 육미를 먹지 아니하였다. 딸이 남편에게 미치면 슬피 울고 목이 메더니, 나이 지금 70여 세다.(소촌리에 살았다.)

● 孝烈婦南原梁氏 承義郎晋陽姜壽齊妻察訪檣女在家事父母至孝年十五母病篤斷指注口得以回甦及于歸事舅姑極其誠敬其夫病卒梁氏曰吾欲下從而忍而不死者有二幼孤在及其子有室乃曰吾志願就矣遂飲藥而卒 肅廟甲午事聞旌閭

효열부 남원양씨(南原梁氏)는 승의랑(承義郎) 진양(晋陽) 강수제(姜壽齊)의 아내요, 찰방(察訪) 양장(梁檣)의 딸이다. 집에 있을 때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더니 나이 15세에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니, 손가락을 끊어 입에 넣어서 소생할 수 있었다. 결혼하여 시부모를 섬김에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그 지아버가 병이 나서 죽으니 양씨가 이르기를, “내가 저 세상으로 따르고자 하나 차마 죽지 못하는 것은 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니 그 아들이 결혼하자 곧 이르기를, “나의 뜻이 원한대로 이루어졌다.”라 하고 약을 마시고 죽었다. 숙종 갑오년에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孝義烈婦載寧李氏 士人晋陽河應霖妻學生台老女也早喪夫念舅老無依夫子無嗣苟延殘喘後當其夫祭日與祭哭盡哀入寢室自裁崔翊贊興遠製道狀略曰非不以死自劃而不忍尊舅在世之日何其孝也養兒成立使河氏之廟世守香火何其義也白首婦女不死誰咎而自裁於家夫喪餘之日又何其烈也 正廟下教曰孝於舅義於子烈於夫一身三行具萃曾所罕聞命旌其閭載三綱錄閭在丹洞

효의열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선비 진양 하응림(河應霖)의 아내요, 선비 이태노(李

台老)의 딸이다. 일찍 지아비를 잃고 시아버지가 늙어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남편이 후사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구차스럽게 남은 생명을 연장시켰다가 그뒤 그 남편의 제사날을 맞아 제사지내고, 곡하며 슬픔을 다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익찬(翊贊) 최흥원(崔興遠)이 도에 올리는 글 지어 이르기를, “죽음으로써 스스로 획책하지 못할 것이 아니지마는 차마 하지 못한 것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때문이니 그 얼마나 효성스러우냐? 양자를 길러 성장시키어 하씨의 사당에 대대로 향화(香火)를 지키게 하였으니 그 의로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백수(白首)의 부녀로서 죽지 않는다고 누가 허물 하겠는가마는 남편의 제사날에 자결하였으니 또 그 열행(烈行)을 어떻게 하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정조(正祖)가 하교하여 이르기를, “시아버지에게는 효도했고 자식에게는 의로웠으며 지아비에게 고했으니 무릇 한 몸으로 세 가지 행실을 함께 모은다는 것은 일찍 드물게 들리는 바이다.”라 하고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고 려(閭)는 단동에 있다.

●烈婦全州柳氏 士人姜曦妻士人烜之女也自幼志行端慤成婚禮於男兄萬頃任所其夫遭疾歿柳氏奔哭曰則當從夫而有不忍다存過三朔當相會蓋有身纔七朔及生女痛恨其夫之無嗣遂不飲食或喉間有聲卽三月後從死語也遂卽下從道臣聞于 朝蒙旌閭

열부 전주유씨(全州柳氏)는 선비 강엄(姜曦)의 아내요, 선비 유훤(柳烜)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단정하고 조심스럽더니 혼례를 오라버니의 만경(萬頃)의 임지에서 치렀다. 그 지아비가 병에 걸려 죽으니, 유씨가 달려가 곡하고 이르기를, “곧 마땅히 남편을 따를 것이지마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3삭만 지나면 서로 만날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는 대개 임신하여 것이 겨우 일곱 달이었기 때문이었고, 딸을 낳고는 그 지아비가 후사 없는 것을 통한하면서 드디어 마시거나 먹지를 아니하였다가 혹은 목구멍 사이에서 소리가 있었으니 즉 “석 달 뒤에 따라 죽을 것입니다.”라는 말이었다. 드디어 곧 뒤를 따르니 관찰사가 조정에 알리어 정려를 받았다.

●烈婦全州崔氏 士人載寧李德裕妻也 肅廟己亥喪所天矢心同穴自求斂衣飲毒自盡後五年景廟癸卯特 命旌閭

열부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선비 재령 이덕유(李德裕)의 아내다. 숙종 기해년에 남편을 잃고, 마음으로 같은 무덤에 묻힐 것을 맹세하고 스스로 얹할 옷을 구해두고 독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5년 뒤 경종 계묘년에 특별히 정려를 명령하였다.

●烈婦南平文氏 士人咸安趙經鎮妻也 丁卯庚寅其夫邁疾而卒文氏懷石自沈江水以下從事聞命旌閭後人刻江上石曰烈女巖

열부 남평문씨(南平文氏)는 선비 함안 조경진(趙經鎮)의 아내다. 정조 경인년에 그 지아버가 병에 걸려 죽으니, 문씨가 돌을 품고 강물에 잠기어 뒤를 따랐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명령하였더니 후인이 강 위의 돌에 ‘열녀암(烈女巖)’이라고 새겼다.

●烈婦漆原尹氏 士人淸州韓碩建妻也早喪所天哀毀滅性 英廟丁酉事聞旌閭

열부 칠원윤씨(漆原尹氏)는 선비 청주 한석건(韓碩建)의 아내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애훼로 목숨을 잃었다. 영조 정유년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烈婦晉陽鄭氏 士人昌寧成師海妻士人師甲女也其夫早夭寫血書三道置靈几前以冠纓結項而死因繡衣啓聞 純廟丙子 命旌閭

열부 진양정씨(晉陽鄭氏)는 선비 창녕 성사해(成師海)의 아내요, 선비 정사갑(鄭師甲)의 딸이다. 그 지아버가 일찍 죽으니 혈서를 써서 세 번이나 빈소 앞에 두고 갓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암행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순조 병자년에 정려를 명령하였다.

●烈婦咸安趙氏 士人海州鄭相天妻也奉偏姑至孝事夫子甚敬及夫沒手書告訣于姑氏及本家卽從容下從 肅廟朝事聞旌閭正言李若烈撰閭銘

열부 함안조씨(咸安趙氏)는 선비 해주 정상천(鄭相天)의 아내다. 편모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을 섬김에 매우 공경히 하더니 지아버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손수 이별하는 글을 시어머니와 본가에 써서 두고 곧 조용히 뒤를 따랐다. 숙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고 정언(正言) 이약열(李若烈)이 여명(閭銘)을 지었다.

●烈婦安東權氏 士人蔚山金有信妻也以烈行卓異事聞 命旌閭

열부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선비 울산 김유신(金有信)의 아내다. 열행(烈行)이 특별하였으므로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烈婦江陽李氏 士人曹玠之妻也年十八始笄而未及歸聞夫歿徒步奔喪屍已斂矣送終之節親自看檢因言曰生不同室死當同穴遂絕粒七日從容自盡 純祖壬辰 命旌閭

열부 강양이씨(江陽李氏)는 선비 조윤(曹玠)의 아내다. 나이 18세에 처음으로 비녀를 찢렀더니 미처 우귀(于歸)도 하지 못하여 지아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도보(徒步)로 분상(奔喪)했으나 시신을 이미 염하였다. 장례 마치는 범절을 친히 검사하고 이어 말하기를, “살아서 집을 같이하지 못하였지만 죽어서는 마땅히 무덤을 같이 할 것이다.”라 하고 드디어 양식을 끊은 지 7일 만에 조용히 자진하였다. 순조 임진년에 정려를 명하였다.

●烈婦晉陽河氏 進士咸安趙鏞和妻也夫死成殯之日從死 高宗朝事聞旌閭勉菴崔益鉉撰閭記

열부 진양하씨(晉陽河氏)는 진사 함안 조용화(趙鏞和)의 아내다. 지아버가 죽어서 빈소 차리던 날에 따라 죽으니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정려기를 지었다.

●烈婦安東金氏 卞岵妻也壬辰之亂從其父延壽之起義赴李忠武公陣累立軍功丁酉唐浦之戰夫子沒于軍金氏聞夫死即日辦命 高宗朝事聞 命旌閭 贈淑夫人父死於國子死於父婦死於夫卞氏之三綱閭者是也

열부 안동김씨(安東金氏)는 변립(卞岵)의 아내다. 임진란에 변립이 그의 아버지 변연수(卞延壽)가 의병을 일으킨 것을 따라 이충무공(李忠武公)의 진으로 달려가서 여러 번 군공을 세우고, 정유년에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부자가 군에서 죽었다. 김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날에 목숨을 끊었더니, 고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를 명령하고, 숙부인(淑夫人)을 추증하였다. 아버지는 나라에 죽고 아들은 아버지에 죽고 지어미는 남편에 죽었으니, 변씨의 삼강려(三綱閭)라는 것이 이것이다.

● 孝烈婦晉陽河氏 贈監察晉陽鄭翔奎妻也夫病冬月致生魚有生雉之異事聞旌閭
端溪金麟燮撰閭記

효열부 진양하씨(晉陽河氏)는 증 감찰(監察) 진양 정상규(鄭翔奎)의 아내다. 지아버
가 병들었을 때에 겨울철 산 물고기가 이르고 꿩이 날아온 기이한 일이 있었다니,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고, 단계(端溪) 김인섭(金麟燮)이 정려기를 지었다.

● 孝婦安東權氏 泗川李震光妻也其舅爲虎所攬權氏大呼被髮而往救舅幸無事 肅
廟朝事聞旌閭

효부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사천 이진광(李震光)의 아내다. 그 시아버지가 호랑이에
게 잡힌 바 되었다니, 권씨가 크게 부르짖고, 머리를 헤친 채로 구하여 시아버지는 다행
히 무사하였다. 숙종조에 일이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 烈婦金海金氏 延日鄭運恒妻也年二十二嫁夫年四十而歿父母憐其青年欲更嫁
之金氏知不得免灌鹽毒而死事聞旌閭

열부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연일 정운항(鄭運恒)의 아내다. 나이 22세에 시집갔더니,
지아버는 나이 40세로 죽었다. 부모가 그의 젊은 나이를 가련하게 여기어 다시 시집보내
고자 하자, 김씨는 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孝婦光州盧氏 孝子金海金彥祥妻也舅病盧氏割股和藥以進病愈其姑又病篤日
夜祝天斫指注血鄉里感服 高宗辛巳因道啓 命旌閭

효부 광주오씨(光州盧氏)는 효자 김해 김언상(金彥祥)의 아내다. 시아버지가 병드니
노씨가 허벅지 살을 베어 약에 타서 드리니 병이 나았고, 그 시어머니가 병이 위독하니
밤낮으로 하늘에 빌고 손가락을 끊어 피를 쏟아 부으니, 고을이 감복하였다. 고종 신미
년에 관찰사의 장계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孝婦晉陽姜氏 孝子慶州金聲律妻也其姑患瘡苦劇幾至殞絕姜氏泣天露禱暗割

股和藥以趁即愈以天年終事聞 命旌閭

효부 진양강씨(晉陽姜氏)는 효자 경주 김성율(金聲律)의 아내다. 그 시어머니가 학질을 앓아서 고통이 심하여 거의 운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강씨가 울면서 하늘에 빌고 몰래 허벅지의 살을 베어서 약에 타서 드리니 즉시 병이 나아서 천명을 마쳤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烈婦晉陽姜氏 金重哲妻也自幼順於事親及適人事舅姑以誠待宗族以禮人皆感服夫嬰長瘡聞人肉有效割其股食之少愈而復發又割右股食之曰病若不瘳誓與同日並命矣及其夫死下從事聞 命旌閭

열부 진양강씨(晉陽姜氏)는 김중철(金重哲)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아버이를 섬김에 순종했고,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정성으로 섬기고 친척에게는 예로써 대접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남편이 오래도록 학질에 걸렸더니, 인육(人肉)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허벅지를 베어 먹었다. 이로써 조금 나아다가 다시 발생하니, 또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먹이고 이르기를, “병이 만약 낫지 않는다면 맹세코 같은 날에 함께하리라”고 하였다. 남편이 죽자 따라서 죽으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孝婦朔寧崔氏 孝子金錫恭妻也舅姑積年嬰疾在傍調護靡不用極以遊談悅耳之說諫於前或背負提攜若嬰兒俾忘其病鬱事聞 命旌閭

효부 삭녕최씨(朔寧崔氏)는 효자 김석공(金錫恭)의 아내다. 시부모가 여러 해 동안 병에 걸리어 있으니, 곁에 있으면서 간호를 지극히 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옛날 이야기로써 귀를 기쁘게 하고, 혹은 등에 업거나 팔을 이끌어 어린 아이와 같이하여 그 병의 율적함을 잊게 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烈婦晉陽鄭氏 士人崔泰載妻也其夫歿謂家人曰女有三從之道而我今無育從夫以死可也吾死葬於同穴結項而死事聞 命旌閭

열부 진양정씨(晉陽鄭氏)는 선비 최태재(崔泰載)의 아내다. 그 지아버가 죽으니 집안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자는 삼종(三從)의 도(道)가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 남편을 따라서 죽는 것이 옳다. 내가 죽거든 같은 구덩이에 장사지내 달라.”라 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孝烈婦晉陽姜氏** 監察慶州金俊燮妻也以孝烈 純宗朝因道臣黃鍊啓賞以金帛因命旌閭(以上蒙旌)

효열부 진양강씨(晉陽姜氏)는 감찰을 지낸 경주 김준섭(金俊燮)의 아내다. 효열로써 순종조에 감사 황鍊(黃鍊)의 계달(啓達)에 의지하여 돈과 명주를 상 주고 이어 정려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이상은 정려를 입은 것이다.)

● **孝婦載寧李氏** 贈左承旨韓時晦妻杏亭重光女事父母極孝及嫁孝事舅姑 肅宗朝以孝給復戶

효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증좌승지 한시회(韓時晦)의 아내요, 행정(杏亭) 이중광(李重光)의 딸이다. 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고, 시집가서는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겼다. 숙종조에 효성으로써 복호(復戶)를 주었다.

● **烈婦長興高氏** 士人全義李光臨妻士人應樞女也夫早沒無嗣高氏曰三從之義絕矣可以從夫子於地下姑朴氏泣諭止之曰與其下從而不顧孰如保全一縷擇子而繼死夫之後耶高氏翻然感悟斫指血書納樞中誓之曰待定嗣而如其願及取姪入后則曰能事畢矣不食七日而沒是終祥之日也 正廟朝因道臣褒啓復其戶

열부 장흥고씨(長興高氏)는 선비 전의(全義) 이광림(李光臨)의 아내요 선비 고응추(高應樞)의 딸이다. 남편이 일찍 죽고 후사가 없으니, 고씨가 이르기를 “삼종(三從)의 의(義)가 끊어졌으니 낭군을 지하에서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라 하였다. 시어머니 박씨가 울면서 개유하고, 그치게 하여 이르기를, “네가 하종(下從)을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 같은 목숨 보전하고 아들을 골라 죽은 남편의 뒤를 잇게 하겠느냐?”라 하니 고씨가 얼른 느끼어 깨닫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한 것을 관 안에 넣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후사를 정하는 것을 기다려서 원하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라 하고 조카를 데려다

가 후사로 세우고서는 말하기를 “해야 할 일을 마쳤다.”라 하였다. 이리고서 칠일 동안을 먹지 않다가 죽으니 이는 삼년 상을 마치는 날이었다. 정묘조에 도신(道臣)의 포계(褒啓)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 받았다.

● **孝婦晉陽鄭氏** 密陽孫弘殷妻其舅得疾幾至殞絕斷指注口得甦而餘症尙就夢中有人指示家後巖間靈蓼者採而供進遂得快差其姑病瘡累月苦劇潛割股以食即愈 純祖朝復其戶庚申里人立孝婦碑

효부 진양정씨(晉陽鄭氏)는 밀양 손홍은(孫弘殷)의 아내다. 그의 시아버지가 병을 얻어 거의 운절(殞絶)에 이르렀더니, 손가락을 끊어 입에 쏘아 넣어 회생되었으되 남은 증세가 아직 있었다. 이때 꿈속에서 이 집 뒤 바위틈에서 영험이 있는 산삼을 가리켜 주는 사람이 있어 캐어 바쳤더니 드디어 쾌차하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가 학질을 앓아서 여러 달 고동이 심함으로 가만히 허벅지를 베어 먹이니 곧 나았다. 순조조에 세금을 면제 받았고 경신년에는 마을 사람들이 효부비를 세웠다.

● **孝烈婦全州李氏** 南陽洪敬燮妻也自在孩提天性孝順十七歲夫以病歿姑欲隨死烈婦曰婦從夫死義也安有母從子死之理乎百方寬慰竟回其志送終之具皆致無憾月朔望必上墓哭盡哀養姑孝順治家勤儉取從姪系夫后姑沒終制言于家人曰吾事畢矣遂從容處義隣里聞于官復其戶

효열부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남양 홍경섭(洪敬燮)의 아내다. 어린 시절부터 천성이 효순하더니, 17세에 지아버가 병으로 죽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따라 죽고자 하니 열부가 이르기를 “지어미가 지아버를 따라서 죽는 것은 의로운 것이지만 어찌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서 죽는 이치가 있겠습니까?”라 하고, 백방으로 너그럽게 위로하여 마침내 그 뜻을 돌리게 하였다. 장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유감됨이 없게 하고 매달 삭망(朔望)에는 반드시 묘에 올라가서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효순으로 봉양하고 집을 근검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종질을 데려다가 남편의 뒤를 잇게 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제를 마치고서 집안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의 일을 끝냈다.”라 하고 조용히 의로서 처신하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관에 알리어 세금을 면제 받았다.

●烈婦姜氏 金瑞龍妻也夫病危劇依俗方夜以數升米潛往置山殯中翌夜取來作粥飲以進者三次猶不效潛於夜間割其股稱正肉炙進夫問有餘否曰有復割炙進夫病快愈隣里驚歎(以上復戶)

열부 강씨는 김서룡(金瑞龍)의 아내다. 지아버가 학질에 걸려 급하더니, 세속적인 처방에 의거하여 두어 되는 쌀을 가지고 가만히 산에 가서 빈(殯)속에 두었다가 다음날 밤에 가지고 와서 죽을 만들어 마시도록 드린 것이 세 번이었으나 효력이 없으므로 가만히 밤에 허벅지를 베어 소살고기라 일컫고 구어 드렸더니 남편이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열부가 이르기를 “있습니다.”라 대답하고 다시 베어 구워서 드리니 남편의 병이 꽤 유되었다.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탄복하였다. (이상은 세금이 면제된 것이다.)

●烈女貞敬夫人姜氏 忠毅公鄭起龍妻州掾世界女也癸巳避敵入州城城陷血指書褐告夫以死遂與其母及小姑投蠹石樓下南江而死

열녀 정경부인 강씨는 충의공(忠毅公) 정기룡(鄭起龍)의 아내요, 고을의 아전 정세승(鄭世界)의 딸이다. 계사년에 적을 피하여 진주성에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되니 손가락에 피를 내어 적삼에 써서 남편에게 죽음으로써 고하고, 드디어 그의 어머니 및 시누이와 더불어 축석루(蠹石樓) 아래 남강(南江)에 몸을 던져 죽었다.

●烈婦晋陽姜氏 士人趙明智妻結縵未歸而夫死姜氏即欲下從家人以爲有孕勸勿死經數朔後驗其爲虛飲毒而死

열부 진양강씨(晋陽姜氏)는 선비 조명지(趙明智)의 아내다 결혼을 하고서 우귀(于歸)도 못했는데 남편이 죽으니 강씨는 즉시 하종(下從)코자 하였다. 집안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를 하였으니 죽지 말라”고 권하였으므로 두어 달이 지난 뒤에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징험하고 독을 마시고 죽었다.

●烈婦檜山黃氏 士人淸州韓用恁妻也夫沒入几筵殞命

열부 회산황씨(檜山黃氏)는 선비 청주 한용임(韓用恁)의 아내다. 지아버가 죽으니 빈

소에 들어가서 운명하였다.

●烈婦金海許氏 士人昌寧成致麟妻士人鑾之女也平居執婦道甚謹及哭所天欲下從而自念三年饋奠不可誠蓬髮垢衣以終其制制闋之日從容自裁鄉里咸嗟頌其姘節

열부 김해허씨(金海許氏)는 선비 창녕 성치린(成致麟)의 아내요, 선비 허란(許鑾)의 딸이다. 평소에 아내의 도리를 지킴이 매우 삼가이 하더니, 남편을 곡(哭)함에 이르러서는 하종(下從)코자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삼년의 궤전(饋奠)을 정성으로 하지 아니 할 수가 없다.”라 하고, 흐트러진 머리와 때가 낀 옷으로 그 상을 마치고 상이 끝나는 날에 조용히 자결하니, 향리의 사람들이 모두 그 훌륭한 절개를 탄복하고 기렸다.

●烈婦海州鄭氏 士人河慶緯妻士人漢賢女也平居婦道極備夫天沒殯葬畢遂自裁下從

열부 해주정씨(海州鄭氏)는 선비 하경위(河慶緯)의 아내요, 선비 정한현(鄭漢賢)의 딸이다. 평소에 아내의 도리를 지극히 갖추었고 지아버가 일찍 죽음에 장례를 끝내고 드디어 자결로 하종(下從)하였다.

●烈婦順興安氏 士人南尙儉妻學生季琥女也年十九遭夫喪斷髮截耳納諸櫛中逮嗣子長成遂絕食下從

열부 순흥안씨(順興安氏)는 선비 남상검(南尙儉)의 아내요, 학생 안계호(安季琥)의 딸이다. 나이 열아홉 살에 남편 상을 당하여 머리를 베고 귀를 끊어서 관속에 넣어 드리고서 사자(嗣子)가 장성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음식을 끊고 하종(下從)하였다.

●烈婦晉陽河氏 士人全州崔祥麟妻也竝有姑姁喪以舅命替主中饋撫育諸姪如己出夫歿已矢心下從而外若無憾憾意家人防守稍弛一夜就寢室仰藥而殉

열부 진양하씨(晉陽河氏)는 선비 전주 최상린(崔祥麟)의 아내다. 시어머니와 맏며느리의 상(喪)이 함께 있어 시아버지의 명령으로 집안의 살림살이를 바꾸어 맡아서 모든 조카들을 자신이 낳은 것과 같이 어루만지며 길렀다. 이러다가 남편이 죽으니 마음속으

로 하중(下從)을 맹세하면서도 밖으로는 슬퍼하는 뜻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집안사람들의 방비가 약간 풀어진 어느 날 밤에 침실에 나아가서 약을 마시고 따라 죽었다.

●烈婦晋陽姜氏 士人咸安趙鏞漢妻也在家以孝順稱適人以所事父母者事偏姑得歡心夫病革姜氏方露禱願代臨絕家人召夫人姜氏已自裁於禱所矣

열부 진양강씨(晋陽姜氏)는 선비 함안 조용한(趙鏞漢)의 아내다. 집에 있을 때는 효순으로 일컫더니, 남편에게 시집가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써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어 환심을 얻었다. 지아버의 병이 위독하니 강씨는 정성스럽게 빌어 대신하기를 원하더니, 절명에 다다라서 집안사람이 부인을 불렀으나 강씨는 빌던 장소에서 이미 자결하였다.

●烈婦載寧李氏 士人趙在鳳妻結縈纒周歲夫嬰重疾竭誠扶護竟至不救李氏欲下從親戚以有遺腹寬譬之李氏曰天幸生男也則可以嗣續亡夫若生女也則遂吾初心及其解媿果女矣因囑于其夫姪曰我死願與夫子同穴因瞑目氣絕

열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선비 조재봉(趙在鳳)의 아내다. 결혼한 지 겨우 일년 만에 남편이 중병에 걸리어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나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이씨는 곧 하중(下從)코자 하였으나 친척이 배 속에 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너그럽게 깨우치니 이씨가 이르기를, “천행으로 아들을 낳으면 망부(亡夫)를 이을 것이지마는 만약 딸을 낳으면 나의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러다가 해산을 하니 과연 딸이 있으므로 남편의 조카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남편과 같은 무덤에 묻어주기를 바란다.”라 하고 이미 눈을 감고 기절하였다.

●烈婦宜寧南氏 士人許柱之妻也結縈翌年不幸夫沒九日絕不食飲以遂同穴之願

열부 의령남씨(宜寧南氏)는 선비 허주(許柱)의 아내이다. 결혼한 다음해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으니 9일 동안 곡식을 끊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같은 무덤에 묻히는 소원을 이루었다.

●烈婦載寧李氏 士人南平文熙純妻也素有異行事舅姑盡誠孝之節其夫沒以死自誓及送葬之日從容就死以成同穴之願

열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선비 남평 문희순(文熙純)의 아내다. 평소에 특이한 행실이 있더니, 시부모를 섬김에 성효(誠孝)의 범절을 다하다가 그 지아버지가 죽으니,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송장(送葬)하는 날에 조용히 나아가서 동혈(同穴)의 원(願)을 이루었다.

●烈婦海州鄭氏 士人河正源妻也幼而孝順嫁而誠養舅姑其夫嬰疾裂指灌血得延數日及夫卒水醬不飲既葬爲遺書告訣于舅與父從容自裁時年二十道儒李震相朴致馥郭鍾錫等數百人顛于繡衣及棠營道伯閔正植據實稟啓而尙未蒙旌世皆嗟惜

열부 해주정씨(海州鄭氏)는 선비 하정원(河正源)의 아내다. 어려서 효순하고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그 남편이 병에 걸리니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내어 주어 수일 동안 연명하게 하였다. 남편이 죽으니 물과 간장도 마시지 않다가 장사를 끝내고서는 유서를 써서 시아버지와 아버지께 작별하고 조용히 자결하니 당시에 나이 20세였다. 도내 선비 이진상(李震相), 박치복(朴致馥), 곽종석(郭鍾錫) 등 수백 명이 암행어사 및 감영과 감사 민정식(閔正植)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포상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아직 정려를 입지 못하니 세상에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烈婦海州鄭氏 士人河珪源妻也性端貞有閨範夫沒哭泣之哀無甚異人殯斂祥禫曲盡禮制事舅姑愈孝治產業惟勤曰無財不可以奉夫祀及初忌之日往省夫墓而哭曰吾手饋奠今年而已其夕語家奴曰舅姑之奉養惟奴氏在焉吾之從夫於義何傷因歸其私室而自決襲斂之具一一備藏焉

열부 해주정씨(海州鄭氏)는 선비 하규원(河珪源)의 아내다. 성품이 단정하고 규범이 있더니, 남편이 죽으매 곡읍하고 슬퍼함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빈(殯)과 렬(斂)과 소상과 대상 담제(禫祭)의 예제(禮制)를 곡진(曲盡)히 하고 시부모를 섬김에 더욱 효성스러웠으며 산업을 다스림에도 오직 부지런히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재물이 없으면 지아버리의 제사를 받들 수가 없을 것이다.”라 하더니 첫 기일의 날을 당하여 남편의

묘에 가서 살펴보고 곡하며 이르기를 “내가 손수 음식을 올리는 것도 금년뿐입니다.”라 하고 그날 저녁에 만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시부모의 봉양은 오직 동서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따라 가는 것이 의(義)에 무슨 상(傷)하는 것이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이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자결하니 염습의 도구를 일일이 갖추어 간직해 두었다.

● 孝烈婦密陽朴氏 士人柳達永妻也事夫子奉舅姑以誠敬不幸早寡只有一穉抑悲節哀寬慰舅姑定省甘旨必誠必慎孀居三十年食素服素不盥不櫛舅姑之病嘗糞驗其差欲裂指灌血回其既絕之命及其丁憂送葬必如禮

효열부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선비 류달영(柳達永)의 아내다 남편을 섬기고 시부모를 봉양함에 성경(誠敬)으로써 하더니, 불행하게도 일찍 과부가 되었다. 다만 한 어린아이가 있더니 비통함을 억제하고, 슬픔도 자제하면서 시부모를 너그럽게 위로하고, 문안 인사와 맛난 음식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반드시 조심하였다. 청상으로 30년을 살면서 음식도 소채로 하고 의복도 소복으로 하였으며, 세수하지 않고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아니하였다. 시부모가 병중에 똥을 맛보아 그 쾌차를 징험하고, 나아가서는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흘려 넣어 이미 끊어졌던 목숨을 회생시켰으며, 상을 당할 때에 이르러서는 장례를 꼭 예(禮)답게 하였다.

● 烈婦碧珍李氏 士人全州崔東泰妻士人承敷女也孝事舅姑夫病血指以灌口不效則剗刀欲自絕被左右禁執遂手裁送終衣衾并得無憾遠日既卜夜入寢室着嫁時服飲毒而死有遺書在篋託妯娌善養舅姑戒螟兒無替父業家人合葬焉李寒洲震相朴晚醒致馥諸公數百人屢陳請而臬司不報

열부 벽진이씨(碧珍李氏)는 선비 전주 최동태(崔東泰)의 아내요, 선비 이승효(李承敷)의 딸이다.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더니, 남편이 병중에 손가락에 피를 내어 입에 대었는데 효력이 없었다. 이에 칼로 찢러 자결(自絕)코자 하다가 좌우의 제지를 당하니 드디어 손수 장례의 의복 등을 재단하여 유감 됨이 없게 하였다. 그는 멀리 갈 날을 이미 가렸던 것이니 밤에 침실에 들어가서 시집을 때의 의복을 입고 독을 마셨다. 따로 유서를 써서 광주리에 두었는데 동서들에게 시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부탁하고 양자에게 부업(父

業)을 바꾸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집안사람들이 합장하였더니,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과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 등 제공(諸公) 수백 명이 여러 번 진청(陳請)하였으나 감영에서 답하지 않았다.

● **孝烈婦密陽朴氏** 晉陽河龍宅妻執義在皞孫自在髻鬣事偏母誠孝備至年十七結縵未幾而夫沒戴星而歸送終之具手自裁治期致無憾三年之制一準其禮舅姑憫其早孀有奪志之意朴氏察知之從容泣告于舅姑曰婦於夫子雖只有一面一與之齊終身不改婦之道也舅姑泣謝之厭峽俗貿貿還于親家僦一朴陋屋居之不盥不櫛足跡不出戶外雖昆弟之親不與同席晝宵紅績忍飢積蓄至中身而家道稍舒則作廊舍迎舅姑優養及喪送終之具祥祭之禮易戚備至孝烈之卓雖古之女士罕有儔匹

효열부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진양 하용택(河龍宅)의 아내요, 집의 박재호(朴在皞)의 손녀다. 어린 나이 때부터 편모를 섬김에 성효(誠孝)를 갖추고 지극했더니, 나이 17세에 결혼하여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남편이 죽었다. 한밤중에 급히 돌아가서 장례 준비를 손수 스스로 재단하고 3년의 제(制)를 한결같이 오직 예로써 하였다. 시부모가 그의 일찍 홀로 된 것을 가련히 여겨 뜻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는데 박씨가 미리알고 조용히 울면서 시부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지어미는 남편에게 비록 다만 한번 얼굴을 대하고 한번 더 붙어 가지런히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신토록 지어미의 도리를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라 하며 시부모가 울면서 사과하였다. 산골짜기 풍속이 무지한 것을 싫어하여 친가에 돌아가서 질박한 누옥(陋屋)을 가리어 살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족적을 집 밖으로 내지 않고 비록 곤제(昆弟)의 친척일지라도 함께 자리를 같이하지 아니하였으며, 밤낮으로 길쌈만을 계속하였다. 굶주림도 참고 저축하여 오십의 나이에 이르러서 집안 형편이 조금 펴지니 집을 지어 시부모를 맞이하여 편히 봉양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송중의 준비와 상제의 예에 다스리고 슬퍼함을 갖추니, 효열이 뛰어난 비록 옛 여사(女士)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류는 드물 것이다.

● **烈婦全州崔氏** 士人 晉陽河龍渡妻士人永淳女也事舅姑以禮夫邁疾不起崔氏痛生而無所依即欲下從既而曰無子之喪也吾安得不盡禮乎及禫自製附身諸具祭畢而終

열부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선비 진양 하용도(河龍渡)의 아내요, 선비 최영순(崔永淳)의 딸이다. 시부모를 예로써 섬기더니, 남편이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니 최씨는 살아서 의지할 데가 없음을 애통히 여기어 즉시 하종(下從)코자 하다가 이르기를 “자식이 없는 상(喪)인데 내가 어찌 예를 다하지 않겠는가?”라 하고 담제(禫祭)를 당하여 스스로 몸에 부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제사를 끝내고 세상을 마쳤다.

●烈婦咸安李氏 士人載寧李中煥妻也其夫遭癘而夭李氏年方十六切齒自矢竟絕粒而下從鄉省人士爲豎碑以著之

열부 함안이씨(咸安李氏)는 선비 재령 이중환(李中煥)의 아내다. 그 남편이 병에 걸리어 요절하니 이씨의 나이 바야흐로 16세였다. 이를 깨물고 스스로 맹세하더니, 마침내 곡식을 끊고 따라 죽었다. 이에 고을 인사들이 비를 세워 드러냈다.

●烈婦姜氏 晉州人士人河尙顯之妻監司潤之孫也事舅姑以誠人無間言遭夫喪斂襲饋奠躬親無憾哀毀踰制而事舅姑如平時及至大祥自裁下從

열부 강씨는 진주인이니 선비 하상현(河尙顯)의 아내요, 감사 강윤(姜潤)의 손녀다. 시부모를 정성으로 섬기더니 사람들의 흠잡는 말이 없었다. 남편상을 당하여 림습(斂襲)과 궤전(饋奠)을 몸소 친히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고 애훼(哀毀)가 예를 넘었다. 시부모를 섬기는 것도 평시와 같이 하다가 대상(大祥)에 이르러서 자결하여 하종(下從)하였다.

●烈婦晉陽鄭氏 士人載寧李仁浩妻其夫年十五而夭鄭氏慰其舅姑略無悲慼色累欲自裁爲家人所覺而止久之其父母矜其情而欲改嫁之因竊入私室以自絕鄉人立碑以表其烈

열부 진양정씨(晉陽鄭氏)는 선비 재령 이인호(李仁浩)의 아내다. 그의 남편이 나이 15세에 요절하니 정씨는 그 시부모를 위로하고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번 자결코저 하다가 집안사람에게 발각되어 그친 지가 오래 되었다. 그의 부모가 그 정상을 불쌍히 여기어 개가를 시키고자 하니 가만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결하였다. 이에

향인들이 비를 세워 그의 열행을 드러내었다.

●烈婦全州李氏 士人咸安趙應奎之妻士人建柱女夫歿飲藥同時以殉

열부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선비 함안 조용규(趙應奎)의 아내요, 선비 이건주(李建柱)의 딸이다. 남편이 죽으니 약을 마시고 동시에 따라 죽었다.

●烈婦申氏 士人載寧李充曄之妻也及歸年纔十六明年夫死殯斂之具襄奉之供一一躬親一日謂副室金曰吾以青年夫死無子生且何爲因泣下聽者亦泣自是金疑之暫不離側嘗夜與同宿俄而覺而覓之已自裁矣

열부 신씨는 선비 재령 이충엽(李充曄)의 아내다. 시집 갈 때에 겨우 16세였더니, 다음 해에 남편이 죽으니 염하여 빈소 차리고 준비와 안장할 때의 음식을 일일이 몸소 친히 다하였다. 어느 날 부실(副室) 김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데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라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니 듣는 사람 또한 울었다. 이로부터 김씨가 의심하여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밤에도 함께 잤다. 얼마가 지난 뒤에 잠을 깨어 찾아보니 이미 자결하였다.

●烈婦昌寧曹氏 士人韓鎮權妻南冥植后也夫病革禱天血指無不盡誠及歿初終之具祥葬之節必躬親無憾既撤靈筵卽入室仰藥謂家人曰此是去年遭變之月與日乎因卽下從

열부 창녕조씨(昌寧曹氏)는 선비 한진권(韓鎮權)의 아내요,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후손이다. 남편의 병이 위독하니 하늘에 빌고 손가락에 피를 내어 정성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초종(初終)의 준비와 상장(喪葬)의 범절을 반드시 몸소 친히 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였으며, 빈소를 철거하자 즉시 방에 들어가서 약을 마셨다. 이때 집안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는 지난해 변을 당하던 달과 같은 날이었는가?”라 하고 곧 하종(下從)하였다.

●烈婦晉陽姜氏 士人韓鎮永妻也夫嬰疾至誠救護及夫沒家人以有遺腹寬譬之既

産女又不育練畢往省夫墓遂抱石投水而死鎮永卽鎮權之弟同時雙烈聞者莫不哀之

열부 진양강씨(晋陽姜氏)는 선비 한진영(韓鎭永)의 아내다. 남편이 병들어 지성으로 구호하였고, 남편이 죽으니 집안사람들이 유복(遺腹)이 있으니 너그럽게 태일렀다. 얼마 후 딸을 낳았으나 기르지 못하고 소상(小祥)을 마치고 남편의 묘에 가서 살펴보고 드디어 돌을 안고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한진영은 곧 한진권(韓鎭權)의 아우니 동시에 두 사람의 열부가 나왔다. 듣는 이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烈婦陝川李氏 士人海州鄭昌錫妻士人時榮女也夫病死年三十無子女不甚哀慼附棺之物皆手自修治囑其夫兄託以夫後嗣夜入夫屍房久不出夫黨疑之呼而無應卽開門視之同夫屍臥如寐而死矣遠近聞者莫不驚嗟

열부 합천이씨(陝川李氏)는 선비 해주 정창석(鄭昌錫)의 아내요, 선비 이시영(李時榮)의 딸이다. 남편이 병들어 죽으니 나이 30세 가깝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슬퍼하지는 않았다. 관(棺)에 부칠 물건들을 모두 손수 마련하고 그 남편의 형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후사(後嗣)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밤에 남편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나오지 아니하므로 남편 가족들이 의심하여 불러도 응답이 없기에 곧 문을 열고 보니 남편의 시신과 함께 누워 자는 듯이 죽어 있었다. 원근에 듣는 이들도 놀래고 감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孝婦晋陽姜氏 士人成慶喆之妻姜岐燮女也孝奉其姑能盡志體之養姑有重病三年禱天卒得靈效年二十餘生一子而寡以姑之故哭不作聲見者莫不感歎後當姑喪泣血終制又教子甚嚴或嬉遊不勤讀則笞而責之曰無父子從古成就難家聲及汝墜地吾誓死不見汝矣

효부 진양강씨(晋陽姜氏)는 선비 성경철(成慶喆)의 아내요, 강기섭(姜岐燮)의 딸이다. 효성으로 그 시어머니를 모시되 능히 뜻과 몸의 봉양을 다 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중병이 있어서 3년 동안 하늘에 빌어 마침내 신령스러운 효력을 얻었다. 나이 20여 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과부 시어머니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니 보는 이들로 감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뒤에 시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피눈물로 제(制)를 마쳤고,

또 자식을 가르침에 심히 엄하였다. 혹 기쁘게 놀고 부지런히 글을 읽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꾸짖어 이르기를 “아버지 없는 자식은 옛 부터 성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집안 명성이 너에게 와서 땅에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맹세코 죽어서도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 하였다.

● **孝婦密陽朴氏** 士人 晉陽河啓洛妻 士人 寅浩女 天性純孝 奉尊章 接夫子 撫幼少 處宗黨 有禮有則 百行完備 其事繼姑 又有人所難者 鄉里皆服其孝義

효부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선비 진양 하계락(河啓洛)의 아내요, 선비 박인호(朴寅浩)의 딸이다. 천성이 순효(純孝)하여 시부모를 받들고 남편을 대접하여 어린 사람을 어루만지고, 집안에 처신함에 예가 있고 법칙이 있어 백행이 완비 되었다. 그가 계모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에도 또 남이 어렵게 여기는 것이 있었으니 향리에서 모두 그 효의(孝義)에 감복하였다.

● **烈婦晉陽河氏** 士人 金海許禎胤妻 士人 慶春女也 十七而嫁 承順尊章 夫偶嬰貞疾 百般救護 晨夕不懈 臨終斫兩指血 灌口而終 至不救 則持米飲二器 慰所後 本生二姑 初終斂衣 親自裁斷 家人視之 坦然 忽入尸房 一聲長痛 移時不出一家 驚惶開戶 視之 無刀痕 藥液從容就盡 於尸傍 及其營壙之日 奠者盈路 士林立碑 以表其姁節

열부 진양하씨(晉陽河氏)는 선비 김해 허정윤(許禎胤)의 아내요, 선비 하경춘(河慶春)의 딸이다. 17세에 시집가서 시부모에게 승순(承順)하더니 남편이 우연히 모진 병에 걸리자, 백방으로 구호하여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임종에 이르러서는 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입에 넣었다. 그리하여서도 마침내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니, 미음 두 그릇을 가지고 와서 후생(後生)과 본생(本生)의 두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초종(初終)의 염의(斂衣)를 친히 스스로 재단하였다. 집안사람이 보기에 느긋하더니, 갑자기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 소리로 길게 애통해 하고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아니하였다. 온 집안사람들이 경황(驚惶)하여 문을 열어보니 칼로 찢른 흔적이나 약물도 없이 조용히 시신 곁에서 자결하였다. 묘를 만드는데 이르러서는 술잔을 드리는 사람이 길에 가득하였고, 사림에서 비를 세워 아름다운 절개를 표하였다.

●烈婦晉陽河氏 士人咸安趙麟濟妻士人廷植女也幼有至性十歲哭其母甚哀父落傷委臥屢朔晝宵暫不離側十五而嫁明年夫沒河氏初不以哀慼之容示人舅姑心異之祖姑遂與同室又使老婢日夕伺察比至祥乘祖姑之不在遂仰藥自盡有遺書深恨其伺察之甚不能蚤遂其志且言不必別爲之殯但具魂魄于亡夫靈側待其撤而共埋之云云聞者咸嘆嗟之致弔者甚衆

열부 진양하씨(晉陽河氏)는 선비 함안 조인제(趙麟濟)의 아내요 선비 하정식(河廷植)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을 가졌더니, 10세에 그 어머니를 잃고 매우 슬피하였고, 아버지가 낙상을 당하여 여러 달을 자리에 누워 지내자 밤낮으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15세에 시집갔더니 다음해에 남편이 죽었다. 하씨는 처음에는 슬피하는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시부모가 마음으로 이상히 여기고 시할머니가 방을 함께 하면서도 노비(老婢)로 하여금 밤낮으로 살피도록 하였다. 제삿날이 이르기를 기다려 시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틈을 타서 드디어 약을 먹고 자진하였다. 유서가 있었으니 거기에는 감시가 심하여 일찍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을 깊이 한탄하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따로 빈(殯)을 만들지 말고 다만 혼백을 망부의 영(靈) 곁에 두었다가 그를 철거할 때를 기다려 함께 묻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듣는 이들이 모두 탄식하고 조문하는 이가 매우 많았다.

●烈婦載寧李氏 晉陽姜彙俊妻也夫家甚貧奉其本生母于所後家廊室孝養庭李氏承順無懈嘗夜大雨彙俊侍本生母于廊室風雨大作山水暴至室漂而母子俱沒比晨李氏始知之卽煮粥進姑因泣告曰使夫子終於衽席則養舅姑育子女以遂夫子之志今夫既漂水妾當入水求屍遂改着衣裳赴水而死及水落得夫婦屍於一處觀者益異其烈而哀之

열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진양 강휘준(姜彙俊)의 아내다. 시가가 매우 가난하여 그 본래의 생모를 양자 간 집에 모시고 두 집을 효성으로 봉양하더니, 이씨도 승순(承順)하여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어느 날 밤에 큰 비가 오자 강휘준이 본 생모를 집에 모시다가 비바람이 크게 치고 산의 물이 갑자기 닥쳐서 집이 떠내려가고 모자가 함께 빠졌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서 이씨가 비로소 알고 즉시 죽을 꿇여서 시어머니께 드리고 이어 울면서 고하기를 “남편으로 하여금 집의 잠자리에서 세상을 마치게 하였더라면 시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길러 부자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지아버가 이미 물에 빠졌으니, 첩이 마땅히 물에 들어가서 시신을 찾아야 하겠습니다.”라 하고 드디어 의상(衣裳)을 고쳐 입고 물로 달려가서 죽었다. 물이 빠져 다하기를 기다려서 부부의 시신을 한 곳에서 얻으니 보는 이들이 그 열행을 더욱 기이하게 여기고 이를 슬퍼하였다.

●烈婦星山李氏 士人 晉陽鄭奎魯妻也性貞順家甚貧夫病截髮辦藥禱天願代夫死後練祭畢入私室自裁

열부 성산이씨(星山李氏)는 선비 진양 정규로(鄭奎魯)의 아내다. 성품이 정순(貞順)하더니 집이 매우 가난하여 남편의 병뎀에 머리카락을 잘라 약을 갖추었고,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원했으며, 남편이 죽은 뒤에 소상을 끝내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결하였다.

●孝烈婦金海許氏 晉陽鄭在允妻也早孀無嗣家又貧乏盡誠奉舅姑舅嘗病思雉夫人祝天小頃雉忽飛入裳下烹進病已晚取從子爲后置書塾以教訓後當夫忌日以書告之曰至今不死者以老舅姑在堂且夫子無嗣今舅姑卽世嗣子克家一縷下從更無餘憾遂自盡

효열부 김해허씨(金海許氏)는 진양 정재윤(鄭在允)의 아내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후사(後嗣)가 없고 집이 또 가난하였으므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더니,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 평을 생각하였다. 부인이 하늘에 빌고 조금 있으니 평이 갑자기 날아와서 치마 밑으로 들어오니 삶아 드리니 병이 나았고, 늦게 조카를 취하여 후사로 삼고 글방을 두어 교육시켰다. 뒷날 남편의 기일을 당하여 글로써 고하기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지 못한 것은 늙으신 시부모가 집에 계시고 낭군에게 후사가 없었던 탓이었소. 지금은 시부모가 세상을 하직하셨고, 사자(嗣子)가 집을 잘 이을 것이니 하종(下從)하더라도 다시 유감이 없소.”라 하고 드디어 자결하였다.

●孝烈婦載寧李氏 晉陽鄭運昌妻也前室只有四女李氏亦無子夫嬰疾斷指祝天無

所不至及將死以養老嫁女立嗣繼宗悉托於夫人夫人不爲過憾爲老舅寬懷及取姪爲嗣
 嫁女養老舅寬懷及取姪爲嗣嫁女養老舅以天年終遂灑掃室堂沐浴更衣謂家人曰吾今
 可以歸見君子入寢室從容就死

효열부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진양 정운창(鄭運昌)의 아내다. 전실(前室)에 다만 네 명의 딸이 있고, 이씨도 또한 자식이 없더니 남편이 병에 걸리매 손가락을 끊고 하늘에 빌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리다가 장차 죽으려고 할 때 노인을 봉양하고 딸을 시집보내는 일과 후사(後嗣)를 세워 종가를 이을 것을 모조리 부인에게 부탁하였다. 부인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늙은 시아버지를 위하여 너그럽게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조카를 데려다가 후사를 삼고, 딸을 시집보내며 늙은 시아버지를 봉양하다가 시아버지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마치니, 드디어 집안을 깨끗이 쓸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금 돌아가서 군자를 보는 것이 옳겠다.”라 하고 침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다.

●烈婦靑松沈氏 晉陽鄭文赫妻也誠孝順夫邁疾調治數朔竟至屬續急以斧斫指灌血終無回甦之望烈婦頓絕方起乃慰譬其姑曰子捨老母而逝痛之何益因勸進米飲自後無哀憾之色惟盡力於襲斂之節一日謂家人曰吾有紙貨在籍吾死斂吾時置諸懷吾將救夫子泉下之困家人疑其爲誕而泛聽之是夜入寢室稍久而無聲息姑怪而往視之更衣正臥氣已絕矣開其箱果有裁紙如紙貨樣者滿箱聞者嗚咽不已

열부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진양 정문혁(鄭文赫)의 아내다 성품이 효순하더니 남편이 병에 걸리자 몇 달 동안을 치료하다가 마침내 임종(臨終)에 이르렀다. 급히 도끼로써 손가락을 찍어 피를 대었으나 마침내 회생의 여망이 없자 열부는 갑자기 기절했다가 곧 일어났다. 이어 그 시어머니를 위로하여 타일러 이르기를 “자식이 노모를 버리고 갔는데 애통함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라 하고 미음을 권하여 드렸다. 이 뒤로부터 슬퍼하는 빛이 없고 오직 습렴(襲斂)의 범절에 힘을 다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집안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지화(紙貨)를 만들어 상자에 두었으니 내가 죽어서 나를 염(殮)할 때에 가슴속에 두면 내가 장차 낭군님을 저세상에서 곤란한 것을 구할 것이다.”라 하였다. 집안사람은 그 허탄한 것을 의심하면서도 범연히 들었더니, 이날 밤에 침실에 들어

가서 오래토록 소리가 없으므로 시어머니가 괴이하게 여기어 가서 보니 옷을 바꾸어 입고 바로 누웠는데 기운이 이미 끊어졌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고 보니 과연 재단한 종이로 지화 모양과 같은 것이 상자에 가득 있었다. 듣는 사람들이 목메여 울어 마지아니하였다.

●義婦崔氏 鄭世鉉妻也姿性貞順在嫁稱孝女十八而嫁事舅姑孝夫得疾甚危哭告于姑曰夫死婦隨理也誓將同逝斷指注口禱天願代一日夜至十餘次手無完指世鉉果得生

의부(義婦) 최씨는 정세현(鄭世鉉)의 아내다. 천성이 정순하여 집에 있을 때는 효녀로 일컫더니 18세에 시집가서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남편이 병을 얻어 매우 위독하니 울면서 시어머니께 고하여 이르기를 “시아비가 죽으면 지어미는 따르는 것이 도리이니 맹세코 장차 같이 갈 것입니다.”라 하고 손가락을 끊어 입에 대어 넣고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하룻밤에 십여 차례 이르니 손에 완전한 손가락이 없었으되 정세현은 과연 살아났다.

●烈婦清州韓氏 南陽洪在馨妻也以青年夭沒烈婦以十九歲妙齡作從夫鬼於夫沒之夕鄉鄰聳聽驚嘆其義烈之卓

열부 청주한씨(淸州韓氏)는 남양 홍재형(洪在馨)의 아내다. 홍재형이 젊은 나이로 요절하니 열부는 19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이 죽던 날 저녁에 남편을 따르는 귀신이 되었다. 고을과 이웃이 듣고 그 의열(義烈)의 뛰어난을 경탄하였다.

●烈婦昌原黃氏 嘉善姜廷煥妻也夫病裂指注血以延三日之命及夫死依夫遺囑不卽下從子女婚畢乃與家衆訣遂自裁下從

열부 창원황씨(昌原黃氏)는 가선(嘉善) 강정환(姜廷煥)의 아내다. 남편이 병듦에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쏟아 삼일 동안 목숨을 연장시켰더니, 남편이 죽으니 남편이 남긴 부탁에 의하여 즉시 하종(下從)치 못하다가 자녀의 혼인을 끝내고 곧 집안사람들에게 이 별을 고한 뒤에 드디어 자결하여 하종(下從)하였다.

●烈婦義城金氏 俞致德妻也夫客死于江華金氏千里往還負屍還葬故山後十四年夫祭日招諭子女曰吾下從之心無時不切而汝曹未長故隱忍至此今則吾事畢矣因自絕於祭卓前

열부 의성김씨(義城金氏)는 유치덕(俞致德)의 아내다. 남편이 강화(江華)에서 객사하니 김씨는 천리 길을 왕래하여 시신을 짊어지고 돌아와 고향산에 안장하였다. 14년이 지난 뒤에 남편의 제삿날에 자녀들을 불러 타이러기를 “내가 하종(下從)할 마음이 때때로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너희들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끝났다.”라 하고 제상 앞에서 자결하였다.

●烈婦金海金氏 張翰佑妻也年十八結縭未歸而夫沒披髮奔赴及其成服之日即伏劍下從鄉人士哀其姁節表短碣而銘之

열부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장한우(張翰佑)의 아내다. 나이 18세에 결혼하여 우귀(于歸)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죽으니 머리를 풀고 달려가서 성복(成服)하는 날에 이르러 즉시 칼을 물고 엎드려 하종(下從)하였다. 고을 인사들이 그 훌륭한 절개를 슬퍼하여 작은 비석을 세워 명(銘)하였다.

●烈婦羅州林氏 南陽洪次壽妻也夫遭疾難醫藥餌之護禱辰之誠無所不爲而竟作不歸之人則告同歸之意于姑氏托二子於三婬夫死之厥明晨入寢室三呼同歸更無餘音開門視之則已溘然於夫尸傍矣義烈之卓鄉鄰驚嘆及其雙輻向原致弔者甚衆

열부 나주임씨(羅州林氏)는 남양 홍차수(洪次壽)의 아내다. 남편이 병에 걸리어 약물로 치료하기가 어려우니 북극성에 비는 정성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마침내 불귀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같이 돌아갈 뜻을 시어머니께 고하고 두 아들을 세 동서에게 부탁한 다음 남편이 죽은 다음 날 밝은 새벽에 침실에 들어가서 세 번 “함께 갑시다.”를 부르고는 다시 소리가 없었다. 문을 열고 보니 이미 죽어 남편의 시신 곁에 누워있었다. 그의 열(義烈)의 탁연(卓然)함에 고을과 이웃이 경탄하였고 두 채의 상여가 언덕으로 향하기에 이르러서는 조문하는 이가 매우 많았다.

●烈婦尹宣卿 金且權之妻宣卿本咸安良家女當 高宗丙子歲大饑流離至州之清源村爲崔氏家爨婢主母有惡疾竭誠侍側終始無倦及其夫夭死以善養其姑囑妯娌以嗣續夫後託夫弟因絕粒以殉里人壯其烈聞于官豎碑以表之

열부 윤선랑(尹宣卿)은 김차권(金次權)의 아내다. 선랑은 본래 함안 양가의 딸이었으나 고종 병자년에 큰 흉년을 당하여 유리(流離)하다가 주(州)의 청원촌(淸源村)에 이르러 최씨 집에 밥 짓는 여종이 되었다. 주인의 어머니가 악질(惡疾)이 있더니, 정성을 다하여 곁에서 모시고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이 요사함에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것을 동서에게 부탁하고 사자(嗣子)를 세워 남편의 뒤를 이어줄 것을 남편의 아우에게 부탁한 다음 곡식을 끊고 따라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열행을 장하게 여기어 관에 알리고 비를 세워 표하였다.

●烈婦貞夫人河氏 參奉許安仁妻參奉河渾女旌閭其后孫自宜寧移來(臥龍里)

열부 정부인 하씨는 참봉 허안인(許安仁)의 아내요 참봉 하혼(河渾)의 딸이다. 정려를 그 후손이 의령으로부터 옮겨왔다. (와룡리(臥龍里))

●烈婦李氏 通德郎姜沔妻孝子李郊女旌閭其后孫自咸安移來(冬勿谷)

열부 이씨는 통덕랑 강운(姜沔)의 아내요 효자 이교(李郊)의 딸이다. 정려를 그 후손이 함안으로부터 옮겨왔다. (동불곡(冬勿谷))

●烈婦全州崔氏 云凱女承仕郎晉陽鄭承業妻也壬辰聞島夷之變常佩刀自誓曰若遇不幸則吾必以此決死越明年癸巳敵果逼隣里幾至闔沒而婦僕及左右被傷崔氏罵以大義人抽刀自決亂靖後事聞旌閭舊在州東自也村世久頽圯雲仍瑯尾未遑修葺後移建德山院里(居白也村)

열부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운개(云凱)의 딸이요, 승사랑 진양 정승업(鄭承業)의 아내다. 임진년 일본의 변이 났다는 말을 듣고 항상 칼을 차고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만일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것으로써 죽음을 결단할 것이다.”라 하였다. 해를 넘겨 계사년에 적이 과연 이웃 마을을 꺾박하여 거의 모두 죽기에 이르렀다. 그리

고 며느리와 노복 및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으니 최씨는 대의(大義)로써 꾸짖고 이어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난이 그친 뒤에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되었다. 옛날에는 주(州)의 동쪽 백야촌(白也村)에 있었더니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는데 후손들이 미천하여 수용할 겨를을 얻지 못했다가 뒤에야 덕산(德山) 원리(院里)에 옮겨 세웠다. (백야촌에 살았다.)

●烈婦坡平尹氏 秋潭銑七世孫海州鄭采善妻也婦德夙著夫嬰奇疾三年委褥藥餌之供未嘗委他人躬親其勞夜則沐浴禱天願以身代及屬纊舉家蒼黃之際烈婦潛入密室飲毒而殊小頃夫則回甦而烈婦已無及時年二十七 高宗癸巳進士李志容等上言蒙允命旌(閭在丹城圓山)

효부 과평윤씨(坡平尹氏)는 추담(秋潭) 윤선(尹銑)의 7세손이요 해주 정채선(鄭采善)의 아내다. 부덕(婦德)이 일찍부터 드러났더니 지아버가 이상한 병에 걸리어 3년 동안 자리에 누웠는데, 약을 바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친히 그 노고를 다 하였다. 밤에는 목욕하고 하늘에 빌어 몸을 대신할 것을 원했더니, 임종에 이르러 온 집안이 창황(蒼黃)한 틈에 열부는 가만히 밀실(密室)에 들어가서 독을 마시고 말았다. 조금 있다가 지아버는 회생이 되고, 열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 27세 이었다. 고종 계사년에 진사 이지용(李志容) 등이 상언(上言)하여 명정(命旌)의 윤희(允許)를 입었다. (려는 단성 원산에 있다.)

●孝烈婦密陽朴氏 文化柳達永妻也自幼克遵姆教奉舅姑事夫子克盡其道年纔二十喪所天即欲決死而以舅姑在堂孤孩在抱含忍未遂未幾又喪幼孤抑悲節哀寬慰舅姑舅病疽吮血姑病痢嘗糞及遭故晨夕饋奠克殫其誠柳氏以宗祊無嗣日必晨起焚香家廟又先山有訟血書得理鄉道呈狀繡衣表題(居德山今山清)

효열부 밀양박씨(密陽朴氏)는 문화 류달영(柳達永)의 아내다. 어릴 적부터 여자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섬김에 그 도리를 다하더니, 나이 겨우 20세에 하늘로 여기는 남편을 잃었다. 즉시 죽음을 결행코자 하였으나 시부모가 집에 계시고 어린아이가 품안에 있으므로 참는 마음을 삼키고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되지 아

니하여 또 어린 아이를 잃었는데, 슬픔을 억제하고 애통을 줄이면서 너그럽게 시부모를 위로하였다. 시아버지가 등창을 앓았을 때는 빨았고, 시어머니가 이질(痢疾)을 앓았을 때는 똥을 맛보았으며, 상고(喪故)를 당함에 이르러서는 아침저녁의 상식에 그 정성을 다하였다. 류씨가 종손으로서 후사(後嗣)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가묘(家廟)에 분향하였고, 또 선산에 송사가 있었는데 혈서로 처리하였다. 고을에서 글을 암행어사에게 올려 허락을 받았다. (덕산에 살았으니 지금의 산청이다.)

● 孝義婦丹陽禹氏 尙煥女昌寧曹善承妻也禹氏早喪母二十而笄未幾夫沒禹氏遂決自絕舅姑知其意執手而泣曰汝今有孕幸可寬之禹氏感而回心喪祭如一事舅姑無違備嘗艱苦卒昌其家鄉人稱之(居德山)

효의부(孝義婦) 단양우씨(丹陽禹氏)는 우상환(禹尙煥)의 딸이요, 창녕 조선승(曹善承)의 아내다. 우씨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20세에 비녀는 꽂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다. 우씨는 드디어 자결을 결심하였더니 시부모가 그 뜻을 알고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잉태를 하였으니 다행한 일이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는 것이 옳겠다.”라 하니 우씨도 감동하여 마음을 돌리고 상제(喪祭)를 한결같이 하고 시부모를 섬김에 어김이 없게 하였으며, 일찍이 간고(艱苦)하였으나 마침내 그 집을 창성(昌盛)하게 하니 향인들이 칭송하였다. (덕산에 살았다.)

● 孝義婦南原梁氏 在龍女延日鄭然灌妻也夫有癩疾不能備人道梁氏少不見於辭色克順其志且孝養舅姑甚得婦道至於備賃人家備經辛苦以侄桓教爲嗣樹立門戶義城金槐撰碣(居桐谷)

효의부(孝義婦) 남원양씨(南原梁氏)는 양재룡(梁在龍)의 딸이요, 연일 정연관(鄭然灌)의 아내다. 지아비에게 고질(癩疾)이 있어 사람의 도리를 갖추기가 불가능 하였는데도, 양씨는 말이나 얼굴빛에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그의 뜻에 잘 순응하였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여 심히 부녀자의 도리를 얻었다.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고생을 하면서 조카 환교(桓教)로써 사자(嗣子)를 삼아 문호(門戶)를 수립(樹立)하였다. 의성 김황(金槐)이 갈문(碣文)을 찬(撰)하였다. (동곡(桐谷)에 살았다.)

● 義婦全州李氏 孝寧大君補后士人鄭鍾秀妻也李氏于歸三月夫邁疾危劇祈天願代竟至不救誓心下從作遺書飲毒不遂更吞針一封姑知之泣日以吾薄命既已失子汝又如此吾何依託李氏感而回心吞針順下於大便自此勤於治生家道漸潤鄉里屢欲褒賞李氏堅辭不受義城金槐作傳

의부(義婦) 전주이씨(全州李氏)는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후손이요, 선비 정종수(鄭鍾秀)의 아내다. 이씨는 우귀(于歸)한지 석달 만에 남편이 병에 걸리어 위독하니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원했으나 마침내 불구(不救)에 이르자 마음에 하종(下從)하기로 맹세하고 유서를 써서 두고 독을 마셨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하자 다시 바늘을 한 봉을 삼켰더니 시어머니가 알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박명한 닻으로 이미 자식을 잃었으나 너도 또 이와 같이 한다면 나는 무엇을 의탁하겠느냐?”라 하였다. 이씨는 여기에 감동하여 마음을 돌리고 삼킨 바늘도 순조롭게 대변으로 내려갔다. 이로부터 치생(治生)에 부지런히 하니 가도(家道)가 점점 윤택해졌다. 향리에서 여러 번 포상코자 하였으나 이씨가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의성 김황(金槐)이 전(傳)을 지었다.

● 烈婦延日鄭氏 全州崔懿秉妻也鄭氏幽閒靜淑夙著閨範夫病禱天斫指夫死而欲下從家人防護而不遂則至誠養舅姑無戚嗟之色十年不歸覲其伯兄欲奪其志而率去一夕無病而死蓋飲毒也人皆服其從容就義之難

열부(烈婦)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전주 최의병(崔懿秉)의 아내다. 정씨는 그윽하고 차분하고 착하여 일찍부터 규범(閨範)이 드러났더니, 남편이 병듦에 하늘에 빌고 손가락을 찍었다. 남편이 죽으니 하종(下從)코자 하다가 집안사람이 막고 지키어 이루지 못하고, 지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빛이 없었다. 그 동안 10년을 친정에 돌아가지 아니했더니, 그의 백형이 그의 뜻을 뺏고자하여 이끌고 갔다. 어느 날 밤에 병도 없이 죽으니 대개 독을 마셨던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그가 조용하게 취의(就義)한 어려움에 감동하였다.

● 烈婦晋州姜氏 泰館女咸安李相立妻也稟性貞淑聰慧自幼樂聞義烈等事及于歸夫偶邁疾百方調治殫竭心力竟至不起則哭擗一場仰藥而卒年纔二十五士林義之損金

購石以表之淵庵朴正善撰紀蹟碑銘(居州內)

열부(烈婦) 진주강씨(晉州姜氏)는 강태관(姜泰館)의 딸이요, 함안 이상립(李相立)의 아내다. 품성이 정숙하고 총혜(聰慧)하여 어려서부터 의열(義烈) 등의 일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우귀(于歸)한 뒤에 남편이 우연히 병에 걸리어 백방으로 조치하고 심력을 다했으나, 마침내 불기(不起)에 이르니 한바탕 가슴을 치면서 울음을 벌리고서 약을 먹고 죽었다. 이때 나이 겨우 25세였으니,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어 돈을 내어 돌을 사서 표하였다. 연암(淵庵) 박정선(朴正善)이 기적비명(記蹟碑銘)을 찬(撰)하였다. (주(州)내에 살았다.)

●烈婦鄭氏 東萊人民魯女密陽朴厚臣妻有淑美之德厚臣遭痘病跨秋至冬及至危劇無藥不試無誠不致一日隣嫗言曰股肉爲炙而食之當愈遂依其言夫病完蘇勿齋盧光履撰傳

열부(烈婦) 정씨는 동래인 정민로(鄭民魯)의 딸이요, 밀양 박후신(朴厚臣)의 아내다. 착하고 아름다운 덕이 있더니, 후신이 천연두에 걸리어 가을을 지나고 겨울에 이르러서 위독하기에 이르렀고, 약으로는 시험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정성으로도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말하기를 “허벅지의 살을 구어 먹으면 당장 낫을 것이다.”라 하므로 드디어 그의 말에 의지하여 살을 베어 먹었더니 남편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물재(勿齋) 노광리(盧光履)가 전기(傳記)를 찬술하였다.

●義婦咸陽朴氏 晉陽鄭遂均妻也幼有至性事父母孝既嫁舅姑既沒家甚貧未幾夫黨遇疫次第喪亡惟有夫之從姊妹六人尙幼夫人撫育嫁娶以成室家取從侄爲嗣以延鄭氏祀鄉黨稱其難

의부(義婦) 함양박씨(咸陽朴氏)는 진양 정수균(鄭遂均)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질이 있어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고, 시집을 가서는 시부모가 이미 죽고 집이 매우 가난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남편과 형제들도 우연한 전염병으로 차례차례 죽었다. 오직 남편의 종자매(從姊妹) 여섯 명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아직 어렸다. 부인은 이들을 무육(撫育)하여 모두 시집보내고 장가를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종질(從侄)을 후사로

삼아 정씨의 제사를 잇게 하니 그의 어려움을 칭송하였다.

● 孝婦晉陽姜氏 柄彥女金海金相基妻也年十八歸于相基事舅姑孝及舅沒姑性嚴少容貸夫人愈謹愈恭竟見許於姑盖誠之之也鄉里稱其孝而褒美之

효부(孝婦) 진양강씨(晉陽姜氏)는 강병언(姜柄彥)의 딸이요, 김해 김상기(金相基)의 아내다. 나이 18세에 상기(相基)에게 시집가서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시어머니의 성질이 엄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었다. 부인은 이럴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공손히 하니 마침내는 시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얻었다. 이는 정성이 지극한 때문이었으니 향리에서 그의 효성을 칭찬하여 이를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 孝婦漆原諸氏 晉陽鄭會均妻也事舅姑極其孝舅嘗有病三年侍湯未嘗少懈夢有一老人告曰家後有異蛇可以療病覺而異之果得蛇於其所取而煎進竟得快蘇人稱其孝感

효부(孝婦) 칠원제씨(漆原諸氏)는 진양 정회균(鄭會均)의 아내다. 시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지극히 하였으니 시아버지가 일찍이 병이 있어 삼년을 시탕(侍湯)하였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꿈에 한 노인이 있어 고하여 이르기를 “집 뒤에 이상한 뱀이 있으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꿈을 깨고 이상히 여겼더니 과연 그곳에서 뱀을 얻어 다려드리니 마침내 완쾌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일컬었다.

● 烈婦江城文氏 晉鎬女晉陽河相泰妻也性和順貞淑事舅姑處妯娌咸得其道及當夫喪斂襲饋奠躬自無憾大祥之晨哀痛益甚祭畢入室久而不出開門視之氣息奄奄欲絕諸子驚呼於左右以喉間微聲囑其善事祖母而逝盖服毒也自箱中預蓄斂襲初終之具乃知夫人之死已定於夫歿之時也(居反川今山清)

열부(烈婦) 강성문씨(江城文氏)는 문진호(文晉鎬)의 딸이요, 진양 하상태(河相泰)의 아내다. 성품이 화순(和順)하고 정숙(貞淑)하여 시부모를 섬기고, 동서에게 처함에 모두 그 도리를 얻었다. 부상(夫喪)을 당해서는 림습(斂襲)과 궤전(饋奠)을 몸소 스스로 하여

한이 없게 하더니, 대상(大祥)의 새벽에는 애통(哀痛)을 더욱 심히 하였다. 제사를 끝내고서 침실(寢室)로 들어가서 오래도록 나오지 아니하므로 문을 열고 보니 숨이 끊어지려고 하였다. 여러 아들이 놀라고 좌우에서 부르니, 목구멍 사이에서 가는 소리로 “할머니를 잘 섬겨라”하고 서거하였다. 대개 독을 마셨던 것이요 상자 속에 염습과 초종(初終)에 쓸 것을 미리 쌓아 두었으니 곧 부인의 죽음은 이미 남편이 돌아간 때에 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천에 살았으니 지금의 산청이다.)

● 義婦陝川李氏 浩柱女 晉陽河啓錫妻也 夫早嬰濕疾 藥蔑其功 或云 魚可試 李氏日携笥往四方 求得至天 寒冬冰亦然 隣媪勸之禱 李氏曰 吾聞至誠感神焉 用禱爲浹歲 夫竟不起 二男一女俱纒免 襦家若懸磬 李氏益治其業 撫其孤幼 使之成立 家道日隆 隣里感嘆(居士谷)

의부(義婦) 합천이씨(陝川李氏)는 이호주(李浩柱)의 딸이요, 진양 하계석(河啓錫)의 아내다. 남편이 일찍부터 습질(濕疾)에 걸렸더니, 약이 그 공을 없게 하였고, 혹이 말하기를 시험해보는 것이 옳겠다.”라 하므로 이씨는 날마다 대소쿠리를 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구하여 하늘이 차갑고 겨울에 얼음이 어는 때까지 이르렀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웃 노파가 권하기를 빌어보라고 하니 이씨가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지성은 신을 감동시킨다.”라 하고 빌기를 해가 넘도록 하였으나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때 아들이 둘, 딸이 하나였는데 모두 겨우 강보(襁褓)를 면했을 정도요, 집은 풍경을 달아맨 것 같았다. 이씨는 더욱 그 업(業)을 다스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어루만져서 성립되게 하니 가도(家道)가 날로 융성해졌다. 이웃과 마을에서 모두 감탄하였다. (사곡에 살았다.)

● 烈婦金海金氏 仁同張澣愚妻也 自幼天性仁順 及結縵未歸 而夫邁疾 金氏聞報卽來 未幾日而夫死 金氏誓心下從 以刀自刎 其頸血湧 濺舅姑卽入救 之久乃省 人事 金氏抑悲哀 反慰舅姑 似若回心 緩其防守 而復以刀 刎頸而死 遠近人士 咨嗟嘆惜 至贊詠其事 積成卷軸(居永縣今固城)

열부(烈婦)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인동 장한우(張澣愚)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순하더니 혼인하고 우귀(于歸)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병에 걸렸다. 김씨가 기별을 듣고 즉시 왔으나 며칠이 못되어 남편이 죽으니, 김씨는 마음에 하종(下從)하기로 맹세하고 칼로써 스스로 그 목을 찢러 피가 pingping 쏟아졌다. 시부모가 즉시 들어 와서 구하여 곧 인사(人事)를 살피게 되니 김씨는 비애를 억제하고 도리어 시부모를 위로하였다. 이리하여 김씨가 마음을 돌린 것과 같으므로 그 방비를 누그러뜨렸더니 다시 칼로써 목을 찢러 죽었다. 원근의 인사들이 차탄(嗟嘆)하고 애석함이 지극하였으므로 그 사적을 찬영(贊詠)하여 권축(卷軸)을 이루었다. (영현에 살았으니 지금 고성이다.)

● 孝婦金寧金氏 晉陽姜在傳妻也金氏幼時以孝順稱既歸無違夫子事舅姑以孝舅嘗適野爲馬蹄傷足因成大瘡金氏竭誠奔走謁醫攻藥一無效應一日夢有老人自稱其王舅而告之妙方覺而異之如其方製藥煎進病果良已舅以天年終金氏斫指取血以灌之舅方絕而復蘇謂曰無若大命何盖嘉其誠至也義城金槐作贊(居樞洞)

효부(孝婦) 김녕김씨(金寧金氏)는 진양 강재전(姜在傳)의 아내다. 김씨는 어릴 때에 효순하다는 것으로써 칭찬을 받더니, 시집을 가서는 남편에게 어김이 없었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시아버지가 일찍이 들에 갔다가 말발굽에 발을 상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큰 중기가 되었는데, 김씨는 정성을 다하여 분주히 의원을 찾아 약으로 다스렸으나, 전혀 효응(效應)이 없었다. 어느 날 꿈에 노인이 있어 자칭 그의 시할아버지라고 하면서 묘방(妙方)을 알려주었다. 꿈을 깨어 기이하게 여겨 그 방문과 같이하여 약을 지어 다려 드리니 병이 과연 좋아져서 시아버지는 천년(天年)을 마쳤다. 김씨는 또 시아버지가 병 들었을 때에 손가락을 찍어 피를 내어 대니 시아버지는 바야흐로 숨이 끊어질뻔 하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만약 대명(大命)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아름다운 그 정성의 지극함을 덮을 수 있겠느냐?”라 하였다. 의성 김황(金槐)이 찬을 지었다. (추동에 살았다.)

● 孝婦平澤林氏 魯憲女竹醒鄭閻教妻也姑嗜川魚祝天而得尺鱗以供夫有病祈星而得愈勉菴崔益鉉撰傳(居佳谷)

효부(孝婦) 평택임씨(平澤林氏)는 노헌(魯憲)의 딸이요, 죽성(竹醒) 정은교(鄭閻教)의

아내다. 시어머니가 민물고기를 좋아하므로 하늘에 빌어 한자나 되는 고기를 얻어서 이바지 했고, 남편이 병듦에 벌에 빌어 낫게 하였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전기를 찬술하였다.(가곡에 살았다.)

● **烈婦清州韓氏** 赫東女南陽洪在俊妻也在家孝友夙著年十七歸于洪公事君子以禮才三年夫遇奇疾竭誠調護五朔如一日及不起附身之具無或疏漏待尸傍無人之時入而不出家人疑之開戶而視之韓氏兩手執斂索附面於尸跪伏以死蓋閉息而絕也

열부(烈婦) 청주한씨(清州韓氏)는 혁동(赫東)의 딸이요, 남양 홍재준(洪在俊)의 아내다. 집에 있을 때는 효우로 일찍부터 드러났더니, 나이 17세에 홍공에게 시집갔다. 군자를 섬김에 예로써 하더니 겨우 삼년 만에 남편이 이상한 병을 만나서 정성을 다하여 간호되다섯 달을 하루와 같이 하였으나 불기(不起)에 이르고 말았다. 몸에 붙일 것으로서 흑 소루(疏漏)함이 없을까 하다가 시신 곁에 사람이 없는 때를 기다려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집안사람이 의심하여 문을 열고 보니 한씨가 두 손으로 렴(殮)한 새끼줄을 쥐고 얼굴을 시신에 붙인 채 꿇어앉아 엎드려 죽었다. 대개 숨을 단고 절명한 것이다.

● **孝義婦晉陽河氏** 慶然女石楨載妻也性至孝年十七于歸奉舅姑以孝事君子以禮舅偶得難醫之疾四年病床百方調治掘井於家後山每子夜沐浴祈天終不獲佑而遭大故喪葬盡禮其夫偶出家久不還晝則賃傭夜則紡績孝奉偏姑撫養幼兒過九年其夫還竟成家道隣里施賞官有褒狀其子甲熙乞文立碑(居集賢面)

효의부(孝義婦) 진양하씨(晉陽河氏)는 하경휴(河慶然)의 딸이요, 석정재(石楨齋)의 아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나이 17세에 우귀(于歸)하여 시부모를 효성으로써 받들고 군자를 예로써 섬겼다. 시아버지가 우연히 병을 얻어 사년 동안을 병상에 누웠더니, 백방으로 조치하다가 집 뒤 산에 우물을 파고 매일 밤중에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으나 마침내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죽음을 당해서는 상장(喪葬)에 예를 다했더니, 남편이 우연히 집을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낮이면 품팔이를 하고 밤이면 길쌈을 하여 효성으로 홀로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키웠다. 9년이 지난 뒤에 그 남편이 돌아와서 마침내 가도(家道)를 이루니 이웃과 마을이 시상하고 관

에서도 포상하였으며 그 아들 갑희(甲熙)가 글을 빌어 비를 세웠다.(집현면에 살았다.)

●烈婦晋陽鄭氏 載雨女昌寧成泰珩妻也庚寅北匪之亂其夫中燬而死鄭氏托傍人以看護幼孫遂投井而死(居勝山)

열부(烈婦) 진양정씨(晋陽鄭氏)는 재우(載雨)의 딸이요, 창녕 성태형(成泰珩)의 아내다. 경인년 북괴군의 난에 그 남편이 탄을 맞아 죽으니, 정씨는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여 어린 손자를 간호하게 하고 드디어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승산에 살았다.)

●孝義婦晋陽鄭氏 起龍女咸陽朴泰弘妻也自幼柔婉靜淑順於事親及適人孝養舅姑事夫子未幾夫以病沒鄭氏則欲下從而以舅姑在堂抑哀節悲哭不成聲襲斂饋奠躬親無憾舅姑之病嘗糞驗其差劇及丁憂送終如禮晝宵勤績忍飢積蓄而家道稍饒爲先代買祭田立後嗣鄉里皆稱之(居柏谷)

효의부(孝義婦) 진양정씨(晋陽鄭氏)는 정기룡(鄭起龍)의 딸이요, 함양 박태홍(朴泰弘)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유순 정숙(靜淑)하더니 아버이를 섬김에 온순하였고, 남편에게 시집가서는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공경으로 남편을 섬겼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남편이 병으로 죽으니 정씨는 하종(下從)코자 하다가 시부모가 당(堂)에 계시기 때문에 애통함을 억제하고 슬픔을 줄이어 곡에도 소리를 내지 아니했으며, 염습(斂襲)과 궤전(饋奠)을 몸소 친히 하여 한됨이 없게 하였다. 시부모가 병듦에 똥을 맛보아 증세의 더함과 덜함을 그 차도를 징험했고 상을 당함에 이르러서는 장례를 예답게 하였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길쌈하여 굶주림을 참고 저축하니 가도(家道)가 차차 넉넉해졌다. 선대를 위하여 제전(祭田)을 사고 후사를 세우니 향리에서 모두 이를 칭송하였다.(백곡에 살았다.)

●烈婦晋陽姜氏 浩運女金寧金昇澤妻也夫病數月彌留竭力救護及至屬纊潛入僻室飲藥自裁家人奔救已無及矣俄頃夫則回甦終至快愈遠近莫不感歎請褒儒狀積成卷軸(居美川)

열부(烈婦) 진양강씨(晋陽姜氏)는 호운(浩運)의 딸이요, 김녕 김승택(金昇澤)의 아내

다. 남편이 병이 들어 수월이 되었는데도 더욱 더하니 힘을 다하여 구호했으나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에 가만히 벽실(僻室)에 들어가서 약을 마시고 자결하니 집안사람이 분주히 구했으나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얼마 후 부군은 희생하여 마침내 쾌유되기에 이르렀으니 원근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유장(儒狀)으로 포상하기를 청했으며 글이 쌓여서 권축(卷軸)을 이루었다. (미천에 살았다.)

● 孝義婦載寧李氏 碩東女南原梁柱七妻也天性溫淑年二十而于歸未幾夫得暴疾百方治療終不能救夫人撫尸哭擗全廢食飲幾至絕命者屢矣以舅姑在故不忍就義舅遭泄症彌留五六朔夫人嘗糞驗其差劇舅病竟得快蘇隣里宗親皆稱其孝(居梧洞)

효의부(孝義婦) 재령이씨(載寧李氏)는 석동(碩東)의 딸이요, 남원 양주칠(梁柱七)의 아내다. 천성이 온화하고 착하였다. 나이 20세에 시집갔는데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남편이 폭질(暴疾)을 얻어 백방으로 치료했으나 마침내 구할 수가 없었다. 부인은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길게 곡하고 음식을 전폐하여 거의 절명에 이른 지가 여러 번이었다. 시부모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차마 따라 죽지 못했더니, 시아버지가 설사를 만나서 5, 6삭(朔)을 계속하니 부인은 똥을 맛보아 그 차도가 있는지 더한 지를 징험했다. 이리하여 시아버지의 병이 마침내 완쾌하게 되니 인리(隣里)와 종친들이 모두 그의 효성을 칭송하였다. (오동에 살았다.)

● 義婦金寧金氏 希洙女綾城具仕書妻也早喪夫以舅姑在堂不忍自裁蓬首垢面以未亡人自處三兒稍壯使之遊學竟至成就提學李炳觀撰碑銘(居佳亭)

의부(義婦) 김녕김씨(金寧金氏)는 희수(希洙)의 딸이요, 능성 구임서(具仕書)의 아내다. 일찍 남편을 잃었더니 시부모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차마 자결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머리와 때 낀 얼굴로 부망인(未亡人)으로써 자처하였다. 세 아이가 점점 장성하니 이들에게 유학토록 하여 마침내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제학(提學) 이병관(李炳觀)이 비명을 찬하였다. (가정에 살았다.)

● 孝婦開城王氏 基三女綾城具致祖妻也事舅姑克盡婦道家甚貧傭織以養之便身

之物適口之旨未嘗有遺其姑偶嬰難治之崇彌留數年王氏百日祈山一日夜有大蟲隨之視之無異家畜又設壇禱天竟得其效以天年終隣里以孝婦稱之立碑以紀蹟東庵李鉉郁撰記(居佳亭)

효부(孝婦) 개성왕씨(開城王氏)는 기삼(基三)의 딸이요, 능성 구치조(具致祖)의 아내다. 시부모를 섬김에 부도(婦道)를 다하더니 집이 심히 가난하여 품팔이와 길쌈으로 봉양하고, 몸에 편한 물건이나 입에 맞는 음식을 드리어 일찍이 빠트림이 없었다. 그 시어머니가 우연히 낫기 어려운 병에 걸리어 수년이 되도록 점점 더해가니 왕씨는 백일 동안을 산에 빌었다. 어느 날 밤에는 큰 벌레가 따라오기에 보니 가축과 다름이 없었고, 또 단을 모아 하늘에 빌었더니 마침내 그 효험을 얻어서 천년(天年)을 마쳤다. 향리에서 효부라고 칭송하여 비를 세워 사적을 기록하였다. 동암 이현욱(東庵 李鉉郁)이 기를 찬하였다.(가정에 살았다.)

● 孝義婦慶山全氏 達成徐忠教妻也自幼孝順和惠及笄未幾夫嬰重疾竭誠扶護晝而煎藥夜而禱天竟至不救全氏矢志下從不離殯側親戚知其意善諭曰汝若不幸則堂上之癯膝下之呱依誰而爲命也全氏含忍強起誠心克襄三年之制一惟其禮不盥不櫛足跡不出門外晝宵紅績養舅姑育子女以遂夫子之志(居永大今固城)

효의부(孝義婦) 경산전씨(慶山全氏)는 달성 서충교(徐忠教)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효순(孝順) 화혜(和惠) 하더니 비너를 찌른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아버가 중질(重疾)에 걸렸다. 정성을 다하여 간호함에 낮에는 약을 다리고 밤에는 하늘에 빌었으나 마침내 불구(不救)에 이르렀다. 전씨는 마음으로 하종(下從)할 것을 맹세하고 빈소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니 친척이 그 뜻을 알고 잘 타일러 말하기를 “너가 만약 불행해지면 당상(堂上)의 병든 노인과 슬하에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여 목숨을 이어 가겠느냐?”라 하니 전씨는 참고 억지로 성심을 일으켜 삼년의 상을 잘 치르되 오직 한결같이 하였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았으며, 발자취를 문밖에 내지 않고 밤낮으로 길쌈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길러 남편의 뜻을 이루었다.(영대에 살았으니 지금 고성이다.)

● 孝婦延日鄭氏 周鎔女長興高在相妻也天資貞淑及于歸善養其姑克盡其誠其姑
 邁疾三載祈山禱天嘗糞驗症自慕聖公會及郡里有賞狀(居奈洞篤山)

효부(孝婦) 영일정씨(延日鄭氏)는 주용(周鎔)의 딸이요, 장흥 고재상(高在相)의 아내다. 타고난 자질이 정숙(貞淑)하였다. 시집가기에 이르러서는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였으니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어 삼년을 앓더니 산에 빌고 하늘에 빌었으며, 똥을 맛보아 증세를 징험하였다. 모성공회(慕聖公會) 및 군리(郡里)로부터 상장을 받았다.(나동 독산에 살았다.)

● 烈婦晉陽河氏 啓昌女士人清州韓碩愚妻也夫積年嬰疾日夜祝天百方求藥靡不用極至殞絕斷指注血回甦三一鄉里嗟嘆

효부(烈婦) 진양하씨(晉陽河氏)는 계창(啓昌)의 딸이요, 선비 청주 한석우(韓碩愚)의 아내다. 부군이 오래도록 병에 걸렸더니 밤낮으로 하늘에 축원하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극단에 이르기까지 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명이 끊어지기에 이르러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쏟아 넣어 삼일 동안 희생하니 향리에서 탄복하였다.

● 孝婦密陽朴氏 聖臣女金海金鳳儀妻也天性慧敏閨行貞淑敬承君子孝奉舅姑其夫出外至二十年不還而家又貧東織西舂甘旨不絕舅有眼疾以舌洗之而愈姑以老病委床竭誠侍湯及喪哀毀踰禮人皆稱之以孝婦

효부(孝婦)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성신(聖臣)의 딸이요, 김해 김봉의(金鳳儀)의 아내다. 천성이 혜민(慧敏)하고 정숙(貞淑)하여 공경으로 남편에게 승순(承順)하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 2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했고, 또 집이 가난하여 동쪽으로 가서 길쌈하고 서쪽 집에 가서 방아 찧어 맛난 음식을 끊지 아니하였다. 시아버지가 안질이 있더니 혀로 씻어서 낫게 했고, 시어머니가 노병으로 자리에 누웠으니 정성을 다하여 약 시중을 들었다. 이러다가 상을 당해서는 애훼(哀毀)가 예를 넘으니 사람들이 모두 효부로서 칭송하였다.

● 孝婦慶山全氏 成德女花山千思國妻也在閨已著賢淑之譽及于歸孝舅姑敬君子

舅性嚴而承順無違有疾晝夜不離側刀圭糜粥無不盡誠遭姑喪哀毀踰禮送終無憾洞人
 有賞褒(居雪梅)

효부(孝婦) 경산전씨(慶山全氏)는 성덕(成德)의 딸이요, 화산 천사국(千思國)의 아내다. 친정에 있을 때에 현숙(賢淑)의 기림이 이미 드러났더니 우귀(于歸)에 이르러서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군자에게 공경으로 바쳤다. 시아버지의 성질이 엄했으므로 승순(承順)하여 어김이 없었고, 병듦에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과 죽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애훼(哀毀)가 예를 넘었고, 장례를 한이 없게 하니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포상하였다.(설매에 살았다.)

● 孝婦密陽朴氏 憲衡女潁陽千思澤妻也自幼柔婉孝事父母十九而笄孝養舅姑禮相君子其姑金氏數月委病刀圭蔑效祈山禱天極其誠及遭艱泣血終制其舅以眼疾數旬呻嚙口以吮之竟得效其子郃玉郃燮亦承庭訓以孝友著(居雪梅)

효부(孝婦) 밀양박씨(密陽朴氏)는 헌형(憲衡)의 딸이요, 영양 천사택(千思澤)의 아내다. 어려서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더니 나이 19세에 시집가서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을 예로써 도왔다. 시어머니 김씨가 수개월 동안 병으로 누워 약도 효험을 보지 못하니, 산에 빌고 하늘에 빌어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制)를 마쳤다. 그의 시아버지가 안질로 수십일을 신음하더니, 입으로 눈을 빨아 결국 효험을 얻었다. 그의 아들 태옥(郃玉)과 태섭(郃燮)도 또한 가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효우로써 드러났다.(설매에 살았다.)

● 孝婦晉陽姜氏 允載女金海金昌皐妻也在家而令淑有聞及嫁善事舅姑姑老而疾脹委臥數年裙綸洗濯謁醫攻藥靡所不至及至屬續斫指灌血送終之具祭奠之需克殫其誠鄉人士呈狀牧伯而際值社屋不得蒙褒其孫容孟鐫石而立碑載寧李鉉德撰碑文(居七亭今山淸)

효부(孝婦) 진양강씨(晉陽姜氏)는 강윤재(姜允載)의 딸이요, 김해 김창호(金昌皐)의 아내다. 집에 있을 때에 훌륭한 것으로 알려졌더니, 시집을 가서는 시부모를 잘 섬겼다. 시어머니가 늙고 창증(脹症)을 앓아 수년 동안 몸져누웠더니, 속옷의 세탁과 의

원을 만나 약을 짓는 데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임종 에 이르러서는 손가락을 찍어 피를 쏟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장례의 도구와 제전(祭奠)의 물건에 그 정성을 다하니 향인과 선비들이 글을 목사(牧使)에게 올렸다. 때마침 나라가 망하여 포상을 입지 못했으나, 그의 손자 용맹(容孟)이 돌에 새겨 비를 세우니 재령 이현덕(李鉉德)이 비문을 찬하였다. (칠정에 살았으니 지금의 산청이다.)

● 孝烈婦金海金氏 晉陽姜俊秀妻也舅遭瘡疾審克嘗糞禱天竟得回甦夫有貞疾累年委褥醫云人肉當效金氏割股灸進果得神效十六年康健以天年終里人立碑邵城李泰文撰碑銘(居富溪)

효열부(孝烈婦)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진양 강준수(姜俊秀)의 아내다. 시아버지가 학질(瘡疾)에 걸려 매우 심하더니 똥을 맛보고 하늘에 빌어 마침내 회생하였고, 지아버기가 병에 걸려 여러 해 자리에 누웠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사람의 고기를 쓰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김씨가 허벅지의 살을 베어 구어 드리니 과연 신비하게 효과가 있어 16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천년(天年)을 마쳤다. 마을 사람들이 비를 세우니 소성(邵城) 이태문(李泰文)이 비명을 찬하였다. (부계에 살았다.)

● 孝婦昌寧成氏 慶玉女草溪鄭宗時妻也夫嬰貞疾累年不瘳至誠調護竟至不救家甚貧而有老舅姑幼孤孩成氏晝而耘夜而織至於手足胼胝而不休仰事俯育家道以泰鄉里稱之(居九思今山淸)

효부(孝婦) 창녕성씨(昌寧成氏)는 경옥(慶玉)의 딸이요, 초계 정종시(鄭宗時)의 아내다. 남편이 병에 걸리어 여러 해가 되도록 낫지 아니하니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調護)하였으나 마침내 불구(不救)에 이르렀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는데 늙은 시부모와 어린 고아가 있었는데, 성씨는 낮에는 김매고 밤에 길쌈하여 수족이 못이 박히게 되었어도 쉬지 않고 우리러 섬기고, 아래로 양육하여 가도(家道)가 넉넉해졌다. 향리에서 모두가 칭송하였다. (구사에 살았으니 지금 산청이다.)

● 烈婦星山李氏 貞根女昌寧成煥哲妻也夫病呻吟藥餌無方竟遭大故經卒哭飲藥

而殉鄉人悲之(居水谷)

열부(烈婦) 성산이씨(星山李氏)는 정근(貞根)의 딸이요, 창녕 성환철(成煥哲)의 아내다. 부군이 병으로 신음하다가 약으로도 방도가 없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졸곡(卒哭)을 지내고서 약을 마시고 순사(殉死)하니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수곡에 살았다.)

●烈婦晉陽河氏 啓潤女金寧金炯伯妻也天資貞淑奉舅姑以誠事夫子以禮王姑累年沈疴晝夜侍湯靡有少懈當庚寅之亂山匪深夜突入捕縛其夫而出門外婦人卽隨行厲聲曰吾夫有何罪而欲殺之耶罵不絕口同時被害(居美川)

열부(烈婦) 진양하씨(晉陽河氏)는 하계윤(河啓潤)의 딸이요, 김녕 김형백(金炯伯)의 아내다. 타고난 자질이 정숙(貞淑)하여 시부모를 정성으로써 받들고 남편을 예로써 섬기더니, 할머니가 여러 해 동안 병에 걸리어 앓으니 밤낮으로 시탕(侍湯)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경인년의 난을 당하여 산속의 괴뢰군이 깊은 밤에 돌입(突入)하여 그 부군을 포박하여 문밖으로 나가니 부인이 즉시 따라가서 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기를 “나의 남편이 무슨 죄가 있기에 죽이고자 하느냐?”라 하고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다가 동시에 해를 입었다. (미천에 살았다.)

●孝婦驪興閔氏 應教女居昌慎相範妻也事舅姑極孝承順無違姑河氏病痺臥起衣食必須人孝婦至誠扶護晝夜不離側每朝必爲之梳髮洗而衾枕裙帶之屬常令潔淨八年如一日及喪哀毀踰制(居桐月)

효부(孝婦) 여흥민씨(驪興閔氏)는 응교(應教)의 딸이요, 거창 신상범(慎相範)의 아내다. 시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워 승순(承順)하여 어김이 없었다. 시어머니 하씨가 마비(麻痺)를 앓아서 눕거나 일어나거나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더니 효부가 지성으로 간호하였다.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매일 아침이면 반드시 머리를 빗질하여 씻고, 이불과 치마의 등속을 항상 정결하게 하였다. 8년을 하루같이 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예훼(哀毀)가 예를 넘었다. (동월에 살았다.)

● 孝義婦晉陽姜氏 元七女商山金錫壽妻也天資慧敏閨行貞淑年纔二十喪夫掩淚告姑曰死者已矣何至傷生奉養其姑勝於平日姑以髮疽百藥無效及吮其瘡晝也不懈竟得快蘇事載五倫行實錄(居鉢山)

효의부(孝義婦) 진양강씨(晉陽姜氏)는 원칠(元七)의 딸이요, 상산 김석숙(金錫壽)의 아내다. 타고난 자질이 혜민(慧敏)하고 여자로서의 행실이 정숙(貞淑)하더니, 나이 겨우 20세에 남편을 잃었다. 눈물을 가리우고 시어머니께 고하여 이르기를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만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라 하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평소보다 더 잘하였다. 시어머니가 등창이나 백약이 무효이더니, 이에 그 종기를 빨아서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완쾌하게 되었다. 오륜행실도에 실렸다. (발산에 살았다.)

문과(文科)

- 하 연(河 演) 진사로 홍무(洪武) 병자년(태조 5, 1396)의 식년시에서 병과로 합격하였고, 영의정을 지냈다. 시호(諡號)는 문효공(文孝公)이며 사월(沙月)에 살았다.
- 하 유(河 游) 판윤을 지냈다.
- 하 결(河 潔) 영락(永樂) 신묘년(태종 2, 1411)의 식년시(式年試)에 동진과(同進科)에 합격하여 대사간을 지냈다.
- 강용리(姜用鯉) 부사를 지냈다.
- 정 분(鄭 笨) 영락(永樂) 병신년(태종 16, 1416) 별시에서 병과에 합격하고 좌의정을 지냈다.
- 강원량(姜元亮) 병진년(세종 18, 1436)에 합격하였고, 판서를 지냈다.
- 최자경(崔子涇) 현감을 지냈다.
- 최덕경(崔得涇) 군수를 지냈다.
- 정 척(鄭 陟) 갑오년(태종 14, 1414)에 합격하고 대제학을 지냈으며 시호는 공대(恭

戴)다.

- 모 순(牟 恂) 생원으로 정유년(태종 17, 1417) 식년시에서 동진과(同進科)에 합격하여 사간을 지냈다.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 양(鄭 讓) 생원으로 계유년(세종 5, 1423)에 동진과(同進科)에 합격하고 참판을 지냈으며, 침곡(針谷)에 살았다.
- 강맹경(姜孟卿) 생원으로 선덕(宣德) 기유년(세종 2, 1429)의 식년시에서 동진과(同進科)에 합격하고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경공인데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정차공(鄭次恭) 임자년(세종 14, 1423) 식년시에서 동진과(同進科)에 합격하고 이조 참의를 지냈으며 주내(州內)에 살았다.
- 하계부(河季溥) 장령을 지냈다.
- 강희안(姜希顔) 제학을 지냈다.
- 최복린(崔卜麟) 대사간을 지냈고 조동리(槽洞里)에 살았다.
- 강희맹(姜希孟) 진사로 정통(正統) 정유년(세종 29, 1447) 친시(親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고 성화(成化) 병술년(세조 12, 1466)에 영시(英試)에서 일등의 2인으로 뽑혔으며, 좌찬성을 지냈는데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 강희려(姜希呂) 진사로 정통(正統) 신유년(세종 23, 1441)의 식년시에서 정과(丁科)에 올랐다.
- 하순경(河淳敬) 정통(正統) 갑자년(세종 26, 1444)의 식년시에 합격하고 직강을 지냈다.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이 미(李 美) 생원으로 경태(景泰) 계유년(단종 1, 1453)의 식년시에 정과(丁科)에 합격하고 현감을 지냈으며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조 찬(趙 瓚)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같은 해에 정과(丁科)에 올라 감찰을 지냈는데 동곡(桐谷)에 살았다.
- 최수지(崔水智) 경태(景泰) 계유년(단종 1, 1453)에 합격하여 응교(應敎)를 지냈다.
- 양순석(梁舜碩) 경태(景泰) 계유년(단종 1, 1453) 가을에 정시(廷試)에서 합격하고 감사(監事)를 지냈으며, 사월(沙月)에 살았다.

- 남 의(南 椅) 갑술년(단종 2, 1454)에 합격하고 교리를 지냈다.
- 강대규(姜大珪) 부사를 지냈다.
- 최효양(崔孝養) 판관을 지냈다.
- 정종오(鄭從吾) 현감을 지냈다.
- 강 흘(姜 佺) 생원으로 정유년(태종 17, 1417) 식년시에 합격하고 한림을 지냈는데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하효문(河效文) 생원으로 정덕(正德) 정묘년(중종 2, 1507)에 을과에 올라 감찰을 지냈는데 안계(安溪)에서 살았다.
- 정현구(鄭玄球) 목사를 지냈다.
- 강윤범(姜允範) 감사를 지냈다.
- 강안중(姜安重) 도사를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하숙산(河叔山) 천순(天順) 신사년(세조 7, 1461)에 별과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서신대(西申大)에 살았다.
- 김길손(金吉孫) 생원으로 경진년(세조 5, 1460)에 별시에서 삼등으로 합격하였다. 진성(晋城)에 살았다.
- 하기룡(河起龍) 순천(順天) 기묘년(세조 5, 1459)에 병과에 합격하였고, 통찬(通贊)을 지냈다. 사죽(沙竹)에 살았다.
- 하기린(河起麟) 대호군을 지냈다.
- 이인형(李仁亨) 진사로 성화(成化) 무자년(세조 14, 1468)에 식년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하고 대사헌을 지냈다.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손창진(孫昌進) 진사로 무자년에 을과에 합격하고 정랑을 지냈다. 이하리(籬下里)에 살았다.
- 강문회(姜文會) 기축년(예종 1, 1469)에 별시 병과에 합격하였다.
- 조지서(趙之瑞) 갑오년(성종 5, 1474)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같은 해에 병과에 합격하였으며, 기해년 중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승지를 지냈다. 동곡(桐谷)에 살았다.
- 정성근(鄭誠謹) 갑오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승지를 지냈으며, 시호는 충절공(忠節公)

이다.

- 최이식(崔以湜) 군수를 지냈다.
- 조숙기(曹淑沂) 갑오년에 식년시에 합격하고 관찰사를 지냈다.
- 하기서(河起犀) 문과에 합격하였다.
- 이의형(李義亨) 정유년(성종 8, 1477) 식년시에 병과에 올라 한림을 지냈다.
- 이지형(李智亨) 정유년 식년시에 병과에 합격하고 대사간을 지냈다.
- 강구손(姜龜孫) 기해년에 합격하고 우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숙헌공(肅憲公)이다.
- 하 윤(河潤) 정유년에 생원에 합격하고 계묘년(성종 14, 1483)에 방에 올랐으며 지평을 지냈다. 송곡리(松谷里)에 살았다.
- 강자어(姜子魚) 진사로 계묘년 식년시에 합격하고 현감을 지냈다.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 혼(姜渾) 계묘년에 생원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병오년 식년시에 병과에 합격하여 좌찬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이다. 반동산에 살았다.
- 양 하(梁賀) 생원으로 정미년에 삼등으로 등과하고 현감을 지냈다. 사월(沙月)에 살았다.
- 류순정(柳順汀) 정미년에 합격했고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定公)이다.
- 이충걸(李忠傑) 대사헌을 지냈다. 내평(內坪)에 살았다.
- 정주신(鄭舟臣) 홍치(弘治) 신유년(연산군 7, 1501)에 합격하여 박사를 지냈다.
- 성안중(成安重) 성화(成化) 기축년(예종 1, 1469)에 생원의 합격하고 홍치(弘治) 임자년(성종 23, 1492)에 병과에 올라 교리를 지냈다.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어득강(魚得江) 홍치(弘治) 임자년에 진사가 되고 병진년에 병과에 올라 대사간을 지냈다.
- 윤효빙(尹孝聘) 임자년에 진사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생원도 함께 합격하였더니 병진년 식년시에 병과에 올라 수찬을 지냈다. 신당리(新塘里)에 살았다.
- 이창윤(李昌胤) 생원으로 임자년에 별시에서 병과에 합격하고 장령을 지냈다.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정 온(鄭 蘊) 판서를 지냈다.
- 강 천(姜 闡) 목사를 지냈다.
- 강 관(姜 瑄) 생원으로 정덕(正德) 경오년(중종 5, 1510) 식년시에서 병과에 합격하고 한림을 지냈으며, 금산(琴山)에 살았다.
- 정 호(鄭 浩) 현감을 지냈다.
- 강 현(姜 顯) 진사가 된 후 기축년(중종 12, 1517)에 별시에서 삼등으로 합격하고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혜평공(惠平公)이다.
- 이 령(李 翎) 진사가 되어 기묘년(중종 14, 1519)에 현량과에서 삼등으로 합격하여 수찬을 지냈다.
- 진 식(陳 寔) 기묘년에 합격하여 제학을 지냈다.
- 강 연(姜 演) 신미년에 합격하여 사예를 지냈다.
- 손 약(孫 爚) 신미년에 합격하여 좌랑을 지냈다.
- 강 전(姜 銓) 생원으로 가정(嘉靖) 임오년(중종 17, 1522)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지평을 지냈으며 평거리(平居里)에 살았다.
- 이 룬(李 綸) 병술년에 합격하여 이조참의를 지냈다.
- 강응태(姜應台) 임자년에 별시에서 병과에 합격하여 수찬을 지냈으며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이 정(李 楨) 병신년에 별과에 합격하여 부제학을 지냈다.
- 류응두(柳應斗) 경자년 사마에 합격하고 병오년에 식년시의 병과에 합격하여 군수를 지냈으며 원당리(元堂里)에 살았다.
- 한여철(韓汝哲) 계묘년에 생원이 되고 임자년에 별시에서 을과에 올라 사성을 지냈으며 정수개(丁樹介)에 살았다.
- 박춘세(朴春歲) 진사로서 기유년에 식년시에서 병과에 올라 군수를 지냈고 비라곡(非羅谷)에 살았다.
- 이준민(李俊民) 을유년에 식년시에서 병과에 올랐고 병진년에는 증시에 합격하여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효익공(孝翼公)인데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하진보(河晋寶) 을묘년에 식년시에서 병과에 합격하여 사간을 지냈고 사죽리(沙竹里)에 살았다.
- 강 원(姜 源) 계묘년에 생원이 되고 병진년에 을과에 올라 목사를 지냈으며 원당리(元堂里)에 살았다.
- 정 밀(鄭 密) 계묘년에 진사가 되고 무오년에 식년시에서 병과에 올라 첨정을 지냈으며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김대명(金大鳴) 무오년에 생원이 되고 융경(隆慶) 경오년(선조 3, 1570)에 갑과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군수를 지냈으며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하수일(河受一) 기축년에 생원이되고 만력(萬曆) 신묘년(선조 24, 1591)에 병과에서 합격하여 도사를 지냈으며 수곡리(水谷里)에 살았다.
- 손경인(孫景仁) 자는 사원(士元)이요, 밀양인이니 문과에 올라 습독을 지냈다.
- 강 희(姜 禧) 문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으며 진양인(晉陽人)이다.
- 손 형(孫 炯) 습독을 지냈고 밀양인이다.
- 하준해(河遵海) 찰방을 지냈다.
- 손경례(孫景禮) 자는 사형(士亨)이요 밀양인이니 직장을 지냈다.
- 손 흡(孫 翁) 밀양인이니 습독을 지냈다.
- 강예필(姜禮弼) 진양인이니 좌윤을 지냈다.
- 강 삼(姜 滲) 진양인이니 정랑을 지냈다.
- 김대우(金大祐) 찰방을 지냈다.
- 이연손(李璉孫) 감찰을 지냈다.
- 정주한(鄭周翰) 자는 보경(輔卿)이요 갑진년에 나서 승정(崇禎) 무진년(인조 6, 1628)에 문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며 진양인이다.
- 하 진(河 潛) 자는 진백(晋伯)이요, 정유년에 나서 승정(崇禎) 계유년(인조11, 1633)에 문과에 올라 집의를 지냈다. 호는 태계(台溪)요 종천원(宗川院)에 모셨는데 진주인이다.
- 정복일(鄭復一) 자는 성일(誠逸)이요 숙종 신미년(숙종 17, 1691)에 문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며 진주인이다.

- 민 원(閔 愿) 직장을 지냈고 호는 여인(興人)이다.
- 강상주(姜相周) 자는 문경(文卿)이요 숙종 을묘년에 문과에 올라 군수를 지냈고, 신묘년에 났으며 진주인이다.
- 정몽해(鄭夢海) 자는 대관(大觀)이요, 신축년에 나서 숙종 을묘년에 문과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며 진주인이다.
- 이덕화(李德華) 자는 여중(汝重)이요, 갑진년에 났다. 숙종 을묘년에 문과에 올라 군수를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남 엽(南 曄) 자는 회중(晦仲)이요, 헌납을 지냈으니 의령인이다.
- 손명래(孫命來) 자는 현승(顯承)이요, 갑진년에 태어나서 숙종 경인년에 문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며 밀양인이다.
- 강재후(姜載後) 자는 성수(聖叟)요, 기축년에 태어나서 숙종 임진년에 문과에 올라 좌랑을 지냈으며 진주인이다.
- 정태주(鄭泰周) 자는 중환(仲桓)이요 정묘년에 태어나서 숙종 정유년에 과에 올라 군수를 지냈다. 진주인이다.
- 남 담(南 霽) 자는 쾌연(沛然)이니 습독을 지냈고 의령인이다.
- 이세후(李世壘) 자는 재숙(載淑)이요, 신묘년에 태어나서 영종 병오년에 과에 올라 정랑을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허 심(許 鐔) 자는 광보(光甫)요, 기유년에 태어나서 영종 계축년에 과에 올라 주서를 지냈으니 김해인이다.
- 하필청(河必淸) 자는 천기(千期)요, 신사년에 태어나서 영종 무오년에 문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이갑룡(李甲龍) 자는 우린(于鱗)이요, 갑인년에 태어나서 영종 임오년에 문과에 올라 장령을 지냈으니 성주인이다.
- 이지용(李志容) 자는 자옥(子玉)이니 계유년에 태어나서 정묘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장령을 지냈으며 성주인이다.
- 강학준(姜學濬) 자는 성익(聖翊)이요, 경인년에 태어나서 정묘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장령을 지냈으며 진주인이다.

- 이현묵(李賢默) 자는 내경(內卿)이요, 임진년에 태어나서 순묘 정묘년에 문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는데 성주인이다.
- 조희룡(趙熙龍) 자는 화숙(和淑)이요, 경자년에 태어나서 순묘 갑술년에 문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는데 함안인이다.
- 강재면(姜在勉) 자는 보여(輔汝)이요, 신축년에 태어나서 순묘 갑술년에 문과에 올라 현감을 지냈다. 진주인이다.
- 이우백(李佑伯) 자는 주언(周彦)이요, 병진년에 태어나서 순묘 임오년에 문과에 올라 집의를 지냈으며 성주인이다.
- 박재호(朴在皐) 자는 용서(龍瑞)요, 순묘 임오년에 문과에 올라 집의를 지냈으니 밀양인이다.
- 조준효(趙準孝) 자는 성원(性源)이요, 무신년에 태어나서 순묘 무자년에 문과에 올라 지평을 지냈으니 함안인이다.
- 정광훈(鄭匡勳) 자는 여건(汝健)이요, 임자년에 태어나서 헌묘 정유년에 문과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하범대(河範大) 자는 호여(浩汝)니 갑술년에 태어나서 헌종 정유년에 문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고 진주인이다.
- 이명윤(李命允) 자는 치백(致伯)이요, 갑자년에 태어나서 헌종 무술년에 문과에 올라 교리를 지냈으니 전주인이다.
- 박공진(朴公鎭) 자는 주중(周仲)이요, 병인년에 태어나서 헌종 계묘년에 문과에 올라 도정을 지냈으니 밀양인이다.
- 정지선(鄭止善) 자는 주노(周老)요, 기유년에 태어나서 헌종 병오년에 문과에 올라 감찰을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강영규(姜永奎) 자는 찬오(燦五)요 계미년에 태어나서 철종 임자년에 문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이유신(李有臣) 자는 예경(禮卿)이요, 갑신년에 태어나서 철종 무오년에 문과에 올라 헌납을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최 용(崔 溶) 자는 기연(氣然)이니 고종 을축년에 과에 올라 헌납을 지냈으니 전주

인이다.

- 김태화(金兌和) 자는 달원(達遠)이요, 무진년에 태어나서 정유년에 과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니 금산인이다.
- 김후중(金垆重) 자는 영옥(榮玉)이요, 계유년에 태어나서 기유년에 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니 금산인이다.
- 최강진(崔岡鎭) 순조 무자년에 과에 올라 찰방을 지냈으니 전주인이다.
- 박태언(朴泰彦) 자는 대언(大彦)이니 경진년에 태어나서 갑자년에 과에 올라 좌랑을 지냈으며 밀양인이다.
- 김재관(金在瓘) 자는 문길(文吉)이니 기묘년에 과에 올라 참의를 지냈다. 김해인이다.
- 김구영(金龜永) 자는 석하(錫夏)니 정유년에 나서 고종 을축년에 과에 올라 주서를 지냈으며 의성인이다.
- 강성희(姜聖喜) 자는 자진(子眞)이요, 정해년에 태어나서 고종 계유년에 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정도인(鄭度仁) 자는 순거(舜舉)요 경자년에 과에 올라 전적을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이택신(李宅臣) 자는 사인(士仁)이요, 을유년에 나서 고종 병자년에 과에 올라 정언을 지냈으니 성주인이다.
- 양혁수(梁奕洙) 자는 자산(子山)이니 정해년에 태어나서 고종 기묘년에 과에 올라 전적을 지냈으며 남원인이다.
- 변응수(卞應洙) 자는 여계(汝溪)요, 병오년에 태어났다. 고종 경진년에 증광과에 올라 지평을 지냈으니 초계인이다.
- 구연호(具然鎬) 자는 봉규(奉圭)니 신유년에 태어나서 고종 계미년에 과에 올라 시독을 지냈으니 능성인이다.
- 정면석(鄭冕錫) 자는 성익(聖益)이요, 경술년에 태어나서 고종 경인년에 과에 올라 승지를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정 윤(鄭潤) 자는 형중(亨重)이요, 을유년에 태어나서 고종 신묘년에 과에 올라 주서를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정홍석(鄭鴻錫) 자는 윤조(允祚)요 을사년에 태어나서 고종 갑오년에 과에 올라 비서랑을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황보연(黃輔淵) 비서랑을 지냈다.

무과(武科)

- 강승언(姜承顏) 경진년에 합격하였다.
- 하경복(河敬復) 좌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양정공(襄靖公)이며 이하리(籬下里)에 살았다.
- 정세창(鄭世昌) 현감을 지냈고 진성(晋城)에 살았다.
- 하 순(河 恂) 현령을 지냈고 진성(晋城)에 살았다.
- 하 한(河 漢) 동지중추를 지냈고 시호는 강장공(剛莊公)이다.
- 강숙량(姜淑良)
- 윤 계(尹 繼) 경진년에 합격하여 습독을 지냈고 신당리(新塘里)에 살았다.
- 박흥문(朴興文) 경신년에 합격하여 첨사를 지냈다.
- 하숙부(河叔溥)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경절공(敬節公)이다.
- 하우치(河禹治) 목사를 지냈다.
- 강세호(姜世豪) 부사를 지냈다.
- 이 순(李 恂) 첨정을 지냈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인걸(鄭仁傑) 공생을 지냈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상문(姜尙文) 부사를 지냈고 동곡(桐谷)에 살았다.
- 이 규(李 奎) 참봉을 지냈고 동곡(桐谷)에 살았다.
- 김순제(金舜悌) 병진년에 과거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며 백곡(柏谷)에 살았다.
- 손 진(孫 瞋) 장원으로 합격하여 판관을 지냈으며 이하리(籬下里)에 살았다.
- 손 추(孫 樞) 우후를 지냈고 운곡(雲谷)에 살았다.
- 이 종(李 琮) 주부를 지냈고 운곡(雲谷)에 살았다.

- 허 혼(許 混) 병사를 지냈고 가귀곡(佳貴谷)에 살았다.
- 이인증(李仁增) 현감을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하지해(河之海) 축곡(楸谷)에 살았다.
- 이공형(李公衡) 평거(平居)에 살았다.
- 정 반(鄭 班) 평거(平居)에 살았다.
- 정은부(鄭殷富) 수사를 지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조윤손(曹潤孫) 판서를 지냈고 송곡(松谷)에 살았다.
- 정산하(鄭山河) 목사를 지냈고 소남(召南)에 살았다.
- 정 관(鄭 寬) 현감을 지냈다.
- 정산노(鄭山老)
- 최 윤(崔 崙) 성화(成化) 임진년(성종 3, 1473)에 별과에 합격하였다.
- 하계지(河繼支) 현령을 지냈다.
- 김계원(金繼元) 경태(景泰) 6년(세조 1, 1455)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동래절제사를 지냈다.
- 김계정(金繼貞) 성화(成化) 을미년(성종 6, 1475)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절도사를 지냈으며 대곡에 살았다.
- 박윤리(朴允利) 현감을 지냈고 옥동(玉洞)에 살았다.
- 하 상(河 祥) 훈련원 습독을 지냈다.
- 하 정(河 靜) 현감을 지냈고 차평(車平)에 살았다.
- 박자주(朴自胄) 병진년에 과거에 올라 참군을 지냈고 축곡(楸谷)에 살았다.
- 김 흠(金 欽) 현감을 지냈다.
- 이희영(李喜榮) 판관을 지냈고 내평(內平)에 살았다.
- 강덕룡(姜德龍) 계미년에 합격하여 현감을 지냈다.
- 강 로(姜 潞) 거제현령을 지냈고 상사리(上沙里)에 살았다.
- 김후세(金厚世) 만호를 지냈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만생(鄭晩生) 군수를 지냈다.
- 하홍개(河弘溉) 계미년에 방(榜)에 올랐다.

- 손응서(孫應瑞) 만호를 지냈고 갑자년에 방(榜)에 올랐다.
- 정수익(鄭受益) 선전관을 지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이 상(李 祥) 계미년에 방(榜)에 올랐다.
- 손승의(孫承義) 병술년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 정국상(鄭國祥) 계미년에 방(榜)에 들었다.
- 허국주(許國柱) 우후를 지냈고 용봉(龍奉)에 살았다.
- 성천부(成天富) 훈련부정을 지냈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정득성(鄭得成)
- 정존극(鄭存極) 만호를 지냈다.
- 정필옥(鄭弼沃)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 정국희(鄭國禧) 갑오년에 합격하였다.
- 강학안(姜學顔) 갑오년에 방(榜)에 들었다.
- 정계종(鄭繼宗) 갑오년에 방(榜)에 들었다.
- 김백일(金百鎰) 병오년에 방(榜)에 들었다.
- 조 희(曹 禧) 기해년에 합격하여 만호를 지냈다.
- 정구용(鄭九容) 계묘년에 합격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 정희남(鄭希男) 훈련관관을 지냈고 원종공신이었으며 상사리(上沙里)에 살았다.
- 강웅일(姜雄一) 임인년에 합격하여 만호를 지냈다.
- 민여성(閔汝成) 해과(海科)에 올랐다.
- 조차정(曹次疇) 만호를 지냈고 덕산(德山)에 살았다.
- 최유원(崔有源) 문과에 합격하였다.
- 박영현(朴永賢)
- 류만영(柳萬榮) 첨지를 지냈고 종화(宗化)에 살았다.
- 이윤경(李允卿) 임자년에 합격하였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최 설(崔 潑) 동지를 지냈고 종화(宗化)에 살았다.
- 공인택(孔仁宅) 임자년에 합격하여 만호를 지냈다.
- 이경생(李景生) 해과(海科)에 급제하였다.

- 공인숙(孔仁淑) 만호를 지냈으며 악양(岳陽)에 살았다.
- 경계남(鄭繼男) 해과에 급제하였다.
- 한몽룡(韓夢龍) 계묘년에 정시(廷試)에서 합격하여 통정으로 군수를 지냈다.
- 강경훈(姜景勳) 해과에 올라 사과를 지냈다.
- 허 감(許 珪) 계묘년에 합격하여 관관을 지냈다.
- 손응정(孫應楨) 해과(海科)에 합격하였다.
- 하경호(河慶灝) 무오년에 합격하였다.
- 정인서(鄭麟瑞) 계묘년에 합격하였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전몽갑(全夢甲) 설매리(雪梅里)에 살았다.
- 주인달(朱仁達) 축곡(柵谷)에 살았다.
- 하혼발(河混發) 만호를 지냈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하산발(河山發) 만호를 지냈으며 주내(州內)에 살았다.
- 최산해(崔山海) 마동(馬洞)에 살았다.
- 강대생(姜大生) 이하(籬下)에 살았다.
- 강 술(姜 述) 축곡(柵谷)에 살았다.
- 박연복(朴延福) 성내(城內)에 살았다.
- 장충립(張忠立) 진성(晉城)에 살았다.
- 정 흥(鄭 興) 상사리(上沙里)에 살았다.
- 윤 척(尹 倜) 금산(琴山)에 살았다.
- 이종립(李宗立) 금산(琴山)에 살았다.
- 김응수(金應壽)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장대업(張大業) 사죽(沙竹)에 살았다.
- 정흥립(鄭興立) 반성(班城)에 살았다.
- 이석과(李碩果) 이하(籬下)에 살았다.
- 최군세(崔君世)
- 차득로(車得路) 부화곡(夫火谷)에 살았다.
- 정지아(鄭之雅) 주내(州內)에 살았다.

- 석 지(石 智) 대평(大坪)에 살았다.
- 강학회(姜學會) 반성(班城)에 살았다.
- 정달현(鄭達賢) 금산(琴山)에 살았다.
- 강원립(姜元立)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 락(鄭 洛) 금산(琴山)에 살았다.
- 김덕립(金德立)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장 신(張 慎) 사죽(沙竹)에 살았다.
- 정복초(鄭復初) 송곡(松谷)에 살았다.
- 정득개(鄭得凱) 대평(大坪)에 살았다.
- 강영립(姜榮立) 북방(北坊)에 살았다.
- 강효발(姜孝發) 소촌(召村)에 살았다.
- 안 치(安 治) 대야천(大也川)에 살았다.
- 전립세(田立稅) 진성(晋城)에 살았다.
- 정 순(鄭 舜) 대안(大安)에 살았다.
- 강응립(姜應立) 대안(大安)에 살았다.
- 강인성(姜仁成) 용봉(龍奉)에 살았다.
- 강몽택(姜夢澤) 소촌(巢村)에 살았다.
- 강선운(姜善胤) 금산(琴山)에 살았다.
- 김대익(金大益) 진성(晋城)에 살았다.
- 이유신(李維新)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남무생(南武生) 대곡(大谷)에 살았다.
- 조천남(曹天男) 백곡(柏谷)에 살았다.
- 황응삼(黃應參) 사월(沙月)에 살았다.
- 강홍일(姜弘一)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정호일(鄭豪一) 대안(大安)에 살았다.
- 박세인(朴世仁) 영이곡(永耳谷)에 살았다.
- 정명철(鄭明哲) 용봉(龍奉)에 살았다.

- 이 수(李 樹) 조동(槽洞)에 살았다.
- 전대신(全大信)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강득춘(姜得春) 수곡(水谷)에 살았다.
- 최 호(崔 滙) 장원으로 합격하여 현감을 지냈으며 가서(加西)에 살았다.
- 하계인(河繼仁) 장원으로 합격하고 성산(省山)에 살았다.
- 윤 홍(尹 弘) 금산(琴山)에 살았다.
- 김명진(金鳴震) 종화(宗化)에 살았다.
- 강인호(姜仁虎) 대천(大川)에 살았다.
- 한몽린(韓夢麟) 반성(班城)에 살았다.
- 서 홍(徐 弘) 지공(枝貢)에 살았다.
- 손상생(孫尙生) 사월(沙月)에 살았다.
- 강수달(姜遂達) 종화(宗化)에 살았다.
- 이차일(李次一)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최흥운(崔興雲) 양산(陽山)에 살았다.
- 이협일(李協一)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윤홍의(尹弘毅) 송곡(松谷)에 살았다.
- 박계상(朴繼常) 대야천(大也川)에 살았다.
- 이대기(李大器) 훈정을 지냈고 이하(籬下)에 살았다.
- 정호신(鄭虎臣) 석곡(石谷)에 살았다.
- 김처량(金處良)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 전(姜 慎) 침지를 지냈고 내평(內平)에 살았다.
- 권 룬(權 綸) 마동(馬洞)에 살았다.
- 강영일(姜英一) 신묘년에 합격하였고 생공을 지냈다.
- 허동립(許東翌) 부총관을 지냈고 용봉(龍奉)에 살았다.
- 강득로(姜得躒) 송곡(松谷)에 살았다.
- 조선도(趙善道) 묵곡(默谷)에 살았다.
- 정 적(鄭 勳) 금산(琴山)에 살았다.

- 강 승(姜昇) 송곡(松谷)에 살았다.
- 최기변(崔琦拵) 현감을 지냈으니 전주인이요 인천(仁川)에 살았다.
- 최기준(崔琦準) 부사를 지냈으니 전주인이요 인천(仁川)에 살았다.
- 하응구(河應龜) 부장을 지냈고 선무원종이등훈에 기록되었다.
- 하천오(河天鰲) 수문장을 지냈고 선무원종훈에 기록되었다.
- 황계량(黃桂亮) 통정이니 창원인이요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최기연(崔琦衍) 판관을 지냈고 전주인이며 인천(仁川)에 살았다.
- 최기필(崔琦彌) 판관을 지냈고 전주인이며 인천(仁川)에 살았다.
- 정희남(鄭喜男) 가곡(佳谷)에 살았다.
- 홍 상(洪祥) 조동(槽洞)에 살았다.
- 강 승(姜昇) 진주인이니 송곡(松谷)에 살았다.
- 손 위(孫緯) 원계(元溪)에 살았다. 밀양인이다.
- 정계인(鄭繼仁) 충무위의 부사정을 지냈다.
- 최 탁(崔濯) 익찬을 지냈고 좌승지를 추증하였으며 전주인이다.
- 하경호(河慶灝) 선전을 지냈고 진주인이며 운문(雲門)에 살았다.
- 강득룡(姜得龍) 봉사를 지냈으니 진양인이다.
- 이덕민(李德敏) 현감을 지냈고 오산(吾山)에 살았다.
- 권경중(權輕重) 주부를 지냈고 안동인이니 진성(晋城)에 살았다.
- 서덕립(徐德立) 영이곡(永耳谷)에 살았다.
- 허중립(許仲豈) 현감을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정이란(鄭以蘭) 가수개(可樹介)에 살았다.
- 최준명(崔峻明) 대곡(大谷)에 살았다.
- 김응발(金應發) 미천(美川)에 살았다.
- 성수영(成洙永) 우후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신흥노(申弘櫓) 금산(琴山)에 살았다.
- 최 기(崔棋) 정촌(鼎村)에 살았다.
- 최산준(崔山峻) 감찰을 지냈고 영이곡(永耳谷)에 살았다.

- 신흥도(申弘樺) 첨사를 지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강석명(姜碩明) 주내(州內)에 살았다.
- 하 항(河 恒) 사정을 지냈고 월횡(月橫)에 살았다.
- 정만추(鄭萬推) 부사정을 지냈다.
- 이 두(李 杓) 현감을 지냈고 진성(晋城)에 살았다.
- 이 환(李 桓) 진성(晋城)에 살았다.
- 양 역(梁 巖) 영장을 지냈고 남원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강충달(姜忠達) 만호를 지냈고 가수개(可樹介)에 살았다.
- 정진영(鄭震英)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정사정(鄭思貞) 지공(枝貢)에 살았다.
- 소무산(蘇武山)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정원길(鄭元吉)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정운태(鄭云泰)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지척(鄭之陟)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국방(姜國芳)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문성흠(文聖欽) 을사년에 별시에 올랐고 남평인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이후로(李後老) 현령을 지냈으니 오산(吾山)에 살았다.
- 유선달(劉善達) 축곡(楸谷)에 살았다.
- 류 희(柳 禧) 을사년에 별시에 올랐고 문화인이니 송곡(松谷)에 살았다.
- 김덕기(金德器) 이하(籬下)에 살았다.
- 정시홍(鄭詩弘) 백곡(柏谷)에 살았다.
- 강원지(姜元之)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 숙(姜 塾) 성을산(省乙山)에 살았다.
- 신 담(申 潭) 금산(琴山)에 살았다.
- 서유전(徐有湍) 주내(州內)에 살았다.
- 신흥요(申弘橈) 금산(琴山)에 살았다.
- 조익창(曹翼昌) 용봉(龍奉)에 살았다.

- 최유렵(崔攸獵) 진성(晋城)에 살았다.
- 우무발(禹武發) 축곡(柵谷)에 살았다.
- 박상룡(朴相龍) 오위장을 지냈고 밀양인이다.
- 하진룡(河震龍) 군수를 지냈고 진양인이니 운문(雲門)에 살았다.
- 하현룡(河見龍) 주부를 지냈고 운문(雲門)에 살았다.
- 강중래(姜重來) 첨정을 지냈고 진주인이다
- 허 익(許 楹) 수(壽)로 가선(嘉善)에 올랐고 호군을 지냈으며 김해인이니 대곡(大谷)에 살았다.
- 성문영(成汶永) 만호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성 보(成 槽) 선전을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성타영(成沱永) 부사과를 지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성 단(成 檀) 과의교위를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성 진(成 楨) 과의교위를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정구령(鄭九齡) 진성(晋城)에 살았다.
- 정억령(鄭億齡) 진성(晋城)에 살았다.
- 허 성(許 晟) 부사를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리(勝山里)에 살았다.
- 백서한(白瑞翰) 병사를 지냈고 수원인이니 배춘(培春)에 살았다.
- 최 혼(崔 渾) 영장을 지냈고 전주인이니 인천(仁川)에 살았다.
- 최 수(崔 洙) 사포서를 별제를 지냈고 인천(仁川)에 살았다.
- 한익세(韓翼世) 수사를 지냈고 정수개(丁樹介)에 살았다.
- 한영세(韓榮世) 현감을 지냈고 청주인이니 정수(丁樹)에 살았다.
- 한필세(韓弼世) 주부를 지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박창윤(朴昌潤) 수사를 지냈고 태안인이니 내동(奈洞)에 살았다.
- 이 명(李 堇) 사과를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이 완(李 莞) 훈련봉사를 지냈다.
- 이형규(李亨奎)
- 한태세(韓泰世) 청주인이니 정수(丁樹)에 살았다.

- 정 수(鄭 燧)
- 류세장(柳世章) 현감을 지냈고 문화인이니 송곡(松谷)에 살았다.
- 하계종(河繼淙) 부호군을 지냈고 본당(本塘)에 살았다.
- 정린서(鄭麟瑞) 진양인이다.
- 정 흥(鄭 興) 진양인이다.
- 정유후(鄭有後)
- 정유형(鄭有衡) 진주인이다.
- 하홍업(河弘業) 대호군을 지냈고 신대(申大)에 살았다.
- 정사주(鄭師周) 훈련첨정을 지냈고 진주인이다.
- 하대유(河大猷) 선전을 지냈고 부호군에 이르렀으니 신대(申大)에 살았다.
- 문두징(文斗徵) 남평인이다.
- 한시정(韓時挺) 사과를 지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한시상(韓時相) 사과를 지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정정경(鄭廷慶) 방어사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대평(大坪)에 살았다.
- 하덕휴(河德休) 부사를 지내고 수(壽)로써 자헌대부(資憲大夫)동추(同樞)에 올랐으며 안계(安溪)에 살았다.
- 하덕원(河德元) 선전관을 지냈고 안계(安溪)에 살았다.
- 정팔영(鄭八英) 호군을 지냈고 초계인이니 백곡(柏谷)에 살았다.
- 허 선(許 璿) 사과를 지냈고 김해인이다.
- 박세규(朴世規) 사월(沙月)에 살았다.
- 박세익(朴世翊) 사월(沙月)에 살았다.
- 이 울(李 蔚) 마진(麻津)에 살았다.
- 허 수(許 綬) 사과를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강순린(姜舜隣)
- 김만겸(金萬兼) 선전관을 지냈다.
- 하응원(河應遠) 단동(丹洞)에 살았다.
- 하응성(河應聖) 선전관을 지냈고 안계(安溪)에 살았다.

- 하명상(河命祥) 현감을 지냈고 운문(雲門)에 살았다.
- 하명일(河命一) 현감을 거쳐 오위장에 이르렀으며 운문(雲門)에 살았다.
- 이형규(李亨奎) 사과를 지냈고 청원리(淸源里)에 살았다.
- 이한익(李漢翼) 현감을 지냈고 재령인이며 마진(麻津)에 살았다.
- 이태망(李台望) 현감을 지냈다.
- 한범석(韓範錫) 병사를 거쳐 삼도통어사에 이르렀으며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성동일(成東一) 군수를 거쳐 도호부사에 이르렀으며 창녕인이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이명시(李命時) 곤양군수를 지냈으며 수곡(水谷)에 살았다.
- 허 당(許 璫)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박지봉(朴旨鳳) 호군을 지냈고 태안인이니 내동(奈洞)에 살았다.
- 한우석(韓宇錫) 우후를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허 형(許 涇) 부사를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백사문(白師文) 현감을 지냈고 수원인이니 배춘(培春)에 살았다.
- 문두형(文斗衡) 오위장을 지냈고 남평인이니 관방(冠坊)에 살았다.
- 류하철(柳河喆) 현령을 지냈고 전주인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류주철(柳洙喆) 선전관을 지냈고 전주인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한응검(韓應儉) 부사를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정방채(鄭邦采) 절제사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환범(鄭煥範) 부위를 지냈고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택화(鄭宅和) 부사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정광일(鄭匡一) 현감 겸 영장을 지냈으며 가곡(佳谷)에 살았다.
- 허 길(許 焄) 부호군을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허 권(許 捲) 권관을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백익진(白翼鎭) 군수를 지냈고 수원인이며 배춘(培春)에 살았다.
- 백락일(白樂日)

- 백주범(白柱範)
- 백낙후(白樂後) 과의교위를 지냈다.
- 백희장(白熙章) 과의교위(果毅校尉)를 지냈고 배춘(培春)에 살았다.
- 구 준(具 垓) 군수를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리(勝山里)에 살았다.
- 이원신(李元臣) 군수를 지냈고 전주인이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박기상(朴驥祥) 사과를 지냈고 태안인이니 내동(奈洞)에 살았다.
- 정환승(鄭煥升) 수군절도사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동기(鄭東基) 도호부사를 지냈고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준기(鄭準基) 내금위장을 지냈고 청수(淸水)에 살았다.
- 강사운(姜師運) 첨추를 지냈고 진주인이니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이 명(李 命) 현감을 지냈고 인천(仁川)에 살았다.
- 최명악(崔明岳) 사과를 지냈고 인천(仁川)에 살았다.
- 정대원(鄭大元)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이 해(李 楷) 군수를 지냈고 전의인(全義人)이다.
- 정봉헌(鄭鳳賢) 현감을 지냈고 해주인이니 용암(龍岩)에 살았다.
- 박동실(朴東實) 오위장을 지냈고 밀양인이다.
- 백창진(白昌鎭) 주부와 우후를 지냈고 배춘(培春)에 살았다.
- 하길현(河吉顯) 운문(雲門)에 살았다.
- 정선의(鄭善毅) 영장을 지냈고 해주인이니 용암(龍岩)에 살았다.
- 구영희(具滌喜) 부사를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정환효(鄭煥堯) 군수를 지냈으며 가선(嘉善)이었으며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용기(鄭龍基) 사과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인현(鄭麟賢) 해주인이니 용암(龍岩)에 살았다.
- 한신검(韓信儉) 청주인이니 두양(斗陽)에 살았다.
- 구동찬(具東贊) 전력부위를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박정진(朴正鎭) 군수를 지냈고 밀양인이니 사월(沙月)에 살았다.

- 허 소(許 炤)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임홍엽(林洪擘) 군수를 지냈다.
- 한계철(韓啓轍) 방어사를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최진태(崔震泰) 전주인이니 인천(仁川)에 살았다.
- 정환교(鄭煥教) 수문장을 지냈고 가곡(佳谷)에 살았다.
- 허 철(許 喆) 부사과를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한계풍(韓啓豊) 영장을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강경환(姜景煥) 수문장을 지냈고 영현(永縣)에 살았다.
- 조석진(曹錫璿) 첨절제사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조경명(曹敬明) 부사과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윤후경(尹後慶) 첨정을 지냈고 파평인이니 신당(新塘)에 살았다.
- 윤 영(尹 瑛) 첨지를 지냈고 파평인이다.
- 윤흥방(尹興邦) 사복을 지냈고 파평인이다.
- 허 원(許 璦) 사과를 지냈고 김해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조기룡(曹起龍) 선전관을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조석신(曹錫臣) 부사과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조석완(曹錫玩) 선전관을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정두인(鄭斗寅) 중군을 지냈고 진주인이다.
- 정광행(鄭光行)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용암(龍岩)에 살았다.
- 정재인(鄭再仁) 순장을 지냈고 초계인이니 청암(淸岩)에 살았다.
- 구원희(具元喜) 선전관을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류성길(柳誠吉) 경력을 지냈고 문화인이니 명홍정(冥鴻亭)에 살았다.
- 유진협(柳震浹) 문화인이니 명홍정(冥鴻亭)에 살았다.
- 한치림(韓致林) 승지와 수사를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한홍구(韓弘九) 권관을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한홍정(韓弘定) 선전관을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강봉팔(姜鳳八) 사과를 지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이희승(李熙崇) 사과를 지냈고 재령인이니 마진(麻津)에 살았다.
- 박영호(朴榮浩) 밀양인이니 사월(沙月)에 살았다.
- 하두명(河斗明) 사과를 지냈고 태동(台洞)에 살았다.
- 하상규(河相圭) 철종 갑인년에 무과에 올라 사과를 지냈고 월횡(月橫)에 살았다.
- 한진형(韓鎭衡) 첨정을 지냈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성경혁(成慶奕) 선전관을 지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정세기(鄭世基)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광복(鄭光福) 선전관을 지냈고 해주인이다.
- 정낙기(鄭洛基) 부호군을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한진행(韓鎭行) 가선(嘉善)이요 참령을 지냈으며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남경로(南慶老) 정종 계묘년에 과에 올라 중군을 지냈고 명석(鳴石)에 살았다.
- 한진충(韓鎭忠) 영장을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정영기(鄭瑛基) 사과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박순형(朴舜衡) 사과를 지냈고 태안인이다.
- 한진표(韓鎭杓) 사과를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한두원(韓斗源) 부장을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조진승(曹晉承) 참군을 지냈고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한규원(韓奎源) 사과를 지냈고 청주인이다.
- 정홍기(鄭弘基) 영장을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구창조(具彰祖) 사과를 지냈다.
- 하용표(河龍杓) 백곡에 살았다.
- 조태효(趙泰孝) 사과를 지냈고 함안인이니 소남(召南)에 살았다.
- 구승조(具升祖) 선전관을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구연학(具然學) 선전관을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류진필(柳震必) 의관을 지냈고 문화인이니 홍정(鴻亭)에 살았다.
- 이영기(李營基) 사과를 지냈고 재령인이니 마진(麻津)에 살았다.
- 정규석(鄭圭錫) 사과를 거쳐 부사에 이르렀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한승원(韓承源) 사과를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양주한(梁柱漢) 우후를 지냈고 남원인이니 양구(良邱)에 살았다.
- 성우근(成宇根) 부사과를 지냈고 창녕인이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이현창(李鉉昌) 사과를 지냈고 재령인이니 마진(麻津)에 살았다.
- 조영승(曹永承) 참군을 지냈다.
- 한국원(韓國源) 사과를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양구환(梁龜煥) 부사과를 지냈고 남원인이니 양구(良邱)에 살았다.
- 이정섭(李正燮) 부사과를 지냈고 재령인이니 용동(龍洞)에 살았다.
- 양익환(梁益煥) 사과를 지냈고 남원인이니 양구(良邱)에 살았다.
- 이병철(李丙喆) 부사과를 지냈고 용동(龍洞)에 살았다.
- 양혁환(梁赫煥) 남원인이요 양구(良邱)에 살았다.
- 하종범(河琮範) 사과를 지냈다.
- 하계도(河啓圖) 사과를 지냈고 단동(丹洞)에 살았다.
- 하종원(河鍾源) 훈련침정를 지냈고 단동(丹洞)에 살았다.
- 한상원(韓商源) 시어를 지냈고 청주인이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이정기(李禎基) 사과를 지냈고 재령인이니 마진(麻津)에 살았다.
- 정덕룡(鄭德龍) 사과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기룡(鄭冀龍) 의관을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호룡(鄭浩龍) 시어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태룡(鄭泰龍) 사과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정규석(鄭奎錫)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중대(中臺)에 살았다.
- 백낙중(白樂鍾) 사과를 지냈고 수원인이니 배춘(培春)에 살았다.
- 구연행(具然行) 사과를 지냈고 능성인이니 승산(勝山)에 살았다.
- 정철교(鄭喆敎)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정병교(鄭柄敎)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정순교(鄭舜敎)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강성준(姜成俊) 수문장을 지냈고 봉동(鳳洞)에 살았다.

- 정홍석(鄭洪錫) 사과를 지냈고 해주인이니 가곡(佳谷)에 살았다.
- 박문환(朴文煥) 밀양인이다.
- 박기순(朴基淳) 수(壽)로 가선(嘉善)에 올랐고 밀양인이다.
- 정천석(鄭天錫) 호군을 지냈고 해주인이니 용동(龍洞)에 살았다.
- 조창래(趙昌來) 승훈랑을 지냈고 함안인이니 소남(召南)에 살았다.
- 정광구(鄭匡九) 해주인이니 용암(龍岩)에 살았다.
- 심상돈(沈相燾) 감찰을 지냈고 청송인이니 정수(丁樹)에 살았다.
- 변구연(卞龜淵) 초계인이니 양전(良田)에 살았다.
- 이기호(李琦鎬) 전주인이다.
- 성치봉(成致鳳) 사과를 지냈다.
- 조병하(曹秉廈) 창녕인이니 덕산(德山)에 살았다.
- 정창영(鄭昌榮) 진주인이다.
- 정희상(鄭禧祥) 사과를 지냈다.
- 정상환(鄭庠煥) 오위장을 지냈다.
- 정한용(鄭漢鎔) 사과를 지냈고 연일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윤순백(尹順伯) 군수를 지냈고 파평인이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심상각(沈相珪) 청송인이니 사과를 지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심상숙(沈相塾) 사과를 지냈고 청송인이니 청수(淸水)에 살았다.
- 한도원(韓道源) 청주인이니 운곡(雲谷)에 살았다.
- 김성진(金聲振) 첨추를 지냈고 미천(美川)에 살았다.
- 안기환(安奇煥) 사과를 지냈고 순흥인이니 연산(硯山)에 살았다.

사마(司馬)

- 하 연(河 演) 홍무(洪武) 병자년(태조 5, 1396)에 진사가 되었다.
- 강맹경(姜孟卿) 병오년에 진사가 되었다.

- 최자경(崔子涇) 진사에 올랐다.
- 정이신(鄭以信) 신(信)을 혹은 행(行)으로 쓴다. 생원에 올랐다.
- 정 추(鄭 樞) 생원에 올랐고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모수천(牟秀阡) 진사에 올랐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최경부(崔景溥) 영락(永樂) 계묘년(세종 5, 1423)에 생원이 되었고 조동(槽洞)에 살았다.
- 하지돈(河之澍) 진사가 되고 부사를 지냈다.
- 정종오(鄭從吾) 생원에 올라 현감을 지냈으며 금산(琴山)에 살았다.
- 하지명(河之溟) 생원에 올라 부정을 지냈으며 원당(元堂)에 살았다.
- 황 청(黃 淸) 병오년에 진사가 되었다.
- 이철석(李哲石) 생원이 되었다.
- 이명석(李明石) 생원이 되었다.
- 이문석(李文石) 생원이 되었다.
- 최수지(崔水智) 진사였고 현감을 지냈다.
- 이 미(李 美) 생원이다.
- 강희려(姜希呂) 진사였다.
- 모 순(牟 恂) 생원이다.
- 정종안(鄭從安) 생원이었고 양산(陽山)에 살았다.
- 정국교(鄭國僑) 진사였고 저동(猪洞)에 살았다.
- 김자은(金自闇) 진사였고 모곡(茅谷)에 살았다.
- 정량손(鄭良孫) 생원이다.
- 박자유(朴自粵) 생원이었고 교수를 지냈다.
- 배유문(裵有文) 생원이다.
- 조원구(趙元龜) 생원이었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김덕손(金德孫) 진사였다.
- 김례손(金禮孫) 생원이다.
- 박세근(朴世勤) 생원이다.

- 강 흘(姜 伋) 생원이다.
- 이인형(李仁亨) 정통(正統) 을해년(세조1, 1455)에 진사가 되었다.
- 강 기(姜 夔) 진사가 되어 참봉을 지냈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강조수(姜兆壽) 진사였고 송곡(松谷)에 살았다.
- 이 언(李 彦) 생원이다.
- 정 의(鄭 依) 진사였고 송곡(松谷)에 살았다.
- 강말손(姜末孫) 진사였고 북방(北坊)에 살았다.
- 한종유(韓從愈) 진사였고 사월(沙月)에 살았다.
- 하 순(河 淳) 영락(永樂) 갑오년(태종14, 1414)에 생원에 올라 현감을 지냈다.
- 정희소(鄭希韶) 경태(景泰) 신미년(문종1 1451)에 생원에 올랐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극성(姜克誠) 생원이었고 명진(溟珍)에 살았다.
- 김문생(金文生) 진사다.
- 조 찬(趙 瓚) 계유년에 진사에 올랐다.
- 양 수(梁 隨) 계유년에 진사가 되고 마동(馬洞)에 살았다.
- 이 자(李 穡) 생원이었고 교도를 지냈다.
- 하 현(河 現) 진사였고 직장을 지냈다.
- 정 색(鄭 穉) 생원이다.
- 정 수(鄭 壽) 진사였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이 핵(李 翮) 생원이요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정 통(鄭 統) 진사다.
- 이 분(李 玠) 진사였고 장락원의 판사를 지냈다.
- 이 령(李 翎) 진사였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최효문(崔孝文) 생원이다.
- 손수령(孫壽齡) 계유년에 진사에 올랐고 이하(籬下)에 살았다.
- 이의형(李義亨) 성화(成化) 을유년(세조 2, 1465)에 진사에 올랐다.
- 손 창(孫 昌) 을유년에 진사에 올랐다.

- 성안중(成安重) 기축년에 생원이 되었다.
- 하응천(河應千) 진사니 신묘년에 방에 올랐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효문(河效文) 진사다.
- 정 참(鄭 參) 생원이다.
- 최후손(崔厚孫) 진사다.
- 이례형(李禮亨) 진사였고 통예원 인의를 지냈다.
- 강계손(姜繼孫) 생원이었고 성태(省台)에 살았다.
- 하 기(河 己) 갑오년에 생원이 되었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공계문(孔繼文) 생원이니 금산(琴山)에 살았다.
- 강 전(姜 瑱) 생원이니 금산(琴山)에 살았다.
- 정세정(鄭世程) 진사였다.
- 강원범(姜元範) 갑오년에 생원, 진사를 함께 마쳤고, 별좌를 지냈으며(東山)에 살았다.
- 조지서(趙之瑞) 갑오년에 생원에 올랐다.
- 하보용(河保溶) 진사였다.
- 최영견(崔永甄) 진사였다.
- 강예범(姜禮範) 생원이니 동산(東山)에 살았다.
- 하보완(河保浣) 생원이다.
- 하 형(河 滢) 진사니 현감을 지냈다.
- 강신범(姜信範) 생원이다.
- 김석주(金碩柱) 진사다.
- 방 루(方 崙) 진사니 정수(丁樹)에 살았다.
- 하보순(河保淳) 생원이다.
- 신세광(申世洸) 생원이니 조동(槽洞)에 살았다.
- 정원전(鄭元悛) 경오년에 생원에 올랐고 전력부위를 지냈다.
- 정 기(鄭 記) 가정(嘉靖) 신축년(중종36, 1514)에 진사가 되고 참봉을 지냈다.
- 손 석(孫 晳) 생원이니 이하(籬下)에 살았다.

- 손 간(孫 暎) 생원이니 이하(籬下)에 살았다.
- 하 영(河 潑) 생원이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 양(鄭 秧) 생원이니 금산(琴山)에 살았다.
- 정희균(鄭希鈞) 생원이니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 함(鄭 咸) 진사니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하보윤(河保潤) 생원이다.
- 정희업(鄭希業) 진사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이휘륜(李彙倫) 진사니 비라곡(非羅谷)에 살았다.
- 하맹산(河孟山) 생원이니 신대(申大)에 살았다.
- 강원발(姜元發) 생원이다.
- 정 순(鄭 恂) 생원이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박승백(朴承伯) 생원이니 죽동(竹洞)에 살았다.
- 하운신(河允臣) 생원이니 사월(沙月)에 살았다.
- 윤 기(尹 沂) 생원이니 사월(沙月)에 살았다.
- 윤오년(尹鰲年) 생원이니 사월(沙月)에 살았다.
- 하경원(河景員) 진사니 운곡(雲谷)에 살았다.
- 하중곤(河仲鯤) 진사다.
- 정보인(鄭輔仁) 진사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장자강(張子剛) 생원이니 정촌(鼎村)에 살았다.
- 손란직(孫蘭直) 진사니 정촌(鼎村)에서 살았다.
- 정직견(鄭直堅) 진사니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하우석(河禹錫) 생원이니 사죽(沙竹)에서 살았다.
- 강수굉(姜壽宏) 생원이니 금산(琴山)에 살았다.
- 김 엄(金 崦) 진사니 백곡(柏谷)에 살았다.
- 권 수(權 岬) 생원이니 마동(馬洞)에 살았다.
- 이 봉(李 鵬) 진사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섭소(鄭燮韶) 진사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강공우(姜公佑) 진사니 가차례(加次禮)에 살았다.
- 강여평(姜汝平) ‘평(平)’을 혹은 ‘천(千)’으로 쓴다. 진사니 평거(平居)에 살았다.
- 하천령(河千齡) 생원이니 운곡(雲谷)에 살았다.
- 이을지(李乙枝) 생원이니 송곡(松谷)에 살았다.
- 하종악(河宗岳) 진사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배윤중(裴潤琮) 성화(成化) 갑오년(성종 5, 1474)에 진사에 올랐다.
- 배윤순(裴潤恂) 갑오년에 생원과 진사에 올랐고(水谷)에 살았다.
- 김경중(金輕重) 생원이니 사의를 지냈다.
- 하 충(河 滌) 생원이니 이하(籬下)에 살았다.
- 강응서(姜應瑞) 생원이니 동산(東山)에 살았다.
- 하 윤(河 潤) 정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 성순손(成順孫) 진사다.
- 이지형(李智亨) 정유년에 진사가 되었다.
- 강수위(姜壽渭) 진사다.
- 강공저(姜公著) 생원이니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강 혼(姜 渾) 계묘년에 생원이 되었다.
- 유백온(兪伯溫) 진사니 정촌(井村)에 살았다.
- 성일지(成日知) 진사니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이창윤(李昌胤) 홍치(弘治) 임자년(성종 23, 1492)에 생원에 올랐다.
- 강말인(姜末仁) 진사니 백곡(柏谷)에 살았다.
- 윤효빙(尹孝聘) 임자년에 생원과 진사를 함께 합격하였다.
- 하취평(河就泓) 진사니 백곡(柏谷)에 살았다.
- 하취양(河就洋) 진사니 백곡(柏谷)에 살았다.
- 손 시(孫 時) 신유년에 진사가 되었고 이하(籬下)에 살았다.
- 이정윤(李貞胤) 갑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하구노(河龜老) 정덕(正德) 경오년(중종 5, 1510)에 생원에 올랐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이형윤(李亨胤) 홍치(弘治) 갑자년(연산군 10, 1504)에 생원에 올랐다.
- 정지획(鄭之獲) 생원이니 마동(馬洞)에 살았다.
- 정석우(鄭碩佑) 가정(嘉靖) 임오년(중종 17, 1522)에 생원에 올랐다.
- 하희서(河希瑞) 진사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윤녕(尹寧) 진사니 신당리(新塘里)에 살았다.
- 성순년(成舜年) 진사였다.
- 이두(李斗) 계사년에 진사에 올랐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하린서(河麟瑞) 성화(成化) 갑오년(성종 5, 1474)에 생원과 진사를 함께 합격하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강응신(姜應信) 가정(嘉靖) 경오년에 생원이 되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진정(陳定) 경오년에 생원에 올랐고 백곡(柏谷)에 살았다.
- 한여철(韓汝哲) 계묘년에 진사가 되었다.
- 정밀(鄭密) 계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구흠(丘欽) 계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양충(楊叢) 계묘년에 생원이 되었고 송곡(松谷)에 살았다.
- 정두(鄭斗) 진사였다.
- 정임(鄭任)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정각(鄭角) 병오년에 생원이 되었는데 연벽(聯璧·형제가 함께 합격)하였고 참봉을 지냈다.
- 정항(鄭亢)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는데 연벽(聯璧)이었다.
- 강임(姜任) 병오년에 생원에 올랐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조침(趙琛) 병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동곡(桐谷)에 살았다.
- 전여복(全汝復) 병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설매곡(雪梅谷)에 살았다.
- 이공직(李公直) 병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강급(姜汲) 병오년에 생원이 되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강유(姜愈)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강호(姜灑)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모곡(茅谷)에 살았다.

- 박정노(朴貞老)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김언린(金彦麟)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가귀곡(嘉貴谷)에 살았다.
- 강 황(姜 滉)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금산(琴山)에 살았다.
- 이희정(李喜靖) 기유년에 생원이 되었다.
- 박안조(朴安祖) 진사니 말동(末洞)에 살았다.
- 박안주(朴安宙) 생원이다.
- 이경춘(李慶春) 을묘년에 생원이 되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조 환(趙 環) 무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가서(加西)에 살았다.
- 강응규(姜應奎) 진사였다.
- 이희익(李喜益) 무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하위보(河魏寶) 무오년에 생원이 되었고 사죽리(沙竹里)에 살았다.
- 하우명(河遇明) 생원이다.
- 이희중(李喜中) 무오년에 생원이 되었고 가서(加西)에 살았다.
- 김대명(金大鳴) 무오년에 생원이 되었다.
- 하 홍(河 洪) 생원이다.
- 강대서(姜大瑞) 갑자년에 진사가 되었다.
- 하 심(河 深) 생원이다.
- 이헌민(李獻民) 갑자년에 생원이 되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하 치(河 治) 생원이다.
- 유 지(柳 遲) 진사다.
- 진 치(陳 穉) 융경(隆慶) 정묘년(명종 22, 1567)에 생원이 되었다.
- 하 항(河 沆) 융경(隆慶) 정묘년에 진사가 되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 락(河 洛) 무진년에 진사는 장원으로, 생원은 이등으로 합격하였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정 안(鄭 安) 경오년에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하였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대호(鄭大濩) 경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대함(鄭大咸) 경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류대신(柳大新) 경오년에 진사가 되었고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하춘년(河春年) 경오년에 진사에 올랐다.
- 이희만(李喜萬) 경오년에 진사에 올랐다.
- 정승윤(鄭承尹) 경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조 감(趙 堪) 경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주내(州內)에 살았다.
- 성 량(成 亮) 경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부다(富多)에 살았다.
- 이호변(李虎變) 경오년에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였고 연벽(聯璧)이었으며 강주(康州)에 살았다.
- 이곤변(李鯤變) 경오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형제가 함께 합격하였다. 강주(康州)에 살았다.
- 성수남(成壽男) 생원이니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인평(鄭仁平) 생원이다
- 이의영(李義榮) 진사다.
- 하응도(河應圖) 계유년에 생원이 되었고 서신대(西申大)에 살았다.
- 하국보(河國寶) 만력(萬曆) 계유년(선조 6, 1573)에 생원이 되었고 사죽리(沙竹里)에 살았다.
- 최원량(崔元亮) 계유년에 진사에 올랐고 진성(晋城)에 살았다.
- 문 할(文 劼) 기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공인박(孔仁博)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고 모곡(茅谷)에 살았다.
- 하천일(河天一)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최원민(崔元敏) 기묘년에 진사에 올랐다.
- 이 욱(李 郁)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고 동산(東山)에 살았다.
- 하 각(河 恪) 기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사죽리(沙竹里)와 단지동(丹池洞)에 살았다.
- 이례훈(李禮勛) 임오년에 생원에 올랐고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박흥주(朴興宙)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고 동산리(東山里)에 살았다.
- 정승훈(鄭承勳) 무자년에 생원에 올랐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하수일(河受一) 기축년에 생원에 올랐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경휘(河鏡輝) 기축년에 생원에 올랐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이경훈(李景勛) 만력(萬曆) 기축년(선조 22, 1589)에 진사에 올랐다.
- 황 탁(黃 倬) 기축년에 진사에 올랐고 사월(沙月)에 살았다.
- 한 계(韓 誠) 경인년에 생원에 올랐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하 증(河 愷)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사죽(沙竹)에 살았다.
- 정대방(鄭大方) 신축년에 생원에 올랐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하 성(河 愷) 계묘년에 생원에 올랐고 현감을 지냈으며 사죽(沙竹)에 살았다.
- 하 협(河 俠)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사죽(沙竹)에 살았다.
- 정제생(鄭悌生)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고 동산(東山)에 살았다.
- 성여신(成汝信) 기유년에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였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성 박(成 鑄) 경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정대영(鄭大榮) 경술년에 생원에 올랐다.
- 문홍연(文弘連) 임자년에 진사에 올랐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이상훈(李尙訓) 임자년에 진사에 올랐고 평거(平居)에 살았다.
- 손 작(孫 緯) 계축년에 진사에 올랐고 원계(元溪)에 살았다.
- 하 선(河 璿) 계축년에 진사가 되고 주부를 지냈으며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인상(河仁尙) 계축년에 생원에 올랐고 사죽(沙竹)에 살았다.
- 한몽삼(韓夢參) 계축년에 생원에 올랐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정문익(鄭文益) 을묘년에 생원에 올랐다.
- 윤승경(尹承慶) 만력(萬曆) 정사년(광해군 9, 1617)에 생원과 진사에 함께 올랐고 참봉을 지냈으며 신당리(新塘里)에 살았다.
- 조준명(趙浚明) 정사년에 생원에 올랐고 덕산(德山)에 살았다.
- 하 진(河 潛) 천계(天啓) 갑자년(인조 2, 1624)에 진사에 올랐고 성태동(省台洞)에 살았다.
- 정달겸(鄭達謙) 갑자년에 진사에 올랐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한몽일(韓夢逸) 갑자년에 생원에 올랐고 정수(丁樹)에 살았다.
- 박 민(朴 敏) 정묘년에 진사에 올랐고 독고산(篤古山)에 살았다.

- 하운민(河潤敏) 진사다.
- 손석운(孫錫胤) 자는 여선(汝善)이요 승정(崇禎) 계유년에 진사에 올랐고 밀양인이다.
- 손지순(孫之順) 자는 덕이(德而)요 승정(崇禎) 갑술년에 진사에 올랐고 밀양인이다.
- 조 진(曹 眞) 승정(崇禎) 갑술년에 생원에 올랐고 창녕인이다.
- 성호정(成好正) 자는 상부(尙夫)요, 진사니 창녕인이다.
- 조 승(曹 昇) 승정(崇禎)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창산인이다.
- 한시중(韓時重) 자는 여임(汝任)이요, 무신년에 태어나서 인조 무자년에 현감을 지냈다. 청주인이다.
- 하달장(河達長) 자는 이원(以源)이요, 갑인년에 태어나서 인조 을유년에 진사에 올랐다. 진주인이다.
- 조 안(曹 晏) 자는 유안(幼安)이니, 을축년에 태어나서 효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며 창산인이다.
- 장 용(張 壩) 자는 군흘(君佺)이니, 정묘년에 태어나서 효종 임진년에 생원에 올랐으며 단양인이다.
- 이석령(李碩齡) 효종 임진년에 생원에 올랐고 진주인이다.
- 이현재(李玄裁) 자는 배원(培元)이요, 경신년에 태어나서 진사에 올랐으니 재령인이다.
- 한시구(韓時龜) 자는 여정(汝楨)이요 을축년에 나서 효종 정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며 청주인이다.
- 정 려(鄭 櫟) 자는 지세(持世)요, 정묘년에 태어나서 효종 정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연일인이다.
- 하달제(河達濟) 자는 회원(會源)이요, 병자년에 나서 현종 경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하달한(河達漢) 자는 통원(通源)이요, 갑자년에 나서 현종 경자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하 명(河 沼) 자는 차해(次海)요 경오년에 태어나서 현종 경자년에 생원에 올랐으

니 진주인이다.

- 성진덕(成進德) 진사니 창녕인이다.
- 안시진(安時進) 현종 경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광주인이다.
- 성치영(成治永) 자는 환연(煥然)이요, 병진년에 태어나서 현종 임인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창녕인이다.
- 강금순(姜琴舜) 생원이다.
- 한석진(韓碩進) 자는 취경(就卿)이요, 기사년에 나서 현종 계묘년에 생원에 형제가 함께 합격 청주인이다.
- 한석우(韓碩遇) 자는 선경(善卿)이요 기묘년에 나서 현종 계묘년에 생원에 형제가 함께 합격하였다.
- 양진세(梁鎭世) 자는 백망(伯望)이요, 정해년에 나서 현종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남원인이다.
- 정 량(鄭 樑) 자는 백임(伯任)이요, 정해년에 나서 현종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정 집(鄭 楫) 자는 계통(季通)이요, 을유년에 나서 현종 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손명래(孫命來) 자는 현승(顯承)이요, 갑진년에 생원과 진사에 올랐다. 밀양인이다.
- 정몽해(鄭夢海) 자는 대관(大觀)이요, 신축년에 나서 숙종 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하세응(河世應) 자는 응서(應瑞)요, 신축년에 나서 숙종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문응삼(文應參) 자는 자진(子晉)이요, 경신년에 나서 숙종 임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남평인이다.
- 박태무(朴泰茂) 자는 춘경(春卿)이요, 정사년에 나서 숙종 기해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태안인이다.
- 조천경(趙天經) 을해년에 태어나서 경종 신축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풍양인이다.
- 정상열(鄭相說) 자는 몽필(夢弼)이요, 을사년에 나서 경종 신축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정상후(鄭相奘) 자는 이정(而定)이요, 갑자년에 태어나서 영조 계묘년에 생원에 올랐다.
- 정상첨(鄭相詹) 자는 여량(汝良)이요, 경신년에 나서 영조 을사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허 전(許 銓) 자는 자평(子平)이요, 기묘년에 나서 영종 정미년에 형제가 함께 진사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허 빈(許 鑛) 자는 노숙(魯叔)이요, 신사년에 나서 영조 정미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허 탁(許 鐸) 자는 진숙(振叔)이요, 을유년에 나서 영조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정 돈(鄭 墩) 자는 회일(會一)이요, 을유년에 나서 영조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허 련(許 鍊) 자는 자유(子柔)요, 을축년에 나서 영조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허 복(許 幅) 자는 중진(重進)이요, 갑자년에 나서 영조 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이광점(李光漸) 자는 진여(進汝)요, 갑신년에 나서 영조 무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전의인이다.
- 박정신(朴挺新) 자는 영휴(英休)요, 을유년에 나서 영조 정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태안인이다.
- 김 곡(金 鵠) 자는 옥경(玉卿)이요, 무술년에 나서 영조 계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울산인이다.
- 정찬익(鄭燦益) 자는 명숙(明淑)이요, 신축년에 나서 영조 갑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연일인이다.
- 정낙신(鄭樂臣) 자는 평숙(平淑)이요, 병오년에 나서 영조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정광의(鄭光毅) 자는 원경(遠卿)이요, 을유년에 나서 영조 무자년에 생원에 올라 참봉을 지냈으니 해주인이다.
- 정채의(鄭采毅) 자는 면경(勉卿)이요, 정묘년에 나서 영조 계사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양선(鄭養善) 자는 관지(寬之)이요, 갑술년에 나서 영조 계사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하 급(河 汲) 자는 여반(汝盤)이요, 무오년에 나서 진사에 올랐으니 진양인이다.
- 박지응(朴旨鷹) 자는 운로(雲路)요, 병자년에 나서 정조 계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태안인이다.
- 곽 선(郭 璿) 자는 경옥(敬玉)이요, 정사년에 나서 정조 갑진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현풍인이다.
- 정명의(鄭銘毅) 자는 염재(念哉)요, 무진년에 나서 정조 경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하진백(河鎭伯) 자는 자추(子樞)요, 신유년에 나서 정조 경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양인이다.
- 허 담(許 檀) 자는 경생(擎生)이요, 임오년에 나서 정조 무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김해인이다.
- 이원록(李遠綠) 자는 중능(仲能)이요, 을유년에 나서 순조 계해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재령인이다.
- 김휘운(金輝運) 자는 치화(穉和)여, 병자년에 나서 순조 을축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의성인이다.
- 이국헌(李國憲) 자는 치료(穉老)요, 을해년에 나서 순조 을축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재령인이다.
- 문송규(文宋奎) 자는 사준(士駿)이요, 무인년에 나서 순조 을축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남평인이다.
- 이재헌(李再憲) 순조 경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재령인이다.
- 최중집(崔重集) 자는 공학(孔學)이요, 순조 병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전주인이다.

- 정운현(鄭雲賢) 자는 경덕(景德)이요, 경인년에 나서 순조 기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구석검(具錫儉) 자는 치약(穉約)이요, 정미년에 나서 순조 기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능성인이다.
- 이우빈(李佑贇) 자는 우이(禹爾)요, 임자년에 나서 순조 임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성주인이다.
- 최상갑(崔祥甲) 자는 낙현(樂見)이요, 계축년에 나서 순조 을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전주인이다.
- 권사수(權思守) 자는 효지(孝之)요 병자년에 나서 헌종 정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안동인이다.
- 성현룡(成見龍) 자는 경한(景漢)이요, 신해년에 나서 헌종 경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창녕인이다.
- 이호두(李好斗) 자는 내칠(迺七)이요, 기미년에 나서 헌종 경자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연안인이다.
- 최 운(崔 漑) 자는 여선(汝善)이요, 무인년에 나서 헌종 경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전주인이다.
- 류의길(柳宜吉) 자는 시약(時若)이요, 경자년에 나서 헌종 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문화인이다.
- 최 연(崔 演) 자는 서여(胥汝)요, 정해년에 나서 헌종 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전주인이다.
- 양주신(梁柱臣) 자는 순백(舜百)이요, 갑신년에 나서 철종 무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남원인이다.
- 이규진(李奎鎭) 자는 원경(元卿)이요, 임인년에 나서 철종 기미년에 증광과에서 생원에 올랐으니 사천인이다.
- 하재원(河載源) 자는 덕언(德彦)이요, 임신년에 나서 철종 신유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강성관(姜聖緜) 자는 여진(汝眞)이요, 갑신년에 나서 고종 경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김한영(金翰永) 자는 처중(處仲)이요, 을사년에 나서 고종 경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의성인이다.
- 양주호(梁柱昊) 자는 경호(擎昊)이요, 정축년에 나서 고종 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남원인이다.
- 성 익(成 瀾) 자는 한원(翰遠)이요, 경인년에 나서 고종 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창녕인이다.
- 구술조(具述祖) 자는 순원(舜遠)이요, 병진년에 나서 고종 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능성인이다.
- 최효숙(崔孝淑) 자는 백온(伯溫)이요, 경인년에 나서 고종 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삭녕인이다.
- 최상민(崔相敏) 자는 양오(養吾)이요, 경술년에 나서 고종 병자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삭녕인이다.
- 정태원(鄭泰元) 자는 순문(舜聞)이요, 갑신년에 나서 고종 기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정광룡(鄭匡龍) 자는 대현(大見)이요, 정묘년에 나서 고종 임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이원모(李原模) 자는 인길(仁吉)이요, 계묘년에 나서 고종 임오년에 생원에 올라 참봉을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최홍병(崔弘秉) 자는 응삼(應三)이요, 갑진년에 나서 고종 임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전주인이다.
- 박규호(朴圭浩) 자는 찬여(瓚汝)요, 경술년에 나서 고종 임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밀양인이다.
- 박한회(朴澣會) 자는 국침(國瞻)이요, 임오년에 나서 고종 임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밀양인이다.
- 김재영(金載永) 자는 기중(器重)이요, 신묘년에 나서 고종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의성인이다.

- 박돈병(朴敦秉) 자는 덕응(德應)이요, 계해년에 나서 고종 을유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밀양인이다.
- 허 정(許 珽) 자는 태언(泰彦)이요, 신묘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분성인이다.
- 정태운(鄭太允) 자는 기여(奇汝)요 병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라 참봉을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윤태동(尹泰東) 자는 사유(士有)요, 무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파평인이다.
- 허 준(許 駿) 자는 경능(敬能)이요, 갑진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라 비서승을 지냈으니 분성인이다.
- 이희용(李熙容) 자는 성약(聖若)이요, 을축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재령인이다.
- 이태민(鄭泰民) 자는 성첨(聖瞻)이요, 경오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이도면(李道勉) 자는 치중(致中)이요, 경오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성주인이다.
- 조용화(趙鏞和) 자는 자중(子中)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함안인이다.
- 이인희(李仁熙) 뒤에 수희(壽熙)로 고쳤다. 자는 양원(養元)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라 참봉을 지냈으니 재령인이다.
- 박흥석(朴興錫) 자는 명거(明舉)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태안인이다.
- 조용우(趙鏞禹) 자는 군모(君謀)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함안인이다.
- 허 식(許 寔) 자는 진호(振鎬)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며 이름을 만성(萬聲)으로 고쳤더니 분성인이다.
- 최인희(崔寅熹) 자는 여회(汝晦)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삭

녕인이다.

- 최인혁(崔寅赫) 자는 여원(汝元)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삭녕인이다.
- 정용흠(鄭龍洽) 자는 계운(梯雲)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신묘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하재화(河載華) 자는 복영(復榮)이요, 경신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태룡(鄭泰龍) 자는 주응(周應)이요, 경오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하세진(河世鎭) 자는 현약(見若)이요, 경오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린석(鄭麟錫) 자는 윤경(允敬)이요, 갑술년에 나서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강갑수(姜甲秀) 자는 원직(源直)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진사에 올라 참봉을 지냈으니 진주인이다.
- 양기환(梁琪煥) 자는 국진(國珍)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린환(鄭麟煥) 정축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생원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주환(鄭周煥) 정축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강휘옥(姜彙鉦) 자는 구문(久文)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진주인이다.
- 정태일(鄭泰一) 자는 성옥(聖玉)이요, 갑술년에 나서 고종 갑오년에 진사에 올랐으니 해주인이다.
- 강영섭(姜英燮) 진사였다.
- 신태진(申兌鎭) 진사였다.
- 유치백(兪致百) 진사였다.

남행(南行) 蔭官으로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

- 하거원(河巨源) 전객령과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진강군(晉康君) 하식(河湜)의 아들이다.
- 정신열(鄭臣烈) 병부상서를 지냈다.
- 정성지(鄭誠之) 참찬을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정유례(鄭愈禮) 예의관서를 지냈는데 정신열(鄭臣烈)의 후손이다.
- 류혜생(柳惠生) 군기정을 지냈다.
- 최자경(崔自涇) 비안현감을 지냈다.
- 정 기(鄭 其) 호조정랑을 지냈는데 정진(鄭璉)의 아들이며 옥봉(玉峰)에 살았다.
- 정 양(鄭 陽) 군기윤을 지냈으며 정이(鄭貽)의 증손이다.
- 조 영(趙 榮) 참봉을 지냈으며 동산(東山)에 살았다.
- 정충좌(鄭忠佐) 용강현령을 지냈으며 가귀곡(佳貴谷)에 살았다.
- 최도원(崔道源) 함안군수를 지냈으며 대사간 최복린(崔卜麟)의 아들이며 조동(槽洞)에 살았다.
- 정 순(鄭 淳) 도염서령을 지냈으니 군기윤 정양(鄭陽)의 아들이요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강우덕(姜友德) 창녕현감을 지냈고 강회백(姜淮伯)의 아들이니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하 순(河 淳) 산음현감을 지냈고 송곡(松谷)에 살았다.
- 우 정(禹 定) 개령현감을 지냈고 양산(陽山)에 살았다.
- 정차온(鄭次溫) 상주현감을 지냈고 정기(鄭其)의 아들이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차양(鄭次讓) 해남현감을 지냈고 정기(鄭其)의 아들이니 주내(州內)에 살았다.
- 정지수(鄭止守) 평시서령을 지냈고 정순(鄭淳)의 아들이니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강 정(姜 精) 양산군수였으니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하지명(河之溟) 군수를 지냈고 하유(河游)의 아들이니 수곡리(水谷里)에 살았다.

- 김국노(金國老) 봉화현감을 지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 소(鄭韶) 종부직장을 지냈고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정 경(鄭經) 영광군수를 지냈고 가귀곡(佳貴谷)에 살았다.
- 황윤문(黃允文) 청하현감을 지냈고 저동(猪洞)에 살았다.
- 최경시(崔景時) 하양현감을 지냈고 최도원(崔道源)의 아들이니 조동(槽洞)에 살았다.
- 정천린(鄭天麟) 영해부사를 지냈으며 진성리(晋城里)에 살았다.
- 정 돈(鄭惇) 개성소윤을 지냈고 정천린(鄭天麟)의 아들이니 진성(晋城)에 살았다.
- 정 점(鄭靄) 사헌부감찰을 지냈으며 정돈(鄭惇)의 아들이니 진성(晋城)에서 살았다.
- 최경천(崔景泉) 옥포만호를 지냈으며 최도원(崔道源)의 아들이니 진성(晋城)에서 살았다.
- 정원서(鄭元愔) 참봉을 지냈고 정소(鄭韶)의 아들이니 가귀곡(佳貴谷)에서 살았다.
- 하 현(河現) 사온직장을 지냈고 하지명(河之溟)의 아들인데 수곡(水谷)에 살았다.
- 강숙경(姜叔卿) 밀양부사를 지냈고 강우덕(姜友德)의 아들이니 반동산(班東山)에서 살았다.
- 우 하(禹夏) 충주목사를 지냈다.
- 하경리(河敬履) 성주목사를 지냈으니 하을부(河乙桴)의 손자요 하승해(河承海)의 아들인데 원계(元溪)에서 살았다.
- 강원범(姜元範) 경상감사를 지냈으며 강맹경(姜孟卿)의 아들이요 반동산(班東山)에서 살았다.
- 성 우(成祐) 장흥고부사를 지냈고 사간원 좌사간 성자량(成子諒)의 아들이니 진성면(晉城面) 가좌촌(加佐村)에 살았다.
- 정산하(鄭山河) 장흥고부사를 지냈는데 소남(召南)에 살았다.
- 박상덕(朴尙德) 봉덕을 지냈다.
- 이계흥(李繼興) 개천군수를 지냈으며 정수개(丁樹介)에 살았다.
- 하맹산(河孟山) 안음현감을 지냈으며 신대(申大)에 살았다.

- 강 필(姜 苾) 현풍현감을 지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배인경(裴仁敬) 고성현감을 지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정효순(鄭孝純) 함안군수를 지냈고 정원서(鄭元愔)의 아들이니 가귀곡(佳貴谷)에 살았다.
- 정 군(鄭 群) 사간을 지냈고 축곡(楸谷)에 살았다.
- 최 황(崔 滉) 비안현감을 지냈고 성내(城內)에 살았다.
- 강원범(姜元範) 와서별좌를 지냈고 강숙경(姜叔卿)의 아들이며 반동산(班東山)에 살았다.
- 권자화(權自和) 양구현감을 지냈고 진성(晋城)에 살았다.
- 강 휴(姜 休) 회원현감을 지냈고 상사리(上寺里)에 살았다.
- 권 지(權 祉) 우후를 지냈고 권자화(權自和)의 아들이니 진성(晋城)에 살았다.
- 하응천(河應千) 부장을 지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진 빈(陳 賓) 삼화현감을 지냈고 백곡(柏谷)에 살았다.
- 신세연(申世淵) 영산현감을 지냈고 신필(申苾)의 아들이니 조동(槽洞)에 살았다.
- 허공작(許公綽) 현감과 참봉을 지냈고 허추(許鍾)의 아들이니 용봉(龍奉)에 살았다.
- 김리정(金利貞) 정랑을 지냈고 백곡(柏谷)에 살았다.
- 하 풍(河 颯) 산음현감을 지냈고 하치(河值)의 아들이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 형(河 滢) 황간현감을 지냈고 하응천(河應千)의 아들이요 하현(河現)의 손자니 수곡(水谷)에 살았다.
- 조 정(趙 理) 현릉참봉을 지냈고 조지서(趙之瑞)의 아들이니 동곡(桐谷)에 살았다.
- 강 울(姜 慄) 덕산현감을 지냈고 신당(新塘)에 살았다.
- 정 주(鄭 宙) 인동현감을 지냈고 정산노(鄭山老)의 아들이다.
- 조응경(趙應卿) 단성현감을 지냈고 조수만(趙壽萬)의 아들이니 소남(召南)에 살았다.
- 이공량(李公亮) 선곤참봉을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류 성(柳 誠) 삼가현감을 지냈고 원당(元堂)에 살았다.
- 조정견(趙廷堅) 참봉을 지내고 주내(州內)에 살았는데 참관 조순(趙舜)의 아들이다.

- 이공보(李公輔) 옥과현감을 지냈고 조창윤(趙昌胤)의 아들이니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강공헌(姜公憲) 별좌를 지냈고 강현(姜顯)의 아들이니 진성(晋城)에 살았다.
- 하춘년(河春年) 사포서 별좌를 지냈고 송곡리(松谷里)에 살았다.
- 진극성(陳克誠) 의학교수를 지냈고 생원이었던 진정(陳定)의 아들이다. 마동(馬洞)에 살았다.
- 정희경(鄭熙慶) 기장현감을 지냈고 정우(鄭宙)의 아들이니 소남(召南)에 살았다.
- 하백달(河伯達) 단성현감을 지냈고 하숭(河崇)의 아들이니 소남(召南)에 살았다.
- 조 감(趙 堪) 찰방을 지냈고 옥봉(玉峰)에 살았으며 조정견(趙廷堅)의 아들이다.
- 정 순(鄭 淳) 우후를 지냈고 소남(召南)에 살았으며 정희경(鄭熙慶)의 아들이다.
- 이유훈(李有訓) 군수를 지냈고 대여촌(代如村)에 살았다.
- 성 량(成 亮) 주부를 지냈고 부다(富多)에 살았다.
- 이 번(李 蕃) 금부도사를 지냈고 운곡(雲谷)에 살았다.
- 하 선(河 璿) 헌부감찰을 지냈고 수곡(水谷)에 살았다.
- 하 성(河 愷) 장수현감을 지냈고 사죽리(沙竹里)에 살았다.
- 한몽일(韓夢逸) 단성현감을 지냈고 정수개(丁樹介)에 살았다.
- 조차석(曹次石) 의령현감을 지냈고 덕산(德山)에 살았다.
- 조차마(曹次磨) 칠원현감을 지냈고 덕산(德山)에 살았다.
- 조진명(曹晋明) 인의를 지냈고 덕산(德山)에 살았다.

第2節 新增人物 孝烈 및 有功者 表彰

인물(人物)

- 성환혁(成煥赫)

자는 사침(士瞻)이요 호는 우정(于亭)이며 창녕인이다. 부사(浮查) 성여신(成汝信)의 후예이다. 수자준재(粹資俊才)로 일찍이 하회봉(河晦峯)의 문에 지알(贄謁)하여 고제(高弟)가 되었는바 학문이 정수(精邃)하고 덕행이 구비하여 사람의 중망(重望)이 있었으며 유집이 세상에 전한다.

● 이일해(李一海)

자는 여종(汝宗)이요, 호는 굴천(屈川)이며 재령인이니 모은(茅隱) 이오(李午) 후예이다. 천자(天姿)가 영명(英明)하고 재서(才諳)가 민혜(敏慧)하여 어릴 적에 신동이라 불리었다. 초장(稍長)에 하회봉(河晦峯)을 사사하여 마침내 홍유(鴻儒)를 이루었으며 특히 시에 능하여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

효열행(孝烈行)

● 효자 강재우(姜在羽)

효자는 진양인이니 한림(翰林) 성재(誠齋) 강응태(姜應台)의 13세손이요 통정공(通政公) 강석명(姜錫明)의 자이다. 세세로 진주 명석면 왕지리에 거(居)하니 효성이 지극하였던바 부친이 80세에 와사증으로 병세위중함에 부부가 잠시도 리측(離側)치 않고 시탕(侍湯)하면서 설단도천(設壇禱天)하자 이어 쾌소(快蘇)되었으며 후에 천년(天年)으로 종(終)하니 삼년동안 소식(素食)하고 시빈(侍殯)을 극진히 하니 향리가 모두 효자라 칭했다. 사람이 천장(薦章)을 올리어 성균관으로부터 포상이 내려다.

● 효자 황록주(黃祿周)

효자는 창원인이니 고려 회산군(檜山君) 시(諡) 공희(恭僖) 황석기(黃石奇)의 후예요 순희(順熙)의 자이다. 평소에 가빈하여 학업에 전력치 못하고 주경야독하면서 부인 달성서씨와 함께 부모를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모친이 우연히 구질(漚疾)하여 백약이 무효하고 오직 산치(山雉)를 원하는지라 부부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읍구(泣求)하던 중 흘

연히 일치(一雉)가 정중(庭中)에 비입(飛入)하거늘 잡아 팽진(烹進)하니 병세가 점점 완쾌하였으며 후에 숙질(宿疾)이 재발하여 위극(危劇)에 이르자 작지(斫指)하여 주혈(注血)하니 명을 다시 일기(一莛)를 연장하였다. 향도(鄉道) 사림의 천장(薦狀)으로 인해 고종 신묘년에 효자 동몽교관 의금부도사와 효부 숙부인 교지를 내렸다.

● 효자 한진기(韓鎭基)

효자는 청주인이니 고려 개국공신 태위(太慰) 한란(韓蘭)의 후예요 홍성(弘馨)의 자이다. 일찍이 모친 광주탁씨가 항중(項腫)이 나서 백약이 무효하고 위경(危境)에 이르자 자신의 고육(股肉)을 할부(割付)하니 천감(天感)의 소치(所致)로 증세(症勢)가 차차로 완소(完蘇)되어 수(壽)를 오래 하였으며 후에 모친이 별세함에 묘막을 짓고 삼년동안 주야로 왕래하는 바 계곡의 길이 너무도 험난하여 혹시 길을 잃으면 노인이 나타나 길을 알려 주기도 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인은 다름아닌 산신이라 하였다. 향유(鄉儒)들이 암행어사와 도백에게 수차로 상장한바 있으며 효행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였다.

● 효자 박헌경(朴憲慶)

효자는 밀양인이며 청재(淸齋) 충정공(忠貞公)의 후예다. 어린시절부터 부모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였고 후에 친상(親喪)을 당함에 삼년동안 시빈(侍殯)하기를 부의 생사와 같이하여 효자란 이름이 자자(藉藉)하였으며 모부인이 년로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시지미(不時之味)를 청하면 필히 정성껏 구하여 그의 뜻을 무위(無違)하였고 노모가 낙상하여 지체를 자유로 못함에 백방으로 구약(求藥)하고 혹은 천신(天神)에 묵도(默禱)하여 마침내 회소(回甦)케 하였으며 일찍이 가정이 부유(富裕)하여 방채(放債)한 금액이 무려 누만(累萬)이었는데 하루는 채인(債人)을 소집하고 그 문권을 소각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은덕을 감송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효중(孝中)으로부터 출래(出來)한 것이라 하여 교중(校中) 사람들이 천장(薦狀)을 올리어 성균관으로부터 포상이 있었다.

● 효자 이병익(李炳益)

효자의 자는 원팔(元八)이요 전주인이니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다. 천성이 온후하고 어린시절부터 부모에 효성이 특이하였다. 일찍이 밀양박씨 문에 출입하여 부부가 함께 치산(治産)하면서 양친(養親)에 갈력(竭力)하였던바 어느 날 부친이 등에 종기가 나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부부가 함께 종처(腫處)를 입으로 악혈(惡血)을 연취(吮取)하여 마침내 완치되었으며 또 부친이 노환으로 누웠을 때 의원이 분노의 맛을 보아야 약의 화제(和劑)를 선택한다 하기에 부부가 분노를 맛보니 사람들이 모두 참으로 효자효부라 감탄하였다. 교중(校中) 사림의 천장(薦狀)으로 인해 방백(方伯)이 조정에 진달(奏達)하여 정려와 조봉대부동몽교관을 증하였다.

● 효자 이병진(李丙珍)

효자는 전주인이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다. 평소에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이 천축증(喘囁症)으로 다년간 신고(辛苦)하여 간혹 질식(窒息)되기도 함에 공의 처인 대전배씨는 지혈(指血)을 주구(注口)하여 정신이 회복된 예가 수차였고 공은 구약(求藥)에 성심을 다하였으며 단을 모아 북두성에 밤마다 기도하여 오던바 어느 야몽(夜夢)에 한 노승이 나타나 신기한 약이 있으니 명념(銘念)하라 하기에 곧 구약(求藥)하러 나섰다. 도중에서 꿈에 본 노승을 만나 산삼을 사겠느냐고 하기에 공은 천우신조로 생각하고 산삼 두근을 받고 보니 문득 노승은 간곳이 없었다. 이것을 전진(煎進)하였더니 마침내 회춘이 되고 정신과 기력이 배나 증강하였다. 향교 유생의 천장(薦狀)으로 인해 조정에서 정삼품 승정원승지를 증하였다.

● 효자 오철상(吳喆尙)

효자는 밀양인이다. 고려 상서 함양부원군의 후이요 운풍(運豐)의 자이니 진주(晉州) 설매곡(雪梅谷)에 거주하였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를 잘 섬기며 마을사람들이 모두 효아(孝兒)라고 칭하였다. 부친이 우연히 난치병을 얻어 백방으로 조치하였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위경(危境)에 이르자 착지(斫指)하여 이혈(餌血)하니 수일의 연명(延命)을 득하였으며 별세하니 삼년동안을 한결같이 비애로 보냈으며 모친 분성김씨에게도 봉양을 지극히 하였다. 향중(鄉中) 사림이 천장(薦狀)을 올리어 성균관으로부터 표

창문이 있어 효자비를 여항(閭巷)에 세웠다.

● 효부 수원백씨(水原白氏)

효부는 남양 홍문섭(洪文燮)의 처다. 천성이 유순 정숙하였으며 출가한지 얼마 안되어 부군이 별세하니 부인의 나이 19세라. 곧 순종(殉從)하려 하였으나 한살된 치자(穉子)가 있고 늙으신 구고(舅姑)가 재당(在堂)하여 봉양할 사람이 없기에 슬픔을 참고 부군의 상을 마쳤으며 구년(舅年)이 칠십이 넘어 중풍증을 얻어 몸을 자유로 못함에 부인이 시탕(侍湯)을 성심껏 한지 육십년동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고 칭하였으며 동리에서 포상하였고 향중(鄉中) 사람이 도백에게 천장(薦狀)을 올리어 포적비를 건립함에 중재 김황(重齋 金槐)께서 비문을 지었다.

● 효부 능성구씨(綾城具氏)

열부는 과평 윤광순(尹光淳)의 처다. 십구세에 출가하여 구고(舅姑)를 착하게 봉양하여 효부라 칭하였으며 기년(幾年)이 안되어 부군이 괴질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고 점차로 위독함에 부인이 자기의 고육(股肉)을 할(割)하여 먹이니 자차(自此)로 회춘되어 부부가 함께 상수(上壽)하였다. 이것이 지성으로 인해 하늘이 감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향교 사람이 천장(薦狀)을 올리어 성균관으로부터 표상이 내려왔다.

● 정씨쌍효(鄭氏雙孝)

진양 정익몽(鄭益夢)과 부인 김해김씨는 누대(累代) 청빈한 사가(士家)로서 친환(親患)이 칠십년을 연(連)함에 혹은 고용(雇傭)하고 혹은 구걸하여 약이(藥餌)를 끊지 않았으며 동절에 이어갱(鯉魚羹)을 원하매 부부가 강에 나가 빙판을 깨고 구하여 탕진(湯進)하였으며 병세 위급함에 삼지(三指)를 계속 깨물어 피를 주구(注口)하여 심수일을 회소(回蘇)케 하였으니 공의 부부는 실로 출천지효(出天之孝)라 향유(鄉儒)들이 상장(上狀)하여 공은 교관겸 병조참의를 증하였고 부인은 숙부인을 증하였다. 후에 쌍효 사적비를 수립하여 방명(芳名)을 백세에 불후(不朽)케 하였다.

● 백씨양효(白氏兩孝)

백갑수(白甲洙) 덕수(德洙)의 형제는 수원인이니 증 병조판서 순록(順錄)의 자이다. 부모가 노기(老期)에 이르러 병이 빈번(頻煩)해 피골이 상접하니 앓고 눕기를 임의로 못하고 또한 망기(妄氣)까지 있어 위경(危境)에 이르자 형제가 지성으로 구호하여 마침내 완치케 하였으며 후에 부모 구십삼세에 구몰(俱沒)하니 삼년동안 곡읍(哭泣)을 슬피하여 보는 사람이 모두 감루(感淚)를 흘리더라. 사림이 누차로 상장(上狀)하여 성균관으로부터 표창문이 있어 형제 양효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였다.

● 효부 의령남씨(宜寧南氏)

효부는 선비 남기원(南祺元)의 여로 광산 김상재(金相在)의 처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영민하고 의형(儀形)이 단숙(端淑)하였다. 우귀(于歸)함에 구고(舅姑)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는바 어느 날 밤 강도가 침입하여 흥기로 시아버지를 해하려 하니 효부가 몸으로 막아서서 크게 꾸짖기를 네놈들이 어찌 감히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느냐 하니 강도가 감심하여 퇴주(退走)하였으며 후에 시아버지가 병으로 몹저 누우니 백방으로 조호(調護)에 정성을 다하였고 별세함에 삼년상을 고례(古禮)에 어김없이 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탄(稱歎)하였다. 향도(鄉道) 유림이 정장(呈狀)하여 성균관으로부터 표창문이 내려왔으며 지손이 비를 세워 영명(命名)을 후세에 전하였다.

● 열부 진양강씨(晉陽姜氏)

열부는 어충공의 후예로 호운(浩運)의 여요, 김정국(金鼎國)의 처다. 부군이 우연히 괴질을 얻어 오래 신음하다가 마침내 기절하게 하니 부인이 종순(從殉)할 것을 결심한 바 잠시사이 종용(從容)히 약을 먹고 자결(自決)하여 일실양상(一室兩喪)이더니 수경(數頃)을 지나 의외로 부군은 회소(回甦)하였고 부인은 영서(永逝)하였다. 향리(鄉里)가 모두 말하기를 남편의 죽음을 부인이 대신 가져갔다고 하면서 열녀라 칭송하여 자자(藉藉)하여 지금까지 전언(傳言)이 있다. 교중(校中) 사림이 누차로 천장(薦狀)을 올리어 성균관으로부터 표창장이 하달되었다.

● 절부(節婦) 여주이씨(驪州李氏)

절부는 성균진사 이면(李勉)의 여이니 고성(固城) 석마동(石馬洞)에서 출생하였다. 자성(資性)이 원만(媛婉)하여 어린시절에 소학서를 읽고 부모 섬기기를 그 교훈과 같이 하였다. 15세에 진주(晉州) 마진리(麻津里) 재령(載寧) 이영호(李英浩)에게 우귀(于歸)하여 겨우 일기(一期)를 지나 부군이 우연히 병와(病臥)함에 부인이 지성으로 구호하였으나 명에는 어쩔 수 없어 마침내 사별케 되니 즉시 따라 죽을 뜻을 두었으나 구고(舅姑) 봉양과 부군 후사를 염려하여 민면(黽勉)히 회심(回心)하고 평생에 미망인으로 자처하면서 외인과 한화(閑話)를 좋아하지 않았다. 79세로 졸하니 줄일은 즉 부군의 기신(忌辰)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인이 오랫동안 시심(矢心)한 것이라 하였다. 후에 절부비를 수립함에 중재 김황(重齋 金槐)이 비명을 찬하여 영명(令名)을 영전(永傳)케 하였다.

● 효부 김해김씨(金海金氏)

효부는 선비 용호(龍浩)의 여요, 창원 황재희(黃在熙)의 처이다. 어린시절부터 숙덕(淑德)이 있었으며 출가함에 구고(舅姑)에게 효성이 특이하였는 바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주육(酒肉)을 좋아하니 비록 빈한(貧寒)한 가정이나 항상 저장불핍(貯藏不乏)하였으며 구년(舅年)이 노경(老境)에 이르러 제환(癘患)으로 오래 신고(辛苦)함에 문약(問藥)과 영의(迎醫)에 지성을 다하니 향리에서 모두 효부라 칭송하고 표상도 하였으며 사림이 천장(薦狀)을 올리어 모성회(慕聖會) 회장 판서 김종한(金宗漢)외 십명으로부터 찬양문이 하달되어 효행비를 세워 방명(芳名)을 천추(千秋)에 수전(壽傳)하였다.

신증인물(新增人物) 효열(孝烈) 및 유공자표창(有功者表彰)

● 表彰狀

第1648號 / 晉陽郡 水谷面 昌村里 故 密陽朴氏

朴氏婦人은 名門 禮家에서 生長하여 閨範을 習修하고 柳氏家로 于歸한後 媳父가 乙巳 條約에 悲憤하여 倡義抗日타가 行方不明하니 夫君이 緣而拷問 生病違世하고 媳祖母

媿外祖母 媿母가 在於一家하여 老患委席하니 三老調護와 葉世 後退終之節에 至誠遵禮한 孝烈이므로 이에 追敘 表彰합니다.

檀紀 4323年 12月 13日 成均館長 金 敬 洙

● 表彰狀

第1797號 / 晉州鄉校 掌議 文 尙 律

貴下는 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 掌議로 選任된 後 忠孝教室運營에 積極 活動하고 備品保管 籠穢을 自制 寄贈하는 等 鄉校運營發展에 積極 努力한 功이 至大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4年 10月 25日 成均館長 金 敬 洙

● 表彰狀

第1797號 / 晉州鄉校 掌議 吳 世 允

貴下는 儒家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 掌議로 年3回나 選任되어 校宮發展에 獻身 努力하고 諸般儀式에 率先參與하여 備品으로 教卓 食床 書穢 獻官服 等を 自費로 備置 하는 等 그 功勞가 至大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4年 10月 25日 成均館長 金 敬 洙

● 表彰牌

第1號 / 晉州鄉校 掌議 鄭 漢 根

위의 者는 本鄉校 掌議로서 傳統儒風을 振作하고 鄉校運營에 協助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그 功을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孔夫子 誕降 2542年 陰 8月 27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表彰牌

第2號 / 晉州鄉校 掌議 柳 東 淳

위의 者는 本鄉校 掌議로서 傳統儒風을 振作하고 鄉校運營에 協助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그 功을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孔夫子 誕降 2542年 辛未 陰 8月 27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表彰牌

第3號 / 晉州鄉校 掌議 崔相信

위의 者는 本鄉校 掌議로서 傳統儒風을 振作하고 鄉校運營에 協助한 功이 多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그 功을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孔夫子 誕降 2542年 辛未 陰 8月 27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表彰牌

第4號 / 晉州鄉校 掌議 李永煥

위의 者는 本鄉校 掌議로서 傳統儒風을 振作하고 鄉校運營에 協助한 功이 多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그 功을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孔夫子 誕降 2542年 辛未 陰 8月 27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表彰狀

第5號 / 住所: 晉陽郡 寺奉面 馬城里 / 姓名: 河末老美

貴下께서는 22芳年에 夫君과 死別하고 貧寒한 家勢에 病드신 媿祖父母님과 媿父母님의 待湯에 至誠이 남달리 至極하고 兄弟間에 友愛가 敦篤하며 子女를 잘 養育하는 등으로 鄉里에 稱頌이 높아 他的 龜鑑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檀紀 4325年 壬申 2月 初9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感謝狀

第 號 / 晉州市議會 議長 金東基

內容: 晉州鄉校 東西燕 十八賢 祭床寄贈에 對한(壹阡萬圓相當) 成均館長 感謝狀

檀紀 4325年 8月 日 成均館長 金敬洙

●表彰狀

제2074호 / 晉州鄉校 掌議 朴源弘

貴下는 傳統的인 儒門에서 成長하여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므로 晉州鄉校掌議로 選任되어 各種事業推進에 心身을 傾注하여 斯道發展에 寄與한 功이 크므로 茲以 表彰합니다.

檀紀 4326年 9月 17日 成均館長 金敬洙

●表彰狀

第2136號 / 晉陽郡 大谷面 大谷里 朱宰順 / 金尙基의 妻

夫人은 庚戌國恥後 男便을 倭軍에 强徵 生別하고 遺子 兄弟와 媿父母를 待養하며 紡績과 嫁穡으로 生業하며 四代奉祀로 宗婦所任과 媿第妹 婚事며 丁憂의 喪禮凡節은 勿論 夫公의 追慕擇日 致祭等 世人이 그 婉淑之姿의 婦德은 欽羨讚訟함으로 이를 讚揚하여 茲以 追欽 表彰합니다.

檀紀 4327年 3月 9日 成均館長 金敬洙

●表彰狀

第2137號 / 晉陽郡 鳴石面 外栗里 水原白氏 洪鍾鳳의 妻

夫人은 一男二女를 두고 夫君이 偶然得病하여 化膿惡汁에 惡身에도 先溶侍撥은 勿論 治病과 供養뿐 아니라 快愈所願을 數十年을 하루같이 至極精誠을 다하여 天壽로 考終케하니 鄉儒士論이 貞烈이라 褒揚함으로 이를 追敘表彰합니다.

檀紀 4327年 3月 9日 成均館長 金敬洙

●表彰狀

第2138號 / 晉陽郡 鳴石面 外栗里 具三善

夫人은 膝下에 三女를 두고 青孀으로 紡績과 備賃으로 家計를 營爲하면서 病中媿父母를 至極孝養하여 承順萬違 하였을 뿐 아니라 及卒에 退終儀禮로 三年治喪하여 他的 模範이라 稱頌이 藉藉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7年 3月 9日 成均館長 金 敬 洙

● 感謝牌

第95-8號 / 晉州市長 鄭 永 錫

市長님께서는 우리 고장에 계시는 동안 傳統教育機關인 鄉校를 繼承 保存하는데 많은 觀心을 가져 주셨을 뿐 아니라 特히 參拜市民의 便宜를 위해 照明燈을 設置해 주신 고마운 誠意에 感謝의 뜻을 儒林의 이름으로 이 牌에 새겨드립니다.

1995年 6月 30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第2379號 / 晉州鄉校 掌議 陳 周 鉉

貴下는 傳統儒家의 胎生으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掌議에 選任된 以來 所任을 忠實히 遂行함은 勿論 忠孝教室運營에 積極參與奉仕하고 特히 校宮管理에 特段의 努力으로 鄉校發展에 크게 寄與하였기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2月 15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第2402號 / 晉州市 水晶洞 全 貞 烈

貴下는 傳統儒家의 後裔로서 平素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더니 儒道會 晉州支部 水晶洞 支會長에 在任 中 晉州鄉校 儀禮行事に 獻身奉仕하였을 뿐 아니라 特히 忠孝教室運營에 誠力을 다하여 地域教化에 이바지하는 등 斯道發展에 寄與하였으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3月 7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第2442號 / 晉州市 上坪洞 成 煥 圖

貴下는 儒門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 顧問으로 推戴되어 鄉

校運營을 爲始하여 大小行事に 積極 參與하였고 特히 每年 實行하는 忠孝教室運營에는 남다른 努力을 傾注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함으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제2443호 / 晉州鄉校 掌議 鄭漢根

貴下는 傳統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掌議에 選任되어 말은바 職務에 誠實히 奉仕하였을 뿐 아니라 忠孝教室運營에는 恪別한 努力을 傾注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제2444호 / 晉州鄉校 掌議 吳世允

貴下는 傳統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掌議에 選任되어 말은바 職務에 誠實히 奉仕하였을 뿐 아니라 忠孝教室運營에는 恪別한 努力을 傾注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제2445호 / 晉州市 水晶洞 金点順(安承均의 妻)

이 婦人은 溫和한 性品과 굳은 意志를 가지고 어려운 與件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內助의 德을 쌓고 子女教育은 勿論이고 特히 累年間 媳父母의 老患에 地極精誠으로 待湯看護한 孝行이 遠近에 稱頌이 藉藉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1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제2446호 / 晉州市 中安洞 姜潤善

위 婦人은 天性이 至孝하더니 어려운 家庭環境에서도 節度있는 家計를 維持하며 侍奉舅姑하고 善養 子女하였으며 特히 媳父가 中風으로 30餘年間 臥病함에 始終如一하게 侍湯 看護하는 至極한 孝誠이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1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제2453호 / 晉州市 鳳谷洞 李昌順

위 婦人은 平素 禮儀凡節을 바르게 生活하며 和睦한 家庭을 이루어 왔으나 不意에 夫君이 得病함에 哀切한 心情에 至極한 精誠으로 侍湯 看護하는 等 婦道를 超越한 烈婦로서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를 讚揚하여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30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職名 : 晉州鄉校 掌議 / 姓名 : 鄭限銀

貴下는 晉州鄉校 儒道發展을 爲하여 獻身한바 크므로 이에 表彰함

孔記 2547年(丙子) 7月 30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儒道會支部 會長 文尙律

● 表彰牌

職名 : 儒道會 美川支會長 / 姓名 : 姜龍根

貴下는 晉州鄉校 儒道發展을 爲하여 獻身한바 크므로 이에 表彰함

孔記 2547年(丙子) 7月 30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儒道會支部 會長 文尙律

● 표창장

제2452호 / 효자 성환중(成煥宗) /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귀하는 명문 유가의 후예로서 진주 유도회 회장으로 재임시에는 유도발전에 헌신 노

력하였으며 특히 양친 봉양에는 지극한 효성이 유(有)하여 만인의 귀감이 되므로 전 유림을 대표하여 이에 특서(特敍) 표창합니다.

檀紀 4329年 7月 30日 성균관장 최근덕(崔根德) 인

● 表彰牌

職名: 儒道會 鳴石支會長 / 姓名: 洪 淳 香

貴下는 晉州鄉校 儒道發展을 爲하여 獻身한바 크므로 이에 表彰함

孔紀 2547年(丙子) 7月 30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牌

職名: 儒道會 晉城支會長 / 姓名: 金 鎭 泰

貴下는 晉州鄉校 儒道發展을 爲하여 獻身한바 크므로 이에 表彰함

孔紀 2547年(丙子) 7月 30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支部 會長 文 尙 律

● 優秀機關表彰狀

第2462號

위 晉州鄉校는 成宗6年(檀紀3320年)에 創建한 教育機關 文廟守護와 春秋釋奠 및 朔望 焚香을 悠久한 歷年에 걸쳐 闕하지 않고 倫理道德宣揚에 透徹하고 劃期的인 抉舉를 이룩하여 儒林組織의 大衆化와 鄉士發展은 勿論 斯道振作에 寄與하였을 뿐만 아니라 千年以來 發刊 하지 못한 校誌를 今般 上梓하므로서 他 鄉校의 模範이 되므로 優秀機關으로 表彰하는 바입니다.

檀紀 4329年(1996) 8月 28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第25號 / 晉州鄉校

위 鄉校는 成宗6年 創建 이래 今日에 이르기까지 校宮管理가 顯著히 優秀하여 原形保存은 勿論 現像과 같이 發展되어 왔음은 貴鄉 儒諸彦의 卓越한 努力의 所産이라 思料되

오며 따라서 今般 宿願이든 鄉校誌 發刊을 成功裡에 完成을 보게 되었음은 平素 法度있는 운영과 전통을 수호하려는 叡智의 發顯이라 믿어 他의 龜鑑으로 삼고져 이에 表彰狀을 贈呈합니다.

孔紀 2547(1996)年 9月 1日 慶尙南道 鄉校財團理事長 盧秉德

● 表彰狀

第2485號 / 儒道會 晉州支部 副會長 李 鎮 台

貴下는 傳統儒家의 後裔로서 1987年 支會長으로 就任한 後 鄉校 掌議를 거쳐 現 晉州 儒道會 支部 副會長과 道本部 副會長을 歷任하면서 每年 實施되는 忠孝教育을 積極 支援하여 왔으며 釋奠奉行은 勿論 校誌發刊과 斯道振作 等 地域社會 發展에 寄與한 功勞이 至大함으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西紀 1996年 10月 4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第2493號 / 晉州市 鳴石面 姜 順 伊

婦人은 儒家의 後裔로서 天性이 至孝하더니 出嫁하여 夫君이 出征한 貧寒한 家庭을 슬기롭게 꾸렸을 뿐아니라 媳母가 中風으로 臥病한지 5年間을 至誠으로 侍湯하고 尾身不能의 患候를 丹誠으로 看護하여 91歲까지 奉養한 孝行이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10月 15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第2530號 / 儒道會 晉州支部 副會長 鄭 順 燮

貴下는 傳統儒家에서 成長하여 透徹한 儒教精神으로 實踐하는 指導者로서 晉州 鄉校 掌議와 儒道會 副會長을 兼任하면서 鄉校의 大小 行事に 積極 奉仕 할뿐 아니라 忠孝教室 運營이나 校誌發刊에 努力하고 特히 儒道會 組織擴張에 獻身 努力하는 等 斯道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함으로 이를 讚揚하여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29年 12月 16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542號 / 晉州市 大谷面 李壽贊

貴下는 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의 任員을 歷任하면서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今般 鄉校誌 發刊에 있어서는 心血을 傾注하여 誠實히 奉仕함 으로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케 하는 等 儒教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牌를 드립니다.

檀紀 4330年(西紀 1997) 3月 16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542號 / 晉州市 下大洞 鄭元鎬

貴下는 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의 任員을 歷任하면서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今般 鄉校誌 發刊에 있어서는 心血을 傾注하여 誠實히 奉仕함 으로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케 하는 等 儒教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牌를 드립니다.

檀紀 4330年(西紀 1997) 3月 16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542號 / 晉州市 大谷面 姜泰濟

貴下는 儒家의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晉州鄉校의 任員을 歷任하면서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今般 鄉校誌 發刊에 있어서는 心血을 傾注하여 誠實히 奉仕함 으로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케 하는 等 儒教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牌를 드립니다.

檀紀 4330年(西紀 1997) 3月 16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542號 / 晉州市 上鳳西洞 翰林印刷社長 孫源模

貴下는 유교정신이 투철하여 평소에 진주향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오던중 今般 鄉校誌 發刊에 있어서는 각별한 配慮로 成功的으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功勞를 致賀하여 感謝牌를 드립니다.

檀紀 4330年(西紀 1997) 3月 16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2581號 / 晉州市 寺奉面 馬城里 鄭鉉台

貴下는 傳統儒家的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하여 儒道會 晉州支部 監察委員에 選任되어 儒教發展을 위해 熱誠을 다하는 한편 晉州鄉校誌 發刊에 있어서 發起부터 出判頒帙까지 心血을 傾注하여 奉仕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30年 4月 1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138號 / 慶南 晉州鄉校掌議 吳臺煥

上記者는 傳統儒家的 後裔로서 慕聖崇儒의 精神이 透徹한 分으로 文廟釋奠 및 朔望 焚香 等 諸般 行事に 率先垂範하였을 뿐 아니라 儒教發展에 크게 活動한 有能한 青年으로서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합니다.

檀紀 4330年 4月 15日 成均館長 崔根德

● 祝賀牌

第1號 /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貴下께서는 晉州鄉校 典校로 累年歷任하면서 誠力을 傾注하여 無數한 功績을 이루었기에 成均館으로부터 模範鄉校관 褒壯이 有하였으며 또한 優秀한 人品과 德望으로 今番에 成均館 副館長에 被選되었는바 이는 本鄉校歷史에 길이 榮光이 아닐 수 없기에 이 祝賀牌를 贈呈합니다.

孔紀 2550年 己卯 7月 9日 晉州鄉校 儒林一同

● 表彰狀

第99-118號 / 慶尙南道 晉州市廳 文化觀光課長 朴一奉

右人是慕聖崇儒의 透徹하여 晉州市廳公務員으로 奉職하면서 公務에 多忙 함에도 不拘하고 鄉校의 忠孝教室運營에 積極 參與하여 1990年 10月間 禮節教育 및 市政에 對한 講義를 빠짐없이 해오는 等 鄉校와 地域社會發展을 爲하여 努力한 功績이 至大하여 이를 기리고자 表彰합니다.

孔紀 2550年(1999) 8月 24日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第99-119號 / 慶尙南道 晉州市廳 文化觀光係長 徐熙德

右人是慕聖崇儒의 透徹하여 晉州市廳 公務員으로 奉職하면서 公務에 多忙 함에도 不拘하고 鄉校의 忠孝教室運營에 積極 參與하여 1990年 10月間 禮節教育 및 市政에 對한 講義를 빠짐없이 해오는 等 鄉校와 地域社會發展을 爲하여 努力한 功績이 至大하여 이를 기리고자 表彰합니다.

孔紀 2550年(1999) 8月 24日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住所: 晉州市 中安洞 8-6蕃地 / 姓名: 文尙律

右者是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子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3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大

● 表彰狀

住所: 晉州市 平居洞 유일아파트 301號 / 姓名: 洪淳太

右者是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子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3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金谷面 佳峯里 / 姓名 : 鄭 棋 文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子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3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 大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大谷面 麻津里 / 姓名 : 李 典 圭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子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3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上鳳西洞 203-9 / 姓名 : 宋 龍 順

위 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婦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3日

晉州鄉校 典校 李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鳴石面 觀旨里 / 姓名 : 白 順 男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婦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八月 初三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大坪面 大坪里 / 姓名 : 金 淑 林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婦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三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大坪面 大坪里 / 姓名 : 河 順 子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婦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三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住所 : 晉州市 晉城面 東山里 / 姓名 : 南 次 任

右者는 晉州鄉校가 主管하는 孝子 孝婦 善行者 等を 申請 받아 審査한 結果 孝婦 部分에서 他的 훌륭한 模範이 되므로 茲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0年 己卯 8月 初三日

晉州鄉校 典校 李 正 大 / 儒道會晉州支部 會長 文 尙 律

● 表彰狀

第2001-1號 / 晉州鄉校掌議 成 宗 根

귀하께서는 명문 유가의 후예로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성전 및 동무 서무 분향에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진주향교내 청소년 증효교실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또한 본 향교 재산증식에도 공로가 막대하기에 이표창장을 드립니다.

孔紀 2551(2000)年 2月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第2001-2號 / 西部農協 仁寺支所長 金元秀

貴下께서는 傳統儒家의 後裔로서 平素 晉州鄕校의 行事시 每番 參席하여 大成殿 및 東西廡에 參拜하는 精神이 남달리 特別하였으며 鄕中 어른에 대한 恭敬心과 謙遜함이 他의 模範이 될 뿐 아니라 今番 晉州鄕校의 財産整理에 많은 協助을 해주었기에 그 功勞를 높이 評價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1(2000)年 月 日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第2001-3號 / 不動産 仲介士 李景鎬

貴下께서는 傳統儒家의 後孫으로서 1990年度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晉州鄕校의 財産整理에 不動産仲介士로서 全心全力하여 몸소 獻身한 功이 至大함으로 그 功勞를 높이 評價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1(2000)年 月 日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第2001-4號 / 不動産 仲介士 孫文秀

貴下께서는 傳統儒家의 後孫으로서 1990年度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晉州鄕校의 財産整理에 不動産仲介士로서 全心全力하여 몸소 獻身한 功이 至大함으로 그 功勞를 높이 評價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1(2000)年 月 日 成均館長 崔昌圭

● 表彰狀

第2001-5號 / 晉州鄉校 掌議 姜 일淳

貴下께서는 유도회 總務로서 다년간 儒林발전을 爲하여 獻身한바 있으며 나아가 鄉校 總務로 在職하면서 수년 동안 鄉校 財産 增殖을 위하여 至大한 功을 세웠기에 그 功勞를 높이 評價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1(2000)年 月 日 成均館長 崔昌圭

● 烈婦牌

제2003-1호 / 住所: 晉州市 文山邑 象文里 山273蕃地 / 姓名: 李春玉(陝川李氏)

위의 사람은 十八歲의 어린나이에 河瓚庭과 婚姻하여 二十七歲時에 夫君이 病患으로 死境을 헤매자 斷指飲血을 시켰으며 死別後 青春을 홀로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고 家정을 지키며 자녀들의 訓育에 이바지하면서 婦道를 지킨데 대한 烈婦의 像이 他的 龜鑑이 됨으로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西紀 2003年 11月 27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燮

● 表彰狀

第2555-171號 / 晉州鄉校掌議 安承均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道 振作에 獻身 奉仕하였으면 특히 맡은바 職責을 誠實하게 完遂하는 등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孔紀 2555年 春期釋奠을 맞이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5(2004)年 2月 2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2555-172號 / 儒道會晉州支部 大谷支會長 鄭大永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道 振作에 獻身 奉仕하였으면 특히 맡은바 職責을 誠實하게 完遂하는 등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孔紀 2555年 春期釋奠을 맞이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5(2004)年 2月 28日 成均館長 崔根德

●表彰狀

第2004-1號 / 晉州市 晉城面 東山里 1127-1 鄭 璉 根

위 사람은 初娶 李必順과 19年前에 喪配하고 貧農으로 100歲까지 長壽하신 祖母님을 至誠으로 奉養하여 長孫의 도리를 다 하였고 今年에 100歲되는 거동 불편한 老母와 再娶한 李福姬 亦是 關節 病으로 기거가 不自由하고 自身도 척추 病으로 支障이에 依支하면서 朝夕으로 老母와 아내의 看病에 疏忽함이 없이 食供에 精誠을 다함은 孝子範夫라는 稱訟이 藉藉함으로 오늘 耆老宴을 期하여 表彰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表彰狀

第2004-2號 / 晉州市 鳳谷洞 469-10 鄭 錫 煥

위 사람은 3男中 次男으로 태어나 大學 卒業을 앞두고 1997年度에 아버지께서 뇌경색이라는 불의의 득병으로 병원에 입원케 되어 장장 7個年の 歲月을 病院 身勢를 지게 되어 自身の 身上은 不顧 就業도 泡棄하고 父親의 大小便 수발과 食事侍從 空氣 좋은 곳 物理治療 等等 온갖 藥을 다스렸으나 百藥이 無效로 끝내 他界하신 父親에게 至誠껏 侍湯看護한 精誠이 가득하여 孝의 實踐者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表彰狀

第2004-3號 / 晉州市 大坪面 大坪里 516-5 趙 順 德

위 婦人은 禮儀凡節을 바르게 生活하며 平素 奉仕精神이 透徹 義協心이 强하여 地域 社會에서 推進하는 大小事 行事を 앞장서서 推進하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이 여기는 어진 性品の 所有者이며 和睦한 家庭을 이룩하여 오던 中 1996年 不意에 夫君의 得病으로 死別하고 2男 3女의 子息과 老年하신 媿母의 老弱수발을 至誠껏 侍湯 看護함은 社會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 表彰狀

第2004-4號 / 晉州市 鳴石面 新基里 230 李一順

위 婦人은 孝를 生活의 信條로 삼아 平生을 살아오신 分으로서 膝下의 子女를 훌륭히 成長시켜 家庭을 和睦하게 이룩하였고 요즘 核家族化 社會에 退色되어 가는 孝를 自己의 孝行으로 이웃과 子息들로 하여금 孝의 根本을 알게 일깨워 주어 孝行을 實踐토록 하였다. 또한 年老 하신 媿母 伯母를 한 집에 함께 極盡이 모셔 奉養 看護함은 地域社會의 龜鑑이 됨으로 이를 讚揚하여 表彰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 長壽牌

第2004-5號 / 晉州市 大谷面 丹牧里 765 河再煥

貴下는 有福한 家庭에서 健康한 身體와 올바른 儒林精神으로 現在 92歲의 無病長壽하신 高齡으로 膝下에 3女들을 잘 教育한 模範的 長壽 老人이기에 晉州鄉校에서 耆老宴을 期하여 長壽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 長壽牌

第2004-6號 / 晉州市 二班城面 龍岩里 433 姜快文

貴下는 有福한 家庭에서 健康한 身體와 올바른 儒林精神으로 現在 91歲의 無病長壽하신 高齡으로 膝下에 3女들을 잘 教育한 模範的 長壽 老人이기에 晉州鄉校에서 耆老宴을 期하여 長壽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4年 11月 9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 燮

● 感謝牌

第2005-111號 / 晉州市長 鄭永錫

위 분은 民選 晉州市長으로서 市政發展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先祖이신 圃隱先生의 後裔다운 透徹한 慕聖之心으로 儒林事業을 積極 支援함으로서 斯文

振作에 크게 貢獻하였고 特히 巨額의 豫算을 周旋하여 晉州鄉校의 宿願事業인 儒林會館을 新築하게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竣工式에 즈음하여 全國 儒林의 感謝의 뜻을 담아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005-112號 / 前 晉州市議會 議長 金銀河

위 분은 民選 晉州市의회 議長으로 在職 時 市政發展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儒家의 後裔다운 慕聖之心으로 鄉校發展에 積極 協助하여 校宮 整備에 豫算을 支援하여 晉州鄉校의 宿願事業인 儒林會館을 新築하게 함으로서 儒學振興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竣工式에 즈음하여 全國 儒林의 感謝의 뜻을 담아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005-113號 / 晉州鄉校 成煥德

위 분은 典校 在職 時에 校宮整備에 專念하여 管理舍 및 會議室을 建立하여 退任 後에도 元老로서 每事에 率先垂範하였으며 儒林會館 建立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推進委員으로서 地域 國會議員과 晉州市長 等を 訪問하여 會館建立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說得 함으로서 마침내 晉州鄉校의 宿願事業인 儒林會館을 新築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竣工式을 즈음하여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005-114號 / 慶南鄉校財團 文尙律

위 분은 慶尙南道 鄉校財團 理事로서 晉州鄉校 典校 在職 時부터 儒林회관이 없음을 痛歎하여 任期 中에 이를 建立하기 위해 百方으로 努力하였고 退任 後에는 元老로서 儒林會館 建立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推進委員長에 推戴되어 地域 國會議員과 晉州市長

等を訪問하여 會館建立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說得함으로서 마침내 宿願事業을 達成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竣工式을 즈음하여 이 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005-115號 / 儒道會 慶南本部 成煥喆

위 분은 儒道會 慶尙南道本部 副會長으로서 儒道會 晉州支部會長 在職 때에는 忠孝教育 講師로 積極 活動하였으며 退任 後에는 元老로서 儒林會館 建立推進委員會의 推進委員을 맡아 每事에 協助를 아끼지 않음으로서 마침내 宿願事業을 達成하는데 寄與한 功勞가 至大함으로 竣工式에 즈음하여 이 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晉州市 二班城面 坪村里 韓基仁

위 분은 平素 敦篤한 慕聖之心을 지닌 儒家의 後裔로서 鄉校 掌議 職을 맡아 所任을 充實히 完遂하였을 뿐만 아니라 儒林會館 建立推進委員會의 事務局長으로서 實務를 擔當하며 市의 關係 公務員들과 緊密한 紐帶를 講築하여 마침내 宿願事業을 達成하는데 寄與한 功勞가 至大함으로 竣工式에 즈음하여 이 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狀

第2005-117號 / 晉州市廳 鄭壽權

위 분은 晉州市 文化觀光 擔當官으로서 儒家出身다운 慕聖之心을 지니 平素 鄉校 事業에 至大한 關心을 기울였으며 特히 儒林會館 建立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여 竣工式에 즈음하여 이 感謝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狀

第2005-118號 / 晉州市廳 朴一喆

위 분은 진주시 文化財係長으로서 儒家出身다운 慕聖之心을 지녀 晉州鄉校 대성전 보수에 적극 참여하였고 特히 儒林會館 建立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여 竣工式에 즈음하여 이 感謝狀을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晉州市 玉峰洞 232-1 朴今順

貴下는 鄉校管理人으로 在職하면서 心德이 善良하고 天性이 매우 溫順하여 每事에 勤勉하여 鄉校境內외의 清掃 및 雜草除去 等に 熱과 誠을 다하였고 朔望焚香때나 春秋大祭 때는 事前準備에 조금도 疏忽함이 없이 잘하였으므로 그 공을기려 感謝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慶尙南道 鄉校財團理事長 宋台復

● 表彰牌

晉州市 大谷面 佳亭里821 儒道會 晉州支部 總務 姜泰濟

貴下는 儒林의 後裔로서 儒教精神이 透徹하여 諸般行爲가 儒林의 模範이 되었으며 多年間 晉州鄉校掌議로 在職하면서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많아 鄉人들의 稱頌을 받았으므로 그 공을 기려 이 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5月 31日 慶尙南道 鄉校財團理事長 宋台復

● 表彰狀

第2556-273號 / 晉州鄉校 沈東燮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道振作에 獻身 奉仕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責을 誠實하게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孔紀 2556年 秋期 釋奠을 맞이하여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9月 10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2005-166號 / 金鎮富

위 분은 傳統儒門의 後裔로 平素 傳統倫理의 繼承發展에 率先垂範하였고 市議員에 當選되자 多忙한 市政活動에도 不拘하고 晉州儒林會館 建立을 積極 支援함으로써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기에 孔紀 2556年 秋期釋奠을 기해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9月 10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2005-272號 / 晉州鄉校 成煥錫

귀하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사도 진작에 헌신 봉사하였으며, 특히 맡은바 직책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등 향교발전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孔紀 2556年 秋期 釋奠을 기해 이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56(2005)年 9月 10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5-14號 / 晉州市 二班城面 龍岩里 168 高淑子

위 婦人은 일찍이 어린나이에 婚姻하여 禮儀凡節을 바르게 生活하고 平素 奉仕精神이 透徹하여 德性스런 孝婦로 稱訟이 藉藉하였으며 媳父이신 故 鄭甲錫이 交通事故로 因한 後遺症으로 長長 32個年의 歲月을 몸바쳐 看病에 疏忽함이 없이 食供에 至誠껏 侍湯看護한 精誠이 가극하며 倫理規範이 무너지 가는 이때 孝의 實踐者로서 現代社會의 龜鑑이 되므로 이 表彰牌을 드립니다.

西紀 2005年 11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燮

● 表彰牌

第2005-15號 / 晉州市 琴山面 龍牙里 795 成煥浩

위의 者는 成鳳柱의 四男中 三男으로서 兩親父母를 모시고 農村에 定着하여 模範的인 青年으로서 母親 金又順이 偶然히 得病하여 至極精誠으로 看病하였으며 父親 成鳳柱(당85歲) 亦是 老患과 關節염으로 舉動이 不便하여 侍湯看護는 물론 鬱寂하고 허전함을 慰勞하기 爲하여 每日 3km 떨어진 敬老堂에 모시면서 餘生을 便케 해드릴려고 勞力하는 孝心은 現代 核家族 社會에 退色해가는 孝行을 實踐하여 孝의 根本을 일깨워주는 地域社會의 龜鑑이 되므로 이를 讚揚하여 表彰牌를 드립니다.

西紀 2005年 11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奎燮

● 효부상

제2006-2호 / 진주시 옥봉동 148-18 송미옥

귀하께서는 평소에 근면 성실한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시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효를 실천한 공이 크므로 효부상을 드립니다.

2006年 11月 7日 진주향교 전교 한선우

● 表彰狀

第07-01號 / 晉州鄉校 沈東燮

위 사람은 儒教新聞 釜山·慶南지역 駐在記者로서 평소 地域儒林의 活動을 활발히 取材, 送稿함으로써 儒林言論 暢達과 儒教新聞 發展에 至大한 功이 있어 이에 表彰함.

2007年 6月 2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9-49號 / 晉州鄉校 鄭奎燮

貴下는 典校 在職시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였고 特히 校宮을 整備하고 宿願事業이던 忠孝教育院을 建立하여 學生 및 一般人에게 常時教育을 實施함으로써 斯文振作과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0(2009)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9-50號 / 晉州鄉校 韓善愚

貴下는 典校 在職시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말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였고 特히 忠孝教育院長을 兼任하며 學生 및 一般人에게 常時教育을 實施하여 鄉校의 機能을 恢復하고 文化體育觀光部가 指定하는 2008年度 示範鄉校로 選定되는데 專念하였고 各種 儒教儀禮를 再現하여 傳統文化 繼承에 專力함으로써 斯文振作과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0(2009)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09-01號 / 晉州鄉校 沈東燮

위 사람은 儒教新聞 慶南지역 駐在記者로서 평소 地域儒林의 活動을 활발히 取材, 送稿함으로써 儒林言論 暢達과 儒教新聞 發展에 至大한 功이 있어 이에 表彰함.

2009年 6月 1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9-235號 / 成均館儒道會晉州支部 智水支會長 許南優

귀하는 돈후한 품성과 敦篤한 慕聖之心으로 말은바 職責을 忠實히 遂行하여 儒教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함으로 이 表彰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0(2009)年 11月 3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9-236號 / 晉州市 金谷面 姜潤任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教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으로써 餘他の 模範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0(2009)年 11月 3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09-237號 / 晉州市 一班城面 鄭順南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能의 媿母의 病 看護를 至極精誠으로 다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0(2009)年 11月 3日 成均館長 崔根德

● 孝女牌

第2009-11號 / 晉州市 江南洞 金美愛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能의 媿母의 病 看護를 至極精誠으로 奉養하였으며 韓州韓普老人亭의 어른을 보살피 奉仕함으로서 他的 模範이 되므로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0(2009)年 11月 3日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 오늘의 齊家賞

제2008-207호 / 多福家庭 特別賞 成煥圖

貴下는 儒敎倫理를 敦篤하게 實踐하여 和睦한 家庭을 이룩해 힘은 道德에서 나온다는 公理를 實證함으로써 健康한 社會를 만드는데 寄與하였기에 全 儒林의 이름으로 이 賞을 드립니다.

孔紀 2559(2008)年 9月 28日 慕聖會長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0-35號 / 成均館儒道會 晉州支部 張根煥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儒道會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1(2010)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0-36號 / 成均館儒道會 晉州支部 文 德 根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儒道會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1(2010)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牌

第2010-37號 / 晉州鄉校 鄭 鎬 英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1(2010)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牌

第2010-38號 / 晉州鄉校 姜 東 郁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1(2010)年 3月 18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狀

晉鄉第10-5號 / 晉州中央高等學校 教師 金 宗 植

위의 教師는 至極한 精誠으로 父母님을 奉養하여 남의 模範이 되었으며, 特히 靑少年 孝行教育에 앞장 선 功勞가 至大하여 第38回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表彰합니다.

孔紀 2561(2010)年 5月 8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韓 基 仁

● 功勞牌

第2010-2號 / 晉州鄉校常任元老 鄭奎燮

귀하께서는 晉州鄉校 典校와 常任元老에 在任하시는 동안 儒林會館 新築 및 忠孝教育院을 開院하여 알찬 忠孝教育으로 선비精神涵養과 儒教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至大함으로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1(2010)年 7月 5日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 感謝牌

第2010-3號 / 慶尙大學校 漢文學科長 李相弼 教授

教授님께서는 2008年 4월부터 2010年 7월까지 本 鄉校에서 實施한 忠孝教育院 論語講座 科程 擔任教授로써 熱과 誠으로 講義를 하여 선비의 高尙 晉州市民의 道義精神 昂揚과 忠孝教育院 發展에 寄與한 功이 크므로 이에 感謝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1(2010)年 7月 20日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 表彰狀

第2010-4號 / 晉州市 上大洞 305-7 鄭玉永

貴下는 2008年 4월부터 2010年 7월까지 實施한 忠孝教育院 論語講座 科程 學習活動에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 합니다.

孔紀 2561(2010)年 7月 20日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 表彰狀

第2010-5號 / 晉州市 智水面 金谷里 文映東

貴下는 2008年 4월부터 2010年 7월까지 實施한 忠孝教育院 論語講座 科程 學習活動에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 합니다.

孔紀 2561(2010)年 7月 20日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 孝子牌

第2010-267號 / 晉州市 平居洞 許仁香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便한 老母의 病患을 至極精誠으로 看護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1(2010)年 10月 30日 成均館長 崔根德

● 孝婦牌

第2010-267號 / 晉州市 上大洞 朴玉順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便한 媼母의 病患을 至極精誠으로 看護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1(2010)年 10月 30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1-17號 / 晉州鄉校 鄭秉禧

귀하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2(2011)年 3月 1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1-18號 / 晉州鄉校 成龍燮

귀하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2(2011)年 3月 1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1-19號 / 晉州鄉校 鄭鍾和

귀하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2(2011)年 3月 1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1-20號 / 晉州鄉校 李奉喜

귀하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2(2011)年 3月 11日 成均館장 崔根德

● 表彰狀

第2011-152號 / 晉州鄉校 沈東燮

귀하는 儒教新聞社 慶南 駐在記者로서 敦厚한 慕聖으로 地域儒林의 活動을 활발히 取材送稿함으로써 儒林言論 暢達과 儒教新聞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에 表彰長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2(2011)年 6月 2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第2011-232號 / 晉州鄉校 孝婦 金正玉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教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으로써 餘他の 模範이 되었기에 耆老宴을 기해 이 表彰狀 수여합니다.

孔紀 2562(2011)年 10月 8日 成均館長 崔根德

● 感謝牌

第2011-21號 / 晉州鳳林書堂 許萬秀

貴下는 晉州鄉校 專任講師로서 2009年 1月부터 2011年 11月까지 本 鄉校에서 實施하

는 明心寶鑑과 小學講座에 熱과 誠을 다하여 講義하여 주셨으므로 그 感謝의 뜻을 이 牌에 새겨 드립니다.

西紀 2011年 11月 28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韓基仁

● 表彰狀

第2011-25號 / 晉州市 新安洞 姜永奎

위의 사람은 2009年 9월부터 2011年 11월까지 實施한 晉州鄉校 小學 講座科程의 科代表로서 獻身 奉仕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2(2011)年 11月 28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韓基仁

● 表彰狀

第2011-26號

晉州市 上大洞 安守中

위의 사람은 2009年 9월부터 2011年 11월까지 實施한 晉州鄉校 小學 講座科程의 總務로써 獻身 奉仕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2(2011)年 11月 28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韓基仁

● 表彰牌

第2012-1號 / 儒道會 晉州支部 事務局長 鄭基敏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2-2號 / 晉州鄉校 掌議 金幸布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2-3號 / 晉州鄉校 掌議 河泰午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말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2-3號 / 晉州女性儒道會 會長 李順子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말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2-4號 / 晉州鄉校 掌議 許再洙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말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표창장

제2012-1호 / 진주칠암어린이집 교사 정향경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칠암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노력하였으므로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표창장을 드립니다.

서기 2012年 2月 9日 진주향교 전교·진주시충효교육 원장 한 기 인

● 表彰牌

第2012-38號 /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晉州鄉校의 典校로서 鄉校發展과 忠孝教育院 運營에 寄與한 功績이 至大하였기에 離任에 즈음하여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3(2012)年 1月 31日 成均館長 崔根德

● 功勞牌

第2012-2號 / 晉州鄉校 典校 韓基仁

貴下께서는 2007年부터 5年間 儒道會長 忠孝教育院長 兼 典校로 在任하시는 동안 豊富한 徑輪과 卓越한 能力으로 熱誠을 다하여 文化體育觀光部 示範鄉校指定運營, 鄉校 施設擴充, 忠孝教育院 프로그램 開發 等, 鄉校發展과 忠孝教育院 活性化에 寄與한 功績이 至大하였기에 退任에 즈음하여 全 儒林의 精誠을 모아 功勞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3月 2日 晉州鄉校 儒林一同

● 表彰狀

第2012-3號 / 晉州市 株藥洞 朱賢美

위의 사람은 2011年 12月부터 2012年 6月까지 實施한 茶道 禮節 講座課程의 總務로서 獻身 奉仕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6月 19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鄭鎬英

● 表彰狀

第2012-4號 / 晉州市 상대동 林玉順

위의 사람은 2011年 12月부터 2012年 6月까지 實施한 茶道 禮節 講座課程의 模範者로서 獻身 奉仕하였으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6月 19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鄭鎬英

● 健康長壽牌

第2012-17號 / 晉州市 一班城面 金讚碩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後裔로서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健康 長壽하였기에 第12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9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健康長壽牌

第2012-18號 / 晉州市 大谷面 尹瑞鉉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後裔로서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健康 長壽하였기에 第12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9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孝婦牌

第2012-19號 / 晉州市 金谷面 權善子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15年 동안 病床의 媿母를 至極精誠으로 看護하였으며 雪上加霜으로 交通事故를 당한 남편까지 4年을 看病하며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으로써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第12回 耆老宴을 맞이하여 孝婦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9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感謝牌

第2012-20號 / 장생도라지 研究院長 李 聖 鎬

院長께서는 平素 敬老孝親 思想을 지닌 儒家의 後裔로서 社會淨化와 倫理道德性 恢復에 盡力하였으며 每年 耆老宴시 어른을 위한 精誠을 다하였으므로 第12回 耆老宴을 맞이하여 고마운 뜻을 이 牌에 담아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9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 鎬 英

● 儒林指導者賞

第2012-20號 / 晉州鄉校 常任元老 韓 基 仁

松山 常任元老께서는 2009. 3. 1~2012. 2. 28까지 晉州鄉校 典校 在任 中 透徹한 使命感을 가지고 忠孝教育院, 歷史觀設置, 홍살문복원, 示範鄉校 育成 等 많은 業績을 남겼으며 特히 成均館과 慶南鄉校典校協議會 副會長의 所任을 맡아 儒敎文化暢達과 斯文振作에 寄與한 功이 크므로 財團法人 佳亭 鄭煥麒 獎學財團理事長의 後援을 받아 儒林指導者賞을 드립니다.

孔紀 2563(2012)年 9月 22日 晉州鄉校 典校 鄭 鎬 英

● 表彰牌

第2013-30號 / 晉州鄉校 李 翊 基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4(2013)年 2月 25日 成均館長 崔 根 德

● 表彰牌

第2013-31號 / 晉州鄉校 高 永 玉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4(2013)年 2月 2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3-32號 / 晉州鄉校 河淑姬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4(2013)年 2月 2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牌

第2013-33號 / 晉州鄉校 河陳奎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4(2013)年 2月 25日 成均館長 崔根德

● 表彰狀

儒教新聞 第2013-044號 / 晉州鄉校 沈東燮

上記人은 第4期 儒教新聞社 慶尙南道 駐在記者를 歷任하는 동안 取材活動에 邁進했으며, 平素 好學하고 敦篤한 慕聖之心으로 儒林文化暢達에 率先垂範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으므로 그 功績을 昂揚하여 이 表彰狀을 수여합니다.

孔紀 2564(2013)年 7月 5日 (株)儒教新聞社 代表理事 魚躍

● 儒林指導者賞

第2012-28號 / 晉州市 二班城面 龍岩里 119 鄭奎燮

農雲 元老께서는 國家有功者로서 晉州鄉校 典校, 成均館 副館長, 顧問職을 거치면서 儒教文化 暢達과 斯文振作에 努力하여 晉州市民賞을 受賞하고 晉州市 忠孝教育院, 設

置運營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至大함으로 第13回 耆老宴을 맞아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9月 14日 晉州鄉校 典校 鄭 鎬 英

● 健康長壽牌

第2013-26號 / 晉州市 南江路951 成 煥 圖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바 크므로 제13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9月 14日 / 晉州鄉校 典校 鄭 鎬 英

● 健康長壽牌

第2013-27號 / 晉州市 平居洞 姜 錫 周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바 크므로 제13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9月 14日 晉州鄉校 典校 鄭 鎬 英

● 표창패

제2013-24호 / 진주시 향교로 3 임 돌 순

귀하께서는 뇌병변 1급 장애로 우측마비 및 언어장애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자녀 2명을 훌륭하게 길러 타의 귀감이 되므로 제13회 기로연을 맞아 표창패를 드립니다.

공기 2564(2013)年 9月 14日 진주향교 전교 정 호 영

● 표창패

제2013-25호 / 진주시 의곡길 30번길 19-10 박 만 길

귀하께서는 2006년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측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가운데 치매증상까지 있는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 타의 귀감이 되므로 제13회 기로연을 맞아 표창패를 드립니다.

공기 2564(2013)年 9月 14日 진주향교 전교 정호영

● 功勞賞

第2013-29號 / 晉州市 上大洞 鄭玉永

貴下는 本 敎育院에서 開設한 經書班 孟子講座(2012. 2~2013. 12)의 受講生 代表로서 갖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功勞賞을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12月 26日 晉州郷校 典校·晉州市忠孝敎育院長 鄭鎬英

● 表彰狀

第2013-30號 / 晉州市 二峴洞 陳永業

貴下는 本 敎育院에서 開設한 經書班 孟子講座(2012. 2~2013. 12)를 受講함에 있어 勤勉誠實하고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12月 26日 晉州郷校 典校·晉州市忠孝敎育院長 鄭鎬英

● 表彰狀

第2013-31號 / 晉州市 上鳳西洞 河大達

貴下는 本 敎育院에서 開設한 經書班 孟子講座(2012. 2~2013. 12)를 受講함에 있어 勤勉誠實하고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12月 26日 晉州郷校 典校·晉州市忠孝敎育院長 鄭鎬英

● 表彰狀

第2013-32號 / 晉州市 上鳳西洞 金炳琪

貴下는 本 敎育院에서 開設한 經書班 孟子講座(2012. 2~2013. 12)를 受講함에 있어 勤勉誠實하고 獻身 奉仕하여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12月 26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鄭 鎬 英

● 感謝狀

第2013-33號 / 慶尙大學校 教授 李 相 弼

貴下는 本 教育院에서 開設한 經書班 孟子講座(2012. 2~2013. 12)를 講議 함에 있어 熱과 誠을 다하여 獻身的으로 講義하였으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에 답아 드립니다.

孔紀 2564(2013)年 12月 26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鄭 鎬 英

● 表彰狀

第2014-21號 / 晉州鄉校 鄭 東 勳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5(2014)年 2月 13日 成均館 代表 洪 起 平

● 表彰狀

第2014-22號 / 晉州鄉校 姜 三 秀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5(2014)年 2月 13日 成均館 代表 洪 起 平

● 表彰狀

第2014-23號 / 晉州鄉校 鄭 玉 永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5(2014)年 2月 13日 成均館 代表 洪起平

● 表彰狀

第2014-24號 / 晉州鄉校 黃慶圭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5(2014)年 2月 13日 成均館 代表 洪起平

● 儒林大賞

第2014-20號 / 晉州市 新安洞 韓善愚

椿潭元老께서는 成均館 儒道會 晉州支部 會長과 晉州鄉校 典校職을 거치면서 儒教文化 暢達과 斯文振作에 努力하였으며 忠孝教育院 活性化와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크므로 第14回 耆老宴을 맞아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5(2014)年 9月 13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健康長壽牌

第2014-21號 / 晉州市 二峴洞 李鍾鎬

어른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바 크므로 제14회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5(2014)年 9月 13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健康長壽牌

第2014-22號 / 晉州市 上坪洞 姜일淳

어른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바 크므로 제14회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5(2014)年 9月 13日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 孝子牌

第2014-193號 / 晉州市 二班城面 河陳奎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便한 老母의 病患을 地極 精誠으로 看護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孝子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5(2014)年 9月 13日 成均館長 徐正洪

● 孝子牌

第2014-194號 / 晉州市 上坪洞 朴京大

위 사람은 天性이 敦厚하여 儒敎의 孝 倫理를 敦篤히 實踐함에 있어 舉動不便한 老母의 病患을 地極 精誠으로 看護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孝子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5(2014)年 9月 13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7號 / 晉州鄉校 陳永業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6(2015)年 1月 29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8號 / 晉州鄉校 高永玉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6(2015)年 1月 29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9號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鄭宰圭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耆老宴 時 儒林 指導者와 孝子 孝婦를 發掘하여 施賞하는데 많은 誠意를 표하는 等 鄉校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6(2015)年 1月 29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10號 / 晉州女性儒道會 李春枝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 努力하였으며 特히 맡은바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等 鄉校와 女性儒道會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牌를 수여합니다.

孔紀 2566(2015)年 1月 29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20號 / 晉州鄉校 鄭鎬英

위의 사람은 진주향교 전교로 재임 중 시문진작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갖은 어려움을 무릎쓰고 대성전과 동무를 전면 보수하였으며 階段 난간설치와 대성전 중앙 계단 설치 등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충효교육원을 알차게 운영하여 연간 8,000여 명의 인성교육을 實施하여 그 공적이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3月 2日 成均館長 徐正洪

● 表彰牌

第2015-21號 / 成均館儒道會 晉州支部 會長 姜永奎

위의 사람은 成均館 儒道會 晉州支部 會長으로서 在任 中 갖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慶

南儒教大學 運營과 晉州牧鄉試, 傳統婚禮 等を 再現하여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하는데 寄與한 功績이 至大함으로 이에 表彰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3月 2日 成均館長 徐正洪

● 功勞牌

第2015-1號 / 晉州鄉校 典校 鄭鎬英

貴下께서는 2012년부터 3年間 典校 兼 忠孝教育院長으로 在任하시는 동안 豊富な 徑輪과 卓越한 能力으로 熱誠을 다하여 鄉校施設擴充, 忠孝教育院 프로그램 開發 等, 鄉校 發展과 忠孝教育院 活性化에 寄與한 功績이 크므로 退任에 즈음하여 全 儒林의 精誠을 모아 功勞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3月 2日 晉州鄉校 儒林一同

● 功勞牌

第2015-2號 / 成均館 儒道會 晉州支部 會長 姜永奎

貴下께서는 2012년부터 3年間 儒道會長 兼 慶南儒教大學 學長으로 在任하시는 동안 豊富な 徑輪과 卓越한 能力으로 熱誠을 다하여 儒教大學 活性化에 寄與한 功績이 크므로 全 儒林의 精誠을 모아 功勞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3月 2日 成均館 儒道會 晉州支部 會員一同

● 孝婦牌

第2015-1542號 / 晉州市 鳳谷洞 鄭壬順

貴下께서는 天性이 孝順하고 勤勉誠實하여 媳父母를 同居奉養하고 昏定晨省的 道理를 다하며 至極精誠으로 慶親奉養하고 家庭의 和睦을 敦厚하게 하였으며, 子女訓育에 龜鑑이 되어 四隣과 儒林에게 稱訟이 자자함으로 表彰하여 이 孝婦牌를 授與합니다.

孔紀 2566(2015)年 6月 15日 成均館長 徐正洪

● 儒林大賞

第2015-26號 / 晉州市 株藥洞 成 煥 喆

毓山 元老께서는 成均館 儒道會 晉州支部 會長과 晉州鄉校 常任元老職을 거치면서 忠孝教育院 活性化와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크므로 第15回 耆老宴을 맞아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9月 19日 晉州鄉校 典校 沈 東 燮

● 健康長壽牌

第2015-27號 / 晉州市 二班城面 韓 基 洪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 바 크므로 제15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9月 19日 晉州鄉校 典校 沈 東 燮

● 健康長壽牌

第2015-28號 / 晉州市 美川面 林 鎔 道

어르신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教化에 寄與한 바 크므로 제15回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를 드립니다.

孔紀 2566(2015)年 9月 19日 晉州鄉校 典校 沈 東 燮

● 表彰狀

第2016-29號 / 晉州鄉校 尹 永 洙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습니다.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2月 18日 成均館長 職務代行 黃 炳 權

● 表彰狀

第2016-30號 / 晉州鄉校 姜元基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습니다.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2月 18日 成均館長 職務代行 黃炳權

● 表彰狀

第2016-31號 / 晉州鄉校 成碩基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습니다. 特히 慶南 儒敎大學 學務局長으로서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2月 18日 成均館長 職務代行 黃炳權

● 表彰狀

第2016-32號 / 晉州鄉校 文炯竣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高校 校監으로서 鄉校와 MOU를 締結하여 靑少年 人性禮節敎育에 心血을 기우렸으며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과 後世敎育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2月 18日 成均館長 職務代行 黃炳權

● 表彰狀

第2016-33號 / 晉州鄉校 尹敬淑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晉州市 忠孝敎育院 專任講師로서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과 後世敎育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2月 18日 成均館長 職務代行 黃炳權

●表彰狀

第2016-130號 / 晉州鄉校 姜元泰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表彰狀

第2016-131號 / 晉州鄉校 李鶴鎭

貴下는 晉州 儒道會長으로써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와 儒道會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表彰狀

第2016-132號 / 晉州鄉校 朴鍾植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表彰狀

第2016-133號 / 晉州鄉校 韓萬俊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

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第2016-134號 / 晉州鄉校 許鍾鐵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努力하였고 特히 慶南儒敎大學 學生會長과 同窓會長을 맡아 獻身의으로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第2016-135號 / 晉州鄉校 許斗扞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7月 2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晉鄉第2016-3號 / 晉州市 鳴石面 廣濟山路 洪正淑

上記人은 晉州鄉校 女性 儒道會員으로써 맡은바 業務를 充實히 修行함은 물론 각종 鄉校 行事時 빠짐없이 參席하여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儒敎文化 復興과 道德性 回復에 앞장서 他的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8月 17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沈東燮

● 表彰狀

晉鄉第2016-4號 / 晉州市 鄉校路 109 宋美玉

上記人은 晉州鄉校 女性 儒道會員으로써 맡은바 業務를 充實히 修行함은 물론 각종

鄉校 行事時 빠짐없이 參席하여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儒敎文化 復興과 道德性 回復에 앞장서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8月 17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沈 東 燮

● 表彰狀

晉鄉第2016-5號 / 晉州市 晉陽湖路 572 / 金 京 子

上記人은 晉州鄉校 女性 儒道會員으로써 맡은바 業務를 充實히 修行함은 물론 각종 鄉校 行事時 빠짐없이 參席하여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儒敎文化 復興과 道德性 回復에 앞장서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8月 17日 晉州鄉校 典校·晉州市忠孝教育院長 沈 東 燮

● 表彰狀

第2016-135號 / 晉州鄉校 鄭 秉 禧

貴下는 鄉校의 顧問으로써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8月 23日 成均館長 魚 潤 慶

● 孔夫子孝行賞

晉州鄉校 鄭 奎 燮 / 1928년 5月 13日生

孔紀 2567(2016)年 9月 2日 成均館長 魚 潤 慶

● 孝子牌

第2016-171號 / 孝子 成 在 均

貴下는 昌寧華閥의 後裔로 平素 敦厚한 品性과 透徹한 慕聖之心으로 敎職에 從事하여 高校校長 等を 歷任하였으며 儒敎發展에 努力하고 있는바, 七兄弟 中 五男으로 九十歲가 넘는 老父母를 모시며 至極精誠으로 奉養하였는바 鄉黨과 遠近에서 孝順을 稱誦

하여 綱常扶植에 龜鑑이 되었으므로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孝子牌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7(2016)年 9月 10日 成均館長 魚潤慶

● 孝婦牌

第2016-172號 / 孝婦 金時粉

貴下는 金海華閩의 後裔로서 誠敬孝順之道를 배워 密陽 朴鍾權과 婚姻하여 宗婦의 所任인 奉祭祀와 接賓客에 盡力하고 子女訓育과 親族間 敦睦에 率先垂範하였으며 半百年 동안 九十歲가 넘는 老媳母를 至極精誠으로 奉養하여 鄉黨과 遠近에서 그 孝順을 稱誦하여 綱常扶植에 龜鑑이 되었으므로 孝婦牌을 授與합니다.

孔紀 2567(2016)年 9月 10日 成均館長 魚潤慶

● 儒林大賞

第2016-6號 / 晉州市 寺奉面 鄭鎬英

隅崗 常任元老께서는 晉州市 忠孝教育院長과 晉州鄉校 典校職을 거치면서 儒敎文化 暢達과 斯文振作에 努力하였으며 忠孝教育院 活性化와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크므로 第16回 耆老宴을 맞아 이 牌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9月 10日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 健康長壽牌

第2016-7號 / 晉州市 板門洞 李秉道

守窩 顧問께서는 平素 敦篤한 崇慕之心을 지닌 儒家의 傳統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孝悌忠信을 몸소 實踐하시고 儒林 文化向上과 風俗敎化에 寄與한 바 크므로 제16회 耆老宴을 맞아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이 牌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9月 10日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 表彰狀

第2016-228號 / 晉州鄉校 河永載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10月 1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第2016-229號 / 晉州鄉校 李坤政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10월 1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第2016-230號 / 晉州鄉校 李容燮

貴下는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으며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鄉校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10월 10日 成均館長 魚潤慶

● 表彰狀

晉鄉第2016-8號 / 晉州市 琴山面 河天龍

上記人은 成均館 典學과 儒道會 支會長으로써 맡은바 業務를 充實히 修行함은 물론 각종 鄉校 行事時 빠짐없이 參席하여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儒敎文化 復興과 道德性 回復에 앞장서 他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11月 14日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 表彰狀

晉鄉第2016-9號 / 晉州市 晉城面 李閔浩

上記人은 本 鄉校 儒林으로써 맡은바 業務를 充實히 修行함은 물론 각종 行事時 빠짐없이 參席하여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儒敎文化 復興과 道德性 回復에 앞장서 他

의 龜鑑이 되므로 이에 表彰狀을 드립니다.

孔紀 2567(2016)年 11月 14日 晉州鄉校 典校 沈東燮

● 表彰狀

第2016-146號 / 晉州鄉校 梁周鎬

貴下는 晉州鄉校의 會員과 成均館 典學으로써 平素 勤勉하고 敦厚한 稟性으로 斯文 振作에 獻身努力하였고 特히 職務를 誠實히 完遂하는 등 儒林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였기에 晉州鄉校의 推薦으로 이 表彰狀을 授與 합니다.

孔紀 2567(2016)年 11月 29日 成均館長 魚潤慶

● 感謝牌

第181號 / 晉州鄉校

좋은세상을 통한 아름다운 기부 실천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 뜻에 감사드리며 이 패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진주시장 이창희

第3節 歷代 晉州任官

목사(牧使)

손 소(孫昭)	이 우(李堦)	한사개(韓士介)	신 한(申漢)
김광진(金光軫)	서 위(徐偉)	민 전(閔詮)	김 홍(金泓)
이희백(李希白)	노 정(蘆汀)	장문보(張文輔)	박승임(朴承任)
최응룡(崔應龍)	이억상(李億祥)	양응정(梁應鼎)	구 변(具忭)

고경진(高景軫)	이제민(李齊閔)	이제신(李濟臣)	이현배(李玄培)
이 선(李 選)	임윤신(任允臣)	김제갑(金悌甲)	이 준(李 準)
신 점(申 點)	이유인(李裕仁)	최 립(崔 昱)	

- 이 경(李 璈) 임진년 4월에 왜란을 당하여 지리산으로 피하여 들어갔다가 소남(召南)에서 병들어 별세하였다.
- 김시민(金時敏) 임진년 10월에 적을 물리치고 성을 온전히 하였다. 관관에서 목사로 올랐는데 적의 탄환에 맞아 순절하였다.
- 서례원(徐禮元) 계사년에 적으로 인하여 성이 함락되자 관관 성수경(成守慶)과 함께 순절하였다.
- 박종남(朴宗男) 성이 함락된 뒤에 관사가 형상조차 없어지니 가귀곡에서 임시로 불 이어 있었다.
- 이기빈(李箕賓) 배설(裴榭) 곽재우(郭再祐) 성윤문(成允文)成大業)
- 나정언(羅廷彦) 정유년의 난에 군사를 이끌고 적을 물리칠 때에 들을 비우고 정개산성(鼎蓋山城)으로 들어갔다가 적이 성 아래에 이르니 진을 버리고 달아났다.
- 이 현(李 玆) 만력(萬曆) 정유년(선조 31, 1597)에 가수(假守:임시직)으로서 북면(北面) 단지동(丹池洞)에 와서 우거(寓居)하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목사가 되고 적이 경내에 충만함에 성주(星州)로 가서 불이어 출입하면서 적을 토벌한 다음 기해년(1599)에 본주(本州)로 돌아왔다.
- 윤열(尹悅), 김명윤(金明胤), 원사립(元士立), 구사직(具思稷)

관관(判官)

선조 계묘년(선조 36, 1603)에 병사 이수일(李守一)이 합포영(合浦營)을 본주(本州)에 옮기고 병사로써 목사를 겸하게 하여 관관을 그만두게 하였더니 인조 경오년(인조 8,

1630)에 이르러 민원으로 인하여 다시 판관을 두었고 갑술년(인조12, 1634)에는 판관을 폐하게 하고 다시 목사를 두었다.

- 곽천구(郭天衢) 경오년(인조 8, 1630)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김종일(金宗一) 경오년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윤좌벽(尹左辟) 경오년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이상협(李尙謙) 신미년(인조 9, 1631)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조공숙(趙公淑) 임신년(인조 10, 1632)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이여익(李汝翊) 임신년에 왔다가 갑술년(인조 12, 1634)에 갔다.
- 박돈복(朴敦馥) 갑술년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고 이어 혁파(革罷)하였다.

병사(兵使)

- 이수일(李守一) 만력(萬曆) 계묘년(선조 36, 1603)에 축석성(矗石城)을 중축하고 을사년에 길주(吉州牧使)로 갔다.
- 오정방(吳定邦) 만력(萬曆) 을사년에 와서 병오년(선조39, 1606)에 갔다.
- 김태허(金太虛) 만력(萬曆) 병오년에 와서 무신년(선조41, 1608)에 갔다.
- 한희길(韓希吉) 만력(萬曆) 무신년(선조 41, 1608)에 왔다가 이해에 갔다.
- 최 렬(崔 濂) 만력(萬曆) 무신년에 와서 기유년(광해군 1, 1609)에 갔다.
- 임득의(林得義) 만력(萬曆) 기유년에 와서 신해년(광해군 3, 1611)에 갔다.
- 윤선정(尹先正) 만력(萬曆) 신해년에 와서 계축년(광해군 5, 1613)에 갔다.
- 류지신(柳止信) 만력(萬曆) 병진년(광해군 8, 1616)에 갔다.
- 정기룡(鄭起龍) 만력(萬曆) 병진년에 와서 정사년(광해군 9, 1617)에 통제사로 갔다.
- 남이흥(南以興)
- 류지신(柳止信) 만력(萬曆) 기미년(광해군11, 1619)에 왔다가 임술년(광해군 14, 1622)에 갔다.

- 이응해(李應解) 임술년에 왔다가 계해년(인조1, 1623)에 갔다.
- 신경유(申景裕) 계해년에 왔다가 을축년(인조3, 1625)에 갔다.
- 조기(趙琦), 허완(許完), 박상(朴瑄), 이익(李楹), 신경원(申景瑗), 정봉수(鄭鳳壽), 류순무(柳舜懋), 정충신(鄭忠信), 류승서(柳承瑞) 이상 아홉 분은 목사를 겸했으므로 그 왔다가 간 년조(年條)는 목사 아래에 보인다. 이하에 실은 제공(諸公)은 명안(名案)을 잃었으므로 얻는 대로 따라 기록하니 선후가 자세하지 못하다.
- 안몽운(安夢尹), 조계태(趙啓泰), 최진한(崔鎭漢), 김정우(金廷遇), 이정필(李廷弼), 윤득목(尹得達), 전대현(田大顯), 오재휘(吳載徽), 이건수(李健秀), 백사은(白師闇), 이홍운(李弘運), 홍인묵(洪仁默), 안숙(安櫛) 병학지남(兵學指南)을 간행하였다.
- 이백연(李柏然) 조계(趙啓) 이신경(李身敬) 류상량(柳相亮) 백동운(白東運) 원영주(元永胄) 박기풍(朴基豐) 오문상(吳文常) 권탁(權達) 박응호(朴應浩) 이상겸(李尙謙) 남석구(南錫九) 류상필(柳相弼) 이인달(李仁達) 안광찬(安光贊) 이희보(李熙輔) 이유상(李儒常) 조원석(趙元錫) 김건(金健) 이응서(李應緒) 정태동(鄭泰東) 정택선(鄭宅善) 박낙신(朴樂莘) 이형하(李亨夏) 이종혁(李鍾赫) 류광노(柳光魯) 윤수봉(尹守鳳) 신명순(申命淳) 이경준(李敬俊) 이주응(李周膺) 임상준(林商準) 신호철(申孝哲) 정운성(鄭雲星) 조희찬(趙義贊) 조희승(趙熙升) 백남익(白南益) 한규와(韓圭窩) 정기택(鄭基澤) 채규상(蔡圭常) 서정규(徐廷圭) 민준호(閔俊鎬) 박규희(朴圭熙) 이항의(李恒儀)

영장겸토포사(營將兼討捕使)

명안(名案)이 실전(失傳)되었다.

우후(虞候)

명안(名案)이 실전(失傳)되었다.

관찰사(觀察使)

선조 임진년에 본도를 나누어서 좌우도를 두고 김성일(金誠一)로 우도관찰사를 삼아서 본영을 다스리게 하다가 다시 대구에 합하였다. 그 뒤 고종 을미년(고종 31, 1895)에 다시 남북도로 나누어 만들고 병사를 폐하면서 관찰사를 두었다.

- 최병필(崔秉弼) 이항의(李恒儀) 조시영(曹始永) 이지용(李址鎔) 김영덕(金永憲) 이재현(李載現) 이윤용(李允用) 민형식(閔衡植) 김학수(金學洙) 성기운(成岐運) 민영선(閔泳璇) 조민희(趙民熙) 김사묵(金思默) 황철(黃鐵)

명신(名臣) 이름난 고위관리

● 신라(新羅)

- 향 영(向 榮) 헌덕왕(第四一年代) 때에 청주도독(靑州都督)이 되었던 헌창(憲昌)이 자기편에 붙도록 하였으나 향영은 몸을 빼어 달아나서 적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 김 혼(金 昕) 헌덕왕 때에 강주도독(康州都督)이 되었다.
- 북 세(福 世) 신문왕 5년에 청주총관(靑州摠管)이 되었다.
- 김 암(金 巖) 강주태수(康州太守)다. 김유신(金庾信)의 후손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강주(康州)를 지킴에 진심으로 백성을 무육(撫育)하고 병법으로써 가르쳤다. 일찍이 황충(蝗蟲)이 있어 김암(金巖)이 산정(山頂)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제사하니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황충이 모두 다 죽었다.
- 왕봉규(王逢規) 경애왕 때에 권지강주사(權知康州事)가 되었던 뒤예 당나라 명종이 회화대장군 지강주사(懷化大將軍 知康州事)로 삼았다.

● 고려(高麗)

- 왕 해(王 諧) 부사리(副使吏)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더니 동도유수(東都留守)로 옮겨가게 되며 진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머물기를 원하다가 드디어 조정에 간곡히 빌어 말하기를 “우리의 왕군(王君)을 일년만 더 빌려 주소서”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임(舊任)대로 회복되었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청백하며 모든 계획하는 바가 백성을 편안케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 김 준(金 峻) 사록이 되었더니 청백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옮겨가서 좌습유지제고(左拾遺知製誥)가 되었다.
- 임민비(林民庇) 의종 때에 군수가 되었다.
- 채 정(蔡 靖) 신종 때에 목사가 되었다.
- 이행검(李行儉) 고종조에 사록이 되었다.
- 김광재(金光宰) 고종조에 부사가 되었다.
- 안 진(安 震) 통관이 되었다.
- 이 우(李 瑀) 재간(材幹)이 있어 사신으로 났는데 유애(遺愛:남긴 업적)이 있다.
- 배극렴(裵克廉) 목사가 되었다.
- 설장수(契長壽) 목사가 되었다.

● 조선(朝鮮)

- 안노생(安魯生)
- 조세안(趙世安)
- 임인산(林仁山)
- 정 사(鄭 賜)
- 인지귀(安知歸)
- 이영견(李永肩) 모두 목사가 되었다.
- 손 소(孫 昭) 목사가 되어 옥송(獄訟)을 잘 판단하고 정사가 너그러우니 백성들이 사모하였다.
- 이 우(李 瑀) 목사가 되어 청렴하고 간결함으로 다스렸다.

(위의 24인은 승람에 보인다.)

● 추록(追錄)

- 김광진(金光軫)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 김 홍(金 泓) 학교를 일으키고 농상을 권장하였다.
- 노 진(盧 禎) 정사에 앞서 덕교(德教)를 먼저하였다.
- 장문보(張文輔)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 박승임(朴承任)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권장하였다.
- 이수일(李守一) 청간(淸簡)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 최응룡(崔應龍) 정사를 부지런히 하고 학문을 독려하였다.
- 양응정(梁應鼎) 정사에 어진 술책을 쓰고 문학을 일으켰다.
- 이유인(李裕仁) 청간(淸簡)하고 인명(仁明)하였다.
- 신 점(申 點) 백성에게 인자하고 학문을 권장하였다.
- 김태허(金太虛)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권장하였다.
- 남이흥(南以興) 정사에 청렴하고 엄정함을 숭상하였다.
- 조 기(趙 琦) 인조 을축년(인조3, 1625)에 와서 정묘년(1627)에 갔다. 아래 류승서(柳承瑞)에 이르기까지는 병사로써 목사를 겸하였다.
- 허 완(許 完) 정묘년에 와서 무진년(인조6, 1628)에 갔다.
- 박 상(朴 璫) 무진년에 와서 경오년(인조 8, 1630)에 갔다.
- 이 익(李 楹) 경오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신경원(申景瑗) 경오년에 와서 신미년(인조 9, 1631)에 갔다.
- 정봉수(鄭鳳壽) 신미년에 와서 계유년(인조 11, 1633)에 갔다.
- 유순무(柳舜懋) 계유년에 와서 갑술년(인조 12, 1634)에 별세하였다.
- 정충신(鄭忠信) 갑술년에 와서 을해년(인조 13, 1635)에 갔다.
- 류승서(柳承瑞) 을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영식(李永式) 을해년에 와서 병자년(인조 14, 1636)에 갔다.
- 신익량(申翊亮) 병자년에 와서 정축년(인조 15, 1637)에 갔다.

- 황일호(黃一皓) 정축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임 동(林 棟) 정축년에 와서 무인년(인조 16, 1638)에 갔다.
- 조석윤(趙錫胤) 무인년에 와서 기묘년(인조 17, 1639)에 갔다.
- 이소한(李昭漢) 기묘년에 와서 신사년(인조 19, 1641)에 갔다. 인신(印信)을 개조하였다.
- 강대수(姜大濬) 임오년(인조 20, 1642)에 와서 계미년(인조 21, 1643)에 갔다. 고을의 선생안(先生案)을 닦았다.
- 조유도(趙有道) 계미년에 와서 을유년(인조 23, 1645)에 갔다.
- 오 빈(吳 飜) 을유년에 와서 병술년(인조 24, 1646)에 갔다. 벽오당(碧梧堂)과 채봉각(彩鳳閣)을 세웠다.
- 김 소(金 素) 무자년(인조 26, 1648)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정호인(鄭好仁) 무자년에 와서 효종 경인년(효종 1, 1650)에 갔다. 객사(客舍)를 중건하였다.
- 이이존(李以存) 경인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상일(李尙逸) 경인년에 와서 정유년(효종 5, 1654)에 갔다.
- 이후선(李厚先) 을미년에 와서 정유년(효종 8, 1657)에 갔다. 향교를 비봉산(飛鳳山) 아래에서 이건하였다.
- 성이성(成以性) 정유년에 와서 무술년(효종 9, 1658)에 갔다.
- 정기풍(鄭基豐) 무술년에 와서 기해년(효종 10, 1659)에 갔다.
- 이지형(李之馨) 기해년에 와서 경자년(현종 1, 1660)에 갔다. 군기고(軍器庫)를 이건하였다.
- 남천택(南天澤) 현종 경자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규노(李奎老) 신축년(현종 2, 1661)에 와서 임인년(현종 3, 1662)에 갔다.
- 정시성(鄭始成) 임인년에 와서 계묘년(현종 4, 1663)에 갔다.
- 최문식(崔文湜) 계묘년에 와서 갑진년(현종 5, 1664)에 갔다.
- 이극성(李克誠) 갑진년에 와서 을사년(현종 6, 1665)에 갔다.
- 장 건(張 鍵) 을사년에 와서 병오년(현종 7, 1666)에 갔다.

- 김운장(金雲長) 병오년에 와서 정미년(현종 8, 1667)에 갔다. 객사(客舍)를 중건하였다.
- 김덕원(金德遠) 신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강여말(姜汝屎) 무신년(현종 9, 1668)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류지방(柳之芳) 무신년에 와서 기유년(현종 10, 1669)에 갔다.
- 최응천(崔應天) 기유년에 와서 신해년(현종 12, 1671)에 갔다. 객사(客舍)를 중건하였다.
- 김하량(金廈樑) 신해년에 와서 계축년(현종 14, 1673)에 갔다. 벽오당(碧梧堂), 조양각(朝陽閣), 의곡사(義谷寺)를 세웠다.
- 남몽뢰(南夢賚) 계축년에 와서 을묘년(숙종 1, 1675)에 갔다. 동헌(東軒)을 중건하고 이어 벽오당(碧梧堂)이라 이름하였으며 또 작청(作廳)을 세웠다.
- 윤형성(尹衡星) 숙종 을묘년(숙종 1, 1675)에 와서 병진년(숙종 2, 1676)에 갔다.
- 이 익(李 翊) 병진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최진남(崔鎭南) 정사년(숙종 3, 1677)에 와서 무오년(숙종 4, 1678)에 갔다.
- 윤 계(尹 墀) 무오년에 와서 경신년(숙종 6, 1680)에 갔다. 비봉루(飛鳳樓)를 세웠다.
- 이하진(李夏鎭) 경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유하겸(兪夏謙) 경신년에 와서 신유년(숙종 7, 1681)에 갔다.
- 장 진(張 鎭) 신유년에 와서 임술년(숙종 8, 1682)에 갔다.
- 원진택(元振澤) 임술년에 와서 갑자년(숙종 10, 1684)에 갔다.
- 김태일(金兌一) 을축년(숙종 11, 1685)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대동청(大同廳)을 중건하였다.
- 한 구(韓 構) 병인년(숙종 12, 1686)에 와서 정묘년(숙종 13, 1687)에 갔다. 객사(客舍)를 중수하고 도장을 개조하였다.
- 이국방(李國芳) 정묘년에 와서 기사년(숙종 15, 1689)에 갔다.
- 임 당(任 堂) 기사년에 와서 신미년에 갔다.
- 임홍량(任弘亮) 신미년(숙종 17, 1691)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송광연(宋光淵) 임신년(숙종 18, 1692)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의징(趙義徵) 임신년에 와서 계유년(숙종 19, 1693)에 갔다.
- 채헌징(蔡獻徵) 계유년에 와서 갑술년(숙종 20, 1694)에 갔다.
- 안세징(安世徵) 갑술년에 와서 병자년(숙종 22, 1696)에 갔다.
- 남지훈(南至薰) 병자년에 와서 정축년(숙종 23, 1697)에 갔다.
- 윤유기(尹悠期) 정축년에 와서 기묘년(숙종 25, 1699)에 갔다.
- 정 추(鄭 推) 기묘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인석(李寅錫) 기묘년에 와서 경진년(숙종 26, 1700)에 갔다.
- 임두세(林斗世) 경진년에 와서 임오년(숙종 28, 1702)에 갔다. 아사(衙舍)를 벽오당(碧梧堂)의 옛 터에 이건하였다.
- 김시경(金始慶) 임오년에 와서 계미년(숙종 29, 1703)에 갔다. 서쪽 4면(四面)을 하동(河東)에 분속(分屬)시켰다.
- 유봉징(柳鳳徵) 계미년에 와서 갑신년(숙종 30, 1704)에 갔다.
- 홍경렴(洪景濂) 갑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정충단(旌忠壇)과 창렬사(彰烈祠)를 이건(移建)하였다.
- 이익년(李翼年) 을유년에 와서 병술년(숙종 32, 1706)에 별세하였다.
- 신 규(申 奎) 정해년(숙종 33, 1707)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 온(趙 溫) 정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심 방(沈 枋) 기축년(숙종 35, 1709)에 와서 신묘년(숙종 37, 1711)에 별세하였다. 보민창(補民倉)과 반성창(班城倉)을 중수하였다.
- 정우주(鄭宇柱) 신묘년에 와서 계사년(숙종 39, 1713)에 갔다.
- 권시경(權始經) 계사년에 와서 병신년(숙종 42, 1716)에 갔다.
- 오명희(吳命禧) 병신년에 와서 정유년(숙종 43, 1717)에 갔다.
- 이규년(李奎年) 정유년에 와서 기해년(숙종 45, 1719)에 갔다.
- 김기지(金器之) 경종 신축년(경종 1, 1721)에 왔다.
- 황 류(黃 瀏) 임인년(경종 2, 1722)에 와서 계묘년(경종 3, 1723)에 갔다.
- 황 찬(黃 燦) 계묘년에 와서 갑진년(경종 4, 1724)에 갔다.
- 윤기경(尹基慶) 갑진년에 와서 영조 병오년(영조 2, 1726)에 별세하였다.

- 정필녕(鄭必寧) 병오년에 와서 정미년(영조 3, 1727)에 갔다
- 신후삼(慎後三) 정미년에 와서 무신년(영조 4, 1728)에 갔다.
- 신유익(慎惟益) 무신년에 와서 신해년(영조 7, 1731)에 갔다.
- 구택규(具宅奎) 신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강필경(姜必慶) 신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중관(李重觀) 임자년(영조 8, 172)에 와서 계축년(영조 9, 1733)에 갔다.
- 김우철(金遇喆) 계축년에 와서 을묘년(영조 11, 1735)에 갔다.
- 정언유(鄭彦儒) 을묘년에 와서 정사년(영조 13, 1737)에 갔다.
- 박 준(朴 竣) 정사년에 와서 기미년(영조 15, 1739)에 갔다.
- 이광부(李光溥) 기미년에 와서 신유년(영조 17, 1741)에 갔다. 성전(聖殿)과 동서무(東西廡)를 수리하고 사직(社稷)과 여제사(厲祭祠)를 고쳐 세웠다.
- 김상신(金相伸) 신유년에 와서 임술년(영조 19, 1742)에 갔다.
- 이제담(李齊聃) 임술년에 와서 갑자년(영조 20, 1744)에 갔다.
- 박필여(朴弼餘) 갑자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일서(李日瑞) 을축년(영조 21, 1745)에 와서 병인년(영조 22, 1746)에 갔다. 논 5석6두지(五石六斗地)를 사서 보민창(補民倉)에 부쳐 주었다.
- 김상중(金尙重) 병인년에 와서 정묘년(영조 23, 1747)에 갔다.
- 박필리(朴弼理) 정묘년에 와서 기사년(영조 25, 1749)에 갔다.
- 강필신(姜必慎) 기사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광식(李光湜) 기사년에 와서 경오년(영조 26, 1750)에 갔다.
- 안극효(安克孝) 신미년에 와서 계유년(영조 29, 1753)에 갔다.
- 임경관(任鏡觀) 계유년에 와서 병자년(영조 32, 1756)에 갔다. 해창(海倉)을 이관하였다.
- 이광익(李光瀾) 병자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덕해(李德海) 정축(영조 33, 1757)에 와서 기묘년(영조 34, 1758)에 갔다.
- 윤재겸(尹在謙) 무인년에 와서 기묘년(영조 35, 1759)에 갔다.
- 조덕상(趙德常) 기묘년에 와서 경진년에 갔다. 객사(客舍)를 의봉루(儀鳳樓) 및 조창

(漕倉)을 증건하였다.

- 이 식(李 埴) 임오년에 와서 계미년(영조 39, 1763)에 갔다.
- 서유상(徐有常) 계미년에 와서 을유년(영조 41, 1765)에 갔다.
- 심공유(沈公攸) 병술년(영조 42, 1766)에 와서 무자년(영조 44, 1768)에 갔다.
- 정지익(鄭志翼) 신사년(영조 37, 1761)에 와서 무자년(영조 44, 1768)에 갔다.
- 이성모(李聖模) 무자년에 와서 무자년에 갔다.
- 홍익필(洪益弼) 무자년에 와서 기축년(영조 45, 1769)에 갔다.
- 조덕수(趙德洙) 기축년에 와서 임진년(영조 48, 1772)에 갔다.
- 이명즙(李命楫) 임진년에 와서 갑오년에 갔다. 인구미(人口米) 400석 및 진상하는 인삼 200냥을 자담(自擔)하였다.
- 유언현(俞彦鉉) 갑오년에 와서 기해년(정조 3, 1779)에 갔다.
- 조윤정(曹允精) 기해년에 와서 경자년(정조 4, 1780)에 갔다.
- 윤면원(尹勉遠) 경자년에 와서 임인년(정조 6, 1782)에 갔다.
- 권제응(權濟應) 임인년에 와서 갑진년(정조 8, 1784)에 갔다. 객사(客舍)를 증수하였다.
- 홍병은(洪秉殷) 을사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백규(李白奎) 을사년에 와서 병오년(정조 10, 1786)에 갔다.
- 김리규(金履珪) 정미년(정조 11, 1787)에 와서 기유년(정조 13, 1789)에 갔다.
- 정화순(鄭華淳) 기유년에 와서 경술년(정조 14, 1790)에 갔다.
- 정재원(鄭載遠) 경술년에 와서 임자년(정조 16, 1792)에 별세하였다.
- 박종후(朴宗厚) 임자년에 와서 계축년(정조 17, 1793)에 갔다.
- 이덕현(李德鉉) 갑인년(정조 18, 1794)에 왔다.
- 정동협(鄭東協) 을묘년(정조 19, 1795)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남인노(南寅老) 을묘년에 와서 무오년(정조 22, 1798)에 갔다.
- 윤노동(尹魯東) 기미년(정조 23, 1799)에 와서 경신년(정조 24, 1800)에 갔다. 새로 맞이할 말의 콩값 2027냥을 탕감하고 국휼(國恤)에 진상하는 물가전(物價錢) 300량과 연강(沿江) 칠면(七面)에서 재해를 입은 집이 바칠 조 103석8두(租一百三石八斗)를 모두 자담(自擔)하였다.

- 한대유(韓大裕) 신유년(순조 1, 1801)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원팔(李元八) 신유년에 와서 임술년(순조 2, 1802)에 갔다. 년분(年分)의 지가(紙價) 500여량을 자급하고 각 군적(軍籍)에 백골(白骨:죽은사람)과 황구(黃口:어린이)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을 조사하여 바로 잡았다.
- 김정국(金鼎國) 임술년에 와서 갑자년(순조 4, 1804)에 갔다.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 박종우(朴宗羽) 갑자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정현(趙廷鉉) 갑자년에 와서 병인년(순조 6, 1806)에 갔다.
- 이낙수(李洛秀) 병인년에 와서 무진년(순조 8, 1807)에 갔다.
- 이재노(李在魯) 무진년에 와서 기사년(순조 9, 1808)에 갔다.
- 박성규(朴性圭) 기사년에 와서 같은 해에 별세하였다.
- 윤광악(尹光岳) 기사년에 와서 경오년(순조 10, 1810)에 갔다.
- 홍대연(洪大淵) 경오년에 와서 계유년(순조 13, 1813)에 갔다. 향교의 성전(聖殿)을 이관하였다.
- 김사의(金思義) 계유년에 와서 을해년(순조 15, 1815)에 갔다.
- 이 황(李 潢) 을해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정희(李靖會) 을해년에 와서 정축년(순조 17, 1817)에 갔다.
- 정동만(鄭東晩) 무오년(순조 18, 1818)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민치성(閔致成) 무인년에 와서 기묘년(순조 19, 1819)에 갔다.
- 박종대(朴宗大) 기묘년에 와서 신사년(순조 21, 1821)에 갔다.
- 정지용(鄭持容) 신사년에 와서 계미년(순조 23, 1823)에 갔다.
- 홍백순(洪百淳) 계미년에 와서 을유년(순조 25, 1825)에 갔다.
- 이헌조(李憲祖) 을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한철유(韓喆裕) 병술년(순조 26, 1826)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민사관(閔師寬) 병술년에 와서 정해년(순조 27, 1827)에 갔다.
- 조진익(趙鎭翼) 정해년에 왔다가 같은 해에 갔다.
- 이노준(李魯俊) 정해년에 와서 무자년(순조 28, 1828)에 갔다.
- 원석범(元錫範) 무자년에 와서 기축년(순조 29, 1829)에 갔다. 관향전(官餉錢) 800여

량을 탕감하였다.

- 김리위(金履緯) 기축년에 와서 임진년(순조 32, 1832)에 갔다. 객사(客舍)를 중수하였다.
- 송계수(宋啓洙) 임진년에 와서 갑오년(순조 34, 1834)에 갔다. 돈 1,010여량을 출급(出給)하여 폐단을 보충토록 하였다.
- 박제상(朴齊尙) 갑오년에 와서 현종 병신년(현종 2, 1836)에 갔다.
- 조합영(趙咸永) 병신년에 와서 정유년(현종 3, 1837)에 갔다.
- 이겸수(李謙秀) 정유년에 와서 기해년(현종 5, 1839)에 갔다.
- 홍 주(洪 疇) 기해년에 와서 경자년(현종 6, 1840)에 갔다. 군포전(軍布錢) 700여량을 지급하였다.
- 이희수(李羲秀) 경자년에 와서 신축년(현종 7, 1841)에 갔다.
- 윤치성(尹致誠) 신축년에 와서 임인년(현종 8, 1842)에 갔다.
- 이봉순(李鳳純) 임인년에 와서 계묘년(현종 9, 1843)에 갔다.
- 정만교(鄭晩敎) 계묘년에 와서 갑진년(현종 10, 1844)에 갔다.
- 김영근(金泳根) 갑진년에 와서 병오년(현종 12, 1846)에 갔다.
- 송계백(宋啓伯) 병오년에 와서 무신년(현종 14, 1848)에 갔다.
- 김용근(金龍根) 무신년에 와서 기유년(현종 15, 1849)에 별세하였다.
- 윤일선(尹日善) 기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진상(趙鎭常) 철종 경술년(철종 1, 1850)에 와서 임자(철종 3, 1852)에 갔다.
- 이인량(李寅亮) 임자년에 와서 계축년(철종 4, 1853)에 갔다.
- 조철임(趙徹林) 계축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명하(趙命夏) 갑인년(철종 5, 1854)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이용재(李容在) 갑인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박현규(朴顯圭) 병진년(철종 7, 1856)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심원열(沈遠悅) 정사년(철종 8, 1857)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박승규(朴承圭) 정사년에 와서 무오년(철종 9, 1858)에 갔다.
- 남지구(南芝耆) 무오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송서화(宋瑞和) 기미년(철종 10, 1859)에 와서 경신년(철종 11, 1860)에 갔다.

- 윤 욱(尹 埵) 경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신 억(申 億) 경신년에 와서 신유년(철종 12, 1861)에 갔다.
- 홍병원(洪秉元) 신유년에 와서 임술년(철종 13, 1862)에 민란으로 파직되었다.
- 정면조(鄭冕朝) 임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김기현(金箕絢) 고종 임술년에 와서 갑자년에 갔다.
- 성이호(成彝鎬) 고종 갑자년에 와서 을축년에 갔다.
- 이항익(李恒翼) 을축년에 와서 정묘년(고종 4, 1867)에 갔다. 객사(客舍)를 증건하였다.
- 정현석(鄭顯奭) 정묘년에 와서 경오년(고종 7, 1870)에 갔다. 돈 1,060여 량으로 새로 연쇄(延刷)할 값을 감면시켜 주고 돈 1,400여 량으로 각양(各樣)의 폐단을 보충하였다.
- 성정호(成鼎鎬) 경오년에 와서 신미년(고종 8, 1871)에 갔다. 삼장면(三莊面)의 화재로 진휼관(賑恤官)을 갖추었다.
- 홍철주(洪澈周) 신미년에 와서 임신년(고종 9, 1872)에 갔다. 돈 600여 량의 쇠채(刷債)를 감면하고 사직단과 여제단(厲祭壇) 군기고(軍器庫)와 양무당(養武堂)을 함께 중수하였다.
- 조운궁(趙雲兢) 임신년에 와서 계유년(고종 10, 1873)에 갔다.
- 서증보(徐曾輔) 계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돈 1,000량을 향교의 흥학(興學)에 부쳐주고 창렬사(彰烈祠)를 중수하였으며 사포청(射砲廳)을 신설하였다.
- 민창식(閔昌植) 갑술년(고종11, 1874)에 갔다.
- 이태진(李泰鎭) 갑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쇠가전(鎖價錢) 1,600량을 전감(全減)하고 100량으로 향교의 제복을 새로 갖추게 하였으며 복호전(復戶錢) 1,800량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백성에게 전멸(全滅)케 하였다.
- 홍병희(洪秉禧) 을해년에 와서 병자년(고종 13, 1876)에 갔다.
- 김은순(金蘊淳) 정축년에 와서 경진년에 갔다.
- 신석유(申錫游) 무인년에 와서 신사년(고종 17, 1880)에 갔다.
- 윤희선(尹訥善) 경진년에 와서 신사년(고종 18, 1881)에 갔다.

- 조기순(趙岐淳) 임오년(고종 19, 1882)에 와서 계미년(고종 2, 1883)에 갔다.
- 김정진(金靖鎭) 계미년에 와서 을유년(고종 22, 1885)에 갔다.
- 조석영(趙奭永) 을유년에 와서 정해년(고종 24, 1887)에 갔다.
- 조필영(趙弼永) 정해년에 와서 기축년(고종 26, 1889)에 갔다. 연계재(蓮桂齋)를 이긴
하고 유정당(惟正堂)과 함옥헌(涵玉軒)을 중수하였으며 포락(浦落)
에서 억울하게 징수한 세금 500결(結)을 전감(全減)하고 환전(還錢)
을 전감(全減)하여 관에서 비축금을 갖추도록 하였다.
- 이성열(李聖烈) 기축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조필영(趙弼永) 기축년에 와서 경인(고종 17, 1890)에 갔다. 전운어사(轉運御使)를 겸
하여 세미(稅米)의 장선비(裝船費)를 남는 쌀 중에서 헤아려서 조획
(措劃:조치하고 계획)하도록 하였다.
- 김직현(金稷鉉) 경인년에 와서 신묘년(고종 30, 1891)에 갔다.
- 김갑수(金甲秀) 신묘년에 와서 계사년에 갔다.
- 민영학(閔泳學) 계사년에 와서 같은 해에 별세하였다.
- 유 석(柳 壻) 갑오년(고종 31, 1894)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허 철(許 澈) 갑오년에 와서 을미년(고종 32, 1895)에 갔다.
- 오현익(吳顯益) 참서관(參書官), 을미년에 와서 병신년(고종 33, 1895)에 별세하였다.
관제의 개혁으로 인하여 목사를 고쳐서 참서관으로 하였다.
- 권병직(權秉稷) 군수(郡守), 병신년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병신년에 또 참서관(參書
官)을 고쳐서 군수로 하였으니 이하는 모두 군수다.
- 이상만(李尙萬) 병신년에 와서 정유년(고종 34, 1897)에 갔다.
- 심상필(沈相弼) 무술년(고종 35, 1898)에 와서 같은 해에 갔다.
- 엄주영(嚴胄永) 무술년에 와서 기해년(고종 36, 1899)에 갔다.
- 윤만선(尹寓善) 기해년에 와서 경자년(고종 37, 1900)에 갔다.
- 정우묵(鄭佑默) 경자년에 와서 임인년(고종 39, 1901)에 갔다.
- 조두현(趙斗顯) 임인년에 와서 임인년에 갔다.
- 이범구(李範九) 임인년에 왔다.

- 이용교(李瑑敎) 계묘년에 와서 갑진년(고종 40, 1903)에 갔다.
- 민병성(閔丙星) 을사년(고종 42, 1905)에 와서 병오년(고종 44, 1907)에 갔다.
- 임병항(林炳恒) 병오년에 와서 순종 정미년에 갔다.
- 류성열(柳成烈) 무진년(순종 2, 1908)에 와서 기유년(순종 3, 1909)에 갔다.
- 손지현(孫之鉉) 기유년에 왔다.
- 박정규(朴晶奎) 경술년(순종 4, 1910)에 왔다.

진주시장(晉州市長)

대수	성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고
1대	鄭鍾哲	1945年 12月 14日	1948年 11月 5日	2年11월
2대	李相龍	1948年 11月 6日	1949年 6月 11日	8月
3대	崔泰鉉	1949年 6月 25日	1950年 9月 25日	1年3月
4대	李樸珪	1950年 9月 23日	1951年 10月 1日	1年
5대	鄭順鍾	1951年 10月 6日	1952年 5月 6日	7月
6대	文遇尙	1952年 5月 7日	1953年 10月 26日	1年5月
7대	金容柱	1953年 11月 2日	1957年 11月 1日	4年
8대	金宅祚	1957年 11月 5日	1960年 5月 22日	2年7月
9대	金伯容	1960年 5月 25日	1960年 12月 10日	6月
10대	金伯容	1960年 12月 30日	1961年 6月 11日	5月
11대	李炳文	1961年 6月 1日	1965年 4月 1日	3年10月
12대	李南斗	1965年 4月 1日	1966年 8月 22日	1年4月
13대	金鍾求	1966年 8月 22日	1969年 11月 16日	3年4月
14대	李相熙	1969年 11月 17日	1971年 8月 11日	1年9月
15대	尹尙遠	1971年 8月 21日	1973年 6月 30日	1年10月
16대	李善哲	1973年 7月 1日	1974年 4月 22日	9月
17대	楊兌植	1974年 4月 22日	1974年 12月 31日	8月
18대	金徹年	1975年 1月 1日	1975年 5月 29日	5月
19대	成海騏	1975年 5月 30日	1976年 8月 31日	1年3月
20대	李炳奈	1976年 8月 18日	1979年 7月 16日	2年11月
21대	朴進球	1979年 7月 16日	1981年 7月 1日	1年11月
22대	成浩德	1981年 7月 1日	1983年 4月 14日	1年10月

대수	성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고
23代	尹熙潤	1983年 4月 14日	1984年 12月 11日	1年8月
24代	安吉鉉	1984年 12月 11日	1986年 12月 24日	2年
25代	文 伯	1986年 12月 26日	1991年 1月 9日	4年
26代	徐廷焄	1991年 1月 10日	1993年 7月 24日	2年6月
27代	李珍榮	1993年 7月 21日	1994年 4月 25日	9月
28代	白承斗	1994年 4月 26日	1995年 3月 27日	11月
29代	鄭永錫	1995年 4月 1日	1995年 6月 30日	3月
30代	白承斗	1995年 7月 1日	1998年 6月 30日	3年
민선1代	白承斗	1998年 7月 1日	2002年 6月 30日	4年
민선2代	鄭永錫	2002年 7月 1日	2006年 6月 30日	4年
민선3代	鄭永錫	2006年 7月 1日	2010年 6月 30日	4年
민선4代	李昌熙	2010年 7月 1日	2014年 6月 30日	4年
민선5代	李昌熙	2015年 7月 1日	2019年 6月 30日	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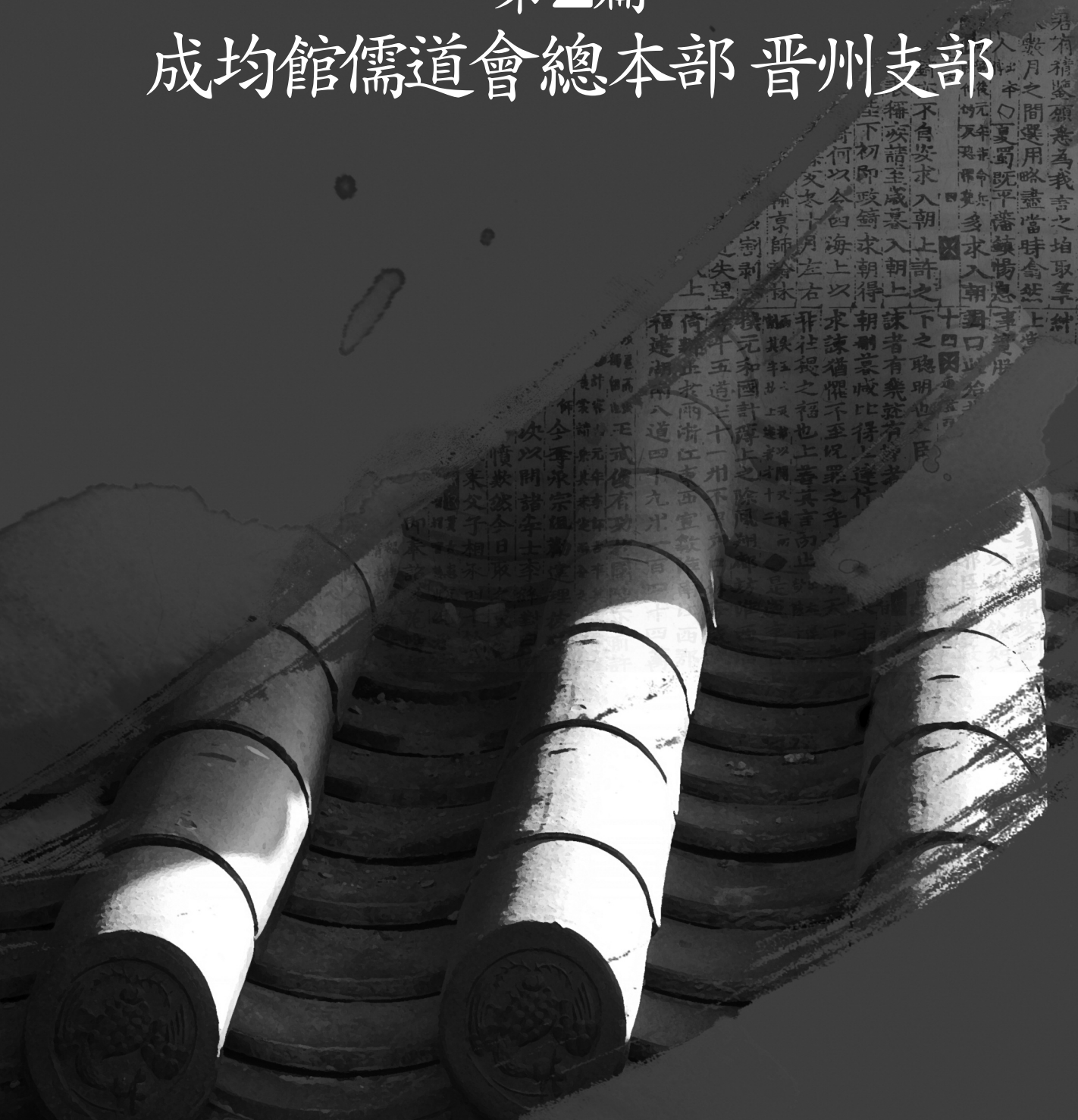
진양군수(晉陽郡守)

대수	성명	취임년월일	비고
1代	林憲平	1939年 10月~	
2代	吳永世		
3代	高秉權	~ 1945年 3月	
4代	黃雲性	1945年 3月 ~ 1945年 10月	
5代	金燦式	1945年 10月 ~ 1946年 10月	
6代	鄭順鍾	1946年 10月 ~ 1947年 5月	
7代	崔斗仁	1947年 5月 ~ 1947年 8月	
8代	柳德天	1947年 8月 ~ 1948年 4月	
9代	姜奉用	1948年 4月 ~ 1949年 6月	
10代	朴運杓	1949年 6月 ~ 1950年 5月	
11代	盧在崙	1950年 5月 ~ 1951年 10月	
12代	曹喜斗	1951年 10月 ~ 1953年 1月	
13代	金漢基	1953年 1月 ~ 1953年 11月	
14代	具兌書	1953年 11月 ~ 1956年 7月	

대수	성명	취임년월일	비고
15代	崔壽卿	1956年 7月 ~ 1958年 3月	
16代	徐錫祉	1958年 3月 ~ 1960年 5月	
17代	梁承昂	1960年 5月 ~ 1960年 11月	
18代	文正淳	1960年 11月 ~ 1961年 7月	
19代	朴東善	1961年 7月 ~ 1962年 6月	
20代	崔炳翰	1962年 6月 ~ 1963年 7月	
21代	朴慶東	1963年 7月 ~ 1964年 11月	
22代	申宣烈	1964年 11月 ~ 1966年 8月	
23代	姜判寧	1966年 8月 ~ 1969年 5月	
24代	具滋丁	1969年 5月 ~ 1970年 3月	
25代	尹尙遠	1970年 3月 ~ 1971年 8月	
26代	河黃植	1971年 8月 ~ 1973年 7月	
27代	黃大永	1973年 7月 ~ 1975年 10月	
28代	尹熙潤	1975年 10月 ~ 1976年 9月	
29代	李源珉	1976年 9月 ~ 1980年 3月	
30代	劉炳埴	1980年 3月 ~ 1980年 8月	
31代	盧奉燮	1980年 8月 ~ 1981年 11月	
32代	安康植	1981年 11月 ~ 1983年 11月	
33代	鄭元采	1983年 4月 ~ 1983年 12月	
34代	鄭球燮	1983年 12月 ~ 1985年 6月	
35代	金正洛	1985年 6月 ~ 1987年 9月	
36代	河然承	1987年 9月 ~ 1988年 6月	
37代	具滋璟	1988年 6月 ~ 1991年 1月	
38代	韓昌一	1991年 1月 ~ 1991年 12月	
39代	鄭永錫	1991年 12月 ~ 1993年 7月	
40代	河大昌	1993年 7月 ~ 1994年 12月	

第2篇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晋州支部



第1章 沿革

第1節 沿革

1. 성균관유도회

 _윤리선언문

2.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진주지부 연혁

 _儒道會(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

第1章 沿革

第1節 沿革

1. 성균관유도회

1945년 8·15해방 이후 전국유림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1945년 11월 30일이었다. 서울 성균관 명륜당에서 전국의 유림 천여 명이 참집한 전국유림대회는 6일 동안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민족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도회의 혁신과 향상, 성균관대학의 설치, 이를 위한 재단의 완성 등을 결의하였으며, 유림대회는 이후에도 자주 열렸다.

1946년 1월 19일의 전국유림통일대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을 원조한다 함은 감사하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교적인 원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건의서를 미·소·영·중 4개국에 보내기로 한 결의 등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유림의 역량이 방향을 잡아가는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였다.

2월 10일에는 오랫동안 분립되어오던 유도회의 간부회의를 성균관에서 개최하고 완전히 합동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3월 13일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열어 유도회의 조직을 개정기로 하였다. 마침내 1946년 3월 13일 전국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 유도회 창립총회에서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김창숙 선생은 유교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단 구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선 성균관대

학 기성회 결성을 하여 독지가인 이석구씨로부터 재단법인 학린사로부터 재산(토지)을 희사받고, 재단법인 선린회와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구성하였으며,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미군정청)로부터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 받았다.

김창숙 선생은 성균관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향교 재단을 규합하고 재산을 새로 기부받아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강화하여, 문교부에 종합대학 승격을 신청하여 1953년 2월 6일에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56년에 들어 재단기본재산의 부정처리 문제와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해 2월 21일에 유도회총본부 임시중앙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우세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유도회전국대회가 소집될 때까지 유도회를 비롯하여 재단·대학교·성균관에 대한 모든 수습대책을 위임하게 되었다.

이후 유도회 내부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실세 쟁탈전이 전개 되었으며, 법통을 가리기 위한 소송사건도 연이어 제기되었다. 이렇게 법통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 사건이 이어지다가 1961년 군사정권의 포고령 제6호로 유도회총본부가 해체되어 그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유도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공백상태에 들게 되었으나 1964년 5월 10일에 전국 향교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유도회 분규의 종식과 500만 유림의 총단결로 유도회의 재건을 다짐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국 대표자대회의 소집을 성균관장단과 재단법인 성균관이사단에 위임하였는데, 성균관장단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회에서는 유도회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사명 수행에 매진하게 하였다.

이후 1970년에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이가원씨를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직을 완료함으로써 재단법인 성균관 그리고 성균관과 함께 삼위일체 체제를 이루는 유도회가 재건되었으며, 1994년에는 유도회 정관을 개정하여 총본부 위원장의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균관유도회 총본부는 유도회 산하 전국적 조직을 진행시켰다. 1968년 12월 3일 충청남도 유도회 본부 결성을 시작으로 1969년 4월 13일 충청북도, 4월 27일 경상북도, 10

월 5일 서울특별시, 10월 9일 강원도, 10월 10일 경기도, 10월 11일 전라북도, 10월 12일 전라남도, 10월 14일 경상남도 및 부산직할시 순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본부를 결성하고 1970년 6월 21일 유도회 총본부 결성대회를 열어 유도회 총본부를 재구성했다.

현재 성균관유도회 총본부는 전국에 16개 시도 본부와 293개 지부와 3,000여 개의 지회를 가진 조직으로서, 도의천명(道義闡明)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전국 제일의 유림단체이다.

儒道會는 本會 設立理念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經營한다.

1. 成均館大學校 및 地方鄉校와 儒林機關의 發展教育에 관한 事項
2. 經典 및 學術의 研究發展에 관한 事項
3. 政治經濟의 研究發展에 관한 事項
4. 教化 및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事項
5.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앞에서 列擧한 事業의 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任員과 全國的인 支部를 갖고 있다.

1. 委員長 1人

- ① 首席副委員長 1人, 副委員長 4人
- ② 中央委員 90人 以內
- ③ 事務總長 1人
- ④ 事務次長 1人
- ⑤ 監察委員 18人 以內
- ⑥ 常任委員 38人 以內
- ⑦ 各部次長 五部 各 2人

2. 總本部, 市道本部, 市郡支部, 邑面支會, 里洞分會

윤리선언문

우리 한민족은 인·의·예·지를 근간으로 오천년의 유구한 문화를 창조 계승한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한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곳곳하게 민족 정통성을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사문의 힘입은 바 아니겠는가!

세계는 바야흐로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진운을 느끼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인·의·예·지로써 우리의 나이갈 바를 밝혀 윤리의 근본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예의의 근본은 인에 있으며 인은 명덕과 인민으로부터 애물에 이르는 지선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인류사회에 효제를 실천하여 인의 도를 완성하며, 수기치인의 학문을 통해 대동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전통만을 고수하지 않으며 서구문물이라 하여 전면 배격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물질중시 풍조와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퇴폐풍조를 배격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과 민족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수시처중의 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다.

작금의 우리는 무너진 윤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윤리이념을 창조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 가까이서 내 자신부터 멀리는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덕적 풍화에 젖어들기를 바라며, 지선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선구적 임무는 멈출 수 없기에 새 시대의 윤리관을 선언한다.

실천강령

- 一. 우리는 인의예지에 근거한 유구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하고, 효제 윤리의 실천에 앞장선다.
- 一.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 회복에 주력하며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킨다.
- 一. 우리는 유교 윤리에 위배되는 풍조를 배격하며, 새로운 윤리이념 창조에 앞장선다.

2.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진주시부 연혁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진주시부(이하 유도회 진주시부)는 1968년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6년 현재 16개 동지회(洞支會)와 12개 면지회(面支會)에 804여 명의 회원이 있고, 그중 여성유도회의 회원은 30여 명, 청년유도회 회원은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도회 진주시부의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 1968년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정운필(鄭運弼)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71년 2대 회장에 李基煥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73년 3대 회장에 李丙烈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76년 4대 회장에 李丙烈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78년 5대 회장에 河聖根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80년 6대 회장에 河聖根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82년 7대 회장에 李相烈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86년 8대 회장에 成煥宗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88년 9대 회장에 鄭性珪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0년 10대 회장에 崔長洙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1년 11대 회장에 韓敬泰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2년 12대 회장에 李壽贊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3년 13대 회장에 李正大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4년 14대 회장에 金鍾吉 유림이 취임하였다.
- 1995년 15·16대 회장에 文相律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00년 17대 회장에 鄭漢根 유림이 취임 하였다.
- 2000년 18대 회장에 許道寧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01년 19대 회장에 成煥喆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03년 20대 회장에 韓善愚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06년 21대 회장에 李元煥 유림이 취임 하였다.

- 2007년 22대 회장에 韓基仁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09년 23대 회장에 吳世允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12년 24대 회장에 姜永奎 유림이 취임하였다.
- 2015년 25대 회장에 李鶴鎭 유림이 취임하였다.

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

● 第1回 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2013년)

• 壯元及第狀

幼學 姜元基 / 晉州牧鄉試再現 壯元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洪斗杓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及第狀

幼學 林次永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李永淑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金益載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鄭基浩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姜三秀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姜子龍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許鍾鐵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河行洛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及第狀

幼學 金炫鎭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八年十月

● 第2回 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2014년)

• 壯元及第狀

幼學 姜秉周 / 晉州牧鄉試再現 壯元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洪斗杓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許永泰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朴哲祚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河行洛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鄭柱澤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朴景默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鄭基浩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姜秉夏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姜子龍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及第狀

幼學 許鍾鐵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六十九年十一月

● 第3回 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2015년)

• 壯元及第狀

幼學 禹聖俊 / 晉州牧鄉試再現 壯元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許鍾鐵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姜三秀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朴哲弘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姜子龍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鄭基浩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河在尙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姜哲淳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洪斗杓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金信秀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及第狀

幼學 許斗扞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年十月三十一日

● 第4回 晉州牧鄉試 再現 表彰狀(2016년)

• 壯元及第狀

幼學 姜三秀 / 晉州牧鄉試再現 壯元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金必道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朴哲弘 / 晉州牧鄉試再現 第二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郭喆允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鄭柱澤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裴文子 / 晉州牧鄉試再現 第三人及第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姜哲淳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姜秉夏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河行洛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安鍾贊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 及第狀

幼學 金樹晚 / 晉州牧鄉試再現 參榜者
大韓光復七十一年五月二十八日

第2篇 成均館儒道會總本部晉州支部

第2章 經任錄

_ 유도회 진주지부 임원명단(儒道會 晉州支部 任員名單)
(1968-2015)

第2章 經任錄

유도회 진주지부 임원명단(儒道會 晉州支部 任員名單)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1968年				
晉州支部 會長	鄭運弼	晉州	智水	
1969年				
道本部 副委員長	鄭默珪	晉州	寺奉	
指導委員	韓正愚	清州	二班城	
1971年				
晉州支部 會長	李基煥	載寧	智水面	
副 會 長	李丙烈	全州	晉城	
	韓英愚	清州	二班城	
總本部 副委員長	鄭默珪	晉州	寺奉	
1973年				
晉州支部 會長	李丙烈	全州	晉城	
副 會 長	河聖根	晉陽	水谷	
	韓英愚	清州	二班城	
	成煥宗	昌寧	水谷	
監察委員長	河永洛	晉陽	水谷	
1976年				
道本部 監察委員長	李丙烈	全州	晉城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晉州支部會長	李丙烈	全州	晉城	
副會長	河聖根	晉陽	水谷	
	韓英愚	清州	二班城	
	河龍雯	晉陽	鳴石	
監察委員長	河永洛	晉陽	水谷	
1978年				
道本部副委員長	李丙烈	全州	晉城	
晉州支部會長	河聖根	晉陽	水谷	
副會長	黃斗益	昌原		
	河東根	晉陽	晉州	
	李壽贊	載寧	大谷	
監察委員長	柳永助	全州	金谷	
1980年				
晉州支部會長	河聖根	晉陽	水谷	
副會長	黃斗益	昌原		
	河東根	晉陽	晉州	
	李壽贊	載寧	大谷	
監察委員長	柳永助	全州	金谷	
1982年				
晉州支部會長	李相烈	載寧	寺奉	
副會長	柳永助	全州	金谷	
	李仁基	鐵城	大谷	
	成煥圖	昌寧	大谷	
監察委員長	孫榮權	密陽	水谷	
1986年				
晉州支部會長	成煥宗	昌寧	水谷	
副會長	河龍興	晉陽	鳴石	
	朴宗樂	密陽	一班城	
	洪慶壽	南陽	鳴石	
監察委員長	孫榮權	密陽	水谷	
總務部長	李秉宅	載寧	晉城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1988年				
晉州支部 會長	鄭性珪	晉州	寺奉	
副 會長	姜大珀	晉州	晉州	
	河龍興	晉陽	鳴石	
	成熹柱	昌寧	晉城	
監察委員 長	許道寧	金海	智水	
總務部 長	李秉宅	載寧	晉城	
1990年				
晉州支部 會長	崔長洙	朔寧	大谷	
副 會長	金鍾吉	義城	智水	
	鄭利圭	晉州	寺奉	
監察委員 長	朴正圓	咸陽	晉城	
總務部 長	李秉宅	載寧	晉城	
1991年				
晉州支部 會長	韓敬泰	清州	水谷	
副 會長	金鍾吉	義城	智水	
	鄭利圭	晉州	寺奉	
監察委員 長	朴正圓	咸陽	晉城	
總務部 長	李秉宅	載寧	晉城	
1992年				
晉州支部 會長	李壽贊	載寧	大谷	
副 會長	文尙律	江城	晉州	
	李鎮台	全州	一班城	
	鄭寅燮	海州	貴谷	
監察委員 長	朴正圓	咸陽	晉城	
總務部 長	姜丕淳	晉州	井村	
1993年				
晉州支部 會長	李正大	載寧	水谷	
副 會長	文尙律	江城	晉州	
	李鎮台	全州	一班城	
	鄭仁燮	海州	貴谷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監察委員長	朴正圓	咸陽	晉城	
總務部長	姜일淳	晉州	井村	
1994年				
晉州支部會長	金鍾吉	義城	智水	
副會長	文相律	江城	晉州	
	李鎮台	全州	一班城	
	朴源弘	泰安	晉州	
	朴正圓	咸陽	晉城	
監察委員長	柳在春	文化	水谷	
總務部長	成龍燮	昌寧	丹城	
1995年				
晉州支部會長	文尙律	江城	晉州	
副會長	李鎮台	全州	一班城	
	朴源弘	泰安	晉州	
	朴正圓	咸陽	晉城	
	柳在春	文化	水谷	
監察委員長	李龍浩	載寧	寺奉	
總務部長	鄭元鎬	晉陽	晉城	
1996年				
晉州支部會長	文尙律	江城	晉州	
副會長	李鎮台	全州	一班城	
	朴正圓	咸陽	晉城	
	朴源弘	泰安	晉州	
	柳在春	文化	水谷	
監察委員長	李龍浩	載寧	寺奉	
總務部長	姜泰濟	晉州	大谷	
1997年				
晉州支部會長	文尙律	江城	晉州	
副會長	成煥喆	昌寧	水谷	
	韓善愚	清州	二班城	
	吳世允	海州	美川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副會長	鄭順燮	海州	貴谷	
監察委員長	文炳殷	南平	琴山	
監察委員	尹瑞鉉	坡平	大谷	
	李典濬	載寧	晉城	
	鄭鉉台	晉陽	寺奉	
	南相淑	宜寧	晉城	
總務部長	姜泰濟	晉州	大谷	
支會長	金相喆	江陵	柰洞	
	姜鎬明	晉陽	井村	
	鄭權桓	晉陽	金谷	
	朴二洙	密陽	文山	
	金鎮泰	金寧	晉城	
	黃寅寬	昌原	一班城	
	高点錫	長興	二班城	
	李善鳳	陝川	寺奉	
	鄭容秀	晉陽	智水	
	姜錫奉	晉州	大谷	
	許甲正	金海	琴山	
	沈琥燮	青松	集賢	
	林鍾壽	羅州	美川	
	張志永	仁同	鳴石	
	陳鳳鉉	驪陽	大坪	
	姜道植	晉陽	鳴石	
	尹琪鉉	坡平	大谷	
	鄭纒煥	晉陽	集賢	
	鄭判世	晉陽	晉州	
	鄭泰基	晉陽	晉州	
崔用壽	慶州	琴山		
成龍燮	昌寧	丹城		
柳在興	文化	金谷		
洪鍾哲	南陽	鳴石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支 會 長	全貞烈	玉山	晉州	
	文尙奎	江城	晉州	
	河龍述	晉陽	鳴石	
	李芳男	全州	晉城	
	朱鍾哲	新安	晉州	
2000年				
晉州支部 會 長	鄭漢根	海州	貴谷	
副 會 長	成煥喆	昌寧	水谷	
	韓善愚	清州	二班城	
	吳世允	海州	美川	
	鄭順燮	海州	貴谷	
	姜錫周	晉州	大坪	
	李元煥	載寧	智水	
監 察 委 員 長	韓 樑	清州	水谷	
監 察 委 員	韓基洪	清州	二班城	
	文明圭	江城	晉州	
	鄭普永	迎日	大坪	
	李典濬	載寧	晉城	
總 務 部 長	姜泰濟	晉州	大谷	
支 會 長	姜月中	晉州	井村	
	李芳男	全州	晉城	
	崔寬俊	全州	大谷	
	李点雨	江陽	二班城	
	孫仁炫	密陽	寺奉	
	鄭容秀	晉陽	智水	
	姜炳民	晉州	大谷	
	李元雨	慶州	琴山	
	沈琥燮	青松	集賢	
	吳月龍	海州	美川	
	具相會	綾城	智水	
陳鳳鉉	驪陽	大坪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支 會 長	李再漢	慶州	水谷	
	姜龍學	晉州	大谷	
	田次龍	潭陽	晉州	
	鄭判世	晉陽	晉州	
	鄭正模	晉陽	晉州	
	鄭纒煥	晉陽	集賢	
	成煥奭	昌寧	琴山	
	文洪日	南平	琴山	
	李壽聲	載寧	大谷	
	李載宣	載寧	寺奉	
	全貞烈	玉山	晉州	
	文靈泰	江城	晉州	
	孫文秀	密陽	晉州	
	李景鎬	公州	晉州	
鄭再用	晉陽	柰洞		
鄭斗柄				
2000年 後半期				
晉州支部 會 長	許道寧	金海	智水	
2001年				
晉州支部 會 長	成煥喆	昌寧	水谷	
副 會 長	韓善愚	清州	二班城	
	姜錫周	晉州	大坪	
	李元煥	載寧	智水	
	吳世允	海州	晉州	
	鄭順燮	海州	貴谷	
監 察 委 員 長	韓 樑	清州	水谷	
監 察 委 員	韓基洪	清州	二班城	
	文明圭	江城	一班城	
	李典滸	載寧	晉城	
總 務 部 長	姜泰濟	晉州	大谷	
支 會 長	崔寬俊	全州	一班城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支 會 長	姜龍學	晉州	大谷	
	李点雨	江陽	二班城	
	鄭判世	晉陽	晉州	
	田次龍	潭陽	晉州	
	沈琥燮	青松	集賢	
	吳月龍	海州	美川	
	鄭再用	晉陽	柰洞	
	鄭禳煥	晉陽	晉州	
	鄭正模	晉陽	晉州	
	姜炳民	晉州	大谷	
	具相會	綾城	鳴石	
	韓 楔	清州	水谷	
	成煥奭	昌寧	琴山	
	李再漢	慶州	水谷	
	文洪日	南平	琴山	
	李元雨	慶州	琴山	
	李壽聲	載寧	晉州	
	李載宣	載寧	寺奉	
	全貞烈	玉山	晉州	
	孫仁炫	密陽	寺奉	
	陳鳳鉉	驪陽	大坪	
	文靈泰	江城	晉州	
	李芳男	全州	晉城	
孫文秀	密陽	晉州		
李景鎬	公州	晉州		
姜月中	晉州	井村		
2003年				
晉州支部 會 長	韓善愚	清州	二班城	
副 會 長	姜錫周	晉州	大坪	
	鄭憲珪	晉陽	寺奉	
	李元煥	載寧	智水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副會長	吳世允	海州	晉州	
	鄭順燮	海州	貴谷	
監察委員長	韓樑	清州	水谷	
監察委員	韓基洪	清州	二班城	
	黃寅寬	昌原	一班城	
	南相淑	宜寧	晉城	
總務部長	姜泰濟	晉州	大谷	
支會長	李点揆	全州	井村	
	鄭鍾和	晉陽	晉城	
	鄭大永	晉州	大谷	
	朴富漢	密陽		
	鄭華圭	晉陽	寺奉	
	崔龍權	慶州	晉州	
	陳鳳鉉	驪陽	大坪	
	林采和	羅州	美川	
	鄭斗炳	晉陽		
	文明圭	江城	美川	
	姜璟圭	晉州		
	李再漢	慶州	水谷	
	都學均	星州		
	鄭纒煥	晉陽	集賢	
	鄭秉禧	草溪	晉州	
	鄭石峰	晉陽	晉州	
	金幸布	金寧	美川	
	金學柱	蔚山		
	朴喆濟	密陽	大谷	
	孫文秀	密陽	晉州	
李景鎬	公州	晉州		
沈在圭	青松	二班城		
2006年				
晉州支部會長	李元煥	載寧	智水	

職 責	姓 名	本 貫	門 戶	備 考
副 會 長	崔用壽	慶州	晉州	
	文尙奎	江城	晉州	
	吳世允	海州	美川	
	鄭順燮	海州	貴谷	
	李順子	載寧	一班城	
監 察 委 員 長	韓 樑	清州	水谷	
監 察 委 員	韓基洪	清州	二班城	
	南相淑	宜寧	晉城	
事 務 局 長	河泰午	晉陽	晉州	
支 會 長	朴富洪	密陽	美川	
	鄭纒煥	晉陽	集賢	
	文明圭	江城	晉州	
	鄭秉禧	草溪	晉州	
	鄭斗杓	晉陽	智水	
	吳月龍	海州	美川	
	鄭再用	晉陽	柰洞	
	鄭正模	晉陽	晉州	
	姜炳民	晉州	大谷	
	具相會	綾城	智水	
	鄭大永	晉陽	大谷	
	林采和	羅州	美川	
	李再漢	慶州	水谷	
	崔龍權	慶州	晉州	
	沈在圭	青松	二班城	
	鄭華圭	晉陽	寺奉	
	鄭石峯	晉陽	晉州	
	姜璟圭			
	金學柱			
	朴喆濟	密陽	大谷	
鄭鍾和	晉陽	晉城		
李点揆	全州	井村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陳鳳鉉	驪陽	大坪	
2007年				
晉州支部 會長	韓基仁	清州	二班城	
副 會長	崔用壽	慶州	晉州	
	文尙奎	江城	晉州	
	吳世允	海州	美川	
	鄭順燮	海州	貴谷	
	李順子	載寧	一班城	女性會長
	姜東郁	晉州	晉州	青年會長
監 察 委 員	韓基洪	清州	二班城	
	南相淑	宜寧	晉城	
事 務 局 長	沈東燮	青松	新安	
支 會 長	文峻海	南平	大谷	
	姜元泰	晉州	一班城	
	金上鏞	金海	晉州	
	金東根	先山	晉州	
	文甲奎	南平	晉州	
	朴富洪	密陽	美川	
	徐相祚	達成	晉州	
	李点揆	全州	井村	
	張根煥	丹陽	琴山	
	鄭纒煥	晉陽	集賢	
	鄭賢杓	晉陽	寺奉	
	鄭鍾和	晉陽	晉城	
	鄭東勳	晉州	玉宗	
	崔龍權	慶州	晉州	
	河炳峻	晉陽	水谷	
	許南優	金海	智水	
	許再洙	金海	二班城	
李奉喜	全州	草田		

職 責	姓 名	本 貫	門 戶	備 考
2009年				
晉州支部 會 長	吳世允	海州	美川	
副 會 長	安承均	順興	集賢	
	鄭鎬英	晉陽	寺奉	
	姜永圭	晉州	琴山	
	沈東燮	青松	新安	
	李順子	載寧	一班城	女性會長
	姜東郁	晉州	晉州	青年會長
監 察 委 員 長	南相淑	宜寧	晉城	
監 察 委 員	崔用鎬	全州	琴山	
事 務 局 長	鄭基敏	海州	貴谷	
支 會 長	姜道臣	晉州	晉州	
	姜元泰	晉州	一班城	
	金東澤	善山	晉州	
	金福洙	慶州	晉州	
	金上鏞	金海	晉州	
	金臣秀	慶州	晉州	
	文甲圭	南平	晉州	
	文德根	南平	水谷	
	文峻海	南平	大谷	
	朴大燮	密陽	晉州	
	朴富洪	密陽	美川	
	朴鍾植	密陽	大谷	
	沈載華	青松	晉州	
	安順泰	順興	集賢	
	柳基賢	文化	晉州	
	李 燉	星州	井村	
	李奉喜	全州	晉州	
	李鶴鎮	陝川	智水	
	李鉉瓚	載寧	晉城	
	張根煥	丹陽	琴山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支 會 長	鄭今永	迎日	大坪	
	鄭纒煥	晉州	集賢	
	鄭煥定	晉州	寺奉	
	趙漢哲	林川	晉州	
	崔龍權	慶州	晉州	
	許南優	金海	智水	
	河淑姬	晉陽	晉州	
	李英善	星州	晉城	
	李美連	慶州	晉州	
	慎璟姬	居昌	晉州	
	姜柱基	晉州	大谷	
	文炯竣	南平	水谷	
	黃慶圭	昌原	大坪	
2012年				
晉州支部 會 長	姜永奎	晉州	琴山	
副 會 長	文德根	南平	水谷	
	李鶴鎮	陝川	智水	
	沈東燮	青松	新安	
	韓萬俊	清州	二班城	
	朴鍾植	密陽	大谷	
	河淑姬	晉陽	昌寧	女性會長
	文映童	南平	智水	青年會長
監 察 委 員 長	高永玉	長興	琴山	
監 察 委 員	鄭東勳	晉州	玉宗	
事 務 局 長	鄭基敏	海州	貴谷	
組 織 部 長	李秉洙	載寧	大谷	
事 業 部 長	郭均燮	玄風	居昌	
弘 報 部 長	許仁香	陽川	丹城	
儀 禮 部 長	朴孟濟	密陽	丹城	
金 谷 支 會 長	柳判碩	文化	金谷	
琴 山 支 會 長	河天龍	晉陽	琴山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大谷支會長	姜炳元	晉州	大谷	
大坪支會長	河豐吉	晉陽	大坪	
鳴石支會長	林采和	羅州	鳴石	
美川支會長	姜炳葉	晉州	美川	
寺奉支會長	鄭煥定	晉州	寺奉	
水谷支會長	河三煥	晉陽	水谷	
二班城支會長	李平揆	全州	一班城	
一班城支會長	金炳煥	金海	二班城	
井村支會長	沈在錄	青松	井村	
智水支會長	許允九	金海	智水	
晉城支會長	李翊基	全州	晉城	
集賢支會長	沈基祚	青松	集賢	
江南支會長	文甲圭	南平	晉州	
望京支會長	柳基賢	文化	晉州	
蓬水支會長	沈載華	青松	晉州	
鳳安支會長	金東澤	迎日	晉州	
上大支會長	崔判道	朔寧	晉州	
上大二支會長	金信秀	慶州	晉州	
上鳳東支會長	姜允中	晉州	晉州	
上鳳西支會長	尹永洙	坡平	晉州	
上坪支會長	姜春根	晉州	晉州	
城地支會長	姜道臣	晉州	晉州	
新安支會長	許斗扞	金海	美川	
玉峰支會長	鄭禧永	迎日	晉州	
二峴支會長	洪淳太	南陽	鳴石	
中央支會長	姜元基	晉州	大谷	
草長支會長	鄭煥根	晉州	晉州	
七岩支會長	李忠洙	全州	一班城	
平居支會長	鄭道權	晉州	晉州	
下大支會長	許鍾鐵	陽川	晉州	
女性儒道會副會長	李春枝	慶州	水谷	

職責	姓名	本貫	門戶	備考
女性儒道會 副會長	鄭容子	晉州	智水	
女性儒道會 副會長	鄭美連	慶州	晉州	
女性儒道會 總務	鄭慶子	迎日	晉州	
青年儒道會 副會長	姜柱基	晉州	大谷	
青年儒道會 副會長	文炯堉	南平	水谷	
青年儒道會 總務	田炳哲	潭陽	晉州	
2015年				
儒道會長	李鶴鎮	陝川	智水	
副會長	許斗扞	金海	美川	
	韓萬俊	清州	二班城	
	鄭玉永	迎日	大坪	
	朴鍾植	密陽	大谷	
	鄭基敏	海州	貴谷	
	河淑姬	晉陽	昌寧	女性會長
	文炯堉	南平	水谷	青年會長
監察委員長	高永玉	長興	琴山	
監察委員	鄭東勳	晉州	玉宗	
事務局長	成碩基	昌寧	晉城	
儀禮部長	朴孟濟	密陽	新安	
事業部長	郭均燮	玄風	居昌	
弘報部長	許仁香	陽川	丹城	
組織部長	李秉洙	載寧	大谷	
琴山支會長	河天龍	晉陽	琴山	
大谷支會長	崔衡仁	朔寧	大谷	
大坪支會長	河豐吉	晉陽	大坪	
鳴石支會長	申鉉圭	平山	鳴石	
美川支會長	姜炳葉	晉州	美川	
寺奉支會長	鄭煥定	晉州	寺奉	
水谷支會長	河永載	晉陽	水谷	
二班城支會長	金相學	金海	二班城	
一班城支會長	具璣書	陵城	一班城	

第3篇 成均館



第3篇 成均館

第1章 成均館 沿革

성균관(成均館) 연혁(沿革)

第1章 成均館 沿革

성균관(成均館) 연혁(沿革)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에 태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 영양왕 11년(서기 600)에 이문직(李文直)으로 태학박사를 삼다.

백제 근초고왕 29년(서기 374)에 고흥(高興)으로써 박사를 삼으니 백제는 개국으로부터 문자가 없더니 비로소 서기(書記)를 두다.

신라 선덕여왕 2년(서기 643)에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가서 국학에 나아가 비로소 석전례를 보고 돌아오다. 신문왕 2년(서기 682) 유월에 국학을 세우고 향일인(鄉一人)을 두고 11년에 설총(薛聰)을 고질(高秩)에 탁(擢)하니 박학하여 능히 방언으로 九經義를 解하여 후생을 훈도하다. 성덕왕 16년(서기 714)에 태감 수충(太監 守忠)이 당나라로부터 문선왕, 10철, 72제자 화상을 가지고 돌아와 올리니 명하여 태학에 두다. 경덕왕 23년에 박사를 명하여 상서(尙書)를 강하다. 신라학제는 주역, 상서, 모시, 춘추, 좌씨전, 룬어, 효경, 문선으로써 교수 하였다.

고려 태조 13년(서기 930)에 왕이 서경에 학교를 창치(創置)하고 박사관을 두고 따로 학원을 두어 육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성종 원년에 제주(諸州) 자제를 뽑아 가르치다. 11년 12월에 국자감을 창(創)하고 서재학사(書齋學舍)를 광영(廣營)하고 전장(田庄)을

양급(量給)하여 학량(學糧)에 충(充)하다.

현종 11년에 신라 시랑 최치원(崔致遠)을 명하여 선성묘에 종사하고 13년 춘정월에 신라한림 설총(薛聰)으로써 선성묘에 종사하고 홍유후(弘儒侯)를 증하였다. 22년 윤10월에 국자감시를 시설하니 감시법이 이에 비롯하였다.

문종 27년(서기 1073)에 태복경(太僕卿) 김양감(金良鑑)이 봉사입송(奉使入宋)하여 국자도(國子圖)를 모(模)하여 오다. 선종 8년(서기 1091) 9월에 72현(賢) 상을 국자감 벽상에 그리고 그 위치(位次)는 국자감명목(國子監名目) 차례(次第)에 의하고 장복(章服)은 다 10월에 방(倣)하다.

숙종 육년에 선현을 국자감에 종사할 때 문선왕전 좌우랑에 61자(子) 21현(賢)을 새로 그려서 석전에 종사하게 하다.

예종 14년(서기 1119) 7월에 국학에 양현고를 세워 양사(養士)하다. 7년 3월에 왕이 국학에 행차하여 선성에게 석전하고 유신에게 명하여 제생을 모아 경학을 강하다. 9년 3월에 노장지학치(老莊之學治)를 금하다.

충렬왕 12년(서기 1286) 세자가 국학에 입하여 6경을 강하다. 33년 5월에 찬성사 안유(安裕)가 양현고가 탄갈(彈竭)하여 교양(教養)에 쓸 것이 없으니 백관으로 하여금 은과 포를 차(差)하여 섬학(瞻學)에 쓸 것을 청하니 왕도 또한 내고를 내어서 도우다. 안유(安裕)가 또 김문정(金文鼎)을 중원에 보내어 선성과 70자(子)의 상을 그리고 또 제기(祭器), 악기(樂器), 6경(六經), 제자(諸子), 사(史)를 사서 오다. 6월에 국학 대성전이 성(盛)하다.

공민왕 16년 12월에 성균관을 승문관의 옛 터에 창(創)하고 이색(李穡)으로 대사성을 삼고 정몽주(鄭夢周)로 박사를 삼아 매일 명륜당에서 수업하니 정주성리지학(程朱性理之學)이 시흥(始興)하다.

조선 태조 6년(서기 1397) 정축에 태학을 명립(名立)하고 익년 무인 7월에 문묘를 국도동부숭교방(國道東部崇教坊)에 세우니 즉 대성전(大聖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제기고(祭器庫), 비각(碑閣), 신문(神門), 동삼문(東三門), 내문(來門), 동서북요장(東西北繞牆), 수복청(守僕廳), 전사청(典祀廳), 포주(庖廚), 악기고(樂器庫), 악생청(樂生廳), 향관청(享官廳)이 이루어졌다. 문묘 북편에 명륜당을 세우고 성균관제조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을 명하여 4품이하 유생을 도와 경사를 강하다.

정종 2년에 문묘가 화재를 당하다. 태종원년에 성균관제주를 고쳐 사성(司成)을 삼고 악정(樂正)을 사예(司藝)로 삼고 정종 7년 정해 정월에 옛터에 다시 세우고 묘정에 입비(立碑)하다. 정종 9년에 성균전부(成均典簿) 허조(許稠)를 명하여 석전의를 리정(釐正)하고 세종 3년에 왕세자입학지예(王世子入學之禮)를 정하다.

문종 원년에 군신을 명하여 날마다 제생으로 더불어 강학하다. 문종9년에 예조가 성균관 구제학규(九制學規)를 내니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춘추, 예기, 주역으로 구재(九齋)를 삼고 회자강독(會座講讀)케 하여 매식년(每式年)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다.

선조 임진난에 문묘가 병선에 허물어지니 상(上:선조)이 용만(龍灣)으로부터 돌아와 예관 이증(李增)을 보내어 유생을 솔(率)하고 문묘허(文廟墟)에 꼭하다. 선조 34년(1601)에 문묘를 중건하다.

고종 경술국치(서기 1910) 후에 경학원(經學院)이라 칭하고 다시 명륜학원(明倫學院),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라 칭하였으며 을유년(서기 1945) 광복과 더불어 성균관대학교를 별설하였다.

第2章 釋奠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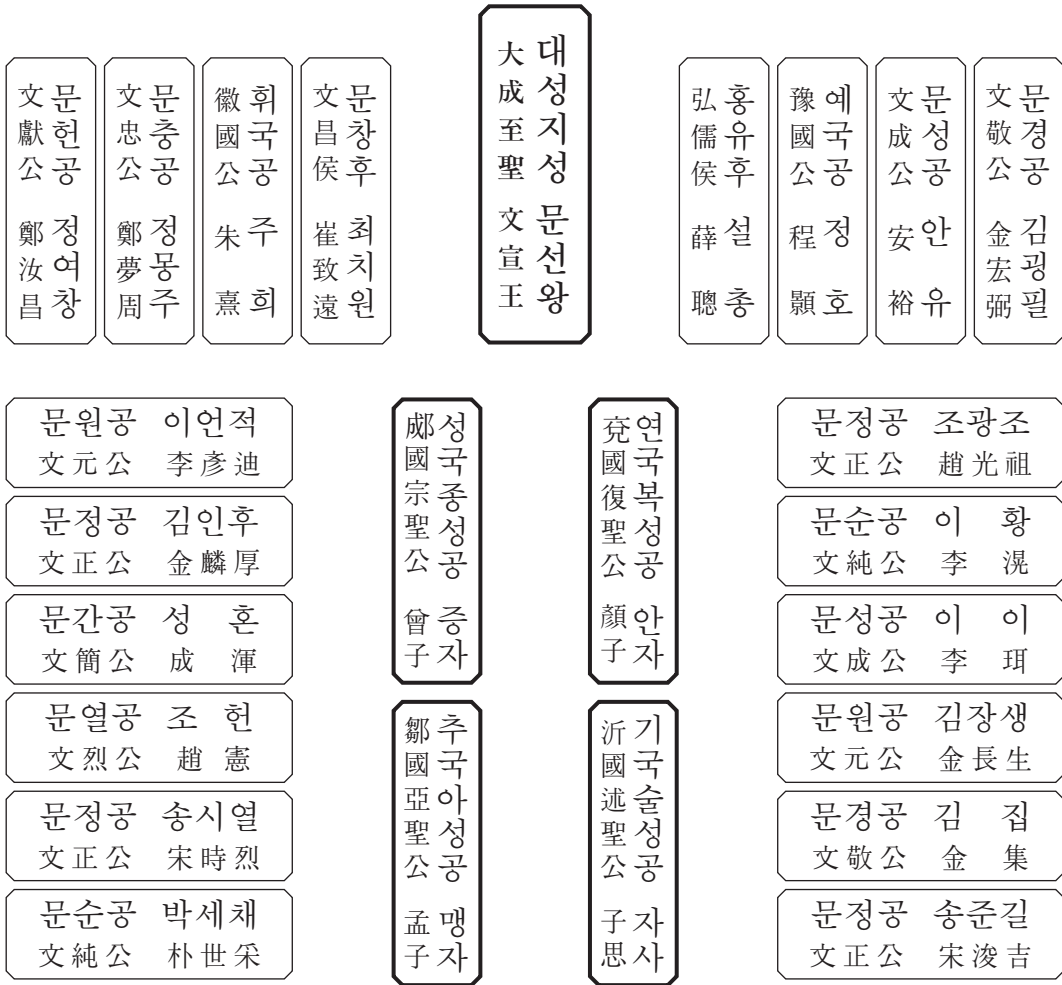
석전개요(釋奠概要)

- _선성현봉안위차도(先聖賢奉安位次圖)
- _향교석전진설도(鄉校釋奠陳設圖)
- _진설도(陳設圖)
- _문묘석전홀(文廟釋奠笏)

第2章 釋奠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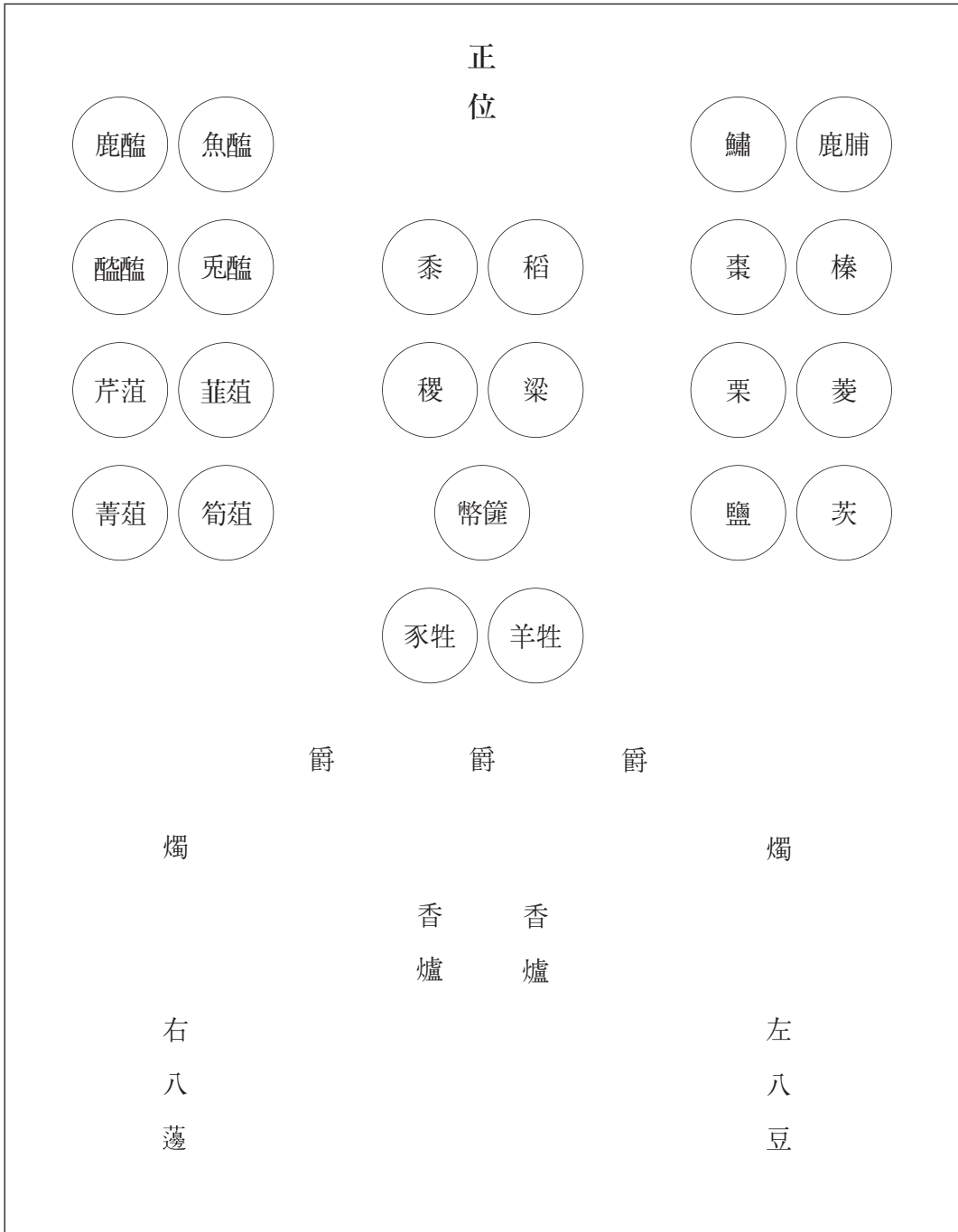
석전개요편(釋奠概要)

선성현봉안위차도(先聖賢奉安位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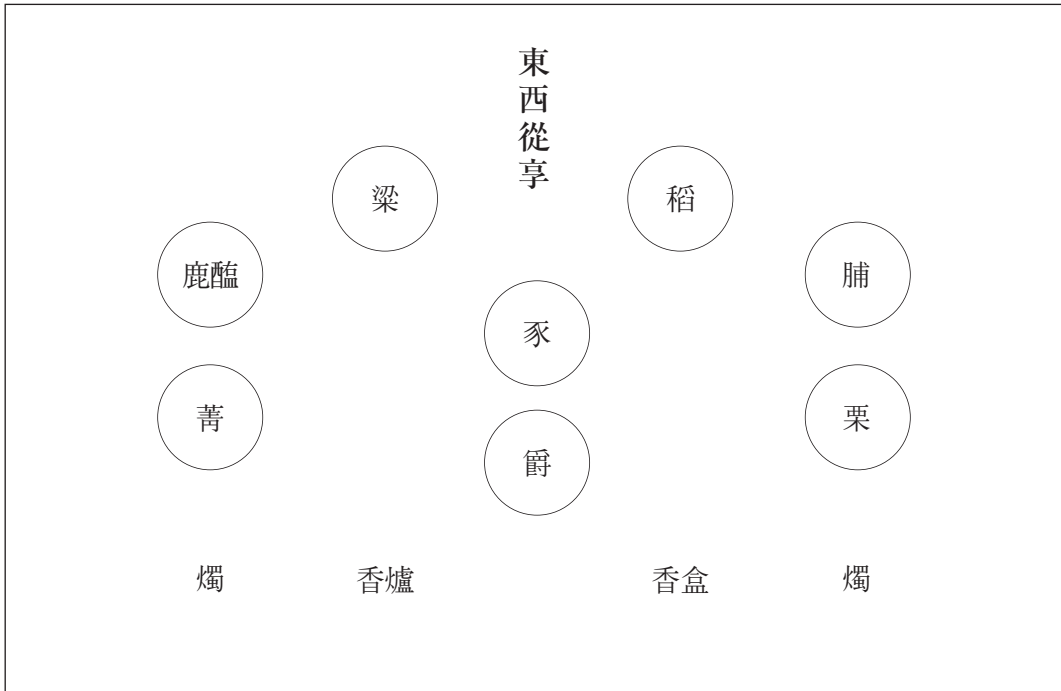


오성(五聖) 신라이현(新羅二賢) 송조이현(宋朝二賢) 고려이현(高麗二賢) 조선십사현(朝鮮十四賢) 이십오위(二十五位)

향교석진설도(鄉校釋奠陳設圖)



진설도(陳設圖)



● 제수명 해(祭需名解)

1. 황률(黃栗) : 알밤
 2. 검인(芡仁, 가시연밤) : 호도로 대용
 3. 건조(乾棗, 마른대추)
 4. 능인(菱仁, 말밤씨) : 은행으로 대용
 5. 진자(榛子, 개암열매) : 잣으로 대용
 6. 녹포(鹿脯, 노루고기) : 우육(牛肉)으로 대용
 7. 숙(鱸, 어포(魚脯)) : 등뼈 있는 포
 8. 형염(形鹽) : 흰 소금
- 이상 8변(以上 八邊)

1. 녹해(鹿醢, 노루고기) : 소고기로 대용
 2. 토해(兔醢, 토끼고기) : 저간(豬肝)으로 대용
 3. 어해(魚醢, 물고기) : 조기로 대용
 4. 해해(蟹醢, 홍합, 건합(乾蛤)) : 식해(食醢)로 대용
 5. 구저(萑菹, 부추)
 6. 순저(筍菹) : 고사리로 대용
 7. 청저(菁菹, 청무)
 8. 근저(芹菹, 생미나리)
- 이상 8두(以上 八豆)

● 성생례홀기(省牲禮笏記)

謁者引獻官詣省牲位○以次序立○掌牲令少前請省牲○退復位○首獻官省牲○掌牲令又前舉手曰膺○復位○大祝巡牲一匝○東向舉手曰充○俱復位○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省牲) 위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서시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성생하기를 청하고 복위하시오, 수헌관(首獻官)이 성생을 하시

오. 장생령이 앞에서 거수(擧手)를 하여 돌아라 하시고 복위하시오. 대축이 생을 한번 순회하고 동쪽을 향하여 거수하여 충분하다 하고 복위하시오. 대축이 장생령과 함께 차례로 이끌고 주방으로 가시오.

문묘석전홀(文廟釋奠笏)

● 文廟釋奠笏

- 前期 獻官以下 皆 盛服(전기 헌관이하 개 성복)
헌관이하 모두 제복을 입으시오.
- 陳設 設饌 於 各神位 前(진설 설찬 어 각신위 전)
진설자는 각 신위 앞에 진설하시오.
- 謁者 引 初獻官 升自 東階 點視陳設(알자 인 초헌관 승자 동계 점시진설)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동계로 올라가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살펴보시오.
- 降 復位(강 복위)
제 자리로 돌아가시오.
- 祝 及 陳設 就位 開櫝 點燭(축 급 진설 취위 개독 점축)
축과 진설은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 개독하고 촛불을 켜시오.
- 降 復位(강 복위)
제 자리로 돌아가시오.
- 執禮 率 贊唱 先就 階間拜位 四拜 俱升(집례 솔 찬창 선취 계간배위 사배 구승)
집례와 찬창은 먼저 절하는 위치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오르시오.
- 謁者 進 初獻官之 左 東向 立(알자 진 초헌관지 좌 동향 입)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동쪽방향으로 보고 서시오.
- 請 行事(청 행사)
행사를 청하시오.
- 獻官以下 在位者 皆 四拜, 鞠躬 跪(헌관이하 재위자 개 사배 국궁 궤)

헌관이하 모든 제관은 네 번 절하시오. 허리를 굽혔다가 꿇어앉으시오.

-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배-흥 배-흥 배-흥 배-흥 평신)

엎드려 절하시오 (네 번 반복) 바로 하시오.

- 奠爵 奉爵 俱詣 爵洗位 洗爵拭爵(전작 봉작 구예 작세위 세작식작)

전작과 봉작은 함께 술잔을 씻는 자리로 가서 잔을 씻고 닦으시오.

- 奉詣 尊所 置于坫上(봉예 준소 치우점상)

씻은 잔을 준소의 상 위에 놓으시오.

- 降 復位(강 복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 奠幣禮(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예)

- 謁者 引 初獻官 詣 盥洗位 北向立(알자 인 초헌관 예 관세위 북향입)

알지는 초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가서 북쪽으로 보고서시오.

- 獻官 搯笏 盥手 帨手(헌관 진홀 관수 세수)

헌관은 홀을 씻고 관수 세수 하시오.

- 獻官 執笏 升自 東階(헌관 집홀 승자 동계)

헌관은 홀을 잡고 동쪽계단으로 오르시오.

- 祝 奉香 奉爐 俱升(축 봉향 봉로 구승)

축관과 봉향 봉로는 함께 오르시오.

- 仍詣 大成至聖文宣王 神位前 北向跪 搯笏(잉예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 북향계 진 홀)

대성지성문선왕 신위 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홀을 씻으시오.

- 奉香 奉 香盒 跪于 獻官之 右(봉향 봉 향합 꿇우헌관지 우)

봉향은 향합을 받들어 헌관의 오른편에 꿇어앉으시오.

- 奉爐 奉 香爐 跪于 獻官之 左(봉로 봉 향로 꿇우헌관지 좌)

봉로는 향로를 받들어 헌관의 왼편에 꿇어앉으시오.

- 獻官 三上香(헌관 삼상향)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祝以幣授獻官(축 이폐 수 헌관)
축은 폐백을 들어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獻幣授祝(헌관 헌폐 수 축)
헌관은 폐백을 받아 축에게 주시오.
- 祝奠于神位前(축 전우신위 전)
대축은 폐백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兗國復聖公神位前 東向跪 搢忽(차예 연국복성공신위전 동향궐 진홀)
다음은 연국 복성공 신위 앞으로 나와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 三上香如初(삼상향 여초)
처음과 같이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獻幣如初(헌폐여초)
처음과 같이 폐백을 올리시오.
- 執笏俯伏興平身(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邳國宗聖公神位前 西向跪 搢笏(차예 성국 종성공 신위 전 서향궐 진홀)
다음은 성국 종성공 신위 전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 三上香如初(삼상향 여초)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獻幣如初(헌폐여초)
폐백을 올리시오.
- 執笏俯伏興平身(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沂國述聖公神位前 東向跪 搢笏(차예 기국 술성공 신위 전 동향궐 진홀)
다음은 기국 술성공 신위 전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獻幣(헌폐)
폐백을 올리시오.
 - 執笏 俯伏 興 平身(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鄒國亞聖公 神位 前 西向跪 搢笏(차예 추국아성공 신위 전 서향궤 진홀)
다음은 추국 아성공 신위 전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獻幣(헌폐)
폐백을 올리시오.
 - 執笏 俯伏 興 平身(집홀 부복 흥 평신)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皆降 復位(개강 복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 初獻禮(초헌관이 첫 번째로 술을 드리는 예)
- 謁者引 初獻官 詣 文宣王尊所 西向立(알자인 초헌관 예 문선왕준소 서향입)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문선왕 준소에 이르러 서쪽으로 보고서시오.
 - 祝 司尊 奉爵 奠爵 俱升(축 사준 봉작 전작 구승)
축 사준 봉작 전작은 모두 오르시오.
 - 司尊 舉罍 酌酒(사준 거떡 작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 奉爵 以爵 受酒(봉작 이작 수주)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 獻官 詣 神位前 北向跪 搢笏(헌관 예 신위전 북향 궤 진홀)

헌관은 신위 전에 이르러 북쪽으로 보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 奉爵進跪于獻官之右(봉작 진 꿇우헌관지 우)
봉작은 나아가 헌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은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以爵受奠爵(헌관 이작 수 전작)
헌관은 술잔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祝進于獻官之左, 東向跪讀祝(축 진우 헌관지 좌, 동향궐 독축)
축은 나아가 헌관의 왼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보고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祝降復位(축 강 복위)
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次詣復聖公神位前 東向跪 搢笏(차예 복성공 신위전 동향궐 진홀)
다음은 복성공 신위 전에 가서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宗聖公神位前 西向跪 搢笏(차예 종성공 신위 전 서향궐 진홀)
다음은 종성공 신위 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述聖公 神位前 東向 跪 搢笏(차예 술성공 신위전 동향 꿇 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 奉爵 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亞聖公 神位前 西向 跪 搢笏(차예 아성공 신위전 서향꿇 진홀)
다음은 아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 奉爵 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獻官 降 復位(헌관 강 복위)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 亞獻禮(아헌관이 두 번째로 술을 올리는 예)
- 贊引 引 亞獻官 詣 盥洗位 北向 立 搢笏 盥手 帨手(찬인 인 아헌관 예 관세위 북향 입 진홀 관수 세수)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하여 서시오.

- 獻官執笏 仍詣 文宣王 尊所 西向立(헌관집홀 잉예 문선왕 준소 서향입)
헌관은 홀을 잡고 문선왕 준소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 司尊 舉幕 酌酒(사준 거막 작주)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 奉爵 以爵 授酒(봉작 이작 수주)
봉작은 잔에 술을 받으시오.
- 獻官 詣 神位前 北向跪 搢笏(헌관 예 신위전 북향궐 진홀)
헌관은 신위 전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꺾으시오.
- 奉爵 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 執爵 獻爵 以爵 授 奠爵(헌관 집작 헌작 이작 수 전작)
헌관은 잔을 잡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復聖公 神位前 東向跪 搢笏(차예 복성공 신위전 동향궐 진홀)
다음은 복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꺾으시오.
- 奉爵 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宗聖公 神位前 西向跪 搢笏(차예 종성공 신위전 서향궐 진홀)
다음은 종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꺾으시오.
- 奉爵 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 俯伏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述聖公 神位前 東向跪 搢笏(차예 술성공 신위전 동향계 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꽂으시오.

- 奉爵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 俯伏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 亞聖公 神位前 西向跪 搢笏(차예 아성공 신위전 서향계 진홀)

다음은 아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꽂으시오.

- 奉爵以爵 授 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 奠于神位 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 俯伏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獻官降 復位(헌관 강 복위)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 終獻禮 及 分獻禮(종헌관과 분헌관이 술을 올리는 예)

- 謁者 贊引 各引 終獻官 及 分獻官 詣盥洗位 (알자 찬인 각인 종헌관 급 분헌관 예관 세위)

알자와 찬인은 각 종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이르시오.

- 搢笏 盥手 帨手 執笏(진홀 관수 세수 집홀)

홀을 깨끗고 관수 세수하고 홀을 잡으시오.

- 引詣 大成至聖文宣王 及 各從享位 尊所 西向 立(인예 대성지성문선왕 급 각 종향위 준소 서향입)

各 分獻官 執事 俱升(각 분헌관 집사 구승)

대성지성 문선왕과 각 종향위 준소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오, 각 분헌관 집사들도 오르시오.

- 各 司尊 舉罍 酌酒 奉爵 以爵 受酒(각 사준 거며 작주 봉작 이작 수주)

각 사준은 뚜껑을 열고 술을 따르고 봉작은 술잔을 받으시오.

- 引詣 大成至聖文宣王 及 各 從享位 神位前(인예 대성지성문선왕급 각 종향위 신위 전)

대성지성문선왕과 각 종향위 신위 전에 이르러 각 신위를 향해 서시오.

- 終獻官 搢笏 跪 分獻官 跪 三上香(종헌관 진홀 궤 분헌관 궤 삼상향)

종헌관은 꿇어 앉아 홀을 꺾으시고 분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各 奉爵 以爵 授 獻官(각 봉작 이작 수 헌관)

각 봉작은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各 獻官 執爵 獻爵 以爵 授 奠爵(각 헌관 집작 헌작 이작 수 전작)

각 헌관은 잔을 잡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各 奠爵 受爵 奠于神位 前(각 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각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分獻官 獻爵 如上儀(분헌관 헌작 여 상의)

분헌관은 위의 예대로 술잔을 드리시오.

- 次詣 復聖公 神位前 東向跪 搢笏(차예 복성공 신위전 동향궤 진홀)

다음은 복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깨끗이 하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宗聖公神位前西向跪搢笏(차예 종성공 신위전 서향궐 진홀)
다음은 종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꽂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述聖公神位前東向跪搢笏(차예 술성공 신위전 동향궐 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꽂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亞聖公神位前西向跪搢笏(차예 아성공 신위전 서향궐 진홀)
다음은 아성공 신위 전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앉고 홀을 꽂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 이작 수 헌관)
봉작이 술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전작 수작 전우신위 전)

전작은 술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諸獻官分獻官以下執事皆降復位(제 헌관 분헌관 이하 집사 개강 복위)
모든 헌관 분헌관 집사는 복위하시오.
- 三獻官及分獻官皆四拜(삼헌관 급 분헌관 개 사배)
삼헌관과 분헌관은 다 같이 네번 절하시오.

● 行飲福禮(초헌관이 음복을 하는 예)

- 謁者引初獻官升詣飲福位西向跪搢笏(알자 인 초헌관 승예 음복위 서향궐 진홀)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음복위에 오르시오.
- 祝詣獻官之左北向跪(축 예 헌관지 좌 북향궐)
대축은 헌관의 외편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取福酒授祝(전작 취 복주 수 축)
전작이 음복주를 대축에게 주시오.
- 祝進於獻官(축 진어 헌관)
대축은 헌관 옆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시오.
- 獻官受爵卒爵(헌관 수작 졸작)
헌관은 술잔을 받아 마시시오.
- 祝受虛爵復于坫(축 수 허작 복우점)
대축은 술잔을 받아 상위에 놓으시오.
- 祝進減神位前胙肉授獻官(축 진감 신위 전 조육 수 헌관)
전작은 신위 전에 나아가 조육을 덜어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受胙(헌관 수조)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 還授祝復于坫(환수 축 복우점)
전작이 도로 받아 상 위에 놓으시오.

- 獻官執笏俯伏興平身(헌관 집홀 부복 흥 평신)
헌관은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皆降復位(개강 복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望瘞禮(축문을 사르고 행사를 마무리 하는 예)
 -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알자 인 초헌관 예 망예위 북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망예위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 祝升徹籩豆(축 승 철 변두)
축은 올라 변과 두를 철하시오.
 - 祝以篚取幣祝降自西階置於坎(축 이비 취 폐축 강좌 서계 치어 감)
축은 대광주리에 폐백과 축문을 담아 서계로 내려가 구덩이 옆에 놓으시오.
 - 爲瘞(위예)
불사르고 묻으시오.
 - 獻官以下皆復位(헌관 이하 개 복위)
헌관 이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諸獻官及在位者皆四拜鞠躬跪(제 헌관 급 재위자 개 사배 국궁 궤)
헌관과 재위자 모두는 네 번 절하시오. 허리를 굽혀 꿇어앉으시오.
 -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배-흥 배-흥 배-흥 배-흥 평신)
절하시오- 바로 하시오(네 번 반복) 일어나시오.
 - 祝及陳設各就位闔(축 급 진설 각 취위 합독)
대축과 진설은 각자 제자리로 나아가 합독하시오.
 - 謁者獻官之左告禮畢(알자 헌관지 좌 고 예필)
알자는 헌관의 좌편에 가서 예필을 고하시오.
 - 獻官以下在位者以次出(헌관 이하 재위자 이차 출)
헌관이하 재위자 모두는 차례로 나아가시오.
 - 掌饌者率其屬撤饌閉戶(장찬자 솔 기속 철찬 폐호)

장찬자는 그 종사자들과 같이 제수를 거두고 문을 닫으시오.

● 석전축문(釋奠祝文)

유공기(維孔紀) 년(年) 세차(歲次) 월(月) 일(日)

후학(後學) 모(某) 감소고우(敢昭告于)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복이(伏以) 도관백왕 만세종사(道冠百王 萬世宗師)
 자치상정 정인시의(茲值上丁精禋是宜) 근이(謹以) 생폐예제(牲幣醴齊) 자성서품(棗盛
 庶品) 식진명천(式陳明薦) 이(以) 선사(先師)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 성국종성공(郟國
 宗聖公)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 배(配) 송조이현(宋朝二賢)
 아국십팔현(我國十八賢) 종(從) 상(尙) 향(饗)

● 석전 집사목(釋奠執事目)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동종향 헌관(東從享 獻官)

서종향 헌관(西從享 獻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전사관(典祀官)

진설(陳設)

사준(司尊)

봉작(奉爵)

전작(奠爵)

봉향(奉香)

봉로(奉爐)

알자(謁者)

찬 인(贊 引)

찬 창(贊 唱)

● 文廟 朔望 焚香 笏記

○謁者引 獻官 及 執事 各 就位 ○執事者 就位 點燭 ○降 復位 ○謁者引 獻官 盥洗位 盥手 帨手 ○引詣 大成至聖文宣王 神位 前 ○北向跪 ○奉香 奉爐 進 獻官之 左右跪 ○三 上香 ○俯伏 興 平身 ○獻官 及 在位者 皆 降復位 ○獻官及 在位者 皆 四拜 ○鞠躬跪 ○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謁者引 獻官 及 在位者 以次出 ○禮畢

● 文廟 告由 笏記

○謁者引 獻官 及 執事 就位 ○祝 就位 點燭 ○降復 位 ○謁者引 獻官 及 祝 盥洗位 盥 手 帨手 ○引詣 大成至聖文宣王 神位 前 ○北向跪 ○奉香 奉爐 進 獻官之 左右跪 ○三上 香 ○在位者 皆 俯伏 ○讀 告由文(祝) ○俯伏 興 平身 ○獻官 及 在位者 皆 降復位 ○獻 官 及 在位者 皆 四拜 ○鞠躬跪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謁者 引 獻官 及 在位者 以次 出 ○禮畢

第3章 聖賢略史

성현약사(聖賢略史)

- _오성위 약사(五聖位 略史)
- _공문10철 약사(孔門十哲 略史)
- _송조6현 약사(宋朝六賢 略史)
- _동국18현 약사(東國十八賢 略史)
- _서무9위(西廡九位)
- _도통원류도(道通源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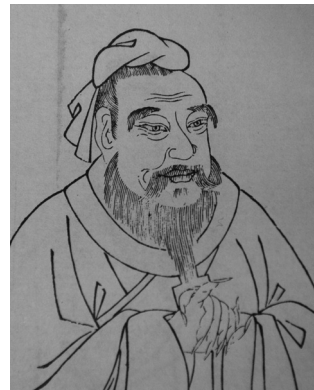
第3章 聖賢略史

오성위 약사(五聖位 略史)

공자(孔子)

● 공자의 연보(年譜)

공자의 성은 공씨(孔氏)요 휘(諱)는 구(丘)며 자는 중니(仲尼)이시며 기원전 551년 주(周) 영왕(靈王) 21년, 노(魯) 양공(襄公) 21년 경술 11월 경자(庚子)에 노국(魯國)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 현 산동성 추현(鄒縣) 노원촌(魯原村))에서 탄생하시다. (경술 11월 경자는 현 역법으로 8월 27일에 해당함) 부(父) 숙량홀(叔梁紇), 모(母) 안징재(顏徵在)이시며 니구산(尼丘山)에 빌어 출생하시다.



공자께서는 2남 9녀 중 차남이다.

• 공자 3세

부친 숙량홀 사망으로 모친을 따라 곡부(曲阜)로 이거(移居)하여 15세에 「서(序)」라는

학교에 입학하시다.

- 17~8세

학식으로 부근에서 유명하여 지시다.

《호학전념(好學專念, 논어 술이(述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힘써서 구하는 자이다.”(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최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라.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者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 공자 19세

모친의 권유로 결혼하시다. (부인은 기관씨(卍官氏)의 딸)

- 공자 20세

노국(魯國) 위리(委吏, 창고지기 및 징세관리)

공자 신장: 9척6촌(九尺六寸), 용모 비범.

공자 생남(生男): (노 소공(魯昭公) 송이축하(頌鯉祝賀)) 휘(諱) 이(鯉), 자 백어(伯魚)

공자 가축(家畜) 관장(管掌): 노국의 축산업이 번창함.

공자 학식과 덕망이 점차 유명하여지고 제자 점차 많아짐.

- 공자 24세

모친이 사망하여 노국 동쪽 방산(防山)에 부친과 합장하고 25개월간 복상(服喪)하시다.

- 공자 28세

담자(鄒子)에게 고대관제(古代官制)를 질문하시다.

- 공자 31세

제(齊) 경공(景公)이 안평중(晏平仲)을 대동하고 노국을 방문하여 공자에게 패도(霸

道)를 문답하다. 공자의 명성이 점차 높아지다.

《당시 공자의 존경인물》

주(周)나라 노자(老子), 초(楚)나라 노래자(老萊子), 제(齊)나라 안평중(晏平仲), 위(衛)나라 거백옥(蘧伯玉), 정(鄭)나라 자산(子產), 노(魯)나라 맹공작(孟公綽)

• 공자 35세

노(魯) 소공(昭公)의 허락을 받아 제자 남궁경숙(南宮敬叔)과 동행하여 주(周) 나라 낙양(洛陽)에 가서 노자(老子)를 만나다. (노자 당시 70세) 동시에 장홍(襄弘)에게 음악을 배우다. 경지(境地)에 이른다.

《장홍(襄弘)의 공자평》

「공자는 성인의 상이다. 얼굴은 황제 같고 그 모습은 탕왕(湯王)과 같도다.」하였다. 귀국 후 학식 덕망이 점차 유명하여지고 제자가 삼천에 이른다.

• 공자 36세

노(魯) 소공(昭公)이 계평자(季平子, 3환(三桓)의 1)의 난으로 제로 망명하자 소공을 쫓아 제나라로 가다. 제(齊) 경공(景公)이 공자를 만나 치국 문답을 하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안평중의 반대로 실패하다. 제나라에서 순(舜)임금의 소(韶) 음악을 들으시고 3개월 간 침식을 잊고 배우시다.

• 공자 43세

공자, 노나라에 돌아오고 노나라 소공이 노나라 변방 건후(乾侯)에서 홍거(薨去)하고 소공의 아우 정공(定公)이 계승하다.

• 공자 51세

노 정공이 중도(中郟)의 재(宰, 읍장)로 임명하다. 중도의 정치가 크게 성공하다.

• 공자 52세

사공(司空)에 임명되다. (건설부장관)

• 공자 53세

사구(司寇) 겸 재상에 임명되다. (법무부장관) 계속하여 대사구(大司寇)에 임명되다.

사구에 임명된 후 7일 만에 노나라 대부 소정묘(少正卯)를 목베다. 노나라와 제나라 양국 국경의 협곡에서 회맹(會盟)하게 되자 공자께서 정공을 수행하여 큰 공을 세우시다.

• 공자 55세

노의 삼환씨(三桓氏, 맹손(孟孫), 숙손(叔孫), 계씨(季氏))를 축출하려다 성공하지 못하고 정공(定公)이 제(齊)나라로부터 보내온 미녀(美女, 악녀(樂女) 80명, 말 60필)에 혹하여 공자를 멀리하다.

• 공자 56세

천하를 주유하기 시작하시다.

《공자 당시의 중국정세》

주나라 말기, 춘추전국시대.

황하를 중심으로 제후국이 백여 개로 약육강식의 상쟁(相爭)이 계속 되었다. 공자와 관련된 제후국은 십여 국이 되었다,

노국(魯國, 공자 모국)

제국(齊國, 노나라의 맹주국) 노나라의 동북방

위국(衛國, 노나라의 서방) 공자 3차 방문

송국(宋國, 노나라 위국(衛國)의 남방)

진국(陳國, 노나라의 남방)

(민공(湣公)이 공자를 객경(客卿) 대우)

채국(蔡國) 은자(隱者) 장저(長沮) 걸익(桀溺)을 만났다.

초국(楚國), 정(鄭), 조국(曹國), 오국(吳國의, 부차(夫差)), 월국(越國의, 구천(句踐)) 등 제국(諸國)이다.

• 공자 56~69세

전후 14년을 각 제후국을 방문,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고 설교하였다.

광(匡)지역의 난, 양민을 학살하고 식량을 약탈하는 양호(陽虎)로 오인당하여 수난을 당하시고 진(陳)나라 채(蔡)의 황야(荒野)에서 액(厄)을 당하심. 초나라로 가는 도중, 진(陳)나라 채(蔡) 양국의 방해로 극심한 수난을 당하시다. 65세에 위국(衛國)에 계시면서 고국 노나라의 위기를 들으시고 제자들과 상의, 자공(子貢)으로 하여금 노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동분서주 왕도를 행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었다.

• 공자 69세

고국 노(魯)에 환국하시어 이후 교학(敎學)에 전념하시다.

공자 제자 전후 삼천인. 안자(顔子), 증자(曾子)를 위시하여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육예(六藝)에 통달한 분이 72인에 달하였다.

• 공자 73세

주(周)나라 경왕(敬王) 41년 임술 사월 11일 홍거(薨去)하시니 노성(魯城) 북쪽 사상(泗上)에 장사지냈다. 노성 북쪽 사수변(泗水邊)에 제자들이 모여 3년 복상(服喪)하는 중 『논어(論語)』를 편집하였으며, 100여 호가 정착 거주하여 ‘공리(孔里)’라 칭하게 되었다.

송(宋)나라 진종(眞宗)은 지성문성왕(至聖文宣王)에 봉하시고 원(元)나라 무종(武宗)은 대성(大成)을 가호(加號)하시고 명(明)나라 세종(世宗)은 지성선사(至聖先師)라 개칭하시다.

공부자의 인격은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안연(顔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仰之彌高하며 鑽之彌堅하며 瞻之在前에 忽然在後”로다.

공부자의 께서는 『시서(詩書)』를 산정(刪定)하시고 예악(禮樂)을 논술하시었으며 『주역(周易)』을 찬(贊)하시고 『춘추(春秋)』를 정리하시다.

● 공자의 선계(先系)

황제(皇帝) — 현원씨(軒轅氏) — 현효(玄囂) — 교극(蛟極) — 제곡(帝嚳) — 설(契) — 소명(昭明) — 상토(相土) — 창약(昌若) — 조어(曹圉) — 명(冥) — 진(振) — 미(微) — 보을(報乙) — 보병(報丙) — 보정(報丁) — 주임(主壬) — 주계(主癸) — 태을(太乙, 은탕(殷湯)) — 태정(太丁) — 태갑(太甲) — 태경(太庚) — 태술(太戊) — 하단갑(河亶甲) — 조을(祖乙) — 조행(祖辛) — 조정(祖丁) — 소을(小乙) — 무정(武丁) — 조갑(祖甲) — 강정(康丁) — 무을(武乙) — 문정(文丁) — 제을(帝乙) — 미중연(微仲衍) — 송공계(宋公稽) — 정공신(丁公申) — 민공공(愍公共) — 불보하(弗父何) — 송보주(宋父周) — 세부승(世父勝) — 정고보(正考父) — 공보가(孔父嘉) — 목금보(木金父) — 공기보(孔祁父) — 방숙(防叔) — 백하(伯夏) — 숙량흠(叔梁紇) — 공자(孔子) 보

● 공자성적촬요(孔子聖蹟撮要)

사기세가(史記世家)에 이르되 공자의 휘(諱)는 구(丘)요 자는 중니(仲尼)니 그 선세(先世)는 송(宋)인이라, 부는 숙량홀(叔梁紇)이니 추읍대부(鄒邑大夫)가 되었다. 선취(先聚) 먼저 시씨(施氏)에게 장가들어 9녀를 낳으시고 또 첩(妾)에게서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은 맹피(孟皮)라. 족병(足病)이 있어 계사(繼嗣) 불가능하자 곧 안씨 집안과 혼인할새 안씨(顔氏)에게 세 딸이 있어 그 아버가 묻기를 추대부(鄒大夫)는 조상이 성왕(聖王)의 후예로 지금 그 사람이 신장 9척이요 무력(武力)이 뛰어나 나이 비록 많으나 부족위의(不足爲疑)이니 셋 중 누가 그의 처가 되겠는가 한즉 어린 딸 징재(徵在)가 왈 “소녀가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하여 그의 아내가 됨에 안씨는 남편이 나이가 많아 아들 낳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니구산(尼丘山)에 기도하였거늘 산승지곡(山升之谷)에 초목의 지엽(枝葉)이 다 일어나고 산강지곡(山降之谷)에 초목의 지엽(枝葉)이 드리워졌다. 이는 『공씨조정기(孔氏祖庭記)』에 기재되었음, 공부자 탄강 전에 기린(麒麟)이 옥서(玉書)를 꺾리촌(關里村)에 토(吐)하였는데 그 글에 수정지자(水精之子)가 쇠국(衰國)을 이어 소왕(素王)이 될 것이라 하여 성모(聖母) 안씨(顔氏)께서 기이여기시어 수불(繡紱)로 빨에 매여 3일간 신숙(信宿)한 후에 부지거처(不知去處)하다. 광기(廣記)에 또 신기를 탄생 저녁에 두 용이 요공(繞空)하고 다섯 노인(5성의 정기임)이 마당에 강하응지(降下應之)하고 안씨 방에 조천악(鈞天樂, 천상음악)이 있고 공중에서 성언(聲言)이 있어 하늘이 감동하여 성자(聖子)를 낳은 고로 화락지음(和樂之音)이 내렸음이라하다. 공부자 탄강 즉시에 삼신녀(三神女)가 천상으로부터 향로수(香露水)를 가지고 내려와 목욕을 하게 했으며 천제(天帝)가 균천지악(鈞天之樂)을 내려 안씨의 방에서 연주하고 공중에 또 성언(聲言)호대 하늘이 감동하여 성자를 낳은 고로 화락생용지음(和樂笙鏞之音)을 내린다하다. 이는 다 광기(廣記)에 기록되어 있다.

● 공자모형기상(孔子貌形氣像)

공자 나면서 49가지 이표특상(異表特相)하니 - 반수(反首), 와면(洼面), 월각(月角), 일

준(日準), 하목(河目), 해구(海口), 용안(龍顏), 우진(牛唇), 창안(昌顏), 균이(均頤), 보후(輔喉), 변치(駢齒), 용형(龍形), 구척(龜脊), 호장(虎掌), 변득(胼胝), 수광(修肱), 삼옹(參膺), 우항(圩項), 산제(山臍), 임발(林發), 익비(翼臂), 왕두(窩頭), 융비(隆鼻), 제미(堤眉), 지족(地足), 곡규(谷竅),뢰성(雷聲), 택복(澤腹), 수두(修肚), 추하(趨下), 말루(末僂), 후이(後耳), 면여몽기(面如蒙俱), 양목방상(兩目方相) 수수과슬(手垂過膝), 이수주정(耳垂珠庭), 미유12채(眉有十二彩), 목유이십사리(目有二十四理), 입여봉치(立如鳳峙), 좌여용준(坐如龍蹲), 수악천문(手握天文), 족리도자(足履度字), 망지여사(望之如社), 취지여승(就之如昇), 수상추하(修上趨下), 말루후이(末僂後耳), 시약사해(視若四海), 이수주정(耳垂珠庭), 기경사요(其頸似堯), 기상사순(其類似舜), 기견류자산(其肩類子產), 자요이하불급우삼촌(自要以下不及禹三村), 궁리겸양(躬履謙讓), 흉유문왈제작성세부(胸有文曰制作定世符), 신장9척6촌(身長九尺六寸), 요육십위(腰六十圍), 하목(河目)과 해구(海口)와 용영(龍穎)은 황제의 형모(形貌)요 수수과등(手垂過騰)과 구배호장(龜背虎掌)과 신장 9척6촌은 성탕(成湯)의 용체(容體)라.

공자께서는 천종(天縱)하신 생이지지(生而知之)의 대성(大聖)으로써 호학불염(好學不厭)하여 일찍이 이제삼왕치천하(二帝三王治天下)의 대도(大道)를 선각하시고 측항자애(惻恒慈愛)하신 구세의 진성(眞誠)이 하루라도 천하를 잊지 못 하사 석불가난(席不暇煖)하여 철환천하(轍環天下)하여 당시 은둔주의자의 비난을 무릅쓰며 광(匡)의 난과 진채(陳蔡)의 액(厄)을 비경(備經)하시고 각국에 순방하셨으나 시군세주(時君世主)가 능히 쓰지 못한 고로 만년에 도종불행(導終不行)할 것을 아시고 교육에 전념하시와 시서를 산정(刪定)하시며 예악을 논술하시고 주역을 찬(贊)하시며 춘추를 수정하여 육경의 학으로써 삼천문도에게 전수하여 비록 정교(政教)로써 그 당시에 실행치는 못하였으나 천하만세에 인도의 규범을 들려주신 그 성덕대업은 참으로 만세 부자(夫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실지(實地)의 역량과 수완으로 말씀하면 51세에 노나라의 중도재(中都宰)란 읍장(邑長)이 되어서 1년 만에 사방 제후가 다 효칙(效則)하였고 그 후 대사구(大司寇)로 승진하사 상사(相事)를 집행(攝行)하고 국정을 여문(與聞)하심에 3월(三月)에 노나라가 대치(大治)라 하였으니 이 위대한 우화정신(偶化精神)의 묘(妙)는 가위 천지동

류(天地同流)라 할 것이다. 주나라 경왕(周敬王) 41년 임술년 4월 11일에 졸(卒)하시니 나이 73세이니 임종 전일에 기린(麒麟)이 또 나타났는데 뿔에 수불(繡紱)이 상존하였다. 부자께서 그 모친의 수적(手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수불을 끊어 놓아 주셨다. 노국성(魯國城) 북해상(北海上)에 장사지내니 제자가 다 심상(心喪) 3년을 입고 오직 자공(子貢)은 묘방에 여막을 짓고 6년을 지내니라.

● 공자수식회(孔子手植檜)

부자(夫子)께서 심으신 회(檜)나무 두 그루가 하나는 성전(聖殿)옆에 있고 하나는 행단(杏壇) 동편에 있는데 향기가 특이하고 무늬가 또 이상하여 좌편에 있는 나무는 좌편으로 우편에 있는 나무는 우편으로 무늬가 있고 나무 가지는 용의 형상과 같이 구불구불하여 5~6장의 높이에 달했다. 그런데 역대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으려면 그 나무가 먼저 일영일고(一榮一枯)하여 구서(龜筮)와 같이 조짐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무에 영고한 시대를 상고하여 보면 진(晉)나라 회제(懷帝) 영가(永嘉) 3년에 고사하였다가 309년 만에 수(隋)나라 공제(恭帝) 의령(義寧) 원년(元年)에 부생(復生)하고 부생한 지 51년이던 고종(高宗) 건봉(乾封) 2년에 또 고사하고 그 후 374년이던 송나라 인종(仁宗) 강정(康定) 원년(元年)에 재영(再榮)하다가 금(金)나라 선종(宣宗) 정우(貞祐) 2년에 병화(兵火)에 소사(燒死)하고 그 후 81년 되던 원(元)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3년에 고근(故根)이 중발(重發)하여 동무(東廡) 퇴벽간(頽壁間)에 세가지가 줄생(茁生)하였다. 그때에 교수(教授) 장자(張髭)이 전일 나무가 있던 데로 이식하여 명 태조(太祖) 22년에 이르러 높이가 3장(丈)이요 둘레가 4척(尺)이요 무늬는 좌선(左旋)하여 그전 나무와 다름이 없었고 효종(孝宗) 홍치(弘治) 12년 기미년에 또 소사(燒死)하여 지엽이 탈진하고 고간(孤幹)이 불고불영(不枯不榮)하여 단단하기가 철금(鐵金)같더니 청(淸)나라 세종(世宗) 옹정(雍正) 2년에 재차 소화(燒火)하여 근주(根株)가 소진하였다가 동 10년에 행단(杏壇) 남편 수십 보(步) 허(許)에 홀연히 싹이 나서 지금은 아릅드리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태산지(泰山誌)』를 보면 것처럼 고사한 것은 오호(五胡)의 난을 조짐함이요, 그 부생(復生)한 것은 당나라 정관(貞觀) 성치(盛治)를 조짐함이요, 건봉(乾封)에 재고(再枯)한 것

은 무후(武侯)의 절정(竊政)하던 일과 오대(五代)의 난이 상계(相繼)하는 것을 조짐함
 이요, 강정(康定)에 재영(再榮)한 것은 송나라 300여 년 간에 군현(群賢)이 배출함을 조짐
 한 것이요, 정우(貞祐)에 소화한 것은 호운(胡運)이 성할 조짐이요, 지원(至元) 갑오(甲
 午)에 중발(重發)한 것은 명나라가 흥기할 징조라 하였다. 그런데 홍치(弘治) 옹정(雍正)
 때에 소사한 것은 무슨 조짐이 되었으며 또 옹정(雍正) 10년에 재생한 것은 무엇을 조짐
 함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성인의 수택(手澤)에 성장한 나무가 범목과는 다른 것이다. 송나
 라 미불(米芾)의 찬(贊)에는 ‘焯東皇, 養白日, 御元氣, 昭道一, 動化機, 此檜植, 矯龍性, 挺
 雄質, 二千年, 敵金石, 紜治亂, 如一夕, 百代下, 蔭圭璧’이라 하고 명나라 서원(徐源)의 시
 에는 ‘孔定訖端拜, 有樹當軒垂, 根槎僅百尺, 上閱姬周曦, 徘徊再瞻顧, 宣尼手親移, 種自
 闕里地, 灌以洙泗池, 斯文續東壁, 蘖豈秦火地, 念車千載下, 東家聳鼓楹, 穹碑與喬木, 林
 立如廣畦, 名書掣驚電, 雄文重離門, 回頭向東岱, 御帳高已畢, 珍培賴衍聖, 斤斧非所宜,
 皇天佑吾道, 綿遠仍若斯, 維此亦木爾, 所歆寧在茲, 寰中大山壑, 庶矣萬年枝’라 하였으며,
 기타 역대 여러 사람의 찬명(贊銘)과 시문이 또 수백편이나 된다.

● 성묘(聖墓)와 성전(聖殿)에 시죽성(絲竹聲)

부자께서는 진시황(秦始皇)의 분갱(焚坑)하는 열화(烈禍)가 있을 것을 예지(預知)하
 시어 돌아가실 때에 문인에게 허묘(虛墓)를 묻어두라고 경계를 하시었으므로 문인들이
 성묘(聖墓)를 사상(泗上)에다 모시고 묘 북쪽으로 허오간(虛五間)을 석축하여 조성하였
 었는데 과연 진시황이 시서를 불에 사르고 유생을 갱살(坑殺)할 때에 성묘를 발굴하여
 만일 시서가 있으면 분멸(焚滅)하려고 하여 허묘를 성묘로 인증(認證)하고 발굴하는데
 가중(家中)으로 백토(白兔)가 홀연히 달아나는 것을 보고 시황이 잡고자하여 곡부 서쪽
 8리구(八里溝)까지 쫓아 왔었는데 백토가 별안간에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나라
 사람들이 팔리구를 백토구(白兔溝)라고 개칭하였고, 그때에 집안 벽상(壁上)에 각문(刻
 文)이 있었으니 그 글에 ‘秦始皇何强梁, 開吾戶飯吾漿, 唾吾堂食吾飯, 以爲糧張吾弓, 射
 東牆前至沙丘 當滅亡’이라고 하였다. 진시황이 이를 보고 심오(甚惡)하여 분연히 발묘
 하고자 하니 홀연히 묘에서 금성(琴聲)이 나오는 것을 듣고 대구(大懼)하여 감히 침범치

못하였다. 그 뒤에 시황이 과연 동유(東遊)하다가 사구(沙丘)에 이르러 병사하니 역시 기이한 징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한나라 노공왕(魯恭王)이 궁실을 설치하기를 매우 좋아하여 심지어 공자의 옛집을 파괴하여 자기의 거실을 확대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고택으로 말하면 부자께서 평일에 거처하시던 곳인데 부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유(諸儒)들이 항상 모여서 도덕을 강론하고 향사례(鄉射禮)같은 것을 습의(習儀)하였기에 노(魯)나라 양공(襄公)이 인하여 성묘(聖廟)를 설립하였고 그 전내(殿內)에는 선성(先聖)의 의관과 금슬(琴瑟)과 거서(車書)를 장치하여 둔 곳이다. 공왕이 기탄없이 이를 부술 때에 전내에서 금석사죽(金石絲竹)의 청월(淸越)한 풍류소리가 나음을 듣고 역시 송구(悚懼)하여 침뱀치 못하였으며 다만 벽에서 공부(孔鮒)의 소장한바 고문경서(古文經書)를 얻었고, 금(金)나라 태화(泰和) 8년에 모(某)가 선성(先聖)의 탄신에 족속을 거느리고 니산묘(尼山墓)에 가서 제전을 올리는데 날이 한나절쯤 되어서 공중에서 오음팔율(五音八律)의 노래 소리가 진작(振作)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들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이적(異蹟)을 누구나 들으면 괴상하다고 하겠지만 성인의 정령이 척강궐토(陟降闕土)하실 때에 백신(百神)이 위호(衛護)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찌 공경치 아니하라.

안자(顏子)



복성공(復聖公) 안자(기원전 521~490)의 휘는 회(回)요 자는 자연(子淵)이니 노나라 사람이다. 중국의 유학자이며 공자의 수제자이다. 부는 무요(無繇)요 모는 강씨(姜氏)니 공자보다 30세가 적다. 안자는 바탕이 침잠순수(沈潛純粹)하여 상지(上智)의 자질을 품(稟)하고 선문호학(善問好學)하여 덕행의 수위(首位)가 되고 삼월불위인(三月不違仁)하여 거의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으나 일간(一間)을 미달할 뿐이었다. 그 호학함은 불천노 불이과(不遷怒 不貳過)하였으며

그 지조는 누항단표(陋巷簞瓢)에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주 경왕(敬王) 38년에 졸하니 나이 32세였다. 공자께서 통곡하시고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다”고 하셨다. 원 문종(文宗) 때에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에 봉하고 명 세종(世宗) 때에 복성안자(復聖顔子)라 개칭하였다.

증자(曾子)

종성공(宗聖公) 증자(기원전 505~?)의 휘는 삼(參)이요 자는 자여(子輿)로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이다. 부는 점(點)이고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사람이다.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보다 46세가 적다. 증자는 지성독실(至誠篤實)하고 근엄하고 장중하여 오도일관(吾道一貫)의 종지와 대학교인(大學敎人)의 법과 선왕효치(先王孝治)의 도는 다 공문전수심법(孔文傳授心法)의 본령인데 증자가 친히 그 전통을 받아 홀로 그 근본을 얻었다. 공자 몰(歿)에 겨우 26세였으나 조예가 정심하였고 만년에 소견이 더욱 높아 지킴이 유독(愈篤)하여 더욱 고명광대의 영역에 도달하였고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고제(高弟)로 하여 도통을 전하였다. 『대학(大學)』을 저술하여 공자의 인의의 도를 알리고 공자의 의견으로 『효경(孝經)』을 만들었다. 원 문종(文宗) 때에 성국종성공(成國宗聖公)을 봉하고 명 세종(世宗) 때에 종성증자(宗聖曾子)라 개칭했다.



자사(子思)

술성공(述聖公) 자사(서기전 492~432년)의 성은 공이요 휘는 급(伋)이요 자는 자사니 공자의 손자요 이(鯉)의 아들이다. 소시에 성조(聖祖)의 교훈을 계승하고 부하(負荷)의



중함을 자임(自任)하였던 증자가 적전(嫡傳)이 됨으로 그 문하에 수업하여 성명(性命)의 본원을 궁극하고 천인합일의 묘를 탐색하며 성(誠)으로 본령을 삼고 경신준도(敬身遵道)를 주로 하여 깊이 성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도학이 실천할 것을 우려하여 『중용(中庸)』을 저술하였다. 원 문종(文宗) 때에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을 봉하고 명 세종(世宗) 때에 술성자사(述聖子思)라 개칭했다.

맹자(孟子)



아성공(亞聖公) 맹자(기원전 372~289년경)는 중국 동주(東周) 시대의 사상가이자 유학자이며 휘는 가(軻)요 자는 자여(子輿)이며 노나라 공족(公族) 맹손씨(孟孫氏)의 후예로 부 격(激, 자는 공의(公宜))과 모 장씨(仇氏)로 산둥성(山東省) 추현(鄒縣)에서 출생하였다. 추현은 공자의 출생지 노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배하고 사숙하였다. 어머니 장씨는 삼천지교(三遷之教), 단기지훈(斷機之訓) 등으로 유명한 현모로서 그의 감화도 크게 받고 자사의 제자

로서 배웠다. 학업을 마친 후 양(梁), 제(齊), 송(宋), 노(魯) 등 여러 나라를 편력, 제후에게 왕도를 개진했다. 제의 선왕(宣王)이 능히 쓰지 못하고 양의 후초(厚招)에 응하였으나 혜왕(惠王)이 또한 왕도를 이해치 못하였고, 등(滕)의 문공(文公)이 정신적인 공명(共鳴)을 얻었을 뿐 실제정치는 용납되지 못하였다. 당시는 전국시대로 각국이 상호 침벌(侵伐)하여 공취(攻取)를 능사로 작(作)하고 합종연형의 책략과 부국강병의 논리와 외타파타사도(外他破唾邪道)의 설이 풍미하였는데 맹자만이 요순 삼대의 덕과 인의도덕의 왕도정치를 주장하여 당시 군주들이 능히 이해치 못하였다.

귀국 후에는 제자 만장(萬章) 등과 시·서 및 공자의 뜻을 조술(祖述)하였으니 그것이

현행 『맹자(孟子)』 7편이라고 한다. 다시 맹자는 공자의 뜻을 부연 발전하게 하고 유교의 정통을 후세에 전달하여 크게 영향을 주었다. 맹자의 윤리설 및 정치설(政治說)의 중심 사상은 성선설(性善說)로 인간의 성질은 모두 동성(同性)이며 선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잔인한 일을 보았을 때 측은(惻隱)한 마음, 추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羞恥)의 마음, 어른을 공경하고 사양(辭讓)하는 마음, 선악을 식별하는 시비(是非)의 마음, 곧 이는 인의예지 사덕의 단서로서 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상, 성정이 선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사람이 악행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물욕에 빠졌기 때문이라 했다.

학문의 방법에 있어서는 선천적 선성(善性)을 길러야 할 것을 역설하고 정치설에 있어서는 공자와 거의 같으나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자가 존주론(尊周論)을 주장한 데 비하여 맹자는 민권주의(民權主義)로 발전하여 아무리 군주라도 덕을 잃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다는 혁명론을 말했다. 또 성선설에 입각하여 왕도론 교화론(教化論)을 주장하는 한편 주나라 문왕(文王)을 이상으로 하여 정전법(井田法)의 실시를 주장했다. 맹자의 학설은 여러 제후의 공명을 얻지 못했으나 공자의 인의설을 확장하고 유학의 이론적인 기반을 수립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원나라 문종(文宗) 때에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을 봉하고 명나라 세종(世宗) 때에 아성맹자(亞聖孟子)라 개칭했다.

공문10철 약사(孔門十哲 略史)

비공(費公) 민손(閔損)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민이요, 이름은 손이며 자는 자건(子鶯)이다.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15세가 적다. 덕행에서 수위를 차지하는바 되었다. 어려서 후모(後母)에게 고생하는바 되었다. 겨울에 미손에게는 노화(蘆花) 옷을 입히고 아들에는 솜옷을 입혔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처를 쫓으려 하니 손이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

니가 가면 세 아들이 외롭습니다.”하여 드디어 중지 하였다. 어머니가 크게 깨달아 세 아들을 똑 같이 대하였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이모(異母) 여러 아들을 선휼(善恤) 하였으므로 공자께서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하셨다. 후에 ‘비공’에 봉해졌다.

단공(鄆公) 염경(冉耕)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성은 염이요 이름은 경이며 자는 백우(伯牛)다. 공자의 제자로 덕행이 있어 칭송되었다. 불행히 질병이 있어 죽으려 할 때 공자께서 집수영결(執手永訣)하시고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으니 명(命)’이다. 라고 탄식하셨다. 후에 ‘단공’에 봉해졌다.

설공(薛公) 염옹(冉雍)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성은 염이요 이름은 옹이고 자는 중궁(仲弓)이다.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29세가 적다. 덕행이 있었다. 사람이 관홍(寬洪)하고 간중(簡重)하여 인군(人君)의 도량이 있으므로 공자께서 “염옹은 임금 노릇도 할 수 있겠다.” 하셨다. 후에 ‘설공’에 봉해졌다.

제공(齊公) 재여(宰予)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며 성은 재(宰)요 이름은 여(予)며 자는 자아(子我)로 공문의 고제(高弟)로 언어에 있어 자공(子貢)과 병칭되었다. 제나라에 벼슬하여 임치(臨菑) 땅에 대부가 되었다. 『사기(史記)』 「이사전(李斯傳)」을 살펴보면 ‘사상서(斯上書) 이세(二世)에 전상(田常)이 제나라를 빼앗고 재여를 뜰에서 죽였다’하고 또 「중니제자전(仲尼弟子傳)」에 ‘재여는 임치의 대부였는데 전상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그 가족이 멸하였다.’ 하였으니 글의 기록이 전후가 맞지 않는다. 『좌씨전(左氏傳)』에는 재여와 전상이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으니 이를 알 수 없다. 언과기실(言過其實)한 점이 있으므로 공자께

서 “나는 말로써 사람을 취했다가 재여에게서 실수했다.(以言取人 失之宰予)”라 하셨고 또 ‘삼년상을 기년(暮年)만 하여도 가하다’하여 공자께서 여의 어질지 못함을 크게 책망 하셨다. 후에 ‘제공’에 봉해졌다.

여공(黎公) 단목사(端木賜)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다. 성은 단목이요 이름은 사며 자는 자공(子貢)이고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31세가 연소하다. 인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지혜가 성인을 알아볼 만큼 풍족하였고 한번 들으면 그 뜻을 꿰뚫었다. 공자가 일찍이 호련(瑚璉, 서직(黍稷)을 담아 종묘에 바치는 제기)로 사람이 존경할 만한 품격을 이룸)을 칭하였으며 말을 잘 하였다.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대적하게 하여 노나라를 구하고 이로써 월나라가 패자(覇者)가 되었다. 또 재물을 잘 일으키고 70인의 제자 중 가장 부유했다. 후에 ‘여공’에 봉해졌다.

서공(徐公) 염구(冉求)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다. 성은 염이요 이름은 구요 자는 자유(子有)이며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29세가 연소하다. 정사과(政事科)에 있고 재예(才藝)가 많고 정치학에 능하였다. 일찍이 공자께서 “구는 재주가 많습니다. 정치를 맡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求也藝於從政乎何有)”라 하셨고 또 구는 “천실지읍(千室之邑)과 백승지가(百乘之家)에 재상을 할만하다.” 하였다. 계씨(季氏)의 재상으로 벼슬하였고 후에 ‘서공’에 봉해졌다.

위공(衛公) 증유(仲由)

춘추시대 노나라 변인(洹人)이다. 성은 증이요 이름은 유며 자는 자로(子路) 또는 계로(季路)라 하였고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9세가 연소하다. 성격이 용맹함을 좋아 하였고

허물을 듣기를 좋아했다. 허물을 듣고 고치기 전에 또 다른 허물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효성이 극진하였고 일찍이 부모를 위하여 백리 길을 쌀을 지고 왔으며 정사에 재주가 있었다. 처음에 노나라에 벼슬하고 후에 위나라에 벼슬했다. 공리(孔懼)의 어머니 백희(伯姬)가 혼량부(渾良夫)와 더불어 태자(太子) 괴외(蒯瞶)를 세우기를 모의하고 공리를 협박하여 맹세하게 하여 겁을 주어 내쫓으니 공리는 달아났다.

자로는 위나라 공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장차 성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자고(子羔)가 제지하였다. 자로가 그의 곡식을 먹고 그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하고 드디어 들어갔다. 괴외의 사인(使人)이 자로를 공격해서 자로의 관끈이 끊어졌다. 자로가 군자가 죽을지 언정 관(冠)을 벗지 않는다 하고 관을 고쳐 쓰느라고 두 장사(壯士)의 칼을 받고 죽었다.

오공(吳公) 언언(言偃)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다. 성은 언(言)이요 이름은 언(偃)이고 자는 자유(子游)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45세가 적다. 문학(文學)에 숙달했고 노나라 무성(武城)의 읍재(邑宰, 지방의 최고 관리)로 벼슬하고 예악으로서 교화시켜 다스렸다. 공자께서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割鷄에 焉用牛刀)” 하여 대재소용(大材小用)함을 애석해 하셨다. 후에 오공(吳公)에 봉해졌다.

위공(魏公) 복상(卜商)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성은 복(卜)이요 이름은 상(商)이며 자는 자하(子夏)니 공자 제자로 공자보다 44세가 적다. 자유(子游)와 더불어 문학과에 속한다. 공자 몰후 서하(西河)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위문후(魏文侯)가 스승으로 섬겼다 아들이 죽어 곡(哭)을 지나치게 하여 실명하였다. 시서와 역전(易傳)이 있다. 후에 위공(魏公)에 봉해졌다.

진공(陳公) 전손사(顓孫師)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다. 성은 전손(顓孫)이요 이름은 사(師)요 자는 자장(子張)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48세가 적다. 사람됨이 용모가 있고 자질이 너그럽고 널리 사귀고 조용하나 인의의 행실로 힘쓰는 것을 세우지 않아서 공자 문인들이 벗은 했어도 공경하지 않았다. 증자(曾子)는 “홀륭하구나 자장이여! 더불어 인을 같이할 수 없구나.(堂堂乎張也 難與並爲仁矣)”라 하였고 자유(子游)는 “뎡友張也 爲難能也나 然而未仁”이라 하였다. 후에 진공(陳公)에 봉해졌다.

송조6현 약사(宋朝六賢 略史)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惇頤)

주돈이의 자는 무숙(茂叔)이니 후에 피국휘(避國諱)하여 개명을 돈이(惇頤)이라 했고 호는 염계(濂溪)니 북송(北宋) 도주(道州)사람이다. 박학역행하여 문도심조(聞道甚早)하고 노력관직(屢歷官職)에 우사강과(遇事剛果)하며 위개(爲改)에 정밀엄격(精密嚴格)하여 무진도리(務盡道理)러라. 저서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주자(朱子)가 ‘발전성지소미발(發前聖之所未發)’이라 했고, 통서(通書) 수십 편은 성학(聖學)의 본원을 발명하였다. 황정견(黃庭堅)이 그 인품을 칭찬하며 왈 “홍중이 쇠락(灑落)하여 광풍제월 같다” 하니라. 57세에 졸하니 후에 종사문묘하고 도국공에 봉해졌다.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정호(1032~1085)의 자는 백순(伯淳)이요 호는 명도(明道)니 송나라 하남인(河南人)이라. 이천(伊川)과 함께 주염계(周濂溪)에게 수학하였으며 자성이 과인(過人)하고 소양이 유도(有道)하여 문인 교우가 종유하길 수십 년에 분려(忿厲)하는 기색을 보지 못하다. 일찍이 왈 “도의 불명(不明)은 이



단이 해롭게 함이라. 이것이 다 정로의 진무(榛蕪)요 성문(聖門)의 폐색(蔽塞)이라” 하여 극력 배척하였다. 건원일기(乾元一氣)의 철학을 수립하고 54세에 졸하니 노공 문언박(潞公文彦博)이 그 묘에 제(題)하여 왈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 하다. 송 영종(寧宗) 때에 시호를 순공(純公)이라 하고 후에 종사문묘하고 예국공(豫國公)에 봉하다.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정이(1033~1107)의 자는 정숙(正叔)이요 호는 이천(伊川)이니 명도(明道)의 아우다. 형 명도와 주염계에게 배우다. 18세에 인종(仁宗)께 상서하여 왕도로 마음 쓸 것을 권하고 철종(哲宗)이 즉위함에 사마광(司馬光) 여공저(呂公著)가 천거하여 왈 “하남처사(河南處士) 정이는 도덕이 순비(純備)하고 학문이 연박(淵博)하여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가 있습니다.” 하니라. 장차 크게 쓰게 되었고 또 선생도 천하의 일을 자임(自任)하여 논의포핍(論議褒貶)이 무소고기(無所顧忌)러니 군소(群小)가 불열(不悅)하여 전리(田里)에 방귀(放歸)하다. 이기의 철학을 창도하고 저술로는 『춘추전(春秋傳)』과 『역전(易傳)』이 후세에 전한다. 75세에 졸하니 문인과 고제(高弟)가 많이 먼저 죽어 미덕을 형용한 자가 없더라. 후에 종사문묘하고 낙국공(洛國公)에 봉해졌다.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소옹의 자는 요부(堯夫)요 호는 강절(康節)이니 송나라 하남인(河南人)이라. 초년에 견고각려(堅古刻勵)하여 겨울에 불로(不爐)하고 여름에 불선(不扇)하고 밤에 불취석(不就席)하여 강개하여 큰 뜻이 있었고 자웅기재(自雄其才)하여 선왕의 대업을 가이입치(可以立致)라 하더니 만년에 학문이 날로 발전하고 덕이 날로 밝아짐에 이르러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소장(消長)과 만물의 변천을 일일이 탐색하여 고명(高明) 지역에 독도(獨到)하여 조예가 깊었다. 저술한 『황극경세(皇極經世)』는 천지음양성쇠소장(天地陰陽盛衰消長)의 이수(異數)를 추수부연(推數敷衍)하여 세운(世雲)의 변천을 예언하였다.

소자(邵子)의 학문이 소입(所入)한 문호(門戶)는 주정장주(周程張朱)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명도가 강절의 학문을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학문이라 하고 소자 몰후에 명도가 묘지명에 왈 “순일부잡(純一不雜)이라.” 하였으니 대개 이취동귀(異趣同歸)라 할 것이다. 후에 종사문묘하고新安백(新安伯)에 봉해졌다.

미백(郿伯) 장재(張載)

장재의 자는 자후(子厚)요 호는 횡거(橫渠)니 송 대량인(大梁人)이라. 28세에 범문정공(范文正公)에게 상서논병(上書論兵)하여 공명으로 자허(自許)하였더니 문정공이 큰 그릇임을 알고 유학으로 성취하고자 하여 중용을 권독하다. 후에 백순 정숙(伯淳 正叔) 형제를 만나 도학의 요체를 듣고 그 뒤로 독사역천(篤思力踐)하여 궁신지화(窮神之化)하며 예학을 권장하여 관속(關俗)이 일변케 하다. 저서인 『정몽(正蒙)』과 『서명(西銘)』이다 명저인데 서명은 사람의 도리를 천명하여 ‘맹자 이후 무비작(無比作)’이란 정자의 찬사가 있다. 58세에 졸하니 후에 종사문묘하고 미백(郿伯)에 봉해졌다.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

주희(1130~1200)의 자는 원회(元晦)요 호는 회암(晦庵)이니 송나라 휘주인(徽州人)이라. 성품이 총혜근엄(聰慧謹嚴)하고 학문이 연평(延平) 이통(李侗)을 사사하고 이천을 돈독히 신뢰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대현이다. 등제한 후 50년에 봉사(封事)와 상서(上書)로 누천만언(屢千萬言)을 개진하여 요순의 덕치를 기대한바 심대하였으나 입조(立朝) 근 40일에 불과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였고 소인배들의 시기와 질투로 위학(僞學)의 지목을 받아 만년의 고난도 극심하였



으나 몰후 700년을 통하여 주자학의 광명은 중천의 해와 같아 공자 후 대현의 지칭을 받게 되었다. 저서에 『주역본의(周易本義)』, 『계몽(啓蒙)』, 『시집전(詩集傳)』, 『대학중용장구혹문(大學中庸章句或問)』과 『논어 맹자집주(論語 孟子集註)』와 편저에는 『논맹집의

(論孟集義)와 『중용집략(中庸輯略)』과 『효경간오(孝經刊誤)』와 『소학서(小學書)』와 『통감강목(通鑑綱目)』과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과 『근사록(近思錄)』과 『이낙연원록(伊洛淵源錄)』 등이 있고 또 『주자문집(朱子文集)』 100권과 『생도문답(生徒問答)』 80권과 별록(別錄) 10권이 모두 그의 평생 정력의 결성된 바이다. 71세에 졸하니 영종(寧宗) 때에 시호를 문공(文公)이라하고 후에 종사문묘하고 휘국공(徽國公)에 봉했다.

동국18현 약사(東國十八賢 略史)

동무9위(東廡九位)

●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설총(신라 74~?)의 자는 총지(聰智), 호는 영월당(永月堂), 경주 설씨의 시조. 조부는 담날내마(談捺柰麻)요 부친은 원효(元曉)인데 원효는 처음에는 스님이 되어 불서에 널리 통하였다. 얼마 후 파계하여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스스로 불렀다. 모친은 무열왕(武烈王)의 따님 요석공주(女瑤石公主)이다. 부 원효대사가 방가(放歌)하기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받친 기둥을 찍어 버리겠노라. (誰許沒柯釜 我斫支天柱)”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알

지 못하였다. 그때 태종(太宗)이 듣고 이르기를 “이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현자를 낳고자 하는 도다. 나라에 현자가 있으면 그 이익이 막대하도다.” 했다. 그때 요석궁(瑤石宮)에 홀로된 공주가 있었는데 관리를 시켜 원효를 요석궁에 맞아들이게 하니 공주가 과연 잉태하여 설총을 낳았다. 총은 천성이 명민하여 슬기로우며 나면서부터 도를 깨달았다. 신라 10현의 한 사람으로서 벼슬은 한림(翰林)을 지냈고 왕의 정치에 자문 역할을 했다. 유학과 문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일찍이 국학(國學)에 들어가 학생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말로 구경(九經)을 해독하여 후생을 훈도하였으므로 학자들이 종주로 삼고 있었다. 그가 창제한 중국 문학에 토를 다는 방법은 당시 중국 학문 섭취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두(吏讀)’를 창제했다고 하나 그가 생존하기 전인 진평왕 때의 서동요(薯童謠), 선덕여왕 때의 풍요(風謠) 등이 이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잘 지었는데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화왕계(花王戒)」가 전하며 남쪽 지방에 더러 총이 지은 비명이 있으나 글자가 결락(缺落)되어 읽을 수가 없으니 끝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고려 현종 13년(1022)에 홍유후(弘儒侯)에 추증되었고 문묘에 종사되고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에 배향되었다.

●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원명 향(瓊))

안유(고종 30, 1243~충렬왕 32, 1306)는 고려의 명신, 학자, 초휘(初諱)는 향(瓊), 자는 사온(士蘊), 호는 매헌(梅軒),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밀직부사(密直副使) 부(孚)의 아들로 경상도 순흥 상평리(上坪里)에서 출생하였다. 유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더니 원종 원년(1260) 1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이 되고 이어 한림원직(翰林院直)이 되었다. 원종 11년(1270) 삼별초의 난때 강화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충렬왕 원년에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있을 때 민중을 현혹 시키는 무당을 엄중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했고 판도좌랑 전중시사(版圖佐郎 殿中寺史)를 거쳐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올랐다.



충렬왕 40년 우사의(右司議)가 되고 좌승지(左承旨) 정동행성 원외랑(征東行省員外郎)을 거쳐 유학제거(儒學提舉)가 되어 왕과 공주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베껴 쓰고 돌아와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충렬왕 20년 동지밀직(同知密直)

으로 동남도병마사(東南道兵馬使)가 되어 합포(合浦)에서 방수(防戍)를 잘하였고 밀직사사(密直司使) 삼사좌사(三司左使) 첨의참리(僉議參理) 세자이보(世子貳保)를 역임하였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참지기무(參知機務) 행동경류사(行東京留守)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 계림부윤(鷄林府尹) 첨의참리(僉議參理)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 감수국사(監修國史)가 되었다. 태상왕인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다녀왔다. 충렬왕이 복위하자 충선왕을 따라 다시 원나라에 다녀왔다. 충렬왕 30년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판도사사(版圖司事)가 되었는데 양현고(養賢庫)가 탕진되어 선비들을 양성할 비용이 없자 섬학전(瞻學錢)이라는 육영재단을 설치하고, 국학(國學)인 대성전을 낙성하고 공자 및 70인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기 악기와 육경 제자사(諸子史) 등의 서적을 비치하여 배우게 하였다. 이로서 유학이 크게 떨쳐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지칭된다.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으로 치사(致仕)하고 평생을 문교(文教) 진흥에 힘쓰고 64세인 충렬왕 32년에 세상을 떠나니 문성(文成)이라 시호하고 충숙왕 5년에 원나라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현재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봉안되어 있다. 충숙왕 6년에 문묘에 종사되고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곡성(谷城)의 회현영당(晦軒影堂) 순흥(順興)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인 : 권부(權溥) 우탁(禹倬) 백이정(白頤正) 이조년(李兆年) 신천(辛臧) 이성(李晟) 윤선좌(尹宣佐) 윤안록(尹安鹿) 서견(徐甄) 허관(許冠)

●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김굉필(단종2, 1454~연산군10, 1504), 학자,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 사옹(叢翁),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단종2년 사옹(司勇) 유(紐)의 아들로 서울 정릉동(貞陵洞)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호매(豪邁)하고 성장함에 학문에 분발하였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소학(小學)』을 읽고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이르며 소학대로 실천궁행하니 향시에 “業文猶未識天機 小學書中悟昨非 從此盡心供子職 區區

何用歡輕肥”라 하였다. 성종11년(1480) 사마시에 합격하고 척불(斥佛) 상소했고 성종25년 행의(行誼)로 추천을 받아 남부참봉(南部參奉)이 되고 전생서참봉(典牲署參奉) 군사감주부 감찰(軍資監主簿 監察) 등을 거쳐 연산군 3년 형조좌랑(刑曹佐郎)이 되었다.

연산군 4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 일파로 몰려 희천(熙川)에 유배되고 후에 순천(順天)으로 이배되었다. 갑자사화 때 사사(賜死)되니 향년이 51세였다. 평소 6경(六經) 연구에 전심하고 성리학에 통달했으며 문하에 조광조(趙光祖), 이장곤(李長坤), 김안국(金安國)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그림에도 능했고 저서에 『한훤당집(寒暄堂集)』이 있다.

중종 때 우의정에 추증되고 광해군 때 전국유생의 상소에 의해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 서흥(瑞興)의 화곡서원(花谷書院), 희천(熙川)의 상현서원(象賢書院), 순천(順天)의 옥천서원(玉川書院) 등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문인 :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이장길(李長吉) 이장곤(李長坤) 정봉(鄭鵬) 성세창(成世昌) 강흔(姜訥) 이적(李勣) 정응상(鄭應祥) 허반(許磐) 박한삼(朴漢參) 민구손(閔龜孫) 윤신(尹信) 김구(金絳) 윤탁(尹倬) 이연경(李延慶) 주계군(朱溪君) 심원(沈源) 최충성(崔忠成) 우성윤(禹成允) 최수성(崔壽臧) 유우(柳藕) 이담(李湛)

●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조광조(성종 13, 1482~중종 14, 1519)는 학자요 문신이다.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원강(元綱)의 차자(次子)로 서울에서 출생했다. 40세에 어천 도찰방(魚川 都察房)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 희천(熙川)에 유배중인 김굉필에게 수학하여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 학통을 이어 사람과의 영수가 되었다.

중종 5년에 진사가 되고 중종 10년 조지서 사지(造紙署 司紙)로 알성문과(謁聖文科)을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며 왕의 신임을 얻고 입시할 때마다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역설했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고 중종의 계비책봉(繼妃冊封) 문제가 논의될 때 박상(朴祥) 김정(金淨) 등이 앞서 폐위된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하다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자 상소한 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을 파직케 하였다.

그 후 수찬(修撰)에 이어 호조(戶曹)의 정랑(正郎)을 거쳐 중종 20년 교리(敎理)로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註官)을 겸임하고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鄉約)을 팔도에 실시케 하였다. 중종 13년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미신 타파를 내세워 도교의 일월성신을 나타내는 상청 태청 옥청(上淸 太淸 玉淸)을 제사지내는 일을 맡아보는 소격서(昭格署)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많은 반대에도 마침내 이를 혁파하였다. 중종 14년 대사헌으로 승진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을 겸하였으며 양현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신진사류의 소장학자를 요직에 배치하는 한편 훈구파(勳舊派)를 외직으로 몰아내고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삭훈을 주장하여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 공신의 사분지삼에 해당하는 70여 명을 삭훈하여 훈구파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훈구파는 조광조 등 신진사류를 무고하고 왕도 조광조의 도학적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 그를 투옥하였다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변호로 사형은 면제되고 능주(綾州)로 유배 후 사사되었다. 저서로는 『정암집(靜庵集)』이 있다.

문인 : 성수침(成守琛) 기준(奇遵) 김명원(金命元) 조욱(趙昱) 백인걸(白仁傑) 양언진(梁彦鎭) 정환(丁煥) 나식(羅湜) 허백기(許伯琦) 이연경(李延慶) 홍섭(洪漣) 홍봉세(洪奉世) 정원(鄭源) 윤관(尹寬) 이희민(李希閔) 이충건(李忠健) 박세후(朴世煦) 김대유(金大有) 윤변(尹忭) 이기(李夔) 안담(安曇) 최여주(崔汝舟) 민의(閔義) 홍순복(洪舜福) 심관언(沈光彦) 박소(朴紹) 조희윤(趙希尹)

●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이황(연산군7, 1501~선조3, 1570) 문신으로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도옹(陶翁)·퇴도(退陶)·청량산인(靑涼山人), 본관은 진보(眞寶)이다. 진사 식(埴)의 아들로 예안(禮安) 온계리(溫溪里)에서 출생했다. 12세 때 숙부 우(堧)에게 배우고 논어에 “入則孝 出則悌”라는 구에 이르러 스스로 경계하기를 “사람의 아들 된 도리가 당연히 이러해야한다. (人子之道 當然是也)”라 하였다. 중종 18년 23세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중종 28년에 진사가 되고 중종 29년 식년 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부정자(副正字) 박사(博士) 전적(典籍) 호조좌랑(戶曹佐郎) 등을 거쳐 중종 35년 수찬(修撰)으로 지제교(知製教) 검토관(檢討官)을 겸직하고 이어 정언(正言) 형조좌랑(刑曹佐郎)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겸직하였다. 중종 37년 검상(檢詳)이 되고 충청도 암행어사를 거쳐 사인(舍人)으로 문학 교감(文學 校勘)을 겸직하고 장령(掌令)을 역임했으며, 사예(司藝) 필선(弼善)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명종 즉위 기사사화(己巳士禍) 때 이기(李芑)에 의해 삭직 당했으나 사복시정 응교(司僕寺正 應教)를 거쳐 단양(丹陽)·풍기군수(豊基郡守) 대사성(大司成)에 재임하였다. 명종 9년 형조·병조의 참의(參議)에 이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부제학(副提學) 공조참판(工曹參判)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거쳐 선조 원년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고향에 은퇴했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이이(李珣)와 함께 유학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성(誠)을 기본으로, 일생 동안 경(敬)을 실천하고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이가 발하여기가 이에 따르는 것이 사단(四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승(乘)하는 것이 칠정(七情)이라고 주장, 사단 칠정을 주제로 기대승(奇大升)과의 7년에 걸친 유명한 논쟁은 사칠분리기여부론(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그의 학풍은 뒤에 그의 이론을 반발하고 나선 이이의 기호학과에 대하여 영남학파를 이루었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봉(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사액을 내리게 하여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뒤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시문에는 물론 글씨도 뛰어났다.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 중종과 명종, 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특히 명종은 누차의 소명에도 사양하니 “초현불지탄(招賢不致歎)”의 글제로 유생에게 글을 짓게 하고 화공을 도산에 보내어 도산의 경치를 그리게 한 후 병풍을 만들어 거실에 두었다.

선조가 즉위하니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려 여섯 가지로 된 임금으로서의 임무를 논하고 같은 해에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차자(筭子)를 같이 올렸다. 『성학십도』는 유학의 근본원리와 수행방법을 망라한 가장 중요한 진수를 압축한 것이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임진란(壬辰亂)을 전후하여 일본에 전해지니 천명도설(天命圖說) 자성록(自省錄) 등의 학설이 일본의 명치유신(明致維新)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선조 3년 70세로, 사후 예절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비석도 없이 작은 돌에 “퇴도만은 진성이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 고만 새기라 유언하고 즐겼다. 선조는 영의정에 추증하고 선조 8년에 문순(文純)이라 시호하고 광해군 2년에 문묘에 배향하였으며 단양의 단암서원(丹巖書院), 괴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에 향사되고 있으며 저서로는 『퇴계전서(退溪全書)』 등이 있다.

문인 : 노수신(盧守愼) 황준량(黃俊良) 허충길(許忠吉) 구사맹(具思孟) 허엽(許曄) 김명원(金命元) 정탁(鄭琢) 민응기(閔應祺) 김성일(金誠一) 정근수(鄭崑壽) 유운룡(柳雲龍) 유성룡(柳成龍) 이요신(李堯臣) 심희수(沈喜壽) 허성(許箴) 허봉(許篈) 허사렴(許士廉) 허천수(許千壽) 이양원(李陽元) 황수량(黃遂良) 윤두수(尹斗壽) 외 161인

●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

이이(중종 31, 1536~선조 17, 1584), 학자·문신,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중종 31년에 부 찰방(察訪) 원수(元秀)와 모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의 아들로 강릉에서 출생했다. 사임당 신씨의 태몽에 흑룡

이 침실에 날아 들어옴으로 아명을 현룡(見龍)이라 했다.

어려서 어머니에게 학문을 배우고 명종 3년 13세로 진사 초시에 합격하였다. 1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9세 때 금강산에 입산 불서(佛書)를 연구하다가 돌아 왔으며 21세 때 한성시(漢城試)에 수석합격하고 성주목사(星州牧師)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고 23세 때 성주에서 강릉 외가로 가던 중 퇴계선생을 방문하여 이기를 논하고 명종 19년 생원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모두 장원하니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하였다.



사가독서(賜暇讀書) 후에 호조좌랑(戶曹佐郎) 예조좌랑(禮曹佐郎) 정언(正言) 이조좌랑(吏曹佐郎) 지평(持平)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원년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부교리(副校理)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여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4년 청주목사(淸州牧師)가 되고 선조 5년 응교(應教)에 임명되었으나 해주(海州)에 낙향하여 우계선생(牛溪先生)과 이기와 사단칠정,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논했다. 선조 6년 직제학(直提學)이 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참찬관(參贊官)을 겸직하고 다음해 우부승지(右副承旨) 병조참지(兵曹參知)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후 병으로 사퇴했다. 율곡은 석담(石潭)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다가 선조 14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겸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형조·병조의 판서가 되어 조만간 외적이 침입할 유사시를 대비하여 십만군을 양병하자고 하였다.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고 선조 16년 당쟁을 조장한다는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사직했으나 태학생(太學生) 양호유생(兩湖儒生) 800여 명이 궤기 항소하여 판돈령부사(判敦寧府使)에 등용 이조판서에 이르러 동서분당의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조 17년에 졸했다.

조선 유학계의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기호학과를 형성했고 장구(章句)의 분석적 해석보다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할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로 했으며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대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근본사상으로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여 이 사상의 차이가 당쟁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

쟁의 중점이 되었다. 학문을 민생문제와 직결시켰고 당쟁의 조정 대동법(大同法)과 사창(社倉)의 실시에 노력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조자앙(趙子昂)의 체를 습득했으며 그림에도 뛰어났다.

인조 즉위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문성(文成)이라 시호하고 숙종 8년 문묘에 종사되고 선조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으며 과주(坡州)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江陵)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豐德)의 구암서원(龜巖書院), 서흥(瑞興)의 화곡서원(花谷書院), 함흥(咸興)의 운전서원(雲田書院), 황주(黃州)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율곡전서(栗谷全書)』 등이 있다.

문인 : 김장생(金長生) 조헌(趙憲) 이귀(李貴) 윤방(尹昉) 허우(許雨) 허극심(許克謙) 허극성(許克誠) 허흔(許昕) 이노(李櫓) 성랍(成瀾) 이통(李通) 심예겸(沈禮謙) 외 95인

●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김장생(명종 3, 1548~인조 9, 1631) 학자,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 대사헌 계휘(繼輝)의 아들로 서울 정동(貞洞)에서 출생했다. 구봉송익필(龜峯 宋翼弼) 문하에서 예학을 전수받고 19세 때 율곡에게 성리학을 배워 동방예학의 으뜸이 되었다.

선조 11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창릉(昌陵)과 순릉참봉(順陵參奉) 등을 거쳐 동몽교관(童蒙敎官) 정산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으로 명군의 군량 조달에 공을 세우고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남양부사(南陽府使) 안성군수(安城郡守)로 있다가 유성룡의 천거로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가 되고 선조 35년 청백리에 뽑히고, 익산군수(益山郡守) 회양·철원부사(淮陽·鐵原府使)를 역임했다. 광해군 5년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심문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 뒤 관직을 사퇴하고 연산(連山)에서 학

문연구에 전심했다.

인조반정으로 장령 성균관사업 상의원정(掌令 成均館司業 尙衣院正) 등을 거쳐 집의(執義) 공조참의(工曹參議) 부호군(副護軍)을 지내고 인조 2년 관직을 사퇴하면서 시무 13사(時務十三事)를 올렸는데 좌의정 윤방(尹昉)과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가 당대의 현자인 김장생을 탁용(擢用)하여 사류(士類)들의 기풍을 권장(勸獎)하라고 하여 인조 3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고 다음해 행호군(行護軍)에 보직되었다.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고 화의를 반대했다. 다음 해 형조참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했다. 문하에 아들 집(集)과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신흠(申欽) 최명길(崔鳴吉) 등이 배출되었고 서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를 형성하였고, 인조 9년 84세로 졸하였다.

효종 8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원(文元)이라 시호하였으며 숙종 14년 문묘에 배향되고 연산(連山)의 둔암서원(遯巖書院),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顯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사계집(沙溪集)』 등이 있다.

문인 :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강석기(姜碩期) 신흠(申欽) 장유(張維) 정홍명(鄭弘溟) 신경진(申景禎) 구굉(具宏) 이후원(李厚源) 이시직(李時稷) 송시영(宋時榮) 구인후(具仁厚) 최명길(崔鳴吉) 이경직(李景稷) 외 63인

●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김집(선조 7, 1574~효종 7, 1656)은 문신이며 학자,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사계 김장생의 아들로 서울 정동에서 출생했다. 8세 때 김상헌(金象賢)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8세 때 진사가 되고 광해군 2년에 참봉이 되었다가 광해군의 문란한 정치로 은퇴했다.



인조반정 후 연신(筵臣)들이 대헌(臺憲)의 임무를 맡기려 했으나 고사하고 외현(外縣)을

자청하여 부여현감(扶餘縣監)이 되고 임피현령(臨陂縣令) 지평(持平) 집의(執義)공조참의(工曹參議) 등을 역임하고 인조 중기 이후 공서(功西)가 집권하자 퇴직했다.

효종이 즉위하여 공서의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등이 파직되자 청서(淸西)의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등용되어 예조참판으로 상례이동(喪禮異同)과 시무7조(時務七條)를 올렸다.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어 효종과 함께 북벌을 계획(計劃)했다. 이때 실각한 김자점이 청나라에 북벌 계획을 밀고함으로써 야기된 청나라의 문책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사임하였다. 그 후 대사헌 좌찬성을 지내고 관중추부사로 효종 7년에 졸하니 향년이 83세였다. 오경(五經)을 밝히고 논어를 해석하고 성리학의 근본을 정하고 다듬었으며 부친의 학문을 계승하여 이를 더 깊이 연구하여 예학의 체계를 세웠다. 고종 20년에 문묘에 배향되고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연산(連山)의 둔암서원(遯巖書院), 임피(臨陂)의 봉암서원(鳳岩書院), 옥천(沃川)의 창주서원(滄洲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와 『의례문해설(疑禮問解說)』이 있다.

문인 :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舉) 김지백(金之白) 신경(申晷) 김남식(金南式) 이선기(李善基) 최석유(崔碩儒)

●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



은거하고 있는 사계(沙溪)의 문하생이 되었다.

송준길(선조 39, 1606~현종 13, 1672)은 문신이며 학자,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군수 이창(爾昌)의 아들로 서울 정릉동에서 출생했다. 광해군 6년 송시열과 함께 송갑조(宋甲祚)에게 배우고 그 후 연산(連山)에

인조 2년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받아 세마(洗馬)가 되었으나 사퇴하고 계속 학업에 정진했다. 서인으로 청서파(淸西派)였는데 효종이 즉위하자 부사직(副司直) 시장원(侍講院弼善)에 이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가 되고 인조 말부터 권세를 잡고 있던 공서파(功西派) 김자점(金自點)을 탄핵하여 파면케 하여 청서파의 집권을 가져오게 했다. 효종과 함께 북벌 토획을 적극 추진했으나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좌절되고 벼슬에서 불리났다. 그 후 이조참의 겸 찬선(吏曹參議 兼 贊善) 등으로 여러 번 임명되었으나 계속 사퇴했다.

효종 10년 병조판서가 되어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 하던 중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예송이 일어나서 송시열과 함께 남인 윤휴(尹鑰), 윤선도(尹善道) 등의 3년제를 반대한 기년제(耨年制)를 주장하여 승리해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현종 6년 원자보양(元子輔養)에 대한 건의를 하여 첫 번째 보양관(輔養官)이 되었으나 기년제의 잘못을 규탄하는 남인들의 상소로 사퇴했다. 뒤에 좌참찬 겸 제주·찬선(左參贊 兼 祭酒·贊善)에 이르렀다. 송시열과 학문적 경향이 같은 성리학자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고 이이의 학설을 지지했으며 문장과 글씨를 잘 썼다.

현종 13년 67세로 졸하니 현종 14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숙종 7년에 문정(文正)의 시호가 내리고 영조 30년 문묘에 종향(從享)되고 공주(公州)의 충현서원(忠顯書院), 옥천(沃川)의 표충사(表忠祠), 회덕(懷德)의 송현서원(崇顯書院) 등에 배향 되었다. 저서로는 『동춘당집(同春堂集)』과 『어록해(語錄解)』가 있다.

문인 : 권상하(權尙夏) 이상길(李相吉) 김징(金澄) 황세정(黃世禎)

서무9위(西廡九位)

●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최치원(헌안왕 2, 857~?)의 자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으로 금성 사랑부(金城沙



梁部) 사람이며 학자요 경주최씨의 시조이다. 사전(史傳)이 없어 그 세계는 알 수 없다.

치원은 소년시절부터 정민(精敏)하여 학문을 좋아하였다. 12세 때 (경문왕 9년) 상선(商船)을 타고 유학하여 당(唐)나라에 들어가 공부하려 할 때 부친이 이르기를 “10년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 하였다. 당에 가서 스승을 따라 배우며 게을리 함이 없었다. 건부(乾符) 원년(당 희종 원년)에 예부시랑 배찬(禮部侍郎 裴瓚)의 고시(考試)에서 단번에 급제하여 선주율수현위(宣州溧水縣尉)가 되고 승무랑시어사내공봉(承務郎侍御史內供奉)이 되어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헌강왕 5년(879)에 황소(黃巢)가 반란하므로 고병(高駢)이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 토벌에 나섰는데 치원을 자설(自說)하여 종사관을 삼고 서기의 소임을 맡겼는데 당시의 표장서계(表狀書啓)와 격문(檄文)은 그의 손으로 지었으며, 특히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명문으로 알려졌다. 격문엔 “不唯天下之人 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 已議陰誅”라는 글귀가 있는데 황소가 이 글귀를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28세 때 귀향할 뜻을 갖고 있으므로 희종이 알고 광계(光啓) 원년(헌강왕 11, 885)에 사신으로 조서(詔書)를 가지고 내빙(來聘)하게 하였다. 귀국 후 시독 겸 한림학사(侍讀 兼 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郎) 지서서감(知瑞書監)이 되었고, 당에 유학하여 얻은바 많아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말세를 당하여 의심과 시기를 받아 용납되지 못했다. 자원하여 대산부(大山部: 지금 부여군 홍산면)·천령(天零)·부성(富城) 등의 태수를 지냈다. 진성여왕 7년 건당사(遣唐使)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 시무10조(始務十條)를 상소하여 시행케 하고 아찬(阿飡)이 되었으나 난세를 비관하여 벼슬을 버리고 산림과 강해빈(江海濱)으로 방랑하며 사대(榭臺)를 짓고 송죽을 심으면서 서책으로 베개를 삼고 풍월을 읊으면서 지냈으니 경주의 남산, 강주(剛州), 지금 제풍군(祭豐郡)의 빙산(氷山), 합주(陝州)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의 쌍계사(雙溪寺), 합포현(合浦縣, 지금 창원)의 별서(別墅)와 같은 곳이 모두 그가 놀던 곳이었다. 마지막에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은 신라시대 화랑도(花郎道)를 해설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계원필경(桂苑筆耕)』과 『동문선(東文選)』에 시문이, 『금석총람(金石總覽)』에 비문이 전한다.

고려 원종 때 내사령(內史令)이 되고 현종 14년에 문창후(文昌侯)란 시호를 내리고 문묘에 종사되고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成書院),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 함양의 백연서원(栢淵書院), 영평(永平)의 고운영당(孤雲影堂) 등에 배향되었다.

●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정몽주(충숙왕 복위 6, 1337~공양왕 4, 1392)의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성균관학사 운관(云壘)의 아들로 경상도 영천(永川) 동우항리(東愚巷里)에 출생했다. 초명은 몽란(夢蘭) 몽룡(夢龍)이라 하였다. 공민왕 4년 선고를 여의었는데 삼년간 시묘하여 효성을 다하니 당시 상제가 극도로 해이하여 부모의 상복도 백일 밖에 입지 않을 때라, 후에 공민왕이 그의 출천대효(出天大孝)를 표창하였다. 공민왕 11년에 예문검열(禮文檢閱)이 되고 12



년에 낭장 겸 합문지후(郎將 兼 閣門祗候)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역임하고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 여진족 토벌에 참가하고 공민왕 13년에 조봉랑(朝奉郎)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이 되고 전농시승(典農寺丞) 예조정랑 겸 성균박사(禮曹正郎 兼 成均博士) 성균사예(成均司藝) 등을 역임하고 이어 성균사성(成均司成), 공민왕 21년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우왕 2년(1376)에는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인임(李仁任) 등의 배명친원정책(排明親元政策)을 반대하여 언양(彦陽)에 유배되었다.

우왕 3년에 일본 구주(九州)의 금천요준(今川了俊)에게 가서 왜구의 단속을 응낙 받고 포로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 지제

교(知製敎)를 거쳐 우왕 5년에는 전공판서진현관제학(典工判書進賢館提學) 예의판서 예문관제학(禮儀判書藝文館提學) 전법판서(典法判書)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고 우왕 6년에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이성계를 따라 전라도 운봉(雲峯)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이어 밀직제학(密直提學)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 보문관제학(寶門館提學) 상호군(上護軍)이 되고 우왕 7년에 성근익찬공신(誠勤翊贊功臣)에 봉해지고 우왕 10년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세공(歲貢)의 삭감과 5년간 미납한 세공을 면제받고 긴장상태에 있던 대명외교를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 우왕 11년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고 우왕 12년에 다시 사신으로 명에 다녀왔고 다음해 영원군(永原君)으로 봉해졌다. 삼사좌사(三司左使)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지서연사(知書筵事)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영입하고 공양왕 2년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三重大匡)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使司) 병조상서시사(兵曹尙書寺事) 영경영전사(嶺景靈殿事)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익양군(益陽君) 충의백(忠義伯)에 봉해졌다. 당시 이성계의 위세가 날로 커가서 조준(趙浚) 남은(南鬮) 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숙청할 기회를 노리던 중 공양왕 4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황주(黃州)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 챈 이방원(李芳遠)이 이성계를 그날 밤으로 개성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실패하고 이어 정세를 엿보려 이성계를 문병하고 귀가 도중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에게 격살되었다.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불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학을 보급했고 성리학에 뛰어나 동방이학의 시조로 추앙되었으며 개성의 오부학당(五部學堂)과 지방의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을 꾀하는 한편 대명율(大明律)을 참작하여 신율(新律)을 간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기하고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참여하여 기울어지는 국운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시문에 능하고 시조「단심가(丹心歌)」이외 많은 한시가 전하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고려 삼은(三隱)의 한사람으로 조선 태종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에 추봉되고 문충(文忠)이라 시호하였다. 중종 12년에 문묘에 종사되고 선조 3년

개성 구택에 서원을 세워 승양서원(崧陽書院)이라 사액했다. 승양서원 등 11개 서원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문인 : 길재(吉再) 권근(權近) 권우(權遇) 변계량(卞季良) 이양소(李陽昭) 조옹(趙庸) 하연(河演) 함부림(咸傅霖) 박신(朴信)

●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정여창(세종 32, 1450~연산군 10, 1504)은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백옥(伯助), 호는 일두(一蠹), 본관은 하동이다. 함길도 병마우후(兵馬虞候) 육을(六乙)의 아들로 함양 덕위리 개평촌(德爲里 介杼村)에서 출생했다. 8세 때 의주판관(義州判官)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수행하니 명 사신 장녕(張寧)이 보고 집안을 창성하게 할 인물이라 하였다. 세조 11년 이시애(李施愛) 난으로 부친이 전사하여 유해를 찾아 예장하니 세조가 육을의 공을 가상히 여겨 여창으로 하여금 부직(父職)을 잇게 하였으나 고사하였다. 이관의(李寬義) 문하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뒤에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문하에서 김굉필과 동문수학하였다. 뒤에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오경(五經)과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로 경사에 통달하고 역행실천을 위한 독서를 주로 했다. 『용학주소(庸學註疏)』, 『주객문답설(主客問答說)』, 『진수잡저(進修雜著)』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 때 부인이 모두 소각하여 지금은 정구(鄭逖)가 엮은 『문헌공실기(文獻公實記)』 속에 그 유집이 전할 뿐이다. 중종 2년 도승지에 복작 추증되고 중종 20년 우의정에 추증되고 선조 8년에 문헌(文獻)이라 시호하고 광해군 2년 문묘에 종사하였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나주의 경현서원(景賢書院),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함양의 남계서원(濼溪書院), 합천의 이연서원(伊淵書院), 거창의 도산서원(道山書院), 종성(鐘城)의 종산서원(鍾山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저서에 『일두집(一蠹集)』이 있다.

문인 : 노우명(盧友明) 이희회(李希會) 고숭걸(高崇傑)

●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이언적(성종 22, 1491~명종 8, 1553)은 문신이며 학자로 지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본관은 여주(驪州), 생원(生員) 번(蕃)의 아들로 경주 양좌촌(良佐村)에서 출생했다.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했다.

외숙 손중돈(孫中墩)에게 배웠고 중종 8년에 생원이 되고 중종 9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 을과로 급제하여 고관(考官)이던 김안국(金安國)이 책문을 보고 “왕을 보좌할 대간(大幹)”이라고 감탄하였다.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설서(說書) 이조정랑(吏曹正郎) 장령(掌令) 밀양부사(密陽府使) 등을 역임하고 중종 25년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이 되었다. 이때 대사헌 김안로(金安老)를 기용하여 동관우익(同官右翼)을 삼고자 할 때 조정이 모두 따랐으나 그 불가함을 역설하다가 그 들 일당에 의해 파직당하여 고향 경주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했다.

중종 33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시강관(侍講官)을 겸직하고 교리(教理) 응교(應教) 등을 거쳐 중종 34년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어 선정으로 송덕비가 세워졌고 당시의 재변에 대해 올린 대책문(對策文)이 뛰어나서 병조참판(兵曹參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올랐다. 부제학 이조·예조·형조판서를 거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되었다. 인종 원년 인종이 승하하자 좌찬성(左贊成)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국사를 관장했다.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올랐다. 이해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사직했으나 원상으로 있을 당시 윤임(尹任) 일과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로 탄핵되어 삭직되고 명종 2년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少尹)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계(江界)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봉선잡의(奉先雜儀)』, 『구인록(求仁錄)』, 『속혹문(續或問)』을 저술하고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를 완성치 못하고 명종 8년 11월에 졸하니 향년이 63세였다. 명종 26년 아들 이전인(李奎仁)이 상소하여 복작되고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선조 2년 문원(文元)이라 시호되고 명종 묘정에 배향하였다. 광해군 2년에 문묘에 종사되고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여주(驪州)의 기천서원(沂川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문인 : 권덕린(權德麟) 김자(金磁) 안경창(安慶昌) 이전인(李奎仁)

●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

김인후(중종 5년(1510)~명종 15년(1560))는 문신이며 유학자로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澹齋), 본관은 울산이며 장성현(長城縣) 대맥동(大麥洞)에서 참봉령(齡)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종 14년 김안국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우고 18세 때 최산두(崔山斗) 문하에서 사서오경 천문지리에 통달하며 막힘이 없으니 최산두가 칭찬하여 “추수빙호(秋水冰壺)”라 하였다. 그 후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과 함께 학문을 닦고 중종 35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등용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후에 정자(正字)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겸하고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후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정진하였다. 누차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순창 점엄촌(淳昌 鮎嚴村)에 초당을 세우고 문생들의 강학에만 힘썼다. 성경(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이황의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반대하여 이기혼합설(理氣混合說)을 주장했으며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강론하였으며 천문 지리 의약 산수 율력(律曆)에도 정통했다.

명종 15년 “내가 죽더라도 을사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고 유언하고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나니 문정(文正)이라 시호하고 정조 20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종사하였다.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남원의 노봉서원(露峯書院), 옥과(玉果)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하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성혼(중종 30, 1535~선조 31, 1598)은 유학자로 자는 호원(浩源),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본관은 창녕이다. 현감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서울 순화방(順化坊)에서 출생했다. 12세 때 학문에 대진(大進)하여 17세 때 감시초시(監試初試)에 합격했으나 신병으로 복시를 못 치르자 과거를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이 언론으로 죄를 입어 파주(坡州)에 우거하므로 학업을 청문(請問)하여 그의 문하에서 경학연구에 정진했다.

선조 원년 경기감사 윤현(尹炫)의 추천으로 전생서참봉(典牲署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현감(縣監) 지평(持平)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선조 13년에 장령(掌令) 직을 굳이 거절하자 마교(馬驕)를 타고 상경하라는 우례(優禮)까지 받았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중에는 세자의 부름으로 우참찬에 오르자 선조 27년 좌참찬에 이르러 영의정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 파주로 돌아갔다. 일찍부터 이이(李珥)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에 있어서는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기발이승일도설(氣

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는 이이와 6년간에 걸쳐 사단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여 이이의 학설을 반박하여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이의 문인인 조헌(趙憲) 한교(韓嶠) 황신(黃愼) 이귀(李貴) 정엽(鄭曄) 등이 그의 문인이 되었고, 글씨를 잘 썼다.

선생은 본의 진심을 세상에 밝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덕이 없어 사람이 나를 참소함ियो 임금에게 불충하고 사회에 덕을 닦지 못한 몸이라 내가 죽은 후 장사를 박하게 하여 생전에 퍼지 못한 뜻을 세상에 알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64세로 선조 31년에 졸하였다.

죽은 후 반대파들에 의해 관작을 박탈당했다가 인조 원년에 복관되고 인조 7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인조 11년 문간(文簡)이라 시호하고 문묘에 종향되었다. 여산(礪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 해주의 소현서원(紹賢書院), 함흥의 운전서원(雲田書院), 과주의 과산서원(坡山書院) 등에 배향되었고 저서는 『우계집(牛溪集)』, 『주문지결(朱門旨訣)』이 있다.

문인 : 오윤겸(吳允謙) 김집(金集) 김상용(金尙容) 이귀(李貴) 김덕령(金德齡) 이시백(李時白) 조일(趙鎰) 정엽(鄭曄) 윤환(尹暄) 조건(曹鍵)

●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조헌(중종 39, 1544~선조 25, 1592)은 문신이며 의병장으로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응사(應社)의 아들로 김포(金浦) 감정리(坎井里)에서 출생, 명종 원년 어촌 김황(漁村 金滉) 문하에서 시서를 배움에 가세가 빈곤하여 농사하면서 독서하였으며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되었다.

명종 22년 식년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정주교수(定州教授)를 거쳐 선조 5년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로 왕이 절에 향을 하사함을 반대하여 삭직되었으나 다음해 저작(著作)에 등용되고 선조 7년 질정관(質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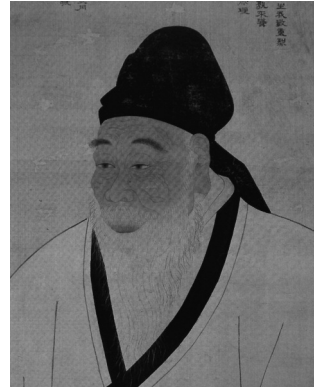
官)으로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과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호조와 예조의 좌랑(佐郎),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고 통진현감(通津縣監)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남형(濫刑)한다는 탄핵을 받고 부평(富平)에 유배되었다. 선조 14년 공조좌랑으로 기용되고 전라도 도사(都事)와 종묘사령(宗廟署令)을 지내고 선조 15년에 모친 봉양을 위해 자청하여 보은현감(報恩縣監)으로 나갔다. 선조 19년 학제개편으로 전국에 제독관(提督官)을 둘 때 공주목 교수 겸 제독교관(公州牧 教授 兼 提督教官)에 제수되었다. 당시 정권을 잡은 동인이 이이 성혼 등을 추죄하려하자 이를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파직 당했다. 선조 22년 동인의 전횡을 공격하는 극론(極論)한 상소로 길주(吉州)에 유배되었으나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방환(放還)되었다. 선조 24년 일본 사신이 오자 옥천(沃川)에서 상경하여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을 처단하고 일본 침략에 대비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았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병하여 영규(靈圭)가 이끄는 승병과 합세하여 청주(淸州)를 수복했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의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錦山)으로 향했으나 전공을 시기하는 관군의 방해로 대부분 의병이 해산 당하고 불과 700명 의병으로 금산에서 전투하여 칠백 의병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이이 문하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사람으로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에 추증되고 이어 선무원종공신일등(宣撫原從功臣一等) 이조판서(吏曹判書)에 가증(加贈)되었다. 인조 27년에 문열(文烈)이라 시호되고 고종 20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과 후에 읍사(栗祠) 등에 제향되고 저서에는 『중봉집(重峯集)』 등이 있다.

문인 : 민욱(閔昱) 박정호(朴廷虎) 김충남(金忠男) 박사진(朴士振) 전승업(全承業) 박훈(朴渾) 조경남(趙敬男) 고명원(高明遠) 김선복(金善復) 외 78인

●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송시열(선조 40, 1607~숙종 15, 1689)은 학자며 노론의 영수로 지는 영보(英浦), 호는 우암(尤庵)·화양(華陽)·동주(洞主),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갑조(甲祚)의 아들로 옥천 구룡촌(沃川 九龍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꿈에 공자(孔子)께서 집에 오시어 태어나서 아명(兒名)을 성퇴(聖賚)라 하였다.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인조 11년 생원시(生員試)에 1등으로 합격하고 천거로 경릉참봉(敬陵參奉)이 되었다. 인조 30년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가 되고 병



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는데 화의가 성립하자 향리로 돌아왔다. 용담현령(龍潭縣令) 지평(持平)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고 효종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에 등용되고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 進善)을 거쳐 집의(執義)가 되었으나 당시 집권당인 공서파 김자점(功西派 金自點)이 영의정에 발탁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가 김자점이 파직되자 진선에 재임되었다. 효종 2년 찬술한 『장릉지문(長陵誌文)』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하여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다시 충주목사(忠州牧師) 집의(執義) 부호군(副護軍)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송준길(宋浚吉)과 서적 편찬 및 후진 양성에 전심했다.

효종 9년 찬선(贊善)에 등용되고 이조판서에 승진하여 효종과 군사력의 강화와 군포(軍布)의 증액 등으로 효종의 뜻을 받들어 추진하던 북벌계획은 중지되었다. 효종의 장례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가 제기되자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에 대하여 기년설(耑年說)을 주장하여 이를 채택시키고 남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판중추부사 좌참찬(判中樞府事 左參贊)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 원년 우찬성에 재직 중 효종의 장지를 옮겼다는 규탄을 받고 낙향했다. 현종 9년에 우의정이 되었으나 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사직하고 현종 12년 다시 우의정에 기용되고 이어 좌의정이 되고 현종 15년 인선왕후(仁宣王后) 별세로 자의대비 복상문제가 논의되자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했으나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어 실각하여 덕원(德源)에 유배

되고 웅천(熊川)·거제(巨濟)·청풍(淸風)으로 이배(移配)되었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기용되어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이 무렵 남인에 대한 처벌문제로 과격한 숙청을 꾀하던 김석주(金錫胄)를 옹호하고 제자 윤증(尹拯)과의 감정 대립이 악화되어 윤증을 중심으로한 소론과 노론으로 분파되었다. 그 후 정계에서 은퇴하여 청주 화양동(華陽洞)에서 은거 중 숙종 15년 왕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는 반대 상소를 했다가 청주에 안치되고 국문을 받기 위해 상경도 중 정읍(井邑)에서 사사되었다. 숙종 20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서인이 집권하자 신원되었다.

일생 주자학을 연구한 거유(巨儒)로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고 사단칠정론에 있어서 이황의 이원론적 이기호발설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하여 사단칠정이 모두 이(理)라 하여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예론에도 밝았으며 성격이 과격하여 정적을 많이 가졌으나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글씨는 대자(大字)를 잘 썼다. 문묘에 종사되고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청천의 화양서원(華陽書院) 등 전국 14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는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이 있고 「이순신충열사비(李舜臣忠烈祠碑)」 등 다수의 금석문이 전한다.

문인 : 김수항(金壽恒) 민유중(閔維重) 허완(許玩) 허황(許璜) 권상하(權尙夏) 외 19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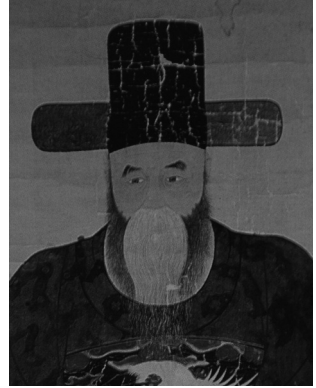
●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박세채(인조 9, 1631~숙종 21, 1695)는 문신이자 유학자로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교리 기(掎)의 아들로 서울 창동(倉洞)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이이(李珣) 성혼(成渾)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하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듣고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김상헌(金尙憲) 문하에서 성리

학을 연구하고 송시열(宋時烈)과 학문을 교류하기도 했다.

28세에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고 효종 10년 효종이 승하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가 일어나자 남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서인으로 송시열과 함께 이를 기년(壽年)으로 정하게 했다. 숙종 즉위 시 남인들이 집권하고 서인이 제거됨에 삭관(削官)되어 양근(楊根) 지평(砥平) 원주(原州) 등지로 유배되었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사업(司業)에 기용되었으며 집의(執義)·동부승지(同副承旨)·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하였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남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소론이 집권하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정치 일선에서 당쟁에 가담했으나 황극당평론(皇極蕩平論)을 주장하여 당쟁 근절에 노력하였고 당대의 유종(儒宗)으로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글씨를 잘 쓰고 70여 권의 문집과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찬요(纂要) 등 귀중한 문헌을 남겼다. 숙종 21년에 졸하니 향년 65세였고 시호는 문순(文純)이며 숙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영조 40년 문묘에 종사되었다. 저서에는 『범학전편(範學全編)』 『남계집(南溪集)』 등 다수가 있다.



문인 : 김간(金榦) 임영(林泳) 유득일(兪得一) 이세필(李世弼) 신완(申琬)

㉮ 도통원류도(道通源流圖) ㉮

(其一)

천 황 (天皇) — 지 황 (地皇) — 인 황 (人皇) — 유 소 (有巢) — 수 인 (燧人) — 재서계이 (在書契以前不可考) — 복 희 (伏羲) — 이황창 (史皇蒼) — 신 농 (神農) — 할여와 (顓女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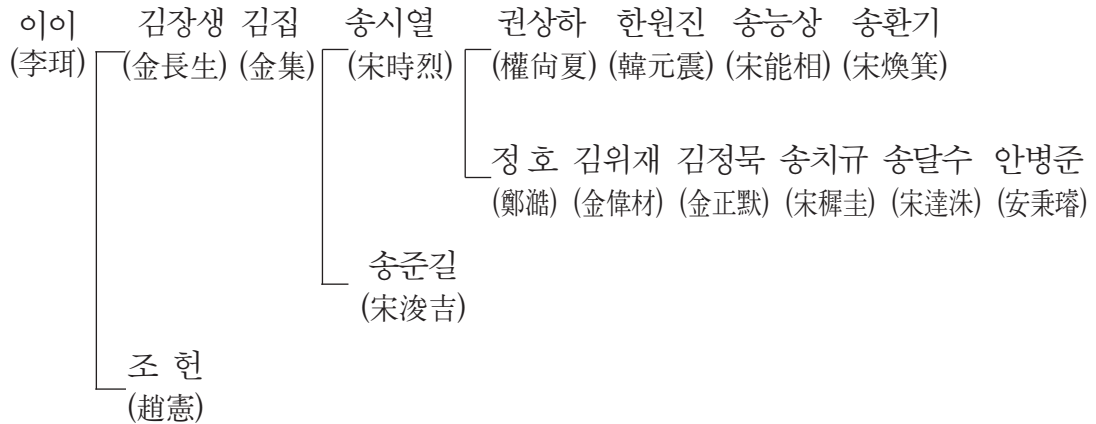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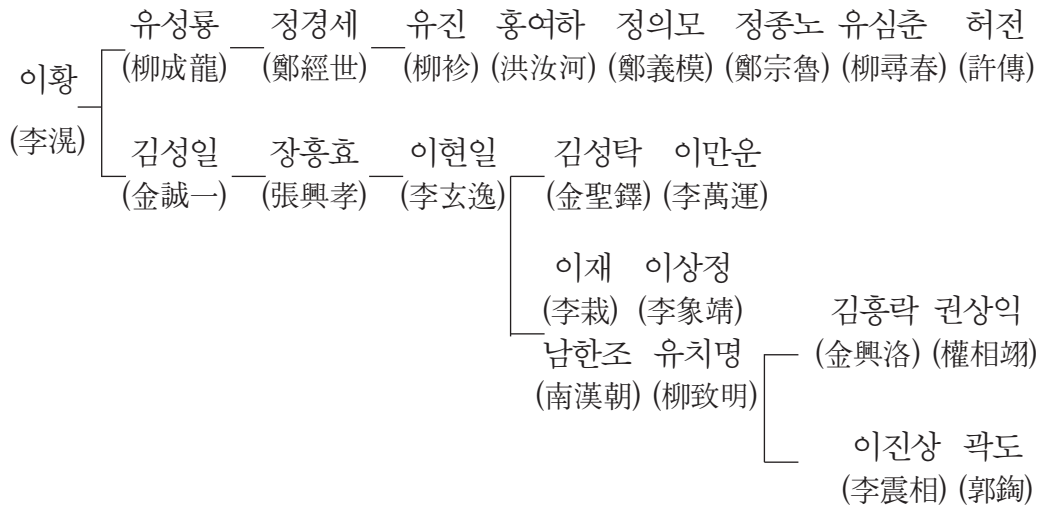
황 제 (黃帝) — 풍후 (風后) — 역목대요 (力牧大撓) — 소 호 (少昊) — 전 옥 (顓頊) — 제 곡 (帝嚳) — 제 요 (帝堯) — 제 순 (帝舜) — 익직 (益稷) — 용성 (容成) — 예수영륜 (隸首伶倫) — 계(契)

고도 (皐陶) — 기룡 (夔龍) — 대 우 (大禹) — 성 탕 (成湯) — 이윤 (伊尹) — 기자 (箕子) — 문 왕 (文王) — 무 왕 (武王) — 태공 (太公) — 주공 (周公) — 소공 (召公) — 백이 (伯夷) — 숙제 (叔齊)

공부자 (孔夫子) — 십철(十哲) — 증점(曾點) — 안자(顔子) — 증자(曾子) — 자사(子思) — 맹자(孟子) — 閔損子騫 冉耕伯牛 冉雍仲弓 宰予子我 端木賜子貢 冉求子有 仲由子路 言偃子游 卜商子夏 顓孫師子張 戴聖(禮記) 高堂生(禮記) 孔安國(書) 毛萇(詩) 范甯新野 董仲舒 賈太傅誼 韓文公愈 杜士春(周禮) 服虔 鄭玄(詩) 劉衆 伏勝(書) 荀子卿 揚雄 盧植

주 자 (周子) — 사마온공 (司馬溫公) — 정 백 자 (程伯子) — 정숙자(程叔子) — 주자(朱子) — 채구봉침(蔡九峰沈) — 허형(許衡) — 장 자 (張子) — 소 자 (邵子) — 광(光) — 속수(涑水) — 胡文定 安國 羅豫章 從彥 楊龜山 時 蔡西山 元定 張南軒 栻 文文山 天祥 載 李延平侗 呂東萊 祖謙 黃勉齋 榦 謝疊山 枋得 橫渠朱韋齋松 陸象山 九淵 眞西山 德秀 雍 胡瑗 康節

(其二)



第4章 儒林要覽

유림요람(儒林要覽)

- _유교(儒敎)의 유래
- _유교(儒敎)의 교리(敎理)
- _유교(儒敎)의 원위(源委)
- _향교(鄕校)의 유래
- _서원(書院)의 유래
- _유생(儒生)의 의표(儀表)
- _과거제도(科擧制度)
- _공자묘비문(孔子廟碑文)
- _심잠(心箴) 및 백록동규(白鹿洞規)

第4章 儒林要覽

유림요람(儒林要覽)

유교(儒教)의 유래

기왕(箕王)은 상왕(商王) 주(紂)의 숙부라, 주가 무도하여 주 무왕(周武王)에게 멸한바 되자 왕은 종자 오천과 시서예와 의무음양복서(醫巫陰陽卜筮) 백공기예(百工技藝)를 거느리고 조선(朝鮮)에 피래(避來)하여 국인의 추대로 왕이 되고 8조교(八條教)를 반포하여 풍속을 순미하게 하고 유교를 평양에 전하였으나 국내에 널리 반포되지 못하였다. 고천여년 후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시행하여 태학(太學)을 설립하였으나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부도(浮屠) 순도(順道)와 불상과 불경을 보내옴으로 왕이 그 책을 자제에게 가르치니 불교 전래도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영류왕(嬰留王) 때에 국학이 서고 유불선(儒佛仙) 3도가 병행하였다. 백제 근초고왕 29년에 고흥(高興)과 왕인(王仁)을 박사(博士)로 내려 비로소 논어와 천자문(千字文)을 가져와 문화가 이로부터 시행하였고 신라 통일 후에 불교는 세외 종교라 하여 유도를 배우다가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세우고 공자 및 제자상(諸子像)을 당나라로부터 들여와 봉안하고 경덕(景德)·경문(景文) 두 왕은 태학에 와서 강설을 듣고 제자를 당에 견학하게 하니 유교가 비로소 성하였다. 고구려 영양왕은 박사 이문진(李文真)으로 신집(新集)을 5권을 산수(刪修)하게 하였다. 시문을 숭상

함에 을지문덕이 수장에게 보낸 시(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는 동방 시문의 시초이다.

신라 신문왕 때에 홍유후 설총(弘儒侯 薛聰)이 학문이 넓고 방언(方言)으로 9경을 해석하여 후생을 가르치니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과 강수(強首)가 문학으로 당세에 유명했다. 문창후는 당에 유학하여 벼슬이 시어사내공봉(侍御史內供奉)이며 문명이 천하에 크게 떨치니 당나라 사람들이 그 재주와 학문을 칭송하였고 저서로 『제왕역년기(帝王歷年記)』가 있고 『당서예문지(唐書藝文志)』에 문창후 사륙집(四六集) 1권과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실려 있으니 그 저서의 많음이 상고에 제일이라.

고려 태조 때 서경에 학교를 창립하고 정악(廷黻)으로 교수와 박사를 내려 육부 생도를 모아 교수하며 따로 학원을 여러 곳에 창설하고 수서원(修書院)을 두어 학업을 장려하였으나 심히 흥성하지 못하였고 예종(睿宗)은 국학에 양현고(養賢庫)를 세워 선비를 양성할 때 명유를 뽑아 관학박사(學官博士)라 하고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을 세워 박사조원(博士助援)을 설치하고 경서인 주역(周易), 서전(書傳),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 춘추(春秋), 효경(孝經), 논어(論語) 등을 습득케 하였고 성종 11년(992)에 주공 공자의 교를 일으키고 부자자효(父慈子孝), 형우제공(兄友弟恭)의 유풍을 알리고자 경학박사를 12목에 설치하였다. 문종 때에 최충(崔沖)이 9재(九齋)를 세워 학생을 교육하니 그 무리 중에 사업자(肆業者)를 일러 최공도(崔公徒)라 하고 기타 유신입도자(儒臣立徒者) 11인이 있었으니 세칭 12도(十二徒)요 최충의 무리가 최성(最盛)하여 해동공자(海東孔子) 일컬었다. 왕이 국자감(國子監)에 와서 공자상에 백배 하고 호칭하여 '백왕사(百王師)'라 하였고 예종 때에 학생을 송나라에 보내어 청연각(淸燕閣), 보문각(寶文閣)에서 학사들이 강론경적(講論經籍)하고 학교를 세워 생원을 배치하여 예악으로 풍속을 이루었다. 인종 때에 호부상서가 오전(五典)으로 인민을 가르치고 향리의 아동에게 논어와 효경을 복습하게 하였고 충렬왕 때에 대성전(大成殿)을 창건하고 문선왕(文宣王) 위패를 봉안하여 문성공 안유(安裕)가 충군효친형우제공(忠君孝親兄友弟恭)의 도를 강론하여 유학이 재흥하나 정주학자(程朱學者) 없어 충숙왕 때에 백이정(白頤正)이 원나라에 가서 정주학을 배우고 돌아와 이제현(李齊賢) 박충좌(朴忠佐)와 종학(從學)하고 권부(權溥)가 주(奏)하여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간행하

고 우탁(禹倬)을 명하여 정씨역전(程氏易傳)을 가르치게 하니 성리학이 비로소 행하고 목은(牧隱) 이색(李穡), 양촌(陽村) 권근(權近), 윤택(潤澤) 이인복(李仁復)의 무리가 배출할 때 이색은 대사성으로 생원을 겸였다.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와 목은 이색은 도덕과 학문이 일대 관면(冠冕)이 되어 이론이 초인(超人)하니 모든 선비가 탄복하였고 충의 대절과 풍기여행(風氣勵行)이 당시 성대하였다. 국학에서 대성전에 문선왕을 숭봉한 석전제(釋奠祭)를 춘추중월(春秋仲月) 상정(上丁)에 행하고 4성 이하 72인과 좌구명(左丘明) 이하 23인을 배향하고, 우리나라 배향자는 오직 홍유후·문창후 양인뿐이요 그의 절은 국왕이 친사(親祀)하고 제주사업 박사(祭酒司業 博士)가 헌관이 되고 여러 주현에는 지방관이 주제(主祭)가 되어 석전을 봉행하고 유학이 국교로 숭봉되고 문학이 울흥(蔚興)하며 군신의 연회에 시을을 음영하고 소학 오성자운이 비로소 통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0월에 전국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유도회 총본부가 탄생하였으며 위원장에 심산 김청숙(心山 金昌淑)을 선출하였고 선사 공부자의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윤리 도의정신을 함양케 하고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대도를 천하에 선포했다.

유교(儒教)의 교리(教理)

유교는 공자의 도의사상을 중지로 하는 인본주의적 윤리의 교(教)이다. 명덕(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세 강령은 유교의 기본 이상이요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팔조목은 인간의 내적 수양을 거쳐서 외적 덕화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완수하게 하는 단계적 기본 행위를 밝힌 것이다.

유교의 요점은 하늘에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천도(天道)가 있어서 이 천도의 명한 바에 의하여 사람에게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성이 있다. 인성이 유일 정순하여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인성은 천도와 합일하게 되는 것임으로 인간사물이 무위이성(無爲而成)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그 인성의 개발

을 가장 중시하였고 그러기 위하여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으며(學不倦)’ 하며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데 주력하였다.

공자 이후로 유교는 여러 학파로 나누어졌지만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子思)를 거쳐서 맹자(孟子)에게 전수된 학파를 정통학파로 삼는다. 자사는 ‘천명설’을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각각 주장하였고 주장(周張), 정자(程子)를 거쳐 주자에 이르러서 유교는 성리학설로 경주되어 인심도심(人心道心)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철학적 경지를 개척하였고 이 학설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조선시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성선설’·‘천인성명론(天人性命論)’·‘이기설(理氣說)’이 집대성되어 퇴계 율곡 등 수많은 학자를 배출하여 유교철학의 종주국에 이르렀다.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오경과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사서는 중요한 경전이다.

유교(儒教)의 원위(源委)

유교라 함은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 고래의 대표적 사상이며 공교(孔敎) 또는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유교는 통상 유가사상이나 유학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통용된다.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또는 정치학이라 할 수 있으며 수 천 년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에 당의 학제인 국학을 받아들인 때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즉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에 태학(太學)을 세웠으며 백제는 국학을 세운 기록은 없으나 고이왕 52년에 이미 왕인(王仁) 박사(博士)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일본에 전한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유학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도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있었던 것 같으나 국학을 건립은 훨씬 늦어 신문왕 2년에야 건립되었다. 그 후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 학문을 장려하여 최치원 같은 이는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고 설총은 이두(吏

讀)를 창시하여 9경(九經)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는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부차적으로는 지도계급으로 하여금 경사(經史)를 통하게 하는 한편 사부(詞賦)와 문장을 능하게 하는데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숭불정책으로 유교가 한때 부진 상태에 놓였다가 성종 11년에 비로소 국자감(國子監)을 세웠고 문종 때에는 최충(崔沖)이 9재(九齋)를 설치하고 학도를 가르쳤다. 그러나 무관의 발호와 전란의 계속으로 유교는 240년 간 다시 침체상태에 빠졌다가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다녀오면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여 가지고 온 후 나라에 건의하여 국학을 세우고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하여 공자를 숭배하는 등 유교부흥에 크게 힘썼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처음 수입하였으므로 주자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는 백이정(白頤正)·우탁(禹奭)·권부(權溥) 등이 있어 모두 주자학 부흥에 힘썼으며 그 학통은 고려 말의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이승인(李崇仁)·정몽주(鄭夢周) 등에게 전승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정몽주는 성리학에 정통하고 도덕과 경론도 일가를 이루어 동방이학(東邦理學)의 조(祖)라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부터 태조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유교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학자는 정도전이다. 그는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의 논설을 통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시대의 유학자 권근(權近)도 많은 저술로 이에 동조하였다. 한편 고려의 유신 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종직(金宗直)은 영남학파의 종조(宗祖)이며 그의 문인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은 무오사화로 희생되었다. 유학계의 거두로서 이황(李滉)과 이이(李瑋)가 각각 퇴계학설의 주리파(主理派)와 율곡학설의 주기파(主氣派)의 2대 조류를 만들었다. 조선조 말에는 유가들이 국제 정보에 어둡고 유교의 유신정신(維新精神)을 망각하여 정당과 합세하여 보수와 배타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제가 위급하자 민영환(閔泳煥)·안중근(安重根) 등은 유가로서 살신성인의 대의를 이루었다. 한말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처음에 양이(洋夷) 배척의 쇄국정책을 쓰다가 후에 문호개방의 기세를 보였고 전국의 유자들은 대부분이 척사위정(斥邪衛正)의 운동을 일으켜 외세배격을 극력주장 하였으나 그 수호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

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일본의 강점과 동시에 일본의 소위 문화정책에 따른 일부의 유학자는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하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부설하여 공죄상반(功罪相伴)의 기형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3.1운동 때에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진정서(儒林團陳情書)를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보내는 등 항일에 가담하다가 8.15해방을 맞고서는 전국유림의 총의에 의하여 경학원을 다시 성균관으로 환원시키고 1955년 전국유림결합체인 유도회(儒道會)를 새로 결성하는 하였다.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을 창설하고 유학정신에 의한 새로운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교(鄉校)의 유래

신라 선덕여왕 12년 계묘년에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가서 국학(國學)에서 석전례(釋奠禮) 지내는 것을 보고 귀국 후 국학관대사(國學館大舍)를 설치하고 공자봉사처(孔子奉祀處)를 별도로 설치하여 석전례를 시행하였으며 성덕여왕 16년 정사년에 태감(太監) 수충(守忠)이 당으로부터 귀국하여 문선왕(文宣王) 10월(十哲) 72제자(七十二弟子)의 화상을 왕께 올리니 명하여 국학에 두다. 이 같이하여 선성선사의 교지를 수습 궁행함을 근본으로 삼고 숭모하며 수학하는 유생들의 교육기관이 바로 향교이다. 고려 태조 13년 경인년 12월에 임금이 서경(西京)에 행행(行幸)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박사관을 두고 정악(廷黷)으로 서학박사(書學博士)를 삼고 자제 등을 모아 훈도하니 이것이 향교가 되었다.

고려 성종 6년 정해년에 전국 12목에 학교를 설치하고 경학박사를 배치하였으며 같은 해 9년 경인년에 서경에 수서원(書修院)을 두고 동 11년 임진년에 12목에 있는 학교에 명하여 문무 재략자(才略者)를 천거하라 명하였다. 고려 인종 5년 정미년에 임금이 제주(濟州)에 명하여 입학광교(立學廣教)하게 하였으나 그 후 의종 원년 정묘년부터 국정이 문란해지자 자연 향교도 쇠미하여졌다. 충숙왕 원년 갑인년에 왕은 한산인(韓山人) 이곡(李穀)을 여러 주에 순력(巡歷)시키어 이를 다시 부흥케 하다.

조선조 태조 원년 임신년의 즉위 교서에서 여러 도의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향교의 설치를 강조하였고, 동 7년에 성균관(成均館)의 준공과 더불어 지방향교의 설치를 촉구하니 그 규모는 성균관에 비하여 작고 주현에 따라 대소의 차가 생겼다. 태종 13년 계사에 각 향교에 학전(學田)을 관급(官給)하니 향교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전국 부목군현(府牧郡縣)에 1교씩 설치되니 총 360교가 되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 조국은 광복되었으나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한에는 231교이나 최근 합천읍에 강양향교(江陽鄉校)가 증설되어 232교가 존재하고 북한에는 129교가 잔존한다.

※참고 : 성균관(成均館) 명칭의 변천

- 고구려시대 : 태학(太學)
- 신라시대 : 국학(國學) 태학감(太學監)
- 고려 태조시대 : 경학(京學)
- 고려 성종시대 : 국자감(國子監)
- 고려 충선왕시대 : 성균관(成均館)
- 조선 고종시대 : 경학원(經學院)
- 광복후 대한민국 : 성균관(成均館)

향교 설립은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향교 또는 향학(鄉學)이라 하였다. 향교는 고려 때부터 각지에 보급되었던 것인데 조선 태조가 즉위하자 향교의 진흥에 힘써 각도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향교의 흥폐로써 수령의 치적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각 1읍에 1교씩이 설립된 것이다.

향교의 구조는 선성(先聖)의 위패를 봉안한 대성전(大成殿)이 있고 그 전 아래에 좌우에는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동서 양무(兩廡)가 있어 이를 문묘(文廟)라 했다.

문묘 앞에는 강학하는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그 좌우에 학생을 기숙시키는 동서 양재(兩齋)가 있어서 학생을 수용했다. 향교는 성균관과 같이 한편으로는 선성선현을 향사하는 임무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유생을 모아 강학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향교의 직제는 주부(州府)에는 교수(教授) 1인, 군현(郡縣)에는 훈도(訓導) 1인을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감독케 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한 각도의 교수와 훈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향교의 교수(教授) 훈도(訓導) 정원표

도명 (道名)	교수 (教授)	훈도 (訓導)	도명 (道名)	교수 (教授)	훈도 (訓導)	도명 (道名)	교수 (教授)	훈도 (訓導)
경기도	11	26	전라도	8	49	함경도	13	9
충청도	4	50	황해도	6	19	평안도	11	21
경상도	12	55	강원도	7	18	총계	72	257

교생(校生)의 정원은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은 각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은 각 30명이었다.

향교의 교과서는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중요한 학과이고 『근사록(近思錄)』 ‘사서(史書)’, ‘삼강행실(三綱行實)’ 등도 가르쳤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성균관 4학(四學)과 같이 개인별로 강을 통하여 학습을 지도하였고, 교생이 독서하는 일과는 매달 수령으로부터 관찰사에 보고되고 관찰사는 순행하면서 교생을 고강(考講)하고 교관의 권태를 살폈는데 일강(日講) 월과(月課)가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감해주었다. 또 여러 도의 관찰사는 도내 교생을 골라 매 6월에 도회소(都會所)를 열어 문관 3명을 보내어 강론과 제술(製述)을 시험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지는 계문(啓聞)하여 생원과 진사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그 추천 인원은 충청 전라 경상 삼도는 각 5명씩이고 그 외의 도는 3명이다. 향교의 재원은 국왕이 하사한 학전(學田)의 수익에 의해 운영 되었고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유인들의 헌성으로 산 토지와 어장 및 산림의 수익으로 제사 및 양사(養士)의 비용에 충당되었다. 향교는 향사와 교육 이외 향토사회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향풍을 순화하는 사회교육적 임무를 띠고 있었다. 즉 삼강행실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부녀와 아동에게 강술하는 특별 강습회 같은 것을 개최한 일이라든지 향음례(鄉飲禮) 양로회(養老禮) 및 향사례(鄉射禮)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덕행을 찬양하고 경노정신을 고취하며 예의와 범절을 가르치게 한 것은 모두 향교를 향토사회

의 교화기관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향교가 지방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 되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선 중기 이후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말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오직 문묘의 제사 기관으로서 남아있게 되었다.

서원(書院)의 유래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는 조선 중종 36년 신축년(1541)에 주세붕(周世鵬)이 풍기군수(豊基郡守)가 되었을 때에, 풍기가 고려말기에 주자학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유교진흥에 크게 이바지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고향임을 생각하여 중국의 주자(朱子)의 고향인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연상하여 풍기군 백운동(白雲洞)에 문성공의 사당을 짓고 춘추로 제사를 올리겠다는 상소를 올리니 중종께서 쾌히 허락하시므로 백운동에 문성공의 사당을 지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하였다. 지방의 유생을 모아 글을 읽게 하니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나라에 주청하여서 전답과 비복을 하사받고 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는 액자까지 하사하시게 했던바 전국 각 군에서도 이를 본받아 문장과 도덕이 지방의 사표로서 존경을 받을 인물의 위패를 모시고 이를 본받아 국가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기를 청원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만일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면 액자의 하사를 청원하고 하사를 받으면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성균관이 있는데 이는 국립대학이며 지방의 각 군현에는 향교가 있어 교원을 두어 지방 유생을 교육하였으니 이는 국립 초등교육기관이며 또 서원이 설립되어 여기에서도 유생을 교육하였으니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며 또 나라에서 사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학식과 도덕이 후생의 사표가 될 만한 선배의 위패를 모시고 지방의 유생들이 학문을 강론하는 곳도 있으니 이는 향현사(鄉賢祠)라 하였다. 이 서원과 향현사는 설립 당시에는 국가와 지방의 교육진흥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많았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종 폐단이 많아 춘추(春秋)의 제향과 유지 비용을 빙자하여 지방 농민을 괴롭히기도 하고 부유한 농민을 원복(院僕)으로 채용하여 병역의 의

무를 면제시킨다며 재산의 헌납을 강요하기도 하며 무위도식의 무리가 유생이라 칭하고 서원에 모여 국정의 시비도 논란하며 또 사색당과의 온상지가 되는 등 국가사회의 폐단이 허다한 실정을 상세히 파악한 대원군(大院君)은 자기가 직접 국정에 참여하게 됨을 기회로 하여 고종 5년 무진년에 특유한 서원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내렸다. 내용을 논하면 고종 2년 을축년(1865)에 흥성대원군(興宣大院君)이 전국서원 총 650개소 중 603개소를 철폐하고 단 47개소만 남겼다.

유생(儒生)의 의표(儀表)

1. 유건(儒巾)은 수암(遂庵)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봉(老峰)선생이 연(燕)나라에 가서 가져왔는데 그 모양은 이산(尼山)을 상징하여 제작하였다.” 하였으며 사계(沙溪)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건은 세 가례(三加禮)에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성인만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도포(道袍)는 의식이 있을 때는 물론 보통 평상시의 예복(禮服)으로써 색사대(色紗帶)를 띠고 행전(行纏)을 친다. 유생으로써 유교의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복식이다.

3. 공수법(拱手法) : 어른을 상대할 때를 비롯하여 관혼(冠婚) 및 일반 제례 의전(儀典) 배례(拜禮) 상읍례(相揖禮)하고 전내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수(拱手)를 하게 마련이다. 이때는 길사(吉事)이므로 좌수재상(左手在上)을 하는 것이요, 상례(喪禮)와 같은 흉사에는 우수재상(右手在上)을 하여야 한다. 특히 근간에 외래식 악수(握手)법이 인사법으로 상용되는바 배례할 때와 상읍할 때는 공수의 예를 꼭 실천토록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공자께서 문인들과 함께 서서 손을 맞잡았는데 오른손을 위로 하니 두세 사람이 또한 오른손을 위로 했다. 공자 왈 “두 세 사람의 배움 좋아함이여! 나는 누이의 상이 있기 때

문이다” 하니 두 세 사람이 다 왼쪽을 위로 했다.(孔子與門人立 拱而尙右어늘 二三子亦皆尙右하니 孔子曰二三子之嗜學也여 我則有娣之喪故也니 二三子는 皆尙左하다)「吉事尙左陽也 凶事尙右陰也」

4. 습급취족(拾級聚足)과 승강(升降)

헌관 집사가 전(殿) 위에 오를 때 동쪽 계단으로 오르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이때 계단에서 필히 취족(聚足, 발을 모음)해야 한다. 취족 방법은 동으로 오를 때는 오른 발을 먼저 한다. 그리고 만약 서쪽으로 내려올 때는 왼발을 먼저 한다. 동계(東階)로 오르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는 것은 천지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의한 선현들의 제도로써 이를 준수하여 봉행한다.「上於東階則先右足 上於西階則先左足 (註)云先右先左 各順入門之左右也」

5. 배법(拜法, 절하는 법)

1) 배(拜)의 대의 : 공경의 뜻을 표하는 방법

2) 배(拜)의 종류 : 아홉 가지(주례)

- ① 계수(稽首) : 수착지(首着地, 머리를 땅에 대는 것)
- ② 둔수(頓首) : 이수고지(以首叩地, 머리로서 땅을 두드리는 것)
- ③ 공수(空首) : 배수(拜手, 양손을 땅에 대고 하는 절)
- ④ 진동(振動) : 양수격이배(兩手擊而拜, 양손을 서로 치며 하는 것)
- ⑤ 길배(吉拜) : 일단 절하고 다시 이마를 땅에 댐
- ⑥ 흉배(凶拜) : 상인(喪人)의 절(계수 후에 절함)
- ⑦ 기배(奇拜) : 단배(單拜, 한 번 절함)
- ⑧ 포배(褒拜) : 재배(再拜, 두 번 절함)
- ⑨ 숙배(肅拜) : 왕과 작별시에 사은숙배(謝恩肅拜, 편지 끝에도 씀)

3) 배(拜)의 행사처 구분(行使處區分, 절의 구분)

- ① 단배(單拜) : 친구 사이에 서로 절, 부모 존장(尊丈) 또는 평상시
- ② 재배(再拜) : 부모와 존장의 생신 때 및 경사나 제사 남재배 여사배

③ 사배(四拜) : 왕에게 또는 부모에게도, 신부가 시부모 뵈 때, 회갑 헌수

4) 배(拜)의 형태(절하는 모습)

① 직배(直拜) : 일반적으로 통용함

② 곡배(曲拜) : 왕에게 그리고 공자묘에 한함.

5) 近代의 拜禮

① 평배(平拜) : 단배(單拜, 한 번 절함)

② 대배(大拜) : 사배(四拜, 재배도 있음)

6) 現行 拜法(現行拜法)의 형태

① 일슬굴이배(一膝屈而拜) : 여인의 경우 한쪽 무릎을 꿇고 절함

② 양슬굴이배(兩膝屈而拜) : 두 무릎을 다 꿇고 절함

③ 이슬개굴잡이반좌향배(二膝皆屈疊而坐向拜(男)) : 여인의 경우 한쪽 다리를 겹쳐서 반쯤 좌향(坐向)하여 꿇어앉으며 공수(空首)하는 절

④ 평좌개양각이배(平坐開兩脚而拜(老)) : 평좌(平坐)하면서 무릎을 벌려 공수(空首)하는 절

과거제도(科擧制度)

과거의 발생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거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9년(958)부터이다.

당시 중국 후주(後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해온 쌍기(雙冀)라는 분의 건의로 관리등용의 길로 과거를 실시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는 방법이었으니 지금의 행정고시(行政考試)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국가고시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와 같은 교육제도의 기초 위에 관료의 임용제도로써 과거가 있었다. 과거는 문과(대과와 소과가 있는데 문과라 하면 대과를 말한다), 무과, 잡과로 분류되나 조선시대에서도 상문(尙文)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과거라 하면 문과를 가리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벼슬하지 않은 자를 유학(儒學),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미사자를 한량(閑良)이라고 하였으며 그 자격에서 제한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①죄를 범해 영원히 벼슬을 박탈당한 자 ②장리(贓吏, 독직관리)의 자식 ③재가(再嫁), 실행(失行)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④서열(庶孽) 자손(뒤에는 약간 완화하였음)은 그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보다도 신분상으로 큰 제한이 있었으니 생원·진사과와 문과는 양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격이 없었다.(속대전(續大典)) 그러나 무과는 그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어 천인만이 자격이 없었다. 또한 잡과는 그 직업상의 기술이 일정한 신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개 그 범위에서 응시하였다.

과거는 식년시(式年試)를 원칙으로 하였으니 삼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과시(科試) 하였으니 자(子)·묘(卯)·오(午)·유년(酉年)에 문과(생원·진사과 포함), 무과, 잡과를 병설하였다. 식년문과는 태조 5년(1397)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문과에는 사마시(司馬試) 혹은 생원·진사과라고 하는 소과와 문과라 부르는 대과가 있다.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5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문과급제가 되는 것이었다.

과거의 첫 단계인 소과초시(小科初試:감시(監試), 감시초시(監試初試), 초시(初試), 생진시(生進試))는 독서하는 선비가 처음으로 치르는 국가시험으로 식년시의 경우는 식년 전년의 가을, 대개는 팔월에 한성부 및 팔도(뒤에는 경기를 한성부에 포함하여 칠도)에서 지역별로 관찰사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고려시대의 제도에 따라 제술(製述, 진사)과와 명경(明經, 생원)과의 2종이 있으니 진사과는 부(賦) 1편과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을 짓게 하였으며(뒤에는 부 1편으로 하였다) 생원과는 오경의 의(義) 1편(뒤에는 춘추를 없애고 4경)과 사서의 의(疑) 1편을 짓게 하되 각도의 정수에 따라 전국에서 양과에 각각 700명(뒤에는 540명), 도합 1,400명(뒤에는 1,080명)을 선발하였다. 소과초시에 대항하는 것으로 사학(四學) 유생에게는 성균관 대사성이 시행하는 승보(陞補, 개성유수와 제주목사가 시행하는 것도 있음), 4학합제(四學合製)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각도의 도사(都事)와 개성(開城), 강화유수(江華留守)가 시행하는 공도회(公都會) 등도 있다. 이에 합격되면 곧 소과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었으나 그 정원은 각 수 명에 불과하였

다.

두 번째 단계인 소과복시(小科覆試:회시(會試), 감시복시(監試覆試), 생진복시(生進覆試))는 소과초시의 합격자를 식년 봄, 대개는 2월에 한성에 모아 예조(禮曹)의 주재 하에 시행하였으니 이를 회시(會試)라고 하였다. 복시 전에 소학(小學)·가례(家禮)의 강(講)으로써 녹명(錄名)을 한 뒤 초시와 동일한 과목을 과(課)하여 생원·진사 각과에 각 100명, 계 200명을 선발하였다.

이 합격자에게는 백색지(白色紙)에 묵서(墨書)한 합격증(合格證)인 백패(白牌)를 주며 제술의 합격자를 진사(進士), 명경(明經)의 합격자를 생원(生員)라 하였다.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만이 아니라 사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하급관료에 취직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후기에 와서 과거가 세가의 농락(籠絡)을 받게 되면서 부터는 생원과 진사를 소성(小成)이라 하여 이에 만족하고 대과(大科)로 나아갈 것을 단념하는 풍속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방의 응시자 대부분 그 목표를 여기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단계인 대과초시(大科初試) 동당초시(東堂初試)는 소과복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가 응시하되 식년 전년의 가을에 역시 한성부와 팔도에서 지역별로 관찰사(觀察使)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이 밖에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생원과 진사에게는 별도의 기회를 주었으니 성균관의 과시(科試)를 관시(館試)라 하였다. 대과도 처음에는 제술과 명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초·중·종장(終場)으로 나누되 제술시는 초장에 오경사서의 의(疑)·의(義) 또는 론(論) 중에서 2편을 취시(試取)하였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5경의(五經義)가 폐지되어 사서(四書)의 의(疑)·의(義) 중에서 1편과 논 1편으로 하였다. 중장에서는 부(賦)·명(銘)·잠(箴)·기(記) 중에서 1편(뒤에는 부1편)과 표(表)·전(箋) 중에서 1편,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으로 시취하였다. 명경시는 뒤에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오경사서에서 시취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에서 340명(뒤에는 223명)을 선발하였다. 또 대과초시에 대항하는 것으로 경향 유생에게 성균관이 시행하는 통독(通讀)이 있었으나 정원은 10명에 불과하였다.

넷째 단계인 대과복시(大科覆試:동당복시(東堂覆試))는 대과초시의 합격자를 식년 봄에 한성에 모아 예조의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먼저 이 복시 전에 『경국대전(經國大典)』

『가례(家禮)』로서 녹명(錄名)을 한 뒤 초장에는 사서삼경의 강서(講書), 중장은 부(賦) 1편과 표(表), 전(箋) 중 1편의 제술, 종장은 1편의 제술로써 삼3명(33天에 응하는 뜻)을 선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인 대과전시(大科殿試)는 국왕 친림 하에 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대과복시의 합격자 33명을 모두 급제케 하되,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 조(詔) 중 1편(뒤에는 논·부·명도 첨가)의 제술로서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의 등급을 정했다. 대과의 급제자에게는 국왕이 홍색지에 묵서한 합격증(合格證)인 홍패(紅牌)와 모화(帽花, 어사화)를 하사하고, 이 영전을 축하하는 갖가지의 행사가 있었다. 이 전시의 급제자 중 갑과의 제1인자를 장원이라 하여 종육품, 제2인자를 방안(榜眼)이라 하고, 제3인자를 탐화(探花)라 하여 각각 정7품을 주었으며, 을과는 정8품을 병과는 정9품의 품계를 주어 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권지(權知, 립시직)로 분차(分差)하였다. 또한 원유계자(元有階者)라 하여 기성 관료로서 승진을 위하여 응시하여 합격한 자 중에 갑과 제1인은 4계(四階)를 더하고, 갑과 제2, 3인자는 3계(三階)를 더하고, 을과는 2계(二階), 병과는 1계(一階) 더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정기시인 식년시 외에 임시 부정기의 과시도 여러 가지 있었다. 첫째로 경과(慶科)라 하여 국가의 대경(大慶), 누경(累慶)이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는 문무 잡과를 과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대개 식년시와 같은 5단계로 치러졌다. 또한 경과로 설치 시행된 별시(別試)·정시(廷試)와 국왕이 문묘에 참배하는 날 시행하는 알성시(謁聖試)가 있었으며, 국왕이 창경궁의 춘당대(春塘臺)에 친림하여 과시하는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은 문과(생진과는 없음)와 무과에 한하였다. 이밖에도 문과에는 여러 임시 과시가 있었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이 다만 단일과로서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을 뿐이었다. 잡과는 기술관을 위한 과거로 역과(譯科, 한(漢)·몽(蒙)·왜(倭)·여진학(女眞學)),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천문·지리·명과학(命課學))·율과(律科)가 있으며 대·소과의 구별 없이 단일과로 초시·복시의 2단계로 과시하였다. 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의 자격을 공인하는 도첩(度牒)을 얻기 위한 송경(誦經)과 승직(僧職)을

주기 위한 승과(僧科)가 있어 선교양종(禪敎兩宗)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일이 있었다.

공자묘비문(孔子廟碑文)

● 명 태종어제(明太宗御製)

道原於天而畀於聖人 聖人者 繼天立極而統承乎斯道者也 若伏羲 神農黃帝 堯舜禹湯文武周公 聖聖相傳 一道而已

周公沒又 五百餘年而生孔子 斯以繼往聖開來學 其功賢於堯舜 故曰自生民以來 未有盛於孔子者也

夫四時流行 化生萬物而高下散殊 咸遂其性者 天之道也 孔子參天地贊化育 明王道正彝倫 使君君臣臣父父子子夫夫婦婦 各得以盡其分 與天地 誠無間焉

故其徒曰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又曰 仲尼日月也 無得而踰焉 在當時之論 如此 亘萬古 無敢有異辭焉 於乎 此孔子之道所以爲盛也

天下後世之蒙其澤者 實與天地 同其久遠矣 自孔子沒 於今千八百餘年 其間道之隆替 與時陟降 遇大有爲之君 克表章之則 其致治 有足稱者 若漢唐宋致之君 可見矣 朕皇考 太祖高皇帝天命聖智 爲天下君 武功告成 卽興文教 大明孔子之道 自京師 以達天下 竝建廟學 領賜經籍作養士類 儀文之備超乎往昔

封孔氏子孫世襲衍聖公 秩視二品世擇一人爲曲阜令 立學官以教孔顏孟三氏子孫 常幸太學 釋奠孔子 竭其嚴敬 尊崇孔子之道 未有如斯之盛者也 朕繼承大統丕法成憲 尙推孔氏之道 皇考之所以表章者 若此其可忽乎

乃曲阜關里在焉 道統之系實由於茲 而廟宇歷久 漸見隳弊 弗稱瞻仰 往命有司 撤其舊而新之 今年夏 畢工 宏邃壯觀 庶稱朕敬仰之意 俾凡觀於斯者 有所興起 致力於聖賢之學 敦其本而去其末 將見天下之士 皆有可用云材 以贊輔泰平悠久之治 以震耀孔子之道 朕於是 深有所望焉 遂書勒碑 樹之於廟 并系以詩曰巍巍玄聖 古今之師 垂世立言 生民是資 天將木鐸 以教是畀 謂欲無言 示之者至 惟天爲高 惟道與參 惟地爲厚 惟德與合 生民以來 實曰未有 出類拔萃 難乎先後 示則不遠 日用攸趨 敦敎有彝

遵于聖模 仰惟皇考 聖道寔崇 禮樂治平 身底厥功 曰予祇述 詎敢或懈 聖緒丕承 儀憲是賴 巖巖泰山 魯邦所瞻 新廟奕奕 宗祝有嚴 鼓鐘錕鍠 璆馨夏擊 八音相宣 聖情胎憚 作我士類 世有才賢 佐我大明 於萬斯年

永樂十五年丁酉九月十九日(出 闕里志)

● 공자묘비문(孔子廟碑文)

- 명(明)나라 태종(太宗)이 지음.

도(道)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 성인(聖人)에게 경계를 짓게 하신 것이니, 성인은 하늘의 뜻을 계승하고 그 극(표준)을 세워 우리 유도(儒道)의 전통을 이어 받으신 분이다. 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황제(黃帝)·요(堯)임금·순(舜)임금·우(禹)임금·탕(湯)임금·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과 같은 분들이 성인으로서 전승하셨으니, 하나의 같은 도일뿐이다.

주공이 돌아가신 후 5백여 년 만에 공자(孔子)께서 태어나시어 성인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후손에게 전하셨으니, 그 공은 요임금·순임금보다 낫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르길, “백성들이 생긴 이후로 공자님보다 융성하셨던 분은 아직 있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무릇 사계절이 흘러 만물이 변화하며 생겨나고, 높고 낮음도 흠어지며 달라져 그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공자께서는 천지에 참여하여 화육(化育)을 도왔으며, 왕도(王道)를 밝히고 인륜을 바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게 각각 그 자신들의 본분에 다하도록 하여 천지와 더불어 진실로 약간의 틈도 없게 하셨다.

그러므로 공자님의 문도(門徒)들이 말하길, “선생님은 미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한 계단씩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또 이르길, “공자님은 해와 달과 같은 분으로 뛰어넘을 수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였다. 그 당시의 평가가 이와 같았으니, 만세에 이르도록 그 평가에 대한 어떠한 다른 말도 감히 없었던 것이다. 아아! 이것이야말로 공자님의 도가 융성하게 된 까닭이지 않겠는가?

천하 후세 사람들 중에 그분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천지와 더불어 같이 살아온 지 오

래되었다.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오늘날까지 천 8백여 년이 지남에 그 사이 도의 흥망이 시대와 더불어 오르내려 큰일을 행하는 임금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표창하여 칭찬하였다. 그것은 곧 그 정치가 일컬을 만한 업적이 있다는 것이니, 가령 한(漢)·당(唐)·송(宋) 나라를 잘 다스렸던 임금들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짐(朕)의 선친이신 태조(太祖)께서 천명을 받들어 성스러운 정치를 베푸시어 천하의 임금이 되셨다. 무공(武功)이 이루어짐을 알리고서 곧바로 문교(文教)를 일으키시어 공자의 도를 크게 밝히셨다. 수도(首都)로부터 천하에 이르기까지 사당과 학교를 함께 세워 두루 경서(經書)를 내리시고 선비들을 육성하셨으니, 예교의 정비됨이 이전보다 뛰어났다.

공자님의 자손을 봉하시어 성인의 공평함을 이어서 베풀도록 2품의 벼슬을 내리셨다. 대대로 한 사람씩 택하여 곡부(曲阜)의 수령으로 삼고 학관을 세워 공자(孔子)·안연(顏淵)·맹자(孟子) 세 분의 자손들을 가르치셨다. 항상 태학(太學)에 행차하시어 공자님께 석전제(釋奠祭)를 올리며 그 엄숙하고 공경함을 다하시었으니, 공자님을 존송하는 도가 이처럼 융성했던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다. 짐이 그 황통(皇統)을 계승하여 모든 법률이 오직 공자님의 도를 숭상하도록 하였다. 선친께서 표창했던 까닭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곡부(曲阜)에 가면 궐리(闕里)가 있다. 도학(道學)의 계통이 실로 여기에서 나왔고, 사당도 내력이 오래됨으로써 점점 황폐화되어 우러러보기에 알맞지 않았다. 왕이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하게 하였는데 올여름에 공사가 끝났다. 넓고도 웅장한 모습이 짐이 공경하는 마음과 거의 들어맞아 이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분발하여 성현의 학문에 힘을 쏟게 하였다. 그 근본을 돈독하게 하되 그 말단은 없애 장차 천하의 선비들을 드러나게 하여 모두 쓸 만한 인재로 만들어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돕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자님의 도를 떨쳐 빛을 발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마음속 깊이 바라는 바 있어 책을 만들고 비석을 마련하여 사당에다 그것을 세우고 아울러 시(詩)를 지어 다음과 같이 그 뜻을 이어보노라.

높고도 높으신 아득한 성인은,	巍巍玄聖
옛날과 오늘날의 스승이셨네.	古今之師
세상에 훌륭한 말씀 남기시어,	垂世立言
백성들이 삶의 밑천으로 삼았네.	生民是資
하늘이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어,	天將木鐸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셨네.	以教是畀
별다른 말 하지 않으려 해도,	謂欲無言
보여주는 자들은 지극했다네.	示之者至
오직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惟天爲高
오직 도만은 거기에 참여했네.	惟道與參
오직 땅이 두텁다고 하지만,	惟地爲厚
오직 덕만은 거기에 합류했네.	惟德與合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이후로,	生民以來
실로 그런 분은 없다고 했네.	實曰未有
출중한 분 가려내자니,	出類拔萃
앞뒤로 다 어려운 일이었네.	難乎先後
보여주는 것은 멀지 않다는 것.	示則不遠
날마다 쓰는 중에서 추구한다네.	日用攸趨
땃땃함을 돈돈하게 펼쳐서,	敦敍有彛
성인의 법도를 따라 가리라.	遵于聖模
오직 선친을 우러러보는 바는,	仰惟皇考
성인의 도를 숭상하신 것이라네.	聖道寔崇
예악을 다스려 평정하셨으니,	禮樂治平
제 몸까지 그 공이 이른다네.	身底厥功
내가 공손하게 서술함에 있어,	曰豫祗述
어찌 감히 혹시라도 췌는가.	罔敢或懈
성스러운 실마리 크게 받들었고,	聖緒丕承

모든 법도를 길이 의지했다네.	儀憲是賴
높고 높은 태산은,	巖巖泰山
노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는 곳.	魯邦所瞻
새로운 사당 크고 크서,	新廟赫赫
잘 차린 제사는 위엄 있다네.	宗祝有嚴
종소리 세상에 밝게 울리고,	鼓鐘錚錚
옥 같은 향기도 두루 퍼지네.	璆馨憂擊
팔음이 조화롭게 연주됨에,	八音相宣
성인의 마음이 기쁨을 지녔다네.	聖情怡懌
우리의 선비들을 육성했으니,	作我士類
세상의 재주꾼들 많이 있다네.	世有才賢
우리 위대한 명나라 도울 자들이니,	佐我大明
천년 만년토록 영원하리라.	於萬斯年

영락(永樂) 15년 정유(丁酉) 9월 19일.

(출전(出典) : 『궐리지(闕里志)』)

심잠(心箴) 및 백록동규(白鹿洞規)

● 심잠(心箴)

망망감여(茫茫堪輿)는 부앙무은(俯仰無垠)이로다. 인어기간(人於其間)에 묘연유신(渺然有身)하니 시신지미(是身之微)는 태창제미(太倉稊米)로대 참위삼재(參爲三才)하니 왈유심이(曰惟心爾)라. 왕고금래(往古今來)에 숙무차심(孰無此心)이리요마는 심위형역(心爲形役)하야 내수내금(乃獸乃禽)이라. 유구이목(惟口耳目)과 수족동정(手足動靜)이 투간저극(投間抵隙)하야 귀궐심병(爲厥心病)이라. 일심지미(一心之微)를 중욕공지(衆欲攻之)하니 기여존자(其與尊者)가 오호기희(於乎幾希)라 군자존성(君子存誠)하사 극염극경(克念克敬)하면 천군(天君)이 태연(泰然)하야 백체종영(百體從令)하리라.

● 백록동규(白鹿洞規)

부자유친(父子有親)하며 군신유의(君臣有義)하며 부부유별(夫婦有別)하며 장유유서(長幼有序)하며 붕우유신(朋友有信)이라. : 오교지목(五教之目)

언충신(言忠信)하며 행동경(行篤敬)하며 징분질욕(懲忿窒慾)하며 천선개과니라. : 수신지요(修身之要)

박학지(博學之)하며 심문지(審問之)하며 신사지(慎思之)하며 명변지(明辨之)하며 독행지(篤行之)라. : 위학지요(爲學之要)

정기의(正其誼)하고 불모기리(不謀其利)하며 명기도(明其道)하고 불계기공(不計其功)이라. : 처사지요(處事之要)

기소물욕(己所不欲)을 물시어인(勿施於人)하고 행유부득(行有不得)이어든 반구저기(反求諸己)니라. : 접물지요(接物之要)

시사면(視思明)하며 청사충(聽思聰)하며 색사온(色思溫)하며 모사공(貌思恭)하며 언사충(言思忠)하며 사사경(事思敬)하며 의사문(疑思問)하며 분사난(忿思難)하며 경득사의(見得思義)니라. : 구사(九思)

족용중(足容重)하고 수용공(手容恭)하며 목용단(目容端)하며 구용지(口容止)하며 성용정(聲容靜)하며 두용직(頭容直)하며 기용숙(氣容肅)하며 입용덕(立容德)하며 색용장(色容莊)이니라. : 구용(九容)

● 시잠(視箴)

심혜본허(心兮本虛)하니 응물무적(應物無迹)이라 조지유요(操之有要)하니 시위지칙(視爲之則)이라. 폐교어전(蔽交於前)이면 기중즉천(其中則遷)하나니 제지어외(制之於外)하여 이안기내(以安其內)하라. 극기복례(克己復禮)하면 구이성의(久而誠矣)리라.

● 청잠(聽箴)

인유병이(人有秉彝)는 본호천성(本乎天性)이니 지유물화(知誘物化)하여 수망기정(遂亡其正)이라 탁피선각(卓彼先覺)은 지지유정(知止有定)이라 한사존성(閑邪存誠)하여 비례물청(非禮勿聽)하라.

● 언잠(言箴)

인심지동(人心之動)이 인언이선(因言以宣)이니 발금조망(發禁躁妄)이라야 내사정전(內斯靜專)이라. 시위추기(是爲樞機)라 흥계출호(興戒出好)하나니 길흉영욕(吉凶榮辱)이 유기소소(惟其所召)라. 상이즉탄(傷易則誕)하고 상번즉지(傷煩則支)라 기사물반(己肆物件)하고 출괘내위(出悖來違)라. 비법부도(非法不道)하여 흠재훈사(欽哉訓辭)하라.

● 동잠(動箴)

철인(哲人)은 지기(知幾)하여 성지어사(誠之於思)하고 지사(志士)는 여행(勵行)하여 수지어위(守之於危)하나니 순리즉유(順理則裕)하고 종욕유위(從欲惟危)라 조차극염(造次克念)하여 전공자지(戰兢自持)하라. 습여성성(習與成性)이면 성현동귀(聖賢同歸)하나니라.

第5章 儒家經典

유가경전(儒家經典)

_대학(大學)

_논어(論語)

_맹자(孟子)

_중용(中庸)

_시경(詩經)

_서경(書經)

_주역(周易)

_예기(禮記)

_춘추(春秋)

_효경(孝經)

_어아(爾雅)

第5章 儒家經典

유가경전(儒家經典)

●대학(大學)

작자는 확실치 않으나 자사(子思)라는 사람도 있고 증자(曾子)라는 사람도 있다. 역시 유학경전의 하나로서 이른바 삼강령(三綱領) 및 팔조목(八條目)을 밝히고 있다. 대학도 원래는 『예기(禮記)』 중의 한편이었으나 송대에 와서 비로소 단행(單行)하게 되었고 역시 주자(朱子)가 장구를 만들었다.

●논어(論語)

공자(孔子)가 돌아가신 뒤에 그의 훌륭한 성행(性行)과 명언들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제자들이 공자가 살아 계실 때 제자 및 그 당시의 인사, 그리고 제자상호간에 문답하던 말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모두 7권 20편으로 되어있고 공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공자연구의 유일한 자료요, 유학의 경전이다.

●맹자(孟子)

맹자가 당시 여러 나라를 유역(遊歷)하면서 왕도를 펴내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그 후 그의 제자들이 맹자가 제후

및 제지들과 문답하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맹자(孟子)』이며 모두 7편으로 되어 있고 맹자의 사상이 깃들여 있는 유가의 경전이다.

● 중용(中庸)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고 하는데 역시 유학경전의 하나로서 천인 합일(天人合一)과 중용지덕(中庸之德)을 강조하고 있다. 원래 이것은 『예기(禮記)』 중의 한편이 있으나 유송(劉宋)의 대옹(戴顒)이 별책으로 하였고 정자(程子)가 사서에 편입하였으며 주자(朱子)가 장구를 만들었다. 모두 1권으로 되어 있고 33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상 네 경전을 사서라고 한다.

● 시경(詩經)

원래는 『시전(詩傳)』 또는 시삼백(詩三百)이라고만 불렀으나 후대에 와서 공자의 정리를 거친 것을 모두 경자를 붙여 부르게 되어 시경이라고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춘추전국시대의 민요와 의식이나 제전에 쓰던 가사 305편이 실려 있는 이른바 중국 최초의 시가총집(詩歌總集)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 내지는 동양문학의 원천이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다.

● 서경(書經)

『서전(書傳)』이라고도 하며 중국고대 요순시대로부터 주나라 때까지의 정사에 관한 문서를 공자가 수집하여 편찬한 책으로 모두 20권 58편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오경 중의 하나이다. 당대의 공영달(孔穎達)은 상(尙)이란 곧 상(上)이란 뜻으로 이것이 상대(上代)로부터 전해온 서(書)이기 때문에 상서(尙書)라고 부른다고 했다.

● 주역(周易)

『역경(易經)』이라고도 하며 중국상고시대에 복희씨(伏羲氏)가 그린 괘(卦)에 대하여 주문왕(周文王)이 충설하여 괘사(卦辭)라하고 주공(周公)이 육효사(六爻辭)라 했는데 공자가 여기에 심오한 원리를 붙여 십익(+翼)을 가해서 만든 유가의 철학서이다. 이에

대해서 물론 이설도 있지만 어쨌든 오경 중의 하나로 전해오고 있으며 주대에 대성되었다고 하여『주역(周易)』이라 한다.

이상『역(易)』『서(書)』『시(詩)』를 보통 삼경이라고 하며 위에 설명한 사서와 함께 흔히 사서삼경이라고 부른다.

● 예기(禮記)

한나라의 유학가에 의하여 편찬된 책으로 주나라 말부터 진한에 이르기까지 유자의 고례에 관한 설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49편으로 되어 있고『주례(周禮)』『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부른다. 이것도 역시 오경 중의 하나이다.

● 춘추(春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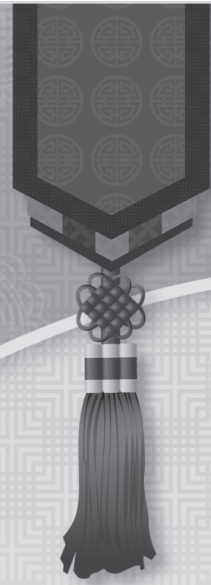
중국고대 노나라의 사관이 노(魯)의 은공(隱公)1년(BC489)까지의 12대 242년간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여기에 공자가 윤리적 입장에서 비판수정을 가하고 정사선악의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춘추(春秋)』에서는 좌씨(左氏)·곡량(穀梁)·공양(公羊)의 삼전(三傳)이 있으니 좌씨전(左氏傳)이 유명하다.『춘추』도 역시 오경 중의 하나이다.

● 효경(孝經)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 증자(曾子)와 함께 효도에 대하여 논급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증자의 제자들이 지었다고 한다. 1권으로 되어 있고 십삼경 중의 하나이다.

● 이아(爾雅)

중국고대의 경전에 나오는 천문·지리·음악·기재(器材)·초목·조수 등의 낱말을 해석해 놓은 책으로 모두 삼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십삼경 가운데 한 책이다.



附錄

_晉州鄉校·儒道會晉州支部 任員

_定款·會則

成均館 定款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憲章

晉州鄉校 定款

社團法人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晉州支部定款

진주시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충효교육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경남유교대학 학칙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 회칙


_全國鄉校 住所錄


_진주의 문화유적


晉州鄉校·儒道會 晉州支部 任員

晉州鄉校 任員


	姓名	沈東燮
	職位	典校/忠孝教育院長
	雅號	松原
	生年	乙酉 1945
	本貫	青松
	電話	742-3020
	H·P	010-3152-2758
住所	진주시 신안들말길 17, 101동 703호 (신안동, 주공1차아파트)	


	姓名	鄭鎬英
	職位	常任元老
	雅號	隅崗
	生年	乙亥 1935
	本貫	晉陽
	電話	754-4076
	H·P	011-847-4076
住所	진주시 사봉면 우곡길 68	

	姓名	韓基仁
	職位	元老/慶南鄉校財團理事長
	雅號	松山
	生年	壬午 1942
	本貫	清州
	電話	276-2300
	H·P	010-8701-7722
住所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5, 111동 1204호 (명서동, 두산위브아파트)	

	姓名	鄭奎燮
	職位	元老
	雅號	農雲
	生年	戊辰 1928
	本貫	海州
	電話	741-6666
	H·P	010-8628-6960
住所	진주시 신안들말길 47, 203동 1206호 (신안동, 주공2차아파트)	


	姓名	韓善愚
	職位	元老
	雅號	椿潭
	生年	戊辰 1928
	本貫	清州
	電話	741-2869
	H·P	010-3583-2869
住所	진주시 신안들말길 17, 104동 205호 (신안동, 주공1차아파트)	


	姓名	成煥喆
	職位	元老
	雅號	毓山
	生年	戊辰 1928
	本貫	昌寧
	電話	753-2628
	H·P	010-7530-2628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859, 1동 1103호 (주야동, 한주럭키아파트)	


	姓名	吳世允
	職位	元老
	雅號	曉林
	生年	乙亥 1935
	本貫	海州
	電話	745-3466/741-5736
	H·P	011-558-3466
住所	진주시 장대로 38 (장대동)	


	姓名	姜永奎
	職位	元老
	雅號	芳谷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州
	電話	741-1747
	H·P	011-839-1747
住所	진주시 신안로 95-1 (신안동)	

	姓名	李秉道
	職位	顧問
	雅號	守窩
	生年	庚午 1930
	本貫	載寧
	電話	745-5364
	H·P	019-419-8843
住所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8-3, B동 1108호 (평거동, 하영그린랜선)	


	姓名	鄭秉禧
	職位	顧問
	雅號	草隱
	生年	辛未 1931
	本貫	草溪
	電話	741-8466
	H·P	010-9396-8460
住所	진주시 북장대로82번길 12-1 (상봉동)	

	姓名	安承均
	職位	顧問
	雅號	佑村
	生年	甲戌 1934
	本貫	順興
	電話	761-8767
	H·P	010-8533-8767
住所	진주시 대신로 257 (상대동)	

	姓名	河在明
	職位	顧問
	雅號	牧泉
	生年	甲戌 1934
	本貫	晉陽
	電話	744-0072
	H·P	010-7931-0072
住所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25-7	

	姓名	姜泰中
	職位	顧問
	雅號	淡山
	生年	丙子 1936
	本貫	晉州
	電話	753-8054
	H·P	010-2918-8054
住所	진주시 권수로 30, 104동 502호 (주약동, 한보햇마을아파트)	


	姓名	李翊基
	職位	顧問
	雅號	春谷
	生年	丁丑 1937
	本貫	全州
	電話	754-3071
	H·P	010-9662-5701
住所	진성면 동부로 1345번길 38	


	姓名	河哲民
	職位	監事
	雅號	南山
	生年	壬午 1942
	本貫	晉陽
	電話	752-8131
	H·P	010-4266-2644
住所	진주시 술밭로110번길 13	


	姓名	鄭東勳
	職位	監事
	雅號	海園
	生年	壬午 1942
	本貫	晉州
	電話	752-9896
	H·P	010-8543-9892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815번길 11, 117동 1402호 (주약동, 주약현대아파트)	

	姓名	鄭基敏
	職位	事務局長/總務首席掌議
	雅號	懷澤
	生年	癸巳 1953
	本貫	海州
	電話	743-9090
	H·P	010-3869-0306
住所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	


	姓名	黃慶圭
	職位	事務次長/掌議
	雅號	坪軒
	生年	乙巳 1965
	本貫	昌原
	電話	752-8290
	H·P	010-9669-8290
住所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3 (칠암동)	

	姓名	鄭玉永
	職位	儀典首席掌議
	雅號	蘊山
	生年	丁亥 1947
	本貫	迎日
	電話	753-3663
	H·P	010-9890-3663
住所	진주시 돛골로 124 (상대동)	


	姓名	韓萬俊
	職位	財務首席掌議
	雅號	德岩
	生年	丙戌 1946
	本貫	清州
	電話	752-9349
	H·P	011-9308-9349
住所	진주시 강남로265번길 12, 1동 202호 (칠암동, 서울탑골드빌리지)	

	姓名	陳永業
	職位	教化首席掌議
	雅號	溪亭
	生年	壬午 1942
	本貫	驪陽
	電話	743-3785
	H·P	010-7528-8298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1317, 113동 403호 (이현동, 이현하이클래스엘가아파트)	


	姓名	成碩基
	職位	組織連絡首席掌議
	雅號	竹林
	生年	壬辰 1952
	本貫	昌寧
	電話	747-8898
	H·P	010-2833-1199
住所	진주시 천수로 315, 107동 406호 (신안동, 현대아파트)	

	姓名	姜三秀
	職位	涉外首席掌議
	雅號	蒼谷
	生年	丁亥 1947
	本貫	晉州
	電話	745-0938
	H·P	010-8552-0938
住所	진주시 신안들말길 17, 107동 904호 (신안동, 주공1차아파트)	

	姓名	姜吉善
	職位	掌議
	雅號	曉羽
	生年	癸卯 1963
	本貫	晉州
	電話	742-9127
	H·P	010-3122-9126
住所	진주시 향교로 3, A동 705호 (평안동, 롯데인벤스)	

	姓名	姜秉周
	職位	掌議
	雅號	石田
	生年	癸卯 1963
	本貫	晉州
	電話	743-1792
	H·P	010-4572-9325
住所	진주시 창렬로 82-1 (상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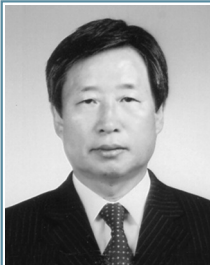
	姓名	姜炳夏
	職位	掌議
	雅號	梅塘
	生年	戊子 1948
	本貫	晉州
	電話	744-0077
	H·P	010-7539-3516
住所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72-1	


	姓名	姜元基
	職位	掌議
	雅號	
	生年	丁亥 1947
	本貫	晉州
	電話	741-6684
	H·P	010-2573-6684
住所	진주시 장대로20번길 6-3 (장대동)	

	姓名	姜元泰
	職位	掌議
	雅號	智水
	生年	己卯 1939
	本貫	晉州
	電話	754-6525
	H·P	010-2050-6525
住所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길11번길 14	


	姓名	姜春根
	職位	掌議
	雅號	耦耕
	生年	甲申 1944
	本貫	晉州
	電話	755-3374
	H·P	010-8523-3374
住所	진주시 도동천로 48, 101동 1204호 (상평동, 진주센트럴자이)	

	姓名	高永玉
	職位	掌議
	雅號	齊山
	生年	壬午 1942
	本貫	長興
	電話	752-6283
	H·P	010-9333-6283
住所	진주시 천수로 30, 105동 601호 (주야동, 한보은빛마을아파트)	


	姓名	郭均燮
	職位	掌議
	雅號	嶧載
	生年	丁亥 1947
	本貫	玄風
	電話	741-3717
	H·P	010-7154-3717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1178번길 8, 702호 (봉곡동, 건성스타뷰아파트)	

	姓名	金東澤
	職位	掌議
	雅號	玄泉
	生年	乙酉 1945
	本貫	延日
	電話	745-5310
	H·P	010-9559-5310
住所	진주시 비봉로74번길 5-4 (계동)	

	姓名	金炳煥
	職位	掌議
	雅號	
	生年	乙酉 1945
	本貫	金海
	電話	754-6377
	H·P	010-6275-9386
住所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로38번길 9-7	


	姓名	金樹晚
	職位	掌議
	雅號	韶山
	生年	辛巳 1941
	本貫	金寧
	電話	741-7133
	H·P	010-5507-8500
住所	진주시 석갑로 81-9	

	姓名	金信郁
	職位	掌議
	雅號	芸齋
	生年	丙申 1956
	本貫	慶州
	電話	752-2802
	H·P	010-3885-2802
住所	진주시 하대로 142, 102동 805호 (하대동, 현대아파트)	

	姓名	金益載
	職位	掌議
	雅號	象午
	生年	1959
	本貫	金海
	電話	745-8942
	H·P	010-3869-8942
住所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25-61 남강휴먼빌 107-102	

	姓名	金在浩
	職位	掌議
	雅號	无盈
	生年	甲申 1944
	本貫	義城
	電話	758-2786
	H·P	010-5316-4588
住所	진주시 지수면 용봉로 150번길 64-4	

	姓名	金宗賢
	職位	掌議
	雅號	尙友
	生年	甲辰 1964
	本貫	金海
	電話	761-9866
	H·P	010-3831-2772
住所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206동 1404호 (조관동, 진주초전푸르지오2단지)	

	姓名	金鍾華
	職位	掌議
	雅號	淸齋
	生年	辛卯 1951
	本貫	義城
	電話	755-2061
	H·P	010-9184-5850
住所	진주시 도동로 196번길 13-1(하대동)	

	姓名	金晉泰
	職位	掌議
	雅號	如岡
	生年	丁亥 1947
	本貫	金寧
	電話	754-3122
	H·P	010-8509-3124
住所	진주시 진성면 진성로457번길 6-1	

	姓名	金香任
	職位	掌議
	雅號	蓮芭
	生年	乙巳 1965
	本貫	金寧
	電話	755-5325
	H·P	010-3551-5325
住所	진주시 상대로143번길 11 (하대동)	

	姓名	金炯甫
	職位	掌議
	雅號	月峰
	生年	戊寅 1938
	本貫	金寧
	電話	754-3075
	H·P	010-5595-3075
住所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215번길 28-4	

	姓名	金炯澤
	職位	掌議
	雅號	後岩
	生年	己卯 1939
	本貫	金寧
	電話	761-3579
	H·P	010-8502-3881
住所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1949번길 29-1	

	姓名	柳基賢
	職位	掌議
	雅號	深齋
	生年	乙酉 1945
	本貫	文化
	電話	753-9131
	H·P	010-2811-9131
住所	진주시 천수로108번길 9-1 (주약동)	

	姓名	柳辰熙
	職位	掌議
	雅號	準堂
	生年	癸巳 1953
	本貫	全州
	電話	758-3852
	H·P	010-8729-3852
住所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7, 105동 1105호 (상대동, 상대현대아파트)	


	姓名	柳熙祚
	職位	掌議
	雅號	隱谷
	生年	癸未 1943
	本貫	全州
	電話	753-0532
	H·P	016-9665-0532
住所	진주시 하대로34번길 9 (하대동)	


	姓名	牟昌奎
	職位	掌議
	雅號	南齋
	生年	辛巳 1941
	本貫	咸平
	電話	754-4215
	H·P	010-9552-4215
住所	진주시 사봉면 지사로284번길 19-3	

	姓名	文映東
	職位	掌議
	雅號	靑湖
	生年	己亥 1959
	本貫	南平
	電話	070-8264-9399
	H·P	010-5558-9399
住所	진주시 지수면 금평로260번길 11-20	

	姓名	文載哲
	職位	掌議
	雅號	素齋
	生年	壬午 1942
	本貫	南平
	電話	758-0529
	H·P	010-8599-1529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859, 5동 801호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姓名	文炯竣
	職位	掌議
	雅號	不息堂
	生年	己亥 1959
	本貫	南平
	電話	755-4020
	H·P	010-3845-4393
住所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7, 102동2701호 (초전동, 진주초전푸르지오1단지)	

	姓名	朴孟濟
	職位	掌議
	雅號	素白
	生年	丙戌 1946
	本貫	密陽
	電話	742-7012
	H·P	010-8552-7012
住所	진주시 새평거리 30, 113동 1704호 (평거동, 엘코타운 더 프라하)	


	姓名	朴鍾植
	職位	掌議
	雅號	碧泉
	生年	戊子 1948
	本貫	密陽
	電話	741-1466
	H·P	010-3750-4297
住所	진주시 논개로 63	


	姓名	朴哲弘
	職位	掌議
	雅號	曉山
	生年	乙巳 1965
	本貫	咸陽
	電話	758-1840
	H·P	010-3551-0271
住所	진주시 동진로 183, 6층 현대자동차 (상대동, 태웅빌딩)	

	姓名	朴清佑
	職位	掌議
	雅號	
	生年	辛巳 1941
	本貫	密陽
	電話	754-3796
	H·P	010-4522-3797
住所	진주시 사봉면 부계길 1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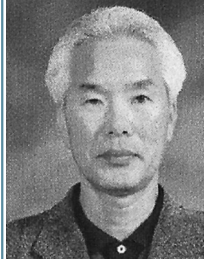
	姓名	朴泰雲
	職位	掌議
	雅號	城村
	生年	丁亥 1947
	本貫	咸陽
	電話	754-1088
	H·P	010-4473-0763
住所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60	

	姓名	朴泰雄
	職位	掌議
	雅號	智山
	生年	辛巳 1941
	本貫	密陽
	電話	744-3276
	H·P	010-4873-3279
住所	진주시 명석면 관문로575번길 39	

	姓名	朴亨濟
	職位	掌議
	雅號	毅菴
	生年	乙酉 1945
	本貫	密陽
	電話	
	H·P	010-3875-9653
住所	진주시 강남로 45, 107동 1501호 (주약동, 금호석류마을아파트)	


	姓名	徐光昊
	職位	掌議
	雅號	愚巖
	生年	庚辰 1940
	本貫	大丘
	電話	757-2050
	H·P	010-3038-2050
住所	진주시 대신로275번길 15-4 (상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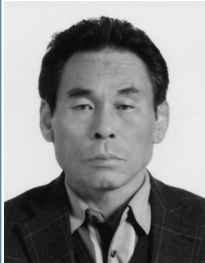
	姓名	成基錫
	職位	掌議
	雅號	正齋
	生年	丁亥 1947
	本貫	昌寧
	電話	752-4955
	H·P	010-9200-4995
住所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637번길 47-15	

	姓名	成在業
	職位	掌議
	雅號	
	生年	庚寅 1950
	本貫	昌寧
	電話	759-2563
	H·P	010-3859-6867
住所	진주시 수곡면 덕천로268번길 28	


	姓名	孫大權
	職位	掌 議
	雅號	上 愚
	生年	辛丑 1961
	本貫	密 陽
	電話	754-3344
	H·P	010-7524-1024
住所	진주시 대신로372번길 9-2 (하대동)	

	姓名	宋東永
	職位	掌 議
	雅號	默 軒
	生年	丁亥 1947
	本貫	恩 津
	電話	755-4763
	H·P	011-881-6644
住所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201동1304호 (초전동, 진주초전푸르지오2단지)	


	姓名	沈載均
	職位	掌 議
	雅號	鶴 岩
	生年	甲午 1954
	本貫	青 松
	電話	763-3015
	H·P	010-9050-4982
住所	진주시 술밭로92번길 5, 라동 209호 (상평동, 축석맨션)	

	姓名	沈載華
	職位	掌 議
	雅號	景 園
	生年	己卯 1939
	本貫	青 松
	電話	741-6218
	H·P	010-6400-6218
住所	진주시 의병로 229 (봉래동)	

	姓名	沈哲輔
	職位	掌 議
	雅號	石 川
	生年	壬辰 1952
	本貫	青 松
	電話	754-7234
	H·P	010-7907-7234
住所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1018번길 1-25	

	姓名	安守中
	職位	掌 議
	雅號	雲 山
	生年	癸未 1943
	本貫	順 興
	電話	752-3736
	H·P	010-3556-3736
住所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7, 109동 906호 (상대동, 상대현대아파트)	


	姓名	梁修永
	職位	掌 議
	雅號	和 林
	生年	癸卯 1963
	本貫	南 原
	電話	752-5674
	H·P	010-4853-2604
住所	진주시 축석로212번길 3-9 (수정동)	


	姓名	梁判石
	職位	掌 議
	雅號	明 執
	生年	己酉 1969
	本貫	南 原
	電話	757-6163
	H·P	010-9329-1623
住所	진주시 천수로 30, 103동 906호 (주야동, 한보은빛마을아파트)	

	姓名	禹聖俊
	職位	掌議
	雅號	
	生年	庚申 1980
	本貫	丹陽
	電話	752-6489
	H·P	010-9335-6489
住所	진주시 초전북로 39번길 5-9 302호	

	姓名	柳福烈
	職位	掌議
	雅號	一愚
	生年	庚辰 1940
	本貫	文化
	電話	070-8199-9593
	H·P	010-5202-9593
住所	진주시 수곡면 덕천로268번길 11	


	姓名	尹敬淑
	職位	掌議
	雅號	恕庭
	生年	辛丑 1961
	本貫	坡平
	電話	762-2900
	H·P	010-8522-2666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879번길 19, A동 1405호 (주약동, 현대성우트리플렉스)	

	姓名	尹明淑
	職位	掌議
	雅號	小鼎
	生年	乙酉 1945
	本貫	坡平
	電話	752-6283
	H·P	010-8804-6286
住所	진주시 천수로 30, 105동 601호 (주약동, 한보은빛마을아파트)	

	姓名	尹永洙
	職位	掌議
	雅號	巨松
	生年	庚辰 1940
	本貫	坡平
	電話	742-9245
	H·P	010-6347-9245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1208번길 20, 1동 1703호 (상봉동, 상봉한주아파트)	

	姓名	李坤政
	職位	掌議
	雅號	南谷
	生年	辛丑 1961
	本貫	光山
	電話	759-4508
	H·P	010-4587-4508
住所	진주시 초북로 88, 205동 1102호 (초전동, 초전해모로루비체 2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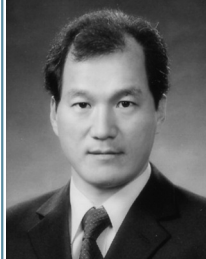
	姓名	李秉洙
	職位	掌議
	雅號	
	生年	癸巳 1953
	本貫	載寧
	電話	753-9888
	H·P	010-3841-3793
住所	진주시 모덕로64번길 12, 가동 106호 (상대동, 새진주아파트)	


	姓名	李炳泰
	職位	掌議
	雅號	雅泉
	生年	丙戌 1946
	本貫	星州
	電話	752-3252
	H·P	010-9019-3252
住所	진주시 주약약골길16번길 30 (주약동)	

	姓名	李奉喜
	職位	掌議
	雅號	承梅
	生年	丙戌 1946
	本貫	全州
	電話	752-8857
	H·P	011-348-9182
住所	진주시 가호로44번길 7, 104동 1104호 (호탄동, 대동아파트)	

	姓名	李相弼
	職位	掌議
	雅號	碧齋
	生年	乙未 1955
	本貫	京山
	電話	070-7536-0795
	H·P	010-6675-0795
住所	진주시 문산읍 원안로1117번길 5, 106동 2303호 (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姓名	李善奎
	職位	掌議
	雅號	不及
	生年	壬寅 1962
	本貫	陝川
	電話	762-9780
	H·P	010-3583-6111
住所	진주시 초전남로 30, 108동 703호 (초전동, 초전홍한황토방아파트)	

	姓名	李容燮
	職位	掌議
	雅號	涵源
	生年	戊戌 1958
	本貫	載寧
	電話	746-9111
	H·P	010-3841-5553
住所	진주시 평거로115번길 5, 102동 706호 (신안동, 평거1차현대아파트)	


	姓名	李喆煥
	職位	掌議
	雅號	雲峯
	生年	丁亥 1947
	本貫	驪州
	電話	754-6622
	H·P	010-4871-2966
住所	진주시 진성면 일사로 56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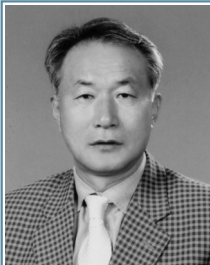
	姓名	李春枝
	職位	掌議
	雅號	錦堂
	生年	庚辰 1940
	本貫	慶州
	電話	759-3488
	H·P	010-9669-3488
住所	진주시 수곡면 덕천로 566-11	


	姓名	李忠洙
	職位	掌議
	雅號	彤憲
	生年	己丑 1949
	本貫	全州
	電話	758-7010
	H·P	010-9925-3700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924 (칠암동)	


	姓名	張根煥
	職位	掌議
	雅號	月沙
	生年	己卯 1939
	本貫	丹陽
	電話	761-3305
	H·P	010-3881-4305
住所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122-1	

	姓名	田炳哲
	職位	掌議
	雅號	子明
	生年	辛丑 1961
	本貫	潭陽
	電話	745-5676
	H·P	010-3866-5676
住所	진주시 신안들말길 58, 202동 1403호 (신안동, 평거2차현대아파트)	

	姓名	鄭頌根
	職位	掌議
	雅號	晚隱
	生年	庚辰 1940
	本貫	海州
	電話	746-3312
	H·P	010-3552-0114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1140 (봉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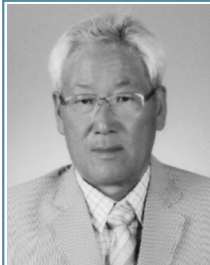
	姓名	鄭輔和
	職位	掌議
	雅號	美山
	生年	丙申 1956
	本貫	迎日
	電話	744-3868
	H·P	011-589-3868
住所	진주시 대평면 한들길41번길 14	


	姓名	鄭在錫
	職位	掌議
	雅號	松巖
	生年	壬午 1942
	本貫	東萊
	電話	746-1131
	H·P	010-5720-1131
住所	진주시 남강로503번길 7, 1동 807호 (신안동, 대경강변맨션)	

	姓名	鄭鍾性
	職位	掌議
	雅號	樂山
	生年	庚辰 1940
	本貫	晉陽
	電話	752-2544
	H·P	010-5328-2544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901, 103동 601호 (강남동, 동성가든타워)	

	姓名	鄭昌教
	職位	掌議
	雅號	米庫
	生年	壬辰 1952
	本貫	迎日
	電話	753-5942
	H·P	010-9410-5942
住所	진주시 망경로296번길 17, 101동 1114호 (강남동, 강남한주한보타운)	


	姓名	鄭泰瑤
	職位	掌議
	雅號	愚齋
	生年	辛卯 1951
	本貫	海州
	電話	761-5955
	H·P	010-4255-5955
住所	진주시 내동면 신을길 13	

	姓名	鄭煥定
	職位	掌議
	雅號	
	生年	己丑 1949
	本貫	晉陽
	電話	754-4030
	H·P	019-615-4030
住所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55번길 8	


	姓名	河萬九
	職位	掌 議
	雅號	松 庚
	生年	庚辰 1940
	本貫	晉 陽
	電話	747-3467
	H·P	010-9307-3467
住所	진주시 상봉대룡길 18, 101동 1503호 (상봉동, 화인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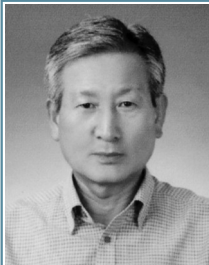
	姓名	河炳運
	職位	掌 議
	雅號	中 岩
	生年	庚寅 1950
	本貫	晉 州
	電話	754-3175
	H·P	010-8515-3175
住所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391번길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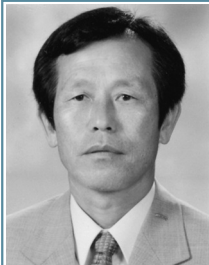
	姓名	河翔天
	職位	掌 議
	雅號	雲 峯
	生年	戊子 1948
	本貫	晉 陽
	電話	754-4662
	H·P	010-3550-3433
住所	진주시 수곡면 중전길268번길 17	

	姓名	河永載
	職位	掌 議
	雅號	梅 泉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 陽
	電話	754-4864
	H·P	011-9942-4864
住所	진주시 수곡면 사곡로719번길 22-5	


	姓名	河陳奎
	職位	掌 議
	雅號	友 山
	生年	丁亥 1947
	本貫	晉 州
	電話	754-7471
	H·P	010-4601-0392
住所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761번길 83-38	


	姓名	河豊吉
	職位	掌 議
	雅號	大 湖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 陽
	電話	758-8834
	H·P	011-854-8834
住所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775-8	


	姓名	韓德源
	職位	掌 議
	雅號	後 惺
	生年	辛卯 1951
	本貫	淸 州
	電話	743-2730
	H·P	010-3875-2730
住所	진주시 논개길 77-1 (옥봉동)	

	姓名	韓仁根
	職位	掌 議
	雅號	梅 山
	生年	丁亥 1947
	本貫	淸 州
	電話	755-4123
	H·P	010-8575-4122
住所	진주시 강남로 45, 110동 501호 (주약동, 금호석류마을아파트)	

	姓名	許南郁
	職位	掌 議
	雅號	
	生年	壬辰 1952
	本貫	金 海
	電話	754-5572
	H·P	011-570-6040
住所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94-21	


	姓名	許斗拏
	職位	掌 議
	雅號	多 槃
	生年	乙酉 1945
	本貫	金 海
	電話	745-0318
	H·P	010-3576-0318
住所	진주시 축석로50번길 4-4 (신안동)	


	姓名	許盛基
	職位	掌 議
	雅號	居 山
	生年	壬午 1942
	本貫	金 海
	電話	754-3114
	H·P	011-9527-3360
住所	진주시 진성면 동산길 76	


	姓名	許允九
	職位	掌 議
	雅號	石 潭
	生年	己丑 1949
	本貫	金 海
	電話	754-5415
	H·P	010-3864-5415
住所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53번길 5	


	姓名	許仁香
	職位	掌 議
	雅號	竹 村
	生年	癸巳 1953
	本貫	陽 川
	電話	070-7720-5923
	H·P	010-2836-3777
住所	진주시 석감로 45, 107동 101호 (평거동, 들말홍원아파트)	


	姓名	許再洙
	職位	掌 議
	雅號	厚 亭
	生年	庚辰 1940
	本貫	金 海
	電話	754-7565
	H·P	010-3069-7565
住所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로 189	

	姓名	許鍾鐵
	職位	掌 議
	雅號	滄 海
	生年	壬午 1942
	本貫	陽 川
	電話	752-2137
	H·P	010-3808-3652
住所	진주시 도동로223번길 13-6 (하대동)	


	姓名	洪斗杓
	職位	掌 議
	雅號	成 定
	生年	丙戌 1946
	本貫	南 陽
	電話	747-7725
	H·P	010-2836-7725
住所	진주시 새평거리 111, 306동 1101호 (평거동, 평거휴먼시아3단지)	

	姓名	梁周鎬
	職位	掌 議
	雅號	省 菴
	生年	己卯 1939
	本貫	南 原
	電話	741-2723
	H·P	010-8989-2723
住所	진주시 창렬로 95	

	姓名	李南辰
	職位	掌 議
	雅號	勤 潭
	生年	庚辰 1940
	本貫	全 州
	電話	745-1679
	H·P	010-3851-1679
住所	진주시 서장대로 2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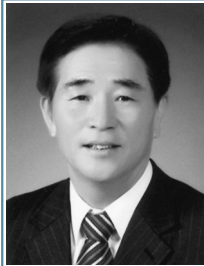
	姓名	鄭權和
	職位	掌 議
	雅號	農 雲
	生年	丙戌 1946
	本貫	晉 州
	電話	
	H·P	010-4590-5338
住所	진주시 지수면 지사로664번길 3	

	姓名	鄭今和
	職位	掌 議
	雅號	坪 山
	生年	辛卯 1951
	本貫	迎 日
	電話	744-3659
	H·P	010-3589-3659
住所	진주시 대평면 한들로 41번길 12	


	姓名	河天龍
	職位	掌 議
	雅號	琴 圃
	生年	壬辰 1952
	本貫	晉 州
	電話	761-2492
	H·P	010-9072-2492
住所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548-5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晉州支部 任員

	姓名	李鶴鎮
	職位	會長
	雅號	訥堂
	生年	壬午 1942
	本貫	陝川
	電話	755-7718
	H·P	010-3869-5144
住所	도동천로120번길 103동1009호	


	姓名	許斗拏
	職位	副會長
	雅號	多槃
	生年	乙酉 1945
	本貫	金海
	電話	745-0318
	H·P	010-3576-0318
住所	축석로50번길 4-4 (신안동)	

	姓名	韓萬俊
	職位	副會長
	雅號	德岩
	生年	丙戌 1946
	本貫	清州
	電話	752-9349
	H·P	011-9308-9349
住所	강남로265번길12골든빌리지 1동 202호	


	姓名	鄭玉永
	職位	副會長
	雅號	蘊山
	生年	丁亥 1947
	本貫	迎日
	電話	753-3663
	H·P	010-9890-3663
住所	진주시 돛골로 124(상대동)	

	姓名	朴鍾植
	職位	副會長
	雅號	碧泉
	生年	戊子 1948
	本貫	密陽
	電話	741-1466
	H·P	010-3750-4297
住所	진주시 논개길 63 (장대동)	


	姓名	鄭基敏
	職位	副會長
	雅號	懷澤
	生年	癸巳 1953
	本貫	海州
	電話	743-9090
	H·P	010-3869-0306
住所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	


	姓名	河淑姬
	職位	副會長(女性會長)
	雅號	
	生年	甲申 1944
	本貫	晉陽
	電話	752-2618
	H·P	010-5039-2618
住所	초장로14번길 105동 501호(푸르지오)	


	姓名	文炯竣
	職位	副會長(青年會長)
	雅號	不息堂
	生年	己亥 1959
	本貫	南平
	電話	755-4020
	H·P	010-3845-4393
住所	초장로14번길 27 102동2701호(푸르지오)	


	姓名	高永玉
	職位	監察委員長
	雅號	齊山
	生年	壬午 1942
	本貫	長興
	電話	752-6283
	H·P	010-9333-6283
住所	천수로 30 105동601호(한보은빛)	


	姓名	鄭東勳
	職位	監察委員
	雅號	海園
	生年	壬午 1942
	本貫	晉州
	電話	752-9896
	H·P	010-8543-9892
住所	진주대로815번길 117동1402호(현대)	


	姓名	成碩基
	職位	事務局長
	雅號	竹林
	生年	壬辰 1952
	本貫	昌寧
	電話	747-8898
	H·P	010-2833-1199
住所	천수로315 107동 406호(현대)	

	姓名	李秉洙
	職位	組織部長
	雅號	
	生年	癸巳 1953
	本貫	載寧
	電話	753-9888
	H·P	010-3841-3793
住所	모덕로12 가동 106호 (새진주)	

	姓名	郭均燮
	職位	事業部長
	雅號	嶧載
	生年	丁亥 1947
	本貫	玄風
	電話	741-3717
	H·P	010-7154-3717
住所	진주대로1178번길8 702호(건성)	

	姓名	許仁香
	職位	弘報部長
	雅號	竹村
	生年	辛卯 1951
	本貫	陽川
	電話	757-5923
	H·P	010-2836-3777
住所	석갑로45 107동 101호(들말홍한)	


	姓名	朴孟濟
	職位	儀禮部長
	雅號	素白
	生年	丙戌 1946
	本貫	密陽
	電話	742-7012
	H·P	010-8552-7012
住所	석갑로45 102동 1002호(들말흥한)	

	姓名	河天龍
	職位	琴山支會長
	雅號	琴圃
	生年	壬辰 1952
	本貫	晉州
	電話	761-2492
	H·P	010-9072-2492
住所	금산면 금산순환로 548-5	


	姓名	申鉉圭
	職位	鳴石支會長
	雅號	平山
	生年	辛巳 1941
	本貫	載寧
	電話	
	H·P	010-9160-4414
住所	명석면 진주대로 2122번길 12	


	姓名	崔衡仁
	職位	大谷支會長
	雅號	鶴堂
	生年	丁丑 1938
	本貫	朔寧
	電話	744-1621
	H·P	010-4542-1621
住所	대곡면 대화로105번길112	

	姓名	姜炳業
	職位	美川支會長
	雅號	元哲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州
	電話	744-6858
	H·P	010-6656-2589
住所	미천면 오방로 311번길 15	

	姓名	河豊吉
	職位	大坪支會長
	雅號	大湖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陽
	電話	758-8834
	H·P	011-854-8834
住所	대평면 호반로 775-8	

	姓名	鄭煥定
	職位	寺奉支會長
	雅號	
	生年	己丑 1949
	本貫	晉州
	電話	754-4030
	H·P	019-615-4030
住所	사봉면 사군로 55번길 8	

	姓名	河永載
	職位	水谷支會長
	雅號	梅泉
	生年	辛巳 1941
	本貫	晉陽
	電話	
	H·P	011-9942-4864
住所	수곡면 사곡로 719번길 22-5	

	姓名	金相學
	職位	二班城支會長
	雅號	雲塘
	生年	辛巳 1941
	本貫	金海
	電話	
	H·P	010-3568-7073
住所	일반성면 가산리 670	

	姓名	具琪書
	職位	一班城支會長
	雅號	松隱
	生年	乙酉 1945
	本貫	陵城
	電話	
	H·P	010-5291-5404
住所	일반성면 일사로 386-3	

	姓名	鄭權和
	職位	智水支會長
	雅號	農雲
	生年	丙戌 1946
	本貫	晉州
	電話	
	H·P	010-4590-5338
住所	지수면 지사로 664번길 3	


	姓名	李翊基
	職位	晋城支會長
	雅號	春谷
	生年	丁丑 1937
	本貫	全州
	電話	754-3071
	H·P	010-9662-5701
住所	진성면 동부로 1345번길 38	


	姓名	沈基祚
	職位	集賢支會長
	雅號	禾明
	生年	戊寅 1938
	本貫	青松
	電話	772-5622
	H·P	011-566-5622
住所	집현면 냉정길 279번길 95	


	姓名	文甲圭
	職位	江南支會長
	雅號	聖訓
	生年	丁亥 1947
	本貫	南平
	電話	755-7572
	H·P	011-845-6537
住所	진주시 망경로 296번길 2	


	姓名	柳基賢
	職位	望京支會長
	雅號	深齋
	生年	乙酉 1945
	本貫	文化
	電話	753-9131
	H·P	010-2811-9131
住所	진주시 천수로 108번길 9-1	

	姓名	沈載華
	職位	蓬水支會長
	雅號	景園
	生年	己卯 1939
	本貫	青松
	電話	741-6218
	H·P	010-6400-6218
住所	진주시 의병로 229(봉래동)	


	姓名	金東澤
	職位	鳳安支會長
	雅號	玄泉
	生年	乙酉 1945
	本貫	延日
	電話	745-5310
	H·P	010-9559-5310
住所	진주시 비봉로 74번길 5-4	


	姓名	崔判道
	職位	上大一支會長
	雅號	松園
	生年	甲申 1944
	本貫	朔寧
	電話	752-9621
	H·P	010-7152-9621
住所	진주시 뚝골로 162번길 4-4	


	姓名	尹永洙
	職位	上鳳支會長
	雅號	巨松
	生年	庚辰 1940
	本貫	坡平
	電話	742-9245
	H·P	010-6347-9245
住所	진주대로1208-20 1동1703호	


	姓名	姜春根
	職位	上坪支會長
	雅號	耦耕
	生年	甲申 1944
	本貫	晉州
	電話	755-3374
	H·P	010-8523-3374
住所	진주시 슬밭로 92번길 15-6	


	姓名	姜道臣
	職位	城地支會長
	雅號	以一/清溪
	生年	壬午 1942
	本貫	晉州
	電話	741-8607
	H·P	010-5290-8607
住所	진주시 남강로 633번길 10-3	

	姓名	鄭文文
	職位	新安支會長
	雅號	竹軒
	生年	甲申 1944
	本貫	海州
	電話	745-1006
	H·P	010-9616-7894
住所	평거로115번길 5, 103동608호	


	姓名	鄭禧永
	職位	玉峰支會長
	雅號	尾谷
	生年	丙子 1936
	本貫	迎日
	電話	743-7441
	H·P	010-8936-3459
住所	진주시 향교로 107, 가동 505호	


	姓名	洪淳太
	職位	二峴支會長
	雅號	東厓
	生年	己丑 1949
	本貫	南陽
	電話	742-9092
	H·P	010-2586-4465
住所	진주시 서장대로 291번길 15	


	姓名	姜元基
	職位	中央支會長
	雅號	
	生年	丁亥 1947
	本貫	晉州
	電話	741-6684
	H·P	010-2573-6684
住所	진주시 장대로 20번길 6-3	


	姓名	鄭煥根
	職位	草長支會長
	雅號	瑞獻
	生年	辛卯 1951
	本貫	晉州
	電話	753-4756
	H·P	010-3869-4756
住所	초장로14, 105동1901호(푸르지오)	


	姓名	李忠洙
	職位	七岩支會長
	雅號	彤憲
	生年	己丑 1949
	本貫	全州
	電話	758-7010
	H·P	010-9925-3700
住所	진주시 진주대로 924, 한국도자기	

	姓名	洪斗杓
	職位	平居支會長
	雅號	成定
	生年	丙戌 1946
	本貫	南陽
	電話	747-7725
	H·P	010-2836-7725
住所	진주시 새평거리 111, 306동 1101호 (평가동, 평가휴먼시아3단지)	

	姓名	許鍾鐵
	職位	下大一支會長
	雅號	滄海
	生年	壬午 1942
	本貫	陽川
	電話	752-2137
	H·P	010-3808-3652
住所	진주시 도동로 223번길 13-6	

	姓名	李順子
	職位	女性儒道會顧問
	雅號	
	生年	甲申 1944
	本貫	載寧
	電話	
	H·P	011-1739-7700
住所	도동천로 48, 103동 1504호	

	姓名	李春枝
	職位	女儒道會副會長
	雅號	錦堂
	生年	庚辰 1940
	本貫	慶州
	電話	759-3488
	H·P	010-9669-3488
住所	수곡면 덕천로 566-11	

	姓名	尹明淑
	職位	女儒道會副會長
	雅號	小鼎
	生年	乙酉 1945
	本貫	坡平
	電話	762-6283
	H·P	010-8804-6286
住所	천수로 30 105동601호(한보은빛)	

	姓名	尹敬淑
	職位	女性儒道會總務
	雅號	恕庭
	生年	辛丑 1961
	本貫	坡平
	電話	762-2900
	H·P	010-8522-2666
住所	진주대로879-19 A동1405(현대성우)	

	姓名	姜柱基
	職位	靑儒道會副會長
	雅號	今夫
	生年	甲午 1954
	本貫	晉州
	電話	748-2191
	H·P	010-3583-4926
住所	신안동 평거1차현대@103-1408	

	姓名	田炳哲
	職位	靑年儒道會總務
	雅號	子明
	生年	辛丑 1961
	本貫	潭陽
	電話	745-5676
	H·P	010-3866-5676
住所	신안들말길58 202동1403호 (평거2차현대)	

定款·會則

성균관(成均館)

成均館 定款

前 文

成均館은 이 나라 唯一의 國立中央大學校로서 最高學府의 機能을 擔當해왔다. 國家 發展의 理念인 哲學을 여기에서 定立하였고, 國家 經營의 主體인 人材를 여기에서 育成 하였다. 일찍이 高句麗 小獸林王 2年(檀紀2705年 孔紀923年 西紀372年) 首都에 太學을 創立한 以來 그 名稱은 달랐지만 唯一 最高學府로서의 位相과 機能은 變함이 없었고, 正統性和 正體性을 고스란히 繼承 發展시켜 왔다. 成均館은 朝鮮朝 建國 後 前朝(高麗)의 傳統을 이어받아 太祖 7年(檀紀3731年 孔紀1949年 西紀1398年)에 創立하여 依然히 唯一 最高學府의 役割을 遂行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整然한 體制와 機構 그리고 組織 體系를 갖추 國學의 中心, 儒敎의 本府, 儒林의 總部로 活性化되어 있다. 이에 새로이 組織體系와 體制運用을 規律하는 最高의 法典으로 定款을 制定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團體는 成均館(以下 ‘本館’이라 稱한다)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館은 孔夫子를 비롯한 儒教 聖賢의 宗旨를 받들어 四書五經을 經典으로 하고, 文廟享祀를 받들어 儒教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儒教의 現代化 및 發展을 追求하고, 儒林社會의 和合과 親睦을 도모하여 儒教文化暢達에 寄與한다. 教育을 통한 道德復興과 人性回復에 앞장서며, 宗教間 交流和合과 窮極的으로는 世界平和와 大同世界의 實現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館은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 1) 文廟 守護와 保存
- 2) 釋奠을 비롯한 文廟享祀
- 3) 儒教儀禮의 研究 및 傳播
- 4) 儒教思想의 普及과 教育事業
- 5) 儒教新聞의 發行 및 刊行物 出刊
- 6) 鄉校와 書院의 支援事業
- 7) 傳統文化繼承과 靑少年 人性教育事業
- 8) 他宗教와의 交流協力事業
- 9) 其他 目的事業 達成에 必要한 사업

第4條(構成)

1. 本館의 構成은 全國에 산재하는 234개의 鄉校(향후 추가설립 될 경우 설립당초부터 구성원으로 추가한다.) 및 成均館儒道會, 市·道 鄉校財團의 任員과 全國 儒林을 構成員으로 한다.
2.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향교도 성균관의 구성원으로 추가한다.

第5條(所在地) 本館은 서울特別市 鍾路區 성균관로 31 유림회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약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第2章 總會

第6條(總會의 召集)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3月에 館長이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또는 在籍 代議員 1/3 以上の 召集 要求가 있을 때 館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3. 위 代議員들의 召集要求는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書面으로 館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4. 館長이 特別한 事由 없이 14日이 經過되어도 召集을 아니하였을 때는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한 代議員들의 代表者 또는 監事가 直接 總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代議員) 總會는 本館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다음 各 項의 人員으로 構成한다.

- 1) 館長, 副館長, 本館 任員(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
- 2) 財團法人 成均館 理事長
- 3) 全國 鄉校 典校
- 4) 各 市道 鄉校財團 理事長
- 5) 儒教新聞社 社長
- 6) 成均館儒道會 總本部會長, 市道本部會長 各 支部會長
- 7) 女性儒道會 中央會 會長, 市道本部會長
- 8) 青年儒道會 中央會 會長, 市道本部會長
- 9) 學校法人 成均館大學校 財團 理事長
- 10) 成均館大學校 總長, 儒學大學 學長
- 11) 成均館 慕聖會 (門中 代表 各2人)

第8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1) 定款의 改正
- 2) 館長, 監事의 選出과 副館長의 認准
-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4) 館長 및 成均館運營委員會에서 附議한 事項

第9條(召集 通知)

1. 總會는 會議 14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

다.

2. 總會의 議案은 미리 通知된 事項을 案件으로 한다.

第10條(議決方法)

1. 總會는 本 定款에 別途의 規程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參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行使한다.
2. 不得已한 事由로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代議員은 事전에 通知된 議案에 限하여 書面으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議決權을 다른 代議員에게 委任할 수는 없다.

第11條(議事錄) 總會의 議事に 關하여는 그 경과와 結果를 議長이 會議 當日 指命한 者가 기재하여 작성하고, 議長과 議長이 指命한 出席 代議員 3人은 議事錄에 記入捺印하여 本館에 보관한다.

第3章 成均館運營委員會

第12條(設置) 本館은 重要하고 緊急한 案件을 審議·議決하기 위해 成均館運營委員會를 둔다.

第13條(構成)

1. 成均館運營委員會는 委員長과 10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成均館運營委員會 委員은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1) 館長 1人
 - 2) 副館長 25人 內外
 - 3) 成均館任員 20人 以內(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
 - 4) 市道 典校協議會長 17人 以內
 - 5) 市道 鄉校財團理事長 17人 以內
 - 6) 成均館儒道會 總本部 會長 1人, 市道本部會長 17人 以內
 - 7) 女性儒道會 中央會長 1人

- 8) 青年儒道會 中央會長 1人
 - 9) 財團法人 成均館 理事長 1人
 - 10) 儒教新聞社 社長 1人
 - 11) 儒教放送局 社長 1人
 - 12) 慕聖會 會長 1人
 - 13) 釋奠保存會 理事長 1人
 - 14) 成均館教育院 院長 1人
3. 成均館運營委員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 1)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 2) 幹事 1人
4. 委員長은 館長이 當然職으로 맡고, 副委員長은 互選한다.
5. 幹事는 總務處長이 맡는다.

第14條(任命 및 任期)

- 1. 委員은 該當 組織·機構의 推薦을 받아 館長이 委囑한다.
- 2. 委員의 任期는 3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해당직 任期가 滿了될 때는 後任者가 承繼한다.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第15條(會議 및 議決事項)

- 1. 會議는 委員長의 主宰로 過半數以上の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위원 過半數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 2. 成均館運營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定款 및 規程의 補完과 改正案 議決 確定
 - 2) 本館과 鄉校의 運營에 관한 緊急事項 議決
 - 3) 本館의 事業展開에 따른 運營規程의 制定
 - 4) 本館의 事業計劃 및 財政運用에 관한 事項 議決
 - 5) 本館의 財產處分 및 豫決算案 審議
 - 6) 其他 本館 또는 儒教界와 關聯되는 關心事項
- 3. 審議案件은 總會의 委任에 따라 議決로 確定하거나, 다음 總會에 委員長이 附議

또는 報告한다.

第16條(會議召集)

1. 成均館運營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委員 1/3 以上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委員長이 召集한다.
2. 會議는 7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通知한다.

第17條(施行細則) 成均館運營委員會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等に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4章 成均館長 및 執行機構

第18條(館長選出)

1. 本館 館長은 總會에서 代議員 直接投票로 選出한다.
2. 選出方法과 절차는 別途의 成均館長 選出規程에 依한다.

第19條(館長任期) 館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0條(缺格事由) 本館 館長 및 任員의 缺格事由는 다음과 같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者
3. 禁錮以上の 刑을 宣告받은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喪失 또는 停止된 者
5. 本 定款에 의하여 解任 懲戒處分을 받고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21條(館長職務)

1. 館長은 對外的으로 本館을 代表하고 本館의 모든 業務를 統轄 . 執行한다.
2. 館長은 定款 改正案을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3. 館長은 副館長을 任命하며, 本館 任職員을 임면한다.
4. 館長은 鄉校에서 선출된 任員을 追認하여 選任한다.
5. 館長은 構成員에 대한 褒賞 및 懲罰에 관한 事項을 執行한다.

第22條(副館長)

1. 副館長은 館長을 보좌하며, 수석부관장, 직능·지역별 부관장은 당연직 成均館運營委員會 委員이 된다.
2. 館長이 有故 時에는 首席副館長, 副館長 中 年長者 順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3. 首席副館長은 부관장 중에서 관장이 指名한다.
4. 館長, 副館長 모두 有故로 館務 遂行이 不可能할 때는 總務處長이 후임자 選출을 위하여 即時 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제23條(副館長 選出과 任期)

1. 17명의 시도별 副館長은 각 시도 향교재단이사장, 전교협의회장, 유도회장 3인이 추천하여 館長이 任命한다.
2. 8人 內外의 職能別 副館長은 總會의 認准을 받아 館長이 직접 任命한다.
3. 副館長의 任期는 3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24條(任員)

1. 本館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 館長 1人
 - 2) 副館長 25人 內外(首席, 職能別副館長 包含)
 - 3) 典仁 250人 以內
 - 4) 典儀 150人 以內
 - 5) 典學 200人 以內
 - 6) 司儀 10人
 - 7) 司藝 10人 (50세 以下 者로 한정함)
 - 8) 總務處長 1人
 단, 他宗教人은 成均館 任員이 될 수 없다.
2. 任員중 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는 典校의 推薦을 원칙으로 하고 成均館長이 任命한다.
3. 任員중 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任員은 각 집행기구에 소속하여 館長의 업무집행을 보좌한다.
5. 任員은 本館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分擔金 및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6. 任員은 성균관의 釋奠을 비롯한 文廟享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7. 任員의 業務와 執行機構 배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第25條(執行機構) :

1. 本館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總務處를 설치하며 總務處長이 이를 總括한다
2. 總務處는 組織, 運營에 관한 사항을 總括한다.
3. 總務處長은 館長이 任命한다.
4. 總務處에 企劃調整室, 對外協力室, 總務部, 財政部, 儀禮部, 秘書室, 出版部, 弘報部, 敎務部를 둔다.
5. 위 각 집행기구의 組織, 職務範圍는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5章 財團法人 成均館 및 財團法人 市·道 鄉校財團

第26條(財團法人 成均館의 設置 및 運營規程)

1. 本館에 財團法人 成均館을 둔다.
2. 財團法人 成均館의 운영은 財團法人 成均館의 定款에 따른다.
단, 定款에 相衝되는 條項은 成均館 定款을 따른다.

第27條(財團法人 市·道 鄉校財團의 設置 및 運營)

1. 本館에 財團法人 市·道 鄉校財團을 둔다.
2. 財團法人 市·道 鄉校財團의 운영은 財團法人 市·道 鄉校財團의 定款에 따른다.

第6章 典禮委員會

第28條(設置) 典禮委員會는 典禮 및 儒敎儀禮의 研究 및 保存 업무를 수행한다.

第29條(施行細則) 典禮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別途로 定한다.

第7章 成均館教育院

第30條(設置)

1. 本館의 教育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成均館教育院을 둔다.

第31條(施行細則) 成均館教育院의 構成과 施行에 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8章 社團法人 釋奠保存會

第32條(設置) 釋奠의 原形保存과 傳承을 위해 社團法人 釋奠保存會를 둔다.

第33條(運營) 社團法人 釋奠保存會의 運營은 別途의 定款에 따른다. 但, 定款에 相衝되는 條項은 成均館 定款을 따른다.

第9章 선비文化修鍊院

第34條(設置) 本館의 傳統文化 教育을 위해 선비文化修鍊院을 設置한다.

第35條(運營) 선비文化修鍊院의 運營은 別途의 運營規程에 따른다. 但, 定款에 相衝되는 條項은 成均館 定款을 따른다.

第10章 監 事

第36條(設置) 本館의 透明한 業務 및 會計를 위하여 監事를 둔다.

第37條(選出 및 任命)

1. 監事는 2人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
2. 監事는 司正委員會의 當然職 委員이 된다.

第38條(任期) 監事의 任期는 2年이며, 重任할 수 있다.

第39條(職務)

1. 監事는 다음 各項의 職務를 遂行한다.
 - 1) 本館의 歲入歲出 및 財産事項 監查
 - 2) 本館 業務의 運營狀況 監查

2. 總會와 成均館運營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3. 監査結果 不正·不當한 事項의 認知時 是正을 要求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1章 元老와 顧問

第40條(元老會議) 本館의 主要 業務에 관한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元老會議를 둔다.

第41條(委員 推戴 및 任期)

1. 元老는 館長이 推戴한다.
2. 元老는 15인 內外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3. 元老會議의 議長은 元老委員 中 互選으로 選出한다.

第42條(任員) 元老會議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 1) 議長 1人
- 2) 副議長 1人
- 3) 幹事 1人

第43條(施行細則) 元老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44條(顧問)

1. 本館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며 人格과 德望을 갖춘 分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고문을 둔다.
2. 本館의 顧問은 前職 副館長 中 館長이 推薦한 分과 館長이 직접 推戴한 分으로 구성한다.
3. 顧問團 會議 議長은 顧問 中 互選으로 選出한다. 幹事 1人을 두며, 幹事는 議長이 任命한다.

第12章 諮問委員會

第45條(設置) 本館은 주요업무 諮問 問題에 관한 특정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諮問委員

會를 둔다.

第46條(諮問委員會)

1. 諮問委員會는 本館의 주요 業務의 處理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應한다.
2. 諮問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한다.

第13章 司正委員會

第47條(設置) 本館은 주요업무 司正問題에 관한 특정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司正委員會를 둔다.

第48條(司正委員會)

1. 司正委員會는 本館과 鄉校 汎 儒教界의 紀綱을 糾正하고 葛藤을 調整하는 館長의 업무를 補佐한다.
2. 司正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한다.

第14章 特別委員會

第49條(特別委員會 設置)

1. 館長은 本館의 특수 사안에 관한 業務處理를 위해 필요에 따라 儒教博物館建立, 道德復興國民運動, 東亞細亞 儒教聯合, 成均館財政確保, 特別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2. 特別委員會의 構成, 組織範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한다.

第15章 典校會議

第50條(設置) 本館은 地方鄉校와의 緊密한 業務 協議를 위하여 典校會議를 둔다.

第51條(構成) 典校會議는 17個 市·道에 所在한 鄉校의 現職 典校로 構成한다. 但, 구성 전교는 館長의 選任狀을 받은 典校에 限한다.

第52條(會議)

1. 典校會議는 成均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구성 典校 전체의 過半數 以上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館長이 召集한다.
2. 館長은 典校會議의 議長이 되며, 議長을 보좌할 副議長 3人을 任命한다.
3. 典校會議는 該當 鄉校의 現職 典校가 參席하되 不得已 한 境遇 首席掌議에게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53條(審議事項)

1. 典校會議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 1) 成均館과 鄉校의 運營에 關한 事項
 - 2) 鄉校 發展과 相互 交流에 關한 事項
 - 3) 其他 成均館과 鄉校의 固有 業務에 關한 事項
2. 典校會議는 上記 審議事項을 審議한 뒤 그 執行을 成均館運營委員會에 제안할 수 있다.

第54條(施行細則) 典校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등 기타 必要한 사항은 別도의 세칙으로 定한다.

第16章 進교협의회

第55條(設置) 本館에 시, 도 향교를 대표하는 進교협의회를 둔다.

第56條(運營) 進교협의회의 運營은 別途의 運營規程에 따른다. 但, 定款에 相衝되는 條項은 成均館 定款을 따른다.

第17章 鄉校

第57條(設置)

1. 本館은 鄉校를 둔다.
2. 現在까지 設置된 鄉校는 別添과 같다. 단, 정부의 행정구역 지역내 유림들이 협

의하여 鄉校를 신설할 수 있다.

3. 各 鄉校는 成均館이 정한 規程, 細則을 따른다.
4. 各 鄉校의 新任典校는 선임장을 받을 시 소정의 鄉校分擔金을 납부한다.
5. 전교는 각 향교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고 관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

第58條(任員)

1. 典校는 鄉校를 代表한다. 다만 個別鄉校의 必要에 따라 副典校를 둘 수 있다.
2. 鄉校에는 儀典, 總務, 財政, 教化, 連絡, 涉외의 部署를 두고 各 部에 首席掌議를 各 1人씩 둔다. 首席掌議는 典校가 任免한다.
3. 典校는 鄉校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事務局長 및 職員을 둘 수 있다.

第59條(職制規程)

1. 鄉校의 構成, 組織, 運營 및 職務範圍에 關한 諸般 事項은 別途의 鄉校職制로 定한다.
2. 鄉校는 前項의 職制規程을 따르되, 各 鄉校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儒林總會를 통하여 別途의 職制規程을 둘 수 있다.

第18章 財政 및 會計

第60條(會計年度等)

1. 成均館 및 鄉校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2. 관내 모든 기관은 歲入 歲出에 關하여 감사의 決算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61條(收入, 會費 등) 本館의 收入은 一般 및 特別分擔金, 獻誠金, 任員會費, 事業收益, 國家地方團體公共機關 補助金, 其他 收入에 依한다.

第62條(施行細則) 財政은 공개를 原則으로 하되 그 施行에 關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한다.

第19章 定款 改正

第63條

1. 定款 改正案은 成均館長 또는 在籍 代議員 3分の 1 以上の 發議로 提案한다.
2. 發議된 定款 改正案은 總會 出席 代議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3. 確定된 定款 改正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성균관 홈페이지와 유교신문에 공포한다.

附 則

本 定款은 통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006年 5月 1日 制定

2008年 8月 7日 1차 개정

2009年 9月 24日 2차 개정

2010年 7月 16日 3차 개정

2011年 7月 14日 4차 개정

2013年 3月 28日 5차 개정

2014年 1月 7日 6차 개정

2014年 6月 9日 7차 개정

2014年 10月 7日 치유, 수정 및 정정

2015年 3月 31日 8차 개정

2016年 9月 23日 9차 개정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憲章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成均館儒道會總本部(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의 所在地는 서울特別市 鐘路區 成均館路 31 儒林會館內에 둔다.

第3條(目的) 本會는 儒道精神에 立脚하여 道義의 闡明과 倫理의 扶植을 實踐하고 修齊 治平의 大道를 宣揚하며 社會秩序를 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組織) 本會는 다음과 같은 各級組織을 둔다.

- ① 本會의 中央에 總本部를, 特別市, 廣域市 및 各道에 市·道本部를 두며, 市·郡·區 및 鄉校 單位로 支部를 두고, 邑·面·洞 單位로 支會를 둔다.
- ② 本會 傘下에 總和와 次世代 育成을 위하여 第①項의 各級 組織에 女性儒道會, 青年儒道會, 學生儒道會, 職場 및 職能別 儒道會를 둔다. 다만, 女性儒道會와 青年儒道會는 特性을 考慮하여 獨立된 規程을 갖고 活動한다.
- ③ 海外에 國家別 本部를 두고, 그 산하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④ 組織 活性化를 위해 本부와 支部 등을 創設할 경우 上級組織의 承認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第5條(事業) 第3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經營한다.

- ① 本會 組織과 鄉校 및 有關團體의 育成
- ② 支部 組織(鄉校) 單位의 禮節教育場 確保 및 運營
- ③ 經典 研究를 통한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指導理念 創出
- ④ 禮俗醇化 運動展開
- ⑤ 家庭文化 再建을 위한 孝의 再定立과 實踐運動
- ⑥ 傳統文化의 繼承과 發展에 關한 事業
- ⑦ 社會參與와 親環境 運動
- ⑧ 統一을 위한 南北 同質性 恢復에 關한 事業
- ⑨ 會員親睦과 福祉 關聯事業
- ⑩ 本會事業과 有關한 出版事業
- ⑪ 本會 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第6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鄉校와 儒道會를 出入하는 모든 儒林은 儒道會 會員이 된다.
- ② 會員은 所定의 入會節次를 마치고 統一된 品階를 附與 받으며, 會員證을 交付한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 ① 會員은 總會 및 各種 會議를 통한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 ② 會員은 各級 組織의 正·副會長 및 任員의 被選舉權이 있다.

第8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憲章 및 諸規程을 遵守, 總會 및 各種會議의 議決事項을 履行하고 會費 및 諸 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9條(會員의 脫會) 會員이 本會에서 脫會하고자 할 때는 該當組織의 會長에게 脫會書를 提出하면 된다.

第三章 任 員

第10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둘 수 있다.

- ① 會 長 1人
- ② 副 會 長 25人 以內(首席 및 직능 직 包含)
- ③ 常任委員 350人 以內
- ④ 監察委員 10人 以上 15人 以內
- ⑤ 女性 및 青年儒道會長은 第②項의 副會長 定員外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第11條(任期)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② 補闕로 選出된 任員의 殘餘任期는 한 任期로 본다.

第12條(會長團 任務)

-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 ② 會長은 首席副會長을 지명한다.
- ③ 首席副會長은 會長 有故 時 또는 職務遂行에 必要할 때 그 職務를 代行하며, 日常

業務를 總括하고 會長에게 報告한다.

- ④ 會長職務代行은 首席副會長이 遂行한다. 단, 有故 時는 副會長中에서 年長者 順으로 代行한다.
- ⑤ 會長 有故시 殘餘任期가 6개월 미만인 경우 首席副會長이 代行한다. 단, 職務代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第13條(總裁 및 名譽會長)

- ① 本會에 總裁 1人, 副總裁 若干名과 名譽會長을 推戴할 수 있다.
- ② 總裁와 副總裁 및 名譽會長團은 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常任委員會에서 推戴한다.
- ③ 任期는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四章 顧問 및 諮問委員

第14條(顧問)

- ① 本會는 顧問 若干人을 둔다.
- ② 顧問은 會長이 推戴하며, 任期는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 ③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總會 또는 常任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陳할 수 있다.

第15條(諮問委員)

- ① 本會에 50人 以下の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 ② 諮問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며, 任期는 會長 任期와 같다.
- ③ 諮問委員은 常任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陳할 수 있다.

第五章 機 構

第16條(機構) 本會에 다음 機構를 둔다. 機構의 再編 增減에 對하여는 常任委員會에서 定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 ① 總會
- ② 常任委員會
- ③ 監察委員會
- ④ 事務處
- ⑤ 教育院
- ⑥ 女性儒道會
- ⑦ 青年儒道會
- ⑧ 學生儒道會
- ⑨ 職場儒道會
- ⑩ 職能別儒道會
- ⑪ 海外本部

第六章 會議

第17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며, 定期總會는 每年 3月 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 또는 常任委員 2/3 以上이나 總會 在籍 代議員 1/3 以上이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書面要求가 있을 때 開催하며, 會長은 20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다만, 20日이 經過하면 會議召集 要求者의 代表가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18條(總會的構成) 總會的構成 代議員은 다음과 같다.

- ① 憲章 第 10 條의 任員
- ② 憲章 第 16 條의 事務處 局長以上, 教育院長
- ③ 女性·青年·學生·海外本部 會長
- ④ 職場 및 職能別 儒道會 會長
- ⑤ 市道本部會長
- ⑥ 各 支部會長
- ⑦ 財團法人 成均館理事長

- ⑧ 成均館 館長團 및 典禮委員長
- ⑨ 市道鄉校財團理事長
- ⑩ 鄉校典校
- ⑪ 儒教新聞 社長 및 主幹
- ⑫ 學校法人 成均館大學校 理事長, 成均館大學校 總長, 成均館大學校儒學大學院長

第19條(總會 定足數)

- ① 本會의 各級 會議는 在籍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議案은 出席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되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 ② 議決權은 會議에 出席하는 다른 代議員(委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다만, 本會의 解散 및 임원 選出權은 委任할 수 없다.
- ③ 委任할 境遇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會議 前에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20條(總會의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① 正·副會長의 認准·但, 正·副會長 選出은 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에 上程한다. 選出規程은 따로 定한다.
- ② 常任委員의 選出
- ③ 監察委員의 選出
- ④ 常任委員會에 對한 權限 委任에 關한 事項
- ⑤ 常任委員會로부터 提請된 事項의 承認
- ⑥ 事業報告 및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 ⑦ 豫.決算에 關한 事項
- ⑧ 憲章의 改正에 關한 事項
- ⑨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 ⑩ 其他 重要 事項의 決議

第21條(常任委員會) 常任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은 다음과 같다.

- ① 會議
 - 常任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總本部 會長이 召集하고, 會長이 議長이 된다.
- ② 構成

1. 常任委員會는 總本部 正·副會長과 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2. 常任委員會에는 副議長 5인을 두며, 會長이 指名한다.
3. 常任委員會의 幹事는 事務總長이 한다.

③ 機能

1. 總裁, 副總裁 및 名譽會長の 推戴
2. 事業計劃案의 審議
3. 豫算·決算案의 審議
4. 憲章 및 諸規定案의 審議
5. 財政 및 會費에 關關한 審議
6. 其他 本會 目的과 關聯된 事業審議

第22條(監察委員會) 監察委員會의 會議, 構成 및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會議

監察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總本部會長の 要請이 있을 때, 該當 委員 1/3 以上이 會議 目的을 明示한 召集要求가 있을 때 委員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② 構成

監察委員會는 委員 10人 以上 15人 以內로 構成하고 互選에 依하여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둔다.

③ 機能

1. 本會의 規律 및 秩序 維持
2. 業務 및 會計 監查
3. 任員 및 會員의 資格과 表彰·懲戒·復權에 對한 監查
4. 總本部 會長이 要請한 特別 監查
5. 各級 會議 參席, 監查報告 및 意見 開陳

第23條(女性儒道會) 女性儒道會中央會는 第4條 ②項에 依하여 中央會, 市·道本部, 支部, 支會를 管理 運營한다.

第24條(青年儒道會) 青年儒道會中央會는 第4條 ②項에 依하여 中央會, 市·道本部, 支

部, 支會를 管理 運營한다.

第25條(其他組織) 學生儒道會 職場儒道會 및 職能儒道會를 둘 수 있으며, 本會 憲章을 遵守하고 組織의 運營에 必要한 諸規程은 總本部의 承認을 얻어 制定·施行 한다.

第七章 財 政

第2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1일부터 12月31일까지로 한다.

第27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財團法人 成均館 및 政府의 補助金과 會員의 會費, 贊助金 其他 事業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八章 褒賞 및 懲戒

第28條(褒賞) 本會 發展에 顯著한 功이 있는 團體 및 個人에게는 褒賞한다.

第29條(懲戒) 本會 會員이 다음의 行爲를 하였을 때는 懲戒할 수 있다.

- ① 本會 憲章 第8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
- ② 總會 決議事項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③ 本會의 名譽를 毀損하였을 때
- ④ 本會 業務執行을 妨害하였을 때
- ⑤ 懲戒의 種類와 執行에 關하여는 常任委員會가 定하는 監察委員會 規程에 依한다.

第30條(不信任決議) 總本部 會長을 不信任할 境遇에는 在籍 代議員 2/3 以上の 決議를 要하고, 副會長 不信任은 在籍 代議員 1/2 以上の 決議를 要한다.

第九章 事務處

第31條(設置)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한 第 16條의 事務處에 總 務局, 企劃室, 組織局, 教化文化局, 政經局, 事業局, 女性局, 青年局을 둔다.

第32條(職員) 事務處에 事務總長을 두고, 各 部署長은 事務總長이 提請하고, 會長이 任

免한다.

- 事務總長 1名 ◦ 總務局長 1名 ◦ 企劃室長 1名
- 組織局長 1名 ◦ 教化文化局長 1名 ◦ 政經局長 1名
- 事業局長 1名 ◦ 女性局長 1名 ◦ 青年局長 1名

第33條(運營) 事務處 및 教育院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規程은 따로 定한다.

附 則

第1條(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

- ① 常任委員會 2/3 以上の 議決을 거쳐 總會 代議員 過半數 以上議決로 清算委員會를 構成하여 處理한다.
- ② 殘餘財産의 處理는 類似團體에 寄附한다.

第2條(效力) 本 憲章은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한다.

晉州鄉校

晉州鄉校 定款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本 鄉校는 儒道精神에 基하여 道義의 闡明 倫理의 扶植 文化의 發展 및 公德의 作興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 鄉校의 名稱은 晉州鄉校(以下 鄉校)라 稱한다.

第3條(區域) 鄉校의 管轄區域은 晉州市 一圓으로 한다.

第4條(事務所) 鄉校의 事務所는 晉州市 鄉校路99-3, 鄉校 內에 둔다.

第5條(事業) 鄉校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 ① 文廟享祀
- ② 鄉校 및 儒道會의 維持管理
- ③ 學術 및 文藝의 研究普及
- ④ 教化 및 社會事業의 振興과 補助
- ⑤ 成均館으로부터 委任받은 事業
- ⑥ 其他 第1項 乃至 5項에 附隨되는 事業

第6條(事業管理) 鄉校는 第5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財産, 人事, 會計, 職制 等に 必要한 事項을 掌議會議의 議決로 한다. 但, 掌議會議의 議決로 財産을 處分할 수 있으며, 總會에 報告 하여야 한다.

第7條(賃貸料 및 手數料) 鄉校는 掌議會議의 議決을 거쳐 鄉校財産에 對한 賃貸料 및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時急을 要하거나 그 對象人員이 아주 적을 때에는 典校가 이를 決定 徵收하고 다음 總會나 掌議會議에 報告 하여야 한다.

第8條(總轄規程) 鄉校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成均館定款 儒道會憲章 및 關係規程의 範圍內에서 掌議會議의 議決에 依據 事業에 關한 總轄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2章 任員

第9條(定數) 鄉校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① 典校 1人
- ② 掌議 100人 以內
- ③ 監事 2人 以內

第10條(資格要件) ① 典校는 儒道會 晉州支部 會員이라야 하고 掌議를 歷任한 者 中에서 德望이 있고 鄉校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② 掌議는 儒道會 晉州支部 會員으로서 新規로 任命받고자 할 경우 習儀掌議를 거친 者로 한다.

③ 監事는 儒道會 晉州支部 會員이라야 하고 掌議職을 兼할 수 없다.

第11條(選出) ① 典校는 資格要件이 되는 者를 現任 典校가 推薦하여 元老會議에 附議하고 元老委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을 얻어 儒林總會에서 多數 得票者가 된다. 다만 競合推薦이 없을 때에는 競選하지 아니한다.

② 掌議는 典校가 選拔하여 在籍 元老委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新任 任員은 任期滿了 1個月 前까지 選出하여 成均館長에게 任命 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第12條 第3項에 依하여 選出된 者는 選出된 1個月 以內에 推薦하여야 한다.

第12條(任期) ① 典校의 任期는 3年 單任으로 한다. 但, 1年 未滿 補闕就任 時에는 例外로 한다.

② 掌議,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③ 補闕 就任한 任員은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13條(機能) ① 典校는 鄉校를 代表하며 鄉校內의 事務를 總轄하고 儒林總會 등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되며 表決權을 갖는다.

② 典校는 鄉校의 業務를 圓滑히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長 1人과 事務員을 두고 豫算의 範圍 內에서 最小限의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 鄉校에 儀典, 總務, 財務, 教化, 組織連絡, 涉外의 部署를 두고 典校는 掌議로 하여금 1個 部署의 業務를 管掌하도록 指定하고 다음 部署 別로 各1人의 首席掌議를 任命한다.

1) 儀典掌議는 文廟 虔奉 및 儀式事務를 管掌한다.

2) 總務掌議는 庶務, 人事, 企劃, 會議, 金錢出納, 豫算決算과 他 部署에 屬하지 않은 事務를 管掌한다.

3) 財務掌議는 基本財産管理 및 把握物品의 保管 出納 및 賃貸料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4) 教化掌議는 道義의 闡明, 倫理의 扶植, 文化의 啓發 및 기타 教化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5) 組織連絡掌議는 儒林의 組織과 連絡 沿革 등 制定 定款의 改正, 時到簿 整理 등

事務를 管掌한다.

- 6) 涉外掌議는 宣傳弘報 成均館과 儒道會 本部에서 配達되는 弘報物의 配布 등 事務를 管理한다.
- 7) 監事는 歲入歲出 豫算 其他 財産管理現況 및 事業運營을 監査하여 儒林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掌議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는 있으나 表決權은 없다.

第14條(代理) 典校 有故時는 儀典首席掌議가 職務를 代理하고, 儀典首席掌議도 有故時는 總務首席掌議가 代理한다.

第15條(顧問) ① 鄉校에 鄉校業務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5人 以內의 顧問을 둔다.

- ② 鄉校任員을 지낸 者 中 70歲 以上으로 學識과 德望이 豊富한 者를 典校가 推戴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는다.
- ③ 顧問의 任期는 典校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3章 元老會議

第16條(構成 및 召集) ① 鄉校의 重要業務遂行을 議決하기 爲하여 元老會議를 둔다.

- ② 元老會議는 元老委員과 典校, 儒道會 支部會長으로 構成하며, 元老委員은 鄉校 典校 및 儒道會支部會長을 歷任한 全員으로 한다.
- ③ 元老會議는 常任元老를 둘 수 있다.
- ④ 常任元老는 元老會議에서 元老委員 中 1名을 選出한다.
- ⑤ 元老會議는 典校 또는 常任元老가 召集한다.

第17條(議事定足數) 元老會議는 參席人員으로 成立하고 議事議決은 參席委員 3分の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第18條(議決事項) 다음 各 項의 事項은 元老會議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① 典校와 儒道會長의 立候補 資格者 承認
- ② 掌議選出

第19條(會議錄) 元老會議를 開催하였을 때는 다음 各 項의 顛末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

成하고 議長 및 會議參席者 2人과 記錄者가 署名 捺印하여 鄉校에 保管하여야 한다.

- ① 日時 및 場所
- ② 會議構成의 在籍數와 出席人員의 署名
- ③ 議決案件
- ④ 議事要領
- ⑤ 議決事項 및 贊否의 數
- ⑥ 其他 參考事項

第4章 儒林總會

第20條(構成) 儒林總會는 다음에 依하여 構成한다.

- 1) 元老委員 2) 顧問 3) 監事 4) 掌議
- 5) 儒道會支部任員

第21條(種類 및 召集) 儒林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 ① 定期總會는 年1回 2月中에 典校가 召集한다.
- ② 臨時總會는 典校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掌議在籍人員 3分の 2 以上の 召集要求가 있을 때 典校가 召集한다.

第22條(議事定足數)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하고 議事議決은 參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 다만 定款의 改正變更 및 其他規程의 制定議決은 在籍人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3條(議決權) 總會의 議決權은 1人 1票로 하며 代理人은 總會에 參席할 수 없고 代理權도 行事할 수 없다.

第24條(議決事項) 다음 各 項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를 얻어야 한다.

- ① 典校選出
- ② 定款의 變更 및 其他 規程의 制定

第25條(會議錄) 總會의 會議錄은 第19條 元老會議의 會議錄에 準하여 記錄 保管한다.

第5章 掌議會議

第26條(構成) 鄉校業務를 議決하기 爲하여 掌議會議를 둔다.

第27條(會議召集) ① 掌議會議는 典校가 召集하고 在籍掌議 過半數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도 召集하여야 한다.

② 會議는 在籍人員 過半數 參席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參席人員 過半數로 한다.

③ 典校는 可 否 同數일 때에는 可 否 議決權을 갖는다.

第28條(議決事項) 掌議會議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儒林總會에 回附할 事項
- ② 豫算과 決算 및 事業計劃과 事業報告에 關한 事項
- ③ 會費 등 贊助金 決意
- ④ 財産取得 處分 또는 借入에 關한 事項
- ⑤ 鄉校事業에 關한 制裁 및 建議
- ⑥ 儒林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⑦ 其他 鄉校 重要事務에 關한 事項

第6章 財政 및 會計

第29條(財産) 鄉校財産은 다음과 같다.

① 別途 財産目錄에 依한 不動産(大地 建物, 農耕地, 林野 等) 및 動産과 有價證券

② 前號의 財産으로부터 生하는 收入과 將來 他人으로부터 寄贈받을 金品 및 財産

第30條(財産의 分類) 鄉校財産 중 前條 第1項 目錄의 不動産 및 掌議會議의 議決로 基本財産에 編入한 財産을 基本財産으로 한다.

第31條(處分制限) 鄉校 基本財産은 讓渡, 抵當, 其他 方法으로 處分을 할 수 없다. 다만 鄉校의 維持發展上 不得已한 事情으로 掌議會議의 議決를 거쳐, 鄉校財産法 第8條 第1項 規程에 依據 慶尙南道 鄉校財團 理事長 經由, 慶尙南道知事의 許可를 得한 때에는 處分할 수 있다.

第32條(鄉校經費) 鄉校의 經費는 任員會費, 補助金 및 委託金, 基本財産에서 生한 果實 營林事業收入 贊助金 및 其他收入으로 支辨한다.

第33條(剩餘金) 每年度 決算 剩餘金은 掌議會의 議決로서 이를 基本財産에 編入할 수 있다.

第34條(缺損處分等) 鄉校의 缺損處分 權利拋棄 또는 起債 等を 하고자 할 때에는 掌議會議의 議決를 거쳐 慶尙南道 鄉校財團 理事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年度 內에서 償還할 起債는 掌議會議에서 專行한다.

第35條(會計年度) 鄉校의 會計年度는 1月1日에 始作하여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36條(豫算 및 決算) ① 鄉校는 歲入 歲出 豫算과 新年度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1個月 前 掌議會議의 議決을 거쳐 慶尙南道 鄉校財團 理事長에게 報告하고 次期 儒林總會에 報告한다.

② 鄉校의 歲入 歲出 豫算과 當該年度 事業實績 및 財産增減 等 綜合報告書를 作成하여 掌議會議의 議決을 거쳐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慶尙南道 鄉校財團에 提出하고 次期 儒林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7章 其他

第37條(忠孝教育院) ① 鄉校에서 運營하는 忠孝教育院 院長은 典校가 兼任하고 事務局長과 講師는 忠孝教育院長이 委囑한다.

② 忠孝教育院長과 事務局長, 講師는 豫算 範圍 內에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38條(賞罰) ① 本 鄉校 發展에 特別한 功이 있는 任員에 對하여는 元老會議와 掌議會議의 議決을 거쳐 表彰할 수 있다.

② 任員으로서 本 鄉校와 儒道會에 沮害行爲를 하거나 威信을 顯著이 失墜 시킨 者에 對하여는 元老會議와 掌議會議의 議決을 거쳐 一定期間 會議參席 停止나 除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典校의 權限으로도 除名 等 懲戒할 수 있다. 위에서 除名 等 懲戒하였을 때에는 이를 總會에 書面報告 하여야 한다.

- ③ 任員으로서 會議 및 行事に 連續 3回 以上 不參時 警告하고, 會議 및 行事に 계속 해서 4回 以上 無故 不參하거나 任員 會費를 1年 以上 未納時 自動的으로 任員資格을 喪失한다.
- ④ 懲戒에서 除名된 者는 앞으로 典校나 儒林代表 掌議 等に 薦舉될 수 없으며 儒教 新聞 등에 掲載回附 할 수 있다.

第39條(禮遇) 本 鄉校에서는 元老와 顧問을 特別禮遇 한다.

附 則

第1條 本 定款 施行 前에 選出된 任員은 本 定款에 依하여 選出된 것으로 한다.

第2條 本 定款은 孔紀 2566年(2015) 4月 22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社團法人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晉州支部定款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본회는 社團法人 成均館儒道會 總本部 晉州支部라 稱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경남 진주시 향교로 99-3 晉州鄉校 內에 둔다.

第3條(目的) 本會는 儒道精神에 基하여 道義의 闡明과 倫理의 扶植 文化의 發展 및 公德의 振興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組織) 本會는 다음과 같은 各級 組織을 둘 수 있다.

1. 本會의 傘下에 邑·面·洞 單位 支會를 둔다.
2. 本會의 傘下에 女性儒道會·青年儒道會를 둔다.

第5條(事業) 제3조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經營한다.

1. 本會 組織과 有關團體의 育成
2. 家庭文化再建을 위한 孝의 再定立과 實踐運動

3. 傳統文化의 繼承과 發展에 관한 事業
4. 其他 本會의 目的에 不합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第6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며 진주시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한다.

1. 鄉校와 儒道會를 出入하는 모든 儒林은 儒道會 會員이 될 수 있다.
2. 會員은 所定의 入會節次를 마치고 統一된 品階를 附與 받으며, 正식회원이 된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1. 會員은 會議를 통한 本會 運營에 參與 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第8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定款 및 諸規程을 遵守, 總會 및 各種會議의 議決事項을 履行하고 會費 및 諸負擔金을 納付 하여야 한다.

第9條(會員의 脫會) 會員이 本會에서 脫會하고자 할 때는 儒道會長에게 脫會書를 提出 하면 된다.

第三章 任 員

第10條(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둘 수 있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7人 以內
3. 支會長 읍, 면, 동 30人 以內
4. 監察委員 2人 以內 (委員長任命)
5. 女性儒道會長 및 青年儒道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6. 事務局長 1人
7. 組織部長, 事業部長, 弘報部長, 儀禮部長 各 1人

第11條(資格要件) 會長 및 副會長 監察은 儒道會 晉州支部 會員이라야 하며 德望이 있고 儒道會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第12條(選出) 1. 會長 및 副會長은 資格要件이 되는 者를 現任 會長이 推薦하여 晉州鄉校 元老會議에 附議하고 元老會員 3分の 2以上の 贊成을 얻어 儒林總會의 승인을 받는다.

2. 監察委員은 儒林總會에서 選出 한다.

3. 邑, 面, 洞支會長은 各 支會에서 選出한다.

第13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결원으로 補選된 任員은 前任者의 殘餘 기간으로 한다.

第14條(會長團 任務) 本會의 會長團(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責任을 진다.

2. 會長은 首席副會長을 指名 한다.

3. 首席副會長은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四章 機 構

第15條(機構) 本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둘 수 있다.

1. 儒林總會

2. 任員會議

3. 監察委員會

4. 事務局

5. 女性儒道會

6. 青年儒道會

第五章 會 議

第16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며, 定期總會는 매년 2月 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로 할 때 또는 任員 2/3 以上이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書面 要求가 있을시 20일 以內에 召集하여 開催한다.

第17條(總會의 構成) 總會의 構成 參席員은 다음과 같다.

1. 定款 10條의 任員 및 事務局長
2. 晉州鄉校 任員

第18條(總會의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中央委員會에 對한 權限 委任에 關한 事項
2. 中央委員會로부터 提請된 事項의 承認
3. 事業報告 및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4. 豫·決算에 關한 事項
5.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6.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7. 其他 重要事項의 決議

第19條(監察委員會) 監察委員會의 機能 및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業務 및 會計의 監査
2. 會長이 要求한 特別 監査
3. 各級 會議에 參席하여 監査 보고 및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第20條(女性儒道會) 各級組織(機構)에 女性部署를 두며, 女性組織의 效果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女性儒道會를 둔다.

第21條(青年儒道會) 各級組織(機構)에 青年部署를 두며, 青年組織의 效果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青年儒道會를 둔다.

第六章 財 政

第22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23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獻誠金, 其他 收入 및 事業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七章 褒賞 및 懲戒

第24條(褒賞) 本會發展에 顯著한 功이 있는 團體 및 個人에게는 褒賞 할 수 있다.

第25條(懲戒) 本會의 會員이 다음의 行爲를 하였을 때는 懲戒 할 수 있다.

1. 本會 定款 第8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나 總會 決議事項에 따르지 아니 하였을 때
2. 本會의 名譽를 毀損 하거나 業務를 妨害 하였을 때는 儒道會長의 權限으로 除名 等 懲戒 할 수 있다.

第八章 事務局

제26條(設置)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한 第14條의 事務局을 둔다.

第27條(職員) 事務局에 事務局長을 두며 사무국장은 會長이 任命 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기획·재산·재정관리·출납사무 등을 회장의 지시 및 결재에 의하여 처리한다.

第28條(運營) 事務局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規程은 따로 定한다.

부 칙

第29條(效力) 本 定款은 2015年 3月 2日 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충효교육원

진주시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 (시행일 : 2012.07.06)

(제정) 2005.04.25 조례 제0634호

(일부개정) 2007.08.09 조례 제754호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7.06 조례 제1022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과

연락처: 749-21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조상들의 전통윤리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건립하는 진주시충효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시 충효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진주시 향교로 99-1에 둔다. <개정 2012.7.6>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등 전통윤리·예절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기타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지원)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③ 시장은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반환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선정시 교육원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교육원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옥봉동 232-19번지”를 “향교로 99-1”로 한다.

진주시충효교육원 위·수탁 운영 협약서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충효교육원(이하 “충효교육원”이라 한다)을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진주향교와 (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충효교육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효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에 부합되게 충효교육원을

위·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시설) 위·수탁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진주시충효교육원
2. 소재지 : 진주시 향교로 99-1(옥봉동)
3. 부대시설 및 비품 : 별첨1 목록으로 하되 갑의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비품 등은 구입완료 후 추가 삽입

제3조(위·수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업무의 개시일은 2017. 1. 1 일로 한다.

- ② 위·수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③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내용) “을”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 조성목적과 부합된 사업
3. 기타 쌍방간에 협의한 사업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을”이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보수비

-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산관리) ① “갑”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위탁재산을 “을”에게 무상 사용허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 ②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해서는 안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임대, 교환행위
3. 시설물의 신설, 확장 또는 멸실행위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신축, 증축과 기계장비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기부채납 하여 위·수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및 비품의 관리) ① “갑”은 위·수탁운영기간 동안〔별첨 1〕의 부대시설 및 비품을 “을”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및 비품일체를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과목 등) 회계부기방식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의 방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장부 등 비치관리) “을”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현금출납대장
3. 시설설치 현황 관계서류 및 비품관리대장
4. 시설사용료 징수원부 및 관계서류
5. 시설물 안전관리 기록대장
6. 시설물 사용 참가자 명단 현황부
7. 기타 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 장부 및 관계서류 등

제11조(운영책임자 선임) “을”은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①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매분기 운영실적을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차년도 4/4분기 운영실적은 12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을 변경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감독) ①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수시 또는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위탁시설에 파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갑”의 시정 지시사항에 대하여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을”은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2.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3. 진주시재무회계규칙
4. 지방재정법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사업계획서 및 각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지침
7. 기타 관계법령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을”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을”은 위탁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제1항과 및 제2항과 관련한 변상을 위해 “을”은 협약체결 후 사업개시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대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시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각각의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예방 등) “을”은 위탁대상시설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에 따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민간위탁대상시설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배출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민간위탁대상시설 내에서 유해 물건 및 혐오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6. 기타 “갑”이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위·수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해 지시 “을”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및 기타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해지에 관하여 협의한 때
- ② 제1항에 의한 해지를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갑”에 속한 수탁재산(부대 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진주시에서 정한 본 민간위탁대상시설의 공식명칭 외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을”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 있을시 쌍방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진주시 고문 변호사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 ③ “을”은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민간위탁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운영전에 갖추어 협약서에서 정한 기한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약의 효력발생) ① 이 협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수탁 기간 중 쌍방간에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는 관련 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

2016년 11월 30일

“갑”(위탁자) : 진 주 시 장 이창희 (인)

“을”(수탁자) : 진주향교 전교 심동섭 (인)

경남유교대학

경남유교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대학은 경남유교대학이라 칭한다.(이하 대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학은 경상남도의 유림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인간의 윤리도덕 및 인의 예지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유림지도자와 계승세대 양성에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 대학은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99-3 진주향교 내에 둔다.

제4조(학무위원회) 본 대학의 학무와 운영을 위하여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운영

제5조(교육과정) 본 대학은 2년 과정으로 연간 42주 이내로 운영하며 1월과 8월은 방학으로 한다.

제6조(학년도) 본 대학의 학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학기는 2월1일~7월말이며, 제2학기는 8월1일~12월말까지이다.

제7조(교육장소) 본 대학의 교육 장소는 진주향교로 하고 특별한 경우 학무위원회가 선정한 곳으로 한다.

제8조(강의일시) 강의는 매주 토요일 1학년 10시~12시(2시간), 2학년 14시~16시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사초빙) 강사는 교과편성에 따라 대학 교수나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著書나 번역서가 있는 인사)를 초빙한다.

제3장 학생 모집

제10조(학생정원) 본 대학의 학생 정원은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200명 이내로 하되 운영 실정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 단, 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절차) 본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등록금(소정 금액을 1학년, 2학년으로 분납가능)

제13조(전형방법) 학무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서류반환) 입학이 허가된 자의 제출서류와 등록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학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등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
2.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다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
3. 제12조의 지원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사람

제4장 학사 관리

제16조(교과편성) 본 대학의 교과편성은 경남 유림 지도자로서의 폭넓은 식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편성하며, 교과 편성과 개정은 학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유학: 경진, 의례 등 유학 전반, 인문학 등
2. 현장교육: 성균관 및 향교, 서원 봉심, 유학 유적지 견학. 전통문화행사 등
3. 기타: 정보화, 서화 등

제17조(수료) 학생은 연간교육시간의 60% 이상의 출석자에 한하여 학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8조(정기방학) 1월과 7월은 방학을 실시한다.

제19조(임시휴강) 교육일이 석전제와 명절, 명절 전·후일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시 휴강 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청강) 특별한 주제에 대한 강의는 수강생 이외에 유림이나 일반인들이 청강을 할 수 있다.

제21조(퇴학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무회의에서 심사하여 퇴

학 및 제적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퇴학사유서 제출)
2. 연속해서 무단결석이 2개월 이상인 자, 또는 다른 이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위 1·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사유서가 인정될 때는 제적하지 않는다.

제22조(현장교육) 학장은 필요시 또는 학생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현장교육 및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1. 성균관 및 시범향교의 봉심
2. 유교문화 유적지 현지 견학
3.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등

제5장 학칙준수 및 상벌

제2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며 신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유림으로서의 인격도양에 힘써야 한다.

제24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한다.

제25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유교를 비방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일수가 현저히 많은 자

제6장 직제 및 학무회의

제26조(학장 및 부학장)

1. 학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운영 및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진다.
2. 학장은 진주향교 전교가 당연직으로 한다.
3. 부학장은 진주유도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27조(학무국장, 간사)

1. 학사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학무국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학장이 임명한다.

1) 학무국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무와 학생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2) 간사는 학무국장의 일을 보조한다.

2. 학무국장 및 간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교무회의) 교무회의는 학장, 부학장, 학무국장, 간사, 진주향교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음 사항은 심의 내용을 학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교과편성, 강사초빙, 교육운영,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표창, 징계, 퇴학, 제적에 관한 사항

3. 수입, 지출, 회계 감사, 규정 제정 및 변경사항

제7장 학생회 활동

제29조(학생회) 학생 상호간의 학업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학생회 회칙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0조(임원선출) 학생회의 임원편제는 학생회칙으로 정하며 임원은 학생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학생활동) 학생 또는 학생회가 다음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집회 또는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2. 간행물의 발간, 광고 또는 인쇄물의 배부

3. 학생회비의 징수 및 사용

4. 봉심, 현지견학, 수련회, 야유회, 등산, 체육대회 등

제8장 재정 운영

제32조(세입) 본 대학의 세입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수강생의 등록금
3. 임원 및 유림과 일반 독지가의 헌성금
4. 기타 수입금

제33조(세출) 세입 세출은 학장 책임 하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는 학장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한다.
2. 회계담당자는 수입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 수입 지출하고 현금출납부를 기재하며 통장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학무국장은 매월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학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대학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폭넓은 교육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아울러 미래 유림 사회를 선도하는 유림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남유교대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진주시 향교로 99-3 진주향교 내에 둔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학무위원회)

1. 본회는 경남유교대학의 교과과정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무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회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의 학무나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상임고문 약간 명을 둔다.
3. 학무위원장은 유도회진주지부 회장이 맡고 학무위원회 간사는 경남유교대학 학무국장이 맡는다.

제5조(위원 위·해촉)

1. 본회의 위원은 경남유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단체의 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발하며, 심사를 한 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촉된 위원이 타 지역 진출, 자진 사퇴 등 불가피한 사유와 위원으로서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한다.
3. 위촉직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학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임원 및 감사)

1. 본회의 위원장은 유도회 진주지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5. 감사는 대학 회계 및 사무 등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6.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집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협의 추진한다.
3. 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위원회 기능

제8조(기능)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본회의 회칙 및 대학의 학칙, 제정, 개정, 폐지
 - 2) 경남유교대학의 운영사업계획 및 예산 회계 결산 심의
 - 3) 경남유교대학의 교과편성, 강사초빙, 강의료 책정 등의 심의
 - 4) 경남유교대학의 운영자금 확보 및 조달
 - 5) 학생 등록금액 결정
 - 6) 임원의 위·해촉 등 의결
 -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2. 본회 위원은 업무상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9조(회의소집)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회의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족수)

1. 본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1조(의결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을 위·해촉 함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품 수수사항으로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

제12조(회의록 작성) 본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내용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3조(재정) 본 대학의 운영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수강생의 등록금
3. 임원 및 유림과 일반 독지가의 헌성금
4. 기타 수입금

제14조 (재정 운용)

1. 본 대학의 재정은 학장 책임하에 운용하며 예산상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차입할 수 있다.
2. 본 대학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는 학장이 지명하는 학무국장이 담당한다.
3. 감사는 재정운용을 감사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 및 대학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결산) 본회와 대학은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대학 학무지원

제17조(학무지원)

1. 진주향교, 유도회진주지부, 임원 및 회원은 수강생 모집, 교과 편성, 강사 초빙, 운용경비 조달 등 대학학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한다.
2. 대학의 학사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무국 등 지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무국의 직원의 보수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본회 위원의 회의 및 학사업무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강의료) 강사료는 강사초빙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한다.

제19조(위임규정) 경남유교대학의 설립운영, 조직과 학제, 교과편성,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회칙과 학칙) 회칙과 학칙의 제정과 변경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최초 개최된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 본회칙은 학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3월 10일자로부터 시행한다. 본회칙은 학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7월 21일자로부터 시행 한다.

全國鄉校 住所錄

향교명	주소	향교명	주소
서울특별시		경기도	
양천향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4	수원향교	수원시 권선구 교동 42
부산광역시		남양향교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 335
동래향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235	시흥향교	과천시 문원동 699
기장향교	양산군 기장면 교리 62	김포향교	김포군 김포읍 군하리 271
대구광역시		통진향교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221
대구향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4	강화향교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938
칠곡향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600	교동향교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
인천광역시		고양향교	고양군 벽제읍 고양리 306
인천향교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17	파주향교	파주군 파주읍 파주리 335
부평향교	인천광역시 북구 계산동 842	교하향교	파주군 금천읍 금릉리 356
광주광역시		포천향교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165
광주향교	광주시 서구 귀동 22	가평향교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51-2
대전광역시		양근향교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15
회덕향교	대전광역시 동구 읍내동 134	지평향교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343
진잠향교	대전광역시 서구 원내동 149-1	려주향교	려주군 려주읍 교리 261-1
울산광역시		이천향교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30-1
울산향교	울산시 중구 명륜동 117	광주향교	광주군 동부읍 교산리 227
언양향교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08	용인향교	용인군 구성면 언남리 335

향교명	주 소	향교명	주 소
양지향교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379	영동향교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77
안성향교	안성군 안성읍 명륜동 118	황간향교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50
죽산향교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314	진천향교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 15
양성향교	안성군 양성면 동향리 91	음성향교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56-1
평택향교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185	괴산향교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04
진위향교	평택군 진위읍 봉남리 167	연풍향교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590
연천향교	연천군 연천읍 차난리 235-7	청안향교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76
적성향교	춘천시 교동 27	충주향교	충주시 교현동 379
강원도		제천향교	제천시 교동 86
춘천향교	춘천시 교동 27	청풍향교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홍천향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4	단양향교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 삼37-1
횡성향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28	영춘향교	단양군 영춘면 상리 461
원주향교	원주시 명륜동 252	충청남도	
평창향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04	연기향교	연기군 남면 연기리 34
영월향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2	전의향교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149-1
정선향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5	공주향교	공주시 교동 211
강릉향교	강릉시 교동 233	노성향교	논산군 노성면 교촌리 308
삼척향교	삼척시 교동 566	연산향교	논산군 연산면 관동리 43
양양향교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은진향교	논산군 은진면 교촌리 77
간성향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4	부여향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45-1
인제향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8-2	임천향교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13
양구향교	양구군 양구읍 상일리	석성향교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647
철원향교	철원군 철원읍 하지리 99	홍산향교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화천향교	화천군 화천읍 하리 108	서천향교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15
충청북도		한산향교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389
청주향교	청주시 대성동 55	비인향교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169
문의향교	청원군 보은읍 미천리 252	보령향교	보령군 주포면 보령리 27-1
보은향교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283	남포향교	보령군 남포면 옥동리 9
회인향교	보은군 회북리 부수리 405	오천향교	보령군 오천면 대교리 515
옥천향교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2	청양향교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43-1
청산향교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69	정산향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16-2

향교명	주소	향교명	주소
홍주향교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39-1	고창향교	고창군 고괘읍 교촌리 246-1
결성향교	홍성군 결성읍 읍내리 586	무장향교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109
예산향교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32-1	홍덕향교	고창군 홍덕면 교운리 270-1
대흥향교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538	부안향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55
덕산향교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121	김제향교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39
서산향교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580	김구향교	김제군 금구면 금구리 509
해미향교	서산군 해미읍 오학리 226	만경향교	김제군 만경면 만경리 183-1
당진향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5-1	옥구향교	옥구군 옥구읍 상평리 626
과천향교	당진군 오천면 성상리 513	임파향교	옥구군 임파면 읍내리 538
아산향교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643	익산향교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390-3
온양향교	온양시 읍내 일동 209	함열향교	익산군 함라면 한열리 579
신창향교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320-1	용안향교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193-1
천안향교	천안시 류량동 190	려산향교	익산군 려산면 려산리 101
직산향교	천원군 직산면 군서리 164-1	전라남도	
목천향교	천원군 목천면 교촌리 124	나주향교	나주시 교동 32-1
금산향교	금산군 금산읍 상리 4	남평향교	나주군 남평면 교원리 290
진산향교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355	순천향교	순천시 금곡동 282
전라북도		락안향교	승주군 락안면 교촌리 222
전주향교	전주시 교동 일가 26-3	여수향교	여수시 군자동 165
고산향교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42	돌산향교	여수군 돌산읍 군내리 203
진안향교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27-1	해남향교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05
용담향교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358	무안향교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60-1
무주향교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65-1	지도향교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13
장수향교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담양향교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23
임실향교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12	창평향교	담양군 고서면 교산리 138
남원향교	남원시 향교동 512	화순향교	화순군 화순읍 교리 293
운봉향교	안원군 운봉면 산덕리 600	능주향교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328
순창향교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34	동북향교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846
정주향교	정주시 장명동 39-1	영광향교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393
고고향교	정읍군 고고면 고고리 168	곡성향교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
태인향교	정읍군 태인면 태성리	옥과향교	곡성군 옥과면 옥천리 15-1

향교명	주 소	향교명	주 소
광양향교	광양군 광양읍 우산리 590	경산향교	경산군 경산읍 신교동 10
보성향교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26	하양향교	경산군 하양읍 교동 158
영암향교	용암군 영암읍 교동리 352	자인향교	경산군 자인면 교촌리 48
강진향교	강진군 강진읍 동성동 691-1	청도향교	충도군 화양읍 교촌리 48
함평향교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0-1	고령향교	고령군 고령읍 예산동 131
고흥향교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209	성주향교	성주군 성주읍 예산동 131
장흥향교	고흥군 고흥읍 교촌리 4	인동향교	구미시 임수동 409-3
장성향교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109	선산향교	선산군 선산읍 교동
완도향교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850	금산향교	금천시 교동 437
진도향교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275	개령향교	금릉군 개령면 동부동 2
구례향교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473	지례향교	금릉군 지례면 교일리 739
경상북도		상주향교	상주시 신봉동 103-1
현풍향교	달성군 현풍면 상동리 584	함창향교	상주군 함창읍 교동리 304-1
군위향교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629	문경향교	문경군 문경읍 교촌리 404-1
의흥향교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217	예천향교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99-1
의성향교	의성군 의성읍 동산리 810	용궁향교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266
비안향교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87	영주향교	영주시 하망동 167
안동향교	안동시 송촌동	풍기향교	영풍군 풍기읍 교천리 147-1
예안향교	안동군 도산면 서부동 204	순흥향교	영풍군 순흥면 청구리 431-1
영양향교	영양군 일월면 도계동 228	봉화향교	봉화군 봉성리 267
청송향교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51-1	울진향교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진보향교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132	평해향교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 901
영덕향교	영덕군 영덕읍 화개동 160	경상남도	
영해향교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 24-1	진주향교	진주시 향교로 99-3
연일향교	포항시 효곡동 407	창원향교	창원시 소담동 433
청하향교	연일군 청하동 덕성리 190	마산향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549-6
홍해향교	연일군 홍해읍 옥성리 132	김해향교	김해시 대성동 224
장기향교	연일군 지해면 읍내리 203-1	사천향교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119
경주향교	경주시 교동 17-1	거제향교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626
영천향교	영주시 교촌동 46-1	통영향교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945
신영향교	영천군 신영면 화성동 525	밀양향교	밀양시 밀양읍 교동 733

향교명	주소	향교명	주소
양산향교	양산시 양산읍 교리 198	함양향교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794
의령향교	의령군 의령읍 서동 399	안의향교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148-2
함안향교	함안군 함안읍 봉성동 1319-2	거창향교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46
칠원향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299	합천향교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952-3
창녕향교	창녕군 창녕읍 교동 440	강양향교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311
영산향교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삼가향교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342
고성향교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270-1	초계향교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산 7
곤양향교	사천군 곤양면 송전리 355	제주도	
남해향교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586	제주향교	제주시 용담동 298
하동향교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1069	대정향교	남제주군 안덕면 사교리 312-1
산청향교	산청군 산청읍 지리 369-1	정의향교	남제주군 표선동 삼면 성읍리 820-1
단성향교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 595		

진주의 문화유적

문화재 기본 현황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문화재 자 료
	소계	국보	보물	천 연 기념물	사적	중 요 무 형 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133	20	1	10	2	2	1	4	60	36	9	14	1	53

- 국가지정 국보
- 국가지정 보물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 국가지정 사적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 경상남도지정 유형문화재
- 경상남도지정 무형문화재
- 경상남도지정 기념물
- 경상남도지정 문화재자료
- 전통사찰
- 테마문화
- 진주의 축제
- 관광명소

●국가지정 국보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靑谷寺 靈山會 掛佛幀)

- 지정번호 : 국보 제302호
- 제작년대 : 조선 경종 2년 (1722년)
- 소재지 :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 청곡사
- 크기 : 가로 6.4m 세로 10.4m

●국가지정 보물

단성석조여래좌상

(丹城石造如來坐像)

- 지정번호 : 보물 제371호
- 소재지 : 진주시 망경동 산 3(금선암)
- 시대 : 통일신라시대

용암사지부도(龍巖寺址浮屠)

- 지정번호 : 보물 제372호
- 소재지 :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19
- 시대 : 고려시대

효자리 삼층석탑(孝子里 三層石塔)

- 지정번호 : 보물 제379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48
- 시대 : 고려시대

차륜식토기(車輪式土器)

- 지정번호 : 보물 제637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가야시대

중완구(中碗口)

- 지정번호 : 보물 제858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조선 선조 23년 (1590년)

현자총통(玄字銃筒)

- 지정번호 : 보물 제885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조선 선조 29년 (1596년)

양촌응제시(陽村應制詩)

- 지정번호 : 보물 1090-1호
- 소재지 :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시대 : 조선 세조 8년 (1462년) 간행
- 규격 : 33×20.2cm

청곡사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

(靑谷寺木造帝釋天·大梵天倚像)

- 지정번호 : 보물 제1232호
- 소재지 :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번지
(청곡사)
- 시대 : 조선시대

김시민선무공신교서
(金時敏宣武功臣教書)

- 지정번호 : 보물 1476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169-17
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선조32년(1604년)
- 규격 : 세로 38.4cm× 가로 287cm
(본문 37.2× 222.5)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진주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晉州柳樹里 白堊紀 化石產地)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390호
- 시대 : 중생대 백악기
- 소재지 :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가화천일대
- 지층 : 경상누층군 신동층군 하산동층

진주가진리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晉州嘉津里 새발자국 및 恐龍발자국 化石地)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395호
- 시대 : 중생대 백악기
- 소재지 :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산6(경남과학교육원내)
- 지층 : 하양층군 함안층

●국가지정 사적

진주성(晉州城)

- 지정번호 : 사적 제118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본성동 일대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
(晉州平居洞 高麗古墳群)

- 지정번호 : 사적 제164호
- 소재지 : 진주시 평거동 산 44-2
- 시대 : 고려시대 (1079~1229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진주검무(晉州劍舞)

- 지정번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주시전통예술회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문산성당(文山聖堂)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35호
- 소재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58-1

진주옥봉성당(晉州玉峰聖堂)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154호
- 소재지 : 진주시 옥봉동 443
- 시대 : 1933년

남인수 생가(南仁樹 生家)

- 지정번호: 등록문화재 제153호
- 소재지: 진주시 하촌동 194-1

진주역 차량정비고

(晉州驛 車輛整備庫)

- 지정번호: 등록문화재 제202호
- 소재지: 진주시 강남동 245 (진주역내)
- 시대: 1925년

●경남도지정 유형문화재

김시민장군전공비

(金時敏將軍戰功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499-1
- 시대: 조선 광해군 11년(1619년)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00-1
- 시대: 조선 숙종 12년 (1686년)

쌍충사적비(雙忠事蹟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00-3
- 시대: 조선 정조 16년 (1792년)

용암사지석불(龍岩寺址石佛)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호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07
- 시대: 고려시대

청곡사 삼층석탑(靑谷寺 三層石塔)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청곡사)
- 시대: 고려시대

진주향교(晉州鄉校)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 소재지: 진주시 옥봉동 232-1
- 규모: 9동
- 창건년대: 고려 성종 6년 (987년)

청곡사 대웅전(靑谷寺 大雄殿)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1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청곡사)
- 시대: 조선 광해군 4년 (1612년)

삼선암 고려동종(三仙庵 高麗銅鐘)

- 높이: 64cm, 입지름 37.5cm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5호
- 소재지: 진주시 상봉서동 878(삼선암)
- 시대: 고려시대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平居洞 石造如來坐像)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7호

- 소재지 : 진주시 평거동 391(용화사)
- 시대 : 고려시대

박진영장군 유품(朴震英將軍 遺品)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
국립진주박물관
- 수량 : 231점

응석사 대웅전(凝石寺 大雄殿)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 소재지 :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김해김씨비각(金海金氏碑閣)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251
- 시대 : 대한제국시대

주자어류책판(朱子語類冊板)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광명각)
- 시대 : 1905년

동강선생문집책판

(東岡先生文集冊板)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 소재지 :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용강서당)
- 시대 : 일제강점기(1924)

이택당소장문집책판

(麗澤堂所藏文集冊版)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 시대 : 1800년대 말
- 수량 : 목판 1,452매
- 원소장처 :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이택당

진양부원군신도비

(晉陽府院君神道碑)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 소재지 :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오방재
- 시대 : 조선 태종 13년(1416)

두방사다층석탑(杜芳寺多層石塔)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 소재지 :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두방사)
- 시대 : 고려시대

고산암석조비로사나불좌상

(高山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6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한산사)
- 재료 : 화강암

태계선생문집책판

(台溪先生文集冊板)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1호
- 소재지 :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태계정사)
- 시대 : 대한제국시대(1900)

청곡사괘불함(靑谷寺掛佛函)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청곡사)
- 시대: 조선 경종 2년 (1722년)
- 크기: 677×32.8cm

청곡사금강역사상

(靑谷寺金剛力士像)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48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청곡사)
- 시대: 조선시대

청곡사영산회상도

(靑谷寺靈山會上圖)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49호
- 규모: 길이 410cm, 폭 273cm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청곡사)
- 시대: 조선 영조 26년 (1750년)

성전암목조여래좌상

(聖殿庵木造如來坐像)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0호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산31(성전암)
- 시대: 조선 인조 22년 (1644년)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3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00-8(진주성내)

- 시대: 조선 경종 2년 (1722년)

진주상대동 선조사제문비

(晉州上大洞 宣祖賜祭文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78호
-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592
- 시대: 조선 순조 21년 (1821년)

진주사곡리진양하씨송정종택소장고문서일괄

(晉州士谷里晉陽河氏松亭宗宅所藏古文書一括)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83호
- 소재지: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567
- 수량: 108점

응석사대웅전삼존여래좌상

(凝石寺大雄殿三尊如來坐像)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1호
- 소재지: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741 응석사
- 조성시기 조선 인조 21년 (1643년)

경상대학교소장정덕계유사마방목

(慶尙大學校所藏正德癸酉司馬榜目)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5호
- 수량: 1책(22장)
- 간행년도: 조선 중종 8년 (1513년)
- 크기: 32.3cm×20.0cm

진주단목리담산고택소장효행관련문헌
(晉州丹牧里澹山古宅所藏孝行關聯文獻)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8호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수량: 31점

진주단목리담산고택소장고문서
(晉州丹牧里澹山古宅所藏古文書)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9호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시대: 조선시대

진주연계재소장고문헌
(晉州蓮桂齋所藏古文獻)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4호
- 원소장처: 진주시 옥봉동 222-6 연계재
- 수록기간: 1617년~1910년
- 수량: 19점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문
천각

진주단목리단지하협종택소장고문서
(晉州丹牧里丹池河俠宗宅所藏古文書)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7호
- 작성시기: 16세기~18세기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문
천각
- 원소장처: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종택
- 수량: 126점

진주단목리하협종택소장사마방목
(晉州丹牧里河俠宗宅所藏司馬榜目)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8호
- 수량: 3책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문
천각
- 시대: 1588, 1660, 1790
- 원소장처: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종택

진주단목리단지하협종택소장정운원종
공신녹권

(晉州丹牧里丹池河俠宗宅所藏定運原從
功臣錄券)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9호
- 수량: 2책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문
천각
- 시대: 광해군 6년(1614)
- 원소장처: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종택

진주은열사강민첩영정

(晉州殷烈祠姜民瞻影幀)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53호
- 소재지: 진주시 옥봉동 622
- 시대: 조선 정조 14년 (1790, 건륭55)

진주연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晉州蓮華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62호

- 시대 : 조선후기
- 소재지 : 진주시 옥봉동 449-1 연화사
- 규격 : 전체높이 : 100.5cm, 어깨너비 : 55.5cm, 무릎폭 : 68.8cm
- 수량 : 1구

정문부농포집목판
(鄭文孚農圃集木版)

- 지정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7호
- 수량 : 191매 372장
- 시대 : 조선후기
- 소재지 :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

● 경상남도지정 무형문화재

한량무(閑良舞)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 171-1(진주시 전통예술회관)
- 보유자 : 김덕명(한량), 정행금(색시), 김연이(주모), 서정남(별감), 최금순(상좌)

장도장(은장도)(粧刀匠(銀粧刀))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460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

진주포구락무(晉州抛毬樂舞)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 보유자 : 정금순 박설자

진주교방굿거리 춤
(晉州敎坊굿거리 춤)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171-1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신관용류가야금산조
(申寬龍流伽倻琴散調)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171-1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 보유자 : 강순영

진주오광대(晉州五廣大)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 전수관 :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진주시전통예술회관)
- 보유자 : 배또문준

소목장(小木匠)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 지정일자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711-44(단원공방)
- 보유자 : 정진호

두석장(豆錫匠)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1호
- 소재지 : 진주시 신안동 457-3
- 보유자 : 정한열

●경상남도지정 기념물

진주옥봉고분군(晋州玉峰古墳群)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
- 소재지 : 진주시 옥봉남동 산546
- 시대 : 가야시대

강민첨탄생지(은열사)

(姜民瞻誕生址(殷烈祠))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14호
- 소재지 : 진주시 옥봉동 622
- 시대 : 고려시대

이충무공진배미유지

(李忠武公陣배미遺址)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16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717-18
- 시대 : 조선 선조 30년 (1597년)

오방산조선조팔각형고분군

(梧坊山朝鮮朝八角形古墳群)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 41호
- 소재지 :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산 166
- 시대 : 조선시대

효자리조선조팔각형고분군

(孝子里朝鮮朝八角形古墳群)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42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대천리
- 시대 : 조선시대

우수리방형고분군

(雨水里方形古墳群)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43호
- 소재지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66, 168
- 시대 : 조선시대

양정공하경복의 묘

(襄靖公河敬復의 墓)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53호
- 소재지 :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산59
- 시대 : 조선시대

진양정평리 무환자나무

(晋陽亭坪里 無患者나무)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96호
- 소재지 :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산3-2(응석사 뒤)

진양동례리 느티나무

(晋陽東禮里 느티나무)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108호
- 소재지 : 진주시 금곡면 동례리 1234-10

광제산봉수대(廣濟山峰燧臺)

- 지정번호: 경상남도 기념물 제158호
- 소재지: 진주시 명석면 덕곡(광제산)

진주상대동고분군

(晉州上大洞古墳群)

- 지정번호: 경상남도 기념물 제159호
-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산 3-2

의암(義巖)

- 지정번호: 경상남도 기념물 제235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73-1
- 시대: 조선 인조 7년 (1629년)

전 송대산성(傳 松臺山城)

- 지정번호: 경상남도 기념물 제 244호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산34-2번지 일대

진주신안동 정설부부 묘

(晉州新安洞 鄭舌夫婦 墓)

- 지정번호: 경상남도 기념물 제252호
- 소재지: 진주시 신안동 산 5
- 시대: 조선초기(1395년, 1423년)

●경상남도지정 민속자료

명석자웅석(鳴石雌雄石)

- 지정번호: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2호

- 소재지: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산 278

●경상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영남포정사 문루(嶺南布政司 門樓)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진주성 내

북장대(北將臺)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진주성 내

창렬사(彰烈祠)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진주성 내

서장대(西將臺)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진주성 내

의기사(義妓祠)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내

축석루(矗石樓)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내

남악서원(南岳書院)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2호
- 소재지: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817-1

고산정(孤山亭)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호
- 소재지: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431

동산재(東山齋)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호
- 소재지: 진주시 대평면 신평리 산 200
- 시대: 조선시대

충의사(忠義祠)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1호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

도통사(道統祠)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호
- 소재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724

용강서당(龍江書堂)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4호
- 소재지: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266-2

우곡정(隅谷亭)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5호
- 소재지: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326

마진리 이씨고가(麻津里 李氏古家)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6호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592

청원리 이씨고가(淸源里 李氏古家)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7호
- 소재지: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693-2

청곡사 업경전(靑谷寺 業鏡殿)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9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 (청곡사)

용호정원(龍湖庭園)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6호
- 소재지: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25-2번지의외
- 시대: 일제강점기(1922)

대천리입석(大川里立石)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7호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두문리 이정표석(斗文里 里程標石)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9호
- 소재지: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산 103-1
- 시대: 조선시대

냉정리 이정표석

(冷井里 里程標石)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0호
- 소재지: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472-1

- 시대 : 조선시대

부사정(浮査亭)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7호
- 소재지 :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659
- 시대 : 조선시대

계원리 고려고분(桂垣里 高麗古墳)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22호
- 소재지 :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산 164
- 시대 : 고려초

광제서원(廣濟書院)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23호
- 소재지 :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543
- 시대 : 조선시대

이현동 삼층석탑(二峴洞 三層石塔)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0호
- 소재지 : 진주시 이현동 대야고등학교 내
- 시대 : 신라말 고려초

상평동 석조여래입상

(上坪洞 石造如來立像)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1호
- 소재지 : 진주시 상평동 삼현여자고등학교 내
- 시대 : 고려초

박세항공신녹권 및 상서문

(朴世項功臣錄券 및 上書文)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2호
- 소재지 :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 시대 : 조선 선조 38년 (1605년)

청주한씨 판서공파고문서

(淸州韓氏 判書公派古文書)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5호
- 소재지 :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증 형조판서 김준민신도비 및 신도비각

(贈 刑曹判書 金俊民神道碑 및 神道碑閣)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06호
- 시대 : 1918년
- 소재지 :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629

진주 향안(晉州 鄉案)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07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조선 인조 12년 (1634년)

양금신보(梁琴新譜)

- 지정번호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08호
- 소재지 : 진주시 남성동 169-17(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 조선 광해군 2년 (1610년)

강태중소장 고문서

(姜泰中所藏 古文書)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09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169-17(국립진주박물관)
- 시대: 조선시대

벽오당 현판(碧梧堂 懸板)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11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 242-1(충의당내)

진주사곡리 진양하씨송정종택소장책판

(晉州士谷里 晉陽河氏松亭宗宅所藏册板)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7호
- 소재지: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567

비봉루(飛鳳樓)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
- 소재지: 진주시 상봉동 887-1
- 시대: 1939년

경상대학교소장 증도가

(慶尙大學校所藏 證道歌)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38호
- 제작시기: 조선중기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경상대학교)
- 크기: 32.3cm×20.0cm
- 수량: 1책

경상대학교소장 호구단자·준호구철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39호
- 작성시기: 1604~1831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경상대학교)
- 관련지역: 경남 산청, 하동, 고성 등
- 수량: 6점(170매)

경상대학교소장 청주한씨고문서

(慶尙大學校所藏 淸州韓氏古文書)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0호
- 수량: 84점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경상대학교)
- 작성시기: 18~19세기

진주대평 정용균효행문서 및 정려비

(晉州大坪 鄭龍均孝行文書 및 旌閭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1호
- 수량: 5매 1기
- 소재지: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산121
- 시대: 조선후기

대각서원(大覺書院)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4호
- 소재지: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518
- 지정일자: 2004년 3월 18일

진주평촌리 은헌고택

(晉州平村里 隱軒古宅)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5호

- 지정일자: 2004년 3월 18일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210
- 규모: 1곽 4동

진주단목리 담산고택소장 창주집책판
(晉州丹牧里 澹山古宅所藏 滄洲集册版)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8호
- 시대: 1939년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수량: 63매

진주단목리 담산고택소장 관포시집
(晉州丹牧里 澹山古宅所藏 灌圃詩集)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9호
- 수량: 1책
- 소재지: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시대: 조선 광해군 9년 (1617년)

박효근 효행관련고문서
(朴孝根 孝行關聯古文書)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0호
- 작성년도: 1868~1878년
- 수량: 18점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경상대학교)

진주옥봉경로당(晉州玉峰敬老堂)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9호
- 소재지: 진주시 옥봉동477-2
- 시대: 1934년

- 규모: 2동

진주원계리 밀양손씨경인보
(晉州元溪里 密陽孫氏庚寅譜)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8호
- 시대: 조선 숙종 36년 (1710년)
- 소재지: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 수량: 2책

영모재(永慕齋)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0호
- 시대: 조선시대(19세기)
- 소재지: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30

운수당(雲水堂)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1호
- 소재지: 진주시 금곡면 검암리 115-1

진주검암리 운수당하운묘석상
(晉州儉岩里 雲水堂河潤墓石像)

진주장흥리 숙종사제문비
(晉州長興里 肅宗賜祭文碑)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5호
- 건립년도: 1718년(숙종 44년)
- 소재지: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795

진주청원리 청계이세후종가
(晉州淸源里 淸溪李世后宗家)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14호
- 시대: 조선 헌종 2년 (1836년)
- 소재지: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418
- 규모: 9동

진양하씨 무인보

(晉陽河氏 戊寅譜)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15호
- 수량: 1책(39.0×23.0cm)
- 간행년도: 1698년경 간행 추정
- 소재지: 진주시 가좌동 900 국립경상대학교 문천각

진주오방리 오방재

(晉州梧坊里 梧坊齋)

- 지정번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35호
- 소재지: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469
- 규모: 3동

●전통사찰(傳統寺刹)

두방사(杜芳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35호
- 소재지: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325

응석사(凝石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61호
- 소재지: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734

의곡사(義谷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69호
- 소재지: 진주시 상봉동 415

호국사(護國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70호
- 소재지: 진주시 남성동(진주성내)

성전암(聖殿庵)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73호
- 소재지: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산 31

청곡사(靑谷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74호
- 소재지: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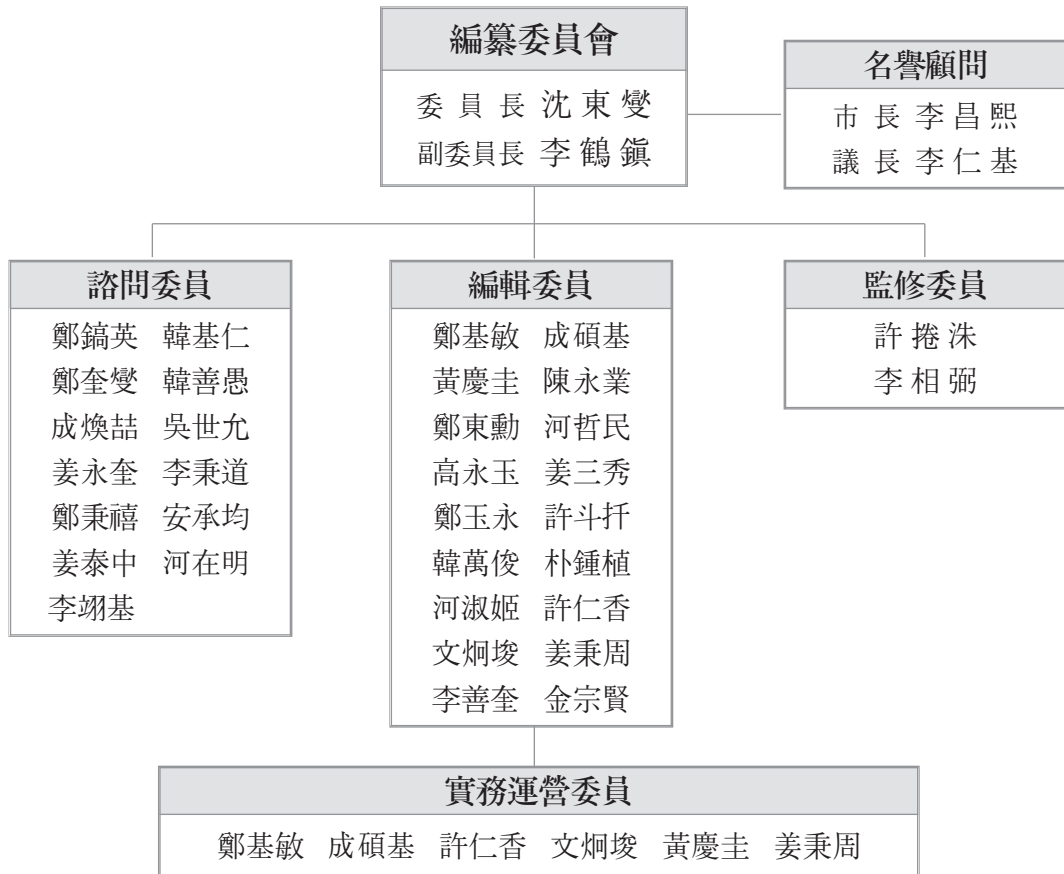
연화사(蓮華寺)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92호
- 소재지: 진주시 옥봉동 449

총림선원(叢林禪院)

- 지정번호: 전통사찰 제109호
- 소재지: 진주시 망경동 619

晉州鄉校誌 編纂委員會



편집후기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 회장 이학진

진주향교지 발간 작업은 전 유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심동섭 전교님의 열의에 진주시가 응답했고, 이에 원로님,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에 편찬위원회와 유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편찬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책의 목차가 정해지고, 편찬소위원회의 여러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진주향교지의 골격이 잡혔습니다. 원고작성에서부터 편집, 그리고 교정작업이 뒤이어졌고 마침내 천년 진주향교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진주향교지의 발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진주향교지 발간에 대한 모두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진주향교지를 발간하는 과정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주향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주향교가 걸어 온 길을 되짚으면서 오늘날 진주향교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미래의 진주향교가 걸어갈 길을 계획하는 뜻깊은 날들이었습니다.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허권수 교수님과 이상필 교수님의 감수는 든든한 힘이 되었고, 편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은 알찬 진주향교지 발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전으로 인해 충분한 자료를 보존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안타깝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찬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은 후일 진주향교를 사랑하는 유림들의 또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진주향교지 발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대품



9 788993 264722
ISBN 978-89-93264-72-2



93910